특 별 판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특별판

출처 및 공동 기여

영어 원본:	1830년판 조셉 스미스 2세
영어 연구본(Study Edition) 편집자:	그랜트 하디(Grant Hardy)
영어 연구본(Study Edition) 표지 그림:	브라이언 커시닉(Brian Kershisnik)
영어 연구본(Study Edition) 출판:	맥스웰 연구소 (브리검 영 대학교 소속)
	종교학회원 (브리검 영 대학교 소속)
	데저레트북 출판사
몰몬경 원문 한국어 번역:	2005년판 후기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한국어 특별판 추가 번역 감수:	케이씨 컨(KC Kern)
한국어 특별판 추가 번역 공동 참여:	최세진
	손현식
	김유겸
	차혜선
	김일수
	윤석주
	기디언 버틀러(Gideon Butler)
	새뮤얼 쇼트(Samuel Short)
	오스틴 둘라니(Austin Dulaney)
	티모시 베이커(Timothy Baker)
	엠케이 상갑(MK Sangcap)

「**몰몬경—특별판**」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출판물이 아닙니다.

이 편집본은 검토용으로만 제공되며 대량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정정할 사항을 발견하실 경우 KoreanBookofMormon@gmail.com으로 의견 주시면 확인 후 수정하겠습니다.

생성 날짜 및 시간: 2021–05–22 07:15

몰몬경에 대하여

몰몬경은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의 한 가지를 이룬 백성에게 (기원전 600년에서 기원후 400년 사이에) 행하신 일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성경과 같은 성스러운 경전이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복음을 담고 있다. 몰몬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모든 나라에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것이다.

몰몬경의 이야기는 주님의 명령으로 가족과 다른 몇 명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났던 **리하이**라는 히브리인 선지자 이야기로 시작된다. 리하이와 그의 아들들은 배를 지어 기원전 600년경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주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항해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 후 리하이의 가족은 번성했다. 그의 가족은 결국 둘로 갈라졌으며, 이들은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로 알려졌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의 땅에 선지자를 부르셨고 그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금속판에 기록하여 대대로 물려주었다.

몰몬경에서 절정을 이루는 사건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기원후 34년에 약속의 땅의 고대 주민을 방문하셔서 고대 예루살렘에서 전파하셨던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셨던 일이다. 그분은 또한 병든 자와 다리 저는 자, 눈먼 자 및 고통 받는 모든 이들을 고치셨다. 그분의 방문은 매우 큰 영향을 끼쳐 이후 200년 동안 백성들은 완전한 평화 속에서 살았다. 기원후 322년경 **몰몬**이라는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이 기록한 많은 고대의 기록을 하나의 **금속판**에 엮었다. 그들 중 충실한 신자들은 결국 모두 사라졌지만 그 전에 그들의 기록은 안전하게 숨겨졌다.

하나님께서는 1827년 **조셉 스미스 2세**를 금판으로 인도하셨다. 주님의 도움으로 조셉 스미스는 고대 기록을 오늘날의 영어 몰몬경으로 번역할 수 있었다. 성경과 함께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자 구속주임을 증거한다. 몰몬경은 스페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타갈로그어, 사모아어, 통가어 및 에피크어를 포함한 107개 언어로 출간되었다. 1830년 이후로 1억 4천 5백만 권 이상이 출판되었다.[1]

이 특별판에 대하여

몰몬경 한국어 특별판은 2019년 1월에 출판된 Maxwell Institute Study Edition을 기반으로 출간되었다. Maxwell Institute Study Edition은 브리검 영 대학교(Brigham Young University) 소속 맥스웰 연구소(Maxwell Institute)와 동일 대학 소속 종교연구학회(Religious Studies Center)가 자문과 감수를 맡았다. 편집과 인쇄는 데저레트북(Deseret Book)이 출판하였고 내용 편집자인 그랜트 하디(Grant Hardy)가 참여하여 공동으로 제작된 새로운 형식을 갖춘 몰몬경이다.

이 특별판은 후기성도판 몰몬경에 더 쉽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문단, 인용 부호, 시구문, 내용별 소제목, 위첨자 절번호 등과 같은 유용한 요소들이 이미 수 십년전부터 현재까지 일반 표준성경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제 이 특별판을 통해서 이러한 표기가 처음으로 몰몬경에서도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각주의 내용은 몰몬경에 조예가 깊은 후기성도가 최근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핵심적이고 엄선된 내용을 간략 명료하게 정리해서 몰몬경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주된 초점은 항상 몰몬경의 원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모든 요소들은 원문의 자구, 구성, 상호연결을 부각시켜서 몰몬경의 거룩한 메시지가 새롭게 이해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되었다.

장과 절을 나누는 방식은 공식 몰몬경과 동일하지만 추가적으로 내용을 기반한 소분류를 통해 가시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큰 활자로 된 소제목은 여러 장에 걸쳐 있는 내용(설교, 담화, 인용, 이차적인 이야기 등)의 시작과 끝을 나타낸다. 작은 활자로 된 소제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이야기를 무슨 주제로 하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구분해준다. 이들 각각의 소제목은 속해있는 내용을 사건의 추이와 원문의 구조에 따라 최대한 면밀하게 압축해서 전달하고자 한다. 독자들은 이 특별판을 읽을 때 추가된 소제목이 단지 내용을 근거로 한 글귀라는 것을 명심하고 제목 자체에 인증이나 권위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1] 이 도입부는 https://comeuntochrist.org의 내용에서 일부 개작됨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증언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의 출현에 대해 1838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1]

"1823년 구월 이십일일 저녁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힘을 다해 기도하며 간구하였다.

"내가 이같이 하나님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을 때, 나는 한 줄기 빛이 내 방에 깃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빛이 점점 퍼져 마침내 내 방은 한낮보다도 더 밝아지더니 홀연히 누가 내 침대 곁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때 그의 발이 마룻바닥에 닿지 않았으므로 나는 그가 공중에 서 있음을 알았다.

"그는 좀 늘어진 지극히 흰 성의를 걸치고 있었으며 그 흰색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것이었고, 세상에 그토록 희고 찬란한 것이 있다고는 믿기조차 어려운 것이었다. 그의 손은 드러나 있었고 손목 조금 위에까지 팔도 드러나 있었으며 발도 벗은 채였고 발목 조금 위까지 다리도 드러나 있었다. 또한 머리와 목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드러나 있었고 그가 입은 성의가 열려 있어 앞가슴이 들여다보였으며 그리하여 나는 그가 그 외에 다른 옷을 입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의 성의만이 그토록 흰 것이 아니라 그의 온 몸이 형용할 수조차 없이 희었으며 그의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났고 방이 그토록 밝은데도 그의 주변은 더욱 밝았다. 처음에 나는 그를 보고 두려워하였으나 곧 두려움은 내게서 물러갔다.

"그는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내게 보내진 천사 모로나이임을 밝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전하였으며, 나의 이름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모든 백성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리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 대륙의 옛 주민에 관한 기사와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는, 금판에 씌어진, 책이 묻혀 있다고 전하면서, 그 책에는 구주께서 친히 고대 주민들에게 전하신 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이 또한 실려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은테에 물린 돌 두개가 있는데—가슴판에 연결된 이 돌들은 우림과 둠밈이라 불리는 것을 이루며—판과 함께 묻혀있고, 이 돌들을 소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고대 곧 예전에는 선견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책을 번역 할 목적으로 이를 마련해 두셨다고 하였다.

"또 그는 말하기를, 자신이 말한 그 판을 내가 가지게 되면—이는 그 판을 얻게 될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나는 아무에게도 그것을 보여서는 안 되며, 우림과 둠밈이 달린 가슴판도 그러하되, 다만 그것들을 보여 주도록 내가 명령받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야 하고, 만일 그 외의 사람들에게 내가 보여 준다면 나는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판에 관하여 나와 대화하는 사이 내 마음 가운데는 시현이 열려 나는 판이 묻힌 곳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내가 그 곳을 찾아갔을 때 나는 바로 그 곳임을 알았다.

"이러한 교통 후에 내가 보매, 방안에 있던 빛이 내게 말씀하시던 분의 주위로 즉시 모이기 시작하더니 계속하여 그렇게 되다가, 이윽고 그의 바로 주위만 밝을 뿐 방안은 또다시 어두워졌다. 그러다가 홀연히 전과 같이 하늘 바로 위로 통로가 열리는 듯하더니 그는 올라가 드디어는 보이지 아니하였고, 방안은 다시 하늘의 빛이 깃들기 이전처럼 되었다.

"나는 누운 채로 그 특이한 광경을 마음에 두고 특별한 임무를 지닌 사자가 내게 전해 준 바를 크게 기이하게 생각하며 있었는데, 그러면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나는 내 방에 다시 빛이 들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과 같이 순식간에 바로 그 하늘의 사자가 다시 내 침대 곁에 있었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여 처음 방문 때 전하였던 말을 한 마디도 틀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시 전하였고, 그런 후에, 기근과 검과 역병으로 인한 큰 황폐로 큰 심판이 땅 위에 임하며 이 두려운 심판이 이 세대에 이 땅에 임하리라는 것을 내게 알려 주었다. 이 말을 마친 뒤 그는 다시 그전처럼 하늘로 올라갔다.

"이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받은 인상들이 내 마음에 깊게 새겨져 잠은 내 눈에서 달아나 버렸고 나는 보고 들은 일에 놀라워하며 압도되어 누워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자를 다시 내 침대 곁에서 보고, 그가

[1] 그림 출처: *조셉 스미스 2세*. 제리 하스턴(Jerry Harston)의 삽화

그전과 똑같은 말을 내게 반복하여 되풀이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더욱 놀라고 말았다. 그는 덧붙여 내게 주의를 주며 말하기를 (내 친가의 궁핍한 형편 때문에)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그 판을 취하도록 사탄이 나를 유혹하려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나에게 이를 금하면서 내가 그 판을 얻음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목적 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도 있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동기에도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세 번째 방문 후에 그는 그전처럼 다시 하늘로 올라갔고 나는 다시 내가 방금 겪은 기이한 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하늘의 사자가 세 번째로 내게서 떠나 올라간 거의 직후에 닭이 울었고, 나는 동이 트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우리의 대화가 밤새도록 계속되었음을 알았다.

"잠시 후에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평상시대로 해야 할 일을 하러 갔다. 그러나 다른 때처럼 일을 하려 하였을 때 나는 기력이 너무나 소진되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나와 함께 일하던 부친이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는 줄 알고 나더러 집에 가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집으로 가려는 생각으로 출발하였으나 우리가 있던 밭의 울타리를 지나려 하였을 때, 완전히 기진하여 땅에 쓰러졌으며,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했다.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첫 번째 일은 내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 말을 거는 음성이었다. 내가 쳐다보니, 바로 그 사자가 그전처럼 빛에 둘러싸여 내 머리 위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어서 그는 또다시 지난밤에 내게 전하였던 말을 모두 나에게 다시 말하고, 내 부친에게 가서 내가 받은 시현과 계명에 대해 말씀드리라고 내게 명했다.

"나는 순종하여 밭에 계시는 부친에게 돌아가 그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렸다. 부친은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시며 내게 사자가 명한 대로 가서 행하라고 하셨다. 나는 밭을 떠나 사자가 판이 묻혀 있다고 했던 장소로 갔고, 그에 관해 내가 보았던 시현이 뚜렷했던지라 나는 그 곳에 도착하자마자 그 자리를 알 수 있었다.

"뉴욕 주 온타리오 군 맨체스터 마을 인근에, 그 근방에서는 제일 높은 큼직한 산이 하나 있다. 정상에서 멀지 않은 이 산 서편, 큼지막한 돌 밑에 판이 있었는데 돌 상자 속에 놓여 있었다. 이 돌은 위쪽 중앙 부분이 두껍고 둥글며 가장자리로 갈수록 얇게 되어 있어서 그 중앙 부분은 땅 위로 드러나 보였지만 가장자리는 모두 흙으로 덮여 있었다.

"나는 흙을 치운 다음, 지렛대를 구해다가 돌 가장자리 밑에 고정시키고 약간의 힘을 주어 들어 올렸다. 안을 들여다보니, 정말 거기에는 사자가 말한 대로 판과 우림과 둠밈, 그리고 가슴판이 보였다. 이것들이 담겨 있는 상자는 일종의 시멘트로 돌들을 함께 쌓아 만든 것이었다. 상자 밑바닥에는 돌 두 개가 상자를 가로질러 놓여져 있고, 이 돌 위에 판과 또 다른 것들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꺼내려 하였으나 사자가 금하였으며 그것들을 꺼낼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그때로부터 사 년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다시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는 내가 그때부터 정확히 일 년 후에 그 곳에 와야 하며, 거기에서 그가 나를 만날 것이며, 판을 얻을 때가 오기까지 내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내게 말했다.

"따라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매 한 해가 다 되면 갔고, 매번 그 곳에서 같은 사자를 만났으며, 우리가 가진 모든 대화에서 주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또 어떠한 방식으로 마지막 날에 그의 왕국이 인도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 그로부터 가르침과 지식을 얻었다.

"드디어 판과 우림과 둠밈과 가슴판을 얻을 때가 이르렀다. 일천팔백이십칠년 구월 이십이일, 또 한 해가 다 되어 늘 하던 대로 그것들이 묻혀 있는 곳으로 가자, 바로 그 하늘의 사자가 다음과 같은 명령과 함께 그것들을 내게 내주었다. 즉 내가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만일 내가 소홀히 하거나 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태만하여 그것들을 잃는다면 나는 끊어버림을 당할 것이나, 그 사자가 이를 달라 할 때까지 내가 온 힘을 다하여 보전하려고 애쓴다면 그것들은 보호될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키도록 그처럼 엄한 당부를 받은 이유와 내가 내 손에 요구되는 일을 끝내면 그가 이를 가지러 오겠다고 한 이유를 곧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이를 내게서 빼앗아가려고 온갖 격렬한 수단이 다 사용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술책이 다 동원되었다. 핍박은 이전보다 더 혹독하고 격심해졌으며 수많은 무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것들을 내게서 빼앗아 가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사용하여 내게 요구된 일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은 내 손에 안전히 보관되었다. 약속된 대로 사자가 이를 가지러 왔을 때 나는 그것들을 그에게 넘겨주었고, 일천팔백삼십팔년 오월 이일인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를 간직하고 있다."

이로써 고대의 기록은 티끌에서 말하는 백성의 목소리처럼 땅에서 나와, 신성한 증언에 의해 입증된 대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써 현대어로 번역되었으며, 1830년에 영문판몰몬경으로 세상에 처음 출간되었다.

세 증인의 증언

이 책이 나아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니파이 백성과 또한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과 또한 이미 말한 탑에서 온 야렛 백성의 기록인 이 기록이 실려 있는 판을 보았노라. 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번역된 줄도 아노니, 이는 그의 음성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이 참된 줄 분명히 아노라. 또한 우리가 증언하노니 우리는 그 판 위에 있는 새긴 것을 보았고,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느니라.

또 우리가 진지한 말로써 선포하거니와, 하나님의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눈 앞에 놓으매, 우리가 그 판과 그 위에 새긴 것을 보았나니, 우리가 보고 이러한 것이 참됨을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것인 줄을 우리는 아노라. 또 이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할지라도, 주의 음성이 우리를 명하사 이를 증거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증언하노라.

또 우리가 알거니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면, 우리의 옷이 만민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게 될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흠 없는 자가 될 것이며, 하늘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게 되리로다. 영광이 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

여덟 증인의 증언

이 책이 나아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알게 하노니, 이 책의 번역자 조셉 스미스 2세는 이미 말한 금 같아 보이는 판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으며, 우리는 전술한 스미스가 번역한 판의 낱장을 우리 손으로 모두 만져보았고, 또한 그 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모두는 모양이 고대의 작품 같았고, 정교한 솜씨로 되어 있었느니라. 이에 전술한 스미스가 그 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진지한 말로써 증거하노니, 이는 우리가 보았고 또 들기도 해 보았으므로, 전술한 스미스가 우리가 말한 판을 가졌음을 분명히 앎이라.

또 우리가 본 것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밝히노라. 우리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그것을 증거하시느니라.

크리스찬 휘트머
하이럼 페이지
제이콥 휘트머
조셉 스미스 1세
피터 휘트머 2세
하이럼 스미스
존 휘트머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

조셉 스미스의 아내 에머 스미스의 증언

1879년 일리노이 나부에서 조셉 스미스 3세가 그의 어머니 에머 헤일 스미스를 인터뷰한 내용[1]

질문: 어머니, 몰몬이즘이 진정으로 참되다고 할 수 있나요?

답변: 나는 몰몬이즘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이 교회는 하늘에서 주시는 지시로 세워졌다고 믿고 있다. 나는 그 사실에 완전한 확신이 있다. 네 아버지[2]를 위해 받아적는 일을 했을 때 나는 자주 여러 날 계속해서 그 일을 했고 종종 탁자에서 네 아버지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네 아버지는 선견자의 돌이 들어 있는 모자 속에 얼굴을 묻은 채 앉아서 구술했다. 받아적는 수시간 동안 우리 사이에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3]

질문: 혹시 아버지께서 따로 원고나 책을 보고 구술한 게 아니었나요?

답변: 네 아버지는 읽고 구술한 어떤 원고나 책도 갖고있지 않았다.

질문: 혹시 그런게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못 보신 건 아닐까요?

답변: 그런 게 있었다면 내 앞에서 그걸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질문: 받아적으실 때 아버지께서 확실히 그 판을 갖고 계셨나요?

답변: 이따금 판을 숨기려 하지 않고 탁자 위에 놓아두었는데, 내가 준 작은 아마포 식탁보에 싸여 있었다. 한번은 그렇게 식탁 위에 놓인 판들을 손으로 만져서 모양을 느껴 본 적이 있었다. 판들은 두꺼운 종이처럼 휘어질 수 있는 것 같았고 책 가장자리를 만지듯 그 끝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보면 금속판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질문: 아버지와 올리버 카우드리 씨는 어디서 번역 작업을 하셨나요?

답변: 내가 일하고 있었던 방에서 그 작업을 했다.

질문: 아버지가 미리 써놓은 어떤 것을 기억했다가 불러줬든가 아니면 어떤 책들에서 본 내용을 기억해서 받아적게 했을 수도 있지 않나요?

답변: 조셉은 몰몬경 같은 책을 구술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편지 한 장 조리있게 쓰거나 받아적게 할 능력도 없었다. 나는 그때 일어난 일들에 깊이 관여하면서 판을 번역하던 그 시기에 그 자리에 몸소 있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다른 어느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내게도 그 일은 아직까지 '놀랍고도 기이한 일'[4]이다.

질문: 어머니도 금판을 들추고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답변: 나는 너한테 아까 말한 정도 이외에는 판들을 만져보거나 덮개를 벗기고 살펴볼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아는 것으로 만족했고,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계부[5] 비다먼의 참견: 혹시 스미스 씨가 판을 못 보게 한 거 아니었어요?

답변: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가 판을 가진 걸 알았지만 특별히 저는 호기심이 없었어요. 집안일을 하면서 판을 치워야할 때는 탁자 위에 여기저기로 옮겨 놓기도 했지요.

질문: 어머니, 몰몬경이 진짜라고 믿으시나요?

답변: 몰몬경은 하늘이 그 진실함을 증거해 준 책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것을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아무도 영감을 받지 않고서는 원고에 적힌 것을 구술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만족한다. 내가 네 아버지의 구술을 받았적는 일을 할 당시에는 여러 시간 나에게 받아쓰게 했다. 네 아버지가 식사를 하거나 잠시 중단했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원고를 살펴보거나 원고의 일부를 읽어 달라고 하지 않고도 자신이 중단했던 부분부터 바로 시작하곤 했다. 네 아버지는 늘 그렇게 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 아니었다. 하물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것은 솔직히 불가능했다.

---

[1] Saints' Herald지 26호 (1879년 10월 1일) 289~290쪽 [2] 조셉 스미스 2세 [3] 에머가 남편 조셉의 첫번째 서기였지만 현존하는 28%의 수기 원본에서 그녀의 친필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분실된 116쪽의 대부분은 에머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 [4] 이사야 29:14 참조 [5] 루이스 비다먼은 에머가 사별 후에 재혼한 남편이었다.

몰몬경에 대한 간단한 해설

몰몬경은 고대 백성들의 성스러운 기록으로서 금속 박판에 새겨져 있었다. 네 종류의 금속판이 이 경전 자체에서 언급되고 있다.

1. **니파이의 판**. 이에는 두 가지 즉 작은판과 큰판이 있다. 전자가 좀더 특별히 영적인 문제와 선지자들의 성역과 가르침을 주로 다루고 있는 반면, 후자는 대부분 관계되는 백성의 세속적 역사를 다루고 있다(니파이전서 9:2~4). 그러나 모사이야 시대부터는, 큰판에도 중요한 영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 **몰몬의 판**. 이것은 몰몬이 니파이의 큰판을 요약하고, 많은 주석을 더한 것이다. 여기에는 또한 몰몬이 계속하여 기록한 역사와 그의 아들 모로나이가 부가한 것이 들어 있다.

3. **이더의 판**. 이것은 야렛인들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다. 모로나이가 이 기록을 요약한 후, 자신의 말을 부가하였고 그 기록을 일반적인 역사와 합쳐서 "이더서"라 이름하였다.

4. **놋쇠판**. 기원전 600년에 리하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왔다. 여기에는 "모세의 다섯 책과 … 또한 태초로부터 유다 왕 시드기야 치세 초에 이르기까지의 유대인의 기록과 또한 …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니파이전서 5:11~13)이 실려 있다. 이사야와 그 외에 성경에 있거나 있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의 글이 이 판에서 많이 인용되어 몰몬경에 나오고 있다.

몰몬경은 열다섯 편 또는 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를 제외하고는, 이를 서라고 하며 각각 그 주된 저자의 이름으로 지칭하고 있다. 맨 앞부분은(맨 앞의 여섯 권으로 옴나이서까지) **니파이의 작은판**에서 번역된 것이다. 옴나이서와 모사이야서 사이에는 몰몬의 말씀이 삽입되어 있다. 이 삽입부는 작은판에 새겨진 기록과 **몰몬의 큰판 요약**을 연결해준다.

가장 긴 부분인, 모사이야서에서 몰몬서 제7장 끝까지는 **몰몬이 니파이의 큰판을 요약한 것**을 번역한 것이다. 완결 부분 곧 몰몬서 제8장에서 이 책 끝까지는 몰몬의 아들 **모로나이**가 새겼으며, 모로나이는 그의 부친의 생애의 기록을 완성한 후, **야렛 백성의 기록**의 요약을 만들고(이더서라 함), 모로나이서로 알려진 부분을 나중에 더하였다.

주후 421년경에, 마지막 니파이인 선지자이자 역사가였던 모로나이는, 성스러운 이 기록을 봉한 후, 하나님의 음성이 고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고하신 대로 후일에 이 기록들이 나아오도록, 주께로 감추었다. 주후 1823년 바로 이 모로나이가, 이때는 부활한 몸으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였고 뒤이어 그 새겨진 판을 그에게 넘겨 주었다.

목차

몰몬경에 대하여 i
이 특별판에 대하여 i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증언 ii
세 증인의 증언 iv
여덟 증인의 증언 iv
조셉 스미스의 아내 에머 스미스의 증언 v
몰몬경에 대한 간단한 해설 vi

몰몬경의 표제지 1

니파이의 작은판

니파이전서

니파이의 소개 5
리하이의 위촉 5
유대인들에게 한 리하이의 예언 6
광야로 떠나다 7
레이맨과 레뮤엘의 불평 7
니파이의 신실함과 축복 8
형제들이 놋쇠판을 찾기 위해 되돌아가다 9
놋쇠판을 얻기 위한 두번째 시도 9
니파이가 놋쇠판을 얻다 10
조램이 니파이와 그의 형제들과 합류하다 12
리하이의 가족이 재회하다 12
놋쇠판의 내용 13
니파이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 쓰다 14
이스마엘의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형제들이 돌아가다 14
광야에서의 반란 14
리하이의 꿈 (비유)
나무와 그 열매 16
강과 쇠막대와 크고 넓은 건물 16
니파이의 두 묶음의 판 18
리하이가 메시야에 대해 예언하다 18
리하이가 이스라엘의 집을 감람나무에 비유하다 (또 하나의 비유) 19
니파이가 스스로 알기를 간절히 원하다 19

니파이의 시현 (계시록)

니파이가 주님의 영과 대화하다 20
천사가 나무와 쇠막대의 의미를 설명하다 21
니파이가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성역(목회)을 보다 22
니파이가 예수님이 약속의 땅에 오심을 보다 22
니파이가 리하이의 후손들 중에 불신앙과 전쟁이 있음을 보다 23
니파이가 크고 가증한 교회를 보다 24
니파이가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방인들을 보다 24
니파이가 이방인들이 가진 유대인의 기록을 보다 25
천사가 니파이에게 복음의 회복에 대해 말하다 26
니파이가 후에 나아오게 될 추가적인 기록을 보다 26
천사가 니파이에게 이방인들이 회개할 수 있음을 확신시키다 27
니파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성약을 이루시는 때에 있을 두 교회를 보다 28
니파이가 사도 요한을 보다 28
주님께 물음 29
니파이가 감람나무의 비유를 설교하다 30
니파이가 나무, 쇠막대, 그리고 강에 대해 설명하다 31
진리는 간악한 자들에게 심하다 32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하다 32
리아호나를 가지고 광야를 여행하다 32
니파이의 활이 부러지다 33
이스마엘의 죽음 34
모반과 회개 34
풍요의 땅을 향하여 34
니파이에게 배를 지으라 명하시다 35
니파이의 형제들이 불평하다 36
니파이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다 36
니파이가 그의 형제들을 꾸짖다 38
배를 준비하다 39
약속의 땅으로 항해하다 40
두 종류의 판 41
그리스도에 대한 지노크, 니움, 지노스의 예언 42

니파이가 이사야의 말을 읽고 해석하다

이사야 말씀에 대한 소개 43

니파이가 이사야서 48~49장 인용하다

예언의 말씀이 완고함을 꺾을 것이다 43
주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시다 45
주님의 종 46
바다의 섬들에게 주는 임무 47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 48

니파이가 이사야서와 지노스서의 말을 해석하다

이방인에 의한 이스라엘의 분산과 집합 50
의로운 자들은 다가올 멸망에서 보전될 것임 51

니파이후서

리하이의 마지막 말

리하이가 약속된 땅에 대해 예언하다 . . . 53
리하이가 아들들을 훈계하다 . . . 54
리하이가 레이맨, 레뮤엘 그리고 조램에게 주는 당부 . . . 56
리하이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다 . . . 56
리하이가 그의 아들들에게 타락과 선택의지에 대해 가르침 . . . 57
리하이가 아들 요셉에게 애굽의 요셉이 한 말을 인용하다 . . . 58
니파이가 요셉의 예언에 대해 평하다 . . . 60
레이맨과 레뮤엘의 자녀들에 대한 리하이의 축복 . . . 61
리하이의 마지막 축복과 죽음 . . . 61
니파이의 시편 . . . 62

니파이와 그의 무리들이 도망하다 . . . 65
니파이인들이 번성하다 . . . 65
레이맨인들이 저주를 받음 . . . 66
니파이의 작은 판 . . . 66

야곱의 설교

니파이가 쓴 소개 . . . 67

첫째날: 야곱이 이사야서를 해석하다

이방인과 성약의 백성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 . . 67

야곱이 이사야서 50:1~52:2 인용하다

이스라엘의 간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 . . 69
주님의 종이 자신이 받을 모욕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을 말하다 . . . 69
시온을 위한 위로 . . . 70
깰지어다, 예루살렘이여 . . . 72

야곱이 부활과 심판에 대해 설명하다 . . . 73
공의, 자비 그리고 율법 . . . 75
10가지 화 . . . 75
야곱이 기억하도록 그의 백성들을 권면하다 . . . 76
야곱이 이사야서 55:1~2 인용하고 해석하다 . . . 77

둘째날: 야곱이 그의 설교를 끝내다

야곱이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다 . . . 78
이방인과 약속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 . . 79
야곱의 확언: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내셨음이라 . . . 79

그리스도의 증인 . . . 80

니파이가 이사야서 2~14장 인용하다

주님의 집의 산 . . . 81
주님의 날 . . . 81
유다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다 . . . 83
시온의 딸들을 심판하시다 . . . 84
새롭게 거듭날 예루살렘 . . . 85
포도원의 노래 . . . 85
다가올 환란과 심판 . . . 86

임박한 침략 . . . 88
이사야의 임무 . . . 89
아하스 왕에게 삼가며 조용하라 하시다 . . . 90
임마누엘의 표적 . . . 91
앗수르에 의한 파멸 . . . 91
닥쳐올 앗수르 침략을 암시하는 이사야의 아들 . . . 92
어둠에서 평강의 왕의 빛으로 . . . 93
주께서 노하시다 . . . 94
주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인 앗수르 . . . 96
주께서 앗수르 왕에게 심판을 내리시리라 . . . 96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 . . 97
주께서 앗수르군을 멸하시리라 . . . 98
구원으로 얻어질 평화 . . . 99
이스라엘의 집합 . . . 99
두가지 찬양 . . . 100
바벨론을 향한 진노의 예언 . . . 101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 . . 103
주께서 바벨론 왕을 심판하시리라 . . . 103
앗수르를 향한 진노의 예언 . . . 105
블레셋사람들을 향한 진노의 예언 . . . 106

야곱과 이사야의 말에 대한 니파이의 해설

니파이가 이사야의 말을 설명하다 . . . 106
니파이가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에 대해 예언하다 . . . 107
그리스도와 니파이인의 기록 . . . 108
그리스도와 모세의 율법 . . . 109
그리스도와 니파이인들 . . . 109
그리스도와 이방인들 . . . 110
마지막 날의 리하이의 자손 . . . 110
마지막 날의 이방인들 . . . 111
주께서 권하시고 명하시다 . . . 111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는 나라들 . . . 112
봉해진 책 . . . 113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 . . 114
미래에 대한 희망 . . . 115
니파이가 마지막 날에 본 타락한 교회에 대해 말하다 . . . 116
악마의 왕국 . . . 117
앞으로 있을 화에 대한 선포 . . . 117
주께서 성경과 추가 경전에 대해 말씀하시다 . . . 118
리하이의 자손, 이방인들과 유대인에 대하여 . . . 120
메시아의 시대 . . . 120

니파이의 결론: 그리스도의 교리

꼭 전해야 할 몇 마디 . . . 121
침례와 성신 . . . 122

끝까지 견디라 . . . 122
그리스도의 말씀 . . . 123
기도 . . . 124
니파이가 그의 기록의 참됨을 단언하다 . . . 124
니파이의 작별 인사 . . . 125

야곱서

야곱의 소개 . . . 127
니파이의 후계자 . . . 128
야곱이 성전에서 한 설교의 소개 . . . 128
야곱이 성전에서 한 설교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책망하다 . . . 129
야곱이 부와 교만을 경고하다 . . . 129
야곱이 일부다처를 정죄하다 . . . 130
야곱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말하다 . . . 131
야곱이 레이맨인들을 본보기로 언급하다 . . . 132
야곱이 언젠가 읽을 독자들에게 쓴 말
금속 판에 글을 새기는 고충과 받게 될 기쁨 . . . 133
강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예언에 관한 지식 . . . 133
예언과 유대인 . . . 134
야곱이 지노스의 감람나무 비유를 인용하다
첫번째 포도나무의 부패와 치유 . . . 135
두번째 치유 . . . 135
잘 가꾸어진 포도원 . . . 136
두번째 부패 . . . 137
세번째 치유 . . . 139
마지막 노력을 위한 계획 . . . 140
다시 한번 잘 가꾸어진 포도원 . . . 140
세번째 부패와 포도원의 최후에 대한 예언 . . . 141
야곱의 지노스의 비유에 대한 설명과 작별 인사 . . . 141
시렘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가르치다 . . . 143
레이맨인과의 관계 . . . 144
야곱이 기록을 끝맺으며 이노스에게 판을 맡긴 후 작별을 고하다 . . . 144

이노스서

이노스의 개심 . . . 147
레이맨인들과 니파이인들 . . . 148
이노스의 작별 인사 . . . 149

예이롬서

예이롬의 행적에 대한 소개 . . . 151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나날이 번성하다 . . . 151

옴나이서

옴나이 . . . 153
애메이론 . . . 153
케미시 . . . 153
아빈아돔 . . . 154
아멜레카이가 모사이야 왕과 제이라헤믈라 백성에 대해 기록하다 . . . 154
아멜레카이가 베냐민 왕에 대해 기록하다 . . . 155
원정대가 니파이 땅으로 가다 . . . 155

몰몬의 해설

몰몬의 말씀

니파이의 작은 판 . . . 159
베냐민 왕의 업적 . . . 160

몰몬이 요약한 니파이의 큰 판 기록물

모사이야서

베냐민 왕이 그의 아들에게 가르치다 . . . 163
베냐민 왕이 모사이야에게 왕국을 맡기다 . . . 164
베냐민 왕의 설교
백성이 성전에 모이다 . . . 165
베냐민 왕이 그의 업적을 회상하다 . . . 165
하나님 섬기기 . . . 166
베냐민 왕이 그의 통치를 마치다 . . . 167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을 훈시하다 . . . 168
베냐민 왕이 그리스도에 대한 천사의 예언을 전하다 . . . 169
천사가 타락과 속죄에 대해 설명하다 . . . 170
천사가 주님의 경고로 예언을 끝맺다 . . . 171
백성의 반응 . . . 171
구원을 받을 자 . . . 172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 . . 172
베냐민 왕이 구걸하는 자에 대해 말하다 . . . 173
백성이 믿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다 . . . 174
그리스도의 자녀 . . . 175
이름들이 기록되고 모사이야가 왕으로 성별되다 . . . 175
모사이야가 그의 통치를 시작하다 . . . 176
리하이-니파이 땅에 거하게 된 니파이 정착민들에 대한 기록
수색대 . . . 176
림하이 왕과의 면담 . . . 177
림하이가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역사를 상술하다 . . . 177

암몬이 림하이 백성에게 제이라헤믈라에서의 일을 말하다 179
야렛인의 기록과 니파이인 선견자 179
지니프 백성의 역사 (회상 장면)
지니프 개인의 기록
힘으로 점령하려던 시도의 실패 181
레이맨 왕과의 조약 181
레이맨인과의 첫 번째 전투 182
번영과 전쟁을 위한 준비 183
전쟁을 위해 두 번째로 올라가다 183
레이맨인의 전통 184
니파이인들의 승리 184
간악한 왕 노아 185
레이맨인들과의 갈등 186
선지자 아빈아다이 186
아빈아다이가 멸망을 예언하다 187
아빈아다이가 체포되고 고발당하다 188
아빈아다이의 재판
아빈아다이가 이사야서 52:7~10에 대해 질문 받다 188
노아 왕의 제사들이 아빈아다이에게 질문받다 189
아빈아다이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 190
십계명 190
모세의 율법 192
아빈아다이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다 192
이사야서 52장~53장에 대한 아빈아다이의 해석
아버지이자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194
그리스도의 자손 195
첫번째 부활 196
구속과 심판 197
앨마가 아빈아다이의 말을 믿다 198
아빈아다가 죽임 당하다 198
앨마가 아빈아다이의 일을 계속하다 199
앨마가 침례를 주다 199
앨마가 교회를 세우고 제사를 성임하다 200
앨마의 백성들이 도망가다 201
기드온이 노아 왕의 목숨을 살려 주다 202
노아 왕의 백성이 속박되다 202
노아 왕의 사람들이 돌아오다—노아 왕이 죽임을 당하다 203
레이맨인들과의 평화 203
납치된 레이맨인들의 딸들 204
림하이가 생포된 레이맨 왕에게 질문하다 204
기드온과 림하이가 평화를 되찾다 205
고난과 패배 205
겸손과 그로 인해 받은 구제 206

림하이에게 발견된 암몬과 그의 동행자들 207
림하이가 보낸 수색대에 관한 두 번째 기록 207
과거에 대한 슬픔과 미래에 대한 계획 207
림하이 백성이 탈출하여 제이라헤믈라로 돌아가다 208
그동안 진행된 앨마의 백성에 대한 기록 (회상 장면)
앨마와 그의 백성이 노아 왕의 군대로부터 도망치다 209
앨마가 왕이 되기를 거절하다 209
몰몬이 주께서 왜 그의 백성을 시험하시는지 설명하다 210
앨마의 백성이 속박되다 210
노아 왕의 제사장들이 레이맨인들을 가르치다 211
앨마의 백성이 핍박받고 위로받다 212
주께 건지심을 입은 앨마의 백성 212
제이라헤믈라에서 재결합하다 213
제이라헤믈라에 교회가 세워지다 214
믿지 않는 젊은이들 214
교회의 징계를 결정하는 고민 215
앨마가 교회를 바로잡다 216
핍박의 종결 217
앨마의 아들와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천사로부터 꾸짖음을 받다 217
앨마의 회복을 위한 기도 218
앨마의 고백 218
앨마와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교회를 강화시키다 219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레이맨인들을 찾아 전도하기를 원하다 220
모사이야가 림하이 백성이 찾은 판을 번역하다 220
모사이야가 아들 앨마에게 기록을 맡기다 221
왕정에 대해 모사이야 왕이 백성들에게 보낸 기록 221
군주 정치의 끝—앨마가 대판사로 임명되다 224

앨마서

몰몬이 요약한 앨마의 기록
니허가 사제술을 도입하고 기드온을 살해하다 225
교회의 난관들 226
평화를 되찾은 후에 교회가 번영하다 227
애믈리싸이인들의 반란
애믈리싸이가 왕이 되지 못하다 228
애믈리싸이와 그의 추종자들이 니파이인들과 다투다 228
니파이인들이 기드온 골짜기 근처에서 애믈리싸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을 물리치다 . . 229
애믈리싸이인들이 레이맨인들의 저주를 자초하다 230
레이맨인들과의 또 다른 전투 231
회개와 평화 232
교만이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다 232
앨마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판사직을 사임하다 233

앨마의 설교 순회

제이라헤믈라에서 앨마가 한 설교

너희 조상들을 건져 내심을 기억하라 234
심판날을 상상하라 235
회개하고 준비하라 236
선한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 237
앨마의 간증 237
영의 말씀 238
악행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238
선한 목자를 따르고 싶은 자들에게 239
제이라헤믈라에 있는 교회 239
앨마가 기드온으로 가다 240

기드온에서 앨마가 한 설교

기드온 사람들을 향한 앨마의 소망 240
앨마가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다 241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 242
앨마의 소망이 이루어지다 242
앨마가 마지막으로 한 권유와 축복 243
밀렉 땅에서 앨마가 설교하고 침례를 주다 243
앨마가 앰몬아이하 땅에서 쫓겨나다 244
천사가 앨마에게 앰몬아이하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하다 244
앰율레크가 앨마의 설교에 동참하게 되다 245

앰몬아이하에서 앨마와 앰율레크가 함께 한 설교들

앰몬아이하 사람들의 불신 246

앰몬아이하에서 앨마가 한 설교

앨마가 주께서 조상들을 건져 내심을 상기시키다 246
앨마가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을 비교하다 247
앨마가 천사의 말을 인용하다 248
앰몬아이하 사람들의 반응 249

앰몬아이하에서 앰율레크가 한 설교

앰율레크가 군중에게 천사와 앨마의 말을 증거하다 249
율법사들이 앨마와 앰율레크를 멸하려 하다 250
앰율레크가 율법사들을 질책하다 251
앰율레크의 말이 왜곡되다 251
니파이인들의 법률 제도와 화폐 제도 (몰몬의 여담) 252
지에즈롬이 앰율레크를 심문하다 253
앰율레크가 부활을 설명하다 254
앨마가 지에즈롬의 거짓된 마음을 드러내다 255
앨마가 부활과 심판에 대한 지에즈롬의 질문에 답하다 255
앤티오나가 아담의 타락에 대해 앨마를 심문하다 257

앨마가 앤티오나에게 한 대답

앨마가 구속의 계획을 설명하다 257
앨마가 제사들의 성임을 설명하다 258

앨마가 멜기세덱의 모범을 언급하다 259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 260
대판사 앞에 끌려온 앨마와 앰율레크 261
믿음을 가진 남편들이 쫓겨나고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이 죽임당하다 261
옥에 갇힌 앨마와 앰율레크 262
앨마와 앰율레크가 건져내심을 입다 263
앨마와 앰율레크가 사이돔 땅으로 가서 쫓겨난 신도들을 만나다 263
지에즈롬이 치유되다 264
앨마가 사이돔에서 교회를 세우고 앰율레크를 제이라헤믈라로 데리고 가다 264
앰몬아이하가 멸망되고 포로들이 해방되다 265
앨마와 앰율레크와 다른 사람들이 온 땅에 두루 교회를 세우다 266
모사이야의 아들들의 선교 여행기 (회상 장면)
앨마가 레이맨인땅으로 돌아오는 모사이야의 아들들을 만나다 267
회상 장면의 시작: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선교여행을 떠나다 267
이스마엘 땅에 거하는 암몬
암몬이 이스마엘 땅으로 가다 268
암몬이 왕의 양 떼를 방어하다 269
라모나이 왕의 종들의 증언 270
암몬이 왕에게 돌아가다 271
암몬이 라모나이 왕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272
라모나이 왕이 영에 압도되어 쓰러지다 273
왕후가 암몬을 부르다 273
왕, 왕후, 암몬과 다른 종들도 영에 압도되어 쓰러지다 274
에이비시가 백성들을 부르다 274
압도되어 쓰러진 사람들이 의식을 되찾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다 . . . 275
암몬과 라모나이 왕이 믿도나이 땅으로 가다 276
암몬과 라모나이가 온 땅의 왕이 된 라모나이의 아버지를 만나다 276
암몬과 라모나이가 암몬의 형제들을 구하다 278
예루살렘과 믿도나이 땅에서 전도하는 아론
아론이 예루살렘 성에서 전도하다 278
아론과 그의 형제들이 옥에 갇혔다가 구출되다 279
암몬과 라모나이가 이스마엘 땅으로 돌아가다 279
아론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인 라모나이의 아버지를 니파이의 땅에서 가르치다 . . . 280
왕이 압도되어 쓰러진 후 일으켜지다 281
약속의 땅의 지형과 지리 (몰몬의 여담) 282
모사이야의 아들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왕의 선포 283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의 기원 283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이 평화주의를 택하다 284
앤타이-니파이-리하이 왕의 연설 285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이 그들의 무기들을 묻다 286
저항없이 도륙된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을 보고 레이맨인들의 일부가 개종되다 . 286
앰몬아이하가 멸망을 당하다 287
앰율론과 노아의 다른 제사들의 자손들 287

더 많은 레이맨인들의 개종 288
암몬이 선교활동의 성공에 기뻐하다 288
암몬이 하나님을 자랑하다 289
암몬이 그 선교사들의 개심과 그동안 한 일을 이야기하다 290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이 니파이인들의 땅으로 도피하다 291
앨마가 모사이야의 아들들을 만나는 또 하나의 이야기 292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에게 여어숀 땅이 주어지다 293
격렬한 전투 294
멸망에 대한 앨마의 정리 294
선교사업에 대한 앨마의 묵상 295
제십육년과 제십칠년의 평화 296
적 그리스도인 코리호어 296
코리호어와 긷도나 297
코리호어와 앨마 298
코리호어가 표적을 요구하다 299
코리호어의 최후 300

앤티오늄에 사는 조램인들에게 간 앨마

조램인들을 위한 선교활동 301
조램인들의 예배방식 302
조램인들에 대한 앨마의 기도 302

가난한 조램인들을 향한 앨마의 설교

가난한 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진 말씀 304
믿음과 겸손에 대한 앨마의 말 305
앨마가 신앙을 비유로 설명하다 306
앨마가 기도에 대한 선지자 지노스의 말을 인용하다 307
앨마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다 309

앰율레크가 가난한 조램인들에게 한 설교

앰율레크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을 설명하다 310
앰율레크가 조램인들에게 기도하기를 권유하다 311
앰율레크가 조램인들에게 회개하기를 권유하다 312
회개한 조램인들이 쫓겨나다 313
조램인들이 레이맨인들과 협력하다 313
앨마가 그의 아들들에게 한 간증의 소개 314

앨마가 그의 아들들에게 한 간증

힐라맨에게 한 앨마의 말

명심할 일과 깨우침 314
앨마가 그의 개심을 이야기하다 315
앨마가 그의 개심 후의 신실함을 설명하다 316
앨마가 힐라맨에게 거룩한 기록을 보전하라고 명하다 317
앨마가 힐라맨에게 야렛인들의 기록과 해석기들에 대해서 가르치다 318
힐라맨을 위한 앨마의 가르침 319
앨마가 예표로서 리아호나를 묘사하다 320

시블론에게 한 앨마의 말
시블론을 위한 앨마의 가르침 321
코리앤톤을 위한 앨마의 가르침
코리앤톤의 죄들 322
앨마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다 323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 324
앨마가 코리앤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다 325
앨마가 회복의 계획을 설명하다 325
앨마가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시험의 시간을 설명하다 327
공의와 자비 328
코리앤톤에게 준 앨마의 명령 329
조램인 전쟁
전쟁을 위한 준비 329
모로나이가 레이맨인들을 이길 만반의 준비를 시키다 330
복병을 배치하다 331
시돈 강에서의 전투 332
화평이 보장될 제안 333
거절되었다가 수용된 그 제안 334
몰몬이 요약한 힐라맨의 기록
앨마가 니파이인들의 멸망을 예언하다 335
앨마의 마지막 말과 그의 떠남 336
좌절된 개혁의 시도 337
아맬리카이아의 전쟁들
아맬리카이아의 1차 전쟁
아맬리카이아 337
자유의 기치 338
대규모 이탈의 모면 339
아맬리카이아가 레이맨인 군대의 사령관이 되다 340
아맬리카이아가 레이맨인들의 왕이 되다 342
아맬리카이아가 레이맨인들에게 전쟁을 부추기다 343
니파이인들의 전쟁 준비 343
모로나이에 대한 몰몬의 찬사 344
니파이인들의 전쟁에 대한 태도 344
니파이인들의 요새에 놀란 레이맨인들 345
노아 성 전투 346
니파이인들의 추가 준비 347
니파이인들이 번영하다 348
모리앤톤 땅에서 있은 분쟁 349
페이호랜이 대판사가 되다 350
아맬리카이아의 2차 전쟁
왕당파와 자유파 350
레이맨인들이 재공격을 준비하다 351
억지로 싸우게 된 왕당파 사람들 351

니피아인들이 당한 처절한 연패 352
티앤쿰이 아맬리카이아를 죽이다 352
앰모론의 지휘 아래 레이맨인들이 양면전을 시작하다 353
뮬레크 성이 탈환되다 354
레이맨인 지휘관 야곱이 도륙당하고 많은 레이맨인들이 포로가 되다 355
전쟁 포로와 방어 시설 356
힐라맨의 이천 청년 용사 (몰몬의 여담) 357
전쟁 포로 교환에 대한 모로나이의 편지 358
앰모론의 답변 359
기드 성이 탈환되면서 니파이인 포로들의 석방되다 360
더욱 강화된 니파이인들의 조심성와 준비 361

힐라맨이 모로나이에게 쓴 편지

힐라맨과 그의 용사 이천 명이 앤티푸스의 군대에 합류하다 362
니파이인들의 군대가 강화되면서 레이맨인들이 공격을 보류하다 363
힐라맨이 앤티파라 성에 있던 레이맨인들과의 전투를 묘사하다 364
힐라맨이 앤티파라 성을 탈환하다 366
힐라맨이 쿠메나이 성을 탈환하지만 포로를 잃게 되다 367
힐라맨이 기적적인 병력 보전을 묘사하다 368
잃어버린 포로에 대한 기드의 보고 369
힐라맨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다 369
힐라맨이 맨타이 성을 탈환하다 371
힐라맨이 열악한 상황에 대해 묘사하다 372
힐라맨이 쓴 편지에 대한 모로나이의 반응 373
니파이인들이 니파이하 성을 잃다 373

모로나이가 페이호랜에게 쓴 편지

정부의 태만 374
태만한 이유를 상상하며 비난하다 375
회개하거나 최후를 맞이하라 376

페이호랜이 모로나이에게 쓴 답장

페이호랜이 모반을 알리다 378
군사원조의 요청 378
모로나이와 페이호랜이 페이쿠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섬멸하다 379
모로나이와 페이호랜이 니파이하 성을 탈환하다 380
모로나이가 리하이 땅을 탈환하다 381
티앤쿰이 앰모론을 죽이고 자신도 죽임을 당하다—레이맨인들이 쫓겨나다 . . . 381
제삼십일년에 대한 요약 382
전쟁 후의 부흥 382

몰몬이 요약한 시블론의 기록

한 세대가 지나가다 383
니파이인들이 북방 영토를 넓히다 383
기록들이 넘겨지다 384
또 하나의 전투 384

힐라맨서

판사직을 두고 다투다 . . . 385
페이호랜이 암살 당하고 페이쿠메나이가 임명되다 . . . 385
레이맨인들이 제이라헤믈라를 점령하다 . . . 386
레이맨인들이 패배하다 . . . 386
개다이앤톤 도적단의 기원 . . . 387
니파이인들의 이주 . . . 388
몰몬이 니파이인의 기록에 대해 언급하다 . . . 389
힐라맨의 판사로서의 통치 . . . 389
교만의 문제 . . . 390
레이맨인과 니파이인 이반자들이 남쪽 땅을 점령하다 . . . 391
니파이인의 패배와 승리에 대한 몰몬의 영적인 해석 . . . 391
니파이인이 자신의 약함의 원인을 깨닫다 . . . 392
니파이가 판사직을 내주다 . . . 392
힐라맨의 말을 기억하다 . . . 393
니파이와 리하이가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에게 전파하다 . . . 394
레이맨인 감옥에 갇힌 니파이와 리하이: 기적적인 불 . . . 394
레이맨인 감옥에 갇힌 니파이와 리하이: 불의 침례 . . . 395
레이맨인 선교사가 형제를 개종시키다—레이맨인이 니파이 땅을 돌려주다 . . . 396
레이맨인의 의로움과 교회의 기쁨 . . . 396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이 교류하고 번영하다 . . . 397
개다이앤톤 도적단이 다시 나타나다 . . . 397
모든 죄의 근원으로부터 온 은밀한 음모와 맹세 . . . 398
개다이앤톤 도적단에 대해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이 다르게 반응하다 . . . 399

니파이와 사무엘의 성역

니파이의 슬픔—개다이앤톤 도적단이 정부를 은밀히 조종하다 . . . 400
니파이가 망대에서 전파하다 . . . 400
개다이앤톤 판사와 다른 사람들의 반응 . . . 402
니파이가 모세의 모범을 언급하다 . . . 402
니파이가 그리스도에 관한 고대의 다른 예언을 참고로 언급하다 . . . 403
니파이로 인해 판사의 암살이 드러나다 . . . 404
니파이가 밝힌 일을 확인하도록 보내진 다섯 사람 . . . 404
니파이가 살인죄로 거짓 고발되다 . . . 405
니파이가 살인자를 밝혀내다 . . . 405
니파이가 결백을 입증하다 . . . 406
주께서 니파이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시다 . . . 407
니파이가 백성에게 다시 전파하다 . . . 407
니파이가 주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도록 기도하다 . . . 408
니피이가 기근이 끝나도록 기도하다 . . . 409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이 누리는 평화와 약간의 다툼 . . . 410
개다이앤톤 도적들의 재기 . . . 410
인간의 약점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몰몬의 숙고 . . . 411

사무엘의 예언
레이맨인 사무엘이 니파이인의 멸망을 예언하다 414
사무엘이 감춰진 보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다 415
사무엘이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니파이인을 비난하다 416
후회가 뒤늦게 오리라 416
사무엘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표적을 예언하다 417
사무엘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표적을 예언하다 418
사무엘이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을 비교하다 419
사무엘이 무사히 도망치고 몇몇 니파이인들이 개종되다 421
백성이 표적과 기사를 부정하다 421

제3니파이

니파이가 그의 아들 니파이에게 기록을 전달하다 423
사무엘의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이 보이다 423
예수께서 태어나심의 표적이 이루어지다 424
표적에 대한 반응 424
개다이앤톤 전쟁
점점 사악해지다 425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이 개다이앤톤 도적들과 연합하다 426
개다이앤톤 지도자 깃디안하이가 레이코니우스에게 편지를 보내다 427
레이코니우스가 그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를 시키다 428
니파이인들이 함께 모이다 428
도적들과 하던 전쟁이 재개되다 429
니파이인들이 소모전을 일으켜 도적을 이기다 430
니파이인들이 감사를 드리며 선지자들의 말을 믿다 431
도적들의 활동이 종식되다 432
편집자 몰몬의 언급 432
몰몬이 예언들을 반복하다 433
니파이인들의 성읍을 신축하고 번영하다 433
불평등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다 434
선지자들이 암살을 당하고 살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은밀히 연합하다 434
중앙 정부가 붕괴되다 435
야곱이 비밀 결사의 왕이 되고 부족들이 불안정한 평화을 유지하다 436
니파이가 회개를 전파하며 기적을 행하다 436
예수님의 사망의 표적 437
한 음성이 멸망의 규모를 알리다 438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분의 임무를 선포하다 440
예수님의 음성이 자비가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애통해하시다 441
백성들의 반응 441
몰몬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논평 442
니파이인들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성역
예수께서 니파인들에게 나타나시다 443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시다 444

그리스도의 교리 445
예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하신 첫 번째 설교
예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다 446
니파이인 버전의 산상 설교
참행복 446
믿는자들의 징표 447
율법이 이루어지다 447
하나님을 섬기라 449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길 주께 온전히 의지하라 450
제자의 도리에 대한 비유들 450
율법의 이루어짐에 대한 추가 말씀 452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요한복음 10:16 해설하시다 452
예수께서 이방인들과 흩어진 이스라엘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시다 453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다 455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 455
예수께서 성찬식을 도입하시다 456
예수께서 무리에게 기도와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다 457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다 457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 가시다 458
처음보다 더 큰 무리가 함께 모이고 니파이가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다 458
예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두 번째 하신 설교
예수께서 돌아 오셔서 성령에 관해 기도하시다 459
열두 제자들이 변화되고 예수께서 정결케 됨에 관한 기도를 하시다 460
예수께서 성찬을 다시 베푸시다 461
예수께서 마지막날의 이방인과 리하이의 자손에 대해 예언하시다 461
예수께서 아버지의 성약을 설명하시면서 사도행전 3:22~26 인용하시다 462
예수께서 이사야서 52:8~10, 1~3, 6~7, 11~15 인용하시다 463
몰몬경은 이스라엘이 모이는 표적이 될 것이다 465
예수께서 미가서 5:8~15 인용하시다 467
마지막날의 의로운 이방인들 468
예수께서 이사야서 54:1~17 인용하시다 468
이사야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470
예수께서 니파이인들의 기록을 보충하시다 471
예수께서 말라기 3장 인용하시다 471
예수께서 말라기 4장 인용하시다 473
예수께서 모든 것을 설명하시다 473
몰몬이 주님의 말씀을 전부 전하려고 하였으나 주께서 금하시다 474
예수께서 떠나시고 다음 날에 유아들이 말하며 제자들이 침례를 주다 474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그의 교회 이름을 지으시다 475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476
기록과 심판 476
약속과 격려 477

예수께서 제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떠나시다 477
세 제자에 대한 몰몬의 설명 478
몰몬경은 성약 성취의 신호 480
몰몬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 480

제4니파이

새로운 사회 481
제 4 니파이서의 출처: 니파이와 아모스 그리고 아모스 482
계급으로 점점 나뉜 백성 482
백성 가운데 있은 큰 나뉨 483
개다이앤톤 도적들이 돌아오다 484
앰마론이 기록들을 물려받고서 숨기다 484

몰몬서

몰몬이 받을 기록 485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의 전쟁 485
간악함이 만연하다 486
니파이인 군대의 퇴각 486
회개 없는 슬픔 487
몰몬이 새롭게 추가한 기록들 487
기업의 땅이 분할되다 488
회개할 기회 488
니파이인들의 승리로 인한 전쟁에 대한 열망 489
몰몬이 니파이인들의 전쟁사령관 되기를 단호히 거절하다 489
마지막날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몰몬의 메시지 490
니파인들이 레이맨인들을 공격하자마자 대패하다 490
심히 간악해진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의 땅 점령과 탈환 491
종말의 시작 491
니파이인들이 후퇴하다 492
마지막날의 레이맨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몰몬의 메시지 492
마지막 전투의 준비 494
마지막 전투 494
몰몬의 애가 495
마지막날의 레이맨인들에게 전하는 몰몬의 가르침 496

모로나이가 몰몬의 기록에 추가한 부록

몰몬서

모로나이가 그의 아버지의 기록을 탈고하다

니파이인들의 최후 499
주님의 약속대로 드러내어질 이 기록들 500
이 기록이 드러내어질 그 날 501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모로나이의 메시지 502
기적이나 계시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모로나이의 메시지 502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의심하지 말라 504
이 기록을 전하는 언어 504

이더서

모로나이의 첫 번째 부연

스물넉 장의 판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한 소개 507
이더의 계보 507
야렛과 그의 형제가 주님께 호소하다 508
야렛인들이 여행을 시작하다 509

모로나이의 두 번째 부연

이 땅에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 510
광야에서의 훈계 510
거룻배에 들어오지 않는 공기와 빛 511
16개의 작은 돌 512
야렛의 형제가 육신으로 오시기 전의 그리스도를 보다 512

모로나이의 세 번째 부연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 513
모든 것에 대한 계시가 봉인되다 513

모로나이의 네 번째 부연

금판의 인봉된 부분 514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추가적인 계시를 약속하시다 515
미래의 번역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516
야렛인들이 약속된 땅으로 항해하다 516
백성들이 번성하다 517
백성들이 왕을 원하다 517

야렛인 왕들의 연대기

오라이하의 통치 518
키브의 통치 518
슐의 통치 519
오머의 통치 520
비밀 결사의 재출현 520

모로나이의 다섯 번째 부연

비밀 결사 521
오머의 망명 뒤 왕권의 재탈환 522
이머의 통치 523
코리앤툼과 콤의 통치 523
헷의 통치 524
세즈의 통치 524
리플레이키시의 통치 525
모리앤톤의 통치 525
킴, 레위, 코롬, 키시 각인의 통치 526

리브의 통치 . . . 526
히아아돔의 통치부터 콤의 통치까지 . . . 527
시블롬의 통치 . . . 527
에이하와 이뎀 각인의 통치 . . . 528
모론의 통치 . . . 528
코리앤토어의 감금 생활—또 다른 완전한 멸망의 예언 . . . 528
코리앤투머의 통치
선지자 이더 . . . 529
모로나이의 여섯 번째 부연
신앙에 대하여 . . . 529
모로나이가 이방인, 몰몬경, 연약함에 대해 주님과 말씀하다 . . . 530
모로나이의 작별 인사 . . . 532
이더가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다 . . . 532
숨어 지내는 이더 . . . 533
세이레드가 코리앤투머와 싸우다 . . . 534
세이레드의 형제가 코리앤투머와 싸우고 보좌를 얻다 . . . 534
코리앤투머가 리브에게서 그의 왕국을 되찾으려 하다 . . . 535
시즈가 코리앤투머를 추격하다 . . . 535
마지막 전투를 위한 준비들 . . . 536
야렛인의 멸망 . . . 537
이더의 종말 . . . 538

모로나이서

모로나이가 몇가지 기록을 추가하다 . . . 539
교회 지침과 의식에 대한 모로나이의 가르침
성신의 은사 . . . 539
성임 방법 . . . 540
성찬: 떡의 축복 . . . 540
성찬: 포도주의 축복 . . . 540
침례 . . . 541
교회 질서 . . . 541
모로나이가 신앙, 소망, 그리고 사랑에 대한 몰몬의 설교를 인용하다
선악을 구별하기 . . . 542
신앙에 대한 몰몬의 말 . . . 543
소망과 사랑에 대한 몰몬의 말 . . . 545
모로나이가 몰몬이 보내준 편지의 내용을 인용하다
어린아이들의 침례에 대한 몰몬의 말 . . . 546
니파이인의 멸망에 대한 몰몬의 언급 . . . 548
모로나이가 몰몬이 보내준 두번째 편지를 인용하다
니파이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 . . 548
니파이인들의 간악함과 고난 . . . 549
몰몬이 모로나이에게 한 작별 인사 . . . 550

모로나이가 레이맨인들에게 권면하다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도록 기도하라 550
하나님의 은사 551
모로나이가 땅 끝까지 작별을 고하다
이러한 것을 기억하라 552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 552

부록

목록, 도표 및 지도

특정 명칭 목록 557
리하이 가족의 여행 추정 경로 561
몰몬경에 나오는 장소들 563
모사이야서의 일곱 가지 여행 564
이스라엘 민족 565
몰몬경에 나오는 주요 가족들 566
니파이인 기록 작성자들 567
몰몬경의 판과 기록들의 주요 출처 568
야렛인 왕들 569
옴나이서~모사이야서 연대표 570
몰몬경 연대표 571

몰몬경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어록

1830년—몰몬경 초판 서문 572
1831년—교회 대회 회의록 572
1831년—노아 색스턴(Noah Saxton)에게 보내는 서한 572
1834년—교회 대회 회의록 573
1835년—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내는 편지 573
1838년—장로 소식지에 실린 사설 574
1838년—개인 역사 574
1841년—십이사도들과의 모임 회의록 574
1842년—존 웬트워스(John Wentworth)에게 보내는 서한 574
1843년—제임스 알링턴 베네트(James A. Bennet)에게 보내는 서한 575

몰몬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

에머 스미스(Emma Smith) (조셉의 아내) 576
마틴 해리스(Martin Harris) 576
루시 맥 스미스(Lucy Mack Smith) (조셉의 어머니) 577
올리버 카우드리(Oliver Cowdery) 578
데이비드 휘트머(David Whitmer) 578
메리 머셀만 휘트머(Mary Musselman Whitmer) 578
엘리자베스 앤 휘트머 카우드리(Elizabeth Ann Whitmer Cowdery) 579

몰몬경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의 참고 사항

아나크로니즘(시대착오) . . . 580
연대기 . . . 580
일관성 . . . 581
인구 구성에 대하여 . . . 581
지리(地理) . . . 582
어법과 문학적 기법 . . . 582
번역 과정 . . . 583
증인 . . . 583
병렬 구조식 문학 기법 . . . 584

세 증인의 경험에 대한 역사적 출처

조셉 스미스(Joseph Smith) . . . 590
올리버 카우드리(Oliver Cowdery) . . . 590
마틴 해리스(Martin Harris) . . . 591
데이비드 휘트머(David Whitmer) . . . 592

역사적 배경 지식

조셉 스미스 2세 . . . 597
유년 시절 . . . 597
교회를 설립함 . . . 597
계시 . . . 598
위기와 갈등 . . . 599
나부에서 새로운 복음을 가르침 . . . 599
사망 . . . 600
보물 찾기 . . . 600
선견자의 돌 . . . 601
금판 . . . 601
모로나이 천사 . . . 602
선견자 조셉 . . . 603
*선견자*의 의미 . . . 604
몰몬경을 번역하는 데 사용된 도구 . . . 604
몰몬경이 출판된 후 . . . 606
몰몬경 번역 과정 . . . 607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 . . 607
번역 도구 . . . 608
번역 기법 . . . 609
결론 . . . 610
몰몬경 번역의 역사적 배경 . . . 611
몰몬경의 증인들 . . . 612
판의 다른 증인들 . . . 612
세 증인의 신뢰성 . . . 612
세 증인의 경험 . . . 613

증언하도록 부름 받다 . . . 615
올리버 카우드리의 은사 . . . 615
올리버를 위한 계시 . . . 616
권세가 회복되다 . . . 617
학자들을 찾아간 마틴 해리스 . . . 617
해리스의 동기 . . . 618
찾아간 학자들 . . . 618
찰스 안톤을 만남 . . . 618
방문의 결과 . . . 619
분실된 몰몬경 원고 . . . 619
마틴 해리스의 공헌 . . . 620
"나는 봉해진 책은 읽을 수 없다" . . . 621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 . . 621
"그가 판을 보도록 허락할 것이다" . . . 623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 . . 623
"너는 네 자신의 재물을 탐하지 말며" . . . 624
몰몬경의 인쇄와 출판 . . . 624
판권 확보 . . . 625
인쇄업자를 찾는 과정 . . . 625
원고를 지키려는 노력 . . . 625
반대와 불매 운동에 맞서서 . . . 625
몰몬경 판매 . . . 626
원고 보존 . . . 626
몰몬경 비난 세력 . . . 626
몰몬경과 DNA 연구 . . . 627
아메리카 인디언의 조상 . . . 628
유전적 증거를 이해함 . . . 629
창시자 효과(Founder Effect) . . . 630
개체군 병목현상 및 유전적 부동 . . . 630
결론 . . . 632

일화로 된 역사 이야기

믿음으로 구하고 . . . 633
그의 말을 들으라 . . . 637
금판 . . . 639
깨어 있으라 . . . 643
모든 것을 잃다 . . . 648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 . . 652
동역자 된 종들 . . . 657
그리스도의 교회, 일어나다 . . . 661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

니파이의 판에서 취한 판 위에 몰몬의 손으로 기록한 기사

그러한즉, 이것은 니파이 백성과 또한 레이맨인의 기록의 요약이니—곧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인 레이맨인과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요—계명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언과 계시의 영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니라—기록된 후에는 인봉되었고, 파괴되지 않도록 주께로 감춘 바 되었나니—이는 장차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번역되어 나아오게 하려 함이요—모로나이가 손수 인봉하여 주께로 감추었으니, 이는 장차 정한 때에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나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 기록의 번역은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느니라.

(또한 이더서에서 취한 요약이니, 이는 야렛 백성의 기록이요, 야렛 백성은 사람들이 하늘에 닿을 탑을 쌓고 있을 때, 주께서 백성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때에 흩어진 백성이라.)

이 기사는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이고, 또 그들로 주의 성약을 알게 하며, 그들이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닌 줄 알게 하려는 것이요—또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에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것이니라—이에 이제, 만일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실수라, 그러한즉, 너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흠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정죄하지 말지니라.

—모로나이[1]

조셉 스미스 2세가
판에서 영어로 옮김
1830년 미국 뉴욕 주 팔마이라에서
영문 초판이 출판됨

---

[1]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여기에서 밝혀 두고 싶은 것은, 몰몬경의 표제지는 기록이 담겨 있는 판의 맨 마지막 쪽 왼쪽 면에서 발췌한 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서, 그 언어는 본문과 동일한 히브리어(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였음)였다는 점입니다. 이 표제지는 나 자신이나 과거에 살았던 누군가, 혹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누 군가가 현대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나는 몰몬경 영문판 표제지 일부를 아래에 소개합니다. 이것은 몰몬경 원판의 표제지를 기록된 대로 일언반구의 첨삭 도 없이 순수하게 번역한 것입니다."(Times and Seasons III 24; History of the Church, 1:71)

니파이의 작은판

니파이전서~옴나이서

니파이전서

니파이의 다스림과 성역

리하이와 그의 아내 새라이아 및 (맏이로부터 시작하여) 레이맨, 레뮤엘, 샘 그리고 니파이라 하는 그의 네 아들에 관한 기사. 리하이가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에 관하여 예언하매 백성들이 그의 생명을 멸하려 하므로, 주께서 리하이에게 예루살렘 땅 밖으로 떠나도록 경고하심. 리하이가 그의 가족과 함께 사흘 길을 여행해 광야로 들어감. 니파이가 그의 형들과 함께 유대인의 기록을 찾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감. 그들의 고난의 기사. 그들이 이스마엘의 딸들을 아내로 취함. 그들이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남. 광야에서의 그들의 고난과 고통. 그들의 여행 경로. 그들이 큰 물에 이름. 니파이의 형들이 그에게 반항함. 니파이가 형들을 설복하고 배를 지음. 그들은 그 곳 이름을 풍요라 함. 그들이 큰 물을 건너 약속된 땅에 들어감. 그리고 그 후의 일들. 이것은 니파이의 기사에 따른 것이니 달리 말하자면 나 니파이가 이 기록을 썼음.

니파이$_1$의 소개

1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 그로 인해 어느 정도 부친의 모든 학문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살아오는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온 생애 동안 주의 은혜를 크게 입었나니,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비밀을 많이 알게 되었으매, 그로 인해 내 생애에 행한 바를 기록으로 만드노라. [2]참으로 나는 나의 부친의 언어로 기록을 만드노니, 이는 유대인의 학문과 애굽인의 언어로 되어 있느니라. [3]또 나는 내가 만드는 기록이 참됨을 아노니, 나는 나 자신의 손으로 이를 만들며, 또 내가 아는 바를 따라 이를 만드노라.

리하이$_1$의 위촉

[4]이는 유다 왕 시드기야 치세 첫해 초에 그리되었음이니, (나의 부친 리하이는 그의 평생을 예루살렘에서 사셨느니라) 그 같은 해에[ㄱ]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큰 성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되리라고 예언하였느니라. [5]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 리하이는 나아가 주께 기도하였으며, 참으로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6]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주께 기도했을 때 불기둥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의 앞에 있는 바위 위에 머물렀고, 그는 많은 것을 보고 들었으며, 보고 들은 것으로 말미암아 심히 흔들리며 떨었느니라.

[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고, 그가 보았던 일과 영에 압도되어 그의 침상 위에 자신을 내던졌느니라. [8]그리고 이같이 영에 압도되어 있으면서 그는 시현 속에 이끌려 가서 참으로 하늘들이 열린 것을 보았으며,

[ㄱ] 1 기원전 597년

그는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사, 노래하며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의 무수한 무리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였느니라.[ㄱ]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하늘 가운데에서 한 분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보매 그의 광채가 한낮의 햇빛보다 더욱 뛰어났더라. 10 또한 다른 열둘이 그를 따르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의 밝기가 궁창의 별들의 밝기보다 더욱 뛰어났더라. 11 또 그들이 내려와서 지면 위에 나아가더니, 첫 번째 분이 와서 내 부친 앞에 서서 그에게 책을 한 권 주고는 읽으라 하셨느니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읽어 나아감에 주의 영으로 충만해졌더라. 13 이에 그가 읽으며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화, 화가 있도다. 이는 내가 너의 가증함을 보았음이니라 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많은 것을 나의 부친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읽었나니, 곧 예루살렘과 그 주민들이 멸망당할 것과 많은 자들이 칼에 멸망할 것과 많은 자들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리라는 것을 읽었느니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은 많은 크고 기이한 일들을 읽고 보고 난 후, 참으로 많은 것을 주께 부르짖었나니,

"예컨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니이다.
주의 보좌는 하늘 높이 있고,
주의 권능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은 땅의 모든 주민 위에 있나이다.
또 주께서는 자비로우사 주께 나아오는 자들이 멸망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15 또 나의 부친이 그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의 말씀이 이와 같았으니, 이는 그가 본 것, 참으로 주께서 그에게 보여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진실로 기뻐하였으며 그의 온 마음이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느니라.

16 그리고 이제 나 니파이는 나의 부친이 기록해 두신 것을 모두 기술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가 여러 시현과 꿈에서 보신 것을 많이 기록해 두셨음이요, 그가 자기 자녀들에게 예언하고 말했던 많은 것들 역시 많이 기록해 두셨으나, 이를 나는 모두 기술하지는 아니하노라. 17 그러나 나는 내 생애 동안 내가 행한 바를 기술하리라. 보라, 나는 내 자신의 손으로 만든 판에 나의 부친의 기록의 요약을 만드노니, 그러므로 나의 부친의 기록을 요약한 후에 나 자신의 생애에 관하여 기술하리라.

유대인들에게 한 리하이[1]의 예언

18 그런즉 나는 너희가 알기 바라노니, 주께서 나의 부친 리하이에게 참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그토록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 주시고 나서, 보라, 그는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가 보고 들은 일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며 선포하기 시작하였느니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유대인들에 관하여 증거한 바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참으로 그를 조롱하였으니, 이는 그가 진실로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에 대하여 증거하였음이라. 또 그는 그가 보고 들은 것들과 또한 그가 책에서 읽은 것들이, 메시야의[ㄴ] 오심과 또한 세상의 구속에 대해 명백히 나타내고 있음을 증거하였느니라.

[ㄱ]8 영어 원문에서는 "그는 하나님께서 . . . 생각하였느니라"의 21마디가 앨마서 36:22에서 단어 그대로 똑같이 인용됨 [ㄴ]19 히브리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가 *메시야* 그리스어역

[20]이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것을 듣고 그에게 화를 내었나니, 참으로 그들이 내어 쫓고 돌로 치며 살해한 옛 선지자들에게 그러하였던 것같이 화를 내었으며, 또한 그들은 그의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나 니파이는 주의 친절하신 자비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택하신 자 모두의 위에 있어 그들을 능하게 하여, 참으로 구원의 능력에 이르게 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여 주리라.¬

광야로 떠나다

2 이는 보라, 이렇게 되었음이니 주께서 나의 부친에게 말씀하시되, "참으로 꿈에 그에게 이르시기를, 리하이야, 네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있나니, 네가 충실하여 내가 네게 명한 것들을 이 백성에게 선포하였음으로 인하여, 보라,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도다" 하셨느니라. [2]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참으로 꿈에 나의 부친에게 명하여, 가족을 데리고 광야로 떠나도록 명령하셨느니라. [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며, 그리하여 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느니라.

[4]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광야로 떠나되, 그의 집과 그의 기업의 땅과 그의 금과 그의 은과 그의 귀한 것들을 버려두고, 그의 가족과 양식과 장막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광야로 떠났느니라. [5]그리고 그는 홍해 해안에 가까운 변경으로 따라 내려왔고, 홍해에 더 가까운 변경의 광야를 여행하였으며, 나의 모친 새라이아와, 나의 형들인 레이맨, 레뮤엘, 그리고 샘으로 구성된 가족과 함께 광야를 여행하였느니라.

[6]또 이렇게 되었나니 광야에서 사흘을 여행하고 나서, 그는 물이 흐르는 강 옆에 있는 한 골짜기에 장막을 쳤느니라. [7]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돌 제단을 쌓고 주께 제물을 드리며,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느니라.

레이맨[1]과 레뮤엘의 불평

[8]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그 강의 이름을 레이맨이라 하였으며, 그 강은 홍해로 흘러들었고 그 골짜기는 강어귀에 가까운 변경에 있었느니라.

[9]또 나의 부친은 강물이 홍해의 근원으로 흘러 들어감을 보시고는 레이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오 네가 이 강을 닮아서
끊임없이 모든 의의 근원으로
흘러들기를 바라노라" 하셨느니라.

[10]또 그는 레뮤엘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오 네가 이 골짜기를 닮아서
굳건하고 변하지 않으며,
흔들림 없이 주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라노라" 하셨느니라.

¬20 주님의 자비는 몰몬경 제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주된 주제임; 모로나이서 10:3 참조

11 이제 이 말을 그가 하신 것은 레이맨과 레뮤엘의 완고함 때문이었더라. 이는 보라, 그들은 부친이 환상을 보는 사람이며, 예루살렘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어 그들의 기업의 땅과 그들의 금과 그들의 귀한 것들을 버리고 떠나게 하고는 광야에서 죽게 하였다 하여, 참으로 많은 일에 있어 그들의 부친을 거스려 불평하였음이라. 또 그들은 부친이 그 마음의 어리석은 상상으로 인해 이렇게 행하였다고 말하였느니라. 12 이같이 레이맨과 레뮤엘은 연장자들이면서도, 참으로 그들의 부친을 거스려 불평하였나니, 그들이 불평한 것은 그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13 또한 선지자들의 말씀에 따라, 저 큰 성 예루살렘이 멸망될 수 있음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또 그들은 나의 부친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과 같았느니라.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께서 레뮤엘의 골짜기에서, 영으로 충만하시어 권능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마침내 그들의 몸이 참으로 그 앞에서 떨었으며, 또 그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매, 그들이 감히 부친을 거스려 말하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명하시는 대로 행하였느니라. 15 그리고 나의 부친은 장막에 거하였느니라.

니파이$_1$의 신실함과 축복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몹시 어렸으나 체격은 컸으며,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심히 원하였던지라, 이러므로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보라, 그가 나를 찾아 오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으므로 나는 나의 부친이 하신 말씀을 모두 믿었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나의 형들처럼 부친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7 또 나는 샘에게 말하여,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게 나타내 주신 것들을 그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나의 말을 믿더라. 18 그러나, 보라, 레이맨과 레뮤엘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비통하여진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었느니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일러 이르시되,

"니파이야, 네 신앙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있나니
이는 네가 마음을 겸손히 하여
부지런히 나를 찾았음이니라.
20 또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번성할 것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리니,
참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둔 땅이라,
참으로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이니라.
21 또 네 형들이 너를 거역할진대,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되리라.ㄱ
22 또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는 네 형들의 통치자와 교사가 되리라.
23 이는 보라,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 날,
나는 그들을 심한 저주로 저주할 것이요,
네 자손들이 역시 나를 거역하지 않는 한,

ㄱ21 니파이후서 1:20에서 리하이$_1$도 말했던 이 약속의 변형은 몰몬경에서 대략 20번 정도 나옴

그들은 네 자손들을 다스릴 권력을 갖지 못할 것임이니라.
24 또 만일 네 자손들이 나를 거역한다 할진대,
그들은 네 자손들에게 채찍이 되어
그들을 깨우쳐 기억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형제들이 놋쇠판을 찾기 위해 되돌아가다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주와 말씀하던 데서 돌이켜, 부친의 장막으로 돌아왔느니라. 2또 이렇게 되었나니 부친이 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나니, 그 꿈에서 주께서 내게 명하사, 너와 네 형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하셨느니라. 3이는 보라, 라반이 유대인의 기록과 내 조상의 족보를 갖고 있음이니, 그것은 놋쇠판에 새겨져 있느니라. 4그런고로 주께서 나에게 명하사, 너와 네 형들이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 기록을 찾아 이 곳 광야로 가지고 내려와야 한다고 하셨느니라. 5그리고 이제, 보라 네 형들은 내가 그들에게 요구한 일이 어려운 것이라 하며 불평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 일을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요, 이는 주의 명령이니라. 6그런즉 갈지어다, 나의 아들아, 네가 주께 은총을 입으리니, 네가 불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나의 부친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니이다" 하였더라. 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께서 이 말을 듣고는 심히 기뻐하셨으니, 내가 주께 복 받았음을 아셨음이라.

9그리하여 나 니파이와 나의 형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올라가려고, 장막을 가지고 광야를 여행하였느니라. 10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예루살렘 땅에 올라갔을 때, 나와 나의 형들이 서로 의논하였느니라. 11그리고 우리 가운데 누가 라반의 집에 들어가야 할지 제비를 뽑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이 뽑히매, 레이맨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가 자기 집에 앉았을 때 그와 이야기하였느니라. 12그리고 라반에게 나의 부친의 족보를 포함하고 있는 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기록을 달라고 요청하였느니라. 13이에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라반이 노하여 레이맨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고, 그로 그 기록을 갖게 하려 아니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는 레이맨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는 도적이라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14그러나 레이맨이 그의 앞에서 도망해 나와서 라반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고하였고, 이에 우리는 심히 슬퍼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의 형들은 광야에 계신 나의 부친께 바야흐로 돌아가려 하였느니라.

놋쇠판을 얻기 위한 두번째 시도

15그러나 보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가 살아 있음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광야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라. 16그런즉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 충실하사이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의 땅으로 내려가사이다. 이는 보소서 그가 금과 은과 온갖 종류의 재물을 버려 두셨음이라. 또 그가 이렇게 행하신 것은 모두 주의 명령으로 인함이었나이다. 17이는 백성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반드시 멸망당할 것을 그가 아셨음이라. 18이는 보소서,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부한 연고니, 그런즉 만일 내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도피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도 이 땅에 머물러

사신다면, 보소서 그도 역시 멸망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이 땅에서 도망함은 꼭 필요한 일이니이다. [19]또 보소서, 우리가 이 기록을 얻어야 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니, 우리가 우리 조상의 언어를 보존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 주게 하려는 것이요, [20]그리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과 권능으로 전달되어 모든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세상에 전해진 말씀들을 보존하여, 그들에게 전해 주게 하려는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21]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같은 말로 나는 나의 형들을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 충실하도록 하였느니라.

[2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우리의 기업의 땅으로 내려가서, 우리의 금과 우리의 은과 우리의 귀한 것들을 한데 모았느니라. [23]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한데 모은 후, 우리는 다시 라반의 집으로 올라갔느니라. [24]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들어가 라반에게로 가서, 그에게 놋쇠판에 새겨진 기록을 우리에게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그 대신 우리가 우리의 금과 우리의 은과 우리의 모든 귀한 것들을 그에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2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라반이 우리의 소유물을 보고, 또 그것이 막대함을 보고는 그에 대해 탐을 내더니, 급기야 우리를 쫓아내고는 우리의 소유를 손에 넣고자 우리를 죽이려 그의 종들을 보내었느니라. [2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라반의 종들에게서 도망하였고, 우리의 소유는 뒤에 버려 둘 수밖에 없었으니, 그것은 라반의 수중에 떨어졌느니라. [27]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광야로 도망하였으며, 라반의 종들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였고, 우리는 바위굴에 몸을 숨겼느니라.

[2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이 나에게 노하였고, 또 나의 부친에게도 노하였으며, 레뮤엘도 그러하였으니, 이는 그가 레이맨의 말을 들음이라. 그리하여 레이맨과 레뮤엘은 그들의 동생인 우리에게 심한 말을 많이 하였고, 심지어 막대기로 우리를 치기까지 하였느니라. [2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막대기로 우리를 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와서 그들 앞에 서더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의 동생을 막대기로 치느냐? 주께서 그를 택하사 너희를 다스릴 자가 되게 하셨으며, 이는 너희의 악함으로 인함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보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지니 주께서 라반을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하였더라. [30]이에 천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난 후 떠났느니라.

[31]그러나 천사가 떠난 후에, 레이맨과 레뮤엘은 또다시 불평하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께서 라반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리요? 보라, 그는 힘센 자요, 오십을 명할 수 있나니, 참으로 오십을 죽일 수도 있거늘 어찌 우리인들 죽이지 못하랴" 하니라.

니파이$_1$가 놋쇠판을 얻다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사이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 충실하도록 하사이다. 이는 보소서 주는 온 세상 사람 모두보다 더 강하시니 어찌 라반과 그의 오십보다, 혹 참으로 그의 수만보다 더 강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그러하니 올라가사이다. 모세처럼 강하게 되사이다. 이는 그가 진실로 홍해 물에 말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우리 조상들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마른 땅을 딛고 지나왔으며, 바로의 군대는 뒤따르다가 홍해 물에 빠져 죽었음이라.ㄱ [3]이제 보소서 당신들은 이것이 사실인 줄 아나이다. 또 당신들은 천사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음도 아나이다. 어찌 의심할 수 있나이까? 올라

ㄱ2 출애굽기 14:21~29

가사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하신 것같이 우리도 구하실 수 있으며, 애굽인들을 멸하신 것같이 라반도 멸하실 수 있나이다."

4 이제 내가 이 말을 하였을 때, 그들은 아직 노하여 있었고 여전히 계속하여 불평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따라왔으며, 이윽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벽 바깥에 이르렀느니라. 5 이에 때는 밤이었나니, 나는 그들로 하여금 성벽 바깥에 몸을 숨기게 하였으며, 그들이 몸을 숨기고 난 후에, 나 니파이는 성으로 숨어 들어가 라반의 집을 향하여 나아갔느니라. 6 또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영에 의해 이끌렸느니라.

7 그럼에도 나는 앞으로 나아갔으며, 내가 라반의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 나는 한 사람을 보았나니, 그는 내 앞에서 땅에 쓰러져 있었느니라. 이는 그가 술에 취하였음이더라. 8 그리고 내가 그에게 이르렀을 때 나는 그것이 라반임을 알았느니라. 9 또 나는 그의 칼을 보았으며, 내가 그것을 그 집에서 뽑아내었더니, 그 손잡이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그 만든 솜씨는 심히 정교하였으며, 또 나는 그 칼날이 극히 귀한 강철로 되었음을 알았느니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라반을 죽여야 한다는 영의 강권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내 마음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언제 어느 때든지 결코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도다" 하고 뒤로 물러나 그를 죽이지 않으려 하였느니라. 11 이에 영이 다시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셨고, 또한 나는 그가 나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음과 더욱이 그가 주의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으리라는 것과, 그가 또한 우리의 소유를 빼앗았음을 알았느니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영이 다시 내게 이르시되, "그를 죽이라, 주께서 그를 네 손에 붙이셨음이니라. 13 보라 주께서 그의 의로운 목적을 이루시고자 악인을 죽이심이니, 한 사람이 죽는 것이 한 민족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어 멸망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셨느니라.

14 또 이제 나 니파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광야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 주의 말씀을 기억하였나니, 곧 이르시기를 "너의 자손들이 내 계명을 지킬진대,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신 것이라."[ㄱ] 15 또한 나는 그들이 율법을 갖지 않고서는, 모세의 율법을 좇아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였느니라. 16 또한 나는 율법이 놋쇠판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느니라. 17 또 나는 주께서 그의 명대로 내가 그 기록을 얻게 하려는 이 이유로, 라반을 나의 손에 붙이셨음을 알았느니라. 18 그리하여 나는 영의 음성에 순종하여, 라반의 머리털을 잡고 그 자신의 칼로 그의 머리를 쳐 떨어뜨렸느니라. 19 또 그 자신의 칼로 그의 머리를 쳐 떨어뜨린 후, 나는 라반의 옷을 취하여 참으로 하나도 빠짐 없이 나 자신의 몸에 걸치고 그의 갑옷을 나의 허리에 둘렀느니라.

20 또 이렇게 하고 나서 나는 라반의 보물고로 나아갔나니, 내가 라반의 보물고로 나아가다가 보라, 나는 보물고의 열쇠를 가진 라반의 종을 보았느니라. 이에 나는 라반의 목소리로 나와 함께 보물고로 들어가도록 그에게 명하였느니라. 21 이에 그는 나를 그의 주인 라반인 줄로 생각하였으니, 이는 옷과 또한 나의 허리에 찬 칼을 보았음이라. 22 또 그는 그의 주인 라반이 밤에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나가 있은 줄을 알았던지라, 나에게 유대인 장로들에 관하여 말하였느니라. 23 이에 나는 마치 라반인 것처럼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24 그리고 또한 그에게 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것들을 성벽 바깥에 있는 나의 형들에게 가져가야겠노라고 말하였느니라. 25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였더라. 26 이에 그는 내가 교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나를

[ㄱ] 14 니파이전서 2:20 비교

참으로 내가 죽인 그 라반이라고 생각하였던지라 나를 따라왔느니라. [27]또 그는 내가 성벽 바깥에 있는 나의 형들에게로 나아가는 동안, 유대인 장로들에 관하여 여러 번 나에게 말하였느니라.

[28]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이 나를 보았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고, 레뮤엘과 샘도 그러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도망하였으니, 이는 라반이라 생각하였음이요, 그가 나를 죽이고 그들의 생명도 빼앗으려 한 줄로 생각하였음이라. [2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들을 뒤에서 부른즉, 그들이 내 소리를 들었고 그리하여 그들이 내 앞에서 도망하기를 멈추었느니라.

조램$_1$이 니파이$_1$와 그의 형제들과 합류하다

[30]또 이렇게 되었나니 라반의 종이 나의 형들을 보고는 떨기 시작하더니, 바야흐로 내 앞에서 도망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려 하였느니라. [31]이제 나 니파이는 체격이 큰 사람이었고, 또한 주께로부터 많은 힘을 받았던지라, 나는 라반의 종을 붙잡아, 그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들었느니라. [3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와 말하기를, 네가 내 말을 듣는다면, 주께서 살아 계시고 또 내가 살아 있음같이 바로 그와 같이, 만일 네가 우리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너의 목숨을 살려주리라 하였느니라. [33]또 내가 참으로 맹세로써 그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만일 네가 우리와 함께 광야에 내려가면 우리처럼 자유인이 될 것이라 하였느니라. [34]내가 또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정녕 주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도록 명하셨거늘,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킴에 있어 부지런하지 않아야 하겠느냐? 그러한즉 만일 네가 광야로 내려가 나의 부친께 간다면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3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조램은 내가 한 말에 용기를 얻었더라. 이제 조램이란 그 종의 이름이니, 그는 광야로 내려가서 우리 부친께로 가겠다고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때로부터 이후로는 우리와 함께 머물겠다고 우리에게 맹세하였느니라. [36]이제 그가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우리가 원했던 것은 이 이유로 인함이었나니, 곧 유대인들이 우리가 광야로 도망한 것에 관하여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우리를 뒤쫓아 와서 우리를 멸할까 염려하였음이니라. [3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조램이 우리에게 맹세하매, 그에 관한 우리의 두려움은 그쳤느니라. [38]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놋쇠판과 라반의 종을 취하고 광야로 떠나, 우리 부친의 장막으로 여행하였느니라.

리하이$_1$의 가족이 재회하다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광야로 내려와 우리 부친께 이른 후, 보라, 그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셨고, 나의 모친 새라이아 역시 심히 기뻐하셨나니, 이는 모친이 우리로 인해 진실로 슬퍼하셨었음이라. [2]이는 모친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셨음이라. 또한 모친은 나의 부친에게 그가 환상의 사람이라 말하며 불평하셨었나니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우리를 우리 기업의 땅에서 이끌어 내셨으며, 이제 내 아들들은 없어졌고 우리는 광야에서 멸망하리이다" 하셨더라. [3]그리고 이 같은 말로 나의 모친은 나의 부친에게 불평하셨느니라.

[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이 모친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환상의 사람인 줄을 아노라. 이는 만일 내가 시현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나의 형제들과 함께 멸망하였을 것임이라. 5그러나 보라 내가 약속의 땅을 얻었으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진정 기뻐하노라. 더욱이 나는 주께서 나의 아들들을 라반의 손에서 구원하사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다시 데려다 주실 것임을 아노라" 하셨더라. 6이러한 말로 우리가 유대인의 기록을 얻으려 예루살렘 땅까지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나의 부친 리하이는 우리에 관하여 나의 모친 새라이아를 위로하셨더라.

7이에 우리가 나의 부친의 장막으로 돌아왔을 때, 보라 그들의 기쁨은 충만하였으며 나의 모친은 위로를 받으셨느니라. 8그리하여 모친이 말씀하여 이르되, "이제 나는 주께서 나의 남편에게 광야로 도망하도록 명하셨음을 분명히 아노라. 또한 주께서 나의 아들들을 보호하사 라반의 손에서 건져 내시고,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도 분명히 아노라" 하셨나니, 이같이 모친은 진정으로 말씀하셨느니라. 9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심히 기뻐하여 주께 희생과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느니라.

놋쇠판의 내용

10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난 후, 나의 부친 리하이는 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기록을 취하여 처음부터 살펴보셨느니라. 11그리고 거기에 세상의 창조와, 또한 우리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에 관한 기사를 전하고 있는 모세의 다섯 책이 들어 있음을 보셨느니라. 12또한 태초로부터 유다 왕 시드기야 치세 초에 이르기까지의 유대인의 기록과, 13또한 태초로부터 유다 왕 시드기야 치세 초에 이르기까지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과, 또한 예레미야의 입으로 전해진 많은 예언이 들어 있음을 보셨느니라.

14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 리하이는 또한 놋쇠판에서 그의 조상의 족보를 발견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는 그가 요셉의 후손임을 아셨나니, 진실로 이 요셉은 야곱의 아들로서 애굽으로 팔려 가서 주의 손으로 보전되어 그의 부친 야곱과 그의 모든 권속을 보전하여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게 하였던 바로 그 요셉이라. 15또한 그들은 그들을 보전하신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 인도되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애굽 땅에서 나왔느니라. 16이같이 나의 부친 리하이는 그의 조상의 족보를 찾아 내셨으며, 또한 라반도 역시 요셉의 후손이었나니, 그런 연유로 그와 그의 조상들이 기록을 해 왔던 것이더라.

17그리고 이제 나의 부친이 이 모든 것을 보셨을 때, 그는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의 자손에 관하여 예언하기 시작하셨으니— 18이 놋쇠판은 그의 자손에게서 나온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아갈 것이라 하셨느니라. 19그리하여 그는 이 놋쇠판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세월에 의해 더 이상 흐려지지도 아니할 것이라 하시고, 또 그의 자손에 관하여 많은 것을 예언하셨느니라.

20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제까지 나와 나의 부친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켰느니라. 21또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기록을 얻어 그것을 살펴보고는, 그 기록이 바람직한 것임을 알았나니, 참으로 우리에게 크나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계명을 보존해 줄 수 있게 하는 것이었느니라. 22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를 여행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를 갖고 가게 하신 것은 주 안에 있는 지혜였느니라.

니파이[1]가 하나님의 것에 대해 쓰다

6 이제 나 니파이는 내 기록의 이 부분에서는 나의 조상의 족보를 기술하지 아니하며, 이후 어느 때라도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판에는 그것을 기술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이 나의 부친이 적고 계시는 기록에 나와 있음이라. 그러한즉 나는 이 책에는 그것을 기록하지 아니하리라. [2]이는 우리가 요셉의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내게는 족함이라. [3]또한 내가 각별히 나의 부친의 일을 모두 전하는 것이 내게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 이는 그러한 것을 이 판에 쓸 수 없음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것에 관하여 쓸 공간을 원함이라. [4]왜냐하면 오직 나의 뜻하는 바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 나아와 구원받게 하려는 것임이라. [5]그러므로 세상에 기쁨이 되는 것들을 나는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들을 쓰노라. [6]그러므로 나는 나의 자손들에게 명하여, 사람의 자녀들에게 가치가 있지 않은 것으로 이 판을 채우지 않게 하리라.

이스마엘[1]의 가족을 데려오기 위해 형제들이 돌아가다

7 또 이제 나는 너희가 알기를 바라노니, 나의 부친 리하이가 그의 자손들에 관하여 예언하기를 마치고 난 후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사 그 곧 리하이가 그의 가족만을 데리고 홀로 광야로 들어감이 좋지 아니하매, 그의 아들들이 딸들을 아내로 취하여 약속의 땅에서 주를 위해 자손을 생육하게 하라"고 하셨느니라. [2]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에게 명하사, 나 니파이와 나의 형들이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 이스마엘과 그의 가족을 광야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셨느니라.

[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나의 형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광야로 나아갔느니라. [4]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이스마엘의 집으로 올라가 이스마엘의 호감을 얻게 된지라, 우리는 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이스마엘과 또한 그의 권속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신지라, 그들이 우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 광야로 내려와서 우리 부친의 장막으로 오게 되었느니라.

광야에서의 반란

[6]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광야를 여행하고 있을 때, 보라 레이맨과 레뮤엘,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가운데 두 명과 이스마엘의 두 아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나 니파이와 샘과 그들의 부친 이스마엘과 그의 아내와 그의 다른 세 딸에게 대항하여 모반을 일으켰느니라. [7]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모반의 와중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땅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였느니라.

[8]이에 이제 나 니파이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비통해졌나니, 그런고로 그들에게, 참으로 레이맨과 레뮤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은 나의 형들이니이다. 그런데 당신들의 동생인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고 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을 만큼, 당신들의 마음이 그토록 완악하고 어두움은 어찜이니이까? [9]당신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음은 어찜이니이까? [10]당신들이 주의 천사를 본 것을 잊어버렸음은 어찜이니이까?」 [11]참으로 또한 주께서 우리를 라반의 손에서 건져 내시고,

「10 니파이전서 3:29~30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기록을 얻게 하시고자,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당신들이 잊어버렸음은 어찜이니이까? 12참으로 더욱이 사람의 자녀들이 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진대, 주께서는 능히 그들을 위하여 그의 뜻대로 만사를 행하실 수 있으심을 당신들이 잊어버렸음은 어찜이니이까? 그러한즉 우리는 주께 충실하사이다.

13또 우리가 주께 충실할진대 우리는 약속의 땅을 얻을 것이요,

"장차 어느 시기에 당신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ㄱ 관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알게 되리니, 이는 주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이니이다. 14이는 보소서, 주의 영이 그들과 애쓰시기를 곧 그치심이니, 이는 보소서, 그들이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었음이니이다.ㄴ 또 그들은 부친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고, 끝내 그를 그 땅에서 몰아 내었나이다. 15이제 보소서, 내가 당신들께 이르노니, 만일 당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당신들도 그들과 함께 멸망될 것이니이다. 이제 당신들이 원할진대 그 땅으로 올라가소서. 그리하되 내가 당신들께 하는 말, 곧 당신들이 가면 당신들 역시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소서. 이는 이같이 주의 영이 말하라고 내게 강권 하심이니이다."

1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이 말을 나의 형들에게 하자 그들이 내게 화를 내었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보라, 그들이 심히 노하였던지라, 그 손을 내게 대었고 또 그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나를 줄로 묶었으니, 이는 나를 광야에 버려 두어 들짐승들에게 삼키우게 하려 함이더라. 17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주를 믿는 나의 신앙을 좇아 나를 내 형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진정 내게 힘을 내리사 나로 하여금 나를 묶은 이 결박을 끊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였느니라. 1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 말을 하고 나자, 보라, 결박이 내 손과 발에서 풀렸으며 내가 내 형들 앞에 서서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느니라.

1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시 나에게 노하여 내게 손을 대려 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이스마엘의 딸 중 하나와 또한 그의 모친과 또 이스마엘의 아들 중 하나가 나의 형들에게 간청하였던지라, 그들이 마음을 누그러뜨렸으며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던 것을 멈추었느니라. 20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슬퍼하여 내 앞에 절하고, 그들이 나에게 행한 일을 용서해 주도록 나에게 간청하였느니라. 2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그들이 내게 행한 바를 모두 흔쾌히 용서하였으며, 그들이 그들의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용서를 구하도록 권면하였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리하였으며 그들이 주께 기도하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는 다시 여로에 올라 우리 부친의 장막을 향해 여행하여 갔느니라. 22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내려와서 우리 부친의 장막에 이르렀고, 나와 나의 형들과 이스마엘의 온 집이 내려와 나의 부친의 장막에 이른 후, 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며, 또 그에게 희생과 번제를 드렸느니라.

ㄱ 13 니파이후서 1:4 ㄴ 14 예레미야 32:1~2; 38:1~13 참조; 그렇지만 리하이1가 떠나고 난 후에야 이 투옥이 일어났음

리하이[1]의 꿈 (비유)[ㄱ]

니파이전서 8장

나무와 그 열매

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온갖 종류의 갖가지 씨앗을 다 모았으며, 온갖 종류의 곡식 씨앗과 온갖 종류의 과일 씨앗을 모두 모았느니라.

[2]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이 광야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나니 달리 말하자면 내가 한 시현을 본 것이니라. [3]또 보라 내가 본 것으로 말미암아 니파이와 또한 샘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기뻐할 까닭을 내가 가졌나니, 이는 그들과 그들의 자손 가운데 많은 자가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할 만한 까닭을 내가 가졌기 때문이니라. [4]그러나 보라, 레이맨과 레뮤엘아, 너희로 인하여 내가 심히 두려워하노라.

"이는 보라, 내 생각으로는 내 꿈에 내가 어둡고 황량한 광야를 보았음이라. [5]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흰 옷을 입었더니 그가 와서 내 앞에 서더라. [6]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내게 말하여, 나에게 그를 따라오라 하였느니라. [7]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를 따라가다가, 나 자신이 어둡고 황량한 황무지에 있음을 알았느니라. [8]또 내가 어둠 속을 여러 시간 동안 여행하고 나서, 나는 주께서 그의 친절하신 자비를 좇아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고 주께 간구하기 시작하였느니라.

[9]"'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 기도하고 나서 나는 크고 광활한 벌판을 보았느니라. [10]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줄 만큼 먹음직한 열매가 달린 나무 한 그루를 보았느니라. [11]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아가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 보고는, 그 열매가 지극히 감미로워 내가 이전에 맛본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감미로움을 알았느니라. 또한 나는 그 열매가 희되, 내가 이제까지 본 흰 것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 더 희다는 것을 알았느니라. [12]또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매, 그것이 나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는지라, 나는 나의 가족들도 역시 그 열매를 먹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나니, 이는 그 열매가 다른 어떤 열매보다 더 먹음직한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강과 쇠막대와 크고 넓은 건물

[13]"그리하여 나는 혹시 나의 가족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을까 하여, 내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다가 물이 흐르는 강을 하나 보았나니, 그 강은 흘러가며 내가 열매를 먹고 있던 나무 가까이에 있더라. [14]이에 나는 그 강이 어디서 흘러오는지 보려고 살피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 그 강의 발원지를 보았고, 그 강의 발원지에서 너희 어머니 새라이아와 샘과 니파이를 보았는데 그들은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듯 서 있더라. [1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손짓하고 또 그들에게 큰 목소리로 이르기를, 내게로 와서 다른 어떤 열매보다 더 먹음직한 열매를 먹으라 하였느니라. [1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내게로 와서 그들도 그 열매를 먹었느니라.

[17]"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레이맨과 레뮤엘도 와서 그 열매를 먹기를 바라, 혹 그들을 볼 수 있을까 하여 강의 발원지를 향하여 나의 눈길을 던졌느니라. [18]그리고

[ㄱ1] 니파이[1]의 해석은 니파이전서 11:13~36; 12:16~18; 15:21~36; 니파이후서 31:17~21에 나옴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들을 보았으나, 그들은 내게로 와서 그 열매를 먹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또 나는 쇠막대를 하나 보았는데, 그것은 강둑을 따라 뻗어 있었으며 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 이르더라. 20 또한 나는 이 쇠막대를 따라 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까지 이르는, 한 협착하고 좁은 길을 보았나니, 이 길은 또한 강의 발원지 곁을 지나서, 마치 하나의 세상이기나 한 듯한 크고 광활한 벌판으로 이어지더라. 21또 나는 무수한 사람의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려고 앞으로 밀고 나아오더라. 22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앞으로 나아와, 나무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서 나아가기 시작하더라.

23“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어둠의 안개가 일어나매, 참으로 심히 큰 어둠의 안개라. 그로 인해 그 길에 들어섰던 자들이 길을 잃더니, 방황하며, 멀어지다가, 잃어버린 바 되더라. 24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다른 이들이 앞으로 밀고 나아옴을 보았나니, 그들이 나아와서 쇠막대의 끝을 붙잡더라. 또 그들은 쇠막대를 꼭 붙든 채 밀고 나아가 어둠의 안개를 지나가더니 마침내 나아와 나무의 열매를 먹더라. 25또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마치 부끄러운 듯 주위에 그들의 눈길을 던지더라.

26“이에 나 또한 내 눈길을 던져 주위를 둘러보고는, 물이 흐르는 강 저편에 크고 넓은 건물 하나를 보았나니, 그것은 땅 위 높이, 말하자면 공중에 서 있더라. 27또 그 건물은 사람들, 곧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저들의 옷차림은 심히 훌륭하였고, 저들은 열매에 이르러서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태도였느니라. 28이에 그들이 열매를 맛본 후 그들을 비웃는 자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더니,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되더라.”

29또 이제 나 니파이는 나의 부친의 말씀을 모두 다 이야기하지는 아니하노라. 30그러나 간략히 쓰자면, 보라, 부친은 또 다른 수많은 무리가 앞으로 밀고 나아옴을 보셨나니, 그들이 와서 쇠막대의 끝을 붙잡았더라. 또 그들은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은 채 앞으로 밀고 나아오더니, 드디어 나아와 엎드러져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니라.

31그리고 부친은 다른 수많은 무리가 저 크고 넓은 건물을 향해서 길을 더듬어 가는 것을 또한 보셨더라. 32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자가 깊은 물에 빠져 죽었으며, 많은 자가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다가 그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더라. 33또 저 이상한 건물로 들어간 무리가 심히 많았는데, 그들이 그 건물에 들어간 후에 그들은 나와 나처럼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에게 멸시하는 손가락질을 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34나의 부친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인 자마다 모두 떨어져 나갔음이라.” 35“그리고 레이맨과 레뮤엘은 열매를 먹지 아니하였도다,” 나의 부친께서 말씀하셨느니라.

36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께서 그의 꿈 곧 시현에 관한 많은 말씀을 모두 하시고 나서, 그가 시현에서 보신 일들로 인해 레이맨과 레뮤엘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참으로 그는 그들이 주의 면전에서 쫓겨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셨느니라. 37그리하여 부친은 그들이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혹 주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을 쫓아 내지 않으시도록, 애정 깊은 부모의 정감을 다하여 그때 그들을 권면하였나니, 진실로 나의 부친은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느니라. 38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시고 또한 그들에게 많은 것을 예언하시고 난 후, 그들에게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그치셨느니라.

니파이$_1$의 두 묶음의 판

9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나의 부친은 레뮤엘의 골짜기에서 장막에 거하실 때 보고, 듣고, 말씀하셨으며, 이 외에도 대단히 많은 것을 그리하셨으나, 이 판에는 기록할 수 없도다. 2그리고 이제 내가 이 판에 관하여 말한 것같이, 보라, 이 판은 그 위에 내가 내 백성의 역사에 관한 완전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내 백성에 관한 완전한 기사를 작성하는 판에 니파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였음이니, 그러므로 그 판은 나 자신의 이름을 따라 니파이의 판이라 일컬어지느니라.ㄱ 또 이 판 역시 니파이의 판이라 일컬어지느니라. 3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백성의 성역에 관하여 새겨진 기사가 있어야 한다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 판을 만들라는 명령을 주께로부터 받았느니라. 4다른 판에는 왕들의 다스림과 내 백성의 전쟁과 다툼이 새겨져야 하리라. 그러한즉 이 판은 주로 성역을 위한 것이요, 다른 판은 주로 왕들의 다스림과 내 백성의 전쟁과 다툼을 위한 것이니라.

5그러한즉, 주께서는 주 안에 있는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하여 이 판을 만들도록 나에게 명하셨거니와, 그 목적을 나는 알지 못하노라.ㄴ 6그러나 주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아시는도다. 그러한즉 그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의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나니, 이는 보라, 그는 그의 모든 말씀을 이루실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이니라.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리하이$_1$가 메시야에 대해 예언하다

10 그리고 이제 나 니파이는 계속하여 이 판에 나의 행한 바와, 나의 다스림과 성역에 관한 기사를 기술해 나가려 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기사를 가지고 계속해 나가기 위하여, 나는 나의 부친과 또한 나의 형들의 일에 관하여 어느 정도 말해야만 하느니라. 2이는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께서 그의 꿈에 대한 말씀과, 또한 그들로 하여금 부지런함을 다하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을 마치신 후 유대인들에 관하여 말씀하셨음이라— 3저들이 멸망되리니, 즉 저 큰 성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많은 자가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를 따라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니, 참으로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되돌아오게 될 것이며, 그들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되돌아오게 된 후,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4참으로 나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나신 때로부터 육백 년에, 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으니, 곧 메시야 즉 달리 말하자면 세상의 구주시라. 5또한 그는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되,ㄷ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가 말씀하신 이 메시야, 곧 세상의 구속주에 관하여 이러한 일들을 증거하였는지를 말씀하셨느니라. 6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잃어버린 바 되고 타락한 상태에 있으며, 그들이 이 구속주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그러하리라 하시더라.

ㄱ2 이는 곧, *그 [큰] 판은 나 자신의 이름을 따라 니파이의 [작은] 판이라 일컬어지느니라.* [큰 판과 작은 판을 구별하기 위해 꺽쇠 괄호에 단어를 추가함] ㄴ5 결국은 니파이의 작은 판 내용은 (니파이전서~옴나이서) 마틴 해리스가 1828년에 분실한 116쪽을 대체하는 데 사용되었음; 이것은 니파이$_1$가 알지 못하는 최소한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목적들도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에이롬서 1:2에서는 이 작은 판을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의 유익이 되게 할 목적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묘사됨 ㄷ5 리하이$_1$는 신명기 18:15, 18~19의 모세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 제3니파이 20:23 비교; 또는 니파이전서 19:8~21의 지노크, 니움, 지노스의 예언에 대해 암시하는 것으로 추정

7 또한 그는 메시야에 앞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셨나니— 8 참으로 그가 나아가서 광야에서 외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행로를 곧게 하라.ㄱ 이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가 서 계심이라. 그는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리라 하셨느니라."ㄴ 그리고 나의 부친은 이 일에 관하여서 실로 많은 말씀을 하셨느니라. 9 또 나의 부친은 이르기를, 그가 요단 건너편 베다바라에서 침례를 주리라 하셨으며, 또한 이르기를, 그는 물로 침례를 줄 것이며, 참으로 그가 메시야에게 물로 침례를 줄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10 또 그는 메시야에게 물로 침례를 준 후에, 그가 세상의 죄를 제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침례를 주었음을 알고 증거하리라 하셨느니라.

리하이$_1$가 이스라엘의 집을 감람나무에 비유하다 (또 하나의 비유)

1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 나의 형들에게 유대인들 가운데 전파될 복음에 관하여, 또한 유대인들이 점차 믿지 않음에 빠져 들어갈 것에 관하여 말씀하셨나니, 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야를 죽인 후,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하신 후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사, 성신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하셨느니라. 12 참으로 나의 부친은 이방인들에 관하여서 많이 말씀하셨으며, 또한 이스라엘 집에 관하여서도 많이 말씀하셨으니, 곧 그들이 그 가지가 꺾여 온 지면에 흩어질 감람나무에 비유될 것이라 하셨느니라. 13 그리하여 그가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같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어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룸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하셨느니라. 14 또 이스라엘 집이 흩어지고 난 후, 그들은 다시 함께 모이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즉 요컨대 이방인들이 복음의 충만함을 받은 후, 감람나무의 원가지들 즉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주이시며 그들의 구속주이신 참 메시야에게로 접목될 것이니, 즉 그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라 하셨느니라.ㄷ

15 이에 이 같은 말로써 나의 부친은 나의 형들에게 예언하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더 많은 것을 말씀하셨으나 이를 나는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중에서 내가 합당하게 여기는 만큼을 내가 나의 다른 책에 기록해 두었음이니라. 16 그리고 내가 말한 이 모든 일은 나의 부친이 레뮤엘의 골짜기에서 장막에 거하실 때에 이루어졌느니라.

니파이$_1$가 스스로 알기를 간절히 원하다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부친이 시현에서 보신 것들과 그가 성신의 권능으로 말씀하신 것을 모두 들었으니, 이 권능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가 받으신 것이요—하나님의 아들은 장차 오실 메시야라—나 니파이는 하나님께서 장차 사람의 자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고대에 있어서도 역시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인 성신의 권능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보고 듣고 알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였느니라.

18 이는 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요,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에게 나아올진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만인을 위해 길이 예비 되어 있음이라.

ㄱ 8 이사야 40:3; 마태복음 3:3; 마가복음 1:2~3; 누가복음 3:4 ㄴ 8 마태복음 3:11; 마가복음 1:7; 누가복음 3:16; 요한복음 1:26~27 ㄷ 14 감람나무에 대한 니파이$_1$의 해석은 니파이전서 15:12~20에 나옴; 야곱서 5장 비교

19이는 부지런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이 성신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것임이니, 고대에서와 같이 이 시대에도 역시 그러하며, 장차 올 시대에서와 같이 고대에도 역시 그러하였음이라. 그러한즉 주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니라.

20그러므로 사람아, 너희 모든 행위에 대하여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 21그러한즉 만일 너희가 너희의 시험의 날 동안 간악하게 행하기를 구하였다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나니,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은즉,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히 버림을 받아야만 하느니라. 22또 성신께서 권세를 주사 나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이를 거부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니파이$_1$의 시현 (계시록)[ㄱ]

니파이전서 11~14장

니파이$_1$가 주님의 영과 대화하다

11 이는 이렇게 되었음이니 내가 나의 부친이 보신 것들을 심히 알기 원한 후에, 주께서 그것들을 나에게도 알려 주실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앉아 있었을 때, 나는 주의 영에게 붙들리어, 내가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전에 한 번도 발을 딛어 본 적이 없는 심히 높은 산으로 이끌려 갔느니라.

2그리고 영이 내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3이에 내가 이르되, "나의 아버지가 본 것들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4그리고 영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네 아비가 말한 그 나무를 보았다고 믿느냐?"

5이에 내가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말을 모두 믿는 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하였더라.

6그리고 내가 이러한 말들을 하고 나자, 영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호산나로다.[ㄴ] 이는 그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요, 참으로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이라. 또 너 니파이에게 복이 있나니 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이라. 그런즉, 네가 원한 것들을 네게 보여 주리라. 7또 보라, 이것이 네게 표적으로 주어질 것이라. 곧 네 아비가 맛 본 열매를 맺는 그 나무를 네가 보고 난 후, 하늘로부터 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을[ㄷ] 네가 또한 보게 되리니, 그를 네가 목격할지며 네가 그를 목격한 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리라" 하시더라.

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영이 내게 일러, "보라" 하시기로 내가 보고는 나무 한 그루를 보았나니, 그것은 나의 부친이 보신 나무와 흡사하더라.[ㄹ] 또 그 아름다움은 모든 아름다움을 훨씬 능가하여 참으로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더욱 뛰어났으며, 그 희기는 쌓인 눈의 희기보다 더 희더라.

9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무를 본 후에 영께 이르되, "당신께서 무엇보다도 귀한 나무를 내게 보여 주셨음을 내가 보나이다" 하였더라.

10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ㄱ]1 이 시현은 니파이전서 8장의 리하이$_1$의 꿈과 니파이전서 1장과 10장의 리하이$_1$의 예언을 해석하고 부연함 [ㄴ]6 히브리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 말은 점차 찬양의 말로 표현되었음 [ㄷ]7 니파이전서 12:6에서 이 일이 일어남; 니파이전서 1:9; 제3니파이 11:8 비교 [ㄹ]8 니파이전서 8:10~12

11 이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을 알기 원하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람이 말하듯 그에게 말하였음이라. 이는 그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심을 내가 보았음이어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가 주의 영인 줄을 알았고, 또 그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말하듯 나에게 말씀하셨느니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내게 일러, "보라" 하시기로 내가 마치 그를 쳐다보려는 듯 보았으나,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내 앞에서 떠나가셨음이더라.

천사가 나무와 쇠막대의 의미를 설명하다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고 큰 성 예루살렘과 또한 다른 성읍들을 보았고, 나는 또 나사렛 성을 보았으며 나사렛 성 안에 한 처녀를 보았나니 그 처녀는 심히 곱고 희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니, 하늘들이 열리고 한 천사가 내려와 내 앞에 서서 내게 이르되, "니파이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15 이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른 모든 처녀들보다 뛰어나게 지극히 아름답고 고운 처녀 하나를 보나이다" 하였더라.

16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을 아느냐?"

17 이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심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모든 것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나이다" 하였더라.

18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보는 처녀는 육의 방식에 의하면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시니라" 하더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그 처녀가 영에 이끌려 감을 보았으며, 얼마 동안 그 처녀가 영에 이끌려 가 있은 후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하였느니라. 20 이에 내가 보고 그 처녀를 다시 보았더니 한 어린아이를 팔에 안고 있더라.

21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참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 너의 부친이 본 나무의 의미를 이제 네가 알겠느냐?"

22 이에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그것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두루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니이다. 그러한즉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바랄만한 것이니이다" 하였느니라.

23 또 그가 내게 일러 이르되, 그러하도다. "또한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더라.

24 또 그가 이 말들을 하고 난 후, 나에게 일러, "보라" 하기로, 내가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나아가시는 것을 보았느니라. 또 내가 본즉, 많은 자들이 그의 발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더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나의 부친이 보신 쇠막대가 생수의 근원,[ㄱ] 곧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나니, 이 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라. 또 나는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도 알았느니라.

[ㄱ] 25 니파이전서 8:19~20, 24

니파이$_1$가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성역(목회)을 보다

[26]또 천사가 다시 내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낮추어 오심을 볼 지어다!" [27]이에 내가 보고는 나의 부친이 말씀하신 세상의 구속주를 보았고, 또한 그의 앞에서 길을 예비할 선지자도 보았나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아가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시더라. 또 그가 침례를 받으신 후 내가 보니 하늘들이 열리고, 성신이 하늘에서 내려와,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의 위에 머무르더라.ㄱ [28]또 내가 보니 그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나아가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매, 허다한 무리가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함께 모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들이 그를 그들 가운데서 쫓아 내더라. [29]또 나는 다른 열둘이 그를 따르는 것도 보았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의 면전에서 영에 이끌려 가더니 보이지 아니하더라.

[30]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다시 내게 일러 이르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고 하늘들이 다시 열린 것을 보았고, 또 천사들이 사람의 자녀들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나니 그들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풀더라.

[31]또 그가 다시 내게 일러 이르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나아가시더라. 또 나는 병든 자들과 온갖 종류의 질병으로 또 마귀들과 더러운 귀신들로 고통받는 허다한 무리를 보았나니, 천사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하고 보여 주었느니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으로 고침을 받고 마귀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더라.

[32]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다시 내게 일러 이르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나니 그가 사람들에게 잡히셨더라.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게 심판을 받으시매 내가 보고 증거하였노라. [33]또 나 니파이가 보니, 그가 십자가 위에 들리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더라.

[34]또 그가 죽임을 당하신 후에 내가 본즉, 땅의 허다한 무리가 어린 양의 사도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함께 모였더라. 어린 양의 사도라 함은 주의 천사가 열둘을 이같이 일컬었음이라. [35]또 땅의 허다한 무리가 함께 모였는데 내가 보니, 그들이 나의 부친이 보신 것과 흡사한 한 크고 넓은 건물 안에 있더라.ㄴ 주의 천사가 다시 내게 일러 이르되, 세상과 그 지혜를 보라. 참으로, "보라 이스라엘의 집이 어린 양의 열두 사도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함께 모였도다" 하더라.

[36]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고 증거하였으되, 그 크고 넓은 건물은 세상의 교만이요, 또 그것이 무너지니, 그 무너짐이 심히 크더라. 이에 주의 천사가 다시 내게 일러 이르되, "어린 양의 열두 사도를 대적하여 싸울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멸망이 이러하리라" 하더라.

니파이$_1$가 예수님이 약속의 땅에 오심을 보다ㄷ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하여 네 자손과 네 형제들의 자손을 볼지어다" 하기로, 내가 보고 약속의 땅을 보았고, 또 허다한 사람들의 무리를 보았나니, 참으로 그 수가 마치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더라. [2]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허다한 무리들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려고 함께 모이는 것을 보았으며, 또 나는 내 백성 가운데 여러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칼로 행하여지는 큰 살육들을 보았느니라. [3]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그 땅에서 전쟁과 분쟁의 와중에 많은

ㄱ27 니파이전서 10:4~10 참조; 마태복음 3:16; 마가복음 1:10; 누가복음 3:22; 요한복음 1:32 비교 ㄴ35 니파이전서 8:26, 31 ㄷ1 이 예언들은 제$_3$니파이 8~제$_4$니파이 1에서 실현됨

세대가 지나감을 보았고, 또 많은 성읍들을 보았나니, 참으로 그 수가 많은 고로 내가 세지 아니하였느니라.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약속의 땅 위에 어둠의 안개를 보았으며, 또 번개를 보았으며, 또 천둥과 지진과 온갖 종류의 요란한 소리를 들었으며, 또 땅과 바위들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며, 또 산들이 산산조각으로 무너짐을 보았으며, 또 땅의 평지들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며, 또 많은 성읍들이 가라앉는 것을 보았으며, 또 많은 성읍들이 불에 타는 것을 보았으며, 또 많은 성읍들이 땅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땅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러한 것을 본 후에 나는 어둠의 연무가 땅에서 걷히는 것을 보았으며, 또 보라 나는 크고 두려운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엎드러지지 아니한 허다한 많은 무리를 보았느니라.

6 또 내가 보니 하늘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더니, 그가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더라. 7 또한 내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성신이 다른 열둘 위에 내리시더니, 그들이 하나님께 성임을 받고 택하심을 입더라. 8 이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 자손들에게 성역을 베풀도록 택하심을 입은 어린 양의 열두 제자를 보라" 하더라. 9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를 기억하느냐? 보라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자들이라. ㄱ 그러한즉 네 자손의 열두 성역자들이 그들에게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 집에 속하였음이니라. 10 또 네가 보는 이 열두 성역자들은 너의 자손들을 심판하리라. 또 보라, 그들은 영원히 의로우니,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옷이 그의 피로 희게 되었음이니라" 하더라. ㄴ

11 또 천사가 내게 일러, "보라" 하기로 내가 보고 세 세대가 의로운 가운데 지나감을 보았나니 그들의 옷이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희더라.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어린 양을 믿는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된 것이니라" 하더라. 12 또 나 니파이는 또한 네 번째 세대의 많은 이들이 의로운 가운데 지나감을 보았느니라.

니파이$_1$가 리하이$_1$의 후손들 중에 불신앙과 전쟁이 있음을 보다 ㄷ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땅의 허다한 무리가 함께 모였더라. 14 또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의 자손들과 네 형제들의 자손들을 보라 하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고, 나의 자손들의 백성이 허다한 무리를 이루어 나의 형제들의 자손들을 대적하여 함께 모인 것을 보았나니, 그들은 싸우려고 함께 모였더라.

16 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부친이 본 더러운 물의 근원을 보라, ㄹ 곧 그가 말한 강이니 ㅁ 그 깊이는 지옥의 깊이니라. 17 또 어둠의 안개는 ㅂ 악마의 유혹이니, 이것이 사람의 자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을 넓은 길로 이끌어 낸즉 그들이 멸망하며 잃은 바 되느니라. 18 또 너의 부친이 본 크고 넓은 건물은 ㅅ 사람의 자녀들의 헛된 상상과 교만이라. 크고 두려운 심연이 이를 갈라 놓나니, 실로 크고 두려운 심연이란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과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이때까지, 그리고 이때로부터 앞으로 영원토록 성신이 증거하시는 메시야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라."

ㄱ 9 마태복음 19:28; 누가복음 22:30 참조 ㄴ 10 이 예언은 제3니파이 19:25에서 실현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ㄷ 13 이 예언들은 몰몬서 1~8에서 실현됨 ㄹ 16 니파이전서 8:32 ㅁ 16 니파이전서 8:13 ㅂ 17 니파이전서 8:23 ㅅ 18 니파이전서 8:26

19또 천사가 이 말을 하는 동안 내가 보니, 천사의 말대로 내 형제들의 자손들이 나의 자손들을 대적하여 다투더라. 또 나의 자손들의 교만과 악마의 유혹으로 인해 나는 나의 형제들의 자손들이 나의 자손들의 백성을 이기는 것을 보았느니라. 20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나의 형제들의 자손들의 백성이 나의 자손들을 정복하였고, 또 그들은 허다한 무리를 이루어 그 땅의 지면 위에 나아가더라. 21또 내가 보니 그들이 허다한 무리를 이루어 함께 모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들 가운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더라. 또 내가 보니 전쟁과 전쟁의 소문 가운데 여러 세대가 지나가더라.

22천사가 또 내게 이르기를, "보라 이들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리라" 하더라. 2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그들이 믿지 않음에 빠져든 후 그들은 게으름과 온갖 가증함이 가득하며 어둡고 혐오스러우며 더러운 백성이 되더라.

니파이$_1$가 크고 가증한 교회를 보다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하기로, 내가 보고는 많은 나라와 왕국들을 보았더라.

2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말하기를 "많은 나라와 왕국들을 보나이다" 하였더니,

3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이방인들의 나라와 왕국들이니라" 하더라.

4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이방인들의 나라 가운데서 한 큰 교회가 형성됨을 보았느니라. 5이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더한 가장 가증한 교회의 형성됨을 보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살해하며, 또 그들을 고문하며 그들을 결박하며, 쇠 멍에로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며, 그들을 끌어내려 사로잡히게 하는도다" 하더라. 6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 크고 가증한 교회를 보았고, 또 내가 악마를 보았나니 그가 그 교회의 설립자더라.

7또한 나는 금과 은과 비단과 주홍색 천과 세마포와 온갖 값진 옷을 보았으며, 또 나는 많은 창녀들을 보았느니라. 8이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금과 은과 비단과 주홍색 천과 세마포와 값진 옷과 창녀들은 이 크고 가증한 교회가 바라는 것들이라. 9또한 세상의 칭찬을 받고자, 실로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멸망시키며 그들을 끌어내려 사로잡히게 하는도다" 하더라.

니파이$_1$가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방인들을 보다

10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고 또 많은 물들을 보았나니, 그 물들이 이방인들과 나의 형제들의 자손들을 갈라 놓았더라. 11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의 형제들의 자손들 위에 있도다" 하더라. 12또 내가 보고 또 이방인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았는데,ㄱ 그가 많은 물들을 사이에 두고 나의 형제들의 자손들에게서 떨어져 있더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매, 그가 많은 물들 위로 나아가서는, 참으로 약속된 땅에 있는 내 형제들의 자손들에게 이르더라. 13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매 그들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많은 물들 위로 나아가더라.

14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약속의 땅 위에 허다한 이방인의 무리들을 많이 보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내 형제들의 자손들 위에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이방인들

ㄱ12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로 추정됨

앞에서 흩어지며 괴로움을 당하더라. 15또 나는 주의 영이 이방인들 위에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이 참으로 번성하며 그 땅을 그들의 유업으로 얻더라. 또 내가 보니 그들은 죽임을 당하기 전의 나의 백성들처럼 희며, 심히 곱고, 아름답더라. 16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본즉,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나아간 이방인들이 참으로 주 앞에 겸손하매, 주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하더라.

17또 내가 보니, 그들의 어미 이방인들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물들 위에와 또한 그 땅 위에 함께 모였더라.ㄱ 18또 내가 보니, 하나님의 권능은 그들과 함께 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함께 모인 자들 모두의 위에 있더라. 19또 나 니파이가 보니,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나아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른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심을 입더라. 20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본즉, 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더라. 또 내가 한 책을 보았나니 그 책이 그들 중에 널리 퍼지더라.

니파이$_1$가 이방인들이 가진 유대인의 기록을 보다

21이에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네가 그 책의 의미를 아느냐" 하기로,

22이에 내가 그에게 말하되,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23또 그가 이르되, "보라 그것은 유대인의 입에서 나아오느니라" 하기로, 나 니파이가 그것을 보니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보고 있는 책은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 맺으신 바 곧 주의 성약이 들어 있는 유대인의 기록이니라. 그 책에는 또한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도 많이 들어 있나니, 그 책은 곧 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것과 흡사한 기록이나, 다만 그만큼 많지는 아니하니라. 그러할지라도 거기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집에 맺으신 바 곧 주의 성약이 들어 있나니, 그런즉 이방인들에게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 하더라.

24또 주의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그 책이 유대인의 입으로부터 나아옴을 보았거니와, 그 책이 유대인의 입으로부터 나아왔을 때, 거기에는 열두 사도가 증거한 이, 곧 주의 충만한 복음이 실려 있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증거하였느니라. 25그러한즉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유대인들로부터 순수한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느니라.

26"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손에 의해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고 나서, 너는 저 크고 가증한 교회가 형성됨을 보나니, 이는 다른 모든 교회보다 가장 가증한 것이니라. 이는 보라 그들이 어린 양의 복음에서 명백하고 극히 귀한 많은 부분들을 제하여 버렸음이요, 주의 많은 성약을 또한 제하여 버렸음이라. 27이제 이 모든 일을 그들이 행한 것은, 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여, 사람의 자녀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 함이라. 28그러한즉 그 책이 크고 가증한 교회의 손을 거쳐 나아간 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인 그 책에서, 많은 명백하고 귀한 것들이 제하여진 것을 네가 보느니라.

29"또 이 명백하고 귀한 것들이 제하여진 후에, 그 책이 이방의 모든 국민들에게로 나아가나니, 그것이 이방의 모든 국민들에게로 나아가며, 참으로 네가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나아간 이방인들과 함께 본 그 많은 물들을 건너서까지 나아간 후,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 있는 명백함을 좇아, 사람의 자녀들이 이해하기에 명백했던 것들, 곧 그 책에서 제하여진 많은 명백하고 귀한 것들로 인해, 즉 어린 양의 복음에서 제하여진 이러한 것들로 인해, 실로 심히 많은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며, 참으로 그 결과 사탄이 그들 위에 큰 권능을 가짐을 네가 보느니라."

ㄱ17 미국 독립 전쟁으로 추정됨

천사가 니파이$_1$에게 복음의 회복에 대해 말하다

30"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힘에서 벗어나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른 모든 나라 위에 들리운 이방인들이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그 땅 위에 있음을 네가 보나니, 이 땅은 주 하나님께서 너의 부친과 성약을 맺어, 그의 자손들이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갖게 하리라 하신 땅이라. 그러한즉 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네 형제 중에 있는 바 너의 자손의 피가 섞인 자들을 온전히 멸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임을 네가 보느니라. 31또한 그는 이방인들이 너의 형제들의 자손들을 멸하도록 버려두시지도 아니하시리라. 32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 형성됨을 본 저 가증한 교회에 의하여 유보된 바 어린 양의 복음의 그 명백하고 극히 귀한 부분들로 인해, 이방인들이 네가 보는 바 그들이 처해 있는 그 비참한 눈먼 상태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 버려두시지도 아니하시리라. 33'그런즉'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르시느니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큰 심판으로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에게 보응을 내리리라.' "

34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르시느니라. "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에게 보응을 내리고 나서—내가 말하는 이 남은 자는 너의 부친의 자손들이라—그런즉 내가 심판을 베풀어 그들에게 보응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어 그들을 친 후, 또 창녀들의 어미가 되는 저 가증한 교회에 의해 유보된 바 어린 양의 복음의 극히 명백하고 귀한 부분들로 인해 이방인들이 실로 심히 실족하여 넘어진 후,' 어린 양이 이르시느니라. '그 날에 내가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나의 권능으로 명백하고 귀한 바 나의 복음을 그들에게 많이 가져다 주리라,' 어린 양이 말씀하시느니라.

35" '이는 보라,' 어린 양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나 자신을 나타내 보이리니, 내가 그들에게 전하여 줄 명백하고 귀한 많은 것들을 그들이 기록할 것이며, 너의 자손들이 멸망되고 믿지 않음에 빠져든 후, 그리고 너의 형제들의 자손들 역시 그리된 후, 보라, 이러한 것들이 숨겨졌다가 어린 양의 은사와 권능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나아오게 되리라.'ㄱ 36'또 그 가운데 나의 복음과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으리라,' 어린 양이 말씀하시느니라. 37그 날에 나의 시온을 세우려 힘쓸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의 은사와 권능을 얻을 것임이라. 또 그들이 끝까지 견딜진대 마지막 날에 들리울 것이요, 어린 양의 영원한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니, 누구든지 평화 곧 큰 기쁨의 소식을 공포할 자들이여, 그들이 산 위에서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ㄴ

니파이$_1$가 후에 나아오게 될 추가적인 기록을 보다

38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내 형제들의 자손의 남은 자들을 보았고, 또한 유대인의 입에서 나아왔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을 보았나니, 그 책이 이방인들에게서 내 형제들의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로 나아오더라. 39또 그 책이 그들에게로 나아온 후에 나는 다른 책들을 보았나니, 그 책들이 어린 양의 권능으로 이방인들에게서 그들에게로 나아와서는, 이방인들과 내 형제들의 자손의 남은 자와 또한 온 지면에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과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기록들이ㄷ 참됨을 확신시키더라.

40또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본 이 마지막 기록들은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의 첫번 기록들이 참됨을 입증할 것이요, 거기에서 제하여진 명

ㄱ35 이는 곧, 몰몬경에서 ㄴ37 이사야 52:7 참조 ㄷ39 이는 곧, 구약과 신약전서; 이더서 12:41 참조

백하고 귀한 것들을 알려 줄 것이며,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이시요 세상의 구원자이신 것과, 만인이 그에게로 와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주리라. 41또 그들은 어린 양의 입으로 확립될 말씀에 따라 나아와야 하나니, 어린 양의 말씀은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기록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네 자손들의 기록들 가운데에서도 알려질 것이라. 그런즉 그 둘은 하나로 확립되리니, 이는 온 땅 위에 한 하나님과 한 목자가 계심이라."

천사가 니파이$_1$에게 이방인들이 회개할 수 있음을 확신시키다

42"또 그가 모든 국민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가 이르나니, 유대인들에게와 또한 이방인들에게 모두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유대인들에게와 또한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나서 그가 이방인들에게와 또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리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리라.

14 "또 이렇게 되리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방인들에게 진정 말씀으로 또한 권능으로 자기를 나타내사,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을 제하여 주실 그 날에, 만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귀를 기울이면— 2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너의 부친의 자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참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집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영원토록 복 받은 백성이 되리니, 그들이 더 이상 사로잡힘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 집은 더 이상 혼란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3또 악마가 사람들의 영혼을 이끌어 내어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도록, 악마와 그의 자녀들에 의해 설립된 저 크고 가증한 교회가 그들을 위해 파 놓았던 저 큰 구덩이—참으로 사람들의 멸망을 위해 파 놓았던 저 큰 구덩이는, 그것을 판 자들로 가득 채워지리니, '그들이 온전히 멸망될 것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말씀하시느니라. 영혼의 멸망이 아니요, 이는 다만 영혼을 끝이 없는 저 지옥으로 던져 넣음을 의미하니라. 4이는 보라, 이것은 악마의 사로잡음에 따른 것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간악한 일과 가증한 일을 행할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것임이니라."

5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나 니파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이방인들이 회개하면 잘 되리라는 것을 보았고, 너는 또한 이스라엘의 집에 하신 주의 성약에 관해서도 알고 있으며, 너는 또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들었느니라. 6그러므로 만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진대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7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한 가지 크고 기이한 일을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행할 때가 오나니, 그 일은 이편으로나 저편으로나 모두 영원하여, 혹 그들에게 화평과 영생을 확신시키거나, 아니면 그들 마음의 완악함과 그들 생각의 눈먼 데로 그들을 넘겨주어 그들로,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내가 말한 바 악마의 사로잡음에 따라 사로잡힘과 또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니라.' "

니파이$_1$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성약을 이루시는 때에 있을 두 교회를 보다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나에게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집에 맺으신 아버지의 성약을 기억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에게 말하되, "그러하오이다" 하였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그리하여 가증한 것들의 어미요, 악마가 그 설립자인 저 크고 가증한 교회를 볼지어다." 10 그가 또 내게 이르기를, "보라 단지 두 개의 교회가 있을 따름이니, 하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요, 다른 하나는 악마의 교회라. 그런즉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인 저 큰 교회에 속한 것이니 이는 온 땅의 창녀니라" 하더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보고 온 땅의 창녀를 보았더니, 그가 많은 물들 위에 앉았으며, 그가 온 땅을 다스리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다스리더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교회를 본즉, 많은 물들 위에 앉은 창녀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적더라.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어린 양의 교회 또한 온 지면 위에 있음을 보았나니, 내가 본 큰 창녀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지면 위에서의 그들의 다스림이 작더라.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가증한 것들의 큰 어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온 땅 위에 이방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허다한 무리를 함께 모으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어린 양의 교회의 성도들과 온 지면에 흩어진 주의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옴을 보았나니,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하였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본즉 하나님의 진노가 저 크고 가증한 교회에 쏟아지더니,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들 가운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더라. 16 또 가증한 것들의 어미에게 속한 모든 나라 가운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기 시작하매,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진노가 창녀들의 어미 위에 있나니, 보라 네가 이 모든 것을 보느니라. 17 또 악마가 그 설립자인 온 땅의 크고 가증한 교회 곧 창녀들의 어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 이르면, 그 날에 아버지의 일이 시작되어 그가 이스라엘 집에 속한 그의 백성들에게 맺으신 성약을 이루기 위하여 길을 예비하시게 되리라."

니파이$_1$가 사도 요한을 보다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하더라. 19 이에 내가 보고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가 흰 옷을 입었더라. 20 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어린 양의 열두 사도 중의 하나를 보라. 21 보라 그가 이러한 일들의 나머지를 보고 기록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까지 있은 일 또한 많이 보고 기록할 것이요, 22 그가 또한 세상의 끝에 관하여 기록하리라. 23 그러한즉 그가 기록할 것들이 바르고 참되도다. 또 보라 이러한 것들은 네가 본 바 유대인의 입에서 나아온 그 책에 기록되어 있나니, ㄱ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의 입에서 나아왔던 그때 곧 그 책이 유대인의 입에서 나아왔던 그때에는, 기록된 것들이 명백하고 순수하며 지극히 귀하며 모든 사람이 쉽게 깨달을 수 있었느니라.

24 "또 보라, 이 어린 양의 사도가 기록하게 될 것은 네가 본 많은 것들이라. 또 보라, 그 나머지를 네가 보게 되리라. 25 그러나 이후로 네가 보게 될 것은 기록하지

ㄱ 23 니파이전서 13:23, 38

말지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도를 성임하사 그 일을 기록하게 하셨음이니라. [26]또 이제까지 있었던 다른 자들, 그들에게도 그는 모든 것을 보이셨고 그들은 그것을 기록하였으며, 기록된 것들은 어린 양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에 순수한 그대로 이스라엘 집으로 나아오도록 인봉되어 있느니라."ㄱ [27]그리고 나 니파이는 천사의 말에 따를진대, 어린 양의 사도의 이름이 요한임을 듣고 증거하였노라.

[28]또 보라, 나 니파이는 내가 보고 들은 일들의 나머지를 기록하지 말도록 금하심을 받았나니, 그런즉 내가 기록한 것들로 내게는 족하도다. 또 나는 내가 본 것들 가운데 단지 작은 부분을 기록하였을 따름이니라. [29]또 내가 증거하노니 나는 나의 부친이 보신 것을 보았으며, 주의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을 알게 하였느니라. [30]이에 이제 나는 내가 영에 이끌려 갔을 동안 본 일에 관하여 말하기를 마치노니, 비록 내가 본 모든 것이 기록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록한 것은 참되도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주님께 물음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영으로 이끌려 가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보고 난 후, 나는 나의 부친의 장막으로 돌아왔느니라. [2]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형들을 본즉, 나의 부친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관해 서로 논쟁하고 있더라. [3]이는 그가 진실로 사람이 주께 묻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많은 큰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이요, 또 그들은 그 마음이 완악하여 그로 인해 마땅히 해야 할 대로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4]이에 이제 나 니파이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 또한 내가 본 일들로 인해 비통하여졌으며, 사람의 자녀들의 큰 사악함으로 인하여 그 일들이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았느니라. [5]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고난으로 인해 기진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들의 몰락을 보았으므로 내 백성의 멸망으로 인하여 나의 고난이 그 무엇보다도 크다고 생각하였음이라.ㄴ

[6]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힘을 얻은 후에, 내가 나의 형들에게 말하여 그들의 논쟁의 원인을 알고자 하였더라. [7]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에 관해서와 또 이방인들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노라" 하였더라.ㄷ

[8]이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은 주께 물어보았나이까?"

[9]이에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묻지 않았노라. 이는 주께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더라.

[10]보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함은 어찜이니이까? 당신들이 당신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멸망하려 함은 어찜이니이까? [11]당신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이까?—'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며 받게 되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내게 구할진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알려지리라.' "ㄹ

ㄱ26 이더서 4:4~7 참조 ㄴ5 니파이전서 12:19 ㄷ7 니파이전서 10:12~14 ㄹ11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나 마태복음 21:21~22 참조

니파이$_1$가 감람나무의 비유를 설교하다 ㄱ

12"보소서, 내가 당신들께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집이 우리 부친 안에 있던 주의 영에 의하여 한 감람나무에 비유된 것이라. 또 보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집으로부터 꺾어져 나오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이스라엘 집의 한 가지가 아니니이까? 13또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원가지들이 이방인의 충만함을 통하여 접목되어 들어옴에 관하여 뜻하시는 것은, 후일에 곧 우리의 자손들이 참으로 여러 해 동안 믿지 않음에 빠져 들어간 후, 그리고 메시야가 육신으로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나서 많은 세대가 지난 후, 그때 메시야의 충만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나아올 것이요, 또 이방인들로부터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 나아오리라 함이라— 14또 그 날에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집에 속한다는 것과 그들이 주의 성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이다. 또 그때 그들이 그들의 선조들에 대해 알게 되어, 그들의 선조들에 대한 지식과 또한 그들의 구속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베푸신 바 그의 복음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구속주와 그의 교리의 요점들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그에게 나아와 구원받아야 할지 알 수 있게 되리이다.

15"또 그렇다면 그 날에 그들이 기뻐하며 그들의 반석이시며 그들의 구원이신 그들의 영원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으리이까? 참으로 그 날에 참 포도나무에서 힘과 영양을 받지 않으리이까?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무리에게로 나아오지 않으리이까? 16보소서, 내가 당신들께 이르노니, 그러하리이다.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집 가운데서 기억되리니 감람나무의 원가지인지라, 그들이 참 감람나무에 접목되리이다.

17"이제 이것이 우리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이요, 또 그가 뜻하시는 바는 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흩어진 이후가 되기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함이며, 또 그가 뜻하시는 바는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그의 권능을 보이실 수 있도록 그 일이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오게 되리라 함이니, 이는 그가 유대인들에게 곧 이스라엘 집에게 버림을 받으시리라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함이니이다. 18그런 연유로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후일에 이루어질 성약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자손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집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이니, 그 성약은 곧 주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라. 이르시되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이다." ㄴ

19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이러한 일에 관하여 그들에게 많은 말을 하였나니, 참으로 나는 그들에게 후일에 유대인들이 회복될 것에 관하여 말하였느니라. 20나는 또 그들에게 유대인 곧 이스라엘 집의 회복에 관하여 말한 이사야의 말을 들려주었나니, 그들이 회복된 후 그들은 더 이상 혼란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요, 또다시 흩어지지도 아니할 것이라. ㄷ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형들에게 많은 말을 하매 그들이 누그러져 주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지더라.

ㄱ 12 리하이$_1$는 니파이전서 10:12~14에서 비슷한 감람나무 비유를 말했고 놋쇠판에 포함된 지노스의 이 비유는 야곱서 5장에서 볼 수 있음; 바울의 이 비유는 로마서 11:16~24에 나옴 ㄴ 18 창세기 22:18; 사도행전 3:25 ㄷ 20 이사야 45:17; 49:6 추정

니파이$_1$가 나무, 쇠막대, 그리고 강에 대해 설명하다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께서 꿈에서 보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가 보신 나무는 무엇을 뜻하느냐?" ㄱ

22 이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생명나무를 나타내는 것이었나이다."

23 이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께서 보신 바 나무로 인도하는 쇠막대는 무엇을 뜻하느냐?" ㄴ

24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25 이리하여 나 니파이는 그들이 주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그들을 권면하였나니, 참으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모든 일에 항상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기억하도록 내 영혼의 힘을 다하여, 또 내가 지닌 능력을 다하여 그들을 권면하였느니라.

26 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보신 물이 흐르는 강은 무엇을 뜻하느냐?" ㄷ 27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보신 물은 더러움이며, ㄹ 그의 생각이 다른 일에 너무나 몰입되어 있었던지라 그가 그 물의 더러움을 보지 못하셨다 하였느니라. 28 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것은 악인을 생명나무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로부터 갈라놓는 가공할 심연이라 하였더라. 29 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것은 악인을 위하여 예비 되어 있다고 천사가 나에게 말한 저 가공할 지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더라. ㅁ 30 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또한 하나님의 공의 역시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것을 보셨나니, 그 밝기가 마치 타오르는 불꽃의 밝기와 같았고, 이는 영원무궁토록 하나님께로 올라가며 끝이 없었다 하니라.

31 이에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이것은 시험의 날에 있어서의 육신의 고통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현세적 육신의 죽음 이후의 영혼의 최종 상태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현세적인 일에 대해 말하느냐?"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은 현세적인 것과 영적인 것 모두를 나타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행위 곧 참으로 그들의 시험의 날에 현세적 육신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날이 올 것임이라. 33 그러한즉 만일 그들이 그들의 간악함 가운데서 죽을진대, 의에 관한 바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버림을 받아야만 하나이다. 그러한즉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심판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끌려 나와 서야만 하나니, 만일 그들의 행위가 이제까지 더러움이었다면 그들이 필연 더러운 것이라. 또 만일 그들이 더럽다 할진대 필연코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거할 수 없으리니,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왕국도 역시 더러워야 하리이다.

34 "그러나 보소서, 내가 당신들께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은 더럽지 아니하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한즉 더러운 것을 위해 예비된 더러움의 장소가 있어야만 하리이다. 35 이에 한 장소가 예비되어 있나니 참으로 곧 내가 말한 저 비참한 지옥이요, 그것을 예비하는 자는 악마라. 그러한즉 사람의 영혼의 종국의 상태는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말한 저 공의로 인하여 쫓겨나게 되는 것이라. 36 그러므로 악인들은 의인들로부터, 또한 저 생명나무로부터 배척되나니, 생명나무의 열매는 다른 모든 열매보다 가장 귀하며 가

ㄱ 21 니파이전서 8:10~12 ㄴ 23 니파이전서 8:19~20, 24 ㄷ 26 니파이전서 8:13 ㄹ 27 니파이전서 12:16 참조 ㅁ 29 니파이전서 12:16

장 바람직한 것이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니이다." 이같이 나는 나의 형들에게 말하였느니라. 아멘.

진리는 간악한 자들에게 심하다

16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나의 형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나자,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심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였도다" 하더라.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진리를 좇아 악인에게 심한 것을 말한 줄 아나이다. "또 의인을 내가 의롭다 하고 그들이 마지막 날에 들리우리라고 증거하였나이다. 그런즉 죄인은 진리를 심하다고 여기나니, 이는 진리가 그들의 바로 그 중심까지 베기 때문이니이다. 3 또 이제 나의 형들이여, 만일 당신들이 의롭고 기꺼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려 하며, 그에 유의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로 행하려 하였더라면, 당신들은 진리로 인하여 불평하여 '네가 우리에게 심한 것을 말하는도다' 라고 하지 아니하리이다."

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부지런함을 다하여, 나의 형들에게 주의 계명을 지키도록 권면하였느니라.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주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지라, 나는 그들이 의의 길을 걸으리라는 큰 희망과 기쁨을 그들에게 가졌느니라. 6 이제 이 말하고 행한 모든 일은, 나의 부친이 그가 레뮤엘이라 칭한 골짜기에서 장막에 거하실 때 이루어졌느니라.

이스마엘[1]의 딸들과 결혼하다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이스마엘의 딸들 중 하나를 아내로 취하였고, 또한 나의 형들도 이스마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으며, 또한 조램도 이스마엘의 맏딸을 아내로 취하였느니라. 8 이리하여 나의 부친은 그에게 주어진 주의 모든 명령을 다 이루었고, 또한 나 니파이도 주께 심히 많은 복을 받았느니라.

리아호나를 ㄱ 가지고 광야를 여행하다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이 밤에 나의 부친에게 말씀하여, 다음 날 광야로 여행을 떠나라 명하시니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이 아침에 일어나 장막 문으로 나아갔을 때, 놀랍게도 땅 위에 정교한 솜씨로 만들어진 한 둥근 공이 있음을 보셨나니, 그것은 순 놋으로 된 것이더라. 또 공 안에는 지침 두 개가 있었으며, 그 하나가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야 할 길을 가리키더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광야로 가지고 들어 갈 것은 무엇이든지 한데 모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도 남은 것을 모두 모았으며, 또 광야로 가지고 들어갈 온갖 종류의 씨앗을 취하였느니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취하고 떠나 레이맨 강을 건너 광야로 들어갔느니라. 1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거의 남남동 방향으로 나흘 동안을 여행하고 다시 장막을 쳤으며, 그 곳 이름을 세이저라 하였느니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우리의 활과 우리의 화살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양식을 잡으러 나아가 광야로 들어갔으며, 우리 가족들을

ㄱ 9 이 나침반 같은 공의 명칭은 앨마서 37:38에 나옴

위해 양식을 잡은 후에 광야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로 세이저라 한 곳으로 다시 돌아왔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같은 방향을 따라, 홍해에 가까운 변경에 있는 광야의 가장 비옥한 지역을 따라 광야를 나아갔느니라. 15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도중에 우리의 활과 우리의 화살과 우리의 돌과 우리의 물매로 양식을 잡아가며 여러 날 동안을 여행하였느니라. 16또 우리는 공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랐으며, 공은 광야의 보다 비옥한 지역으로 우리를 인도하더라.

니파이$_1$의 활이 부러지다

17또 여러 날 동안을 여행하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를 쉬게 하며, 우리 가족들을 위해 양식을 얻고자 한동안 장막을 쳤느니라. 18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양식을 잡으러 나아갔다가, 보라, 나는 좋은 강철로 만들어진 나의 활을 부러뜨렸느니라. 내가 내 활을 부러뜨리고 난 후, 보라, 내 활을 잃었음으로 인하여 나의 형들이 내게 성을 내었나니 이는 우리가 아무 양식도 얻지 못하였음이라. 1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양식이 없이 우리 가족들에게로 돌아왔으며, 여행으로 말미암아 많이 지친 그들은 양식의 결핍으로 인해 많이 고통스러워하였느니라.

2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광야에서 겪는 그들의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 레이맨과 레뮤엘과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몹시 불평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나의 부친도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을 하기 시작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이 모두 심히 슬펐던지라, 결국은 그들이 주께 대하여 불평을 하였느니라. 21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나의 활을 잃었음으로 인하여 나의 형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였고, 그들의 활은 그 탄력을 잃은지라, 일이 심히 어렵게 되었으니, 참으로 우리는 아무 양식도 얻을 수 없었느니라. 22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을 거스려 불평을 토하는 고로, 나 니파이는 나의 형들에게 많은 말을 하였느니라.

23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나무로 활을, 곧은 막대로 화살을 만들고 그리하여 활과 화살로 물매로 또 돌로 무장하고 그리고 나의 부친께 말씀드리기를, "양식을 얻기 위해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하였느니라. 2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주께 물으셨으니, 이는 나의 말로 인하여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여졌기 때문이요, 이는 내가 내 영혼의 힘을 기울여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해 주었기 때문이었더라. 2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이 나의 부친에게 임하였고, 그는 주께 불평한 일로 인해 진실로 질책을 받았나니, 그로 인해 그는 깊은 슬픔에 잠기더라.

26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이르시되, "공 위를 살펴 적혀 있는 것을 보라" 하시더라. 2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이 공 위에 적혀 있는 것을 보셨을 때, 그는 심히 두려워하며 떠시었으며, 나의 형들과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우리의 아내들도 그러하였느니라. 28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공 안에 있는 지침들을 보았더니, 그 지침들은 우리가 거기에 쏟는 신앙과 부지런함과 주의에 따라 작동하더라. 29또한 그 위에는 읽기에 명백한 새로운 글이 쓰여 있었나니, 주의 길에 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것이었으며, 또 그것은 우리가 그것에 쏟는 신앙과 부지런함에 따라 씌어지며 시시로 바뀌더라. 이리하여 우리는 주께서 작은 수단으로 큰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심을 알게 되느니라.

3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공 위에 주신 지시에 따라 나아가 산꼭대기로 올라갔느니라. 31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들짐승들을 잡아, 그로써 우리 가족들을 위한 양식을 얻었느니라. 32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잡은 짐승을 가지고

우리의 장막으로 돌아오매, 이제 내가 양식을 얻은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던지!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주 앞에 겸손하여져서 그에게 감사를 드리니라.

이스마엘$_1$의 죽음

3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다시 여행을 떠나 처음과 거의 같은 방향으로 여행하였으며, 여러 날 동안을 여행한 후 한동안 머무르고자 다시 장막을 쳤느니라. 3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스마엘이 죽어 네이홈이라 하는 곳에 묻히니라. 3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스마엘의 딸들이 그들의 아버지를 잃었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광야에서의 그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심히 슬퍼하고, 이에 그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데리고 나왔음으로 인하여 나의 부친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뿐 아니라 우리는 광야에서 많이 방황하였으며, 우리는 많은 고난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피로함을 당하였나니, 이 모든 것을 당한 후에 우리가 필경은 광야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였느니라. 36 이와 같이 그들이 나의 부친에게와 또한 나에게 불평하였고, 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갈망하였느니라.

모반과 회개

37 이에 레이맨이 레뮤엘과 또한 이스마엘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 아버지와 또한 스스로 떠맡아 자기의 형들인 우리의 통치자와 우리의 교사가 된 우리 동생 니파이를 죽여 버리자. 38 이제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자기와 이야기 하셨다 하며, 또한 천사들이 자기에게 성역을 베풀어 주었다 하나, 보라,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거짓말한다는 것을 아노라. 그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의 간교한 술수로 여러 일을 행하여 우리의 눈을 속이고자 함은, 아마도 우리를 어떤 낯선 광야로 이끌어 내고자 생각함이라. 또 그가 우리를 이끌어 낸 후에는 그 스스로 우리 위에 왕과 통치자가 되어 우리를 가지고 그의 뜻과 기뻐하는 바를 좇아 행하려고 생각하였도다 하였으니," 이같이 나의 형 레이맨은 그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39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으로 주의 음성이 그들에게 임하여, 많은 말씀을 하시며 그들을 심히 질책하시니, 이에 그들이 주의 음성으로 질책을 받은 후 그 분노를 돌이키고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였던지라, 주께서 다시 양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매 우리가 죽지 아니하였느니라.

풍요$_1$의 땅을 향하여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다시 광야에서 여행을 계속하였으며 그때부터는 거의 동쪽으로 여행하였느니라. 또 우리는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헤치며 여행해 나아갔으며 우리의 여자들은 광야에서 아이들을 낳았느니라. 2 또 우리에게 임한 주의 복이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광야에서 날고기를 먹고 사는 동안 우리의 여자들은 그 아이들에게 젖을 넉넉히 빨렸으며, 참으로 남자들처럼 강건하였고 그리하여 그들은 불평 없이 여행을 감당하기 시작하였느니라.

3 이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게 되나니, 만일 사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양육하시며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이 그가 명하신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주시는도다. 그러한즉 우리가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는 우리를 위하여 방편을 마련해 주셨느니라. [4]그리고 우리는 여러 해 동안, 참으로 팔 년 동안을 광야에 머물렀더라.ㄱ

[5]또 우리는 과실과 또한 들꿀이 풍성하여, 우리가 풍요라 칭한 땅에 이르렀나니,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께서 예비하신 것이었더라. 또 우리는 바다를 보았으며, 이를 이르레앤툼이라 칭하였나니, 이는 해석한즉 "많은 물"이라. [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바닷가 곁에 우리의 장막을 쳤으며, 우리는 참으로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이르러 심히 기뻐하였고, 그 곳에 과실이 많았던지라, 우리는 그 곳을 풍요라 불렀느니라.

니파이$_1$에게 배를 지으라 명하시다

[7]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여러 날 동안을 풍요 땅에 있은 후에, 주의 음성이 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산으로 가라" 하시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서 주께 부르짖었더라.

[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일러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네 백성을 이 물 건너로 데려갈 수 있도록, 내가 네게 보여 줄 방식을 좇아 배를 건조할지니라" 하시더라.

[9]이에 내가 여쭈오되, "주여 어디로 가야 내가 녹일 광석을 찾아, 주께서 나에게 보여 주신 방식을 좇아 배를 건조하기 위한 연장을 만들 수 있겠나이까?" [1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어디로 가야 내가 광석을 찾아 연장을 만들 수 있겠는지 내게 말씀해 주시더라.

[1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짐승 가죽으로 불을 부칠 풀무를 만들었으며, 내가 가지고 불을 부치기 위해 풀무를 만든 다음, 나는 불을 만들기 위해 돌 두 개를 마주쳤느니라. [12]이는 주께서 우리가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우리가 불을 많이 만드는 것을 이제까지 용납하지 아니하셨음이니, 이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가 음식을 요리하지 않도록 내가 너의 음식을 달게 하리라. [13]또한 내가 광야에서 너희의 빛이 되고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내가 너희 앞서 길을 예비하리라. 그러한즉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약속된 땅을 향하여 인도될 것이요, 너희를 인도하는 이가 나인 줄 알리라" 하셨음이라. [14]이뿐 아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가 약속된 땅에 도착하고 난 후, 너희는 나 주가 하나님이요, 나 주가 너희를 멸망에서 건져 낸 줄을, 참으로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낸 줄을 알게 되리라" 하셨느니라.ㄴ

[15]그리하여 나 니파이는 주의 계명을 지키고자 힘써 노력하였고, 나의 형제들에게 성실하고 부지런할 것을 권면하였느니라. [16]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바위에서 녹여 낸 광석으로 연장을 만들었도다.

ㄱ14 기원전 589년 ㄴ14 니파이후서 1:4

니파이$_1$의 형제들이 불평하다

17 그리고 나의 형제들이 내가 바야흐로 배를 지으려 하는 것을 보고는 나에게 불평하기 시작하여 이르기를, "우리 동생은 바보로다, 이는 그가 배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함이라, 그뿐 아니라 그는 또한 이 큰 물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는도다" 하였더라. 18 또 이같이 나의 형제들은 나에게 불평하며 일하지 않으려 하였으니, 이는 내가 배를 지을 수 있음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음이요, 또한 내가 주께 지시를 받았음도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19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그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심히 슬펐고, 이제 그들은 내가 슬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기뻐하였나니,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네가 배를 건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었나니, 이는 네가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음이니라. 그런즉 너는 그렇게 큰 일을 성취할 수 없느니라. 20 또 너는 그 마음의 어리석은 상상에 이끌려 나온 우리 아버지와 같도다. 참으로 아버지는 우리를 예루살렘 땅에서 이끌어 내었고, 우리는 이 여러 해를 광야에서 방황하였으며, 우리의 여자들은 아이를 가진 무거운 몸으로 수고하였고, 그들은 광야에서 아이들을 낳았으며 죽음이 아닐 뿐 온갖 고초를 다 겪었나니, 그들이 이러한 고난을 겪는 것보다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전에 죽는 것이 나았으리라. 21 보라, 이 여러 해를 우리는 광야에서 고생하였나니, 그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우리 기업의 땅을 누릴 수 있었으리라. 또 우리는 행복했었으리라.

22 "또 우리는 예루살렘 땅에 있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이었음을 아노니, 이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좇아 주의 규례와 법도와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켰음이라. 그러한즉 우리는 그들이 의로운 백성임을 아노라. 그러하거늘 우리 아버지는 그들을 비판하였으며 우리가 부친의 말을 들으려 하였으므로 우리를 이끌어 내셨나니, 과연 우리 동생은 부친을 닮았도다." 이 같은 말로 참으로 나의 형제들은 우리에게 원망하며 불평을 토하였느니라.

니파이$_1$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다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어도 애굽인의 손에서 벗어나 이끌려 나왔으리라고 믿나이까? 24 참으로 당신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그들을 속박에서 인도해 낼 것을 명하지 아니하셨어도 그들이 속박에서 인도되어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나이까? 25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속박되어 있었음을 아나이다. 또 당신들은 그들이 감당하기에 고통스러운 노역으로 짐 지워져 있었음을 아나이다. 그러한즉 당신들은 그들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일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아나이다.

26 "이제 당신들은 모세가 저 큰 일을 행하도록 주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음을 아나이다. 또 당신들은 그의 말에 의해 홍해의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그들이 마른 땅 위로 지나갔음을 아나이다. 27 그러나 당신들은 애굽 사람들 곧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 빠져 죽었음을 아나이다.ㄱ 28 또한 당신들은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먹었음을 아나이다.ㄴ 29 참으로 또한 당신들은 모세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좇아, 말씀으로 바위를 치매 바위에서 물이 솟아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던 일도 아나이다.ㄷ

ㄱ 27 출애굽기 14:21~29 ㄴ 28 출애굽기 16:4~35 ㄷ 29 출애굽기 17:1~7; 민수기 20:2~13

30 "또 그들이 인도함을 받되 주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구속주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며, 낮으로는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으로는 그들에게 빛을 주시며,ㄱ 사람이 받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생각을 눈멀게 하여, 모세에게 또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대하여 욕하였나이다. 3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 말씀을 좇아 그들을 멸하시고, 또 말씀을 좇아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좇아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셨나니,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나이다.

32 "또 그들이 요단 강을 건넌 후, 그가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 땅의 자손들을 몰아내게 하시되, 참으로 그들을 흩어 멸하게 하셨거니와, 33 이제 당신들은 이 땅의 자손들은 곧 약속의 땅에 있다가 우리 조상들에게 쫓겨난 그들이, 당신들은 그들이 의로웠다고 생각하나이까? 보소서, 내가 당신들께 이르노니, 아니이다. 34 당신들은 그들이 의로웠더라도, 우리 조상들이 더 택함 받을 만 했을 것이라 생각하나이까? 내가 당신들께 이르노니, 아니이다.

35 보소서, 주는 모든 육체를 하나로 여기시나니,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것이라.
그러나 보소서, 이 백성은ㄴ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거절하였고,
그들이 죄악으로 무르익은지라,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나이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는 그 땅을 저주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 땅을 축복하셨나니,
참으로 그들에게는 그 땅을 저주하사 그들로 멸망하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는 그 땅을 축복하사
그 땅을 다스릴 권능을 얻게 하셨나이다.

36 보소서, 주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사 거할 곳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창조하사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나이다.
37 또 그는 의로운 나라를 일으키시며
악인들의 나라는 멸망시키시나이다.
38 또 그는 의인들을 인도해 가사 귀한 땅에 들이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며,
그들로 인해 그들에게는 땅을 저주하시나이다.
39 그는 하늘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나니, 이는 하늘이 그의 보좌임이요,
이 땅은 그의 발등상이라.
40 또 그는 그로 자기 하나님을 삼고자 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나니,

"보소서, 그는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사 그들 곧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과 성약을 맺으셨고, 맺으신 그 성약을 기억하셨으므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나이다. 41 또 그는 광야에서 그의 지팡이로 그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당신들처럼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음이요, 또 주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곤경에 빠지게 하셨더라. 그가 나는 불뱀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고, 그들이 물린 후에는 나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더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쳐다보는

ㄱ 30 출애굽기 13:21~22 ㄴ 35 이는 곧, 이스라엘의 정복 당시의 가나안 사람들

것이었으매,ㄱ 그 방법이 간단하였음으로 인하여, 곧 쉬웠음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많았나이다. 42또 그들이 시시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또 그들이 참으로 모세에게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길 데 없는 그의 권능으로 인도되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음을 당신들이 아나이다.

43"또 이제 이 모든 일 후에 그들이 간악하게 된 때가 이르렀나니, 참으로 거의 무르익었나이다. 또 그들은 아마 지금쯤 바야흐로 멸망당하게 되었으리니, 이는 끌려가 사로잡히게 될 소수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반드시 멸망당할 날이 정녕 이를 것임을 내가 아나이다. 44그리하여 주께서 나의 부친에게 광야로 떠나라고 명하셨거니와, 유대인들 또한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고ㄴ 그뿐 아니라 당신들도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나니,ㄷ 그런즉 당신들은 마음에 살인한 자들이며 당신들은 그들과 같나이다.

45"당신들은 죄악을 행하는 데는 재빠르나, 주 곧 당신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는 더디나이다. 당신들은 천사를 보았고ㄹ 그가 당신들에게 말하였으니 참으로 당신들은 시시로 그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또 그가 당신들에게 고요하고 작은 음성으로 말하였으되, 당신들이 감각이 없어 그의 말씀을 감지할 수 없었나이다. 그리하여 그가 우레 소리처럼 당신들에게 말하매, 그로 인해 땅이 마치 갈라질 듯 진동하였나이다. 46또한 당신들은 그가 그의 전능한 말씀의 권능으로 땅으로 하여금 사라지게 하실 수 있음도 아나이다. 그뿐 아니라 당신들은 그의 말씀으로 그가 거친 곳들로 편편하게 되게 하실 수 있으며, 편편한 곳들은 일구어지리라는 것을 아나이다. 오 그러하거늘 당신들 마음이 그토록 완악할 수 있음은 무슨 연고니이까? 47보소서, 당신들로 인한 번민으로 내 영혼은 찢겼고 내 마음은 괴롭나이다. 나는 당신들이 영원히 쫓겨나지나 않을까 두렵나이다.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매 내 사지에 기력이 없나이다."

니파이$_1$가 그의 형제들을 꾸짖다

48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자, 그들은 나에게 노하여 나를 깊은 바다에 던져 버리고자 하더라. 이에 그들이 내게 손을 대려고 나아올 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노니, 당신들은 나를 다치지 마소서. 이는 내가 나의 육신을 소멸할 만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함이니, 누구든지 그 손을 내게 대는 자는 마른 갈대처럼 말라 버릴 것이라. 또 그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임이니이다" 하였더라. 49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들의 부친에게 더 이상 불평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를 짓도록 명하셨으매, 나를 도와 일하기를 거부해서도 안 된다고 하였느니라.

50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사를 다 행하라고 명하셨다면 내가 능히 행할 수 있으리이다. 만일 그가 나에게 명하사 이 물더러 이르기를, '너는 육지가 되라 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육지가 되리니, 내가 만일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이루어지리이다. 51그러면 이제 주께서 그처럼 큰 권능을 가지셨고, 그토록 많은 기적을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행하셨을진대, 어찌하여 나를 가르치사 나로 하여금 배를 짓게 하실 수 없으리이까" 하였더라. 5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나의 형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매, 그들이 부끄러워하여 나와 다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감히 나에게 손을 대려 하거나 그 손가락으로 나를 다치려

ㄱ41 민수기 21:4~9 ㄴ44 니파이전서 1:20–2:2 ㄷ44 니파이전서 16:37 ㄹ45 니파이전서 3:29~30

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그들이 감히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내 앞에서 말라 버릴까 두려워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토록 강하였고 이같이 그들 위에 역사하였더라.

5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네 형제들에게 내뻗으라. 그들이 네 앞에서 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다만 내가 그들에게 충격을 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은 그들로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5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손을 그들에게 내뻗으니, 그들이 내 앞에서 마르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그들을 흔들어 주셨으니 곧 그가 하신 말씀과 같더라. 55 그제야 그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 줄 우리가 분명히 아노니, 이는 우리를 흔든 것이 주의 권능인 줄 우리가 앎이로다" 하고, 그들이 내 앞에 엎드려 내게 경배하려 하더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려 하여 이르기를, "나는 당신들의 형제 곧 참으로 당신들의 동생이니이다. 그러한즉 '주 곧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ㄱ 당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 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실 땅에서 당신들의 날이 길도록 하소서'" 하였더라. ㄴ

배를 준비하다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주께 경배하고 나와 함께 나아갔으며, 우리는 정교한 솜씨로 재목을 다듬었느니라. 그리고 주께서는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배의 재목을 다듬어야 하는지를 시시로 나에게 보여 주시더라. 2 이제 나 니파이는 사람들이 알게 된 방식으로 재목을 다듬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배를 짓지도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내게 보여 주신 방식을 따라 배를 지었나니, 그런고로 그것은 사람들의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느니라. 3 또 나 니파이는 자주 산으로 들어갔으며, 주께 자주 기도하였나니, 그런고로 주께서는 내게 위대한 일들을 보여 주셨느니라.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주의 말씀을 좇아 배를 완성하고 난 후 나의 형제들이 본즉, 그것이 좋으며 그 솜씨가 심히 훌륭하였던지라, 그들은 다시 주 앞에 스스로를 겸손히 하였느니라.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이 나의 부친에게 임하사, 우리에게 일어나 배로 들어가라 하시니라.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우리는 모든 것, 곧 광야에서 거둔 많은 과실과 고기와 풍부한 양의 꿀과 식량을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좇아 준비한 후, 각기 그 나이에 따라 우리의 모든 짐과 우리의 씨앗과 또 우리가 가져온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지고 배로 내려갔느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모두 다 배로 내려갔느니라. 7 그리고 이제 나의 부친은 광야에서 아들 둘을 낳으셨으니, 형은 야곱, 아우는 요셉이라 하였더라.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우리의 양식과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가지고 모두 배로 내려간 후, 우리는 바다로 출항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순풍을 타고 밀려 나아갔느니라.

ㄱ 55 신명기 6:13; 마태복음 4:10; 누가복음 4:8 ㄴ 55 출애굽기 20:12

약속의 땅으로 항해하다

9 그리고 우리가 여러 날 동안을 순풍을 타고 밀려 나아간 후에, 보라 나의 형제들과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흥청거리기 시작하여 춤추고, 노래하며, 대단히 무례하게 말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무슨 힘으로 그 곳까지 인도되어 왔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그들은 자고하여 심히 무례하게 되었더라. 10 이에 나 니파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치사, 우리로 깊은 바다에 삼키우게 하시지 않을까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나 니파이는 그들에게 사뭇 진지하게 말하기 시작하였으나, 보라 그들은 나에게 성을 내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동생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과 레뮤엘이 나를 잡아 줄로 묶고 나를 몹시 혹독하게 대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이를 용납하셨으니, 이는 그의 권능을 보이사 악인에 관하여 하신 그의 말씀을[ㄱ] 이루고자 하심이었더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를 묶어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주께서 마련해 주셨던 나침반이 작동하기를 멈추었더라. 13 그리하여 그들은 배를 어디로 돌려야 할지를 알지 못하였고, 급기야는 큰 폭풍이 일어났나니, 참으로 크고 무서운 폭풍우라, 그리하여 우리는 물 위를 사흘 동안 뒤로 밀려났느니라. 이에 그들은 바다에 빠져 죽게 되지 않을까 심히 놀라 무서워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풀어 주지는 아니하였더라. 14 이에 우리가 계속하여 뒤로 밀려나던 넷째 날, 폭풍우가 심히 격렬해졌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바야흐로 깊은 바다에 삼켜지게 되었으며, 우리가 물 위에서 나흘 동안 뒤로 밀려난 후, 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위에 임하여, 그들이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나에게로 와서 내 손목에 있던 결박을 풀어 주었나니, 보라 손목은 몹시 부어 있었고 또한 나의 발목도 많이 부었으며 그 통증이 대단히 심하였느니라. 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온종일 그를 찬양하였고,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7 이제 나의 부친 리하이가 그들에게와 또한 이스마엘의 아들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으나, 보라, 그들은 나를 위하여 말하려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크게 위협하는 말을 하였나니, 이에 나의 부모는 연로하시고 자기의 자녀들로 인하여 많은 비애를 겪으셨던지라, 참으로 병석에 눕게 되셨느니라. 18 그들의 비탄과 많은 슬픔과 나의 형제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은 거의 이 생을 벗어나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옮기울 지경에 이르렀나니, 참으로 그들의 흰 머리가 바야흐로 내리워 티끌 속에 눕게 되었으며, 참으로 그들은 슬픔을 지니고 물 무덤으로 거의 던져질 지경에 이르렀느니라.

19 또 어리고 많은 양육을 필요로 하는 야곱과 요셉 역시, 그들의 어머니의 고난으로 인하여 비통하여졌으며, 나의 아내의 눈물과 기도도, 또 나의 자녀들도, 나의 형제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를 풀어 주게 하지는 못하였느니라. 20 이에 그들을 멸망으로 위협한 하나님의 권능 이외에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나니, 그런고로 그들이 바야흐로 깊은 바다에 삼키우게 되었음을 보자, 그들은 그 행한 일을 회개하였고 마침내 나를 풀어 주었느니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를 풀어 준 다음, 보라 내가 나침반을 잡으매 나침반은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작동하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주께 기도한 즉, 내가 기도하고 나자 바람이 멎고, 폭풍이 멎었으며, 크게 고요해졌느니라. 22 이에

[ㄱ] 11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배를 인도하여, 우리는 다시 약속된 땅을 향하여 항해하였느니라. 23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날 동안을 항해하고 난 후에 우리는 약속된 땅에 도착하였으며, 우리는 땅 위로 나아가서 우리의 장막을 치고 그 곳을 약속된 땅이라 불렀느니라.

24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땅을 갈기 시작하고 또 씨앗을 심기 시작하였나니, 참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땅에서 가져온 우리의 씨앗을 모두 땅에 심어 넣었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것들이 무성하게 자라났으며, 그리하여 우리는 풍성히 복을 받았느니라. 25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광야를 여행하면서 약속의 땅에 갖가지 종류의 짐승들이 숲 속에 있음을 알았나니, 곧 사람들에게 유용한 암소와 수소 그리고 당나귀와 말 그리고 염소와 들염소 그리고 온갖 종류의 들짐승들이라. 또 우리는 온갖 종류의 광석들을, 금과 은과 구리의 광석을 발견하였느니라.

두 종류의 판

1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명하셨으므로, 그로 인해 나는 내 백성의 기록을 새기고자 광석으로 판을 만들고, 내가 만든 판 위에 나는 부친의 기록과 또한 우리가 광야에서 여행하던 일과 부친의 예언을 새겼으며, 나 자신의 예언 또한 그 위에 많이 새겼느니라. 2또 내가 그 판을 만들 때에 주께로부터 이 판을 만들도록 명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었나니, 그런즉 나의 부친의 기록과 그의 조상들의 족보와 광야에서 우리가 행한 바의 대부분은, 내가 말한 그 첫번 판에 새겨져 있느니라. 그런즉 내가 이 판을 만들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은 진실로 첫 번 판에 ㄱ 상세히 언급되어 있느니라.

3또 내가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 판을 만들고 나서, 나 니파이는 성역과 예언, 그 중에서 보다 명백하고 귀한 부분들을 이 판에 기록해야 하며, 기록된 것은 이 땅을 소유할 내 백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또한 주께서 아시는 다른 현명한 목적들을 위하여 보존되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4그리하여 나 니파이는 그 다른 판에 나의 백성의 전쟁과 다툼과 멸망에 대한 기사를 전하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기사를 전하는 기록을 만들었으며, 이렇게 하고 나서 나는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가 버린 후에, 그들이 하여야 할 바를 명하고, 또 이 판은 주께로부터 추후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다시 말하자면 한 선지자에게서 다른 선지자에게로 전해져 내려가야 한다고 명하였느니라.

5그리고 내가 이 판을 만든 경위는 이후에 전할 것이니라. ㄴ 그러면, 보라, 나는 내가 말한 바를 따라 계속하노니,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 더욱 거룩한 것들을 보존하여 나의 백성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6그러할지라도 나는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판에 기록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제 만일 내가 잘못을 범한다 할진대 옛 사람들도 잘못을 범하였나니, 다른 사람들로 인해 나 자신을 변명하려 함이 아니요, 육체를 따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 자신을 변명하고자 하노라. 7이는 어떤 사람들이 육신이나 영혼에 큰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이들은 무시하며 그들의 발 아래 짓밟음이라. 참으로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람들은 그들의 발 아래 짓밟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그들의 발 아래 짓밟는다 하나 내가 다른 말로 하리니, 곧 그들은 그를 무시하며 그의 권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도다.

ㄱ 2 이는 곧, 니파이1의 큰 판 ㄴ 5 니파이후서 5:29~33

그리스도에 대한 지노크, 니움, 지노스의 예언 ㄱ

8또 보라, 그는 천사의 말대로 나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육백 년 후에 오시느니라.ㄴ 9또 세상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채찍질하나 그는 이를 참으시며, 그들이 그를 치나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참으로 그들이 그에게 침을 뱉으나,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사랑의 친절과 그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를 참으시느니라. 10또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곧 그에 의해 애굽에서 속박에서 인도되어 나왔으며, 또한 광야에서 보전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참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천사의 말대로 "자신을 사람으로서 악인들의 손에 내어 주사," 지노크의 말대로 "들리우실 것이요," 니움의 말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요," 사흘 동안의 어둠에 관하여 말한 지노스의 말대로 "무덤에 묻히실 것이라." 이 사흘 동안의 어둠은 그의 죽으심에 대하여 바다의 섬들에 살게 될 자들에게 주어지는, 더욱 특별히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적이 되리라.ㄷ

11이는 이같이 선지자가 말하였음이라, "주 하나님께서 그 날에 정녕 이스라엘의 온 집을 방문하시리니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음성과 함께 방문하사 그들로 큰 기쁨과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요, 다른 이들에게는 그의 권능의 우레와 번개와 함께 폭풍우로, 불로, 또 연기로, 또 어둠의 안개로, 또 땅이 열림으로, 또 솟아오르게 될 산들로 방문하시리라." 12"또 이 모든 일이 기필코 반드시 임하리라," 선지자 지노스의 말이니라. "또 땅의 바위들이 반드시 깨어질 것이요, 땅이 신음함으로 인하여 바다 섬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받아 소리지르기를, '자연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도다' 하리라."

13"또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로 말하자면," 선지자의 말이니라, "그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영광을 배척하는 연고라." 14"또 그들이 그 마음을 바꾸어," 선지자의 말이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멸시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육체로 있는 동안 방황하며 멸망할 것이요,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될 것이며, 모든 나라 가운데서 미움을 받으리라."

15"그러할지라도," 선지자의 말이니라, "그들이 더 이상 그 마음을 바꾸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스르지 아니할 그 날이 이르면, 그때 그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성약을 기억하시리라. 16참으로 그때 그는 바다의 섬들을 기억하실 것이라." 그뿐 아니라 선지자 지노스의 말대로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모든 백성을 땅 사방으로부터 내가 모아들이리라," 주께서 이르시느니라. 17"또한 온 땅이 주의 구원을 볼 것이요," 선지자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이 있으리라."

18이에 나 니파이가 이것들을 나의 백성을 위하여 기록한 것은, 혹 그들을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구속주를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19그러한즉 만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이것들을 얻는다 할진대 내가 이스라엘의 온 집에 말하는 도다. 20이는 보라, 내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영으로 역사하는 바가 있음이니,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여 나의 온 뼈마디가 약하도다. 이는 주께서 자비로우사 옛 선지자들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들에 관하여 나에게 보여 주지 아니하셨던들 나 또한 멸망하였을 것임이라. 21또 그는 정녕 옛 선지자들에게 그들에 관하여 모든 것을 보여 주셨으며, 또

ㄱ 8 선지자 지노크, 니움, 지노스의 글은 놋쇠판에 나왔으나 히브리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음 ㄴ 8 이 예언은 니파이전서 10:4 에서 천사의 말이 아닌 리하이$_1$의 말로 나옴 ㄷ 10 제3니파이 8:19~23에서 실현됨

한 그는 많은 자들에게 우리에 관하여 보여 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들에 관하여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 이는 그러한 것이 놋쇠판에 기록되어 있음이니라.

니파이$_1$가 이사야$_1$의 말을 읽고 해석하다

니파이전서 19:22~22:31

이사야$_1$ 말씀에 대한 소개

22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나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으며,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그들이 주께서 다른 땅에서 옛 백성 가운데 행하신 일에 관하여 알도록 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읽어 주었느니라. 23 또 나는 모세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읽어 주되, 그들을 더욱 온전히 설득하여 주 그들의 구속주를 믿게 하고자, 나는 그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것을 읽어 주었나니, 이는 내가 모든 경전을 우리에게 비유하여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배움이 되게 하고자 하였음이니라. 24 그리하여 내가 그들에게 일러 이르되, "당신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으소서. 이스라엘 집의 한 남은 자들, 꺾어져 나온 가지인 당신들이여, 당신들은 이스라엘 온 집을 위하여 기록한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당신들 자신에게 비유하여 당신의 형제들, 곧 당신들이 꺾어져 나온 바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당신들도 소망을 갖도록 하소서. 이는 이같이 선지자가 기록하였음이니이다" 하였느니라.

니파이$_1$가 이사야서 48~49장 인용하다

니파이전서 20~21장

예언의 말씀이 완고함을 꺾을 것이다

이사야서 48:1~11

해당 성경구절에 추가되거나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20 야곱의 집이여, **귀를 기울여**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물,
곧 침례의 물에서 나왔으며,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나,
그들이 진리나 의로 **맹세**하지 아니하는도다.
2 **그럼에도** 그들이 스스로를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거니와,
그들이 **만군의 주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나니**,
실로 만군의 주는 그의 이름이니라.

3 **보라** 내가 이전 일들을 처음부터 선포하였나니,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고,
내가 그 일들을 보이되, 홀연히 **보였느니라**.[ㄱ]
4 **또 내가 그같이 행한 것은** 네가 완고하며,
네 목은 무쇠로 된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임을 내가 알았음이라.
5 **또** 내가 실로 처음부터 네게 선포하였으며,
그 일이 이루기 전에 내가 **그것들을** 네게 보였나니
내가 그것들을 보였음은 네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행한 바요,
나의 새긴 신상과 나의 부어 만든 신상이
명한 바라 할까 **염려하였음**이니라."

6 네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었으니**,
네가 그것을 선포**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내가 이때로부터 새 일 곧 감추어졌던 일도 보였던 것과
네가 알지 못하였던 것을 선포하지 아니하겠느냐?
7 그 일들은 이제 창조되었고 태초부터가 아니라
네가 이를 듣지 아니하던 날 이전에 그것들이
네게 선포되었나니,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를 알고 있었다" 말했어야 하리라.
8 **또한** 네가 듣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네가 알지 못하였으며,
참으로 그때로부터 네 귀가 열리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네가 몹시 불충하게 행하는 것과
네가 모태에서부터 범법자라 칭함을 입은 줄 내가 알았음이라.

9 **그러할지라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노여움을 미룰 것이요,
내 찬송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끊어 버리지 아니하리라.
10 **이는** 보라 내가 너를 정제하였으되,[ㄴ]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음이라.
11 나 스스로를 위하여 **참으로** 나 스스로를 위하여 내가 **이를** 행할 것은,
내가 내 이름으로 더럽히게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ㄱ] 3 니파이$_1$가 이사야 48:3의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를 누락함 [ㄴ] 10 니파이$_1$가 이사야 48:10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를 누락함

주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시다

이사야서 48:12~22

12 야곱아, 또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그임이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또 마지막이라.
13 내 손이 땅의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펼쳤나니,
내가 그것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서느니라.

14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그들 중에 누가 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느냐?
주께서 그를 사랑하셨나니
또한 그가 그들로 선포한 자기의 말을 이룰 것이라.
또 그가 자기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며,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하리라**.

15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 주 곧** 내가 말하였고
참으로 내가 그를 불러 **선포하게** 하였으며
내가 그를 데려왔나니, 그가 자기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16 너희는 내게 가까이 오라.[ㄱ] 나는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처음부터 그것이 **선포**되던 때부터 **내가 말하였나니**, 주 하나님과 그의 영이 나를 보내셨느니라.

17 **또** 이같이 주, 네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를 보냈으며**,"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주 너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였느니라.

18 오 네가 나의 명령을 들었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을 것이며
네 의가 바다 물결과 같았을 것이요,
19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멸망당하지 아니하였으리라.

[ㄱ]16 $니파이_1$가 이사야 48:16의 "이것을 들으라"를 누락함

20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아가며
갈대아인에게서 도망하고,
노래하는 음성으로 선포하여 이를 고하며
땅 끝까지 공표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21 또 그들은 목마르지 아니하였나니,
그가 그들을 인도하여 사막을 지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셨으며,
그가 또한 바위를 가른즉 물이 솟아 나왔느니라.ㄱ
22 **그가 이 모두를 행하셨고 더 큰 일도 행하셨으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주님의 종

이사야서 49:1~7

21 **그리고 또**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 백성의 목자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꺾어져 나왔으며 쫓겨난 너희,
참으로 꺾어져 나왔고, 널리 흩어졌으며,
내 백성에 속한 너희 곧 이스라엘의 집이여,ㄴ
너희는 다 귀를 기울이라.
섬들아, 나를 들으라.

또 너희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나의 이름을 말씀하셨느니라.
2 그리고 나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의 손 그늘에 나를 숨기셨으며,
나로 연마된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나를 감추시고,
3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라.
너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4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허무하고 헛되이 나의 힘을 다하였도다.
정녕 나의 심판은 주께 있사오며,
나의 일은 나의 하나님께 있는도다" 하였느니라.

5 이제 나를 태에서부터 지으시고 나로
그의 **종이 되게** 하사 야곱을 다시 그에게로
데려오게 하신 주께서 말씀하시되,

ㄱ21 출애굽기 17:1~7; 민수기 20:2~13 ㄴ1 예레미야 23:1~2 비교

이스라엘이 모이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주의 눈에 영화롭게 되며,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하시느니라.
6 또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의 보전된 자를 회복함은 가벼운 일이라.
내가 또한 너를 주어 이방인들의 빛을 삼고,
너로 하여금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리라."
7 이스라엘의 구속주,
그의 거룩한 자이신 주께서 사람이 멸시하는 자에게,
민족들이 싫어하는 자에게,
통치자들의 종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군주들도 경배하리니
이는 신실하신 주로 인함이니라" 하시느니라.[7]

바다의 섬들에게 주는 임무

이사야서 49:8~12

8 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으며,
바다의 섬들아,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 종을 네게 주어 백성의 성약을 삼으며,
땅을 일으켜
황폐한 기업을 상속하게 하리라.
9 그리하여 너로 갇혀 있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아가라' 하게 할 것이요,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라' 하게 하리라.
그들은 길에서 먹겠고
그들의 풀밭은 모든 높은 곳에 있을 것이라.
10 그들은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햇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자비로운 자가 그들을 이끌되,
물이 솟는 샘가로 그들을 인도할 것임이니라.
11 또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을 것이요,
나의 대로들은 돋우어질 것임이니라."
12 **그때 이스라엘의 집이여**, 보라, 이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라.
또 보라, 이들은 북방에서와 서방에서
또 이들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7] 니파이$_1$가 이사야 49:7의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을 누락함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임

이사야서 49:13~26

13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이는 동쪽에 있는 자들의 발이
굳게 세움을 입을 것임이니라」.
또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는 그들이 더 이상 치심을
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
주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임이니라.

14 그러나 **보라**, 시온이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의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도다**.
그러나 그가 그리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이시리라.

15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고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참으로 그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집이여,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 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17 너의 자녀들은 너를 멸하던 자들에게 급히 **대항**할 것이요,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18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라.
이 모든 자가 다 함께 모이나니
그들이 네게로 오**리라**."
"내가 살아 있음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옷 입기를
장식들로 꾸밈**같이** 할 것이며
그들을 띠기를 마치 신부처럼 하리라.

19 이는 너의 버려진 곳들과 너의 황폐한 곳들과
네 멸망의 땅이 이제는 주민들로 말미암아
너무 좁게 될 것이요,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임이라.
20 **첫** 자녀들을 잃고 나서
네가 갖게 될 자녀들이
다시 네 귀에 이르기를,
'이 곳이 나에게 너무 좁으니
내게 거할 곳을 주소서' 하리라.

21 그때에 네가 네 마음 속에 이르기를,
‘나는 내 자녀를 잃었으며 외로웠으며
사로잡힌 바 되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거늘,
누가 나에게
이들을 낳아 주었는고?
또 누가 이들을 양육하였는고?
보라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들은 어디에 있었는고’ 하리라.”

22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우리니,
그들이 네 아들들을 그 팔에 안고 올 것이며,
네 딸들은 그들의 어깨에 메이어 올 것이니라.
23 또 왕들은 너의 양부가 되며,
그 왕비들은 너의 양모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네게 절하며,
네 발의 티끌을 핥으리니,
네가 나를 주인 줄 알리라.
이는 나를 기다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24 강한 자에게서 그 노략물을 빼앗으며,
적법하게 **사로잡힌 자들을** 건져낼 수 있으리요?
25 그러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강한 자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무서운 자의 노략물도 건져 내리니,
이는 내가 너와 다투는 자와 다툴 것이며,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26 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이며
그들로 단 포도주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주는 네 구주요 네 구속주요
야곱의 능한 자인 줄 알리라.”┐

┐26 야곱$_2$은 이 이사야 49:22~26을 니파이후서 6:6~7, 16~18에서 다시 인용하실 것임

니파이[1]가 이사야서와 지노스서의 말을 해석하다

니파이전서 22장

이방인에 의한 이스라엘의 분산과 집합

니파이전서 19~21장에서 기록한 인용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22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놋쇠판에 새겨진 이러한 것들을 읽어 주고 나자, 나의 형제들이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네가 읽은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보라, 이를 육이 아니요 영에 관련하여 임하게 될 영적인 것으로 이해해야 하느냐" 하더라.

[2]이에 나 니파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보소서 그러한 것들은 영의 음성으로 선지자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이니, 이는 육에 관련하여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할 모든 일이 영에 의해 선지자들에게 알려짐이나이다. [3]그러한즉 내가 읽은 것은 현세의 일과 영적인 일 모두에 관련된 것이라.

"이는 이스라엘의 집이 조만간 온 땅 위에 또한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질 듯함이나이다. [4]또 보소서,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의 지식에서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이 많나이다. 참으로 모든 지파들 가운데 대부분이 이끌려 가 버렸으며 **바다의 섬들**[ㄱ] 위에 **여기저기**[ㄴ] 흩어졌으되, 우리는 그들이 이끌려 가 버렸다는 것을 알 뿐 그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알지 못하나이다. [5]또 그들이 이끌려 간 이래로, 그들에 관하여 또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ㄷ] 말미암아 흩어지며 혼란하게 될 모든 자들에 관하여 이러한 일들이 예언되어 왔나니, 이는 그를 대하여 그들이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임이나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이다.**[ㄹ]

[6]"그러나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보살핌을 받게 되고,**[ㅁ] 주께서 **이방인들 위에 그의 손을 드사 그들을 세워 기호를 삼으시고, 그들의 자녀가 그들의 팔에 안기어 오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어깨에 메이어 온**[ㅂ] 후, 보소서 말한 바 이러한 일들은 현세의 일이니 이는 주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성약이 그러함이요, 또 이것은 장래의 우리와 이스라엘 집에 속한 우리의 모든 형제들을 뜻하나이다. [7]또 이는 이스라엘의 온 집이 흩어지고 혼란하게 된 후에, 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참으로 이 땅 위에 한 **강한**[ㅅ] 나라를 세우시는 때가 이름을 뜻하나니, 그들에 의해 우리의 자손들이 흩어지리이다. [8]이에 우리의 자손들이 흩어진 후에, 주 하나님께서 나아가사 이방인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니'[ㅇ] 우리의 자손들에게 큰 가치가 있는 일이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양육 받고 그들의 팔에 안기고 그들의 어깨에 메이어 나아옴**에 비유되는 것이나이다.[ㅈ]

[9]"그 일은 또한 이방인에게도 가치가 있을 것이며, 이방인에게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집에 그러하여 하늘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성약을 알게 하리니, '이르시되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이다.[ㅃ] [10]또 나의 형님들이여, 나는 그가 '열국의 눈 앞에 그 팔을 드러내시지 않고서는,'[ㅆ]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기 바라나이다. [11]그러한즉 주 하나님

[ㄱ]4 니파이전서 19:10, 12, 16 (지노스); 21:1, 8 (이사야) [ㄴ]4 니파이전서 21:21 (이사야) [ㄷ]5 니파이전서 19:14~15 (지노스) [ㄹ]5 니파이전서 19:14 (지노스) [ㅁ]6 니파이전서 21:23 (이사야) [ㅂ]6 니파이전서 21:22 (이사야) [ㅅ]7 니파이전서 21:24~25 (이사야) [ㅇ]8 이사야 29:14 [ㅈ]8 니파이전서 21:22 (이사야) [ㅃ]9 창세기 22:18; 사도행전 3:25 참조; 니파이전서 15:18 비교 [ㅆ]10 이사야 52:10

께서는 나아가 만국의 목전에 그의 팔을 드러내사,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들을 위한 그의 성약과 그의 복음을 이루실 것이라. 12그러한즉 그가 다시 그들을 사로잡힘에서 인도해 내시리니, 그들이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함께 모일 것이요, 그들이 '희미한 데서와 캄캄한 데서' 인도되어ㄱ 나와서 **주께서 그들의 구주시요, 그들의 구속주 곧 이스라엘의 능한 자인 줄 알게 되리이다**."ㄴ

의로운 자들은 다가올 멸망에서 보전될 것임

13"또 온 세상의 창녀인 저 크고 가증한 교회의 피는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돌아가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끼리 전쟁하며 그들 자신의 손에 든 검이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지고, **그들이 자기 피에 취하게**ㄷ 될 것임이라. 14또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를 대적하여 전쟁할 모든 나라는 서로 대적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주의 백성을 빠뜨리려고 파 놓은 구덩이에는 스스로가 빠지게 될 것이라. 또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은'ㄹ 다 멸망당할 것이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 저 큰 창녀, 참으로 저 크고 가증한 교회는 무너져 흙먼지가 되리니 그 무너짐이 크리이다.ㅁ

15" '이는 보소서,' 선지자의 말씀이나이다, '사탄이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더 이상 갖지 못할 날이 속히 이름이니, 이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그루터기처럼 되는 날이 곧 이름이며 그들이 반드시 불살라질 날이 이름이라.'ㅂ 16이는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가 사람의 자녀들 모두의 위에 쏟아질 때가 곧 이름이니, 악인이 의인을 멸함을 그가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나이다. 17그러한즉, 그의 가득한 진노가 반드시 임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 권능으로 의인들을 **보전**하시리니,ㅅ 그들의 원수들이 불로 멸망당할지라도 의인들은 보전되리이다. 그런즉 의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선지자가 이같이 말함이라, '설혹 불로 말미암음 같을지라도 그들은 구원을 받으리이다.'ㅇ

18"보라 나의 형님들이여, 내가 당신들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속히 이르리이다. 참으로 피와 불과 연기가 반드시 이를 것이니, 이것은 반드시 이 지구상에 있을 것이요,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진대, 육체를 따라 사람들에게 임하나이다. 19이는 보라 의인은 멸망하지 아니할 것임이니,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이 다'ㅈ 끊어질 날이 정녕 반드시 이를 것임이라.

20"또 주께서는 진실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사 모세의 말을 이루시리니, 그가 일러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을지니라. 또 이렇게 되리니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다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하였나이다.ㅃ 21이에 이제 나 니파이는 당신들에게 선포하노니,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나이다. 그런즉 그가 의 가운데 심판을 집행하시리이다.

22"또 의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나니, 그들은 진멸당하지 아니할 자들임이라. 그러나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세워질 악마의 왕국은 그러하니, 그 왕국은 육체로 있는 자들 가운데 세워지나이다. 23이는 때가 속히 이를 것임이니, 이익을 얻으려 세워진 모든 교회와 육체를 다스릴 권력을 얻으려 세워진 모든 자들과 세상의 눈에 들기 위해

ㄱ12 이사야 29:18 ㄴ12 니파이전서 21:26 (이사야) ㄷ13 니파이전서 21:26 (이사야) ㄹ14 이사야 29:8 ㅁ14 니파이전서 11:36; 14:3, 9~17 참조 ㅂ15 말라기 4:1 ㅅ17 니파이전서 21:8 (이사야) ㅇ17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나 고린도전서 3:15 참조 ㅈ19 이사야 29:8 ㅃ20 신명기 18:15, 18~19; 사도행전 3:22~23

세워진 자들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것을 구하며 온갖 죄악 행하기를 구하는 자들, 참으로 요컨대 악마의 왕국에 속한 모든 자들은 두려워하며 떨며 흔들려야 할 자들이라. 그들은 반드시 '흙먼지 가운데 내려져야' 할 자들이요,[ㄱ] 그들은 반드시 '그루터기처럼' 타 없어져야 할 자들이니,[ㄴ] 이는 선지자의 말씀대로이나이다.

24 "또 의인들이 반드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인도되며,'[ㄷ]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반드시 주권과 능력과 권능과 큰 영광으로 다스리실 때가 속히 오나이다. 25 또 그는 자기의 자녀들을 **땅 사방에서** 모으시고,[ㄹ] 그는 자기 양을 헤아리시며, 그들은 그를 아나니, 한 무리와 한 목자가 있게 될 것이며, 그가 자기 양을 먹이시리니 그 안에서 그들이 **풀밭**을[ㅁ] 찾을 것이라. 26 또 그의 백성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사탄이 아무 권능도 갖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가 여러 해 동안 풀려날 수 없나이다. 이는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릴 아무 권능도 갖지 못함이니, 이는 그들이 의 안에 거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다스리심이나이다.

27 "또 이제 보소서, 나 니파이가 당신들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이 육체를 따라 반드시 임하리이다. 28 그러나, 보소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회개할진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되리이다.

29 "이에 이제 나 니파이는 끝맺노니, 이는 내가 아직은 이러한 일에 관하여 감히 더 말하고자 아니함이나이다. 30 그러한즉 나의 형님들이여, 나는 당신들이 놋쇠판에 기록된 것들이 참되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기 바라노니, 그것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에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증거하나이다. 31 그러한즉 당신들은 나와 나의 부친만이 그것들을 증거하고, 또한 가르친 유일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러한즉 만일 당신들이 계명에 순종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당신들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으리이다. 참으로 그러하리이다. 아멘."

[ㄱ] 23 이사야 29:4 [ㄴ] 23 말라기 4:1 [ㄷ] 24 말라기 4:2 [ㄹ] 25 니파이전서 19:16 (지노스) [ㅁ] 25 니파이전서 21:9 (이사야)

니파이후서

리하이의 죽음의 기사. 니파이의 형들이 그에게 모반함. 주께서 니파이에게 광야로 떠나도록 경고하심. 광야에서 그가 여행한 일 등.[ㄱ]

리하이[1]의 마지막 말

니파이후서 1~4장

리하이[1]가 약속된 땅에 대해 예언하다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가 나의 형제들을 가르치기를 마친 후, 우리 부친 리하이도 또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였나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사 그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지를 그들에게 들려주었느니라. [2]또 그는 그들이 물 위에서 모반하였던 일과, 그들의 목숨을 살려주사 그들로 바다에 삼켜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자비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였느니라.[ㄴ] [3]그리고 그는 또한 그들이 얻은 약속의 땅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였나니[ㄷ] —주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사, 우리에게 예루살렘 땅에서 도망해 나오라고 경고하셨는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였느니라.[ㄹ]

[4]그가 이르되, "이는 보라, 내가 한 시현을 보았음이라. 그 시현에서 나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줄을 아노니,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면 우리 역시 멸망하였으리라."[ㅁ] [5]그가 이르되, "그러나 우리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속의 땅을 얻었나니, 다른 모든 땅보다 뛰어난 땅이요, 주 하나님께서 내 후손의 기업을 위한 땅이 되리라고 나와 성약하신 땅이라. 참으로 주께서는 이 땅을 영원히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성약하셨으며, 또한 주의 손에 의해 다른 여러 나라로부터 인도되어 나올 모든 자에게도 그리하셨느니라.

[6]"그러한즉 나 리하이는 내 안에 있는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언하노니, 주의 손에 의해 인도되지 아니 하고는 아무도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7]그런즉 이 땅은 그가 인도하여 올 자를 위하여 성별되었느니라. 또 그들이 그가 주신 계명을 좇아 그를 섬길진대 이 땅은 그들에게 자유의 땅이 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이 결코 사로잡히게 되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 된다 하면 그것은 죄악으로 인한 것이리니, 이는 죄악이 가득할진대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을 것임이라. 그러나 의인에게는 이 땅이 영원토록 복되리로다.

[8]"또 보라, 이 땅이 아직 다른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함은 지혜니, 이는 보라, 많은 국민이 이 땅에 넘쳐 유업을 위한 장소가 없었을 것임이라. [9]그리하여 나 리하이는 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인도해 내실 자들이 그의 계명을 지킬진대,

---

ㄱ1 니파이후서에 대한 이 소개는 1장~5장까지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음 ㄴ2 니파이전서 18:9~22 ㄷ3 니파이전서 18:23~25 ㄹ3 니파이전서 2:2 ㅁ4 이 일은 기원전 586년 발생되었다

이 땅 위에서 번성할 것이요, 다른 모든 나라로부터 보호되어 이 땅을 그들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리라는 약속을 얻었느니라. 또 그들이 그의 계명을 지킬진대 이 땅 위에서 복될 것이요,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기업의 땅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으리니, 그들이 영원토록 안전히 거하리라.

10 "그러나 보라, 주의 손에서 그토록 큰 축복을 받은 후 땅과 모든 사람의 창조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창세로부터 주의 크고 기이한 일들을 알며, 신앙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며, 태초로부터의 모든 계명을 가지며, 한량없는 그의 선하심으로 이 귀한 약속의 땅에 인도되어 들고 나서—그들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 때가 이르면, 보라 내가 말하노니, 만일 그들이 참 메시야요 그들의 구속주시요 그들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저버리는 날이 이른다면, 보라, 공의로우신 이의 심판이 그들 위에 머물게 되리라. 11 참으로 그가 다른 국민들을 그들에게로 인도하여 오실 것이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서는 그들 소유의 땅을 빼앗으실 것이요,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되고 매맞게 하실 것이라. 12 참으로 한 세대가 다른 세대로 바뀜에 따라 그들 가운데 유혈과 큰 징벌이 있으리라. 그러한즉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라. 참으로 나는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노라."

리하이$_1$가 아들들을 훈계하다

13 "오 너희가 깨어나기를, 깊은 잠에서,
참으로 지옥의 잠에서 깨어나,
너희를 묶고 있는 무서운 사슬을 떨쳐 버리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사람의 자녀들을 결박하는 사슬이니,
그들이 사로잡혀 비참과 고난의 영원한 심연으로
끌려 내려가느니라.

14 깨어나라! 그리고 티끌에서 일어나,
떨고 있는 부모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곧 그의 사지를 차갑고 적막한 무덤에 뉘어야만 하나니,
그 곳에서는 아무 나그네도 돌아올 수 없느니라.
며칠 더 있으면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내가 가느니라.
15 그러나 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속하셨나니, ⌐
나는 그의 영광을 보았으며,
나는 그의 사랑의 팔에 영원토록 둘러싸였느니라.

16 "그리고 나는 너희가 주의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여 지키기 원하노니, 보라, 이는 처음부터 나의 영혼의 근심이었도다. 17 나의 마음은 시시로 슬픔으로 무거워졌었나니, 이는 너희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나오사, 그의 가득한 진노 가운데 너희에게 임하시므로, 너희가 영원히 끊어져 멸망당할까 내가 두려워하였음이요, 18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 세대 동안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칼과 기근으로 징벌을 받으며 미움을 받고, 악마의 뜻과 사로잡음에 따라 이끌리게 됨을 내가 두려워하였음이라.

⌐15 니파이후서는 2개의 일치된 개인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과 끝의 틀을 갖춤; 여기서는 (시작) 리하이$_1$의 확신, 니파이후서 33:6에서는 (끝) 니파이$_1$의 확신이 나옴

19 "오 나의 아들들아,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가 빼어나고
총애를 받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러나 보라, 그의 뜻이 이루어지리니, 그
의 길은 영원토록 의로움임이니라. 20 또 그가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나,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너희는 나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21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이 너희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도록,
또 내 마음이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 세상을 떠나도록,
그리하여 내가 비통함과 슬픔을 안고 무덤에 내리우지 않도록,
나의 아들들아, 티끌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대장부가 되며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굳건히 되며
모든 일에 단합하여,
너희가 사로잡힘에 빠지지 않도록 하며,
22 심한 저주로 저주받지 않도록 하며,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분노를
너희 위에 자초하여 멸망,
곧 영혼과 육신의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23 깨어나라, 나의 아들들아,
의의 갑주를 입으라.
너희를 묶고 있는 그 사슬을 떨쳐버리고
어둠 속에서 나아오며, 티끌에서 일어나라.

24 "더 이상 너희 아우를 거스려 모반하지 말라. 그의 시현은[ㄱ] 영화로웠으며 그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난 날로부터 계명을 지켰으며, 그는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
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왔나니, 그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광야에서 굶주
림으로 멸망하였을 것임이라.[ㄴ] 그럼에도 너희는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나니,[ㄷ]
참으로 그는 너희로 인하여 많은 슬픔을 겪었느니라. 25 그리고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떠노니, 그가 다시 고난을 겪을까 함이라. 이는 보라, 너희는 그가 너
희를 다스릴 권력과 권세를 추구한다고 그를 비난하였음이라.[ㄹ] 그러나 내가 알거니
와, 그는 너희를 다스릴 권력이나 권세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의
영원한 복리를 구하였느니라. 26 또 그가 너희에게 명백하게 말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불평하였도다.[ㅁ] 너희는 그가 날카롭게 말하였다 하며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노하여
왔었다 하나, 보라, 그의 날카로움은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의 날카로
움이었으며, 너희가 노여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에 따른 진리였으니,
이를 그가 억제할 수 없었던지라, 너희의 죄악에 관하여 담대히 드러낸 것이었느니라.
27 또 그가 너희에게 순종하라고 명하기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여야 함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그러나 보라, 그의 입을 열어 말하게 한 것이 그가 아니라 그의
안에 있는 주의 영이었으므로, 그가 입을 다물 수 없었느니라."

[ㄱ] 24 이는 곧, 시현 [ㄴ] 24 니파이전서 16:17~32 [ㄷ] 24 니파이전서 7:16~19; 16:37~39; 17:48 [ㄹ] 25 니파이전서 16:37~38; 18:10 [ㅁ] 26 니파이전서 16:1~4

리하이$_1$가 레이맨, 레뮤엘 그리고 조램$_1$에게 주는 당부

28"그리고 이제 나의 아들 레이맨아, 그리고 또한 레뮤엘과 샘아, 그리고 또한 이스마엘의 아들인 나의 아들들아, 보라, 너희가 니파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진대 너희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또 너희가 그에게 귀 기울일진대,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남기노니 참으로 곧 나의 첫 번째 축복이라. 29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에게 귀 기울이지 아니할 터이면, 내가 나의 첫 번째 축복, 참으로 곧 나의 축복을 거두나니, 이것은 그의 위에 머물게 되리라.

30"그리고 이제 조램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보라, 너는 라반의 종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되어 나왔나니, 나는 네가 영원토록 나의 아들 니파이에게 참된 벗인 줄을 아노라. 31그런즉 네가 충실하였으므로, 네 자손은 그의 자손으로 더불어 복을 받아 이 땅 위에서 오래도록 번성하는 가운데 거할 것이요, 그들 가운데 있을 죄악을 제외하고는, 이 땅 위에서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해하거나 방해할 만한 것이 영원히 없으리라. 32그러한즉 너희가 주의 계명을 지킬진대, 주께서는 내 아들의 자손과 함께 네 자손의 안전을 위하여 이 땅을 성별하셨느니라."

리하이$_1$가 그의 아들 야곱$_2$에게 말하다

2 "그리고 이제 야곱아, 내가 네게 말하노라. 너는 광야에서 나의 환난의 날에 얻은 첫아들이니라. 또 보라, 너의 어릴 적에 너는 네 형들의 횡포로 인하여 고난과 많은 슬픔을 겪었도다.[1] 2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의 나의 첫아들 야곱아, 네가 하나님의 크심을 아나니, 그가 너의 고난을 성별하사 너의 유익이 되게 하시리라. 3그런즉 네 영혼이 복될 것이며, 너는 네 형 니파이와 함께 안전히 거할 것이요, 네 날들은 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보내게 되리라. 그런즉 나는 네 구속주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네가 구속되었음을 아노니, 이는 때가 차매 그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러 오심을 네가 보았음이라. 4또 너는 네 젊었을 때에 그의 영광을 보았나니, 그런즉 너는 그가 육체로 성역을 베푸실 자들처럼 복되도다.

"이는 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라. 또 사람이 타락한 때로부터 길이 예비 되었으며, 구원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니라. 5또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르침을 받았고,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졌으며, 율법으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나니, 곧 율법으로는 사람이 끊어지느니라. 참으로 현세에 속한 율법으로 그들은 끊어졌으며, 또한 영에 속한 율법으로 선한 것에서 멸망하여 영원토록 비참하게 되느니라. 6그러한즉 구속은 거룩하신 메시아 안에서 거룩하신 메시야를 통하여 임하나니, 이는 그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심이라. 7보라, 그는 죄를 위한 희생으로 자신을 바치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닌 모든 자를 위하여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시나니, 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율법의 목적이 부응될 수 없느니라.

8"그러한즉 이러한 것들을 땅의 주민들에게 알려, 거룩하신 메시야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음을 그들로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그는 육체를 따라 그의 생명을 버리시고 영의 권능으로 그의 생명을 다시 취하시나니, 그리하여 일어날 자의 첫째가 되사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시리라. 9그런즉 그는 하나님께 첫열매니, 그가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하여 중재하실 것임이라. 또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10또 모두를

[1] 니파이전서 18:9, 19

위한 중재로 말미암아 만인이 하나님께 나아오나니, 그런즉 그들이 그의 면전에 서서 그의 안에 있는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그에게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한즉 거룩하신 이가 주신 율법의 목적은, 부가된 형벌을 가하는 데 이르나니 부가된 이 형벌은 부가된 행복과 반대가 되는 것인 바, 이는 속죄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니—

11 "이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광야에서의 나의 첫아들아,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니, 간악함도 그러하며, 거룩함이나 비참함이나, 선이나 악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니라. 그런즉 모든 것이 혼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라. 그러한즉 만일 한 몸이 된다 할진대, 생명도 없고 사망도 없으며, 썩음도 썩지 아니함도 없고, 행복이나 비참도 없으며, 느낌도 느끼지 못함도 없이, 죽은 채로 그저 있어야만 하리라. 12 그런즉 창조된 것이 허사임이 분명하니, 그런즉 그 창조의 목적에 아무 목적 하는 바가 없게 되었을 것이라. 그런즉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그의 영원한 목적과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없으리라.

13 "또 너희가 말하기를, 율법이 없다 할진대 너희는 또한 죄가 없다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죄가 없다 할진대 너희는 또한 의가 없다 하리라. 또 의가 없을진대 행복이 없을지라, 의가 없고 행복도 없을진대 형벌이나 비참도 없을지라, 또 만일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이라. 또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도 없고 세상도 없나니, 이는 행하거나 행함을 받는 것들의 창조가 없었을 것임이라. 그런즉 만물이 다 사라져 버렸으리라."

리하이$_1$가 그의 아들들에게 타락과 선택의지에 대해 가르침

14 "이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의 유익과 배움이 되도록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는 하나님이 한 분 계시고 그가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곧 행하는 것들과 행함을 받는 것들 모두를 창조하셨음이라. 15 또 그가 우리의 첫 부모와,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요컨대 창조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 사람의 종말에 그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반대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였나니, 곧 생명의 나무에 반대되는 금단의 열매라. 하나는 달고 다른 하나는 쓴 것이니라. 16 그리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게 하시었나니, 그런즉 사람은 이편이나 저편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서는 스스로 행할 수 없었느니라.

17 "그리고 나 리하이는 내가 읽은 바에 따라, 이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나니, 곧 기록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하였느니라.'ㄱ 그리하여 그가 악마가 되었나니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구하였음이라. 18 이에 그가 하늘에서 타락하여 영원토록 비참하게 된지라, 그가 또한 온 인류를 비참하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이브에게 일렀나니, 참으로 악마요 모든 거짓의 아비인 저 옛 뱀이라. 그런즉 그가 이르기를, '금단의 열매를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 하였느니라.ㄴ 19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땅을 갈게 되었느니라.ㄷ 20 그리고 그들이 자녀를 낳았나니, 참으로 곧 온 세상의 가족이라.

21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람의 자녀들의 날이 연장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육체로 있는 동안 회개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상태는 시험의 상태가 되었고, 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신 계명에 따라 그들의 때가 길어졌느니라.

ㄱ 17 이사야 14:12 ㄴ 18 창세기 3:4~5 ㄷ 19 창세기 3:23~24

이는 그가 모든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계명을 주셨음이니, 이는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들 부모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잃은 바 되었음을 보여 주셨음이라. 22그리고 이제, 보라, 만일 아담이 범법하지 않았더라면 타락하지 아니하였을 것이요, 에덴 동산에 그대로 머물렀을 것이라. 그리고 창조된 모든 것이 창조된 후에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그대로 머물렀으리니, 영원히 머물러 끝이 없었으리라. 23또 그들은 자녀를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은 무지한 상태에 머물렀으리니, 비참을 알지 못하매 기쁨이 없고, 죄를 알지 못하매 선을 행하지 못하였으리라.

24"그러나 보라, 만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이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졌느니라.

25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

26그리고 메시야는 사람의 자녀들을 타락에서 구속하시고자 때가 찰 때 오시느니라. 또 그들은 타락에서 구속되었으므로 선악을 분별하며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따라, 저 큰 마지막 날에 있을 율법의 형벌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느니라. 27그러한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28"이에 이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크신 중보자를 바라보고 그의 큰 계명들을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충실하여, 그의 성령의 뜻을 좇아 영생을 택하고,ㄱ 29또 육체의 뜻과 그 안에 있는 악을 좇아 영원한 죽음을 택하지 않기 바라노니, 그러한 것은 악마의 영에게 너희를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어내릴 능력을 주어, 그로 자기의 왕국에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느니라. 30나의 아들들아, 나는 나의 시험의 날의 마지막 때에 너희 모두에게 이 몇 마디 말을 하였노니, 나는 선지자의 말을ㄴ 좇아 '좋은 편을 택하였으며,' 나는 너희 영혼의 영원한 복리 이외에는 아무 다른 목적도 갖고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리하이$_1$가 아들 요셉$_2$에게 애굽의 요셉$_1$이 한 말을 인용하다

3 "그리고 이제 나의 막내아들 요셉아, 내가 네게 말하노라. 너는 내 고난의 광야에서 태어났었나니, 참으로 나의 가장 큰 슬픔의 날에 너의 모친이 너를 낳았느니라. 2또 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계명을 지킬진대, 주께서 가장 귀한 땅인 이 땅을 너를 위하여 또한 성별하사, 네 형들과 함께 네 기업과 네 자손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너를 안전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3"또 이제 내가 내 고난의 광야에서 인도해 나온 나의 막내아들 요셉아, 주께서 너를 영원토록 축복하시기를 바라노니, 이는 네 자손이 온전히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4이는 보라, 너는 내 허리의 열매요, 나는 애굽으로 사로잡혀 끌려갔던 요셉의 후손이니, 요셉에게 맺으신 주의 성약이 참으로 컸도다. 5그리하여 요셉은 진실로 우리의 날을 보았으며 그는 주께 한 약속을 얻었나니, 곧 그 허리의 열매로부터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을 위해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리라는 것이라. 메시야가 아니요, 꺾어져 나올 가지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약 안에서 기억되리니,

ㄱ28 27~28절은 신명기 30:19의 심화된 내용으로 보임 ㄴ30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나 누가복음 10:42 참조

곧 메시야가 후일에 권능의 영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신 바 되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참으로 숨겨진 어둠에서와 사로잡힘에서 자유로움으로 인도해 내겠다 하신 것이라.

6 "이는 요셉이 진실로 증거하여 이르되, '한 선견자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니, 그가 내 허리의 열매들에게 뛰어난 선견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라.ㄱ 7 진실로 요셉이 말하기를,

> 이같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뛰어난 선견자 하나를 내가 네 허리의 열매로부터 일으키리니, 그가 네 허리의 열매 가운데서 높이 여김을 받으리라. 또 그에게 내가 명령을 주어 네 허리의 열매,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한 가지 일을 하게 할 것인즉 이는 그들에게 큰 가치가 있으리니, 참으로 그들에게 내가 너의 조상들과 맺은 성약에 대하여 알게 하기에 이르리라. 8 또 나는 그에게 명령을 주어 내가 그에게 명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눈에 크게 하리니 이는 그가 나의 일을 할 것임이니라. 9 또 그가 모세와 같이 크게 되리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이 모세는 내가 내 백성을 건지기 위하여 너희에게 일으키겠다 말한 자니라. 10 또 모세를 내가 일으켜 너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 내리라.
>
> 11 그러나 한 선견자를 내가 네 허리의 열매 중에서 일으켜, 그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네 허리의 자손들에게 나의 말을 가져다 주게 하며, 나의 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이미 나아갔을 나의 말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2 그런즉 네 허리의 열매가 기록할 것이요, 유다의 허리의 열매가 기록할 것이라. 네 허리의 열매에 의해 기록될 것과 또한 유다의 허리의 열매에 의해 기록될 것이 함께 자라 거짓 교리들을 무너뜨리며, 다툼을 가라앉히며, 네 허리의 열매 가운데 평화를 이루며, 후일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 조상에 대하여 알게 하고, 또한 나의 성약에 대하여 알게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3 또 연약함으로부터 그가 강하게 되리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곧 나의 일이 나의 모든 백성 가운데 시작될 날에 너를 회복하기에 이르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4 "또 이같이 요셉이 예언하여 이르되,

> 보라, 그 선견자를 주께서 축복하시리니 그를 멸망시키려 하는 자들이 좌절될 것이라. 이는 내 허리의 열매에 대하여 내가 주께 얻은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라, 나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노라. 15 또 그의 이름은ㄴ 나를 따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의 부친의 이름을 따를 것이며, 또 그는 나와 같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손으로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실 일이 나의 백성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하였느니라.

16 "참으로 이같이 요셉이 예언하되,

ㄱ 6 다음에 나오는 예언들은 정황상 놋쇠판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 니파이후서 4:1~2 참조 ㄴ 15 조셉 스미스 2세

내가 모세의 약속을 확신하는 것같이 나는 이 일에 관하여 확신하노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씨를 영원토록 보전하리라' 하셨음이라.

17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세라 하는 자를 일으키고 권능을 막대기에 실어 그에게 줄 것이며, 기록할 수 있는 판단력을 그에게 주리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그의 혀를 풀어 말을 많이 하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를 말에 능한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친히 내 손가락으로 나의 율법을 적어 그에게 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대변자를 만들어 주리라 하셨더라.

18 주께서 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네 허리의 열매를 위하여 일으킬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한 대변자를 만들어 주리라. 또 내가, 보라, 내가 그로 하여금 네 허리의 열매를 위하여 네 허리의 열매가 기록한 것을 기록하게 하고, 네 허리의 대변자로 그것을 선포하게 하리라. 19 또 그가 기록할 말은 나의 지혜 안에서 네 허리의 열매에게 나아가기에 합당한 말일 것이며, 이는 마치 네 허리의 열매가 티끌에서 그들에게 외친 것과 같으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신앙을 앎이니라. 20 또 그들이 티끌에서 참으로 회개를 그들의 형제들에게 외치리니, 곧 그들에게 있어 여러 세대가 지난 후일 것이며, 또 이같이 되리니 그들의 외침은 그들의 말의 단순함을 좇아 나아갈 것이라. 21 그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은 내 입에서 나아와, 네 허리의 열매인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를 것이요, 그들의 말의 연약함을 내가 그들의 신앙 안에서 강하게 하여, 내가 네 조상들과 맺은 나의 성약을 기억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22 "이제 보라, 나의 아들 요셉아, 참으로 이와 같이 나의 옛 조상이 예언하였느니라. 23 그런즉 이 성약으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는 네 씨가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 이는 그들이 그 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임이니라. 24 또 그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하나 일어나, 말과 행사로 많은 선을 행하리니, 심히 큰 신앙으로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놀라운 기사를 이루며, 하나님 보시기에 큰 저 일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집과 네 형제의 자손들에게 많은 회복을 가져오리라. 25 또 이제 요셉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보라, 너는 어리니 그런즉 너의 형 니파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내가 한 말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라, 죽어 가는 네 아비의 말을 기억하라. 아멘."

니파이$_1$가 요셉$_1$의 예언에 대해 평하다

4 그리고 이제 나 니파이는 나의 부친이 말씀하신 바, 애굽에 끌려갔던 요셉에 대한 예언에 관하여 말하노라. 2 이는 보라, 그가 진실로 그의 모든 자손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또 그가 기록한 예언으로 말하자면 더 큰 예언이 많지 아니하도다. 또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장래 세대에 관하여 예언하였나니, 그러한 것은 놋쇠판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레이맨$_1$과 레뮤엘의 자녀들에 대한 리하이$_1$의 축복

3 그리하여 나의 부친은 요셉의 예언에 관하여 말씀하기를 마치신 후, 레이맨의 자녀들 곧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의 맏아들의 아들과 딸인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아,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기를 바라노라. 4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요,
>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 너희는 나의 면전에서 끊어지리라' 하셨음이니라.[ㄱ]

5 그러나 보라, 나의 아들들과 나의 딸들아, 내가 너희 위에 축복을 남기지 않고서는 나의 무덤에 내려갈 수 없나니, 이는 보라, 너희가 마땅히 행할 길에서 양육을 받으면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앎이라. 6 그런즉 만일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면, 보라, 내가 너희 위에 나의 축복을 남기노니, 그 저주가 너희에게서 거두어져 너희 부모의 머리 위에 응답되리라. 7 그런즉 나의 축복으로 인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멸망되도록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리니, 그런즉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너희의 자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이 레이맨의 아들과 딸들에게 말씀하기를 마치신 후, 레뮤엘의 아들들과 딸들을 그에게 데려오게 하시더라. 9 그리고 그들에게 일러 이르되, "보라, 나의 둘째 아들의 아들과 딸인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레이맨의 아들과 딸들에게 남겨 준 것과 똑같은 축복을 남기노라. 그런즉 네가 완전히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마지막에 네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리하이$_1$의 마지막 축복과 죽음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마치시고 나서, 보라, 그는 이스마엘의 아들들에게 또한 참으로 그의 모든 권속에게 말씀하셨느니라. 11 또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마치신 후, 그는 샘에게 일러 이르되, "너와 네 자손이 복이 있도다. 이는 네가 네 아우 니파이처럼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또 네 자손은 그의 자손과 함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는 참으로 너의 아우와 같을 것이며, 네 자손은 그의 자손과 같을 것이요, 너는 네 모든 날 동안 복을 받으리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부친 리하이가 자기 마음의 느낌과 그의 안에 있는 주의 영을 따라, 그의 모든 권속에게 말씀하신 후 부친은 노쇠해졌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부친이 죽어 장사되니라.

[ㄱ] 4 니파이후서 1:20 참조; 니파이전서 2:20~21 비교

니파이$_1$의 시편 ㄱ

1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부친의 죽음 이후 여러 날 되지 아니하여, 레이맨과 레뮤엘과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주의 훈계로 인하여 내게 성을 내었더라. 14 이는 나 니파이가 그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말하도록 강권하심을 받았음이라.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말하였음이요, 나의 부친도 그가 죽기 이전에 역시 그리하셨음이니, 그 말한 것 가운
데 많은 것들은 나의 다른 판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는 보다 역사에 관한 부분은
나의 다른 판에 기록되어 있음이니라. 15 그리고 이 판에는 나의 영혼에 속한 것과 놋쇠
판에 새겨져 있는 경전을 많이 기록하노니, 이는 나의 영혼이 경전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이 이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자녀들의 배움과 유익을 위하여 이를 기록함이라.

16 보라, 나의 영혼은 주의 것을 기뻐하며,
나의 마음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끊임없이 깊이 생각하는도다.
17 그러나 주께서 크게 선을 베푸사,
나에게 그의 크고 기이한
일들을 보여 주셨음에도
나의 마음은 부르짖기를,
"오 나는 곤고한 자로다!"
참으로 나의 마음은 나의
육신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나의 영혼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비통해하는도다.
18 나는 나를 그처럼 쉽게
괴롭히는 유혹과
죄로 인하여 에워싸였도다.
19 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할 때에
나의 마음은 나의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도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가
누구를 의뢰하여 왔는지 아노라.

20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나니,
그는 나를 인도하사 광야에서
나의 고난을 지나게 하셨으며, ㄴ
큰 깊음의 물 위에서 나를 보전하셨도다. ㄷ
21 그는 그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사
참으로 나의 육체가
소멸되기에 이르게 하셨도다.
22 그는 나의 원수들을 파하사,
그들로 내 앞에서 크게 떨게 하셨도다. ㄹ

ㄱ 13 니파이$_1$의 시편은 개인 탄원시의 고전적인 형식을 따름: 탄원을 시작하는 호출(16절), 한탄(17~19절), 믿음을 향한 고백(20~30절), 청원(31~33절), 찬양을 위한 서약(34~35절) ㄴ 20 니파이전서 16:19~21; 17:1, 6 ㄷ 20 니파이전서 18:9~22 ㄹ 22 니파이전서 17:52~55

23 보라, 그는 낮으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밤에는 시현으로 내게 지식을 주셨도다.
24 또 낮으로 내가 그의 앞에
힘있는 기도로써 담대해지되,
참으로 나의 목소리를 높이 올려 보내었더니
천사들이 내려와서
나에게 성역을 베풀었도다.ㄱ
25 또 그의 영의 날개 위에 내 몸이 실려 가서
심히 높은 산 위에 이르렀고,ㄴ
내 눈이 큰 일들을 목격하였나니,
참으로 사람에게는 너무 큰 일이라.
그런고로 내가 그것을 기록하지 말도록
명하심을 받았도다.ㄷ

26 오 그러면 내가 그토록 큰 일을 보았을진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낮추어 내려오사
그토록 많은 자비로
사람들을 찾아 주셨을진대,
어찌하여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울며,
내 영혼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머뭇거리며,
내 육신이 소진되며,
내 힘이 풀려야 하느냐?
27 또 어찌하여 내가 나의 육신으로 인하여
죄에 굴복해야 하느냐?
참으로 어찌하여 내가 유혹에 져서
저 악한 자가 내 마음에 자리잡고
내 평화를 깨뜨리며
내 영혼을 괴롭히게 하여야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원수로 인하여 노하느냐?

28 깨어나라, 나의 영혼이여!
더 이상 죄 중에 처지지 말지어다.
기뻐하라, 나의 마음이여,
그리고 내 영혼의 원수에게
더 이상 자리를 내주지 말지어다.
29 내 원수로 인하여 다시는 노하지 말지어다.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 내 힘을 풀리게 말지어다.
30 기뻐하라, 나의 마음이여,
그리고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이다.”

ㄱ24 니파이전서 11~14 ㄴ25 니파이전서 11:1 ㄷ25 니파이전서 14:28

참으로 내 영혼은 나의 하나님이요
내 구원의 반석이신 주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할지어다.

31 주여, 주께서 내 영혼을 구속해 주시겠나이까?
나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나이까?
나로 하여금 죄가 나타날 때
떨게 하여 주시겠나이까?
32 내 마음이 상하였고 나의 심령이 통회하오니,
지옥의 문이 내 앞에서
내내 닫혀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주의 의의 문을 내 앞에서 닫지 마시어,
나로 낮은 골짜기 길로 행하게 하시옵고
나로 평탄한 길에 바로 있게 하시옵소서!
33 주여, 나를 주의 의의 옷 안에 감싸주시겠나이까!
주여, 내 원수들 앞에서
나의 피할 길을 내 주시겠나이까!
나의 길을 내 앞에서 곧게 하여 주시겠나이까!
나의 길에 거치는 돌을 두지 마시옵고,
도리어 나의 길을 내 앞에서 치워 주시오며,
나의 길을 막지 마시옵고
나의 원수의 길을 막아 주시옵소서.

34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육신의 팔에 나의 신뢰를 두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육신의 팔에 자기의 신뢰를 두는 자가
저주를 받는 줄 내가 앎이니이다.
참으로 '사람에게 자기의 신뢰를 두는 자,
곧 육신으로 자기의 팔을
삼는 자는 저주를 받았나이다.'[ㄱ]
35 참으로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리이다.
참으로 내가 잘못 구하지 아니할진대,
나의 하나님이 내게 주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의 음성을 높이리이다.
참으로 내가 주께 곧 나의 하나님
내 의의 반석에게 부르짖으리이다.
보소서, 나의 음성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주께
영원토록 올라가리이다.
아멘.

[ㄱ]34 예레미야 17:5 참조; 니파이후서 28:31에서 이 인용에 대한 심화된 해석을 볼 수 있음

니파이$_1$와 그의 무리들이 도망하다

5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나의 형제들의 노여움으로 인하여, 주 나의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더라. [2]그러나 보라, 나에 대한 그들의 노여움은 더욱 커져, 이윽고 그들은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느니라. [3]참으로 그들은 나에게 불평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아우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생각하는도다.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었으니, 그런즉 이제 그를 죽여 더 이상 그의 말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이는 보라, 우리는 그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지 아니할 것임이니, 이 백성을 다스리는 일은 형들인 우리에게 속해 있음이니라" 하더라. [4]이제 나는 그들이 나에게 불평한 말들을 모두 이 판에 기록하지 아니하노니, 나로서는 그들이 나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였음을 말하는 것으로 족하도다.

[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나에게 경고하사, 나 니파이가 그들에게서 떠나 광야로 도망하고, 나와 함께 가려 하는 자들도 모두 그리하라 하셨느니라. [6]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나의 가족과 또한 조램과 그의 가족과 나의 형 샘과 그의 가족과 나의 동생 야곱과 요셉과 또한 나의 누이들과 나와 함께 가려 하는 자 모두를 취하였느니라. 또 나와 함께 가려 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고와 계시를 믿는 자들이었나니, 그런고로 그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더라.

[7]이에 우리는 우리의 장막과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무엇이나 다 취하고 여러 날 동안 광야를 여행하였나니,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여행하고 난 후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쳤느니라. [8]그리고 나의 백성이 그 곳 이름을 니파이라 부르기 원하였으므로, 우리가 그 곳을 니파이라 불렀느니라. [9]또 나와 함께 한 자들 모두가 그들 스스로를 니파이 백성이라 칭하기로 하였더라. [10]그리고 우리는 주의하여 모든 일에 모세의 율법을 좇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계명을 지켰더라.

니파이인들이 번성하다

[11]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매, 우리가 심히 번성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씨를 뿌리고 풍성하게 다시 거두었음이라. 또 우리는 양 떼와 소 떼와 온갖 종류의 동물들을 기르기 시작하였느니라. [12]또한 나 니파이는 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기록과 또한 기록된 대로 나의 부친을 위하여 주의 손으로 예비되었던 공, 곧 나침반도 가져왔느니라.ㄱ [13]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그 땅에서 심히 번성하며 불어나기 시작하였느니라.

[14]또 나 니파이는 라반의 검을 취하여 그 방식을 따라 검을 많이 만들었나니, 혹 이제 레이맨인이라 일컫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닥쳐 우리를 멸할까 염려하였음이라. 이는 나와 나의 자녀들과 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는 자들을 향한 그들의 증오를 내가 알고 있었음이라. [15]또 나는 나의 백성들을 가르쳐 건물을 짓게 하였고, 대단히 풍부하게 있던 나무와 철과 구리와 놋과 강철과 금과 은과 귀한 광물들을 온갖 방식으로 다루게 하였느니라. [16]또 나 니파이는 성전을 지었나니, 내가 이를 솔로몬 성전의 방식을 따라 건축하였으되 다만 그것이 그처럼 많은 귀한 것들로 지어지지 아니하였나니,ㄴ 이는 그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었음이라. 그리하여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과 같이 지어질 수는 없었으나, 그 건축 방식은 솔로몬의 성전과 같았으며 그 솜씨가 심히 정교하였느니라. [17]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근면하게 하였고, 자기 손으로 일하게 하였느니라. [18]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ㄱ12 니파이전서 16:10, 26~29; 18:12 ㄴ16 열왕기상 6 참조

왕이 되기를 원하였더라. 그러나 나 니파이는 그들이 왕을 두지 않기를 바랐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능력 안에 있는 바를 따라 그들을 위하여 행하였느니라.

레이맨인들이 저주를 받음[ㄱ]

19 또 보라, 주께서 나의 형제들에 관하여 하신 말씀, 곧 내가 그들의 통치자와 교사가 될 것이라 하신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었나니,[ㄴ] 그리하여 그들이 나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였을 때까지, 주의 명령에 따라 내가 그들의 통치자와 교사가 되었던 것이더라. 20 그리하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바 곧 주의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르시기를, "그들이 네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지리라"[ㄷ] 하신 것이라. 그런즉 보라, 그들은 그의 면전에서 끊어졌느니라.

21 또 그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나니,[ㄹ] 참으로 혹독한 저주라. 이는 보라, 그들이 그를 대하여 자기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 마음이 마치 부싯돌같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그들이 희고 심히 곱고 기뻐할 만하였던지라, 그들이 나의 백성에게 꾀임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 하나님께서는 검은 빛깔의 피부로 그들에게 임하게 하셨더라. 22 또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그들이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로 하여금 네 백성에게 혐오스러운 것이 되게 하리라. 23 또 그들의 씨와 섞는 자의 씨도 저주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똑같은 저주로 저주받을 것임이니라." 이제 주께서 이를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느니라.

24 또 그들에게 임한 그들의 저주로 인하여, 그들은 악행과 간교가 가득한 게으른 백성이 되어 광야에서 사냥 짐승을 찾아다니더라. 25 또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네 자손에게 채찍이 되어 저들을 일깨워 나를 기억하게 할 것이요,[ㅁ] 저들이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저들을 채찍질하여 멸망하게 하기에 이르리라" 하셨느니라.

2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니파이는 야곱과 요셉을 성별하여, 그들로 내 백성의 땅의 제사와 교사가 되게 하였느니라.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28 또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는 삼십 년이 지나갔더라.[ㅂ]

니파이$_1$의 작은 판[ㅅ]

29 또 나 니파이는 내가 만든 나의 판에 나의 백성에 대하여 기록을 계속하여 왔었더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되, "다른 판을 만들라. 그리고 너는 네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나 보기에 좋은 것들을 그 위에 많이 새길지니라" 하시더라. 31 그리하여 나 니파이는 주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가서 이 판을 만들어 그 위에 이러한 것들을 새겼느니라. 32 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새겼나니, 만일 나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기쁘게 여긴다면 그들은 이 판에 내가 새긴 것들을 기쁘게 여기리라. 33 그리고 만일 나의 백성이 내 백성의 역사의 더 상세한 부분을 알기 원한다면, 그들은 나의 다른 판을 찾아보아야만 하리라. 34 그리고 나로서는 사십 년이 지나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족하니,[ㅎ] 우리는 이미 우리의 형제들과 전쟁과 다툼을 가졌느니라.

[ㄱ] 19 이 저주의 성질이 어떻든간에 레이맨인들이 니파이인들보다 더 의롭게 되는 것을 가로막지 못함; 힐라맨서 6 참조; 힐라맨서 13:1 비교 [ㄴ] 19 니파이전서 2:22; 3:29 [ㄷ] 20 니파이전서 2:21 [ㄹ] 21 니파이전서 2:23 [ㅁ] 25 니파이전서 2:24 [ㅂ] 28 기원전 567년 [ㅅ] 29 니파이의 큰 판과 작은 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니파이전서 9:1~6; 19:1~7에 나옴 [ㅎ] 34 기원전 557년

야곱$_2$의 설교

니파이후서 6~10장

니파이$_1$가 쓴 소개

6 니파이의 동생 야곱의 말이니, 곧 그가 니파이의 백성에게 말한 것이라.

첫째날: 야곱$_2$이 이사야서를 해석하다

니파이후서 6~9장

이방인과 성약의 백성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이사야서 49:22~26에 대한 설교

2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야곱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의 거룩한 반차의 방식을 좇아 성임되었고, 너희가 왕이요 보호자로 바라보며 너희의 안전을 위하여 의지하고 있는 나의 형 니파이에 의하여 성별되었나니, 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심히 많은 것을 말하였음을 아느니라.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 영혼의 복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이라. 참으로 너희를 위한 나의 염려가 크니 항상 그러하여 왔음을 너희 스스로가 또한 아느니라. 이는 내가 부지런함을 다하여 너희를 권면하였고, 나의 부친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쳤으며, 세상의 창조로부터 기록된 모든 일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였음이라.

4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임할 일에 관하여 말하고자 하노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사야의 말을 읽어 주리라. 또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기를 나의 형이 원한 말씀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로 배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5 또 이제 내가 읽을 말씀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온 집에 관하여 말한 것이라. 그런즉 그것을 너희에게 비유함이 가하니, 이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집에 속하였음이라. 또 너희가 이스라엘의 집에 속하였으므로, 이사야가 말한 것으로서 너희에게 비유될 수 있는 것이 많으니라.

6 "이제 이것이 그 말씀이니라.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하여 나의 기를 세우리니,
그들이 네 아들들을 팔에 안고 올 것이며,
네 딸들은 그들의 어깨에 메이어 올 것이니라.
7 또 왕들은 네 양부가 되고
그들의 왕후들은 네 양모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으리니,
네가 나를 주인 줄 알리라.
이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ㄱ

ㄱ7 이사야 49:22~23; 니파이가 니파이전서 21:22~23에서 언급함; 아래 표시된 굵은체는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인용들임 (13절, 15절)

8"이제 나 야곱은 이 말씀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라. 이는 보라, 주께서 우리가 떠나온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로잡혀 갔음을 나에게 보여 주셨음이라.[ㄱ] 9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나에게 보여 주셨으며, 또한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께서 육신으로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을 나에게 보여 주셨나니, 그가 자기를 나타내신 후에 나에게 이를 말해 준 천사의 말에 따를진대, 그들은 그를 채찍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10"또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목을 뻣뻣하게 한 후에, 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리라. 이에 그들이 치심을 입으며 고난을 당할 날이 임하느니라. 11그런즉 그들이 이리저리로 쫓기고 난 후, (이는 이같이 천사가 말함이라: '많은 자들이 육체로 고난을 당할 것이나, 충실한 자들의 기도로 인하여 멸망은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이 흩어지게 되고 매맞게 되며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니, 그들이 그들의 구속주를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될 때에, 그들은 또다시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함께 모이게 되리라.

12"또 선지자가 기록한 그들 곧 이방인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보라, 그들이 회개하여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지 아니하며, 저 크고 가증한 교회와 연합하지 아니할진대 구원받을 것임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맺으신 바 자기의 성약을 이루실 것임이니, 이 연고로 선지자가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였느니라. 13그런즉 시온과 주의 성약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은 그들의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요, 주의 백성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의 백성은 그를 기다리는 자들임이라. 이는 그들이 아직 메시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음이니라.

14"또 보라, 선지자의 말에 따르건대, 메시야가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하사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믿는 날이 이를 때, 그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사 그들의 원수를 멸하실 것이라.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그가 하나도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15그러나 그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은 불로, 또 폭풍우로, 또 지진으로, 또 유혈로, 또 역병으로, 또 기근으로, 멸망당하리니 그들이 주는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 것이라.

16 강한 자에게서 어찌 그 노략물을 빼앗으며
적법하게 사로잡힌 자를 어찌 건져 낼 수 있으리요?
17 그러나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강한 자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무서운 자의 노략물도 건져 내리라 하시나니,
이는 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약의 백성을 건지실 것임이라.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다투는 **자들**과 다툴 것이요—[ㄴ]
18 또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일 것인즉,
그들은 단 포도주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주는 네 구주요, 네 구속주,
곧 야곱의 능한 자인 줄 알리라' 하심이니라."[ㄷ]

[ㄱ] 8 이 일은 기원전 586년에 발생되었다 [ㄴ] 17 야곱$_2$이 이사야 49:25과 니파이전서 21:25의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을 누락함 [ㄷ] 18 16~18절은 이사야 49:24~26을 인용하지만 니파이전서 21:24~26에서 그 인용을 다르게 표현한 몇가지는 굵은체로 표시됨

야곱$_2$이 이사야서 50:1~52:2 인용하다

니파이후서 7~8장

이스라엘의 간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이사야서 50:1~3

해당 성경구절에 추가되거나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7 **참으로 그러하니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심이라**.

"**내가 너를 영원히 버렸느냐**,
혹 내가 너를 영원히 쫓아버렸느냐?"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심이라.
"너희 어미의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누구**에게 내가 너를** 버렸느냐?
혹 나의 채권자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너희를 팔았느냐?
참으로 누구에게 **내가**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는 스스로 팔렸고,
너희의 범법으로 인하여 너희 어미는 버리웠느니라.
2 그리하여 내가 왔을 때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렀을 때 **참으로** 대답할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 손이 도무지 짧아져서
구속하지 못하게 되었느냐,
혹 내게 건질 능력이 없느냐?
보라, 내가 내 꾸짖음으로 바다를 마르게 하며,
내가 **그** 강들로 광야가 되게 하**고**
물들이 말랐으므로 물고기가 갈증**으로 인하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하느니라.
3 내가 흑암으로 하늘들을 입히며
굵은 베로 그 덮개를 삼느니라."

주님의 종이 자신이 받을 모욕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을 말하다

이사야서 50:4~11

4 **이스라엘의 집이여**,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하여금 때를 따라
네게 어떻게 말할 것을 알게 하셨나니,
너희가 피곤할 때에 그가 아침마다 깨우시되,
그가 나의 귀를 깨워 학자처럼 듣게 하시도다.
5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여시매,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였고

뒤돌아서지도 아니하였느니라.
6 내가 **때리는 자**에게 나의 등을,
또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주었으며,
내가 모욕과 침 뱉음에서
나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7 이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므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나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8 **또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그가**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느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누가 나의 대적이냐? 그는 내게 가까이 올지니,
내가 내 입의 기운으로 그를 치리로다.
9 **이는**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임이라.
또 나를 정죄할 **자들은 모두**,
보라, 그들은 모두 옷같이 해어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어 없애리라.

10 너희 중에 주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음성에 순종하며,
어둠 가운데 행하며 빛이 없는 자가 누구냐?ㄱ
11 보라 불을 켜고 불꽃으로
스스로를 두르는 너희 모두여,
너희의 불빛과 너희가
켠 불꽃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내 손에서 받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시온을 위한 위로

이사야서 51:1~16

8 의를 좇는 너희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구덩이의 구멍을 생각해 보라.
2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그** 사라를 생각해 보라.
이는 내가 홀로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복을 주었음이니라.ㄷ
3 주가 시온을 위로할 것인즉,
그가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할 것이며,
그의 광야로 에덴 같게

ㄱ10 야곱$_2$이 이사야 50:10의 "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를 누락함 ㄴ1 야곱$_2$이 이사야 51:1의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을 누락함 ㄷ2 야곱$_2$이 이사야 51:2의 "창성하게"를 누락함

또 그의 사막으로 주의 정원 같게 하리니,
기쁨과 즐거움이 그 안에 있고
감사함과 노래하는 소리가 그 안에 있으리라.

4 내 백성이여, 내게 귀 기울여 들으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한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아갈 것이요,
내가 내 공의로 하여금 머물러
백성**을 위한** 빛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5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아갔은즉,
내 **팔**이 백성들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내 팔에 그들이 의지하리라.
6 너희 눈을 하늘로 들며,
그 아래 땅을 바라보라.
이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해어지며,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와 같이 죽을 것임이어니와,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7 내게 귀 기울여 들으라, 의를 아는 너희여,
그 마음에 **내가** 내 율법을 **기록한** 백성이여,ㄱ
너희는 사람들의 질책을 두려워 말며
그들의 비방을 무서워 말라.
8 이는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어 치울 것이요,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임이라.
그러나 나의 의는 영원히 있을 것이요,
나의 구원은 대대로 있으리라.

9 깨소서, 깨소서! 주의 팔이여, 힘을 입으소서,
옛날에 깨신 것처럼 하소서.ㄴ
주는 라합을 베시고
용을 상하게 하신 **그이**가 아니시니이까?
10 주는 바다를 큰 깊음의 물들을 말리시고,
바다의 깊은 곳을 길로 만드사,
속함을 받은 자들로
건너게ㄷ 하신 **그이가** 아니시니이까?
11 그러므로 주께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 것이요,
영원한 기쁨과 **거룩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ㄱ7 예레미야 31:33 비교 ㄴ9 야곱$_2$이 이사야 51:9의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를 누락함 ㄷ10 출애굽기 14:21~22

그들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12 **나는 그니, 참으로**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그라.
보라,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13 또 하늘들을 펴고 땅의 기초를 놓은 자,
곧 너를 지은 자, 주를 잊으며
억압자의 분노로 인하여,
마치 그가 멸할 준비를 다 갖추기나
한 것처럼 매일 쉬지 않고 두려워하였느냐?
억압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14 사로잡힌 유배자가 서두르나니
이는 그가 놓이려 함이라.
그가 구덩이에서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15 그러나 나는 주 네 하나님이니,┐
그 물결이 소리치게 한 자라 만군의 주가 **나의** 이름이니라.
16 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음은,
내가 하늘들을 세우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깰지어다, 예루살렘[1]이여

이사야서 51:17~52:2

17 주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비틀어 짠 떨림의 잔의 찌끼를 다 마셨도다—
18 **또** 그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그를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으며,
그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을 잡는 자도 없도다.
19 이 두 **아들**이 네게로 왔으니
이들이 너로 인하여 민망해 하리라.
곧 **너의**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니,
누구로 내가 너를 위로하랴?

┐15 야곱[2]이 이사야 51:15의 "바다를 휘저어서"를 누락함

20 이 **둘 외에** 네 아들들은 기진하였도다.
그들이 온 거리의 머리에 있으리니,
그물에 든 들소같이 그들에게 주의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21 그러므로 너 고난을 당하**고** 취하되 포도주로 말미암지 않고도
취한 자여, 이제 이를 들으라.
22 이같이 너의 주께서 이르시며
주 곧 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위해 변호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떨림의 잔을,
나의 분노의 잔의 찌끼를 네 손에서 취하였나니,
네가 다시는 더 이상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23 그러나 내가 그것을 너를 괴롭히는 자들의 손에 두리니,
그들은 네 영혼더러 이르기를,
"굽히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이에 네가 넘어가는 그들에게 네 몸을 뉘어
땅 같게 그리고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24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들이
더 이상 네게로 들어오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25 티끌에서 스스로를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시온의 딸이여,
네 목의 줄에서 스스로를 풀지어다.ㄱ

야곱$_2$이 부활과 심판에 대해 설명하다ㄴ

9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을 읽었음은, 너희로 하여금 주께서 이스라엘의 온 집과 맺으신 바 주의 성약에 관하여 알게 하려 함이라. 2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바니, 곧 태초부터 내려와 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와 무리에게로 회복될 때가 이르기까지, 곧 그들의 본향,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집결되고 그들의 모든 약속의 땅에 확립될 때까지라. 3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손들 위에 내리실 축복으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고 영원토록 너희 머리를 들게 하려 함이니라.

4"이는 너희 곧 너희 많은 이가 장차 이를 일을 알고자 많이 탐구하였음을 내가 앎이라. 그런즉 우리의 육체가 쇠하여지고 죽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리라는 것을 너희가 아는 줄 내가 아노라. 5참으로 그가 친히 우리가 떠나 온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리라는

ㄱ25 예수께서 이 이사야 52:1~2을 제3니파이 20:36~37에서 다시 인용하실 것임 ㄴ1 이 장의 구성을 살펴보면 주님을 찬양하는 여섯 가지 표현이 "오"로 시작되다가(8~24절) 그 다음에 나오는 열 가지 화(27~38절)에서도 이어지며 여섯 가지 기억을 당부하는 권면에서도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로 시작됨(39~52절; 비록 마지막 경우에는 "오"가 빠져 있음)

것을 너희가 아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는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필요함이니, 이는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만인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려, 육체로 자신을 사람에게 붙이사 복종하시고 만인을 위하여 죽으심이 마땅함이라.

6"이는 죽음이 만인에게 임한지라, 위대하신 창조주의 자비로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타락의 연고로 부활이 사람에게 반드시 와야 함이라. 또 타락은 범법의 연고로 왔으니, 사람이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졌느니라. 7그런즉 반드시 무한한 속죄라야만 하리니, 무한한 속죄가 아니고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지 못할 것이라. 그런즉 사람들에게 임한 첫째 심판이 그대로 끝없이 계속되었어야만 하리라. 또 만일 그렇다고 하면 이 육체는 필연코 누워 썩고 부서져 그 어미 땅으로 돌아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으리라.

8"오 하나님의 지혜 그의 자비와 은혜여! 이는 보라, 만일 육체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진대,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타락하여 악마가 된 저 천사에게 복종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임이라. 9또 우리의 영은 필연 그와 같이 되었으리니, 우리는 악마가 되며 악마에게 속한 사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거짓의 아비와 함께 머물며 그 자신처럼 비참 가운데 있게 되리라.[ㄱ] 참으로 우리의 첫째 부모를 속인 존재에게니, 그는 스스로를 빛의 천사에 가깝게 변형시켜, 사람의 자녀들을 선동하여, 살인 비밀 결사를 만들게 하고, 온갖 종류의 은밀한 어둠의 일을 행하게 하는도다.

10"오 이 무서운 괴물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을 마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냐. 진정 저 괴물은 사망이요 지옥이니, 이를 내가 육신의 사망이요 또한 영의 사망이라 일컫는도다. 11이에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구제의 방편으로 인하여 내가 말한 바, 현세적 사망인 이 사망이 그 죽은 자를 내놓으리니, 이 사망은 곧 무덤이니라. 12또 내가 말한 바 영적 사망인 이 사망이 그 죽은 자를 내놓으리니, 이 영적 사망은 곧 지옥이니라. 그런즉 사망과 지옥이 그 죽은 자를 반드시 내놓으리니, 지옥이 그 사로잡은 영을 반드시 내놓겠고, 무덤이 그 사로잡은 육신을 반드시 내놓으리라. 그리하여 사람들의 육신과 영은 서로에게로 회복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부활의 능력으로 의한 것이니라.

13"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낙원이 의인들의 영을 반드시 내놓겠고, 무덤이 의인들의 몸을 반드시 내놓을 것임이라. 그리하여 영과 육신이 그 자체로 다시 회복되어, 만인은 썩지 않을 것과 불멸의 것이 되나니, 그들은 산 영혼이라, 육체로 있는 우리와 같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느니라. 다만 우리의 지식은 장차 완전해질 것이니라. 14그런즉 우리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벌거벗음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될 것이요, 의인들은 순결함으로 참으로 의의 겉옷으로 옷 입고, 그들의 기쁨과 그들의 의로움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리라.

15"또 이렇게 되리니 모든 사람이 이 첫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때, 그리하여 그들이 불멸의 것이 되었을 때, 그들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하느니라. 그런 후에 심판이 임하나니,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따라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16또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고, 또 이는 그의 영원한 말씀이라 사라질 수 없나니, 주께서 살아 계심같이 분명히 의로운 자들은 그대로 의로울 것이요,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러우리라. 그런즉 더러운 자들은

[ㄱ]9 니파이후서 2:17~18 참조

악마요 그의 사자들이라. 그들이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리니, 그들의 고통은 그 불꽃이 세세 영원토록 올라가며, 끝이 없는 불과 유황의 못과 같으니라."

공의, 자비 그리고 율법

17"오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공의로우심이여! 이는 그가 그의 모든 말씀을 시행하심이며, 그 말씀이 그의 입에서 나아갔고, 그의 율법이 반드시 이루어지겠음이라. 18그러나 보라, 의로운 자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성도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믿는 자들, 세상의 십자가를 견디고 그 수치를 경멸히 여기는 자들, 그들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하리니, 그들의 기쁨이 영원토록 충만하리라.

19"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비의 큼이여! 이는 그가 그의 성도들을 저 끔찍한 괴물 악마와 죽음과 지옥과 끝없는 고통인 저 불과 유황의 못에서 건지심이라.

20"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크냐! 이는 그가 모든 것을 아시며, 그가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음이라. 21또 그는 만일 사람들이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한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시느니라. 이는 보라, 그가 만인의 고통, 참으로 아담의 가족에 속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두, 곧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의 고통을 겪으심이라. 22또 그가 이를 겪으심은 부활이 만인에게 임하게 하사, 모두가 큰 심판의 날에 그의 앞에 서게 하려 하심이라. 23또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사,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갖고 회개하여 그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 하시느니라. 24또 만일 그들이 회개하여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끝까지 견디려 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

25"그런즉 그는 율법을 주셨나니, 주어진 율법이 없는 곳에는 형벌이 없으며, 형벌이 없는 곳에는 정죄가 없으며, 정죄가 없는 곳에는 속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자비가 그들을 요구할 수 있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권능으로 구제 받음이라. 26이는 속죄가 율법이 주어지지 아니한 모든 자에게 그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켜, 그들이 저 끔찍한 괴물, 사망과 지옥과 악마와 끝없는 고통인 불과 유황의 못으로부터 구제 받으며, 그들에게 호흡을 주신 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로 회복됨이니라."

10가지 화

27"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고, 참으로 우리처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를 범하며 자기의 시험의 날들을 허비하는 자에게는 화 있나니, 이는 그의 처지가 참담함이라. 28오 악한 자의 저 간교한 계획이여! 오 사람들의 헛됨과 나약함과 어리석음이여! 그들이 학식을 얻으매 자신이 현명하다 생각하며,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아는 듯 여겨 하나님의 권고를 옆으로 제쳐놓음이라. 그런즉 그들의 지혜는 어리석음이요, 그것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나니 그들이 멸망하리라. 29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권고에 귀 기울일진대, 학식을 얻음은 좋

으니라.

30 그러나 세상의 것에 대하여
부유한 부자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부유하므로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온유한 자를 핍박하며,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재물에 있음이라.
그런즉 그들의 재물이 그들의 신이라.
보라, 그들의 재물이 또한 그들과 함께 멸망하리로다.
31 또 듣지 않으려는 귀먹은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멸망할 것임이라.
32 보지 않으려는 맹인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 역시 멸망할 것임이라.
33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자기의 죄악에 대한 지식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칠 것임이니라.
34 거짓말하는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가 지옥에 던지울 것임이라.
35 고의로 죽이는 살인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가 죽을 것임이라.
36 음행을 범하는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지옥에 던지울 것임이라.
37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모든 악마 중의 악마가 그들을 기뻐함이라.
38 그리고 요컨대 자기의 죄 가운데 죽는 모든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의 얼굴을 보나,
자기 죄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임이니라."

야곱$_2$이 기억하도록 그의 백성들을 권면하다

39"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스려 범법함이 무서움을 기억하고, 또한 저 교활한 자의 꾐에 굴복함이 무서움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는 바가 육신에 속한즉 사망이요, 생각하는 바가 영에 속한즉 영원한 생이니라.

40"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크심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심한 말을 하였다 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 말한다면 너희가 진리를 거스려 욕하게 됨이니, 이는 내가 너희를 지으신 이의 말씀을 고하였음이니라. 진리의 말씀이 모든 부정함에 대해서는 심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며 흔들리지 아니함이니라.

41"오 그럴진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룩하신 자 곧 주께로 나아오라. 그의 길이 의로움을 기억하라. 보라, 사람을 위한 길은 좁으나 그 앞에 똑바른 길로 놓였으며, 그 문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시니라. 그가 아무 종도 거기 두지 아니하시며 그 문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 다른 길이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므로 그가 속임을 받을 수 없음이니라. 42또 누구든지 두드리는 그에게

는 그가 열어 주실 것이로되, 지혜로운 자와 학식 있는 자와 부한 자들로서,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부로 인하여 부풀어 오른 자들—참으로 그들은 그가 경멸히 여기시는 자들이라.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로 여겨 지극히 겸손하여지지 아니할진대, 그는 그들에게 열어 주지 아니하시리라. 43 도리어 지혜로운 자와 분별 있는 자들의 것이 그들에게서 영원토록 감추어지리니—곧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행복이라.

44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말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내 옷을 벗어 너희 앞에 흔드노라.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의 눈으로 나를 보아 주시기를 간구하노라. 그런즉 너희는 만인이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받게 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나의 영혼으로부터 너희의 죄악을 떨쳐 버리는 것을 목격하셨음과 내가 빛나는 모습으로 그의 앞에 서며, 내가 너희의 피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ㄱ

45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의 죄에서 돌이키라. 너희를 단단히 결박하려는 자의 사슬을 떨쳐 버리라. 너희의 구원의 반석이신 저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46 공의가 의인들에게 베풀어질 저 영화로운 날 곧 심판의 날을 위하여, 너희의 영혼을 준비하여 너희가 무서운 공포로 움츠러들지 않게 하며, 너희의 참담한 죄를 완전히 기억하여, 어찌할 수 없이 부르짖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주의 심판이 거룩하고 거룩하시나이다—그러나 나는 나의 죄를 아오니, 내가 주의 율법을 범하였고, 나의 범법은 나의 것이오며, 악마가 나를 얻었으매, 나는 그의 끔찍한 비참의 희생물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지 않게 하라. "

야곱$_2$이 이사야서 55:1~2 인용하고 해석하다

해당 성경구절에 추가되거나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47 "그러나 보라, 나의 형제들아, 이러한 일들이 끔찍한 현실임을 너희에게 일깨움이 필요하냐? 만일 너희 마음이 순결하였더라면 내가 너희 영혼을 써레질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더라면 내가 진리의 명백함을 좇아 너희에게 명백하게 대하겠느냐? 48 보라, 만일 너희가 거룩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거룩함에 대하여 말할 것이나, 너희가 거룩하지 아니하되 나를 교사로 보는지라, 너희에게 죄의 결과를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니라. 49 보라, 나의 영혼은 죄를 혐오하며, 나의 마음은 의를 기뻐하나니, 내가 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50 **나의 형제들아,**
오라, 목마른 자여,
너희는 다 물로 오라.
돈이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으라.
참으로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51 그리하여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위하여
돈을 쓰**지 말**며,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너희 수고를 들이지 말라.
내게 부지런히 귀 기울이며

ㄱ 44 그들을 이끄는 자의 옷에 피처럼 달라붙은 백성들의 죄를 비유하는 모습은 야곱서 1:19; 2:2; 모사이야서 2:28; 몰몬서 9:35; 이더서 12:38에서도 반복됨

내가 이른 말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로 나아와 멸망하지도 아니하며,
썩을 수도 없는 것을 배불리 취하며,
너희 영혼으로 하여금 기름짐을 기뻐하게 하라.

52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낮으로는 쉬지 말고 그에게 기도하고, 밤으로는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라. 53 또 주의 성약이 얼마나 크며, 사람의 자녀들에게 대한 그의 낮추어 오심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라. 또 그의 크심과 그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손들이 육신으로 온전히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그들을 보전하실 것이며, 장래 세대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집에 한 의로운 가지가 될 것을 약속하셨느니라.

54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더 말하기를 원하나, 내일 내가 내 말의 나머지를 너희에게 공표하리라. 아멘."

둘째날: 야곱$_2$이 그의 설교를 끝내다

니파이후서 10장

야곱$_2$이 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다

10 "그러면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야곱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라, 이는 내가 말한 이 의로운 가지에 관한 것이라. 2 이는 보라, 우리가 얻은 약속들은 우리의 육체에 관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임이라. 그런즉 나에게 보이신 바로는, 우리의 자손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육체로 멸망할 것이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많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요, 우리의 자손들은 회복되어 그들의 구속주에 대한 참된 지식을 그들에게 주기까지 이르게 되리라.

3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그리스도가—이는 간밤에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되리라고 하였음이라 —유대인 가운데 세상의 보다 간악한 편인 자들 가운데 오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니,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이는 그같이 하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어 불가피함이며, 또한 그들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민족이 땅 위에 달리 없음이니라. 4 이는 다른 민족들 가운데 큰 기적이 행하여지면, 그들이 회개하여 그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겠음이라. 5 그러나 사제술과 죄악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은 그를 대하여 자기들의 목을 뻣뻣하게 하리니, 이러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리라. 6 그리하여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기근과 역병과 유혈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멸망당하지 아니할 자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지리라.

7 "'그러나 보라,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나 곧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날이 이르면, 그러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성약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지상에서 육체로 회복될 것이라 하였느니라. 8 또 이같이 되리니 그들은 그들의 오랜 분산에서, 바다의 섬들에서, 땅의 사방에서 모여들 것이요,'

"'이방의 나라들은 내 눈에 크게 되어 그들을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데리고** 나아올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9 참으로 **이방의 왕들은 그들에게 양부가 될**

것이요, 그들의 왕후는 양모가 될 것인즉ㄱ 이방인들에게 대한 주의 약속이 크도다. 이는 그가 이것을 말씀하셨음이니 누가 논박할 수 있느냐?"

이방인과 약속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10" '그러나 보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나니 '네 기업의 땅이 될 것이요, 이방인들이 이 땅 위에서 복을 받으리라. 11또 이 땅은 이방인들에게 자유의 땅이 될 것이며, 이 땅 위에는 이방인들을 다스리려 일어나는 왕이 없으리라. 12또 내가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하여 이 땅을 견고하게 하리니,' 13'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는ㄴ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4'대저 나를 거스려 왕을 일으키는 자는 멸망하리니, 이는 나 주 하늘의 왕이 그들의 왕이 되겠고, 내 말을 듣는 자들에게 영원토록 빛이 될 것임이니라.'

15" '그런즉 이를 위하여 곧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은 바, 그들이 육체로 있는 동안 내가 그들에게 행하겠다 한 나의 성약이 이루어지도록, 나는 은밀한 어둠의 일과 살인의 일과 가증한 일들을 반드시 멸해야만 하리라. 16그런즉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멸망하리니, 이는 그들이 온 땅의 창녀인 자들임이라. 이는 나를 위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7'이는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은 바, 그들이 육체로 있는 동안 내가 그들에게 행하겠다고 한 나의 약속을 이룰 것임이니라'—

18"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방인들의 손으로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에게 아버지같이 될 것이라. 그런즉 이방인들이 복을 받아 이스라엘의 집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으리라, 19그런즉 내가 이 땅을 네 자손과 네 자손 가운데 헤아림을 받을 자들을 위하여 영원토록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성별하리니, 이는 이 땅이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임이라, '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느니라. '그런즉 그 위에 거하는 모든 자들로 나를 경배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야곱$_2$의 확언: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내셨음이라

20"그러면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그토록 큰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의 고개를 늘어뜨리지 말자. 이는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기업의 땅에서 쫓겨났으나,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땅으로 인도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바다로 우리의 길을 삼으셨고, 우리가 바다의 한 섬 위에 있음이라. 21그러나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주의 약속이 크도다.ㄷ '섬들'이라 말하고 있은즉 이것 말고 더 있음에 틀림없나니, 그 곳에도 역시 우리의 형제들이 살고 있느니라. 22이는 보라, 주 하나님께서 그 뜻과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ㄱ9 굵은체로 표시된 말은 여기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49:22~23을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 구절들은 전에 니파이$_1$가 니파이전서 21:22~23에서 인용하고 야곱$_2$이 니파이후서 6:6에서 인용했음. 니파이전서 22:6, 니파이후서 6:13, 15, 니파이후서 10:9 세 구절에 굵은체로 표시된 표현들을 비교해 보면 각각의 표현들로 결국 이사야서 49:22~23의 대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ㄴ13 이사야 29:8; 니파이전서 22:14, 19; 니파이후서 6:12~13; 27:3 비교 ㄷ21 이사야 11:11; 24:15; 41:5; 42:4, 10, 12; 49:1; 51:5; 59:18; 60:9; 66:19

이스라엘의 집으로부터 시시로 인도해 내셨음이라. 또 이제 보라, 주께서는 꺾어져 나간 자들을 모두 기억하시나니, 그런즉 그가 우리 역시 기억하시느니라.

23 "그러므로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고, 너희는 자유로워 너희 스스로 행할 수 있음을—영원한 죽음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라. ㄱ 24 그러한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화합되게 하고, 악마와 육체의 뜻에 화합되게 말라. 또 너희가 하나님께 화합하게 된 후에는,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인 줄을 기억하라. 25 그런즉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또한 속죄의 능력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일으키사 너희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영접되게 하시고, 너희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은혜를 통하여, 그를 찬양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증인

11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때에 나의 백성에게 많은 것을 더 이야기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단지 이러한 것만 기록되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기록한 것으로 내게는 족함이라. 2 그리고 이제 나 니파이는 이사야의 말을 더 기록하노니, 이는 내 영혼이 그의 말을 기뻐함이라. 이는 내가 그의 말을 나의 백성에게 비유할 것임이요, 내가 그것을 나의 모든 자손들에게 보낼 것임이니, 이는 내가 나의 구속주를 본 것같이 그가 진실로 나의 구속주를 보았음이니라. 3 또 내가 그를 본 것같이 나의 동생 야곱 역시 그를 보았느니라. 그런즉 내가 그들의 말을 나의 자손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나의 말의 참됨을 증명하리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세 사람의 말로써 내가 내 말을 확립하리라" ㄴ 하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많은 증인을 보내시나니, 그는 그의 모든 말씀을 입증하시는도다.

4 보라 내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의 참됨을 내 백성에게 증명하기를 기뻐하나니, 이는 이 목적으로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음이요,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모든 것은 그에 대한 예표이니라. 5 또한 내 영혼은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맺으신 바 곧 주의 성약을 기뻐하나니, 참으로 나의 영혼은 사망에서 건지시는 크고도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그의 은혜를, 또 그의 공의와 권능과 자비를 기뻐하느니라. 6 또 내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고는 만인이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나의 백성에게 증명하기를 기뻐하느니라. 7 이는 만일 그리스도가 없다 할진대 하나님이 없다 할 것이요, 또 하나님이 없다 할진대 우리가 있지 아니할 것임이니, 이는 아무 창조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임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그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자기의 때가 차면 오시느니라.

8 그리고 이제 내가 이사야의 말의 얼마를 기록하노니, 나의 백성 중 누구든지 이 말을 볼 자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들어올리고 만인을 위해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것이 그 말씀이니, 너희가 이를 너희에게와 만인에게 비유함이 가하니라.

ㄱ 23 신명기 30:19 참조; 야곱$_2$이 니파이후서 2:26~29에 나오는 리하이$_1$의 상술과 예레미야 21:8에 나오는 암시 내용 표현에 영향을 받음 ㄴ 3 신명기 19:15; 마태복음 18:16; 고린도후서 13:1

니파이[1]가 이사야서 2~14장 인용하다

니파이후서 12~24장

주님의 집의 산

이사야서 2:1~4

해당 성경구절에 추가되거나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12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 또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이루리니
그때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질 것이며
모든 나라가 그리로 흘러 갈 것이라.
3 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가 그의 길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시온에서 율법이 나아 갈 것이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임이니라.
4 또 그가 열방 가운데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날

이사야서 2:5~22

5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빛 가운데 행하자.
참으로 오라. 이는 너희가 모두 그릇 갔으며,
모두가 각각 자기의 악한 길로 갔음이니라.[ㄱ]
6 그러므로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집을 버리셨나니,
이는 그들이 동방에서 채워지며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의 **말을 들으며,**
외인의 자녀들 가운데서 기뻐함이니이다.
7 그들의 땅에는 또한 은과 금이 가득하고

[ㄱ]5 이사야 53:6 비교

그들의 보화 또한 끝이 없으며,
그들의 땅에는 또한 말이 가득하고
그들의 병거 또한 끝이 없느니라.
8 그들의 땅에는 또한 우상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자기의 손가락이 만든 바
자기의 손이 지은 것을 경배하니라.
9 또 천한 자도 절하지 **아니하고**
큰 자도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오니**,
그러므로 **그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10 **너희 간악한 자들아**,
바위 속으로 들어가며 흙먼지에 숨으라,
이는 주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영광이 **너를 칠 것임이니라**.
11 **또 이렇게 되리니 그 날에**
사람의 교만한 눈길이 낮아지고,
사람들의 거만함이 굴복되고
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 이는 만군의 주의 날이
곧 모든 국민에게 참으로 모든 자에게 임함이니,
참으로 교만하고 거만한 자에게와
모든 자고한 자에게
임한즉 그들이 낮아지겠노라.
13 **참으로** 또한 **주의 날이** 레바논의 모든 백향목에 **임하리니**,
이는 그들이 높고 자고함이며
또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에,
14 또 모든 높은 산에,
또 모든 언덕에,
또 자고한 **모든 국민에게**,
또 모든 백성에게,
15 또 모든 높은 망대에,
또 모든 견고한 성벽에,
16 **또 바다의 모든 배에**,
또 다시스의 모든 배에,
또 모든 아름다운 풍경 위에 임하리니,
17 또 그 날에 사람의 교만함은 굴복되며,
사람들의 거만함은 낮아지고,
주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니라.
18 또 우상들을 그가 온전히 없애시리라.

19 또 그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리니,
이는 그가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에

주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의 위엄의 영광이 **그들을 칠 것임이니라**.
20 그 날에 사람이 경배하려고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던 자기의 은 우상들과
자기의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21 바위의 갈라진 틈과 험한 바위 위로 들어가리니,
이는 그가 일어나사 땅을 무섭게 진동시키실 때에
주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의 **위엄의 영광이**[ㄱ]
그들을 칠 것임이니라.
22 너희는 사람 의지하기를 그치라.
그 호흡이 그의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유다의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다

이사야서 3:1~15

13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유다로부터
의지하는 것과 의뢰하는 것을,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의지하는 모든 물을
제하여 버리시나니—
2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3 오십 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변한 연사를 그리하실 것이라.
4 "또 내가 아이들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방백이 되게 하리니, 어린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5 또 백성들이 각기 서로에게,
또 각기 그 이웃에게 학대를 받을 것이요,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히 행할 것이라.

6 그때 사람이 그 아버지의 집의 그 형제를 붙잡고 이르기를,
"너는 의복이 있으니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멸망이 네 손 아래 **들지 않게** 하라" **할 것이면**—
7 그 날에 그가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이는 나의 집**에**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음**이니,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ㄱ]21 이사야 2:21에서는 "광대하심의 영광"으로 나옴

8 이는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유다가 몰락하였음이니,
그들의 **혀**와 그들의 행위가 주를 거스려
그의 영광의 눈을 격노하게 하였음으로 인함이라.

9 그들의 안색이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며,
그들의 죄가 실로 소돔 같음을 선포**하**나니
그들이 그것을 숨길 **수 없**도다.
그들의 **영혼**에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재앙을 보응으로 취하였음이로다!
10 의인들**에게는** 일러 **그들은** 잘**된다** 하라,
이는 그들이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니라.
11 악인들에게는 화 있도다, **이는 그들이 멸망할 것임이니**,
이는 **그들의** 손의 보응이 **그들 위에** 있을 것임이니라!
12 **또** 내 백성으로 말할진대 아이들이 그들의 학대자요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도다.
나의 백성이여, 너를 인도하는 자들이 너로 그르치게 하며,
너의 지나는 길을 망치느니라.

13 주께서 변호하러 일어서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14 주께서 그의 백성의 원로들과
그 방백들을 심판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포도원을 먹어 치웠음이요,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것이 너희 집에 있음이니라.
15 너희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가 나의 백성을 쳐
산산조각이 되게 하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는도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의 딸들을 심판하시다

이사야서 3:16~4:1

16 더욱이 주께서 이르시되,
시온의 딸들이 거만하여
늘인 목과 음란한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그 발로는 짤랑짤랑 소리를 내므로—
17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치사
딱지가 앉게 하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의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실 것이라.

18 그 날에 주께서 화려한 그들의 짤랑거리는 장식물과 ㄱ 망사 모자와 달 같은 둥근
19 장식을, 사슬과 팔찌와 목도리를, 20 끈 달린 모자와 다리의 장식물과 머리띠와 향합
과 귀고리를, 21 반지와 코걸이를, 22 갈아입는 여러 벌의 의복과 망토와 너울과 머리를

ㄱ 18 니파이1가 이사야 3:18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을 누락함

곱슬하게 하는 핀을, [23]거울과 세마포와 두건과 면박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24] 또 이렇게 되리니
향기로운 냄새를 대신하여 악취가,
　　허리띠를 대신하여 찢어진 틈이,
잘 가꾸어진 머리를 대신하여 벗어진 머리가,
　　화려한 옷을 대신하여 굵은 베옷이,
　　태우는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있으리라.
[25] 너의 남자들은 칼에,
　　너의 용사들은 전쟁 중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26] 또 시온의 문들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14 또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의 수치를 제하게 하라 하리라.

새롭게 거듭날 예루살렘[1]

이사야서 4:2~6

[2]그 날에 주의 가지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요,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훌륭하고 아름다울 것이니라. [3]또 이렇게 되리니 시온에 남아 있으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 곧 예루살렘에서 산 자 가운데 기록된 모든 자는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4]곧 주께서 심판의 영과 불사름의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버리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셨을 때라. [5]또 주께서 시온 산의 모든 거처 위에와, 그 집회 위에 낮으로는 구름과 연기를, 밤으로는 타오르는 불의 비췸을 창조하시리니, 이는 시온의 모든 영광 위에 보호가 있을 것임이니라. [6]또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만들고,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리라.

포도원의 노래ㄱ

이사야서 5:1~7

15 **그때**ㄴ 내가 나의 몹시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되, 그의 포도원을 두고 내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몹시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언덕에로다.

ㄱ1 이 비유는 야곱서 5장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 예를들면 아래 2절과 4절의 들열매와 종의 탄식을 야곱서 5:25, 41, 45, 47, 49과 비교 ㄴ1 이사야 5:1에서는 "이제"로 나옴

2 그가 그것에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 돌을 걷어 내고,
그 곳에 가장 뛰어난 포도나무를 심고,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주 틀을 만들었도다.
그가 그것이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그것이 들포도를 맺었도다.

3 ‘이제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4 내가 거기에 행한 것 외에
나의 포도원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
내가 그것이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그것이 들포도를 **맺었음은** 어찜인고.
5 그런즉 이제 기다리라.
내가 나의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치워 버리리니 그것이 먹힐 것이며,
내가 그 담을 **헐리니**
그것이 짓밟힐 것이니라.
6 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것이 가지침이나 일굼을 받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올라올 것이라.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리라.’ ”

7 이는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임이라.
그가 공평을 바라셨더니, 보라, 학대요,
의로움을 바라셨으나, 보라, 부르짖음이었도다.

다가올 환란과 심판

이사야서 5:8~25

8 집에 집을 연하여
자리가 있을 **수** 없을 때까지 하여,[ㄱ]
땅 가운데 홀로 처하려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9 “내 귀에 만군의” 주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할 것이**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주민이 없게 되리라.
10 참으로 열 에이커의 포도원이 한 밧을[ㄴ] 내겠고,
한 호멜의[ㄷ] 씨앗이 한 에바를[ㄹ] 내리라” 하시도다.

[ㄱ] 8 니파이$_1$가 이사야 5:8의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를 누락함 [ㄴ] 10 약 22 리터 [ㄷ] 10 약 160 킬로그램 [ㄹ] 10 약 16 킬로그램

11 아침 일찍 일어나
독주를 좇으며,
밤까지 계속**하여**
포도주로 자기를 태우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12 또 비파와 현금과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가 그들의 연회에 있으나,
그들이 주의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 손의 행사를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13 그러므로 나의 백성이 사로잡혀 간 바 되었으니,
그들에게 지식이 없음으로 인함이며
그들의 귀인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수많은 무리는 갈증으로 말랐느니라.
14 그러므로 지옥이 스스로 크게 하여
그 입을 한량없이 벌렸으니,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수많은 무리와 그들의 화려함과
기뻐하는 자가 내려가서 그리로 들어가리라.
15 또 천한 자는 낮추어질 것이요,
강한 자는 겸손하게 될 것이며,
거만한 자의 눈도 겸손하게 될 것이니라.
16 그러나 만군의 주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움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라.
17 그때에 어린 양들이 그 습성대로 먹을 것이요,
살진 자들의 황폐한 곳을 외인들이 먹으리라.

18 헛된 것으로 줄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밧줄로 함같이 죄를 끄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19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신속함을 내어
그의 일을 서둘러 우리로 그것을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권고로 가까이 이르고 임하게 하여,
우리로 그것을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20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하며,
어둠으로 빛을 대신하고, 빛으로 어둠을 대신하며,
쓴 것으로 단 것을 대신하고, 단 것으로
쓴 것을 대신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21 자기 스스로의 눈에 현명한 자들과
자기 스스로의 보기에 명철한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22 포도주 마시기에 강한 자와,
독주를 혼합하기에 유력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23 그들이 삯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24 그러므로 불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또 불꽃이 겨를 소멸함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음이 되겠고,
그들의 **핀 꽃**은 티끌처럼 올라가리니
그들이 만군의 주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으로 인함이니라.
25 그러므로 주의 노여움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불붙었고,
그는 그들을 대적하여 그 손을 내뻗어 그들을 치신지라,
언덕들은 떨었으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한가운데서 찢기어졌었도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여움이 돌이켜지지 아니하였으되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느니라.ㄱ

임박한 침략

이사야서 5:26~30

26 또 그가 먼 나라들에게 기를 드시고
땅 끝에 있는 그들에게 휘파람을 부시리니,
보라, 그들이 빨리 신속히 올 것이며,
ㄴ 그들 중 아무도 지치거나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27 아무도 졸거나 잠자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가 풀리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신발끈이 끊어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28 그들의 화살은 **날카로울 것이며**,
그들의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들의 말발굽은 부싯돌같이
그들의 차바퀴는 회리바람같이,ㄷ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자같이 여겨질 것이라.
29 그들이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을 것이라.
참으로 그들이 부르짖으며
잡은 것을 움켜쥐고
안전하게 가져가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30 또 그 날에 그들이 바다의 노호함같이
그들에게 대하여 부르짖을 것이요,
만일 **그들이** 땅을 바라보면,
보라, 어둠과 슬픔이라.
그 곳 하늘에 빛이 어두워졌도다.

ㄱ25 손이 뻗어 있는 모습은 앞으로 더 많은 타격을 암시하는 위협적인 몸짓임; 니파이후서 19:12, 17, 21; 20:4에서도 나옴 ㄴ26 27절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면 성경의 절구분과 더 잘 맞았을 것임 ㄷ28 29절이 여기서 시작되었다면 성경의 절구분과 더 잘 맞았을 것임

이사야[1]의 임무

이사야서 6:1~13

16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ㄱ] 내가 또한 주께서 높고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것을 보았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2]그 위로는 **스랍들이**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더라. [3]또 서로 소리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
온 땅이 그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더라.

[4]이에 소리치는 자의 음성에 문기둥이 움직이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그때에 내가 말하되, "**내게** 화 있도다! 이는 내가 망하게 되었음이라.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함으로 인함이니, 이는 내 눈이 만군의 주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6]그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집게로 제단에서 취한 바, 핀 숯 하나를 그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 [7]또 그것을 내 입에 놓으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죄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9] 이에 그가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라—
'너희가 과연 듣거니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과연 보거니와' **그들이 알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10]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로 무디게 하고,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그 눈으로 보고,
그 귀로 듣고,
그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11] 그때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말씀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집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이 온전히 황폐하게 되며,
[12] 그리고 주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 가셨을 때까지니,
이는 이 땅 가운데 큰 저버림이 **있을 것임이니라**.
[13] 그러나 그래도 십분의 일이 **있어**

[ㄱ1] 기원전 742년 아니면 기원전 733년

그들이 돌아올 것이며,
그리고 보리수같이 또 상수리나무같이 먹힐 것이나,
그것들이 그 잎을 떨어뜨릴 때에도
그 본체는 그들 안에 있나니,
그와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본체가 되리라."

아하스 왕에게 삼가며 조용하라 하시다

이사야서 7:1~9

1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웃시야의 아들인 요담의 아들 유다 왕 아하스 때에,[ㄱ] 수리아의 왕 르신과[ㄴ] 르말리야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ㄷ]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것을 대적하여 싸웠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혹이 다윗의 집에 고하여 이르기를, "수리아가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는지라, 그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느니라.

[3]그때에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숩은[ㄹ] 이제 나아가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있는 윗 못 수로 끝에서 아하스를 만나, [4]그리고 그에게 이르기를 '삼가며 조용하라. 이 연기 나는 부지깽이 두 꼬리로 인하여 수리아가 함께 한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의 맹렬한 노여움으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약하게 되지 말라. [5]수리아와 에브라임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너를 대적하여 악한 꾀를 내어 이르기를, [6]"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를 파하고 그 가운데 한 왕을 세우자, **바로** 다브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7]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꾀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도 못하리라.
[8] 이는 수리아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육십오 년 내에
에브라임이 깨어져 백성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9]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야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않을진대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ㄱ1] 유다 왕국의 12대 왕인 아하즈 (기원전 743년경~727년경 아니면 기원전 735년경~715년경) [ㄴ1] 다메섹의 르손이 세운 수리아 왕국의 마지막 왕 (기원전 750~732년) [ㄷ1] 북이스라엘 제18대 왕인 베가(기원전 740-732년경) [ㄹ3] 히브리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임마누엘의 표적

이사야서 7:10~17

10 더욱이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일러 이르시되, 11 "너는 주 네 하나님께 한 가지 표적을 구하라. 그것을 **깊은 데**서든지 아니면 위로 **높은 데**서 구하라."

12 그러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으며 나는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 이에 그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너희는 이제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함이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나의 하나님 역시 괴롭히려 하려느냐?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주시리라—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ㄱ 하리라. 15 버터와 꿀을 그가 먹을 것이요, 그리하여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리니, 16 이는 그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땅이 두 왕에게서 버림을 받을 것임이라. 17 주께서 에브라임이 유다에게서 떠나던 날로부터 이르지 아니한 날들을 네 위에, 그리고 네 백성 위에, 그리고 네 아버지의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이라."

앗수르에 의한 파멸

이사야서 7:18~25

18 또 그 날에 이같이 되리니, 주께서 휘파람 소리로 애굽의 맨 끝에ㄴ 있는 파리와 앗수르 땅에 있는 벌을 부르시리라. 19 이에 그것들이 와서는 그것들 모두가 황폐한 골짜기에, 바위틈에와, 모든 가시나무 위에와 모든 덤불 위에 앉으리라.

20 그 같은 날에 주께서는 세내어 온 삭도를 가지시고, 하수 저편에 있는 자들로 앗수르 왕으로 그 머리와 발의 털을 미시리니, 그것이 수염도 소멸하리라.

21 또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하나와 양 둘을 기를 것이며, 22 또 이렇게 되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그가 버터를 먹을 것이라. 이는 그 땅에 남은 자들이 모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임이니라.

23 또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천 주에 은 천 개 하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ㄷ 찔레와 가시가 나는 곳이 될 것이라. 24 화살과 활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로 오리니,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으로 인함이라. 25 또 곡괭이로 일구어질 모든 산, 그리로는 찔레와 가시의 두려움이 오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소를 보내며 작은 가축이 밟는 곳이 되리라.

ㄱ 14 히브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ㄴ 18 니파이$_1$가 이사야 7:18의 "하수에서"를 누락함 ㄷ 23 약 12 킬로그램의 은

닥쳐올 앗수르 침략을 암시하는 이사야[1]의 아들

이사야서 8:1~18

18 더욱이 주**의 말씀이** 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큰 두루마리를 취하여 그 안에
사람의 붓으로 마헬살랄하스바스에 관하여 기록하라" 하시니라.ㄱ 2이에 내가
나를 위하여 진실한 증인을 취하여 기록하게 하였으니,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라. 3그리고 내가 여선지에게로 갔더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4이는 **보라**, 그 아
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5주께서 다시 또 내게 일러 이르시되,

6 "이 백성이 잔잔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거절하고,
르신과 르말리야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7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세차고 많은 강물 곧 앗수르 왕과
그 모든 영광을 그들 위에 이끌어 올리리니,
그가 그의 모든 수로를 넘어 올라오고
그의 모든 둑을 넘어갈 것이니라.
8 또 그가 유다를 통과할 것이요,
그가 넘치고 넘어갈 것이며,
그가 목에까지 미치리니,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9 너희 백성들아, 서로 연합하라,
너희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리라.
또 먼 나라의 너희는 모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너희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너희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리라.
10 함께 꾀하라, 그것이 허사가 되리라.
말을 해 보아라, 그것이 서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ㄴ

11이는 주께서 강한 손으로 이같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지시하사 이 백성의 길
로 행하지 말도록 하셨음이니 이르시되,

12 "이 백성이 동맹하자 말할 모든 자에게
너희는 동맹하자 말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움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라.
13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하며,

ㄱ1 히브리어 "노략이 빠름, 급속한 약탈" ㄴ10 히브리어 "임마누엘"; 니파이후서 17:14; 18:8 비교

그로 너희의 두려움이 되게 하고,
그로 너희의 무서움이 되게 하라.
14 그리하면 그가 성소가 되실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덫과 올무가 되시리라.
15 그리하여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걸리며,
넘어지며, 부러지며, 덫에 빠지며, 잡힐 것이니라."

16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들 가운데 인봉하라.
17 그리고 나는 야곱의 집으로부터
그 얼굴을 숨기시는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겠노라.

18 보라, 나와 주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표적과 기사가 되나니, 이는 시온 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둠에서 평강의 왕의 빛으로

이사야서 8:19~9:7

19 또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신접한 자들에게와 주절거리며 중얼거리는 마술사에게 구하라 하면"—백성이 죽은 자로**부터 듣고자** 하는 산 자를 위하여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맞게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들 안에 빛이 없는 연고니라. 21 이에 그들이 곤고하고 굶주려서 그것을 통과할 것이며, 또 이렇게 되리니, 그 주릴 때에 그들이 안달하여 그들의 왕과 그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위를 쳐다볼 것이니라. 22 또 그들이 땅을 바라보고, 환난과 흑암과 고뇌의 어둠을 목격하리니, 그들이 흑암으로 쫓겨가리라.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둠은 그의 고통 중에 그러하였던 것 같지는 아니하였으니, 그때 그가 처음에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벼이 괴롭게 하시고, 그 후에 열국의 갈릴리 요단 저편 **홍**해[1] 길 지경을 더욱 혹심히 괴롭게 하셨더라.

2 흑암 중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 위에 빛이 비취었도다.
3 주께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기쁨을 더하게 하셨사온즉—
그들이 추수 때의 즐거움을 따라,
또 사람들이 탈취물을 나누는 때
기뻐함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오니이다.

[1] 여기서 언급된 바다는 홍해가 아닌 갈릴리 해인데, *Red*(홍)은 현존하는 최초 영어 원본에서는 나오기 때문에 니파이ₓ가 오류를 범했을 수도 있거나 놋쇠판에 원래부터 이와 같이 나왔을 수도 있음

4 이는 주께서 그의 짐의 멍에와
그 어깨의 몽둥이 그의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음이니이다.[4]
5 이는 전사의 모든 싸움은
혼란한 소음과 피에 구른 옷으로 행하여지나,
이것은 불사름과 불의 연료로
행하여질 것임이니이다.

6 이는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으니,
정사가 그 어깨 위에 있을 것이며,
그 이름은 경이로운 자라,
모사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끝이 **없**으며,
다윗의 보좌 위에서와 그의 왕국 위에서
그것을 정비하며,
이제로부터 곧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실 것이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노하시다

이사야서 9:8~10:4

8 주께서 야곱**에게 그의** 말씀을 보내시매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 임하였으니
9 또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 것이어늘,
그들이 마음의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이르기를,
10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요,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그것들을 백향목으로 바꾸리라" 하느니라.
11 그러므로 주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함께 연합시키시리라.
12 앞에는 수리아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여움이 돌이켜지지 아니하였으되,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느니라.

[4] 니파이$_1$가 이사야 9:4의 "미디안의 날과 같이"를 누락함

13 이는 이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만군의 주를 찾지도 아니함이라.
14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에서 머리와 꼬리 가지와 갈대를 끊어 버리시**리라**.
15 원로인⌝ 그는 머리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인 그는 꼬리라.
16 이 백성의 인도자들이 그들로 그르치게 하니,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17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기뻐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각기** 모두가 위선자요,
행악자이며, 모든 입이 어리석음을 말함이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여움이 돌이켜지지 아니하였으되,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느니라.

18 대저 사악함은 불같이 태우는 것이라.
그것이 찔레와 가시를 삼킬 것이요,
우거진 **숲**에 붙으리니,
그것들이 연기가 위로 치솟음같이 오르리라.
19 만군의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어두워졌으며,
백성은 불을 지필 땔감과 같으리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20 또 그가 오른편으로 움킬지라도 주릴 것이며,
그가 왼편으로 먹을지라도, 그들이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이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으리니—
21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그리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함께 유다를 대적하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여움이 돌이켜지지 아니하였으되,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느니라.

20 불의한 법령을 공포하며
2 자기가 규정한 가혹함을 기록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궁핍한 자를 **물리쳐** 공평을 얻지 못하게 하며,
내 백성의 가난한 자에게서 권리를 박탈하여,
과부로 그들의 먹이가 되게 하며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도다.
3 너희는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황폐 속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려느냐?
또 너희의 영광을 어디에 두려느냐?
4 내가 함께 하지 아니한즉 그들이 갇힌 자의 아래에 절하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지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여움이 돌이켜지지 아니하였으되,
그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느니라.

⌝15 니파이$_1$가 이사야 9:15의 "존귀한 자"를 누락함

주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쓰인 앗수르

이사야서 10:5~11

5 오 나의 분노의 막대기 앗수르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그들의** 분노라.
6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의 나라를 치게 하되,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려
나의 진노의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며,
그들을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리라.
7 그러하거늘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은 적지 않은 나라를 멸하며
끊어 버리려 **하는 것이라**.

8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모두 다 왕이 아니냐?
9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10 내 손이 우상들의 왕국들을 **세웠고**,
그들의 새긴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그것보다 우세하였나니,
11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들에게 행한 것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들**에게** 행하지 않겠느냐" 함이라.

주께서 앗수르 왕에게 심판을 내리시리라

이사야서 10:12~19

12 그런즉 이렇게 되리라. 주께서 그의 일을 시온 산 위에와 예루살렘 **위에** 다 행하셨을 때, "내가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영광을 벌하리니,"

13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나는 **이 일들을** 행하였나니,⌝
이는 내가 총명함이라.
또 내가 백성의 **경계를 옮겼고**,
그들의 보화를 약탈하였으며,
또 내가 용감한 자같이 주민들을 굴복시켰으며,
14 또 나의 손이 백성들의 재물을 새의 보금자리같이 발견하였고,
사람이 버려진 알을 모음같이 내가 온 세계를 모았으나,
날개를 움직이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함이라.

⌝13 니파이$_1$가 이사야 10:13의 "내 지혜로"를 누락했지만 그 앞에서는 이를 추가했음

15 도끼가 그것을 가지고 찍는 자에게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톱이 그것을 켜는 자를 대하여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마치 막대기가 그것을 치켜드는 자에게
스스로를 휘두르려 하거나,
마치 몽둥이가 나무가 아닌 듯
스스로를 들어올리려 함과 같도다.
16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께서
그의 살진 자들 가운데 여윔을 보내실 것이요,
그의 영광의 아래에 불붙게 하사,
불이 타는 것같이 타게 하실 것이라.
17 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한 자는 불꽃이 되어 **탈 것**인즉,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그의 찔레를 삼킬 것이며,
18 그의 삼림과 그의 기름진 밭의 영광을
영혼과 몸을 아울러 소멸하시리니,
그들이 기를 든 자가 실신할 때같이 되리라.
19 또 그의 삼림의 나무의 나머지가 희소하여,
어린아이라도 능히 기록할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이사야서 10:20~23

20 또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집의 도피한 자
같은 자들이 다시는
더 이상 그들을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주를 진실히 의지하리라.
21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ㄱ]
22 이는 비록 네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임이니,
명하신 소멸이
의로 가득차게 할 것임이니라.
23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실로
온 땅에 정해진 소멸을 행하실 것임이니라.[ㄴ]

[ㄱ]21 "남은 자...돌아오리라": 히브리어 *스알야숩*; 22절에도 나옴. 니파이후서 17:3 참조 [ㄴ]23 니파이$_1$가 이사야 10:23의 "중에"를 누락함

주께서 앗수르군을 멸하시리라

이사야서 10:24~34

24 그러므로 이같이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하는 나의 백성들아
앗수르인을 두려워 말라.
그가 애굽의 방식을 따라 막대기로
너를 치며 너를 대적하여
그의 몽둥이를 들리라.
25 대저 아주 잠깐 동안이면 분노가 그칠 것이요,
나의 노여움은 그들의 멸망 중에 그치리라" 하시도다.

26 또 만군의 주께서 그를 칠 채찍을 흔들어 일으키시되,
오렙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살육하신 것처럼 하실 것이요,[ㄱ]
그의 막대기가 바다 위에 있었던 것같이
그가 애굽의 방식을 따라 그것을 드실 것이라.[ㄴ]
27 또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벗어지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질 것이며,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그 멍에가 부서지리라.

28 그가 아얏에 이르렀고 지나서 미그론으로 갔으며,
믹마스에 그 수레를 멈추었도다.
29 그들이 통로를 넘어 게바에
그 숙소를 잡았으니,
라맛은 두려워하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였도다.
30 갈림의 딸이여,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가련한 아나돗이여,
그것으로 라이사에게 들리게 할지어다.
31 맛메나는 옮기웠고
게빔의 주민은 도망하려고 서로 모이도다.
32 아직은 그 날에 그가 놉에 머물 것이며,
그가 시온 딸의 산
예루살렘의 언덕에 대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ㄷ]

33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께서
무섭게 가지를 자르시리니,
그 장대한 자들이 찍힐 것이요,
거만한 자가 낮아질 것이니라.
34 또 그가 쇠로 빽빽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능한 자에 의하여 무너지리라.

[ㄱ] 26 사사기 7:24~25 [ㄴ] 26 출애굽기 14:16, 26~29 [ㄷ] 32 28~32절에서 아시리아의 군대가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진함

구원으로 얻어질 평화

이사야서 11:1~9

21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어린 가지가 나올 것이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날 것이라.
2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무시리니,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또 주를 경외하는 영이라.
3 또 그로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속히 깨닫게 하시리니,
그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꾸짖지 아니하리라.
4 그러나 의로써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공평으로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으로 책망하실 것이며,
또 그가 그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실 것이며,
또 그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이시리라.
5 또 의는 그 허리의 띠가 되며,
성실은 그 몸의 띠가 되리라.

6 이리가 또한 어린 양과 함께 거할 것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할 것이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
7 또 암소와 곰이 먹을 것이요,
그들의 어린 것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
8 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 뗀 아이가 독사의 굴에 그 손을 댈 것이라.
9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해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임이니라.[ㄱ]

이스라엘의 집합

이사야서 11:10~16

10 또 그 날에 이새의 뿌리가 있어 백성의 기호로 설 것이라. 이를 이방인들이 구하리니 그의 안식이 영화로우리라. 11 또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주께서 두 번째로 그의 손을 다시 펴사, 남아 있을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앗수르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그리고 바드로스에서, 그리고 구스에서, 그리고 엘람에서, 그리고 시날에서, 그리고 하맛에서, 그리고 바다의 섬들에서 도로 찾으실 것이니라.[ㄴ]

[ㄱ] 9 니파이$_1$가 이 이사야 11:4~9을 니파이후서 30:9~15에서 다시 인용할 것임 [ㄴ] 11 이 구절은 니파이후서 6:14; 25:17; 29:1; 야곱서 6:2에서 해석됨

12 또 그가 열방을 위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땅 사방에서 함께 모으시리라.
13 에브라임의 시기가 **또한** 떠나겠고,
유다의 대적들은 끊어질 것이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않겠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14 오히려 그들은 서쪽을 향하여 블레셋 사람의 어깨 위에 날고,
함께 동쪽에 있는 자들을 노략할 것이며,
그들이 에돔과 모압에 그 손을 대리니,
암몬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15 또 주께서 애굽 바다의 혀를
온전히 멸하시리니,
그의 강한 바람을 가지시고
그 손을 강 위에 흔들어
그것을 쳐서 일곱 갈래가 되게 하사,
사람이 마른 신으로 건너가게 하시**리라**.
16 또 남아 있을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대로가 앗수르에서부터 있으리니,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와 올라오던 날,
이스라엘에게 그러하였던 것과 같으리라.

두가지 찬양

이사야서 12:1~6

22 또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여움이 돌이켜졌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할 것이니라.
2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심이라.
그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3 그러므로 기쁨으로 너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4 또 그 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백성 가운데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다 하라.

5 주께 노래하라. 이는 그가 심히 훌륭한 일들을 행하셨음이니,
이것은 온 땅에 알려져 있도다.
6 너 시온의 주민아, 크게 외치며 소리칠지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네 가운데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바벨론을 향한 진노의 예언

이사야서 13:1~22

23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ㄱ

2 너희는 높은 산 위에 기를 올리고,
그들에게 소리를 높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들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3 내가 나의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명하였고
내가 또한 나의 용사들을 불렀나니,
이는 나의 노여움은 나의 높음을 기뻐하는 자들 위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4 산에서 수많은 무리의 떠드는 소리가 남이여,
큰 백성에게로 말미암음 같으니,
여러 민족의 왕국들이 함께 모여
소란스러이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주께서 전쟁의 **군대를** 소집하시도다.
5 그들이 먼 나라에서
하늘 저 끝에서 옴이여,
참으로 주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6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같이 임할 것임이로다.
7 그러므로 모든 손이 약해질 것이요,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8 또 그들이 두려워할 것이요,
고통과 슬픔이 그들을 붙잡을 것이며, ㄴ
그들이 서로 보고 놀랄 것이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으리로다.

9 볼지어다, 주의 날이 임하나니,
진노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잔혹하게 되고,

ㄱ1 이는 곧, 예언 ㄴ8 니파이1가 이사야 13:8의 "해산이 임박한 여자 같이 고통하며"를 누락함; 대안적인 생각으로 올리버 카우드리가 원본을 수기하거나 전사했을 당시 이 문구를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추정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며
그는 그 곳의 죄인들을 거기에서 멸하실 것이라.
10 이는 하늘의 별들과 그 성좌들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해가 그 나아가는 중에 어두워질 것이며,
달이 그 빛을 비치게 아니할 것임이로다.
11 또 내가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며,
악인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할 것이며,
내가 교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하고
무서운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12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더 귀하게 하되,
참으로 사람을 오빌의 금괴보다 더 귀하게 하리로다.
13 그러므로 내가 하늘을 진동시킬 것이요,
만군의 주의 진노 중에와
그가 맹렬히 노하는 날에 땅이
그 자리에서 옮기우리라.

14 이는 마치 쫓긴 노루와 같고
아무도 모으지 아니하는 양 같을 것이라.
그들이 각자 자기 동족에게로 돌이키며
각기 자기 본향으로 도망하리라.
15 **교만한** 자는 모두 꿰찔릴 것이요,
또한 **악인**과 연합한 자는 모두 칼에 쓰러지리라.
16 그들의 자녀 또한 그들의 눈 앞에서 메어침을 입어 산산조각이 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며,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17 보라 내가 은과 금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기뻐하지도 아니할 메대
사람을 격노하게 하여
그들을 치게하리라.
18 그들의 활은 **또한** 청년들을 메어쳐 산산조각이 나게 **할 것이며**,
그들은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눈은**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19 또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빼어난 아름다움인 바벨론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신 때와 같이 되리라.
20 그 곳에 결코 사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 곳에 거할 자가 대대로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겠고,
목자들도 그 곳에 그들의 우리를 짓지 아니할 것이로다.
21 그러나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 누울 것이며,
그들의 가옥에는 음울한 피조물이 가득할 것이며,
올빼미들이 거기 거하고,
들염소들이 거기서 뛸 것이니라.

22 또 섬의 들짐승들이 그들의 황폐한 가옥에서 부르짖고,
용들이 그들의 화려한 궁전에서 부르짖을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연장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을 속히 멸할 것임이니라.
과연 그러하니 이는 내가 내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풀 것이나,
악인은 멸망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사야서 14:1~3

24 주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사,
그들을 그들 자신의 땅에 두시리니,
외인들이 그들과 연합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야곱의 집에 가입할 것이라.
2 또 백성들이 그들을 취하고
참으로 멀리 땅 끝에서부터
그들의 처소로 데려오리니,
그들이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요,
이스라엘의 집은 그 땅을 소유하겠고,
주의 땅은 남종과 여종을 위한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자기를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을 것이며,ㄱ
그들은 자기의 압제자들을 다스리리라.

3 또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주께서 네 슬픔에서와, 네 두려움에서,
그리고 네가 섬기게 되었던 고된 속박에서
안식을 네게 주실 것이라.

주께서 바벨론 왕을 심판하시리라

이사야서 14:4~23

4 **그리고 그 날에 이렇게 되리니**,
네가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속담을 취하여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금빛 찬란하던 도성이 어찌 그리 그쳤는고!
5 주께서 악인의
몽둥이를 통치자들의
홀을 꺾으셨도다.
6 분노하여 백성을 치되 치기를 마지않던 자,
노하여 열국을 다스리던 자가 핍박을 받으나,

ㄱ2 이사야 14:2에서는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로 나옴

아무도 막는 자가 없도다.
7 온 땅이 평안하고 고요하니
그들이 노래를 발하는도다.
8 참으로 전나무가 너를 보고 기뻐하며,
레바논의 백향목도 그리하여 이르기를,
"네가 눕히웠은즉 올라와
우리를 벨 자가 없도다" 하는도다.

9 지옥이 아래에서 너로 인하여 요동하여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되,
그것이 죽은 자들 곧 땅의 모든 두령들을
너를 위해 흔들어 일으키고,
열국의 모든 왕들로
그들의 보좌에서 일어나게 하였도다.
10 그들이 모두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처럼 되었느냐 하리로다.
11 네 영화가 무덤에 내리웠음이여,
네 비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도다**.
벌레가 네 밑에 깔렸음이여
벌레들이 너를 덮도다."

12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어찌 그리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는고,[ㄱ]
열국을 약하게 한 네가
찍히어 땅에 떨어졌는고!
13 이는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내가 구름보다 높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처럼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15 그러나 네가 지옥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내리우리라.

16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너를 곰곰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가 땅을 진동시키고
뭇 왕국을 뒤흔든 그 자이냐?
17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그 곳의 성읍들을 파괴하며,
그의 사로잡힌 자들의 옥을 열지 않던 그 사람이냐" 하리로다.
18 열국의 모든 왕들, **참으로** 그들은

[ㄱ] 12 리하이$_1$가 니파이후서 2:17에서 이 표현을 인용함

모두 **각기**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누웠도다.
19 그러나 너는 네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가지 같고
칼에 찔려 살육당하여
구덩이의 돌로
내려가는 자들의 **남은 자** 같으니,
발 아래 밟히는 주검과 같도다.
20 너는 그들과 함께 장사되지 못하리니,
이는 네가 네 땅을 멸하고 네 백성을 죽인 연고니라.

행악자들의 씨는 결코
명성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21 그들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지도, 땅을 소유하지도,
성읍들로 세상을 채우지도 못하게 하라.

22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바벨론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조카를 끊을 것임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3 "내가 또한 그것으로 해오라기 차지가 되고,
물웅덩이가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또 멸망의 비로 그것을 소제하리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앗수르를 향한 진노의 예언

이사야서 14:24~27

24 만군의 주께서 맹세하고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생각한 대로 되며,
내가 작정한 대로 서리라—
25 곧 내가 앗수르 사람을 내 땅에 **데려와**
내 산 위에서 그를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떠날 것이라.
26 이것이 온 땅 위에 의도된 목적이요,
이것이 모든 나라 위에 뻗어있는 손이라 하셨나니,
27 만군의 주께서 작정하셨은즉
누가 폐하겠느냐?
또 그의 손이 뻗어있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겠느냐?"

블레셋사람들을 향한 진노의 예언

이사야서 14:28~32

28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ㄱ] 이 경고가 있었느니라.[ㄴ]

29 너 온 블레셋이여,
너를 치던 자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겠음이라.
30 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안전한 가운데 누울 것이로되,
내가 기근으로 너의 뿌리를 죽일 것이요,
그는 네 남은 자를 도륙하리라.

31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온 블레셋이 해체되었도다.
이는 한 연기가 북쪽에서 올 것이요,
그의 정한 시간에 아무도 홀로 있지 않을 것임이니라.
32 무엇이 그러면 **열국**의 사신들에게 대답하겠느냐?
"주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의뢰하리라" 함이니라.

야곱$_2$과 이사야$_1$의 말에 대한 니파이$_1$의 해설[ㄷ]

니파이후서 25~30장

니파이$_1$가 이사야$_1$의 말을 설명하다

25 이제 나 니파이는 이사야의 입으로 말한 바 된 것, 곧 내가 기록한 말씀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노라. 이는 보라, 이사야가 나의 백성 중 많은 자들이 깨닫기 힘든 것을 많이 말하였음이니, 이는 유대인 가운데 예언하는 방식을 그들이 알지 못함이니라. 2 이는 나 니파이가 그들에게 유대인의 방식에 관한 것을 많이 가르치지 아니하였음이니, 이는 그들의 일이 어둠의 일이요, 그들의 행위가 가증함의 행위였음이라. 3 그리하여 나는 나의 백성을 위하여, 또 내가 기록하는 이것들을 이후에 받게 될 모든 자를 위하여 기록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곧 그것이 그가 하신 말씀대로 모든 나라에 임함을 알게 하고자 하노라.

4 그런즉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ㄹ] 이는 이사야의 말이 너희에게 명백하지 아니한 연고니라. 그러할지라도 그 말은 예언의 영으로 충만한 자 모두에게는 명백하도다. 그러나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을 따라 너희에게 한 예언을 주노니, 그런즉 나는 내가 나의 부친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오던 때로부터 나와 함께 있어 온 명백함을 좇아 예언하리라. 이는 보라, 나의 영혼이

[ㄱ] 28 기원전 715년 [ㄴ] 28 이는 곧, 예언 [ㄷ] 1 다음 장에서는 니파이$_1$가 야곱$_2$과 이사야$_1$의 예언들과 자신의 예언(특히 니파이전서 11~14)을 엮어 여러 증인들을 통해 그의 말의 진실성을 증명함; 니파이후서 11:2~4 참조; 이사야$_1$에서 나온 표현은 굵은체로 나옴 [ㄹ] 4 이사야 51:4; 니파이후서 8:4에 언급됨

내 백성들을 위하여 명백함을 기뻐함이니, 이는 그들로 배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니라. [5]참으로 또한 나의 영혼은 이사야의 말을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으며, 나의 눈이 유대인의 것을 보았고, 유대인들이 참으로 선지자들의 것을 이해하는 줄을 내가 앎이며, 또 유대인의 것의 방식을 좇아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처럼 이해하는 백성이 달리 없음이라. [6]그러나 보라, 나 니파이는 유대인의 방식을 좇아 나의 자녀들을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나 자신으로는 예루살렘에 거하였나니, 그런즉 나는 그 주변의 지역에 관하여 알고 있으며, 또 나는 이사야가 말한 모든 것을 좇아 유대인들 가운데 이루어진 바, 나의 자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나의 자녀들에게 언급하였으되, 그것을 기록하지 아니하노라.

[7]그러나 보라, 나는 나의 명백함을 좇아 나 스스로의 예언으로 계속하노니, 내가 알거니와 이를 아무도 잘못 알아들을 수 없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 곧 그것이 이루어질 날에 사람들은 확실히 알게 되리라. [8]그런즉 이사야의 말씀은 사람의 자녀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특별히 말하고, 말씀을 나 자신의 백성들에게 국한시키리니, 이는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크게 가치 있을 줄을 내가 앎이라. 이는 그 날에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것임이니, 이러므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이를 기록하였노라.

니파이$_1$가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에 대해 예언하다

[9]또 죄악으로 인하여 유대인 가운데 한 세대가 멸망당한 것같이 대대로 그들이 그들의 죄악에 따라 멸망당하였나니, 그들 중 아무도 주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예고함이 없이는 결코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0]그리하여 나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난 직후 그들에게 임할 멸망에 관하여 그들에게 고한 바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나의 예언대로 그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자들을 제외하고는 멸망당하였느니라.[ㄱ]

[11]그리고 이제 내가 이를 말함은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인함이니, 그들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리라. [12]그러나 보라, 그들에게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참으로 곧 하늘과 땅의 아버지께서 육신으로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그 날이 이르면, 보라, 그들은 자기의 죄악과 그 마음의 완악함과 그 목의 뻣뻣함으로 인하여 그를 저버리리라. [13]보라,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요, 그는 사흘 동안 무덤에 뉘인 후,[ㄴ] 그의 날개를 고치시고[ㄷ]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시리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 그런즉 내 영혼이 그에 관하여 예언하기를 기뻐하는 것은 내가 그의 날을 보았음이요, 내 마음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함이라.

[14]또 보라 이렇게 되리니 메시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사, 그의 백성에게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난 후, 보라, 예루살렘이 다시 멸망당하리니,[ㄹ] 이는 하나님과 그의 교회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15]그리하여 유대인들은 모든 국민 가운데 흩어질 것이요, 또한 바벨론도 멸망당할 것인즉, 유대인들은 다른 국민들에 의하여 흩어지리라. [16]또 그들이 흩어지

[ㄱ]10 이 일은 기원전 586년에 발생되었다; 니파이전서 7:13; 니파이후서 1:4; 6:8 참조 [ㄴ]13 니파이전서 19:10 비교 [ㄷ]13 말라기 4:2 참조; 이 구절의 또 다른 부분이 니파이전서 22:24에서 인용됨 [ㄹ]14 이 일은 서기 70년에 발생되었다

고, 주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로 여러 세대 동안 참으로 곧 대대로 내려가서, 그들이 설득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모든 인류를 위한 무한한 속죄를 믿게 될 때까지 그들을 채찍질하신 후—그리하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고, 또 다른 메시야를 더 이상 고대하지 아니할 그 날이 이르면, 그때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날이 이를 것이니라.

17 또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그 잃은 바 되고 타락된 상태에서 회복하시려 두 번째로 다시 그의 손을 펴시리니,**ㄱ 그런즉 그는 나아가사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ㄴ 18 그리하여 그는 그의 말씀을 그들에게 드러내시리니,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들을 심판할 것은 그 말씀이 그들이 저버린 참된 메시야를 그들에게 확신시킬 목적으로, 또 그들이 메시야가 오기를 더 이상 고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질 것임이라. 이는 사람들을 속일 거짓 메시야 외에는 어떤 메시야도 오지 아니할 것임이니, 이는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야는 오직 하나뿐이요, 그 메시야는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을 그임이라. 19 이는 선지자들의 말에 따를진대, 메시야는 나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육백 년 후에 오시며,ㄷ 선지자들의 말과 또한 하나님의 천사의 말에 따르건대,ㄹ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임이니라.

그리스도와 니파이인의 기록

20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잘못 알아들을 수 없도록 내가 명백히 말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올리셨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사 민족들을 고치게 하시되, 그들이 독뱀에게 물린 후 그가 그들 앞에 들어올린 뱀에 만일 그들이 그 눈길을 던지면 그리하게 하셨으며,ㅁ 또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로 바위를 치게 하시고 물을 나오게 하신 주 하나님께서 사심같이,ㅂ 참으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일들이 참되고 또 주 하나님께서 사심같이, 내가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21 그러한즉 이러한 연유로 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기록하는 이러한 것들이 간직되고 보존되어, 대대로 나의 자손에게 건네어져 내려가리라 하셨나니, 이는 땅이 있는 동안은 그의 자손이 결코 멸망되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ㅅ 22 그런즉 이러한 것들은 땅이 있는 동안은 대대로 갈 것이요,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을 따라 가게 되리니, 이를 소유하게 될 국민들은 이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리라. 23 이는 우리가 우리의 자손과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하여 기록함이니,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앎이라.

ㄱ17 이사야 11:11; 니파이후서 21:11; 29:1에 언급됨 ㄴ17 이사야 29:14; 니파이후서 27:26; 29:1에 언급됨; 니파이전서 22:8 비교 ㄷ19 니파이전서 10:4; 19:8 ㄹ19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1830년판 영어 원글 니파이전서 12:18과 니파이후서 10:3에서는 지금의 "메시아"(Messiah)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로 나옴. 그래서 이 언급의 대상이 비로소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음. "예수"는 히브리어로 "주께서 구원하시다"를 의미하는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형식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자"를 의미하는 "메시야"의 그리스어 번역임 ㅁ20 민수기 21:4~9 ㅂ20 출애굽기 17:1~7; 민수기 20:2~13 ㅅ21 만약에 이 요셉이 니파이$_1$의 남동생이라면 니파이후서 3:3 참조; 애굽의 요셉을 말하는 거라면 니파이후서 3:16 참조

그리스도와 모세의 율법

[24]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굳건함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고대하느니라. [25]이는 이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음이라. 그런즉 율법이 우리에게 죽은 바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을지라도, 계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율법을 지키느니라. [26]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27]그런즉 우리가 율법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로 율법이 죽은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이요, 그들로 율법이 죽은 것임을 앎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생명을 고대하고, 무슨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졌는가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또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후 율법이 마땅히 폐하여져야 할 때, 그들이 그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28]또 이제 보라, 나의 백성들아,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그런즉 너희가 오해할 수 없도록 내가 너희에게 명백히 말하였느니라. 또 내가 한 그 말은 너희를 대하는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 말이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바른 길을 가르치기에 족함이라. 이는 바른 길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부인하지 않는 것임이니, 이는 그를 부인함으로써 너희는 또한 선지자와 율법을 부인하게 됨이니라. [29]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른 길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라. 그런즉 너희는 반드시 그의 앞에 절하며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과 너희 온 영혼을 다하여 그를 예배하여야 하나니, 만일 너희가 이를 행하면 너희는 결코 쫓겨나지 아니하리라. [30]또 그리할 필요가 있는 한, 너희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의례와 율례를 반드시 지켜야 하느니라.

그리스도와 니파이인들

26 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에 너희 나의 자녀들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하실 말씀은 너희가 행할 율법이 되리라. [2]이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세대가 지나갈 것과 내 백성 중에 큰 전쟁과 다툼들이 있을 것을 내가 보았음이니라.ㄱ [3]또 메시야가 오신 후에 그의 탄생에 대하여 또한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표적이 있을 것이요,ㄴ 악인들에게는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멸망할 것임이라. 또 그들이 멸망함은 그들이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쫓아 내고, 그들을 돌로 치고 그들을 죽이는 연고니,ㄷ 그런즉 성도들의 피의 부르짖음이 그들에게 대하여 땅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리라.ㄹ

[4]"그런즉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모두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사르리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그들이 그루터기같이 될 것임이니라."ㅁ [5]"또 선지자들과 성도들을 죽이는 그들은 땅의 깊은 곳이 그들을 삼켜버리리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또 산들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회리바람이 그들을 휩쓸어 가 버릴 것이며, 건물이 그들 위에 무너져 그들을 부수어 산산조각이 나게 하고, 그들을 갈아 가루로 만들 것이라. [6]또 그들은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온갖 형태의 멸망으로

ㄱ2 이 예언들은 앨마서와 힐라맨서에서 실현됨 ㄴ3 제3니파이 1:10~21; 8:5~25 참조; 힐라맨서 14:1~29 비교 ㄷ3 제3니파이 7:14 ㄹ3 제3니파이 9:5~11 ㅁ4 말라기 4:1; 니파이전서 22:15에 언급됨

응징을 받으리니,ㄱ 이는 **주의 분노의 불길이 그들에게 대하여 불붙을 것임이요**,ㄴ 그들은 그루터기같이 될 것이며,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소멸할 것임이니라,"ㄷ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7 오 나의 백성의 살육당한 자들을 잃음으로 인한 내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이여, 이는 나 니파이가 그것을 보았음이니, 그것은 주의 면전에서 나를 거의 소멸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의 길이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느니라." 8 그러나 보라, 선지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표적으로 인하여 굳건함을 지니고,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의인들은 —보라, 그들은 멸망하지 아니할 자들이라. 9 도리어 의의 아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고치시리니,ㄹ 그들은 그와 화목하여 세 세대가 지나고, 넷째 세대의 많은 자들이 의 가운데 지나가기까지 이르리라.ㅁ

10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지나고 나면 신속한 멸망이 나의 백성에게 임하나니, 이는 내 영혼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았음이라. 그런즉 나는 그 일이 이룰 줄을 아노라. 또 그들은 **헛된 것을 위하여 스스로를 파나니**,ㅂ 이는 그들이 그 교만과 그 어리석음에 대한 보응으로 멸망을 거둘 것임이요, 악마에게 굴종하여 빛보다는 어둠의 일을 택하므로, 그로 인해 그들이 반드시 지옥으로 내려갈 것임이니라. 11 이는 주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시지는 아니하실 것임이라. 또 영이 사람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시면 그때 신속한 멸망이 이르나니, 이것이 나의 영혼을 비통하게 하는도다.

그리스도와 이방인들

12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확신시킴에 관하여 내가 말한 것같이,ㅅ 이방인들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어야 하며, 13 또 그가 성신의 권능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되, 참으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하사,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좇아 능한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야 하느니라.

마지막 날의 리하이$_1$의 자손ㅇ

아사야 29:3~5의 해설

14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날에 관하여 예언하노니, 곧 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실 날에 관하여서라. 15 내 자손과 내 형제들의 자손들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고 이방인들에게 매맞고 난 후, 참으로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둘러 진 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산으로 에워싸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요새를 세우신** 후, 그리고 그들이 **티끌에 낮게 내리워서** 참으로 그들이 없어진 후, 그럼에도 의인들의 말은 기록될 것이며 성실한 자의 기도는 들으신 바 될 것이며,

ㄱ6 제3니파이 8:5~18에서 실현됨 ㄴ6 이사야 5:24~25; 니파이후서 15:24~25에 언급됨 ㄷ6 말라기 4:1; 니파이전서 22:15에 언급됨 ㄹ9 니파이후서 25:13 비교: "그의 날개를 고치심" (말라기 4:2 참조) ㅁ9 제4니파이서에서 실현됨 ㅂ10 이사야 52:3 ㅅ12 니파이후서 25:18 ㅇ14 14절~19절의 굵은체는 이사야 29:3~5을 그대로 복사한 것임을 참고; 이사야 29장의 대부분은 니파이후서 26:14~27:35에 순서대로 분산되어 들어감; 니파이가 여기서 쓰는 해설 방식은 새로운 맥락과 상황에 관하여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나중에 유대교 율법학자 랍비들이 전통적으로 경전을 해석하는 방식과 다소 유사한 것으로 성서 구절을 재해석하는 창의적인 방식임; 원문의 구절이 각각의 삽입으로 연속적이고 구절별로 암송된다는 것은 매우 놀랍고 보기 드문 사실임

믿지 않음에 빠져 든 자 모두는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16이는 멸망당할 자들이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ㄱ말할 것이요, 그들의 말하는 것이 티끌에서 나직이 날 것이며, 그들의 음성이 친밀한 영을 가진 자 같을 것임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사 그로 그들에 관하여 속삭이게 하시되, 마치 **땅에서 나는 듯하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말하는 것이 티끌에서 나서 속삭일 것임이니라**.

17이는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심이라. "그들은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기록할 것이요, 그것은 한 권의 책에 기록되어 인봉될 것이로되, 믿지 않음에 빠져 든 자들은 그것을 갖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멸하기를 꾀함이라." 18그런즉 멸망당한 자들이 속히 멸망당하였고, **그들의 무서운 자들의 무리가 불려 가는 겨같이 될 것처럼—참으로**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이루어지리라**." 19또 이렇게 되리니 믿지 않음에 빠져 든 자들은 이방인들의 손에 매맞을 것이니라.

마지막 날의 이방인들

20또 이방인들은 그 눈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졌고**,ㄱ 그들의 걸림돌이 큼으로 인하여 **거쳐 넘어졌나니**,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많은 교회를 세웠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경멸히 여기고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그들 자신의 지혜와 그들 자신의 학식을 전파하니, 이는 이익을 얻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ㄷ **맷돌질하려 함이라**. 21또 시기와 다툼과 원한을 일으키는 교회가 많이 세워져 있느니라.

22또 참으로 옛적에와 같이 비밀 결사들 또한 있나니 곧 악마의 결사를 따른 것이라. 이는 그가 이 모든 것의 창시자임이니, 참으로 살인과 어둠의 일의 창시자라. 또한 그는 아마 줄로 목을 매어 그들을 이끌기를 그의 강한 줄로 그들을 영원히 결박하기까지 하느니라.ㄹ 23이는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 일하시지 아니하심이라.

주께서 권하시고 명하시다

24그는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모든 사람을 그에게로 이끄시려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심이라. 그런즉 그는 아무에게도 그의 구원에 참여하지 말라고 명하지 아니하시느니라. 25보라, 누구에게 그가 소리쳐 이르시기를, "내게서 떠나라 하시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그는 이르시기를, "너희 모든 땅 끝이여, 내게로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젖과** 꿀을 사라 하시느니라."ㅁ

26보라, 누구에게 그가 명하사 회당에서, 혹 경배의 집에서 떠나라 하셨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27누구에게 그가 명하사 그의 구원에 참여하지 말라 하셨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그의 구원을 거저 주셨으며, 그의 백성에게 명하사 모든 사람을 설득하여 회개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28보라, 누구에게 주께서 명하사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지 말라 하셨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모든 사람이 서로 같은 특권을 가졌나니 아무도 금지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ㄱ20 이사야 2:12~14; 니파이후서 12:12~14에 언급됨 ㄴ20 이사야 8:14~15; 니파이후서 18:14~15에 언급됨 ㄷ20 이사야 3:15; 니파이후서 13:15에 언급됨 ㄹ22 이사야 5:18 참조; 니파이후서 15:18에서 언급됨 ㅁ25 이사야 55:1; 니파이후서 9:50에 언급됨

29 그가 명하시기를 사제술이 없을 것이라 하시나니, 이는 보라, 사제술이란 사람들이 가르침을 베풀되, 스스로를 세상을 위한 빛으로 세워 이익과 세상의 칭찬을 얻으려 하는 것임이라. 그러나 그들이 시온의 복리를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30 보라 주께서는 이 일을 금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시어 모든 사람은 자애를 가져야 한다고 하셨으니, 이 자애는 곧 사랑이라. 또 그들에게 자애가 없을진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즉 만일 그들에게 자애가 있을진대 그들은 시온에 있는 일꾼이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 31 그러나 시온에 있는 일꾼은 시온을 위하여 일하리니, 이는 만일 그들이 돈을 위해 일하면 멸망할 것임이라.

32 그리고 또 주 하나님께서 명하사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며,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시기하지 말며, 원한을 갖지 말며, 서로 다투지 말며, 음행을 범하지 말며, 또 이러한 일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는 멸망할 것임이라. ㄱ 33 이는 이 모든 죄악 중 아무것이라도 주께로부터 오지 아니함이니,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선을 행하심이라. 또 그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명백한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는 그들 모두에게 그에게로 나아와 그의 선하심에 참여하도록 권하시며, 또 그는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는 검거나 희거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며, 또 그는 이방을 기억하시나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니라.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는 나라들

니파이가 이사야서 29:6~10 인용하다

해당 성경구절에 추가되거나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27 그러나 보라, 마지막 날에 곧 이방인의 날에—참으로 보라, 이방인의 모든 나라와, 또한 유대인들 곧 이 땅 위에 오게 될 자들과 다른 땅 위에 참으로 곧 지구의 모든 땅 위에 있게 될 자들이, 보라, 그들이 죄악과 온갖 가증함에 취할 것이라—ㄴ

2 **그리하여 그 날이 이를 때**,
그들은 만군의 주에게서 천둥으로,
또 지진으로, 또 크게 요란한 소리**로**,
또 폭풍으로, 또 태풍**으로**,
또 삼키는 화염**으로** 징벌을 받으리라.
3 또ㄷ **시온을**ㄹ 대적하여 싸우고
그를 괴롭게 하는 모든 나라는 밤 환상의 꿈과 같이 될 것이라.
참으로 그들은 주린 자가 꿈을 꾸**는** 것 **같으리니**,
보라, 그가 먹으나 그가 깬즉 그의 영혼이 비어 있고,
곧 목마른 자가 꿈을 꾸는 것 **같으리니**,
보라, 그가 마시나 그가 깬즉 지쳐 있고
그의 영혼에는 갈증이 있는 것같이,
참으로 시온 산을 대적하여

ㄱ32 출애굽기 20:7~17 참조 ㄴ1 이 소개 구절은 이사야 29장에서는 찾을 수 없음 ㄷ3 니파이$_1$가 이사야 29:7의 "무리"를 누락함 ㄹ3 니파이$_1$가 이사야 29:7의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를 누락함

싸우는 모든 국민들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4 **대저 볼지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모두 멈추어 서서 놀라워 **할지어다**.
이는 너희가 크게 부르짖고 울게 될 것임이라.
참으로 너희가 취하나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너희가 비틀걸음을 치나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니라**.
5 이는 **보라**, 주께서 깊은 잠의 영을 너희에게 부으셨음이라.
이는 보라, 너희가 너희 눈을 감았고
너희가 선지자들을 **저버렸으며**, 너희의 통치자들과 선견자들을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가 가리우셨음이니라.

봉해진 책[ㄱ]

아사야 29:11~12의 해설

6 또 이렇게 되리니 주 하나님께서 **한 책의 말씀을** 너희에게 드러내 주실 것인즉, 그것은 잠든 자들의 말일 것이라. 7 또 보라 그 책은 **봉해지리니**, 그 책에는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그 끝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 있으리라.[ㄴ] 8 그러한즉 인봉된 것들로 인하여 봉해진 것들이 백성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의 날에 전해지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 책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아니할 것이라.

9 그러나 그 책이 한 사람에게 전해지리니, 그가 티끌 속에 잠든 자들의 말인 **그** 책의 말씀을 **전할 것이요**, 그는 이 말씀을 다른 자에게 전하리라. 10 그러나 봉해진 말씀은 그가 전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책도 그가 전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책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봉해질 것이며, 봉해진 계시는 그것이 나아오도록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까지 그 책에 보존될 것임이라. 이는 보라, 그것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 종말까지의 모든 것을 밝혀 줄 것임이니라. 11 또 봉해졌던 바 책의 말씀이 지붕 위에서 읽혀질 날이 오나니,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권능에 의해 읽혀질 것이며, 또 이제까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있었고, 장차 지구의 종말까지 있을 모든 일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밝혀질 것이라.

12 그런즉 내가 말한 그 사람에게 책이 전해질 그 날에, 그 책은 세상의 눈으로부터 감추어질 것이라. 그리하여 아무의 눈도 그것을 목격하지 못할 것이로되, 다만 책을 전해 받을 자 외에, 세 증인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그것을 볼 것이며, 그들은 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의 참됨을 증거하리라.[ㄷ] 13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른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보고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의 말씀을 증거 할 자가 달리 아무도 없나니,[ㄹ]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충실한 자의 말이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하듯 말할 것이라 하셨음이니라.[ㅁ] 14 그런즉 주 하나님께서 나아가사 그 책의 말씀을 드러내실 것이며, 그가 보시기에 좋으신 만큼 많은 증인들의 입으로 자기의 말씀을 확증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ㄱ] 6 6–19절의 굵은체는 이사야 29:11~12의 재현임을 참조; 마틴 해리스가 1828년 뉴욕의 찰스 안톤 교수에게 금판에서 필사한 (내용을 알 수 없는) 몇가지 글자를 가져갔을 때 이 부분의 예언이 실현되었음. 조셉 스미스—역사 1:62–65 참조 [ㄴ] 7 이것은 정황상 금판의 인봉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이더서 3:25~28; 4:5~6 참조 [ㄷ] 12 "세 증인의 증언"을 참조 [ㄹ] 13 "여덟 증인의 증언"을 참조 [ㅁ] 13 이사야 29:4; 니파이후서 3:19~21 참조

15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리니 주 하나님께서 그 책을 주실 자에게 이르시기를, "봉해지지 아니한 이 말씀을 취하여 다른 자에게 전하여 그로 그것을 **학자에게 보이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하면 학자가 말하기를, "책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읽겠노라 하리라." 16 그러나 이제 세상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익을 얻고자 그들이 이 말을 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17 이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그 책을 가져 올**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봉해져 있음이라」 하리라."

18 그러면 학자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읽을 수 없다 하리라."

19 그러한즉 이렇게 되리니, 주 하나님께서 다시 **책**과 그 말씀을 **학자가 아닌 자**에게 **전하시면** 학자가 아닌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학자가 아니라 하리로다**."

20 그러고 나면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학자는 그것을 읽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것을 저버렸음이어니와, 나는 나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있나니 그런즉 너는 내가 네게 줄 말씀을 읽을지니라. 21 봉해진 것에는 손대지 말라. 이는 내가 내 스스로 정한 때에 그것들을 드러낼 것임이니, 이는 내가 능히 나 스스로의 일을 행할 수 있음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일 것임이니라. 22 그런즉 내가 네게 명한 그 말씀을 네가 읽고 내가 네게 약속한 증인들을 얻고 나서, 너는 그 책을 다시 인봉하여 내게로 감출지니, 이는 나 스스로의 지혜로 보아서 모든 것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밝힘이 적합하다 여길 때까지, 네가 읽지 아니한 말씀을 내가 보존하기 위함이니라. 23 이는 보라, 나는 하나님이요 또 기적의 하나님이니,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을 두고 동일함과 나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가 아니면 역사하지 아니함을 세상에 보일 것임이니라 하시리라."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니파이가 이사야서 29:13~16 인용하다

해당 성경구절에 추가되거나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24 그리고 또 이렇게 되리니,
그 곧 자기에게 전해질 말씀을 읽을 자에게 주께서 이르시기를,ㄱ

25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하며,
그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옮겨 갔으며,
나를 향한 그들의 경외는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인즉—ㄴ
26 그러므로 내가 나아가 이 백성 가운데 한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일 것이라.
이는 그들의 지혜로운 자와 **학식 있는**ㄷ 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리워질 것임이니라.
27 **또** 자기의 꾀를 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행위는 어둠 속에 있고,

ㄱ24 이 소개 구절은 이사야 29장에서는 찾을 수 없음 ㄴ25 첫 번째 시현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조셉 스미스에게 하셨음; 조셉 스미스—역사 1:19 참조 ㄷ26 여기에서 니파이$_1$가 추가한 내용이 이사야$_1$의 예언과 니파이후서 9:28의 야곱$_2$의 말씀을 연결시킴

또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알리요 하며,'
그들이 또한 이르기를, '정녕 네가 사물을 뒤집음은
토기장이의 진흙같이 여김을 받으리라 하거니와,'"

"**보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를 모두 알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지음을 받은 것이 그것을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할 수 있느냐?'
혹 빚어진 것이 그것을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에게 총명이 없다 할 수 있느냐' "?

미래에 대한 희망

니파이가 이사야서 29:17~24 인용하다

해당 성경구절에 추가되거나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28 **그러나 보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레바논이 결실 많은 밭으로 되며,
결실 많은 밭이 삼림같이 여김을 받을 **것을**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이리라.
29 또 그 날에 못 듣는 자가 책의 말씀을 들을 것이며,
어두운 데서와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임이니라.
30 **또** 온유한 자가 또한 늘어날 것이며,
그들의 기쁨이 주께 **있을 것이며**,
사람들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안에서 기뻐하리라.
31 이는 **주께서 사심같이 분명히**
무서운 자가 없어졌고, 조롱하는 자가 소멸되었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을 **그들이 볼 것임이니라**.
32 **또** 한 마디 말로 인하여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위하여 올무를 놓으며,
의인을 무익한 것으로 여겨 옆으로
물리치는 자들 또한 끊어졌음을 **그들이** 보리로다.

33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주께서
야곱의 집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로다.
34 그가 내 손으로 지은 그의 자손들을
그의 가운데서 볼 때에,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35 또한 영으로 그릇하였던 자들도 깨닫게 되며,
원망하였던 자들은 교리를 배우리라.

니파이$_1$가 마지막 날에 본 타락한 교회에 대해 말하다

28 그리고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영이 나를 강권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였나니, 그런즉 나는 그 일들이ㄱ 정녕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아노라. 2또 그 책으로부터 기록될 것들은,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지파의 한 남은 자들인 우리의 자손에게 큰 가치가 있으리라.

3이는 그 날에 이렇게 될 것임이니, 곧 세워지되 주를 위하여 세워지지 아니한 교회들이 있어, 그때에 하나가 다른 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나 곧 내가 주의 것이라**"ㄴ 할 것이며 다른 이들은 이르기를, "나 곧 내가 주의 것이라" 하리니, 교회를 세우되 주를 위하여 세우지 아니한 모든 자들이 이같이 말하리라— 4또 그들이 서로 다툴 것이며, 그들의 제사가 서로 다툴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학식으로 가르치며 말씀하게 하시는 성신을 부인할 것이라.

5또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며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우리의 교훈을 너희는 들으라, 이는 보라, 오늘날 하나님은 없는 연고니 이는 주이시요 구속주이신 이가 그의 일을 다하셨고, 그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셨음이라. 6보라, 너희는 나의 교훈에 귀 기울이라. 설혹 그들이 말하기를 주의 손으로 이루어진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말라. 이는 오늘날 그는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심이라. 그는 그의 일을 마치셨느니라" 하느니라.

7참으로 많은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내일 우리가 죽으니**ㄷ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래도 우리는 잘 되리라" 하리라. 8또한 많은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그는 작은 죄 범하는 것은 의롭다 하시리라. 그러하니 거짓말도 조금하고 어떤 이를 그의 말로 인해 이용하고 네 이웃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지어다. 이에는 아무 해가 없나니 이 모든 것을 행하라. 이는 내일 우리가 죽음이라. 또 만일 우리에게 죄 있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으리라" 하리라. 9참으로 또한 많은 자들이 있어, 이 같은 방식으로 거짓되고 헛되며 어리석은 교리를 가르치고 그 마음이 부풀어올라, **그들의 꾀를 주에게서 깊이 숨기려 하리니, 그들의 행위는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니라**.ㄹ 10이에 성도들의 피가 그들에게 대하여 땅에서부터 부르짖으리라.

11참으로 그들이 모두 길에서 벗어났음이여, 그들은 부패하여졌도다. 12교만으로 인하여 또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리들로 인하여, 그들의 교회는 부패하여졌고, 그들의 교회가 **자고하여졌음이여**,ㅁ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이 부풀어 올랐도다. 13그들은 그들의 훌륭한 성소들로 인하여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하며, 그들은 그들의 훌륭한 의복으로 인하여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하고, 그들은 자기의 교만 중에 부풀어 올랐음으로 인하여 온유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도다. 14그들은 뻣뻣한 목과 치켜든 고개를 가졌나니, 또한 교만과 간악함과 가증함과 음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 **그릇 갔도다**.ㅂ 다만 그리스도를 겸손히 따르는 몇몇이 그렇지 아니하나, 그럼

ㄱ1 이는 곧, 이 말 ㄴ3 이사야 44:5 ㄷ7 이사야 22:13 참조; 전도서 8:15; 누가복음 12:19; 고린도전서 15:32 비교 ㄹ9 이사야 29:15; 니파이후서 27:27에 언급됨 ㅁ12 이사야 2:12~14; 니파이후서 12:12~14에 언급됨 ㅂ14 이사야 53:6 참조; 니파이후서 12:5 비교

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인도되어 많은 경우 실로 잘못을 범하니, 이는 그들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는 연고라**.ㄱ

악마의 왕국ㄴ

15 오 자기 마음의 교만으로 부풀어 오른 현명한 자와 학식 있는 자와 부한 자와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모든 자와 음행을 범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모든 자여, "그들에게 화, 화, 화가 있을지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그들이 지옥으로 밀쳐 내려질 것임이로다!"

16 **의인을 무익한 것으로 여겨 옆으로 물리치며** 선한 것에 대하여 욕하며 말하기를,ㄷ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 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주 하나님께서 땅의 주민들을 속히 징벌하실 날이 임할 것이요, 그들이 죄악으로 무르익는 그 날에 그들이 멸망할 것임이니라. 17 그러나 보라, "만일 땅의 주민들이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을 회개할진대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8 그러나 보라, 온 땅의 창녀인 저 크고 가증한 교회는 반드시 땅에 무너져 내리리니, 그 무너짐이 반드시 크리로다. 19 이는 악마의 왕국이 반드시 흔들릴 것이며, 거기 속한 자들이 반드시 회개하도록 일깨움을 받을 것임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가 그의 영원한 사슬로 그들을 붙잡을 것이요, 그들은 충동을 받아 노하게 되어 멸망할 것임이라. 20 이는 보라, 그 날에 그가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 속에 맹위를 떨쳐, 선한 것에 대하여 노하도록 그들을 충동할 것임이라.

21 또 다른 이들은 그가 달래며, 속여 가서 육신에 속한 안전에 거하게 하리니,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도다,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나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도다" 할 것이라—이같이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그들을 인도하여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

22 또 보라, 다른 이들은 그가 달콤한 말로 속이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지옥은 없다 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결코 악마가 아니니 이는 악마란 없는 것임이라 하나니"—이같이 그가 그들의 귀에 속삭이기를, 그의 끔찍한 사슬로 그들을 움켜쥐기까지 하나니 이에서는 건져냄이 없느니라. 23 참으로 그들은 사망과 지옥으로써 붙잡힌 바 되었나니, 사망과 지옥과 악마와 이로써 붙잡힌 바 된 모든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곳에서 그들을 위해 예비된 처소, 곧 끝없는 고통인 불과 유황의 못으로 들어가야 하느니라.

앞으로 있을 화에 대한 선포ㄹ

24 그러므로 시온에서 안일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25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외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26 참으로 **사람의 교훈**에 귀 기울이며ㅁ
하나님의 권능과 성신의 은사를

ㄱ14 이사야 29:13; 니파이후서 27:25에 언급됨 ㄴ15 이 부분과 다음 부분은(15~32절) 니파이후서 9장에서 야곱$_2$이 사용한 어휘들과 표현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음; "악마가 붙잡을 것/ 괴물의 손아귀", "지혜로운 자, 학식 있는 자, 그리고 부유한 자", "지옥에 던지울 것/ 지옥에 밀쳐 내려질 것", "가치 없는 것", "사망과 지옥과 악마", "그들의 행위에 따라/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 받음", "끝없는 고통인 불과 유황의 못" 그리고 다수의 "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ㄷ16 이사야 29:21; 니파이후서 27:32에 언급됨 ㄹ24 이 일련의 화들은 니파이후서 9:27~38의 야곱$_2$이 말한 화들과 니파이후서 15:8~25의 이사야$_1$가 말한 화들을 반영함 ㅁ26 이사야 29:13; 니파이후서 27:25과 아래 28:31에 언급됨

부인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27 참으로 우리는 받았으니
"우리는 더 필요하지 않다"
말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28 요컨대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떨며,
노하는 모든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보라, 반석 위에
세워진 자는 기쁨으로 이를 받아들이나,
모래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는
그가 쓰러질까 염려하여 떪이니라.
29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나니,
"우리가 넉넉히 가졌은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할 자에게 화 있을진저!

30 이는 보라,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라,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리라.[ㄱ] 내 교훈에 귀 기울이고 내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지혜를 배울 것임이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내가 더 줄 것이며, '우리는 넉넉히 가졌노라' 할 자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조차 빼앗기게 될 것임이니라. 31 '사람을 신뢰하는 자, 곧 육신으로 자기의 팔을 삼는 자,'[ㄴ] 곧 성신의 권능으로 주어지는 교훈이 아닌 **사람들의 교훈**에 귀 기울일 자는 '저주를 받는도다.'"

32 "이방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내가 매일같이 그들에게 내 팔을 펼칠 것임에도 그들이 나를 부인하려 함이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여 내게로 올진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리니, 이는 내 팔이 종일토록 펼쳐져 있음이니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주께서 성경과 추가 경전에 대해 말씀하시다

29 "그러나 보라 많은 자들이 있어—**내가 나아가 그들 가운데 한 기이한 일을 행하여**[ㄷ]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은 나의 성약을 기억하고자 하며, **내가 두 번째로 다시 나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나의 백성들을 회복하려**[ㄹ] 하며, 2 그리고 또한 내가 너 니파이에게와 또한 네 아비에게 맺은 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기억하겠다 한 것과 너희 자손의 말이 내 입에서 나와서 너희의 자손에게로[ㅁ] 나아가리라 한 약속을 기억하려 하며, 내 말이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내 백성에게 기호**가 되기 위하여[ㅂ] **땅 끝까지 울려 나아갈 그 날에**,[ㅅ] 3 또 나의 말이 울려 나아감으로 인하여—많은 이방인들이 이르기를, '하나의 성경! 하나의 성경! 우리에게는 하나의 성경이 있으니 더 이상의 성경이 있을 수 없도다' 하겠노라."

4 그러나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어리석은 자들이여, 그들이 성경을 가지리라마는 이는 나의 옛 성약의 백성 유대인들에게서 나아갈 것이어늘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받는 성경에 대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감사하느냐? 참으로 이방인들이

[ㄱ] 30 이사야 28:10, 13 [ㄴ] 31 예레미야 17:5; 니파이후서 4:34에 언급됨 [ㄷ] 1 이사야 29:14; 니파이후서 25:17; 27:26에 언급됨 [ㄹ] 1 이사야 11:11; 니파이후서 21:11; 25:17에 언급됨 [ㅁ] 2 니파이전서 13:41; 니파이후서 3:21 [ㅂ] 2 이사야 49:22; 니파이전서 21:22과 니파이후서 6:6에 언급됨 [ㅅ] 2 이사야 5:26; 니파이후서 15:26에 언급됨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느라 겪는 유대인들의 괴로움과 수고와 고통과 내게 대한 그들의 부지런함을 기억하느냐? 5너희 이방인들아, 너희는 나의 옛 성약의 백성 유대인들을 기억하였느냐? 아니라, 너희는 그들을 저주하였고, 그들을 미워하였으며, 그들을 회복하려 애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 자신의 머리 위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나 주가 나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였음이니라.

6"'하나의 성경, 우리에게는 하나의 성경이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의 성경이 필요하지 않다' 말할 너 어리석은 자여, 유대인으로 말미암지 않았던들 너희가 성경을 얻었겠느냐? 7너희는 민족이 하나 이상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인 내가 만인을 창조하였음과 내가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자들을 기억한다는 것과 내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다스리며,ㄱ 나의 말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8그러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느냐? 너희는 두 민족의 증거가,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한 민족을 다른 민족과 같이 기억한다는 증거가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한즉 내가 한 민족에게 다른 민족에게와 같은 동일한 말을 하나니, 두 민족이 함께 할 때 두 민족의 증거 또한 함께 하리라. 9또 내가 이를 행함은, 내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함과 내가 나 스스로 기뻐하는 바를 좇아 나의 말을 고한다는 것을 많은 자에게 증명하려 함이라. 그리고 내가 한 마디 말을 하였다 하여 또 다른 말을 할 수 없으리라고 너희는 생각하지 말라. 이는 나의 일이 아직 다 끝나지 아니하였음이요, 사람의 종말의 때까지도 나의 일이 끝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끝나지 아니할 것임이라. 10그런즉 너희는 성경을 가졌다 하여 거기에 나의 말이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며, 내가 더 기록하게 하지 않았으리라고도 생각하지 말라. 11이는 내가 동에와 서에와, 북에와 남에와, **바다의 섬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하여,ㄴ 내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그들로 기록하게 함이니, 이는 기록될 책들로부터 내가 세상을 심판하되, 기록된 것에 의하여 각 사람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임이니라.

12"보라,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할 것이매,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이요, 내가 또한 니파이인들에게 말할 것이매,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이요, 내가 또한 내가 인도해 낸 이스라엘 집의 다른 지파들에게 말할 것이매,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이요, 내가 또한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말할 것이매, 그들이 그것을 기록할 것이라. 13또 이렇게 되리니 장차 유대인들은 니파이인들의 말씀을 갖게 될 것이며, 니파이인들은 유대인들의 말씀을 갖게 될 것이요, 니파이인들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의 말씀을 갖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은 니파이인들과 유대인들의 말씀을 갖게 되리라. 14또 이렇게 되리니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나의 백성들은 그들 소유의 땅으로 본향으로 모이겠고, 나의 말도 역시 하나로 모일 것인즉, 내가 내 말과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내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임과, 내가 아브라함과 성약하기를, 내가 영원토록 그의 자손을 기억하겠다고 하였음을ㄷ 보여 주리로다."

ㄱ7 이사야 24:15 참조; 니파이전서 21:1; 니파이후서 10:20 비교 ㄴ11 이사야 11:11; 니파이후서 21:11에 언급됨 ㄷ14 창세기 17:7

리하이[1]의 자손, 이방인들과 유대인에 대하여

30 또 이제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노니, 이는 나 니파이는 너희가 장래의 이방인들보다 더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도록 버려두지 않고자 함이라. 이는 보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진대, 너희도 다 한가지로 멸망할 것임이라. 또 앞서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는 이방인들이 온전히 멸망당하였다고 생각하지 말라. [2]이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회개할 이방인들은 모두 주의 성약의 백성이며, 회개하지 아니할 유대인들은 모두 버림을 받을 것임이라. 이는 주께서는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 아니면 아무와도 성약하지 아니하심이니라.

[3]또 이제 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관하여 얼마간 더 예언하고자 하노라. 내가 말한 그 책이 나아와,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되고 나서 주께 인봉된 후에 기록된 말씀을 믿게 될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것이라. [4]또 그때 우리 자손의 남은 자들이 우리에 관하여 알게 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나왔는지와 그들이 유대인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 [5]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리니, 이로 인하여 그들은 그들의 조상에 대한 지식과 또한 그들의 조상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회복되리라. [6]또 그때 그들이 기뻐하리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임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어둠의 비늘이 그들의 눈에서 떨어지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 가운데 많은 세대가 지나지 아니하여 그들은 정결하고 기뻐하심을 입는 백성이 되리라.

[7]또 이렇게 되리니 흩어진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것이요, 그리하여 그들이 그 땅 위에 모여들기 시작하리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또한 기뻐하심을 입는 백성이 되리라. [8]또 이렇게 되리니 주 하나님께서 지상에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가운데서 그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

메시아의 시대

니파이가 이사야서 11:4~9 인용하다

해당 성경구절에 추가되거나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9 **이에 주 하나님께서** 의로써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땅의 온유한 자를 위하여 공평으로 책망하실 것이며,
또 그가 그 입의 막대기로 땅을 치실 것이며,
　　또 그 입술의 호흡으로 악인을 죽이시리라.

[10]이는 주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큰 나뉨이 있게 하실 때가 속히 이름이니, 악인들을 그가 멸하실 것이요, 자기 백성은 그가 아끼시리니 참으로 불로써 악인들을 멸하셔야만 한다 할지라도 그리하시리라.

11 또 의는 그 허리의 띠가 되며
　　성실은 그 몸의 띠가 되리라.
12 **또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할 것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할 것이며,

어린아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
13 또 암소와 곰이 먹을 것이요,
그들의 어린 것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라.
14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 뗀 아이가 독사의 굴에 그 손을 댈 것이라.
15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그들이 해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임이니라.ㄱ

16 그런즉 모든 나라의 일이 알려지리니, 참으로 모든 일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알려질 것이라. 17 은밀한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어둠의 일이 빛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으며, 땅 위에서 인봉된 것으로 풀리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18 그런즉 사람의 자녀들에게 밝혀졌던 모든 것이 그 날에 밝혀질 것이며, 사탄이 오랫동안 더 이상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리라.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의 말을 마치노라.

니파이$_1$의 결론: 그리스도의 교리ㄴ

니파이후서 31~33장

꼭 전해야 할 몇 마디

31 이제 나 니파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인 너희에게 하는 바 나의 예언함을 마치노니, 나는 내가 반드시 될 줄로 아는 일들을 몇 가지밖에 기록할 수 없으며, 나의 동생 야곱의 말도 조금밖에는 적을 수 없노라. 2 그러한즉 내가 기록한 것이 내게는 족하나, 다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하여 내가 반드시 말해야 하는 몇 마디 말이 있나니, 그런즉 나는 나의 예언함의 명백함을 좇아 너희에게 명백히 말하리라.

3 이는 내 영혼이 명백함을 기뻐함이니,
이 같은 방법으로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일하심이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는 이해력에 빛을 주심이니,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따라
그들이 이해하도록 말씀하심이니라.

ㄱ15 이 구절은 니파이후서 21:4~9에서도 인용됨 ㄴ1 니파이후서 31장은 시작과 끝 둘 다에서 "그리스도의 교리"라는 문구가 나오며 그것에 대한 정의도 나옴; 이와 같이 내용을 구분짓는 문학장치(inclusio)로 볼 수 있는 비슷한 문단은 제3니파이 11:31~41과 27:13~22에 나옴

침례와 성신

4 그러한즉 나는 주께서 내게 보이신 선지자, 곧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침례를 베풀 저 선지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음을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라. 5 또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가 거룩하심에도,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ㄱ] 물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진대, 오 그러할진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참으로 물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얼마나 더 있겠느냐!

6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고자 하노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물로 침례를 받으심으로 어떻게 모든 의를 이루셨느냐? 7 너희는 그가 거룩하셨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가 거룩하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따라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며,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보이시니라. 8 그리하여 그가 물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신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의 위에 내려오셨느니라.[ㄴ]

9 그리고 또 이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들어가야 할 그 문의 좁음과 그 길의 협착함을 보여 주는 것이니, 그가 그들 앞에 본을 보이심이니라. 10 또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가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려 하지 않고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느냐?

11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셨더라."[ㄷ]

12 그리고 또한 아들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 그에게는 내게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성신을 주시리라. 그런즉 나를 따르며, 너희가 본 바 내가 행하는 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13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알거니와 만일 너희가 아들을 따르되, 마음의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나 거짓을 행함이 없이, 진정한 의도로써 너희의 죄를 회개하며, 너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려 함을 침례로써—참으로 그의 말씀대로, 너희 주 곧 너희 구주를 좇아 물에 들어감으로써 아버지께 증거할진대, 보라, 그리할진대 너희가 성신을 받을 것이라. 참으로 그리할진대 불과 성신의 침례가 임하나니, 그때 너희는 천사의 방언으로 말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 찬양을 외칠 수 있느니라.

끝까지 견디라

14 그러나,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같이 아들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고 기꺼이 나의 계명을 지키려 한다는 것을, 물의 침례로써 아버지께 증거하고, 불과 성신의 침례를 받고, 새 방언으로, 참으로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된 후에, 그리고 난 연후에 나를 부인할진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했던 것이 너희에게 더 나았으리라" 하셨느니라.

15 또 내가 아버지로부터 한 음성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내 사랑하는 자의 말이 참되고 신실하도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16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로써 내가 아노니 사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본을 따르며 끝까지 견디지 아니할진대 구원받을 수 없도다.

ㄱ 5 마태복음 3:15 ㄴ 8 니파이전서 11:27 참조; 마태복음 3:16; 마가복음 1:10; 누가복음 3:22; 요한복음 1:32 비교 ㄷ 11 여기와 15절, 20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음성이 제3니파이 11:7; 16:7~15; 20:20~29; 21:14~29에서 다시 들림

17 그런즉 내가 본 바, 너희 주 곧 너희 구속주께서 행하시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행하라. 이는 이 이유로 그러한 것이 나에게 보여졌음이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이 회개와 물의 침례요,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너희의 죄 사함이 임함이라. 18 또 그때 너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협착하고 좁은 길에 있나니, 참으로 너희는 문으로 들어온 것이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의 계명을 좇아 행하였고,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성신을 받았으니, 이로써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섰으면, 받으리라 하신 바 그가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느니라. ㄱ

19 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 협착하고 좁은 길에 들어선 후에는 내가 묻고자 하노니,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는 너희가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며, 그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임이니라. 20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ㄴ

21 또 이제,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이 길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이제, 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요, 한 하나님이시요 끝이 없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유일하고 참된 교리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32 또 이제,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짐작컨대 너희는 길로 말미암아 들어선 후에 너희가 해야 할 바에 관하여 어느 정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도다. 그러나 보라, 어찌하여 너희는 이 일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느냐? 2 너희가 성신을 받은 후에는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으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ㄷ 또 이제 성신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너희가 어찌 천사의 방언으로 말할 수 있으리요? 3 천사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말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도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하였노니,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

4 그런즉 이제 내가 이 말을 한 후에, 만일 너희가 이를 깨달을 수 없다면,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고 두드리지도 아니하는 때문일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빛 가운데로 인도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기필코 멸망하리로다. 5 이는 보라,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서고 성신을 받으면,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여 줄 것임이라. 6 보라, 이는 그리스도의 교리요, 그가 육체로 너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까지 더 이상의 교리가 주어지지 아니하리라. ㄹ 또 그가 육체로 너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 그가 너희에게 이르시는 것을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ㄱ 18 12절 참조 ㄴ 20 17~20절 (곧고 좁은 길; 힘써 나아감; 그리스도의 말씀)의 형상화는 니파이전서 8:19~22의 리하이$_1$의 꿈을 반영함; 즉, 니파이$_1$는 오랜 지체 끝에 마침내 그의 아버지 리하이$_1$의 꿈에 나오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음 ㄷ 2 니파이후서 31:13~14 ㄹ 6 제3니파이 11~28

기도

7 그리고 이제 나 니파이는 더 말할 수 없노라. 영이 나의 말함을 그치게 하시나니, 나는 홀로 사람들의 믿지 않음과 사악함과 무지와 목의 뻣뻣함으로 인하여 애통해 하게 되었도다. 이는 명백한 중에, 곧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한 가장 명백하게 그들에게 지식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이를 찾으려 하지 아니하며 위대한 지식을 깨달으려 하지 아니함이라.

8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보니 너희가 아직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으매, 이 일에 관하여 내가 말해야만 함이 나를 슬프게 하는도다. 이는 만일 너희가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영에게 귀 기울일진대,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것임이라. 이는 악한 영은 사람에게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가르침이니라. 9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하며, 너희는 먼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주를 위해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행함이 네 영혼의 복리를 위한 것이 되도록, 너의 행함을 너를 위해 성별하시리로다.

니파이$_1$가 그의 기록의 참됨을 단언하다

33 또 이제 나 니파이는 나의 백성 가운데서 가르친 바 된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 없으며, 말하는 것처럼 기록하기에 능하지도 못하나니, 이는 사람이 성신의 권능으로 말할 때에는 성신의 권능이 그것을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전함이라. 2 그러나 보라, 성령에게 대하여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로 자기 안에 있을 곳이 없게 하는 자가 많나니, 그리하여 그들은 기록된 것을 많이 던져 버리며 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느니라.

3 그러나 내가 기록한 바를 나 니파이는 기록하였나니, 나는 이를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며, 특히 나의 백성에게 그러한 것으로 여기노라.

이는 내가 낮으로 그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밤으로는 그들로 인하여 내 눈물이 내 베개를 적심이라.
또 나는 신앙으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나니,
나는 그가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4 또 나는 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성별하실 것을 아노라. 그리고 내가 연약한 가운데 기록한 말들이 그들에게 강하게 되리니, 이는 그것이 선을 행하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조상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려 주며,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그들을 설득하여, 그를 믿고 끝까지, 곧 영생에 이르기까지 견디게 함이라. 5 또 그것은 진리의 명백함을 좇아 죄를 거스려 엄하게 말하나니, 그런즉 악마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닐진대, 아무도 내가 기록한 말씀으로 하여 노하지 아니하리라.

6 나는 명백함을 자랑하며,
나는 진리를 자랑하며,
나는 나의 예수를 자랑하노니,
이는 그가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속하셨음이라.

[7]나는 내 백성을 사랑하며, 주의 심판대에서 흠 없는 영혼을 많이 만나게 되리라는 큰 신앙을 그리스도 안에 갖고 있노라. [8]나는 유대인을 사랑하노라—유대인이라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떠나온 곳의 그들을 내가 뜻하는 까닭이라. [9]나는 또한 이방인을 사랑하노라.

그러나 보라, 이들이 그리스도에게 화합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협착한 길로 행하며, 시험의 날이 끝나기까지 계속하여 그 길에서 행하지 아니할진대, 이들 중 아무도 내가 바랄 수 없느니라.

니파이$_1$의 작별 인사

[10]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고 또한 유대인과 너희 모든 땅 끝이여,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혹 너희가 이 말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는 믿으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을 터이면 이 말을 믿으리니, 이는 이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이를 그가 내게 주셨음이며 이것은 만인에게 그들이 선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침이니라. [11]또 만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면 너희가 판단하라—이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이것이 그의 말씀임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임이요, 너희와 내가 그의 심판대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설 것이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도록 주께로부터 명하심을 받았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임이니라. [12]또 나는 저 큰 마지막 날에, 비록 모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중 많은 자들이 그의 왕국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노라.

[13]그러면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모든 자와 너희 모든 땅 끝이여, 내가 티끌에서부터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큰 날이 이르기까지 잘 있으라. [14]또 너희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유대인들의 말과 또한 나의 말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입에서 나아올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할 자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작별을 고하노니 이는 이 말씀들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정죄할 것임이라. [15]이는 내가 땅에서 인봉하는 것이 심판대에서 너희를 거스려 제출될 것임이니라. 이는 이같이 주께서 내게 명하셨음이니 내가 순종해야만 하리라. 아멘.

야곱서

니파이의 동생

야곱이 그 형제들에게 전파한 말씀. 그가 그리스도의 교리를 뒤엎으려 하는 사람을 설복함. 니파이 백성의 역사에 관한 몇 말씀.

야곱$_2$의 소개

1 이는 보라, 이렇게 되었음이니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오십오 년이 지나갔느니라.[ㄱ] 그리하여 니파이는 나 야곱에게 이러한 것들이 새겨진 작은판에 관하여 한 가지 명령을 주었느니라. [2]또 그가 나 야곱에게 준 명령은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이 판에 기록하되, 니파이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 백성의 역사에 관해서는, 가벼운 정도 이외에는 손대지 말라 하는 것이었느니라. [3]이는 그가 말하기를 그의 백성의 역사는 그의 다른 판에 새겨져야 하며, 내가 이 판을 보전하여 대대로 나의 후손에게 내려 줄 것이니라. [4]또 만일 성스러운 가르침이나, 위대한 계시나, 예언함이 있거든, 그 골자를 이 판에 새기되 그리스도를 위하고 또 우리 백성을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이 언급하라 하였음이라. [5]이는 신앙과 크나큰 염려로 인하여, 우리 백성에 관하여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진실로 우리에게 밝혀졌었음이라.

[6]또한 우리에게는 많은 계시와 많은 예언의 영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올 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알았음이라. [7]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백성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참여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고자 그들 가운데서 부지런히 일하였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혹시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있을 동안 시험의 날에 격노하시게 했을 때처럼, 그가 그 진노 중에 맹세하사 그들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실까 염려하였음이라.[ㄴ] [8]그런즉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를 격노하시게 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며 그의 십자가를 감내하고 세상의 모욕을 견디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그런즉 나 야곱은 나의 형 니파이의 명령을 맡아 이루려 하노라.

[ㄱ]1 기원전 542년 [ㄴ]7 이 말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주님을 시험한 사건을 언급하는 시편 95:8~11에서 따옴; 출애굽기 17:1~7; 민수기 20:2~13 참조

니파이$_1$의 후계자

9이제 니파이가 늙게 되어 자기가 반드시 곧 죽을 것임을 알았던지라, 그리하여 그는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열왕의 다스림을 좇아, 이제 그의 백성을 다스릴 왕과 통치자가 되게 하였더라. 10백성들이 니파이를 심히 사랑하였으니, 그가 그들의 위대한 보호자가 되어, 라반의 검을 휘둘러 그들을 지키고, 그들의 복리를 위해 그의 평생을 일해 왔음이라— 11그리하여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기념으로 간직하려 하였고, 그의 대신에 다스리게 되는 자는 누구나 열왕의 다스림을 좇아, 백성들에 의해 이 대 니파이, 삼 대 니파이 등으로 일컬어졌나니,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름을 가졌든 지를 가리지 않고, 이같이 백성들에 의해 일컬어졌더라. 12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죽으니라.

13이제 레이맨인이 아닌 백성들은 니파이인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니파이인, 야곱인, 요셉인, 조램인, 레이맨인, 레뮤엘인 그리고 이스마엘인으로 일컬어졌느니라.[ㄱ] 14그러나 나 야곱은 이후로 그들을 이러한 명칭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열왕의 다스림을 좇아, 니파이 백성을 멸망시키기를 꾀하는 자들을 레이맨인이라 할 것이요, 니파이에게 우호적인 자들을 니파이인 또는 니파이 백성이라 칭하리라.

야곱$_2$이 성전에서 한 설교의 소개

15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대 왕의 치세하에서, 니파이 백성들은 그 마음이 점차 완악하여지며, 옛적의 다윗과 또한 그의 아들 솔로몬처럼 많은 처와 첩들을 원하는 것과[ㄴ] 같은 사악한 관행에 얼마간 탐닉하기 시작하였느니라.[ㄷ] 16참으로 그뿐 아니라 그들은 또한 많은 금과 은을 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어느 정도 교만 중에 자고하여지기 시작하였느니라.

17그리하여 나 야곱은 먼저 주의 일을 얻어, 성전에서 그들을 가르칠 때 이러한 말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18이는 나 야곱과 나의 아우 요셉이 니파이의 손으로, 이 백성의 제사와 교사로 성별되었음이라.[ㄹ] 19또 우리는 주께 대하여 우리의 직분을 영화롭게 하되, 책임을 맡으며, 만일 우리가 부지런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백성들의 죄가 우리의 머리 위에 돌아오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일함으로써 그들의 피가 우리의 옷에 묻지 않게 하고자 하였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피가 우리의 옷에 묻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흠 없다 함을 얻지 못하리라.

[ㄱ] 13 여기 나오는 일곱 지파들은 제4니파이 1:37~38과 몰몬서 1:8에서도 같은 순서로 언급됨 [ㄴ] 15 사무엘하 5:13; 12:7~10 [ㄷ] 15 열왕기상 11:1~3 [ㄹ] 18 니파이후서 5:26

야곱$_2$이 성전에서 한 설교

야곱서 2~3장

2 니파이가 죽은 후, 니파이의 동생 야곱이 니파이 백성에게 한 말이라.

야곱$_2$이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책망하다

2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야곱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가 지고 있는 바, 진지하게 나의 직분을 영화롭게 해야 할 책임을 좇아, 그리고 나의 옷을 너희의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자, 오늘 성전 안으로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려 하노라. 3 또 내가 지금까지 나의 부름 받은 직분을 부지런히 수행하여 온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거니와, 나는 오늘 이제까지 그랬던 것보다 너희 영혼의 복리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소망과 염려로 짓눌리고 있느니라.

4 "이는 보라,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에게 준 주의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여 왔느니라. 5 그러나 보라,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 내가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자의 도움으로 너희의 생각에 관하여, 어떻게 너희가 죄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하고 있는가를, 너희에게 말해 줄 수 있음을 알지니, 그 죄는 내게 심히 가증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가증하게 보이는 것이니라. 6 참으로 내가 너희 마음의 간악함에 관하여 너희에게 증거해야만 하는 일은 나의 영혼을 슬프게 하며, 나로 하여금 나를 지으신 이의 면전에서 부끄러움으로 움츠러들게 하는도다. 7 또한 내가 너희의 아내들과 너희의 자녀들 앞에서 너희에 관하여 이토록 많은 담대함을 사용하여 말해야만 하는 일은 나를 슬프게 하는도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심히 다감하고 순결하며 섬세하니, 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8 또 생각하건대 그들은 하나님의 기쁜 말씀, 곧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리로 올라왔도다.

9 "그런즉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엄격한 명령으로 말미암아, 불가불 너희의 범죄를 따라 너희를 훈계하여, 이미 상처를 입은 이들의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대신, 그들의 상처를 더 크게 하며, 상처를 입지 아니한 이들은,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즐거워하는 대신, 단검을 맞아 그들의 영혼이 찔림을 받고 그들의 섬세한 마음이 상처를 입게 하여야 함이,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도다. 10 그러나 과제의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엄격하신 명대로 행하여, 마음이 청결한 자들과 상한 마음을 지닌 자들의 면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꿰뚫어 보시는 눈길 아래서, 너희의 간악함과 가증함에 관하여 너희에게 고해야만 하느니라. 11 그러한즉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함을 좇아 진리를 너희에게 말해야만 하느니라. 이는 보라, 내가 주께 여쭈었더니, 이같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너는 내일 성전에 올라 내가 네게 줄 말을 이 백성에게 선포하라' " 하셨음이니라.

야곱$_2$이 부와 교만을 경고하다

12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말이니라. 곧 너희 가운데 많은 자들이 금과 은과 온갖 귀한 금속을 구하기 시작하였나니, 이러한 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인, 이 땅에 극히 풍부하니라.ㄱ 13 또 은총의 손길이 너희 위에 극히 기쁜 미소를 지은지라, 너희가 많은 부를 얻었으되, 너희 중 몇몇이 너희

ㄱ12 야곱서 1:16 참조; 니파이전서 18:25; 니파이후서 5:15 비교

형제들의 것보다 더 풍성하게 얻었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지며, 너희 의복의 값짐으로 인하여 목을 뻣뻣하게 하고 고개를 높이 쳐들며, 너희가 너희 형제들보다 낫다 생각하여 그들을 핍박 하는도다. 14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너희를 의롭다 하시는 줄 생각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그는 너희를 정죄하시나니, 만일 너희가 이러한 일들을 고집하면 그의 심판이 반드시 속히 너희에게 임하리라.

15 오 그가 너희를 꿰뚫을 수 있으시며,
그 눈으로 한 번 쳐다보심으로써
너희를 티끌에 쳐버리실 수 있으심을
너희에게 보이시면 좋겠도다!
16 오 그가 너희를 이 죄악과 가증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면 좋겠도다.
그리고 오 너희가 그의 명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희의 영혼을 멸하지 않게 하면 좋겠도다!

17"너희 형제를 너희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모든 이와 친숙하며, 너희 재물을 후히 나누어 그들로 너희와 같이 부하게 하라. 18그러나 너희가 부를 구하기에 앞서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19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은 후에, 만일 너희가 구하면 부를 얻을지니, 너희는 선을 행하려는—벗은 자를 입히며, 주린 자를 먹이며, 잡힌 자를 놓아 주며, 병든 자와 고난 당하는 자들을 구제하려는 의도로 그것을 구하리라.

20"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교만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였음으로 인하여 너희 이웃을 괴롭게 하며 그를 핍박한 자들아, 너희가 그 일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겠느냐? 21너희는 그러한 일이 모든 육체를 창조하신 이에게 가증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 생명은 그의 보시기에 다른 생명과 똑같이 귀하며, 모든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나니, 그들로 그의 계명을 지켜 영원토록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동일한 목적으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느니라. 22이에 이제 나는 이 교만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치노라. 그리고 내가 더 큰 범죄에 관해 너희에게 말하지 않아도 좋다면, 내 마음은 너희로 인하여 심히 기뻐할 것이라."

야곱$_2$이 일부다처를 정죄하다

23"그러나 너희의 더 큰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압박하는도다. 이는 보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심이라. '이 백성의 죄악이 자라기 시작하여, 그들이 경전을 깨닫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 관하여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음행을 범함에 있어 스스로를 변명하려 함이니라.' 24'보라, 다윗과 솔로몬이 진실로 많은 처와 첩을 두었거니와, 그 일은 내 앞에 가증하였느니라,' 주의 말이니라. 25그런즉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내가 내 팔의 권능으로, 예루살렘 땅에서 이 백성을 인도해 낸 것은, 요셉의 허리의 열매로부터 한 의로운 가지를 나를 위하여 일으키려 함이었느니라.' 26그런즉 나 주 하나님은 이 백성이 옛적의 그들처럼 행할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25 니파이후서 3:5 참조

27 "그런즉 나의 형제들아,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너희 중 아무라도 오직 한 아내를 둘 것이요, 첩은 하나도 두지 말 것임이니, 28 나 주 하나님은 여인의 순결을 기뻐함이라. 그리고 음행은 내 앞에 가증한 일이로다.' 이같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29 '그런즉 이 백성은 내 계명을 지킬지니라,'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연고로 땅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30 '이는 내가 나를 위하여 자손을 일으키려 할진대,'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내가 내 백성에게 명할 것임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러한 것에 귀 기울일지니라.'

31 " '이는 보라, 나 주가 예루살렘 땅에서 참으로 내 백성의 모든 땅에서, 그 남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내 백성의 딸들의 슬픔을 보았고, 그 슬퍼함을 들었음이니라.' 32 '또 내가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낸 이 백성의 고운 딸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내 백성의 남자들을 고발하여 내게로 올라옴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33 '이는 그들이 내 백성의 딸들을 그 마음 고움으로 인하여 사로잡아 이끌어 가지 못할 것임이니, 혹 그리하면 내가 혹심한 저주로 그들을 벌하여, 필경 멸망하게 할 것임이라. 이는 그들이 옛적의 그들처럼, 음행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주의 말이니라.

34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이러한 계명들이 우리 조상 리하이에게 ⌜ 주어졌음을 아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전에 이를 알았느니라. 이에 너희는 큰 정죄를 받기에 이르렀나니, 이는 너희가 마땅히 행하지 말았어야 할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음이니라. 35 보라, 너희는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보다 더 큰 죄악을 행하였도다. 너희는 너희의 마음 고운 아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너희의 자녀들 앞에 보인 너희의 나쁜 본으로 인하여, 너희 자녀들의 신뢰를 잃었나니, 그들의 마음의 흐느낌이 너희를 고발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느니라. 또 너희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격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이 찔려 깊은 상처를 입고 죽었도다."

야곱$_2$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말하다

3 "그러나 보라, 나 야곱은 마음이 청결한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노라.

굳건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터운 신앙으로 그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고난의 때에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요,
너희의 사정을 변호하사,
너희의 멸망을 꾀하는 자들 위에
공의를 내려보내실 것이라.

2 오 너희, 마음이 청결한 모든 자여,
너희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기쁜 말씀을 받으며,
그의 사랑을 흡족히 취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이는 만일 너희의 마음이 굳건하면
영원토록 그리하여도 가할 것임이니라.

3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날 더러운 너희에게는 화, 화가 있도다. 이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땅은 너희의 연고로 저주를 받으며,

⌜34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너희처럼 더럽지 아니한 레이맨인들이,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혹심한 저주로 저주를 받았도다, 너희를 매질하여 필경은 멸할 것임이라.[ㄱ] [4]또 그때가 속히 이르나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 기업의 땅을 차지할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서 의로운 자들을 인도해 가시리라."[ㄴ]

야곱$_2$이 레이맨인들을 본보기로 언급하다

[5]"보라, 너희가 그 더러움과 그 피부에 임한 저주로 인하여 미워하는 너희의 형제, 레이맨인들이 너희보다 더 의로우니라. 이는 그들은 우리 조상에게 주신 주의 계명[ㄷ] — 곧 그들이 오직 한 아내만을 둘 것이요, 첩은 하나도 두지 말 것이며, 그들 중에 음행을 범함이 없을 것이라 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였음이니라. [6]그리고 이제, 이 계명을 그들이 지켜 준행하고 있느니라. 그런즉 이 계명 지키기를 준행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언젠가는 그들이 복 받은 백성이 되리라. [7]보라, 그들의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들의 아내는 그 남편을 사랑하며,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아내는 그 자녀를 사랑하나니, 그들의 믿지 않음과 너희를 향한 그들의 증오심은 그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의 위대하신 창조자의 보시기에, 그들보다 너희가 얼마나 더 나으냐?

[8]"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너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려 나올 때에, 그들의 피부가 너희의 것보다 더 흴 것을 내가 두려워하노라. [9]그런즉 한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곧 너희는 그들의 피부가 어두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그들에게 대하여 욕하지 말지며, 그들의 더러움으로 인하여서도 그들에게 대하여 욕하지 말 것이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더러움을 기억하며, 그들의 더러움은 그들의 조상들로 인하여 왔음을 기억할지니라.[ㄹ] [10]그런즉, 너희는 너희 자녀를 기억하되, 곧 너희가 그들 앞에 보인 본으로 인하여 너희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는가를 기억하며, 또한 너희가 너희의 더러움으로 인하여, 너희 자녀들을 멸망하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죄가 마지막 날에 너희 머리 위에 쌓이게 됨을 기억할지어다. [11]오 나의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영혼의 능력을 일깨우라. 너희 스스로를 떨쳐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고, 스스로를 지옥의 고통에서 풀어 너희가 악마의 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둘째 사망인 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라."

[12]그리고 이제 나 야곱은 니파이 백성에게 많은 것을 더 말해 주며, 음행과 호색과 온갖 죄를 경고하고, 그러한 것의 끔찍한 결말을 그들에게 일렀느니라. [13]또 이제 수효가 많아진, 이 백성의 행한 바를 이 판에는 백분의 일도 기록하지 못하나, 그들의 행한 바 중 많은 것이 또한 그들의 전쟁과 그들의 다툼과 그들의 열왕의 다스림이 더 큰 판에 기록되니라. [14]이 판은 야곱의 판이라 하며, 니파이의 손으로 만들어졌나니,[ㅁ] 이에 나는 이 말 하기를 마치노라.

[ㄱ]3 니파이전서 2:24; 니파이후서 5:25 [ㄴ]4 이 예언은 옴나이서 1:12~13에서 실현됨 [ㄷ]5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나 야곱서 2:27~34 참조 [ㄹ]9 니파이후서 5:21 [ㅁ]14 이는 곧, 야곱$_2$의 저술물은 니파이의 작은 판의 일부임

야곱$_2$이 언젠가 읽을 독자들에게 쓴 말

야곱서 4~6장

금속 판에 글을 새기는 고충과 받게 될 기쁨

4 이제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 야곱이 말씀으로 나의 백성에 대한 봉사의 일을 많이 행하였으되, (우리의 말을 판에 새기기가 어려운 고로, 내 말의 조금 밖에는 내가 기록할 수 없도다) 우리는 우리가 판에 기록하는 것이 반드시 남으리라는 것을 아노라. [2]그러나 판이 아닌 여하한 것에라도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소멸되어 없어져 버리리라. 그러나 우리는 판에 몇 마디 말을 기록할 수 있나니, 이것은 우리에 관한 지식, 곧 그들의 조상들에 관한 약간의 지식을, 우리의 자손들과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줄 것이라— [3]이제 이 일로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과 우리의 자손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를 받아 보고, 슬픔이나 경멸이 아니라 기쁨을 가지고, 그들의 첫 부모에 관하여 배우기를 바라면서, 부지런히 수고하여 이 말씀들을 판에 새기노라.

강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예언에 관한 지식

[4]이는, 바로 이러한 의도로 우리가 이 일들을 기록하였음이니, 곧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았고, 그의 오시기 수백 년 전 우리가 그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졌음을 그들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우리 스스로만 그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이 아니요,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 또한 그러하였도다. [5]보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였으며, 또한 우리도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하노라. 또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노니,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주께로 향하게 함이라. 이 까닭에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어 의로움이 되나니, 마치 아브라함이 광야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일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의 표상이니라.[ㄱ]

[6]이러므로 우리가 선지자들의 기록을 상고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계시와 예언의 영이 있어, 이 모든 증거를 가짐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으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 진실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게 되나니, 바로 그 나무들이나, 산들이나, 바다의 물결이 우리에게 순종하느니라. [7]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이시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것이 그의 은혜와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그의 위대한 낮추어 오심에 의한 것인 줄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8]보라, 주의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그의 비밀의 깊이는 찾지 못할 것일러니, 사람이 그의 모든 길을 찾아냄은 불가능하니라. 또 자기에게 계시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그의 길에 대해 알지 못하나니, 그런즉 형제들아, 하나님의 계시를 경멸히 여기지 말라. [9]이는 보라,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사람이 땅 위에 왔음이니, 이 땅은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창조되었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능하사 말씀하시매 세상이 있었고, 말씀하시매 사람이 창조되었다면, 오 그러하다면 어찌 능히 그의 뜻과 기뻐하시는 대로, 땅이나 그 위에 있는 바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명하실 수 없으랴?

[ㄱ]5 창세기 22:1~18

10그런즉 형제들아, 주께 권고하려 하지 말고, 그의 손에서 권고를 얻기 힘쓰라. 이는 보라,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거니와 주는 지혜와 공의와 크신 자비로써 그가 지으신 모든 것에 권고하심이라. 11그런즉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그와 화목하게 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좇아 부활을 얻고, 그가 육체로 자기를 나타내시기 전에 신앙을 가져 그의 안에 있는 영광의 좋은 소망을 얻은, 그리스도의 첫열매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될 수 있을 것이니라.

예언과 유대인

12또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름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대저 부활과 내세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할진대, 어찌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말하여, 그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지 아니하랴. 13볼지어다, 나의 형제들아, 예언하는 자 그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예언할지니, 이는 영은 진실을 말하며 거짓말하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하며, 사물을 장차 있을 그대로 말하느니라. 그리하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명백히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나 보라, 이러한 일에 우리가 홀로 증인인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께서 옛 선지자들에게도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 14그러나 보라, 유대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던지라, 그들이 명백함을 지닌 말씀을 경멸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였도다. 그런즉 그들이 푯대를 지나쳐 바라봄으로써 눈이 멀게 되었으매, 그들이 눈멀게 됨으로 넘어지지 아니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그의 명백함을 제하시고, 그들이 원했으므로 그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많이 그들에게 내어 주셨음이라. 그들이 이를 원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사, 그들로 걸려 넘어지게 하신 것이니라.

15또 이제 나 야곱은 영에 이끌려 예언하노니, 이는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짐으로써 그들이 그 위에 세워 안전한 기초를 가질 수 있는 돌을 버릴 것임을, 내 안에 있는 영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앎이라. 16그러나 보라, 경전에 의하건대, 이 돌이 유대인들이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크고 마지막이며 유일하고 "견고한 기초가" 될 것이니라.ㄱ 17그러면 이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들이 그 견고한 기초를 "버린 후에", 언젠가 그 위에 세워, "그것으로 그들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할 수 있음이 어찌 가능하냐?"ㄴ 18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밝혀 주리니, 만일 내가 어찌하든지, 너희를 위한 나의 지나친 염려로 인하여 흔들려, 성령 안에 있는 나의 공고함에서 떨어져 실족하지 아니할진대 그리하리로다.

ㄱ16 이사야 28:16 ㄴ17 시편 118:22 참조; 마태복음 21:42; 마가복음 12:10; 누가복음 20:17; 사도행전 4:11 비교

야곱$_2$이 지노스의 감람나무 비유를 인용하다

야곱서 5장

첫번째 포도나무의 부패와 치유

가지를 치시다, 둘레를 파시다, 거름을 주시다

5 보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말한, 선지자 지노스의 말을 읽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2]"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의 선지자인 나의 말을 들으라. [3]이는 보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심이니라. ㄱ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가 너를 사람이 취하여 자기 포도원에 기른, 가꾼 감람나무에 비유하리니, 그것이 자라 점차 고목이 되매, 썩기 시작하였느니라. [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주인이 나아가서, 그의 감람나무가 썩기 시작함을 보고 이르되, "내가 그 가지를 치고, 그 둘레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주리니 혹 그것이 어리고 연한 가지들을 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자기의 말대로 그 가지를 치고, 그 둘레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주었느니라. [6]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여러 날 후에 그것이 약간의 어리고 연한 가지들을 다소 얼마간 내기 시작하였으나, 보라, 나무의 주된 가지 끝이 죽기 시작하는지라.

두번째 치유

들가지를 접붙이다, 말라 죽는 가지를 태우시다, 어린 가지를 다른 곳으로 이식하시다

[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 주인이 이를 보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내가 이 나무를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이라. 그런즉 가서 들감람나무에서 가지들을 떼어, 그것을 이리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우리는 말라 죽기 시작하는, 저 주된 가지들을 꺾어 내어 그것들을 불에 던져 살라지게 하리라." [8]"또 보라," 포도원의 주의 말이니라, "내가 이 어리고 연한 가지들을 많이 가져다 가,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접붙이리니, 설혹 이 나무의 뿌리가 죽을지라도 상관없이, 내가 나를 위하여 그 열매를 보전할 수 있으리로다. 그런즉 나는 이 어리고 연한 가지들을 취하여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접붙이리라. [9]너는 들감람나무 가지들을 취하여, 그 대신에 접목하라. 내가 꺾어낸 이것들은 내 포도원 땅을 버리지 않도록, 내가 불에 던져 넣어 태워 버리리라 하였느니라."

[1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의 종이 포도원의 주의 말대로 행하여, 들감람나무 가지들을 접붙이니라. [11]이에 포도원의 주가 그 둘레를 파고, 가지를 치고, 거름을 주게 하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내가 이 나무를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이라. 그런즉 그 뿌리를 보전하여 그것으로 죽지 않게 하여, 나를 위하여 그 뿌리를 보전하려, 내가 이를 행하였노라. [12]그런즉 네 길을 가서, 내 말대로 나무를 살피며, 그것에 거름을 주라. [13]그리고 이것들은 내가 내 포도원의 가장 낮은 곳에 둘지라,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요, 네게는 상관이

ㄱ 3 이 비유는 지노스가 인용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임을 참고; 리하이$_1$는 니파이전서 10:12~13에서 비슷한 비유를 하며, 니파이$_1$는 니파이전서 15:12~18에서 그 비유를 해석함; 성경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비유가 있음, 이사야 5:1~7 참조; 누가복음 13:6~9; 로마서 11:17~24 에 나옴

없나니, 내가 그리 행함은 나무의 원가지들을 나를 위하여 보전하려 함이며, 또한 내가 나를 위하여 절기에 대비하여 그 열매를 쌓아 두려 함이니라. 이는 내가 이 나무와 그 열매를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임이라" 하니라. [1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자기 길을 가서, 포도원의 가장 낮은 곳들에 가꾼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을 숨기되, 그의 뜻과 기뻐하는 바를 따라, 얼마는 이 곳에 얼마는 다른 곳에 숨기니라.

잘 가꾸어진 포도원

세번째 이식된 나무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주의가 필요하다

[15]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오랜 세월이 지나고, 포도원의 주가 그의 종에게 이르되, "오라, 포도원으로 내려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하자." [1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와 또한 그의 종이 일하러 포도원에 내려가니라.

원나무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종이 그 주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기 이 나무를 보소서." [1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눈을 들어 들감람나무 가지들이 접붙여졌던 나무를 보니, 그것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였더라. 또 그가 보니 그 나무가 좋았고, 그 열매는 원열매와 같은지라. [18]그가 종에게 이르되 "보라, 들나무의 가지들이 그 뿌리의 수분을 붙들었으므로, 그 뿌리가 많은 힘을 내었고, 그 뿌리의 힘이 많음으로 인하여 들가지들이 가꾼 열매를 맺었도다. 이제 우리가 만일 이 가지들을 접붙이지 않았더라면, 그 나무는 죽었으리라. 이제 보라, 나는 그 나무가 맺은 열매를 많이 쌓아 두리니, 그것의 열매를 나 스스로를 위하여 절기에 대비하여 쌓아두리라" 하니라.

첫번째 이식

[19]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포도원의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나무의 원가지들도 많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는가 보자. 그럴진대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하여, 절기에 대비하여 그것의 열매를 쌓아 둘 수 있으리라" 하니라. [2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인이 나무의 원가지들을 숨긴 곳으로 그들이 나아가더니, 그가 종에게 이르되, "이들을 보라 하고," 이에 그가 첫번 것을 본즉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가 좋은 것을 그가 또한 보았더라. 이에 그가 종에게 이르되, "이의 열매를 취하고, 절기에 대비하여 그것을 쌓아 두어, 나로 나 스스로를 위하여 그것을 보전하게 하라 하고," 그가 이르되, "이는 보라," "이 오랜 세월을 내가 그것에게 거름을 주며 길렀더니,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었음이니라" 하니라.

[21]또 이렇게 되었나니 종이 그 주인에게 이르되, "어찌 이 나무를 또는 이 나뭇가지를 심으러 이리로 오시나이까? 보소서, 이는 주인의 포도원 모든 땅 가운데 가장 척박한 곳이었음이니이다" 하니라. [22]이에 포도원의 주가 그에게 이르되, "나에게 권고하지 말라. 나도 이 곳이 척박한 땅인 줄 알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이 오랜 세월을 그것에 거름을 주며 길렀다 하였노니,'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었음을 네가 보느니라" 하니라.

두번째 이식

23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그 종에게 이르되, "여기를 보라, 보라 내가 그 나무의 다른 가지를 또 심었나니, 네가 알거니와 이 곳 땅은 첫번 곳보다도 더 척박했었도다. 그러나 나무를 보라. 내가 이 오랜 세월을 그것에 거름을 주며 길렀더니,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었도다. 그러므로 그것을 모아 절기에 대비하여 쌓아 두어, 나로 나 스스로를 위하여 그것을 보전하게 하라" 하니라.

세번째 이식 ㄱ

24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다시 그 종에게 이르되, "여기 내가 심은 다른 가지도 보라, 내가 이것도 역시 거름을 주며 가꾸었음을 볼지니, 그것이 열매를 맺었도다." 25그가 또 종에게 이르되, "여기 맨 나중 것을 보라. 보라, 이것을 내가 땅의 좋은 곳에 심고, 내가 이 오랜 세월을 그것에 거름을 주며 가꾸었거늘, 나무의 한 부분만이 가꾼 열매를 맺었고, 나무의 다른 부분은 들 열매를 맺었도다. 보라, 내가 다른 나무들처럼 이 나무를 가꾸었느니라."

2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종에게 이르되,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들을 꺾어 내어 불에 던지라" 하였느니라. 27그러나 보라, 종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가지를 치고, 그 둘레를 파고, 조금 더 거름을 주며 가꾸사이다. 혹 그것이 주를 위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므로, 주께서 절기에 대비하여 그것을 쌓아 둘 수 있으시리이다." 2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와 포도원의 주의 종이 포도원의 모든 열매에 거름을 주며 가꾸었느니라.

두번째 부패

29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포도원의 주가 그 종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포도원으로 내려가 다시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하자. 이는 보라, 때가 가까워 옴이요, 끝이 곧 이름이니라. 그런즉 나는 나 스스로를 위하여, 절기에 대비하여 열매를 쌓아 두어야 하느니라."

원나무—뿌리는 좋으나 들가지가 못된 열매를 맺다

3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와 종이 포도원으로 내려가, 원가지들이 꺾여 나가고 들가지들이 접목된 나무에 이르렀더니, 보라 온갖 열매가 나무를 시달리게 하더라. 3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그 수대로 각종 열매를 맛보니라. 그리고는 포도원의 주가 이르되, "보라, 이 오랜 세월을 우리가 거름을 주며 이 나무를 가꾸었고, 내가 많은 열매를 절기에 대비하여 나를 위해 쌓아 두었노라. 32그러나 보라, 이번에 많은 열매를 맺기는 하였으되, 좋은 것은 하나도 없도다. 또 보라, 있는 것은 온갖 종류의 나쁜 열매이니, 우리의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익함이 없도다. 이제 내가 이 나무를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이로다 하니라."

ㄱ24 이는 곧, 약속의 땅에 거하는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33 또 포도원의 주가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나무에게 어떻게 하여야 내가
나 스스로를 위하여 이 나무의 좋은 열매를 다시 보전할 수 있겠느냐?" 34 이에
종이 그 주인에게 이르되, "보소서, 주인께서 들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접붙이
셨으므로 그 가지들이 뿌리에 양분을 공급하여, 뿌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였으
니, 그런즉 뿌리가 아직 좋은 것을 주인께서 보시나이다" 하니라.
3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그 종에게 이르되, "못된 열매를 맺
는 한 나무가 내게 유익함이 없고, 그 뿌리도 내게 유익함이 없느니라. 36 그러할
지라도 그 뿌리가 좋은 줄을 내가 알며, 나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 그 뿌리를
내가 보전하였노니, 그 많은 힘으로 인하여 뿌리가 이제까지 들가지들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도다. 37 그러나 보라, 들가지들이 자라 그 뿌리를 앞질렀고,
들가지들이 그 뿌리를 이겼음으로 인하여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많이 맺었으며,
못된 열매를 이처럼 많이 맺었음으로 인하여 나무가 죽기 시작하는 것을 네가
보나니, 우리가 나무를 보전하고자 이를 위해 무엇인가 하지 아니할진대, 곧
시들어 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하니라.

세 번의 이식—전부 들열매를 맺다

38 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그 종에게 이르되, "포도원의 가장 낮
은 곳으로 내려가서, 원가지들도 못된 열매를 맺었는지 보도록 하자" 하더라.
3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포도원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니라. 그리
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본즉 원가지의 열매도 역시 못 쓰게 되었으니, 곧
첫째와 둘째와 나중 된 것까지라, 이들이 모두 못 쓰게 되었더라. 40 또 나중 된
것의 들열매는 그 나무의 좋은 열매 맺던 부분을 이겨, 그 가지가 말라 죽어
버렸더라.
4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울며 종에게 말하되, "나의 포도원
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는가? 42 보라, 이것들 외에는 포도원의
모든 열매가 못 쓰게 된 줄 내가 알았었고, 이제는 한때 좋은 열매를 맺었던
이것들도 못 쓰게 되었으니, 이제 내 포도원의 모든 나무가 다만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도다.
43 "또 이 나중 된 것을 보라, 그 가지가 시들어 버렸도다. 내가 땅의 좋은 곳,
참으로 내게 있어 내 포도원 땅의 다른 모든 곳보다 뛰어난 곳에 심었었노라.
44 또 네가 보았거니와 이 나무를 대신 심고자,ㄱ 내가 또 이 곳의 땅을 버리고
있던 것들을 베어 버렸으며, 45 또 네가 보았거니와 그 한 부분은 좋은 열매를 맺
었고, 또 한 부분은 들열매를 맺었었더니, 내가 그 가지들을 꺾어 불에 던지지
아니한 까닭에, 보라 이들이 좋은 가지를 이겨 좋은 가지가 시들어 버렸도다.
46 "또 이제 보라, 나의 포도원에 대한 우리의 모든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들이 못 쓰게 되어,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거니와, 이들을 나는 보전하여
나 스스로를 위하여, 절기에 대비하여 그 열매를 쌓아 두기를 소망하였노라.
그러나 보라, 이들이 들감람나무처럼 되어 버렸으니, 이들이 찍혀 불에 던져
지는 것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도다. 이에 내가 이들을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이라.

ㄱ44 이는 곧, 야렛인들

해명—뿌리와 가지의 대립

47 "그러나 내가 내 포도원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 내가 내 손을 게을리하여 그것을 가꾸지 아니하였더냐? 아니라, 내가 이를 가꾸었으며, 내가 그 둘레를 팠었으며, 내가 그 가지를 쳤으며, 내가 그것에 거름을 주었으며, 내가 거의 온종일 내 손을 뻗쳤거늘 이제 끝이 가까워 오니, 내가 내 포도원의 모든 나무를 찍어, 불에 던져 태워야 함은 내게 슬픈 일이로다. 나의 포도원을 못 쓰게 한 것이 누구냐?"

4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종이 그 주인에게 이르되, "그것은 주인의 포도원이 웃자라 있음이 아니니이까—그 가지들이 좋은 뿌리를 이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또 가지들이 그 뿌리를 이겼으므로, 보소서, 그것들이 뿌리의 힘보다 더 빨리 자라 힘을 빼앗았으니, 보소서, 내가 여짜옵거니와 이것이 주인의 포도원 나무들이 못 쓰게 된 까닭이 아니니이까" 하니라.

세번째 치유

원나무와 이식된 나무의 가지를 교차하여 접목하시다—좋지 않은 가지는 태우시다

4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종에게 이르되, 가서 포도원의 나무들을 찍어 불에 던져, "그것들이 내 포도원의 땅을 버리지 않게 하자. 이는 내가 할 바를 다 하였음이라. 내 포도원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겠느냐?"

50 그러나 보라, 종이 포도원의 주께 이르되, "이를 조금 더 두고 보소서 하는지라."

51 이에 주가 이르되, "그러하리라 내가 내 포도원의 나무를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인즉, 내가 이를 조금 더 두고 보리라. 52 그런즉 나의 포도원 가장 낮은 곳에 내가 심은 이것들의 가지를 우리가 취하자. 그리고 이들을 그 원래의 나무에 접붙이자. 그리고 그 열매가 가장 쓴 가지들을 그 나무에서 떼어 내고, 그 대신에 그 나무의 원가지들을 접목하자. 53 또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은 그 나무가 죽지 않게 하여, 혹 나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 그 뿌리를 나를 위하여 보전할까 함이라.

54 "또 보라, 내가 어디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심어 둔 나무의 원가지들의 뿌리가 아직 살아 있나니, 그런즉 내가 나 스스로의 목적을 위하여 그것 역시 보전하고자, 이 나무의 가지들을 취하여 그것에 접붙이리라. 참으로 나는 그 어미 나무의 가지들을 그것에 접붙이리니, 이는 나 스스로를 위하여 뿌리 역시 보전하여, 뿌리가 충분히 강하게 되면 나를 위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 내가 내 포도원의 열매로 말미암아 여전히 영광을 누리려 함이니라."

5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들나무같이 된 원나무에서 취하여,[ㄱ] 역시 들나무같이 된 원나무들에 접붙였느니라. 56 그리고 그들이 또한 들나무같이 된 원나무들에서 취하여, 그 어미 나무에 접붙이니라.

57 그리고는 포도원의 주가 종에게 이르되, "가장 쓴 것이 아니거든 나무들에게서 들가지들을 떼어내지 말고, 그것들에 너희는 내가 이른 대로 접을 붙일지니라. 58 그리고 우리는 포도원의 나무들을 다시 가꿀 것이요, 우리는 그 가지들을 손질할 것이며, 우리는 또 시들어 필히 죽을 가지들을 나무들에게서

[ㄱ] 55 이는 곧, 모수; 60절 참조

떼내어 불에 던질 것이라. 59이에 내가 이렇게 행함은 혹 그들의 뿌리가 그 좋음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하려 함이요, 가지들을 바꿈으로 인하여 좋은 것이 못된 것을 이기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노력을 위한 계획

좋은 추가적으로 접목, 가지치기, 둘레 파기와 거름 주기를 명받다—나쁜 가지는 점차 제거되다

60"그리고 내가 원가지들과 그 뿌리를 보전하였고, 또 내가 원가지들을 다시 그 어미 나무에 접붙이고, 그 어미 나무의 뿌리를 보전하여, 혹 내 포도원의 나무들이 또다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며, 내가 포도원의 열매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을 얻으며, 혹 내가 처음 열매의 뿌리와 가지들을 보전하였음을 크게 기뻐하고자 하였은즉— 61그런즉 가서 종들을 부르라, 그리하여 우리가 포도원에서 힘을 다해 부지런히 일하여, 길을 예비하고, 그리하여 나로 원열매를 다시 맺게 할지니, 이 원열매는 다른 모든 열매보다 좋고 지극히 귀한 것이니라.

62"그런즉 가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힘을 다하여 일하자. 이는 보라 끝이 가까워 옴이니, 이는 마지막으로 내가 나의 포도원을 손질할 때니라. 63가지들을 접붙이라. 나중 된 것에서 시작하여 그것들로 먼저 되게 하고, 먼저 된 것으로 나중 되게 하며, 나무를 둘러 파되, 묵은 것과 어린 것, 먼저 된 것과 나중 된 것, 그리고 나중 된 것과 먼저 된 것을 다 그리하여, 모두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가꾸도록 하라. 64그런즉 그 둘레를 파고, 그 가지를 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거름을 주라. 이는 끝이 가까워 옴이니라. 그리고 이 마지막 접목들이 자라, 원열매를 맺거든 그때 너희는 그것들이 자랄 길을 예비할지니라.

65"또 그것들이 자라기 시작할 때 너희는 좋은 것의 힘과 그 크기를 따라, 쓴 열매 맺는 가지들을 쳐 버리되, 너희는 그 나쁜 것을 한번에 다 쳐 버리지는 말라. 두렵건대 그 뿌리가 접목에 비해 너무 강하여 그 접목이 죽으므로, 내가 내 포도원의 나무들을 잃을까 하노라. 66이는 내가 내 포도원의 나무들을 잃게 됨은 내게 슬픈 일임이라. 그런즉 너희는 좋은 것이 자라는 데 따라서 나쁜 것을 쳐 버려서, 뿌리와 줄기 끝의 힘이 동등하게 되도록 하되, 좋은 것이 나쁜 것을 이기고, 나쁜 것은 찍혀 불에 던지워, 내 포도원의 땅을 버리지 않게 되기까지 그리하라. 이같이 내가 내 포도원에서 나쁜 것들을 일소할 것이요,

67"또 원나무의 가지들을 내가 원나무에 다시 접붙일 것이며, 68또 원나무의 가지들을 내가 나무의 원가지들에 접붙이리니, 이같이 내가 그들을 다시 합하게 하여 그들로 원열매를 맺게 한즉,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라. 69또 나쁜 것은 참으로 내 포도원의 모든 땅 밖으로 버려지리니, 이는 보라, 이번 한 번만 내가 내 포도원을 손질할 것임이로다."

다시 한번 잘 가꾸어진 포도원

7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그 종을 보내매, 종이 가서 주가 그에게 명한 대로 행하여, 다른 종들을 데려왔으나, 그들의 수가 적더라. 71이에 포도원의 주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힘을 다하여, 포도원에서 일하라. 이는 보라, 이번이 나의 포도원을 가꾸는 마지막임이니, 이는 끝이 가까웠고, 절기가 속히 이름이라. 또 만일 너희가 나와 함께 너희 힘을 다하여 일하면 곧

이를 때를 대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쌓아 둘 열매로 말미암아 너희가 기쁨을 누리리라."

7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종들이 나아가 힘을 다하여 일하였고, 포도원의 주도 그들과 함께 일하더니, 그들은 범사에 포도원의 주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 73 이에 포도원에 다시 원열매가 있게 되었고, 원가지들은 심히 무성하게 자라기 시작하였으며, 들가지들은 뽑혀 버려지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그 뿌리와 줄기 끝을 그 힘에 따라, 동등하게 유지하였더라. 74 이에 이같이 그들이 포도원의 주의 명령대로, 부지런함을 다하여 일하되, 곧 나쁜 것이 포도원 밖으로 버려지기까지 그리하였고, 주가 자기를 위하여 보전하매 나무들이 다시 원열매가 되고, 이들이 한 몸같이 되며, 그 열매가 고르니, 포도원의 주가 처음부터 그에게 가장 귀하던 원열매를 자기를 위하여 보전하였느니라.

세번째 부패와 포도원의 최후에 대한 예언

75 또 이렇게 되었나니 포도원의 주가 그의 열매가 좋고, 그의 포도원이 더 이상 못 쓰게 되지 않는 것을 보고, 그의 종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이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었으되, 네가 보거니와 내가 내 뜻대로 행하였노니, 내가 원열매를 보전하매, 그것이 처음에 그러하였던 것같이 좋도다. 또 네게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나의 포도원에서 나와 함께 부지런히 일하며, 나의 명령을 지키고, 원열매를 다시 내게로 가져와, 나의 포도원이 더 이상 못 쓰게 되지 않고, 나쁜 것은 버리웠으므로, 보라 내 포도원의 열매로 인하여 너희가 나와 더불어 기쁨을 누릴 것임이니라.

76 "이는 보라, 속히 이르는 절기에 대비하여, 내가 오랫동안 나 스스로를 위하여 내 포도원의 열매를 쌓아 둘 것임이라. 또 마지막으로 내가 내 포도원을 가꾸고, 그 가지를 치고, 그 둘레를 파고, 거기에 거름을 주었으니, 그런즉 나는 내가 말한 바대로, 오랫동안 열매를 나를 위하여 쌓아두리라. 77 못된 열매가 나의 포도원에 다시 들어올 때가 이르면, 그때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으게 하고, 좋은 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보전하고, 나쁜 것은 내가 제자리에 던져 버리리라. 그러고 나면 절기와 끝이 오나니, 내가 나의 포도원을 불에 살라지게 하리라" 하니라.

야곱$_2$의 지노스의 비유에 대한 설명과 작별 인사

야곱서 5장에서 빌려온 말과 문구는 굵은체로 표시됨

6 그리고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내가 예언하겠다고[ㄱ] 너희에게 일렀음같이, 보라, 이것이 나의 예언이니—이 선지자 지노스가 이스라엘의 집에 대하여 말한 바, 그들을 **가꾼 감람나무**에[ㄴ] **비유한**[ㄷ] 것이 정녕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2 또 그가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려고 두 번째로 다시 그의 손을 펴실 그 날이,"[ㄹ] 곧 주의 **종들**이 그의 권능으로 나아가 그의 **포도원**을 **가꾸며** 가지를 칠 날이니, 참으로 **마지막으로 그리할 때이며**,[ㅁ] 그 후에 **끝이 곧 오느니라**.[ㅂ]

[ㄱ1] 야곱서 4:15~18 참조; 1:5 비교 [ㄴ1] 야곱서 5:3, 14 [ㄷ1] 야곱서 5:3 [ㄹ2] 이사야 11:11 참조; 니파이후서 6:14; 21:11; 25:17; 29:1 비교 [ㅁ2] 야곱서 5:62~64, 71, 75~76 [ㅂ2] 야곱서 5:29, 71

3 또 **그의 포도원에서 부지런히 일한**ㄱ 자들의 **복됨**이ㄴ 그 어떠하며,
또한 **제 자리로 내어쫓길**ㄷ 자들의 저주받음이 그 어떠하냐!
그리고 세상은 **불에 살라지리라**.ㄹ
4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그 어떠하냐,
이는 그가 **이스라엘 집**을 기억하시되,
뿌리와 **가지**를 모두 기억하시며,
"**온종일 그들에게 그 손을 내뻗으시며**,"ㅁ
그들이 목이 뻣뻣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이라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받을 것임이라.

5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지한 말로써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와서, 하나님께 합하기를 그가 너희에게 합하심같이 하고, 그의 자비하신 팔이 낮의 빛 가운데 너희를 향하여 펴져 있는 동안,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6참으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ㅂ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7보라, 너희가 **온종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 받고** 나서,ㅅ 너희가 **못된 열매를 맺음으로 찍혀**ㅇ **불에 던지워야만 하겠느냐?**ㅈ 8보라, 너희는 이 말씀을 저버리겠느냐?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저버리겠으며, 그토록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했음에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한 모든 말을 저버리며 그리스도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성신의 은사를 부인하며 성령을 소멸하며, 너희를 위해 마련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조롱하겠느냐?

9만일 너희가 이렇게 행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부활의 능력이, 너희를 데려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과 무서운 죄책감으로 서게 하실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0또 공의는 거부할 수 없은즉, 공의의 능력을 좇아 너희는 저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가야 하나니, 그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며, 그 연기가 세세 영원토록 올라가느니라. 이 불과 유황의 못은 끝없는 고통이니라.

11오 그러할진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을 얻기까지 계속하여 협착한 길로 행하라. 12오 지혜로우라. 내가 무엇을 더 말할 수 있으리요. 13끝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쁜 심판대 앞에서 너희를 만날 때까지, 너희에게 작별을 고하노니, 하나님의 심판대는 간악한 자들을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으로 치느니라. 아멘.ㅃ

ㄱ3 야곱서 5:61, 75 ㄴ3 야곱서 5:75 ㄷ3 야곱서 5:77 ㄹ3 야곱서 5:77 ㅁ4 야곱서 5:47; 이사야 65:2 참조; 로마서 10:21; 니파이후서 28:32 비교 ㅂ6 시편 95:7~8 참조; 이 표현은 야곱서 1:7에서 암시된 구절의 앞부분임; 시편 95에 대한 언급으로 야곱$_2$의 책을 시작하고 끝냄 ㅅ7 야곱서 5:47 ㅇ7 야곱서 5:35, 37, 38 ㅈ7 야곱서 5:42, 46, 66 ㅃ13 모로나이$_2$가 야곱의 이 작별 인사를 모로나이서 10:34에서 되풀이할 것임

시렘이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가르치다[ㄱ]

7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수년이 지난 후, 이름이 시렘이라 하는 사람이 니파이 백성 가운데 오니라. [2]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성 가운데 전파하며, 그리스도는 없을 것이라 선포하기 시작하였고, 또 백성들에게 아첨이 되는 것을 많이 전파하니, 그가 이렇게 행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무너뜨리고자 함이었더라. [3]또 그가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고자 부지런히 일하더니, 결국 많은 이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었고,

또 나 야곱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음을 알고, 내게로 오고자 많은 기회를 찾았더라. [4]또 그는 유식하여 백성들의 언어를 완전히 알았고, 그리하여 악마의 능력을 좇아 많은 아첨과 많은 언변의 능력을 구사할 수 있었던지라. [5]이러한 일에 관하여 내가 본 많은 것들과 많은 계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흔들어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소망을 가졌었나니, 이는 내가 진실로 천사들을 보았고, 그들은 나에게 성역을 베풀었음이라.[ㄴ] 그러나 또한 나는 시시로 다름 아닌 말씀으로 내게 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었나니,[ㄷ] 그런고로 내가 흔들릴 수 없었느니라.

[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내게 와서, 이와 같이 나에게 말하여 이르되, "형제 야곱이여, 내가 당신에게 말하고자 기회를 많이 찾았노니, 이는 내가 들었고 또한 알고 있거니와 당신이 많이 다니며, 당신이 칭하기를 복음 곧 그리스도의 교리라 하는 것을 전파함이라. [7]또 당신은 이 백성을 많이 이끌어 내어 그들로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바른 길인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바꾸어 당신이 말하기를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후에 오리라 하는 자를 경배하게 하였으니, 이제 보라, 나 시렘은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임을, 당신에게 선언하노라, 이는 아무도 그러한 것들을 알지 못함이니, 사람이 장차 올 일을 말할 수 없음이니라 하였나니," 이러한 모양으로 시렘이 참으로 나를 대적하였느니라.

[8]그러나 보라,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나의 영혼에 부어 넣으시매, 내가 그의 모든 말에 그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9]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만일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그를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나, 나는 그리스도가 있지 아니하며, 과거에도 있지 아니하였고, 장차도 있지 아니할 것을 아노라 하는지라."

[10]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경전을 믿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하는지라.

[11]또 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경전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경전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증거함이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거니와 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함이 없이, 기록하거나 예언을 한 선지자가 없느니라. [12]또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그 일은 나에게 분명히 밝혀졌었나니, 이는 내가 듣고 보았음이며, 그 일은 또한 성신의 권능으로 나에게 분명히 밝혀졌었나니, 그런즉, 내가 알거니와 만일 속죄가 이루어짐이 없다면 모든 인류는 반드시 잃어 버린 바 되리라 하였느니라."

[1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네가 그처럼 많이 알고 있는 바, 이 성신의 권능으로 내게 표적을 보이라" 하더라.

[14]이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시험하여 네가 참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일에 네게 표적을 보이시게 하겠느냐? 이제도 네가 이를 부인할 것은,

[ㄱ]1 위의 6:13에서 야곱$_2$이 작별하고 나서 이 장을 나중에 추가한 것으로 보임; 그의 두 번째 작별은 7:27에 나옴 [ㄴ]5 니파이후서 6:9, 11; 10:3 [ㄷ]5 예를 들면, 야곱서 2:11 참조; 니파이후서 2:3~4; 11:3 비교

네가 악마에게 속한 연고니라. 그럼에도 나의 뜻대로 되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너를 치실진대 그것이 네게 하나님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권능을 가지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시리라는 표적이 될지어다. 그리고 주여, 나의 뜻이 아니옵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야곱이 이 말을 하고 나자, 주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매 그가 땅에 엎드러지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여러 날 동안 요양을 받더라. 1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일 함께 모이라. 이는 내가 죽을 것임이라. 그런즉 내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무리가 함께 모이매, 그가 그들에게 명백히 말하여 그가 그들에게 가르친 바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성신의 권능과 천사들의 성역을 시인하였더라. 18 또 그가 악마의 능력에 속았음을 그들에게 명백히 말하니라. 또 그가 지옥과 영원과 영원한 형벌에 대하여 말하였더라. 19 또 이르되, "내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으니, 내가 혹 사함 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두렵도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내가 경전을 믿는다 하였음이라. 그러나 경전은 진실로 그를 증거하느니라. 내가 이같이 하나님께 거짓말하였으므로 내 처지가 참혹하게 될까 심히 두려우나,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노라."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더 말하지 못하고 혼이 떠나더라. 21 또 그가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무리가 목격하고 심히 놀라더니,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내려 임하매, 그들이 압도되어 땅에 엎드러지더라. 22 이제 이는 나 야곱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나니, 이는 내가 그것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였음이요, 아버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이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 가운데 화평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 그들이 경전을 상고하며, 이 간악한 자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레이맨인과의 관계

2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을 돌이켜 진리의 지식에로 회복하고자 여러 방안이 강구되었으나, 그 모두가 헛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전쟁과유혈을 즐기며, 그들의 형제 우리를 대하여 영원한 증오를 가졌음이라. 또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무장의 힘으로 우리를 멸하기를 구하였느니라. 25 그리하여 니파이 백성은 자기들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뢰하며, 자기들의 무장과 자기들의 온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대하여 방비하였나니, 이러므로 그들이 아직은 그들의 대적을 이기는 자가 되니라.

야곱$_2$이 기록을 끝맺으며 이노스에게 판을 맡긴 후 작별을 고하다

2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야곱은 늙게 되었고, 이 백성의 기록은 니파이의 다른 판에 기록되고 있나니, 그런즉 나는 이 기록을 끝맺으면서, 최대한 내가 아는 바를 좇아 기록하였음을 선포하노라.

또 말하노니 세월이 우리와 더불어 지나가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에게는 마치 한 조각 꿈처럼 지나갔으나,
우리는 외롭고 엄숙한 백성이요,

방황하는 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으며,[ㄱ]
환난 중에 광야에서 태어나
우리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나니,
미움이 전쟁과 다툼을 일으켰도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날들을
슬퍼하며 보내었느니라.

[27] 그리고 나 야곱은 내가 반드시 곧 나의 무덤으로 내려갈 것임을 알아, 나의 아들 이노스에게 이르기를, "이 판을 맡으라 하고," 또 나의 형 니파이가 나에게 명한 것을 그에게 말하였더니,[ㄴ] 그가 명에 복종할 것을 약속하였느니라. 이제 나는 이 판에 나의 기록함을 마치노니, 그 기록한 것이 작았을지라도 많은 나의 형제들이 내 말을 읽기를 바라며, 읽는 자에게 작별을 고하노라. 형제들아 잘 있으라.

[ㄱ] 26 이 암울한 넋두리는 니파이후서 10:20~22에 나오는 야곱$_2$의 더 낙관적이었던 견해와 대조됨 [ㄴ] 27 야곱서 1:1~4

이노스서

야곱의 아들

이노스의 개심

1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 이노스는 나의 부친을 알거니와 그는 의인이었나니—
이는 그가 그의 언어로, 또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를 가르치셨음이라—이로
인해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2그리고 나는 내가 나의 죄 사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씨름에 대하여 너희에게 고하리라.

3보라, 내가 숲에 짐승을 사냥하러 갔더니, 내가 종종 들었던 바 나의 부친이 영
생과 성도들의 기쁨에ㄱ 관하여 하시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느니라. 4그
리고 나의 영혼이 주렸던지라, 내가 나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고ㄴ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그에게 부르짖었나니, 참으로 온종일 내가 그에
게 부르짖었고, 그뿐 아니라 밤이 오매 내가 여전히 내 목소리를 높여 하늘에 이르게
하였더라.

5이에 한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노스야, 네 죄가 사하여졌나니 네가 복
이 있으리로다 하시더라." 6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그리하여 나의 허물은 씻기워졌더라.

7이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찌 그 일이 이루어졌나이까?"

8이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네가 전에는 결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믿는
네 신앙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그가 육체로 자기를 나타내시기 전에 많은 해가 지나
가나니, 그런즉 가라, 네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9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나의 형제 니파이인들의
복리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느끼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위하여 하
나님께 나의 온 영혼을 쏟아내었느니라. 10또 내가 이같이 영으로 진력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음성이 다시 나의 생각 속에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의 형제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는가에 따라 그들을 찾아가겠노라. 내가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나니 이는 거룩한 땅이라. 죄악의 까닭이 아니고는 내가 이를 저주하지 아니하
느니라. 그런즉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너의 형제들을 찾아가겠고, 그들의 범법은 내가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슬픔과 더불어 내려오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1이에 나 이노스가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나의 신앙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으며, 나는 나의 형제 레이맨인들을 위하여 많이 오랫동안 진력하며 그에게 기도
하였느니라. 12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부지런함을 다하여 기도하고 애쓴 후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네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소원대로 네게 허락하리라"

ㄱ3 니파이후서 9:18 ㄴ4 시편 95:6; 야곱$_2$과 마찬가지로, 이노스는 시편 95에 대한 언급으로 그의 책을 시작하고 끝냄; 이노스서 1:27; 시편 95:11 참조

하시더라. [13]그리고 이제 보라, 이것이 내가 주께 원하였던 소원이니—곧 만일 나의 백성 니파이인들이 범법에 빠져 어떻게든 멸망당하고, 레이맨인들이 멸망당하지 않는다 할진대, 주 하나님께서 내 백성 니파이인들의 기록을 보존하여 주시되, 그의 거룩한 팔의 힘에 의해서일지라도 그리하사, 그것이 장차 어느 날엔가 레이맨인들에게 전해져서, 혹 그들이 구원으로 인도될 수 있게 하여 주십사 하는 것이라— [14]이는 현재로는 그들을 참된 신앙으로 회복하려는 우리의 힘겨운 노력이 헛되었음이니, 그들은 가능하다면 우리의 기록과 우리와 또한 우리 조상들의 모든 전통을 멸하겠다고 그들의 분노 중에 맹세하였느니라.

[15]그리하여 나는 주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기록을 보전하실 수 있으심을 알았던지라, 그에게 쉬지 않고 부르짖었나니 이는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리라고 믿으며, 신앙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받을 것이라" 하셨었음이라. [16]그리고 내게 신앙이 있었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록을 보전해 주실 것을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정하신 때에 그것을 레이맨인들에게 전하시겠다고 나와 성약하시니라. [17]이에 나 이노스는 그가 맺으신 성약대로 될 것을 알았고, 그리하여 내 영혼은 쉼을 얻었느니라. [18]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 조상들도 이 일을 내게 구하였나니,ㄱ 그들의 신앙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리라. 이는 그들의 신앙도 네 것과 같았음이니라" 하시더라.

레이맨인들과 니파이인들

[19]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 이노스는 니파이 백성 중으로 다니면서, 장차 이를 일에 대하여 예언하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20]또 나는 니파이 백성들이 레이맨인들을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에로 회복하고자 부지런히 노력하였음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우리의 수고는 헛되었고, 그들의 증오는 굳어졌으며,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악한 본성에 이끌려 거칠고 흉포하며, 피에 굶주리고, 우상 숭배와 더러움이 가득한 백성이 되어, 사냥 짐승을 먹고 살아가며, 장막에 거하며, 허리에 짧은 가죽띠를 두르고, 머리를 민 채 광야를 방황하였으며, 그들의 능숙함은 활과 신월도와 도끼에 있었느니라. 또 그들 중의 많은 자가 날고기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멸하려 노력하였느니라.

[21]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은 땅을 경작하여, 온갖 곡식과 과일과 가축 무리의 떼와 각 종류의 온갖 소 떼와 염소와 들염소와 또한 많은 말을 길렀더라. [22]또 우리 중에는 심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으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고 깨닫기가 힘든 백성이었느니라. [23]그리고 심히 엄격함과 또 전쟁과 다툼과 멸망에 대한 가르침과 예언함과 또 사망과 영원의 기간과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과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일깨움이 아니고는, 아무것으로도 끊임없이 그들을 분발시켜 주를 경외하는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없었도다. 내가 말하노니 이러한 것과 극히 명백히 말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는, 아무것으로도 그들을 막아 속히 멸망으로 내려가지 않게 할 수 없었느니라. 참으로 이와 같이 나는 그들에 관하여 기록하노라. [24]또 나는 살아오면서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간의 전쟁을 보았느니라.

ㄱ18 니파이후서 3:19~21; 29:2 참조

이노스의 작별 인사

2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연로하여졌고, 우리 조상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는 백칠십구 년이 지나갔노라.[ㄱ] 26 또 나는 내가 곧 나의 무덤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노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을 받아 이 백성에게 가르침을 베풀
고 예언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해야 했었도다. 이에 나는
나의 평생에 말씀을 선포하였고, 세상의 것 이상으로 이를 기뻐하였노라. 27 이제 내가
곧 나의 안식의 처소로 가노니, 나의 구속주가 계신 곳이라. 이는 내가 그의 안에서 쉴
것을 앎이로다. 또 나는 나의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그의 앞에 서게 될 날을 기
뻐하노니, 그때 내가 기쁨으로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는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로
오라 복된 자여, "내 아버지의 거처에 너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가 있도다 하시리라."
아멘.

[ㄱ] 25 기원전 418년

예이롬서

예이롬의 행적에 대한 소개

1 이제 보라, 나 예이롬은 나의 부친 이노스의 명을 좇아 몇 마디 말을 기록하여 우리의 족보가 계속 기록되게 하노라. [2]또 이 판은 작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의 유익이 되게 할 목적으로 기록되는 것인즉,ㄱ 그러므로 내가 조금 기록해야만 하느니라. 그러나 나는 나의 예언함에 관한 것이나 나의 계시에 대한 것은 기록하지 아니하리니, 나의 조상들이 기록한 것 외에 내가 무엇을 더 기록할 수 있으랴? 그들이 구원의 계획을 밝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하였도다. 그런즉 이것으로 내가 족하게 여기노라.

[3]보라, 이 백성 가운데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며, 그들의 귀가 먹었으며 그들의 생각이 눈이 멀며, 그들의 목이 뻣뻣한 연고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히 긍휼히 여기사, 아직은 이 땅 위에서 그들을 쓸어 버리지 아니하셨더라. [4]또 우리 중에 계시를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모두 목이 뻣뻣하지는 아니함이요, 목이 뻣뻣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가진 자마다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신앙에 따라 나타내시는 성령과 더불어 교통함이라.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 나날이 번성하다

[5]또 이제 보라, 이백 년이 지나갔고,ㄴ 니파이 백성은 땅에서 점차 강대하여졌더라. 그들이 모세의 율법 지키기와 안식일을 주 앞에 거룩하게 지키기를 준행하였고, 그들이 불경하거나 모독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땅의 법은 심히 엄격하였더라. [6]또 그들은 지면에 널리 흩어졌고, 레이맨인들도 그러하였나니, 저들은 니파이인들보다 그 수가 심히 더 많았으며, 저들은 살인을 좋아하고 짐승의 피를 마셨느니라. [7]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여러 번 우리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었으나,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지도자들은 주께 대한 신앙의 용사들이었던지라, 그들이 주의 길을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그로 인해 우리가 레이맨인들에 맞서서 저들을 우리 땅에서 쓸어내고, 우리의 성읍들 또는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모든 곳들을 방비하기 시작하였느니라.

[8]또 우리는 심히 번성하여, 지면에 퍼졌고, 금과 은과 귀한 것과 목세공품과 건물과 기계류와 또한 철과 구리와 놋과 강철이 심히 풍부해져서, 땅을 가는 온갖 종류의 각종 연장과 전쟁 무기를 만들었나니—참으로 끝이 날카로운 화살과 화살통과 단창과 창 및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라. [9]이같이 레이맨인들을 만날 준비를 갖추매, 저들이 우리를 거스려 형통하지 못하였나니, 이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주의 말씀이 확증되

ㄱ2 예이롬은 여기서 이전의 작가들이 밝히기를 꺼려했던 작은 판들의 내용이 장차 레이맨인들의 유익함을 위해 쓰인 것임을 명확히 함 ㄴ5 기원전 397년

었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느니라.”ㄱ

10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니파이 백성을 위협하되, 만일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법에 떨어지면, 지면에서 멸절되리라 하였더라. 11그리하여 선지자들과 제사들과 교사들이 부지런함을 다하여 오래 참음으로 백성들을 권면하여 부지런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과 그것이 주어진 목적을 가르치고, 메시야를 고대하며 마치 그가 이미 오신 것같이 장차 오실 그를 믿도록 그들을 설득하였나니, 이같이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쳤느니라. 12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리함으로써 그들이 백성들을 지켜 지면에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찌르며, 쉬지 않고 그들을 일깨워 회개하게 하였음이라. 13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백삼십팔 년이 지나갔으되ㄴ —그 중 많은 세월 동안 전쟁과 다툼과 불화가 있었느니라.

14나 예이롬은 더 기록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판이 작음이라. 그러나 보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니파이의 다른 판으로 갈 수 있나니, 이는 보라, 그 위에 열왕의 기록하는 바, 혹은 그들이 기록하게 한 바를 좇아, 우리의 전쟁의 기록이 새겨져 있음이니라. 15이제 나는 이 판을 나의 아들 옴나이의 손에 넘겨, 그것이 나의 조상들의 명령대로 기록되게 하노라.

ㄱ9 니파이전서 2:20; 니파이후서 1:20 ㄴ13 기원전 359년

옴나이서

옴나이

1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 옴나이는 우리의 족보를 보존하기 위하여, 이 판에 얼마
간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나의 부친 예이롬에게서 받았으매— [2]그런즉 나의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내 백성 니파이인들을 보전하여, 그들의 원수 레이맨인들의 손에 빠지
지 않게 하고자, 칼로 많이 싸운 줄을 너희가 알기 바라노라. 그러나 보라, 나 스스로는
간악한 사람이요, 마땅히 했어야 할 대로 법도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3]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백칠십육 년이 지나갔으며,ㄱ 우리에게는 평화로운 시기도
많았고, 치열한 전쟁과 유혈의 시기도 많았으니, 참으로 그러하였느니라. 또 요컨대
이백팔십이 년이 지나갔으며,ㄴ 나는 조상들의 명을 좇아 이 판들을 보존하였다가,
이를 나의 아들 애메이론에게 내려 주었노니, 이로써 나는 마치노라.

애메이론

[4]그리고 이제 나 애메이론은, 적으나마 내가 기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의 부친의 책
에 기록하노라. [5]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삼백이십 년이 지나갔고,ㄷ 니파이인들 가운데
더 간악한 자들이 멸망당하였으니, [6]이는 주께서 그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시
고 그들을 지키고 보전하사, 그들의 원수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신 후에, 참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입증되지 아니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자 하심이라. 이르시
되,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하지 못하리라"ㄹ
하셨느니라. [7]그리하여 주께서 큰 심판으로 그들을 징벌하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들은 살려 두사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내
셨느니라. [8]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이 판을 나의 형제 케미시에게 넘겨주었노라.

케미시

[9]이제 나 케미시는 내가 기록하는 약간의 것을 나의 형제와 같은 책에 기록하노라. 보
라, 나는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것을 보았나니,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기록
하였고, 나에게 넘겨 주던 날에 그것을 기록하였느니라. 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록을
계속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명령에 따른 것임이니라. 이로써 나는 마치노라.

ㄱ3 기원전 321년 ㄴ3 기원전 315년 ㄷ5 기원전 277년 ㄹ6 이런 단어 배열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지만, 니파이후서 1:20 비교

아빈아돔

10 보라, 나 아빈아돔은 케미시의 아들이니라.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나의 백성 곧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이의 전쟁과 다툼을 많이 보았고, 또 나는 내 자신의 칼로 내 형제들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레이맨인들의 목숨을 빼앗았느니라. 11 또 보라, 이 백성의 기록은 대대로 열왕이 가지고 있는 판에 새겨져 있으며, 나는 이미 기록된 것 이외의 계시나 예언에 대해 알지 못하니, 그런즉 족한 만큼 기록되었도다. 이로써 나는 마치노라.

아멜레카이$_1$가 모사이$_1$야 왕과 제이라헤믈라 백성에 대해 기록하다

12 보라, 나는 아빈아돔의 아들 아맬레카이이니라. 보라, 내가 제이라헤믈라 땅의 왕이 된 모사이야에 관하여 얼마간 너희에게 말하리니, 보라, 그는 니파이 땅에서 도망하되,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모든 자도 그와 함께 하여 광야로 들어가라는 경고를 주께로부터 받고—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고, 그들 곧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하는 모든 자가 그 땅을 떠나 광야로 들어갔으니, ㄱ 그들은 많은 가르침과 예언함으로 인도되었으며 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를 받으며, 그의 팔의 힘으로 인도되어 광야를 지나 제이라헤믈라 땅이라 하는 땅으로 내려왔느니라. ㄴ 14 그리고 그들은 제이라헤믈라 백성이라 칭하는 백성을 발견하였더라.

이제 주께서 유대인들의 기록이 실려 있는 놋쇠판과 함께 모사이야의 백성을 보내 주셨음으로 인하여, 제이라헤믈라 백성 중에는 크게 기뻐함이 있었고 제이라헤믈라 역시 심히 기뻐하였더라. 15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는 제이라헤믈라의 백성이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예루살렘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 ㄷ 16 또 그들은 광야를 여행하고, 주의 손으로 인도되어 큰 물을 건너, 모사이야가 그들을 발견한 땅에 이르렀고, 그때로부터 그 곳에 거하였더라.

17 또 모사이야가 그들을 발견하였을 때 그들은 수효가 심히 많아졌었더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전쟁과 심한 다툼이 많이 있었고, 이에 그들은 시시로 칼에 쓰러졌었으며 그들의 언어는 혼잡하게 되었고 가져온 기록도 없었으며 또 그들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의 존재도 부인하였나니, 모사이야도 모사이야의 백성들도 그들의 말을 알아 들을 수 없었더라. 18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언어를 배우게 하였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모사이야의 언어를 배운 후에, 제이라헤믈라가 자기의 기억을 좇아 그 조상의 족보를 진술하매, 그것이 기록되었으나 이 판에는 기록되지 아니하니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이라헤믈라와 모사이야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였고, 모사이야를 지명하여 그들의 왕을 삼았더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의 시대에, 그에게로 가져온 큰 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새긴 것이 있었고, 그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그 새겨진 것을 해석하였더라. 21 이에 그것은 코리앤투머라 하는 자와 죽임을 당한 그의 백성에 대한 기사더라. ㄹ 또 코리앤투머는 제이라헤믈라 백성들이 발견하였고, 그는 그들과 함께 아홉 달 동안 거하였더라. 22 그것은 또 그의 조상들에 관하여서도 몇 마디 말해 주었나니, 그의 첫

ㄱ 13 야곱서 3:4에 예언된 바 ㄴ 13 모사이야$_1$와 그의 추종자들이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알려진 바 없음; 지니프와 그의 식민지 개척자들이 수십 년 후에 니파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 마주한 사람들은 레이맨인들뿐이었음; 옴나이서 1:27~30; 모사이야서 9 참조 ㄷ 15 기원전 586년 ㄹ 21 야렛인들의 역사는 이더서에서 찾을 수 있음. 코리앤투머$_2$의 이야기는 이더서 12장~15장에 나옴

조상은 주께서 백성들의 언어를[ㄱ] 혼잡하게 하실 때에, 탑으로부터 나왔으며 주의 엄하심이 의로우신 그의 심판을 좇아 그들에게 내린지라, 그들의 뼈가 북방 땅에 흩어져 있느니라.

아멜레카이$_1$가 베냐민 왕에 대해 기록하다

[23]보라, 나 아맬레카이는 모사이야의 시대에 태어났으며, 생전에 그의 죽음을 보았고, 이제 그의 아들 베냐민이 그 대신에 다스렸더라. [24]또 보라, 나는 베냐민 왕의 시대에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이에 격심한 한 전쟁과 많은 유혈이 있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니파이인들이 훨씬 우세하게 되어 그들을 이기매, 마침내 베냐민 왕이 그들을 제이라헤믈라 땅 밖으로 몰아내었느니라.

[25]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늙었도다. 또 내가 후손이 없고, 베냐민 왕이 주 앞에 의인인줄 아노니, 그런즉 내가 이 판을 그에게 넘겨주리라. 그리하면서 내가 만인에게 권면하노니,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에게로 와서 예언과 계시와 천사의 성역과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와 언어를 통변하는 은사와 모든 선한 것을 믿으라. 이는 선한 것으로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고, 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옴이니라. [26]그리고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그의 구원과 그의 구속의 능력에 참여하기를 바라노라. 참으로 그에게로 와서, 너희의 온 영혼을 그에게 예물로 드리고, 금식과 기도를 계속하며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주께서 사심같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원정대가 니파이 땅으로 가다

[27]또 이제 나는 니파이 땅으로 돌아가려고 광야로 올라간 몇몇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니, 그들의 기업의 땅을 소유하기 원하는 사람이 많았음이라. [28]그리하여 그들이 광야로 올라갔으나, 그들의 지도자가 힘이 센 용사요, 목이 뻣뻣한 자였던지라, 이에 그가 그들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매, 그들이 광야에서 오십 인을 제외하고 다 죽임을 당한지라, 그들이 다시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돌아왔더라.[ㄴ]

[29]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또한 다른 자들을 상당수 취하여, 다시 광야로 여행을 떠났더라.[ㄷ] [30]또 나 아맬레카이에게도 형제가 하나 있어 그도 그들과 함께 갔으나, 그 후로는 그들에 관하여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이제 내가 곧 나의 무덤에 눕게 되었고, 이 판은 가득 찼도다. 이에 내가 나의 말함을 마치노라.

[ㄱ] 22 창세기 11:1~9 [ㄴ] 28 이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9:1~2 에 나옴 [ㄷ] 29 이들의 운명은 모사이야서 7:1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에서 알려짐

몰몬의 해설

몰몬의 말씀

몰몬의 말씀

니파이[1]의 작은 판

1 그리고 이제 나 몰몬은 이제까지 내가 만들어 오던 기록을 나의 아들 모로나이의 손에 넘기려 하매, 보라 나는 내 백성 니파이인들이 거의 다 멸망하였음을 목격하였노라. [2]또 내가 이 기록들을 내 아들의 손에 넘기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수백 년 후이니, 내 생각에 그는 내 백성의 완전한 멸망을 목격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로 그들 뒤에 살아남게 하사, 그들에 관하여 얼마간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에 관하여 얼마간 기록하게 하사, 혹 언젠가 그 기록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3]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기록한 바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노니, 아맬레카이가 언급한 이 베냐민 왕의 치세에 이르기까지의 요약을 내가 니파이의 판으로부터 ㄱ 만들고 나서, 나는 내 손에 넘겨진 기록들을 살피다가, 야곱으로부터 이 베냐민 왕의 치세에 이르는 선지자들의 이 작은 기사가 실려 있고, 니파이의 말이 또한 많이 실려 있는 이 판을 ㄴ 발견하였느니라. [4]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들로 말미암아 이 판에 있는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며, 또 나의 조상들은 그 가운데 많은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았고, 그뿐 아니라 나 또한 우리에 관하여 이 날까지 예언된 것이 모두 이루어졌고, 이 날 이후에 관한 것은 반드시 기필코 이룰 것임을 아노니— [5]그런즉 나는 이러한 것들을 택하여 그 위에 나의 기록을 완성하고자 하되, 내 기록의 나머지는 니파이의 판에서 취하리라. 그러나 나는 내 백성에 대한 일을 백분의 일도 기록할 수 없도다.

[6]그러나 보라, 나는 이 예언과 계시들이 실려 있는 이 판을 취하여, 이를 내 기록의 나머지와 함께 두리니, 이는 그것이 내게 소중한 것임이요, 또 그것이 나의 형제들에게 소중한 것이 될 줄을 내가 앎이라. [7]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함이니, 이는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이같이 내게 속삭이는 바가 있음이라. 이제 나는 만사를 다 알지 못하나, 주께서는 장차 이를 일을 모두 아시나니, 그런즉 그는 그의 뜻대로 행하시고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도다. ㄷ [8]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는 나의 형제들에 관한 것이니, 그들이 다시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기에 이르러 그들이 다시 한 번 기뻐하심을 입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니라.

[9]그러면 이제 나 몰몬은 계속하여 니파이의 판에서 취하는 바 내 기록을 끝까지 완성하고자 하노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식과 총명을 좇아 이를 만드노라. [10]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레카이가 이 판을 베냐민 왕의 손에 넘겨 준 후, 그는 이를 취하여 이를 베냐민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열왕에 의해 전해져 내려온

ㄱ 3 이는 곧, 니파이의 큰 판 ㄴ 3 이는 곧, 니파이의 작은 판 ㄷ 7 작은 판은 큰 판 기록물(요약본)의 부록에 해당하였으나 마틴 해리스가 116쪽을 분실하는 바람에 리하이부터 베냐민왕에 이르는 이야기가 작은 판의 내용으로 (니파이전서~옴나이서) 대체되었음

기록이 실려 있는 다른 판과 함께 두었더라. 11그리고 이것이 베냐민 왕으로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나의 수중에 들어왔나니, 나 몰몬은 이때로부터 이후로 이 판들이 보전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또 나는 이 판들이 보전될 줄을 아노니, 이는 그 위에 위대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백성과 그들의 형제들이 큰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으리로다.[ㄱ]

베냐민 왕의 업적

12그리고 이제 이 베냐민 왕에 관하여—그의 때에 그의 백성들 가운데 다소 다툼이 있었느니라. 13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그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니파이 땅에서 내려왔더라. 그러나 보라, 베냐민 왕이 그의 군대를 함께 모으고, 그들에 맞서 라반의 검을 들고 그 자신의 팔의 힘으로 싸웠더라. 14또 주의 힘을 의지하여 그들이 그 대적과 싸워 이윽고 레이맨인 수천을 도륙하였으며,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과 싸워서 이윽고 그들의 기업의 모든 땅에서 레이맨인들을 몰아내었더라.

15또 이렇게 되었나니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었으나, 그들의 입이 닫혀지고 그들이 자기의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16그리고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설교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나, 이들 모두가 자기의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그리고 많은 다툼이 있고 많은 자들이 이반하여 레이맨인들에게로 가는 일이 있은 후,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 가운데 있는 거룩한 선지자들의 도움을 얻어— 17이는 보라, 베냐민 왕은 거룩한 사람이라, 그가 의 가운데 자기 백성을 다스렸고, 또 그 땅에 거룩한 자들이 많이 있어 그들이 권능과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였으며, 백성들의 목이 뻣뻣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날카로움을 많이 사용하였음이라— 18그리하여 이들의 도움과 함께 베냐민 왕은 그의 육신의 모든 힘과 그의 온 영혼의 능력을 다해 일하고, 또한 선지자들과 함께 일함으로써 한 번 더 그 땅에 평화를 이루었더라.

[ㄱ] 11 니파이후서 25:21~22

몰몬이 요약한
니파이의 큰 판 기록물

모사이야서~몰몬서 제 7 장

모사이야서

베냐민 왕이 그의 아들에게 가르치다 ㄱ

1 그리고 이제 제이라헤믈라 온 땅에서 베냐민 왕에게 속한 모든 백성 중에 더 이상의 다툼이 없었던지라, 베냐민 왕이 그의 남은 모든 날 동안 내내 화평을 누리니라. 2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에게 아들 셋이 있더니, 그가 그들의 이름을 모사이야, 그리고 힐로룸, 그리고 힐라맨이라 칭하였더라. 또 그들로 하여금 그의 조상들의 모든 언어로 가르침을 받게 하여, 그로써 그들로 명철한 자가 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전달된 바, 곧 그들 조상들의 입으로 말한 바 된 예언에 관해 알게 하였더라.

3또한 그는 놋쇠판에 새겨져 있는 기록에 관하여서도 그들에게 가르쳤나니 이르기를, "나의 아들들아, 나는 이러한 기록과 이러한 계명이 들어 있는 이 판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한 채, 필연 무지한 가운데 처해 있었을 것임을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라. 4이는 이 판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우리 조상 리하이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이를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가능하지 못하였을 것임이니라. 이는 그가 애굽의 언어로 가르침을 받았던지라, 이 새긴 것들을 읽고 이를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그들이 이를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으므로, 지금 이때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어 왔음이라. 5나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지고 보존되어, 우리로 그의 비밀에 대해 읽고 깨닫게 하며, 그의 계명을 항상 우리 눈 앞에 가지고 있게 한 이러한 것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조상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음에 빠져 들어갔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같이 되었으리니, 그들은 이러한 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또는 이러한 것이 그들에게 가르쳐질 때, 그들 조상의 옳지 아니한 전통으로 인하여 이를 믿지도 아니하느니라.

6"오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이 말씀들이 참되며, 또한 이 기록들이 참됨을 기억하기 바라노라. 그리고 보라, 또한 니파이의 판에는 우리 조상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기록과 말씀하신 것이 들어 있으니, 이 역시 참되니라. 또 우리가 그 확실함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눈 앞에 그것을 가지고 있음이라. 7이에 이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이를 부지런히 상고할 것을 기억하여 그로 인해 유익을 얻기 바라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기를' 바라노라"ㄴ 하였더라. 8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것을, 참으로 베냐민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더 가르쳤더라.

ㄱ1 원본의 흔적은 모사이야서의 처음 두 장이 마틴 해리스가 분실한 116쪽에 있었으며 현재 여기의 1장은 원래는 모사이야서의 세 번째 장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음. 그러한 이유로 모사이야서에는 요약 소개가 없음 ㄴ7 니파이후서 1:20

베냐민 왕이 모사이야$_2$에게 왕국을 맡기다

[9]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베냐민 왕이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기를 마친 후, 그가 늙어 자기가 반드시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세상이 가는 길을 갈 줄을 알았던지라, 그러므로 그는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더라. [10]그리하여, 그는 모사이야를 자기 앞에 데려오게 하였으니, 그가 그에게 한 말이 이러하니라. 이르기를, "내 아들아, 바라노니 너는 이 온 땅에 걸쳐 이 온 백성, 곧 제이라헤믈라 백성과 이 땅에 거하는 모사이야 백성 가운데 포고를 내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모이게 할지니라. 이는 내가 내일 나 자신의 입으로 네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요 통치자임을 나의 이 백성들에게 선포할 것임이니라.

[11]"그리고 더욱이 내가 이 백성에게 이름 하나를 주어,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모든 백성들 위에 구별되게 하려 하노니, 이를 내가 행함은 그들이 주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켜온 백성이었음이라. [12]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주는 이름은 범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결코 지워져 없어지지 아니하리라.[ㄱ]

[13]"이뿐 아니라 더욱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만일 주께 크게 은혜를 입은 이 백성이 범법에 떨어져, 간악하고 음란한 백성이 되면, 주께서 그들을 넘겨주사, 그로 인해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처럼 연약하여지게 하실 것이요, 그는 더 이상 이제까지 우리 조상들을 지켜 주신 것같이, 그의 비길 데 없는 기이한 권능으로 그들을 지켜 주지 아니하시리라.[ㄴ] [14]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그가 그의 팔을 펴사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레이맨인들의 수중에 떨어져, 그들의 증오의 희생이 되었으리라."

[15]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베냐민 왕이 그의 아들에게 이러한 말하기를 마친 후, 그는 왕국의 모든 일에 관한 책임을 그에게 맡겼더라.[ㄷ] [16]그리고 더욱이 그는 놋쇠판에 새겨진 기록과 또한 니파이의 판과 또한 라반의 검과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한 공, 곧 지시기에 관한 책임을 또한 그에게 맡겼나니,[ㄹ] 이 공 곧 지시기는 주의 손으로 예비된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기 그에 기울이는 주의와 부지런함에 따라 인도하심을 받게 한 것이더라. [17]그러므로 그들이 충실하지 못한즉 그들은 그들의 여정에서 형통하지 못하였고 나아가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뒤로 밀려났고,[ㅁ] 하나님의 노여움을 그들 위에 초래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본분을 기억하도록 그들을 일깨우는 기근과[ㅂ] 심한 고난으로 치심을 당하였느니라.

[18]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가 가서 그의 부친이 그에게 명한 대로 하여, 제이라헤믈라 땅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포고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함께 모여 성전에 올라가 그의 부친이 그들에게 할 말을 듣게 하였더라.

[ㄱ]12 이 이름은 모사이야서 5:6~14에서 부여될 것임 [ㄴ]13 이 예언은 힐라맨서 4:24~26에서 실현될 것임 [ㄷ]15 모사이야서는 여기서 베냐민 왕이 그의 아들 모사이야$_2$에게 "왕국의 모든 일에 관한 책임"을 양도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모사이야서 29:42에서 앨마$_1$가 그의 아들 앨마$_2$에게 "교회의 제반사에 관한 책임"을 양도하는 것을 끝으로 양대 틀을 갖춤 [ㄹ]16 여기서 내용을 구분짓는 문학장치(inclusio)는 유물과 기록을 받은 모사이야$_2$서에서 시작하여 모사이야서 28:20에서 앨마$_2$가 동일한 물건들을 받으면서 결론을 맺음 [ㅁ]17 니파이전서 18:11~15 [ㅂ]17 니파이전서 16:17~22

베냐민 왕의 설교

모사이야서 2~5장

백성이 성전에 모이다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가 그의 부친이 그에게 명한 대로 행하여, 온 땅에 널리 포고를 내린 후, 백성들이 온 땅에 두루 함께 모여, 성전에 올라가 베냐민 왕이 그들에게 할 말을 들으려 하였더라. [2]이에 모인 무리가 큰 수를 이루매, 그 수가 심히 많아 그들을 세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번성하여 그 땅에서 크게 늘어났음이러라.

[3]그리고 그들이 또한 그들의 양 떼의 처음 난 것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좇아 희생과 번제를 드리려 함이었으며, [4]또한 그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으며, 의인들을 그들의 교사로, 또한 한 의인을 그들의 왕으로 임명하사, 그로 제이라헤믈라 땅에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로 그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며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신,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려 함이었더라.

[5]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성전에 올라왔을 때, 그들이 주위에 그들의 장막을 치되, 각 사람이 그 아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로 된 자기 가족을 따라,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아래로 가장 나이 어린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이 각기 서로 따로 하였더라. [6]또 그들이 성전을 둘러 그들의 장막을 치되, 각 사람이 그 장막 문으로 성전을 향하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의 장막에 남아서 베냐민 왕이 그들에게 할 말을 들으려 하였으니, [7]이는 무리가 심히 커 베냐민 왕이 성전 경내에서 그들을 모두 가르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한 대를 세우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이 그가 그들에게 할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였더라.

[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대로부터 그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시작하였으나, 무리가 큰 연고로 그들 모두가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하는 말을 기록하게 하여[7] 그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 있는 자들 가운데로 보내게 하여, 그들도 그의 말을 받게 하였더라.

베냐민 왕이 그의 업적을 회상하다

[9]이것이 그가 말하고 기록하게 한 말이니 일렀으되, "나의 형제들, 함께 모인 너희 모두 곧 이 날 너희에게 할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명하여 이리로 올라오게 한 것은 내가 할 말을 소홀히 다루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로 하여금 내게 귀를 기울이게 하며,

너희 귀를 열고 듣게 하며,
너희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며,
너희 생각을 열게 하여
하나님의 비밀이 너희가 볼 수 있도록

[7]8 베냐민 왕이 작성하게 한 이 기록은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의 근원일 것으로 추정

펼쳐지게 하려 함이니라.

10 "내가 너희를 명하여 이리로 올라오게 한 것은 너희로 나를 두려워하게 하거나, 너희로 나 자신을 죽어야 하는 사람 이상으로 생각하게 하려 함이 아니니라. 11 오히려 나는 너희 자신과 같이 몸과 생각에 있어 온갖 약점을 지니기 쉬운 자이나, 그럼에도 나는 이 백성에 의해 택함을 받고, 내 부친에 의해 성별되었으며, 주의 손의 용납하심을 받아 이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왕이 되었고, 비길 데 없는 그의 권능으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주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온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너희를 섬겼느니라.

1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때까지도 너희를 섬기며 나의 날을 보내었으되 금이나 은이나 너희의 여하한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였음같이, 13 나는 너희가 감옥에 갇히거나, 서로를 노비로 삼거나 살인하거나 약탈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간음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여하한 간악함도 범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ㄱ] 너희를 가르쳐 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였으며— 14 또 나 자신조차도 내 스스로의 손으로 일하여 너희를 섬기려 하고, 너희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하며, 지기 힘든 일은 아무것도 너희에게 임하지 않게 하였노니—내가 말한 이 모든 것에 대해, 오늘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니라."

하나님 섬기기

15 "그러할지라도 나의 형제들아, 내가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은 자랑을 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이러한 일을 이야기함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를 비난하려 함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답할 수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16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섬기며 내 날을 보내었다고 너희에게 말하였다 하여, 내가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다만 하나님을 섬겨 왔을 따름임이니라. 17 그리고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18 보라, 너희는 나를 너희 왕이라 칭하였도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너희 왕이라 칭하는 내가 참으로 너희를 섬기고자 일한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서로 섬기고자 일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9 그리고 또한 보라, 너희가 너희 왕이라 일컫는 바 내가 너희를 섬기느라 그 날들을 보내었으되,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온 내가 만일 너희에게 조금이라도 감사를 받을 만하다면, 너희가 너희 하늘의 왕께 감사드림이 얼마나 마땅하냐!

20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설혹 너희가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를 지켜 보전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서로 화평하게 살도록 하여 주신 저 하나님께 너희 온 영혼이 가질 능력이 있는 모든 감사와 찬송을 드린다 할지라도—

[ㄱ]13 이 다섯 가지 범죄(살인, 약탈, 도적질, 간음, 여하한 간악함도 범함)를 열거하는 목록이 몰몬경에 다섯 번 이상 나옴; 모사이야서 29:36; 앨마서 23:3; 30:10; 힐라맨서 3:14; 6:23 참고; 힐라맨서 7:21; 이더서 8:16 비교

21"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설혹 너희가 태초부터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에게 호흡을 주심으로 나날이 너희를 보전하사, 너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며 너희 스스로의 뜻대로 행하게 하고 계시고, 순간순간 너희를 지탱해 주기까지 하고 계시는 그를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이르노니, 설혹 너희가 너희 온 영혼을 다해 그를 섬긴다 할지라도 너희는 오히려 무익한 종일 것이니라.

22"또 보라,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즉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두이며, 그는 만일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가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너희에게 약속하셨나니,[ㄱ] 그는 그가 말씀하신 것에서 결코 변경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그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면, 그 또한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느니라. 23그리고 이제 먼저 그가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으니, 그로 인해 너희가 그에게 빚졌느니라. 24그리고 둘째로 그는 과연 그가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가 행할 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시거니와, 이에 대해 만일 너희가 행하면 그가 실로 즉시 너희를 축복하시나니, 그러므로 그는 너희에게 갚으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전히 그에게 빚지고 있으며, 지금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니, 영원히 언제까지나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25"그리고 이제 내가 묻노니, 너희는 너희 스스로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아니라. 너희는 너희가 땅의 티끌만큼 된다고도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땅의 티끌로 창조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보라, 그것은 너희를 창조하신 이에게 속한 것이니라. 26그리고 나, 곧 너희가 왕이라 일컫는 나도, 너희 자신보다 나을 것이 없나니, 이는 나 역시 티끌로 지어졌음이라. 또 너희가 보거니와 내가 늙었고, 곧 이 죽어야 할 육신을 그 어미 되는 땅에게 내어 주려 하고 있느니라."

베냐민 왕이 그의 통치를 마치다

27"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행하며, 너희를 섬겼다고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바로 그와 같이 내가 이때에 너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내게 명하신 일에 대해 내가 서서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때, 내가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나타나게 하며, 너희의 피가 나에게 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28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한 것은, 내가 바야흐로 나의 무덤으로 내려가려 하는 이 시기에, 나의 옷이 너희의 피로부터 깨끗하게 되게 하여, 내가 평안히 내려가고, 나의 불멸의 영으로 하여금 위에 있는 합창대와 합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9"또 더욱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한 것은, 내가 더 이상 너희의 교사도, 너희의 왕도 될 수 없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려 함이니라. 30이는 이 시간에도 너희에게 말하려 하는 동안 나의 온 몸이 참으로 심히 떨고 있음이라.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받들어 주고 계시며, 나를 용납하사 나로 하여금 너희에게 말하게 하시고, 내게 명하사 나의 아들 모사이야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요 통치자임을 오늘 너희에게 선포하게 하셨느니라."

[ㄱ] 22 니파이후서 1:20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을 훈시하다

31 "이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지금까지 해 온 대로 하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과 또한 나의 부친의 명령을 지켜 번성하고, 너희 원수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심을 입은 것같이, 바로 그와 같이 만일 너희가 나의 아들의 명령, 곧 그에 의해 너희에게 전달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땅에서 번성할 것이요,'ㄱ 너희 원수들이 너희를 다스릴 능력을 갖지 못하리라. 32 그러나 나의 백성들아, 너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까 주의하고, 나의 부친 모사이야가 말씀하신 악한 영에게 즐겨 순종하지 않도록 주의하라.ㄴ 33 이는 보라, 그 영에게 즐겨 순종하는 자 위에 화가 선포되어 있음이니, 이는 만일 그가 그에게 순종하기를 즐겨하여 자기 죄 안에 머물다가 죽으면, 그는 자기 스스로의 영혼에 저주를 마시는 것임이라. 이는 그가 자기 스스로의 아는 바에 반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영원한 형벌을 자기의 삯으로 받음이니라.

3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것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너희 중에 누구라도 너희가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 영원히 빚진 자로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과 너희 자신의 모두를 그에게 돌려야 함을 알지 못하는 자 없으며, 또한 우리 조상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던 때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이 들어 있는 기록에 관해서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한 자가 없나니, 35 거기에는 또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것도 모두 들어 있느니라. 또한 보라,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말하였나니, 그러므로 그 말씀이 바르고 참되니라.

36 "그리고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알고 또 가르침 받고 난 후에, 만일 너희가 범법하여 말씀하신 바에 상반되게 행하여, 너희가 참으로 주의 영으로부터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그것으로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게 하여 너희가 복 받으며, 번영하며, 보전되도록 너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할진대— 3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를 행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께 드러내어 거역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그는 즐겨 악한 영에게 순종하며, 모든 의의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안에 거할 곳이 없으시니, 이는 그가 거룩하지 않은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심이라.

38 "그러므로 만일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있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그의 불멸의 영혼을 일깨워 그 자신의 죄과를 통렬히 느끼게 하나니, 이는 실로 그로 하여금 주의 면전에서 뒷걸음질치게 하며 실로 그의 가슴을 죄책감과 고통과 고뇌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라. 이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과 같으니 그 불꽃이 세세 영원토록 올라가느니라. 39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비가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 운명은 결코 그침이 없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되리라.

40 "오 모든 너희 늙은 자들 그리고 또한 너희 젊은 자들 그리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너희 어린아이들아, 이는 내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말하였음이니, 나는 너희가 깨어 범법에 빠진 자들의 무서운 처지를 기억하기를 비노라. 41 또 더욱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복되고 행복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자 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은 현세적이거나 영적인 모든 일에 복됨이요, 만일 그들이 끝까지 충실히 견디면 하늘에 영접되나니,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ㄱ31 니파이후서 1:20 ㄴ32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나 모사이야1의 치세에 대한 유일한 이야기는 옴나이서 1:12~23에 나옴

결코 끝이 없는 행복한 상태에 거하게 되리라. 오 기억하라,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기억하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

베냐민 왕이 그리스도에 대한 천사의 예언을 전하다

3 "그리고 또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주의를 구하고자 하노니, 이는 너희에게 얼마간 더 말할 것이 있음이라. 이는 보라, 내가 장차 임할 일에 관하여 너희에게 고할 것이 있음이니라. [2]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고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에 의해 나에게 알려졌나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깨어나라' 하기로 내가 깨었더니, 보라 그가 내 앞에 섰느니라.

[3]"그리고 그가 내게 이르기를,

'깨어 내가 네게 고할 말을 들으라.
이는 보라,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선포하러 왔음이니라.

[4] 이는 주께서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의에 대해 판단하시고,
나를 보내사 네게 선포하게 하셨음이니, 이는 너로 기뻐하게 하시며,
또 너로 네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여
그들 역시 기쁨으로 충만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5] 볼지어다, 그때가 이르며
그리 멀지 아니하니,
곧 모든 영원으로부터 모든 영원에
이르기까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께서 권능으로써 하늘로부터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흙으로 지어진 성막에 거하시며,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사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시고,
온갖 질병을 고치시는 것과 같은 큰 기적을 행하시리라.┐

[6] 또 그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는 악마,
곧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리라.

[7] 또 보라, 그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과 육신의 고통, 주림,
갈증과 피로를 겪으리니,
이는 보라, 피가 모든 땀구멍에서 나옴이라,
그의 백성의 사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그의 고뇌가 그처럼 크리라.

[8]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아버지,

┐5 이 일련의 기적들은 제4니파이 1:5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음; 제3니파이 26:15; 마태복음 11:5; 누가복음 7:22 비교

태초로부터 만물의 창조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칭하여지리라.
9 또 보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시나니,
이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구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모든 일 이후에도 그들은 그를 사람이라 생각하여,
그가 귀신 들렸다 말할 것이요,
그를 채찍질 할 것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10 그리고 그는 제 삼 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실 것이요.
보라, 그가 세상을 심판하려 서시나니,

" '보라, 이 모든 일이 행하여짐은 의로운 심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11 이는 보라, 또한 그의 피는 아담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들, 곧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들, 또는 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한 자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함이라. 12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줄 알고 있는 자에게는 화, 화가 있도다! 이는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러한 자에게 구원이 오지 아니함이니라.
13 " '이에 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그의 거룩한 선지자들을 보내사, 모든 족속과 나라와 방언에 이러한 일을 선포하게 하사, 이로써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는 자들 그들은 그들의 죄 사함을 얻고, 참으로 마치 그가 이미 그들 가운데 오신 것같이, 심히 큰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셨느니라.

14 그러할지라도 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보시고, 그들에게 한 율법을 정해 주셨으니, 곧 모세의 율법이라. 15 또 그의 오심에 관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와 예표와 그림자를 그가 그들에게 보이셨고, 또한 거룩한 선지자들도 그의 오심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럼에도 그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모세의 율법이 그의 피의 속죄를 통하여서가 아니고는 무익함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

천사가 타락과 속죄에 대해 설명하다

16 " '또 설혹 어린아이들이 죄지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없다 함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들은 복되도다. 이는 보라, 아담 안에서 곧 본디부터 그들이 타락한 것같이, 바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죄를 대속하여 줌이라.
17 " '또 더욱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는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길이나 방법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니,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올 수 있느니라. 18 이는 보라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매, 그의 심판이 공의로우며 그 유아기에 죽는 유아는 멸망하지 아니하되, 사람들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구원이 전에나, 지금에나, 장차에나,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그리고 그 피를 통하여 임함을 믿지 않는 한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영혼을 위하여 저주를 마심이 됨이니라. 19 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그러하였고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ㄱ

20 "'또 더욱이 내가 네게 이르노니, 구주에 대한 지식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두루 퍼질 때가 이르리라. 21 또 보라, 그때가 이르면 회개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허물없는 자로 드러나지 못하리라. 22 그리고 이때라 할지라도, 네가 주 네 하나님이 네게 명하신 것을 네 백성에게 가르친 후에는, 이미 그때는 내가 네게 고한 그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없는 자로 드러나지 못하느니라.' "

천사가 주님의 경고로 예언을 끝맺다

23 "'이제 내가 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을 말하였노라. 24 또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심판 날에 그 말씀이 이 백성에게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리니,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되, 그 행위가 선하든지, 또는 그 행위가 악하든지, 각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25 "'만일 그 행위가 악하다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죄와 가증함의 참담함을 목도하게 되고, 이는 그들을 주의 면전으로부터 뒷걸음질 치게 하여 비참과 끝없는 고통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나니, 그 곳에서 그들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의 영혼에 저주를 마신 것이라. 26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부터 마신 것이니, 공의가 이를 그들에게 거부하지 못하는 것은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아담이 타락함을 거부하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영원토록 자비가 더 이상 그들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 27 또 그들의 고통은 그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며, 그 연기가 영원무궁토록 솟아오르는 불과 유황의 못 같으니라.ㄴ 이같이 주께서 내게 명하셨느니라. 아멘.' "

백성의 반응

4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베냐민 왕이 주의 천사에 의해 그에게 전달된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고, 그 눈을 들어 무리를 둘러보았더니, 보라 그들이 땅에 엎드러졌으니, 이는 주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이라. 2 또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속된 상태에 있어, 실로 땅의 티끌보다 못함을 보았고,ㄷ 이에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오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적용하사 우리로 우리의 죄 사하심을 받게 하시옵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이는 우리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니이다" 하였더라.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 말을 하고 나자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신지라,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ㄱ 19 18~19절은 히브리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차 배열 구조를 지님 ㄴ 27 영어 원문에서는 이 문장에 나오는 열 일곱 마디를 야곱서 6:10에서 단어 그대로 똑같이 반복함; 요한계시록 14:11; 20:10 비교
ㄷ 2 모사이야서 2:25

되고, 자신의 죄 사함을 받으며 양심의 평안을 얻으니, 이는 베냐민 왕이 그들에게 한 말씀대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의 놀라운 신앙으로 인함이었더라.

구원을 받을 자

4 이에 베냐민 왕이 다시 그 입을 열어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나니 이르기를, "나의 친구요 나의 형제들, 나의 혈족이요 나의 백성들아, 내가 다시 너희의 주의를 구하고자 하노니, 너희에게 할 내 말의 나머지를 너희가 듣고 깨닫기 바라노라. 5 이는 보라, 만일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이 너희를 일깨워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아무 가치 없는 타락한 상태에 있음을 느끼게 해 주었다면—

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비길 데 없는 권능과 그의 지혜와 그의 인내와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오래 참으심과 또한 속죄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되어 그로써 주를 신뢰하며 부지런히 그의 계명을 지키며, 자기의 생명이, 내가 뜻하는 것은 죽어야 할 육신의 생명이라, 끝나기까지 신앙 안에 거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하는 속죄의 지식에 이르렀다면—

7 "내가 말하노니, 이가 바로 속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자니, 이 속죄는 아담의 타락 이래로 있던 자나, 지금 있는 자나, 장차 곧 세상의 끝까지 있을 모든 인류를 위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것이니라. 8 또 이제 이것이 구원이 임하는 방도이니, 이미 말한 이것 외에 다른 구원은 도무지 없으며,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조건을 제외하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도 없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

9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계신 것과 그가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라.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지혜와 모든 권능을 가지셨음을 믿으라. 사람은 주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함을 믿으라. 10 그리고 또 너희는 너희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어야 함을 믿으라. 그리고 그가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이제, 만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이를 행하도록 하라.

11 "그리고 내가 앞서 말한 것같이, 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ㄱ]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에 이르렀은즉, 곧 너희가 그의 선하심을 알았고 그의 사랑을 맛보았고, 너희 영혼에 그토록 심히 큰 기쁨을 있게 하는 너희 죄 사함을 받았다면, 바로 그처럼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너희 자신이 아무 것도 아님과 합당하지 아니한 피조물인 너희를 향한 그의 선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고 항상 기억에 간직하며, 지극히 겸손하게 너희 자신을 낮추며 매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천사의 입으로 이야기 된 바, 장차 이를 일을 믿는 신앙 안에 굳게 서기를 바라노라.[ㄴ]

12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이를 행하면 너희는 항상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너희의 죄 사함을 항상 간직하게 될 것이며, 또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이의 영광의 지식 안에서, 곧 바르고 참된 것의 지식 안에서 자라게 되리라. 13 또 너희는 서로 상하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아니할 것이며, 도리어 평화롭게 살려 하며, 각 사람에게 그에게 당연한 것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리라. 14 또 너희는 너희 자녀들이 굶주리거나, 헐벗게 되도록 그들을 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서로 싸우고 다투며 죄의

[ㄱ] 11 위 5~6절 참조 [ㄴ] 11 모사이야서 3:1~27

주인이요, 우리 조상들이ㄱ 말씀하신 악한 영인 악마를 섬기도록 버려 두지도 아니하리니, 그는 모든 의의 원수라. 15오히려 너희는 참되고 진지한 길로 행하도록 그들을 가르칠 것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도록 그들을 가르칠 것이니라."

베냐민 왕이 구걸하는 자에 대해 말하다

16"또한 너희 스스로는 너희의 구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구제할 것이요, 너희는 궁핍에 처한 자에게 너희의 재물을 베풀 것이며, 너희는 구걸하는 자가 너희에게 올리는 간청이 헛되도록 버려 두고, 그를 쫓아내어 죽게 하지 아니하리라. 17혹 네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자기의 비참을 자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는 내 손을 금하여, 그가 고난을 받지 않도록 내 양식에서 그에게 주거나, 나의 재물에서 그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의 형벌이 마땅한 것임이라' 하리라. 18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 사람아,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 그는 크게 회개해야 하느니라. 또 그가 자기의 행한 바를 회개하지 않는 한, 그는 영원히 멸망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아무 상관이ㄴ 없느니라.

19"대저 보라,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양식과 의복에 대해, 또 금에 대해, 또 은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가진 온갖 종류의 모든 부에 대해, 동일한 존재 곧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지 아니하냐? 20그리고 보라, 이 시간에도 너희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의 죄 사함을 간구하고 있었도다. 그런데 너희의 간구가 헛되도록 그가 버려 두셨느냐? 아니라, 그는 너희에게 그의 영을 부으시고, 너희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너희 입이 막혀 너희로 말할 바를 찾지 못하게 하셨나니, 너희의 기쁨이 그토록 심히 컸느니라.

21"또 이제 만일 너희를 창조하셨고, 너희가 너희의 생명과 너희가 가진 모든 것과 너희 자신의 전부를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받으리라고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오 그렇다면 너희가 가진 재물에서 서로 나누어 줌이 얼마나 마땅하냐. 22그리고 만일 죽지 않으려고 너희의 재물을 나누어 달라고 너희에게 간청을 올리는 자를 너희가 판단하고 그를 정죄한다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너희의 재물을 나누지 않는데 대한 너희의 정죄는 얼마나 더 마땅하겠느냐. 그에게는 너희 생명도 속해 있느니라. 그럼에도 너희는 아무 간청도 드리지 아니하며, 네가 행한 일을 뉘우치지도 아니하는도다. 23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그의 재물이 그와 함께 멸망할 것임이로다. 그리고 이제 나는 이 세상의 것에 관하여 부유한 자에게 이러한 것을 말하노라.

24"그리고 또, 내가 너희 곧 가진 것이 없으나 매일 지내기에 족할 만큼은 가진 가난한 자들에게 이르노라. 나는 구걸하는 자에게 가진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 거절하는 너희 모두를 뜻하노라. 나는 너희가 너희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주지 않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까닭이나 만일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주리라 하기를 바라노라.' 25그리고 이제, 만일 너희가 너희 마음속으로 이를 말한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없으려니와, 그리하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정죄받나니 너희의 정죄가 마땅함은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을 탐함이니라.

26"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러한 일을 위하여—즉 매일 너희의 죄 사함을 간직하여,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나는 너희가 각

ㄱ14 모사이야서 2:32, 37; 니파이후서 32:8 비교 ㄴ18 이는 곧, 주(주권이나 주식을 세는 단위; 영어: interest, share, portion)

사람이 가진 바에 따라 너희 재물에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노니, 이를테면 주린 자를 먹이며, 벗은 자를 입히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구제하되, 영적으로나 현세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따라 행함 같은 것이라. [27]또 모든 일이 지혜와 질서 안에서 행해지도록 할지니, 이는 사람이 그가 가진 힘보다 더 빨리 달음질함이 요구되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또 그는 부지런할 필요가 있나니, 그로써 그가 상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일은 반드시 질서 안에서 행해져야 하느니라. [28]또 나는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니, 너희 중 누구든지 그 이웃에게서 꾸는 자는, 그가 합의하는 대로, 그가 꾸는 것을 되돌려야 하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죄를 범하게 되고, 아마도 네가 네 이웃으로도 죄를 범하게 하리라.

[29]"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가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일러 줄 수 없나니, 이는 다양한 길과 방법이 많이 있어 내가 이를 셀 수 없음이라. [30]그러나 이 정도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 줄 수 있나니, 만일 너희가 너희 자신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실을 살피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고, 우리 주의 오심에 관하여 너희가 들은 것을 믿는 신앙 안에 계속하여 거하되, 실로 너희 생애의 끝까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런즉 이제 오 사람아, 기억하고 멸망하지 말지어다."

백성이 믿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다

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베냐민 왕이 이같이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나서, 그들 가운데 사람을 보내어, 그가 그들에게 한 말을 그들이 믿는지 그의 백성에게 알아보려 하였더라.

[2]이에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쳐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나이다. 또한 우리는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의 확실함과 참됨을 아노니,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 [3]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그의 영의 나타내심을 통하여, 장차 이를 일에 대한 위대한 식견을 가졌나니, 필요하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대하여 예언할 수 있으리이다.

[4]"또 우리로 이 큰 지식에 이르게 한 것은 우리 왕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은 그 신앙이오니, 이로 인해 우리가 이처럼 심히 큰 기쁨으로 기뻐하나이다. [5]이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 하나님과 성약을 맺어 우리의 남은 평생을 두고 그의 뜻을 행하며, 그가 우리에게 명하실 모든 일에 있어 그의 계명에 순종하여, 천사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결코 끝나지 않는 고통을 우리 자신 위에 초래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우리가 마시지 않게 하려 하나이다" 하더라. ㄱ

ㄱ5 모사이야서 3:25~26

그리스도의 자녀

6그리고 이제 이는 베냐민 왕이 그들에게 바라던 말인지라, 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바라던 말을 하였도다. 그리고 너희가 맺은 성약은 의로운 성약이니라. 7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났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 8그리고 이 머리 아래 너희가 자유롭게 되었나니,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른 머리가 없느니라. 구원이 오는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 곧 생애가 끝날 때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바라노라.

9"또 이렇게 되리니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게 될 것이라. 이는 그가 어떤 이름으로 자기가 불리우는지 알 것임이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울 것임이니라. 10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야만 하리라.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왼편에 있게 되느니라. 11그리고 나는 이것이 범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이름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한 그 이름임을 너희가 또한 기억하기 바라노니,ㄱ 그러므로 너희가 범법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그 이름이 너희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 12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그 이름을 항상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간직할 것을 기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왼편에 있지 않게 하고, 너희를 부를 음성과 또한 그가 너희를 부르실 그 이름을 너희가 듣고 알기를 바라노라.ㄴ

13"대저 사람이 자기가 섬기지도 아니하였고, 자기에게 외인이며, 자기 마음의 생각과 의도에서 먼 주인을 어떻게 아느냐? 14그리고 또 사람이 그 이웃에게 속한 나귀를 취하여 기르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것이 자기 떼 가운데서 먹는 것조차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몰아 내며 내어 쫓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 가운데서 참으로 그러하리라.

15"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선한 행실이 가득하여,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기 것으로 인 치시어, 너희로 하늘에 인도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 위에 하나님이 되시는 이의 지혜와 권능과 공의와 자비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갖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름들이 기록되고 모사이야$_2$가 왕으로 성별되다

6 그리고 이제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에,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한 모든 자의 이름을 취해 둠이 마땅하다 생각하였느니라. 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성약을 맺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지 아니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3그리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베냐민 왕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그의 아들 모사이야를 성별하여 그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와 왕이 되게 하고, 그에게 나라에 관한 모든

ㄱ11 모사이야서 1:11~12 ㄴ12 10~12절은 히브리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차 배열 구조를 지님

책임을 맡기고, 또한 제사들을 임명하여 백성을 가르치게 하여, 그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배우게 하고, 또 그들을 일깨워 그들이 맺은 맹세를 기억하게 하도록 한 후, 무리를 보내니, 그들이 각자 그 가족대로 그들의 본집으로 돌아갔더라.

모사이야$_2$가 그의 통치를 시작하다

4 이에 모사이야가 그의 부친을 대신하여 다스리기 시작하니라. 그가 그 나이 삼십 세 때 다스리기 시작하니,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도합 약 사백칠십육 년이 되었더라.ㄱ 5 그리고 베냐민 왕이 삼 년을 살고 죽으니라.

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 왕이 주의 길로 행하며, 그의 법도와 그의 규례를 준행하고, 무엇이든지 그가 그에게 명하시는 모든 일에서 그의 명령을 지켰더라. 7 또 모사이야 왕이 그의 백성들에게 땅을 갈게 하였고, 그 스스로도 땅을 갈아, 그로써 그의 백성에게 짐이 되지 않고자 하였으며, 범사에 그의 부친이 행한 바대로 행하고자 하였더라.ㄴ 이에 삼 년 동안 그의 모든 백성 가운데 다툼이 없으니라.

리하이-니파이 땅에 거하게 된 니파이 정착민들에 대한 기록

모사이야서 7~25장

수색대

7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 왕이 삼 년 동안 계속해서 화평을 누리고 나서,ㄷ 그는 리하이-니파이 땅 곧 리하이-니파이 성에 거하고자 올라간 백성들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난 때로부터 그의 백성이 그들로부터 아무것도 듣지 못하였음이라.ㄹ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강청함으로 왕을 피곤하게 하였더라. 2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 왕이 그들의 용사 중 열여섯에게 리하이-니파이 땅으로 올라가, 그들의 형제에 관하여 알아 볼 것을 허락하니라.ㅁ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그들이 올라가려고 출발하매, 암몬이라 하는 자가 함께 하였으니, 그는 힘이 세고 강한 자요, 제이라헤믈라의 후손이라. 그는 또한 그들의 지도자더라. 4 그런데 이제 그들이 리하이-니파이 땅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광야에서 여행해야 하는 길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날을 방황하였으니, 곧 사십 일을 참으로 그들이 방황하였더라. 5 이에 그들이 사십 일을 방황하고 나서, 샤일롬 땅의 북방에 있는 한 작은 산에 이르러, 거기 그들의 장막을 쳤더라. 6 그리고 암몬이 그 형제 중 셋을 취하니, 그들의 이름은 아맬레카이, 힐렘, 그리고 헴이라. 그들이 니파이 땅으로 내려갔더라.

ㄱ4 기원전 121년경; 모사이야서 29:46 비교 ㄴ7 모사이야서 2:14 ㄷ1 기원전 118년경 ㄹ1 이 정착민들은 옴나이서 1:29~30에서 언급됨 ㅁ2 모사이야$_2$와 그의 백성들의 주된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22:13~14; 24:25이 되어서야 다시 시작됨

림하이 왕과의 면담ㄱ

7그리고 보라, 그들이 니파이 땅과 샤일롬 땅에 있는 백성의 왕을 만나매, 그들이 왕의 호위병들에게 둘러싸여 사로잡히고 결박되어 옥에 갇히니라. 8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틀을 옥에 있은 후 그들이 다시 왕 앞에 끌려 나와, 그들의 결박이 풀리고 그들이 왕 앞에 서서 그가 그들에게 묻는 질문에 대답하도록 허락함을 아니 그보다는 명함을 받았느니라.

9이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노아의 아들 림하이니, 노아는 지니프의 아들이었고, 지니프는 그들 조상의 땅이었던 이 땅을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올라 온 자요, 백성의 소리에 의해 왕이 되었던 자니라. 10또 이제 나는 내가 친히 나의 호위병들과 함께 성문 밖에 있을 때,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올 만큼 그처럼 담대하였는지 그 까닭을 알기 원하노라. 11또 이제 너희에게 물어보고자 하는 이 이유로 내가 너희를 살려 두었나니,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나의 호위병들로 하여금 너희를 죽이게 하였으리라. 너희의 말함을 허락하노라" 하는지라.

12이에 이제 암몬이 말하도록 허락되었음을 보고는, 나아가 왕 앞에 절하고 다시 일어나면서 말하되, "왕이시여, 내가 아직 살아 있고 말함이 허락되었음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매우 감사하오며, 내가 담대히 말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13이는 만일 여러분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이 줄을 두르도록 버려 두지 아니하였을 줄로 내가 확신함이니, 나는 암몬이요 제이라헤믈라의 후손으로서, 지니프가 그 땅에서 인도해 올린 우리 형제들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올라왔음이니이다" 하니라.

14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림하이가 암몬의 말을 듣고 난 후, 심히 기뻐하여 이르되, "이제야 내가 제이라헤믈라 땅에 있던 나의 형제들이 아직 살아 있음을 명백히 알았도다.ㄴ 이에 이제 내가 기뻐할 것이요, 내일은 내 백성들도 기뻐하게 하리로다. 15이는 보라, 우리가 레이맨인들에게 속박되어 있으며, 감당하기 힘든 세금을 부과 받고 있음이라. 이제 보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우리의 속박에서, 곧 레이맨인들의 손에서 건져 내리니,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리라. 이는 우리가 니파이인들의 종이 됨이 레이맨인의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보다 더 나음이라" 하니라.

16이에 이제 림하이 왕이 그의 호위병들을 명하여 더 이상 암몬이나 그의 형제들을 결박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샤일롬 북방에 있는 작은 산으로 가서, 그들의 형제들을 성으로 인도해 들이게 하여, 그로써 그들이 먹고 마시고, 여행의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니, 이는 그들이 많은 일을 당하였음이라. 그들은 굶주림과 목마름과 피곤함을 당하였더라.

림하이가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역사를 상술하다

17그리고 이제 다음 날 이렇게 되었나니 림하이 왕이 그의 모든 백성 가운데 포고를 보내어, 그로써 그들이 성전으로 함께 모여 그가 그들에게 할 말을 듣게 하였더라. 1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가 이같이 그들에게 일러 이르되, "오 너희 나의 백성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고 위로를 받으라. 이는 보라, 헛되었던 우리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원수들에게 종속되어 있지 아니할 때가 가까워, 곧 그리 멀지 아니하였음이니, 나는 아직 해 볼만한 한 가지 효과적인 노력이 남아 있다고 믿노라. 19그러므로 너희의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곧

ㄱ7 이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21:18~24 에 나옴 ㄴ14 그의 걱정에 대한 설명은 모사이야서 21:25~26에 나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 위를 걸어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ㄱ]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사 그들로 광야에서 죽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ㄴ] 이외에도 실로 그는 그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하셨느니라. [20]그리고 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실로 지금까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전해 주셨거니와, 보라, 그가 우리를 속박으로 인도해 들이셨음은 우리의 죄악과 가증함의 연고니라.

[21]"그리고 너희 모두가 오늘 증인인 바, 이 백성들 위에 왕이 되었던 지니프는 그의 조상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고자 하는 열의가 지나쳤고, 그리하여 레이맨 왕의 간사함과 간교함에 속임을 당하였나니, 저는 지니프 왕과 조약을 맺고, 그 땅의 일부 곧 참으로 리하이-니파이 성과 샤일롬 성과 그 주변 땅의 영토를 그의 손에 내어 주었느니라—[ㄷ] [22]그러나 저가 이를 행한 것은, 다 이 백성을 복종 곧 속박 당하게 하려는 단 한 가지 목적을 위함이었느니라. 또 보라, 우리는 오늘날 참으로 우리의 옥수수와 우리의 보리와 참으로 우리의 온갖 곡식 전부의 절반과 우리의 양 떼와 우리의 소 떼 증식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을 레이맨인의 왕에게 공세로 바치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의 절반을 참으로 레이맨인의 왕이 우리에게서 요구하니, 곧 우리의 생명까지라.[ㄹ] [23]그러면 이제 이것이 짊어지기에 고통스럽지 아니하냐? 그리고 우리의 이 고난이 혹심하지 아니하냐?

"이제 보라, 우리에게 슬퍼할 이유가 얼마나 크냐. [24]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에게 슬퍼할 이유가 참으로 크니라. 이는 보라 얼마나 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며, 그들의 피가 헛되이 흘린 바 되었는고, 그것도 모두 죄악으로 인하여 그리되었느니라. [25]이는 만일 이 백성이 범법에 빠지지 아니하였더라면 주께서 이 큰 악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버려 두지 아니하셨을 것임이라. 그러나 보라, 그들은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그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 결국은 그들끼리 피를 흘렸느니라.

[26]"그리고 주의 한 선지자를 그들이 죽였나니, 참으로 그들의 사악함과 가증함을 그들에게 고하고, 장차 임할 많은 일, 곧 참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그들이 죽였도다.[ㅁ] [27]또 그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만물의 아버지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그가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리니, 그것은 사람이 태초에 그를 따라 창조된 그 형상이라 하였음으로 인하여, 곧 바꾸어 말하면 그가 이르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살과 피를 입으시고 지면에 나아가시리라 하였음으로 인하여—[ㅂ] [28]그리고 이제 그가 이 말을 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를 죽였고, 이외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 위에 초래하게 한 일을 그들이 많이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속박당하여 있는 것과 또 그들이 심한 고난으로 치심을 입고 있는 것을 누가 놀라워하겠느냐?

[29]"이는 보라, 주께서 이르시되, '나의 백성이 범법하는 날에 나는 그들을 구제하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내가 그들의 길을 막아 그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들의 행위가 그들 앞에 거치는 돌이 되리라' 하셨음이라.

[30]"그리고 또 그가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만일 더러움을 뿌릴진대 그들은 회리바람 가운데 그것으로부터 겨를 거두게 될 것이요, 그 결과는 독이라.'

[ㄱ]19 출애굽기 14:21~22 [ㄴ]19 출애굽기 16:35 [ㄷ]21 이 절과 다음 절에 나오는 림하이의 설명은 지니프의 개인 기록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따옴; 모사이야서 9:3, 10 참조 [ㄹ]22 이 관행의 최초 원인은 모사이야서 19:15에 나옴 [ㅁ]26 여기 언급된 선지자는 아빈아다이를 말함; 모사이야서 11:20~17:20 참조 [ㅂ]27 모사이야서 13:33~34; 15:1~4; 17:7~8

31 "또 그가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만일 더러움을 뿌릴진대 그들은 즉시로 멸망을
가져오는 동풍을 거두게 되리라' 하셨음이라.ㄱ
32 "또 이제 볼지어다, 주의 약속이 성취되어 너희가 치심을 입으며 고난을 받는도
다. 33 그러나 만일 너희가 마음의 뜻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고, 그를 신뢰하고, 부지
런히 마음을 다하여 그를 섬길 터이면, 만일 너희가 이를 행하면, 그는 자기의 뜻과
기뻐하시는 바를 좇아,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 내시리라."

암몬$_1$이 림하이 백성에게 제이라헤믈라에서의 일을 말하다

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림하이 왕이 그의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 이는 그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였으나 그 가운데 조금만을 내가 이 책에 기록하
였음이라, 그의 백성에게 제이라헤믈라 땅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 관한 것을 모두
고하였더라. 2 또 암몬으로 하여금 무리 앞에 일어서서, 지니프가 그 땅에서 올라간 때
로부터 그 자신이 그 땅에서 올라올 때까지 그들의 형제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모두
그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하게 하니라. 3 이에 그는 또한 베냐민 왕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마지막 말씀도 그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하고, 이를 림하이 왕의 백성들에게 설명하여,
그들로 그가 하는 모든 말을 깨닫게 하였더라. 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 모
두를 행하고 난 후, 림하이 왕이 무리를 보내어, 그들로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니라.

야렛인의 기록과 니파이인 선견자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의 백성의 기록 곧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던
때로부터의 기록을 담고 있는 판들을 암몬 앞에 가져오게 하여, 그로 그것을 읽게 하
였느니라. 6 이제 암몬이 그 기록을 읽고 나자마자, 왕이 그에게 물어 혹 그가 언어를
해석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하매, 암몬이 그에게 고하기를 할 수 없다 하였더라.
7 이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 백성의 고난으로 인해 비통하게 되어, 내가 내 백성
중 마흔셋으로 하여금 광야로 여행을 떠나게 하여,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제이라헤믈
라 땅을 찾도록 하여, 우리를 속박에서 건져 줄 것을 우리의 형제들에게 호소하고자
하였느니라. 8 그런데 그들이 여러 날 동안 광야에서 길을 잃고, 그럼에도 그들은 부지
런하였으나 제이라헤믈라 땅을 찾지 못하고 이 땅으로 되돌아오면서, 많은 물들 가운데
있는 한 땅을 지났고, 사람과 짐승의 뼈로 뒤덮여 있고, 또한 온갖 건물의 잔해로 뒤
덮여 있는 한 땅을 발견하였나니, 곧 이스라엘의 만군과도 같은 수많은 백성이 살았던
한 땅을 발견하였더라.
9 "그리고 그들이 말한 바가 참이라는 증거로서 그들은 새긴 것이 가득 차 있는 스
물넉 장의 판을 가져왔는데, 그것들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더라.ㄴ 10 그리고 보라, 또한
그들이 가슴판도 여러 개 가져왔으니, 그것들은 크고 놋과 구리로 되어 있으며 아주
온전하니라. 11 그리고 또 그들이 검들을 가져왔는데, 그 손잡이는 없어지고, 그 날은
녹으로 부식되어 있었느니라. 그런데 그 판에 있는 언어 혹은 새겨진 것들을 능히 해
석할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너는 번역할 수
있느냐' 한 것이라. 12 이에 내가 다시 네게 말하노니, 너는 누구 번역할 수 있는 자를

ㄱ31 29~31절의 세 가지 예언들의 근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아빈아다이로 추정 ㄴ9 이 판에 실린 기록은 모사이야$_2$가 번역한 다음 모로나이$_2$가 이더서에 요약한 것임; 모사이야서 28:10~19과 이더서 1:1~2 참조; 이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21:25~27에서도 다시 나옴

알고 있느냐? 이는 내가 이 기록이 우리의 언어로 번역되기를 원하고 있음이니, 아마도 이 기록은 우리에게 이 기록의 출처가 되는 멸망당한 백성의 남은 자에 대해 알려 줄 것이요, 아니면 아마도 이 기록은 바로 이 멸망당한 백성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 줄 것임이라. 또 나는 그들이 멸망당한 까닭을 알기 원하노라" 하는지라.

13 이제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 기록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왕이시여, 당신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나이다. 이는 그가 고대의 모든 기록을 보고 번역할 수 있는 방편을 갖고 있음이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해석기라 하며, 명하심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그것들을 들여다 볼 수 없음은, 보려 해서는 안될 것을 보려 하다가 죽을까 함이요. 누구든지 그것을 들여다보도록 명하심을 받은 이, 그는 선견자라 일컬어지나이다. 14 또 보소서, 제이라헤믈라 땅에 있는 백성의 왕이 이러한 일을 하도록 명하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높은 은사를 가진 이니이다" 하더라.

15 이에 왕이 이르되 선견자는 선지자보다 더 크다 하는지라.

16 또 암몬이 이르되 선견자는 계시자요 또한 선지자니, 아무도 지닐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더 큰 은사를 가질 수 없나이다. 그러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큰 권능을 지닐 수 있나이다. 17 그러나 선견자는 지난 일과 또한 장차 올 일에 대하여 알 수 있으며, 그들에 의해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인 바, 더욱이 은밀한 일들이 나타날 것이며, 감추인 일들이 밝혀질 것이요, 알려지지 아니한 일들이 그들에 의해 알려질 것이며, 또한 달리 알려질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 의해 알려질 것이니이다. 18 이와 같이 하나님은 방편을 마련하사 사람이, 신앙을 통하여, 능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는 자기 이웃에게 큰 유익이 되나이다 하니라.

19 이에 이제 암몬이 이 말 하기를 마치매 왕이 심히 기뻐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르되, "의심할 여지없이 큰 비밀이 이 판 안에 들어 있으며, 해석기는 의심할 여지없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든 비밀을 밝혀 줄 목적으로 예비되었도다.

20 오 주의 일이 어찌 그리 기이하며,
그는 그의 백성을 어찌 그리 오래 참으시는고,
그뿐 아니라 사람의 자녀들의 이해력이
어찌 그리 맹목적이며 우둔한고,
이는 그들이 지혜를 찾으려 아니하며
지혜가 그들을 다스림을 바라지도 아니함이로다!
21 참으로 그들은 목자에게서
도망하여 흩어지고
숲의 짐승들에게 쫓기며 삼킴을 당하는 들양 떼 같도다."ㄱ

ㄱ21 림하이가 아빈아다이를 인용할 지도 모름; 모사이야서 17:17 참조

지니프 백성의 역사 (회상 장면)[ㄱ]

모사이야서 9~21장

지니프 개인의 기록[ㄴ]

모사이야서 9~10장

지니프의 기록—그의 백성의 기사니,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던 때로부터 레이맨인들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게 될 때까지라.

힘으로 점령하려던 시도의 실패[ㄷ]

9 나 지니프는 니파이인들의 모든 언어로 가르침을 받았고, 니파이 땅 곧 우리 조상들의 첫번 기업의 땅에 대한 지식을 가졌더니, 레이맨인들 가운데 정탐으로 보냄을 받아, 우리 군대가 그들을 습격하여 멸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전력을 탐지하게 되었느니라—그러나 내가 그들 가운데 선한 바를 보았을 때 나는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게 되었느니라.'[ㄹ] 2그리하여 나는 광야에서 나의 형제들과 다투었나니, 이는 내가 우리의 지도자가 그들과 조약을 맺기를 원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는 엄하고 피에 목마른 사람이라 내가 죽임을 당하도록 명하였으나, 많은 피를 흘림으로써 나는 구출되었나니, 이는 아버지가 아버지를 대적하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여 싸워서, 우리 군대의 대다수가 광야에서 멸절되기에 이르렀음이라. 이에 우리, 곧 우리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돌아가 그 이야기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해 주었느니라.

레이맨$_2$ 왕과의 조약

3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우리 조상들의 땅을 상속하려는 열의가 지나쳐, 그 땅을 소유하러 올라가기 원하는 자들을 모두 모아, 그 땅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다시 광야로 우리의 여행을 시작하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기근과 심한 고난으로 치심을 당하였나니, 이는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기억하기를 더디 하였음이라. 4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여러 날을 방황한 후에 우리는 우리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던 곳에 우리의 장막을 쳤나니, 이는 우리 조상들의 땅에 가까운 곳이더라.

5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다시 나의 사람 넷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서, 왕에게로 들어가 왕의 의향을 알고 혹 내가 나의 백성들과 더불어 들어가서 평안히 그 땅을 소유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하였느니라. 6이에 내가 왕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나와 언약하여 내가 리하이-니파이 땅과 샤일롬 땅을 소유하도록 하였느니라. 7그리고 그가 또한 명하여 그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매, 나와 나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느니라.

[ㄱ1] 이 장황한 부분은 역사적인 여담으로 암몬$_1$이 모사이야서 8:5에서 읽은 기록들의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함; 암몬$_1$과 림하이가 선견자들에 대해 나누던 대화는 모사이야서 21:28에서 다시 시작됨 [ㄴ1] 지니프가 쓴 이 두 장은 1인칭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내장된 문서로 볼 수 있음 [ㄷ1] 이 원정대는 이전에 옴나이서 1:27~28에서도 언급되었음 [ㄹ1] 기원전 200년경

8이에 우리가 건물들을 지으며, 성의 벽 곧 참으로 리하이-니파이 성과 샤일롬 성의 벽을 중수하기 시작하였느니라. 9그리고 우리는 참으로 온갖 종자를 가지고, 곧 옥수수와 밀과 보리의 종자를 가지고 또 니애스를 가지고 또 시움을[ㄱ] 가지고 또 온갖 실과의 종자를 가지고 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나니, 이에 우리는 그 땅에서 번성하며 번영하기 시작하였느니라. 10이제 레이맨 왕이 그 땅을 내어 주어 우리로 그것을 소유하게 한 것은, 나의 백성을 속박으로 끌어들이려는, 그의 간사함과 간교함이었더라.

레이맨인과의 첫 번째 전투

11그러므로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십이 년[ㄴ] 동안을 그 땅에 거한 후에 레이맨 왕이 불안해하기 시작하였으니, 어떻게라도 나의 백성이 강하여져, 그들이 저들을 이기고 저들을 속박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였음이라. 12이제 그들은 게으르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이었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속박으로 끌어들이기 원했던 것은, 우리 손의 수고로 실컷 배불리려 하며, 참으로 우리 들판의 양 떼로 성찬을 벌이고자 함이었더라. 13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왕이 그의 백성을 선동하여 나의 백성과 다투게 하기 시작한지라, 그러므로 이 땅에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느니라.

14이는 니파이 땅에서의 나의 치세 제십삼년에,[ㄷ] 멀리 샤일롬 땅 남쪽에서 나의 백성들이 그들의 양 떼를 먹이며 그것들에게 물을 주며 그들의 땅을 갈고 있을 때, 수많은 레이맨인의 한 무리가 그들을 습격하여 그들을 죽이며, 그들의 양 떼와 그들 밭의 옥수수를 빼앗기 시작하였음이라. 15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붙잡히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 니파이 성으로 도망하여, 나에게 보호를 요청하였느니라. 1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활과 화살과 검과 신월도와 곤봉과 물매와 우리가 고안해 낼 수 있었던 온갖 무기로 나의 백성들을 무장시켰으며, 그러고 나서 나와 나의 백성들은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아갔더라.

17참으로 주의 힘을 입고 우리가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아갔으니, 이는 나와 나의 백성이 주께 간절히 부르짖어 그가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구하였음이라. 이는 우리가 일깨움을 받아 우리 조상들을 건지신 일을 기억하였음이니라. 18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우리는 그의 힘을 입고 나아갔나니, 참으로 우리는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나아가, 하루 낮과 하루 밤 동안에 삼천사십삼 명을 죽이되, 우리가 그들을 우리 땅에서 몰아내기까지 그들을 죽였느니라. 19또 나 자신 친히 내 손으로 그들의 죽은 자들을 묻는 것을 도왔느니라. 그리고 보라, 우리의 형제 이백칠십구 명이 죽임을 당하여, 우리는 크게 슬퍼하고 애통하였느니라.

[ㄱ] 9 "니애스"과 "시움"의 정확한 식별은 명확하지 않으나 어떤 곡물 종류들인것으로 보여짐 [ㄴ] 11 기원전 185년경 [ㄷ] 14 기원전 185년경

번영과 전쟁을 위한 준비

1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다시 왕국을 확립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는 다시 평안히 이 땅을 소유하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리고 나는 각종 전쟁 무기를 만들게 하여, 그로써 레이맨인들이 나의 백성을 치러 다시 올라올 때를 대비하여 나의 백성들을 위한 무기를 갖고자 하였느니라. [2]내가 또 이 땅 주위에 파수꾼을 세워, 레이맨인들이 불시에 다시 우리를 습격하여 와서 우리를 멸하지 못하게 하였나니, 이같이 나는 나의 백성과 나의 양 떼를 지켜, 그들이 우리 원수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3]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여러 해 동안, 곧 이십이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땅을 기업으로 누렸느니라.[ㄱ] [4]또 나는 남자들로 하여금 땅을 갈고, 온갖 곡식과 각종 온갖 과일을 재배하게 하였느니라. [5]나는 또 여자들로 하여금 길쌈을 하며, 수고하며, 일하며, 온갖 세마포와, 또한 각종 옷감을 짜게 하여, 우리가 우리의 벌거벗음을 가리울 수 있게 하였나니, 이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번영하였고—이리하여 우리는 이십이 년 동안 계속하여 평화를 누렸느니라.

전쟁을 위해 두 번째로 올라가다

[6]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그를 대신하여 다스리기 시작하더니, 그가 나의 백성을 거스려 모반하여 자기 백성을 선동하기 시작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며, 나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오기 시작하였느니라. [7]그러나 나는 그들의 준비를 알아내어, 그들에게 대하여 방비하여 그들이 내 백성을 습격하여 멸하지 못하게 하고자, 셈론 땅 주위에 나의 정탐들을 내보내 두었었느니라. [8]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들의 수많은 무리와 함께 샤일롬 땅 북방으로 올라왔으니, 곧 활과 화살과 검과 신월도와 돌과 물매로 무장을 한 자들이라. 그들은 머리를 밀어 그 머리로 벗어지게 하였으며, 그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더라.

[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내 백성 중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광야에 숨게 하였고, 내가 또한 무기를 들 수 있는 나의 모든 늙은이들과 또한 능히 무기를 들 수 있는 나의 모든 젊은이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가도록 하되, 나는 그들을 각자 그 나이를 따라 그들의 대열에 배치하였느니라. [10]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갔고, 나, 곧 나도 내 늙은 나이에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갔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참으로 주의 힘을 입고 싸우러 올라갔느니라.

[ㄱ]3 기원전 175년경

레이맨인의 전통

11 이제 레이맨인들은 주에 관하여서나, 주의 힘에 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했
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 자신의 힘에 의지하였더라. 그럼에도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강한 백성이었느니라. 12 그들은 거칠고, 흉포하며, 피에 목마
른 백성으로, 그들 조상의 전통을 믿었나니, 그 전통은 이것이라—곧 믿기를
그들은 그들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땅에서 쫓겨났으며, 또 그
들은 광야에서 그 형제들에게 불의를 당하였으며, 또 그들은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도 불의를 당하였으며, 13 그리고 또 그들이 바다를 건넌 후, 그들은 그
들의 첫번 기업의 땅에 있는 동안에도 불의를 당하였다 하는 것이니, 이는 다
니파이가 주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 더 충실하였던 연고라—그러므로 그가 주
께 은혜를 입었었나니, 이는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 응답하셨고,
그는 광야에서 그들 여행의 인도자 노릇을 하였음이니라.

14 그러나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의 행하심을 깨
닫지 못한 연고요,[ㄱ] 또한 그들은 물 위에서 그에게 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주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한 연고였음이라.[ㄴ] 15 그리고 또 그들은 약속
된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에게 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손에서 백성 다스림을 빼앗았다 하는 연고라, 이에 그들은 그를 죽이려 하였
느니라.[ㄷ] 16 그리고 또 그들은 그가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광야로 떠나며
놋쇠판에 새겨진 기록들을 취한 까닭에 그에게 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말하
기를 그가 우리의 것을 도적질하였다 하였음이라.[ㄹ]

17 이같이 그들은 그 자녀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미워하게 하
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살해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탈취하고
약탈하며, 그들을 멸하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게 하였나
니, 그러므로 그들은 니파이의 자손들에 대한 영원한 증오를 가지고 있느니라.
18 바로 이 까닭에 레이맨 왕은 그의 간사함과 간교한 거짓과 그럴듯한 약속으
로 나를 속여, 내가 나의 이 백성을 이 땅으로 인도해 올려 들이도록 하였고,
그들을 멸하고자 하였느니라. 참으로 우리는 이 여러 해를 이 땅에서 고생해
왔느니라.

니파이인들의 승리

19 이에 이제 나 지니프는 레이맨인들에 관하여 나의 백성에게 이 모든 것을 일러
주고 나서, 나는 그들에게 주를 신뢰하고, 그들의 힘을 다해 가서 싸우도록 격
려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싸웠느니라. 20 그
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우리 땅에서 그들을 다시 몰아 내었으며, 그들을
크게 도륙하였으니, 그 수가 심히 많아 우리가 세지 아니하였느니라. 2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으며, 나의 백성들은
다시 그들의 양 떼를 치며, 그들의 땅을 갈기 시작하였느니라. 22 그리고 이제
내가 늙었으므로, 나의 아들 중 하나에게 나라를 넘겨주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노라. 주께서 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실지로다. 아멘.

[ㄱ] 14 니파이전서 2:12 [ㄴ] 14 니파이전서 18:10 [ㄷ] 15 니파이후서 4:13; 5:1~3 [ㄹ] 16 니파이후서 5:5~7, 12

간악한 왕 노아[3]

1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지니프가 그의 아들 중 하나인 노아에게 나라를 넘겨 준지라,[ㄱ] 그러므로 노아가 그 부친을 대신하여 다스리기 시작하였으나, 그가 그 부친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2]이는 보라,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욕망을 좇아 행하였음이라. 또 그는 많은 처와 첩을 두었고, 또 그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며, 주의 보시기에 가증한 바를 행하게 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은 음행과 온갖 간악함을 범하였더라.

[3]또 그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의 오분의 일을 세금으로 부과하였으니, 그들의 금과 그들의 은의 오분의 일과 그들의 지프와[ㄴ] 그들의 구리와 그들의 놋과 그들의 철의 오분의 일과 그들의 가축의 오분의 일과 또한 그들의 모든 곡물의 오분의 일이라. [4]그리고 이 모두를 실로 그가 취하여 자기와 자기의 처들과 자기의 첩들과 또한 자기의 제사들과 그들의 처들과 그들의 첩들을 부양하였나니, 이같이 그가 나라의 정사를 바꾸었더라. [5]이는 그가 그의 부친에 의해 성별되었던 모든 제사들을 폐하고, 그들 대신에 마음의 교만으로 자고하여진 자들 같은 새로운 자들을 성별하였음이라. [6]참으로 이와 같이 그들의 게으름과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음행이, 노아 왕이 그의 백성에게 지운 세금으로 지원되었나니, 이리하여 실로 백성들은 죄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히 일을 많이 하였더라. [7]그뿐 아니라 그들도 또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왕과 제사들의 헛되고 아첨하는 말에 속은 까닭이라. 이는 그들이 참으로 그들에게 아첨이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였음이라.

[8]또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 왕이 우아하고 넓은 건물을 많이 짓고, 나무와 온갖 귀한 것과, 금과 은과 철과 놋과 지프와 구리의 세공으로 그것들을 꾸몄으며, [9]그리고 그가 또한 자기를 위하여 넓은 궁궐을 짓고, 그 가운데 보좌를 만들었으니 이 모두는 좋은 목재로 되었고 금과 은과 귀한 것으로 꾸몄더라. [10]그리고 그가 또한 자기의 장인들로 하여금 성전 경내에서, 좋은 목재와, 구리와, 놋으로 온갖 세공일을 하게 하였더라. [11]그리고 대제사들을 위하여 구별해 놓은 좌석들은, 다른 모든 좌석들보다 위에 있었는데 그가 순금으로 꾸몄고, 또 그것들 앞에 흉벽을 쌓게 하여, 그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거짓되고 헛된 말을 하는 동안,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팔을 그 위에 편히 두도록 하였더라.

[12]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성전 가까이에 망대를 하나 세웠으니, 참으로 대단히 높은 망대라. 어찌 높은지 그가 그 꼭대기에 서서 샤일롬 땅과 또한 레이맨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셈론 땅을 내려다볼 수 있었으며, 심지어 그가 주변의 모든 땅을 살펴볼 수도 있었더라. [13]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샤일롬이라 하는 땅에 많은 건물을 짓게 하였고, 샤일롬이라 하는 땅 북쪽 언덕에 큰 망대를 세우게 하였으니, 이 곳은 니파이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도망하여 나갈 때 그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었던 곳이라.[ㄷ] 그가 자기의 백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얻은 재물로 이같이 행하였더라.

[14]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마음을 그의 재물에 두었고, 또 그 처들과 첩들과 더불어 방탕한 생활로 그의 시간을 보내었으며, 그의 제사들도 그같이 창녀들과 더불어 그들의 시간을 보내었더라. [15]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 땅 도처에 포도원을 세웠고, 또 그가 포도주 틀을 짓고 포도주를 풍부히 제조하였나니, 그러므로 그와 또한 그의 백성이 술꾼이 되었느니라.

[ㄱ]1 대략 기원전 160년경 [ㄴ]3 "지프"의 정확한 식별은 확실하지 않으나 어떤 금속인 것으로 보여짐 [ㄷ]13 모사이야서 10:8~9 아니면 옴나이서 1:12~13에 나오는 사건으로 추정

레이맨인들과의 갈등

1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들어와 그의 백성을 습격하기 시작하되, 소수를 습격하여, 그들이 양 떼를 치고 있는 동안 그들의 들에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였더라. 17 이에 노아 왕이 이 땅 주위로 수비대를 보내어 저들을 막게 하였으나 그가 충분한 수를 보내지 아니한지라,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습격하여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양 떼를 많이 이 땅에서 몰아가니라. 이와 같이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죽이며, 저들의 증오심을 그들에게 행사하기 시작하였느니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 왕이 그의 군대를 보내어 저들을 대적하게 하매, 저들이 잠시 밀려나니 곧 그들이 잠시 저들을 몰아낸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탈취물을 기뻐하며 돌아왔더라. 19 이에 이제 이 큰 승리로 인하여 그들이 그 마음의 교만으로 자고하여졌나니,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여, 그들의 오십이 레이맨인 수천을 당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그들이 자랑하며 피를 기뻐하며 그들 형제들의 피 흘리기를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왕과 제사들의 간악함으로 인함이었더라.

선지자 아빈아다이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가운데 그 이름이 아빈아다이라 하는 한 사람이 있더니,ㄱ 그가 그들 중에 나아가 예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며 이같이 그가 나를 명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나아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신다 하라—"이 백성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내가 그들의 가증함과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음행을 보았음이니,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분노 중에 그들을 벌하리라. 21 또 그들이 회개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보라, 내가 그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 붙이리니,ㄴ 참으로 그들이 속박에 들게 될 것이며, 그들은 그 원수들의 손에 고난을 당하리라. 22 그리한즉 이렇게 되리니 그들이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요, 내 백성의 죄악을 벌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알리라.'ㄷ
>
> 23 "또 이렇게 되리니 이 백성이 회개하고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속박에 들게 될 것이요, 주 곧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들을 건져 내지 못하리라. 24 그뿐 아니라 이렇게 되리니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 듣기를 더디 할 것이요, 또한 내가 그들로 그 원수들에게 매맞도록 버려 두리라.ㄹ
>
> 25 또 그들이 굵은 베와 재 가운데서 회개하며,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아니할진대,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을 그 고난에서 건져 내지도 아니하리라." '
>
>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며, 이같이 그가 나를 명하셨느니라 하니라."

2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빈아다이가 이러한 말을 그들에게 하였을 때 그들이 그에게 노하여 그의 목숨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주께서 그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 내시니라.

ㄱ 20 기원전 150년경 ㄴ 21 모사이야서 19:13~15, 25~28에서 실현됨; 모사이야서 7:15, 22, 28 비교 ㄷ 22 십계명의 출처인 출애굽기 20:5 참조; 12~13장에서 십계명의 중요한 역할이 나올 것임 ㄹ 24 모사이야서 21:15에서 실현됨

27 이제 노아 왕이 아빈아다이가 백성들에게 한 말을 들었을 때, 그도 역시 노하였나니, 그가 이르되, "아빈아다이가 누구이기에 나와 내 백성이 그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리요, 아니면 주가 누구이기에 내 백성에게 그러한 큰 고난을 가져오겠느냐? 28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아빈아다이를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니, 이는 그가 내 백성을 선동하여 서로 분노하게 하고, 내 백성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고자 이러한 것을 말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죽이리라" 하니라.

29 이제 백성들의 눈이 멀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아빈아다이의 말에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그들이 그때로부터 그를 잡고자 하니라. 또 노아 왕은 주의 말씀에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자기의 악한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빈아다이가 멸망을 예언하다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 년[ㄱ] 후에 아빈아다이가 변장하고 그들 가운데 오매,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더니, 그들 가운데서 예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같이 "주께서 내게 명하셨느니라 이르시되—'아빈아다이야, 가서 나의 이 백성에게 예언하라, 이는 그들이 내 말에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악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분노 중에 그들을 벌하리라, 참으로 나의 맹렬한 노여움 중에 내가 그들의 죄악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리라. 2 참으로 이 세대에게 화 있을진저!'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뻗고 예언하라 이르기를,'

>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세대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속박에 들게 될 것이요, 뺨을 맞게 될 것이며,[ㄴ]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쫓길 것이며 또 죽임을 당하리니, 공중의 독수리들과 개들과 또한 들짐승들이 그들의 살을 먹으리라.[ㄷ]
>
> 3 "또 이렇게 되리니 노아 왕의 목숨은 뜨거운 풀무 속의 옷같이 값 매겨질 것이라. 이로써 그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임이니라.[ㄹ]
>
> 4 "또 이렇게 되리니 내가 심한 고난으로, 참으로 기근과 역병으로 나의 이 백성을 칠 것이며, 또 내가 그들로 온종일 애곡하게 하리라. 5 참으로 그뿐 아니라 내가 그들로 그 등에 짐을 매게 하리니, 그들이 말 못하는 나귀처럼 앞에 내몰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ㅁ] 6 또 이렇게 되리니 내가 그들 중에 우박을 보내리니, 그것이 그들을 칠 것이며, 그들은 또한 동풍으로 치심을 입을 것이며,[ㅂ] 곤충이 또한 그들의 땅을 괴롭히며 그들의 곡식을 삼킬 것이라. 7 또 그들은 심한 역병으로 치심을 입으리니—그들의 죄악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이 모두를 내가 행할 것이라.
>
> 8 "또 이렇게 되리니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지면에서 온전히 멸하여 버릴 것이라. 그러나 그들로 한 기록을 그들 뒤에 남기게 하리니, 이 땅을 차지할 다른 국민들을 위하여[ㅅ] 내가 그것들을 보전하리라. 참으로 이를 내가 행할 것은 내가 이 백성의 가증함을 다른 국민들에게 드러내려 함이니

ㄱ1 기원전 150년경 ㄴ2 모사이야서 21:3에서 실현됨 ㄷ2 앨마서 2:37~38 비교 ㄹ3 모사이야서 19:20에서 실현됨 ㅁ5 모사이야서 21:2~4에서 실현됨 ㅂ6 모사이야서 7:31 참조 ㅅ8 이는 곧, 기록들

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이 백성들에 대해 실로 많은 것을 아빈아다이가 예언하였더라.

아빈아다이가 체포되고 고발당하다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이에 그들이 그를 잡아 결박하고 그를 왕 앞으로 끌고 가서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왕의 백성에 관하여 화를 예언하였고 또 하나님이 저들을 멸하리라 하는 자를 왕의 앞에 끌어 왔나이다. 10 또한 그가 왕의 생명에 관하여서도 화를 예언하며 말하기를, 왕의 목숨이 불의 풀무 속에 든 옷과 같으리라 하나이다. 11 그리고 또 그가 말하기를 왕이 줄기같이, 곧 짐승들이 그 위로 달리며 발 아래 짓밟는 들판의 마른 줄기같이 되리라 하나이다. 12 그리고 또 그가 말하기를 왕이 엉겅퀴의 꽃 같으리니, 그것이 무르익었을 때 바람이 불면 그것이 땅 위에 불려다닌다 하며,ㄱ 그가 주장하기를 주께서 이를 말씀하셨다 하며, 또 그가 말하기를 왕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이 모두가 왕에게 임하리니 이는 왕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하나이다.

13 "또 이제 왕이시여, 왕이 무슨 큰 악을 행하였기에 또는 왕의 백성이 무슨 큰 죄를 범하였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죄를 받거나 또는 이 사람에게 판단을 받아야 하리이까? 14 이에 이제 왕이시여, 보소서, 우리가 무죄하고, 왕이시여 왕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왕께 관하여 거짓을 말하였고 그는 헛되이 예언하였나이다. 15 또 보소서, 우리는 강하온즉 우리가 속박에 들게 되거나, 우리 원수들에게 사로잡힌 바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뿐 아니라 왕은 이제까지 이 땅에서 번영하였나니, 앞으로도 왕은 번영하리이다. 16 보소서, 여기 그 사람이 있사온즉 우리가 그를 왕의 손에 넘기오니, 왕은 왕이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라."

아빈아다이의 재판

모사이야서 12:17~17:20

아빈아다이가 이사야서 52:7~10에 대해 질문 받다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 왕이 아빈아다이를 옥에 던져 넣게 하고, 명하여 제사들을 함께 모이게 하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할지 그들과 회의를 가지려 함이었더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왕에게 이르되, "그를 이리로 데려와 우리로 그를 심문하게 하소서 한지라," 왕이 명하여 그를 그들 앞에 데려오게 하더라. 19 이에 그들이 그를 심문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그를 책잡아 그로 말미암아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었더라. 그러나 그가 담대히 그들에게 대답하고, 그들의 모든 질문을 물리쳐 참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들의 모든 심문에 있어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모든 말에 있어 그들을 파하였음이더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중 하나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가르친 바 기록된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느냐, 일렀으되,

21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ㄱ12 10~12절의 세 가지 비유 중에 한 가지만 3절의 발췌된 아빈아다이의 말에 나옴

평화를 공포하며,
선한 일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22 너의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 오실 때에
그들의 눈과 눈이 마주 봄이로다.
23 소리 높여 기뻐할지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24 주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하였느니라."

노아$_3$ 왕의 제사들이 아빈아다이에게 질문받다

해당 성경구절과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25 이에 이제 아빈아다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제사로서 이 백성을 가르치며 예언하는 영을 깨닫는다 주장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이러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자 하느냐? 2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길을 굽게 함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는 혹 너희가 이러한 것을 깨닫고 있다 하여도 너희가 이를 가르치지 아니하였음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길을 굽게 하였느니라. 27 너희가 깨닫고자 너희 마음을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지혜롭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28 이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노라."

29 다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진대 어찌하여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재물에 너희 마음을 두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음행을 범하며 창기들과 더불어 너희 힘을 소비하며, 더욱이 이 백성으로 죄를 범하게 하여 주로 하여금 나를 보내사, 이 백성에 대하여 예언하되 참으로 이 백성에 대하여 큰 재앙을 예언하게 하실 까닭이 있게 하였느냐? 30 너희는 내가 진실을 말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참으로 너희는 내가 진실을 말하는 줄 아나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떨어야 마땅하니라. 31 또 이렇게 되리니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가 치심을 입을 것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다 하였음이거니와, 너희는 모세의 율법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느냐? 구원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느냐 너희는 무엇이라 하느냐?"

32 이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구원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 하니라.

33 그러나 이제 아빈아다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알거니와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으리라. 참으로 너희가 주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베푸신 계

명을 지키면 그러하리라 이르시되,

34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주 너의 하나님
이로라.
35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ㄱ 네게 있게 말지니라.
36 너는 너를 위하여 아무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아무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의** 아무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
하셨느니라.

37 이제 아빈아다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모두를 행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는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희는 이 백성을 가르쳐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빈아다이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

13 이에 이제 왕이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그가 그의 제사들에게 이르되, "이 자를 끌어내어 죽이라. 그가 미쳤거늘 우리가 그와 상관할 것이 무엇이냐 하더라."

2 이에 그들이 나서서 그에게 손을 대려 하였으나, 그가 그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3 "나를 다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만일 내게 너희 손을 대면 하나님이 너희를 치실 것임이라. 이는 주께서 나를 보내사 전하게 하신 전갈을 내가 아직 전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나에게 말하도록 요구한 바도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은즉,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이 시간에 멸망당하도록 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4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고하였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내게 노하였으며,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였음으로 인하여 너희는 나를 미쳤다고 판단하였도다."

5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빈아다이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난 후 노아 왕의 백성들이 감히 그에게 그 손을 대려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이 그의 위에 있어, 실로 모세의 얼굴이' 시내 산에 있는 동안 주와 말씀할 동안 그러하였던 것같이, 그의 얼굴에서 심히 밝은 광채가 났음이라.ㄴ

십계명

해당 성경구절과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6 또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권능과 권세로 말하였나니, 그가 그의 말을 계속하여 이르되, 7 "'너희에게 나를 죽일 능력이 없음을 너희가 알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전할 말을 다 마치리라. 또한 내가 너희의 죄악에 관하여 진실을 너희에게 고하는 까닭에 그것이 너희 마음을 가르는 듯한 줄 내가 알겠노라. 8 더욱이 내 말이 너희를 경이와 놀라움으로, 그리고 분노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9 그러나 내가 전해야 할 말을 내가 다 마치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내가 구원을 받았을진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도다. 10 그러나 이만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 너희가 나에게 행하는 것이 장차 올 일의 예표와 그림자가 되리라.ㄷ

ㄱ35 출애굽기 20:3에서는 "신들" 나옴 ㄴ5 출애굽기 34:29~35 ㄷ10 모사이야서 19:20; 앨마서 25:9~12에서 실현됨

11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의 나머지를 너희에게 읽어 주리니, 이는 내가
보건대 그러한 것들이 너희 마음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보건대 너희는
너희 생의 대부분 동안 죄악을 연구하고 가르쳐 왔도다. 12 그러면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을 기억하고 있나니,

곧 너는 너를 위하여
아무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들의 아무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ㄱ

13 "그리고 또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조상들의 **죄악**을 자손들에게 갚되,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사 **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14 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자비를 보임이니라.

15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16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17 엿새 동안은 네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8 제칠일,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은,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네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9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음이라.ㄴ
그런즉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20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이 네게 주는 땅에서
네 날이 길 것이니라.

21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ㄱ12 이 절은 모사이야서 12:36에서 나오는 출애굽기 20:4의 인용을 따오지만 여기서는 약간 다르게 인용됨
ㄴ19 아빈아다이가 출애굽기 20:11의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를 누락함

22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23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24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것을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지니라."

모세의 율법

2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아빈아다이가 이러한 말하기를 마친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들을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준행하여 이 계명들을 지키게 하였느냐? 2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는 만일 너희가 그리하였더라면, 주께서 나로 하여금 나아와서 이 백성에 관하여 화를 예언하게 하지 아니하셨을 것임이라.

27 "또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구원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 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직은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할 때가 오리라. 28 그리고 더욱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원이 율법만으로는 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의 죄와 악을 위하여 행하실 속죄가 아닐진대, 모세의 율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가피하게 멸망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29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 율법, 곧 참으로 심히 엄격한 율법이 주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서, 악을 행하기에는 빠르나,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더디 하였음이라. 30 그러므로 한 율법이 그들에게 주어졌었나니, 참으로 의례와 의식의 율법이요, 그들이 매일 엄격히 지켜야 하는 율법이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에 대한 그들의 임무를 늘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었느니라. 31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모든 것은 장차 올 일의 예표였느니라. 32 그러하거늘 이제, 그들이 율법을 깨달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이 모두 율법을 깨닫지는 못하였고, 이것은 그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함이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구속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빈아다이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언급하다

이사야서 53:1~12

해당 성경구절과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33 "대저 보라, 모세가 그들에게 메시야의 오심에 관하여와,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리라는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뿐 아니라 참으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예언하였던 모든 선지자들—그들이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많든 적든 말하지

┐33 신명기 18:15, 18~19 말하는 것으로 추정; 니파이전서 22:20~21 참조

아니하였느냐? [34]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능하신 권능으로 지면 위에 나아가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참으로 이뿐 아니라 그들이 또한 말하기를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오실 것이며, '그가 친히 학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ㄱ

14 "참으로 이사야도 말하지 아니하느냐.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으며
누구에게 주의 팔이 나타났느냐?
2 이는 그가 그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을 것임이라.
그는 모양도 없으며 고운 용모도 없으니,
우리가 그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그를 흠모할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3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나니,
슬픔의 사람이요, 비애를 아는 자라.
우리는 이를테면 우리의 얼굴을 그에게서 가리었나니,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 실로 그는 우리의 비애를 담당하였고,
우리의 슬픔을 졌거늘,
우리는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줄로 여겼도다.
5 그러나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범법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 우리는 모두 양같이 그릇 행하였으며,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돌이켰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7 그가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하였으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니,
마치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가 끌려가되,
양이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같이
그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 그가 옥에서와 또 심판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졌음이라.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도다.
9 또 그가 그 무덤을 악인과 함께 하였고,
그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하였나니,
이는 그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아무 거짓도 없었음으로 인함이라.

ㄱ 35 이사야 53:7; 모사이야서 14:7

10 그럼에도 주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기뻐하사,
그로 비통함을 당하게 하셨은즉,
주께서 그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삼으실 때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요,
그가 그의 날을 길게 할 것이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그의 손에서 번성하리로다.
11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 지식으로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자를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임이라.
12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그로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쏟아 내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법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며
범법자들을 위하여 중재하였음이니라.' "

이사야서 52장~53장에 대한 아빈아다이의 해석

모사이야서 15~16장

아버지이자 아들로서의 그리스도

모사이야서 12장과 14장에서 언급된 구절의 인용은 굵은체로 표시됨

15 그리고 이제 아빈아다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사,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리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 바라노라. 2그가 육체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육체를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셨음으로, 아버지요 아들이 되시니— 3아버지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음으로 인함이요. 아들인 것은 육체로 인함이라. 이리하여 아버지요 아들이 되시나니— 4또 그들은 한 하나님이시라, 참으로 바로 하늘과 땅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니라. 5또 이와 같이 육신이 영에게, 곧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여 한 하나님이 되사, 유혹을 받으시나 유혹에 굴하지 아니하시며, 조롱 받음과 채찍질 당함과 쫓겨남과 자기 백성에게 버림 당함을 참으시느니라.

6"그리고 이 모든 일 후에,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능하신 기적을 많이 행하신 후에, 참으로 이사야가 말한 것같이 그가 끌려가시리니, '**양이 그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같이 그가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ㄱ] 7참으로 이와 같이 그가 끌려 가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리니, 육체는 참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아들의 뜻은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리로다. 8이같이 하여 하나님은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사, 아들에게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 **중재**할 권능을[ㄴ] 주시나니— 9그는 하늘에 오르사 자비의 심정을 지니시고, 사람의 자녀들에 대한 긍휼로 충만하사, 그들과 공의의 사이에 서시고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범법**을 친히 짊어지시고,[ㄷ] 그들을 구속하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느니라."

[ㄱ]6 이사야 53:7; 모사이야서 14:7에 언급됨 [ㄴ]8 이사야 53:12; 모사이야서 14:12에 언급됨 [ㄷ]9 이사야 53:5; 모사이야서 14:5에 언급됨

그리스도의 자손

10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겠느냐?**[ㄱ]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의 영혼이 죄를 위한 제물이 되었을 때에 그가 그의 씨를 볼지니라.**[ㄴ] 그러면 이제 너희가 무엇이라 하겠느냐? 누가 그의 씨가 되겠느냐?

11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선지자들 참으로 주의 오심에 관하여 예언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은 자—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그 백성을 구속하실 것을 믿으며,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해 그 날을 고대한 자들 모두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들이 그의 씨라, 달리 말하자면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들이니라. 12 이는 바로 **이들의 죄를 그가 담당하셨음이요,**[ㄷ] 바로 이들을 위하여 그가 죽으사 그들을 그들의 범법으로부터 구속하고자 하셨음이니, 이제 그들이 그의 씨가 아니겠느냐?

13 "이뿐 아니라 그 입을 열어 예언하며, 범법에 빠지지 아니한 모든 선지자들,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의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이 그의 씨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그의 씨니라.

14 또 이들은 **평화를 공포**한 자들이요,
선한 것의 좋은 소식을 가져온 자들이요,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에게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고 한 자들이라.
15 **오 그들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웠던고!**[ㄹ]
16 또 아직도 **평화를 공포**하고 있는 자들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17 그리고 또 이후로 참으로 이때로부터 영원을 두고
평화를 공포할 자들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18 "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

오 **좋은 소식을 가져오시는 이**시요,
화평을 세우신 이 곧
참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주시요,[ㅁ]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신 이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ㄱ] 10 이사야 53:8; 모사이야서 14:8에 언급됨 [ㄴ] 10 이사야 53:10; 모사이야서 14:10에 언급됨 [ㄷ] 12 이사야 53:12; 모사이야서 14:12에 언급됨 [ㄹ] 15 이사야 52:7 참조; 아빈아다이가 모사이야서 12:20~24에서 받은 질문을 이제 여기서 대답변하는 것에 주목 [ㅁ] 18 이사야 52:7; 모사이야서 12:21에 언급됨

첫번째 부활

19"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구속이 아니었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아니었다면 모든 인류는 반드시 멸망하였을 것임이라. 20그러나 보라, 사망의 줄이 끊어질 것이요, 아들이 다스리시며 죽은 자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셨나니, 그러므로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시느니라. 21이에 부활, 곧 첫째 부활이 오나니, 참으로 이제까지 있었던 자들과 지금 있는 자들과 장차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까지 있을 자들의 부활이라—그리스도라 함은 그렇게 그가 칭함을 받으시겠음이라.

22"또 이제 모든 선지자들의 부활이니, 그들의 말을 믿은 모든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모든 자들이 첫째 부활에 나아오리라. 그러므로 그들은 첫째 부활이니라. 23그들은 일으킴을 받아 그들을 구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나니, 이리하여 그들은 사망의 줄을 끊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갖느니라.

24"또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요. 이들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구원이 그들에게 선포되지 아니하여 무지한 가운데 죽은 자들이라. 그리하여 주께서 이들의 회복을 이루시나니, 이에 그들이 주께 구속함을 받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며 곧 영생을 얻느니라. 25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또한 영생을 갖느니라.

26"그러나 보라, 그리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이는 너희가 떨어야 마땅함이니, 주께서는 그를 거역하고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그러한 자들을 아무도 구속하지 아니하심이라. 참으로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한 자, 하나님을 고의로 거역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그를 지키려 하지 아니한 모든 자니,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니라. 27그러므로 너희가 떨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는 구원이 그러한 자에게 오지 아니함이니, 이는 주께서 그러한 자를 구속하지 아니하셨음이라. 그뿐 아니라 주께서 그러한 자를 구속하실 수도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음이요, 공의가 그 요구를 가질 때 공의를 부인할 수 없으심이니라.

28"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구원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될 때가 이르리라. 29그러하오이다 주여,

'주의 파수꾼들이 그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함께 하여 그들이 노래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볼 것임이니이다.
30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여,**
소리 높여 기뻐할지어다,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31 **주께서 만국의 눈에**
그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ㄱ

ㄱ31 29~31절은 모사이야서 12:22~24에서도 언급된 이사야 52:8~10을 그대로 복제하며 제3니파이 16:18~20와 20:32~35에서 예수님이 또 다시 인용하실 것임

구속과 심판

16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빈아다이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서 그의 손을 내밀고 이르되, "**만인이 주의 구원을 보게 될 때가 이르리니**,[ㄱ] 그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눈과 눈을 마주하고**[ㄴ] 보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판이 공의로우시다 인정할 것이요,

2"또 그때 악인들이 쫓겨 나리니, 그들이 통곡하며, 울며, 애곡하며, 이를 갈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이것은 그들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아니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구속하지 아니하시는 까닭이니라. 3이는 그들이 육신에 속하여 악마 같으며, 악마가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가졌음이니, 참으로 곧 저 옛 뱀이라. 그는 우리의 첫 부모를 속인 자니, 이로 인해 그들이 타락하였고, 이로 인해 모든 인류가 육신에 속하며 육욕적이며 악마와 같이 되고 선악을 분별하며 악마에게 복종하게 되었느니라.[ㄷ]

4"이리하여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바 되었나니, 보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 잃어버린 바 되고 타락된 상태로부터 구속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끝없이 잃어버린 바 되었으리라. 5그러나 기억하라 곧 자기 자신의 육신에 속한 본성을 고집하며, 죄의 길에서 하나님 거역하기를 계속하는 자는, 자기의 타락된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악마가 그를 다스릴 권능을 온전히 갖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과 같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또한 악마 역시 하나님의 원수이니라.

6"그리고 이제 장차 올 일을 마치 이미 임한 것같이 말할진대, 만일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구속이 있을 수 없었으리라. 7또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더라면, 또는 사망의 줄을 끊으사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고, 사망이 쏘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부활이 있을 수 없었으리라. 8그러나 부활이 있나니, 그러므로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며, 사망의 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삼키운 바 되었느니라.

9"그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라. 참으로 결코 어두워질 수 없는 무궁한 빛이시요, 또한 무궁한 생명이시니, 죽음이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10참으로 이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어야 할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혹은 그 행위가 악하든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에게 심판을 받으리니— 11만일 그 행위가 선하다면, 끝없는 생명과 행복의 부활로 나아올 것이요, 만일 그 행위가 악하다면, 끝없는 저주의 부활로 나아와, 그들을 굴복시킨 악마에게 넘기우리니, 이는 곧 저주라— 12그들 스스로의 육신의 뜻과 욕망을 좇아가서, 자비의 팔이 그들을 향해 펴져 있는 동안 결코 주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비의 팔이 그들을 향해 펴졌으나,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경계하심을 받음에도 그들이 그로부터 떠나려 아니하였으며, 회개하도록 명하심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회개하려 아니하였음이라.

13"그러하거늘 이제 너희가 마땅히 떨며 너희의 죄를 회개하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지 않겠느냐? 14그러므로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진대, 그것이 장차 올 일들의 그림자임을 또한 가르치라— 15구속이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아멘."

ㄱ1 이사야 52:10; 모사이야서 12:24; 15:31에 언급됨; 노아$_3$의 제사들이 모사이야서 12:20~24에서 질문한 것에 대한 아빈다이의 대답은 여기에서 계속되어짐 ㄴ1 이사야 52:8; 모사이야서 12:22; 15:29에 언급됨
ㄷ3 창세기 3:1~24

앨마$_1$가 아빈아다이의 말을 믿다

17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빈아다이가 이러한 말 하기를 마치자, 왕은 제사들에게 그를 잡아 그로 죽음을 당하게 할 것을 명하였더라.

[2]그러나 그들 중에 이름이 앨마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또한 니파이의 후손이라. 그는 젊은 사람이었고 또 그가 아빈아다이가 한 말을 믿었으니, 이는 그가 아빈아다이가 그들에게 대하여 증거한 죄악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이라. 그리하여 그가 왕에게 아빈아다이에게 노하지 말고, 그로 평안히 떠나게 할 것을 간청하기 시작하였더라. [3]그러나 왕이 더욱 노하여 앨마를 그들 중에서 쫓아내게 하고, 그를 뒤따라 그의 종들을 보내어 그를 죽이게 하니라. [4]그러나 그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여 몸을 숨기매 그들이 그를 찾지 못하니라. 이에 앨마가 여러 날 동안 숨어 있으면서 아빈아다이가 한 모든 말을 기록하니라. ㄱ

아빈아다가 죽임 당하다

[5]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그의 호위병들로 하여금 아빈아다이를 에워싸고 그를 잡게 하매, 그들이 그를 결박하여 옥에 던져 넣으니라. [6]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그의 제사들과 의논을 하고 나서, 그가 다시 그를 자기 앞에 데려오게 하였더라.

[7]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아빈아다이야 우리가 너에 대한 죄과를 발견하였나니, 너는 죽어 마땅하도다. [8]이는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내려오시리라 하였음이니,ㄴ 이제 네가 나와 나의 백성에 관하여 화를 이야기한 그 모든 말을 취소하지 아니할진대, 이 이유로 네가 사형에 처하여지리로다.

[9]이제 아빈아다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는 이 백성에 관하여 너희에게 한 말을 취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것들이 진실함이요, 또 너희로 그 확실함을 알게 하고자 내가 스스로를 너희 수중에 떨어지게 하였음이라. [10]그뿐 아니라 내가 참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하려니와, 나는 나의 말을 취소하지 아니하리니, 그 말은 너희를 치는 증거가 되리라. 또 만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가 무죄한 피를 흘림이 되리니, 이 또한 마지막 날에 너희를 치는 증거가 되리로다."

[11]이에 이제 노아 왕이 바야흐로 그를 놓으려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을 두려워하였음이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할까 그가 두려워하였음이더라. [12]그러나 제사들이 그를 대적하여 그 소리를 높여서, 그를 참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그가 왕을 욕하였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그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 그를 넘겨주어 그로 죽임을 당하게 하니라.

[1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를 잡고 결박하여, 참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나뭇단으로 그의 살갗을 매질하였더라. [14]그리고 이제 불길이 그를 태우기 시작하자, 그가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15]"보라, 너희가 내게 행한 것같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너의 자손의 많은 자로 하여금 내가 당하는 고통, 곧 불에 타 죽는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요, 이는 저들이 주 저들의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인함일 것이니라. [16]또 이렇게 되리니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갖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것이요, [17]참으로 또한 너희는 사방으로 치심을 당할 것이요, 또 들양 떼가 사납고 흉포한 짐승들에게 쫓김같이, 쫓기며 이리저리 흩음을 당할 것이니라. [18]또 그 날에 너희가 수색을 당할 것이며,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손에 잡히게 될 것이요, 또 그때 너희가, 내가 겪

ㄱ 4 이 기록은 이전 내용의 출처인것으로 추정; 앨마$_1$의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18:1에서 다시 시작됨 ㄴ 8 모사이야서 13:34; 15:1

는 것같이 불에 타 죽는 고통을 당하리라.ㄱ [19]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멸하는 자들에게 보복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니라."

[20]이에 이제 아빈아다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쓰러졌으니, 불에 타 죽음을 당함이라. 참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부인하지 않으려 한 연고로 죽임을 당함이니,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 말의 참됨을 인봉함이었더라.

앨마$_1$가 아빈아다이의 일을 계속하다ㄴ

18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 왕의 종들에게서 도망한 앨마는, 자기의 죄와 악을 회개하고 백성들 가운데로 은밀히 다니면서, 아빈아다이의 말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나니— [2]참으로 장차 올 일에 관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권능과 고난과 죽음과 그의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죽은 자의 부활과 백성의 구속에 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였더라. [3]그리고 그의 말을 듣고자 하는 모든 자를 그가 가르치되, 왕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려 은밀한 가운데 그들을 가르치매 많은 자들이 그의 말을 믿으니라.

[4]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하는 말을 믿는 자들이 모두 몰몬이라 하는 곳으로 나아가니, 이 곳은 그 이름을 왕으로부터 받았고, 그 땅의 경계에 있어 때가 되면 혹은 철따라 들짐승들이 들끓는 곳이더라. [5]이제 몰몬에 맑은 물의 수원이 있어, 앨마가 늘 그리로 갔으니 거기 물 가까이에 작은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이 있어, 그 곳에서 그가 낮 동안 왕의 수색을 피하여 몸을 숨겼더라. [6]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하는 말을 믿는 자마다 그의 말을 들으려고 그리로 가더라.

앨마$_1$가 침례를 주다

[7]또 이렇게 되었나니 여러 날 후에 몰몬의 장소에 앨마의 말을 들으려고 모인 수가 꽤 많았으니, 참으로 그의 말을 믿는 자들이 모두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함께 모였더라. 이에 그가 그들을 가르치며, 회개와 구속과 주를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전파하니라.

[8]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여기에 몰몬의 물이 있으니 (이는 그 물이 그렇게 일컬어졌음이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9]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너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아
영생을 얻고자 한즉—

ㄱ18 모사이야서 19:20; 앨마서 25:4~12에서 실현됨 ㄴ1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17:4에서 다시 시작됨

10"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너희 마음의 원하는 바일진대 주께서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와 성약을 맺었다는 그의 앞에서의 증거로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음에 너희가 꺼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

11이에 이제 무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외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원하는 바라" 하더라.

12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첫 무리 중 하나인 힐램을 취하여, 물에 들어가 서서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주의 종 위에 주의 영을 부으사, 저로 하여금 거룩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더라.

13그리고 그가 이 말을 하고 나자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지라, 그가 이르되, "힐램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를 지니고, 나는 네가 필멸의 육신으로 죽기까지 그를 섬기기로 성약을 맺었다는 증거로서 네게 침례를 주노니, 주의 영이 너에게 부어지기를 빌며,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가 예비해 두신 자, 곧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그가 네게 영생을 주시기를 비노라" 하더라. 14또 앨마가 이 말을 한 후 앨마와 힐램 둘 다 물에 잠기더니, 그들이 영으로 충만하여 일어나 기뻐하며 물에서 나오니라.

15그리고 또 앨마가 다른 자를 취하여 두 번째로 물에 들어가 처음대로 그에게 침례를 주되, 그 자신은 다시 물에 잠기지 아니하였더라. 16그리고 이와 같이 그가 몰몬의 장소에 나아간 각 사람 모두에게 침례를 주니, 그들은 수효가 대략 이백네 명이라. 참으로 그들은 몰몬의 물에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앨마$_1$가 교회를 세우고 제사를 성임하다

17또 그때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의 교회라 일컬어졌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침례를 받는 자는 그의 교회에 더하여지더라.

18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를 지니고 제사를 성임하되, 그들의 수의 오십마다 한 명의 제사를 성임하여, 그들에게 전파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들에 관하여 가르치게 하였더라. 19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자기가 가르친 것과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하여 진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20참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회개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신 주를 믿는 신앙이 아니면, 아무것도 전파하지 않게 하였더라. 21또 그가 그들에게 서로 다툼이 없어야 할 것과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고, 한 신앙과 한 침례를 가지고 한 눈으로 앞을 바라볼 것을 명하였더라. 22또 이같이 그가 그들을 명하여 전파하게 하였고, 이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

23그가 또 그들에게 명하여 안식일을 준수하며 이를 거룩히 지키게 하고, 또한 매일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더라. 24또한 그들에게 명하여 그가 성임한 제사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 스스로의 손으로 일하게 하였더라. 25또 매주 정해진 날 하루가 있어, 그들이 함께 모여 백성들을 가르치고 주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그들의 힘이 미치는 한 자주 함께 모이더라. 26또 제사들은 자기의 생계를 백성들에게 의지해서는 아니되었고, 그들의 수고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영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과 권세로 가르칠 수 있게 하려 함이었더라.

27 그리고 또 앨마가 명하여 교회의 백성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가 가진 바에 따라,
자신의 재물에서 나누어 주게 하되, 만일 더욱 풍족하게 가졌다면 그는 더욱 풍족하게
나누어 주게 하고, 조금 밖에 갖지 못한 자에게는 조금 밖에 요구하지 않게 하고, 갖지
못한 자에게는 주게 하였더라. 28 그리고 이같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의 자유의
사와 하나님께 대한 선한 소망으로 그들의 재물에서 나누어, 궁핍에 처한 제사들과
또한 궁핍하고 헐벗은 모든 영혼에게 주도록 하였더라. 29 그리고 이를 그가 그들에게
이른 것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것이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부족에 따라 서로 나누었더라.

30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모든 일은
몰몬에서 참으로
몰몬의 물가,
몰몬의 물
가까이에 있는 숲에서 이루어졌더라.

참으로
몰몬의 장소,
몰몬의 물,
몰몬의 숲이여,
이 곳들이 거기서 그들의 구속주에 대한 지식에 ㄱ
이른 자들의 눈에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뿐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복되냐,
이는 그들이 영원토록 그의 찬송을 부를 것임이로다.

앨마1의 백성들이 도망가다

31 또 이 일들은 왕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이 땅의 변경에서 행하여졌더라. 32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백성들 가운데 한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그의 종들을 보
내어 그들을 살피게 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모이던 날에
왕에게 발각되니라.

33 이에 이제 왕이 말하기를 앨마가 백성을 선동하여 나를 모반하게 한다 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멸하게 하니라.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
니 앨마와 주의 백성은 왕의 군대가 옴에 대해 통지를 받았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가족을 취하고 떠나 광야로 들어갔느니라. 35 이에 그들은 수효가 대략
사백오십 인 가량 되었더라. ㄴ

ㄱ 30 모사이야서 12:21; 15:15~18에서 언급된 이사야 52:7 비교 ㄴ 35 그들의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23:1에서 다시 시작됨

기드온이 노아$_3$ 왕의 목숨을 살려 주다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의 군대가 주의 백성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돌아오니라. [2]그리고 이제 보라, 왕의 군세가 줄어들어 작았고,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간에는 분열이 생겼더라. [3]그리고 적은 편의 무리가 왕에게 대하여 위협을 내뿜기 시작하매, 그들 가운데 큰 다툼이 생겼더라.

[4]이에 이제 그들 중 이름이 기드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강한 자요 왕의 적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칼을 뽑아 분노 중에 맹세하기를 내가 왕을 죽이리라 하니라. [5]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왕과 싸우매, 왕이 바야흐로 그가 자기를 이기게 되었음을 보고는 도망하며 달음질하여 성전 가까이에 있는 망대에 올랐더라.[ㄱ]

[6]이에 기드온이 그의 뒤를 따르더니 왕을 죽이려고 바야흐로 망대에 오르려 할 새, 왕이 그 눈길을 주위로 던져 셈론 땅을 향하였더니, 보라, 레이맨인의 군대가 그 땅 경계 내에 들어왔더라. [7]이에 이제 왕이 그 영혼의 고뇌 중에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기드온아, 나를 살려 두라, 레이맨인들이 우리를 치러 왔나니 그들이 우리를 멸하리라. 참으로 그들이 내 백성을 멸하리라" 하니라. [8]이제 왕이 자기 목숨에 대한 것만큼 그의 백성에 대해 염려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그의 목숨을 살려 주니라.

노아$_3$ 왕의 백성이 속박되다[ㄴ]

[9]이에 왕이 백성들에게 명하여 레이맨인들 앞에서 도망하라 하고, 그 자신 그들에 앞서 가매, 그들이 자기의 여자들과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갔더라. [1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따라 잡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니라. [11]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모든 남자들은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버려 두고, 레이맨인들 앞에서 도망하라 하였더라. [12]이제 저들을 떠나지 않고 차라리 머물러 저들과 함께 죽고자 하는 자가 많았으며, 나머지는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버리고 도망하였더라.

[13]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머문 자들이 그들의 고운 딸들로 하여금 나서서, 레이맨인들에게 그들을 죽이지 말도록 간청하게 하더라. [1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니, 이는 저들이 그들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음이라. [15]그리하여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니파이 땅으로 다시 옮겨 와서, 그들이 노아 왕을 레이맨인들의 손에 넘길 것과 그들의 소유 곧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의 절반을, 그들의 금과 그들의 은과 그들의 모든 귀한 것의 절반을 바치고, 이같이 그들이 매년 레이맨인의 왕에게 조공을 바친다는 조건하에 그 땅을 소유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였더라.[ㄷ]

[ㄱ]5 모사이야서 11:12 [ㄴ]9 모사이야서 11:21에 예언된 바 [ㄷ]15 모사이야서 7:22

노아$_3$ 왕의 사람들이 돌아오다—노아$_3$ 왕이 죽임을 당하다

16 그리고 이제 사로잡힌 자들 가운데 왕의 아들 중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림하이더라. 17 그리고 이제 림하이는 자기의 부친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림하이가 자기 부친의 죄악을 모르지 아니하였나니 그 자신은 의인이었음이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기드온이 은밀히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어 왕과 왕과 함께 있는 자들을 찾게 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왕과 그의 제사들을 제외한 모든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니라. 19 이제 그들은 니파이 땅으로 돌아가, 만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 머물렀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면, 복수를 구하고 역시 그들과 함께 죽을 것을 그 마음에 맹세하였었더라. 20 왕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돌아가지 말라 하므로, 그들이 왕에게 노하여 그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되 참으로 불에 타 죽음에 이르게 하였더라.[ㄱ] 21 또 그들이 바야흐로 제사들도 잡아서 죽이려 하였으나, 저들이 그들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바야흐로 니파이 땅으로 돌아오려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기드온의 사람들을 만났더라. 이에 기드온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고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의 절반을 레이맨인들에게 조공으로 바침으로써 그 땅을 소유해도 좋다고 레이맨인들이 그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고하였더라. 23 이에 백성들은 기드온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왕을 죽였으며, 그의 제사들은 그들에게서 도망하여 광야로 더 멀리 들어갔음을 고하였더라. 2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식을 끝내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까닭에 기뻐하며, 니파이 땅으로 돌아와 기드온에게 그들이 왕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고하니라.

레이맨인들과의 평화

2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의 왕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나의 백성이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26 이에 림하이도 왕의 아들로서 백성들에 의해 왕국을 수여받아, 레이맨인의 왕에게 맹세하기를 나의 백성이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의 절반을 바치리라 하였더라. 2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림하이가 왕국을 세우며 그의 백성 가운데 평화를 확립하기 시작하였더라. 28 또 레이맨인의 왕은 그 땅을 둘러 파수꾼들을 세워 림하이의 백성들을 그 땅에 억류하여 그들이 광야로 떠나가지 못하게 하였나니, 그는 니파이인들에게서 받은 조공에서 그의 파수꾼들을 유지하였더라. 29 그리고 이제 림하이 왕이 이 년 동안[ㄴ] 그의 왕국에서 계속하여 화평을 누리매,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을 멸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ㄱ] 20 모사이야서 12:3; 13:10; 17:18에 예언된 바; 앨마서 25:4~12 비교 [ㄴ] 29 기원전 145년경

납치된 레이맨인들의 딸들

20 이제 셈론에 레이맨인들의 딸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즐거워하는 곳이 있더라. [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하루는 그들의 적은 수가 노래하고 춤추기 위해 함께 모였더라. [3]또 이제 노아왕의 제사들은 니파이 성으로 돌아가기가 부끄럽고, 그뿐 아니라 백성들이 자기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는 고로, 그들이 감히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에게로 돌아가지 못하였더라. [4]이에 광야에 머물러 있더니, 레이맨인들의 딸들을 발견하고는 엎드려 그들을 지켜 보다가, [5]또 그들의 몇 명만이 춤을 추러 함께 모였을 때에, 그들의 은밀한 장소에서 나와 그들을 잡아 광야로 데려갔으니, 참으로 레이맨인들의 딸 스물넷을 그들이 광야로 데려갔더라. ㄱ

[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딸들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림하이의 백성에게 노하였으니, 이는 그것이 림하이의 백성의 소행이라 생각하였음이라. [7]그리하여 그들이 그 군대를 보내었으니 참으로 왕이 친히 그의 백성 앞에서 행하였고, 이에 그들이 림하이의 백성을 멸하려 니파이 땅으로 올라가니라.

[8]그런데 이제 림하이는 망대에서 그들을 발견했나니, 곧 전쟁을 위한 그들의 모든 준비를 그가 발견하였던지라, 그러므로 그는 그의 백성들을 함께 모으고 들에서와 숲에서 엎드려 그들을 기다렸더라. [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올라왔을 때, 림하이의 백성들은 그 기다리던 곳에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며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였더라. [1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싸움이 심히 맹렬해졌으니, 이는 그들이 마치 그 먹이를 놓고 다투는 사자들처럼 싸웠음이라. [11]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림하이의 백성들이 그들 앞에서 레이맨인들을 몰아 내기 시작하였으나, 그럼에도 그들의 수는 레이맨인들의 절반도 못되었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생명을 위해, 또 그들의 아내들을 위해, 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싸웠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하였고 마치 용처럼 그들은 싸웠더라.

림하이가 생포된 레이맨 왕에게 질문하다

[12]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의 왕을 그들의 죽은 자들의 수 가운데서 발견하였으나, 그가 죽지는 아니하였고 부상을 당하고 땅 위에 버려져 있었나니, 그의 백성의 도망함이 그처럼 급속하였더라. [13]이에 그들이 그를 잡아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를 림하이 앞으로 데려와 이르되, "보소서 여기 레이맨인의 왕이 있나이다. 그가 부상을 입고 저희의 죽은 자 가운데 엎드러졌거늘, 저희가 버리고 갔으니, 보소서 이제 우리가 그를 왕 앞에 데려왔사온즉, 이제 우리로 그를 죽이게 하소서" 하였더라.

[14]그러나 림하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를 죽이지 말고, 그를 이리로 데려와 나로 그를 보게 하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그를 데려오매,

림하이가 그에게 이르되, "무슨 까닭이 있어 너는 나의 백성을 치러 올라왔느냐? 보라, 내가 네게 한 맹세를 나의 백성이 깨뜨리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의 백성에게 한 맹세를 네가 깨뜨려야 하느냐?" ㄴ

[15]이에 이제 왕이 이르되, "내가 맹세를 깨뜨린 것은 네 백성이 내 백성의 딸들을 데려간 연고니라.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네 백성을 치러 올라오게 하였느니라."

ㄱ 5 노아$_3$의 제사들과 납치된 레이맨인 딸들은 모사이야서 23:30~35에 다시 등장할 것임 ㄴ 14 모사이야서 19:25~26

16 이에 이제 림하이는 이 일에 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했었나니 그러므로 그가 이르되, "내가 나의 백성 중에 찾아보리니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한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의 백성들 중에 조사를 행하게 하였더라.

기드온과 림하이가 평화를 되찾다

17 이제 기드온이 이 일을 듣고, 그는 왕의 대장인지라, 나아가 왕에게 말하되, "청컨대 그리 마시옵고 이 백성을 조사하지 마시오며, 이 일을 그들의 탓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18 왕은 이 백성들이 멸하려 했던 왕의 부친의 제사들을 기억하지 못하나이까?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있지 아니하니이까? 그리고 그들이 레이맨인의 딸들을 도적질한 자들이 아니니이까? 19 하온즉 이제 보소서, 그리고 이 일들을 그 왕에게 고하고, 그로 자기 백성에게 고하게 하여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누그러지게 하소서. 이는 보소서 그들은 이미 우리를 치러 올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한 보소서 우리는 얼마 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0 또 보소서, 그들은 그들의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오나니, 그 왕이 그들로 우리에게 대하여 누그러지게 하지 아니할진대 우리가 반드시 멸망하리이다. 21 대저 우리에 대하여 예언한 아빈아다이의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나이까 ㄱ —또한 이 모두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키려 하지 아니한 까닭이 아니니이까? 22 하온즉 이제 그 왕을 달래고, 우리는 우리가 그에게 한 맹세를 이행하도록 하사이다. 이는 우리가 속박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잃는 것보다 나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이토록 많은 피흘림을 멈추게 하사이다" 하니라.

23 이에 이제 림하이가 자기의 부친과 광야로 도망한 제사들에 관한 모든 것을 왕에게 고하고, 그들의 딸들을 데려간 일을 그들에게 돌리니라.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누그러져서, 그들에게 이르되, "무기를 지니지 말고 나의 백성을 맞으러 나아가자. 내가 맹세코 너희에게 서약하거니와 나의 백성이 네 백성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왕을 따라서 무기를 지니지 않고 레이맨인들을 맞으러 나아가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을 만나매, 레이맨인의 왕이 그들 앞에 절하고, 림하이의 백성을 위하여 간청하니라. 26 이에 레이맨인들이 림하이의 백성을 본즉 그들이 무기를 지니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그들을 향하여 누그러져서, 그들의 왕과 함께 평안히 그들의 본토로 돌아가니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림하이와 그의 백성들이 니파이 성으로 돌아와, 다시 평안히 그 땅에 거하기 시작하였더라.

고난과 패배

아빈아다이의 예언에서 나온 문구는 굵은체로 표시됨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여러 날 후 레이맨인들이 다시 니파이인들에게 대하여 분노가 일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그 땅 주변의 경계에 들어오기 시작하니라. 3 이제 그들은 그들의 왕이 림하이에게 한 맹세로 인하여, 감히 저들을 죽이려 하지는 아니하였어도, 저들의 **뺨을 치고**, 저들에게 권세 부리기를 일삼으며, 저들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말 못하는 나귀를 부리듯** 저들을 부리기 시작하였으니— 4 참으로 이같이 된 것은 모두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ㄴ 5 이에 이제 니파이인들의 고난

ㄱ 21 모사이야서 11:20~25; 12:1~8 ㄴ 4 모사이야서 12:2, 5

이 크고 저들이 스스로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 낼 길이 없었으니,ㄱ 이는 레이맨인들이 사방으로 저들을 에워쌌음이라.

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이 저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왕에게 원망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가기를 바라기 시작하였더라. 이에 저들이 저들의 불평으로 왕을 심히 괴롭게 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저들에게 허락하여 저들로 하여금 그 원대로 하게 하였더라. 7이에 저들이 다시 함께 모여,ㄴ 갑주를 입고, 레이맨인들을 쳐서 그들을 저들의 땅에서 몰아 내고자 나아가니라. 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저들로 패하게 하여, 저들을 물리치고 저들 중 많은 자를 도륙한지라.

9이에 이제 림하이의 백성들 가운데 큰 애통과 애곡이 있었나니, 과부는 그 남편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아들과 딸은 그 아버지로 인하여 애통하며, 형제들은 그 형제들로 인하여 애통하였더라. 10이제 그 땅에 과부가 심히 많았고, 저들이 매일같이 **크게 부르짖었으니**,ㄷ 이는 레이맨인들에 대한 큰 두려움이 저들에게 임하였음이라. 1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의 끊임없는 부르짖음이 림하이의 남은 백성들을 일으켜 레이맨인들에 대하여 노하게 한지라, 저들이 다시 싸우러 갔으나 많은 손실을 입고 다시 격퇴당하니라. 12참으로 저들이 다시 곧 세 번째 갔으나 같은 모양으로 패하였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들은 니파이 성으로 다시 돌아왔더라.

겸손과 그로 인해 받은 구제

아빈아다이의 예언에서 나온 문구는 굵은체로 표시됨

13이에 저들이 스스로 티끌에까지 겸손하게 되어, 속박의 **멍에**를 **지며 스스로**를 내어 맡겨, **저들의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맞으며 **이리저리 내몰림**을 당하며 짐을 지니라.ㄹ 14이에 저들이 실로 지극한 겸양으로 스스로 겸손하여졌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으니**, 참으로 저들의 **고난으로부터 저들을 건지시기**를 저들의 하나님께 **온종일** 부르짖었더라.ㅁ

15이에 이제 **주께서는** 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들의 부르짖음 듣기를 더디 하**셨으나,ㅂ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레이맨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시작하셨으므로 그들이 저들의 짐을 가볍게 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럼에도 주께서는 **저들을 속박에서 건져 내시기**를 합당하게 여기지는 아니하셨더라.ㅅ 1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점차로 그 땅에서 번영하기 시작하여, 곡식을 더욱 풍성히 기르기 시작하고, 양 떼와 소 떼도 그리하매, 저들이 굶주림을 당하지 아니하니라.ㅇ 17이제 여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 남자들의 수보다 더욱 많은지라, 그러므로 림하이 왕이 명하여 모든 남자들은 각각 과부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 나누어 주어, 그들로 주려 죽지 않게 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그들이 한 것은 죽임을 당한 그들의 수가 컸던 까닭이었더라.

ㄱ5 모사이야서 11:23 참조; 23:23; 24:21; 25:16 비교 ㄴ7 첫 모임은 모사이야서 11:18~19에 나옴 ㄷ10 모사이야서 11:25 참조; 24:10 비교 ㄹ13 모사이야서 11:23~24; 17:17 ㅁ14 모사이야서 11:25; 12:4 ㅂ15 모사이야서 11:24 ㅅ15 모사이야서 11:23 ㅇ16 아빈아다이가 모사이야서 12:4, 6에서 기근과 곡식을 먹어치우는 곤충에 대해 예언했음

림하이에게 발견된 암몬[1]과 그의 동행자들

18 이제 림하이 백성들은 가능한 한 한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서, 그들의 곡식과 그들
의 양 떼를 안전하게 지켰고, 19 또 왕 자신도 어쩌다가 레이맨인들의 수중에 떨어질까
염려하여, 그의 호위병들을 대동하지 않고서는 성벽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20 또 그는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 주변을 살피게 하였으니, 이는 혹시라도 광
야로 달아나 레이맨인의 딸들을 도적질하여 그들에게 그토록 큰 멸망을 임하게 한 그
제사들을 잡을 수 있을까 함이었더라. 21 이는 그들이 저들을 벌하기 위하여 저들을 잡
기 원하였음이니, 이는 저들이 밤에 니파이 땅으로 들어와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많은
귀한 물건들을 훔쳐 갔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서 저들을 기다렸더라. 22 그
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그 땅에 들어 올 때까지, 레이맨인들과
림하이의 백성들 간에는 더 이상의 소요가 없었더라. ㄱ
23 이에 왕이 그의 호위병들과 함께 성문 바깥에 있다가 암몬과 그의 형제들을 발견
하고는, 그들을 노아의 제사인 줄로 생각하였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던져 넣게 하였나니, 그들이 노아의 제사였던들 그들로 죽음을 당하게 하였을 것
이라. 24 그러나 그들이 노아의 제사가 아니라 자기의 형제들이요,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심히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ㄴ

림하이가 보낸 수색대에 관한 두 번째 기록 ㄷ

25 이제 암몬이 오기 전에, 림하이 왕이 소수의 사람들을 보내어 제이라헤믈라 땅을 찾
게 하였었는데, 그들이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길을 잃었더라.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이 살았던 한 땅을 발견하였으니, 참으로 마른 뼈들로 뒤덮인 땅이라.
참으로 그 곳은 사람들이 살았었던 땅이요 멸망을 당한 땅이더라. 이에 그들이 그것
을 제이라헤믈라 땅이라 생각하고 니파이 땅으로 돌아오되, 암몬이 오기보다 여러 날
앞서지 아니하여 그 땅 경계에 도착하였더라. 27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기록을 가지고
왔나니, 곧 그들이 그 뼈를 발견한 백성의 기록이라. 그것이 금속판에 새겨져 있더라.

과거에 대한 슬픔과 미래에 대한 계획 ㄹ

28 이에 이제 림하이가 암몬의 입으로부터 모사이야 왕이 그러한 새긴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또한 암몬 역시 기뻐하였더라. 29 그럼에도 암몬과 그의 형제들은 슬픔이 가득
하게 되었나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그처럼 많이 죽임을 당한 때문이요, 30 또한 노아
왕과 그의 제사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려 그처럼 많은 죄와 악을 범하
게 한 때문이었으며, 그들은 또한 아빈아다이의 죽음을 슬퍼하였고, 또 아빈아다이가
한 말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힘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었던 앨마와 그
와 함께 간 백성들이 떠났음을 또한 슬퍼하였더라. 31 참으로 그들은 저들이 떠났음을
슬퍼하였나니, 이는 저들이 어디로 도피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음이라. 이제 그들은 기
쁘게 저들과 합하였으리니, 이는 그들 자신도 하나님과 성약을 맺어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했었음이더라. ㅁ

ㄱ 22 기원전 118년경; 모사이야서 7:1~3 참조 ㄴ 24 이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7:7~14의 이야기와 중복됨
ㄷ 25 이 이야기의 이전 기록은 모사이야서 8:7~11에 나옴 ㄹ 28 길게 이어진 회상 장면이 마무리되며 모사
이야서 8:21에서 나누던 암몬1과 림하이의 선견자에 대한 대화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됨 ㅁ 31 모사이야서
6:1~2

32또 이제 암몬이 온 이후로, 림하이 왕도 또한 하나님과 성약을 맺었고, 그의 백성 중 많은 자들도 또한 그리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했었더라. 3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림하이 왕과 그의 백성 중 많은 자들이 침례 받기를 원하였으나, 그 땅에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지닌 자가 아무도 없었고, 암몬은 스스로를 합당하지 못한 종으로 생각하여 이 일 행하기를 거절한지라. 34그러므로 그때에는 그들이 자신들로 교회를 이루지 아니하고 주의 영을 기다렸나니, 이제 그들은 광야로 도망한 앨마와 그의 형제들 같이 되기를 원하였더라. 35그들이 그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는 증거와 증언으로서 침례 받기를 심히 원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미루었나니 그들의 침례의 기사는 이후에 주어지리라.┐

36이에 이제 암몬과 그의 무리와 림하이 왕과 그의 백성은, 스스로를 레이맨인들의 손에서와 속박에서 건져 내고자 온갖 연구를 하였더라.

림하이 백성이 탈출하여 제이라헤믈라로 돌아가다

22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과 림하이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어떻게 스스로를 속박에서 건져 낼지 의논하기 시작하였는데, 실로 그들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모이게 하였으니, 이렇게 그들이 한 것은 그 일에 관한 백성의 소리를 듣고자 하였음이더라. 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그들의 여자와 자녀들과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와 그들의 장막을 취하고 광야로 떠나는 것 이외에는, 스스로를 속박에서 건져 낼 길을 찾을 수 없었으니, 이는 레이맨인들의 수효가 너무 많아, 림하이 백성들로서는 검으로 스스로를 속박에서 건져 낼 생각으로 그들과 싸우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라.

3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기드온이 나아가 왕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왕이시여,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과 싸워 옴에 있어 왕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 내 말을 들으셨나이다. 4하온즉 이제 왕이시여, 만일 왕께서 나를 무익한 종으로 알게 되지 아니하셨거나, 혹은 왕께서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내 말을 들으시고 그것이 왕께 도움이 되었삽거든, 그와 같이 왕께서 이번에 내 말을 들어주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리하시오면 내가 왕의 종이 되어 이 백성을 속박에서 건져 내리이다."

5이에 왕이 그에게 허락하여 그로 말하게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6"성 뒤편에 뒷벽을 통하여 난 뒷길을 보소서. 레이맨인들, 곧 레이맨인들의 수비대가 밤에는 술에 취하오니, 그러므로 이 온 백성 가운데 포고를 보내어 그들로 그들의 양 떼와 소 떼를 함께 모아, 밤에 그것들을 광야로 몰고 가게 하사이다. 7그리고 나는 왕의 명을 좇아 가서 레이맨인들에게 마지막 술 조공을 바칠 것이요, 그들은 취하리니, 우리는 그들이 취하여 잠들었을 때 그들의 진지 왼편에 있는 비밀 통로를 통과할 것이라. 8이같이 우리는 우리의 여자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양 떼와, 우리의 소 떼들과 함께 떠나 광야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는 샤일롬 땅을 돌아서 여행할 것이니이다 하니라."

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기드온의 말을 들으니라. 10이에 림하이 왕이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양 떼를 함께 모으게 하였고, 또 그가 레이맨인들에게 술 조공을 보내고, 또한 그들에게 대한 선물로 술을 더 보내매, 그들이 림하이 왕이 그들에게 보낸 술을 마음껏 마시니라. 1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림하이 왕의 백성이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와 함께 밤에 떠나 광야로 들어갔고, 그들은 광야에서 샤일롬 땅을 돌아가서는 암몬과 그의 형제들의 인도를 받으며 그들의 진로를 돌려 제이라헤믈라 땅을 향하였더라. 12또 그들은 가져갈 수 있는 그들의 모든 금과 은과 그들의 귀한 것들과

┐35 모사이야서 25:17~18

또한 그들의 양식을 광야로 가져갔었더라. 이에 그들이 여행을 계속하더라. 13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날을 있은 후에 제이라헤믈라 땅에 도착하매, 모사이야의 백성들과 합하여 그의 백성이 되니라.ㄱ 14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가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였고, 그가 또한 그들의 기록과 또한 림하이의 백성들에 의해 발견되었던 기록도 받으니라.ㄴ

15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림하이의 백성이 밤에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광야로 군대를 보내 그들을 뒤쫓게 하였으나, 16저들이 이틀동안 그들을 뒤쫓고 나서 더 이상 그들의 자취를 따를 수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길을 잃으니라.ㄷ

그동안 진행된 앨마$_1$의 백성에 대한 기록 (회상 장면)

모사이야서 23~24장

노아 왕의 백성에 의해 광야로 쫓겨 들어간 앨마와 주님의 백성의 기록.

앨마$_1$와 그의 백성이 노아$_3$ 왕의 군대로부터 도망치다ㄹ

23 이제 앨마는 주께로부터 노아 왕의 군대가 그들을 습격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이를 그의 백성들에게 알린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양 떼를 함께 모으고, 그들의 곡식 일부를 취하여 노아 왕의 군대보다 앞서 떠나 광야로 들어가더라. 2또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신지라, 노아 왕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잡아 멸하지 못하니라. 3이에 그들이 팔 일의 여정을 광야로 도망해 들어가니라. 4그리하여 그들이 한 땅에 이르니, 참으로 매우 아름답고 쾌적한 땅, 맑은 물의 땅이라. 5이에 그들이 그들의 장막을 치고 땅을 갈기 시작하며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근면하였고 열심히 일을 하였더라.

앨마$_1$가 왕이 되기를 거절하다

6그리고 백성들은 앨마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을 원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음이라. 7그러나 앨마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왕을 갖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한 육체를 다른 육체보다 높게 여기지 말지니, 곧 한 사람은 자신을 다른 자보다 높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왕을 갖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8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가 항상 의인으로 너희 왕을 삼는 것이 가능하다면 너희가 왕을 가짐이 좋으리라. 9그러나 노아 왕과 그의 제사들의 죄악을 기억하라. 나 자신 올무에 잡혀 주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많이 행하였나니, 그로 인해 쓰라린 회개를 하게 되었느니라. 10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 후에, 주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사, 나로 그의 손에 있는 도구를 삼으사 그토록 많은 너희에게 그의 진리를 알게 하셨도다. 1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스스로를 자랑하기에 합당하지 못함이라.

ㄱ13 모사이야$_2$와 그의 백성들에 대해 언급했던 가장 마지막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7:2에 나옴 ㄴ14 모사이야서 8:9; 21:25~27 ㄷ16 레이맨인 군대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23:30에서 다시 시작됨 ㄹ1 모사이야서 18:35의 이야기는 여기서 다시 시작됨

12"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노아 왕에게 학대받았으며, 그와 그의 제사들에게 속박되어 있었고, 그들에 의해 죄악으로 이끌려 갔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죄악의 줄로 결박되어 있었느니라. 13그러나 이제 너희가 이러한 결박에서, 참으로 곧 노아 왕과 그의 백성의 손에서와, 또한 죄악의 결박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 내심을 입었으니, 그와 같이 나는 너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 이 자유 안에 굳게 설 것과 너희가 아무 사람이라도 믿고 너희 위에 왕이 되게 하지 말기를 원하노라. 14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믿고 너희를 가르치는 자나 너희에게 성역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지 말라." 15이같이 참으로 앨마가 그의 백성을 가르쳐, 각 사람은 그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너희 가운데 다툼이 없게 하라 하니라.

16그리고 이제 앨마는 그들의 대제사였으니, 그는 그들의 교회의 설립자였음이라. 1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음이 아니고는 아무도 전파하거나 가르칠 권세를 받지 아니하였던지라,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모든 제사들과 그들의 모든 교사들을 성별하였나니, 이에 의인이 아니고는 아무도 성별되지 아니하였더라. 18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백성을 보살피며, 의에 관한 것으로 그들을 양육하였더라.

몰몬$_2$이 주께서 왜 그의 백성을 시험하시는지 설명하다

1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땅에서 심히 번영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들은 그 땅을 힐램이라 칭하였더라.┐ 20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힐램 땅에서 심히 번성하고 번영하였으며, 그들이 성을 세워 이를 힐램 성이라 하였더라.

21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징계하시기를 합당하게 보시나니, 참으로 그는 그들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시느니라. 22그럼에도 불구하고—누구든지 그를 신뢰하는 자 그는 마지막 날에 들리우리니, 또한 이 백성이 그와 같았느니라. 23이는 보라, 그들이 속박되었으되, 주 그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들을 건져 낼 수 없었음을 내가 너희에게 보일 것임이니라. 24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들을 건지셨고 그가 또 그의 능한 권능을 보이신지라, 그들의 기쁨이 참으로 컸느니라.

앨마$_1$의 백성이 속박되다

25이는 보라, 이렇게 되었음이니 그들이 힐램 땅에, 곧 힐램 성에 있던 때에, 주위의 땅을 갈고 있을 때, 보라 레이맨인의 한 군대가 그 땅 경계 안에 있는지라. 26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의 형제들이 그 밭에서 도망하여, 힐램 성 안에 함께 모이니, 그들은 레이맨인들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매우 놀랐더라.

27그러나 앨마가 나아가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권면하기를 너희는 놀라지 말고 주 너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건지시리라 하니라. 28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주께서 레이맨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그들이 그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멸하지 않게 하실 것을 주께 부르짖기 시작하니라. 2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레이맨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매, 앨마와

┐19 이 땅의 이름은 앨마$_1$가 처음으로 개종시킨 자들 중에 한 명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추정; 모사이야서 18:12~14 참조

그의 형제들이 나아가 스스로를 그들의 손에 넘기니 이에 레이맨인들이 힐램 땅을 차지하니라.

30 이제 림하이 왕과 그의 백성의 뒤를 쫓았던 레이맨인의 군대가 여러 날 동안 광야에서 길을 잃었었더라.ㄱ 31 그리고 보라, 저희가 노아 왕의 그 제사들을 그들이 앰율론이라 칭하는 곳에서 발견하매, 그들은 앰율론 땅을 소유하기 시작했었고 땅을 갈기 시작했었더라. 32 이제 그 제사들을 이끄는 자의 이름은 앰율론이었더라.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앰율론이 레이맨인들에게 간청하였고, 그가 또한 레이맨인의 딸들인 그들의 아내들을 내보내어,ㄴ 그 형제들에게 그들의 남편들을 멸하지 않도록 간청하게 하였더라. 34 이에 레이맨인들이 앰율론과 그의 형제들을 그들의 아내들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더라. 35 이에 앰율론과 그의 형제들이 레이맨인들에게 합류하였고, 그들이 니파이 땅을 찾아 광야를 여행하다가, 앨마와 그의 형제들이 소유하고 있던 힐램 땅을 발견하였더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앨마와 그의 형제들에게 만일 그들이 니파이 땅에 이르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 준다면,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리라고 약속하였더라. 37 그러나 앨마가 그들에게 니파이 땅에 이르는 길을 보여 준 후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약속을 지키려 아니하고, 힐램 땅 주위에 파수꾼을 세워 앨마와 그의 형제들을 지키게 하였더라. 38 또 그들 중 나머지는 니파이 땅으로 갔으며, 그들 중 일부가 힐램 땅으로 돌아오며, 그 땅에 남아 있던 파수꾼들의 아내들과 자녀들도 함께 데려왔더라. 39 이에 레이맨인의 왕이 앰율론에게 허락하여 힐램 땅에 있는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과 통치자가 되게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레이맨인 왕의 뜻에 반하여서는 아무 일도 행할 권능을 갖지 못하게 하니라.

노아3 왕의 제사장들이 레이맨인들을 가르치다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앰율론이 레이맨인의 왕의 눈에 호의를 얻은지라, 그러므로 레이맨인의 왕이 그와 그의 형제들에게 허락하여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교사로 임명되게 하였으니, 곧 셈론 땅과 샤일롬 땅과 앰율론 땅에 있는 백성이라. 2 이는 레이맨인들이 이 땅들을 모두 차지했었음이라. 그러므로 레이맨인의 왕이 이 모든 땅을 다스릴 왕들을 임명했었더라. 3 그리고 이제 레이맨인의 왕의 이름은 레이맨이었나니, 그의 부친의 이름을 따라 일컬은 것이라. 그러므로 그는 레이맨 왕이라 일컬어졌고, 그는 허다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더라. 4 이에 그가 자기 백성들이 소유한 각 땅에 앰율론의 형제들 중에서 교사를 임명하였나니, 이리하여 레이맨인의 모든 백성 가운데 니파이의 언어가 가르쳐지기 시작하니라.

5 또 그들은 서로 우호적인 백성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앰율론의 형제들도 그들에게 주 그들의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세의 율법도 가르치지 아니하였으며, 아빈아다이의 말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더라. 6 그러나 그들을 가르쳐 기록하게 하였고, 또 그들이 서로 편지할 수 있게 하였더라. 7 이리하여 레이맨인들은 부가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서로 교역하여 강대해지기 시작하였으며, 교활하고 세상의 지혜에 있어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 시작하였나니, 참으로 심히 교활한 백성으로서, 그들 자신의 형제들 가운데를 제외하고는, 온갖 간악함과 약탈을 기뻐하였더라.

ㄱ30 30~35절의 레이맨인의 군대에 대한 여담은 모사이야서 22:16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계속됨
ㄴ33 여기서 '그들의 아내들'은 모사이야서 20:5에서 납치되었음

앨마$_1$의 백성이 핍박받고 위로받다

8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앰율론이 앨마와 그 형제들에게 권세를 행사하기 시작하여, 그를 핍박하며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핍박하게 하기 시작하였더라. 9이는 앰율론이 앨마를, 곧 그가 왕의 제사들 중 하나였음과 아빈아다이의 말을 믿고 왕 앞에서 쫓겨난 것이 그인 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노여움을 품었음이더라. 이는 그가 레이맨 왕에게 복종하고 있었으나,ㄱ 그럼에도 그들에게 권세를 행사하여 그들에게 부역을 지우고, 그들 위에 감독자들을 두었음이라.

1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고난이 심히 컸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였더라.ㄴ 11이에 앰율론이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치게 하고, 그들을 감시할 보초를 그들 위에 두어,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발각되면 죽음을 당하게 하였더라. 12이에 앨마와 그의 백성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께 그 목소리를 높이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에게 그 마음을 쏟아 내매, 그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더라.

1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음성이 그들의 고난 중에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 머리를 들고 안심하라. 이는 너희가 내게 맺은 성약을 내가 알고 있음이요,ㄷ 내가 나의 백성과 성약하고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낼 것임이니라. 14그리고 내가 또한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곧 너희가 속박되어 있는 동안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ㄹ 이를 내가 행할 것은 이후로는 너희를 나를 위한 증인으로 서게 하려 함이요, 나 주 하나님은 진실로 내 백성을 그들의 고난 중에 돌아보는 줄을 너희로 분명히 알게 하려 함이니라 " 하시니라. 15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와 그의 형제들 위에 지워진 짐이 가벼워졌고, 참으로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더라.

주께 건지심을 입은 앨마$_1$의 백성

1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내가 심히 크매 주의 음성이 다시 그들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이는 내일 내가 너희를 속박에서 건져 낼 것임이니라" 하신지라. 17또 앨마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에 앞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며 이 백성을 속박에서 건져 내리라" 하신지라.

18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와 그의 백성이 밤에 그들의 양 떼를 함께 모으고, 그들의 곡식 또한 일부 그리하되, 참으로 온 밤 동안 그들의 양 떼를 함께 모으더라. 19그리고 아침에 주께서 깊은 잠을 레이맨인들에게 임하게 하시매, 참으로 그들의 감독자들 모두가 깊은 잠에 든지라. 20이에 앨마와 그의 백성이 떠나 광야로 들어갔고, 그들이 온종일 여행하고 나서 한 골짜기에 그들의 장막을 치고 그 골짜기를 앨마라 칭했으니, 그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한 까닭이라. 21참으로 그뿐 아니라 앨마의 골짜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시고,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내셨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감사를 쏟았으니, 이는 그들이 속박되어 있었고 주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을진대 아무도 그들을 건질 수 없었음이더라.ㅁ 22이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나니, 참으로 그들의 모든 남자

ㄱ9 모사이야서 17:1~3 ㄴ10 모사이야서 11:25에 예언된 바 ㄷ13 모사이야서 18:10, 13 참조; 백성들에게 "안심"을 주시며 부담을 완화하여 "짐이 가벼워졌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게 하려 함"은 주님이 성약의 협력자로서 역할해 주심을 암시함 ㄹ14 이 약속은 모사이야서 12:5과 18:8 반영함 ㅁ21 모사이야서 11:23에 예언된 바

와 그들의 모든 여자와 말을 할 줄 아는 그들의 모든 아이들이 다 그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23 그런 후 이제 주께서 앨마에게 이르시되, "너는 서둘러 너와 이 백성을 데리고 이 땅을 벗어나라. 레이맨인들이 깨어나 너를 뒤쫓음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땅을 벗어나라. 내가 레이맨인들을 이 골짜기에서 막아 그들로 이 백성을 더 멀리 뒤쫓아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골짜기에서 떠나 광야로 여행해 들어가더라. 25 그리고 십이 일을 광야에 있은 후 제이라헤믈라 땅에 도착하매, 모사이야 왕이 또한 기쁨으로 그들을 받아들이니라. ㄱ

제이라헤믈라에서 재결합하다 ㄴ

25 이에 이제 모사이야 왕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하니라. 2 이제 니파이의 자손들 곧 니파이의 후손인 자들은, 뮬레크와 그와 함께 광야로 들어온 자들의 후손인 제이라헤믈라 백성만큼 많지 아니하였더라. ㄷ 3 또 니파이 백성과 제이라헤믈라 백성들은 레이맨인들만큼 많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 절반도 채 못 되었더라. 4 이에 이제 니파이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였고, 제이라헤믈라 백성들도 모두 함께 모이니, 그들이 함께 모여 두 무리를 이루었더라.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가 그의 백성들에게 지니프의 기록을 읽어 주었고, 또 읽어 주게 하였나니, 참으로 그가 지니프 백성의 기록을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던 때로부터 다시 돌아오기까지 읽어 주었느니라. 6 또 앨마와 그의 형제들과 그들의 모든 고난의 기사를, ㄹ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던 때로부터 다시 돌아왔을 때까지 읽어 주었느니라.

7 이에 이제 모사이야가 기록 읽기를 마쳤을 때, 그 땅에 머물렀던 그의 백성들이 경이와 놀라움에 사로잡혔느니라. 8 이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 바를 알지 못하였음이라. 이는 그들이 속박에서 건져 내심을 입은 자들을 보았을 때 심히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이요, 9 그리고 또 그들이 레이맨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들의 형제들을 생각하였을 때는, 슬픔으로 가득 차 슬픔의 눈물을 많이 흘렸음이요, 10 그리고 또 그들이 앨마와 그의 형제들을 레이맨인들의 손과 속박의 손아귀에서 건져 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하심과 그의 권능에 대하여 생각했을 때, 참으로 그들의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음이요, 11 그리고 또 그들의 형제인 레이맨인들에 대해 그들의 죄 많고 더럽혀진 상태를 생각하였을 때, 그들의 영혼의 복리를 위하는 고통과 고뇌로 가득차게 되었음이더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의 딸들을 아내로 취한 앰율론과 그 형제들의 자녀인 자들이 그 아버지들의 행위를 싫어하여, 더 이상 그 아버지들의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원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니파이의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아 니파이인이라 일컫는 자들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고자 하여 니파이의 이름을 취하니라. 13 이제 제이라헤믈라의 온 백성은 니파이인과 함께 헤아림을 받았나니, 이는 니파이의 후손인 자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나라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음이라.

ㄱ 25 기원전 118년경; 모사이야서 7:1~3 참조 ㄴ 1 이 시점에서 각기 다른 세 개의 이야기들(모사이야$_2$백성, 림하이 백성, 앨마$_1$백성들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됨 ㄷ 2 옴나이서 1:15~16 참조; 니파이인들의 수가 옴나이서 1:5에서 상당히 줄어듦 ㄹ 6 지니프의 기록은 모사이야서 9~10에 나오고 그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11과 19~22에 나옴앨마$_1$와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12~18과 23~24에 나옴 여기의 엘마$_1$가 암몬$_1$이 맞다고 가정하면, 암몬$_1$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7에 나옴

제이라헤믈라에 교회가 세워지다

14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가 백성들에게 말하기와 읽어주기를 마쳤을 때,
그가 앨마도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였더라. 15 이에 그들이 여러 큰 무리를 이루어
모였을 때 앨마가 그들에게 말하되, 한 무리에게서 다른 무리로 다니며, 회개와 주를
믿는 신앙을 백성들에게 전파하였더라. 16 또 림하이의 백성과 그의 형제들, 곧 속박
에서 건져 내심을 입었던 모든 자들에게 그들을 건져 낸 것이 주였음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였더라.

1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많은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하
기를 마친 후 림하이 왕이 침례 받기를 원하였고, 그의 모든 백성도 자기들 역시 침례
받기를 원하니라. 18 그러므로 앨마가 나아가서 물에 들어가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으
니, 참으로 그가 몰몬의 물에서 자기 형제들에게 침례를 주던 방식을 좇아 그들에게
침례를 주었으며, 또한 그가 침례를 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였으니, 이
는 그들이 앨마의 말을 믿은 연고더라. ㄱ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 왕이 앨마에게 허락하여 제이라헤믈라 온 땅에 두루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고, 각 교회를 관리할 제사들과 교사들을 성임할 권능을 그에
게 주었더라. 20 이제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이 너무 많아 그들이 모두 한 명의 교사에
의해 관리될 수가 없고, 그들 모두가 한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던
까닭이라. 21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 다른 무리를 이루어 함께 모여 교회라 일컬어졌고,
각 교회에는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교사가 있어, 각 제사들은 앨마의 입으로 그들에게
전해진 대로 말씀을 전파하였더라. 22 그리하여 교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참으로 한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였나니, 이는 이 모든 교회에서 회개와 하나님
께 대한 신앙 외에는 아무것도 전파하지 아니하였음이라.

23 그리고 이제 제이라헤믈라 땅에 일곱 교회가 있었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누구든
지 그리스도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하였으며, 24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졌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그의
영을 부으시매 그들이 복을 받고 그 땅에서 번영하였더라.

믿지 않는 젊은이들

2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자라나는 세대 중 베냐민 왕이 그의 백성에게 말할 때,
어린아이여서 베냐민 왕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던 자가 많더니, ㄴ 그들이 그
조상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니라. 2 그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말을 믿지 아니하
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3 이제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던지라, 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졌더라. 4 이에 그들은 침례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였고, 교회에 가입하려고도 아니하
였더라. 또 그들은 그 신앙에 관하여는 별개의 백성이었고, 후에도 언제까지나 그러
하여, 그 속되며 죄 많은 상태에 머물렀나니, 이는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부르려
하지 않았음이라.

5 그리고 이제 모사이야 왕이 다스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절반만큼도
그 수가 많지 아니하였으나, 형제들 중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 많아졌더
라. 6 이는 이렇게 되었음이니 그들이 그 아첨하는 말로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자들을

ㄱ 18 이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21:35에서 기약됨 ㄴ 1 모사이야서 6:2

속여, 그들로 하여금 많은 죄를 범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자로서 죄를 범한 자들이 마땅히 교회로부터 훈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생긴지라.

교회의 징계를 결정하는 고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교사들이 이들을 제사들 앞에 데려와 제사들에게 넘겨주었고, 제사들은 그들을 대제사인 앨마 앞에 데려가니라. 8 이제 모사이야 왕은 앨마에게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는 그들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나, 그들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증인이 많았으니, 참으로 백성들이 서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허다히 증거하였더라.

10 이제 교회에 이전에는 그러한 일이 도무지 일어나지 않았었나니, 그러므로 앨마가 그 영에 곤혹함을 느껴 그들을 왕 앞에 데려가게 하였더라. 11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여기 그들의 형제들에게 고소당한 자들로서 우리가 왕 앞에 데려온 자들이 많이 있나이다. 더욱이 그들이 여러 가지 죄악 중에 잡혔거늘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왕께서 그들의 범죄대로 그들을 판단하시도록, 우리가 그들을 왕 앞에 데려 왔나이다" 하였더라.

12 그러나 모사이야 왕이 앨마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들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 판단 받게 하노라" 하는지라.

13 이에 이제 앨마의 영이 다시 곤혹하게 되었더니, 그가 가서 이 일에 관하여 그가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주께 여쭈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 행할 것을 두려워하였음이라.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하나님께 그 온 영혼을 쏟아 낸 후,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5 "앨마야, 네가 복이 있으며,
몰몬의 물에서 침례 받은 자들도 복이 있도다.[ㄱ]
네가 복된 것은 나의 종 아빈아다이의
그 말만을 믿는 너의 심히 큰 신앙으로 인함이요,[ㄴ]
16 또 그들이 복됨은 네가 그들에게
한 그 말만을 믿는 그들의 심히 큰 신앙으로 인함이요,[ㄷ]
17 또 네가 복됨은 네가 이 백성 가운데 교회를 세웠음으로 인함이니,
그들은 굳게 세워질 것이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18 참으로 기꺼이 내 이름을 받들고자
하는 이 백성에게 복이 있도다.[ㄹ]
이는 내 이름으로 그들이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
그들은 나의 것이니라.[ㅁ]

19 "또 네가 범법자에 관하여 나에게 물었으므로 네가 복이 있도다. 20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와 성약하노니 너로 영생을 갖게 하리라. 그런즉 너는 나를 섬기며 내 이름으로 나아가서 내 양을 함께 모을지니라. 21 그리고 내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내 양이 될 것이요, 그를 너희가 교회에 받아들일지니, 그를 내가 또한 영접하리라. 22 이는 보라, 이는 내 교회라. 침례 받는 자는 누구든지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아야 할 것임이라. 또 누구든지 너희가 받아들이는 자는 내 이름을 믿을지니, 그를 내가 널리

[ㄱ] 15 모사이야서 18:16 [ㄴ] 15 모사이야서 17:2 [ㄷ] 16 모사이야서 18:3 [ㄹ] 18 모사이야서 5:8; 6:2; 25:23 참조; 25:16 비교 [ㅁ] 18 이 여섯가지 참행복은 제3니파이 12:1~2에 나온 니파이인들을 위한 산상 수훈에 추가된 참행복들의 효시로 추정

용서하리라. 23이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는 자가 나임이니, 이는 그들을 창조한 자가 나요, 끝까지 믿는 자에게 내 우편에 처소를 허락하는 자도 나임이라. 24이는 보라, 내 이름으로 그들은 일컬음을 받으며, 만일 그들이 나를 알면 나아와, 내 우편에 영원히 처소를 갖게 될 것임이라.

25"또 이같이 되리니 둘째 나팔이 ⌜ 울릴 때 그때 나를 결코 알지 못했던 자들이 나아와 내 앞에 설 것이라. 26그때 그들이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그들의 구속주인 줄을 알리라. 그러나 그들이 구속되지 아니할 것이라. 27그때 내가 그들에게 선언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알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들이 떠나 악마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28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음성을 듣고자 아니하는 자, 그를 너희는 내 교회에 받아들이지 말지니, 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29"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라.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 대하여 범법하는 자, 그를 그가 범한 죄에 따라 너희가 판단할 것이요, 만일 그가 너와 내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회개하거든, 그를 너희는 용서하라, 나도 그를 용서하리라. 30참으로 또한 나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내게 대한 그들의 범법을 내가 사하리라. 31이에 너희도 너희의 범법을 서로 용서하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 이웃이 내가 회개하노라 할 때 그 이웃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스스로를 정죄 아래 들게 하였음이니라. 32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가라.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자, 그는 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못하게 할지니, 이때로부터 앞으로 이를 지킬지니라."

3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이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기록하였으니 이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고자 함이요,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그 교회의 백성을 판단하고자 함이었더라.

앨마$_1$가 교회를 바로잡다

34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주의 말씀대로 가서 죄악 중에 잡힌 자들을 판단하였더라. 35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그가 교회의 백성 가운데 헤아렸으나, 36또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자들, 그들은 교회의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못하였고 그들의 이름은 지워졌더라.

3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교회의 제반 일을 바로잡으매, 그들이 다시 평화를 누리며 교회의 일에 있어 심히 번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중히 행하며, 많은 자들을 받아들이며 많은 자들에게 침례를 주니라. 38이에 이제 이 모든 일을 앨마와 교회를 돌보는 그의 동역자들이 행하되, 부지런함을 다하는 중에 행하며,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온갖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가운데 그리하였더라. 39또 그들은 그 형제들을 권고하였고, 그들은 또한 각자 자기의 죄, 곧 자기가 범한 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하심을 받았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 명을 받았더라.

⌜25 첫째 나팔에 대한 언급이 없음

핍박의 종결

27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교회에 가해지는 핍박이 너무 커진지라 교회가 이 일에 관하여 불평하며,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불평을 호소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앨마에게 불평을 호소하였더라. 그리고 앨마가 그 문제를 그들의 왕 모사이야 앞에 제출하니 모사이야가 그의 제사들과 더불어 의논하였더라. [2]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 왕이 그 땅 주변에 두루 포고를 보내어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들 중 아무라도 핍박하지 말 것이라 하니라.

[3]또 모든 교회에는 두루 엄한 명령이 있어 그들 가운데 핍박이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 가운데 평등이 있을 것이며, [4]교만이나 거만이 그들의 화평을 어지럽히게 말 것이며, 각 사람은 그 이웃을 자신과 같이 여기며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일하였더라. [5]참으로 또한 그들의 모든 제사와 교사들도 병이나 심한 궁핍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우에 자신들의 생계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일할 것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행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더라.

[6]이에 그 땅에 다시 많은 화평이 있기 시작하였고, 백성들은 그 수가 심히 많아지기 시작하여, 지면에 널리 참으로 북에 그리고 남에, 또 동에 그리고 서에 흩어져 그 땅 각지에 큰 성읍과 마을들을 세우기 시작하였더라. [7]또 주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매, 그들이 크고 부강한 백성이 되니라.

앨마$_2$의 아들와 모사이야$_2$의 아들들이 천사로부터 꾸짖음을 받다 ㄱ

[8]이제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고, 또한 앨마의 아들 중 하나도 그들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으니, 그는 그 부친을 따라 앨마라 불리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심히 사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더라. 또 그는 말을 잘 하는 자였던지라, 백성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하였나니, 그러므로 그가 백성 중 많은 자들을 이끌어 그의 죄악을 좇아 행하게 하였더라. [9]이에 그가 하나님의 교회의 번영에 큰 방해거리가 되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며, 백성 가운데 많은 분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원수로 하여금 그 권능을 그들에게 행사할 기회를 주었더라.

[10]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때, 이는 그가 모사이야의 아들들과 함께 은밀히 다니며 하나님의 계명, 또는 실로 왕의 명령에 반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며, 주의 백성을 길 잃게 하려고 꾀하였음이라— [11]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여기저기 다니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더니, 그가 마치 구름에 둘러싸인 듯 하강하여 마치 우레와도 같은 소리로 말한지라, 그 음성으로 인해 그들이 서 있는 땅이 진동하였더라. [12]이에 그들의 놀라움이 심히 커서 그들이 땅에 엎드러져, 천사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더라. [13]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외쳐 이르되, "앨마야, 일어나 앞으로 나서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교회라, 내가 이를 세우리니, 내 백성의 범법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를 전복하지 못하리라' " 하셨느니라.

ㄱ8 이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은 앨마서 26:17~20 참조; 36:6~23; 38:6~8에 나옴; 그 천사가 앨마서 8:15에서 다시 등장함

14또 천사가 다시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백성의 기도와, 또한 네 아비인 그 종 앨마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는 그가 네게 관하여 곧 네가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되기를 많은 신앙으로 기도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네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깨닫게 하여, 그 종들의 기도가 그들의 신앙에 따라 응답되게 하려는 이 목적으로 내가 왔노라. 15또 이제 볼지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논박할 수 있느냐? 보라, 내 음성이 땅을 진동시키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또한 너희 앞에 나를 볼 수 있지 아니하느냐? 나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16이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가라, 가서 힐램 땅에서와 니파이 땅에서 네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그들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는 그들이 속박되어 있었고 그가 그들을 건지셨음이니라.[ㄱ] 그리고 이제 내가 너 앨마에게 이르노니, 네 길을 가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무너뜨리기를 꾀하지 말라. 그리하여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되, 설혹 네 스스로는 버림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리하라" 하니라. 17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것이 천사가 앨마에게 한 마지막 말이라, 이에 그가 떠나니라.

앨마$_2$의 회복을 위한 기도

18이에 이제 앨마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다시 땅에 엎드러졌으니, 이는 그들의 놀라움이 실로 컸음이라. 이는 그들 스스로의 눈으로 그들이 주의 천사를 보았으며, 그의 음성이 우레 같아 땅을 진동하게 하였고, 땅을 진동하게 하여 그것으로 마치 갈라질 듯 요동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 이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음이라. 19그리고 이제 앨마의 놀라움은 너무 컸던지라 그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 입을 열지 못하였고, 또한 그가 약해져서 그 손도 움직일 수 없게 되매, 이러므로 그가 함께 한 자들에 의해 들려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채 옮겨져 이윽고 그 부친 앞에 뉘이우니라. 20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의 부친에게 다 고하매,

그의 부친이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줄 그가 알았음이라. 21이에 그가 허다한 무리로 함께 모이게 하여 주께서 그의 아들을 위해, 또한 그와 함께 한 자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들로 목격하게 하니라. 22또 그가 제사들을 함께 모이게 하매, 이에 그들이 금식하며, 주께서 앨마의 입을 여시어 그로 말하게 하실 것과 또한 그의 사지가 힘을 얻기를—그리하여 백성들의 눈이 떠져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보고 알게 되기를 주 그들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더라.

앨마$_2$의 고백

2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틀 밤 이틀 낮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난 후, 앨마의 사지가 그 힘을 얻었고, 그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그들에게 안심하기를 구하니라. 24"그가" 말하기를, "이는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주께 구속함을 받았음이라. 보소서 내가 영으로 났나이다. 25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든 인류, 참으로 남자와 여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반드시 거듭나야 함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곧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 속되고 타락된 상태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나니, 26또 이같이 하여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를 행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ㄱ]16 모사이야서 22:1~16; 24:13~25

27 "내가 여러분께 이르거니와, 이러한 경우가 아닌 한 그들은 반드시 버림받을 것이요, 이를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버림받을 듯하였던 까닭이라. 28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을 헤쳐 지나며, 죽음 가까이에 이르도록 회개하고 나서, 주께서 자비하신 가운데 나를 영원히 타는 것에서 빼내시기를 합당하게 여기셨나니, 이에 이제 내가 하나님에게서 났나이다.

29 내 영혼이 쓰디쓴
담즙과 죄악의
결박에서 구속함을 받았나이다.
내가 캄캄한 암흑의 심연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보나이다.
내 영혼이 영원한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내가 빼내심을 입어,
내 영혼이 더 이상 고통을 받지 아니하나이다.

30 "내가 내 구속주를 배척하고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바를 부인하였었으나, 이제 그가 오실 것을 그들이 미리 볼 수 있음과 그는 그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기억하심을 부인하지 아니하노니, 그는 만민에게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리라. 31 참으로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그의 앞에 고백할 것이라. 곧 마지막 날, 만인이 서서 그에게 심판받게 될 때, 그때 그들이 그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것이요, 그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이 그들에게 내려지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공의로움을 고백하리니, 그들이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의 눈길 아래 심히 떨며, 전율하며, 움츠러지리이다."

앨마$_2$와 모사이야$_2$의 아들들이 교회를 강화시키다

32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때로부터 앨마가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앨마와 함께 있던 자들도 그리하여, 그들이 그 온 땅 주변을 두루 다니면서 온 백성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공포하고,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히 핍박을 받고 그들 중 많은 자들에게 매를 맞았더라. 33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에 많은 위로를 주었나니,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오래 참음과 많은 노고로써 그들을 권면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였더라. 34 그리고 그들 중 넷은 모사이야의 아들들이었고, 그들의 이름은 암몬과 아론과 옴너와 힘나이였으니, 이는 모사이야의 아들들의 이름이었더라.

35 이에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온 땅과 모사이야 왕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로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교회에 입힌 모든 피해를 보상하려 열심히 노력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그들이 본 모든 것을 공포하며, 그들의 말을 듣기 원하는 모든 자에게 예언과 경전을 설명하니라. 36 이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많은 자들을 진리의 지식에, 참으로 그들의 구속주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37 이에 그들이 얼마나 복 있느냐!ㄱ
이는 그들이 평화를 공포하였으며,

ㄱ37 모사이야서 18:30의 "이에 그들이 얼마나 복 있느냐"를 추가하면서 (아빈아다이가 모사이야서 15:14~18에서 언급하고 설명했던) 이사야 52:7이 암시됨

선한 일의 좋은 소식을 공포하였으며,
주께서 다스리심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음이니라.

모사이야$_2$의 아들들이 레이맨인들을 찾아 전도하기를 원하다 ㄱ

28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적은 수를 데리고 그들의 부친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그들이 택한 바 이들과 함께 니파이 땅으로 올라가 그들이 들은 것을 전파하며,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도록 허락해 줄 것을 구하니— [2]그리함으로써 혹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하며, 그들로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고, 혹 니파이인들에 대한 그들의 증오를 치료하여, 그들 역시 주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서로 친근하게 되어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땅에 더 이상 다툼이 없게 하려 함이라.

[3]이제 그들은 모든 피조물에게 구원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했나니, 이는 어느 사람의 영혼이라도 멸망한다는 것을 그들이 견딜 수 없었음이라. 참으로 어느 영혼이라도 끝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바로 그 생각조차 그들을 심히 떨게하며 전율하게 하였더라. [4]이에 이같이 참으로 주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신 것은, 그들이 바로 죄인 중에 가장 비천한 자들이었음이라. 그러나 주께서 그의 무한하신 자비로 그들을 아끼시기를 합당하게 여기셨더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고뇌를 많이 겪었으니, 많은 고난을 겪으며 영원히 버림 받을 것을 두려워하였더라. [5]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니파이 땅으로 올라가고자 여러 날을 그 부친에게 간청하는지라.

[6]모사이야 왕이 가서 그 아들들을 말씀을 전파하도록 레이맨인들 가운데로 올라가게 해야 할지 주께 여쭈었더라. [7]그리고 주께서 모사이야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올라가게 하라, 이는 많은 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요, 그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네 아들들을 레이맨인들의 손에서 건져 낼 것임이니라" 하시는지라. [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가 그들로 하여금 가서 그들의 요청대로 행할 것을 허락하니라. [9]이에 그들이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파하러 올라가려고 광야로 여행을 떠났으니, 이후에 내가 그들의 행한 바를 이야기하리로다. ㄴ

모사이야$_2$가 림하이 백성이 찾은 판을 번역하다

[10]이제 모사이야 왕에게는 왕국을 넘겨 줄 자가 없었나니, 이는 그의 아들 중 아무도 왕국을 받으려 하는 자가 없었음이러라. [11]그러므로 그가 림하이의 백성에ㄷ 의해 발견되었고, 림하이의 손으로 그에게 전달된 금판에 있는 기록을 번역하여 이를 기록하게 한 후, 놋쇠판에 새겨진 기록과 또한 니파이의 판들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지키고 보존해 온 모든 것을 취하니라.ㄹ [12]또 이렇게 그가 행한 것은 그의 백성의 간절한 열망으로 인함이니, 이는 그들이 멸망당한 그 백성에 관하여 알기를 원하여 마지 아니하였음이라.

[13]그리고 이제 그는 활 모양의 두 테에 박힌 돌 두 개를 사용하여 그 기록을 번역하였더라. [14]이제 이러한 것은 언어를 해석할 목적으로, 태초로부터 예비되어 대대로

ㄱ 1 이 요청을 둘러싼 대화들의 세부 내용은 앨마서 26:23~25에 나옴 ㄴ 9 앨마서 17~28 ㄷ 11 모사이야서 8:9; 21:26~27 ㄹ 11 모사이야서 22:14

전해져 내려왔고,ㄱ 15또 이러한 것이 주의 손으로 지켜지고 보존되어 온 것은, 그가 이 땅을 소유하게 될 모든 피조물에게 그의 백성의 죄악과 가증함을 드러내시려 하심이라. 16그리고 누구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옛적 방식을 따라 선견자라 일컫느니라.

17이제 모사이야가 이 기록 번역하기를 마치고 나니, 보라, 그것은 멸망당한 그 백성의 기사를, 그들이 멸망당한 때로부터 거슬러 저 큰 탑을 쌓기까지, 곧 주께서 백성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매 그들이 온 지면에 널리 흩어졌던 때까지 이르고,ㄴ 또한 그때로부터 거슬러 아담의 창조 때까지, 말해 주고 있더라. 18이제 이 기사가 모사이야의 백성들로 심히 슬퍼하게 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이 슬픔으로 가득하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가 많은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었으매, 그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더라. 19그리고 이 기사는 이후에 기록되리니, 이는 보라, 이 기사에 기록된 것을 만백성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이니라.ㄷ

모사이야$_2$가 아들 앨마$_2$에게 기록을 맡기다

20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모사이야 왕이 이 일들을 행하고 난 후, 놋쇠판과 그가 간직해 왔던 모든 것을 취하고 그것을 앨마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곧 앨마의 아들이라. 참으로 모든 기록과 또한 해석기니, 이를 그에게 넘겨주고, 그에게 이를 지키고 보전하며, 백성들에 관하여 기록하며, 이러한 것이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던 때로부터 후대에 전해 내려왔던 것같이, 이를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후대에 전할 것을 명하였더라.ㄹ

왕정에 대해 모사이야$_2$ 왕이 백성들에게 보낸 기록

29 이제 모사이야가 이를 행하고 나서 온 땅에, 모든 백성 가운데 두루 내보내어, 누가 그들의 왕이 되어야 할지 그들의 뜻을 알고자 하니라. 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의 소리가 이르러 이르되, "우리는 왕의 아들 아론이 우리의 왕과 우리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3이제 아론은 니파이 땅으로 올라갔으므로, 왕이 그에게 나라를 넘겨 줄 수 없었고, 아론도 나라를 맡고자 아니하였으며, 모사이야의 아들들 중 아무도 기꺼이 나라를 맡으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4이러므로 모사이야 왕이 다시 백성 가운데로 보내되, 참으로 기록한 말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었으니, 이것이 기록된 말이라 일렀으되,

> 5보라, 너희 내 백성, 곧 내 형제들이여, 이는 내가 너희를 그리 여김이어니와, 나는 너희가 생각해 보도록 청함을 받은 의제를 너희가 생각해 볼 것을 원하노니—이는 너희가 왕을 갖기 원함이라. 6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거니와 나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는 사양하고, 나라를 맡고자 아니하느니라. 7그리고 이제 만일 그의 대신에 다른 이가 임명된다면, 보라 염려컨대 너희 가운데 다툼이 일어날까 하노니, 참으로 나라에 대한 권리를 가진 나의 아들이 돌아서서 노하고, 이 백성 중 일부를 끌어내어 그를 따르게 하여, 그로 인해

ㄱ14 모사이야서 8:13 ㄴ17 창세기 11:1~9 ㄷ19 이더서 참조 ㄹ20 모사이야$_2$가 기록들과 다른 국보들을 앨마$_2$에게 준 것은 엘마의 혈통 안에서 정치·종교적 권위가 공고해진다는 신호임; 모사이야서 29:41~42 비교; 모사이야서 1:15~16에서 절정을 이루지만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할 것임; 앨마서 4:16~18 참조

너희 가운데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많은 피를 흘리며 주의 길을 굽게 하며, 또한 많은 백성의 영혼을 멸망하게 할지 누가 아느냐.

8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 이 일을 생각하자. 이는 나의 아들을 멸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니요, 다른 자가 만일 그의 대신에 임명된다 하여도 그를 멸할 아무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니될 것임이라. 9 또 만일 나의 아들이 다시 그의 교만과 헛된 것으로 돌아선다면 그가 말했던 것을 취소하고, 나라에 대한 그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리니, 이로 인해 그와 또한 이 백성이 많은 죄를 범하게 되리로다.

10 그러한즉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 이 일들을 내다보고, 이 백성들의 화평에 도움이 될 바를 행하자. 11 그러므로 나의 남은 날 동안은 내가 너희 왕이 되려니와, 그럼에도 우리가 판사들을 임명하여, 우리의 법에 따라 이 백성을 판단하게 하자. 또 우리는 이 백성의 일을 새로이 정비하리니, 이는 우리가 지혜 있는 자들을 임명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이 백성을 판단할 판사가 되게 할 것임이니라. 12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판단 받는 것이 나으니, 이는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공의롭되, 사람의 판단은 항상 공의롭지는 아니함이라. 13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며, 그의 계명에 따라 이 백성을 판단할 의인들로 너희 왕을 삼는 것이 가능하다면, 참으로 만일 너희가 너희 왕으로 곧 나의 부친 베냐민이 이 백성을 위해 행하신 것같이 행할 사람을 둘 수 있다면—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항상 이같이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항상 왕을 두어 너희를 다스리게 함이 합당하리라.

14 또 나 자신도 내가 지닌 모든 능력과 역량을 다해 일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이 땅에 두루 화평을 이루어, 전쟁이나 다툼 도적질이나 약탈함이나 살인함이나 여하한 죄악도 있지 못하게 하려 하였고, 15 그리고 누구든지 죄악을 범한 자는 그가 범한 범죄에 따라,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준 법에 따라 내가 벌하였노라.

16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이 다 의롭지는 아니한즉, 너희를 다스릴 왕이나 왕들을 너희에게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17 이는 보라, 간악한 왕 하나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게 하며, 또한 그 패망은 어찌 그리 큰지! 18 참으로 노아 왕을, 곧 그의 사악함과 그의 가증함과 또한 그의 백성의 사악함과 가증함을 기억하라. 얼마나 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였는가 보라, 또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속박당하게 되었느니라. 19 그리고 그들의 전지하신 창조주의 중재가 아니었더라면, 이는 그들의 진실한 회개로 인한 것이었거니와, 틀림없이 그들은 지금 피할 수 없이 속박된 채로 있을 것이라. 20 그러나 보라, 그가 그들을 건지셨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앞에 겸손한 까닭이라. 그들이 그에게[ㄱ] 간절히 부르짖었으므로 그가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내셨도다. 참으로 주는 모든 경우에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의 권능으로 이같이 역사하사, 그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자비의 팔을 펴시느니라.

21 또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너희는 많은 다툼과 많은 유혈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불의한 왕을 폐위시킬 수 없느니라. 22 이는 보라, 그에게는 그의 불의한 벗들이 있으며, 그는 자신의 주위에 자기의 호위병들을 두며, 자기 앞서 의 가운데 다스린 이들의 법을 파기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발 아래 짓밟으며, 23 또 법을 제정하여 자기 백성 가운데 내보내되, 참으로

[ㄱ] 20 모사이야서 21:14; 24:10

그 자신의 사악함에 따른 법을 내보내며, 누구든지 그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당하게 하며, 누구든지 그를 거역하는 자에게는 자기의 군대를 보내어 싸우게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멸하리니, 이같이 한 불의한 왕이 모든 의의 길을 굽게 하느니라.

24 그러므로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같은 가증함이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25 그러므로 너희는 이 백성의 소리로써 판사들을 뽑아, 우리 조상들이 너희에게 준 법에 따라 너희가 판단을 받도록 하라. 그 법은 올바르며, 주의 손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니라. 26 이제 백성의 소리가 무엇이라도 올바른 것에 반하는 것을 원하는 일은 흔하지 아니하되, 백성 중 적은 부분이 바르지 못한 것을 원하는 일은 흔하니, 그러므로 백성의 소리에 의해 너희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를 너희가 준수하고 그것으로 너희 법을 삼으라. 27 그리고 만일 백성의 소리가 정녕 죄악을 택하는 때가 오면,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참으로 그때가 바로 그가 큰 멸망으로 너희를 벌하실 때니 곧 그가 이제까지 이 땅에 벌을 내리신 대로니라.

28 또 이제 만일 너희에게 판사들이 있고, 그들이 주어진 법에 따라 너희를 판단하지 않거든, 너희는 그들로 하여금 상급 판사에게 판단을 받게 할 수 있느니라. 29 만일 너희의 상급 판사들이 의로운 판단을 내리지 않거든, 너희는 너희의 하급 판사 소수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할 것이요, 그들은 백성의 소리에 따라 너희의 상급 판사들을 판단할지니라.

30 또 나는 너희에게 주를 경외함으로 이 일들을 행하기를 명하며, 나는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할 것과 너희가 왕을 두지 말 것을 명하노니, 만일 이 백성이 죄와 악을 범하면 그 죄악이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응답되리로다. 31 이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많은 백성들의 죄가 그들의 왕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이 그 왕들의 머리 위에 응답되느니라. 32 이에 이제 나는 이러한 불평등이 이 땅에, 특히 나의 이 백성 중에 있지 않기를 원하며, 또 나는 주께서 우리가 살며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을 합당히 여기시는 동안, 참으로 곧 우리의 후손 중 아무라도 이 땅 위에 남아 있는 동안, 이 땅이 자유의 땅이 되며 각 사람이 동일하게 그 권리와 특권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33 그리고 모사이야 왕이 이 외에도 많은 것을 그들에게 써서 의로운 왕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걱정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나니, 참으로 그들의 백성을 위하는 영혼의 모든 노고와, 또한 백성들이 그들의 왕에게 호소하는 모든 불평들이라. 그가 이 모두를 그들에게 설명하였더라. 34 또 그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짐이 모든 백성에게 돌아가서, 각 사람이 자기 몫을 감당하게 할 것을 그들에게 이르더라. 35 또 불의한 왕이 그들을 다스림으로써, 그들이 어떤 불리한 여건 하에서 고초를 겪었는지를 그들에게 모두 알게 하였으니, 36 참으로 그의 모든 죄악과 가증함과 모든 전쟁과 다툼과 유혈과 도적질함과 약탈함과 음행을 범함과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온갖 죄악들이라—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러한 일들은 마땅히 있어서 아니되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라 하였더라.

군주 정치의 끝—앨마$_2$가 대판사로 임명되다

37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 왕이 이러한 것을 백성들 가운데 내보낸 후 그들이 그의 말의 참됨을 깨닫게 되었더라. 38 그러므로 그들이 왕을 가지려는 소망을 버리고, 그 온 땅을 통하여 각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갖기를 심히 열망하게 되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의 죄의 보응을 기꺼이 받고자 하였더라. 39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누가 그들의 판사가 되어 그들에게 주어진 법에 따라 그들을 판단할지에 대하여, 그들의 발언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땅 각처에 무리로 함께 모였고, 그들은 그들에게 허가된 자유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40 또 그들은 모사이야 왕에 대한 사랑이 정녕 강해졌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를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욱 존경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를 이익, 곧 영혼을 더럽히는 저 이득을 추구하는 폭군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이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서 부를 억지로 거두지 아니하였고, 피 흘리는 일도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땅에 화평을 이룩하였고, 그의 백성들을 모든 종류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었음이라. 이러므로 그들이 그를 측량할 수 없이 크게 존경하였더라.

4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들을 다스릴, 곧 법에 따라 그들을 판단할 판사를 임명하되, 이를 그 온 땅 전체를 통하여 행하였더라. 4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초대 대판사에 임명되니라. 그는 또한 대제사라, 그의 부친이 그 직분을 그에게 수여하고, 교회의 제반사에 관한 책임을 그에게 맡겼더라.

43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주의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의로운 판단을 내리매, 그 땅에 두루 화평이 지속되니라. 44 이같이 제이라헤믈라의 온 땅을 통하여, 니파이인이라 일컫는 모든 백성 가운데 판사 치세가 시작되었으니, 앨마가 그 첫 번째 대판사이었더라.ㄱ

4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부친이 죽으매, 나이 팔십이 세라, 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었더라. 4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도 그의 치세 제삼십삼년에 역시 죽으매, 나이 육십삼 세라.ㄴ 모두 합하여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오백구 년이 되니라. 47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왕들의 통치가 끝나고, 이같이 그들 교회의 설립자인 앨마의 생애가 끝났느니라.ㄷ

ㄱ 44 판사 치세 첫해 = –91년 (즉, 예수님 탄생을 알리는 표적이 생기기 전 91년). 혼동을 막기 위해, 이 각주에서부터 해를 세는 단위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탄생 이전은 마이너스(–), 탄생 이후는 플러스(+)로 표시된다 ㄴ 46 앨마$_1$가 모사이야$_2$보다 20살 가까이 나이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앨마$_2$는 모사이야의 아들들보다도 상당히 나이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 ㄷ 47 모사이야서 18:17~30; 25:14~24

앨마서

앨마의 아들

몰몬$_2$이 요약한 앨마$_2$의 기록

앨마의 아들이자, 니파이 백성의 초대 대판사요, 또한 교회의 대제사였던 앨마의 기사. 판사 치세와, 백성 중의 전쟁과 다툼의 기사. 또한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이의 전쟁의 기사, 곧 초대 대판사 앨마의 기록에 따른 것임.[ㄱ]

니허가 사제술을 도입하고 기드온을 살해하다

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첫해에,[ㄴ] 이때 이후로는, 모사이야 왕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를 대신하여 다스릴 자를 남기지 아니하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갔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법을 제정하였었고, 그 법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가 만든 법을 지킬 의무를 지게 되었더라.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판사석에서 다스린 첫해에, 재판을 받으러 그의 앞에 끌려온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는 크고, 힘이 세기로 유명한 자이었더라. 3 또 그가 백성 가운데로 다니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는 바를 그들에게 전파하고, 교회를 압박하며, 백성들에게 선언하기를 모든 제사와 교사는 칭찬받아 마땅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아야 하고, 백성들에 의해 부양되어야 한다 하였더라. 4 그가 또한 백성들에게 증거하기를 모든 인류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고, 또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으며, 도리어 머리를 들고 기뻐해도 좋으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또한 모든 사람을 구속하셨으므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임이라 하였더라.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르치매 많은 자들이 그의 말을 믿더니, 그 수가 많았던지라 그들이 그를 부양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 시작하였더라. 6 이에 그가 그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져서, 매우 값진 의복을 입기 시작하였고, 그뿐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전파하는 바를 좇아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더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자기의 말을 믿는 자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자 가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한 사람 곧 그 교사들 중 하나를 만나매, 그가 교회의 백성들을 이끌어 내고자 저와 더불어 격렬히 논쟁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사람이 그에게 맞서,

---

ㄱ1 이 요약은 앨마서 1~44장만을 다루는 것으로 보임; 앨마서 45장에서는 힐라맨$_2$이 이 기록을 인수하고 앨마서 63장에서는 시블론$_2$의 기록이 시작됨 ㄴ1 –91년; 모사이야서 29:44의 각주 참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훈계하였더라. [8]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이니, 저는 림하이의 백성을 속박에서 건져냄에 있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었던 자더라.[ㄱ] [9]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맞서매 그가 기드온에게 노하여, 자기의 칼을 뽑아 저를 치기 시작하였으나, 이제 기드온이 나이 많아, 그의 공격에 능히 맞서지 못하였나니, 이러므로 저가 칼에 죽임을 당하니라.

[10]이에 저를 죽인 그 사람이 교회의 백성들에게 붙잡혀, 그가 범한 범죄대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앨마 앞으로 끌려왔더라. [1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앨마 앞에 서서 매우 담대히 스스로를 변호하였더라.

[12]그러나 앨마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사제술이[ㄴ] 이 백성 가운데 도입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니라. 또 보라, 너는 사제술의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로 그것을 강제하고자 하였나니, 사제술이 이 백성 중에 강제된다 할진대 그로 인해 이들은 온전히 멸망되리로다. [13]또 너는 한 의로운 사람, 참으로 이 백성 가운데 많은 선을 행한 한 사람의 피를 흘렸나니, 우리가 너를 살려둘진대 그의 피가 보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임할 것이니라. [14]그러므로 우리의 마지막 왕,[ㄷ] 모사이야가 우리에게 준 법에 따라 네게 사형을 언도하노니, 그 법은 이 백성에게 인정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백성은 반드시 법을 준수하여야 하느니라.

[1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를 잡으매, 그의 이름은 니허라. 그들이 그를 맨타이 언덕 꼭대기에 끌고 갔고, 거기에서 그가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임을 그가 인정하게 되었으니, 아니 그보다는 그가 스스로 인정하였느니라. 그리고 거기서 그가 욕된 죽음을 당하니라.

교회의 난관들

[16]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 땅 도처에 사제술이 퍼지는 것을 그치게 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자가 많아, 그들이 나아가 거짓 교리를 전파하였음이요, 그들이 이를 행한 것은 부와 명예를 위해서였더라. [17]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법을 두려워하여, 알려질 경우 감히 거짓말하려 아니하였으니, 이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처벌을 받았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 전파하는 체하였으니, 이제 법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는 아무에게도 권력을 미칠 수 없었더라. [18]또 그들은 법을 두려워하여 감히 도적질하려 아니하였으니, 그러한 자들은 처벌을 받았음이요, 또한 그들이 감히 강탈하거나 살인하려고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살인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음이라.

[19]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무릇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였더라. [20]참으로 그들을 핍박하며, 온갖 말로 그들을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겸손함으로 인함이라.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눈에 교만하지 아니한 연고요, 그들이 참으로 돈 없이 값없이,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연고더라.

[21]이제 교회의 백성 가운데는, 교회에 속한 자로서 어떤 사람도 일어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핍박해서는 아니되며, 또 그들 자신들 중에서도 핍박이 있어선 아니된다는 엄격한 법이 있었더라. [22]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많은 자들이 교만해져서, 그들의 대적들과 뜨겁게 다투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주먹다짐에까지 이르렀으니, 참으로 그들은 주먹으로 서로 치곤 하였더라.

[ㄱ] 8 모사이야서 22:3~14 [ㄴ] 12 이는 곧, 부나 권력을 얻기 위한 종교적 사기 [ㄷ] 14 모사이야서 29:14~15

23 이제 이 일이 앨마의 치세 제이년에 있었고,[ㄱ] 그 일은 교회에 많은 고난의 원인이 되었나니, 참으로 그 일은 교회에 있어 많은 시험의 원인이 되었더라. 24 이는 많은 자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들의 이름이 지워져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기억되지 못하였음이라. 또한 많은 자들이 스스로 그들 중에서 물러갔더라.

평화를 되찾은 후에 교회가 번영하다

25 이제 이 일이 신앙 안에 굳게 선 자들에게는 큰 시험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확고부동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며, 그들 위에 임하는 핍박을 인내로써 견디었더라. 26 또 제사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저들의 일을 떠나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들의 일을 떠났으며, 제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나면 그들 모두가 부지런히 그들의 일에 다시 돌아갔으니, 제사가 스스로를 그 듣는 자들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지 아니한 것은, 전파하는 자가 듣는 자보다 나을 것이 없고,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보다 더 낫지 아니함이라. 이같이 그들이 모두 동등하였고, 그들이 다 일하되 각 사람이 그 힘대로 일하였더라. 27 또 그들은 각기 자기가 가진 바에 따라, 그 재물을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또 그들은 값비싼 의복을 입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깨끗하고 단정하였더라. 28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이 참으로 교회의 제반사를 확립하였고, 이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하여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였더라.

29 그리고 이제, 교회의 굳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히 부유하게 되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었으니—양 떼와 소 떼와, 온갖 살진 짐승이 풍부하였으며, 또한 곡식과 금과 은과 귀한 것들이 풍부하였으며, 비단과 세마포와 온갖 좋은 검소한 옷감이 풍부하였느니라. 30 또 이같이, 그들이 번영하는 가운데, 그들이 벗은 자나 주린 자나 목마른 자나 병든 자나 양육 받지 못한 자를 아무도 보내어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들이 재물에 그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간에, 늙은 자와 젊은 자 매인 자와 자유로운 자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후히 나누어 주었더라.

31 이에 이같이 그들은 번영하여 그들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게 되었더라. 32 이는 그들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마술과 우상 숭배 또는 게으름과 수다와 시기와 다툼에 탐닉하며, 값비싼 의복을 입으며 그들 스스로의 눈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져서 핍박하며 거짓말하며 도적질하며 강탈하며 음행과 살인과 온갖 간악함을 범하였음이라. 그러나 법은 가능한 대로 그것을 범하는 자 모두에게 시행되었더라. 33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들에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바대로 벌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더욱 잠잠해져서, 알려질 경우 감히 아무 간악함도 범하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판사 치세 제오년에 이르기까지 니파이 백성 가운데 많은 평화가 있으니라.

[ㄱ] 23 –90년

애믈리싸이인들의 반란

앨마서 2~3장

애믈리싸이가 왕이 되지 못하다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치세 제오년 초에[ㄱ] 백성들 가운데 다툼이 생겼으니, 이는 애믈리싸이라 하는 어떠한 자로 인함이라. 그는 매우 간교한 자요, 참으로 세상의 지혜로는 현명한 자라, 그는 기드온을 칼로 죽이고, 법에 따라 처형된 자의 반차를[ㄴ] 따른 자더니— [2]이제 이 애믈리싸이가 그의 간교함으로 많은 백성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매, 그 수효가 많아 그들이 매우 강하여진지라, 그들이 애믈리싸이를 세워 백성들의 왕을 삼고자 힘쓰기 시작하였더라.

[3]이제 이는 교회의 백성들과 또한 애믈리싸이의 설득에 끌려가지 아니한 모든 이에게 놀라운 것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알기로 법에 의하건대 그러한 일은 백성들의 소리로 확립되어야만 하였음이라. [4]그러므로 만일 애믈리싸이가 백성의 소리를 얻는 일이 가능하다면, 그는 간악한 자인지라, 그들에게서 그들의 권리와 교회의 특권을 박탈할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는 것이 그의 의도였음이라.

[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땅 전역에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애믈리싸이에게 찬성하든지 혹은 반대하든지, 각 사람이 그 생각대로 따로 무리를 이루어, 서로 많은 논쟁과 경악스러운 다툼을 가졌더라. [6]이에 이리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그 문제에 관하여 투표하고, 이를 판사들 앞에 제출하였더라. [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의 소리가 애믈리싸이에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지라, 애믈리싸이가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하였느니라.

애믈리싸이와 그의 추종자들이 니파이인들과 다투다

[8]이제 이는 그를 반대하던 자들의 마음에 많은 기쁨을 안겨 주었으나, 애믈리싸이는 자기에게 찬성하는 자들을 선동하여 자기에게 찬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노하게 하였더라. [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함께 모여 애믈리싸이를 구별하여, 저들의 왕이 되게 하였더라. [10]이제 애믈리싸이가 저들의 왕이 되었을 때 저들을 명하여 저들의 형제를 대적하여 무기를 들게 하였으니, 이렇게 그가 한 것은 저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자 함이었더라. [11]이제 애믈리싸이의 백성들은 애믈리싸이의 이름으로 구별되어, 애믈리싸이인이라 일컬어졌고, 나머지는 니파이인,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졌더라.

[12]그러므로 니파이인 백성들은 애믈리싸이인들의 의도를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저들을 만날 준비를 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칼과 신월도와 활과 화살과 돌과 물매와 각종 온갖 전쟁 무기로 스스로 무장하였더라. [13]이에 이리하여 그들은 애믈리싸이인들이 올 때 저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그들의 수효에 따라, 대장들과 상급대장들과 총대장들이 임명되어 있었더라.

[14]또 이렇게 되었나니 애믈리싸이가 자기 사람들을 각종 온갖 전쟁 무기로 무장시켰고, 그도 자기 백성들 위에 통솔자들과 지휘관들을 임명하여,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형제를 치게 하였더라. [1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애믈리싸이인들은 제이라헤믈라 땅 곁으로 흐르는 시돈 강 동편 앰나이후 언덕에 올라와, 거기서 니파이인들과 싸우기 시작하였더라.

[ㄱ]1 –87년 [ㄴ]1 이는 곧, 니허의 반차; 앨마서 14:16; 21:4; 24:28~29 참조

16 이제 앨마는 니파이 백성의 대판사요 통치자라,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참으로 그의 대장들과 상급대장들과 함께 그의 군대의 우두머리가 되어, 애믈리싸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갔느니라. 17 그리고 그들이 시돈 동편 언덕 위에서 애믈리싸이인들을 죽이기 시작하매, 애믈리싸이인들이 큰 힘을 내어 니파이인들과 싸웠던지라, 니파이인들이 많이 애믈리싸이인들 앞에 쓰러졌느니라.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니파이인들의 손을 강하게 하시매, 그들이 애믈리싸이인들을 크게 도륙하였으니, 저들이 니파이 백성들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하였느니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들이 그 날 종일토록 애믈리싸이인들을 추격하여, 저들을 크게 도륙하였으매, 애믈리싸이인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들이 만 이천오백삼십이 인이요, 니파이인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들이 육천오백육십이 인이더라.

니파이인들이 기드온 골짜기 근처에서 애믈리싸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을 물리치다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애믈리싸이인들을 더 추격할 수 없게 되자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기드온 골짜기에 그들의 장막을 치게 하였으니, 이 골짜기는 니허의 손에 칼로 죽임을 당한 기드온의 이름을 따라 불리우는 곳이라,ㄱ 이 골짜기에서 니파이인들은 밤 동안 그들의 장막을 쳤더라. 21 그리고 앨마는 정탐들을 보내어 애믈리싸이인들의 남은 자들을 따르게 하여, 저들의 계획과 책략을 알고자 하였으니, 그리함으로써 저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여 멸망당하지 않게 하고자 함이었더라. 22 이제 그가 내보내어 애믈리싸이인들의 진영을 살피게 한 자들은 지램과 앰노어와 맨타이와 림허라 하는 자들이었나니, 이들은 자기 사람들과 함께 애믈리싸이인들의 진영을 살피러 나간 자들이더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그들이 크게 놀라고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황급히 니파이인들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24 "보라, 우리가 애믈리싸이인들의 진영을 따르는데, 니파이 땅으로 가는 길에, 제이라헤믈라 땅 위쪽, 미논 땅에서, 우리가 레이맨인의 수많은 군사들을 보고 크게 놀랐느니라. 또 보라, 애믈리싸이인들이 저들과 합류하였더라. 25 또 저들은 그 땅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공격하고 있어, 우리의 형제들이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함께 저들 앞에서 도망하여 우리 성을 향하여 오고 있나니, 우리가 서두르지 아니하면 저들이 우리 성을 점령하여, 우리의 부친들과 우리의 아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지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들이 그들의 장막을 취하고, 기드온 골짜기에서 떠나 그들의 성을 향하였나니, 이는 제이라헤믈라 성이라. 27 그런데 보라, 그들이 시돈 강을 건너고 있을 때, 거의 마치 바다 모래같이 수많은 레이맨인들과 애믈리싸이인들이 그들을 멸하고자 그들을 공격하였더라. 28 그럴지라도, 니파이인들은 주의 손으로 강하게 되었나니, 그들이 주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들을 그 적들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구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신지라, 레이맨인들과 애믈리싸이인들이 그들 앞에서 엎드러졌느니라.

2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애믈리싸이와 더불어 대면하여 칼로 싸우는데, 그들이 서로 힘을 다하여 싸웠더라. 3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두터운 신앙으로 역사되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자비를 베푸사 나의 생명을 살려 주시옵고, 그리하여 나로 하여금 주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이 백성을 구원하며 보전하게 하시옵소서" 하였느니라.

ㄱ 20 앨마서 1:9

31 이제 앨마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애믈리싸이와 더불어 싸우더니, 그가 강하게 되어 애믈리싸이를 칼로 죽였더라. 32 그가 또한 레이맨인의 왕과 더불어 싸웠으나, 레이맨인의 왕이 앨마 앞에서 뒤로 도망하여 자기의 호위병들을 보내어 앨마와 더불어 싸우게 하였느니라. 33 그러나 앨마는, 자기의 호위병들과 함께, 레이맨인의 왕의 호위병들과 더불어 싸워 마침내 그들을 죽이고 물리쳤더라. 34 또 이리하여 그는 죽임을 당한 레이맨인들의 시체를 시돈 물에 던져, 시돈 강 서편에 있는 땅 곧 다시 말해 그 둑을 말끔히 치웠으니, 이는 그리함으로써 그의 백성들이 건너와 시돈 강 서편에서 레이맨인들 및 애믈리싸이인들과 더불어 싸울 공간을 갖게 하고자 함이라.

35 또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시돈 강을 건너매 레이맨인들과 애믈리싸이인들은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하였더라. 36 또 이에 저들이 니파이인들 앞에서 서편과 북편의 광야를 향하여 그 땅 경계를 넘어 도망하매, 니파이인들이 힘을 다하여 저들을 따라가서 저들을 도륙하였더라. 37 실로 저들은 사방으로 만난 바 되어, 죽임을 당하였고 쫓기어 서편과 북편에 흩어지기에 이르렀으며, 이윽고 허어모운츠라 하는 광야에 미치기에 이르렀으니, 이곳은 광야에서 굶주린 들짐승들이 들끓는 지역이더라. 38 또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자들이 그 부상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죽어, 저 짐승들과 또한 공중의 수리들에게 먹히매, 저들의 뼈가 드러나 땅 위에 무더기로 쌓이니라.

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전쟁의 무기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니파이인들은, 죽임을 당한 자들을 묻고 나서—이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를 세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가 큰 연고라—그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 묻기를 마치고 나서 모두 자기 땅으로, 자기 집과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게 돌아가더라. 2 이제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였고, 또한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도 많이 그리되었으며, 또한 그들의 곡식 밭도 많이 무너졌으니 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짓밟혔음이라. 3 또 이제 시돈 강 둑 위에서 죽임을 당한 레이맨인들과 애믈리싸이인들은 모두 시돈 물에 던져졌나니, 보라 그들의 뼈가 바다 깊은 곳에 있으며 그 수가 많으니라. ㄱ

애믈리싸이인들이 레이맨인들의 저주를 자초하다

4 또 애믈리싸이인들은 니파이인들과 구별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방식을 따라 자기의 이마에 붉은 표를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레이맨인들처럼 그 머리를 깎지는 아니하였더라. 5 이제 레이맨인들의 머리는 깎였으며, 그 허리에 두른 가죽과 또한 허리에 두른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활과 그들의 화살과 그들의 돌과 그들의 물매 등을 제외하고는 그들이 벌거벗었더라.

6 또 레이맨인들의 피부는 그 조상들에게 두신 표시대로 어두웠으니, 이는 그들의 범법과 그들의 형제들을 대적한 그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임한 저주였더라.ㄴ 그 형제들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인 니파이, 야곱 그리고 요셉과 샘이었더라. 7 또 그들의 형제들은 그들을 멸하려 하였나니, 그러므로 저들은 저주를 받았고, 주 하나님께서는 저들, 곧 레이맨과 레뮤엘과 또한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이스마엘족의 여인들에게 표를 두셨더라.

8 또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씨가 그 형제들의 씨와 구별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전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섞여서 그들의 멸망을 초래할 그릇된 전통을 믿지 않게 하려 하심이더라.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누구든지

ㄱ 3 여기 1~3절에서 내용을 구분짓는 문학장치(inclusio)가 시작되고 앨마서 44:21~22에서 끝남 ㄴ 6 니파이후서 5:20~21

그 씨를 레이맨인들의 씨와 섞는 자는 동일한 저주를 그 씨에 초래하였더라. [10]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레이맨인들에게 이끌려 가는 자는 그 칭호하에 일컬음을 받았고, 그에게는 두신 표가 있었더라.

[11]또 이렇게 되었나니 누구든지 레이맨인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땅에서 가지고 나온 그 기록과 또한 그 조상들의 올바른 전통을 믿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이를 지키는 자들은 그때로부터 니파이인들, 곧 니파이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나니— [12]자기 백성과 또한 레이맨인 백성에 관한 참된 기록을 해온 자들이 이들이라.

[13]이제 우리는 애믈리싸이인들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니, 이는 그들에게도 그들 위에 둔 표가 있었음이라. 참으로 그들은 스스로의 위에 그 표를 두었으니, 곧 그 이마에 붉은 표를 둔 것이라. [14]이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는 그가 니파이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함이라. "보라, 레이맨인들을 내가 저주하였나니,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그들이 그 간악함을 회개하고 내게로 돌이키지 않는 한, 내가 그들에게 표를 두어, 이때로부터 이후 영원히, 그들과 그들의 씨가 너와 네 씨에게서 나뉘게 하리라."[ㄱ]

[15]또 "그 씨를 네 형제들과 혼합하는 자에게는 내가 표를 두어, 그들로도 저주를 입게 하리라."[ㄴ]

[16]또 "너와 네 씨를 대적하여 싸우는 자에게는 내가 표를 두리라."[ㄷ]

[17]또 "거듭 내가 말하노니 네게서 떠나는 자는 더 이상 네 씨라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요, 너와, 누구든지 네 씨라 칭함을 받게 될 자에게는, 지금부터 영원히, 내가 복을 주리라 하셨나니,"[ㄹ] 니파이에게와 그의 씨에게 하신 주의 약속이 이러하였더라.

[18]이제 애믈리싸이인들은 스스로 그 이마에 표시를 하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온 것이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저주가 내리는 것이 마땅하였느니라. [19]이제 나는 그들이 저주를 자초한 것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저주를 받는 각 사람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정죄를 자초하느니라.

레이맨인들과의 또 다른 전투

[20]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애믈리싸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싸운 지 여러 날 되지 아니하여, 첫번 군대가 애믈리싸이인들을 만났던 동일한 장소에서, 또 다른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들어와 니파이 백성을 공격하니라. [2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을 저들의 땅에서 몰아 내도록 한 군대가 보냄을 받았더라. [22]이제 앨마 자신은 부상을 입었던지라 이때에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나, [23]저들을 대적하도록 수가 많은 한 군대를 올려 보내매, 그들이 올라가서 레이맨인들을 많이 죽이고, 그들 중 남은 자들을 그들의 땅 경계 밖으로 몰아 내었더라. [24]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 그 땅에 평화를 이루기 시작하였고, 한동안 그들의 대적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5]이제 이 모든 일이 판사 치세 제오년에 이루어졌나니, 참으로 이 모든 전쟁과 다툼이 그 해에 시작되어 그 해에 끝났더라.[ㅁ] [26]이리하여 한 해 동안에 수천수만의 영혼이 영원한 세상으로 보내졌나니, 그 행위가 착했든지 아니면 그 행위가 나빴든지, 그 행위를 따라 그들이 자기의 보상을 거두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착한 영이든지 나쁜 영이든지, 그들은 순종하기를 원한 영에 따라, 영원한 행복이나 영원한 비참을

[ㄱ]14 니파이후서 5:22 참조 [ㄴ]15 니파이후서 5:23 참조 [ㄷ]16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ㄹ]17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ㅁ]25 –87년; 앨마서 2:1 참조

거두게 되리라. [27]이는 각 사람은 자기가 순종하기를 원한 자에게 삯을 받음이요, 이는 예언의 영의 말씀대로인즉, 그러므로 진리대로 될지어다.ㄱ 이같이 판사 치세 제오년이 끝나니라.

회개와 평화

4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육년에,ㄴ 제이라헤믈라 땅에 다툼이나 전쟁이 없었으나, [2]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되, 참으로 그들의 형제들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의 양 떼와 소 떼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발 아래 짓밟혀 레이맨인들에 의해 훼파된 바, 그들의 곡식밭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고난을 당하였더라.ㄷ [3]이에 그들의 고난이 어찌나 컸던지 모든 사람에게 애통함이 있었고,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가증함으로 인하여 그들 위에 보내신 하나님의 심판이라 믿은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일깨움을 받아 그들의 의무를 기억하게 되었더라.ㄹ

[4]이에 그들이 더욱 온전히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고, 또한 많은 자들이 시돈 물에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그 부친 앨마의 손으로, 교회의 백성 위에 대제사로 성별된 앨마의 손으로 침례를 받았더라.ㅁ [5]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칠년에ㅂ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가 대략 삼천오백 인 가량 있었으며,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칠년이 끝났나니, 그 기간 동안 내내 평화가 있었더라.

교만이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다

[6]그리고 판사 치세 제팔년에 이렇게 되었나니,ㅅ 교회의 백성들이 그들의 근면함으로 얻은 바, 그들의 심히 큰 부와 그들의 상품 비단과 그들의 세마포로 인하여, 또 그들의 많은 양 떼와 소 떼와 그들의 금과 은과 온갖 귀한 것들로 인하여 점차 교만해지기 시작하였고, 이 모든 것으로 그들이 그 눈의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대단히 값비싼 의복을 입기 시작하였음이라.

[7]이제 이것은 앨마에게, 또한 앨마가 성별하여 교회에 교사와, 제사와, 장로가 되게 한 무리 중 많은 이들에게 많은 고난의 원인이었나니, 참으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들이 본 바 그들의 백성 가운데 있기 시작한 간악함으로 말미암아 심히 비통하게 되었더라. [8]이는 교회의 백성들이 그 눈의 교만 중에 자고하며, 그 마음을 재물과 세상의 헛된 것에 두기 시작하여, 서로 조소하기 시작하고, 그들 스스로의 뜻과 기뻐하는 바를 좇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을, 그들이 큰 슬픔을 지닌 채 보고 또 보았음이라.

[9]또 이리하여 이 판사 치세 제팔년에 교회의 백성 가운데 큰 분쟁이 생겼으니, 참으로 시기함과 다툼과 악의와 핍박과 교만이 있어,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의 교만보다 더하였더라. [10]또 이같이 판사 치세 제팔년이 끝났으니, 교회의 간악함은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었고 이리하여 교회는 발전하지 못하게 되어 갔느니라.

ㄱ27 25~27절은 모사이야서 2:32~33에서 베냐민이 언급했던 모사이야1의 가르침을 암시함 ㄴ1 –86년
ㄷ2 앨마서 3:2 ㄹ3 니파이전서 2:24에 예언된 바 ㅁ4 모사이야서 29:42 ㅂ5 –85년 ㅅ6 –84년

앨마$_2$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판사직을 사임하다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제구년 초에,[ㄱ] 앨마는 교회의 간악함을 보았고, 또한 교회의
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한 가지 죄악에서 또 한 가지 죄악으로 인도하여, 백성의
멸망을 가져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더라. 12 참으로 그가 백성 가운데 큰 불평등을
보았으니, 어떤 이들이 그 교만으로 자고하여, 다른 자들을 멸시하며, 궁핍한 자와
벗은 자와 주린 자들과 목마른 자들과 병들고 고난 받는 자들에게 그들의 등을 돌
림이라. 13 이제 이것이 백성 가운데 슬피 울게 하는 큰 원인이었으나, 한편으로 다른
이들은 스스로를 낮추어,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었나니,
예컨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주린 자를 먹이며,
예언의 영에 따를진대 장차 오실 이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갖 고난을 받으며, 14 그
날을 고대하며, 이같이 하여 그들의 죄 사함을 간직하며, 사망의 줄에서 건지시는 예
수 그리스도의 뜻과 권능과 건지심에 따른 바,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15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한 자들의 고난과 나머
지 그의 백성들에 의해 그들에게 가해지는 핍박을 보고 나서, 또 그들의 모든 불평등을
보고 대단히 비통하여졌으나 그럼에도 주의 영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16 이에
그가 교회의 장로 중에 있는 현명한 사람 하나를 골라, 백성의 소리에 따라 그에게
권능을 주어, 그로 이미 주어진 법에 따라 법을 제정하며, 백성들의 간악함과 범죄를
좇아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하였더라. 17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니파이하라,
그가 대판사로 임명되어, 판사직에 앉아 백성들을 판단하며 다스리게 되니라.

18 이제 교회를 관할하는 대제사 되는 직분은 앨마가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나니,
그가 대제사 직분은 스스로 유지하였으나, 판사직은 니파이하에게 넘겨주었더라. 19 그
리고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 자신 그의 백성 가운데, 곧 니파이 백성 가운데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그들을 각성시켜 그들의 의무를 기억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만과 간교함과 그의 백성 중에 있는 모든 다툼을 끌어내리
고자 함이었으니, 순수한 간증으로 그들을 압도하지 아니하고는 그들을 돌이키게 할
방도를 알지 못하였음이라.

20 이리하여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구년 초에, 앨마는 니파이하에게 판사직
을 넘겨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의 대신권직에, 계시와 예언의 영에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더라.

[ㄱ] 11 –83년

앨마$_2$의 설교 순회[ㄱ]

앨마서 5~16장

제이라헤믈라에서 앨마$_2$가 한 설교[ㄴ]

앨마서 5장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따른 대제사 앨마가 그 땅 여러 성읍과 마을에서 두루 백성들에게 전한 말.

너희 조상들을 건져 내심을 기억하라

5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되, 먼저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 온 땅에 두루 전하기 시작하니라. [2]그리고 이는 그가 제이라헤믈라 성에 세워진 교회에서 백성들에게 한 말이니, 그 자신의 기록에 따른 것이라 일렀으되,

[3]"나 앨마는 나의 부친 앨마에 의해 하나님의 교회를 관할하는 대제사로 성별되었나니,[ㄷ] 그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니파이의 변경에 있는 땅, 참으로 몰몬의 땅이라 일컫는 땅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는 또한 몰몬의 물에서 그의 형제들에게 침례를 주었느니라. [4]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으로, 노아 왕의 백성의 손에서 건져 내심을 입었느니라. [5]보라, 그 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레이맨인들의 손으로 속박에 들게 되었느니라.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사로잡힌 가운데 있었으나, 다시 주께서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내시매, 우리가 이 땅으로 인도되었고, 여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두루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였느니라.[ㄹ]

[6]"또한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 곧 이 교회에 속한 너희에게 이르노니,

>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것을
> 충분히 기억 속에 간직하였느냐?
> 또한 너희는 그들을 향한 그의 자비하심과
> 오래 참으심을 충분히 기억 속에 간직하였느냐?
> 더욱이 너희는 그들의 영혼을 그가 지옥에서 건지셨음을
> 충분히 기억 속에 간직하였느냐?

[7]"보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나니, 참으로 그가 그들을 깊은 잠에서 깨우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로 깨어났느니라. 보라, 그들이 암흑 가운데 있었으나, 그들의 영혼이 영원하신 말씀의 빛으로 밝혀졌나니, 참으로 그들은 사망의 줄과 지옥의 사슬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영원한 멸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ㄱ]1 이 부분은 앨마$_2$가 제이라헤믈라, 기드온, 밀렉과 앰몬아이하로 명칭되는 네 곳에서 설교함; (그 중 세 곳에서의 설교 기록만 남아있음;) 또한 앨마$_2$가 시돈에 교회를 설립함; 그의 행보가 설교와 종교적인 혁신을 이끄는 더 넓은 사회 운동의 시작이 됨 [ㄴ]1 앨마$_2$ 자신의 기록으로부터 직접 인용된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 몰몬$_2$이 요약하던 것을 멈춤; 이례적으로 앨마$_2$가 제이라헤믈라에서 한 이 설교에서는 대략 50개 정도의 수사적인 물음이 나옴 [ㄷ]3 모사이야서 29:42 [ㄹ]5 모사이야서 18; 23~25

8"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그들이 멸망당하였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들은 멸망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9"또다시 내가 묻노니, 사망의 줄이 끊어졌으며, 그들을 둘러쌌던 지옥의 사슬이 풀렸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하도다, 그 사슬이 풀렸고, 그들의 영혼은 부풀었나니, 그들은 구속하시는 사랑을 노래하였느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구원받았느니라.
10"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어떠한 조건으로 그들은 구원받았느냐? 구원을 바랄 무슨 근거가 그들에게 있었느냐? 사망의 줄과 또한 지옥의 사슬에서 그들이 놓인 까닭이 무엇이냐?
11"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할 수 있노니—나의 부친 앨마가 아빈아다이의 입으로 전해진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는 거룩한 선지자가 아니었느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매, 나의 부친 앨마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느냐?[11] 12이에 그의 신앙을 좇아 그의 마음에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졌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모두 사실이니라. 13또 보라, 그가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매, 그들의 마음에 또한 크나큰 변화가 이루어져, 그들이 스스로 겸손하여,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였느니라. 또 보라, 그들은 끝까지 충실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구원받게 되었느니라."

심판날을 상상하라

14"또 이제 보라, 나의 교회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 보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였느냐? 15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이의 구속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느냐? 너희는 이 죽어야 하는 몸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며, 이 썩어야 하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서 죽어야 하는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을, 신앙의 눈으로 고대하며 바라보느냐?
16"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날에, 너희 복 받은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이는 보라, 지상에서 너희의 행위가 의의 행위였음이니라 라고, 너희에게 이르시는 주의 음성을 너희가 듣는 것을 스스로 상상할 수 있느냐?' 17아니면 너희가 그 날에, '주께 거짓말하여 고하기를—주여, 지상에서 우리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였나이다 라고 할 수 있으며,' 또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구원하시리라고 스스로 상상하느냐? 18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를 기억하되 참으로 너희의 모든 간악함을 온전히 기억하고,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였음을 기억하여, 너희의 영혼이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가득한 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끌려 나오게 됨을 상상할 수 있느냐?

19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날에 너희가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 얼굴에 새기고,
우러러 볼 수 있겠느냐?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11] 모사이야서 17:1~4

너희가 스스로를 내어 맡겨 악마에게 예속된 자가 되었어도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느냐?

21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그 날에 너희가 알리라. 이는 그 옷이 씻겨져 희게 되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이니, 참으로 그의 옷은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이, 곧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오실 이의 피를 통하여 정결하게 함을 받아,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기에 이르러야 하느니라.

22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만일 너희가 너희의 옷을 피와 온갖 더러움으로 더럽힌 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면, 너희 중 아무라도 어찌 느끼겠느냐? 보라, 이러한 것이 너희를 쳐서 무엇을 증거하겠느냐? 23 보라 그러한 것이 너희가 살인자인 것과 또한 너희가 온갖 간악한 죄를 범하였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겠느냐?

24 "보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그러한 자가 그 옷이 깨끗하게 되어 흠도 없으며 정결하고 흰,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또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에 앉을 자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25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니라, 너희가 우리의 창조주를 태초로부터 거짓말하시는 이로 만들거나, 그가 태초로부터 거짓말하시는 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러한 자가 하늘 나라에 처소를 가질 수 있다고 너희가 생각할 수 없으리니, 그들이 내어 쫓길 것은 그들이 악마의 나라 자녀들임이라.

회개하고 준비하라

26 "또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만일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다면, 내가 묻고자 하노니,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27 너희는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것 없이 스스로를 지켜 행하였느냐? 만일 너희가 이 시간에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된다면, 너희는 너희 속으로 너희가 충분히 겸손했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의 옷이 장차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속하시려고 오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 희게 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28 "보라, 너희는 교만을 벗어 버렸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너희는 속히 준비해야만 하나니, 이는 천국이 곧 가까이 옴이요, 그러한 자에게는 영생이 없음이니라.

29 "보라, 내가 말하노니, 너희 중에 시기심을 벗어 버리지 못한 자가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한 자는 준비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속히 준비하기를 바라노니, 이는 그 시각이 가까우나, 그때가 언제 임할는지 그가 알지 못함이요, 그가 죄 없다 함을 얻지 못함이라.

30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그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그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가 있느냐? 31 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가 준비되지 아니하였음이요, 또 그때가 가까웠으매 그가 회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구원받을 수 없음이라! 32 참으로 너희 불의를 행하는 자 모두에게 화 있도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선한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

33"보라, 그는 만인에게 초청을 보내시나니, 이는 자비의 팔이 그들을 향하여 펴져 있음이라, 그가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34참으로 그가 이르시되,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게 되리니, 참으로 너희가 생명의 떡과 물을 마음껏 먹고 마시게 되리라. 35참으로 내게 와서 의의 일에서 결실을 거두라. 그리하면 너희가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36이는 보라, 때가 가까웠은즉 누구든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 곧 누구든지 의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에게는 슬피 울며 애통할 일이 있음이라.

37"오 너희 불의를 행하는 자들, 너희 세상의 헛된 것으로 부풀어 오른 자들, 너희 의의 길을 안다고 고백하였으나 그럼에도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벗어나, 목자가 너희를 불렀고 아직도 너희를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아니하는 자들아!

38"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한 목자가 너희를 부르시느니라. 참으로 그가 자기의 이름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부르시나니, 만일 너희가 선한 목자의 음성에, 너희가 일컬음을 받는 그 이름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니니라. 39그러면 이제 만일 너희가 선한 목자의 양이 아니라면, 무슨 무리에 너희가 속하였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마가 너희의 목자요, 너희는 그의 무리에 속하였느니라. 이제 누가 이를 부인할 수 있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를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악마의 자녀이니라.

40"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무엇이든지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무엇이든지 악한 것은 악마로부터 옴이니라. 41그러므로 만일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면 그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참으로 그를 따르거니와, 누구든지 악한 일을 행하는 자, 그는 악마의 자녀가 되나니, 이는 그가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를 따름이니라. 42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는 그에게서 자기 삯을 받아야 하나니,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삯으로 의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사망을 받아,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죽음이 되느니라."

앨마$_2$의 간증

43"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나에게서 듣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가 내 영혼의 힘을 다하여 말함이라. 이는 보라, 너희가 잘못 알아들을 수 없도록 내가 명백히 너희에게 말하였음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말하였음이니라. 44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에 따라, 이러한 모양으로 말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음이니, 참으로 내가 서서 장차 올 일에 관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말씀하신 것을 이 백성에게 증거하도록 명을 받았느니라.

45"또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라. 너희는 내가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나는 내가 말한 이러한 것이 참된 줄을 아노라. 이에 너희는 내가 어떻게 그러한 것의 확실함을 안다고 생각하느냐? 46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것들이 내게 알려졌느니라. 보라, 내가 여러 날을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 스스로 이러한 일을 알고자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참으로 그러한 것이 참된 줄을 스스로 아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것들을 내게 나타내 주셨음이니, 이는 내 안에 있는 계시의 영이니라.

47 "또 더욱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조상들이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이, 이같이 내게 계시되었나니, 곧 내 안에 있는 예언의 영을 좇아서요, 또한 하나님의 영의 나타내심에 의해서니라. 4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내가 장차 올 일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할 것은 다 참된 줄을 내가 스스로 아노라. 이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참으로 그는 아들이시요, 아버지의 독생자시요, 은혜와 자비와 진리가 충만하시도다. 보라, 세상의 죄, 참으로 자기의 이름을 굳게 믿는 각 사람의 죄를 제하려 오시는 이가 그이시니라.

49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부르심을 입은 반차는 이것이니, 곧 참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참으로 이 땅에 거하는 각 사람에게 전파하되, 참으로 늙은 자나 젊은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노년과 또한 중년과 자라나는 세대 모두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전파하며, 참으로 그들에게 외치는 이것이니라."

영의 말씀

50 "참으로 이같이 영이 이르시되,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곧 가까이 이름이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 중에, 그 능력과 위엄과 권능과 다스림 중에 오시느니라 하시느니라.'

" 참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이 말씀하시되, '보라, 온 땅의 왕이요, 또한 하늘의 왕의 영광이 머지 아니하여 곧 모든 인류의 자녀들 가운데 비치리라' 하시느니라.

51 "영이 또 내게 이르시되, 참으로 큰 음성으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나아가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회개하라, 이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음이니라 하라' 하시느니라.

52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이 말씀하시되, '보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느니라.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니, 참으로 소멸될 수 없는 불이요,' 곧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보라, 그리고 기억하라, 거룩하신 자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악행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53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러한 말씀에 대항할 수 있느냐?
참으로 너희는 이러한 것을 버리고,
거룩하신 자를 너희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느냐?
참으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교만 중에 부풀어 오를 수 있느냐?

참으로 너희가 아직도 고집하여 값비싼 옷을 입으며
너희 마음을 세상의 헛된 것에,
너희의 재물에 두려느냐?
54 참으로 너희는 너희가 다른 이보다 낫다고 생각하기를 계속하려느냐,
참으로 너희는 너희 형제 핍박하기를 계속하려느냐,
그들은 스스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좇아 행하나니,

이 반차로 그들은 이 교회에 인도되어 들어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며,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내느니라—
55 또한 너희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희의 등을 돌리며,
그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을 주지 아니하기를 계속하려느냐?
56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간악함을 고집하려는 너희 모두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자들이 바로 속히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찍혀 불에 던져질 자들이니라."

선한 목자를 따르고 싶은 자들에게

57"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르기 원하는 너희 모두여, 너희는 악인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그들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보라, 그들의 이름이 지워져, 악인의 이름은 의인의 이름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지 못하게 되리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니, 이르시기를, 악인의 이름이 내 백성의 이름과 섞이지 아니할 것이라. 58이는 의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될 것이요, 그들에게는 내가 내 오른편에서 한 기업을 줄 것임이니라 하셨느니라.'ㄱ

"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이를 거스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설혹 너희가 이를 거스려 말한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이니라. 59대저 너희 중에 과연 어떤 목자가 많은 양을 가졌으면, 이리들이 들어와 자기 양 떼를 삼키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또 보라, 이리가 자기 양 떼에 들어오면 그가 그것을 몰아 내지 아니하느냐? 그뿐 아니라 결국에는 그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멸하리라.

60"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한 목자가 너희를 부르시나니, 너희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그가 너희를 자기의 무리에 인도해 들이실 것이요, 그러면 너희는 그의 양이라. 또 그는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굶주린 이리가 너희 중에 들어옴을 용납하지 말 것을 너희에게 명하시느니라.

61"이제 나 앨마는 나에게 명하신 이의 말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지켜 행할지어다. 62내가 교회에 속한 너희에게는 명령으로 말하며,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권유로 말하노니, '와서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고, 그리하여 너희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

제이라헤믈라에 있는 교회

6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제이라헤믈라 성에 세워진 교회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 하나님의 반차를 좇아 그의 손으로 안수함으로써, 교회를 감리하고 감독할 제사와 장로를 성임하였더라. 2또 이렇게 되었나니 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자로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는 누구나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고, 교회에 받아들여졌더라. 3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교회에 속한 자로서 누구든지 그 간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지 아니하는 자들—그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진 자들을 내가 뜻하노라—그들은 거부되고, 그들의 이름이 지워져, 그들의 이름이 의인들의 이름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지 못하니라. 4이같이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성에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였더라.

ㄱ58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5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에게 자유로이 주어졌으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함께 모이는 특권을 빼앗기지 아니하였음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6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영혼의 복리를 위하여 함께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명을 받았느니라.

앨마$_2$가 기드온으로 가다

7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이같이 질서를 바로잡고 나서 그들에게서, 참으로 제이라헤믈라 성에 있는 교회에서 떠나, 시돈 강 동편으로 넘어가서 기드온 골짜기로 들어가니, 거기 기드온 성이라 하는 한 성읍이 세워져 있음이라. 이는 니허의 손에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 기드온이라 불리우는 골짜기에 있더라. ㄱ

8 이에 앨마가 가서 그의 조상들이 하신 말씀의 참됨에 대한 계시를 좇아, 또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속하시려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좇아, 그의 안에 있는 예언의 영과 그가 부름 받은 거룩한 반차를 따라, 기드온 골짜기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으니, 기록된 바가 이러하니라. 아멘.

기드온에서 앨마$_2$가 한 설교 ㄴ

앨마서 7장

기드온에 있는 백성에게 전한 앨마의 말씀이니, 그 자신의 기록에 의한 것이니라.

기드온 사람들을 향한 앨마$_2$의 소망 ㄷ

7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오도록 허락되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 말로써 참으로 내 입으로 친히 너희에게 고하고자 하노라. 내가 내 입의 말로, 너희에게 말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은, 내가 온전히 판사직에 매여 있었으므로, 일이 많아 너희에게 올 수 없었음이니라. ㄹ 2 또 만일 판사직이 나를 대신하여 다스릴 다른 이에게 ㅁ 주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주께서 많은 자비로써 내가 너희에게 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올 수 없었으리라.

3 “보라,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였음과
너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왔음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의 앞에서
너희가 책망 받을 것이 없었음을 알게 되며,
제이라헤믈라에서 우리의 형제들이 빠져 있었던 참담한 곤경에
너희가 빠져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큰 소망과
많은 바람을 가지고 왔느니라.

ㄱ 7 앨마서 1:7~9 참조; 앨마서 2:20, 26 비교 ㄴ 1 앨마서 5장과 마찬가지로 다시 앨마$_2$의 기록으로부터 직접 인용된 내용을 삽입하기 위해 몰몬$_2$이 요약하던 것을 멈춤 ㄷ 1 이 장의 눈에 띄는 특징들은 앨마$_2$의 *알기 되기를 바라다* (3절), *믿다* (5~6절), *깨닫다* (19~20절), 이 세 가지가 연달아 나오는 것임 ㄹ 1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 끔찍하게 파괴적인 전투가 일어났을 당시에 앨마$_2$는 그 지역에 간 적이 있었음; 앨마서 2:20~3:3 참조; 앨마서 7:27과 3:1~2 비교 ㅁ 2 이는 곧, 니파이하; 앨마서 4:16~20 참조

4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니, 그는 그들이 다시 그의 의의 길에 세워졌음을 나로 알게 해 주시되, 참으로 이를 아는 심히 큰 기쁨을 나에게 주셨느니라.
5 "또 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내가 너희에 관하여서도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노라. 그러나 너희에 관한 나의 기쁨이 제이라헤믈라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겪었던 그처럼 많은 고난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보라, 그들에 관한 나의 기쁨은 많은 고난과 슬픔을 헤쳐 지난 다음에야 옴이니라. 6 그러나 보라,

나는 너희가 너희 형제들 같이 그처럼 심하게 믿지 않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줄로 믿으며,
너희가 너희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지지 아니한 줄로 믿노니,
참으로 나는 너희가 재물과
세상의 헛된 것에 너희 마음을 두지 아니한 줄로 믿노라.
참으로 나는 너희가 우상들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원한 신앙으로, 장차 임할 너희의 죄
사유함을 고대하고 있는 줄로 믿노라."

앨마$_2$가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하다

7 "이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장차 임할 일이 많이 있으되, 보라, 그 모두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음이니—이는 보라, 구속주가 사시며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시는 때가 그리 멀지 아니하였음이니라. 8 보라, 내 말은 그가 그의 필멸의 성막에 거하시는 때에 우리 중에 오시겠다 함이 아니니, 이는 보라, 영은 그러하리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이 일에 대하여는 내가 알지 못하나, 이만큼 내가 아노니, 곧 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따르는 모든 일을 행하실 권능을 지니셨느니라.[ㄱ]
9 "그러나 보라, 영이 나에게 이만큼 이르셨으니,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며,
그의 길, 곧 바른 길로 행하라 하라.
이는 보라, 천국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아들이 땅 위에 오심이니라." '

10 "또 보라, 그는 우리 선조들의 땅인 예루살렘에서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니, 그는 처녀로서, 귀하고 택함을 받은 그릇이라, 성신의 권능으로[ㄴ] 덮으심을 입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11 이에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ㄷ]

12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ㄱ] 8 앨마서 16:20에서 앨마$_2$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니파이인들 가운데로 오실 것임을 더 분명히 함
[ㄴ] 10 마태복음 1:18; 누가복음 1:35 [ㄷ] 11 이사야 53:4; 모사이야서 14:4 참조; 마태복음 8:17; 니파이후서 9:21 비교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13 "이제 영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따라 고난을 받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를 지심으로, 그의 구원의 능력을 좇아 그들의 범법을 지워버리려 하심이니, 이제 보라,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증거니라."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

14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고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는 영이 말씀하시되 '만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와서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아, 너희 죄에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신앙을 가질지니, 그는 세상의 죄를 제하시며, 구원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기에 능하신 이시니라.'
15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와서 두려워 말고, 쉽게 너희를 에워싸며, 너희를 결박하여 멸망으로 끌어내리는 죄를 모두 버리고, 참으로 와서 너희 하나님께 나아가, 너희 죄를 기꺼이 회개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와 성약을 맺고자 함을 보이고, 이를 침례의 물에 들어감으로써 오늘날 그에게 증거하도록 하라. 16 또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는 내가 그에게 이같이 말하는 것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그가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따라, 영생을 얻으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리라."

앨마$_2$의 소망이 이루어지다

17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러한 것을 믿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하도다, 너희가 그러한 것을 믿는 줄 내가 아노라. 너희가 이를 믿는 줄을 내가 아는 방도는 내 안에 계시는 영의 나타내심에 의한 것이니, 이제 이에 관하여, 참으로 내가 말한 것에 관하여, 너희의 신앙이 강함으로 나의 기쁨이 크도다. 18 이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들처럼 곤경의 상태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많은 바람을 내가 가졌노라 한 것같이, 참으로 그와 같이 나의 바람이 충족되었음을 내가 알았음이라.

19 이는 너희가 의의 길에 있는 줄을 내가 깨달음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길에
있는 줄을 내가 깨달음이니,
참으로 너희가 그의 길을 곧게 하고 있는 줄을 내가 깨달음이니라.
20 내가 깨닫건대 그가 굽은 길로 행하실 수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에서 변경하지도 아니하시며,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혹은 바른 것에서

그른 것으로 돌이키는 흔적도 갖지 아니하시며,
그러므로 그의 진리는 하나의 영원한 원이라는 것이,
그의 말씀의 증거에 의해 너희에게 알려졌도다.

21 또 그는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더러움이나 무엇이든 부정한 것은 하나님 왕국에 받아들여질 수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때가 이를지라, 참으로 마지막 날에 그러하겠거니와, 더러운 자는 자기의 더러움에 그대로 머물게 되리라."

앨마$_2$가 마지막으로 한 권유와 축복

22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일렀음은 너희를 일깨워 하나님께 대한 너희의 의무를 깨닫게 하여, 너희로 그의 앞에서 책망할 것 없이 행하게 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좇아 행하게 하려 함이니, 이 반차를 좇아 너희가 받으심을 얻었느니라. 23 또 이제 나는 너희가 겸손하며, 유순하고 온화하며, 쉽게 권함을 받으며, 인내와 오래 참음이 가득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부지런하며, 영적인 것이나 현세적인 것이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며, 너희가 받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를 원하노라. 24 또 돌아보아 너희에게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있게 할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항상 선행이 넘치게 되리라.

25 "또 주께서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의 옷을 흠 없이 지키사, 너희로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 및 야곱과, 세상이 시작된 때로부터 있어온 거룩한 선지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옷이 흠 없음같이 너희의 옷이 흠 없는 채로 천국에 앉기에 이르게 하시고,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26 "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내 안에서 증거하시는 영을 좇아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에 지극한 열심과 주의를 기울였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심히 기쁘도다. 27 또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위에와, 너희 집들과 땅 위에와, 너희 양 떼와 소 떼와, 너희가 가진 모든 것, 너희의 여자들과 너희 자녀들 위에, 너희의 신앙과 선행을 좇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임하기를 비노라. 이같이 내가 말하였노라. 아멘."

밀렉 땅에서 앨마$_2$가 설교하고 침례를 주다

8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기록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기드온 백성에게 가르치고, 이전에 그가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행한 대로 교회의 질서를 세운 후에, 기드온 땅에서 돌아왔나니, 참으로 그가 그 행한 수고를 떠나 쉬고자 제이라헤믈라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2 ㄱ그리고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구년이 끝났느니라.ㄱ

3 그리고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년 초에 이렇게 되었나니,ㄴ 앨마가 거기서 떠나 여행하여 광야의 변경 서편, 시돈 강 서편의 밀렉 땅으로 넘어 들어가더라. 4 그리고 그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좇아 밀렉 땅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되, 그가 밀렉 온 땅에서 두루 백성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더라. 5 이에 이렇게

ㄱ2 –83년; 앨마서 4:11 참조 ㄴ3 –82년

되었나니 광야 편에 연한 그 땅의 변경 모든 곳에서 백성들이 그에게 나아와, 그 온 땅 각처에서 그들이 침례를 받으니라.

앨마$_2$가 앰몬아이하 땅에서 쫓겨나다

6 그리하여 그가 밀렉에서 자기의 일을 마치고 나서 거기서 떠나, 밀렉 땅 북편으로 사흘 길을 여행하더니, 그가 앰몬아이하라 하는 성에 이르렀더라. 7 이제 니파이인들에게는 그들의 땅과,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마을과, 참으로 그들의 모든 작은 동리까지, 처음 그 곳을 소유한 이의 이름을 따라 칭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더니, 앰몬아이하 땅 역시 그러하였더라.

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앰몬아이하 성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였더라. 9 이제 사탄이 앰몬아이하 성 백성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은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앨마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더라.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마가 영으로 많이 수고하여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의 영을 성 안에 있는 백성들 위에 부어 주실 것과, 또한 자신이 그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베풀게 하여 주실 것을 구하였더라.

11 그럼에도 그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는 네가 앨마인 줄 알며, 또 네가 너희의 전통을 좇아, 이 땅 여러 곳에 세운 교회를 다스리는 대제사인 줄도 알거니와, 우리는 네 교회에 속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러한 어리석은 전통을 믿지도 아니하느니라. 12 또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네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고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권능이 없다는 것을 알며, 또 너는 판사직을 니파이하에게 넘겨주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를 다스리는 대판사도 아니니라."[ㄱ]

13 이제 백성들이 이 말을 하고, 그의 모든 말을 대항하고, 그를 욕하고, 그에게 침 뱉고, 그로 그들의 성에서 쫓겨나게 하매, 그가 거기서 떠나 아론이라 하는 성을 향하여 여행하였더라.

천사가 앨마$_2$에게 앰몬아이하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하다

1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앰몬아이하 성에 있는 백성들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슬픔에 눌려, 많은 환난과 영혼의 고뇌를 헤치며 그리로 여행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이같이 슬픔에 눌려 있을 때, 보라 주의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15 "앨마야,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이는 네가 기뻐할 일이 큼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너의 첫 전갈을 받은 때로부터 그의 계명을 충실히 지켰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 전갈을 네게 전한 자니라.[ㄴ] 16 또 보라, 나는 네가 앰몬아이하 성으로 돌아가 그 성 백성에게 다시 전파할 것을 네게 명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나니, 참으로 그들에게 전파하라. 참으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 하라. 17 이는 보라, 그들은 실로 이 시간에 네 백성의 자유를 멸하고자 궁리하고 있음이니[ㄷ]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심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계명에 반하는 일이니라" 하더라.

ㄱ 12 앨마서 4:16~18 ㄴ 15 모사이야서 27:11~17 ㄷ 17 앨마서 10:27 참조

앰율레크가 앨마$_2$의 설교에 동참하게 되다

18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주의 천사로부터 그의 전갈을 받은 후 앰몬아이하 땅으로 속히 돌아가서, 다른 길로, 곧 앰몬아이하 성 남쪽에 있는 길로 성에 들어가니라. 19 이에 그가 성에 들어갈 새 그가 주린지라, 어떤 사람에게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낮은 종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겠느냐" 하매,

20 그러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니파이인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줄 아노니, 이는 당신이, 천사가 시현 속에서 말하기를 '네가 영접하라'[ㄱ] 한 그 사람임이니이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가시면 내 음식을 당신께 나누어 드리오리니, 나는 당신이 나와 내 집에 복이 될 줄 아나이다" 하더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 집에 영접해 들이니, 그 사람은 앰율레크라 하며, 이에 저가 떡과 고기를 내어와서 앨마 앞에 놓더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되어, 앰율레크와 그의 집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니라.

23 또 앨마가 먹고 배부른 후 앰율레크에게 이르되, "나는 앨마요, 전국에 걸쳐 하나님의 교회를 관할하는 대제사니라. 24 또 보라, 내가 계시와 예언의 영을 좇아, 이 온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있었으나, 그들이 나를 영접하려 아니하고, 도리어 나를 쫓아내었으므로 내가 바야흐로 영원히 이 땅을 등지려 하였었느니라. 25 그러나 보라, 내가 다시 돌이켜 이 백성에게 예언할 것과 또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그들을 쳐서 증거하라는 명을 받았느니라. 26 이제 앰율레크여, 그대가 나를 먹이며 나를 들였으므로 그대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내가 여러 날을 금식하였으므로 주렸음이니라 하니라." 27 이에 앨마가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하기에 앞서 앰율레크와 더불어 여러 날을 머무니라.

2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은 그 죄악이 점점 더 중하게 되었더라. 29 이에 말씀이 앨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라, 또 내 종 앰율레크에게도 이르기를, 나아가 이 백성에게 예언하라 하시고 이르되—'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심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분노 중에 이 백성을 징벌하리니, 내가 내 맹렬한 노여움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 하라.

30 이에 앨마와, 또한 앰율레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백성 중에 나아가매, 그들이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31 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지라, 그들을 땅 밑 옥에 가둘 수 없었으며, 아무도 능히 그들을 죽일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그들이 줄에 결박되어 감옥에 던져지기까지 그들의 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의 권능을 보이시고자 하심이었더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아가 주께서 주신 영과 권능을 좇아,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전파하며 예언하기 시작하니라.[ㄴ]

[ㄱ] 20 이 계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앨마서 10:7에 나옴 [ㄴ] 32 31~32절은 앨마서 14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줌

앰몬아이하에서 앨마$_2$와 앰율레크가 함께 한 설교들

앨마서 9~14장

앨마의 말과 또한 앰율레크의 말이니, 곧 앰몬아이하 땅에 있는 백성에게 선포된 것이라. 또한 그들이 투옥되었으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으로 건지심을 입음. 앨마의 기록에 의함.

앰몬아이하 사람들의 불신 ㄱ

9 그리고 또 나 앨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앰율레크를 데리고 나아가 이 백성 곧 앰몬아이하 성에 있는 백성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라는 명을 받아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매, 그들이 나와 더불어 다투기 시작하여 이르되, [2] "너는 누구냐? 너는, 누가 비록 땅이 없어질 것을 우리에게 전파한다 해도,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증거를 믿으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더라. [3]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한 말을 깨닫지 못하였나니, 이는 땅이 반드시 없어질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음이라.ㄴ

[4]그들이 또 이르되, "이 큰 성이 하루에 멸망당하리라고 설혹 네가 예언할지라도 우리는 네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고도 하였더라."ㄷ [5]이제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6]또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이 누구관대, 단 한 사람만의 권세 있는 자를 이 백성 가운데 보내어, 그와 같이 크고 기이한 일의 참됨을 그들에게 선포하게 하느냐?" [7]그리고 그들이 나서서 나에게 손을 대려 하였으나, 보라,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더라.

앰몬아이하에서 앨마$_2$가 한 설교

앨마서 9:7~30

앨마$_2$가 주께서 조상들을 건져 내심을 상기시키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선포하고자 담대함을 지니고 섰나니, 참으로 내가 담대히 그들에게 증거하여 이르되,

[8]"보라, 너희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 조상들의 전통을 너희가 어찌 그리 잊었으냐.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어찌 그리 속히 잊어버렸느냐. [9]우리 조상 리하이가 하나님의 손으로 예루살렘에서 인도되어 나온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들이 모두 그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를 지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10]또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우리 조상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내셨으며, 또 그들을 보호하사 그들 자신의 형제들의 손에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는지를 너희가 그처럼 속히 잊었느냐? [11]만일 그의 비길 데가 없는 권능과 그의 자비와 우리를 향한 그의 오래 참으심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이 시기보다 훨씬 오래 전에, 지면에서 끊어져 아마도 끝없는 비참과 재난의 상태에 처해졌으리라.

ㄱ1 여기서부터 화자는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전환되어 몰몬$_2$이 앨마$_2$의 개인 기록을 말그대로 필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인칭 화술은 앨마서 9:34에서 끝나지만 앨마$_2$와 앰율레크의 설교 내용을 다시 1인칭 화자가 되어 직접 인용함 ㄴ3 3절과 5절은 삽입구절이므로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음 ㄷ4 이 말은 앨마서 16:9~10에서 비통하게 떠올림

12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너희에게 회개하라 명하시느니라. 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
니라. 그러나 보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그가 너희에게 회개하라 명하셨으니, 그
리하지 아니하면 그가 너희를 지면에서 온전히 멸하실 것이라. 참으로 그가 그 분노
중에 너희를 징벌하시리니, 그 맹렬한 노여움 중에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ㄱ

앨마$_2$가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을 비교하다

13 "보라, 너희는 그가 리하이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셨고, 또 일렀으되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너희는 주의 면전에서 끊어지리라'ㄴ 하셨도다. 14 이제
나는 레이맨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의 면전에서 끊어졌음
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라노라. 이제 우리가 보건대 이 일에 주의 말씀이 입증되어,
레이맨인들이 이 땅에서 범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면전에서 끊어짐을 당하였
도다.

15 "그러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진
대, 심판 날에 그들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요, 그뿐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생에서도 그들이 너희보다 실로 더욱 견디기 쉬우리라. 16 이는 레이맨인
들에게 많은 약속이 내려졌음이니,ㄷ 그들로 하여금 무지한 상태에 머물게 한 것은
그 조상들의 전통의 연고임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에서
그들의 생존을 길게 해 주실 것이요, 17 또 어느 시기엔가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믿게
되어, 그 조상들의 전통이 그른 줄을 알게 되고, 그들 중 많은 자들이 구원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18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너희의 간악함을 고집하면
이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리니, 이는 레이맨인들이 보내심을 받아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들이 와서
너희에게 온전한 멸망이 임할 것이니, 주의 맹렬한 노여움을 좇아 그리되리라.ㄹ 19 이
는 주께서 너희가 너희의 죄악 중에 살아서 그의 백성을 멸함을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용납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보다는 니파이 백성
이라 칭하는 그의 백성이 주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그처럼 많은 빛과 그처럼 많은
지식을 얻은 후, 만일 죄와 범법에 빠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면, 그는 차라리 레이맨인
들이 그의 백성을 모두 멸할 것을 용납하시리라.

20 참으로 주의 은총을 그토록 크게 받는 백성이 된 후에,
참으로 다른 어떤 나라나 족속이나 방언이나
백성보다 더 은총을 받은 후에,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신앙과 기도를
좇아 과거에 있었던 일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임할 일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
21 하나님의 영의 방문을 받고
천사들과 대화하고,

ㄱ12 앨마$_2$는 앨마서 8:16, 29에서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을 받았음 ㄴ13 니파이후서 1:20 ㄷ16 이러한 약속에 대한 예를 들면, 니파이전서 13:31, 38~39; 야곱서 3:6; 이노스서 1:11~18 참조 ㄹ18 이 예언은 앨마서 16:1~3에서 실현됨; 25:1~2 비교

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과 또한 많은 은사
곧 방언으로 말하는 은사와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성신의 은사와 해석하는 은사를 받고,
22 더욱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의 손으로
예루살렘 땅에서 건져 내심을 입고,
기근에서와 질병과 각종 온갖 질환에서 구제되고
그들이 전쟁에서 점차 강하게 되어 멸망하지 않게 되고,
여러 번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입고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심을 받아 그들이 온갖 것이
풍족하기까지 번영하게 된 후에—

23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주의 손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복을 받은 이 백성이, 만일 그들이 가진 빛과 지식을 거스려 범법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만일 이러할 경우, 곧 그들이 범법에 빠질진대 레이맨인들이 그들보다 훨씬 더 견디기 쉬우리라. 24 이는 보라, 주의 약속이 레이맨인들에게는 내려졌으나,ㄱ 너희가 범법하는 경우 너희에게는 미치지 아니함이니, 대저 주께서는 너희가 그를 거역하면 너희가 지면에서 온전히 멸망당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굳게 명하시지 아니하셨더냐?"ㄴ

앨마$_2$가 천사의 말을 인용하다

25 "또 이제 너희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는 이 연유로, 주께서는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의 백성 중 많은 자들을 방문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나아가 이 백성에게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라 하게 하셨느니라. 26 또 이제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영광 중에 오시리니, 그의 영광은 은혜와 공평과 진리가 충만하시며, 인내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 충만하시며,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속히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일 것이라. 27 또 보라, 그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을 자들을 구속하시려고 오시리라. 28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는 모든 사람이 그 행위가 어떠했는가에 따라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을
거둘 때가 가까웠음이니—
만일 그 행위가 의로웠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구원하심을 좇아,
그 영혼의 구원을 거둘 것이요,
만일 그 행위가 악하였으면
악마의 권능과 사로잡음을 좇아,
그 영혼의 저주를 거두게 되리라.'

ㄱ 24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나 니파이전서 13:38; 야곱서 3:6; 이노스서 1:13 참조 ㄴ 24 예이롬서 1:10 아니면 모사이야서 12:8 추정

29 이제 보라, 이것이 백성들에게 외치는 천사의 음성이니라.
30 "또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나의 형제요, 너희가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함이니, 너희는 마땅히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이루어야 하느니라. 내가 보니 너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심히 완악하게 되었으며, 내가 보니 너희는 잃어버린 바 되고 타락한 백성이로다."

앰몬아이하 사람들의 반응

3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앨마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자, 보라, 내가 그들에게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에게 노하였더라.[ㄱ]
32 또한 내가 그들에게 잃어버린 바 되고 타락한 백성이라[ㄴ] 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에게 성을 내어, 나를 옥에 던져 넣고자, 내게 손을 대려 하였느니라. 33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때에 그들이 나를 잡아 옥에 던져 넣는 것을 용인하지 아니하셨더라.[ㄷ]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앰율레크가 나아가 서서 그들에게 역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라. 또 이제 앰율레크의 말이 모두 다 기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의 말의 일부분이 이 책에 기록되었느니라.

앰몬아이하에서 앰율레크가 한 설교

앨마서 10~11장

앰율레크가 군중에게 천사와 앨마$_2$의 말을 증거하다

10 이제 이는 앰율레크가 앰몬아이하 땅에 있는 백성에게 전한 말이니 이르되,

2 "나는 앰율레크로라, 나는 깉도나의 아들이니, 깉도나는 이스마엘의 아들이며, 이스마엘은 아민아다이의 후손이니, 하나님의 손가락에 의해 쓰여진 성전 벽에 있는 글을 해석한 바로 그 아민아다이니라.[ㄹ] 3 또 아민아다이는 리하이의 아들인 니파이의 후손이니, 리하이는 그 형제들의 손으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후손으로서, 예루살렘 땅에서 나왔느니라.
4 "또 보라, 나는 또한 나를 아는 모든 자 중에 적지 않은 명성을 지닌 자라, 그뿐 아니라 보라, 내게는 친척과 친구가 많으며, 나는 또한 나의 근면한 손으로 많은 부를 얻었노라. 5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길과, 그의 비밀과 기이한 권능에 대하여 결코 많이 알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이러한 것에 대하여 결코 많이 알지 못하였다 하였으나, 보라, 이는 내가 잘못 말함이니, 이는 참으로 이 백성의 생명을 보전하심 중에 나타난 그의 비밀과 그의 기이한 권능을 내가 많이 보았음이니라. 6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여러 번 부름을 받았으나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내가 알려 하지 아니하

[ㄱ] 31 앨마$_2$가 이 표현들을 정확하게 사용한 적은 없었으나, 19~23절에는 완악한 마음과 뻣뻣한 목이 암시되어있었음; 위 5절 비교 [ㄴ] 32 위 30절 참조 [ㄷ] 33 그러나 14장에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됨 [ㄹ] 2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알려진 바가 없으나 다니엘 5장 비교

였느니라. 그리하여 내가 판사 치세 제십년에 든, 이 제칠월의 넷째 날까지도 내 마음의 간악함 중에, 하나님 거역하기를 계속해 왔었노라.

7"내가 아주 가까운 한 친척을 찾아보려고 여행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한 천사가 내게 나타나 이르되, '앰율레크야,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는 네가 주의 한 선지자를 먹여야 할 것임이니,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 거룩한 사람이니라. 이는 이 백성의 죄로 인하여 그가 여러 날 금식하여, 이제 주림이니, 네가 그를 네 집에 영접하여 먹이라. 그가 너와 네 집을 축복하리니 주의 복이 너와 네 집에 머물러 있으리라' 하더라. 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천사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 집을 향하여 돌아왔고, 내가 그리로 가다가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네 집에 영접하라 한 그 사람을 발견하였노니'—보라 그는 하나님의 것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었느니라.ㄱ

9"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그는 거룩한 사람이라 하였나니, 그러므로 그가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이니라. 10그리고 또 나는 그가 증거한 일들이 참된 줄을 아노니, 이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주께서 사심같이,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사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셨음이라. 그리고 이 앨마가 내 집에 거하는 동안 주께서 이를 행하셨느니라. 11이는 보라, 그는 내 집을 축복하였나니, 그가 나와 나의 여자들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친과 나의 친족을 축복하되, 참으로 나의 온 혈족을 그가 축복하매, 주의 복이 그가 한 말대로 우리에게 머물렀느니라."ㄴ

율법사들이 앨마$_2$와 앰율레크를 멸하려 하다

12이에 이제 앰율레크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자 백성들이 놀라기 시작하였으니, 그들이 고소당하는 사유에 대하여 증거하며,ㄷ 또한 자기 안에 있는 예언의 영을 좇아, 장차 임할 일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인이 하나만이 아님을 봄이더라. 13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 가운데는 그들에게 질문하여, 자기의 간교한 책략으로 그들을 그 말 중에 사로잡아 그들을 치는 증거를 찾고, 그리하여 그들을 그들의 판사들에게 넘겨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하며, 그들이 꾸미거나 그들을 쳐서 증거 할 수 있는 죄목을 따라, 그들로 죽임을 당하게 하거나 옥에 던져지게 하려고 생각하는 자들이 몇이 있었더라.

14이제 이들은 그들을 멸하기를 꾀하는 자들이었나니, 이들은 백성들에게 고용되거나 임명되어 판사 앞에서 그들이 재판 받을 때에, 곧 백성들의 범죄를 재판함에 있어, 법을 베푸는 율법사들이었더라. 15이제 이들 율법사들은 백성의 모든 술책과 간계를 배웠나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업에 능숙하게 해 주는 것이었더라. 1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앰율레크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리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자기 말에 책잡히게 하려 하였으니, 곧 자기가 하게 될 말에 모순되게 하려 함이더라.

ㄱ8 앨마서 8:19~20 ㄴ11 앨마서 8:26; 10:7 ㄷ12 앨마서 9:2, 6 비교

앰율레크가 율법사들을 질책하다

17이제 그들은 앰율레크가 그들의 계략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이
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매, 그가 그들의 생각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너희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너희 율법사들과 위선자들이여, 이는 너희
가 악마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잡으려고 덫과
올무를 놓고 있음이니라. 18너희는 의의 길을 굽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 머리
위에 초래하여, 실로 이 백성을 온전히 멸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도다.
19"참으로 우리의 마지막 왕이었던 모사이야가 잘 말하였나니, 그가 나라를 넘겨
주려 할 즈음에, 이를 물려 줄 자가 없어, 이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의 소리에
의해 다스림을 받게 할 적에—참으로 그가 잘 말하였나니 곧 만일 이 백성의 소리가
죄악을 택할 때가 이르면, 즉 만일 이 백성이 범법에 빠질 때가 이르면, 그들의 멸망이
무르익으리라 하였느니라.ㄱ
20"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께서 너희의 죄악을 잘 판단하시는도다. 그
가 그 천사들의 음성으로 이 백성에게 잘 외치시는도다. 이르시되, '너희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음이니라' 하시느니라.ㄴ 21참으로 그가 그 천사들의 음성으
로 잘 외치시는도다. 이르시되, '내가 공평과 정의를 내 손에 들고, 내 백성 가운데로
내려가리라' 하시도다.ㄷ
22"이뿐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이 땅에 있는 의인들의 기도가 아니
었더라면, 너희에게는 지금 완전한 멸망이 임할 것이로되, 이는 노아의 시대에 백성이
그리되었던 것같이,ㄹ 홍수에 의한 멸망이 아니요, 기근과 역병과 검에 의한 멸망일
것이니라. 23그러나 너희가 면하고 있는 것은 의인들의 기도에 의한 것이니,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의인들을 내어 쫓으면ㅁ 주께서는 그 손을 억제하지
아니하시고, 그 맹렬한 노여움 중에 너희를 치러 나오실 것이라. 그때 너희가 기근
과 역병과 검으로 치심을 입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때가 곧 가까이
이르리라."ㅂ

앰율레크의 말이 왜곡되다

24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이 앰율레크에게 더욱 노하여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자가 공의로운 우리의 법과 우리가 선택한 우리의 현명한 율법사들에게 대하여
욕하는도다" 하였더라.
25그러나 앰율레크가 그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더욱 힘차게 외쳐 이르되, "오 너희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어찌하여 사탄이 너희 마음을 그토록 크게 붙잡았느냐? 어찌
하여 너희는 그에게 스스로를 내어 맡겨 그로 너희를 다스릴 권능을 갖게 하고, 너희의
눈을 멀게 하여, 우리가 하는 말을 너희가 그 진리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느냐?
26보라, 내가 너희의 법이 그릇되다 증거하더냐?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도다. 너희 말
이 내가 너희의 법을 거스려 말하였다 하도다. 그러나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내가 너희의 법을 인정하여 말함으로써, 너희를 정죄하였느니라. 27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백성의 멸망의 기초가 너희의 율법사들과 너희의
판사들의 불의로 놓이기 시작하고 있느니라."

ㄱ19 모사이야서 29:27 ㄴ20 앨마서 9:25 ㄷ21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ㄹ22 창세기 6:5~8:22 ㅁ23 앰몬아이하 백성들이 이말과 똑같이 의인들을 내쫓게 됨; 앨마서 14:7; 15:1 참조 ㅂ23 이 예언은 앨마서 16:1~12에서 실현됨; 앨마서 25:1~2 비교

28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앰율레크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자 백성들이 그에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제 우리는 이 자가 악마의 자식인 줄 아노니, 이는 그가 우리에
게 거짓말을 하였고, 우리의 법을 거스려 말하였음이라. 그런데 이제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법을 거스려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는도다. 29 그리고 또 그는 우리의 율법사들
과 우리의 판사들을 욕 하였도다" 하더라.
3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율법사들이 그를 대하여 이러한 일들을 기억할 것을 자기
들의 마음 속에 넣어 두니라. 31 또 그들 가운데 이름이 지에즈롬이라 하는 자가 있더니,
그는 그들 가운데 가장 노련한 자들 중 하나요, 백성 가운데 많은 일거리를 가진 자
로, 이제 앰율레크와 앨마를 고소하는 일에 앞장섰더라. 32 이제 이 율법사들의 목적은
이득을 얻는 것이었으니, 그들이 이득을 얻음은 그들의 고용된 정도에 따랐더라.

니파이인들의 법률 제도와 화폐 제도 (몰몬의 여담)

11 이제 모사이야의 법에는 법의 재판관인 각 사람이나, 또는 판사로 임명된 자
들은, 재판을 받으려고 그들 앞에 끌려 온 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일한 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되어 있더라. 2 이제 가령 어떤 사람이 남에게 빚을 졌는데, 그가 그
빚진 것을 갚고자 아니하면, 그는 판사에게로 고발당하였고, 판사는 권세를 발동하
여, 관원을 내보내어 그 사람을 자기 앞에 붙들어 오게 하고, 법과 그를 대하여 제출된
증거를 좇아 그 사람을 재판하였으니, 이리하여 그 사람은 자기가 빚진 것을 억지로
갚게 되거나, 가진 것을 몰수당하거나, 도적이나 강도로서 백성 가운데서 쫓겨났더
라. 3 또 판사는 자기의 시간에 따라 자신의 보수로—하루에 금 한 시나인이나, 금 한
시나인과 같은 은 한 시눔을 받았으니, 이는 주어진 법에 따른 것이더라.
4 이제 이는 그 값어치를 따라 그들의 금과 그들의 은의 각기 다른 조각의 명칭이니,
이 명칭은 니파이인들이 붙인 것이라. 이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라 세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라 재지도 아니하였음이니, 그들은 판사 치
세 때까지, 각 세대에서, 백성들의 생각과 사정에 따라, 그들의 세는 법과 그들의 재는
법을 변경시키다가, 그 법이 모사이야 왕에 의해 확립되었더라.
5 이제 그 세는 법은 이와 같으니

금 한 시나인,
금 한 시안,
금 한 슘,
그리고 금 한 림나요,

6 은 한 시눔,
은 한 앰노어,
은 한 에즈롬,
그리고 은 한 온타이이니라.ㄱ

7 은 한 시눔은 금 한 시나인과 같으며,
보리 한 말의 값이거나, 각종 곡물 한 말의 값도 되더라.

ㄱ6 이것들은 동전의 이름이 아니라 곡물의 척도에 해당하는 화폐 단위임을 참고

8 이제 금 한 시안의 금액은 한 시나인 가치의 두 배요,
9 또 금 한 슘은 한 시안 가치의 두 배요,
10 또 금 한 림나는 이들 모두의 가치에 해당하며,ㄱ
11 또 은 한 앰노어는 두 시눔과 같고,
12 또 은 한 스롬은 네 시눔과 같고,
13 또 한 온타이는 이들 모두와 같더라.

14 이제 이는 그들의 셈에 있어 작은 수의 가치니—

15 한 시블론은 한 시눔의 절반이라,
그러므로 보리 반 말에 한 시블론이요,
16 또 한 시블럼은 한 시블론의 절반이요,
17 또 한 리아는 한 시블럼의 절반이니라.
18 이제 이는 그들의 세는 법을 따른 그들의 수니,
19 이제 금 한 앤티온은 세 시블론과 같으니라.

20이제 그 일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단 한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 고용된 정도를 따라 보수를 받았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폭동과 온갖 소요와 악행을 야기하게 하여, 그들 앞에 가져오는 송사를 따라, 돈을 벌려 하였더라. 이러므로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앨마와 앰율레크를 대적하게 하였더라.

지에즈롬이 앰율레크를 심문하다

21이에 이 지에즈롬이 앰율레크에게 질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묻는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해 주겠느냐" 하였으니, 이제 지에즈롬은 악마의 계략에 노련한 자라, 능히 선한 일을 멸할 만하더라. 이러므로 그가 앰율레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게 건네는 질문에 대답해 주겠느냐" 하였더라.

22이에 앰율레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안에 있는 주의 영을 따른 것일진대 그리하리니, 이는 주의 영에 반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지에즈롬이 그에게 말하되, "보라 여기 은 여섯 온타이가 있나니,ㄴ 만일 네가 지존자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이를 다 네게 주리라."

23이제 앰율레크가 이르되, "너 지옥의 자식이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의인은 그러한 시험에 지지 않는다는 것을 네가 모르느냐? 24하나님이 없다고 네가 믿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으나, 네가 하나님보다 저 이득을 더 사랑하는도다. 25또 이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게 거짓말을 하였느니라. 네가 내게 이르기를—'큰 값어치가 있는 이 여섯 온타이를 보라, 내가 네게 주리라'—하였을 때 너는 네 마음에 그것들을 나에게 주지 아니할 뜻을 품고 있었고, 네가 나를 멸할 빌미를 갖도록, 내가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다만 너의 원하는 바 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 큰 악으로 말미암아 네가 네 보응을 받으리라."

ㄱ10 이는 곧, 금 1림나는 7시나인의 가치를 말함 (그리고 은 1온타이는 7시눔의 가치였음); 13절 참조
ㄴ22 이는 곧, 판사가 42일 동안 일하고 받는 임금과 동일함; 위 3절 참조

26 이에 지에즈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느냐?”
27 이에 앰율레크가 이르되, “그러하다,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28 이제 지에즈롬이 이르되, “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더 있느냐?”
29 이에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30 이제 지에즈롬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이러한 것을 네가 어찌 아느냐?”
31 이에 그가 이르되, “천사가 이를 내게 알려 주었느니라.”ㄱ
32 이에 지에즈롬이 다시 이르되, “오실 그이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33 그가 저에게 이르되, “그러하니라.”
34 이에 지에즈롬이 다시 이르되,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 중에 구원하시겠느냐?”
앰율레크가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그가 자기의 말을 부인하심은 불가능함이니라.”
35 이제 지에즈롬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러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 밖에 없다 하고도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리라 하며, 그러나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함이니—마치 그가 하나님을 명할 권세를 가진 듯이 말하도다.”
36 이제 앰율레크가 저에게 다시 이르되, “보라 너는 거짓말을 하였느니라. 이는 네 말이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죄 중에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리라 말하였다 하여 내가 마치 하나님을 명할 권세를 가진 듯이 말하였다 함이라. 37 또한 내가 거듭 네게 이르노니 그는 그들을 그 죄 중에 구원하실 수 없으시니라. 이는 내가 그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음이요, 그가 말씀하시되 ‘부정한 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셨음이라.’ㄴ 그런즉 너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서,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 중에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앰율레크가 부활을 설명하다

38 이제 지에즈롬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영원하신 아버지시냐?”
39 앰율레크가 저에게 이르되, “그러하도다, 그가 바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니, 그는 시작이요 끝이시며,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니라. 40 또 그는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 세상에 오사,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범법을 짊어지시리니, 이들이 영생을 얻을 자들이요, 그 외에는 아무에게도 구원이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41 그러므로 악인은 사망의 줄이 풀리는 것 외에는,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같이 그대로 있게 되리니, 이는 보라,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날이 옴이니라.ㄷ
42 “이제 현세적 사망이라 일컫는 사망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현세적 사망의 줄을 푸실 것이라, 모두가 이 현세적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으리라. 43 영과 육신은 다시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 사지와 관절은 지금 이 시간의 우리와 같은 그 본래의 구조로 회복될 것이라,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같이 알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명백히 상기하게 되리라.

ㄱ 31 앨마서 10:10 ㄴ 37 니파이전서 10:21; 15:34; 앨마서 7:21 참조; 에베소서 5:5 비교 ㄷ 41 앰율레크의 답변은 모사이야서 15:1~4, 9의 아빈아다이의 가르침에서 영향을 받음

44"이제 이 회복은 늙은 자나 젊은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 남자나 여자, 악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임할 것이요, 그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지금처럼 그 완전한 구조, 즉 육신으로 회복되어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심판대 앞에 인도되어 심문을 받고, 그 행위가 선하든지 그 행위가 악하든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45"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죽어야 하는 육신의 사망에 관하여, 또 죽어야 하는 육신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죽어야 하는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키심을 받나니, 이는 사망 곧 첫째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는 죽을 수 없겠고, 그들의 영은 그들의 몸과 결합하여, 결코 나뉘지 아니할 것이니, 이리하여 전체가 영적이며 죽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다시는 썩음을 보지 못하게 되리라."

46이제 앰율레크가 이 말을 마쳤을 때 백성들이 다시 놀라기 시작하였고, 지에즈롬도 떨기 시작하더라. 이같이 앰율레크의 말이 끝났으니, 달리 말하자면 이것이 내가 기록한 전부니라.

앨마$_2$가 지에즈롬의 거짓된 마음을 드러내다

12 이제 앨마는 앰율레크가 자기를 멸망시키려는 지에즈롬의 거짓말과 속임을 간파해 내었으므로, 앰율레크의 말이 지에즈롬을 잠잠하게 한 것을 보고, 또 그가 그 죄를 깨닫고 떨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 입을 열어 그에게 말하며, 앰율레크의 말을 확증하고, 일을 더 자세히 설명하되, 곧 앰율레크가 한 것에서 더 나아가 경전을 해설하기 시작하였더라. 2이제 앨마가 지에즈롬에게 한 말은 사방에 둘린 백성에게 들렸으니, 무리가 컸음이요,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3"이제 지에즈롬아, 너의 거짓말과 간교함 중에 네가 잡힌 것을 보니, 네가 사람에게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거짓말하였음이로다. 이는 보라, 그는 너의 생각을 모두 알고 계심이니, 너의 생각이 그의 영에 의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을 네가 보느니라. 4너는 또 너의 계획이 악마의 간교함에 따른 매우 간교한 계획이라, 거짓말하며 이 백성을 속여 그들로 우리를 대적하게 하여, 우리를 욕하며 쫓아내게 하려는 것이었던 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보나니— 5이제 이는 네 대적의 계획이었으며, 그가 네 안에서 자기의 능력을 행사하였도다. 이제 나는 내가 네게 이르는 것이 모두에게 말하는 것인 줄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라.

6"또 보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이르거니와 이는 이 백성을 사로잡으려고 놓은 대적의 올무였나니, 너희를 자기에게 복종시켜, 그의 사슬로 너희를 에워, 그의 사로잡는 능력을 좇아, 너희를 영원한 멸망으로 얽어 내리려 함이니라."

앨마$_2$가 부활과 심판에 대한 지에즈롬의 질문에 답하다

7이제 앨마가 이러한 말을 하고 나자, 지에즈롬이 더욱 심하게 떨기 시작하였나니, 이는 그가 점점 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되었음이요, 또 그는 앨마와 앰율레크가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알고 있음을 깨달았음이라. 이는 예언의 영을 좇아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졌음이더라.

8이에 지에즈롬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더 알고자 하여 열심으로 그들에게 묻기 시작하였으니, 그가 앨마에게 이르되, "앰율레크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말한

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된다 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ㄱ

9 이에 이제 앨마가 이러한 일을 그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많은 자에게 허락되어 있느니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다만 사람의 자녀들이 그에게 기울이는 주의와 부지런함에 따라, 그들에게 내려 주시는 그의 말씀의 분량을 따라서만 나누어야 한다는 엄격한 명령하에 놓여 있느니라. 10 또 이러므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자, 그는 더 적은 분량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할 자, 그에게는 더 큰 분량의 말씀이 주어져, 이윽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기에 이르고 이윽고 이를 전부 알기까지 이르느니라. 11 또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자들, 그들에게는 더 적은 분량의 말씀이 주어져, 그들이 그의 비밀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까지 이르게 되리니, 그때 그들이 악마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에 의해 멸망으로 인도되리라. 이제 이것이 '지옥의 사슬이' 뜻하는 바니라.ㄴ

12 "또 앰율레크가 죽음과 이 죽어야 하는 것에서 죽지 아니하는 상태로 일으킴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인도되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것에 대하여 명백히 말하였느니라. 13 그때 만일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으면,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거스려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였으면, 그때 우리의 상태가 참담하리니, 이는 그때 우리가 정죄를 받을 것임이라.

14 "이는 우리의 말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요, 참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를 정죄할 것임이니, 우리가 흠 없이 발견되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생각이 또한 우리를 정죄할 것인즉, 이러한 참담한 상태에서 우리가 감히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보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 바위와 산들을 명하여 우리 위에 떨어져 그의 면전에서 우리를 가리우게 할 수 있다면 실로 기쁠 것이라. 15 그러나 그럴 수는 없나니, 우리는 반드시 나아와 그 영광과 그 권능과 그 능력과 위엄과 주권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모든 심판이 공의로운 것을, 곧 그는 그의 하시는 모든 일에 의로우시며, 그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자비로우시며, 그는 그의 이름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각 사람을 구원할 모든 권능을 가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여야 하느니라.

16 "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때 사망, 곧 둘째 사망이 임하나니,ㄷ 이는 영적인 사망이라, 곧 현세적인 사망으로 자기 죄 가운데 죽는 모든 자가 또한 영적인 사망을 당할 때이니, 참으로 그는 의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사망을 당하게 되리라. 17 그때가 그들의 고통이 불과 유황의 못 같을 때이니, 그 불꽃이 세세토록 올라가며, 그때가 그들이 사탄의 능력과 사로잡음에 따라, 사슬에 매여 영원한 멸망으로 내려갈 때이니, 저가 자기 뜻대로 이들을 복종시켰음이라.ㄹ 18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들이 구속받을 수 없음이요, 썩음이 다시없는 고로, 그들이 죽을 수도 없음이니라."

ㄱ 8 앨마서 11:41 ㄴ 11 위 6절과 앨마서 5:7, 9, 10 참조 ㄷ 16 첫째 사망은 앨마서 11:45에 언급됨 ㄹ 17 위 6절 비교

앤티오나가 아담의 타락에 대해 앨마$_2$를 심문하다

19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이러한 말하기를 마치매, 백성들이 더욱 놀라기 시작하였더라. 20그러나 그들 중의 한 두령인 자로, 앤티오나라 하는 자가 있더니, 그가 나아와 앨마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이 죽어야 하는 상태에서 죽지 아니하는 상태로 변화되어, 영혼이 결코 죽을 수 없게 되리라 한 이것이 무엇이냐?ㄱ 21하나님이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어, 우리의 시조가 들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없게 하셨다 하는 구절은 무엇을 뜻하느냐?ㄴ 그리하여 우리는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조금도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니라."

앨마$_2$가 앤티오나에게 한 대답

앨마서 12:22~13:20

앨마$_2$가 구속의 계획을 설명하다

22이에 앨마가 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바야흐로 설명하려던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ㄷ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타락하였음을 알고 있고, 그리하여 우리는 그의 타락에 의해 모든 인류가 잃어버린 바 되고 타락한 백성이 되었음을 알고 있느니라. 23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아담이 그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할 수 있었다면 죽음은 없었을 것이요, 말씀은 헛되게 되어,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분으로 만들었으리니,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음이라.ㄹ 24그리고 우리는 사망, 곧 앰율레크가 말한 사망이 인류에게 임함을 보나니, 이는 현세적 사망이라.ㅁ 그러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간이 주어졌나니, 그러므로 이 생은 시험의 상태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말한 바 죽은 자의 부활 이후에 있는, 저 끝없는 상태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느니라.

25"이제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마련된 구속의 계획이 아니었더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없었으려니와, 구속의 계획이 마련되었으매, 이로 말미암아 앞서 말한 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니라. 26또 이제 보라, 만일 우리의 시조가 나아가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다면, 그들은 준비의 상태를 갖지 못하고, 영원히 비참하게 되었을 것이요, 그리하여 구속의 계획은 좌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화 되어, 아무 효력도 발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라. 27그러나 보라, 그렇지 아니하였나니,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죽음 이후에는 심판으로 나아와야 하리니, 곧 우리가 말한 바 끝이 되는, 바로 그 심판이니라.

28"이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사람에게 임하도록 정하신 후, 보라, 그리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정해 주신 것에 관하여 사람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셨으므로, 29천사들을 보내사 그들과 대화하게 하시매, 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였느니라. 30이에 그들이 그때로부터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사람들과 대화하시며,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구속의

ㄱ20 앨마서 11:45 참조; 12:12, 18 비교 ㄴ21 창세기 3:22~24 ㄷ22 창세기 3:6~19 ㄹ23 창세기 2:17 ㅁ24 앨마서 11:42

계획을 그들에게 알리시되, 이를 그들의 신앙과 회개와 그들의 거룩한 행실에 따라 그들에게 알리셨더라.

31 "이리하여 그는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셨나니, 그들은 먼저 현세적인 것에 관한 첫 계명을 어기고, 신들처럼 되어, 선악을 분별하며,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그들의 뜻과 기뻐하는 바를 좇아 행할 수 있는 상태에 스스로를 두어, 곧 그러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음이라— 3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속의 계획을 알려 주신 후,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나니, 그에 따른 형벌은 둘째 사망이라, 곧 의에 관한 것들에 대한 영원한 죽음이니, 이는 그러한 자에게는 구속의 계획이 아무 권능을 미칠 수 없음이요, 하나님의 지선하심을 좇아, 공의의 일이 무너질 수 없기 때문이니라.

33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부르셨나니, (이것이 마련된 구속의 계획이라) 이르시되,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할**진대,[ㄱ] 내가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34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하는 자, 그는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자비를 요구할 권리를 얻고, 자기의 죄 사함에 이르게 되리니, 이들은 나의 안식에 들어오리라. 35 또 누구든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불의를 행할 자는, 보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거니와 그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36 "이제 나의 형제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진대 너희는 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너희의 죄악이 그를 격동하시게 함으로 그가 그 진노를 너희 위에 내려 보내심이 **첫 번 격동하시게 했을 때와 같나니**, 참으로 첫 번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격동하시게 할 때에도, 그의 말씀대로 되어 너희 영혼이 영원히 멸망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첫 번 사망과 마찬가지로, 그의 말씀대로, 마지막 사망에 이르게 되리라.

37 "그런즉 이제 나의 형제들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이것들이 참된즉,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그리하여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의 이 둘째 계명에[ㄴ] 있어 주 우리 하나님을 격동하게 하여 그의 진노를 우리 위에 초래하지 말고, 그 말씀을 좇아 예비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자."[ㄷ]

앨마$_2$가 제사들의 성임을 설명하다

13 "그리고 또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의 생각을 앞으로[ㄹ] 옮겨 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계명들을 주신 그때로 돌리고자 하노니, 나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그의 거룩한 반차를 따라 제사들을 성임하사, 이러한 것들을 백성에게 가르치게 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라. 2 또 그 제사들이 그의 아들의 반차를 따라 성임된 방식은, 그로써 백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의 아들을 고대하며 구속을 바라야 할지 알게 하려는 것이었느니라.

3 "이에 이것이 그들이 성임된 방식이니라—곧 처음에는 선이나 악을 택하도록 버려 둔 바 되었으나, 그들의 지극한 신앙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좇아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비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선을 택하고 나서, 심히 큰 신앙을 행사하므로, 거룩한 부름, 곧 그러한 자들을 위한

[ㄱ] 33 여기부터 다음 장 전체에서 히브리서 3:11~4:11에 나오는 것과 같이 시편 95:8~11에서 따온 표현들이 나옴. 시편 95장에서 따온 핵심 표현들의 첫 등장은 여기에서 굵은체로 표시됨. 야곱서 1:7 비교 [ㄴ] 37 첫째 계명은 위 31절에 나옴 [ㄷ] 37 이노스서 1:27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 [ㄹ] 1 이는 곧, 아담과 이브의 때로부터 생각을 돌림

예비적인 구속을 따라, 이와 함께 예비된 저 거룩한 부름으로 부름 받은 것이라. [4]또 이리하여 그들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부름에 부름을 받았으나, 한편 다른 이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과 그 생각의 눈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을 거절하고자 하였나니, 이 일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과 똑같이 큰 특권을 얻었을 것이니라.

[5]"달리 말하자면 요컨대, 처음에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거룩한 부름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할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것이요, 예비되신 독생자의 속죄 안에 또 이를 통하여 있는 것이니라 — [6]또 이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그들도 역시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도록 이 거룩한 부름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의 대신권에 성임되었나니— [7]이 대신권은 그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것이요, 이 반차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있어온 것이니, 달리 말하면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가 없으며,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그의 지식을 따라, 영원으로부터 모든 영원에 이르기까지 예비된 것이라.

[8]"이제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성임되었나니—곧 거룩한 부름으로 부름을 받고, 거룩한 의식으로 성임되어, 거룩한 반차의 대신권을 받아들인 것이라. 이 부름과 의식과 대신권은 시작이나 끝이 없는 것이니라— [9]이같이 그들은 아들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가 되나니, 그는 시작하는 날이나 끝나는 해가 없으시며, 은혜와 공평과 진리가 충만하시도다. 과연 그러하도다. 아멘."

앨마$_2$가 멜기세덱의 모범을 언급하다

[10]"이제 내가 그 거룩한 반차, 곧 이 대신권에 관하여 말한 것같이, 성임을 받고 하나님의 대제사가 된 자가 많았느니라. 이는 그들의 지극한 신앙과 회개와,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니, 그들은 멸망하기보다는 회개하고 의를 행하기를 택한 것이라. [11]그러므로 그들은 이 거룩한 반차를 따라 부름을 받고, 성결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씻겨져 희게 되었느니라. [12]이제 그들이 성신에 의해 성결하게 되고, 그들의 옷이 희게 된 후,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 없이 되어, 혐오함이 없이는 죄를 바라볼 수 없었나니, 정결하게 되어 주 그들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많되, 심히 대단히 많았더라.

[13]"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너희도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라노라. [14]참으로 멜기세덱 시대의 백성들같이 겸손하라, 멜기세덱은 또한 내가 말한 바로 이 반차를 따른 대제사였나니, 그도 또한 영원히 대신권을 받아들였던 자니라. [15]또 바로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드렸나니, 참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십일조로 바쳤느니라.┐

[16]"이제 이 의식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주어진 것은, 이에 의해 백성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그의 반차의 한 예요, 곧 그의 반차이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그를 고대하게 하여, 그들로 주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17]"이제 이 멜기세덱은 살렘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나니, 그의 백성의 죄악과 가증함이 점차 중해져, 참으로 그들이 모두 바른 길에서 벗어나, 온갖 간악함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18]그러나 멜기세덱이 큰 신앙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따라 대

┐15 창세기 14:18~20

신권의 직분을 받아, 그의 백성에게 회개를 전파하매, 보라, 그들이 회개하였고, 멜기세덱은 자기 시대에 그 땅에 평강을 이루었더라. 이러므로 그가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졌나니, 이는 그가 살렘 왕이었음이요, 또 그는 그의 부친 밑에서 다스렸더라. 19이제 그의 전에도 많은 자들이 있었고, 후에도 많은 자들이 있었으나, 더 큰 자가 없었나니, 그러므로 그에 대하여 특별히 더 언급한 것이더라.

20"이제 내가 이 일을 상술할 필요가 없나니, 내가 말한 것으로 족하리로다. 보라, 경전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왜곡하면 그로 인하여 너희 스스로가 멸망하리라."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

21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이러한 말을 그들에게 하고 나서, 그들을 향해 그 손을 내뻗고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지금이 회개할 때니, 이는 구원의 날이 가까워옴이니라. 22또한 주의 음성이 천사들의 입을 의탁하여, 이를 만국에 선포하시나니, 참으로 그들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갖게 하시려 이를 선포하시며, 또한 이 기쁜 소식을 그의 온 백성 중에 울리게 하시나니, 곧 지면에 널리 흩어진 자들에게까지라, 그리하여 그 소식이 우리에게 이르렀도다. 23또 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못 알아들을 수 없는 명백한 말로 우리에게 알려졌나니, 이는 우리가 낯선 땅에서 방황하는 자 됨으로 인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이 크게 은총을 입었나니, 이는 우리의 포도원 모든 곳에서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선포됨이로다. 24이는 보라, 천사들이 지금 우리 땅에서 많은 자들에게 이를 선포하고 있음이니, 이는 그가 영광 중에 오실 그때에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니라.

25"또 이제 우리는 다만 그의 오심에 관하여 천사들의 입으로 우리에게 선포되는 기쁜 소식 듣기를 기다릴 뿐이니, 이는 얼마나 속히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때가 옴이니라. 내 생전에 그 일이 있기를 하나님께 원하나 그때가 이르든지 늦든지 그 일로 나는 기뻐하리로다.ㄱ 26또 주의 오심은 참으로 그가 오실 때, 천사들의 입으로 의롭고 거룩한 자들에게 알려져, 우리 조상들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니,ㄴ 곧 그들이 그들 안에 있던 예언의 영을 좇아, 주께 관하여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27"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내가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참으로 고통스럽기까지 한 큰 염려를 가지고 바라노니,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너희 죄를 던져버리고, 너희의 회개의 날을 미루지 말고, 28도리어 너희는 주 앞에 겸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깨어 항상 기도하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게 하고,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겸손하고 온유하고 유순하고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모든 것에 오래 참는 자가 되며,

29 주를 믿으며,
영생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지며,
너희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지녀,
마지막 날에 너희가 들리워 그의 안식에 들어가게 되도록 하라.

ㄱ25 이 당시에는 앨마$_2$가 작은 판에 포함된 명확한 예언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 니파이전서 10:4, 19:8과 니파이후서 25:19 참조; 앨마서 16:20 비교 ㄴ26 힐라맨서 16:14에서 이 일이 일어남

30 또 주께서 너희에게 회개를 주사, 너희로 그의 진노를 자초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너희로 지옥의 사슬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너희로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1 또 앨마가 백성에게 이 외에도 많은 말을 하였으나, 이 책에는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판사 앞에 끌려온 앨마$_2$와 앰율레크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마친 후 그들 중 많은 자들이 그의 말을 믿고, 회개하며, 경전을 상고하기 시작하였더라. 2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앨마와 앰율레크를 멸하기를 원하였으니, 이는 지에즈롬에게 한 앨마의 말의 명백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앨마에게 노하였음이라. 또 그들은 말하기를 앰율레크가 그들에게 거짓말하였으며, 그들의 법과 또한 그들의 율법사들과 판사들에게 대하여 욕하였다 하더라. ㄱ 3 그리고 그들은 또한 앨마와 앰율레크에게 노하였나니, 그들의 간악함에 대하여 이들이 그처럼 명백히 증거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앨마와 앰율레크를 은밀히 처치하려 하였더라. 4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고, 앨마와 앰율레크를 잡아 단단한 줄로 결박하여 그 땅의 대판사 앞으로 끌어가니라. 5

이에 백성들이 나아가 이들에 대하여 증거하되—이들이 그 땅과 또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의 법과 그들의 율법사들과 판사들에게 대하여 욕하였으며, 또한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 밖에 없으되, 그가 그의 아들을 백성 중에 보내실 것이나,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 증거하고, ㄴ 또 앨마와 앰율레크에 대하여 백성이 그러한 것을 많이 증거하였으니, 이제 이 일은 모두 그 땅의 대판사 앞에서 행하여졌더라.

믿음을 가진 남편들이 쫓겨나고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이 죽임당하다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지에즈롬이 백성들이 한 말에 놀랐고, 또한 자기의 거짓된 말로써 자신이 백성들 가운데 초래한 바, 생각의 눈멈에 관하여 알게 되어, 그 영혼이 스스로 죄를 깨닫는 마음으로 괴로움을 당하기 시작하였나니, 참으로 그가 지옥의 고통에 에워싸이기 시작하였더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성들에게 부르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라, 나에게 죄가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백하도다 하고,"

그때로부터 앨마와 앰율레크를 위하여 변호하기 시작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욕하여 이르되, "너도 귀신 들렸느냐" 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그를 그들 가운데서 내어 쫓고, ㄷ 앨마와 앰율레크의 말을 믿는 자들도 모두 내어 쫓았더라. 또 그들이 저들을 내어 쫓고, ㄹ 사람들을 보내어 저들에게 돌을 던지게 하였더라.

8 또 그들은 저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한데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나 믿도록 가르침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불에 던져지게 하고, 그들은 또 거룩한 경전이 포함된 저들의 기록을 가져와, 이도 역시 불에 던져, 그것들이 불에 타 진멸되게 하였더라.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앨마와 앰율레크를 취하여, 순교의 장소로 끌어내어, 불에 타는 이들의 멸망을 목격하게 하였더라. 10 이에 앰율레크가 불 가운데서 타고 있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고통을 보고, 그도 또한 고통을 받아, 앨마에게 이르되, "우리

ㄱ 2 앨마서 10:28~29 ㄴ 5 앨마서 11:35 ㄷ 7 지에즈롬은 앨마서 15:3에 다시 나옴 ㄹ 7 앰몬아이하 백성들은 의인을 내쫓지말라는 경고를 앨마서 10:23에서 받았음

가 어찌 이 참혹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으리이까? 그런즉 우리의 손을 뻗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하여, 화염에서 저들을 구원하사이다" 하였더라.

11 그러나 앨마가 그에게 이르되, "영이 나를 억제하사 내가 손을 뻗치면 안 된다 하시나니, 이는 보라 주께서 저들을 영광 중에 자기에게로 영접하심이라. 또 주께서 그들로 이 일을 행하도록 버려 두시는 것, 곧 백성들로 그 마음의 완악함을 좇아, 저들에게 이 일을 행하도록 버려 두시는 것은, 그가 그 진노 중에 그들에게 베푸실 심판이 의로운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무죄한 자들의 피가 그들을 치는 증거가 될 것이요, 또 그들에게 대하여 힘차게 외치리라."

12 이제 앰율레크가 앨마에게 이르되, "보소서, 아마도 그들이 우리도 사르리이다" 하더라.

13 이에 앨마가 이르되, "주의 뜻대로 될지니라. 그러나 보라, 우리의 일이 끝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사르지 아니하느니라" 하니라.

옥에 갇힌 앨마$_2$와 앰율레크

14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불에 던져진 이들의 몸과 또한 그들과 함께 던져진 기록들이 다 타고나서, 그 땅의 대판사가 와서 결박당해 있는 앨마와 앰율레크 앞에 서서, 그 손으로 저들의 뺨을 치고,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런 일을 보고도, 또다시 이 백성에게 전파하기를 그들이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리라고 하겠느냐?" ¬ 15 보라, 너희가 보나니 불에 던져진 자들을 구원할 능력이 너희에게 없었고, 하나님도 그들이 너의 신앙에 속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판사가 다시 저들의 뺨을 치고 묻되, "너희는 너희를 위해 무엇이라 말하느냐?" 16 이제 이 판사는 기드온을 죽인 니허의 반차와 신앙을 따른 자더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와 앰율레크가 그에게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저들을 때린 후, 관원에게 넘겨 옥에 던져 넣게 하니라. 18 이에 저들이 옥에 던져진 지 사흘 되었을 때, 니허의 신앙에 속한 많은 율법사들과 판사들과 제사들과 교사들이 왔으니, 그들이 저들을 보러 옥 있는 데까지 들어와, 여러 말씀에 대하여 저들에게 질문하였으나 저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더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가 저들 앞에 서서 이르되 어찌하여, "이 사람들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를 화염에 넘길 권능이 내게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고 저들에게 말하기를 명하였으나, 저들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니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떠나 자기 길을 갔다가, 다음 날 다시 왔고, 판사가 또한 다시 저들의 뺨을 치더라. 또한 많은 자들이 나아와, 저들을 치며 이르되, "너희가 다시 서서 이 백성을 판단하며 우리의 법을 정죄하겠느냐? 너희가 그토록 큰 능력을 가졌으면 어찌하여 너희 스스로를 구하지 아니하느냐?" 21 또 그 같은 말을 저들에게 많이 하며, 저들을 향해 그들의 이를 갈고, 저들에게 침을 뱉으며, 또 말하기를, "우리가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보이겠느냐?"

22 또 그 같은 많은 말을, 참으로 그 같은 온갖 말을 저들에게 하였나니, 이같이 여러 날 동안 저들을 조롱하였더라. 또 음식을 주지 않아 주리게 하였고, 물을 주지 않아 목마르게 하였으며, 또한 저들의 옷을 빼앗으매 저들이 벌거벗었나니, 이같이 저들이 단단한 줄로 결박되어, 감옥에 갇혀 있었더라.

¬14 이 질문의 대답은 누가 봐도 "아니오"임. 앨마$_2$는 앨마서 12:17에서 이 "불과 유황"의 비유를 사용했고, 그 전에 니파이후서 9:16, 19, 26; 28:23; 야곱서 3:11; 6:10; 모사이야서 3:27에서도 나왔지만 이때 이후로는 그 비유를 더 이상 몰몬경에서 볼 수 없음

앨마$_2$와 앰율레크가 건져내심을 입다

23이에 저들이 여러 날 동안 이같이 고난을 당한 후 이렇게 되었나니, (그 날은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년 시월 십이일이었더라)ㄱ 앰몬아이하 땅의 대판사와 그들의 교사와 그들의 율법사들의 다수가 앨마와 앰율레크가 줄로 결박되어 있는 옥까지 들어가더니, 24이에 대판사가 저들 앞에 서서, 다시 저들을 때리고,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거든 이 줄에서 너희 스스로를 구원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말대로 주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리라" 하더라.

25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나아가 저들을 치되, 동일한 말을 하며, 마지막 사람까지 그리하니, 맨 마지막 사람이 저들에게 말하고 나자, 하나님의 권능이 앨마와 앰율레크 위에 있으매, 이들이 일어나 자기 발로 서더라. 26그리고 앨마가 외쳐 이르되, "주여, 이 큰 고난을 우리가 어느 때까지 받아야 하오리이까? 주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신앙을 좇아 우리에게 힘을 주사, 구원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고, 저들을 결박한 줄을 끊으매,

무리가 이를 보고 도망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멸망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음이라. 27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두려움이 어찌나 컸던지 그들이 땅에 엎드러져, 감옥의 바깥문에 이르지 못하더니, 땅이 심히 흔들리고, 감옥의 벽이 둘로 갈라져, 땅에 무너지매, 앨마와 앰율레크를 친 대판사와 율법사들과 제사들과 교사들이 그 무너짐에 의해 죽임을 당하니라.

28또 앨마와 앰율레크는 옥에서 나왔으나,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들의 신앙을 좇아 저들에게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에 저들이 옥에서 곧바로 나아왔고, 저들을 결박했던 줄에서 풀렸으되, 옥은 무너져, 앨마와 앰율레크를 제외하고는, 그 안에 있던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저들은 곧바로 성 안으로 나아왔더라.

29이제 백성이 큰 소음을 듣고 그 원인을 알고자 하여 무리를 지어 함께 달려왔다가, 앨마와 앰율레크가 옥에서 나아오는 것과 감옥의 벽이 땅에 무너진 것을 보고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앨마와 앰율레크의 면전에서 도망하기를 참으로 염소가 그 어린 것을 데리고 두 마리의 사자에게서 도망함같이 하였나니, 이같이 그들이 앨마와 앰율레크의 면전에서 도망하였더라.ㄴ

앨마$_2$와 앰율레크가 사이돔 땅으로 가서 쫓겨난 신도들을 만나다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와 앰율레크가 그 성에서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서, 사이돔 땅으로 나왔더니, 보라 거기서 저들이 앰몬아이하 땅을 떠난 자들, 곧 앨마의 말을 믿은 까닭에 내어 쫓기고 돌에 맞은 모든 백성을 발견하였더라.ㄷ 2이에 앨마와 앰율레크가 그들에게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과 또한 자신들에 관해서와,ㄹ 자신들의 구원의 능력에 관하여 이야기해 주었더라.

ㄱ23 –82년 ㄴ29 이 사건은 앨마서 8:30~31에서 암시가 되었음; 앰몬아이하의 이야기의 결말은 앨마서 16:1~12과 25:1~2에 나옴 ㄷ1 앨마서 14:7 ㄹ2 앨마서 14:8~10

지에즈롬이 치유되다

3 그리고 지에즈롬 역시 사이돔에서 뜨거운 열로 병들어 누웠으니,ㄱ 이는 자기의 간악함으로 인한 그 마음의 큰 환난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는 그가 앨마와 앰율레크가 더 이상 살아 있지 않다고 생각하였음이요, 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들이 죽임을 당하였다 생각하였음이라. 이에 이 큰 죄와, 또 그의 다른 많은 죄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혀, 이윽고 그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게 되었어도 구원을 얻지 못하니, 그러므로 그가 뜨거운 열로 타 들어가기 시작하더라.

4 이제 그가 앨마와 앰율레크가 사이돔 땅에 있다 함을 듣고, 그 마음이 용기를 얻기 시작하여, 즉시 그들에게 전갈을 보내어, 자기에게로 와 줄 것을 청하니라.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가 보낸 전갈에 응하여, 즉시 가서 집에 들어가, 지에즈롬에게 이르니, 그가 자기 침상에 있는데, 병들어 뜨거운 열로 쇠진하여 있더라. 또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도 심히 고통을 당하더니, 그가 그들을 보자 그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자기를 낫게 해 주기를 구하더라.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그 손을 잡고 그에게 이르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네가 믿느냐?"

7 이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나는 당신이 가르치신 말씀을 모두 믿나이다."

8 이에 앨마가 이르되, "만일 네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느니라."

9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나는 당신의 말씀대로 믿나이다."

10 이에 앨마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신앙으로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더라. 11 이에 앨마가 이 말을 하고 나자, 지에즈롬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하니, 이 일이 된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니라. 이에 이 소문이 사이돔 온 땅에 두루 퍼지니라. 12 또 앨마가 지에즈롬에게 침례를 주어 주께로 인도하매, 그가 그때로부터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니라.ㄴ

앨마$_2$가 사이돔에서 교회를 세우고 앰율레크를 제이라헤믈라로 데리고 가다

13 또 앨마는 사이돔 땅에 교회를 세우고, 그 땅에 제사들과 교사들을 성별하여, 누구든지 침례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어 주께로 인도하게 하였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수가 많았으니, 이는 사이돔 주변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침례를 받음이더라.

15 그러나 앰몬아이하 땅에 있던 백성들에 대하여 말할진대, 그들이 여전히 그대로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인 채,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앨마와 앰율레크의 능력을 모두 악마의 것으로 돌림이요, 이는 그들이 니허의 신앙에 속했던 고로, 그들의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더라.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와 앰율레크는, 앰율레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앰몬아이하 땅에 있던 그의 금과 은과 그의 귀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한때 그의 친구였던 자들과 또한 그의 부친과 그의 친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므로, 17 그러므로 앨마가 사이

ㄱ 3 지에즈롬의 이야기가 앨마서 14:6~7에서부터 계속됨 ㄴ 12 지에즈롬은 앨마서 31:6과 32절에서 다시 등장함

돔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큰 억제가 있음을 보되, 참으로 백성들이 그 마음의 교만이 억제를 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시작하며,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그들의 성소에 함께 모이기 시작하며, 깨어 항상 기도하여, 사탄에게서와, 사망에서와, 멸망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을 본 후—

18 이제 내가 말한 것같이, 앨마가 이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앰율레크를 데리고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넘어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환난 중에 그에게 베풀고, 그를 주 안에서 굳세게 하니라. 19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년이 끝났느니라. ㄱ

앰몬아이하가 멸망되고 포로들이 해방되다 ㄴ

1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일년 이월 오일, ㄷ 곧 그때까지 제이라헤믈라 땅에 많은 평화가 있었고, 수년간 전쟁이나 다툼이 없었더니, 십일년 이월 오일에 전쟁의 외침이 온 땅에 들리니라. 2 이는 보라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광야 쪽을 침범하여, 그 땅 경계로 들어오되, 참으로 앰몬아이하 성으로 들어와 백성들을 죽이며, 성을 멸하기 시작하였음이라. 3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이 미처 그들을 그 땅 밖으로 몰아 내기에 충분한 군대를 일으키기도 전에, 그들이 앰몬아이하 성에 있던 백성들과 또한 노아의 경계 부근의 얼마를 멸하고, 다른 자들을 광야로 사로잡아 갔더라.

4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이 광야로 사로잡혀 끌려간 자들을 도로 찾기 심히 원하였더라. 5 그러므로 니파이 군대의 총대장으로 임명되어 있던 자가, (그의 이름은 조램이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 리하이와 ㄹ 에이허라)—이제 조램과 그의 두 아들은 앨마가 교회의 대제사인 줄을 알고, 또 그가 예언의 영을 지니고 있음을 들었으므로, 앨마에게로 가서 그들이 레이맨인들에게 사로잡힌 그들의 형제들을 찾아 광야 어디로 들어가기를 주께서 원하시는지 알려 줄 것을 그에게 청하였더라.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그 문제에 관하여 주께 여쭈었더라. 그리고는 앨마가 돌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레이맨인들이 멀리 맨타이 땅 경계 너머 위쪽, 남편 광야에서 시돈 강을 건너리니, 보라 너희는 시돈 강 동편 거기서 그들을 만날지라, 거기서 주가 레이맨인들에게 사로잡힌 네 형제들을 네게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조램과 그의 아들들이 그 군대와 더불어 시돈 강을 건너, 멀리 맨타이의 경계 너머로 행군하여, 시돈 강 동편에 있는 남편 광야로 들어가더라. 8 그리고 레이맨인들의 군대를 급습하매, 레이맨인들이 흩어져 광야로 쫓겨 들어갔고, 그들은 레이맨인들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의 형제들을 취하였더니, 사로잡혔던 자들 중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그들은 자기 형제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더라.

9 그리고 이같이 판사 제십일년이 끝나니 레이맨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고, 앰몬아이하 백성은 멸망당하였더라. 참으로 앰몬아이하 사람 중 모든 산 자가 멸망당하였으며, 그들의 큰 성도 또한 멸망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무 커서 하나님도 멸하실 수 없다 하던 것이라. ㅁ 10 그러나 보라, 하루에 그것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었으며, 주검들이 개들과 광야의 들짐승들에게 갈기갈기 찢기었더라. 11 그럼에도 불구하

ㄱ 19 –82년; 앨마서 8:3 또는 10:6; 14:23 참조 ㄴ 1 앰몬아이하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앨마서 8:6~15:2에 나옴; 앨마서 25:1~2에 앰몬아이하의 멸망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나옴 ㄷ 1 –81년 ㄹ 5 이 리하이는 앨마서 43~62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군장 리하이라고 볼 수도 있음 ㅁ 9 앨마서 9:4 참조; 여기에 나오는 멸망은 앨마$_2$가 한 예언들의 실현임; 앨마서 9:12, 18, 24; 10:23 참조

고 여러 날 후 그들의 시체가 지면에 쌓여, 그 위에 덮이는 것이 엷게 덮이니, 이제 그 악취가 심히 컸으므로 백성들이 여러 해 동안 앰몬아이하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 곳은 니허인들의 황무지라 일컬어졌나니, 이는 죽임을 당한 그들이 니허의 신앙에 속하였으며,ㄱ 그들의 땅이 황무한 채 있었음이더라.

12 그리고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십사 년까지 레이맨인들이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오지 아니하매, 이리하여 삼 년 동안 니파이 백성은 온 땅에서 계속하여 평화를 누렸더라.

앨마$_2$와 앰율레크와 다른 사람들이 온 땅에 두루 교회를 세우다

13 또 앨마와 앰율레크는 나아가 유대인들의 방식을 따라 지어진, 그들의 여러 성전에서와, 그들의 여러 성소에서, 또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파하더라. 14 또 그들의 말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었더라. 15 또 이같이 앨마와 앰율레크와, 또한 이들 외에 이 일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많은 자들이 나아가, 그 온 땅에 두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매,

교회의 설립이 그 땅 전역에서, 주변의 모든 지역에서, 니파이인들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일반적인 것이 되었더라. 16 또 그들 중에 불평등함이 없었더라. 주께서 그 오시는 때에 그들 가운데 가르치실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사람의 자녀들의 생각을 예비하시려, 곧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려 온 지면에 그의 영을 쏟으시니— 17 이는 그들로 말씀을 거스려 완악하게 되지 않게 하여, 그들로 신앙 없는 자가 되어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고, 도리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한 가지로서 참포도나무에 접목되어, 주 그들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18 이제 백성 가운데 나아간 그 제사들은 일체의 거짓말함과 속임과 시기함과 다툼과 악독과 모욕함, 도적질함, 강탈함, 약탈함, 살인함, 간음을 범함 및 온갖 음란함을 금하도록 가르치며, 이러한 일들이 마땅히 그래서는 아니됨을 외치고— 19 반드시 속히 임할 일을 가르치되,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과 그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도 가르쳤더라. 20 또 백성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곳에 대하여 묻더니, 그가 부활하신 후 그들에게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가르치매, 이를 백성이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듣더라.

21 이에 이제 온 땅에 두루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악마에게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그대로 그 온 땅에 전파되고, 주께서는 백성들 위에 그의 복을 쏟으시니—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사년이 끝났느니라.ㄴ

ㄱ 11 앨마서 1:2~6; 15:15 ㄴ 21 –78년

모사이야$_2$의 아들들의 선교 여행기 (회상 장면)

앨마서 17~27장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나라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버리고, 레이맨인들에게 전도하러 니파이 땅으로 올라간 모사이야의 아들들의 기사. 그들의 고난과 구출—앨마의 기록에 의함.

앨마$_2$가 레이맨인땅으로 돌아오는 모사이야$_2$의 아들들을 만나다

17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기드온 땅에서, 남방으로 멀리 맨타이 땅으로 여행하고 있을 때, 보라 놀랍게도 제이라헤믈라 땅을 향해 여행하고 있던 모사이야의 아들들을 만났더라.[ㄱ] [2]이제 이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천사가 처음 앨마에게 나타났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지라,[ㄴ] 그러므로 앨마가 그의 형제들을 보고 심히 기뻐하였더라. 또 그의 기쁨을 더욱 더하게 한 것은, 그들이 아직도 주 안에서 그의 형제였음이요, 그뿐 아니라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음이더라. [3]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었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어,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더라. [4]또 그들은 십사 년 동안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었고,[ㄷ] 많은 성공을 거두어 많은 자들을 인도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의 말씀의 권능으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단 앞으로 인도되어,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더라.[ㄹ]

회상 장면의 시작: 모사이야$_2$의 아들들이 선교여행을 떠나다

[5]이제 이는 그들의 여행에서 그들에게 수반된 상황이니, 이는 그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음이라, 그들은 육신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노고를 겪었었나니, 곧 굶주림, 목마름, 그리고 피로와, 또한 영으로 많은 애를 씀과 같은 것이라. [6]이제 그들의 여행은 이러하였더라. 나라를 거절하고, 판사 원년에 그 부친 모사이야를 작별하였나니, 나라를 그들의 부친은 그들에게 넘겨 주기 원하였고, 이 또한 백성의 생각이기도 하였으나,[ㅁ] [7]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 그들의 칼과 그들의 창과 그들의 활과 그들의 화살과 그들의 물매를 취하였으니,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광야에 있는 동안 스스로를 위하여 먹을 것을 마련하고자 함이었더라. [8]이같이 그들은 니파이 땅으로 올라가, 레이맨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그들이 선택한 그들의 일행과 더불어 광야로 떠났더라.

[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여러 날 광야를 여행하며, 많이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여 주께서 그의 영의 일부를 그들에게 주사 그들과 함께 가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게 하사,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가능하다면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올바르지 아니한 그들 조상의 전통의 비속함을 알게 하도록 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더라.

[1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의 영으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위안을 받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위안을 받더라. [11]이에 주께서 또한 그들에게

[ㄱ]1 모사이야의 아들들에 대해 언급했던 가장 마지막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28:9에 나옴 [ㄴ]2 모사이야서 27:8~18 [ㄷ]4 약 –91년부터 –77년까지 [ㄹ]4 다음에 이어지는 10장의 내용에서 지난 14년간의 모사이야 아들들의 경험을 기록한 후에 엘마서 27:16부터 다시 엘마의 이야기가 나올 것임 [ㅁ]6 모사이야서 29:1~3

이르시되, "네 형제 레이맨인들 가운데 나아가, 나의 말을 확립하라. 그리하되 너희는 오래 참음과 고난 중에 인내하여, 내 안에서 그들에게 선한 본을 보일지니,ㄱ 그리하면 내가 너로 내 손에 든 도구를 삼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1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사이야의 아들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의 마음이 레이맨인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용기를 얻었더라.ㄴ

1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땅 경계에 도착하였을 때, 주 안에서 그들이 추수의 마감 때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주 안에서 신뢰하며, 각기 헤어져 서로에게서 떠났으니, 이는 그들이 시작한 일이 실로 크다고, 그들이 생각하였음이라.ㄷ

14그리고 정녕 그 일은 큰일이었나니, 이는 그들이 거칠고 완악하며 흉포한 백성, 니파이인들을 살해하며, 그들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기를 기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기를 시작하였음이라. 또 그들은 그 마음을 재물에 곧 금과 은과 보석에 두었고, 더욱이 살인하고 약탈함으로써 이러한 것을 얻기를 구하였나니, 이는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그러한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자 함이라. 15이리하여 그들은 몹시 게으른 백성이었고, 그들 중 많은 자들이 우상을 섬겼으며, 그들 조상들의 전통 까닭에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내렸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들은 회개의 조건하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16그러므로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그 일을 시작한 까닭은 이것이었나니, 혹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여, 혹 그들로 구속의 계획을 알게 하고자 함이라. 17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헤어져, 각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좇아, 홀로 그들 가운데 나아갔더라.

18이제 암몬은 그들 중 우두머리요, 곧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더니, 자신이 떠나기 전에 그들을 그 각각의 위치에 따라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준 후, 곧 그들에게 성역을 베푼 후 그들을 떠났나니, 이같이 그들은 각기 따로 그 땅을 두루 여행하였더라.

이스마엘 땅에 거하는 암몬$_2$

앨마서 17:19~21:23

암몬$_2$이 이스마엘 땅으로 가다

19이에 암몬이 이스마엘 땅으로 갔으니, 이 땅은 역시 레이맨인이 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 일컫는 곳이라. 20이에 암몬이 이스마엘 땅에 들어가매, 레이맨인들이 그를 잡아 결박하니, 이는 그들의 수중에 든 니파이인들을 모두 결박하여, 왕 앞으로 데려가는 그들의 관례대로더라. 이리하여 그의 뜻과 의향대로, 그들을 죽이든지, 사로잡아 두든지, 옥에 던져 넣든지, 그의 땅에서 쫓아내든지, 왕의 의향에 맡겨졌더라. 21이에 이리하여 암몬이 이스마엘 땅을 다스리는 왕 앞에 끌려가니, 그의 이름은 라모나이요, 그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더라.

22이에 왕이 암몬에게 혹 그 땅에서 레이맨인들 중에, 아니면 그의 백성 중에 거하는 것이 그의 바람인지 묻더라. 23이에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나는 한동안, 그뿐 아니라 아마도 죽는 날까지 이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ㄱ11 "[나를 믿는 신앙으로] 그들에게 선한 본을 보일지니"의 의미로 추정 ㄴ12 모사이야의 아들들의 광야 여정은 앨마서 26:26~27에 더 자세히 나옴 ㄷ13 14~17절은 몰몬$_2$이 편집상 임의로 추가한 내용이며 본격적인 이야기는 18절이 되어서야 다시 시작됨; 선교사들의 분리에 대한 이야기는 3번 묘사됨; 13절, 17절, 18절 참조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라모나이 왕이 암몬을 몹시 기뻐하여, 그의 결박을 풀어 주게 하고, 암몬이 자기의 딸 가운데 하나를 아내로 취하기를 원하였더라. 25 그러나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그리 마옵소서, 하지만 내가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암몬이 라모나이 왕의 종이 되니라.

암몬$_2$이 왕의 양 떼를 방어하다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의 관습을 좇아, 그를 다른 종들 가운데 두어 라모나이의 양 떼를 지키게 하였더라. 26 이에 그가 왕을 섬겨 사흘을 지낸 후, 저희 양 떼와 더불어 시부스 물이라 하는, 물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레이맨인 종들과 함께 하였더니, 그 곳은 모든 레이맨인들이 물을 얻으러, 그들의 양 떼를 몰아오는 곳이라— 27 그러므로 암몬과 왕의 종들이 이 물 있는 곳으로 그들의 양 떼를 몰아가고 있을 때, 보라 자기 양 떼와 더불어 물에 와 있던 레이맨인 몇몇이 서서, 암몬과 왕의 종들의 양 떼를 흩으니, 그들이 흩으매 양 떼가 여러 길로 도망한지라.

28 이제 왕의 종들이 울먹이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제 왕이 우리의 형제들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죽이리니, 그들의 양 떼가 이 사람들의 간악함에 의해 흩어진 연고로 왕이 그들을 죽였느니라" 하고, 심히 울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라 우리의 양 떼는 이미 흩어졌도다" 하더라. 29 이제 그들이 운 것은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연고더라.

이제 암몬이 이를 보고 그 마음이 속에서 기쁨으로 부풀었나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이 동료 종들에게 나의 능력, 곧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보여, 양 떼를 왕에게로 회복하여, 내 이 동료 종들의 마음을 얻어, 그들을 인도하여 내 말을 믿게 하리라" 하였음이라. 30 이제 이러한 것이 암몬이 자기 형제라 칭한 자들의 고난을 보았을 때, 그가 가진 생각이었더라.

3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자기의 말로 그들을 달래어 이르되, "내 형제들아, 기운을 내라 그리고 양 떼를 찾으러 가자, 우리는 양 떼를 함께 모아 물 있는 곳으로 도로 데려오리니, 이같이 우리가 왕을 위하여 양 떼를 보전하면 그가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양 떼를 찾으러 가며, 암몬을 따르더니, 그들이 몹시 빠르게 앞으로 내달아 왕의 양 떼를 가로막아, 그것들을 다시 물 있는 곳으로 함께 모았더라.

33 이에 그 사람들이 다시 서서 그들의 양 떼를 흩으려 하거늘, 암몬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양 떼를 에워싸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나는 가서 우리 양 떼를 흩는 이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겠노라" 하더라. 34 그러므로 그들이 암몬이 그들에게 명하는 대로 하매, 암몬이 나아가 시부스 물가에 선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서니, 저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더라. 35 그러므로 저들이 암몬을 두려워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들 중 하나가 저들 뜻대로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이라. 이는 주께서 모사이야에게 그 아들들을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을 저들이 알지 못하였음이요,ㄱ 주께 관하여도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들은 저들 형제들의 멸망을 기뻐하였나니, 이 연고로 저들은 서서 왕의 양 떼를 흩고자 한 것이더라.

36 그러나 암몬이 서서 그의 물매로 저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하여, 참으로 큰 힘으로 저들 가운데 물매로 돌을 던지니, 이같이 암몬이 저들 중 몇을 죽이매 저들이 암몬의 힘에 놀라기 시작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 형제 중 죽임을 당한 자들로 인해 노하였던지라, 저들은 그를 거꾸러뜨리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리하여 저들이 자

ㄱ35 모사이야서 28:7

기들의 돌로는 그를 맞힐 수 없음을 보고, 그를 죽이려 몽둥이를 가지고 나아왔더라. 37그러나 보라, 암몬을 치려고 그 몽둥이를 치켜드는 자마다, 암몬이 자기 칼로 저들의 팔을 쳐 떨어뜨렸으니, 이는 그가 저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자기의 칼날로 저들의 팔을 쳤음이라. 그리하여 저들이 놀라기 시작하여, 그의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하였나니, 참으로 저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였으되, 그가 그 팔의 힘으로 저들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38이제 저들 중 여섯이 물매에 쓰러졌으되, 그가 그 칼로 저들의 지도자 외에는 아무도 죽이지 아니하였고, 또 그는 그를 치려고 들린 저들의 팔을 다 쳐서 떨어뜨렸나니, 그 수가 적지 아니하더라.

39이에 저들을 멀리 쫓아버리고 나서, 암몬이 돌아오매 그들이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양 떼를 왕의 초장으로 되돌린 다음, 암몬의 칼에 맞아 떨어진 바, 그를 죽이려 하던 자들의 팔들을 가지고 왕에게로 들어가되,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증거로서 그 팔들을 가지고 왕에게로 들어갔더라.

라모나이 왕의 종들의 증언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라모나이 왕이 그의 종들로 하여금 나서서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본 것을 다 증거하게 하더라. 2이에 그들이 모두 그 본 것을 증거하매, 왕이 자기의 양 떼를 보호하는 암몬의 충실함과 그를 죽이려 하던 자들을 대적하여 싸우는 그의 큰 힘에 대해 알고 나서, 심히 놀라 이르되, "정녕 이는 사람 이상이로다. 보라, 이는 이 백성에게 그들의 살인으로 인하여, 그처럼 큰 형벌을 보내시는 위대한 영이 아니냐?"

3이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위대한 영인지 혹은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이만큼은 우리가 아노니, 그는 왕의 원수들이 죽일 수 없으며, 그의 노련함과 큰 힘으로 인하여, 그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이 왕의 양 떼를 흩을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왕에게 벗이 됨을 아나이다. 그리고 이제 왕이시여, 우리는 사람에게 그처럼 큰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아니하오니, 이는 아무도 그를 죽일 수 없는 줄 우리가 앎이니이다" 하더라.

4이에 왕이 이 말을 듣고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나는 그가 위대한 영인 줄 아노니, 그가 이때 내려온 것은 너희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로 너희 형제들을 죽인 것 같이, 너희를 죽이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제 이는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위대한 영이로다."

5이제 이는 라모나이의 전통으로써, 그가 그 부친에게서 받았던 것이니, 곧 위대한 영이 있다 하는 것이라. 그들이 위대한 영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옳다고 생각하였더라. 그럼에도 라모나이는 그의 종들을 죽인 것이 잘못한 일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으로,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나니, 6이는 물 있는 곳에서 그가 그들을 많이 죽였음이니 이는 그들의 형제들이 그들의 양 떼를 흩었음으로 인함이라. 이리하여 그들의 양 떼가 흩음을 당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죽임을 당하였더라. 7이제 시부스 물가에 서서 백성들의 양 떼를 흩는 것은 이 레이맨인들의 관행이었나니, 그리함으로써 흩어진 양 떼를 많이 저들 땅으로 몰아가고자 함이라. 이는 저들 가운데 있는 약탈의 관행이더라.

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라모나이 왕이 그의 종들에게 물어 이르되, "그처럼 큰 능력을 지닌 이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9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그는 왕의 말을 먹이고 있나이다" 하더라.

이제 왕은 종들이 그들의 양 떼에게 물을 먹일 시각 이전에, 그들에게 자신의 말들과 병거들을 예비하고, 자기를 니파이 땅으로 인도하라 명했었나니, 이는 그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인, 라모나이의 부친에 의해 니파이 땅에 큰 잔치가 예정되어 있었음이라.

10 이제 라모나이 왕은 암몬이 그의 말들과 그의 병거들을 예비하고 있다 함을 듣고, 암몬의 충실함으로 인하여 더욱 놀라 이르되, "정녕 이 사람같이 충실한 종은 나의 모든 종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실로 그가 내 명령을 모두 기억하여 시행함이로다. 11 이제 내가 정녕 아노니 이는 그 위대한 영이라, 그가 내게로 들어오기를 내가 청하기 원하나, 감히 그리할 수 없도다."

암몬$_2$이 왕에게 돌아가다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왕과 그의 종들을 위하여 말과 병거들을 예비하고 나서, 왕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본즉 왕의 안색이 변하였는지라, 그의 면전에서 돌이켜 나오려 하더라. 13 이에 왕의 종들 중 하나가 그에게 이르되, "랩보나여" 하거늘, 이는 해석한즉 강력한, 곧 "위대한 왕"이니, 저희 왕들은 강력하다고 여김이라. 그리하여 그가 암몬에게 이르되, "랩보나여, 왕께서 당신이 머물러 있기를 원하나이다."

14 이러므로 암몬이 왕에게로 돌이켜, 그에게 이르되, "왕이시여, 내가 왕을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였으나, 왕이 그들의 시간으로, 한 시간 동안 그에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음이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하였으나, 왕이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로 인해 왕의 생각을 알게 된지라, 그에게 이르되, "이는 내가 왕의 양 떼와 왕의 종들을 지키기 위하여, 물매와 칼로 그들의 형제 중 일곱을 죽이고, 다른 자들의 팔을 쳐 떨어뜨려서, 왕의 종들과 왕의 양 떼를 지켰음을 왕께서 들으신 연고니이까, 보소서, 왕으로 하여금 기이히 여기게 하는 것이 이것이니이까? 17 왕께 말씀드리거니와, 왕의 기이히 여기심이 그처럼 클 것이 무엇이니이까? 보소서, 나는 사람이요, 왕의 종이오니, 무엇이든지 옳은 것으로써 왕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행할 것이나이다."

18 이제 왕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시 놀랐으니, 이는 암몬이 능히 그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음을 보았음이라.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라모나이 왕이 그 입을 열어, 암몬에게 이르되, "당신은 뉘시오니이까? 당신은 모든 것을 아는 저 위대한 영이오니이까?"

19 암몬이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20 이에 왕이 이르되, "당신은 내 마음의 생각을 어찌 아나이까? 당신은 담대히 말씀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나에게 고하며, 또한 무슨 능력으로 내 양 떼를 흩은 나의 형제들을 죽이고 그들의 팔을 쳐 떨어뜨렸는지 내게 말씀해 주소서— 21 또 이제 만일 당신이 이 일에 관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무엇이든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당신께 드리리이다. 또 필요하다면, 나의 군대로 당신을 지켜 드리겠나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보다 당신이 더 강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럴지라도 무엇이든지 당신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당신께 드리리이다."

암몬$_2$이 라모나이 왕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22 이제 암몬은 지혜롭되, 아무 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이었으므로, 라모나이에게 이르되, "무슨 능력으로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면, 왕께서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나이까? 이것이 내가 왕께 원하는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23 이에 왕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하리이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모두 믿겠나이다" 하니, 이리하여 그가 계책으로 잡힌 바 되니라.

24 이에 암몬이 담대히 그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그에게 이르되, "왕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나이까?"

25 이에 그가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되,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지라.

26 이에 암몬이 이르되, "왕은 위대한 영이 계심을 믿으시나이까?"

27 이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28 이에 암몬이 이르되,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하고, 암몬이 다시 그에게 이르되, "왕은 하나님이신 이 위대한 영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나이까?"

29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그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오나 하늘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30 이에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하늘은 하나님과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니이다."

31 이에 라모나이 왕이 이르되, "그것은 땅 위편에 있나이까?"

32 이에 암몬이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또 그는 사람의 자녀들을 모두 다 굽어보시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니, 이는 태초부터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창조되었음이니이다."

33 이에 라모나이 왕이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나이까?"

34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사람이요, 사람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ㄱ] 창조되었으니, 나는 이 백성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그들로 의롭고 참된 것의 지식에 이르게 하도록 그의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나이다. 35 또 그 영의 일부가 내 안에 거하사, 하나님께 있는 나의 신앙과 소망을 따라 내게 지식과 또한 힘을 주시나이다."

36 이제 암몬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세상의 창조와, 또한 아담의 창조에서 시작하여, 사람의 타락에 관한 모든 것을 그에게 다 고하고, 그들의 조상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까지,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바, 곧 백성의 기록과 거룩한 경전들을 상세히 말하고, 그의 앞에 진술하였더라. 37 또한 그들에게 (이는 왕과 그 종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음이라) 그들 조상들이 광야에서 여행한 모든 일과, 주림과 갈증으로 겪은 그들의 모든 고난과 그들의 수고 등을 자세히 말하였더라. 38 또한 그들에게 레이맨과 레뮤엘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모반에 대하여도 자세히 말하되, 참으로 그들의 모반을 그들에게 다 진술하고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과 경전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더라.

39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이는 그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구속의 계획을 그들에게 설명하였음이라. 그가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알게 하고, 또 주의 모든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더라.

[ㄱ]34 창세기 1:26~27

라모나이 왕이 영에 압도되어 쓰러지다

4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이를 왕에게 설명하고 난즉, 왕이
그의 말을 다 믿으니라. 41 이에 그가 주께 부르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오 주여, 자비
를 베푸소서. 니파이 백성에게 베푸신 주의 풍성하신 자비를 좇아, 나와 내 백성에게도
베푸소서." 42 이에 이제 이 말을 하고 나서, 그가 마치 죽은 듯 땅에 쓰러지더라.

4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종들이 그를 취하여 그를 그의 아내에게로 옮겨가서
침상 위에 두매, 그가 마치 죽은 듯이 이틀 낮 이틀 밤 동안 누웠는지라, 그의 아내
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이 그를 잃음을 크게 슬퍼하며 레이맨인들의 관례를 따라
그를 위하여 애곡하니라.

1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틀 낮 이틀 밤이 지난 후 그들이 바야흐로 그의
몸을 취하여,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무덤에 두려
하였더라.

왕후가 암몬$_2$을 부르다

2 이제 왕후가 암몬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그로 자기에게 들어오기를
청하였느니라.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명함을 받은 대로 행하여 왕후에게로
들어가서, 자기가 무엇을 행하기 바라는지 알고자 하더라.

4 이에 왕후가 그에게 이르되, "내 남편의 종들이 내게 알게 하기를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당신에게는 그의 이름으로 많은 능한 일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 하
더이다. 5 그러므로 만일 그러하거든, 들어가서 내 남편을 봐 주소서, 이는 자기 침상에
그가 눕히운지 이틀 낮과 이틀 밤이 되어, 어떤 이들은 말하되 그가 죽지 아니하였다
하나, 다른 이들은 말하되 그가 죽었고 그에게서 냄새가 나니, 그를 무덤에 두어야
한다 함이니이다. 그러나 나 자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내게는 그에게서 냄새가 나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6 이제 이는 암몬이 바라던 바였으니, 이는 라모나이 왕이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
음을 그가 알았음이라.믿지 않음의 어두운 휘장이 그의 마음에서 벗어지고 있으며,
그의 마음을 밝혀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요, 그의 선하심의 기이한 빛인 그
빛—참으로 이 빛이 그의 영혼에 그처럼 큰 기쁨을 넣어 주어, 암흑의 구름이 사라지
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그의 영혼에 밝혀졌음을 그가 알았나니, 참으로 이것이 그의
육의 몸을 압도하여, 그가 하나님 안에 이끌려 갔음을 암몬이 알았더라— 7 그러므로
왕후가 그에게 요청한 일은 그의 유일한 바람이라. 그리하여 그가 왕후가 요청한 대로
왕을 보려고 들어가, 왕을 보고, 그가 죽지 않았음을 알았더라.

8 이에 왕후에게 이르되,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고 있은즉, 내일
이면 다시 일어나리이다. 그러므로 그를 장사하지 마소서." 9 또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왕후께선 이를 믿으시나이까?"

왕후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는 당신의 말씀과 우리 종들의 말 외에는 아무 증거가
없으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나이다."

10 또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큰 신앙으로 말미암아 당신께 복이 있나이
다. 내가 당신께 이르노니, 여자여, 온 니파이 백성 가운데서도 그처럼 큰 신앙이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 왕후, 암몬$_2$과 다른 종들도 영에 압도되어 쓰러지다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후가 그 시로부터 그가 일어나리라고 암몬이 지정한 다음 날 그 시간까지, 그 남편의 침상을 지켰더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의 말대로, 그가 일어나니라. 그가 일어나자, 여자에게 그 손을 내밀고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으며 그대에게도 복이 있도다. 13 이는 그대가 사는 것같이 분명히, 보라, 내가 나의 구속주를 보았음이요, 그가 나아오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인류를 구속하실 것임이로다." 이제 이 말을 하고는, 그 마음이 그의 속에서 부풀어, 기쁨으로 다시 쓰러지니, 왕후 또한 영에 압도되어 쓰러지니라.

14 이제 암몬은 그 죄와 그 전통으로 말미암아, 니파이인들 가운데, 곧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가운데 그토록 많은 애통의 원인이었던 그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그의 기도대로 주의 영이 부어짐을 보고, 무릎을 꿇고, 그의 형제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내어 기도와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더니, 그도 역시 기쁨으로 압도되매, 이리하여 그들 셋 모두가 땅에 쓰러지니라.

15 이제 그들이 쓰러진 것을 왕의 종들이 보았을 때, 이들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주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도 임하였음이라. 이는 왕 앞에 서서 왕에게 암몬의 큰 능력에 대하여 증거하던 자들이 이들이었음이더라. ㄱ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들이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이윽고 레이맨인 여자 중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땅에 쓰러지니, 그 여자의 이름은 에이비시더라. 그는 그 부친의 놀라운 시현으로 인하여, 주께로 돌이킨지 여러 해가 되었더라—

에이비시가 백성들을 부르다

17 그리하여 주께로 돌이켰으나 결코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므로 라모나이의 종들이 모두 땅에 쓰러지고, 또한 그의 여주인 왕후와 왕과 암몬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그가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줄 알고 생각하기를, 이 기회가 그들 중에 일어난 일을 백성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그리하여 이 광경을 바라봄으로써, 그들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할 것이라 하였으므로 그가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이를 백성들에게 알렸더라.

18 이에 그들이 왕의 집으로 함께 모이기 시작하더니, 큰 무리가 이르러 놀랍게도 왕과 왕후와 그들의 종들이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으니 그들이 다 죽은 듯이 거기 누워 있었으며, 그들이 또한 암몬을 보았으니, 보라 그는 니파이인이더라.

19 이에 이제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수군거리기 시작하여, 어떤 이들은 말하되 이는 왕이 니파이인을 이 땅에 머물도록 용납한 까닭에, 그들에게 곧 왕과 그의 집에 임한 큰 재앙이라 하였더라. 20 그러나 다른 이들이 그들을 꾸짖어 이르되, "왕이 시부스 물에서 양 떼를 흩음 당한 그의 종들을 죽인 까닭에, 이 재앙을 자기 집에 초래하였다" 하더라. ㄴ 21 그러나 그들 역시 시부스 물에 서서 왕에게 속한 양 떼를 흩은 그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았으니, 이는 시부스 물에서 왕의 양 떼를 지키는 동안, 암몬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죽인 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암몬에게 노하여 있었음이라. ㄷ

22 이제 그들 중 하나로, 자기 형제가 암몬의 칼로 죽임을 당하였던 자가 암몬에게 심히 노하여, 자기 칼을 뽑아 들고 나아가 그것으로 암몬 위에 떨어지게 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더니, 저가 암몬을 치려고 칼을 치켜들자, 보라 저가 쓰러져 죽더라. 23 이제 우리는 암몬이 죽임을 당할 수 없음을 아나니, 이는 주께서 그의 부친 모사이야에게 이

ㄱ 15 앨마서 18:1~3 ㄴ 20 앨마서 17:28 ㄷ 21 앨마서 17:36~38

르시기를, “내가 그를 보전하리니, 너의 신앙대로 그에게 이루어지리라”ㄱ 하셨음이라—그러므로 모사이야가 그를 주께 맡겼더라. 2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무리가 암몬을 죽이려고 칼을 치켜 든 자가 쓰러져 죽는 것을 보았을 때, 두려움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여, 그들이 감히 손을 내밀어 암몬이나 쓰러진 자들 중 아무라도 만지려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다시 이 큰 능력의 원인이 무엇일지, 또는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일지 그들끼리 기이히 여기기 시작하니라.

25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중 많은 자들이 말하기를 암몬은 위대한 영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말하기를 그는 위대한 영의 보냄을 받은 자라 하였으나, 26다른 이들은 그들 모두를 꾸짖으며, 그는 니파이인들에게서 그들을 괴롭히도록 보냄을 받은 괴물이라 하더라. 27또 어떤 이들은 암몬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주도록 위대한 영의 보냄을 받은 자라하고, 또 니파이인들과 항상 함께 있어, 언제나 그들을 자기들의 손에서 건져 낸 것은 위대한 영이었다 하였으며, 또 그들은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을 그처럼 많이 멸한 것은 이 위대한 영이었다 하더라.

압도되어 쓰러진 사람들이 의식을 되찾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믿다

28이리하여 그들 중에서 논쟁이 심히 격렬해졌더니, 그들이 이같이 쟁론하고 있을 때, 무리를 함께 모이게 한 여자 종이 와서 무리 가운데 있는 논쟁을 보고, 심히 슬퍼하여 눈물을 흘리더라. 2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가서 혹 왕후를 땅에서 일으키고자 왕후의 손을 잡으매, 저의 손이 왕후의 손에 닿자마자, 왕후가 일어나 두 발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 “오 무서운 지옥에서 나를 구해 주신 복되신 예수여,
> 복되신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30이 말을 하고는, 두 손을 마주 잡고, 기쁨이 충만하여 많은 말을 하였으나, 그 말을 깨닫는 자가 없더라.

또 저가 이렇게 하고 나서 라모나이 왕의 손을 잡으매, 보라 그가 일어나 두 발로 서더라. 31즉시로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있는 논쟁을 보고는, 나아가 그들을 꾸짖으며, 암몬의 입에서 들은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매, 그의 말을 들은 자는 모두 믿고, 주께로 돌이켰더라. 32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자가 많이 있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 길을 갔더라.

33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일어나매 그도 역시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었고, 라모나이의 모든 종들도 역시 그리하여, 그들이 모두 백성들에게 동일한 것을 선포하였나니—곧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으며,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함이라. 34또 보라, 많은 자들이 천사들을 보았고 그들과 대화하였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나니, 이리하여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과 그의 의에 대하여 말하였느니라. 3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말을 믿는 자가 많이 있어, 믿는 자들은 모두 침례를 받았으며, 그들은 의로운 백성이 되어, 그들 가운데 교회를 세웠더라.

36이같이 주의 일이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시작되었고, 그리하여 주께서는 그의 영을 이들 위에 부어 주기 시작하셨나니, 회개하고 그의 이름을 믿고자 하는 모든 백성에게 그의 팔이 펼쳐짐을 우리가 알게 되느니라.

ㄱ23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나 모사이야서 28:7 참조

암몬$_2$과 라모나이 왕이 믿도나이 땅으로 가다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난 뒤, 라모나이 왕이 암몬이 자기와 함께 니파이 땅으로 가기를 원하니, 이는 그를 자기 부친에게 보이고자 함이라. [2]이에 주의 음성이 암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니파이 땅으로 올라가지 말지니, 보라, 왕이 네 생명을 노릴 것임이니라. 오히려 너는 믿도나이 땅으로 갈지니, 이는 보라, 거기에 네 형제 아론과 또한 뮬로카이와 앰마가 옥에 갇혀 있음이니라."

[3]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이를 듣고, 라모나이에게 이르되, "보소서, 내 형제와 동역자들이 믿도나이에서 옥에 갇혀 있어, 내가 가서 그들을 구하고자 하나이다."

[4]이제 라모나이가 암몬에게 이르되, "주의 능력 안에서 당신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보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 믿도나이 땅으로 가리니, 앤티옴노라 이름하는 믿도나이 땅의 왕은 내게 친구가 됨이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믿도나이 땅으로 가서, 그 땅의 왕을 잘 달래면, 그가 당신의 형제들을 옥에서 내보내리이다." 이제 라모나이가 이르되, "당신의 형제들이 옥에 갇혀 있다고 누가 당신께 고하더이까?"

[5]이에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에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네 형제들을 구하라,그들이 믿도나이 땅에서 옥에 갇혀 있음이니라' 하셨나이다."

[6]이제 라모나이가 이를 듣고는 그 종들로 하여금 자기의 말들과 자기의 병거들을 준비하게 하더라. [7]그리고 암몬에게 이르되, "오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 믿도나이 땅으로 내려가, 거기서 그 왕에게 간청하여 그로 당신의 형제들을 옥에서 내보내게 하겠나이다" 하더라.

암몬$_2$과 라모나이가 온 땅의 왕이 된 라모나이의 아버지를 만나다

[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과 라모나이가 그리로 여행하다가, 그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인 라모나이의 부친을 만나더라. [9]이에 보라 라모나이의 부친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내가 내 아들들과 내 백성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저 큰 날에 잔치에 오지 아니하였느냐?" [10]또 이르되, "너는 거짓말쟁이의 자손 중 하나인 이 니파이인과 함께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냐?"

[1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라모나이가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인지 그에게 자세히 이르니, 이는 그를 노엽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12]저가 또한 자기 나라에 머물러 그 부친이 예비한 잔치에 그에게로 가지 아니한 까닭을 그에게 다 고하였더라.

[13]이제 라모나이가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자세히 이르고 나매, 보라, 그가 놀랍게도 그의 부친은 그에게 노하며 이르되, "라모나이야, 네가 이 니파이인들을 구하려고 가고 있으니, 이들은 거짓말쟁이의 자식들이라. 보라, 그는 우리 조상들을 약탈하였고, 이제 그의 자손들 역시 우리 가운데 와서, 그들의 간교함과 그들의 거짓말로 우리를 속여, 우리에게서 우리의 소유를 약탈하려 하느니라" 하더라.[ㄱ] [14]이제 라모나이의 부친이 그에게 암몬을 칼로 죽일 것을 명하고, 또한 그에게 믿도나이 땅으로 가지 말고 자기와 함께 이스마엘 땅으로 갈 것을 명하였더라.

[15]그러나 라모나이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암몬을 죽이지 아니하겠고, 이스마엘 땅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하겠사오며, 도리어 암몬의 형제들을 방면하러 믿도나이 땅으로

[ㄱ]13 모사이야서 10:12~17 비교

가오니, 이는 그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인 줄을 내가 앎이니이다" 하니라.

16 이제 그의 부친이 이 말을 듣고, 그에게 노하여, 그를 쳐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자 칼을 빼었더라. 17 그러나 암몬이 나서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 아들을 죽이지 마소서. 그러나 당신보다 그가 쓰러지는 것이 나으리니, 이는 보소서, 그는 이미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음이라. 그러나 이때 만일 당신이 노한 가운데 쓰러지면,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리이다. 18 그리고 또 당신이 참아야 마땅함은, 당신이 만일 당신 아들을 죽인다면, 그가 무죄한 사람인지라, 그의 피가 땅에서부터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당신에게 보복이 임할 것임이니, 아마도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잃게 될 것임이니이다."

19 이제 암몬이 그에게 이 말을 하자, 그가 암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내 아들을 죽인다면, 내가 무죄한 피를 흘릴 줄 아노니, 이는 그를 멸망시키고자 꾀한 것이 너임이로다" 하였더라. 20 그리고 그 손을 뻗어 암몬을 죽이려 하였으나, 암몬이 그의 공격을 막더니, 또한 그의 팔을 쳐 쓰지 못하게 하였더라.

21 이제 왕이 암몬이 자기를 죽일 수 있음을 보고, 암몬에게 자기 목숨을 살려 줄 것을 간청하기 시작하였더라. 22 암몬이 그의 칼을 치켜들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이 내 형제들을 옥에서 나가게 해 주지 아니할진대 당신을 치겠나이다" 하더라.

23 이제 왕이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이르되, "나를 살려 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더라.

24 이제 암몬이 늙은 왕을 자기 뜻대로 움직였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내 형제들을 옥에서 나가도록 허락해 주고, 또한 라모나이로 그의 왕국을 그대로 가지게 하며, 그를 노여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그 자신의 원대로 할 것을 허락한다면, 그러면 당신을 살려 주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을 쳐 땅에 엎드러뜨리리다."

25 이제 암몬이 이 말을 하고 나자, 왕이 자기 목숨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시작하더라. 26 또 암몬에게 자기를 멸할 뜻이 없음을 보고, 또한 그가 자기 아들 라모나이에 대하여 가진 큰 사랑을 보고, 심히 놀라 이르되, "내가 그대의 형제들을 놓아 주고, 나의 아들 라모나이로 하여금 그의 왕국을 그대로 가지게 용납하는 이것이, 그대가 원한 모든 것인즉, 보라, 내가 그대에게 허락하여 내 아들이 이때로부터 영원히 그의 왕국을 그대로 가지게 하겠고, 내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아니할 것이며— 27 내가 또한 그대의 형제들이 옥에서 나감과 그대와 그대의 형제들이 내 나라에 나를 찾아옴을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이는 내가 그대 보기를 몹시 원할 것임이로라"[ㄱ] 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가 한 말과 또한 자기 아들 라모나이가 한 말에 크게 놀랐으므로, 그 말한 것을 배우기 원하였음이더라.

[ㄱ] 27 실제로 왕을 찾아오는 사람은 아론$_2$이 됨; 앨마서 22:1 참조

암몬$_2$과 라모나이가 암몬$_2$의 형제들을 구하다

[2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과 라모나이가 믿도나이 땅을 향하여 그들의 여행을 계속하였고, 라모나이가 그 땅 왕의 눈에 은혜를 입었으므로, 암몬의 형제들이 옥에서 나오게 되니라. [29]또 암몬은 그들을 만났을 때 심히 슬펐으니, 이는 보라 그들이 벌거벗었고, 단단한 줄로 결박됨으로 인하여 그들의 피부가 심히 상했음이라. 또한 그들은 굶주림, 갈증, 그리고 온갖 고난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고통 중에 인내하였더라.

[30]또 일이 된 바로는, 그들의 경우 더 완악하고 더 목이 뻣뻣한 백성의 손에 빠졌었나니, 그러므로 저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여, 그들을 쫓아 내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곳에서 저 곳으로 몰아내매, 이윽고 그들이 믿도나이 땅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그들이 잡혀 옥에 던지워, 단단한 줄에 결박되어서, 여러 날 옥에 갇혀 있다가, 라모나이와 암몬에게 구출되었더라.[ㄱ]

예루살렘$_2$과 믿도나이 땅에서 전도하는 아론

앨마서 21:1~17—(앨마서 17~27 회상 장면 속의 또 하나의 회상)

아론과 뮬로카이[ㄴ] 와 그들의 형제들이 레이맨인에게 전도한 기사.

아론$_2$이 예루살렘$_2$ 성에서 전도하다

21 이제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레이맨인들의 땅 경계에서 서로 헤어졌을 때,[ㄷ] 보라 아론은 레이맨인들이 그들 조상들의 출생지를 따라 예루살렘이라 칭하는 땅을 향하여 여행하였으니, 그 곳은 멀리 몰몬의 경계에 접한 곳이더라. [2]이제 레이맨인들과 아맬레카이인들과 앰율론[ㄹ] 백성은 예루살렘이라 칭하는, 큰 성을 건축했었더라. [3]이제 레이맨인들 스스로도 족히 완악하였으나, 아맬레카이인들과 앰율론인들은 더욱 완악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레이맨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로 간악함과 그 가증함 중에 점점 더 굳어지게 하였더라. [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론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먼저 아맬레카이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되,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아맬레카이인과 앰율론인 중에서 니허인들의 반차를 좇은 자가 많아, 그들이 니허인들의 반차를 따라 회당들을 지었음이라.[ㅁ]

[5]그리하여 아론이 백성에게 전도하려고 그들의 한 회당에 들어가, 그들에게 말할 때, 보라 아맬레카이인 하나가 일어나 그와 다투기 시작하여 이르되, "네가 증거한 바가 무엇이냐? 네가 천사를 보았느냐? 어찌하여 천사들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느냐? 보라 이 백성이 너의 백성만큼 선하지 아니하냐? [6]네가 또 말하기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고 하도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네가 어찌 아느냐?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줄을 네가 어찌 아느냐?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아닌 줄을 네가 어찌 아느냐? 보라, 우리는 성소들을 지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줄 믿노라" 하니라.

[7]이제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그 죄에서 구속하시려 오실 것을 믿느냐?

[ㄱ]30 암몬$_2$의 이야기는 앨마서 21:18에서 다시 시작됨 [ㄴ]1 뮬로키는 아래 11절에서만 언급되고 있으나 앨마서 20:2도 참조 [ㄷ]1 앨마서 17:13, 17, 18 [ㄹ]2 앰율론 백성들은 노아$_3$의 제사들의 자손들임; 모사이야서 20:1~5; 23:30~24:12 참조 [ㅁ]4 앨마서 1:2~6; 2:1 참조; 앨마서 14:16; 15:15 비교

8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네가 그러한 것을 도무지 알고 있다고 믿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이 어리석은 전통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네가 장차 이를 일들에 대하여 안다고 믿지 아니하며, 너의 조상들과 또한 우리의 조상들이 그 장차 이를 일에 대해 말한 바에 관하여 알았다고도 믿지 아니하노라" 하더라.
9이제 아론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서와, 또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 및 그의 피의 속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인류를 위한 구속이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경전을 펼쳐주기 시작하였더라.
1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매 그들이 그에게 노하여, 그를 조롱하기 시작하고, 그가 하는 말을 듣고자 아니하더라. 11그러므로 아론은 그들이 자기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회당에서 떠나, 애니-앤타이라 하는 마을로 건너와서,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뮬로카이와, 또한 앰마와 그의 형제들을 발견하였고, 이에 그들이 말씀에 대하여 많은 이들과 더불어 쟁론하였더라.

아론$_2$과 그의 형제들이 옥에 갇혔다가 구출되다

12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 함을 그들이 보았으므로, 그들이 떠나 믿도나이 땅으로 넘어와서, 많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였으나, 그들이 가르치는 말을 믿는 자가 거의 없더라. 13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그의 형제 중 몇몇은 잡혀 옥에 던져졌고, 나머지는 믿도나이 땅에서 나와 주변 지역으로 피했더라. 14그리고 옥에 던져진 자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더니, 그들이 라모나이와 암몬의 손에 구출되매, 사람들이 그들을 먹이고 입혔더라.[ㄱ]
15이에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러 다시 나아갔나니, 이같이 그들이 처음으로 옥에서 구출되었고, 이같이 그들이 고난을 겪었더라. 16또 그들은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어디든지 나아가며, 그들이 들어 갈 수 있는 아맬레카이인들의 모든 회당에서, 또는 레이맨인들의 모든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더라. 1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기 시작하시매, 그들이 많은 자들을 진리의 지식에로 인도하였나니, 참으로 많은 자들에게 그들의 죄와, 올바르지 아니한 그들 조상들의 전통을 깨닫게 하였더라.[ㄴ]

암몬$_2$과 라모나이가 이스마엘 땅으로 돌아가다[ㄷ]

18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과 라모나이가 믿도나이 땅에서 그들의 기업의 땅인 이스마엘 땅으로 돌아왔더라. 19이에 라모나이 왕은 암몬이 자기에게 수종들거나, 자기의 종 됨을 용납하고자 아니하였고, 20이스마엘 땅에 회당들을 짓게 하고, 자기 백성, 곧 자기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모이게 하였더라. 21또 그가 그들을 기뻐하여,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은 그의 아래에 있는 백성이요, 또 자유로운 백성이라, 그의 부왕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며, 이는 그의 부친이 그에게 이스마엘 땅과 주변의 모든 땅에 있는 백성을 다스릴 것을 허락하였음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더라.[ㄹ] 22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라모나이 왕의 통치하에 있는 땅이면,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원대로 자유로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여도 좋음을 선포하였더라.

ㄱ 14 앨마서 20:28~30 ㄴ 17 아론$_2$의 전파에 대한 이야기는 앨마서 22:1에서 다시 시작됨 ㄷ 18 이 이야기는 앨마서 20:30에서부터 계속됨 ㄹ 21 앨마서 20:24~26

23또 암몬이 라모나이 왕의 백성에게 전도하였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의에 관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더라. 또 그가 부지런함을 다하여, 매일 그들을 권면하매, 그들이 그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더라.

아론$_2$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인 라모나이의 아버지를 니파이의 땅에서 가르치다

22 이제 암몬이 이같이 라모나이 백성들을 계속하여 가르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아론과 그의 형제들의 기사로 돌아가리니, 이는 저가 믿도나이 땅을 떠난 후 영에 이끌려 니파이 땅으로 가되, 곧 이스마엘 땅을 제외한 그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의 집으로 갔음이라. 그는 라모나이의 부친이더라.

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그 형제들과 더불어 왕의 궁궐에 들어가서, 그에게로 들어가 왕 앞에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왕이시여 보소서, 우리는 왕이 옥에서 구출해 주신 암몬의 형제들이니이다.

3또 이제 왕이시여, 만일 우리의 목숨을 살려 주실 것이오면, 우리가 왕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매,"ㄱ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너희의 생명은 너희에게 주려니와, 너희가 나의 종 됨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가르침을 베풀 것을 요구하리니, 이는 네 형제 암몬의 말의 관대함과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얼마간 곤혹하게 되었음이라. 나는 또 그가 어찌하여 너와 함께 믿도나이에서 올라오지 않았는지 그 까닭을 알기 원하노라."

4이에 아론이 왕에게 이르되, "보소서, 주의 영이 그를 다른 길로 부르셨으니, 그는 라모나이의 백성들을 가르치려 이스마엘 땅으로 갔나이다."

5이제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의 영에 관하여 말한 이것이 무엇이냐? 보라, 이것이 나를 곤혹하게 하는 것이니라. 6그리고 또한 암몬이 말한 바—'너희가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버림을 당하리라 한 이것은 무엇이냐?' "ㄴ

7아론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나이까?"ㄷ

왕이 이르되, "나는 아맬레카이인들이 하나님이 있다 하는 줄을 알며, 그들이 함께 모여 그를 경배할 성소들을 지을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였나니, 만일 지금 네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보라 내가 믿으리라."

8이에 이제 아론이 이를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기뻐하기 시작하였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왕이 사심같이 분명히, 왕이시여, 하나님이 계시나이다."

9이에 왕이 이르되,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낸 저 위대한 영이시냐?"

10이에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그가 그 위대한 영이시니,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나이다. 왕은 이를 믿으시나이까?"

11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하도다, 위대한 영이 만물을 창조하신 줄 내가 믿노니, 이 모든 일에 관하여 나에게 말해 주기를 바라노라. 그리하면 내가 네 말을 믿으리라."

1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론이 왕이 자기 말을 믿을 것임을 보고, 아담의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왕에게 경전을 읽어 주었으니, 곧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에게 계명을 주셨음과, 범법으로 인하여 사람이

ㄱ3 앨마서 17:25 비교; 아론$_2$과 그의 형제들이 앨마서 17~18에서 암몬$_2$이 했던 성공적인 선교 전략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임 ㄴ6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나 앨마서 20:17 참조 ㄷ7 앨마서 18:24 비교; 10절은 앨마서 18:28 반영함

타락하였음에 대한 것이라.ㄱ 13또 아론이 그에게 아담의 창조로부터 경전을 해설하며, 그의 앞에 사람의 타락과 그들의 속된 상태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이름을 믿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예비된, 구속의 계획을 설명하였느니라. 14또 사람은 이미 타락하였으므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하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신앙과 회개 등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속하며 그가 사망의 줄을 끊으시므로, 무덤이 승리를 얻지 못하리라는 것과 사망의 쏘는 것이 영광의 소망 중에 삼키운 바 될 것을 설명하였으니, 아론이 이 모든 것을 왕에게 해설하였더라.ㄴ

왕이 압도되어 쓰러진 후 일으켜지다

1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론이 그에게 이러한 것을 해설하자, 왕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야 그대가 말한 이 영생을 얻겠느냐? 참으로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에게서 나서, 내 가슴에서 이 간악한 영을 뿌리뽑고, 그의 영을 받아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마지막 날에 버림을 받지 않겠느냐?" 그가 이르되, "보라," "이 큰 기쁨을 받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겠노라. 참으로 나의 왕국이라도 버리겠노라" 하더라.

16그러나 아론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이것을 원하시오면, 왕이 하나님 앞에 절하실진대 참으로 왕이 왕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며 받을 줄로 믿으며 신앙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실진대, 왕이 원하시는 소망을 받게 되시리이다."

1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론이 이 말을 하고 나자, 왕이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절하니, 참으로 땅 위에 꿇어 엎드려,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18"하나님이시여, 아론이 나에게 일러 하나님이 계시다 하였사오니, 만일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시거든, 내게 당신을 알려 주시겠나이까? 당신을 알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며,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 하더니, 이제 왕이 이 말을 하고는, 갑자기 쓰러지니 마치 죽은 것 같더라.

1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종들이 달음질하여 왕에게 일어난 일을 왕후에게 다 고하매, 왕후가 들어와 왕에게 이르러, 그가 마치 죽은 것같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또한 아론과 그의 형제들이 마치 그들이 왕이 쓰러진 원인이었던 양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노하여, 자기의 종들, 곧 왕의 종들에게 명하여 그들을 잡아 죽이라 하니라. 20이제 종들은 왕이 쓰러진 까닭을 보았으므로, 감히 아론과 그의 형제들에게 그 손을 대려 하지 않고, 왕후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들 중 하나가 우리 모두보다 강하거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죽일 것을 명하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 앞에 거꾸러지리이다" 하더라. 21이제 왕후가 종들의 두려움을 보고 그 역시 자기에게 어떤 재앙이 미칠까 하여, 심히 두려워하기 시작하더니, 그 종들을 명하여 가서 백성들을 부르게 하고, 그들로 아론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하였더라.

22이제 아론이 왕후의 결심을 보고는, 또한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아는 고로, 큰 무리가 함께 모이고, 그들 중에 큰 다툼과 소동이 일어날까 염려하였더라. 그리하여 그 손을 내밀어 왕을 땅에서 일으키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서라" 하니, 그가 그 힘을 받으며 두 발로 서더라. 23이제 이 일이 왕후와 많은 종들이 있는데서 이루어지매, 그들이 이를 보고 크게 기이히 여기고,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더니, 왕이 나서서,

ㄱ12 창세기 1:26~3:24 참조; 앨마서 18:36 비교 ㄴ14 여기 나오는 아론$_2$의 설교는 아빈아다이의 이전의 가르침을 반영함; 모사이야서 16:7~8 참조; 고린도전서 15:54~55 비교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니라. 또 그가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매, 이윽고 그의 온 권속이 주께로 돌이켰더라.

[24]이제 왕후의 명령으로 인하여 많은 무리가 함께 모였더니, 아론과 그의 형제들로 인하여 그들 가운데 큰 불평이 생겼더라. [25]왕이 그들 가운데 나서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풀매, 그들이 아론과 그와 함께 한 자들을 향하여 누그러졌더라. [2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백성들이 누그러진 것을 보고, 아론과 그의 형제들로 하여금 무리 가운데 나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니라.

약속의 땅의 지형과 지리 (몰몬의 여담)[ㄱ]

[27]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그 온 땅에 두루 포고를 보내되,[ㄴ] 그의 온 땅에 있는 자기의 모든 백성 및 그 주변 모든 지역에 있는 백성 가운데 포고를 보내었으니, 그 땅은 동과 서로는 경계가 바다에 닿았고, 제이라헤믈라 땅으로부터는 좁고 긴 광야 지대를 사이에 두고 나뉘었으며, 이 지대는 다시 동편 바다에서 서편 바다까지 뻗었고, 바닷가의 변경을 둘러, 제이라헤믈라 땅에 인접하여 북편에 있는 광야의 변경 가까이로 뻗었으며, 맨타이의 경계를 지나, 시돈 강의 발원지 가까이로 뻗어,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여 뻗어 있었나니—이같이 레이맨인들과 니파이인들이 나뉘었더라.

[28]이제 레이맨인들 중 더욱 게으른 무리들은 광야에서 살며 장막에 거하였나니, 그들은 서편 광야 니파이 땅과 또한 제이라헤믈라 땅의 서편 곧 해안에 가까운 변경과 서편 니파이 땅 곧 그 조상들의 첫 번 기업의 땅에 두루 퍼졌고, 그리하여 해변을 따라 경계를 인접해 있었더라. [29]또한 동편 바닷가에도 레이맨인들이 많이 있었으니, 니파이인들이 그들을 이리로 몰아 내었었더라.

그리하여 니파이인들은 레이맨인들에게 거의 둘러싸여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파이인들은 시돈 강의 발원지에서, 광야와 접하고 있는 그 땅의 북편 지역을 모두 차지하였나니, 곧 동에서 서까지 광야 쪽을 둘러, 북으로는 그들이 풍요라 일컫는 땅에까지 이르렀더라. [30]또 이는 그들이 황무라 일컫는 땅과 경계를 접하였고, 이는 다시 아주 먼 북방에 있어 사람들이 살았다가 멸망당한 땅에 이르나니, 그 뼈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이는 제이라헤믈라 백성이 발견한 땅으로서 그들이 처음 상륙한 곳이니라.[ㄷ] [31]또 그들이 거기서 남쪽 광야로 올라왔더라. 이리하여 북방 땅은 황무라 하였고, 또 남방 땅은 풍요라 하였으니, 이 곳은 각종 온갖 들짐승이 가득한 광야라, 그것들 중 일부는 먹이를 찾아 북방 땅에서 왔었더라.

[32]또 이제 풍요와 황무 땅 경계선 위에서, 동에서 서해까지는, 니파이인에게 하루 반 여행할 거리 밖에 되지 않았나니, 그러므로 니파이 땅과 제이라헤믈라 땅은 물에 거의 둘러싸여 있었으며, 북방 땅과 남방 땅 사이에는 작은 지협이 있었느니라. [33]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은 풍요 땅에 거하였나니, 곧 동에서 서해까지라, 이같이 니파이인들은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수비대와 그들의 군대로써, 남쪽에 있는 레이맨인들을 에워싸,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북쪽을 더 이상 차지하지 못하게 하여, 그들로 북방 땅에 넘치지 못하게 하였더라. [34]그러므로 레이맨인들은 니파이 땅과 그 둘러있는 광야 외에는 더 이상 차지할 수 없었으니, 이제 이는 니파이인의 지혜라—레이맨인들이 그들의 적이었으므로, 그들이 사방에서 괴롭게 함을 용납하지 않고자 함이요, 또한 원

[ㄱ]27 이 몰몬의 여담은 모사이야$_2$의 아들들의 선교여행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데 앨마$_2$의 설교여행 이야기에 포함된 니파이인들의 통화체계에 대한 여담과 비슷한 모양을 지님; 앨마서 11:1~20 참조 [ㄴ]27 이 포고의 내용은 앨마서 23:1~3에 나옴 [ㄷ]30 옴나이서 1:22; 모사이야서 8:8; 21:26

할 때에는 도망할 지역을 갖고자 함이더라. 35이제 나는 이를 이야기하였으니, 암몬과 아론, 옴너와 힘나이 및 그들의 형제들의 기사로 다시 돌아가노라.

모사이야$_2$의 아들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왕의 선포

23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의 왕이 그의 온 백성 가운데 포고를 보내어, 그들로 그들의 땅 어느 지역에서든지 암몬이나, 아론이나, 옴너나, 힘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나아갈 그들의 형제 중 아무에게도, 그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였더라. 2참으로 그가 그들 가운데 칙령을 보내어, 이들에게 손을 대어 결박하거나, 옥에 던져 넣지 못하게 하고, 또 이들에게 침을 뱉거나, 때리거나, 그들의 회당에서 쫓아 내거나,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 또 이들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게 하고, 이들로 그들의 집과ㄱ 또한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성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게 하였더라.

3그리하여 저들로 나아가 저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왕과 그의 모든 권속이 주께로 돌이켰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그 땅에 두루 자기 백성들에게 포고를 보냈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그 온 땅에 두루 나아가게 하여 그의 백성들로 그 조상들의 간악한 전통에 관하여 깨닫게 하고, 그들이 모두 형제임과 그들이 살인하거나 약탈하거나 도적질하거나 간음을 범하거나 여하한 간악함도 범해서는 아니됨을 깨닫게 하려 함이었더라.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의 기원

4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이 포고를 내보낸 후, 아론과 그의 형제들은 성읍에서 성읍으로, 또 한 예배당에서 다른 예배당으로 나아가며, 그 온 땅에 레이맨인들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제사들과 교사들을 성별하여,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가르치게 하였고, 이리하여 저희가 큰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였더라. 5또 수천이 주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었나니, 참으로 수천이 니파이인들의 전통을 믿게 되매, 그들이 현재까지 전달되어 내려온 기록과 예언들을 가르침 받으니라.

6또한 주께서 사심같이 분명히, 그처럼 명백히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계시와 예언의 영을 좇아, 또 그들로 말미암아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을 좇아, 가르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믿게 된 모든 자들, 곧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모든 자들은—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께서 사심같이 그들의 가르침을 믿고, 주께로 돌이킨 레이맨인들은 모두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더라. 7이는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었음이니, 그들은 그들의 반역의 무기를 내려놓고, 더 이상 하나님을 거스려서나, 그들의 형제 중 아무를 대적하여서도 싸우지 아니하였더라.

8이제 이들은 돌이켜 주께로 돌아온 자들이니,

9 이스마엘 땅에 있던 레이맨인 백성과,ㄴ
10 또한 믿도나이 땅에 있던 레이맨인 백성 중 일부와,ㄷ
11 또한 니파이 성에 있던 레이맨인 백성 중 일부와,ㄹ
12 또한 샤일롬 땅에와ㅁ 셈론 땅에와ㅂ

ㄱ2 여기의 "집"은 "예배당"으로 추정; 아래 4절과 니파이후서 26:26 참조 ㄴ9 앨마서 17:19~21; 20:14~15; 21:18~21; 22:4 ㄷ10 앨마서 20:2~5, 28; 21:13; 22:1 ㄹ11 모사이야서 9:15; 20:3; 21:1, 12 참조; 앨마서 47:20 비교 ㅁ12 모사이야서 7:5; 9:6; 10:8; 11:12; 24:1 ㅂ12 모사이야서 10:7; 11:12; 19:6; 24:1

레뮤엘 성과
심나일롬 성에 있던 레이맨 백성 중 일부라.

13이들은 주께로 돌이킨 레이맨 성읍들의 이름이요, 이들은 그들의 반역의 무기 참으로 그들의 모든 전쟁 무기를 내려놓은 자들이니, 그들은 다 레이맨인이더라. 14또 아맬레카이인들은 다만 한 명을 제외하고는 돌이키지 않았으며, 앰율론인들도 아무도 돌이키지 않았고, 도리어 이들은 자기 마음과 또한 어디든지 그 거하는 지역뿐 아니라, 그 모든 고을과 그 모든 성읍에 있는 레이맨인들의 마음까지 완악하게 하였더라. 15그러므로 회개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돌이킨 레이맨인들의 성읍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 말하였느니라.

16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과 돌이킨 자들이 이름을 갖기 원하였으니, 그리함으로써 그들의 형제와 구별되고자 함이라. 그리하여 왕이 아론과 그들의 여러 제사들과 더불어, 그들이 구별될 수 있도록 짊어질 이름에 대하여 의논하였더라. 1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스스로의 이름을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이라 하매, 그들은 이 이름으로 일컫고 더 이상 레이맨인이라 일컫지 아니하였더라. 18또 그들은 매우 근면한 백성이 되었고, 또한 니파이인들과도 우호적이었으므로, 그들과 교제를 열었나니, 하나님의 저주가 더 이상 그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이 평화주의를 택하다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레카이인들과 앰율론인들 및 레이맨인들 중 앰율론 땅에 와,ㄱ 또한 힐램 땅에 있는 자들,ㄴ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와,ㄷ 요컨대 주변 모든 땅에 있는 자로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의 이름을 취하지 않았던 레이맨인들이, 아맬레카이인들과 앰율론인들에게 선동되어 그들의 형제들에게 대하여 노하게 되었더라. 2또 그들의 증오심이 저들에게 대하여 심히 강렬해져서, 이윽고 그들이 자기들의 왕을 거스려 모반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가 자기들의 왕 됨을 원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을 대적하여 무기를 드니라.

3이제 왕은 그 아들에게 나라를 넘겨주고, 그의 이름을 앤타이-니파이-리하이라 하였더라. 4그리고 왕은 레이맨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한 바로 그 해에 죽었더라.

5이제 암몬과 그의 형제들 및 그와 함께 올라 온 모든 자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멸하려 하는 레이맨인들의 준비를 보고, 미디안 땅으로 나아왔더니, 거기서 암몬이 그의 모든 형제를 만나고, 그 곳으로부터 그들이 이스마엘 땅으로 왔으니, 이는 그들이 레이맨인들에 대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라모나이와 또한 그의 형제 앤타이-니파이-리하이와 더불어 회의를 갖고자 함이었더라. 6이제 돌이켜 주께로 돌아온 모든 백성 가운데 그들의 형제를 대적하여 무기를 들려하는 자는 한 명도 없었나니, 참으로 그들은 전쟁을 위한 여하한 준비조차 하려 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들의 왕도 그들에게 하지 말도록 명하였더라.

ㄱ1 모사이야서 23:31; 24:1 ㄴ1 모사이야서 23:19~39; 27:16 ㄷ1 앨마서 21:1~2, 4

앤타이-니파이-리하이 왕의 연설

7 이제 이는 그가 이 문제에 관하여 백성들에게 한 말이니라.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선하심 중에 우리의 이 형제, 니파이인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간악한 우리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셨음을,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8 또 보라, 그가 그의 영의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매, 우리가 이 형제들 곧 니파이인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음을 내가 나의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9 또 보라 이 교제를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가 범한 많은 살인을 깨닫게 되었음을 내가 또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0 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셨음과, 또한 우리가 범한 많은 죄와 살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의 아들의 공덕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서 죄업을 제하여 주셨음을, 내가 내 하나님, 참으로 나의 크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노라.

11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우리가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잃은 바 된 자들이었으므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범한 많은 살인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제하시게 하는 것이 전부였은즉, 또 이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하여 그로 우리의 오점을 제하시게 하는 것이 전부였음인즉 — 12 이제 나의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오점을 제하셨고 우리의 검이 빛나게 되었은즉, 우리가 다시는 우리 형제들의 피로 우리의 검을 더럽히지 말자. 13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하지 말자, 우리의 검을 간직하여 그것이 우리 형제들의 피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자. 이는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우리의 검을 더럽힌다면, 우리 죄의 속죄를 위하여 흘리실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도 이 검들이 다시는 씻기워 빛나게 될 수 없음이니라.

14 "또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뿐 아니라 그가 우리의 자손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까닭에, 이러한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니, 그러므로 그는 구원의 계획을 장래 세대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알리시려고, 그의 자비하심 가운데 그의 천사들로 우리를 방문하시는도다. 15 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냐!

"또 이제 보라, 우리의 오점을 우리에게서 제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고 우리의 검은 빛나게 되었은즉, 이를 감추어 버리고 빛나는 채로 간직되게 하여, 마지막 날에 곧 우리가 그의 앞에 서서 심판받게 될 날에,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이후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피에 우리의 검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증거로 삼자. 16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멸하려 할지라도, 보라, 우리는 우리의 검을 감추어 버리리니, 참으로 우리는 이를 땅속 깊이 묻고, 빛나는 채 간직되게 하여,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게 하리라, 또 만일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멸하면, 보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로 가서 구원받게 되리라."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이 그들의 무기들을 묻다

17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이 말을 마치매,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칼과 사람의 피를 흘리는 데 쓰이는 모든 무기를 취하고, 이를 땅 속 깊이 묻어버렸더
라. 18 이에 이렇게 그들이 한 것은, 그것이 그들 소견에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결코 다시는 사람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증거가
되었음이요, 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의 피를 흘리기보다는, 차라리
그들 스스로의 생명을 버리며, 형제에게서 빼앗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에게 주며, 게
으름 가운데 그들의 날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손으로 풍성히 일하겠다는 것을
보증하고, 하나님과 성약하였더라.

19 또 이러므로 우리는 이 레이맨인들이 믿고 진리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굳건
하였고, 죄를 범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까지라도 고난을 받고자 하였음을 알며, 또
이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들의 화평의 무기를 묻었음을, 곧 그들의
전쟁 무기를 묻었음을 아느니라.

저항없이 도륙된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을 보고 레이맨인들의 일부가 개종되다

20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이 전쟁을 예비하고, 왕을 멸하고,
그의 대신에 다른 자를 두며, 또한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을 그 땅에서 멸할 목적
으로, 니파이 땅으로 올라오니라. 21 또 이제 저들이 치러 옴을 백성이 보고는 저들을
맞으러 나가서, 저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나니, 그리하
여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여 칼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였을 때, 그들
은 이러한 태도로 있었더라. 22 또 그리하여 아무런 저항도 받음이 없이, 레이맨인들이
그들 중 천다섯을 죽였나니, 우리가 알거니와 그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들이 가서 그
들의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임이러라.

23 이제 레이맨인들은 그 형제들이 칼에서 도망하거나, 오른편으로나 왼편으로 돌
이키려 하지 아니하고, 누워서 죽으려 하며, 칼 아래 죽어가는 바로 그 도중에도 하나
님을 찬송함을 보고— 24 이제 레이맨인들이 이를 보고는 그들을 죽이기를 그만두었고,
그 형제 중 칼 아래 쓰러진 자들로 인하여 그 마음이 속에서 복받친 자가 많았으니,
이는 저들이 그 행한 일을 뉘우쳤음이라.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자기의 전쟁
무기를 던져 놓고, 이를 다시 잡으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범한 살인으로 인하여 찔
림을 받았음이라. 이에 저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팔을 치켜든 자들의 자비에 맡기고,
저들의 형제들같이 엎드렸더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날 죽임을 당한 수보다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합하였으며, 죽임을 당한 자들은 의로운 백성이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이 구원되었음
을 의심할 아무 이유가 없느니라. 27 또 그들 중 악한 자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 자가 천 명이 넘었으니, 이러므로 주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이 되도록 여러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아노라.

28 이제 자기 형제를 그처럼 많이 죽인 레이맨인의 대부분은 아맬레카이인과 앰율론
인이니, 이들 중 대부분은 니허인들의 반차를 따른 자들이었더라. 29 이제 주의 백성과
합한 자들 중에는 아맬레카이인이나 앰율론인이나, 니허의 반차를 따른 자는 하나도 없
었나니, 그들은 레이맨과 레뮤엘의 실제 후손들이더라. 30 또 이러므로 우리는 명백히
분별할 수 있나니, 백성이 한때 하나님의 영의 비췸을 받아, 의에 관한 것에 대하여

큰 지식을 얻고, 그러고 나서 떨어져 나가 죄와 범법에 빠진 후에는, 그들이 더욱 완악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상태가 이러한 것들을 결코 알지 못했던 것보다 더욱 나빠지느니라.

앰몬아이하가 멸망을 당하다[ㄱ]

25 또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 레이맨인들은 자기 형제들을 죽였음으로 인하여 더욱 노하였던지라, 니파이인들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하였고, 그때는 더 이상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을 죽이려 하지 않았더라. [2]그러나 그들은 그 군대를 취하여 제이라헤믈라 땅의 경계로 넘어 들어가서, 앰몬아이하 땅에 있는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을 멸하였더라.[ㄴ] [3]또 그러고 난 후에 그들이 니파이인들과 여러 번 싸웠으나, 이때는 쫓기고 죽임을 당하였더라.

앰율론과 노아$_3$의 다른 제사들의 자손들

[4]또 죽임을 당한 레이맨인들 중에는, 노아의 제사들이었던 앰율론과 그 형제들의 자손이 거의 다 있었나니,[ㄷ] 그들이 모두 니파이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더라. [5]또 남은 자들은 동편 광야로 도망해 들어가, 레이맨인들을 다스리는 권력과 권세를 찬탈하고, 많은 레이맨인들을 그 믿음으로 인하여 불에 타 죽게 하였나니— [6]이는 그들 중 많은 자들이 많은 손실과 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나자, 깨우침을 받으며 아론과 그의 형제들이 그들의 땅에서 그들에게 전파한 말을 기억하기 시작하였음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 조상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고, 주를 믿으며, 그가 니파이인들에게 큰 능력을 주셨음을 믿기 시작하였고, 이리하여 그들 중 광야에서 돌이킨 자들이 많았더라.

[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앰율론의 자손의 남은 자들인 그 통치자들이 그들, 곧 이러한 것을 믿는 모든 자를 죽이게 하더라. [8]이제 이 순교가 그들의 형제 중 많은 자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한지라, 광야에서 싸움이 생겨나, 레이맨인들이 앰율론과 그 형제들의 자손을 수색하기 시작하여 저들을 죽이기 시작하매, 저들이 동편 광야로 도망해 들어가니라. [9]또 보라 저들이 이 날에도[ㄹ] 레이맨인들에게 쫓기니라.

이같이 아빈아다이의 말, 곧 그가 자기를 불에 타 죽게 한 제사들의 자손에 대하여 한 말이 이루어지니라. [10]이는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게 행하는 일이 장차 임할 일의 예표가 되리라" 하였음이니,[ㅁ] [11]이제 아빈아다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으로 인하여 불에 타 죽음을 당한 첫 번째 사람이라. 이제 이것이 그가 뜻한 바니, 곧 많은 자들이 그가 당한 대로, 불에 타 죽음을 당하리라 함이라. [12]또 그가 노아의 제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자손이 많은 자들을 나와 같은 모양으로 죽게 하겠고, 또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이 들짐승들에게 쫓기고 죽임을 당하는 것같이, 널리 흩어지고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으니,[ㅂ] 이제 보라, 이 말이 입증되었도다. 이는 그들이 레이맨인들에게 쫓기며, 수색되며, 매를 맞았음이라.

[ㄱ]1 앰몬아이하의 죄에 대한 이야기는 앨마서 8:6~15:2에 나옴; 앨마서 16:1~11에 앰몬아이하의 멸망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나옴 [ㄴ]2 판사 치세 제11년 2월 5일 (–81년); 앨마서 16:1 참조 [ㄷ]4 그들의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23~24에 나옴 [ㄹ]9 이 날은 내용의 원작자인 앨마$_2$의 시대로 추정; 이것이 앰율론인들에 대해 나온 마지막 언급임 [ㅁ]10 모사이야서 13:10 [ㅂ]12 모사이야서 17:15~18

더 많은 레이맨인들의 개종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은 그들이 니파이인들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고,ㄱ 그들 가운데 많은 자가 이스마엘 땅과 니파이 땅에 거하려고 넘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곧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과 합하였더라. 14 또 그들도 역시 그 형제들이 한 것같이, 그들의 전쟁 무기를 묻었으며,ㄴ 의로운 백성이 되었나니, 그들이 주의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과 그의 법도를 힘써 지키더라.

15 또한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켰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아직은 이를 지킬 필요가 있었음이라.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였으니, 모세의 율법은 그의 오심의 예표라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가 그들에게 나타내신 바 될 때까지 저 외형적인 의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었음이라. 16 이제 그들은 구원이 모세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강하게 하는 일을 하였고, 그리하여 그들은 장래 일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영에 의지하여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신앙을 통하여 소망을 간직하였느니라.

암몬$_2$이 선교활동의 성공에 기뻐하다

17 또 이제 보라, 암몬과 아론과 옴너와 힘나이와 그들의 형제들은 주께서 자신들이 기도한 대로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셨으며, 또 그 하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들에게 입증하셨음을 보고, 자신들이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얻은 성공으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ㄷ

26 그리고 이제 이는 암몬이 그 형제들에게 한 말이니 이러하니라. "내 형제들, 그리고 내 동역자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기뻐할 일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이 이토록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짐작이라도 할 수 있었겠느냐? 2 또 이제 내가 묻노니, 무슨 큰 축복을 그가 우리에게 내려 주셨느냐? 너희는 말할 수 있느냐? 3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대답하노니,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이 암흑 속에, 참으로 캄캄한 암흑의 심연 가운데 있었으나, 보라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보게 되었느냐! 이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이니, 곧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이 큰 일을 이루게 된 것이라. 4 보라, 그들 수천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우리 안으로 인도되었느니라.

5 "보라, 밭은 무르익었고, 지금 너희는 복되나니, 이는 너희가 낫을 휘둘러, 너희 힘을 다하여 거두었음이라. 참으로 온종일 너희가 수고하였나니, 너희 곡식 단의 수를 볼지어다! 그것들이 곳간으로 모여져 버려지지 아니하리라. 6 참으로 그들은 마지막 날에 폭풍에 부딪쳐 쓰러지지 아니할 것이요, 참으로 회리바람에 써레질 당하지도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폭풍이 올 때 제 자리에 모여져, 폭풍이 그들에게까지 침투하지 못할 것이요, 어디든지 참으로 원수가 그들을 휩쓸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광풍에 밀려가지도 아니하리라. 7 또 보라, 그들은 추수하는 주인의 손 안에 있나니, 그들은 그의 것이라, 마지막 날에 그가 그들을 일으키시리로다.

8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의 찬송을 노래 부르자. 참으로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자, 이는 그가 영원토록 의를 행하심이라. 9 이는

ㄱ 13 이 레이맨인들의 이야기는 앨마서 27:1에서 다시 시작됨 ㄴ 14 앨마서 24:17 ㄷ 17 앨마서 17:11

만일 우리가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올라오지 않았었더라면, 우리의 이 간절히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를 그토록 간절히 사랑한 이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이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외인이었을 것임이니라."

암몬$_2$이 하나님을 자랑하다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이러한 말을 하자, 그의 형제 아론이 그를 꾸짖어 이르되, "암몬이여, 염려컨대 너의 기쁨이 정녕 너를 이끌어 자랑하기에 이르는도다" 하니라.

11 그러나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스스로의 힘이나,
내 스스로의 지혜를 자랑함이 아니라.
그러나 보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고,
참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으니,
내가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12 과연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노니,
내 능력으로는 내가 약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지 아니하겠고,
내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
참으로 보라, 많은 능한 기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였나니,
이로 인해 우리가 영원토록 그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3 "보라, 얼마나 많은 수천의 우리 형제를 그가 지옥의 고통에서 푸시었는고? 이에 그들은 구속하시는 사랑을 노래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 안에 있는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한 것이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큰 이유가 있지 아니하냐? 14 과연 우리에게는 그를 영원토록 찬양할 까닭이 있나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형제들을 지옥의 사슬에서 푸셨음이니라.

15 "참으로 그들은 영원한 암흑과 멸망에 에워싸여 있었으나, 보라, 그가 그들을 인도하사 그의 영원한 빛에, 참으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이제 그들이 비길 데 없이 풍성한 그의 사랑에 에워싸여 있으며, 또한 우리는 그의 손 안에서 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도구가 되었었도다.

16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워하자,
참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영광스러워하리라.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리니,
이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함이라.
참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

"보라, 누가 주 안에서 지나치게 영광스러워할 수 있느냐? 참으로 누가 그의 크신 권능과 그의 자비와 사람의 자녀들을 향한 그의 오래 참으심을 지나치게 말할 수 있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내가 느끼는 바의 지극히 적은 부분도 말할 수 없노라."

암몬$_2$이 그 선교사들의 개심과 그동안 한 일을 이야기하다

17 "우리 하나님이 그처럼 자비로우사 우리의 비참하고, 죄 많고, 더럽혀진 상태에서 우리를 빼내시리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느냐? 18 보라, 우리는 실로 노하여, 크게 위협하며 그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나아갔느니라. 19 오 그러하거늘, 어찌하여 그가 우리를 비참한 멸망에 붙이지 아니하셨느냐? 참으로 어찌하여 그가 그의 공의의 검으로 우리 위에 떨어지게 하사, 우리로 영원한 절망에 처하게 아니하셨느냐? 20 오 그 생각에, 내 영혼은 거의 떠날 듯 하도다. 보라, 그가 그의 공의를 우리에게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사망과 비참의 저 영원한 심연을 넘어 건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ㄱ

21 "그리고 이제 보라, 나의 형제들아,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을 아는 자가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뉘우치는 자 외에는 이러한 일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22 참으로 회개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선행을 이루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나니, 참으로 그러한 자에게는 이제까지 결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드러나게 해 주시리라. 참으로 그러한 자에게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 형제들을 회개로 인도하게 해 주신 것같이, 수천의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게 해 주시리라.

23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가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전도하려 니파이 땅으로 올라가노라 한즉,' 그들이 비웃고 조롱한 것을 기억하느냐? 24 이는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레이맨인들을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그들같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그 마음은 피 흘리기를 기뻐하며, 그 날들은 극히 가증한 죄악 중에 보내었으며, 그 길은 처음부터 범법자의 길이었던 레이맨인들에게 그들 조상의 전통이 그릇되었음을 확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였음이니, 이제 나의 형제들아, 그들의 말이 이러하였음을 너희는 기억하느니라. 25 더욱이 그들이 말하기를, '저들을 대적하여 무기를 들고 이 땅에서 저들과 저들의 죄악을 멸하자. 염려컨대 저들이 우리를 뒤덮어 우리를 멸할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ㄴ

26 "그러나 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을 멸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혹 그들의 영혼을 다소간 얼마라도 구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광야로 들어왔느니라. 27 이제 우리가 낙심하여, 바야흐로 되돌아가려 하였을 때, 보라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되, 너의 형제 레이맨인들 가운데로 가서, '네 고난을 인내로써 견디라. 그리하면 내가 성공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ㄷ

28 "이에 이제 보라, 우리는 그들 가운데 나아가 있었으며, 우리는 우리의 고난 중에 인내하여 왔으며, 모든 곤란을 당하였도다.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자비에 의지하여,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다녔나니—세상의 자비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한 것이니라. 29 또 우리는 그들의 집에 들어갔으며 그들을 가르쳤고, 우리는 그들의 거리에서 가르쳤으며, 그뿐 아니라 또 그들의 언덕 위에서도 가르쳤고, 또 그들의 성전과 또 회당에도 들어가 그들을 가르쳤나니, 이에 우리가 쫓겨나고, 조롱당하고, 침 뱉음 당하고, 뺨을 맞았으며, 또 우리가 돌로 맞고, 잡혀서 단단한 줄로 결박되어, 옥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구출되었느니라. 30 또 우리는 온갖 고난을 겪었나니, 이 모든 것은 혹시라도 몇몇 영혼을 구원하는 수단이 되고자 함이

ㄱ 20 이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모사이야서 27:8~37과 앨마서 36:6~24에 나옴 ㄴ 25 모사이야서 28:1~9 비교 ㄷ 27 앨마서 17:11

었으며, 우리는 혹 우리가 몇몇이라도 구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생각하였느니라.

31 "이제 보라, 우리는 앞을 보고 우리 수고의 열매를 볼 수 있나니, 그것들이 적으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것들이 많으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형제에게와 또한 우리에게 향한 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진실함을 증거할 수 있었음이니라. 32 이는 보라, 그들은 심지어 자기 원수의 생명을 빼앗기보다는 자기들의 목숨을 희생하며, 그들의 형제에 대한 그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전쟁 무기를 땅 속 깊이 묻어 버렸음이니라.ㄱ 33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온 땅에 이처럼 큰 사랑이 있었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니파이인들 중에서도 있지 아니하였음이라. 34 이는 보라, 저들은 저들의 형제를 대적하여 무기를 들려 하였고, 스스로가 죽임 당함을 용납하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자들이 자기 목숨을 버렸는가 보라, 이에 우리는 그들의 사랑과 죄에 대한 그들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께로 갔음을 아노라.

35 "이제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지 아니하냐? 그러하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우리만큼 기뻐할 큰 이유를 가졌던 사람들이 결코 없었느니라. 더욱이 내 기쁨이 넘쳐, 내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기에까지 이르렀나니, 이는 그에게 모든 권능, 모든 지혜와 모든 명철이 있음이요, 그는 모든 것을 깨달으심이며, 그는 회개하고 그의 이름을 믿을 자들에게 자비로우신 자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니라. 36 이제 이것이 자랑이라면, 곧 그와 같이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이것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빛이며, 나의 기쁨이요 나의 구원이며, 영원한 화로부터의 구속임이라.

이스라엘 나무의 한 가지요,
낯선 땅에서 그 몸으로부터 잃은 바 된
이 백성을 생각해
오신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도다.
참으로 내가 말하노니,
낯선 땅에서 나그네 된 우리를 생각해
오신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37 이제 나의 형제들아,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땅에 있든지, 모든 백성을 생각하심을 우리가 보나니, 참으로 그는 자기 백성을 헤아리시며, 그의 자비의 심정은 온 땅 위에 있도다. 이제 이는 나의 기쁨이요, 내 큰 감사이니, 또한 내가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리로다. 아멘."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이 니파이인들의 땅으로 도피하다

27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전쟁하러 갔던 그 레이맨인들이 니파이인들을 멸하고자 여러 번 노력하고 나서, 그들의 멸망을 꾀하는 것이 헛된 줄을 알고, 니파이 땅으로 다시 돌아갔더라.ㄴ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레카이인들이 그들의 손실로 인하여, 심히 분노하더니, 니파이인들에게서 복수를 꾀할 수 없음을 보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형제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에 대하여 노하도록 부추기기 시작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을 멸하기

ㄱ32 앨마서 24:17~22; 25:14 ㄴ1 이 이야기는 앨마서 25:13에서부터 계속됨

시작하니라. [3]이제 이 백성은 자신의 무기 들기를 다시 거절하고, 스스로 그 원수들의 원하는 대로 죽임을 당하니라.

[4]이제 암몬과 그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그처럼 간절히 사랑하는 이들 중에서, 또 자신들을 그처럼 간절히 사랑한 이들 중에서 자행되는 이 큰 멸망의 행위를 보았을 때—이는 그들이 저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천사들인 듯 대접을 받았음이라—이러므로 암몬과 그 형제들이 이 큰 멸망의 행위를 보았을 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하여 왕에게 이르되, [5]"'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 이 백성을 함께 모아,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우리의 형제 니파이인들에게로 내려가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피하사이다" 하였더라.

[6]그러나 왕이 저들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들을 대하여 범한 많은 살인과 죄로 인하여, 니파이인들이 우리를 멸하리라" 하는지라.

[7]이에 암몬이 이르되, "내가 가서 주께 여쭈오리니, 만일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형제들에게로 내려가라 하시면, 가시겠나이까?"

[8]이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 '가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에게로 내려가, 우리가 그들에게 범한 많은 살인과 죄를 그들에게 보상하기까지 그들의 노예가 되리라."

[9]그러나 암몬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 중에 노예를 두는 일은, 나의 부친에 의하여 제정된 우리 형제들의 법에 거스리는 것이온즉,[ㄱ] 내려가 우리 형제들의 처분에 맡기사이다."

[10]그러나 왕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 여쭈어 보라, 만일 그가 우리에게 '가라' 하시면, 우리가 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리라."

[1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가서 주께 여쭈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2]"'이 백성을 데리고 이 땅에서 나가, 그들로 멸망되지 않게 하라. 이는 사탄이 아맬레카이인들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았으므로, 저들이 레이맨인들을 충동하여 저들의 형제를 대하여 노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땅에서 나가라, 또 이 세대에 이 백성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내가 그들을 보전할 것임이니라."

[13]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가서 왕에게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다 고하였더라. [14]이에 그들이 그들의 온 백성, 곧 주의 온 백성을 다 함께 모으고, 또 그들의 양 떼와 소 떼를 다 함께 모아 그 땅을 떠나서, 니파이 땅과 제이라헤믈라 땅을 나누는 광야로 들어와서는, 그 땅의 경계 가까이에 이르렀더라. [15]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나와 내 형제들이 나아가 제이라헤믈라 땅에 들어가리니, 당신들은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소서,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하여 저들이 당신들을 자기들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려는지 알아보겠나이다."

앨마$_2$가 모사이야$_2$의 아들들을 만나는 또 하나의 이야기[ㄴ]

[1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나아가 그 땅에 들어가다가, 앞서 말한 곳에서 그와 그의 형제들이 앨마를 만나니, 보라 이는 기쁜 만남이었더라. [17]이제 암몬의 기쁨은 어찌나 컸던지 그가 충만하게 되었나니, 참으로 그가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삼키운 바 되어, 자기 힘이 소진되기에 이르매, 그가 땅에 다시 쓰러지니라.[ㄷ] [18]이제 이것은 심히

[ㄱ] 9 모사이야서 29:32, 40 참조; 모사이야서 2:13; 7:15 비교 [ㄴ] 16 열 장에 걸친 회상장면이 마무리되고 앨마서 17:1~4의 주요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됨 [ㄷ] 17 암몬$_2$의 기쁨으로 인한 첫 쓰러짐은 앨마서 19:14에 나왔을 것임

큰 기쁨이 아니더냐? 보라, 이는 바로 진실로 뉘우치고 겸손하게 행복을 찾는 자가 아니면 아무도 받지 못하는 기쁨이니라. [19]이제 그 형제들을 만난 앨마의 기쁨이 진실로 컸고, 아론, 옴너, 힘나이의 기쁨 또한 그러하였으나, 보라 그들의 기쁨은 그들의 힘을 지나칠 그러한 것은 아니었더라.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에게 여어숀 땅이 주어지다

[20]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그의 형제들을 다시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곧 자기 집으로 인도하였고, 그들이 가서 대판사에게 니파이 땅에서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 고하였더라. [2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대판사가 그 온 땅에 포고를 보내어, 백성들에게 그들의 형제, 곧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을 받아들임에 대한 그들의 소리를 구하였더라.

[2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의 소리가 이르러 이르되, "보소서, 동편 바닷가에 있어, 풍요 땅과 접하고, 풍요 땅 남쪽에 있는 여어숀 땅을 우리가 내어 주리니, 이 여어숀 땅이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기업으로 줄 땅이니이다. [23]또 보소서, 우리가 여어숀 땅에 있게 될 우리의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어숀 땅과 니파이 땅 사이에 우리 군대를 두리니,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이같이 행하는 것은,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될까 염려하여 그 형제들을 대적하여 무기 들기를 두려워하는 연고이오며, 그들의 이 큰 두려움은 그들의 많은 살인과 그들의 끔찍한 간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쓰라린 회개를 하였음으로 인하여 왔나이다. [24]이제 보소서, 이를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행하여, 그들로 여어숀 땅을 기업으로 갖게 하겠고, 또 우리가 우리의 군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재물의 일부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돕는다는 조건하에, 우리가 우리의 군대로 그들을 그 적으로부터 지키겠나이다" 하였더라.

[25]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이를 듣고,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에게로 돌아가되, 앨마도 함께 하여, 그들이 그 장막을 친 광야로 가서,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알게 하였고, 앨마는 또한 암몬과 아론과 그의 형제들과 함께 그의 돌이킴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더라.ㄱ

[2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일이 그들로 크게 기뻐하게 한지라, 이에 그들이 여어숀 땅으로 내려가, 여어숀 땅을 차지하고, 니파이인들에게 암몬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으니, 그러므로 이후로는 내내 그 이름으로 구별되니라.ㄴ [27]또 그들은 니파이 백성 가운데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으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와, 또한 사람들에게 향한 그들의 열심으로도 구별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모든 일에 온전히 정직하고 올바르며, 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되, 참으로 끝까지 그러하였기 때문이었더라.

[28]또 그들은 자기 형제의 피 흘리는 일을 지극히 혐오하였고, 자기 형제를 대적하여 무기를 들도록 결코 설복될 수 없었으며, 또 그들은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그들의 소망과 소견으로 인해, 죽음에 대하여는 여하한 정도의 공포도 결코 갖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 죽음은 이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에 삼키운 바 된 것이더라. [29]그러므로 그들은 칼과 신월도를 잡고 자기 형제를 치기에 앞서, 그들에 의해 가해질 수 있는 가장 가혹하고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일지라도 죽음을 당하고자 한 것이더라. [30]그리하여 그들은 열심이었으며 사랑을 받는 백성, 곧 크게 은총을 입는 주의 백성이었더라.

ㄱ25 모사이야서 27:8~37 ㄴ26 이제부터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 항상 "암몬 백성"으로 언급됨

격렬한 전투[ㄱ]

28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 백성이 여어숀 땅에 정착하고, 교회가 또한 여어숀 땅에 세워지고, 니파이인들의 군대가 여어숀 땅 둘레에, 참으로 제이라헤믈라 땅 주위의 모든 국경에 배치되고 난 후, 보라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그들의 형제를 뒤따라 광야로 들어왔더라. [2]이에 그리하여 격심한 전투가 있었으니, 참으로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백성들 간에 결코 알려진 적이 없었던 그러한 전투였으며, 또한 수만의 레이맨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널리 흩어졌더라. [3]또한 니파이 백성 가운데서도 막대한 살육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레이맨인들은 쫓겨서 흩어졌고, 니파이 백성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더라.

[4]또 이제 이는 그 온 땅 도처에 모든 니파이 백성 가운데, 큰 애통과 애곡하는 소리가 들린 때였으니— [5]참으로 과부들은 그 남편들로 인하여, 또한 아버지들은 그 아들들로 인하여, 또 딸은 형제로 인하여, 참으로 형제는 아버지로 인하여 애통하는 부르짖음이라. 그리하여 죽임을 당한 그들의 혈족으로 인하여 애통하는 애통의 부르짖음이, 온 백성 가운데 들렸느니라. [6]또 이제 이는 정녕 슬픈 날, 엄숙한 때요, 많은 금식과 기도의 때이었더라. [7]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오년이 끝나니라. [ㄴ]

멸망에 대한 앨마$_2$의 정리[ㄷ]

[8]또 이는 암몬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기사라, 니파이 땅에서의 그들의 여정과 그 땅에서의 그들의 수난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난과 그들의 불가해한 기쁨과 여어숀 땅에서의 형제들의 영접과 안전에 대한 것이니라. 이제 주 곧 만인의 구속주께서 그들의 영혼에 영원토록 복 주시기를 바라노라.

[9]또 이는 니파이인들 사이의 전쟁과 다툼과 또한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의 전쟁의 기사니, 이에 판사 치세 제십오년이 끝났느니라.

[10]또 제일년부터 제십오년까지 수천 생명의 멸망이 있었나니, 참으로 그 사이 끔찍한 유혈의 참극이 일어났느니라. [11]그리하여 수천의 육신이 땅 속에 낮게 뉘이고, 한편으로는 수천의 육신이 지면 위에서 무더기를 이루어 썩고 있으며, 또한 수천이 그들의 친족을 잃음으로 슬퍼하고 있나니, 이는 주의 약속대로, 그들이 끝없는 재난의 상태에 처하게 됨을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음이라. [12]한편으로 또 다른 수천은 그들의 친족들을 잃음으로 인하여 진실로 슬퍼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대로, 일으킴을 받아, 결코 끝나지 않는 행복의 상태로 하나님 우편에 거하게 된다는 소망 중에, 또 이를 알기까지 하여,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도다.

[13]또 이러므로 우리는 죄와 범법과 악마의 권능으로 인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나니, 그것은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올무로 잡듯 하려고 고안해 낸 간교한 계획에 의해서 오느니라. [14]또 이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주의 포도원에서 일해야 한다는 큰 부름을[ㄹ] 알게 되며, 또 이리하여 우리는 슬픔과 또한 기뻐함의 큰 이유를 알게 되나니,

> 슬픔은 사람들 가운데 죽음과 멸망으로 말미암으며
> 기쁨은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느니라.

[ㄱ]1 이 전투는 앨마서 16:12에서 언급된 싸움으로 추정 [ㄴ]7 –77년 [ㄷ]8 여기서 현재 시제는 이 편집 요약의 저자가 앨마$_2$라는 것을 나타냄; 비슷한 요약으로 앨마$_2$의 설교 여행에 대한 설명이 끝나는 앨마서 16:13~21에서는 몰몬$_2$의 음성으로 나옴; 이 경우 앨마서 28:8~29은 17장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결말을 가져오면서 단일 문학 단위로서의 기능을 함 [ㄹ]14 이는 곧, 큰 필요 사항

선교사업에 대한 앨마$_2$의 묵상[ㄱ]

29 오 내가 천사라면, 그리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팔로,
땅을 흔들 음성으로 말하여,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
2 참으로 내가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ㄴ] 각 영혼에게 회개와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여,
그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온 지면 위에 슬픔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노라.

3 그러나 보라, 나는 사람이요, 내 소원 중에 죄를 범하나니, 이는 주께서 나에게 배정해 주신 것들로 내가 마땅히 만족해야만 함이라. 4 내가 내 소망 중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확고한 법령을 훼손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는 것이든 생명에 이르는 것이든, 그들의 원대로 주심을 내가 앎이라. 참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배정하시되, 그들의 뜻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든지 아니면 멸망에 이르는 것이든지, 그들의 뜻에 따라, 참으로 변경하지 못할 법령을 그들에게 반포하심을 내가 아노라. 5 또한 선과 악이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은즉,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책망할 것이 없거니와, 선과 악을 아는 자에게는, 그 원하는 것이 선이든지 악이든지, 생명이든지 죽음이든지, 기쁨이든지 양심의 가책이든지, 그의 원대로 주어지는 줄을 내가 아노라.

6 이제 이러한 일들을 내가 알고 있거늘, 어찌 내가 부름 받은 일 수행하기보다 더 원하리요? 7 어찌 내가 천사이기를, 그리하여 땅의 모든 끝에 말할 수 있기를 원하리요? 8 이는 보라 주께서는 그들 자신의 나라와 방언을 가진 모든 민족에게 그의 말씀을, 참으로 그들이 갖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가 여기시는 모든 것을, 지혜로써 가르칠 것을 허락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의롭고 참된 바를 좇아, 지혜로써 권고하심을 아느니라.

9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를 내가 아노니, 나는 그것을 영광으로 여기노라. 나는 스스로 영광스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를 영광으로 여기노라. 또한 이것이 내 영광이니, 곧 혹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얼마간의 영혼을 회개로 인도하는 것이라. 또 이는 내 기쁨이니라.[ㄷ] 10 또 보라, 많은 내 형제들이 진심으로 뉘우쳐,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옴을 내가 볼 때, 그때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주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노니, 곧 그가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이며, 참으로 그때 내가 나를 향하여 펴신 그의 자비하신 팔을 기억하노라.

11 참으로 이뿐 아니라 내가 또한 내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것을 기억하노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내시고, 이로써 그의 교회를 세우신 것을[ㄹ] 내가 정녕 알고 있음이라. 참으로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내셨느니라. 12 참으로 내가 내 조상들의 포로 되었던 것을 항상 기억하였노니,[ㅁ]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내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박에서 건져 내셨느니라. 13 참으로 또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들

[ㄱ] 1 10절의 현재형 시제, 11절의 "조상들이 사로잡혔던/포로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후렴구, 14절의 "니파이 땅에 올라가 있었던 내 형제들의 성공"에 대한 언급으로 이 문단의 저자가 몰몬$_2$이라기보다 앨마$_2$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가 됨 [ㄴ] 2 "우레와 같은 음성"과 "땅을 흔들 음성"을 가진 천사를 만났던 엘마의 경험이 모사이야서 27:11, 15, 18; 앨마서 36:7에서 나옴 [ㄷ] 9 앨마$_2$의 이 말은 모사이야서 23:10~11의 앨마$_1$(아버지)의 말을 반영함 [ㄹ] 11 모사이야서 23~25 [ㅁ] 12 모사이야서 27:16에서 천사가 명했던 대로; 앨마서 5:6; 36:2, 29 참조

가운데 자기 교회를 세우셨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사,[ㄱ]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나에게 많은 성공을 주셨으니 이로써, 내 기쁨이 충만하도다.

14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의 성공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내 기쁨은 니파이 땅에 올라가 있었던 내 형제들의 성공으로 인하여 더욱 충만하도다. 15 보라, 저들이 크게 수고하고,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 저들의 상급이 얼마나 크겠느냐! 16 이제 내가 이들 내 형제들의 성공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이끌려 가서, 마치 내 몸에서 나뉠 듯 하나니, 그처럼 나의 기쁨이 크도다.

17 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내 형제들에게 허락하사, 저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하시며, 또 저들의 수고의 결실인 그들 모두에게도 그리하사 그들로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사 내 말대로, 곧 내가 말한 것같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십육년과 제십칠년의 평화

30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 백성이 여어숀 땅에 정착하고 난 후, 또한 레이맨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들의 죽은 자들이 그 땅 백성에 의해 장사되고 난 후— 2 이제 그들의 죽은 자를 세지 아니하였으니 그 수가 큼으로 인함이며, 니파이인의 죽은 자도 세지 아니하였더라—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저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난 후, 또한 금식과 애통과 기도의 날들 이후 (때는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육년이었더라)[ㄴ] 온 땅에 평화가 지속되기 시작하였더라. 3 또한 백성들은 주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되, 모세의 율법을 좇아 하나님의 의식을 엄격히 준행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음이더라. 4 또 그리하여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육년 내내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소란이 없었느니라.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십칠년 초에도 평화가 지속되었으나,[ㄷ]

적 그리스도인 코리호어[1]

제이라헤믈라와 여어숀 땅에서

6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칠년 말에 한 사람이 제이라헤믈라 땅에 들어 왔으니, 그는 적 그리스도라.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예언들을 거스려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였음이라.

7 이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금하는 아무런 법이 없었으니, 이는 사람들을 불공평한 입장에 처하게 할 법을 둠은 엄격히 하나님의 명에 반하는 것임이었더라. 8 이는 이같이 경전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였음이니라."[ㄹ] 9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였으면, 이는 저의 특권이라. 곧 그보다는 저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를 섬기는 것은 저의 특권이었으나, 저가 그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저를 처벌할 법은 없었느니라. 10 그러나 만일 살인하였으면 사형을 받았으며, 강탈하였어도 역시 처벌받았으며, 도적질하였어도 역시 처벌받았으며, 간음을 범하였어도 역시 처벌받았나니, 참으로 이 모든 간악함에 대하여 그들은 처벌을 받았더라.

[ㄱ] 13 모사이야서 29:42; 앨마서 5:3 참조; 앨마서 13:1~9 비교 [ㄴ] 2 –76년 [ㄷ] 5 –75년 [ㄹ] 8 여호수아 24:15

11 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범죄에 따라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법이 있었음이라. 그러할지라도 사람의 믿음을 금하는 법은 없었나니,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았더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공평한 입장에 있었느니라.

12 이에 그 이름이 코리호어인, 이 적 그리스도가 (또 법이 그를 도무지 붙들 수 없었으매)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는 없을 것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하였나니, 이 같은 방식으로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13 "오 너희 어리석고 헛된 소망 아래 얽매여 있는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어리석은 일로 스스로에게 멍에를 씌우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그리스도를 바라느냐? 이는 아무도 장차 임할 일을 알 수 없음이니라. 14 보라, 너희가 예언이라 하고, 너희 말에 거룩한 선지자들에 의해 전해 내려왔다 하는 이러한 것은, 보라, 그러한 것은 너희 조상들의 어리석은 전통이니라. 15 그것이 확실함을 너희가 어떻게 아느냐? 보라, 너희가 보지 못하는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없느니라. 16 너희가 앞을 내다보며 너희의 죄 사함을 본다 하나, 보라, 그것은 과도하게 흥분된 생각의 결과요, 너희 생각의 이 혼란은 너희를 인도하여, 실상은 그렇지 아니한 일을 믿게 하는 바, 너희 조상들의 전통으로 인하여 오느니라" 하였더라.

17 또 그가 그와 같은 것을 백성들에게 많이 더 이야기하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속죄란 있을 수 없으며, 각 사람은 피조물의 경영을 좇아 이 생을 살아가는 것이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재능대로 번영하며, 각 사람은 자기의 힘대로 정복하며,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범죄가 아니라 하였더라. 18 이같이 그가 그들에게 전파하여 많은 자의 마음을 이끌어 내어, 그들로 그들의 간악함 중에 그 머리를 들게 하였으니, 참으로 많은 여자와 또한 남자들을 이끌어 내어, 음행을 범하게 하였으며—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 하였더라.

19 이제 이 사람이 여어숀 땅에도 건너가서, 한때 레이맨인 백성이었던 암몬 백성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을 전파하려 하였더라. 20 그러나 보라 그들은 다수의 니파이인들보다 현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를 잡아 결박하고, 그를 그 백성 위에 대제사인 암몬 앞으로 끌고 갔음이라.

코리호어[1]와 긷도나[2]

기드온 땅에서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암몬이 그를 그 땅에서 끌고 나가게 한지라, 그가 기드온 땅으로 건너와서, 그들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하였으나, 여기서 많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가 잡혀 결박되어, 그 땅을 다스리는 대제사와 또한 대판사 앞으로 끌려갔음이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대제사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는 주의 길을 굽게 하며 돌아다니느냐? 어찌하여 너는 이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없을 것이라고 가르쳐, 그들의 기뻐함을 훼방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모두 거스려 말하느냐" 하였더라. 23 이제 이 대제사의 이름은 긷도나였더라.

이에 코리호어가 그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들의 어리석은 전통을 내가 가르치지 아니하는 연고요, 이 백성을 다스릴 권력과 권세를 잡고자, 또 그들을 무지한 가운데 있게 하여, 그들로 그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네 말에 따라 낮아지게 하고자, 옛날의 제사들이 제정해 놓은 어리석은 의식과 의례 아래 스스로를 얽매도록 내가 이 백성을 가르치지 아니하는 연고니라. 24 너희는 이 백성이 자유로운 백성이라 말하도다. 보라, 내가 말하노니 그들은 속박되어 있느니라. 너희는 저 옛 예언들이 참되다 말하도다.

보라, 내가 말하노니 그것들이 참된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25너희는 이 백성이 한 부모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죄 있고 타락한 백성이라 말하도다. 보라, 내가 말하노니 자녀가 그 부모로 인하여 죄 있지 아니하느니라. 26그리고 너희는 또한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 말하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가 있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또한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리라 말하나니—

27"또 이같이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어리석은 전통을 좇아, 너희 스스로의 뜻대로, 이 백성을 이끌어 내고, 마치 속박에 든 것처럼, 그들을 억누름으로써, 그들의 손의 수고로 너희 스스로를 배불리고자 하며, 그들로 감히 담대함을 가지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며, 그들로 감히 그들의 권리와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도다. 28참으로 그들은 그들의 제사들을 거스를까 하여, 감히 자신의 것을 사용하고자 아니하나니, 저들은 저들의 뜻대로 그들에게 멍에를 씌우고, 저들의 전통과 저들의 꿈과 저들의 일시적인 생각과 저들의 환상과 저들의 꾸며낸 신비로써, 만일 그들이 저들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저들이 하나님이라 하는 어떤 미지의 존재—곧 지금까지 결코 보인 적도 없고 알려진 적도 없으며, 과거에도 결코 있지 아니하였고 장차도 결코 있지 아니할 존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믿게 하였느니라."

29이제 대제사와 대판사가 그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는, 곧 그가 심지어 하나님을 거스려 욕하기까지 하려는 것을 보고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고자 아니하고, 그를 결박하게 하고 그를 관원들의 손에 넘겨,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보내어, 앨마와 그 온 땅을 다스리는 대판사 앞으로 데려가게 하였더라.

코리호어[1]와 앨마[2]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3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앨마와 대판사 앞에 끌려와서는, 기드온 땅에서 행한 것과 동일한 모양으로 계속하되, 실로 그가 모독하기를 계속하였느니라. 31또 일어나 앨마 앞에 서서 크게 부풀린 말을 하고, 제사들과 교사들을 거스려 욕하며, 백성들의 수고로 배불리기 위하여, 그들 조상의 어리석은 전통을 따라 백성들을 이끌어 낸다고 그들을 비난하였더라.

32이제 앨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가 이 백성의 수고로 우리 스스로를 배불리지 아니하는 줄 알고 있나니, 이는 보라 참으로 판사 치세 초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이 땅을 두루 많이 여행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부양을 위해 내 손으로 일해 왔노라. 33또 교회 안에서 내가 행한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내 수고에 대해서 한 시나인만큼도[ㄱ] 받은 일이 없으며, 내 형제 중 누구도 판사직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리하지 않았으며, 그때에도 우리는 다만 법에 따라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만 받았음이니라. 34또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의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있을진대, 진리를 선포하여 우리 형제들의 기쁨 안에서 우리가 기뻐함을 얻고자 하는 것 외에, 교회에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35그렇다면 어찌하여 너는 네 스스로 우리가 아무 이익도 받지 않는 줄을 알면서, 우리가 이익을 얻고자 이 백성에게 가르침을 베푼다 하느냐? 또 이제 너는 그들의 마음에 그토록 큰 기쁨을 초래하는 우리가 이 백성을 속인다고 믿느냐?"

36이에 코리호어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니라."

37이에 앨마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

[ㄱ]33 앨마서 11:5

38 이에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39 이제 앨마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다시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느냐?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40 또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거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는다는 무슨 증거가 네게 있느냐?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게는 아무 증거도 없고, 다만 네 말뿐이니라. 41 그러나 보라, 내게는 이러한 것이 참되다는 증거로서 만유가 있도다. 또 네게도 그러한 것이 참되다는 증거로서 만유가 있거늘, 그래도 네가 이를 부인하겠느냐? 너는 이러한 것이 참된 줄을 믿느냐? 42 보라, 네가 믿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너는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을 벗어 버려 그로 네게 있을 곳이 없게 하였도다. 이에 악마가 너를 다스릴 권능을 가져, 너를 끌고 다니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하고자 간계를 꾸미는도다."

코리호어$_1$가 표적을 요구하다

43 이에 이제 코리호어가 앨마에게 이르되, "만일 네가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인정할 수 있도록, 내게 표적을 보여 준다면, 참으로 그에게 권능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 준다면, 그리하면 네 말의 참됨을 내가 인정하리라."

44 그러나 앨마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표적을 충분히 가졌거늘, 네가 네 하나님을 시험하려느냐? 네게 이 모든 네 형제들과 또한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증거가 있거늘, 네가 말하기를 '내게 표적을 보이라 하려느냐?' 경전이 네 앞에 놓여 있고, 또한 만물이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나니, 참으로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또한 그것의 움직임과 또한 규칙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모든 행성도, 지고하신 창조자가 계심을 증거하느니라. 45 또 그러함에도 네가 다니며, 이 백성의 마음을 이끌어 내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증거하느냐? 그러함에도 네가 이 모든 증거를 거스려 부인하겠느냐?"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하도다, 네가 내게 표적을 보이기 전에는 내가 부인하리라."

46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슬프도다. 참으로 네가 아직 진리의 영을 물리치고자 하므로, 네 영혼이 멸망을 받을까 함이라. 47 그러나 보라, 네가 너의 거짓말과 네 아첨하는 말로써, 많은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 내리는 방편이 되는 것보다 네 영혼을 잃는 것이 나으니, 그러므로 네가 다시 부인할진대, 보라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니,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다시는 네 입을 열지 못하겠고, 다시는 이 백성을 미혹하지 못하리라."

48 이제 코리호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도 아니하노라. 또한 내가 말하노니, 너도 하나님이 있는 줄 알지 못하니라. 네가 표적을 내게 보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49 이제 앨마가 그에게 이르되, "내 말대로, 네가 치심을 입어 말 못하는 자가 되는 이것을 내가 네게 표적으로 주리라. 이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치심을 입어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다시는 말을 내지 못할지니라."

50 이제 앨마가 이 말을 하고 나자, 앨마의 말대로, 코리호어가 치심을 입어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더라. 51 이에 이제 대판사가 이를 보고, 그 손을 내밀어 코리호어에게 써서 이르되, "이제 네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었느냐? 앨마가 그의 표적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네가 바랐느냐? 네게 표적을 보이기 위해 그가 다른 자들을 괴롭히기를 바랐느냐? 보라 그가 네게 표적을 보였거늘 이제 네가 더 논박하겠느냐?"

52 이에 코리호어가 그 손을 내밀어 써서 이르되, “내가 말을 할 수 없으매, 말 못하는 자가 된 줄을 아노라. 또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 일을 내게 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노라, 또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느니라. 53 그러나 보라, 악마가 나를 속였나니, 이는 그가 천사의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 내게 이르기를, ‘가서 이 백성을 돌이키라. 이는 그들이 다 어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따라 바른 길에서 벗어났음이니라’ 하였고,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고, 또한 내게 말할 바를 가르쳐 주었느니라. 이에 내가 그의 말을 가르쳤나니, 내가 그것을 가르친 것은 그것이 속된 생각에 기쁨이 되었음이라. 또 내가 그의 말을 가르쳐 이윽고 많은 성공을 거두게 된지라, 그로 인해 내가 그러한 것이 참된 줄 진실로 믿게 되었나니, 이 까닭에 내가 진리에 대항하여 결국 이 큰 저주를 자초하기에 이르렀도다” 하니라.

54 이제 그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저주가 자기에게서 떠나도록, 앨마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줄 것을 구하였더라. 55 그러나 앨마가 그에게 이르되, “이 저주가 네게서 떠날진대 네가 다시 이 백성의 마음을 이끌어 낼 것인즉,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라” 하니라.

코리호어$_1$의 최후

5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저주가 코리호어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매, 그가 쫓겨나,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자기의 먹을 것을 구걸하더라. 57 이제 코리호어에게 일어난 일이 즉시로 그 온 땅에 두루 공표되었으니, 참으로 대판사가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포고를 보내어, 코리호어의 말을 믿은 자들에게 선포하기를, 이 동일한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까 하니, 급히 회개하라 하였더라. 5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코리호어의 간악함을 깨달았으므로, 모두 다시 주께로 돌이키매, 이로써 코리호어의 방식을 따른 죄악이 끝나고,

코리호어는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하며 연명하더라. 5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한 백성, 곧 니파이인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조램이라 이름하는 사람에 의해 인도되어, 스스로 조램인이라 칭하는 백성 가운데 나아갔더니—그가 그들 가운데 나아갈새, 보라 그가 치어 짓밟혔으니, 곧 그가 죽기까지라. 60 또 이로써 우리는 주의 길을 굽게 하는 자의 종말을 알게 되며, 또 이로써 우리는 악마가 자기의 자녀들을 마지막 날에 도우려 하지 아니하고, 급히 지옥으로 끌어내림을 알게 되느니라.

앤티오눔에 사는 조램인들2에게 간 앨마2

앨마서 31~35장

조램인들2을 위한 선교활동

3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호어의 종말 이후에, 앨마가 조램인들이 주의 길을 굽게 하고 있음과 그들의 지도자인 조램이 백성의 마음을 이끌어 말 못하는 우상에 절하게 한다는 소식을 받고,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다시 상하기 시작하였더라. [2]이는 자기 백성 중의 죄악에 대하여 알게 됨이 앨마에게는 큰 슬픔의 까닭이 되었음이라.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조램인들이 니파이인들에게서 나누어진 일로 인하여 심히 슬펐더라.

[3]이제 조램인들은 그들이 앤티오눔이라 일컫는 땅에 함께 모였었나니, 이는 제이라헤믈라 땅의 동편이요, 이는 바닷가에 거의 접경하여 놓여 있으며, 이는 여어숀 땅의 남쪽이요, 이는 또한 남방 광야에 경계가 닿았으니, 이 광야에는 레이맨인들이 가득하였더라. [4]이제 니파이인들은 조램인들이 레이맨인들과 교제에 들어가게 될 것과, 그것이 니파이인들 편에 큰 손실의 방편이 될 것을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5]또 이제 말씀의 전파가 백성을 인도하여 의로운 일을 하게 하는 큰 경향이 있으므로 —참으로 그것은 칼이나 그들에게 일어났던 다른 어떠한 것보다, 백성들의 생각에 더 강력한 효과가 있었더라—그리하여 앨마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였더라.

[6]그리하여 그는 암몬과 아론과 옴너를 취하고, 힘나이는 제이라헤믈라의 교회에 남겨 두었으나, 앞의 셋과 또한 밀렉에 있던 앰율레크와 지에즈롬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갔으며, 그가 또한 자기의 아들 중 둘을 취하였더라.

[7]이제 그의 아들 중 장남은 그가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가지 아니하였나니, 그의 이름은 힐라맨이요, 그가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간 자들의 이름은 시블론과 코리앤톤이니, 이는 조램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러, 그와 함께 조램인들 가운데로 갔던 자들의 이름이니라.

[8]이제 조램인들은 니파이인에게서 이반한 자들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었었더라. [9]그러나 그들이 큰 잘못에 빠졌나니, 이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좇아, 하나님의 계명과 그의 규례를 지켜 준행하려 아니하였으며, [10]유혹에 들지 않도록 매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라 하는 교회의 의례를 지키려고도 아니하였음이라. [11]참으로 요컨대 그들이 심히 많은 경우에 주의 길을 굽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이 까닭에 앨마와 그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러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더라.

┐4 이 두려움은 앨마서 35:10~11에서 구체화됨

조램인들의 예배방식

12이제 저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보라, 놀랍게도 조램인들이 회당들을 지은 것과 그들이 주의 날이라 칭하는 바, 일 주 중 하루에 함께 모여 앨마와 그의 형제들이 결코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발견하였더라. 13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회당 중앙에 쌓아 올린 한 자리가 있었음이니, 곧 설 자리라, 높기는 머리보다도 위며, 그 꼭대기는 오직 한 사람을 용납할 만 하더라. 14그러므로 누구든지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나아가 그 꼭대기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 손을 내뻗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기를,

> 15 거룩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며, 우리는 당신이 거룩하신 것과 당신이 전에도 영이시었고 지금도 영이시며 장차도 영원히 영이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16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우리 형제들에게서 구별하셨음을 믿사오며, 또 우리는 그 조상들의 유치함에 의하여 그들에게 전해 내려온 것, 곧 우리 형제들의 전통을 믿지 아니하고, 당신이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사오니, 또한 당신은 그리스도가 없을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17그러나 당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오니, 당신은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셨사오나, 반면에 우리 사방의 모든 자는 당신의 진노로써 지옥에 던짐을 받도록 선택함을 입었나니, 이 거룩함에 대하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감사드리나이다. 또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우리 형제들의 어리석은 전통을 따라 이끌려 가지 않게 하신 것을 또한 당신께 감사드리오니, 그 전통은 정녕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곧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 방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그들을 얽매고 있나이다. 18이에 다시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시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하더라.

19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들이 이러한 기도를 듣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랐더라. 20이는 보라, 모든 사람이 나아가 이 동일한 기도를 드림이더라. 21이제 그 자리를 그들은 래미움프톰이라 하였으니, 해석한즉 "거룩한 단이라." 22이제 이 단에서 그들, 각 사람이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드리며, 그들이 그에게 택함을 받은 것과 그 형제들의 전통을 좇아 그들을 이끌어 가지 아니하신 것과 그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장차 임할 일을 믿는데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한 것을,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23이제 백성들이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감사를 드린 후,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며, 결코 다시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기를, 거룩한 단으로 다시 함께 모여 그들의 방식대로 감사를 드리기까지 그리하더라.

조램인들$_2$에 대한 앨마$_2$의 기도 ⌐

⌐24 아래 기도는 두 가지 후렴구가 두 번씩 반복된다는 특징을 지님; 첫 번째 스탠자(stanza, 1연)에서는 조램인들의 죄 많은 행동을 주께서 "보시옵소서"로 간청하며 두 번째 스탠자(2연)에서는 "주여.... 해 주시겠나이까"로 시작되면서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길 청원함; 26b절와 30a절은 30b절과 33절과 마찬가지로 내용을 구분짓는 문학장치(inclusio)의 형태를 가짐; 34-35절은 비록 두 가지 요소가 조램인들의 죄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첫 번째 연의 "보시옵소서"와 두 번째 연의 "주여...해 주시겠나이까"가 함께 결합되는 형태로 마무리 됨; 추가적으로 33절은 31b절을 정확하게 반영하며 28절의 귀한 금패물은 35절의 귀한 영혼으로 균형이 맞춰짐

24 이제 앨마가 이를 보고 그 마음이 비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악하고 패역한 백
성임을 그가 보았음이라, 참으로 그들의 마음은 금에, 또 은에, 또 온갖 좋은 물품에
있음을 그가 보았더라. 25 그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자고하여, 그 교만 중에 크게 자
랑하게 되었음을 그가 또한 보았더라.
26 이에 그가 하늘로 그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주의 종들이 육체로 이 아래에 거하면서,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이토록 큰 간악함을 보게 하시려나이까?
27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그들이 주께 부르짖사오나,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교만 속에 삼키웠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보시옵소서, 그들이 그 입으로는 주께 부르짖사오나,
반면 그들은 세상의 헛된 것으로 부풀어,
스스로 큰 체 하기에 이르렀나이다.
28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의 값비싼 의복과
그들의 작은 고리들과 그들의 팔찌와
그들의 금패물과 그들을 꾸민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보시옵소서 또 보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그러한 것에 있거늘,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아뢰기를, 다른 이들은 멸망할 것인 반면,
'우리는 당신께 택함을 입은 백성이온즉,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하나이다.
29 그뿐 아니라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을 것이라고 알려 주셨다 하나이다.
30 오 주 하나님이시여, 어느 때까지 이 같은 간악함과
불신앙이 이 백성 가운데 있도록 두려 하시나이까?

주여, 내가 내 연약함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겠나이까.
이는 내가 연약하옵고,
이 백성 중의 그 같은 간악함이 내 영혼을 괴롭히는 연고니이다.
31 주여, 내 마음이 심히 슬프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을 위로해 주시겠나이까.
주여, 나로 힘을 갖게 하사,
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게 임할 이 고난들을 인내로써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겠나이까.
32 주여, 내 영혼을 위로하사, 나와 또한 나와 함께
한 내 동역자들에게 성공을 주시겠나이까—
참으로 암몬과 아론과 옴너와
또한 앰율레크와 지에즈롬과 또한 나의 두 아들들—
참으로 이들 모두를, 주여, 주께서 위로해 주시겠나이까.
참으로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해 주시겠나이까.
33 저희로 힘을 갖게 하사,
이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희에게 임할 고난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겠나이까.

34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함에 있어
성공을 거두게 해 주시겠나이까.
35 주여, 보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은 귀하며,
저들 중 많은 자가 우리의 형제들이오니,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사,
우리로 이들 우리의 형제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손을 자기와 함께 한 자들 모두의 위에 얹으니, 보라, 그가 그 손을 그들 위에 얹으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라. 37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은 스스로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서로 헤어졌더라. 38 이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사 그들로 주리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셨으며, 또한 그들에게 힘을 주사, 그들이 겪는 여하한 고난도 다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 삼키우게 하셨더라. 이제 이는 앨마의 기도대로였나니, 이는 그가 신앙으로 기도한 연고였더라.

가난한 조램인들$_2$을 향한 앨마$_2$의 설교

앨마서 32~33장

가난한 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진 말씀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여, 그들의 회당에도, 또 그들의 집에도 들어가고, 또한 참으로 그들의 거리에서도 말씀을 전파하였더라.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가운데서 많은 수고를 한 후, 저들이 가난한 계층의 백성 가운데서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보라, 그들이 그 의복의 조악함으로 인하여 회당에서 쫓겨났음이러라— 3 그리하여 그들은 더러운 것으로 여겨져,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들의 회당에 들어감이 허락되지 아니하였더라. 이러므로 그들은 가난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그 형제들에게 찌꺼기같이 여겨졌더라. 이리하여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도 가난하였고, 또한 마음으로도 가난하였더라.

4 이제 앨마가 오나이다 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나아오니, 이는 우리가 말하던 자들이요, 그들이 세상의 것에서 가난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가난하다 한 자들이라. 5 이에 그들이 앨마에게로 와서, 그들 중 으뜸 되는 자가 앨마에게 말하되, "보소서 나의 이 형제들이 무엇을 하여야 하리이까, 이는 그들이 그 가난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멸시를 받되, 참으로 우리의 제사들에게 특히 더 그러함이라. 이는 저들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많이 수고하여 지은 우리의 회당에서 우리를 쫓아내었음이오며, 또 저들이 우리의 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우리를 쫓아내어,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가 없음이오니, 보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6 이에 이제 앨마가 이를 듣고, 몸을 돌이켜, 자기 얼굴을 바로 그에게로 향하고, 큰 기쁨으로 바라보았으니, 이는 그들의 고난이 진실로 그들을 겸손하게 한 것과 또 그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음이라.

믿음과 겸손에 대한 앨마$_2$의 말

7 그리하여 그가 다른 무리에게 더 말하지 아니하고, 그 손을 내밀고, 자기가 바라보는 바 진실로 뉘우치는 자들에게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8 "'내가 보니 너희는 마음이 겸손하도다, 만일 그렇다면 너희가 복이 있도다. 9 보라 네 형제가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하리요, 이는 우리가 우리 회당에서 쫓겨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이라' 하였도다. 10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오직 너희 회당에서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생각하느냐? 11 또 더욱이 내가 묻고자 하노니, 너희는 일 주일에 한 번 밖에는 하나님을 예배해서 안된다 생각하느냐?

1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겸손하게 되고, 또 지혜를 배우도록, 너희가 너희의 회당에서 쫓겨난 것이 잘 된 일이라. 이는 너희가 지혜를 배움이 꼭 필요함이요, 너희가 마음이 낮아지게 된 것이, 너희가 쫓겨나고, 너희의 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 형제들에게 멸시를 받은 연고임이니, 이는 너희가 불가불 겸손하게 되었음이니라. 13 또 이제 너희가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사람이 간혹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면, 회개를 구함이요, 이제 정녕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가 자비를 얻을 것임이며, 자비를 얻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 같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14 "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었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복이 있다 이른 것같이, 너희는 말씀으로 인하여 진실로 스스로 겸손하여진 자들이 더욱 복있다 생각하지 않느냐? 15 진실로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 자기 죄를 회개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 같은 자는 복이 있으리니—참으로 자기의 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는 자들보다 훨씬 더 복되리라. 16 그러므로 어찌할 수 없어 겸손하게 됨이 없이 스스로 겸손하여진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곧 그보다 달리 말하자면, 참으로 믿기 전에 말씀을 알게 되거나, 또는 불가항력으로 알게 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마음의 완고함이 없이 침례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17 "참으로 이르기를, '네가 만일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면,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믿으리라 하는 자가 많으니라.'ㄱ 18 이제 내가 묻노니, 이것이 신앙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는 사람이 어떤 일을 알고 있으면 믿을 이유가 없음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알고 있음이라. 19 그럼 이제 단지 믿기만 하거나, 단지 믿을 근거만 가지고 범법에 빠지는 자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얼마나 더 저주를 받았느냐? 20 이제 이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판단해야 하거니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편이 어떠함같이, 저 편도 그러하니, 각 사람에게는 그 행위대로 되리라."

ㄱ17 앨마서 30:43 참조; 야곱서 7:13 비교

앨마$_2$가 신앙을 비유로 설명하다

21 "또 이제 내가 신앙에 관하여 말한 것같이—신앙이란 사물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 22 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며, 또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라노니,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자비로우시니, 그러므로 그는 먼저 너희가 참으로 그의 말씀을 믿기를 바라시느니라. 23 또 이제 그는 천사들로 그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되, 참으로 남자에게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그리하시거니와, 이제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어린아이들이 현명한 자와 학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을 받는 때가 많으니라.

24 "또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쫓겨났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게서 알기 원하였으니—이제 나는 내가 오직 참된 것을 좇는 것 이외에 너희를 판단하려 한다고 너희가 생각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5 이는 내 말이 너희 곧 너희 모두가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님이니, 이는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스스로 겸손하게 될 자가 너희 중에 있는 줄을 내가 진실로 믿음이니라.

26 "이제 내가 신앙에 관하여 이른 것같이—곧 그것은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한 것같이—내 말도 그러하니라. 신앙이 완전한 지식이 아닌 것처럼, 내 말의 확실함도, 너희가 처음부터 완전히 알 수는 없느니라. 27 그러나 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능력을 일깨우고 환기시켜, 참으로 내 말을 시험하기에 이르며, 아주 작은 신앙을 행사하려 할진대, 참으로 설혹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를, 곧 너희가 믿어 내 말의 일부를 위한 자리를 내줄 수 있기까지 그리하라.

28 "이제 우리는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리라.[ㄱ] 이제 만일 너희가 자리를 내주어 씨앗 하나가 너희 마음에 심어졌다면, 보라 그것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이라면, 너희가 너희의 믿지 않음으로 그것을 내어 버려, 주의 영을 물리치지 아니할진대, 보라, 그것은 너희 가슴 속에서 부풀기 시작하리니, 이 부푸는 움직임을 너희가 느낄 때에, 너희가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기를—'이것은 좋은 씨앗임에, 곧 그 말씀은 선함에 틀림없도다. 이는 이것이 내 영혼을 크게 하기 시작함이라. 참으로 이것은 나의 이해력을 밝혀 주기 시작하나니, 참으로 이것은 내게 기쁨을 주기 시작하는도다' 하리라. 29 이제 보라, 이것이 너희의 신앙을 키워 주지 않겠느냐? 내가 이르노니, 그러하도다.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지식으로 다 자란 것은 아니니라.

30 "그러나 보라, 씨앗이 부풀고,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매, 너희가 반드시 말하기를 씨앗이 좋다 하리니, 이는 보라, 그것이 부풀고,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함이라. 또 이제 보라, 이것이 너희 신앙을 강하게 하지 않겠느냐? 참으로 이는 너희의 신앙을 강하게 하리라.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이것이 좋은 씨앗인 줄 내가 아노니, 이는 보라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함이라' 할 것임이니라. 31 또 이제 보라, 너희는 이것이 좋은 씨앗임을 확신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하도다. 이는 모든 씨앗은 각기 그 닮은 것을 냄이라. 32 그러므로 만일 씨앗이 자라면 이는 좋은 씨앗이어니와, 만일 자라지 아니하면, 보라 이는 좋은 씨앗이 아니니, 그러므로 버리우느니라.

33 "또 이제 보라, 너희가 시험을 해 보아 씨앗을 심었고, 이에 그것이 부풀고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하니, 이로 인해 너희는 그 씨앗이 좋은 줄을 반드시 알리라. 34 또

[ㄱ]28 앨마$_2$가 시험해 보라고 했던 그 "말씀"은 앨마서 34:3~6에서 앰율레크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정의됨

이제 보라, 너희의 지식은 완전하냐? 그러하도다. 그 일에 있어서 너희의 지식은 완전하며, 너희의 신앙은 휴면 중에 있도다. 이는 너희가 앎으로 인함이니, 이는 말씀이 너희 영혼을 부풀게 한 줄 너희가 알며, 또 그것이 싹이 나서 너희의 이해력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너희의 생각이 넓어지기 시작한 줄을, 또한 너희가 앎이라. 35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실이니라. 이는 그것이 빛인 연고요, 또 무엇이든지 빛 된 것은 선하니, 이는 그것이 분별할 수 있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것이 선한 것인 줄 너희가 반드시 알리라. 또 이제 보라 너희가 이 빛을 맛보고 난 후 너희의 지식은 완전하냐? 36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신앙을 버려 두어서도 아니 되나니, 이는 너희가 다만 씨앗이 좋은 것인지 알기 위하여 시험을 해 보고자 씨앗을 심을 만큼 너희의 신앙을 행사한 것에 불과함이니라.

37"또 보라,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매, 너희가 말하기를, '크게 주의하여 이를 가꾸어, 그것으로 뿌리를 얻게 하고, 그리하여 그것이 자라서, 우리를 위해 열매를 맺게 하자' 하리니, 이제 보라, 만일 너희가 많은 보살핌으로 나무를 가꾸면, 그것이 뿌리를 얻겠고, 크게 자라 열매를 맺을 것이라. 38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무를 소홀히 하여, 그 가꿀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보라 그것은 아무 뿌리도 얻지 못하리니, 태양의 열기가 와서 그것을 태우면, 그것이 뿌리가 없으므로 마르고, 너희는 이를 뽑아 내버리느니라. 39이제 이는 씨앗이 좋지 않았던 까닭이 아니요, 그 열매가 탐스럽지 못할 것이기 때문도 아니라. 다만 그것은 너희의 토지가 메마르고, 너희가 나무를 가꾸려 아니한 연고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얻을 수 없느니라. 40또 이러므로 너희가 신앙의 눈으로 그 열매를 고대하며, 말씀을 가꾸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결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딸 수 없느니라.

41"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의 신앙으로 큰 부지런함을 가지고, 또 인내를 가지고 그 열매를 고대하며 말씀을 가꾼다면, 참으로 나무가 자라기 시작할 때 이를 가꾼다면, 그것은 뿌리를 내리리니, 보라 영생으로 솟아오르는 나무가 되리라. 42또 말씀을 가꾸어 그것으로 너희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려는 너희의 부지런함과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인내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보라 너희가 지극히 귀하고, 감미로운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감미로우며, 흰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희며,[ㄱ] 순결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순결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이 열매를 배부르도록 흡족히 먹게 되리니, 너희가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43그때 나의 형제들아, 나무가 너희에게 열매 맺기를 기다린 바,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부지런함과 인내와 오래 참음의 보상을 너희가 거두게 되리라."

앨마$_2$가 기도에 대한 선지자 지노스의 말을 인용하다

33 이제 앨마가 이 말을 하고 난 뒤, 그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말한 이 열매를 얻으려면 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곧 그들의 마음에 반드시 심어야 한다고 그가 말한 씨앗, 곧 말씀은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즉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해야 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2이에 앨마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말에 너희가 회당에서 쫓겨난 까닭에 너희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하였으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크게 잘못하는 것이니, 너희는 경전을 상고해 보아야 하리라. 만일 너희가 경전이 이를 너희에게 가르쳤다고 생각한

[ㄱ] 42 앨마$_1$는 이 열매를 리하이의 꿈에서 나온 말로 묘사하고 있음; 니파이전서 8:11; 15:36 참조

다면, 너희는 경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니라. 3 너희는 옛 선지자 지노스가 기도
곧 예배에 관하여 무엇이라 말했는지 읽은 것을 기억하느냐?
4 "'이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시여,
내가 광야에 있을 때에도
내 기도를 들으셨사오니 자비로우시나이다.
참으로 내가 내 원수인 자들에 관하여
기도했을 때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내게로 돌리셨나이다.
5 하나님이시여, 그뿐 아니라 내가 나의 밭에서 주께 부르짖었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셨사오니,
내가 나의 기도 중에 주께 부르짖었을 때,
나를 들으셨나이다.
6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여, 내가 나의 집으로 돌이켰을 때
주는 내 기도 중에 나를 들으셨나이다.
7 또 주여, 내가 나의 골방으로 돌이켜
주께 기도했을 때,
나를 들으셨나이다.
8 참으로 주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사람의 들음이 아니요
주의 들으심을 얻고자 주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오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들으시리이다.
9 참으로 하나님이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회중 가운데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나이다.
10 또한 내가 쫓겨나 나의 원수들에게 멸시를 받을 때에도
나를 들으시되,
참으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 진노하사,
분노 중에 신속한 멸망으로 그들을 벌하셨나이다.
11 또 나의 고난과 나의 성실함으로 인하여
나를 들으셨사오며,
또 나를 그처럼 긍휼히 여기신 것은
주의 아들을 인한 것이오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모든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는 주께 나의 기쁨이 있음이니이다.
이는 주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의 심판을 내게서
돌이키셨음이니이다' 하였음이니라."

앨마$_2$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다

12 또 이제 앨마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옛 사람들이 기록한 저 경전들을 믿느냐?
13 보라, 너희가 믿는다면, 지노스가 말한 것을 믿어야만 할지니, 이는 보라 그가 말하기를, '주의 아들로 말미암아 주의 심판을 돌이키셨나이다' 하였음이라.ㄱ 14 이제 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경전을 읽었는지 내가 묻고자 하노라. 그리하였다면 어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

15 "이는 지노스 홀로 이러한 일에 대하여 말했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음이니, 지노크 역시 이러한 일에 대하여 말하였느니라— 16 이는 보라, 그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 백성에게 노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아들로 인하여 그들에게 내리신 주의 자비를 그들이 깨닫고자 아니하는 연고로소이다' 하였더라. 17 또 이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보는 바 두 번째 옛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였거니와, 백성들이 그의 말을 깨닫고자 아니한 고로 그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느니라.

18 "그러나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말한 자가 이들뿐이 아니니라. 19 보라, 모세가 그에 대하여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ㄴ 보라 광야에서 한 예표가 들려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였었나니, 이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살았느니라. 20 그러나 그 일의 의미를 깨달은 자가 거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연고라. 그러나 심히 완악하게 되어서 보려고 아니한 자들이 많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하였느니라. 그들이 보려고 아니한 이유는 그것이 그들로 낫게 하리라고 믿지 아니한 까닭이라.ㄷ

21 "내 형제들아, 너희가 낫도록 너희 눈길을 던지기만 함으로써 너희가 나을 수 있다면, 너희가 속히 바라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그보다는 믿지 않음 가운데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게으름을 피워, 너희 눈길을 던지지 않아 멸망당하겠느냐? 22 만일 그렇다면 화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 눈길을 던져 하나님의 아들을 믿되, 곧 그가 자기 백성을 구속하러 오실 것과 또 그가 그들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실 것을 믿기 시작할지니, 이로써 부활이 이루어져, 모든 사람이 그의 앞에 서서 마지막 심판 날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리라.

23 "또 이제 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심고 그것이 부풀기 시작할 때 너희의 신앙으로 이를 가꾸기 바라노라. 그리하면 보라, 이는 너희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오르는 나무가 되리라.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쁨을 통하여, 너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시기를 비노라. 또 만일 너희가 원하면 참으로 이 모두를 너희가 할 수 있느니라. 아멘."

ㄱ 13 위 11절 ㄴ 19 신명기 18:15, 18~19; 니파이전서 22:20; 제3니파이 20:23 (사도행전 3:22~23) ㄷ 20 니파이전서 17:41; 민수기 21:4~9

앰율레크가 가난한 조램인들[2]에게 한 설교

앨마서 34장

앰율레크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획을 설명하다

34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이 말을 그들에게 하고 난 후 땅에 앉으니, 앰율레크가 일어나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여 이르되, [2]"내 형제들아,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말하여져 온 것을 너희가 모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노니, 참으로 나는 너희가 우리 중에서 떨어져 나가기 전에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충분히 가르친 바 된 줄을 아노라.ㄱ [3]또 너희가 너희의 고난으로 인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너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 주기를 원하였으매, 이에 그는 너희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얼마간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한 신앙을 갖고 인내하도록 너희를 권면하였나니— [4]참으로 너희가 말씀의 선함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너희 마음에 말씀을 심어 볼 만큼의 신앙이라도 가질 것을 권면하였도다.

[5]"이에 우리는 너희 마음 속에 있는 큰 의문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지, 또는 그리스도가 없을 것인지 하는 것임을 보았느니라. [6]너희는 또한 많은 경우에, 나의 형제가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구원에 이르게 함을, 너희에게 증명한 것을 보았느니라. [7]나의 형제는 구속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온다는 지노스의 말을 인용하였고, 또한 지노크의 말도 인용하였으며, 또한 그는 이러한 것이 참됨을 증명하기 위하여 모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느니라.ㄴ

[8]"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이 참됨을 나 스스로 너희에게 증거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범법을 짊어지시기 위하여,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오실 것과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이를 말씀하셨음이니라.ㄷ [9]이는 속죄가 이루어져야 마땅함이니,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속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함이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는 필경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참으로 모두가 완악하게 되었고, 참으로 모두가 타락하여 잃은 바 되었은즉,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속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10]이는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이 있어야 마땅함이니, 참으로 사람의 희생도 아니요, 짐승이나 여하한 새의 희생도 아니라. 이는 그것이 사람이 드리는 희생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필연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이 될 것임이라.

[11]"이제 자기의 피를 희생하여 남의 죄를 위해 속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이제 누가 살인하면, 보라 공의로운 우리의 법이 그의 형제의 목숨을 취하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아니라. [12]다만 법은 살인한 자의 목숨을 요구하나니, 그러므로 무한한 속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충분할 것은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13]그러므로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이 있어야 마땅하리니, 그렇게 되면 피 흘리는 일이 그치게 될 것이요, 곧 그침이 마땅하며, 그렇게 되면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지리니, 참으로 일점일획도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도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14]또 보라, 이것이 율법의 온 뜻이니, 곧 모든 것이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을 가리킴이라. 또 저 크고도 마지막이 되는 희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참으로 무한하고 영원하니라.

ㄱ2 앨마서 30:59; 31:1~2 ㄴ7 앨마서 33:12~19 ㄷ8 모사이야서 3:5~11 참조

15"또 이리하여 그는 그의 이름을 믿을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리라. 이 마지막 희생의 의도는 이것이니, 곧 공의를 이기고,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갖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는, 자비의 심정을 일으키는 것이라. 16또 이리하여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그들을 안전한 팔 안에 감싸주거니와, 한편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의의 요구의 온 율법에 드러나게 되나니,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만 크고도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느니라."

앰율레크가 조램인들$_2$에게 기도하기를 권유하다 ㄱ

17"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로 회개에 이르는 너희의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하게 하시고, 너희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게 하사,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18 참으로 그에게 부르짖어 자비를 구하라.
이는 그가 구원하시기에 능하심이라.
19 참으로 스스로 겸손하고,
쉬지 말고 그에게 기도하라.
20 너희가 너희의 들에 있을 때,
참으로 너희의 모든 양 떼를 위해 그에게 부르짖으라.
21 너희의 집에서,
참으로 너희의 모든 권속을 위해,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그에게 부르짖으라.
22 참으로 너희 원수들의 권력을 막아 주시도록 그에게 부르짖으라.
23 참으로 모든 의의 원수인 악마를
막아 주시도록 그에게 부르짖으라.
24 너희 밭의 작물을 위해 그에게 부르짖어,
그것들로 너희가 형통하게 하라.
25 너희 들판의 양 떼를 위해 부르짖어,
그것들로 증식하게 하라.

26"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너희는 너희의 골방과 너희의 은밀한 장소에서 또 너희의 광야에서 너희의 영혼을 쏟아 내어야만 하느니라. 27또한 너희가 주께 부르짖지 아니할 때는, 너희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너희의 복리와, 또한 너희 주위에 있는 이들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그에게 기도하는 데 너희 마음을 기울이도록 하라.
28"또 이제 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모두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만일 궁핍한 자와, 헐벗은 자를 물리치며, 병들어 고난당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가진 것이 있을 때, 곤궁에 처한 자들에게 너희의 재물을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이러한 일 중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의 기도는 헛되고, 너희에게 무익하며, 너희는 신앙을 부인하는 위선자와 같음이니라. 29그러므로 너희가

ㄱ17 이 부분은 앨마서 33:4~11에서 앨마$_2$가 인용했던 기도에 대한 지노스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임; (그리고 부유한 조램인$_2$들의 래미움프톰 기도에 대한 반박임; 앨마서 31:12~23 참조)

자애롭기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정련하는 자가 (아무 가치가 없어) 내어버리므로,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히는 찌꺼기와 같으니라."[ㄱ]

앰율레크가 조램인들$_2$에게 회개하기를 권유하다

30"이제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그처럼 많은 증거를 받았고, 거룩한 경전이 이러한 것을 증거함을 보았은즉, 너희가 나아와 회개에 이르는 열매 맺기를 바라노라. 31참으로 너희가 나아와 더 이상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기를 바라노니, 이는 보라 지금이 너희의 구원의 때와 날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즉시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32이는 보라,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

33"또 이제 내가 앞서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너희가 그처럼 많은 증거를 가졌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회개의 날을 끝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영원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이 날 후에는, 보라, 우리가 이 생에 있는 동안 우리의 시간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그 후에는 아무 일도 수행할 수 없는 어둠의 밤이 옴이니라. 34너희가 저 참담한 위기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회개하겠노라,' '내가 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할 수 없느니라.' 참으로 너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나니, 이는 너희가 이 생을 떠날 때에 너희 몸을 소유하는 그 동일한 영, 그 동일한 영이 저 영원한 세상에서 너희 몸을 소유할 능력을 가질 것임이니라. 35이는 보라, 만일 너희가 죽기까지 너희의 회개의 날을 미루었다면 너희는 악마의 영에 복종하게 되었고, 그는 너희를 자기의 것으로 인 치나니, 그러므로 주의 영은 너희에게서 물러나,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며, 악마가 너희를 다스릴 모든 권능을 가짐이라. 이것이 악인의 마지막 상태니라.

36"또 이를 내가 아는 것은, 주께서는 거룩하지 않은 성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ㄴ] 의로운 자들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의인들은 그의 나라에 앉아, 다시는 나가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옷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희게 되리라고 또한 말씀하신 연고니라.[ㄷ]

37"이에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러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더 이상 부인하지 말며, 38성신을 대적하여 더 이상 다투지 말고, 도리어 이를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티끌에까지 스스로 겸손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가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많은 자비와 축복을 매일 감사드림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노라.

39"참으로 이뿐 아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내 형제들아 너희는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여, 악마의 유혹에 이끌려 가지 않도록 하고, 그리하여 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너희가 그의 예속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는 보라, 그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지 아니함이니라.

40"또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고자 하노니, 너희는 인내를 가지고, 온갖 고난을 참고, 너희의 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자들을 욕하

[ㄱ] 29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자애롭지 않기 때문에; 앨마서 32:3 참조 [ㄴ] 36 모사이야서 2:37; 앨마서 7:21 [ㄷ] 36 출처는 명확하지 않으나 앨마가 선호하는 인용구임. 앨마서 5:24; 7:25; 29:17; 38:15 참조. 마태복음 8:11; 누가복음 13:28~29 비교

지 말라. 너희가 그들과 같은 죄인이 될까 하노라. 41 다만 너희는 인내를 갖고, 언젠가 너희의 모든 고난에서 놓여 쉬게 되리라는 굳은 소망으로, 그러한 고난을 참으라."

회개한 조램인들$_2$이 쫓겨나다

35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앰율레크가 이 말을 마친 후, 그들이 무리에게서 물러나 여어숀 땅으로 넘어 왔느니라. 2 참으로 또한 나머지 형제들도, 조램인들에게 말씀을 전파한 후, 여어숀 땅으로 넘어왔더라.

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조램인들 가운데 보다 영향력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전파된 말씀에 관하여 함께 의논한 후, 말씀으로 인하여 노하니, 이는 그 말씀이 저들의 간계를 무너뜨림이라. 그러므로 저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고 저들은 사람을 보내어 그 온 땅에서 모든 백성을 함께 모으고, 그들과 더불어 전파된 말씀에 관하여 의논하였더라. 5 이제 그들의 통치자와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교사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의 원하는 바를 알게 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저들이 은밀히 모든 백성의 생각을 알아내었더라.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모든 백성의 생각을 알아 낸 후, 앨마와 그의 형제들이 한 말씀을 좋게 여기는 자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니, 그들의 수효가 많았고, 그들 역시 여어숀 땅으로 넘어왔더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와 그의 형제들이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니라.

8 이제 조램인 백성들이 여어숀 땅에 있는 암몬 백성에게 노하였고, 조램인의 두령은 매우 간악한 자더니, 그가 암몬 백성에게 사람을 보내어 저들에게서 그들의 땅으로 넘어온 자들을 다 그들의 땅에서 쫓아낼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였더라. 9 또 저가 그들에게 대하여 많은 위협을 토하였으나, 암몬 백성들은 저들의 말을 겁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을 쫓아 내지 아니하고, 자기들에게로 넘어온 가난한 조램인들을 모두 받아들여, 그들을 양육하고, 입혔으며, 그들에게 땅을 주어 그들의 기업을 삼게 하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에게 베풀어 주니라.

조램인들$_2$이 레이맨인들과 협력하다

10 이제 이 일이 조램인들을 선동하여 암몬 백성에게 대하여 노하게 한지라, 저들이 레이맨인들과 섞이며 그들도 암몬 백성에게 대하여 노하게 하기 시작하니라. 11 이에 이리하여 조램인들과 레이맨인들은 암몬 백성과 또한 니파이인들을 칠 전쟁 준비를 하기 시작하니라. ㄱ 12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칠년이 끝났느니라. ㄴ

13 이에 암몬 백성은 여어숀 땅을 떠나, 밀렉 땅으로 넘어와서, 여어숀 땅에 니파이인들의 군대를 위해 자리를 내주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레이맨인들의 군대와 조램인들의 군대와 더불어 싸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이리하여 판사 치세 제십팔년에 레이맨인과 니파이인 간에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ㄷ 그들의 전쟁에 관한 기사는 이후에 주어지리라. ㄹ

14 또 앨마와 암몬과 그들의 형제들과 또한 앨마의 두 아들은 ㅁ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많은 조램인들을 회개로 인도한 후,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돌아왔으며, 또 회개로 인도된 자들은 모두 저들의 땅에서 쫓겨났으나, 여어숀 땅에서 그들의 기업

ㄱ 11 전쟁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앨마$_2$가 조램인들$_2$을 선교한 이유였으나 오히려 그의 설교와 그로 인한 개종이 전쟁의 주요 원인을 초래했음; 알마서 31:3–5 참조 ㄴ 12 –75년; 앨마서 30:5 참조 ㄷ 13 –74년 ㄹ 13 여기서 기약된 이야기는 앨마서 43~44에 나옴 ㅁ 14 시블론$_2$과 코리앤톤; 앨마서 31:7 참조

을 위한 땅을 가지며, 또 그들은 자기와 자기의 아내와 자녀들과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하여 무기를 들었더라.

앨마$_2$가 그의 아들들에게 한 간증의 소개

15 이제 앨마는 그의 백성의 죄악으로 인하여, 참으로 전쟁과 유혈과 그들 가운데 있는 다툼으로 인하여 비통하게 되었고, 또 각 성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러 갔었은즉, 곧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으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과 말씀의 엄격함으로 인하여 성을 내기 시작함을 보고, 그의 마음은 심히 슬퍼졌더라. 16 그리하여 그는 의에 관한 것에 대하여 자기 아들들에게 각각 따로 그의 지시를 주고자, 그들로 함께 모이게 하였나니, 그 자신의 기록대로 그들에게 준 명령의 기사가 우리에게 있느니라.ㄱ

앨마$_2$가 그의 아들들에게 한 간증

앨마서 36~42장

힐라맨$_2$에게 한 앨마$_2$의 말

앨마서 36~37장

앨마가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준 명령.

명심할 일과 깨우침ㄴ

36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네게 맹세하거니와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네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임이니라.ㄷ 2 나는 네가 내가 행한 대로 행하여, 우리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것을 기억하기 바라노니,ㄹ 이는 그들이 속박 가운데 있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들을 건져 낼 수 없었음이라. 그러나 그가 정녕 그들을 그들의 고난 중에 건지셨느니라.

3 "또 이제 내 아들 힐라맨아, 보라 네가 네 젊음의 때에 있은즉, 그러므로 내가 네게 구하노니 너는 내 말을 듣고 내게서 배우라. 이는 내가 알거니와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들리움을 받을 것임이니라. 4 또 나는 내가 내 스스로로 말미암아 안다고 네가 생각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현세적인 것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말미암고, 속된 생각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아는 것이니라. 5 이제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만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러한 일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천사의 입으로, 내게 이러한 일들을 알게 하셨나니,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의 합당함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니라.

ㄱ16 앨마서 36~42는 1인칭 서술형 음성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여기부터 몰몬$_2$이 앨마$_2$의 기록을 본문에 있는 그대로 직접 베낀 것으로 보임 ㄴ1 앨마서 36장은 히브리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차 배열로 정리 되어있음; 핵심 요소를 제시하고 역순으로 반복하면서 17절과 18절의 "하나님의 아들…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번의 등장이 그 배열의 축이 됨 ㄷ1 니파이후서 1:20 ㄹ2 모사이야서 27:16; 앨마서 5:3~6; 29:11~12

앨마$_2$가 그의 개심을 이야기하다

6 "이는 내가 모사이야의 아들들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꾀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천사를 보내사 길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셨느니라.┐ 7 또 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한즉, 마치 우레 소리와도 같았나니, 우리 발 아래 온 땅이 흔들렸고, 또 우리가 땅에 엎드러졌나니, 이는 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이라. 8 그러나 보라, 그 소리가 내게 이르기를, '일어나라' 한 고로, 내가 일어나 서서, 천사를 쳐다보았느니라. 9 이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네가 스스로는 멸망당하기 원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무너뜨리기를 꾀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땅에 엎드러졌고, 내가 내 입을 열지 못하고, 내 사지를 쓰지 못한 것이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이었느니라. 11 또 천사가 내게 더 말하였으되, 내 형제들은 들었으나, 나는 듣지 못했나니, 이는 내가—'그 말 곧 네가 스스로는 멸망당하기 원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무너뜨리기를 꾀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혹시 내가 멸망당하지나 않을까 하여 심히 큰 두려움과 놀라움에 사로잡혀, 땅에 엎드러져 더 이상 듣지 못하였음이니라. 12 그러나 내가 영원한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였나니, 이는 내 영혼이 극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내 모든 죄로 고통을 당하였음이라.

13 "참으로 나는 내 모든 죄와 불의를 기억하였노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가 내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였음과 그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14 그뿐 아니라 나는 그의 자녀를 많이 살해하였으며, 아니 그보다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내었으며, 그뿐 아니라 요컨대 나의 죄악이 심히 컸으므로, 내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영혼은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15 '오' '나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받으러, 내 하나님의 면전에 이끌려 나가 서지 않도록, 내가 추방되어, 영혼과 육신이 모두 없어질 수 있다면' 하고 내가 생각하였느니라. 16 이에 이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내가 실로 저주받은 영혼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1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같이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내가 내 많은 죄의 기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보라 내가 또한 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려 오실 것에 관하여 백성에게 예언하시는 것을 들은 것을 기억하였느니라. 18 이제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가 내 마음 속에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쓰디쓴 담즙에 빠져 있고, 사망의 영원한 사슬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였느니라.

19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이 생각을 하였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 참으로 나는 더 이상 내 죄의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0 그리고 오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기이한 빛을 내가 보았던고! 참으로 내 영혼은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찼느니라! 21 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아들아, 나의 고통같이 그처럼 격심하고 그처럼 쓰디쓴 것은 있을 수 없으리라. 그뿐 아니라 다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아들아, 한편으로 나의 기쁨같이 그처럼 훌륭하고 감미로운 것은 있을 수 없느니라. 22 참으로 나는 우리 조상 리하이가 본 것같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으사, 노래하며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의 무수한

┐6 이 경험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들은 모사이야서 27:8~37; 앨마서 26:17~20; 38:6~8에 나옴

무리의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신 것을 보았다고 생각하였나니,[ㄱ] 참으로 내 영혼은 거기 있기를 사모하였더라. [23]그러나 보라, 내 사지가 도로 그 힘을 얻으매, 내가 내 발로 서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음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였느니라.

앨마$_2$가 그의 개심 후의 신실함을 설명하다

[24]"또한 그때로부터 참으로 지금까지, 내가 쉬지 않고 수고해 온 것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며, 내가 맛본 심히 큰 기쁨을 그들도 맛보게 하며, 그들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고자 함이라. [25]또한 이제 보라, 내 아들아, 주께서는 내 수고의 결실로 심히 큰 기쁨을 내게 주시나니, [26]이는 그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보라, 많은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내가 맛본 것같이 맛보며, 내가 본 것같이 눈과 눈을 마주하여 보았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내가 아는 것같이, 내가 말한 이러한 일에 대하여 알고 있나니, 내가 가진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27] 또 나는 지금까지 온갖 시험과 곤경하에서와,
또한 온갖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입었나니,
참으로 하나님은 나를 옥에서와,
결박에서와, 사망에서 건지셨느니라.
또한 나는 이제도 그를 신뢰하노니,
그가 여전히 나를 건지시리라.
[28] 또 나는 그가 마지막 날에 나를 일으키사,
영광 중에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실 것을 아노라.
또한 내가 영원히 그를 찬양하리니,
이는 그가 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내시고,
애굽인들을 홍해에 삼키시고,[ㄴ]
또 그의 권능으로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으며,
또한 시시로 그들을 속박과
사로잡힘에서 건져 내셨음이니라.
[29] 참으로 그뿐 아니라 그는 또한 우리 조상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으며,
또한 그의 영원하신 권능으로써,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시로
그들을 속박과 사로잡힘에서 건져 내셨나니,
나는 그들이 사로잡혔던 것을 항상
기억 속에 간직해 왔느니라.

그러한즉 너희도 내가 한 것같이, 그들의 사로잡혔던 것을 마땅히 기억 속에 간직할지니라. [30]그러나 보라, 내 아들아,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이는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임을,

[ㄱ] 22 영어 원문에서는 "우리 조상 리하이가 . . . 생각하였나니"의 21마디가 니파이전서 1:8에서 단어 그대로 똑같이 인용됨 [ㄴ] 28 출애굽기 14:26~28

내가 아는 것같이, 너도 알아야 할 것임이요,

또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그의 면전에서 끊어질 것임을 네가 또한 알아야 할 것임이니라."

이제 이는 그의 말씀에 따른 것이니라.ㄱ

앨마$_2$가 힐라맨$_2$에게 거룩한 기록을 보전하라고 명하다ㄴ

37 "그리고 이제 나의 아들 힐라맨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내가 맡아 온 기록들을 취하라.ㄷ 2그리고 내가 또 네게 명하노니 너는 니파이의 판에 내가 해 온 대로 이 백성에 대한 기록을 계속하고, 내가 간수해 온 이 모든 것을, 내가 간수해 온 것같이 거룩히 간수하라. 이는 이것이 간수되는 것이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해서임이라.ㄹ 3또 이 새긴 것들을 담고 있고, 거룩한 경전의 기록이 있으며, 태초로부터의 우리 선조들의 족보가 실려있는 이 놋쇠판은—

4"보라, 우리 조상들이 예언하기를 이것은 간수되어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되어 내려갈 것이며, 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나아가, 그들이 그에 실린 비밀에 대해 알게 될 때까지, 주의 손으로 간수되고 보존될 것이라 하였느니라.ㅁ 5또 이제 보라, 이 판이 만일 보존된다고 하면 그 광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것이니, 과연 그 광채를 유지할 것이며, 참으로 또한 성스러운 기록을 담고 있는 모든 판이 다 그러하리라.

6"이제 너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이라 생각할지 모르나,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 많은 경우에 작은 방편이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7또 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고 영원한 목적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방편으로 일하시나니, 주께서는 아주 작은 방편으로 현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많은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느니라.

8"또 이제 이러한 것이 보존됨은 지금까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였나니, 이는 보라, 이러한 것이 이 백성의 기억을 넓혀 주었고, 또한 많은 자들에게 그들의 길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였음이라. 9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판에 있는 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이러한 것이 아니었다면,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그처럼 많은 수천의 레이맨인들에게 그들 조상의 그릇된 전통을 깨닫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ㅂ 참으로 이 기록과 저들의 말이 그들을 회개로 인도하였나니, 곧 그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하고, 그들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게 하였느니라. 10그런즉 이것이 수천의 레이맨인과 그뿐 아니라 또한 목이 뻣뻣한 수천의 우리 형제들, 곧 죄와 불의 가운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는 니파이인들을, 그들의 구속주에 대한 지식으로 인도할 방편이 될지 누가 아느냐?

11"이제 이 비밀이 아직 내게 완전히 알려지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삼가리라. 12그리고 만일 내가 다만 이것이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하여 보존되고 있으며, 그 목적은 하나님께 알려져 있다고 말하면 그것으로 족하리니, 이는 그가 그 지으신 모든 것을 지혜로 다스리심이며, 그의 길은 곧고, 그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임이니라.

ㄱ30 니파이후서 1:20 ㄴ1 그 기록들은 실제로 앨마서 45:1까지 힐라맨$_2$에게 전달되지 않았음 ㄷ1 모사이야서 28:20 ㄹ2 힐라맨$_2$은 사실 앨마$_2$가 첫 번째로 지정하려던 기록 보유자가 아니었음을 알수있음; 앨마서 50:37~38 참조 ㅁ4 니파이전서 5:17~19 참조; 놋쇠판 외에 거룩한 기록에 대한 예언은 니파이후서 25:21에 나옴 ㅂ9 앨마서 18:36~38; 22:12~14

13 "오 기억하라, 내 아들 힐라맨아,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 기억하라. 또 그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킬진대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되리라.ㄱ

14 또 이제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네게 맡기셨음을 기억하라. 이는 거룩한 것이요, 그가 거룩히 지켜 오신 것이며, 또한 그가 자기 안에 있는 한 현명한 목적을 위하여 지키고 보전하실 것이니, 이는 장래 세대에게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심이니라.

15 "또 이제 보라, 내가 예언의 영으로 네게 말하노니, 만일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면, 보라, 거룩한 이것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네게서 빼앗아 가실 것이요, 너는 사탄에게 넘기우리니, 그가 너를 바람 앞의 겨같이 체질하리라. 16 그러나 만일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이것들을 가지고 행하기를 주께서 네게 명하시는 바대로 하면, (이는 네가 이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든지 모든 일을 주께 간구해야 함이라) 보라, 땅이나 지옥의 능력이 이것들을 네게서 빼앗지 못하리니,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므로 그의 모든 말씀을 이루심이니라.

17 "이는 그가 너희에게 하실 그의 약속을 다 이루실 것임이니, 이는 그가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의 약속을 이루셨음이라. 18 이는 그가 장래 세대에게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자기 안에 있는 한 현명한 목적을ㄴ 위해 이것들을 보전하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음이니라. 19 또 이제 보라, 한 가지 목적을 그가 이루셨으니, 그 결과 수천의 레이맨인들이 진리의 지식에로 회복되었느니라. 또 그가 이것들로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셨으니, 그가 또한 이것들로 장래 세대에게 여전히 그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리라. 그러므로 이것들은ㄷ 보존될 것이니라. 20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내 아들 힐라맨아, 너는 내 말을 다 이루기에 부지런할지며, 또 너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부지런하라."

앨마$_2$가 힐라맨$_2$에게 야렛인들의 기록과 해석기들에 대해서 가르치다ㄹ

21 "그리고 이제 내가 저 스물넉 장의 판에 관하여 네게 말하리니, 너는 그 판들을 간수하라. 그리하여 비밀과 어둠의 일과 그들의 은밀한 일들 곧 멸망당한 저 백성의 은밀한 일들이 이 백성에게 밝혀지게 하라. 참으로 그들의 모든 살인과 강탈함과 그들의 약탈함과 그들의 모든 간악함과 가증함이 이 백성에게 밝혀지게 할지며, 또한 너는 이 해석기들을 보전하라. 22 이는 보라, 주께서 그 백성이 암흑 가운데서 일하기 시작한 것을, 참으로 은밀한 살인과 가증함을 행하기 시작한 것을 보셨음이니,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지면에서 멸망당하리라 하셨느니라.ㅁ

ㄱ 13 여기 문구는 영어 원본의 니파이후서 1:20을 반영함 ㄴ 18 니파이전서 9:5; 몰몬의 말씀 1:7 비교 ㄷ 19 영어로 "they"(여기의 "이것들은")는 니파이인들의 기록을 의미하는지 레이맨인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ㄹ 21 야렛인들의 기록은 림하이의 백성들이 발견했음; 모사이야서 8:9; 28:11~19; 이더서 1:1~2 참조 ㅁ 22 이더서 11:12

23"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종 게이젤렘에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비출 돌 하나를 예비해 주어, 나를 섬기는 내 백성에게 드러내되, 그들에게 그 형제들의 행위, 곧 그들의 은밀한 일과 그들의 어둠의 일과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한 일들을 드러내리라' 하셨느니라. 24또 이제 내 아들아, 이 해석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비된 것이니라, 곧 그가 하신 말씀이니 이르시되, 25'내가 그들의 은밀한 일과 그들의 가증한 일들을 다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드러낼 것이며, 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을 지면에서 멸망시킬 것이며, 또 그들의 은밀함과 가증함을 이후에 이 땅을 소유할 모든 국민에게 다 드러내리라' 하셨느니라.ㄱ 26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우리가 알거니와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멸망당하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나니, 참으로 그들의 은밀한 가증함이 어둠에서 드러나 우리에게 알려졌느니라.

27"또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그들이 은밀한 가증함으로 행한 그들의 맹세와 그들의 언약과 그들의 맹약을 모두 간직하고 또한 그들의 표적과 그들의 기사를 모두 너는 이 백성에게 알리지 말아서, 저들로 이를 알지 못하게 하라. 두렵건대 혹시라도 저들 역시 어둠에 떨어져 멸망당할까 하노라. 28이는 보라, 이 온 땅에 저주가 있어, 저 모든 어둠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좇아 멸망이 임할 것임이니, 곧 그들이 온전히 무르익을 때에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29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맹세와 그들의 언약의 이 은밀한 계획을 이 백성에게 알리지 말고, 다만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가증함만을 너는 저들에게 알릴지며, 또 너는 그 같은 간악함과 가증함과 살인을 극히 꺼리도록 저들을 가르칠지며,

"또 너는 저들에게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사악함과 가증한 일과 살인의 연고로 멸망당했음을 또한 가르칠지니라. 30이는 보라,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ㄴ 그들에게 선포하러 그들 가운데 왔던 주의 선지자들을 모두 살해하였고, 이에 그들이 살해한 선지자들의 피가 그 살해자인 그들 위에 복수가 임할 것을 주 저희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 어둠과 비밀 결사의 일꾼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31참으로 그뿐 아니라 이 땅은 어둠과 비밀 결사의 일꾼들에게는 영원히 저주받은 바 될지니, 그들이 온전히 무르익기 전에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멸망당하기에 이르리라."

힐라맨을 위한 앨마$_2$의 가르침

32"또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이른 말을 기억하라. 저 은밀한 계획을 이 백성에게 맡기지 말고, 그들에게 죄와 불의에 대한 영원한 증오를 가르치라.

33 그들에게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전파하라.
그들을 가르쳐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하라.
그들을 가르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악마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라.
34 그들을 가르쳐 선한 일에 결코 지치지 말게 하고,
다만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하라.

ㄱ25 모사이야서 12:8 비교 ㄴ30 이더서 9:29; 11:5

이는 그러한 자라야 자기 영혼에 안식을 찾을 것임이니라.

35 오 기억하라, 내 아들아, 그리하여 네가 젊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
참으로 네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
36 참으로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어 네 모든 도움을 구하라.
참으로 네 모든 행위로 주께 드리는 것이 되게 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주 안에서 행하도록 하라.
참으로 네 모든 생각으로 주를 향하게 하라.
참으로 네 마음의 사랑을 영원히 주께 두도록 하라.

37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 참으로 네가 밤에 누울 때 주께로 누워, 그로 네가 자는 동안 너를 지키시게 하고, 네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네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네가 들리움을 받으리라.

앨마$_2$가 예표로서 리아호나를 묘사하다

38"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우리 조상들이 공, 곧 지시기라 칭한 것—즉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리아호나라 하였나니, 이는 해석한즉, "나침반이요," 주께서 예비하셨던 것이라—에 관하여 내가 얼마간 말할 것이 있느니라. 39보라, 그처럼 신묘한 솜씨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또 보라, 그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그들이 광야에서 여행할 진로를 보여 주기 위해 예비되었더라. 40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신앙에 따라 그들을 위해 작동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침들로 하여금 그들이 가야할 길을 가리키게 하실 수 있다는 신앙이 있으면, 보라 그렇게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에게는 날마다 이 기적과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많은 기적들이 있었더라. ㄱ

41"그러할지라도 그 기적들이 작은 방편으로 이루어지는고로 그것이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보였으며, 그들이 게으르고 그들의 신앙과 부지런함을 행할 것을 잊으매 그 기이한 일이 그치고, 그들은 그들의 여행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였더라. 42그리하여 그들은 광야에서 머물렀으니, 곧 다시 말해 곧바른 진로로 여행하지 못하였고, 그들의 범법으로 인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난을 받았느니라. ㄴ

43"또 이제 내 아들아, 나는 이러한 일들이 그림자가 없지 아니함을 네가 깨닫기 바라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나침반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게을리 한즉 (이제 이러한 일은 현세적인 것이라) 그들이 형통하지 못한 것같이, 영적인 일도 그러함이니라. 44이는 보라,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곧바른 진로를 네게 가리켜 줄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우리 조상들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곧바른 진로를 그들에게 가리켜 준 나침반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만큼이나 쉬움이니라. 45또 이제 내가 말하노니, 이 일에 예표가 있지 아니하냐? 이는 이 지시기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그 진로를 따름으로써 약속된 땅에 이르게 하였음같이, 정녕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그 진로를 따를진대, 이 슬픔의 골짜기 너머 훨씬 더 나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임이니라.

ㄱ 40 니파이전서 16:10, 16, 26~30; 18:12, 21 ㄴ 42 니파이전서 17:4

46"오 내 아들아, 길이 쉬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게으르지 말지니, 이는 우리 조상들에게도 그러하였음이라. 이는 그들이 보면 살도록 그렇게 그들을 위해 예비되었음이니,ㄱ 우리에게도 그러하도다. 길은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가 볼진대 영원히 살리로다. 47또 이제 내 아들아, 주의하여 너는 이 거룩한 것들을 간수하라. 참으로 주의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라. 이 백성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또 진지하여라. 내 아들아, 잘 있으라."

시블론$_2$에게 한 앨마$_2$의 말

앨마서 38장

앨마가 그의 아들 시블론에게 준 명령.

시블론$_2$을 위한 앨마$_2$의 가르침

38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내가 힐라맨에게 일렀던 것같이 네게도 이름이니,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진대
네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네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될 것임이니라.ㄴ

2"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너의 굳건함과 하나님께 대한 너의 충실함으로 인하여, 내가 네게서 큰 기쁨을 얻을 줄로 믿노니, 이는 네가 젊었을 때 주 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같이, 참으로 그와 같이 네가 그의 계명 지키기를 계속할 것을 내가 바람이라. 이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음이니라. 3내 아들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조램인 백성들 가운데서 보인 너의 충실함과 너의 부지런함과 너의 인내와 너의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이미 네게서 큰 기쁨을 얻었느니라.ㄷ 4이는 네가 결박되어 있던 일을 내가 앎이요, 그뿐 아니라 네가 말씀을 위하여 돌로 맞은 일 또한 내가 앎이라. 네가 또 이 모든 일을 인내로 참았음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 연고니, 이제 너는 주께서 너를 건지신 줄을 아느니라.ㄹ

5"또 이제 내 아들 시블론아, 나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네가 네 시험과 네 곤경과 네 고난에서 건져 내심을 입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네가 들리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라노라.

6"이제 내 아들아, 나는 내가 내 스스로로 말미암아 이러한 것을 안다고 네가 생각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내게 이러한 일을 알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니라. 이는 만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임이니라. 7그러나 보라, 주께서는 그의 크신 자비 가운데 그의 천사를 보내사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망의 일을 멈추어야 할 것을 내게 선포하게 하셨나니, 과연 내가 한 천사를 대면하여 보았고, 그가 나와 말한즉, 그의 음성이 우레와 같았으며, 그 음성은 온 땅을 흔들었느니라. 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지독히 쓴 영혼의 고통과 고뇌 속에 있었고, 결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어

ㄱ46 민수기 21:7~9; 앨마서 33:19 ㄴ1 앨마서 36:1, 30; 37:13 참조; 니파이후서 1:20 비교 ㄷ3 앨마서 31:7; 35:14 ㄹ4 이 경험들에 대해서는 더 알려진 바 없음

자비를 구할 때까지, 내가 내 죄 사함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고 내 영혼에 평안을 찾았느니라.ㄱ

9"또 이제 내 아들아, 내가 이를 네게 이른 것은 너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방편이 달리 없고,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일 뿐임을 내게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

보라, 그는 세상의 생명이요 빛이시니라.
보라, 그는 진리와 의의 말씀이시니라.

10"또 이제 네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같이 나는 네가 가르치기를 계속하기 바라노라. 또 나는 네가 범사에 부지런하고 절제하기를 바라노라. 11주의하여 네가 자고함으로 교만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참으로 주의하여 네 스스로의 지혜나, 네 많은 힘을 자랑하지 말라. 12담대하되, 지나쳐 위압하지 말고, 또한 주의하여 네 모든 격정을 굴레 씌워, 네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 주의하여 게으름을 삼가라.

13"조램인들이 하듯 기도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려고, 또 자기의 지혜를 칭찬받기 위하여 기도함을 네가 보았음이니라.ㄴ 14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우리 형제들보다 나음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도리어 '주여 나의 합당하지 못함을 용서하시옵고, 자비하신 가운데 내 형제들을 기억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라—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너의 합당하지 못함을 늘 인정하라. 15그리고 주께서 네 영혼에 복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 너를 영접하사 그의 나라에 들이시고 평안히 앉게 하시기를 비노라. 내 아들아, 이제 가라, 가서 이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진지하여라. 내 아들아, 잘 있으라."

코리앤톤을 위한 앨마$_2$의 가르침

앨마서 39~42장

앨마가 그의 아들 코리앤톤에게 준 명령.

코리앤톤의 죄들

39 "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네게는 내가 네 형에게 말한 것보다 말할 것이 얼마간 더 있나니, 보라, 너는 네 형의 굳건함과 그의 충실함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에 있어 그가 부지런한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그가 네게 좋은 본을 보이지 아니하였느냐? 2이는 네가 조램인 백성 가운데서 네 형이 그러한 것만큼 내 말에 유의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제 내가 네게 대하여 책망할 것이 이것이니,ㄷ 너는 계속하여 나아가 네 힘과 네 지혜를 자랑하기에 이르렀느니라. 3또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 내 아들아. 너는 나를 비통하게 하는 일을 하였나니, 이는 네가 네 직무를 저버리고, 창녀 이사벨을 따라, 레이맨인들의 경계 가운데 있는 시론 땅으로 건너갔음이니라. 4참으로 그는 많은 자들의 마음을 빼앗았으나, 내 아들아, 그것이 네게 변명이 될 수 없었느니라. 너는 네게 맡겨진 직무에 전념하였어야 했느니라.

5"내 아들아, 이러한 일은 주가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라, 참으로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성신을 부인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모든 죄 중에 가장 가증한 일인 줄을 네가

ㄱ8 이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모사이야서 27:8~37; 앨마서 36:6~24에 나옴 ㄴ13 앨마서 31:12~23; 33:8 ㄷ2 앨마서 31:7; 35:14

알지 못하느냐? [6]이는 보라, 만일 네가 성신이 한 번 네 속에 거하실 곳을 가지신 후에 그를 부인하고, 또 네가 그를 부인하는 줄을 네가 알고 있다면, 보라 이는 사하심을 얻지 못할 죄니라.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빛과 지식을 거스려 살인하면, 그는 쉽게 사하심을 얻지 못하나니, 내 아들아, 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는 쉽게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7]"또 이제 내 아들아, 나는 네가 그처럼 큰 죄를 범하지 않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노라. 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네 범죄를 되새기며, 네 영혼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8]그러나 보라, 네가 하나님께는 네 범죄를 숨길 수 없나니,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그것들이 마지막 날에 너를 치는 증거가 되리라. [9]이제 내 아들아, 나는 네가 회개하고 네 죄를 버리며, 더 이상 네 눈의 탐욕을 따라가지 말고, 도리어 이 모든 일에 네 스스로를 부인하기 바라노라. 이는 네가 이렇게 하지 아니할진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이니라. 오 기억하고, 이를 짊어지며, 이 모든 일에 네 스스로를 부인하라.

[10]"또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네 형들과 의논하기로 하라. 이는 보라 네가 젊고, 네 형들의 양육을 받을 필요가 있음이니, 그들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라. [11]네 스스로 헛되거나 어리석은 아무 일에도 이끌려 감을 용납하지 말라. 악마로 하여금 다시는 네 마음을 이끌어 가서 저 간악한 창녀들을 따라가게 하지 말라. 보라, 내 아들아, 네가 조램인들에게 얼마나 큰 죄악을 끼쳤는지, 이는 그들이 너의 처신을 보고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2]"또 이제 주의 영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 자녀들을 명하여 선을 행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그들이 많은 백성의 마음을 멸망으로 이끌어 갈까 하노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네게 명하노니 너는 네 죄악을 삼가라. [13]네 생각과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라. 더 이상 백성의 마음을 악을 행하도록 이끌어 가지 말고, 그보다는 그들에게로 돌아가 네 잘못과 네가 행한 저 비행을 시인하라. [14]재물이나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지 말라. 이는 보라, 네가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음이니라."

앨마$_2$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하다

[15]"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나는 네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세상의 죄를 제하시기 위하여 정녕 오실 이는 그이시니, 참으로 그가 오시는 것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려 하심이니라. [16]또 이제 내 아들아, 이것이 네가 부름 받은 직무였나니, 곧 이 기쁜 소식을 이 백성에게 선포하여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는즉, 곧 다시 말해서 구원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며 그가 오실 때 말씀을 듣도록 그들 자녀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게 하는 것이었느니라.

[17]"또 이제 내가 이 문제에 관하여 어느 정도 네 마음을 편하게 해 주리라. 보라, 이러한 일이 왜 그처럼 오래 전에 알려져야 하는지 네가 기이히 여기도다.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때의 영혼이 그가 오실 때의 영혼만큼이나 하나님께 귀하지 아니하냐? [18]구속의 계획이 이 백성에게도 알려지는 것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려지는 것만큼이나 필요하지 아니하냐? [19]주께서 이때에 그의 천사를 보내사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게 하심이 우리 자손들에게나, 또는 그가 오신 이후만큼이나 쉽지 아니하냐?"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

40 "이제 내 아들아, 여기 내가 네게 얼마간 더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 이는 네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마음에 염려하고 있는 줄을 내가 알겠음이라. 2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리스도께서 오실 이후까지는 부활이 없느니라—곧 다른 말로 내가 하고자 하노니, 곧 이 죽어야 하는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지 못하며, 이 썩어야 하는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지 못하느니라. 3보라,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오시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 아들아 부활은 아직 아니니라. 이제 내가 한 가지 비밀을 네게 밝혀 주거니와, 그러할지라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비밀이 많이 있어,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알고자 부지런히 하나님께 여쭈었던 한 가지 일을 네게 보여 주노니—이는 부활에 관해서이니라.

4"보라,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나아올 때가 정해져 있느니라. 이제 이때가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를 알고 계시느니라. 5이제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아올 때가 한 번 있든지, 또는 두 번째가 있든지, 또는 세 번째가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이요, 나로서는 일이 이러함을—곧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함이라.

6"이제 죽음의 때와 부활의 때 사이에 필연 공백이 있으리라. 7이에 이제 내가 묻고자 하노니 이 죽음의 때로부터 부활을 위해 정해진 때까지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8이제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정해진 때가 한 번 이상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나니, 이는 모두가 한 번에 죽지 아니함이요,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니, 모두가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고, 시간은 다만 사람에게 측정함이 되느니라. 9그러므로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도록 정해진 때가 있고, 죽음의 때와 부활 사이에는 공백이 있느니라. 이제 이 시간의 공백에 관하여,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내가 알고자 부지런히 주께 여쭈었던 것이요,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니라. 10또 모두가 일어날 때가 이르면,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져 있는 때를 모두 알고 계신 줄을 알게 되리라.

11"이제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보라, 이는 천사에 의해 내게 알려졌나니, 모든 사람의 영은 이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남과 동시에, 참으로 모든 사람의 영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입느니라. 12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의로운 자들의 영은 낙원이라 일컫는 행복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 평화의 상태로 영접되어, 그 곳에서 그들의 모든 곤경과 모든 염려와 슬픔에서 놓여 쉬게 되리라.

13"또 그때 이렇게 되리니 악인들의 영, 곧 악한 영들은—이는 보라, 그들은 주의 영을 조금도 지니지 못하였음이니, 이는 보라, 그들이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을 택하였으므로, 악마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였음이라—이에 이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날 것이라. 거기서 울고 통곡하며 이를 갊이 있으리니 이는 악마의 뜻에 사로잡혀 이끌린 바,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인함이니라. 14이제 이것이 악한 자들의 영혼의 상태니, 곧 어둠 속에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같은 분노를 기다리는 참담하고 두려운 상태라. 그리하여 이들은 이 상태에서 낙원에 있는 의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부활의 때까지 머물러 있느니라."

앨마$_2$가 코리앤톤에게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다

15 "이제 부활 이전, 영혼의 이 행복의 상태와 이 비참의 상태를 첫째 부활이라 이해한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참으로 나는 이미 한 말대로 영이나 영혼을 일으킴과 그들을
행복이나 비참에 처하게 하는 그것을, 부활이라 칭하여도 가한 줄로 인정하노라. 16 또
보라 다시 일렀으되, 첫째 부활, ㄱ 곧 지금까지 있었거나, 지금 있거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기까지 앞으로 있을 모든 자들의 부활이 있다 하였으니,
17 "이제 우리는 이같이 말하는 이 첫째 부활이 영혼의 부활과 이들이 행복이나 비
참에 처해지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그 뜻하는 바라고 네가
생각할 수 없느니라. 18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렇지 아니하니라. 도리어 그것은
아담의 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있을 자들의 영혼이 육신과 재결합함을 뜻하
는 것이니라. 19 이제 앞서 말한 자들의 영혼과 육신이, 악인이나 의인이나 마찬가지로,
모두 한 번에 재결합되는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이 모두 나아오는 일이, 곧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죽는 자들의 부활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으로 족할지니라.
20 "이제 내 아들아, 나는 그들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에 이른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를 내 의견으로 주노니, 의인들의 영혼과 육신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승천 때에 재결합되느니라. ㄴ 21 그러나 그것이 그의 부활 때
인지 그 이후인지 나는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이만큼 내가 말하노니, 곧 육신의
죽음과 부활의 사이에는 공백이 있고, 영혼은 행복하거나 비참한 상태에 처하여 하
나님께서 정하신 때, 곧 죽은 자들이 나아와 영혼과 육신이 모두 재결합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때까지 이르리라.
22 "참으로 이것은 선지자들의 ㄷ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저 일들의 회복을 이루느
니라. 23 영혼은 육신에게로 회복되겠고, 또 육신은 영혼에게로 회복될 것이라. 또한 각
사지와 관절이 그 몸으로 회복되리니, 참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그 적절하고도 완전한 구조로 회복되리라.
24 "또 이제 내 아들아, 이것이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그 회복이니—
25 그리고 그때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을 발하리라. 26 그러나 보라, 악인에게
는 참담한 죽음이 임하나니, 이는 그들이 의의 일에 관한 것에 대하여 죽음이라. 이는
그들이 부정하며, 부정한 것은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
이라. 이에 그들이 쫓겨나, 그들의 수고, 곧 그들의 악하였던 행위의 열매를 취하도록
정해지나니, 그들이 쓴 잔의 찌꺼기를 마시게 되느니라."

앨마$_2$가 회복의 계획을 설명하다

41 "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이미 말한 바 회복에 관하여 내가 얼마간 말할 것이
있나니, 이는 보라, 어떤 이들이 경전을 왜곡하여, 이 일로 말미암아 길에서
멀리 벗어났음이니라. 또 네 마음도 이 일에 관하여 염려해온 줄을 내가 알겠노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일을 네게 설명하리라. 2 내 아들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회복의
계획은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니, 이는 만물이 그 적절한 질서로 회복
됨이 불가결함이니라.

ㄱ 16 모사이야서 15:21~26 참조; 요한계시록 20:5~6 비교 ㄴ 20 앨마$_2$의견이 힐라맨서 14:25와 제3니파이 23:6~13에서 확증됨 ㄷ 22 특히 아빈아다이를 말함; 다음 절은 모사이야서 11:43~44와 비교

"보라, 그리스도의 권능과 부활을 좇아 사람의 영혼이 그 육신에게로 회복되며, 육신의 각 부분이 그 자체로 회복되는 것은 불가결하고도 공의로운 일이니라. [3]또 사람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되는 것과 만일 이 생에서 그 행위가 선하였고, 그 마음의 원하는 바가 선하였으면, 그들 역시 마지막 날에 선한 것으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 불가결한 것이니라. [4]또 만일 그 행위가 악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악으로 회복될 것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 적절한 질서로 회복되며, 모든 것이 그 본래의 구조로 회복되어—죽어야 하는 것이 일으킴을 받아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썩어야 하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일으킴을 받아 끝없는 행복에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거나, 아니면 끝없는 비참에 이르러 악마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리니, 하나는 이편이요 다른 하나는 저편이라—

[5]"하나는 일으킴을 받아 행복의 소원대로 행복, 곧 그 선의 소원대로 선에 이르고, 다른 하나는 그 악의 소원대로 악에 이르나니, 이는 저가 온종일 악을 행하기 원한 것같이, 바로 그와 같이 밤이 올 때 자기의 보응 곧 악의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6]또 다른 한편으로도 역시 그러하니, 만일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의 생애의 끝까지 의를 원했으면, 보상을 받아 의에 이를 것이니라. [7]이들은 주로 인해 구속받는 자들이요, 참으로 이들이 저 끝없는 흑암의 밤에서 빼내심을 입고 건지심을 받는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섰거나 아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보라, 선을 행하고자 하든지 아니면 악을 행하고자 하든지 간에,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재판관임이니라. [8]이제 하나님의 법령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인즉,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그리로 행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이 예비되었느니라.

[9]"또 이제 보라, 내 아들아, 네가 죄를 범하고자 이제까지 그러한 위험을 범하여 왔거니와, 한 번 더 교리의 그 점들에 있어 네 하나님을 거스려 범법하는 위험을 범하지 말라. [10]회복에 관하여 말하였음으로 인하여, 네가 죄에서 행복으로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

[11]"또 이제 내 아들아, 자연의 상태, 곧 내가 이렇게 말하리니, 속된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은 쓰디쓴 담즙에 빠져 있고 불의에 매인 바 되어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요, 또 하나님의 본성과 상반되게 나아갔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행복의 본질과 상반되는 상태에 있느니라. [12]또 이제 보라, '회복이란' 말의 의미가, 자연스런 상태의 것을 취하여 그것을 부자연스런 상태에 두는, 곧 그것을 그 본성과 반대되는 상태에 두는 것이냐?

[13]"오 내 아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회복이란' 말의 의미는 악에 대해서는 악을, 육신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육신에 속한 것을, 악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악마적인 것을—선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의를, 공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공의를, 자비로운 것에 대해서는 자비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니라. [14]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주의하여 네 형제들에게 자비로우라. 공정히 행하며, 의롭게 판단하며, 계속하여 선을 행하라. 만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면 그러면 네 보상을 받게 되리라. 참으로 자비가 다시 네게로 회복될 것이요, 공의가 다시 네게로 회복될 것이며, 의로운 판단이 다시 네게로 회복될 것이요, 또 선이 다시 네게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리라.ㄱ [15]이는 네가 내보내는 것이 다시 네게로 돌아와 회복될 것임이니, 그러므로 '회복이란' 말은 죄인을 더욱 온전히 정죄하고, 전혀 그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ㄱ14 13~14절은 히브리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차 배열 구조를 지님

앨마$_2$가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시험의 시간을 설명하다

42 "또 이제 내 아들아, 네가 이해할 수 없는 바, 네 마음으로 염려하게 하는 것 이 얼마간 더 있는 줄을 내가 아노니, 곧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이라. 이는 죄인을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고 네가 생각하려 애씀이니라.

2"이제 보라, 내 아들아, 내가 이 일을 네게 설명하리라. 이는 보라,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조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사 그들이 취하심을 입은 땅을 갈게 하셨음이니—참으로 그는 그 사람을 이끌어 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 끝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사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느니라— 3이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던 것을 알고 있나니, 그가 그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영원히 살까 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그룹들과 화염검을 두사, 그로 그 열매를 취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ㄱ

4"또 이리하여 우리는 사람에게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음을 알게 되나니, 참으로 시험의 시간이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라.ㄴ 5이는 보라, 만일 아담이 즉시로 그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였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히 살아 회개할 기간을 갖지 못하였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역시 무효하게 되어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것임이니라. 6그러나 보라, 사람은 죽기로 정해졌고—그러므로 그들은 생명나무로부터 끊어졌던 것같이 지면으로부터 끊어져야 하느니라—이에 사람은 영원히 잃은 바 되었나니, 참으로 그들은 타락한 사람이 되었느니라.

7"또 이제 이로써 너는 우리의 시조가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주의 면전에서 끊어졌음을 알게 되며, 또 이리하여 우리는 그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좇아 복종하는 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느니라. 8이제 보라, 사람이 이 현세적 사망에서 구제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렇게 함이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깨뜨리겠음이라. 9그러므로 영혼이 결코 죽을 수 없고, 타락이 모든 인류에게 현세적 사망과 함께 영적 사망을 가져왔으므로, 이 말인즉 그들이 주의 면전에서 끊어졌으므로, 인류가 이 영적 사망에서 구제될 필요가 있었느니라. 10그러므로 그들이 본성적으로 육신에 속하며 육욕적이며 악마와 같이 되었던지라, 이 시험의 상태는 그들에게 있어 준비를 위한 상태가 되었나니, 곧 예비적 상태가 되었느니라."

ㄱ3 창세기 3:22~24 ㄴ4 앨마서 12:22~32의 앨마$_2$가 앤티오나에게 한 대답에서 나오는 몇 가지 표현들이 4~13절에 나옴

공의와 자비

11 "이제 내 아들아, 기억하라. 만일 구속의 계획이 없다면, (이를 버린다면) 그들이 죽자마자 그들의 영혼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져 비참하게 되리라. 12 또 이제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자초한 바, 이 타락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구제할 방편이 없었나니, 13 그러므로 공의를 좇아 이 시험의 상태, 참으로 이 예비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조건 위에서가 아니고는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나니, 이는 이러한 조건이 아니고는 공의의 일을 폐함이 없이 자비가 효력을 가질 수 없었음이니라. 이제 공의의 일은 폐하여질 수 없으리니,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시리라.

14 "또 이리하여 우리는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고, 그들이 공의, 곧 하나님의 공의에 붙잡여 있었음을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영원히 그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하였느니라. 15 이에 이제 속죄가 행하여지지 않고서는 자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지라, 그러므로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자,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자 함이라.

16 "이제 영혼의 생명과도 같이 영원한 형벌이 없이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임할 수 없었나니, 이 형벌은 역시 영혼의 생명같이,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 대한 반대로써 부가된 것이니라. 17 이제 사람이 죄 짓지 않고 어찌 회개할 수 있겠느냐? 만일 율법이 없다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형벌이 없이 어찌 율법이 있을 수 있겠느냐? 18 이제 형벌이 부가되었고, 사람에게 양심의 가책을 가져오는 공의로운 율법이 주어졌느니라. 19 이제 만일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만일 사람이 살인하였으면 그는 죽을 것이니라—그가 살인하면 죽을까 두려워하겠느냐? 20 그리고 또한 만일 죄를 금하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범죄 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21 또 만일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고,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면 공의나 자비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이는 공의나 자비가 피조물에 대하여 아무 권한도 갖지 못할 것임이라.

22 "그러나 율법이 주어져 있고, 형벌이 부가되었으며, 회개가 주어졌나니, 이 회개를 자비가 주장하는 것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공의가 피조물을 주장하며 율법을 집행하나니, 율법은 형벌을 가하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공의의 일은 폐하여질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시리라. 23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나니, 자비는 뉘우치는 자를 주장하며, 자비는 속죄로 말미암아 오느니라. 또 속죄는 죽은 자의 부활을 가져오며, 죽은 자의 부활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데려가나니, 이같이 그들이 그의 면전으로 회복되어, 그들의 행위대로 율법과 공의에 따라 심판받게 되느니라. 24 이는 보라, 공의는 그 모든 요구를 행사하며, 자비 또한 그 스스로의 것을 다 주장함이니, 이리하여 오직 진실로 뉘우치는 자만이 구원을 받느니라.

25 "무엇으로 너는 자비가 공의를 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아니라. 조금도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시리라. 26 또 이리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로부터 예비된, 그의 크고도 영원한 목적을 이루시나니, 이리하여 사람들의 구원과 구속과 또한 그들의 멸망과 비참이 이루어지느니라. 27 그러므로 내 아들아, 누구든지 오고자 하는 자는 와서 생명의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오고자 아니하는 자는 오도록 강제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에게 회복되리라. 28 가령

누가 악을 행하기 원하고, 그 생애에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면, 보라, 하나님의 회복을 좇아 악이 저에게 이루어질 것이니라."

코리앤톤에게 준 앨마$_2$의 명령

29"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나는 네가 더 이상 이러한 일로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만 너를 회개로 이끌어 내릴 그 괴로움으로, 네가 죄를 괴로워하기 바라노라. 30오 내 아들아, 나는 네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지 않기 바라노라.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함으로써, 네 죄로 인하여 지극히 작은 점에라도 네 스스로를 변명하려 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자비와, 그의 오래 참으심이 네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게 하고, 또 이로써 네가 티끌에까지 내려서 겸손하게 되도록 하라.

31"또 이제 내 아들아, 너는 이 백성에게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제 내 아들아, 네 길을 가서 진리와 진지함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사람들을 회개로 인도하고, 위대한 자비의 계획이 그들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네게 허락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조램인 전쟁

앨마서 43~44장

전쟁을 위한 준비

43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의 아들들이 말씀을 전파하기 위하여 백성 가운데로 나아갔고, 앨마 자신도 쉴 수 없어 역시 나아갔더라. 2이제 우리는 예언과 계시의 영을 좇아 말씀과 진리를 전파한 것 외에, 그들의 전도에 관하여는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그들이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좇아 가르쳤더라.ㄱ

3그리고 이제 나는 판사 치세 제십팔년에,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이에 있었던 전쟁의 기사로 돌아가노라.ㄴ 4이는 보라, 이렇게 되었음이니 조램인들이 레이맨인이 되었더라. 그리하여 제십팔년ㄷ 초에 니파이인 백성들이 레이맨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하러 옴을 알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여어숀 땅에 그 군대를 함께 모았더라.

5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저들의 천천과 더불어 오되, 저들이 조램인들의 땅인 앤티오눔 땅으로 들어왔고, 제래헴나라 이름하는 자가 저들의 지휘관이더라. 6그리고 이제 아맬레카이인들은 본시 자체적으로 레이맨인들보다 더욱 간악하고 잔인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지라, 그러므로 제래헴나가 레이맨인들 위에 총대장들을 임명하매 그들이 다 아맬레카이인과 조램인들이었더라. 7이제 이렇게 그가 한 것은 니파이인들에 대한 저들의 증오심을 유지함으로써, 저들을 복종시켜 자기의 의도를 이루고자 함이었더라. 8이는 보라, 그의 의도는 레이맨인들을 충동하여 니파이인들에게 대하여 노하게 하는 것이었음이라. 이렇게 그가 한 것은 그들 위에 큰 권력을 잡고자 함이요, 또한 니파이인들을 속박하여 그들을 다스릴 권력을 얻으려 함이었더라.

ㄱ2 힐라맨$_2$은 앨마서 45~62에 기록된 사건에서 주요 참여자이자 기록 보유자가 될 것임; 시블론$_2$과 코리앤톤은 앨마서 49:30와 앨마서 63에서 다시 등장할 것이며 비록 우회적이지만 앨마서 45:22; 48:19; 53:14; 62:45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추정 ㄴ3 이 이야기는 앨마서 35:13에서부터 계속됨 ㄷ4 –74년

9 그러나 이제 니파이인들의 의도는 그들의 땅과 그들의 집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를 지키려는 것이었으니,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원수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보전하고, 또한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특권과 참으로 또한 그들의 자유를 유지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함이더라. 10 이는 만일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수중에 들게 되면, 무릇 영과 진리로 하나님, 곧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레이맨인들이 다 멸할 줄 그들이 알았음이라. 11 참으로 그뿐 아니라 그들은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형제, 곧 암몬 백성이라 하는 앤타이-니파이-리하이 백성에 대하여 가진 극심한 증오를 알고 있었나니—그러나 이들은 무기를 들려 하지 않았더라, 참으로 이들은 성약을 맺었었고 이를 깨뜨리고자 하지 아니하였더라[ㄱ]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손에 빠지면 멸망될 것이라. 12 그러나 니파이인들은 그들이 멸망당하도록 버려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그들의 기업을 위한 땅을 주었더라. 13 이에 암몬 백성은 자기들의 재물의 큰 분량을 니파이인들에게 주어 그들의 군대를 지원하였더라.

이리하여 니파이인들은 홀로 레이맨인들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그들은 레이맨과 레뮤엘과 이스마엘의 아들들과 무릇 니파이인들에게서 떨어져 나간 모든 자들, 곧 아맬레카이인과 조램인 그리고 노아의 제사들의 후손들의 합이라. 14 이제 그 후손들은 수효가 거의 니파이인들과 같았나니, 이리하여 니파이인들은 어찌할 수 없이 자기 형제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앤티오눔 땅에 함께 모이매, 보라, 니파이인들의 군대는 여어숀 땅에서 그들을 맞을 준비를 갖추었더라.

모로나이$_1$가 레이맨인들을 이길 만반의 준비를 시키다

16 이제 니파이인들의 지휘관, 곧 니파이인들 위에 총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은—이제 총대장이 니파이인들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였나니—그 이름이 모로나이였더라. 17 또 모로나이는 모든 지휘권과 그들의 전쟁 통수권을 맡았나니, 그가 니파이인들의 군대 위에 총대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나이 불과 이십오 세이었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여어숀의 경계에서 레이맨인들을 만나매, 그의 백성들은 칼과 신월도와 온갖 전쟁 무기로 무장하였더라. 19 또 레이맨인의 군대는 니파이 백성들, 아니 모로나이가 자기 백성을 가슴판과 팔 보호대와 참으로 또한 그들의 머리를 보호할 투구로 준비시킨 것과 또 그들이 두꺼운 옷으로 옷 입은 것을 보고는— 20 이제 제래헴나의 군대는 그 같은 어떠한 것으로도 준비를 갖추지 아니하였나니, 저들은 다만 저들의 칼과 저들의 신월도, 저들의 활과 저들의 화살, 저들의 돌과 저들의 물매만 가졌고, 저들 허리에 두른 가죽 외에는 벌거벗었더라. 참으로 조램인과 아맬레카이인 외에는 모두가 벌거벗었으며, 21 가슴판이나 방패로 무장하지 못하였더라—그리하여 저들은 저들의 수효가 니파이인들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갑주를 보고 니파이인들의 군대를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ㄱ] 11 앨마서 24:17~18

복병을 배치하다

22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여어숀의 경계에서 감히 니파이인들을 공격하려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저들이 맨타이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하고자 하여, 앤티오눔 땅에서 떠나 광야로 들어가서 멀리 시돈 강의 발원지를 지나 광야를 둘러 여행하였으니, 이는 저들이 어디로 갔는지 모로나이의 군대가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음이라.

23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광야로 떠남과 동시에 모로나이가 정탐을 광야로 보내어 저들의 진을 살피게 하였고, 모로나이는 또한 앨마의 ㄱ 예언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지라, 사람 몇을 그에게로 보내어, 니파이인들의 군대가 어디로 가서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방어해야 할지 주께 물어 줄 것을 그에게 구하였더라.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말씀이 앨마에게 임하매, 앨마가 모로나이의 사자들에게,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광야를 둘러 행군하고 있으며, 이는 저들이 맨타이 땅으로 건너가서, 백성의 더 약한 부분에 공격을 시작하려 함임을 알려 주매, 그 사자들이 가서 그 말을 모로나이에게 전하였느니라.

25 이제 모로나이가, 혹 어떻게라도 레이맨인들의 일부가 여어숀 땅에 들어와서 성을 점령할까 하여, 자기 군대의 일부를 그 땅에 남겨 두고 자기의 나머지 군대를 거느리고 맨타이 땅으로 행군하여 가더라. 26 또 그는 그 지역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 레이맨인을 대적하여 싸워, 그들의 땅과 그들의 나라,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자유를 수호하게 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오는 때를 대비하여 준비가 갖추어졌더라.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자기 군대로 하여금, 광야의 시돈 강 서편 시돈 강 둑에 가까운 골짜기에 숨게 하였더라. 28 또 모로나이는 레이맨인들의 진이 언제 오는지를 알고자 사방에 정탐들을 두었더라.

29 또 이제 모로나이는 레이맨인들의 의도를, 곧 저들의 의도가 그 형제들을 멸하거나, 혹은 속박하여 온 땅 위에 자신들을 위한 왕국을 세우려는 것인 줄을 알고 있었고, 30 그리고 또한 니파이인들의 유일한 소망은 그들의 땅과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교회를 보존하는 것임을 알았던지라, 계책으로 그들을 방어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정탐들로 레이맨인들이 택할 진로를 알아내었더라.

31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군대를 나누어 한 편을 골짜기로 인도하여, 그들을 리플라언덕 동편과 남편에 매복시켰더라. 32 그리고 나머지는 시돈 강 서쪽에 있는 서편 골짜기에, 그리하여 맨타이 땅의 경계로 내려가는 곳에 매복시켰더라. 33 그리고 이같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군대를 배치하고 나서, 모로나이는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었더라.

ㄱ 23 앨마서 16:4~8

시돈 강에서의 전투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모로나이의 군대의 일부가 매복해 있는 언덕 북편으로 올라왔더라. 35 그리고 레이맨인들이 리플라 언덕을 지나, 계곡으로 들어와, 시돈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을 때, 언덕 남편에 매복해 있던 군대는, 그 이름이 리하이라 하는 자에 의해 이끌렸는데, 그가 그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동편 레이맨인들의 후미에서 저들을 에워쌌느니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저들의 후미에서 저들을 공격하는 니파이인들을 보고, 몸을 돌이켜 리하이의 군대와 싸우기 시작하였더라.

37 그리고 죽음의 일이 양쪽에서 시작되었으나, 레이맨인들 편에 더욱 가공하였나니, 이는 니파이인들이 그들의 칼과 그들의 신월도로 가하는 강한 가격에 저들의 벗은 몸이 그대로 노출되어, 거의 매번 칠 때마다 죽음이 초래되었음이라. 38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니파이인들은 그들의 가슴판과 그들의 팔 보호대와 그들의 투구에 의해 신체의 급소들에서 보호되고 있었으니, 곧 신체의 급소들이 레이맨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되고 있었던지라, 니파이인들 중에서는 그들의 칼과 피를 잃음으로 인해 간혹 한 사람이 쓰러졌더라. 그리하여 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 가운데서 죽음의 일을 수행하더라.

3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저들 가운데 초래되는 큰 멸망을 보고 놀라더니, 이윽고 시돈 강을 향하여 도망하기 시작하였더라. 40 그리고 저들은 리하이와 그의 병사들의 추격을 받고, 리하이에게 쫓겨 시돈 물로 들어가서는 시돈 물을 건넜더라. 이에 리하이가 자기 군대를 시돈 강 둑에 머무르고 건너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41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와 그의 군대가 시돈 강 저편 계곡에서 레이맨인들을 맞아, 저들을 급습하여 도륙하기 시작하였더라. 42 이에 레이맨인들이 다시 그들 앞에서 맨타이 땅을 향하여 도망하였으나, 다시 모로나이의 군대와 만나게 되었더라. 43 이제 이러한 처지에서 레이맨인들이 실로 맹렬히 싸웠나니, 사람들이 알기로 레이맨인들이 그처럼 심히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싸운 적이 결코 없었느니라. 과연 처음부터도 없었느니라. 44 또 저들은 저들의 총대장이요 지휘관인 조램인과 아맬레카이인들에게, 또 저들의 총대장, 곧 저들의 총지휘관이요 사령관인 제래헴나에게 고무되어 참으로 용처럼 싸운지라, 많은 니파이인이 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으니, 실로 이는 저들이 그들의 투구를 많이 둘로 가르고, 그들의 가슴판을 많이 꿰뚫고, 그들의 팔을 많이 쳐서 떨어뜨렸음이라. 이같이 레이맨인들이 그 맹렬한 노여움 중에 쳤더라.

45 그러나 니파이인들은 더 나은 대의로 고무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군주제나 권력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위하여, 참으로 그들의 예배 의식과 그들의 교회를 위하여 싸우고 있었음이라. 46 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지고 있는 의무라고 느낀 바를 행하고 있었나니, 이는 주께서 그들과 또한 그 조상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첫 번째 공격의 죄가 없고, 두 번째도 그러하거든, 너희는 너희 원수들의 손에 스스로 죽임을 당하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라.[ㄱ] 47 그리고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피를 흘려서라도 너희의 가족을 보호하라" 하셨으니,[ㄴ] 그러므로 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땅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종교를 지키려는 이 대의를 위함이었더라.

4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의 병사들이 레이맨인들의 맹렬함과 분노를 보고는, 바야흐로 저들에게서 물러나 도망하려 하였는지라, 모로나이가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

[ㄱ] 46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ㄴ] 47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이러한 생각들로 그들의 마음을 고무시켰나니—참으로 그들의 땅 그들의 자유, 참으로 그들이 얻을 속박에서의 해방에 대한 생각이라. [4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을 향하여 돌아서서, 한 목소리로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속박에서의 해방을 위하여 주 저희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50]그리고 힘을 가지고 레이맨인들에게 대항하기 시작하매, 그들이 그들의 해방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음과 동시에, 레이맨인들이 그들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하여 저들이 시돈 물까지 도망하였더라.

[51]이제 레이맨인들은 그 수가 더 많았나니 참으로 니파이인들의 수효의 배 이상 더 많았으나, 그럼에도 저들이 쫓겨 시돈 강가의 둑 위 골짜기에 한 무리로 모이기에 이르렀더라. [52]그리하여 모로나이의 군대가 강 양편에서 저들을 에워쌌으니, 이는 보라, 동편에는 리하이의 병사들이 있었음이라. [53]그리하여 제래헴나가 본즉, 시돈 강 동편에는 리하이의 병사들이 있고 시돈 강 서편에는 모로나이의 군대가 있어, 자기들이 니파이인들에게 에워싸였는지라, 그들이 공포에 사로잡혔더라. [54]이제 모로나이가 저들의 공포를 보고는, 자기의 병사들을 명하여 그들이 저들의 피 흘리기를 멈추게 하였더라.

화평이 보장될 제안

4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희가 멈추고 그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서매, 모로나이가 제래헴나에게 이르기를, "보라, 제래헴나여, 우리는 피 흘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우리 수중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있거니와, 그럼에도 우리는 너희를 죽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보라, 우리는 권력을 위하여 너희의 피를 흘리고자 너희를 대적하여 싸우러 오지 아니하였고, 아무에게라도 속박의 멍에를 씌우기를 원하지도 아니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치러 왔고, 또한 너희는 우리의 종교로 인하여 우리에게 노하였도다.

[3]"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너희가 보며,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보나니, 이제 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종교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음인 줄을 너희가 깨닫기 바라노라. 또 이제 너희는 우리의 이 신앙을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아느니라. [4]이제 너희는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신앙인 것을 아느니라. 참으로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께,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종교에 충실한 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리라는 것을 아나니, 우리가 범법에 빠져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한, 주께서는 결코 우리가 멸망당하도록 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라.

[5]"또 이제 제래헴나여, 내가 우리의 팔을 강하게 하사 우리로 너희를 이길 힘을 갖게 하신 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두고, 우리의 종교를 두고, 또 우리의 예배 의식을 두고, 또 우리의 교회를 두고, 또 우리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에 대한 성스러운 부양의 의무를 두고, 우리를 우리의 땅과 우리의 나라에 묶어 두는 저 자유를 두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모든 행복을 가능하게 해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보전을 두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극히 소중한 모든 것을 두고 네게 명하노니—[6]참으로 또한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 너희가 생명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소망을 두고 네게 명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전쟁 무기를 우리에게 넘기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의 피를 찾지 아니하리니, 만일 너희가 너희의 길을 가서 다시 우리를 치러 오지 아니할 것이면, 너희의 목숨을 살려 주리라.

[7]"그러나 이제 만일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보라, 너희는 우리 수중에 있은즉, 내가 나의 병사들을 명하여 그들로 너희를 급습하여, 너희 몸에 사망의 상처를

입히게 하리니, 너희가 멸절되리라.[ㄱ] 그런 다음 누가 이 백성을 다스릴 권력을 갖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 참으로 누가 속박에 들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였더라.

거절되었다가 수용된 그 제안

8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말을 듣고 제래헴나가 나아와 자기의 칼과 자기의 신월도와, 자기의 활을 모로나이의 손에 넘기며 그에게 이르되, "보라, 여기 우리의 전쟁 무기가 있느니라. 우리가 이를 너희에게 넘기려니와, 우리와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깨뜨릴 줄을 알고 있는 맹세를 너희에게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우리의 전쟁 무기를 취하고, 우리의 광야로 떠남을 용납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칼을 그대로 지니리니, 우리가 망하든지 아니면 정복하든지 하겠노라. 9 보라, 우리는 너희의 신앙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니, 우리는 우리를 너희 손에 붙인 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아니하노라. 다만 우리는, 너희를 우리의 칼로부터 보호한 것은 너희의 교활함이라 믿노니, 보라, 너희를 보존한 것은 너희의 가슴판과 너희의 방패니라."

10 이에 이제 제래헴나가 말하기를 마치매, 모로나이가 그 받았던 칼과 전쟁 무기를 제래헴나에게 돌려주며 이르되, "보라, 우리는 싸움을 끝내리라. 11 보라, 나는 너희에게 한 말을 취소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살아 계심같이,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고 떠나지 않는 한, 너희가 떠나지 못하리라. 이제 너희가 우리 수중에 있은즉, 우리가 너희 피를 땅 위에 흘릴 것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제시한 조건에 너희가 따를지니라" 하였더라.

12 이에 이제 모로나이가 이 말을 하고 나자, 제래헴나가 자기 칼을 그대로 지니고,[ㄴ] 모로나이에게 노하여 앞으로 내달아 모로나이를 죽이려 하였으나, 그가 그의 칼을 치켜들었을 때, 보라, 모로나이의 병사 중 하나가 그의 칼을 쳐서 땅에 떨어뜨리니, 그것이 칼자루에서 부러졌더라. 저가 또한 제래헴나를 쳐서 그의 머리 껍질을 벗기매 그것이 땅에 떨어지니, 이에 제래헴나가 저들 앞에서 물러나 자기 병사들 속으로 들어갔느니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곁에 섰다가 제래헴나의 머리 껍질을 쳐서 벗긴 그 병사가, 머리털을 잡고 그 머리 껍질을 땅에서 집어 올려, 그것을 자기 칼끝에 얹고 그들에게 내어 밀며, 큰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되, 14 "너희가 너희 전쟁 무기를 넘기고 화평의 언약과 함께 떠나지 아니할진대, 너희 대장의 머리 껍질인 이 머리 껍질이 땅에 떨어진 것같이, 너희가 땅에 엎드러지리라" 하였더라.

15 이제 이 말을 듣고 또 칼 위에 있는 머리 껍질을 보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많았던지라, 많은 자가 나아와 자기의 전쟁 무기를 모로나이의 발에 던지고 화평의 언약을 맺었나니, 언약을 맺은 자마다 다 광야로 떠나는 것을 그들이 허락하였더라.

1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제래헴나가 심히 노하여, 남아 있는 자기의 병사들을 충동하여 노하게 하고, 더욱 힘있게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였더라. 17 이에 이제 모로나이가 레이맨인들의 완강함으로 인하여 노한지라, 자기 백성들을 명하여 그들을 급습하여 도륙하게 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레이맨인들을 도륙하기 시작하매, 또한 레이맨인들도 그들의 칼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싸웠느니라. 18 그러나 보라, 그들의 벗은 피부와 그들의 맨머리는 니파이인들의 날카로운 칼에 그대로 노출

[ㄱ] 7 *멸절* 이라는 말은, 개인의 죽음을 의미하는 고어임

[ㄴ] 12 영어 원문에서 "지니다"로 번역된 retained은 "되찾다"라는 의미인 regained이었을 것으로 추정

되었나니, 참으로 보라, 그들은 찔리고 칼에 맞았으며, 또한 니파이인들의 칼 앞에서 심히 빨리 엎드러져, 참으로 모로나이의 병사가 예언한 대로 쓸어버림을 당하기 시작하였더라.ㄱ

19 이제 제래헴나가 그들이 바야흐로 모두 멸망당하게 된 것을 보고, 모로나이에게 크게 소리질러, 그들의 남은 목숨들을 살려 주면, 결코 다시 저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지 아니할 것을 그와 그의 백성이 저들과 언약하겠다고 약속하였느니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백성 가운데 죽음의 일을 다시 그치게 하고, 레이맨인들에게서 전쟁 무기를 취하고, 그들이 자기와 화평의 언약을 맺은 후에는 광야로 떠남을 허락하였더라.

21 이제 그 수가 많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죽은 자의 수효를 세지 못하였나니, 참으로 니파이인들에게나 레이맨인들에게나 다 그 죽은 자의 수가 심히 많았더라. 2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시돈 물에 던지매, 저들이 나아가 깊은 바다에 장사되었더라.ㄴ 23 그리고 니파이인들의 군대, 곧 모로나이의 군대는 돌아가, 저들의 집과 저들의 땅에 이르렀더라. 24 그리고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ㄷ 대한 판사 치세 제십팔년이 끝나고, 또 이같이 니파이의 판에 기록된 앨마의 기록이 끝났느니라.

몰몬$_2$이 요약한 힐라맨$_2$의 기록ㄹ

앨마서 45~62장

힐라맨의 기록에 따른 바, 힐라맨 시대의 니파이 백성과 그들의 전쟁과 불화에 대한 기사니 곧 그가 그의 생애 동안 기록한 것임.

앨마$_2$가 니파이인들의 멸망을 예언하다

45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들은 주께서 다시 그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 내셨음으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많이 금식하고 많이 기도하며, 심히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2 그리고 니파이 백성에ㅁ 대한 판사 치세 제십구년에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로 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지금까지 기록되어 온 저 기록에 관하여 내가 네게 한 말을 믿느냐?"ㅂ

3 이에 힐라맨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나이다."

4 이에 앨마가 다시 이르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5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6 이에 앨마가 다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내 명령을 지키겠느냐?"

7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내가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겠나이다."

8 그러자 앨마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복이 있나니, 주께서 너를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리로다. 9 그러나 보라, 내가 네게 무엇인가 예언할 것이 있도다. 그러나 내가

ㄱ18 위 14절 참조 ㄴ22 시돈에 던져져 죽은 셀 수 없이 많은 자들에 대한 이 묘사로 앨마서 3:1~3부터 시작되었던 내용을 구분하기 위한 문학장치(inclusio)가 여기서 마무리됨 ㄷ24 –74년; 위 앨마서 35:13; 43:4 참조 ㄹ1 기록 보관자들의 전환을 표시하는 앨마서 1:1과 63:1의 소제목을 비교; 다음 장들이 왜 힐라맨전서라는 명칭으로 작성되지 않았는지 명확하지 않음 ㅁ2 –73년 ㅂ2 앨마서 37:1~31

네게 예언하는 것을 너는 알리지 말지니, 참으로 내가 네게 예언하는 것은 그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알려지게 말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할 말을 기록하라.

10"이것이 그 말이니라. 보라, 바로 이 백성 곧 니파이인들이 내 속에 있는 계시의 영에 의하건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실 때로부터 사백 년 만에 믿지 않음에 빠져들리라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11참으로 또한 그때 그들이 전쟁과 역병과 참으로 기근과 유혈을 보기를, 실로 니파이 백성이 멸절되기까지 하리라— 12참으로 또한 이는 그들이 믿지 않음에 빠져들고 어둠의 일과 음란함과 온갖 죄악에 빠질 것으로 인함이라. 참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들이 그처럼 큰 빛과 지식을 거스려 범죄 하는 까닭에, 참으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그 날로부터 넷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큰 죄악이 이르리라.

13"또 저 큰 날이 이르면, 보라, 지금 니파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는 자들이나, 또는 그들의 후손들이 더 이상은 니파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못할 때가 매우 속히 이르느니라. 14또 누구든지 저 크고 두려운 날에 멸망당하지 않고 남는 자들은 레이맨인들 가운데 헤아림을 받고 그들과 같이 되리니, 주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게 될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러하리라. 또 그들을 레이맨인들이 추적하기를 그들이 멸절되기까지 하리니,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 이 예언이 성취되리라.[ㄱ]

앨마$_2$의 마지막 말과 그의 떠남

15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앨마가 이러한 것을 힐라맨에게 이르고 나서, 힐라맨과 또한 자기의 다른 아들들을 축복하고, 또 의인들을 위하여 땅을 축복하였더라. 16또 그가 이르되, "이같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땅, 곧 이 땅이 악을 행하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대하여는 저주 받은 바 되어, 그들이 온전히 무르익었을 때 멸망에 이르게 하리니,'[ㄴ] 내가 말한 그대로 될 것이라. 이것은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요 또 축복이니, 이는 주께서 죄를 조금도 허용하여 보실 수 없으심이라."

17그리고 이제 앨마는 이 말을 하고 나서 교회, 곧 그때로부터 이후 신앙 안에 굳게 서야 할 모든 자를 축복하였더라. 18또 앨마가 이렇게 하고 나서, 마치 밀렉 땅으로 들어가려는 것같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났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다시는 그에 대하여 더 이상 듣지 못하였나니, 그의 죽음이나 장사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19보라, 그가 의인이었다는 이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가 모세와 마찬가지로 영의 취하심을 입고 올리웠거나, 주의 손으로 장사되었다 하는 말이 교회 안에 널리 퍼졌으나, 보라, 경전에 일렀으되 주께서 모세를 자기에게로 취하셨다 하였으니,[ㄷ] 우리가 생각건대 그가 또한 앨마도 영으로 자기에게 영접하셨으리라. 그러므로 이 까닭에 그의 죽음이나 장사에 관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라.

[ㄱ] 14 제4니파이서와 몰몬서를 참조 [ㄴ] 16 앨마서 37:28, 31 참조 [ㄷ] 19 신명기 34:5~6; 유다서 1:9

좌절된 개혁의 시도

[20]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구년 초에,ㄱ 힐라맨이 말씀을 선포하러 백성 가운데로 나아갔더라. [21]이는 보라, 레이맨인들과의 전쟁과 백성 가운데 있는 여러 작은 불화와 소요들로 인하여,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필요와, 또한 교회 전체를 통하여 질서를 바로잡을 필요가 생겼음이라.ㄴ [22]그리하여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은 그 온 땅에, 참으로 니파이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온 땅의 각 성읍에 두루 다시 교회를 세우러 나아갔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그 온 땅, 모든 교회 위에 제사들과 교사들을ㄷ 임명하였더라.

[23]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이 교회에 제사와 교사들을 임명한 후에 그들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 그들이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아니하고, [24]도리어 그들의 심히 큰 부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자고하여 점차 교만하게 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스스로의 눈에 부유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기 위하여 저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지 아니하더라.

아맬리카이아의 전쟁들ㄹ

앨마서 46~62장

아맬리카이아의 1차 전쟁

앨마서 46~49장

아맬리카이아

4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무릇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 그 형제들을 대적하였더라. [2]그리고 이제 보라, 그들이 심히 노하여 마침내 저들을 도륙하기로 작정하였더라. [3]이제 그 형제들에게 대하여 노한 자들의 지도자는 크고 힘센 자로 그 이름이 아맬리카이아더라. [4]그리고 아맬리카이아는 왕 되기를 원하였고, 노한 그 백성들도 그가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였나니, 이들은 대개가 그 땅의 하급 판사들로서 권력을 추구하고 있었더라. [5]또 그들은, 만일 자기를 지원하여 자기를 세워 그들의 왕이 되게 하면 그들로 백성을 다스리는 치리자를 삼겠다는 아맬리카이아의 감언에 이끌렸었더라.

[6]이리하여 교회의 대제사인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교회에 대한 이들의 심히 큰 염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맬리카이아에게 이끌려 이반을 일으키게 되었더라. [7]또 아맬리카이아의 아첨하는 말을 믿은 자가 교회 안에도 많아, 그들이 심지어 교회로부터도 이탈해 나갔나니, 레이맨인들에게 거둔 큰 승리와

ㄱ20 –73년; 위 2절 참조 ㄴ21 아맬리카이아의 전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규율하는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전쟁 전과 후에 각각 배치함으로써 그 틀을 갖춤 하나는 분쟁 바로 앞에 나오며 다른 하나는 싸움이 끝날 때 나옴; 앨마서 62:44 참조 ㄷ22 영어 원본에서는 "참으로"부터 "제사들과 교사들"까지가 조셉 스미스의 필체로 쓰여 있음;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간부분에서 조셉 스미스는 순간적으로 원래 수기를 담당하던 올리버 카우드리로부터 받아적는 일을 인계받아 본인이 직접 썼음; 영어 원본에서 이 부분이 현존하는 유일한 경우임 ㄹ1 아맬리카이아의 1차 전쟁은 –73년에서 –72년까지 2년 동안 계속되었음; 아맬리카이아의 2차 전쟁은 (앨마서 51~62장)왕당파의 반란(앨마서 51장)과 맞물려 훨씬 더 장기적이고 파괴적이었으며 –67년에서 –61년까지 7년 동안 지속되었음; 2차 분쟁은 두 곳의 전선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모로나이$_1$는 동부 전선의 니파이인 군대를 이끌었고 힐라맨$_2$은 서부 전선 부대를 지휘했음

주의 손에 건지심을 입음으로 인하여 가졌었던 큰 기쁨에도 불구하고, 니파이 백성의 형세는 이같이 심히 불안하고 위험하였더라.

8 이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자녀들이 얼마나 속히 주 저희 하나님을 잊는지, 참으로 얼마나 속히 불의를 행하며, 저 악한 자에게 이끌려 가는지를 알 수 있었더라. 9 참으로 또한 매우 간악한 사람 하나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생기게 할 수 있는 큰 간악함도 알게 되었더라. 10 참으로 우리는 아맬리카이아가, 그 자신 간교한 술책의 사람이요 아첨하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던 까닭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이끌어 내어 악을 행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유, 곧 의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축복인 자유의 기초를 파괴하기를 꾀하게 하였음을 알고 있느니라. ㄱ

자유의 기치

11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모로나이가 이 이반의 소식을 듣고, 아맬리카이아에게 노하였더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자기의 겉옷을 찢고, 그 한 조각을 취하여, 그 위에—"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종교와 자유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를 기억하여"—라고 쓰고 그것을 장대 끝에 비끄러매었더라.

13 그리고 그의 투구와 그의 가슴판과 그의 방패를 단단히 매고 그의 갑옷을 그 허리에 두르고 그 찢은 겉옷을 끝에 매단 장대를 들고 (그는 이를 자유의 기치라 칭하였더라) 땅에 엎드려, 땅을 소유할 그리스도인의 무리가 남아 있는 동안은, 자유의 축복이 자기의 형제들 위에 머물러 있기를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나니— 14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다 이같이 일컬어졌음이라. 15 또 교회에 속한 자들은 충실하였고, 참으로 무릇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들은 기쁘게 그리스도의 이름, 곧 사람들이 일컫는 대로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이름을 받들었나니, 그들을 이같이 일컬었음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의 믿음의 연고더라.

16 그리하여 이때 모로나이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의와, 그 땅의 자유를 도우시기를 기도한 것이더라.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나서, 황무 땅 남쪽의 모든 땅과 또한 요컨대 북방과 남방의 모든 땅을 택함 받은 땅이요, 자유의 땅이라 이름하였더라. 18 또 이르되, "정녕 하나님은 우리 곧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까닭에 멸시받는 우리가 짓밟혀 멸망당하도록 버려 두지 아니하시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범법으로 이를 자초하기 전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라.

19 또 모로나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 그 옷의 찢은 조각을 공중에 흔들어 찢은 조각 위에 자기가 쓴 것을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며,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20 "보라, 무릇 이 땅 위에 이 기치를 지키기 원하는 자는 다 주의 힘 안에 나아와,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종교를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어, 주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 말을 공포하고 나자, 보라, 백성들이 그 허리에 그들의 갑옷을 두르고 함께 달려와, 주 저희의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표시, 곧 성약으로써 그들의 옷을 찢었나니,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이 만일 하나님의 계명

ㄱ 10 니파이후서 1:7; 앨마서 45:15 참조

을 범하거나, 범법에 빠져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부끄러워하게 된다면, 그들이 그들의 옷을 찢은 것같이 주께서 그들을 찢으실지로다 함이라. [22]"

이제 그들이 맺은 성약이 이러하였으니, 그들이 모로나이의 발에 그들의 옷을 던지며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성약하노니, 만일 우리가 범법에 빠진다면, 북방 땅의 우리 형제들ㄱ 같이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라, 참으로 만일 우리가 범법에 빠진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옷을 당신 발에 던져 발 아래 밟히게 한 것같이, 그가 우리를 우리 대적의 발에 던지실지로다" 하매,ㄴ

[23]모로나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우리는 야곱 자손의 남은 자들이니라. 참으로 우리는, 그 옷이 그 형제들에게 여러 조각으로 찢기웠던 요셉 자손의 남은 자들이라, 과연 그러하니ㄷ 이제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기억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옷이 우리의 형제들에게 찢길 것이요, 우리는 옥에 던져지거나, 팔리우거나, 죽임을 당하리라.

[24]"참으로 우리는 요셉의 남은 자들로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자. 참으로 우리는 야곱이 죽기 전에 한 말을 기억하자. 이는 보라, 그가 요셉의 겉옷의 남은 조각 일부가 썩지 않고 보전된 것을 보았음이니, 그가 이르되—'내 아들의 옷의 이 남은 조각이 보전된 것같이, 내 아들의 자손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보전되어 하나님께로 취하심을 입으리라, 한편 요셉 자손의 나머지는 그의 옷의 남은 조각처럼 멸망하리로다. [25]이제 보라, 이 일이 내 영혼을 슬프게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 중 하나님께로 취하심을 입을 그 부류로 인하여, 내 영혼이 내 아들 안에서 기쁨을 얻는도다' 하였느니라.ㄹ [26]이제 보라, 야곱의 말이 이러하였느니라. [27]그리고 이제 그의 옷처럼 멸망할 요셉 자손의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인지 누가 아느냐? 또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굳게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되리라."

대규모 이탈의 모면

[28]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자신이 나아가되, 또한 이반이 있는 그 땅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내어, 무릇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고, 아맬리카이아 및 떨어져 나가서 아맬리카이아인이라 일컫는 자들을 대적하기 원하는 백성을 다 함께 모았느니라. [2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카이아가, 모로나이의 백성이 아맬리카이아인들보다 수효가 많은 것을 보고—그가 또한 자기의 백성들이 그 시작한 일의 대의의 정당성에 대하여 의심스러워하는 것을 본지라—그러므로 그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백성 중에서 원하는 자들을 취하고 니파이 땅으로 떠났더라.

[30]이제 모로나이는 레이맨인들이 더 이상의 세력을 갖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였나니, 그리하여 그는 아맬리카이아의 백성을 차단하든지, 아니면 그들을 붙잡아 다시 데려오고, 아맬리카이아는 사형에 처하려고 생각하였더라. 참으로 이는 그가 레이맨인들을 충동하여 그들에게 대하여 노하게 하고, 저들로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게 할 것임을 그가 알았음이니, 아맬리카이아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리라는 것을 그가 알았더라. [31]그리하여 모로나이는, 함께 모여 스스로 무장하고 평화를 지키기로 성약을 맺은 그의 군대를 거느림이 적절하다 생각하였던지라—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광야에서 아맬리카이아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그의 군대

ㄱ22 이는 곧, 야렛인들 ㄴ22 앨마서 10:19; 44:4 참조 ㄷ23 창세기 37:31~33 ㄹ25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를 거느리고 그의 장막을 가지고 광야로 진군해 나갔더라. 3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자기의 원대로 행하여 광야로 진군해 나아가서, 아맬리카이아의 군대를 가로막았더라.

3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카이아가 소수의 자기 병사들과 함께 도망하였고,ㄱ 나머지는 모로나이의 손에 넘기워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도로 데려와졌더라. 34이제 모로나이는 대판사들과 백성의 소리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었으므로, 니파이인들의 군대와 관련하여 그의 뜻대로 그들 위에 권력을 세우고 행사할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더라. 3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아맬리카이아인들 중에서 누구든지 자유로운 정치 체제를 지키고자 자유의 대의를 지지하기로 언약을 맺지 아니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게 하였으되, 자유의 언약을 거부한 자는 소수 밖에 없었더라.

36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또한 니파이인들이 소유한 모든 땅에 있는 각 망대 위에 자유의 기치를 게양하게 하였으니, 이같이 모로나이가 니파이인들 가운데 자유의 기를 심었더라. 37이리하여 그들이 다시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였고, 이리하여 그들이 거의 판사 치세 제십구년 말까지 그 땅에서 평화를 유지하였더라.ㄴ

38또한 힐라맨과 대제사들도 교회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매, 참으로 그들이 사 년 동안 교회 안에서 많은 화평과 기쁨을 누렸느니라.ㄷ 39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받았음을 굳게 믿고 죽는 자들이 많았나니, 그리하여 그들은 기뻐하며 세상에서 나갔더라. 40또 그 땅에 연중 어떤 계절에 매우 빈번하던 열병으로 죽는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그러나 열병으로 그처럼 많이 죽지는 아니하였나니, 이는 기후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걸리기 쉬웠던 여러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초목과 뿌리의 우수한 효능 까닭이었더라— 41그러나 나이 많아 죽는 자가 많았고, 또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니 곧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대로니라.

아맬리카이아가 레이맨인 군대의 사령관이 되다

47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기록에서 아맬리카이아 및 그와 함께 광야로 도망해 들어간 자들에게로 돌아가리니,ㄹ 이는 보라, 그가 자기와 함께 간 자들을 데리고 니파이 땅에 레이맨인들 가운데 올라가, 레이맨인들을 충동하여 니파이인 백성에게 대하여 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리하여 레이맨인의 왕이 그의 온 땅에, 그의 온 백성 가운데 두루 포고를 보내어,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가도록 다시 함께 모이라 하였더라. 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포고가 그들 가운데 나아가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왕을 노엽게 할 것을 두려워하였으며, 또한 그들의 목숨을 잃을까 하여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가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곧 그들의 대부분이 왕의 명령을 복종하려 하지 않았더라.

3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그들의 불복종으로 인하여 노한지라, 그 군대 중 자기의 명령에 복종하는 부대의 지휘권을 아맬리카이아에게 주고, 그에게 명하여 나아가 그들을 억지로 무장시키게 하였더라. 4이제 보라, 이것은 바로 아맬리카이아가 바라던 것이었으니, 이는 그가 악을 행하기에 심히 간교한 자이었으므로 그 마음에 레이맨인의 왕을 폐위시킬 계획을 세웠음이더라.

ㄱ33 그들의 이야기는 앨마서 47:1에서 다시 시작됨 ㄴ37 –73년; 위 앨마서 45:2, 20; 48:2 참조 ㄷ38 이는 곧, –68년에 모리앤톤 2에서 일어난 모반; 앨마서 48:20 참조; 50:25~36 ㄹ1 앨마서 46:33

5이에 이제 그가 레이맨인들 가운데 왕을 지지하는 자들의 지휘권을 가졌고, 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환심 사기를 꾀하였으므로, 오나이다라 하는 곳으로 나아갔으니, 그리로 모든 레이맨인들이 도망하였음이라. 이는 그들이 병사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들을 멸하려 오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오나이다로, 무기가 있는 곳으로 도망하였음이라. 6또 그들은 한 사람을 임명하여 그들 위에 왕과 지도자를 삼았고, 니파이인들을 치러 가는 일에 복종하지 않기로 그 마음에 굳은 결심으로 확정하고 있었더라. 7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앤티파스라 하는 산꼭대기에 함께 모여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

8이제 왕의 명령을 좇아 그들과 싸우는 것은 아맬리카이아의 의도가 아니었나니, 보라, 도리어 레이맨인 군대의 환심을 사서, 스스로 그들의 수령이 되어 왕을 폐위시키고 왕국을 차지하려는 것이 그의 의도였더라. 9이에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군대로 하여금 앤티파스 산 가까운 골짜기에 그들의 장막을 치게 하였더라.

10또 이렇게 되었나니 밤이 되매 그가 밀사를 앤티파스 산으로 보내어, 산 위에 있는 자들의 지도자에게—그의 이름은 리혼타이더라—저에게 자기가 저와 말하기를 원하니, 산기슭으로 내려와 줄 것을 요청하였더라. 1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혼타이가 전갈을 받고는 감히 산기슭으로 내려가려 아니하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카이아가 두 번째로 다시 사람을 보내어, 저가 내려와 주기를 요청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리혼타이가 내려오려 하지 아니하매, 그가 세 번째로 다시 보내었더라. 12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카이아가 리혼타이를 산에서 떠나 내려오게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산으로 올라가 리혼타이의 진 가까이로 가서, 네 번째로 다시 자기의 전갈을 리혼타이에게 보내어 내려오기를 청하되, 저가 그 호위병들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올 것을 청하였더라.

1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혼타이가 그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아맬리카이아에게로 내려오매, 아맬리카이아가 저에게 저의 군대를 거느리고 밤중에 내려와서, 왕이 자기에게 그 지휘권을 준 병사들을 그 진에 있는 채로 포위하기를 청하고, 만일 자기(아맬리카이아)로 전 군대의 부지휘관을 삼겠다 하면 그들을 리혼타이의 손에 넘기겠다 하였느니라.

1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혼타이가 자기 병사들을 거느리고 내려와서 아맬리카이아의 병사들을 포위하니, 그들이 새벽에 깨기 전에 리혼타이의 군대에게 포위되었더라. 1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자기들이 포위된 것을 보고, 자기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그 형제들과 합류하게 해 줄 것을 아맬리카이아에게 간청하니, 이제 이는 바로 아맬리카이아가 바라던 일이었음이라. 1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왕의 명과는 반대로 자기의 병사들을 넘겨주었느니라. 이제 이것은 아맬리카이아가 원한 일이었으니, 곧 왕을 폐위시키려는 자기의 계획을 이루고자 함이었더라.

17이제 그들의 최고 지휘관이 죽임을 당하면, 부지휘관을 그들의 최고 지휘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레이맨인들 사이의 관습이었더라. 1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카이아가 그의 종 가운데 하나로 하여금 리혼타이에게 점차로 독약을 먹이게 하매, 필경은 저가 죽었느니라. 19이제 리혼타이가 죽으매, 레이맨인들이 아맬리카이아를 임명하여 그들의 지도자와 그들의 사령관을 삼았더라.

아맬리카이아가 레이맨인들의 왕이 되다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카이아가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니파이 땅으로 행군하여, (이는 저가 자기의 원하던 바를 얻었음이라) 수도 니파이 성에 이르렀더라. 21 이에 왕이 그 시위병들을 거느리고 그를 맞으러 나왔으니, 이는 아맬리카이아가 자기의 명을 이루었고, 아맬리카이아가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갈 군대를 그처럼 많이 모은 줄로 생각하였음이라. 22 그러나 보라, 왕이 그를 맞으러 나올새, 아맬리카이아가 그의 종들로 하여금 나아가 왕을 만나게 하매, 그들이 가서 마치 왕의 위대함으로 인하여 왕을 존경하려 함같이 왕 앞에 엎드렸더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레이맨인들의 관습대로 평화의 표시로서 그들을 일으키고자 그 손을 내미니, 이 관습은 그들이 니파이인들에게서 취한 것이더라. 2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이 첫째를 땅에서 일으킨즉, 보라 그가 왕의 심장을 찌르매 왕이 땅에 쓰러졌느니라.

25 이제 왕의 종들은 도망하고, 아맬리카이아의 종들은 일어나 소리 높여 외쳐 이르되, 26 "보라, 왕의 종들이 왕의 심장을 찔러 왕은 쓰러졌고 종들은 달아났도다, 와서 보라" 하였느니라. 2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카이아가 명하여 자기의 군대로 하여금 행군해 나아가 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게 하매, 그들이 그 장소에 이르러 본즉, 왕이 그 엉긴 피 가운데 누웠는지라, 아맬리카이아가 짐짓 노한 체하고 이르되, "누구든지 왕을 사랑하였거든 그는 나아가 왕의 종들을 추격하여 그들로 죽임을 당하게 할지니라" 하였더라.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왕을 사랑한 자들이 다 이 말을 듣고, 나아와 모두 왕의 종들의 뒤를 추격하였더라.

29 이제 왕의 종들은 군대가 그들의 뒤를 추격하는 것을 보고, 다시 놀라 광야로 도망하여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건너가서 암몬 백성에게 합류하였더라.[ㄱ] 30 또 그들의 뒤를 추격하던 군대는 그들의 뒤를 추격하다가 잡지 못하고 돌아오니, 이리하여 아맬리카이아가 그의 기만 행위로 백성의 마음을 얻었느니라. 31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아맬리카이아가 그 군대를 거느리고 니파이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였더라.

32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왕후가 왕이 죽임을 당하였음을 듣고—이는 아맬리카이아가 왕후에게 사자를 보내어, 왕이 그 종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과 자기가 군대로 그들을 추적하였으나 잡지 못하였고, 그들은 도망해 버렸음을 알렸음이라— 33 그러므로 왕후가 이 전갈을 받고 아맬리카이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성의 백성들을 살려 줄 것을 그에게 요청하고, 또한 자기에게로 들어와 줄 것을 요청하고, 또한 왕의 죽음에 관하여 증거할 증인들을 함께 데려올 것을 그에게 요청하였더라.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카이아가 왕을 죽인 바로 그 종과 그와 함께 있었던 자들을 다 데리고, 왕후에게로 들어가 왕후가 좌정한 곳에 이르매, 그들이 다 왕후에게 증거하기를, 왕이 자기 자신의 종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하고, 또 이르되, "저들이 도망하였으니 이것이 저들에 대하여 증거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이같이 그들의 왕의 죽음에 관하여 왕후를 납득시켰더라.

3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카이아가 왕후의 호의를 구하고, 그를 취하여 자기의 아내를 삼았더라. 이리하여 자기의 기만 행위와, 자기의 간교한 종들의 도움으로 그가 왕국을 얻었나니, 참으로 그는 그 온 땅에서, 레이맨인들과 레뮤엘인들과 이스마엘인들 및 니파이의 다스린 때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니파이인들의 모든 이반자들로 구성된 모든 레이맨인 백성 가운데서 인정된 왕이었더라. 36 이제 이 이반자들은, 니파이인들의 동일한 가르침과 동일한 견문을 가졌고, 참으로 동일한 주에 대한 지식으로 가르침을 받았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그들이 갈라져 나간 후 오래지 아

[ㄱ] 29 이 종들 중에 하나가 앨마서 55:5에 다시 등장할 것임

니하여, 레이맨인들보다 더 완악하고 회개할 줄 모르며, 더 거칠고, 간악하며 흉포하게 되어—레이맨인들의 전통을 답습하고, 나태와, 온갖 음란에 빠지며, 참으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느니라.

아맬리카이아가 레이맨인들에게 전쟁을 부추기다

48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카이아가 왕국을 얻음과 동시에 니파이인들을 대적하도록 레이맨인들의 마음을 고무하기 시작하였으니, 참으로 그가 사람들을 임명하여 그들의 망대에서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레이맨인들에게 말하게 하였더라. [2]또 그가 이같이 그들의 마음을 고무하여 니파이인들을 대적하게 하였으니, 결국 판사 치세 제십구년 말미에,ㄱ 그가 이제까지의 자기의 계획을 달성하였음이요, 실로 레이맨인의 왕이 되어 그 온 땅과 실로 그 땅의 모든 백성 곧 레이맨인들뿐 아니라 니파이인들까지도 다스리기를 구하였음이더라.

[3]이러므로 그는 자기의 계획을 달성했었나니, 이는 그가 레이맨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며 그들을 충동하여 노하게 함으로써, 결국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갈 수많은 무리를 함께 모았음이더라. [4]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수효가 많음으로 인하여, 니파이인들을 정복하여 속박하기로 결심하였음이라. [5]그리하여 그가 조램인 중에서 총대장들을 임명하였으니, 이는 이들이 니파이인들의 병력과 그들의 대피 장소와 그들 성읍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었음이라. 이러므로 그가 이들을 임명하여 자기 군대의 총대장들을 삼았더라. [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진을 취하고, 광야에서 제이라헤믈라 땅을 향하여 이동해 나아갔더라.ㄴ

니파이인들의 전쟁 준비

[7]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카이아가 이처럼 기만과 속임으로 권력을 얻고 있는 동안, 다른 한편으로 모로나이는 백성의 마음이 주 그들의 하나님께 충실하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더라. [8]참으로 그는 니파이인들의 군대를 강화하며, 작은 보루들, 곧 대피 장소들을 구축하되, 주위로 흙둑을 쌓아 올려 그의 군대를 둘러싸고, 또한 그들의 성읍들과 그들 땅의 경계 주위로, 참으로 그 땅 주위를 다 돌아가며 석벽을 쌓아 그들을 둘렀더라. [9]또 그들의 방어 시설이 가장 약한 곳에는 더 많은 수의 병사를 배치하였나니, 이같이 그가 니파이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의 방비를 강화하고 그 땅을 견고히 하였더라. [10]또 이같이 그는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위해 살며, 그 원수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대의라 일컫는 바를 지키도록,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땅과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평화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

ㄱ2 –73년; 위 앨마서 45:2, 20; 46:37 참조 ㄴ6 레이맨인 침략에 대한 이야기는 앨마서 49:1에서 다시 시작됨

모로나이$_1$에 대한 몰몬$_2$의 찬사

11 또 모로나이는 강하고 용맹한 사람이라. 그는 완전한 이해를 갖춘 사람이었으니, 참으로 피 흘리는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요, 그 영혼이 자유를 기뻐하며 그 나라와 그 형제들이 속박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자유를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으며, 12 참으로 그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려 주시는 많은 특권과 축복에 대하여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그 마음이 충일한 사람이요, 그 백성의 복리와 안전을 위하여 심히 수고하는 사람이었더라. 13 참으로 또한 그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견고한 사람이었나니, 그는 그 피를 잃기까지라도 자기 백성과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종교를 지키기로 맹세하였더라. ㄱ

14 이제 니파이인들은 그들의 적에 대항하여, 필요하다면 피 흘리기까지라도 스스로를 지키도록 가르침을 받았으며, 또한 적에 대항하여 스스로의 생명을 지켜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공격을 가하거나, 결코 검을 치켜들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았더라. ㄴ 15 또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으니, 곧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리라는 것, 즉 달리 말해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되, ㄷ 참으로 그들이 처한 위험에 따라, 피하도록 경고하시거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경고하실 것이며, 16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그들에게 알려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것이었더라. 이것이 모로나이의 신앙이었고, 그 마음은 이를 영광으로 여겼으니, 피 흘림을 그리 여긴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을, 자기 백성을 보전함을,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을, 또한 불의를 물리침을 그리 여긴 것이더라.

17 과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이 과거에나, 현재에나, 장차 언제까지나 모로나이와 같을진대, 보라, 지옥의 권세들이 영원토록 흔들렸을 것이요, 참으로 악마가 결단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리라. ㄹ 18 보라, 그는 모사이야의 아들 암몬과 같은 사람이요, 또한 참으로 모사이야의 다른 아들들과도 같고, 또한 앨마와 그의 아들들과도 같은 사람이었으니, 이는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이라.

19 이제 보라,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도 백성에게 봉사함이 모로나이 못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누구든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다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베풀었음이라. 20 또 이같이 그들이 나아가매, 그들의 말씀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스스로 겸손한지라, 그들이 주의 은총을 크게 입었고, 그리하여 참으로 사 년 동안, 그들 가운데 전쟁이나 다툼이 없었느니라. ㅁ

니파이인들의 전쟁에 대한 태도

21 그러나 이미 내가 말한 것같이, 제십구년 말미에, ㅂ 그들 중에는 평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과 내키지 않으면서도 억지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더라. 22 참으로 또한 요컨대, 그들이 매우 꺼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전쟁은 레이맨인들과 더불어 여러 해 동안 도무지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23 이제 그들은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무기 들기를 민망히 여겼으니, 이는 그들이 피

ㄱ 13 앨마서 46:20 참조 ㄴ 14 앨마서 43:46~47 ㄷ 15 니파이후서 1:20 ㄹ 17 그래서 몰몬$_2$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모로나이로 지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몰몬의 말씀 1:1; 몰몬서 6:6 참조 ㅁ 20 이는 곧, –68년에 모리앤톤 $_2$에서 일어난 모반; 앨마서 48:20 참조; 50:25~36 ㅂ 21 –73년

흘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한 까닭이요, 또한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그들은 그처럼 많은 그들의 형제들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보내는 도구가 됨을 민망히 여겼음이라.

24 그러나 그들은 한때 그들의 형제였다가 그들의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후, 그들을 떠나 레이맨인들에게 합류함으로써, 그들을 멸하려 한 자들의 야만적인 잔혹함에 자신들의 아내와 자신들의 자녀들이 살육 당하도록 그들의 목숨을 버리는 일은 용납할 수 없었더라. 25 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자가 하나라도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형제들이 니파이인들의 피를 흘려 놓고 기뻐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나니, 이는 주의 약속은 만일 그들이 그의 계명을 지킨다면 그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는 것이었음이더라. ㄱ

니파이인들의 요새에 놀란 레이맨인들

49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구년 십일월 곧 그 달 십일에, ㄴ 레이맨인의 군대가 앰몬아이하 땅을 향하여 다가오는 것이 보이더라. ㄷ 2 그러나 보라, 그 성은 이미 중건되었고, 모로나이가 성의 경계에 인접하여 군대를 배치하여 두매, 저들이 레이맨인들의 화살과 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방으로 돌아가며 흙을 쌓아 올렸으니, 이는 보라, 그들이 돌과 화살을 가지고 싸웠음이라. 3 보라, 내가 앰몬아이하 성이 중건되었다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것은 일부가 중건되었으며, 레이맨인들은 그 백성의 ㄹ 죄악으로 인하여 이 성을 한 번 멸한 적이 있으므로 이 성이 다시 그들에게 쉬운 노략거리가 되리라고 생각하였더라. 4 그러나 보라, 그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던지, 이는 보라, 니파이인들이 스스로를 둘러 사방으로 흙 제방을 파 올렸는데, 심히 높아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돌과 그들의 화살을 던져도 ㅁ 소용이 없으며, 저들의 입구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저들을 습격할 수도 없음이더라.

5 이제 이때 레이맨인의 총대장들은, 자신들의 방호 장소를 예비한 니파이인들의 지혜로 인하여 심히 놀랐더라. 6 이제 레이맨인의 지휘관들은 자기들의 수효가 많음으로 인하여 생각하되, 참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저들을 쉽게 공격할 수 있으리라 여겼고, 그뿐 아니라 그들 역시 방패와 가슴판으로 스스로 예비하였고, 또한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운 가죽옷, 곧 매우 두꺼운 옷으로 스스로 예비하였던지라. 7 또 이같이 예비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쉽게 그들의 형제들을 제압하고 굴복시켜 속박의 멍에를 지게 하거나, 마음대로 죽이며 학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더라. 8 그러나 보라, 그들로서는 지극히 놀라웁게도, 니파이인들은 일찍이 리하이의 자손들 가운데 알려진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들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이제 니파이인들은 레이맨인들에 대하여 모로나이가 지시하는 방식대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 곧 아맬리카이아인들은 니파이인들이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방식에 심히 놀랐더라.

10 이제 만일 아맬리카이아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니파이 땅에서 내려왔었더라면, 아마도 그는 레이맨인들로 하여금 앰몬아이하 성에 있는 니파이인들을 공격하게 하였으리니, 이는 보라, 그는 자기 백성의 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아니하였음이라. 11 그러나 보라, 아맬리카이아는 싸우러 직접 내려오지 아니하였더라. 또 보라, 그의 총대장들은 감히 앰몬아이하 성에 있는 니파이인들을 공격하려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로나

ㄱ 25 니파이후서 1:20 ㄴ 1 –73년; 위 앨마서 45:2, 20; 46:37; 48:2 참조 ㄷ 1 이 이야기가 앨마서 14:6~7에서부터 계속됨 ㄹ 3 앨마서 16:1~11; 25:2 ㅁ 4 "화살을 던지다(영어: cast)"는 원래 "화살을 쏘다(영어: shoot)"의 영어 고어적인 표현임

이가 니파이인들 가운데 일의 경영을 변경시킨 결과 레이맨인들이 니파이인들의 대피 장소에 실망하였고 또 저들을 습격할 수 없었음이더라.

12 그리하여 그들은 광야로 퇴각하여 그들의 진을 취하고, 그들이 가서 니파이인들을 치기에는 노아 땅이 다음으로 가장 좋은 곳이라 생각하여, 노아 땅을 향하여 진군하였더라. 13 이는 모로나이가 주변 온 땅의 모든 성읍을 위하여 방비를 강화한 줄을, 곧 방호 보루들을 건축한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굳은 결의를 가지고 노아 땅으로 진군해 나아갔나니, 참으로 그들의 총대장들은 앞으로 나아와서 그 성의 백성을 멸하겠다고 맹세하였더라. 14 그러나 보라, 놀랍게도 지금까지 취약한 곳이었던 노아 성이 이제는 모로나이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앰몬아이하 성의 견고함을 넘어설 정도더라. 15 또 이제 보라, 이는 모로나이에게 있는 지혜였으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그들이 앰몬아이하 성을 보고 놀랄 것이며, 노아 성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었으므로 그리로 싸우러 진군해 오리라 하였음이라. 이에 이같이 그가 바란 대로 일이 되었더라.

16 또 보라, 모로나이는 리하이를 임명하여 그 성 병사들의 총대장을 삼았으니, 이는 시돈 강 동편 골짜기에서 레이맨인들과 싸운 바로 그 리하이였더라.[ㄱ] 17 이에 이제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리하이가 그 성을 지휘하는 것을 알고 다시 실망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리하이를 심히 두려워하였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총대장들이 그 성을 공격하기로 맹세했었으므로 그들은 그들의 군대를 전진시켰더라.

18 이제 보라, 입구 부근을 제외하고는 쌓아 올린 둑이 높고, 둘러 파 놓은 호가 깊어, 출입구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어떤 길로도 레이맨인들이 저들의 방호 보루에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19 그리고 이리하여 니파이인들은 무릇 다른 어떤 길로 보루에 들어오고자 기어 오르기를 꾀하는 자들에게는 돌과 화살을 던져, 그들을 다 멸할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 20 이리하여 저들, 참으로 저들 중 가장 강한 병사들의 무리가, 무릇 출입하는 곳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방호 장소에 들어오기를 꾀하는 자들을 저들의 칼과 저들의 물매로 다 쳐 쓰러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이같이 저들은 레이맨인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더라.

노아 성 전투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의 대장들이 니파이인들의 방호 장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 장소 앞으로 그들의 군대를 전진시키고 니파이인들과 싸우기 시작하였으나 보라, 그들이 그때마다 격퇴 당하여, 이윽고 막대한 살육을 당하더라. 22 이제 그들이 그 통로로는 니파이인들을 이길 힘을 얻지 못할 것을 알고, 저들의 군대에 이르는 한 통로를 얻어 대등한 조건으로 싸우고자 저들의 흙 제방을 파 내리기 시작하였으나 보라, 이렇게 하려다가 그들에게 던지는 돌과 화살에 쓸어버림을 당하니, 흙 제방을 허물어 내려 그들의 호를 메우는 대신, 호가 그들의 시체와 부상당한 몸으로 메워지더라.

23 이리하여 니파이인들은 저들의 적을 이길 모든 힘을 가졌고, 이같이 레이맨인들은 니파이인들을 멸하기를 꾀하다가 결국 그들의 총대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한 천 명이 넘는 레이맨인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되, 다른 한편으로 니파이인들 가운데는 죽임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24 통로를 통하여 레이맨인들의 화살에 노출되었던 자로서 부상을 입은 자가 오십 명 가량 있었으나, 저들이 저들의 방패와 저들의 가슴

[ㄱ]16 그 전년; 앨마서 43:34~40, 52~53 참조

판과 저들의 투구로 몸을 가렸던지라, 저들은 그 다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그 중 매우 심한 부상이 많았더라.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자기 총대장들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는 광야로 도망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출생으로는 니파이인인 그들의 왕 아맬리카이아에게 그들의 큰 손실에 대해 알리고자 니파이 땅으로 돌아갔더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자기 백성에게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그가 니파이인들에 대한 자기의 욕망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들을 굴복시켜 속박의 멍에를 지게하지 못하였음이라. 27 참으로 그가 심히 노하여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한 모로나이를 저주하여 그의 피를 마시겠다고 맹세하였으니, 이는 모로나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 백성의 안전을 위하여 준비한 까닭이더라.

2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다른 한편으로 니파이 백성들은, 그 비길 데 없는 권능으로 저들의 원수의 손에서 저들을 건지신 주 그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렸더라. 29 그리고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십구년이 끝났느니라.[ㄱ] 30 참으로 또한 힐라맨과 시블론과 코리앤톤과 암몬과 그의 형제들, 또한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에 의하여 성임되어 백성 가운데서 가르침을 베풀도록 보냄을 받은 모든 이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주의와 부지런함을 쏟은 까닭에, 교회는 심히 크게 번성하였고 그들 가운데 평화가 계속되었더라.

니파이인들의 추가 준비

50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전쟁을 위하여, 곧 레이맨인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 군대로 하여금 판사 치세 이십 년 초에 시작하게 하되,[ㄴ] 니파이인들이 소유한 온 땅에 걸쳐 모든 성읍 주위에 흙더미를 파 올리는 일을 시작하게 하였음이라. 2 또 이러한 흙제방 위에 성읍을 둘러 사람의 키 높이로 목재, 곧 목재로 만든 구조물을 짓게 하였더라. 3 또 그러한 목재 구조물 위에 끝이 뾰족한 말뚝으로 짠 틀을 그 사방으로 둘러진 목재 위에 있게 하매, 그것들이 견고하고 높았더라.

4 또 그는 그 끝이 뾰족한 말뚝 구조물 위에 솟아오른 망대들을 세우게 하고, 그 망대들 위에 안전한 장소를 만들게 하여 레이맨인들의 돌이나 화살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5 또 그들은 그 꼭대기에서 그들의 뜻대로, 또 그들의 힘이 닿는 대로 돌을 던져 성벽 가까이로 접근하려 하는 자를 죽일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나니, 6 이같이 모로나이가 그들의 적이 올 때를 대비하여 그 온 땅 각 성읍 주위에 견고한 진지를 예비하였더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자기 군대들로 하여금 동편 광야로 나아가게 하매, 참으로 그들이 나아가서, 동편 광야에 있던 레이맨인들을 제이라헤믈라 땅 남쪽인 저희의 본토로 다 쫓아 보냈더라. 8 그리고 니파이 땅은 동해에서 서해까지 곧게 뻗어 있었더라.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레이맨인들을 그들 소유의 땅 북편인 동편 광야에서 모두 쫓아 내고 나서, 제이라헤믈라 땅과 그 주변 땅의 주민들로 하여금 동편 광야로 나아가게 하되, 곧 바닷가의 변경까지 나아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더라. 10 또 남쪽

[ㄱ] 29 –73년; 앨마서 45:2 참조; 이 해는 몰몬$_2$의 니파이인들의 역사 요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해로, 대략 7번이 언급되어 있음; 앨마서 45:2, 20; 46:37; 48:2, 21; 49:1, 29 참조 [ㄴ] 1 –72년

편 그들 소유의 땅 경계에 군대를 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방어 시설을 세우게 하여 그들의 적의 손으로부터 그들의 군대와 그들의 백성을 안전히 지키게 하였더라.

11 또 이같이 그가 동편 광야에서와, 또한 서편에서 레이맨인들의 견고한 거점을 다 차단하고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 곧 제이라헤믈라 땅과 니파이 땅 사이, 곧 서해로부터 시돈 강의 발원지 곁을 지나는 선을 강화하였으니—니파이인들은 북편의 모든 땅, 곧 풍요 땅의 북편 모든 땅을 그 마음대로 차지하였더라. 12 이같이 모로나이는 자기의 군대와 더불어 그들 소유의 땅에서 레이맨인들의 세력과 권력을 끊어 버려서, 저들로 그들 소유의 땅에서 아무 권력도 갖지 못하게 하기를 꾀하였으니, 모로나이의 군대는 그의 일이 가져다주는 보호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불어났더라.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은 한 성읍을 세우기 시작하였고, 그 성의 이름을 모로나이라 하였으니, 그것은 동해 가까이에 있으며, 남쪽으로 레이맨인의 땅 경계선 가까이에 있더라. 14 그들이 또한 모로나이 성과 아론 성 사이, 아론과 모로나이의 경계를 연결하는 곳에 성 하나를 세우기 시작하여 그 성, 곧 그 땅 이름을 니파이하라 하였더라. 15 그리고 그들이 또한 그 같은 해에 북쪽으로 많은 성읍들을 짓기 시작하되, 하나를 특이한 방식으로 지어 리하이라 칭하였으니, 이는 북쪽 바닷가의 변방 가까이에 있더라. 16 그리고 이같이 제이십년이 끝났느니라. ㄱ

니파이인들이 번영하다

17 또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일년 초에도 이같이 니파이 백성은 번영하는 가운데 있었더라. ㄴ 18 또 그들은 심히 번영하고, 또 심히 부하게 되었으며, 또한 번성하고 그 땅에서 점점 강해졌더라.

19 또 이리하여 우리는 주의 모든 행하심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자비롭고 또 공의로운지를 알게 되나니, 참으로 우리는 이 시간에도 그의 말씀이 입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느니라. 곧 그가 리하이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기를,

20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복을 받을지라,
그들이 내 계명을 지킬진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러나 기억하라. 그들이 내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그들은 주의 면전에서 끊어지리라” 하셨느니라.

21 이에 우리는 니파이 백성에게 이 약속이 입증된 것을 보나니, 이는 그들의 전쟁과 그들의 멸망을 그들에게 초래한 것은 그들 스스로의 가운데 있었던 그들의 다툼과 그들의 분쟁이요, 참으로 그들의 살인함과 그들의 약탈함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음행과 그들의 가증한 일이었음이니라. 22 또 주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는 자들은 어느 때나 건지심을 입었으나, 한편 그들의 간악한 형제들 수천 명은 속박에 들거나, 칼에 멸망하거나, 믿지 않음에 빠져들어 레이맨인들과 섞이게 되었음이니라.

23 그러나 보라 니파이의 시대 이래로, 니파이 백성에게 있어서 모로나이의 때, 참으로 곧 이때, 판사 치세 제이십일년보다도 더 행복한 때가 결코 없었더라. ㄷ 24 또 이렇게

ㄱ 16 –72년; 위 1절 참조 ㄴ 17 –71년 ㄷ 23 –71년; 위 17절 참조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이십이년도 화평한 가운데 끝났으며,ㄱ 또한 제이십삼년도 그러하였더라.ㄴ

모리앤톤$_2$ 땅에서 있은 분쟁ㄷ

25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이십사년 초에,ㄹ 리하이 땅과 모리앤톤 땅에 관하여 그들 중에 일어난 분쟁이 아니었다면 니파이 백성 가운데는 역시 평화가 있었을 것이라, 모리앤톤 땅은 리하이의 경계에 닿아 있으며, 이 두 땅은 바닷가의 변방에 있더라. 26이는 보라, 모리앤톤 땅을 소유한 백성이 리하이 땅의 일부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음이라,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격한 다툼이 생겨 급기야는 모리앤톤 백성이 그 형제를 대적하여 무기를 들기에 이르렀나니, 이들은 리하이 백성을 칼로 도륙하기로 작정하였더라. 27그러나 보라, 리하이 땅을 소유한 백성이 모로나이의 진영으로 도망하여, 그에게 도움을 호소하였으니, 이는 보라 그들에게 잘못이 있지 아니함이었더라.

2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리앤톤이라 이름하는 자가 이끄는 모리앤톤 백성이, 리하이 백성이 모로나이의 진영으로 도망한 것을 알고, 모로나이의 군대가 자기들을 엄습하여 자기들을 멸할까 하여 심히 두려워하였던지라. 29이에 모리앤톤이, 큰 호수들로 뒤덮인 북방 땅으로 도망하여 북방 땅을 차지하려는 뜻을 그들의 마음에 넣었더라. 30그리고 보라, 그들이 이 계획을 실천에 옮기려 하였더라, (그리되었더라면 이는 통탄할 만한 일이었으리라) 그러나 보라, 모리앤톤은 성정이 격한 사람이라, 그리하여 저가 한 여종에게 노하여,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심히 때렸는지라. 3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도망하여 모로나이의 진영으로 넘어와서, 모로나이에게 그 일에 관해서와, 또한 북방 땅으로 도망하려는 그들의 의도에 관하여 모든 것을 다 고하였더라.

32이제 보라, 풍요 땅에 있던 백성은, 아니 그보다도 모로나이는, 그들이 모리앤톤의 말을 듣고 그의 백성과 연합하게 되고, 또 그리하여 그가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될까 염려하였나니,ㅁ 그 일은 니파이 백성 가운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기초를 놓게 되고, 참으로 이러한 결과는 그들의 자유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었더라. 33그리하여 모로나이는 군대를 그 진과 함께 보내어, 모리앤톤의 백성을 가로막아, 그들이 북방 땅으로 도망하는 것을 막게 하였더라.

3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희가 황무 땅 경계에 이르도록 그들을 가로막지 못하였으나, 거기 곧 바다 가까이로 북방 땅에 이르는 좁은 통로에서 그들을 가로막았으니, 참으로 서쪽으로나 동쪽으로나 모두 바다에 가까운 곳이더라. 35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보낸 군대를 이끈 사람은 이름이 티앤쿰이라 하는 자더니, 그 군대가 모리앤톤의 백성을 만나매, 모리앤톤의 백성들이 (그의 간악함과 그의 감언이설에 고무되어) 심히 완강한지라, 그들 사이에 싸움이 시작되었으나, 이 싸움에서 티앤쿰이 모리앤톤을 죽이고, 그의 군대를 파하고,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가지고, 모로나이의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사년이 끝났느니라.ㅂ 36또 이같이 모리앤톤 백성을 다시 데려와서, 평화를 지키겠다는 언약하에 그들을 모리앤톤 땅으로 되돌리매, 그들과 리하이 백성 사이에 연합이 생겼고 이에 이들도 자기 땅으로 돌아갔더라.

ㄱ24 –70년 ㄴ24 –69년 ㄷ25 이 분쟁은 앨마서 46:38과 48:20에서 암시되었음 ㄹ25 –68년 ㅁ32 이는 곧, 모로나이$_1$는 풍요$_1$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리앤톤$_2$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리앤톤$_2$의 백성들과 연합할 것을 염려했음 ㅂ35 –68년; 위 25절 참조

페이호랜[1]이 대판사가 되다

[37]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이 다시 평화를 회복한 그 해에, 이 대 대판사 니파이하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올바르게 판사직을 수행하고 죽었느니라.[ㄱ] [38]그러할지라도 그는 앨마와 그의 조상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긴 저 기록들과 저 물건들을 맡으라는 앨마의 뜻을 거절하였나니, 그러므로 앨마가 그것들을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넘겨주었느니라.[ㄴ]

[39]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하의 아들이 그 부친을 대신하여 판사직을 채우도록 임명되니라. 참으로 그는 의롭게 판단하며 백성의 안녕과 자유를 지키며, 그들에게 주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할 성스러운 특권을 허락하며, 참으로 그의 온 생애 동안 하나님의 대의를 받들고 지키며, 악인을 그 범죄한대로 정의에 붙이기 위하여 맹세와 거룩한 의식으로써 백성 위에 통치자로 총리로 임명되었더라. [40]이제 보라, 그의 이름은 페이호랜이니, 페이호랜이 그 부친의 자리를 채우고 제이십사년 말에 니파이 백성을 다스리기 시작하였느니라.[ㄷ]

아맬리카이아의 2차 전쟁

앨마서 51~62장

왕당파와 자유파

5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오년 초에,[ㄹ] 그들이 리하이 백성과 모리앤톤 백성 사이에 그들의 땅에 관하여 평화를 이루고, 제이십오년을 화평한 가운데 시작하였으나, [2]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 전적인 화평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였나니, 이는 대판사 페이호랜에 관하여 백성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음이라. 이는 보라, 백성 가운데 법률의 몇몇 특정한 사항을 변경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음이라. [3]그러나 보라, 페이호랜은 법률을 변경하거나 변경하도록 용납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지라, 법 개정에 관한 그들의 청원을 들여보낸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4]그리하여 법이 개정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에게 노하여, 그가 더 이상 그 땅의 대판사가 되지 않기를 원하매, 그 문제에 관하여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으나, 피를 흘리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5]또 이렇게 되었나니 페이호랜이 판사직에서 물러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왕당파라 일컬어졌으니, 이는 그들이 자유로운 정치 체제를 전복하고 그 땅에 왕을 세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기를 원하였음이요, [6]또 페이호랜이 그 땅의 대판사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유파라 하는 이름을 취한지라, 그들 중의 분열이 이러하였으니, 이는 자유파들이 자유로운 정치 체제에 의하여 저들의 권리와 저들의 종교의 특권을 지키기로 맹세 곧 언약하였음이더라.

[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의 이 분쟁 문제가 백성의 소리로 해결되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의 소리가 자유파를 지지하매, 페이호랜이 판사직을 유지하니, 이로 말미암아 페이호랜의 형제들과 또한 많은 자유의 백성 가운데 크게 기뻐함이 있었고, 이들이 또한 왕당파들을 잠잠하게 하매, 저들이 감히 반대하지 못하고 자유의 대의를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더라. [8]이제 왕을 선호한 자들은 높은 신분의 태생인

[ㄱ]37 앨마서 4:16~18 [ㄴ]38 앨마서 37:1~2, 14~16, 47 참조; 실제로 넘겨준 것은 앨마서 44장과 45장 사이에서 일어남 [ㄷ]40 –68 년; 위 25절과 35절 참조 [ㄹ]1 –67년

자들이었고, 그들은 왕이 되기를 구하였으니, 그들은 백성들에 대한 권력과 권세를 추구하는 자들의 지지를 얻었더라.

레이맨인들이 재공격을 준비하다

9 그러나 보라, 이때는 니파이 백성 가운데 그러한 분쟁이 있기에는 위급한 시기였으니, 이는 보라, 아맬리카이아가 다시 레이맨인 백성의 마음을 충동하여 니파이인 백성을 대적하게 하고, 그의 땅 모든 지역으로부터 군사들을 함께 모으며, 부지런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음이라, 이는 그가 모로나이의 피를 마시겠다고 맹세했었음이더라.[ㄱ] 10 그러나 보라, 우리는 그가 한 약속이 성급한 것이었음을 보게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니파이인들을 치러 오기 위하여 스스로 준비하고 자기 군대도 준비시켰더라.

11 이제 그의 군대는 수천이 니파이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이제까지 그랬던 것만큼 많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의 손실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맬리카이아는 놀랄 만큼 큰 군대를 끌어 모았던지라,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내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더라.[ㄴ] 12 참으로 아맬리카이아가 레이맨인들을 거느리고 친히 내려왔으니, 때는 판사 치세 제이십오년이요,[ㄷ] 또 이는 그들이 대판사 페이호랜에 관한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시작한 것과 같은 때이었더라.

억지로 싸우게 된 왕당파 사람들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왕당파라 일컫는 사람들이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치려고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 마음에 기뻐하여 무기 들기를 거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대판사와, 또한 자유의 백성들에게 심히 노하였던지라,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려 하지 아니하였음이더라.

1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를 보고, 또한 레이맨인들이 그 땅의 경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가 보전하기 위하여 그토록 부지런히 수고해 온 그 백성의 완강함으로 인하여 심히 노하였더라. 참으로 그가 심히 노하여, 그 영혼이 그들에 대한 분노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성의 소리와 함께 나라의 통치자에게 청원을 보내어, 그가 이를 읽고, 자기(모로나이)에게 이반자들을 강제하여 그들의 나라를 지키게 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을 요청하였더라. 16 이는 그의 첫째 임무가 백성 중의 그러한 분쟁과 다툼을 종식시키는 것이었음이니, 이는 보라, 이것이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멸망의 한 원인이었음이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의 소리를 좇아 허락이 내려졌느니라.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명령을 내리되 그의 군대가 왕당파 사람들을 치러 가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고귀한 신분을 헐어 내리고 그들을 땅에까지 낮추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무기를 들고 자유의 대의를 지지하여야 할 것을 명하였더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군대가 그들을 치러 진군해 나아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고귀한 신분을 헐어 내리매, 그들이 모로나이의 병사들을 대적하여 싸우고자 그들의 전쟁 무기를 들다가 베임을 당하여 땅에 눕히었느니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칼에 베임을 당한 이반자들이 사천이었고,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그들의 지도자들은 잡혀 옥에 던져졌으니, 이는 이 시기에 그들을

[ㄱ] 9 앨마서 49:27 [ㄴ] 11 노아 성에서 레이맨인들이 패배한 지 이제 6년 되었음; 앨마서 49:21~27 참조
[ㄷ] 12 –67년

재판할 시간이 없었음이라.ㄱ [20]그리고 나머지 이반자들은 칼에 맞아 땅에 쓰러지기보다는 자유의 기에 투항한지라, 강제로 그들의 망대 위에와, 그들의 성읍에 자유의 기치를ㄴ 게양하게 하고,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게 하였더라. [21]그리고 이같이 모로나이가 왕당파를 종식시키매, 왕당파라는 호칭으로 알려지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으며, 또 이같이 그가 고귀한 혈통을 주장하던 무리의 완강함과 교만을 종식시키매, 그들이 낮아져서 그 형제들과 같이 스스로 겸손하여졌고, 그들의 자유 곧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게 되었더라.

니피아인들이 당한 처절한 연패

[22]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같이 자기 백성 가운데 있은 전쟁과 다툼을 진압하고, 그들로 하여금 평화와 문명을 받아들이게 하고, 레이맨인들과의 전쟁에 대비한 준비를 하기 위하여 규정을 만들고 있는 사이, 보라, 레이맨인들이 해안에 가까운 변경에 있는 모로나이 땅에 들어왔더라. [23]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 성에 있던 니파이인들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였던지라, 아맬리카이아가 그들을 몰아 내고 많이 죽였으며,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카이아가 그 성을 점령하되, 참으로 그들의 방어 시설을 다 점령하였더라.

[24]이에 모로나이 성에서 도망한 자들이 니파이하 성으로 왔고, 리하이 성의 백성도 스스로 함께 모여, 예비하고 레이맨인들을 맞이하여 싸울 준비가 다 되었더라. [25]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카이아가 레이맨인들의 니파이하 성 치러 감을 용납하고자 아니하고, 그들을 해안 가까이에 머무르게 하되, 각 성읍에 병사들을 남겨 두어 성을 지키며 방어하게 하였느니라. [26]또 이같이 저가 계속하여 많은 성읍을 니파이하 성과 리하이 성과 모리앤톤 성과 옴너 성과 기드 성과 뮬레크 성을 점령하였으니, 이 모두는 바닷가에 가까운 동쪽 변방에 있더라. [27]또 이같이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무수한 군사로 그처럼 많은 성읍들을 아맬리카이아의 계교로써 손에 넣었나니, 이 모두는 모로나이가 방비를 강화하는 방식을 좇아 견고하게 방비가 강화되었었으나, 이 모두가 레이맨인들을 위하여 견고한 진지를 제공하게 되었더라.

티앤쿰이 아맬리카이아를 죽이다

[28]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풍요 땅의 경계로 진군하였으며, 그들 앞에서 니파이인들을 몰아 내며 많이 도륙하였느니라. [29]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티앤쿰에게 만난 바 되니, 저는 모리앤톤이 도망할 때 그를 죽이고 그의 백성을 가로막았던 자더라.ㄷ [30]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아맬리카이아도 가로막았으니, 때에 그가 풍요 땅과 또한 북방 땅을 점령하고자 그의 수많은 군대와 더불어 진군하고 있었더라. [31]그러나 보라 그가 티앤쿰과 그의 병사들에게 격퇴 당함으로 실망하게 되었으니, 이는 티앤쿰의 각 병사들은 출중한 전사들이었음이요, 그들은 그 힘과 그 전쟁의 기술이 레이맨인들보다 뛰어나므로, 그들이 레이맨인들에 대하여 우세를 점하였음이더라. [3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을 계속 쳐서, 날이 어둡기까지 저들을 도륙하였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티앤쿰과 그의 병사들은 풍요 땅의 경계에 그들의 장막을 쳤고, 아맬리카이아는 변경 바닷가 해안에 저의 장막을 쳤으니 이처럼 저들이 쫓기었더라.

ㄱ19 결국 그들은 5년 후에 비로소 재판을 받게됨; 앨마서 62:9 참조 ㄴ20 앨마서 46:11~13 ㄷ29 앨마서 50:33~35

3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밤이 되매, 티앤쿰과 그의 종이 몰래 빠져나가 밤중에 나가서 아맬리카이아의 진중으로 들어가니, 보라, 그들은 낮 동안의 수고와 더위로 인해 몹시 피로한 까닭에 깊이 잠들었더라.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티앤쿰이 왕의 장막에 몰래 숨어 들어가 저의 심장에 창을 꽂으매, 그가 왕으로 즉사하게 하였으므로 저가 그 종들을 깨우지 못하였더라. 35 이에 그가 다시 몰래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오니, 보라, 그의 병사들도 자고 있는지라, 그들을 깨워서 자기의 행한 일을 그들에게 다 고하였더라. 36 또 레이맨인들이 깨어 그들을 공격할까 하여, 자기의 군대로 하여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게 하였느니라. 37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오년이 끝났고,[ㄱ] 이에 이같이 아맬리카이아의 생애가 끝나니라.

앰모론의 지휘 아래 레이맨인들이 양면전을 시작하다[ㄴ]

52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육년에,[ㄷ] 보라, 레이맨인들이 정월 초하루 아침에 깨어, 보라, 아맬리카이아가 자기의 장막에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한 티앤쿰이 그 날 그들과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2 이에 이제 레이맨인들이 이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북방 땅으로 행군하려던 그들의 계획을 버리고 그들의 온 군대와 더불어 뮬레크 성으로 퇴각하여, 그들의 방어 시설 안에 들어가 피하였느니라.

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맬리카이아의 동생이 백성들 위에 왕으로 임명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앰모론이더라. 이리하여 아맬리카이아 왕의 동생 앰모론 왕이 그를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임명되었더라.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자기의 백성에게 명하여, 그들이 피 흘려 취한 그 성읍들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많은 피를 잃지 않고 취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음이라.

5 이에 이제 티앤쿰이 본즉 레이맨인들이 그 취한 바 성읍들과 그들이 점령한 지역들을 지키기로 결심하였고, 또 본즉 그들의 수효가 심히 많은지라, 티앤쿰이 생각하기를 요새지 안에 있는 그들을 공격하려 함이 적절하지 못하다 하고, 6 마치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같이 자기 병사들을 주변에 배치하였더라. 이뿐 아니라 진실로 그는 주위에 벽을 쌓아 올리고 대피 장소를 예비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는, 그의 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모로나이가 많은 수의 병사들을 보내 왔을 때까지 이같이 전쟁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였더라.

8 그리고 모로나이는 또한 그에게 명령을 전하여 포로를 모두 붙잡아 두라 하였으니, 이는 레이맨인들이 많은 포로를 사로잡았으므로, 레이맨인들이 사로잡은 자들을 위한 몸값으로 모든 레이맨인 포로들을 붙잡아 두고자 함이더라. 9 그리고 모로나이가 또 그에게 명령을 전하여 풍요 땅의 방비를 강화하고, 북방 땅으로 가는 협로를 단단히 지켜, 레이맨인들이 그 지점을 손에 넣고 그들을 사방으로 괴롭힐 능력을 갖지 못하게 하도록 하였더라.

10 또 모로나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지역을 충실히 지킬 것과, 혹시라도 그들의 손에서 빼앗긴 바 된 성읍들을 계책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이 미치는 대로 그 지역의 레이맨인들을 많이 괴롭게 할 기회를 찾을 것과, 또한 레이맨인들의 수중에 떨어지지 아니한 주변 성읍들을 견고히 하고 방비를 강화할 것을

[ㄱ] 37 –67년; 앨마서 51:1 참조 [ㄴ] 1 두 개의 분쟁이 동시에 발생함으로써 이 이야기의 흐름이 복잡해짐; 여기에서부터 남아 있는 앨마서의 소제목 대부분은 해당되는 두 가지 전선을 명시하기 위해 "동부 전선" 또는 "서부 전선"으로 표기됨 [ㄷ] 1 –66년

요청하였더라. 11또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게 가기 원하나, 보라, 레이맨인들이 서해에 인접한 땅의 경계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라, 보라, 내가 그들을 치러 가므로 네게로 갈 수 없도다" 하였더라.

12이제 왕(앰모론)은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떠났고, 또 그 형의 죽음을 왕후에게 알리고, 많은 수의 병사를 모아 가지고, 서해에 인접한 변경의 니파이인들을 치려고 행군해 나아갔었더라. 13또 이같이 그가 니파이인들을 괴롭혀서 그들 병력의 일부를 그 지역으로 이끌어 내려 애쓰는 한편, 그가 취한 성읍들을 점유하도록 남겨 둔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도 동해에 인접한 변경의 니파이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하여, 그들의 힘이 미치는 한 그들 군대의 힘대로, 니파이인들의 땅을 많이 점령하라 하였더라. 14이리하여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육년이 끝날 때 니파이인들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더라. ㄱ

뮬레크 성이 탈환되다

동부 전선

15그러나 보라, 판사 치세 제이십칠년에ㄴ 이렇게 되었나니 티앤쿰이 모로나이의 명령으로—모로나이는 그 땅의 남편과 서편 경계를 방위할 군대를 편성해 놓고, 자기의 군사로 티앤쿰을 도와 그들이 잃은 성읍들을 되찾고자 풍요 땅을 향하여 그 진군을 시작하였더라— 1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티앤쿰은 뮬레크 성에 공격을 가하여, 가능하면 그것을 탈환하라는 명령을 받았더라. ㄷ

1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티앤쿰이 뮬레크 성에 공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자기 군대와 더불어 레이맨인들을 치러 진군하여 나아가나, 그가 본즉 그들이 그 요새지에 들어 있는 한 그들을 쳐 이기는 것이 불가능한지라,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모로나이가 오기를 기다려 자기 군대에 병력을 받아들이고자 풍요로 다시 되돌아왔더라. 18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칠년 말미에, 모로나이가 그 군대와 더불어 풍요 땅에 도착하였더라. ㄹ

19그리고 제이십팔년 초에,ㅁ 모로나이와 티앤쿰과 다수의 총대장들이 전쟁 회의를 열고—어떻게 하여야 레이맨인들로 하여금 싸우러 나오게 할 수 있을지, 또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그 요새에서 꾀어내어 그들을 이기고 뮬레크 성을 다시 취할 수 있을까를 의논하였더라. 2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뮬레크 성을 지키는 레이맨인들의 군대에게로, 이름이 야곱인 저들의 지휘관에게 사자를 보내어 저가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두 성읍 사이의 평지에서 그들을 만나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보라, 조램인이었던 야곱은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와서 평지에서 그들을 만나고자 아니하더라.

2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는 공평한 입장에서 저들을 만날 가망이 없는지라, 그러므로 레이맨인들을 저들의 요새에서 유인해 낼 한 가지 계획을 결심하였더라.ㅂ 22그리하여 그는 티앤쿰으로 하여금 소수의 병사를 이끌고 바닷가 가까이로 행군해 내려가게 하고, 모로나이와 그의 군대는 밤에 뮬레크 성 서편 광야를 행군하였더라. 이리하여 다음 날 레이맨인들의 파수꾼들이 티앤쿰을 발견하고는, 달음질하여 그것을 저들의 지휘관 야곱에게 고한지라. 2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저들의 수효로 인해 생각하기를, 티앤쿰의 군사의 수가 적으므로 그를 이기겠다 하고

ㄱ14 –66년; 위 1절 참조 ㄴ15 –65년 ㄷ16 동부 해안에 있던 뮬레크 성은 이때로부터 2년 전에 레이맨인들에게 함락되었음; 앨마서 51:26 참조 ㄹ18 –65년; 위 15절 참조 ㅁ19 –64년 ㅂ21 힐라맨$_2$은 레이맨인군대를 앤티파라 성에서 끌어내기 위해 그해 전에 비슷한 전술을 사용하여 성공하였음; 앨마서 56:30~37 참조

티앤쿰을 치러 진군해 나아오거늘, 티앤쿰이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그를 치러 나옴을 보고 북쪽으로 바닷가 가까이로 퇴각해 내려가기 시작하였더라. [2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은 그가 도망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힘차게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이같이 티앤쿰이 자기들을 헛되이 추격하고 있는 레이맨인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사이, 보라, 모로나이가 자기와 함께 있던 군대의 일부를 명하여 성으로 진군해 들어가 그것을 점령하게 하였더라. [25]이에 그같이 그들이 행하여 성을 지키기 위하여 남아 있던 자들을 다 죽이니, 참으로 그 전쟁 무기를 내어 놓지 아니하려는 자들을 다 죽였더라. [26]또 이리하여 모로나이는 그의 군대의 일부로 뮬레크 성을 점령하는 한편, 자신은 레이맨인들이 티앤쿰을 추격하다가 돌아올 때 그들을 맞기 위하여 나머지와 더불어 진군하였더라.

레이맨인 지휘관 야곱$_3$이 도륙당하고 많은 레이맨인들이 포로가 되다

동부 전선

[27]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풍요 성 가까이에 이르기까지 티앤쿰을 추격하다가 거기서 풍요 성을 지키기 위해 남아 있던 리하이와 소수의 군대에 맞닥뜨렸더니, [28]이에 이제 보라, 레이맨인들의 총대장들이 리하이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자기들을 치러 오고 있음을 보고, 리하이가 자기들을 따라잡기 전에 혹시라도 뮬레크 성에 닿지 못할까 하여 큰 혼란에 빠져 도망하였으니, 이는 저들이 저들의 행군으로 인하여 지쳤으나, 리하이의 군사들은 힘이 새로웠음이더라. [29]이제 레이맨인들은 모로나이가 그의 군대와 함께 저들의 후방에 있은 줄을 알지 못하였고, 저들이 두려워한 모든 것은 리하이와 그의 병사들이었더라.[ㄱ] [30]이제 리하이는 저들이 모로나이와 그의 군대를 만나기까지 저들을 따라잡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3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은 멀리 퇴각하기도 전에 니파이인들에게 에워싸였으니, 한편으로는 모로나이의 군사들에게요, 다른 한편으로는 리하이의 군사들에게라, 이들은 다 힘이 새롭고 기운이 넘쳤으나, 레이맨인들은 그들의 오랜 행군으로 인하여 지쳤더라. [32]이에 모로나이가 자기의 군사들을 명하여 그들이 그 전쟁 무기를 버릴 때까지 저들을 엄습하게 하였느니라.

[3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곱은 저들의 지휘관이요, 또한 조램인으로서 불굴의 정신을 가졌더니, 저가 레이맨인들을 이끌고 나아와 모로나이를 대적하여 맹렬한 분노로 싸우게 하였더라. [34]모로나이가 자기들의 행군 진로를 막고 있는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결심하고 그들을 도륙하여 뮬레크 성에 이르는 길을 뚫고자 하였으나, 보라, 모로나이와 그의 군사들은 더 강력하였던지라, 레이맨인들 앞에서 물러서지 아니하였더라. [3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양편 모두 심히 큰 분노를 가지고 싸웠고, 양측 모두에 도륙당한 자가 많았으니 과연 그러하였으며, 모로나이는 부상을 입고 야곱은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36]또 리하이가 그의 강한 병사들과 더불어 저들의 후미를 맹렬히 압박하매, 후미의 레이맨인들은 저들의 전쟁 무기를 내어 놓았고, 저들의 나머지는 큰 혼란에 빠져 어디로 갈지 또는 공격해야 할지 알지 못하더라.

[37]이제 모로나이가 저들의 혼란을 보고 저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만일 너희의 전쟁 무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내어놓으면, 보라, 우리가 너희의 피 흘림을 삼가리라" 하였더라. [3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이 말을 듣자, 죽임을 당하지

[ㄱ]29 앨마서 49:17 참조

아니한 저들의 대장들이 다 나아와서 저들의 전쟁 무기를 모로나이의 발에 던지고, 또 저들의 병사들에게도 명하여 저들도 그같이 하게 하였더라. 39그러나 보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자가 많았던지라, 그 칼을 내어놓지 아니하려는 자들을 잡아 결박하고 저들에게서 그 전쟁 무기를 빼앗고, 강제로 그 형제들과 함께 행군해 나아가 풍요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더라. 40또 이제 사로잡힌 포로들의 수가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보다 더 많았으니, 양측 모두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보다도 더 많았더라.

전쟁 포로와 방어 시설

동부 전선

5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희가 레이맨인 포로들 위에 감시병들을 세우고 그들을 강제하여, 나아가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또한 죽임을 당한 니파이인들의 시체도 그리하게 하되, 모로나이가 그들 위에 병사들을 두어 그들이 그 일을 하는 동안 그들을 지키게 하였더라. 2또 모로나이가 리하이와 함께 뮬레크 성으로 가서 그 성의 통제권을 취하여 그를 리하이에게 주었으니, 이제 보라, 이 리하이는 모로나이가 싸운 모든 전투 중 대부분의 전투에서 모로나이와 함께 한 자요ㄱ 또 그는 모로나이와 같은 자러니, 그들은 서로의 무사함을 기뻐하였더라. 참으로 그들은 서로에게 사랑을 받았고 또한 모든 니파이 백성에게도 사랑을 받았더라.

3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죽은 자와 또한 니파이인들의 죽은 자 장사하기를 마친 후에 그들을 행군시켜 풍요 땅으로 돌아가게 하매, 티앤쿰이 모로나이의 명령으로 풍요 땅 또는 성 주위에 웅덩이를 파는 일을 그들로 시작하게 하였더라. 4또 그들로 웅덩이의 안쪽 둑 위에 목재로 흉벽을 만들게 하매, 그들이 목재로 된 흉벽에 대하여 웅덩이로부터 흙을 던져 쌓아 올렸으니, 이같이 저들이 레이맨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기를 이윽고 목재와 흙으로 된 심히 높은 견고한 성벽으로 풍요 성 주위를 두르기까지 한지라. 5이에 이후로 이 성이 영원히 심히 견고한 요새가 되었더라. 또 이 성에서 저들이 레이맨인 포로들을 감시하였으니 참으로 곧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짓게 한 성벽 안에서라. 이제 모로나이는 부득이 레이맨인들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하고 있는 동안 그들을 감시하기가 쉽고, 또 그가 레이맨인들에게 공격을 가해야 할 때 그의 전 병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였던 까닭이더라.

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같이 레이맨인들의 가장 강대한 군대 중 하나에게 승리를 거두고, 니파이 땅에서 레이맨인들의 가장 견고한 요새 중 하나였던 뮬레크 성을 점령하였으며, 또 이같이 그의 포로들을 붙잡아 두기 위한 요새도 또한 지었더라. 7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해에는 그가 더 이상 레이맨인들과 싸우려 하지 않고 자기 병사들을 시켜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게 하고, 또한 레이맨인들을 막기 위하여 방어 시설을 만들게 하고, 또한 기근과 고난에서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건지며 그들의 군대를 위한 식량을 마련하게 하였더라.

8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 가운데 분쟁을 초래한, 그들 가운데 있은 어떤 음모로 말미암아ㄴ 모로나이가 없는 사이 서해 남방에 있던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니파이인들에게서 어느 정도의 지역을 빼앗더니, 이윽고 그 지역에 있는 그들의 성읍을 다수 점령하였느니라. 9이리하여 그들 스스로의 가운데 있던 죄악으로 인하여, 참으로 그들 스스로의 가운데 있은 분쟁과 음모로 인하여 그들은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더라.

ㄱ2 앨마서 43:35; 49:16~17 참조 ㄴ8 이 분쟁과 음모에 대해 더 알려진 바 없음

힐라맨$_2$의 이천 청년 용사 (몰몬$_2$의 여담)

서부 전선

[10]또 이제 보라, 내가 암몬 백성에 관하여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노니,[ㄱ] 이들이 처음에는 레이맨인이었으나 암몬과 그의 형제들에 의해, 또는 그보다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에 의해 주께로 돌이킨 바 되었고,[ㄴ] 또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내려와 그때로부터 계속하여 니파이인들의 보호를 받아 왔었느니라.[ㄷ] [11]또 그들은 그 맹세로 인하여 그 형제들을 대적하여 무기를 들지 못했었나니, 이는 그들이 결코 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음이요,[ㄹ] 또 자기의 맹세대로 그들은 멸망하였으리니, 참으로 암몬과 그의 형제들이 그들에 대해 가졌던 연민과 극진한 사랑이 아니었던들 그들은 그 형제들의 손에 빠짐을 스스로 감수하였을 것이라. [12]이에 이 연고로 그들은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인도함을 받고 내려와, 계속 니파이인들의 보호를 받아 왔었느니라.

[13]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위험과 또 자기들을 위하여 니파이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보고는 동정심을 발하여 그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무기를 들기 원하였더라. [14]그러나 보라, 그들이 바야흐로 그들의 전쟁 무기를 들려 하였을 때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의 설득으로 제지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세운 바 맹세를 바야흐로 깨뜨리려 하였음이라. [15]또 힐라맨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영혼을 잃게 될까 두려워하였나니, 그러므로 이 성약을 맺은 모든 자들은 어찌할 수 없이 그 형제들이 이 당시 그들의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의 고난을 헤쳐 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느니라.

[16]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에게는 그 원수를 대적하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쟁 무기를 잡지 않겠다는 성약을 맺지 아니한 아들들이 많이 있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이때에 무기를 들 수 있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 스스로를 니파이인이라 칭하였더라. [17]그리고 니파이인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되, 참으로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 땅을 지키기로 성약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은 결코 그들의 자유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하한 경우에라도 니파이인들과 그들 자신을 속박으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싸울 것을 성약하였더라. [18]이제 보라, 이 성약을 맺고 그 나라를 지키고자 그 전쟁 무기를 잡은 저 청년들이 이천 명이었더라.

[19]또 이제 보라, 그들이 지금까지 니파이인들에게 결코 장애가 된 일이 없었던 것같이 이제 이 시기에 또한 큰 힘이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그 전쟁 무기를 잡고 힐라맨이 자기들의 지휘관이 되어 주기를 원하였음이라. [20]또 그들은 다 청년들이었고 용기와 또한 힘과 활발함에 있어 심히 용맹스러웠거니와,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그들은 무엇이든지 그 맡은 일에 항상 충실한 자들이었더라. [21]참으로 그들은 진실하고 진지한 자들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정직하게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었음이더라. [22]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힐라맨이 서해에 가까운 남방의 그 땅 경계에 있는 백성들을 돕고자 그의 이천 청년 병사의 머리가 되어 진군하였더라.

[23]그리고 이같이 니파이인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팔년이 끝났느니라.

[ㄱ]10 10~22절은 2년 전에 (−66년에) 서부 전선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앨마서 56:6~9 참조 [ㄴ]10 앨마서 23:4~18; 27:26 [ㄷ]10 처음에 암몬의 백성들은 제이라헤믈라 땅에 정착했고(앨마서 27:22, 26 참조) 그 후에 밀렉 땅으로 옮겨갔음(앨마서 35:13 참조); 그들이 다시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고(앨마서 47:29 참조) 밀렉 땅을 큰 범주로 대표하는 제이라헤믈라 땅의 일부로 간주했을 수도 있음; 밀렉 땅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은 앨마서 8:3~4이 유일함 [ㄹ]11 앨마서 24:17~18

전쟁 포로 교환에 대한 모로나$_1$이의 편지

동부 전선

54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이십구년 초에[ㄱ] 앰모론이 모로나이에게 사람을 보내어 포로를 교환할 것을 희망하였느니라.[ㄴ] [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 요청에 심히 기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으니, 이는 레이맨인 포로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나누어 주고 있는 식량으로 자기 백성을 부양하기를 원하였음이요, 또한 자기의 백성으로 자기의 군대를 강화하기 원하였음이라.

[3]이제 레이맨인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많이 잡아갔고, 모로나이의 포로 곧 모로나이가 잡았던 포로 가운데는 여자나 아이가 하나도 없었으므로, 모로나이는 가능한 한 레이맨인들에게서 많은 니파이인 포로들을 받아 내고자 한 가지 계책을 정하였더라. [4]그리하여 그가 서한을 한 통 써서 앰모론의 종의 편에 보내었으니 곧 모로나이에게 서한을 가져온 그 종이더라. 이제 그가 앰모론에게 쓴 말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5]보라, 앰모론이여, 나는 네가 내 백성을 대적하여 벌여 온 이 전쟁, 곧 다시 말해 네 형이 그들을 대적하여 벌였고 그가 죽은 후 네가 여전히 계속하고자 결심하고 있는 이 전쟁에 관하여 얼마간 네게 썼노라. [6]보라,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전능한 진노의 칼에 관하여 얼마간 네게 말해 주고자 하노니, 네가 회개하고 너의 본토 곧 네 소유의 땅인 니파이 땅으로 네 군대를 거두지 아니할진대, 그 칼은 과연 너희 머리 위에 걸려 있느니라.

[7]참으로 네가 능히 이러한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내가 이를 네게 이르리라. 참으로 나는 네가 회개하고 너의 살인하려는 목적을 거두고, 네 군대와 더불어 너의 본토로 돌아가지 아니할진대, 너나 네 형과 같은 그러한 살인자들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저 끔찍한 지옥에 관하여 네게 이르리라. [8]그러나 네가 일찍이 이러한 것을 거부하고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워 왔으니, 네가 다시 그리할 줄로 내가 기대하여도 좋으리라.

[9]또 이제 보라, 우리는 너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니라. 그뿐 아니라 네가 네 목적을 거두지 아니할진대, 보라, 너는 네가 거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 위에 끌어내리리니, 너희가 온전히 멸망당하리라. [10]그러나 주께서 살아 계심같이 너희가 물러가지 아니할진대, 우리의 군대가 너희를 엄습하리니 너희가 곧 죽음을 당하게 되리라. 이는 우리가 우리의 성읍들과 우리의 땅을 보전할 것임이요, 또한 우리의 종교와 우리 하나님의 대의를 지킬 것임이니라.

[11]그러나 보라, 내 생각에 내가 이러한 일에 관하여 네게 말함이 헛되도다. 또는 내 생각에 너는 지옥의 자식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포로를 교환하지 않겠다고 네게 고함으로써 나의 서한을 끝마치려 하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포로 한 명에 대하여, 남자 한 명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넘겨주겠다는 조건이라면 가하리니, 너희가 그리할 것 같으면 내가 교환하리라. [12]또 보라, 너희가 이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군대와 더불어 너희를 치러 갈 것이라. 참으로 내가 나의 여자들과 나의 아이들까지도 무장시키고 너희를 치러 가서, 우리의 첫 번 기업의 땅인 너희의 본토까지라도 너희를 따라가리니, 정녕 그때 피에는 피로, 참으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음이 될 것이며, 또 너희가 지면에서 멸절되기까지 내가 너희와 싸우리로다.

[ㄱ]1 –63년 [ㄴ]1 앰모론은 힐라맨$_2$이 제안한 포로 교환을 이때로부터 1년 전에 거절했음; 앨마서 57:2~3, 5 참조

13 보라, 나는 노하였고 나의 백성들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우리를 죽이기를 구하였거니와 우리는 다만 스스로를 지키기를 구하였노라. 그러나 보라, 만일 너희가 더 이상 우리를 멸하기를 구할진대 우리는 너희를 멸하기를 구할 것이요 또한 우리는 우리 땅, 우리 첫 번 기업의 땅을 구하리로다. 14 이제 나는 내 서한을 끝맺노라. 나는 모로나이요 니파이 백성의 지휘관이니라.

앰모론의 답변

동부 전선

15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앰모론이 이 서한을 받고 노하여 모로나이에게 또 다른 서한을 썼으니 그가 쓴 말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16 나는 레이맨인의 왕 앰모론이요 너희가 살해한 아맬리카이아의 동생이니라. 보라, 내가 그의 피를 너희에게 갚아 주리라.[ㄱ] 또 내가 나의 군대와 더불어 너희를 치리니 나는 너희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이니라. 17 이는 보라, 너희의 조상들이 그 형제들에게 부당히 행하여, 다스림에 대한 권리가 당연히 그들에게 속하였음에도 그들에게서 그들의 권리를 빼앗았음이니,[ㄴ] 18 이제 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무기를 내려놓고 스스로 복종하여 다스릴 권한을 당연히 지닌 자들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그리하면 내가 내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무기를 내려놓게 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리라.

19 보라, 너희는 나와 내 백성에 대하여 많은 위협을 내뿜었으나, 보라 우리는 너희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20 그럼에도 나의 전사들을 위한 나의 식량을 보전하기 위해 기쁘게 너희의 요구대로 포로들을 교환할 것을 허락하노니, 우리는 니파이인들을 우리의 권세에 복종시키든지, 아니면 그들을 영원히 멸절시킬 때까지 영원히 전쟁을 수행하리라.

21 또 너희의 말에 우리가 거부하였다 한 그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보라, 우리는 그러한 존재를 알지 못하며, 너희도 알지 못하거니와 만일 그러한 존재가 있다 할진대, 모르긴 해도 그가 너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었을 것이라. 22 또 만일 악마나 지옥이 있다 할진대, 보라 너희가 살해한 나의 형 곧 너희가 그러한 곳에 갔으리라고 비친 나의 형과 함께 거하도록 그가 너희를 거기로 보내지 않겠느냐? 그러나 보라, 이러한 일들은 아무 상관이 없도다.

23 나는 앰모론이요, 너희 조상들이 억지로 예루살렘에서 이끌어 낸 조램의 후손이니라.[ㄷ] 24 또 이제 보라, 나는 담대한 레이맨인이니라. 보라, 이 전쟁을 치뤄 온 것은 그들이 받은 부당함을 갚기 위한 것이며 다스림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지키고 또 얻기 위한 것이니 모로나이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끝맺노라.

[ㄱ] 16 앨마서 51:33~34 [ㄴ] 17 모사이야서 10:12~17 비교 [ㄷ] 23 니파이전서 4:30~37

기드 성이 탈환되면서 니파이인 포로들의 석방되다

동부 전선

55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 서한을 받고 더욱 노하였으니, 이는 앰모론이 스스로의 기만에 대하여 완전히 알고 있는 줄을 그가 알고 있었음이라. 참으로 그는 앰모론으로 하여금 니파이 백성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게 한 것이 정당한 대의가 아니라는 것을 앰모론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 [2]이에 그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나의 서한에서 ㄱ 말한 것같이 나는 앰모론이 그 목적을 철회하기 전에는 그와 포로를 교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이미 가진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력을 갖게 해 주지 아니할 것임이라. [3]보라, 레이맨인들이 그 포로로 잡은 바 나의 백성을 어디에 두고 지키고 있는지 그 장소를 내가 아노니, 앰모론이 나의 서한의 요구를 듣지 않으려 한즉, 보라 내가 내 말대로 그에게 해 주어 참으로 그들이 화평을 간청할 때까지 그들 가운데서 죽음을 구하리라" 하였느니라.

[4]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혹 자기 병사들 가운데 레이맨의 후손인 자를 찾을 수 있을까 그들 중에 찾아보게 하였더라. [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하나를 찾았으니, 그의 이름은 레이맨이요 그는 아맬리카이아에게 살해당한 왕의 종들 가운데 하나더라. ㄴ [6]이제 모로나이가 레이맨과 소수의 자기 병사들로 하여금 니파이인들을 지키고 있는 감시병들에게로 나아가게 하였으니, [7]이제 니파이인들은 기드 성에 ㄷ 갇혀 감시를 받고 있었으므로, 모로나이가 레이맨을 지명하고 소수의 병사들로 하여금 그와 함께 가게 하였더라.

[8]이에 저녁이 되매 레이맨이 니파이인들을 지키는 감시병들에게로 갔으니, 보라, 그들이 레이맨이 옴을 보고 그에게 소리를 지른지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보라, 나는 레이맨인이니라. 보라 우리는 니파이인들에게서 도망하였고 그들은 자고 있느니라. 또 보라, 우리가 저희의 포도주를 조금 마시고 여기 가져왔느니라" 하였더라.

[9]이제 레이맨인들이 이 말을 듣고 기쁘게 그를 맞이하고 그에게 이르되, "네 포도주를 우리에게 조금 주어 우리로 마시게 하라. 우리가 지쳤은즉 너희가 이같이 포도주를 가져온 것이 기쁘도다" 하였더라.

[10]그러나 레이맨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갈 때까지 우리의 포도주를 간직해 두자 하였더라."

그러나 이 말은 저희로 더욱 그 포도주를 마시고 싶게 할 따름이었으니, [11]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지쳤은즉 우리로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또 니파이인들을 치러 가도록 우리로 힘이 나게 할 포도주는 차차 우리의 배급으로 받게 되리라" 하였더라.

[12]이에 레이맨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뜻대로 하라" 하였더라.

[1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거리낌 없이 그 포도주를 마신즉, 그것이 그들의 입맛에 맞는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더욱 거리낌 없이 마셨으니 이는 진하게 빚은 독주였더라. [1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점차 모두 취해 버렸더라. [15]이에 이제 그들이 다 취하여 깊이 잠든 것을 레이맨과 그의 병사들이 보고 모로나이에게 돌아와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보고하매,

[16]이제 이는 모로나이의 계획대로였더라. 이에 모로나이가 자기 군사들을 전쟁 무기로 예비시켜 두었다가, 레이맨인들이 깊이 잠들어 취해 있는 동안 기드 성으로 가서 갇힌 자들에게 전쟁 무기를 던져 넣어주매, 그들이 다 무장하였더라. [17]참으로 모로나

ㄱ 2 앨마서 54:7, 9 ㄴ 5 앨마서 47:29 ㄷ 7 동부 해안에 있던 방비가 강화된 기드성은 이때로부터 4년 전에 레이맨인들에게 함락되었음; 앨마서 51:26 참조

이가 그 갇힌 자들을 다 무장시켰을 때,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아이들에게까지 전쟁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자에게는 다 무기를 주었고, 또 그 모든 일은 극히 조용한 가운데 행하여졌더라.

18 그러나 그들이 레이맨인들을 깨웠더라도 보라 저들은 취해 있었으므로, 니파이인들이 저들을 죽일 수 있었을 것이라. 19 그러나 보라, 이는 모로나이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으니 그는 살인이나 유혈을 기뻐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의 백성을 멸망에서 구원함을 기뻐하였으며, 이러한 까닭에 그는 자신에게 불의를 초래하지 아니하려고 술에 취해 있는 레이맨인들을 엄습하여 그들을 멸하고자 아니하였더라. 20 그러나 그는 자신의 원하는 바를 달성하였으니, 이는 그 성의 성벽 안쪽에 있는 저 니파이인 포로들을 무장시키고 성벽 안쪽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었음이라. 21 또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와 함께 한 병사들로 하여금 그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서 레이맨인들의 군대를 둘러싸게 하였더라.

22 이제 보라, 이 일이 밤중에 행하여졌으므로 아침에 레이맨인들이 깨어나 본즉, 밖으로는 자기들이 니파이인들에게 둘러싸였고, 안으로는 자기의 포로들이 무장을 갖추고 있는지라. 23 그러므로 그들은 니파이인들이 자기들을 이긴 것을 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니파이인들과 싸우는 것이 무모한 줄 깨달은지라, 그러므로 그들의 총대장들이 그들의 전쟁 무기를 내놓으라 하고 이를 가지고 나아와 니파이인들의 발에 던지고는 자비를 구하더라.

24 이제 보라, 이것이 모로나이가 원하던 것이라. 그가 그들을 전쟁 포로로 잡고, 성을 점령하고, 니파이인인 포로들을 다 석방하게 하매, 이들이 모로나이의 군대에 합하여 그의 군대에 큰 힘이 되니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포로로 잡은 레이맨인들로 하여금 기드 성 주위로 방어 시설을 강화하는 노역을 시작하게 하였더라. 26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원하는 대로 기드 성을 견고히 하고 나서 그의 포로들을 풍요 성으로 데려가게 하고, 또한 심히 강한 병력으로 그 성을 지키게 하였더라. 2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모든 술책에도 불구하고 그 잡은 포로들을 다 지켜 보호하였고, 또한 그 탈환한 모든 지역과 유리한 형세도 유지하였더라.

더욱 강화된 니파이인들의 조심성와 준비

동부 전선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이 다시 이기기 시작하며,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특권을 되찾기 시작하였더라. 29 여러 차례 레이맨인들이 밤에 그들을 에워싸려 하였으나, 그러하다가 많은 포로를 잃었더라. 30 또 여러 번 그들이 니파이인들에게 그들의 포도주를 먹여 독으로나 혹은 술 취함으로 그들을 멸하려 하였더라. 31 그러나 보라, 니파이인들은 그들의 고난의 때에 주 그들의 하나님 기억하기를 더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저들의 올무에 잡힐 수 없었으니, 참으로 그들은 레이맨인 포로 몇몇에게 먼저 주어보지 않고는 그들의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32 이에 그들이 이같이 조심하여 그들 가운데 독이 베풀어지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만일 그들의 포도주가 레이맨인에게 독이 될 것이면 니파이인에게도 역시 독이 될 것임이라, 이같이 그들이 그들의 모든 술을 시험하였더라.

33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모리앤톤 성을[ㄱ] 공격할 준비를 할 필요가 생겼으니, 이는 보라, 레이맨인들이 그 부역으로 모리앤톤 성을 견고하게 하여, 이윽고

[ㄱ] 33 동부 해안에 있던 방비가 강화된 모리앤톤 성은 이때로부터 4년 전에 레이맨인들에게 함락되었음; 앨마서 51:26 참조

그것이 심히 견고한 요새가 되었음이라. [34]또 그들이 끊임없이 새 병력과 또한 새로이 공급하는 식량을 그 성에 투입하고 있었음이라. [35]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이십구년이 끝났느니라.ㄱ

힐라맨$_2$이 모로나이$_1$에게 쓴 편지

앨마서 56~58장

힐라맨$_2$과 그의 용사 이천 명이 앤티푸스의 군대에 합류하다

서부 전선

56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삼십년ㄴ 초 곧 정월 초이튿날, 모로나이가 힐라맨으로부터 그 지역 백성들의 일을 말하는 서신을 받았더라.ㄷ [2]그리고 그가 쓴 말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 우리 전쟁의 환난 가운데서 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도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 모로나이여, 보라, 내 사랑하는 형제여, 내가 이쪽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우리의 전쟁에 관하여 그대에게 무엇인가 말할 것이 있노라. [3]보라, 암몬이 니파이 땅에서ㄹ 인도해 내려온 그 사람들의 이천 명의 아들들이—이제 이들이 우리 조상 리하이의 장자였던 레이맨의 후손들인 줄 그대가 이미 알고 있나니, [4]이제 그들의 전통이나 그들의 믿지 않음에 관하여 내가 그대에게 말할 필요가 없음은 그대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알고 있음이라— [5]그러므로 나로서는 이 이천 명의 청년들이 그들의 전쟁 무기를 잡고 내가 그들의 지휘관이 되어 주기를 원하여 이에 우리가 우리 나라를 지키고자 나아왔음을 그대에게 말하는 것으로 족하도다.ㅁ
>
> [6]또 이제 그대는 또한 그들의 아버지들이 맺은 바, 곧 피를 흘리기 위하여 그 형제들을 대적하여 전쟁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한 그 성약에 관하여도 알고 있도다.ㅂ [7]그러나 제이십육년에ㅅ 그들로 인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난을 그들이 보고는, 바야흐로 그 맺은 바 성약을 깨뜨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전쟁 무기를 들려 하였느니라. [8]그러나 나는 그들이 그 맺었던 이 성약을 깨뜨리는 것을 용납하고자 아니하였으니, 나는 그들이 취했던 맹세를 이룸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이상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 주시리라 생각하였음이라.
>
> [9]그러나 보라, 여기 우리가 크게 기뻐할 일이 한 가지 있도다. 보라, 제이십육년에 나 힐라맨은 이 이천 명의 청년들을 이끌고 그대가 그 지역 백성들의 지휘관으로 임명한 앤티푸스를 돕기 위해 유디아 성으로 진군하였도다. [10]그리고 나의 이천 아들들을 (이는 그들이 아들이라 불리기에 합당함이라) 앤티푸스의 군대에 합류시키매 이 병력을 앤티푸스가 심히 기뻐하였으니, 이는 보라, 저의 군대가 레이맨인들에 의해 감소되었었음이라. 이는 그들의 병력이 우리

ㄱ35 –63 년; 앨마서 54:1 참조; 이 이야기는 모사이야서 18:1에서 다시 시작됨; 니파이하 성을 향한 레이맨인들의 공격으로 모로나이$_1$가 모리앤톤 성을 재탈환하려던 계획이 실행되지 못함 ㄴ1 –62년 ㄷ1 힐라맨$_2$은 모로나이$_1$에게 지난 4년간, 즉 –66년부터 –62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음 3장에서 이야기 함 ㄹ3 앨마서 27:25~26 ㅁ5 앨마서 53:16~22 ㅂ6 앨마서 24:17~18 ㅅ7 –66년; 위 앨마서 53:10~23 참조

병사를 허다히 죽인 까닭이니 이로 인해 우리가 애통해야 하리로다. 11그러할지라도 그들이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하나님의 대의를 위하여 죽었고, 과연 그러하며, 이에 지금 행복하다는 이 점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리라.

12그리고 또한 레이맨인들도 많은 포로들을 억류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 총대장들이라, 이는 그들이 다른 자들은 아무도 살려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 생각으로는 그들이 지금 이 시간에 니파이 땅에 있나니 만일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러하니라.

13또 이제, 이는 레이맨인들이 그처럼 많은 우리의 용감한 병사들의 피를 흘리고 점령한 성읍들이라. 곧, 14맨타이 땅 곧 맨타이 성과 지에즈롬 성과 쿠메나이 성과 앤티파라 성이니라. 15이는 내가 유디아 성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성읍들이며, 또 나는 앤티푸스와 그의 병사들이 성을 견고히 하기 위해 그 힘을 다하여 애쓰며 일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16참으로 또한 그들은 사기뿐 아니라 체력도 저하되어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낮으로는 용맹히 싸우고 밤으로는 애쓰며 일하였음이라, 이리하여 그들은 온갖 큰 고난을 다 당하였더라. 17이제 그들은 이 곳에서 이기든지 아니면 죽을 결심을 하고 있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데려온 이 적은 병력, 곧 나의 저 아들들이 그들에게 큰 희망과 많은 기쁨을 주었음을 그대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

18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앤티푸스가 그의 군대에 더 큰 병력을 받은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앰모론의 명령으로 강제되어 유디아 성을 곧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오지 못하였느니라. 19이에 이같이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었나니, 이는 우리가 이렇게 약할 때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였더라면 아마도 그들은 우리의 작은 군대를 멸하였을 것임이라. 그러나 이같이 우리가 보전되었느니라.

니파이인들의 군대가 강화되면서 레이맨인들이 공격을 보류하다

서부 전선

20그들은 앰모론으로부터 그들이 취한 성읍들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으니,ㄱ 이같이 제이십육년이 끝났느니라. 그리고 제이십칠년 초에 우리는 우리의 성과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갖추었느니라.ㄴ 21이제 우리는 레이맨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를 원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그 요새 안에 들어 있는 적에게 공격을 가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라.

2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레이맨인들이 밤에든지 혹은 낮에든지, 우리를 지나쳐 북방에 있는 우리의 다른 성읍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레이맨인들의 동향을 살필 정탐들을 주변에 두었느니라. 23이는 그 성읍들이 그들을 맞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한 줄을 우리가 알았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 그들이 우리 곁을 지나쳐 간다면 그들의 후미에서 그들을 엄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선두에서 맞닥뜨림과 동시에, 후미에서 그들을 몰아세우기 원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보라, 이러한 우리의 바람은 실망으로 끝났느니라.

24그들은 족히 강하지 못하여 패할까 두려워하여, 그들의 온 군대와 함께 일지라도 감히 우리 곁을 지나려 하지 아니하였고, 일부와 함께라도 감히 그리

ㄱ20 –66년; 위 7절 참조 ㄴ20 –65년

하지 못하였으며, 25감히 제이라헤믈라 성을 치러 진군해 내려가지도 못하였고, 감히 시돈 강의 발원지를 건너 니파이하 성으로 가지도 못하더라. 26그리하여 그들의 병력으로 그들은 그 취한 성읍들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더라.

27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금년 이월에는, 나의 이천 아들들의 부친들로부터 많은 물자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더라. 28그리고 또한 제이라헤믈라 땅으로부터 이천 명의 병사가 우리에게로 보내어졌으니, 이리하여 우리는 만 명의 병사와 또 그들과 또한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를 위한 물자로 준비가 갖추어졌느니라. 29이에 레이맨인들은 우리의 전력이 날로 증가하고 우리를 지원하는 물자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두렵게 여기기 시작하여, 가능하면 우리의 물자와 병력 받는 것을 종식시키고자 출병하기 시작하더라.

힐라맨$_2$이 앤티파라 성에 있던 레이맨인들과의 전투를 묘사하다

서부 전선

30이제 레이맨인들이 이처럼 불안해 하기 시작함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들에게 한 가지 계략을 시행하기 원하였나니, 그러므로 앤티푸스가 명하여 나로 하여금 나의 어린 아들들과 더불어, 마치 우리가 한 이웃 성읍으로 물자를 운반하고 있는 것같이 한 이웃 성읍으로 진군하게 하였느니라. 31또 우리는 앤티파라 성 가까이로, 마치 그 너머 바닷가 변경에 있는 성읍으로 가고 있는 듯 진군하게 되어 있었느니라.

3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마치 우리의 물자를 가지고 가는 것같이, 그 성으로 가기 위하여 진군해 나아갔느니라. 33또 이렇게 되었나니 앤티푸스가 그의 군대의 일부와 함께 진군하여 나아가고, 나머지는 성을 지키도록 남겨두었으되, 내가 나의 작은 군대와 더불어 나아가 앤티파라 성 가까이 이르기까지는 진군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4또 이제 앤티파라 성에는 레이맨인들의 가장 강한 군대, 참으로 가장 수가 많은 군대가 주둔해 있었느니라. 3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자기의 정탐들로부터 보고를 받자,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나아와 우리를 향해 진군하여 왔느니라. 3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그들 앞에서 북쪽으로 도망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레이맨인들의 가장 강력한 군대를 유인해 내되, 37참으로 상당한 거리까지 유인해 내었던지라, 이윽고 그들이 앤티푸스의 군대가 그 힘을 다하여 그들을 따르는 것을 보았을 때, 우로나 좌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 뒤를 곧바로 따르며 행군하였으니, 우리의 짐작으로는 앤티푸스가 그들을 따라 잡기 전에 우리를 도륙하려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으며, 이는 그들이 우리의 백성들에게 포위당하지 아니하려 함이었으리라.

38또 이제 앤티푸스는 우리의 위험을 보고는 그의 군대로 하여금 더욱 빨리 행군하게 하였더라. 그러나 보라, 때가 밤이었던고로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지 못하였고 앤티푸스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하였더라. 그리하여 우리는 밤 동안 진을 쳤느니라. 39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침이 밝기 전에, 보라, 레이맨인들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더라. 이제 우리가 그들과 더불어 싸울 만큼 족히 강하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나는 나의 어린 아들들이 그들의 수중에 드는 것을 용납하고자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는 행군을 계속하여 광야로 행군해 들어갔느니라. 40이제 그들은 포위될까 하여 감히 우로나 좌로 돌이키려 아니하였고, 나도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으면,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과 그들이 벗어나 버릴 것을 염려하여, 우로나 좌로 돌이키려 아니하였나니, 이리하여 우리는 그 날 종일토록 어둡기까지 광야로 도망해 들어갔느니라.

41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다시 아침이 밝았을 때 우리가 본즉 레이맨인들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였느니라. 42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우리를 멀리 추격하지 아니하여 멈추었으니, 때는 칠월 삼일 아침이었느니라. 43 또 이제 그들이 앤티푸스에게 따라잡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나의 병사들에게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모르긴 해도 그들이 멈춘 것은 우리로 그들을 치러 오게 하여 그들의 올무로 우리를 잡으려 함이라. 44 그러므로 나의 아들들아, 너희 의견에는 어떠하냐?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 가려느냐" 하였나니,

45 이제 내 사랑하는 형제 모로나이여, 내가 그대에게 이르거니와 그처럼 큰 용기를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나니, 아니 온 니파이인 가운데서도 보지 못하였노라. 46 내가 일찍이 그들을 내 아들들이라고 한 것같이 (이는 그들이 모두 매우 젊었음이라) 그들이 바로 그렇게 내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보소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는 우리가 쓰러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하오니 우리로 가게 하소서.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가만히 둔다면 우리도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니 그런즉 우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앤티푸스의 군대를 이길까 하나이다" 하였느니라.

47 이제 그들은 결코 싸워 본 일이 없으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의 아버지의 자유를 더 생각하였느니라. 참으로 그들은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들의 어머니에게서 받았었더라. 48 또 그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말을 내게 들려주었나니, "우리의 어머니들이 이를 아셨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나이다" 하였느니라.

4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이천 명과 더불어, 돌이켜 우리를 추격하던 이 레이맨인들을 향하였더니, 이제 보라, 앤티푸스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잡아 맹렬한 전투가 시작되었더라. 50 앤티푸스의 군대는 그처럼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행군하였음으로 인하여 지쳤던지라, 바야흐로 레이맨인들의 수중에 빠지려 하고 있었나니, 내가 나의 이천 명과 더불어 돌아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을 것이라. 51 이는 앤티푸스와 그의 많은 지휘관들이 그들의 급속한 행군으로 말미암아 지친 까닭에, 칼에 쓰러졌음이라—그러므로 앤티푸스의 병사들은 그들의 지휘관들의 쓰러짐으로 인하여 혼란에 빠져, 레이맨인들 앞에서 후퇴하기 시작하였느니라.

5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용기를 얻어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하였고, 이리하여 레이맨인들이 크게 기세를 올려 그들을 추격하고 있을 때, 힐라맨이 그의 이천 명과 더불어 그들의 후미에 임하여 그들을 심히 도륙하기 시작하매, 마침내 레이맨인들의 온 군대가 멈추어 힐라맨에게로 돌이키니라. 53 이제 앤티푸스의 백성들은 레이맨인들이 돌이킨 것을 보고, 그들의 병사를 모아가지고 다시 레이맨인들의 후미에

닥쳤느니라.ㄱ

54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니파이 백성, 곧 앤티푸스의 백성과 나와 나의
이천 병사가 레이맨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도륙하매, 마침내 그들이 어찌할
수 없이 그들의 전쟁 무기를 내어 놓고 스스로 투항하여 전쟁 포로가 되니라.
55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난 후, 보라, 내가
나와 함께 싸운 그 청년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였을까 염려하며 그들을 세어
보았느니라. 56 그러나 보라, 기쁘게도 그들 중 한 명도 땅에 쓰러진 자가 없었
느니라.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힘을 지닌 듯 싸웠나니, 참으로 사람들이
아는 바로 그처럼 기적적인 힘을 지니고 싸운 사람들이 없었으며, 그처럼 큰
능력으로 그들이 레이맨인들을 엄습하여 그들을 두렵게 한지라, 이 까닭에 실
로 레이맨인들이 투항하여 전쟁 포로가 된 것이더라. 57 이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포로들을 감시하며 그들을 레이맨인들로부터 지킬 장소가 없으므로, 우리가 그
들과 앤티푸스의 군사 중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병사 일부를 함께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보냈으며, 나머지는 내가 취하여 나의 젊은 암몬인들에게 합류시키고
유디아 성으로 행군하여 돌아왔느니라.

힐라맨$_2$이 앤티파라 성을 탈환하다

서부 전선

57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왕 앰모론으로부터 우리가 잡은 그 포로들을
내가 만일 넘겨주면 그가 앤티파라 성을 우리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서한을
받았느니라. 2 그러나 나는 왕에게 서한을 보내어 우리는 우리의 병력이 우리
힘으로 앤티파라 성을 취하기에 족한 줄로 확신하며, 그 성을 얻기 위하여 포로
들을 넘겨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현명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
고 하였으며, 다만 우리는 교환하는 조건으로 우리의 포로를 넘겨 줄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더라. 3 이에 앰모론이 나의 서한을 거절하였으니 이는 그가 포로
교환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앤티파라 성을 치러 갈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더라.
4 그러나 앤티파라의 백성들은 그 성을 떠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들
의 다른 성읍들로 도망하였으니 이는 그 성읍들을 견고히 하려 함이었더라.
그리하여 앤티파라 성은 우리 수중에 떨어졌느니라. 5 이같이 판사 치세 제이십
팔년이 끝났느니라.ㄴ

ㄱ53 힐라맨$_2$은 여기서 제3자로 언급되기 때문에, 이 단락은 편지의 일부를 몰몬$_2$이 요약한 것으로 보임; 이 요약은 51절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 ㄴ5 –64년

힐라맨$_2$이 쿠메나이 성을 탈환하지만 포로를 잃게 되다

서부 전선

6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이십구년 초에[ㄱ] 우리는 제이라헤믈라 땅과 그 주변의 땅으로부터 물자의 공급과 또한 우리의 군대에 대한 증원을 받았으니, 곧 육천 명의 수에 이르는 병사와 그 외에 암몬인들의 아들 육십 명이라, 이들 육십 명은 그들의 형제 곧 나의 이천 명으로 된 소부대와 합류하기 위하여 왔었더라. 이에 이제 보라, 우리는 강하였고, 참으로 우리에게는 가져온 물자도 또한 넉넉하였느니라.

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의 원하는 바는 쿠메나이 성을 방어하기 위하여 배치되어 있는 군대와 전투를 벌이는 것이었도다. 8또 이제 보라, 우리가 얼마 있지 아니하여 우리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였음을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라. 참으로 우리의 강한 병력으로써, 아니 우리의 강한 병력의 일부로써, 그들이 물자 공급을 받기 얼마 전에 우리는 밤에 쿠메나이 성을 에워쌌느니라. 9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여러 밤을 쿠메나이 성을 둘러 진을 치고 있었더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칼을 베고 자며 또 보초를 세웠던지라, 레이맨인들이 밤에 우리를 습격하여 우리를 도륙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이를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그들이 이를 시도할 때마다 그들의 피가 흘렀느니라. 10드디어 그들의 물자가 도착하였고, 바야흐로 그들이 밤에 성으로 들어가려 하였더라. 그런데 우리는 레이맨인이 아니라 니파이인이었던지라, 우리는 그들을 잡고 그들의 물자를 빼앗았느니라.

11또 레이맨인들은 이처럼 그 보급이 차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 물자를 취하여 유디아로 보내고 우리의 포로들은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보낼 필요가 생겼더라. 12또 이렇게 되었나니 여러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레이맨인들이 구조의 소망을 다 잃기 시작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 성을 우리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리하여 우리는 쿠메나이 성을 취하려는 우리의 계획을 달성하였느니라.

13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 포로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의 수효가 막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득이 그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전 병력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처형할 수밖에 없게 되었느니라. 14이는 보라 그들이 큰 수효로 돌파하고 나와서는 돌이나 곤봉이나 또는 무엇이든지 그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곤 하였던지라, 그들이 항복하여 전쟁 포로가 된 이후로 우리는 그들을 이천 명 이상 도륙하였음이라. 15그리하여 우리로서는 그들의 생명을 멸하든지 아니면 손에 칼을 들고 그들을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호송해 내려가야 할 필요가 생겼으며, 우리의 물자 또한 우리가 레이맨인들에게서 빼앗은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충분하지 못하였더라.

16이에 이제 이 위급한 상황에서 이 전쟁 포로들에 관하여 결정하는 일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내려 보내기로 결정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병사들 가운데 일부를 뽑아 그들에게 우리의 포로들을 맡겨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내려가게 하였더라. 17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그들이 돌아왔더라. 그러나 이제 보라, 우리가 포로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묻지 못하였나니, 이는 보라, 레이맨

[ㄱ] 6 –63년

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었고, 그들은 때맞추어 돌아와 우리가 저들의 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음이라. 이는 보라, 앰모론이 새로운 물자의 공급과 또한 수많은 병사의 군대를 보내어 저들을 지원하였음이라. 18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포로와 함께 보내었던 병사들이 때맞추어 돌아와서, 레이맨인들이 바야흐로 우리를 이기려 할 때에 저들을 저지하였더라.

19보라, 나의 이천육십 명으로 된 작은 부대가 가장 필사적으로 싸웠나니, 참으로 그들은 레이맨인들 앞에 굳게 서서 그들을 대항하는 모든 자에게 죽음을 안겨 주었더라. 20또 나머지 우리 군대가 바야흐로 레이맨인들 앞에서 퇴각하려 하였을 때, 보라, 그 이천육십 명은 굳세며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1이뿐 아니라 그들은 명령의 모든 말씀을 정확히 순종하며 준행하였으며, 참으로 또한 그들의 신앙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이에 내가 그들의 어머니들이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그들이 내게 이른 그 말을 기억하였느니라.ㄱ

22또 이제 보라, 우리가 이 큰 승리를 얻은 것은 나의 이 아들들과 포로들을 호송하도록 선발되었던 그 병사들 덕분이니, 이는 레이맨인들을 물리친 것이 그들이었음이라, 그리하여 레이맨인들은 쫓겨 맨타이 성까지 물러갔느니라. 23또 우리는 우리의 쿠메나이 성을 지켰고, 칼에 다 멸망당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큰 손실을 입었느니라.

힐라맨$_2$이 기적적인 병력 보전을 묘사하다

서부 전선

24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도망한 후, 나는 즉시 명령을 내려 부상한 나의 병사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취하여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도록 하였느니라. 25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이천육십 명 중에는 피를 잃음으로 인하여 기진한 자가 이백 명이 있었고, 또한 그들 가운데 많은 상처를 입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좇아 그들 중 죽은 자가 한 명도 없었으매 우리가 크게 놀라고 또한 우리의 온 군대가 다 기뻐하였느니라.

26그리고 이제 그들이 보전된 것은 우리 온 군대에게 놀라운 일이었나니, 참으로 우리의 형제 중 죽임을 당한 자가 천 명이 됨에도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음이라. 이에 우리가 이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에 돌리는 것이 정당하다 여기노니, 이는 그들이 믿도록 가르침을 받은 바, 곧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의심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그의 기이하신 권능으로 보전되리라는 것을 그들이 심히 굳건히 믿은 연고더라.ㄴ 27이제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한 이 청년들의 신앙이었으니, 그들은 젊고 그들의 마음은 굳건하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도다.

ㄱ21 앨마서 56:47 ㄴ26 앨마서 56:47

잃어버린 포로에 대한 기드의 보고

서부 전선

28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이같이 우리의 부상한 병사들을 돌보고,
우리의 죽은 자들과 또한 수많은 레이맨인들의 죽은 자들을 묻고 나서, 보라,
기드에게 그들이 함께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내려가고자 출발하였던 그 포로들
에 관하여 물어 보았느니라. 29 이제 기드는 저들을 그 땅까지 호송하도록 지명
받은 부대의 총대장이었더라.

30 그리고 이제 기드가 나에게 고한 말이 이러하니라, "보소서, 과연 우리
가 우리의 포로들과 함께 출발하여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내려가고 있었거니와,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레이맨인들의 진을 살피도록 내보냄을 받은 우리 군
대의 정탐들을 만났나이다. 31 이에 그들이 우리에게 소리질러 이르되—'보라,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쿠메나이 성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나니, 저들이 엄습하여,
참으로 우리 백성을 멸하겠도다' 하더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의 포로들이 저들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
로 인해 용기를 얻어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켰나이다.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칼로 저들에게 임하였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떼를 지어 우리의 칼에 달려들다가 저들 중 대다수가 죽임을
당하였으며, 저들 중 나머지는 돌파하여 우리에게서 도망하였나이다.

34 "또 보소서, 저들이 도망하고 우리가 저들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된 후에,
우리는 신속히 쿠메나이 성을 향해 행군하였더니, 보소서, 우리가 때맞추어 도
착하여 우리 형제들을 도와 성을 지킬 수 있었나이다. 35 또 보소서, 우리가 또
다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었으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음은, 보소서, 우리를 건지신 이 곧 우리를 위하여 이 큰 일을 행하신 이가
그이심이니이다" 하더라.

3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나 힐라맨이 기드의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우리를
보전하사 우리로 다 멸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심히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느니라. 또한 나는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그들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줄로 믿노라.

힐라맨$_2$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다

서부 전선

58 또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의 다음 목표는 맨타이 성을 손에 넣는 것
이었느니라. 그러나 보라, 우리의 작은 부대로는 그들을 성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도가 없었나니, 이는 보라,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였던 바를 그들이 기
억하였으므로,[1] 우리가 그들을 유인하여 그들로 그들의 요새를 떠나게 할 수
없었음이라. 2 또 그들이 우리의 군대보다 훨씬 더 수가 많았으므로, 우리가 감
히 나아가 자기의 요새 안에 있는 그들을 공격할 수 없었느니라. 3 참으로, 또한
우리는 우리의 소유 가운데 우리가 되찾은 지역을 지키는 데 우리의 병사를 사
용할 필요가 있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제이라헤믈라 땅으로부터 병력을 더 받고
또한 새로운 물자의 공급을 받기 위하여 기다릴 필요가 있게 되었느니라.

[1] 앨마서 56:30~57:4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로 인해 내가 우리 땅의 통치자에게 사자를 보내어 우리 백성의 사정을 알리게 하였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제이라헤믈라 땅으로부터 물자와 병력을 받기를 기다렸느니라. 5 그러나 보라, 이것이 우리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였나니, 이는 레이맨인들 역시 매일같이 많은 병력과 물자를 받고 있었음이라, 이 시기에 우리의 상황이 이와 같았느니라. 6 또 레이맨인들은 계략을 써서 우리를 멸하기로 결정하고, 시시로 우리를 치러 진격해 나아왔으나, 우리는 그들의 대피소와 그들의 견고한 요새로 인하여 그들과 접전할 수 없었느니라.

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여러 달 동안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기다리다가, 마침내 식량이 부족하여 바야흐로 멸망하기에 이르렀느니라. 8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천 병사의 군대가 호송하여 온 식량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지키기 위하여, 참으로 무수한 적과 싸우기 위하여 우리가 받은 도움은 이것이 전부니라.

9 또 이제 우리의 이러한 낭패의 원인, 곧 그들이 우리에게 병력을 더 보내주지 아니한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땅에 임하여 우리로 패망하게 하며 온전히 멸망당하게 할까 하여 비통하며 또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느니라. 10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내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시며,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로 우리 백성의 부양을 위하여 우리의 성읍과 우리의 땅과 우리의 소유를 보전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느니라. 11 참으로 그리하매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그가 우리를 구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셨나니, 참으로 그는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신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게 하셨느니라. 12 이에 우리가 이미 받은 우리의 적은 병력과 더불어 용기를 내었고, 우리의 적을 정복하며, 우리의 땅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유의 대의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확고히 하였느니라.

힐라맨$_2$이 맨타이 성을 탈환하다

서부 전선

13이리하여 우리는 맨타이 성에 있는 레이맨인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나아가, 성에 가까운 광야 편에 우리의 장막을 쳤느니라. 14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레이맨인들이 우리가 성에 가까운 광야의 변경에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정탐들을 우리의 주위에 내보내어 우리 군대의 수효와 전력을 알아내고자 하였느니라. 1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우리의 수효에 따를진대, 우리가 강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또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나와서 우리를 도륙하지 아니할진대, 우리가 그들의 보급을 차단할 것을 두려워하며 또한 그들의 수많은 군사로 쉽게 우리를 멸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그리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나올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느니라.

16이에 우리가 본즉 저희가 우리를 치러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라, 보라, 내가 기드로[ㄱ] 하여금 소수의 병사를 거느리고 광야에 매복하게 하고, 또한 티옴너와 소수의 병사들로 하여금 역시 광야에 매복하게 하였느니라. 17이제 기드와 그의 병사들은 우편에, 다른 자들은 좌편에 있었나니, 그들이 이같이 매복한 후에, 보라, 나는 나머지 나의 군대와 더불어 우리가 처음 우리의 장막을 친 그 같은 장소에 머물러 레이맨인들이 싸우러 나올 때를 대비하였느니라.

1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수많은 군대와 더불어 우리를 치러 나오는지라, 그들이 와서 바야흐로 칼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 하였을 때, 나는 나와 함께 한 나의 병사들로 하여금 광야로 퇴각하게 하였느니라. 1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심히 빠른 속도로 우리 뒤를 쫓아왔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를 도륙하기 심히 원하였음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를 따라 광야로 들어왔고, 우리가 기드와 티옴너의 한가운데를 지났으므로 저들이 레이맨인들에게 발견되지 아니하니라.

20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지나가고 나자, 다시 말해 그 군대가 지나가고 나자, 기드와 티옴너가 그 숨었던 곳에서 일어나 레이맨인의 정탐들을 끊어 버려 그들이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더라. 21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을 끊어 버린 후, 성으로 달려가서 성을 지키기 위하여 남아 있던 수비대를 습격하여 멸하고 성을 점령하였느니라. 22이제 이렇게 된 것은 레이맨인들이 다만 약간의 수비대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온 군대로 하여금 유인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게 한 연고이었더라. 2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기드와 티옴너가 이같이 하여 그들의 견고한 진지를 점령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광야를 많이 지난 후에 우리가 제이라헤믈라 땅을 향하여 우리의 진로를 잡았더라. 24이에 레이맨인들은 자기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향하여 행군하고 있음을 보고, 자기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려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가 심히 두려워하여 다시 광야로 퇴각하기 시작하되, 자기들이 왔던 그 길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느니라. 25또 보라, 때는 밤이었고 그들이 그 장막을 쳤으니, 이는 레이맨인의 총대장들이 생각하기를 니파이인들이 저들의 행군으로 인하여 지쳐 있으리라 하였음이라, 또 저들의 전 군대를 몰아왔다고 그들은 생각하였으므로 맨타이 성에 관하여는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더라.

[ㄱ] 16 앨마서 57:29

[26]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밤이 되었을 때, 나는 나의 병사들로 하여금 잠을 자지 말고 다른 길로 맨타이 땅을 향하여 진군하게 하였느니라. [27]이에 밤 동안의 우리의 이 행군으로 말미암아, 보라, 다음 날에는 우리가 레이맨인들을 앞섰고, 결국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맨타이 성에 도착하였느니라. [28]이에 이리하여 이러한 계책으로 우리는 피흘림이 없이 맨타이 성을 점령하게 되었느니라. [29]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의 군대는 성 가까이에 이르러 우리가 그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고, 심히 놀라고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광야로 도망하였느니라.ㄱ

[30]참으로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의 군대는 이쪽 지역을 다 벗어나 도망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그들은 이 땅에서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많이 데려갔느니라. [31]또 레이맨인들이 취하였던 그 성읍들은, 그 모두가 이 시간 우리의 소유하에 있으며,ㄴ 레이맨인들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간 자들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아버지들과 우리의 여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느니라. [32]그러나 보라, 우리의 군대는 그처럼 많은 수의 성읍과 그처럼 큰 점령 지역을 유지하기에는 작도다. [33]그러나 보라, 우리는 그 땅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사, 우리로 우리의 소유였던 성읍들과 땅들을 차지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노라.

힐라맨$_2$이 열악한 상황에 대해 묘사하다

서부 전선

[34]이제 우리는 정부가 우리에게 병력을 더 주지 아니하는 까닭을 알지 못하며, 우리에게로 올라온 병사들도 어찌하여 우리가 더 많은 병력을 받지 못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느니라. [35]보라, 우리는 혹 그대들이 여의치 못하여 그쪽 지역으로 병력을 이끌어 간 것인지 알지 못하노니, 만일 그러할진대 우리는 불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36]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할진대 정부 안에 어떠한 내분이 있어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병사를 더 보내지 아니함을 우리는 두려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보낸 것보다 그들의 수효가 더 많은 줄을 우리가 앎이라. [37]그러나 보라, 이는 중요한 일이 아니라—우리는 우리 군대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참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는 것을 믿노라.

[38]보라, 이때는 제이십구년 말이니,ㄷ 우리는 우리의 땅을 차지하고 있고, 레이맨인들은 니파이 땅으로 도망하였느니라. [39]또 내가 그처럼 크게 칭찬한 암몬 백성의 아들들은 나와 함께 맨타이 성에 있나니, 주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또한 그들을 지켜 칼에 엎드러지지 않게 하신지라,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0]그러나 보라, 그들은 많은 상처를 입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 있으며, 매일 엄격히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의 율례와, 그의 법도와, 그의 계명을 끊임없이 지켜 준행하며, 장차 이를 일에 관한 예언을 굳게 믿고 있느니라.

[41]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 모로나이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대를 그의 면전에서 지키시기

ㄱ29 이 레이맨들인들은 서부 전선을 도망쳐서 나중에 다시 동부 전선 레이맨인들과 합류하게 됨; 앨마서 59:6 참조 ㄴ31 앨마서 56:13~14에 따르면 레이맨인들의 손에 들어간 성들은 맨타이 성 (앨마서 58:1~28에서 재탈환), 지에즈롬 성, 쿠메나이 성 (앨마서 57:6-12에서 재탈환), 그리고 앤티파라 성 (앨마서 57:1~4에서 재탈환) 이었음; 지에즈롬 성은 재탈환에 대한 언급이 없음 ㄷ38 –63년; 앨마서 57:6 참조

원하며, 또한 그가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생존을 위한 것이었으나 레이맨인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모든 것을 그대들이 찾는 데 성공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보라, 나의 서한을 끝맺노라. 나는 힐라맨이니 앨마의 아들이니라.

힐라맨$_2$이 쓴 편지에 대한 모로나이$_1$의 반응

동부 전선

59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삼십년에 모로나이가 힐라맨의 서신을 받아 읽고 나서,[ㄱ] 힐라맨의 복리, 곧 그가 잃었던 땅들을 손에 넣는 큰 성공을 거두었음으로 인하여 심히 기쁘게 되었더라. [2]또한 그가 있는 지역의 주변 온 땅에 있는 그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를 알려, 그들로도 기뻐하게 하였더라.

[3]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즉시 페이호랜에게 서신을 보내어, 군사를 모아 힐라맨, 곧 힐라맨의 군대를 더 강화하여 그로 하여금 그처럼 기적적으로 형통하여 되찾은 지역을 쉽게 지킬 수 있게 해 주기를 요청하였더라. [4]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는 이러한 서신을 제이라헤믈라 땅에 보내고 나서, 레이맨인들이 그들에게서 빼앗은 그 나머지 소유지와 성읍들을 손에 넣을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더라.[ㄴ]

니파이인들이 니파이하 성을 잃다

동부 전선

[5]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처럼 모로나이가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보라, 모로나이 성과 리하이 성과 모리앤톤[ㄷ] 성으로부터 함께 모인 니파이하 백성들이 레이맨인들의 공격을 받았느니라. [6]참으로 맨타이[ㄹ] 성과 그 주변의 땅에서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자들이 와서, 이 지역의 레이맨인들과 합세하였었더라. [7]이리하여 심히 수효가 많아진 데다가 참으로 매일 병력을 받고 있던 차에, 앰모론의 명령으로 그들은 니파이하 백성을 치러 나아와 심히 큰 살육으로 그들을 도륙하기 시작하더라. [8]또 그들의 군대는 수효가 심히 많아 나머지 니파이하 백성들이 부득이 그들 앞에서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나니, 이에 저들이 와서 모로나이의 군대에 합류하였더라.

[9]또 이제 모로나이는 병사들이 니파이하 성으로 보냄을 받아 백성을 도와 그 성을 지킬 것으로 생각하였고, 또 성을 레이맨인들 수중에 함락되기 전에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서 탈환하기보다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모로나이는 그들이 쉽게 그 성을 지킬 것이라 생각하였더라. [10]그리하여 그는 자기가 회복했던 곳들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전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더라.

[11]그런데 이제 니파이하 성이 잃은 바 된 것을 보고는 모로나이는 심히 슬퍼져서, 백성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형제들의 수중에 빠지지 않을까 의심하기 시작하였더라. [12]이제 이는 그의 총대장들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라, 그들은 백성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의심하며 또한 기이히 여겼으니, 이는 그들에 대한 레이맨인들의 성공으로 인함이었더라. [13]이에 모로나이는 자기 나라의 자유에 관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정부에 대하여 노하게 되었더라.

[ㄱ]1 –62 년; 앨마서 56:1까지 이어진 주요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됨 [ㄴ]4 앨마서 51:23~27
[ㄷ]5 앨마서 51:24 [ㄹ]6 앨마서 58:28~29

모로나이[1]가 페이호랜[1]에게 쓴 편지

앨마서 60장

정부의 태만

6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다시 그 땅의 통치자 페이호랜에게 편지하였으니,[ㄱ1] 그가 쓴 말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보라, 나는 이 땅의 대판사요 통치자인 제이라헤믈라 성의 페이호랜과 이 전쟁에 관한 일을 다스리며 보살피도록 이 백성의 택함을 받은 모든 자에게 나의 서한을 보내노라. [2]이는 보라, 내가 그들에게 책망할 말이 얼마간 있음이니, 보라, 그대들 스스로가 알거니와 그대들은 군사를 모아 그들을 칼과 신월도와 각종 온갖 전쟁 무기로 무장시켜 레이맨인들이 어떤 지역으로 우리 땅에 들어오더라도 그들을 치러 보내도록 임명되었음이라.

[3]그러하거늘 보라,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거니와, 나 스스로와 또한 나의 병사들과 또한 힐라맨과 그의 병사들은 심히 큰 고난을 겪었나니 참으로 굶주림과 목마름과 피로와 온갖 고난을 겪었느니라. [4]그러나 보라, 우리가 겪은 것이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할 것이라. [5]그러나 보라, 우리 백성 중의 살육이 참으로 컸도다. 참으로 수천 명이 칼에 쓰러졌거니와, 만일 그대들이 우리 군대에 충분한 병력과 그들을 위한 원조를 제공하였더라면 사정은 달랐을 것이라. 참으로 우리들에 대한 그대들의 태만이 컸도다.

[6]이제 보라, 우리는 이 심히 큰 태만의 원인을 알기 원하노라. 참으로 우리는 그대들의 사려를 결한 상태의 원인을 알기 원하노라. [7]그대들의 원수들이 그대들 주위에서 죽음의 일을 펼치고 있는데, 참으로 그들이 그대들의 형제 수천 명을 살해하고 있는데, 그대들은 아무 생각 없는 무감각한 상태로 그대들의 보좌 위에 앉기를 생각할 수 있느냐? [8]참으로 그들은 보호를 바라고 그대들을 쳐다보았던 자들로서, 참으로 그들을 돕도록, 참으로 그들에게 군대를 보내어 그들을 강화하여 수천 명을 칼에 쓰러지는 데서 구할 수 있는 위치에 그대들을 앉혀 놓은 자들이니라. [9]그러나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니라—그대들이 그대들의 식량을 그들에게 공급하지 아니한지라, 그 결과 많은 자들이 이 백성의 복리에 대한 간절한 바람으로 인하여 싸우고 피 흘려 그들의 목숨을 버렸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들에 대한 그대들의 심히 큰 태만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굶주림으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 그리하였느니라.

[10]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이는 그대들이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만 함이라. 그뿐 아니라 그대들은 마땅히 이 백성의 복리와 자유를 위해 분발했어야만 하였도다. 그러나 보라, 그대들이 그들을 태만히 하였으므로 그 결과 수천 명의 피가 복수를 위하여 그대들의 머리 위에 임하리니, 이는 저들의 모든 부르짖음과 저들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는 아신 바 되었음이니라—[11]보라, 혹 그대들은 그대들의 보좌 위에 앉아 있고, 하나님의 심히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대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그가 그대들을 건져 주시리라고 그대들은 생각하느냐? 보라, 그대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면 이는 헛된 생각이라. [12]그대들은 그대들의 형제가 그처럼 많이 죽임을 당하였음으로 인하여

[ㄱ1] 앨마서 59:3

그것이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함인 줄 생각하느냐?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그대들이 이렇게 생각하였다면 이는 헛된 생각이라,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칼에 쓰러진 자가 많거니와, 보라, 이는 그대들을 정죄하는 것이니, [13]이는 주께서 그의 공의와 심판이 악인들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의인들의 죽임 당함을 용납하심이라. 그러므로 의인들이 죽임 당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 생각하지 말지니, 보라, 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느니라.

태만한 이유를 상상하며 비난하다

[14]또 이제 보라,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나는 이 백성의 심히 나태함 곧 우리 정부의 나태함과 그들 형제들을 향한 참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을 향한 그들의 심히 큰 태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백성에게 임할 것이 심히 두렵도다. [15]이는 먼저 우리의 머리에서 시작된 간악함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적을 막아내어 그들로 우리를 이길 힘을 갖지 못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임이라. [16]참으로 우리 중에 일어났던 전쟁이 아니었더라면, 참으로 우리 중에 그처럼 많은 유혈을 초래한 이 왕당파가 아니었더라면, 참으로 우리가 스스로 분쟁하고 있었을 때, 만일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것같이 우리의 힘을 합쳤더라면, 참으로 우리에 대하여 저 왕당파들이 가졌던 권력과 권세의 욕심이 아니었더라면, 참으로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그들의 검을 들어 우리 가운데 그처럼 많은 유혈을 초래하는 대신, 우리의 자유의 대의에 충실하여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적을 치러 나아갔었더라면, 참으로 우리가 주의 힘을 의지하고 그들을 치러 나아갔었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적을 흩어버렸으리니, 이는 그의 말씀의 ㄱ 성취를 좇아 이루어졌을 것임이니라.

[17]그러나 보라, 이제는 레이맨인들이 우리를 엄습하며, 우리의 땅을 점령하고 있으며, 저들이 칼로 우리 백성, 참으로 우리의 여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살해하며, 또한 그들을 사로잡아 가며, 그들로 온갖 고난을 겪게 하고 있나니, 이는 저 권력과 권세를 추구하는 자들, 곧 저 왕당파들의 큰 간악함으로 인한 것이니라.

[18]그러나 이에 관하여 내가 많이 말해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이는 그대들 스스로가 권세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그대들이 또한 그대들 나라의 배신자가 아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느니라. [19]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이 우리의 심장부에 있어 안전한 가운데 둘러싸여 있기에, 그대들이 우리를 등한히 해서, 그대들이 식량과 또한 우리의 군대를 강화시킬 군사를 보내지 아니하는 것이냐?

[20]그대들은 주 그대들의 하나님의 계명을 잊었느냐? 참으로 그대들은 조상들이 사로잡혔던 일을 잊었느냐? 우리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건지심을 입은 그 여러 번을 그대들은 잊었느냐? [21]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보좌에 앉아 주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고 그대들은 생각하느냐?

[22]참으로 이 땅 국경 주변에서 수천이 칼에 쓰러지고 있으며, 참으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그대들은 하는 일 없이 앉아서, 역시 하는 일

ㄱ16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없이 앉아 있는 수천 수만 명에게 둘러싸여 있으려 하느냐? [23]그대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대들을 죄 없다 여기실 줄로 그대들은 생각하느냐? 보라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회개하거나 최후를 맞이하라

이제 나는 먼저 그릇의 안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릇의 바깥도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들이 기억하기 바라노라.ㄱ [24]이에 이제 그대들이 그대들의 행한 바를 회개하고, 일어나 행하기 시작하여, 우리와 또한 힐라맨에게 식량과 군사를 보내어 그로 그가 되찾은 우리 나라의 그 지역들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우리로도 이 지역의 우리 소유의 나머지를 또한 회복할 수 있게 아니할진대, 보라 우리가 먼저 우리 그릇의 안, 곧 우리 정부의 고위 지도층을 깨끗하게 하기까지 레이맨인들과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함이 마땅하리로다.

[25]또 그대들이 내 서한의 요구를 들어 주어, 나와서 진정한 자유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의 군대를 공고히 하고 강화하기 힘쓰며, 그들에게 식량을 보내어 그들을 지원하지 아니할진대, 보라 내가 내 자유파 병사의 일부를 남겨 우리 땅의 이 지역을 지키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그들 위에 남겨 두어, 아무 다른 권세가 그들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 [26]이는 그들의 심히 강한 신앙과 그들의 환난 중에 보인 그들의 인내로 인함이라— [27]그러한 다음 내가 그대들에게로 가서, 그대들 가운데 자유를 원하는 자가 조금이라도 있을진대, 참으로 자유의 불꽃이 약간이라도 남아 있을진대, 보라 내가 그대들 가운데서 반란을 일으키리니, 권력과 권세를 빼앗기 원하는 자들이 멸절되기까지 그리하리로다.

[28]참으로 보라 나는 그대들의 권력이나 그대들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되, 오직 내가 두려워하는 이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나라의 대의를 지키려 내 칼을 잡는 것은 그의 계명에 따른 것이요,ㄴ 우리가 그처럼 많은 손실을 입은 것은 그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29]보라 지금이 그때라, 참으로 그때가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대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 그대들의 나라와 그대들의 어린아이들을 지키지 아니할진대, 정의의 검이 그대들 위에 드리워져 있나니, 참으로 또한 그것이 그대들 위에 내려 그대들을 징벌하여 그대들을 온전히 멸망하게 하리로다.

[30]보라, 나는 그대들의 원조를 기다리노니, 그대들이 우리에게 구조를 베풀지 아니할진대, 보라, 내가 그대들에게로, 참으로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가서, 칼로 그대들을 쳐, 이 백성이 우리의 자유의 대의를 진작시키는 것을 방해할 능력을 그대들이 더 이상 갖지 못하게 하리라. [31]이는 보라, 주께서는 그대들이 살아서 그대들의 죄악 가운데 강하여져서 그의 의로운 백성을 멸하게 됨을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32]보라, 그대들의 죄악은 그대들이 세상의 영광과 헛된 것들을 사랑하는 까닭으로 말미암은 것인 한편, 레이맨인들의 증오심을 초래한 것은 그들 조상의 전통이요,ㄷ 실로 그 증오심은 우리에게서 이반해 나간 자들에 의해 배가 되어 온 것이거늘, 주께서 그대들은 살려 두시고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심판하러

ㄱ 23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나 마태복음 23:25~26 참조 ㄴ 28 앨마서 43:47; 48:14~15 참조 ㄷ 32 모사이야서 10:12~17; 앨마서 20:13; 54:17 참조

나오실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느냐? 33그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대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들의 발 아래 짓밟고 있음을 알고 있느니라. 보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통치자로 임명한 자들이 그들의 죄와 불의함을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올라가 저희를 대적하여 싸우라" 하시더라.

34또 이제 보라, 나 모로나이는 내가 맺은 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한 성약을 따라 강권하심을 받는도다.┐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나와 또한 힐라맨에게 그대들의 식량과 그대들의 군사를 속히 보내 주기를 원하노라. 35또 보라, 그대들이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그대들에게로 가리니, 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굶주림으로 멸망함을 용납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그는 칼로 그리하여야만 하실지라도 그대들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제 그대들은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지니라.

36보라, 나는 모로나이요, 그대들의 총대장이라. 나는 권력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을 끌어내리고자 하노라. 나는 세상의 영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하나님의 영광과 내 나라의 자유와 복리를 구하노라. 이같이 나는 나의 서한을 끝맺노라.

┐34 앨마서 46:20~22 추정

페이호랜$_1$이 모로나이$_1$에게 쓴 답장

앨마서 61장

페이호랜$_1$이 모반을 알리다

61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그의 서한을 최고 통치자에게 보낸 후, 곧 그는 최고 통치자 페이호랜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더라. 이에 그가 받은 말이 이러하니라.

[2]땅의 최고 통치자 나 페이호랜은 군대의 총대장 모로나이에게 이 말을 보내노라. 보라, 모로나이여, 내가 그대에게 이르노니, 나는 그대의 큰 고난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참으로 그대의 고난은 나의 영혼을 비통하게 하는도다. [3]그러나 보라, 그대의 고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 실로 그들이 일어나, 나와 또한 나의 백성 중 자유파에 속한 자들을 대적하여 모반을 일으켰나니, 또한 일어난 자들의 수효가 심히 많으니라.

[4]또 이 큰 죄악의 원인이 된 자들은 내게서 판사직을 빼앗고자 하던 자들이니, 그들이 크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 많은 백성의 마음을 꾀어내었으매, 이는 우리 중에 혹심한 고난의 원인이 될 것이라. 그들은 우리의 식량을 내어주지 아니하며 우리의 자유파 사람들을 두렵게 한지라, 저들이 그대들에게로 나아가지 못하였느니라. [5]또 보라, 그들이 그들 앞에서 나를 몰아낸지라, 내가 얻을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기드온 땅으로 피하였더라.

[6]그리고 보라, 내가 이 지역에 두루 포고를 보내었더니, 보라, 저들이 무기를 잡고, 저들의 나라와 저들의 자유를 지키며, 우리가 받은 악행을 갚아 주고자, 매일 우리에게로 모여들고 있느니라. [7]또 저들이 우리에게로 오매, 일어나 우리를 대적하여 모반을 일으켰던 자들을 무시할 만큼 된지라, 참으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감히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나오지 못하고 있느니라. [8]그들은 제이라헤믈라 땅 곧 성을 차지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을 임명하였으며, 그는 레이맨인의 왕에게 편지하여 그와 동맹을 체결하였는데, 이 동맹에서 그는 제이라헤믈라 성을 지키기로 맹약하였으니, 그의 생각에 이 성을 지키면 레이맨인들이 이 땅의 나머지를 정복할 수 있을 것이요, 또 이 백성이 레이맨인들에게 정복당하게 되면, 그가 이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앉게 되리라 함이라.

군사원조의 요청

[9]또 이제 그대의 편지에서 그대는 나를 비난하였으나, 내가 이를 괘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노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대의 고결한 마음을 기뻐하노라. 나 페이호랜은 권력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판사직을 지키려 함은 내 백성의 권리와 자유를 유지하려 함이라. 내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 있도다. [10]또 이제 보라,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라도 간악함에 대항할 것이라. 레이맨인들이 만일 그들의 땅에 머물러 있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리라. [11]만일 우리의 형제들이 일어나 모반을 일으키며 우리를 대적하여 칼을 잡지 아니할진대 우리는 그들의 피도 흘리지 아니하리라.

12 만일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필요하다거나, 또는 그가 우리에게 그리하라 명하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박의 멍에를 짊어지리라. 13 그러나 보라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적에게 굴복하라 명하지 아니하시며, 도리어 우리가 그를 신뢰할진대,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시느니라. 14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모로나이여, 우리는 악을 대적하자. 그리고 무슨 악이든지, 참으로 모반이나 이반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말로 대적할 수 없는 악은, 우리의 칼로 대적하여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 교회의 커다란 특권과 우리의 구속주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이의 대의 안에서 기뻐하자.

15 그러므로 그대의 병사를 소수 이끌고 속히 내게로 오라. 나머지는 리하이와 티앤쿰에게 맡기라. 하나님의 영을 좇아 그 지역의 전쟁을 지휘할 권세를 그들에게 주라. 그 영은 또한 그들 안에 있는 자유의 정신이기도 하니라. 16 보라 내가 약간의 식량을 그들에게 보내었으니, 그대가 내게 올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17 그대가 이리로 행군하여 오면서 모을 수 있는 병력을 모두 모으라. 그러한 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저 이반자들을 치러 갈 것이라. 18 또 우리가 제이라헤믈라 성을 점령하여, 리하이와 티앤쿰에게 보낼 양식을 더 얻도록 할 것이라. 참으로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러 나아갈 것이요, 그리하여 이 큰 죄악을 종식시키리라.

19 또 이제 모로나이여, 내가 그대의 서한을 받고 기뻐하노니, 이는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우리의 형제를 치러 가는 것이 우리에게 의로운 것인지에 관하여 얼마간 염려하고 있었음이라. 20 그러나 그대는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대에게 명하시기를 저들을 치러 가라 하셨다 하였느니라.ㄱ 21 그대는 반드시 리하이와 티앤쿰을 주 안에서 견고하게 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니 그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롭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선 모든 자들을 또한 건지시리라.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 모로나이에게 보내는 나의 서한을 끝맺노라.

모로나이$_1$와 페이호랜$_1$이 페이쿠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섬멸하다

62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이 서한을 받으매 그 마음이 용기를 얻고 심히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니, 이는 페이호랜이 충성되어 그가 또한 나라의 자유와 대의를 저버리는 배신자가 아님으로 인함이라. 2 그러나 그는 또한 페이호랜을 판사직에서 몰아낸 자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요컨대 자기 나라와 또한 자기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한 자들로 인하여 심히 슬퍼하였더라.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페이호랜의 요구대로 소수의 군사를 취하고, 나머지 자기 군대에 대한 지휘권을 리하이와 티앤쿰에게 준 후 기드온 땅을 향해 행군해 가더라.ㄴ 4 그리고 어느 동리에 들어가든지 그 곳에 자유의ㄷ 기를 세워, 기드온 땅을 향하여 진군해 가는 동안 내내 그가 얻을 수 있는 병력을 다 얻었더라. 5 그리고 수천 명이 그의 깃발로 모여 들어, 속박에 들지 않고자, 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그들의 칼을 들었더라. 6 이리하여 모로나이가 그 행군하여 오는 동안 내내 모을 수 있는 모든 군사를 모으고, 기드온 땅에 이르러, 그의 병력을 페이호랜의 병력과 합하매 그

ㄱ 20 앨마서 60:33 ㄴ 3 페이호랜$_1$의 필요와 요청에 따름; 앨마서 61:5, 15 참조 ㄷ 4 앨마서 46:11~26, 36 참조; 모로나이$_1$가 11년 전에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고 있음

들이 심히 강하게 되니, 곧 자유파의 백성들을 제이라헤믈라 땅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이 반역자들의 왕 페이쿠스의 군사들보다 더욱 강하게 되었더라.

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와 페이호랜이 그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내려가서, 성을 치러 나아가 페이쿠스의 군사들을 대면하매,ㄱ 그들이 교전하게 되었더라. 8 이에 보라, 페이쿠스는 죽임을 당하고 그의 군사들은 잡혀 포로가 된지라, 페이호랜이 판사직에 회복되니라. 9 그리고 페이쿠스의 군사들은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또한 붙잡혀 투옥되었던 왕당파 사람들은 법에 따라 처형되었으니,ㄴ 참으로 페이쿠스의 군사들과 왕당파 사람들로서 무릇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였던 자들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여졌느니라. 10 또 이리하여 그들의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이 법이 엄격히 지켜져야 할 필요가 있게 된지라, 실로 그들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누구든지 속히 법에 따라 처형되었더라.

11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삼십년이 끝나니,ㄷ 모로나이와 페이호랜은 자유의 대의에 충실하지 아니한 모든 자로 죽음을 당하게 하고, 제이라헤믈라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평화를 회복하였더라.

모로나이$_1$와 페이호랜$_1$이 니파이하 성을 탈환하다

모로나이$_1$와 페이호랜$_1$이 니파이하 성을 탈환하다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삼십일년 초에,ㄹ 모로나이가 즉시 식량과 또한 군사 육천 명을 힐라맨에게 보내게 하여, 그를 도와 그 쪽 지역을 지키게 하였더라. 13 또 군사 육천 명의 군대를 충분한 양의 양식과 함께 리하이와 티앤쿰의 군대에게 보내게 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에 대비하여 그 땅을 견고히 하기 위하여 이 일이 시행되었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와 페이호랜은, 많은 군사를 제이라헤믈라 땅에 남겨 두고는, 니파이하 성의 레이맨인들을 전복하기로 작정하고, 많은 수의 군사를 거느리고 니파이하 땅을 향하여 진군하여 갔더라.ㅁ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니파이하 땅을 향하여 진군하면서, 레이맨인의 많은 군사를 붙들어, 저들 중 많은 자를 도륙하고, 저들의 식량과 저들의 전쟁 무기를 취하였더라. 16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를 취한 후에, 저들로 다시는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저들의 전쟁 무기를 들지 않겠다는 언약을 맺게 하였더라. 17 그리고 저들이 이 언약을 맺은 후에 저들을 암몬 백성과 함께 살도록 보내었으니, 저들 곧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의 수효가 사천 명 가량이었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을 보내고 나서 그들은 니파이하 땅을 향하여 진군을 계속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니파이하 성에 이르러, 니파이하 성에 가까운 니파이하 평지에 그들의 장막을 치니라. 19 이제 모로나이는 레이맨인들이 평지에서 자기들과 싸우러 나오기를 바랐으나, 레이맨인들은 그들의 심히 큰 용기를 알고 또 그들의 수효가 많음을 보는 고로 감히 그들을 치러 나오지 못하니라. 그리하여 그 날 저들은 싸우러 나아오지 아니하였더라.

ㄱ 7 페이쿠스의 군사들이 앨마서 61:3~8에서 언급된 반역자들임 ㄴ 9 앨마서 51:19 참조. 왕당파는 5년 동안 감옥에 있었음; 페이쿠스의 군사들과 왕당파 둘 다 자유파를 반대하였지만 몰몬$_2$은 이 둘을 뚜렷하게 다른 집단으로 구분했음을 참고; 앨마서 51:6~7; 61:3~4 참조 ㄷ 11 –62년; 위 앨마서 56:1; 59:1 참조 ㄹ 12 –61년 ㅁ 14 니파이하 성은 바로 전해에 레이맨인들에게 함락되었음; 앨마서 59:5~8 참조

20 이에 밤이 되매, 모로나이가 야음을 타고 나아가서, 성 어느 부분에 레이맨인들이 저들의 군대와 함께 진 치고 있는가를 탐지해 내기 위해 성벽 꼭대기에 올라갔더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동편 입구 가까이에 있고 모두 잠들어 있더라. 이에 이제 모로나이가 자기 군대로 돌아와, 그들로 하여금 성벽 꼭대기에서 성벽 안쪽으로 내릴 튼튼한 줄과 사다리들을 급히 준비하게 하였더라.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자기의 군사들로 하여금 진군해 나아가서 성벽 꼭대기에 오르게 한 다음, 성의 그 부분 곧 레이맨인들이 저들의 군대와 함께 진 치지 아니한 서편으로 내려가게 하였더라. 23 이에 그들이 그들의 튼튼한 줄과 그들의 사다리를 써서 밤에 모두 성 안으로 내려가니, 이리하여 아침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성 안에 있더라.

24 이에 이제 레이맨인들이 깨어 모로나이의 군대가 성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더니, 이윽고 통로를 지나 도망하여 나가는지라. 25 이에 이제 모로나이가 저들이 자기 앞에서 도망함을 보고, 자기 군사들로 하여금 저들을 치러 진군해 나아가게 하고, 많은 자를 죽이고, 그 외에 많은 자를 에워싸 포로로 잡으매, 저들의 나머지는 해안 가까이의 변경에 있는 모로나이 땅으로 도망하였더라.

26 이같이 모로나이와 페이호랜은 한 명도 잃지 아니하고 니파이하 성을 점령하였으나, 죽임을 당한 레이맨인들은 많았더라. 27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 중 포로가 된 많은 자들이 암몬 백성과 연합하여 자유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더라. 28 이에 원하는 자에게는 모두 저들의 소원대로 허락하여 주었더라. 29 그리하여 모든 레이맨인 포로들이 다 암몬 백성에게 합류하여, 부지런히 일하기 시작하여, 토지를 경작하며, 온갖 곡식을 재배하며, 각종 가축을 기르매, 이로 인해 니파이인들이 큰 짐을 덜었으니, 참으로 그 결과 그들이 모든 레이맨인 포로들을 지키는 일을 덜었더라.

모로나이$_1$가 리하이 땅을 탈환하다

30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니파이하 성을 점령하고 나서 많은 포로를 잡은 것이, 레이맨인들의 군대를 크게 감소시켰고, 또 포로로 잡혔던 니파이인들을 많이 되찾은 것이 모로나이의 군대를 크게 강화하였으므로, 모로나이가 니파이하 땅에서 리하이 땅으로 나아갔더라. 3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본즉 모로나이가 자기들을 치러 오고 있는지라, 그들이 다시 크게 놀라 모로나이의 군대 앞에서 도망하니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와 그의 군대가 저들을 성읍에서 성읍으로 추격하더니, 이윽고 저들이 리하이와 티앤쿰에게 만난 바 되었고, 레이맨인들은 리하이와 티앤쿰에게서 도망하여 바닷가에 가까운 변경으로 내려가, 드디어 모로나이 땅에 이르렀더라. 33 이에 레이맨인들의 군대는 모두 함께 모여, 그 결과 모로나이 땅에서 한 무리가 되었더라. 이제 레이맨인의 왕 앰모론도 저들과 함께 있더라.

티앤쿰이 앰모론을 죽이고 자신도 죽임을 당하다—레이맨인들이 쫓겨나다

동부 전선

3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와 리하이와 티앤쿰이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모로나이 땅 변경 주변에 진 치매, 레이맨인들은 남쪽으로 광야에 인접한 변경에, 또 동쪽으로 광야에 인접한 변경에 둘러 싸였더라. 35 이에 이같이 그들이 밤 동안 진을 쳤으니, 이는 보라, 니파이인들과 또한 레이맨인들도 힘든 행군으로 인하여 지쳤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밤 사이에는 어떠한 계책도 베풀기로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만 티앤쿰이 그렇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가 앰모론에게 심히 노하여, 앰모론과 그의 형 아맬리카이아야말로 바로 그처럼 많은 전쟁과 유혈과 또한 그처럼 많은 기근을 초래해 온 바 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의 이 크고 오래 가는 전쟁의 원인이라 생각하였음이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티앤쿰이 그 분노 중에 나아가서 레이맨인들의 진으로 들어가 성벽을 넘어 내려가니라. 이에 그가 줄을 가지고 이 곳에서 저 곳으로 나아가다가 마침내 왕을 발견하고 그에게 창을 던지매, 창이 그의 심장 근처를 꿰뚫었더라.ㄱ 그러나 보라, 왕이 숨지기 전 그의 종들을 깨웠으므로 그들이 티앤쿰을 추격하여 그를 죽였더라. 37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와 리하이가 티앤쿰이 죽었음을 알고 심히 슬퍼하였으니, 이는 보라, 그가 자기 나라를 위하여 용맹히 싸운 자요, 과연 진정한 자유의 벗이었으며, 또 그는 심히 혹독한 고난을 허다히 겪었음이더라. 그러나 보라, 그가 죽어 온 세상이 가는 길을 갔느니라.

38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모로나이가 진군하여 나아가 레이맨인들을 엄습하여 그들을 큰 살육으로 살육하였고,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매 그들이 도망하고 그때에 그들이 니파이인들을 대적하러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제삼십일년에 대한 요약

39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삼십일년이 끝났고,ㄴ 또 이같이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전쟁과 유혈과 기근과 고난을 당하였더라. 40 또 니파이 백성 중에는 살인과 분쟁과 불화와 온갖 죄악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을 위하여, 참으로 의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41 그러나 보라,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 사이의 전쟁이 심히 길었음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완악하게 되었으니, 이는 전쟁이 심히 길었음으로 인함이요, 또 많은 자들이 그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니, 이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극한 겸양으로 스스로 겸손하여졌더라.

전쟁 후의 부흥

4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가 레이맨인들에게 가장 침공당하기 쉬운 지역들을 견고히 하여 충분히 강하게 한 후 제이라헤믈라 성으로 돌아갔고, 힐라맨 역시 자기 기업의 곳으로 돌아갔으며, 니파이 백성 중에는 다시 한 번 평화가 이룩되었더라. 43 또 모로나이는 그의 군대의 지휘권을 모로나이하라 이름하는 그의 아들의 손에 넘겨주고, 그의 여생을 평안한 가운데 보내고자 자기의 집으로 물러갔더라.ㄷ

44 또 페이호랜은 그의 판사직에 복귀하였고, 힐라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다시 맡았으니, 이는 그처럼 많은 전쟁과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 내의 일을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생겼음이더라. 45 그리하여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이 나아가 많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많은 백성에게 그들의 간악함을 깨닫게 하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주 그들의 하나님께 나아오더라. 4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온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확립하였더라. 47 참으로 또한 법에 관한 규정도 만들어져서, 그들의 판사와 그들의 대판사들이 택함을 받았더라.

ㄱ 36 이 전술은 티앤쿰이 6년 전에 앰모론의 형제인 아맬리카이아를 상대하여 성공했던 것과 같은 것임; 앨마서 51:33~37 참조 ㄴ 39 –61년; 위 12절 참조 ㄷ 43 모로나이1는 대략 38세였을 것임; 앨마서 44:17 참조

48 또 니파이 백성들은 그 땅에서 다시 번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땅에서 다시 번성하며 심히 강하여지기 시작하였더라. 이에 그들은 또 심히 부하여지기 시작하였더라. 49 그러나 그들은 부나, 그들의 세력이나, 그들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의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되지 아니하고, 주 그들의 하나님 기억하기를 더디 하지도 아니하고, 그 앞에서 스스로 심히 겸손하였더라. 50 참으로 그들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 행하신 것을, 곧 그들을 사망에서와 속박에서와 옥에서와 온갖 고난에서 건지신 것과,ㄱ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신 것을 기억하였느니라. 51 또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매, 주께서 그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지라,ㄴ 그들이 강하여지고 그 땅에서 번영하였더라.

5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삼십오년에 힐라맨이 죽었느니라.ㄷ

몰몬$_2$이 요약한 시블론$_2$의 기록ㄹ

앨마서 63장

한 세대가 지나가다

6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삼십육년 초에,ㅁ 앨마가 힐라맨에게 넘겨주었던 거룩한 것들을 시블론이 맡았더라.ㅂ 2 또 그는 의인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힘써 쉬지 않고 선을 행하며, 주 그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니, 그의 형제 또한 그러하였더라.ㅅ 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도 죽으매, 이같이 판사 치세 제삼십육년이 끝났느니라.

니파이인들이 북방 영토를 넓히다

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삼십칠년에, 오천사백ㅇ 명에 이르는 큰 무리의 남자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고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 북방 땅으로 갔느니라.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헤이고드는 심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더니, 그가 나아가 자기를 위하여 황무 땅에 인접한 풍요 땅의 변방에서 심히 큰 배를 한 척 짓고, 북방 땅으로 통하는 좁은 지협에 인접한 서쪽 바다에 그 배를 띄우더라. 6 또 보라, 많은 니파이인들과 또한 많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많은 식량을 가지고 출항하여, 북쪽으로 그들의 진로를 잡았으니, 이같이 제삼십칠년이 끝났느니라.

7 또 제삼십팔년에 이 사람이 다른 배들을 지었고,ㅉ 첫 번 배가 또한 돌아오매, 많은 백성이 또 그리로 들어갔고, 그들도 많은 식량을 가지고 다시 북방 땅으로 출발하였더라.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에 대하여 결코 다시는 듣지 못하였나니, 우리는 그들이 깊은 바다에 빠져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노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다른 배 한 척이 또 출항하여 나아갔으나, 그 배가 어디로 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북방 땅으로 나아간 백성이 많이 있었나니, 이같이 제삼십팔년이 끝났느니라.

ㄱ 50 앨마서 36:27 비교 ㄴ 51 니파이후서 1:20; 앨마서 50:20 ㄷ 52 –57년 ㄹ 1 기록 보관자들의 전환을 표시하는 앨마서 1:1과 45:1의 소제목을 비교 ㅁ 1 –56년 ㅂ 1 앨마서 37:1~2, 14~16, 47 참조; 시블론$_2$이 힐라맨$_2$의 동생임 ㅅ 2 이는 곧, 코리앤톤 ㅇ 4 –55년 ㅉ 7 –54년

기록들이 넘겨지다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삼십구년에,ㄱ 시블론도 죽고, 코리앤톤은 북방 땅으로 나아간 백성들에게 식량을 전해 주고자 배에 올라 그 땅으로 나아갔더라. 11 그러므로 시블론은 죽기 전에, 불가불 저 거룩한 것들을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힐라맨이라ㄴ 칭하는 힐라맨의 아들에게 넘겨주어야 하게 되었더라.

12 이제 보라, 힐라맨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새긴 것은, 앨마가 명하여 나아가게 말라 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록되어 이 온 땅에 있는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보내어졌느니라.ㄷ 13 그러할지라도 이것들은 거룩하게 보존되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 내려가게 되어 있었나니, 그러므로 이 해에 이것들이 시블론이 죽기 전에 힐라맨에게 넘겨진 바 되었더라.

또 하나의 전투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레이맨인들에게로 나아간 이반자들이 어느 정도 있더니, 그들이 다시 충동함을 받아 니파이인들에 대하여 노하게 되었더라. 15 또한 이 같은 해에 그들이 모로나이하의 백성을 대적하여, 아니면 모로나이하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왔으나, 패하여 큰 손실을 입고 그들의 본토로 다시 쫓겨 갔느니라. 16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삼십구년이 끝나더라.ㄹ 17 그리고 이같이 앨마와 그의 아들 힐라맨과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시블론의 기사가 끝났느니라.

ㄱ10 –53년 ㄴ11 이는 곧, 힐라맨3 ㄷ12 앨마서 37:27~32; 45:9~14 ㄹ16 –53년; 위 10절 참조; 앨마서는 그 방대한 길이에 비해 불과 39년간을 다루었지만, 그에 반해 힐라맨서는 16장으로 50년을 다루게 될 것임을 참조

힐라맨서

니파이인들에 대한 기사. 그들의 전쟁과 다툼 및 그들의 불화. 또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많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 힐라맨의 아들이었던 힐라맨의 기록에 따른 것이요,[ㄱ] 또한 그의 아들들의 기록에 따른 것이니,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라, 또한 많은 레이맨인들이 돌이키다. 그들의 돌이키다의 기사. 레이맨인들의 의로움과 니파이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의 기사. 힐라맨과 그의 아들들의 기록에 따른 것이니, 곧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요, 이를 힐라맨서라 함. 기타.

판사직을 두고 다투다

1 그리고 이제 보라,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사십년 초에 이렇게 되었나니,[ㄴ] 니파이인들의 백성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였더라. [2]이는 보라, 페이호랜이 죽어 온 세상이 가는 길을 간지라, 그러므로 페이호랜의 아들 형제 중 누가 판사직을 차지할 것인가에 관하여 심각한 분쟁이 생겼음이라. [3]이제 판사직을 두고 다투며, 또한 백성들로도 다투게 한 자들의 이름이 이러하니, 페이호랜, 페이앤카이, 그리고 페이쿠메나이라. [4]이제 페이호랜의 아들들은 이들이 모두가 아니나 (이는 그에게 아들이 많았음이라) 판사직을 두고 다툰 자가 이들이라. 그러므로 이들이 백성을 세 파로 갈라놓았더라.

[5]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나니 페이호랜이 백성들의 소리에 의해 니파이 백성을 다스리는 대판사와 통치자로 임명되었더라. [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페이쿠메나이는 자기가 판사직을 차지할 수 없음을 보고, 백성의 소리와 연합하였더라. [7]그러나 보라, 페이앤카이와, 백성 중 그가 자기들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던 자들은 심히 분노하였더라. 그리하여 페이앤카이는 바야흐로 그 백성들을 감언이설로 꾀어 그들의 형제들을 대항하여 모반을 일으키게 하려 하였더라. [8]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바야흐로 이를 행하려 했을 때, 보라, 그가 잡혀 백성의 소리를 좇아 재판을 받고 사형이 언도되었으니, 이는 그가 모반을 일으켜 백성의 자유를 파괴하려 하였음이더라.

페이호랜$_2$이 암살 당하고 페이쿠메나이가 임명되다

[9]이제 그가 자기들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했던 그 백성들은 그가 사형을 언도받는 것을 보고, 그로 인해 노하여, 보라, 키시쿠멘이라 하는 자를 페이호랜의 판사석으로 보내어 페이호랜이 판사석에 앉아 있을 때 그를 살해하였더라. [10]이에 저가 페이호랜의 종들의 추격을 받았으나, 보라, 키시쿠멘이 어찌나 빨리 도망하였던지 아무도 저를 따라 잡지 못하였더라.

[11]또 저가 자기를 보낸 자들에게로 가매, 그들이 다 언약을 맺고, 참으로 그들을 지으신 영원하신 이로 맹세하여 키시쿠멘이 페이호랜을 살해한 것을 아무에게도 고하지 않기로 하였더라. [12]그러므로 키시쿠멘이 니파이 백성 가운데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ㄱ]1 구체적으로 말하면, 힐라맨$_3$ [ㄴ]1 –52년

이는 저가 페이호랜을 살해할 때 변장을 하고 있었음이라. 또 키시쿠멘 및 그와 언약한 그의 무리들은 어떻게든 백성 가운데 섞여 살아 모두 찾아 낼 수 없었으나, 무릇 발견된 자에게는 다 사형이 언도되었더라.

13 그리고 이제 보라, 페이쿠메나이가 백성의 소리를 좇아 니파이 백성 위에 대판사와 통치자가 되어 그 형제 페이호랜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임명되었으니, 이는 그의 권리에 따른 것이었더라. 이 모든 일이 판사 치세 제사십년에 행하여졌고 그 해가 끝났느니라. ㄱ

레이맨인들이 제이라헤믈라를 점령하다

14 그리고 판사 치세 사십일 년에 이렇게 되었나니, ㄴ 레이맨인들이 무수한 병사의 군대를 함께 모아 가지고, 그들을 칼과 신월도와 활과 화살과 투구와 가슴판과 각종 온갖 방패로 무장시키더라. 15 그리고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려고 그들이 다시 내려왔더라.

또 그들을 거느린 자는 이름이 코리앤투머라 하는 자요, 제이라헤믈라의 후예이며, 또 그는 니파이인들 가운데서 이반해 나간 자요, 몸집이 장대한 용사더라. 16 그러므로 앰모론의 아들이요, 이름이 투발로드라 하는 레이맨인의 왕은, 코리앤투머가 용사인고로 그의 힘과 또한 그의 큰 지혜로 능히 니파이인들을 대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그를 보냄으로써 니파이인들을 이길 것으로 생각하였나니— 17 그리하여 그는 그들을 충동하여 노하게 하고, 그의 군대를 함께 모으고, 코리앤투머를 그들의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진군해 내려가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였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정부 내에 있는 그처럼 많은 분쟁과 그처럼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저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에 충분한 수비대를 두지 못했었나니, 이는 레이맨인들이 감히 저들의 땅 심장부에 들어와 저 큰 성 제이라헤믈라를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였음이라. 19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가 그의 허다한 무리를 거느리고 진군해 와서는 그 성 주민들에게 임하였으니, 그들의 진군이 심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지라, 니파이인들이 미처 그 군대를 함께 모을 시간이 없었더라. 20 그리하여 코리앤투머가 성 입구에 있는 파수꾼들을 베고 그의 온 군대와 더불어 성 안으로 진군하여, 그들을 대항하는 자 모두를 도륙한지라, 마침내 그 온 성을 점령하니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대판사였던 페이쿠메나이는 코리앤투머 앞에서 도망하여 성벽에 이르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가 그를 벽에 대고 치니 그가 죽었더라. 이같이 페이쿠메나이의 생애가 끝났느니라.

레이맨인들이 패배하다

22 또 이제 코리앤투머는 자기가 제이라헤믈라 성을 점령하고 있음을 보고, 또 니파이인들이 자기들 앞에서 도망하고 도륙당하고 잡히고 옥에 던져진 것과 또 자기가 그 온 땅에서 가장 견고한 요새를 점령하였음을 보고, 그 마음이 용기를 얻어 바야흐로 그 온 땅을 치러 나아가려 하였더라. 23 이에 이제 그는 제이라헤믈라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큰 군대와 함께 풍요 성을 향하여 진군하였으니, 이는 나아가 칼로 그의 길을 열어 그 땅의 북편 지역을 손에 넣고자 하는 것이 그의 결심이었음이라. 24 또 그들의 가장 큰 병력이 그 땅의 중앙부에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그는 진군하며 그들이 소수의 무리

ㄱ 13 –52년; 위 1절 참조 ㄴ 14 –51년

로 모이는 것 외에는 함께 모일 시간을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같이 저들이 그들을 엄습하여 그들을 땅에 베어 쓰러뜨렸더라.

25 그러나 보라, 그 땅 중앙부를 통과하는 코리앤투머의 이 진군은, 도륙당한 니파이인들의 수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모로나이하에게 그들에 대한 큰 우위를 제공하였으니, 26 이는 보라, 모로나이하는 레이맨인들이 감히 그 땅 중앙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까지 해 온 것같이 변경 주변에 있는 성읍들을 공격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므로, 그들의 강한 군대들로 하여금 변경 주변 지역을 지키게 했었음이라. 27 그러나 보라, 레이맨인들은 그의 희망대로 겁먹지 아니하고 그 땅의 중앙으로 들어와, 수도인 제이라헤믈라 성을 취하고 나서 진군하여 그 땅의 가장 주요한 지역들을 통과하며,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크게 살육하며 많은 성읍과 많은 요새들을 점령하고 있었더라.

28 그러나 모로나이하가 이를 발견하고, 즉시로 리하이를 주변의 군대와 함께 보내어 그들이 풍요 땅에 이르기 전에 그들을 가로막게 하였더라. 29 그가 이같이 하여 그들이 풍요 땅에 이르기 전에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과 전투를 벌이니, 이윽고 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을 향하여 후퇴하기 시작하였더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하가 퇴각하는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과 전투를 벌이매 전투가 격심한 혈투가 되었으니, 참으로 많은 자가 죽임을 당하였으며 죽임을 당한 자의 수 가운데 코리앤투머도 발견되었더라.

31 또 이제 보라, 레이맨인들은 북으로도, 남으로도, 동으로도, 서로도, 어느 길로도 퇴각할 수 없었으니, 이는 사방으로 니파이인들에게 포위되었음이라. 32 또 이같이 코리앤투머가 레이맨인들을 니파이인들 한가운데로 몰아넣은지라, 그들이 니파이인들의 세력 안에 들게 되었고, 그 자신은 죽임을 당하였으며, 레이맨인들은 니파이인들의 손에 투항하였더라.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하가 다시 제이라헤믈라 성을 점유하고, 포로로 잡힌 레이맨인들로 하여금 평안히 그 땅을 떠나게 하였더라. 34 이에 이같이 판사 치세 제사십일년이 끝났느니라. ㄱ

개다이앤톤 도적단의 기원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사십이년에, ㄴ 모로나이하가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에 다시 평화를 이루고 난 후, 보라 판사직을 채울 자가 없었으므로 누가 판사직을 채울 것인가에 관하여 백성들 가운데 다시 다툼이 생겼더라. 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힐라맨의 아들인 힐라맨이 백성의 소리에 의해 판사직을 채우도록 임명되었더라. ㄷ

3 그러나 보라, 페이호랜을 살해한 키시쿠멘이 힐라맨도 멸하려고 몰래 기회를 노렸나니, 그는 그의 간악함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기로 언약을 맺은 그의 무리의 지지를 받고 있었더라. 4 이는 많은 말과 또한 술수에 심히 능하여 은밀한 살인과 약탈의 행위를 자행하는 개다이앤톤이라 하는 자가 있었음이라. 그러므로 그가 키시쿠멘 무리의 두목이 되었더라. 5 그리하여 그가 그들과 또한 키시쿠멘을 꾀어, 만일 그들이 자기를 판사직에 앉혀 준다면 자기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백성 중에서 권능과 권세 있는 자리에 앉게 해주겠다 하였으므로, 이에 키시쿠멘이 힐라맨을 멸하기를 꾀하였더라.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힐라맨을 멸하려고 판사석을 향하여 나아갈 때, 보라 힐라맨의 종 가운데 하나가 밤에 밖에 나가 있으면서 변장하여 이 무리가 힐라맨을 멸

ㄱ 34 –51년; 위 14절 참조 ㄴ 1 –50년 ㄷ 2 앨마서 4:20에서 대판사 직위는 앨마$_2$에서 니파이하와 그의 자손들에게로 옮겨졌다가 여기서 앨마$_2$의 혈통으로 되돌아감; 힐라맨서 5:1에서 힐라맨$_3$의 아들 니파이$_2$는 그의 다른 가족에게 그 판사직을 양도할 것임

하려고 세운 그 계획들을 알아내었던지라— 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키시쿠멘을 만나매, 저가 그에게 표시를 주니 그러므로 키시쿠멘이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그에게 알게 하고, 그에게 자기를 판사석으로 안내해 주어 힐라맨을 살해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더라.

8이에 힐라맨의 종이 키시쿠멘의 모든 마음과 살인하는 것이 어떻게 그의 목적이며 또한 살인하고 약탈하며 권력을 얻는 것이 어떻게 그의 무리에 속한 모든 자의 목적인지를 알고 나서, (이것이 그들의 은밀한 계획이요 또 그들의 결사였더라) 힐라맨의 종이 키시쿠멘에게 이르되, "판사석으로 나아가자" 하니라. 9이제 이는 키시쿠멘을 심히 기쁘게 하였나니, 이는 그가 자기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그들이 판사석으로 나아가던 중 힐라맨의 종이 키시쿠멘의 심장을 찌르매 그가 신음 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져 죽으니, 이에 저가 달음질하여 자기의 보고, 듣고, 행한 모든 일을 힐라맨에게 다 고하였더라.

1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힐라맨이 이 도적과 은밀한 살인자의 무리를 법에 따라 처형하고자 그들을 잡으러 보내었더라. 11그러나 보라, 개다이앤톤은 키시쿠멘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가 멸망당할까 두려워하여 자기의 무리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하였고, 이에 그들이 비밀 통로로 그 땅에서 도망하여 광야로 들어갔으므로, 힐라맨이 그들을 잡으러 보내었을 때 그들을 아무 데서도 찾을 수 없었더라. 12또 이 개다이앤톤에 대하여는 이후에 더 말할 것이니라.ㄱ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사십이년이 끝났느니라.ㄴ

13그리고 보라, 이 책의 끝 부분에서 이 개다이앤톤이 니파이 백성을 전복하였음을, 참으로 거의 완전히 멸망시켰음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14보라 내 말은 힐라맨서의 끝을 뜻함이 아니요, 내가 기록한 모든 기사를ㄷ 발췌한 니파이의 책의 끝을 뜻하느니라.

니파이인들의 이주

3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사십삼년에ㄹ 니파이 백성 가운데 다툼은 없었고 다만 교회 안에 약간의 교만이 있어, 그로 말미암아 백성 가운데 작은 불화들이 초래되었으나 이 문제는 제사십삼년 말미에 해결되었더라. 2또 제사십사년에도ㅁ 백성 가운데 다툼이 없었고 제사십오년에도 다툼은 없었더라.ㅂ

3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제사십육년에ㅅ 실로 많은 다툼과 수많은 불화가 있어, 심히 많은 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얻고자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 북방 땅으로 나아갔더라. 4이에 그들은 심히 먼 거리를 여행하여 이윽고 큰 호수들과 많은 강들에 이르렀더라. 5그뿐 아니라 참으로 그들은 그 땅의 모든 지역에 흩어져 나아가되, 무릇 이전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ㅎ 수많은 주민들로 인하여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고, 수목이 없어지게 되지 아니한 모든 지역으로 나아갔더라.

6그리고 이제 수목에 관한 것 말고는 그 땅의 아무 지역도 황폐하지 않았으나, 이전에 그 땅에 거했던 백성들의 멸망이 컸음으로 인하여 그 땅을 황무하다 하였더라.ㅃ 7또 지면에 수목이 조금밖에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간 백성들은 시멘트를 다루는 데 심히 능숙하게 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시멘트로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였더라. 8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번성하고 퍼지며, 남방 땅으로부터 북방 땅으로

ㄱ12 힐라맨서 6:18~30 ㄴ12 –50년; 위 1절 참조 ㄷ14 몰몬$_2$이 의도한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나 제4니파이 1:42, 46이나 몰몬서 1:18; 2:27~28 참조 ㄹ1 –49년 ㅁ2 –48년 ㅂ2 –47년 ㅅ3 –46년 ㅎ5 이는 곧, 소유했던 ㅃ6 이는 곧, 야렛인들

나아가며 퍼져, 이윽고 남쪽 바다에서 북쪽 바다까지, 서쪽 바다에서 동쪽 바다까지 온 지면을 덮기 시작하였더라.

9 또 북방 땅에 있는 백성들은 장막과 시멘트 가옥에 거하면서, 무릇 지면에 움돋는 모든 나무를 자라게 두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가옥과, 참으로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성전과 그들의 회당과 그들의 성소와 그들의 온갖 건물들을 지을 재목을 갖고자 하였더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북방 땅에 재목이 심히 귀하였던지라, 그들이 배 편으로 많이 보내었더라. 11 이에 이같이 그들이 북방 땅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능히 목재와 시멘트로 많은 성읍을 건축할 수 있게 하였더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출생으로는 레이맨인인 암몬 백성 중에서도 이 땅으로 나아간 자들이 많았더라.

몰몬$_2$이 니파이인의 기록에 대해 언급하다

13 그리고 이제 이 백성 중 많은 자들이 이 백성의 행한 바에 대하여 적고 있는 기록이 많이 있어, 그 기록이 그에 관해 상세하고 분량 또한 매우 많았더라. 14 그러나 보라, 이 책에는 이 백성의 행한 바를, 참으로 레이맨인들과 니파이인들의 기사와 그들의 전쟁과 다툼과 불화와 그들의 전도와 그들의 예언과 그들의 해운과 그들의 선박 건조와 그들의 성전 건축과 회당과 그들의 성소의 건축과 그들의 의로움과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살인과 그들의 도적질함과 그들의 약탈함과 온갖 가증한 일과 음행들을 백분의 일도 실을 수 없도다.

15 그러나 보라, 각양의 많은 책들과 많은 기록들이 있고 이들은 주로 니파이인들에 의해 기록되어 왔도다. 16 또 이러한 것들은 니파이인들에 의하여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해져 내려왔나니, 곧 그들이 범법에 빠져 살해당하며, 약탈당하며, 수색당하며, 내몰리며, 죽임당하며, 지면에 흩어지며, 레이맨인들과 섞여 더 이상 니파이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기에 이르렀으니, 간악하고, 사납고, 흉포해져서, 참으로 곧 레이맨인이 되어 버렸음이라.

17 그리고 이제 나는 다시 나의 기사로 돌아가노니, 그러므로 내가 말한 일은 니파이 백성들 가운데 큰 다툼과 소요와 전쟁과 불화들이 있은 후에 있었느니라.

힐라맨$_3$의 판사로서의 통치

18 판사 치세 제사십육년이 끝났느니라.ㄱ 1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사십칠년과 또한 제사십팔년에도ㄴ 그 땅에 여전히 큰 다툼이 있었느니라.ㄷ 20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라맨은 정의와 공평으로 판사직을 채웠나니,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준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하며, 그의 부친의 길을 따라 행하여 그 땅에서 번영하였더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에게 두 아들이 있어, 장자에게는 니파이라 하는 이름을 주었고, 막내에게는 리하이라 하는 이름을 주었더라. 이에 그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주를 섬겼더라.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사십팔년 말미에 니파이 백성 가운데 전쟁과 다툼들이 약간 그치기 시작하였더라.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사십구년에는 그 땅에 지속적인 평화가 확립되어,ㄹ 다 그러하였으되 오직 도적 개다이앤톤이 그 땅의 보다 주민이 많은 지역들에 세운 비밀 결사가 있었나니, 그 당시에 이들이 정부의 머리로 있는 자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땅에서 멸망되지 아니하였더라.

ㄱ 18 –46년; 위 3절 참조 ㄴ 19 –45 년 ㄷ 19 –44년 ㄹ 23 –43년

24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같은 해에 교회가 심히 크게 번영하여, 수천 명이 교회에 가입하고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았더라. 25또 교회의 번영이 심히 크고,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는 복이 심히 많아, 대제사들과 교사들 스스로도 측량할 수 없이 놀랐더라. 26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의 일이 번성하여 실로 많은 사람들에게, 곧 수만 명에게 침례를 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합하게 하였더라.

27그리하여 우리는 주께서 무릇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모든 자에게 자비로우심을 알 수 있느니라. 28실로 이리하여 우리는 모든 이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아노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자들에게라. 29참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음을 아노니, 그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어, 악마의 모든 교활과 올무와 간계를 파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을 협착하고 좁은 길로 인도하여, 악인들을 삼키기 위하여 예비된 저 영원한 비참의 심연을 건너게 하리로다— 30그리고 그들의 영혼, 곧 그들의 불멸의 영혼을 하늘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이르게 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의 모든 거룩한 조상들과 함께 앉게 하고,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리로다.

31그리고 이 해에 제이라헤믈라 땅에서와 주변 모든 지역, 곧 니파이인들이 소유한 온 땅에 기뻐함이 계속되었더라. 32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사십구년의 남은ㄱ 기간에도 평화와 심히 큰 기쁨이 있었고, 또한 판사 치세 제오십년에도 역시 지속되는 평화와 큰 기쁨이 있더라.ㄴ

교만의 문제

33그리고 판사 치세 제오십일년에 역시 평화가 있었으나,ㄷ 교만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니—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요,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 하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 온 것이라— 34이에 그들이 교만으로 자고하여져서, 많은 그들의 형제들을 핍박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이는 크나큰 악이라, 이로 인하여 백성 중 보다 겸손한 자들이 큰 핍박을 받고 많은 고난을 헤쳐 나아가게 되었더라. 35그러할지라도 그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 겸손한 중에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여져서 그 영혼을 기쁨과 위로로 가득 채우기에 이르렀고, 참으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함과 성결하게 되기에 이르렀나니, 이 성결하게 됨은 그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36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오십이년도ㄹ 화평한 중에 끝났으되 오직 백성들의 마음에 심히 큰 교만이 들어왔으니, 이는 그들의 심히 큰 부와 그 땅에서 그들이 번영한 연고라, 또 그 교만이 날로 그들 위에 자랐더라.

37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오십삼년에 힐라맨이 죽고,ㅁ 그의 장자 니파이가 그를 대신하여 다스리기 시작하니라.ㅂ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써 판사직을 채우되,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부친의 길로 행하였더라.

ㄱ 32 –43년; 위 23절 참조 ㄴ 32 –42년 ㄷ 33 –41년 ㄹ 36 –40년 ㅁ 37 –39년 ㅂ 37 이는 곧, 니파이$_2$; 본문에서는 기록의 양도를 굳이 언급하진 않지만, 힐라맨서의 나머지는 분명 힐라맨$_3$의 아들들에 의해 쓰여졌을 것임; 힐라맨서 소개; 힐라맨서 16:25; 제3니파이 1:2 참조

레이맨인과 니파이인 이반자들이 남쪽 땅을 점령하다

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오십사년에[ㄱ] 교회 내에 많은 불화가 있었고, 또한 백성 가운데서도 다툼이 있어 많은 유혈이 있더라.

[2]이에 모반한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 레이맨인의 왕에게로 가니라. [3]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을 충동하여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고자 애썼으나, 보라, 레이맨인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그 이반자들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더라.

[4]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오십육년에 니파이인들에게서 레이맨인들에게로 올라간 이반자들이 있었으니,[ㄴ] 이들이 다른 자들과 함께 그들을 충동하여 니파이인들에 대하여 노하게 하는 데 성공한지라, 이에 그들이 그 해 내내 전쟁 준비를 하였더라. [5]그리고 제오십칠년에[ㄷ] 그들이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내려와 죽음의 일을 시작하여, 참으로 판사 치세 제오십팔년에는[ㄹ] 제이라헤믈라 땅과 또한 풍요 땅 근처에 있는 땅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땅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더라.

[6]이에 니파이인들과 모로나이하의 군대는 풍요 땅으로 쫓겨 들어가서, [7]거기서 레이맨인들에 대하여 방비를 강화하였나니, 곧 서해에서 실로 동해에 이르기까지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북쪽 땅을 방어하기 위하여 방비를 강화하고 그들의 군대를 배치한 선을 따라 니파이인에게는 하룻길이더라.[ㅁ] [8]이같이 니파이인들의 이반자들은 레이맨인들의 수많은 군대의 도움으로 남방 땅에 있는 니파이인들의 모든 소유지를 다 손에 넣었으니, 이 모든 일이 판사 치세 제오십팔년과 구년에 이루어졌더라.[ㅂ]

[9]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육십년에[ㅅ] 모로나이하가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 땅의 많은 지역을 손에 넣는 데 성공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수중에 떨어졌던 많은 성읍들을 되찾았더라. [10]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육십일년에는[ㅇ] 그들이 그들의 모든 소유지의 절반을 되찾는 데 성공하였더라.

니파이인의 패배와 승리에 대한 몰몬$_2$의 영적인 해석[ㅈ]

[11]이제 니파이인들의 이 큰 손실과 그들 중에 있던 큰 살육은, 그들 중에 있는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가증함이 아니었던들 생기지 아니하였으리니, 그 간악함과 가증함은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다 하는 자들 중에도 있었더라. [12]또 이는 그들의 심히 큰 부로 인한 그들의 마음의 교만으로 인한 것이었나니, 참으로 이는 그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주린 자에게 그들의 음식을 주지 아니하며, 벗은 자에게 그들의 옷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겸손한 형제들의 뺨을 치며, 거룩한 것을 조롱하며, 예언과 계시의 영을 부인하며, 살인하며, 약탈하며, 거짓말하며, 도적질하며, 간음을 범하며, 큰 다툼을 일으키고, 니파이 땅 곧 레이맨인들 가운데로 이탈해 나갔음으로 인함이었더라— [13]또 그들의 이 큰 간악함과 그들이 스스로의 힘을 자랑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에 버려 둔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번영하지 못하고 도리어 고난을 당하며 맞으며 레이맨인들 앞에서 쫓기기를 그들이 그들의 땅을 거의 다 잃기까지 하였더라.

[14]그러나 보라, 모로나이하는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고, 또한 힐라맨의 아들인 니파이와 리하이도 백성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베풀고,

[ㄱ1] –38년 [ㄴ4] –36년 [ㄷ5] –35년 [ㄹ5] –34년 [ㅁ7] 이 배치한 선은 앨마서 22:32에서 언급된 "땅 사이에는 작은 지협"보다 더 짧았음 [ㅂ8] –34년, –33년 [ㅅ9] –32년 [ㅇ10] –31년 [ㅈ11] 이 부분은 4~10절의 사건에 대한 다른 관점을 보여줌; 10절과 17절은 둘 다 동일하게 제 61년에 끝남을 참고

또한 그들의 죄악에 관해서와, 만일 그들이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들에게 많은 것을 예언하였더라. [1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회개하였고, 그들은 회개한 만큼 번영하기 시작하더라. [16]이는 모로나이하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이끌고,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성읍에서 성읍으로 나아가, 이윽고 그들이 그 재산의 절반과 그들의 모든 땅의 절반을 되찾기에 이르렀음이라. [17]이같이 판사 치세 제육십일년이 끝났느니라.ㄱ

니파이인이 자신의 약함의 원인을 깨닫다

[18]또 판사 치세 육십이 년에ㄴ 이렇게 되었나니 모로나이하가 레이맨인들로부터 더 이상 소유지를 빼앗을 수 없었던지라. [19]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땅의 나머지를 손에 넣으려는 그들의 계획을 버렸으니, 이는 레이맨인들의 수가 심히 많아 니파이인들로서는 그들을 더 물리칠 힘을 갖는 것이 불가능해졌음이라. 그리하여 모로나이하는 그가 취한 지역을 지키는 데 그의 모든 군대를 사용하였더라.

[20]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의 수효가 많음으로 인하여 니파이인들은 혹 자신들이 져서 짓밟히며 살육당하며 멸망당할까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21]참으로 그들은 앨마의 예언과ㄷ 또한 모사이야의ㄹ 말을 기억하기 시작하였고, 자신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였고, [22]또 모사이야의 법, 곧 주께서 그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주게 하신 바를 변경하고 자신들의 발 아래 짓밟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또 자신들의 법은 문란해졌고, 자신들은 간악한 백성이 되어 마치 레이맨인들처럼 간악하다는 것을 깨달았더라.

[23]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믿지 않기 시작하였으며,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눈 앞에 다가왔더라. [24]또 그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처럼 약해졌음과, 주의 영은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 주지 아니함을 알았더라. 참으로 주의 영은 그들에게서 물러갔나니 주의 영은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25]그러므로 주께서 그 기이하고 비길 데 없는 권능으로 그들을 지켜 주시기를 그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믿지 않음과 참담한 간악함의 상태에 빠졌음이라. 또 그들은 레이맨인들의 수가 그들보다 심히 더 많아 주 그들의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는 자신들이 피치 못하고 반드시 멸망하리라는 것을 깨달았더라. [26]이는 보라, 일 대 일로도 레이맨인들의 힘이 그들의 힘만큼 강하였음이라. 또 이리하여 그들은 이 큰 범법에 빠졌었나니, 실로 이리하여 그들은 여러 해가 못되는 동안에 그들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약하게 되었더라.ㅁ

니파이$_2$가 판사직을 내주다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같은 해에, 보라, 니파이가 이름이 시조램이라 하는 자에게 판사직을 넘겨주었더라. [2]이는 그들의 법과 그들의 정치 체제가 백성의 소리에 의해 확립되었고, 선을 택하는 자보다 악을 택하는 자가 더 많았으므로 그들의 멸망이 무르익고 있었음이니, 이는 법이 문란해졌음이더라.ㅂ [3]또한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어서, 그들로 멸망에 이르게 함이 아니고는 법이나 공의로 그들을 다스릴 수 없었더라. [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ㄱ17 –31년; 위 10절 참조 ㄴ18 –30년 ㄷ21 앨마서 9:18~19 추정 ㄹ21 모사이야서 29에 기록된 가르침을 언급한 것으로 추정 ㅁ26 여기 24~26절과 모사이야서 1:13의 예언에서 나오는 공통된 몇 개의 구절은 그 예언의 실현으로 보여짐 ㅂ2 모사이야서 29:26~27

지치게 된지라, 이에 판사직을 내어놓고 그 남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로 하였고, 그의 아우 리하이도 그 남은 평생 동안 그리하기로 하였더라.

힐라맨$_3$의 말을 기억하다

5 이는 그들이 그 부친 힐라맨이 그들에게 한 말을 기억하였음이니, 그가 한 말이 이러하니라.

> 6 볼지어다,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기를 원하며, 너희가 이 말을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바라노라. 볼 지어다, 내가 예루살렘 땅에서 나온 우리 시조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너희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들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그들을 기억할 때 그들의 행한 바를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너희가 그들의 행한 바를 기억할 때, 어떻게 그 행한 바가 선하였다 일컬음이 되고 또 기록되었는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7 그러므로 나의 아들들아, 나는 너희가 선한 것을 행하여, 너희에 대해 말하고 또한 기록함이 그들에 대해 말하고 기록한 것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 8 또 이제 나의 아들들아,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얼마간 더 있나니, 그 바람이란 너희가 자랑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를 위해 참으로 영원하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여, 참으로 저 귀한 영생의 은사를 너희가 얻는 것이라, 그 은사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느니라.
> 9 오 기억하라, 나의 아들들아, 베냐민 왕이 그 백성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참으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이 달리 없고, 오직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서일 뿐임을 기억하라.ㄱ 참으로 그가 세상을 구속하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 10 또한 앰몬아이하 성에서 앰율레크가 지에즈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이는 저가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정녕 그 백성을 구속하시러 오실 것이어니와 그가 오심은 그들을 그들의 죄 중에 구속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려 하심이라 하였음이니라.ㄴ

11 또 그는 회개로 인하여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나니, 그러므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구속주의 권능, 곧 그들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조건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느니라.

12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ㄱ 9 모사이야서 3:17 ㄴ 10 앨마서 11:34, 37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칠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힐라맨이 그의 아들들에게 가르친 말이 이러하였으되, 참으로 그가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그들에게 많이 가르쳤고, 또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도 많이 가르쳤더라.

니파이$_2$와 리하이$_4$가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에게 전파하다

14 이에 그들이 그의 말을 기억하였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온 니파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나아갔나니, 풍요 성에서 시작하여, 15 거기에서 기드 성으로, 또 기드 성에서 뮬레크 성으로, 16 또 참으로 한 성읍에서 다른 성읍으로 나아가기를, 이윽고 남방 땅에 있는 모든 니파이 백성 가운데 나아가기까지 그리하였고, 거기서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들어가 레이맨인들 가운데 나아갔더라. ㄱ

1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큰 권능으로 전파하여, 니파이인들에게서 넘어간 이반자들 중 많은 자를 부끄럽게 한지라, 저들이 나아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고, 즉시 니파이인들에게로 돌아와 저들이 행한 잘못을 그들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와 리하이가 심히 큰 권능과 권세로 레이맨인들에게 전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권능과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고 또 그 말해야 할 것도 그들에게 주셨음이라— 19 그러므로 그들이 말함으로 레이맨인들을 크게 놀라게 하고, 저들로 깨닫게 한지라, 제이라헤믈라 땅과 주변에 있는 레이맨인 팔천 명이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고, 그 조상들의 전통의 간악함을 깨닫게 되었더라.

레이맨인 감옥에 갇힌 니파이$_2$와 리하이$_4$: 기적적인 불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와 리하이가 거기서 나아가 니파이 땅으로 가니라. 2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레이맨인들의 한 군대에 붙잡혀 옥에 던져지니, 참으로 림하이의 종들이 암몬과 그의 형제들을 던져 넣었던 바로 그 옥이라. ㄴ 22 그리고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여러 날을 옥에 던져져 있은 후, 보라, 저들이 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나아가 감옥으로 들어갔더라.

23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와 리하이가 마치 불 같은 것에 둘러싸여 있는지라, 저들이 타 죽을까 두려워하여 감히 그 손을 그들에게 대지 못하더라. 그러할지라도 니파이와 리하이는 타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마치 불 가운데 서 있는 듯하였어도

ㄱ 16 옛 니파이인들의 수도인 제이라헤믈라는 이때로부터 4년 전에 니파이인 반역자들과 레이맨인들에게 함락되었고 그때까지 레이맨인들의 손에 그대로 잡혀 있었음 ㄴ 21 모사이야서 7:7; 21:23

타지 아니하였더라. [24]이에 그들은 불기둥에 둘러싸였으되 그것이 자기들을 태우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용기를 얻었더라. [25]이는 레이맨인들이 감히 그 손을 자기들에게 대려 하지 아니하고, 감히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려고도 아니하고 다만 마치 놀라 말 못하는 자가 된 것같이 서 있는 것을 보았음이라.

[2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와 리하이가 나서서 저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두려워 말라, 이는 보라, "이 기이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신 이는 하나님이심이라, 이로써 너희가 너희 손을 우리에게 대어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보이셨느니라" 하더라. [27]그리고 보라, 그들이 이 말을 하고 나자 땅이 몹시 흔들리고 감옥의 벽이 마치 금방이라도 땅에 무너져 내릴 듯이 흔들렸으나, 보라, 무너지지는 아니하더라. 또 보라, 옥에 있던 자들은 레이맨인들과 이반자들인 니파이인들이었더라. [28]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암흑의 구름에 덮이더니, 지극히 엄숙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29]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암흑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한 음성이 임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선한 소식을 선포하게 한 나의 종들을 더 이상 멸하려 하지 말라" 하더라. [30]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 음성을 듣고 본즉, 그것은 우레의 소리도 아니요, 크게 떠드는 소란한 음성도 아니요, 도리어 보라, 그것은 마치 속삭임과도 같은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었으되, 참으로 영혼에까지 꿰뚫었으며— [31]또 그 음성의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보라 땅이 심히 흔들리며 감옥의 벽이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이 다시 떨었으되, 보라 그들을 뒤덮은 암흑의 구름은 걷히지 아니하더니—

[32]또 보라 그 음성이 다시 임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이는 천국이 가까웠음이니 나의 종들을 더 이상 멸하려 하지 말라" 하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땅이 다시 진동하고 벽이 떨었더라.

[33]또한 음성이 세 번째로 다시 임하여 사람이 이를 수 없는 기이한 말을 그들에게 하매, 벽이 다시 떨고, 땅이 마치 금방이라도 갈라질 듯 진동하더라. [3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은 그들을 뒤덮은 암흑의 구름으로 말미암아 도망할 수 없었으며, 그뿐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움직일 수도 없었더라.

레이맨인 감옥에 갇힌 니파이$_2$와 리하이$_4$: 불의 침례 ⌝

[35]이제 그들 중에 출생이 니파이 사람인 자로, 한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였었으나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온 자가 하나 있었더라. [3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몸을 돌려, 보라, 암흑의 구름을 통하여 니파이와 리하이의 얼굴을 본즉, 보라, 그 얼굴이 실로 천사의 얼굴같이 심히 빛났더라. 또 저가 본즉 그들이 하늘로 그 눈을 들고, 마치 그 보는 바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거나 또는 그 음성을 높이고 있는 듯한 태도로 있는지라.

[3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사람이 무리에게 소리쳐 그들로 돌아보게 하였더라. 이에 보라, 그들에게 능력이 주어지므로, 그들이 돌아보고 니파이와 리하이의 얼굴을 본지라. [38]이에 그들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보라, 이 모든 일의 뜻이 무엇이며, 이 사람들이 더불어 대화하는 이는 누구이냐" 하는지라.

[39]이제 그 사람의 이름은 아미나답이라. 아미나답이 그들에게 이르되, "저들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대화하느니라."

[4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찌 하여야 우리를 뒤덮은 이 암흑의 구름이 걷히겠느냐" 하는지라.

⌝35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 사건을 제$_3$니파이 9:20에서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는 것"으로 언급하심

41 이에 아미나답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반드시 회개하고, 그 음성에게 부르짖기를, 곧 앨마와, 앰율레크와, 지에즈롬이 너희에게 가르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너희가 갖게 될 때까지 하여야 하나니,ㄱ 너희가 이렇게 할진대 너희를 뒤덮은 암흑의 구름이 걷히리라."

4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땅을 진동하게 하신 이의 음성에게 부르짖기 시작하여, 참으로 암흑의 구름이 흩어져 없어질 때까지 부르짖었더라. 4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주위로 그 눈을 들어 그들을 뒤덮고 있던 암흑의 구름이 흩어져 없어졌음을 보았을 때, 보라, 그들은 자신들이 참으로 각자 불기둥에 싸여 있는 것을 보았더라. 44 또 니파이와 리하이는 그들 한 가운데 있는데, 참으로 저들이 둘러싸였으되, 참으로 저들이 마치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있는 듯하였으나, 그것이 저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감옥 벽에 붙지 아니하였으며, 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충만한 영광의 저 기쁨으로 채워졌더라.

45 또 보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사 저들의 마음에 들어가시니, 저들이 마치 불로 채워짐같이 충만하게 되어 기이한 말을 할 수 있더라. 46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에게 한 음성이 임하니, 참으로 마치 속삭임과도 같은 상쾌한 음성이라 이르시되, 47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있던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 대한 너희 신앙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강,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더라.

48 이에 이제, 그들이 이를 듣고 마치 그 음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려는 것같이 그 눈을 들더니, 보라, 그들이 보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더라. 49 또 이 일을 보고 들은 자가 대략 삼백 명 가량이었으니, 이들은 나아가되 기이히 여기지 말며 의심하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았더라.

레이맨인 선교사가 형제를 개종시키다—레이맨인이 니파이 땅을 돌려주다

5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풀며, 그 듣고 본 모든 일을 주변의 모든 지역에 두루 다 선포하매, 그 받은 증거가 큼으로 인하여 레이맨인의 대부분이 그 일을 믿으니라. 51 또 믿는 자마다 모두 그들의 전쟁 무기와, 또한 그들의 증오심과 그들 조상들의 전통을 버리더라. 5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니파이인들에게 그들 소유의 땅을 내어 주었느니라.ㄴ

레이맨인의 의로움과 교회의 기쁨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육십이년이ㄷ 끝났을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나 레이맨인들 곧 그들 중 대부분이 의로운 백성이 되었나니, 그들이 신앙 안에서 굳건하며 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의로움이 니파이인들보다 낫더라. 2 이는 보라, 니파이인들 중에는 완악하며 뉘우칠 줄 모르며 심히 간악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 및 그들 가운데 임한 바 모든 전파하는 것과 예언하는 것을 다 배척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음이라.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백성들은 레이맨인들의 돌이킴으로 인하여, 참으로 그들 중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었더라. 이에 그들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뻐하며, 큰 기쁨을 누렸더라.

ㄱ41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조램인들$_2$이었을 것임; 앨마서 31:6~7 참조; 힐라맨서 5:27 비교 ㄴ52 50~52절은 앨마서 31:5의 앨마$_2$의 생각들을 입증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ㄷ1 –30년; 힐라맨서 4:18 참조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레이맨인들이 제이라헤믈라 땅에 내려와, 니파이인들에게 그들의 돌이킨 경위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신앙과 회개를 권면하였더라. 5 참으로, 또한 많은 자가 심히 큰 권능과 권세로 전파하여, 그들 중 많은 자로 지극히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겸손히 좇는 자가 되게 하였더라.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레이맨인들이 북방 땅에 들어갔고, 또한 니파이와 리하이도 백성에게 전파하러 북방 땅에 들어갔더라. ㄱ 이에 이같이 제육십삼년이 끝났느니라. ㄴ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이 교류하고 번영하다

7 또 보라, 온 땅에 평화가 있어, 니파이인들은 니파이인이나 레이맨인 가운데를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그 원하는 지역으로 다녔더라.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도 니파이인 가운데나 레이맨인 가운데나를 가리지 않고 어디로든지 그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그들은 서로 자유로이 교류를 가지며 마음대로 사고팔며 이익을 얻었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 곧 레이맨인들과 니파이인들 모두가 심히 부하게 된지라, 남쪽 땅이나 북쪽 땅을 막론하고, 그들에게 금과 은과 온갖 귀금속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10 이제 남쪽 땅은 리하이라 하고, 북쪽 땅은 시드기야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뮬레크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뮬레크를 북쪽 ㄷ 땅으로 또 리하이는 남쪽 땅으로 데려오셨음이라. 11 또 보라, 이 두 땅에 각종 온갖 금과 은과 귀한 광물이 있었고, 또 정교한 장인들이 있어 온갖 광물을 다루며 이를 정련하였으니, 이러므로 그들이 부하게 되니라.

12 그들은 북쪽과 남쪽에서 모두 곡물을 풍성하게 재배하였더라. 또한 그들은 북쪽과 남쪽에서 모두 심히 창성하였더라. 이에 그들은 땅에서 번성하고 점차 심히 강하게 되었더라. 또한 그들은 양 떼와 소 떼와 살진 짐승들을 많이 길렀더라. 13 보라 그들의 여자들은 수고하고 길쌈하여, 온갖 옷감 곧 세마포와 각종 옷감을 지어,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웠더라. 이같이 제육십사년이 평화로운 가운데 지나가니라. ㄹ 14 또 제육십오년에도 ㅁ 그들에게 큰 기쁨과 평화가 있었나니, 참으로 장차 임할 일에 관하여 가르치는 일과 예언이 많이 있었더라. 이같이 제육십오년이 지나가니라.

개다이앤톤 도적단이 다시 나타나다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육십육년에, ㅂ 보라, 시조램이 판사석에 앉았을 때 정체불명의 손에 살해당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같은 해에, 백성들에 의해 그의 대신 임명되었던 그의 아들 역시 살해되었더라. 이같이 제육십육년이 끝났느니라.

16 그리고 제육십칠년 ㅅ 초에 백성들이 다시 심히 간악해지기 시작하였더라. 17 이는 보라, 주께서 세상의 부로 그들을 그처럼 오래 축복하신지라, 그들이 충동함을 받아 분노와 전쟁과 유혈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마음을 저희의 부에 두기 시작하였음이라. 참으로 그들은 서로 남보다 높아지고자 이익 얻기를 구하기 시작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익을 얻고자 은밀한 살인을 범하며, 도적질하며, 약탈하기를 시작하였더라.

ㄱ 6 니파이$_2$는 이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에 돌아옴; 그의 이야기는 힐라맨서 7:1에서 계속됨; 북방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힐라맨서 3:3~12에서 묘사됨 ㄴ 6 –29년 ㄷ 10 옴나이서 1:15~16; 모사이야서 25:2 ㄹ 13 –28년 ㅁ 14 –27년 ㅂ 15 –26년 ㅅ 16 –25년

18 또 이제 보라, 살인자와 약탈자들은 키시쿠멘과 개다이앤톤이 조직한 무리였더라.[ㄱ] 또 이제 이렇게 되었었나니 니파이인들 가운데에도 개다이앤톤의 무리에 속한 자가 많았더라. 그러나 보라, 이 같은 무리들은 보다 간악한 레이맨인들 가운데 더 많았느니라. 또한 그들은 개다이앤톤의 도적과 살인자들이라 일컬어졌더라. 19 또 판사석에 있는 대판사 시조램과 그의 아들을 살해하였던 무리가 바로 그들이었으나, 보라, 그들은 발각되지 아니하였더라.

20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은 자기들 가운데 도적들이 있음을 알고 심히 슬퍼하여, 그 힘이 미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그들을 지면에서 멸하려 하였더라. 21 그러나 보라, 사탄이 대부분의 니파이인의 마음을 충동한지라, 그들은 저 도적단과 연합하고 저들의 언약과 저들의 맹세에 가담하였으니, 저들의 살인과 저들의 약탈과 저들의 도적질로 말미암아 저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무릇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놓이더라도 서로 보호하고 보전하겠다고 하는 것이었더라.

2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그들의 표시, 곧 그들의 은밀한 표시와 그들의 은밀한 말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는 언약에 가입한 형제를 식별하여, 그의 형제가 여하한 간악함을 행할지라도 그의 형제에 의해, 또는 그의 무리에 속하여 이 언약을 맺은 자들에 의해 해를 받지 않게 하려 함이었더라. 23 또한 이리하여 그들 나라의 법과 또한 그들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여, 살인하며, 약탈하며, 훔치며, 음행과 온갖 간악함을 범하려 함이었더라. 24 또 누구든지 그들 무리에 속한 자로서 무릇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가증함에 대하여 세상에 누설하는 자는 재판을 받게 하였으니, 그들 나라의 법에 따라서가 아니요 개다이앤톤과 키시쿠멘이 주었던 그들의 간악함의 법에 따라서라.

모든 죄의 근원으로부터 온 은밀한 음모와 맹세

25 이제 보라, 백성을 멸망으로 끌어내리는 수단이 될까 하여, 앨마가 그의 아들에게 명하여 세상에 나아가게 말라 한 것이 이 은밀한 맹세와 언약들이라.[ㄴ] 26 이제 보라, 그 은밀한 맹세와 언약들은 힐라맨에게 전달된 기록으로부터 개다이앤톤에게로 나아왔던 것이 아니요, 보라, 우리들의 시조를 꾀어 금단의 열매를 취하게 했던 바로 그 존재가 개다이앤톤의 마음에 넣었던 것이라[ㄷ] — 27 참으로 가인과 더불어 음모를 꾸미기를 그가 그 동생 아벨을 살해할지라도 그 일이 세상에 알려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던 바로 그 존재이니, 그때로부터 저가 가인과 그의 추종자들과 더불어 음모를 꾸몄느니라.[ㄹ]

28 또한 그는 백성들의 마음에 하늘에 이르기 위하여 탑을 높게 쌓으려는 생각을 넣은 바로 그 존재요, 또 그는 그 탑으로부터 이 땅에 왔던 백성을[ㅁ] 미혹하였던 존재니, 이 온 땅 위에 어둠의 일과 가증한 일을 퍼뜨리기를 저가 백성을 완전한 멸망과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내리기까지 한 바로 그 존재더라.[ㅂ]

29 참으로 이는 개다이앤톤의 마음에 여전히 어둠의 일과 은밀한 살인의 일을 계속하려는 생각을 넣은 바로 그 존재이니,[ㅅ] 그는 인류의 시작부터 이때에 이르도록 그 일을 야기해 왔느니라. 30 또 보라, 그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자라. 또한 보라, 그는 자기의 어둠의 일과 은밀한 살인을 계속하며,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맹세와 그들의 언약과 심히 간악한 그들의 계획을 대대로 전하는도다.

[ㄱ] 18 이 무리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힐라맨서 2:1~11에 나옴; 그 구절의 끝 무렵에 약 25년 전 광야로 도망친 개다이앤톤 도적들은 그 이후로 이 구절까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음 [ㄴ] 25 앨마서 37:27~32 [ㄷ] 26 창세기 3:1~5 [ㄹ] 27 모세서 5:28~31, 47~52 참조 [ㅁ] 28 창세기 11:4 [ㅂ] 28 이는 곧, 야렛인들 [ㅅ] 29 힐라맨서 2:4~5, 11

개다이앤톤 도적단에 대해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이 다르게 반응하다

31 또 이제 보라, 그가 니파이인들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은지라, 참으로 그들이 심히 간악하게 되었나니, 참으로 그들의 대부분이 의의 길에서 돌아서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희 발 아래 짓밟고, 자기의 길로 돌아서며, 자기의 금과 자기의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지었도다. 3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모든 죄악이 여러 해가 되지 않아 그들에게 임하였나니, 그 대부분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육십칠년에 그들에게 임하였더라.[ㄱ] 33 또 제육십팔년에도 그들의 죄악이 자라,[ㄴ] 의인들이 크게 슬퍼하며 애통하기에 이르렀더라.

34 이리하여 우리는 니파이인들이 점차 믿지 않음에 빠지며, 그 간악함과 가증함이 더욱 자라기 시작한 한편, 레이맨인들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크게 자라기 시작하였음을 보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의 법도와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였으며, 또 그의 앞에서 진리와 정직함 가운데 행하기 시작하였더라.

35 또 이리하여 주의 영이 니파이인들에게서 물러가기 시작하였음을 보나니, 그들의 마음의 간악함과 완악함으로 인함이었더라.

36 또 이리하여 주께서 레이맨인들 위에 그의 영을 부어 주기 시작하셨음을 보나니, 레이맨인들이 쉽게 그리고 기꺼이 주의 말씀을 믿었음이라.

3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은 개다이앤톤 도적단을 수색하였으며, 또 그들 중 더욱 간악한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던지라,[ㄷ] 마침내 레이맨인들 가운데서는 이 도적의 무리가 온전히 진멸되었더라. 3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에 반해서, 니파이인들은 저들을 강화하고 저들을 지원하기를 저들 중 더욱 간악한 무리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저들이 니파이인의 온 땅에 퍼지기까지 그리하였고, 또 의로운 자의 대부분을 유혹하기를 이들이 저들의 행위를 믿고 저들의 약탈물에 참여하며 저들의 은밀한 살인과 결사에 저들과 연합하게 되기까지 그리하였더라. 39 이에 이리하여 저들이 정부의 경영을 도맡고 나서는, 가난한 자와 온유한 자와, 하나님을 따르는 겸손한 자들을 저들의 발 아래 밟으며, 치며, 찢으며, 그들에게 저들의 등을 돌렸느니라.

40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이 참혹한 상태에 있고 영원한 멸망이 무르익고 있었음을 아느니라. 4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육십팔년이 끝났느니라.[ㄹ]

[ㄱ] 32 –25년; 위 16절 참조 [ㄴ] 33 –24년 [ㄷ] 37 몰몬$_2$은 "그들 중 *덜* 간악한 무리들"이라고 쓰려고 했거나 도적들이 아니라 "*레이맨인*들 중 더욱 간악한 무리들"을 의미하려던 것으로 추정 [ㄹ] 41 –24년; 위 33절 참조

니파이$_2$와 사무엘$_2$의 성역

힐라맨서 7~16장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의 예언—하나님께서 니파이 백성이 그 간악함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의 분노 중에 그들에게 임하사, 그들을 완전히 멸하겠다고 위협하심. 하나님이 역병으로 니파이 백성을 치심.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다. 레이맨인 사무엘이 니파이인들에게 예언함.

니파이$_2$의 슬픔—개다이앤톤 도적단이 정부를 은밀히 조종하다

7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육십구년에[ㄱ]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가 북방 땅에서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돌아왔더라.[ㄴ] [2]이는 그가 북방 땅에 있는 백성 가운데 나아가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들에게 많은 것을 예언하였으나, [3]그들이 그의 모든 말을 배척한지라, 그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없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왔음이라.

[4]그리고 백성들이 그처럼 심히 간악한 상태에 있고, 저 개다이앤톤 도적들이 판사직을 채우며—그 땅의 권력과 권세를 탈취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 놓으며, 조금도 그 앞에 올바름이 없으며, 사람의 자녀들에게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5]의인들을 그의로 인하여 정죄하고, 죄 있는 자와 악인들을 그 돈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며, 더욱이 정부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그들의 뜻대로 다스리고 행함으로써, 이익과 세상의 영광을 얻으며, 더욱이 더 쉽게 간음을 범하며, 도적질하며, 죽이며, 그들의 뜻대로 행하고자 함을 보고—

[6]이제 이 큰 죄악이 여러 해가 못 되는 동안에[ㄷ] 니파이인에게 임하였나니, 니파이가 이를 보고 그 마음이 속에서부터 슬픔으로 복받친지라, 이에 그가 그의 영혼의 고뇌 가운데 부르짖기를, [7]"아아, 내가 내 날들을 나의 조상 니파이가 예루살렘 땅에서 처음 나왔던 그 시대에 보낼 수 있었다면, 그리하여 약속된 땅에서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면, 그때 그의 백성은 쉽게 권함을 받았으며, 굳건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며, 죄악을 행하는 데에 더디 이끌렸으며, 주의 말씀에 속히 귀를 기울였도다— [8]참으로 만일 그 시대에 내 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면, 그러면 내 영혼이 내 형제들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을 것이라. [9]그러나 보라, 내게는 이 시대가 내 날들이요, 내 영혼은 내 형제들의 이 간악함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가득차게 되었도다" 하더라.

니파이$_2$가 망대에서 전파하다

[10]또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부르짖은 것이 니파이의 정원에 있는 망대 위에서였고, 그 정원은 제이라헤믈라성에 있는 큰 시장으로 통하는 대로변에 있었더라. 그러므로 니파이가 그의 정원에 있는 망대 위에 엎드렸으니 이 망대는 또한 대로가 지나가는 정원 문 가까이에 있더라. [1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니파이가 망대 위에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고, 달음질하여 그 본 것을 백성에게 고하매,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함께 와서 백성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그처럼 크게 슬퍼하는 까닭을 알고자 하더라.

[12]이에 이제 니파이가 일어나서 본즉 많은 무리의 백성이 함께 모였는지라. [1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입을 열어 그들에게 이르되,

[ㄱ]1 –23년 [ㄴ]1 니파이$_2$가 북방 땅으로 떠난지 6년 되었음; 힐라맨서 6:6 참조 [ㄷ]6 이 침울한 반응은 힐라맨서 4:26과 6:32에도 나왔음

"보라, 어찌하여 너희가 함께 모였느냐? 나로 너희의 죄악에 대하여 너희에게 고하게 함이냐? 14참으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의 마음이 심히 슬픈 까닭에, 내가 나의 하나님께 내 영혼을 쏟아내고자 나의 망대 위에 올랐음으로 인함이로다! 15또 나의 슬퍼함과 애통해 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함께 모여 기이히 여기는도다. 과연 너희는 기이히 여길 필요가 크게 있나니, 참으로 너희가 내어준 바 되어 악마가 너희 마음을 그처럼 크게 사로잡았으매, 너희가 마땅히 기이히 여겨야 하리로다. 16참으로 어찌 너희가, 너희의 영혼을 영원한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저 아래로 내던져 버리기를 구하는 자의 꾀임에 질 수가 있었느냐?

17"오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가 어찌하여 너희를 버리셨느냐? 18이는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한 까닭이라. 참으로 너희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자 아니하는도다. 참으로 너희는 그로 하여금 너희를 대하여 격노하시게 하였도다. 19또 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너희를 모으시는 대신, 보라, 그는 너희를 흩으사 너희로 개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실 것이라.

20"오, 어찌 너희가 너희를 구하신 바로 그 날에 너희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었느냐? 21그러나 보라, 이는 이익을 얻기 위함이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함이며, 또한 너희가 금과 은을 얻고자 함이라. 또 너희는 너희 마음을 재물과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두고, 이를 위하여 살인하며, 약탈하며, 도적질하며, 너희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며, 온갖 불의를 행하는도다. 22이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이 까닭에 너희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 이는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보라, 이 큰 성과 또한 주변에 있는 바 우리 소유의 땅에 있는 저 모든 큰 성읍들이 빼앗긴 바 되어 거기에 너희가 거할 곳이 없게 될 것임이라. 이는 보라, 주께서 지금까지 그리해 오신 것같이 너희 원수에게 대항할 힘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23"이는 보라,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그 죄를 회개하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 이외에, 간악한 자들에게는 그 중 어느 하나에게도 다른 자에게보다 더 나의 힘을 보이지 아니할 것이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나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너희보다 레이맨인들의 형편이 더 나을 것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24이는 보라, 그들이 너희보다 더 의로움이니, 이는 그들이 너희가 받은 그 큰 지식을 거스려 범죄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인즉, 참으로 네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네가 완전히 멸망당할 바로 그때, 주는 그들의 날을 길게 하시고 그들의 씨를 번성하게 하시리라.

25"참으로 너희 가운데 임한 그 큰 가증함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그것 곧 개다이앤톤이 세운 저 비밀 결사와 연합하였도다!

26"참으로 너희가 너희 마음에 들어오도록 버려 둔 그 교만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화가 임하리니, 너희의 심히 큰 부로 말미암아 그 교만이 선한 바를 넘어 너희를 치켜올렸도다!

27"참으로 너희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화 있을진저! 28그런즉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라. 참으로 너희 땅을 너희는 빼앗길 것이요, 또한 너희는 지면에서 멸망당하리로다.

29"이제 보라, 내가 내 스스로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이러한 일을 아는 것이 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님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러한

┐22 11장에서 니파이인들의 회개로 이 예언의 실현을 비켜감

것이 참된 줄 아는 것은 주 하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까닭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 일이 있으리라" 증거하노라.

개다이앤톤 판사와 다른 사람들의 반응

8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이 말을 하고 나자, 보라, 그 곳에 판사요, 또한 개다이앤톤의 비밀 무리에 속한 자들이 있더니, 그들이 노하여 니파이를 대하여 소리를 지르며 백성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이 자를 붙잡아 끌고 가서 그로 그 행한 범죄대로 정죄 받게 아니하느냐? [2]어찌하여 너는 이 자를 보면서 그가 이 백성과 우리의 법을 욕하는 것을 듣고 있느냐" 하였더라. [3]이는 보라, 니파이가 그들의 법이 문란한 것에 관하여 그들에게 말하였음이라. 참으로 니파이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였고 그것을 기록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명에 위반되는 것은 하나도 그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또 그 판사들이 그에게 노한 것은 그가 그들의 은밀한 어둠의 일에 관하여 그들에게 명백히 말함으로 인함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히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자기들에게 대하여 소리 지를까 하였음이라. [5]그리하여 그들이 백성들에게 소리 질러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는 이 자가 우리를 대하여 욕하도록 버려두느냐? 이는 보라, 그가 이 온 백성을 정죄하되 심지어 우리가 멸망하리라 하였고, 또한 우리의 이 큰 성읍들을 우리가 빼앗겨 그 곳에 우리의 거할 곳을 얻지 못하게 되리라 하였음이라. [6]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것이 불가능한 줄 아노니, 이는 보라, 우리가 강력하고 우리의 성읍들이 크므로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조금도 이길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7]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들이 백성을 충동하여 니파이를 대하여 노하게 하고, 저들 중에 다툼을 일으켰으니, 이는 어떤 이들이 있어 소리치기를, 이 사람을 내버려 두라.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말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8]참으로 보라, 그가 우리에게 증거한 모든 심판이 다 우리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올바로 증거한 줄 우리가 앎이로다. 또 보라, 우리의 죄악은 허다하니, 그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같이 그는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도 모두 알고 있도다. [9]참으로 또한 보라, 그가 만일 선지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러한 일에 관하여 증거할 수 없었으리라" 하였음이라.

니파이$_2$가 모세의 모범을 언급하다

[1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를 멸하기를 꾀하던 백성들이 그들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찌 할 수 없어 그 손을 그에게 대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그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으니, 자기가 어떤 이들의 눈에 호의를 얻은 것과 그로 인해 나머지 백성들이 두려워함을 봄이라. [11]그러므로 그가 그들에게 더 말하도록 강권하심을 받아 이르되,

"보라,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이 한 사람 곧 모세에게 능력을 주사 홍해의 물을 치게 하시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 우리 조상이었던 이스라엘인은 마른 땅을 밟고 지나오고, 애굽의 군대 위에는 물이 닫혀 그들을 삼킨 것을 읽지 아니하였느냐?」 [12]또 이제 보라, 만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 같은 능력을 주셨으면, 그러면 어찌하여

」11 출애굽기 14:21~29; 니파이전서 4:2; 17:26~27 참조

너희가 너희 중에 쟁론하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임할 심판에 관하여 내가 알 수 있는 능력을 그가 나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하느냐?

13 "그러나 보라, 너희는 내 말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조상들이 한 모든 말과 또한 그처럼 큰 능력을 받았던 이 사람 모세가 한 말, 곧 그가 메시야의 오심에 관하여 한 말도 부인하고 있느니라. 14 참으로 그가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같이 장차 오실 이도 들리우실 것이라.[ㄱ] 15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사는 것같이,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수 있으리니, 곧 영원한 저 생명에 이르기까지니라."

니파이$_2$가 그리스도에 관한 고대의 다른 예언을 참고로 언급하다

16 "또 이제 보라, 모세만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 아니요, 그의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때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도 다 그리하였도다. 17 참으로 보라, 아브라함이 그의 오심에 대하여 보고, 기쁨으로 충만하여 즐거워하였느니라. 18 참으로, 또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만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안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때 이전에 하나님의 반차로써 곧 그의 아들의 반차를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나니, 이는 실로 구속이 백성들에게 임할 것임을 그가 오시기 수천 년도 전에 백성들에게 보이시려 함이었느니라.

19 "또 이제 나는 실로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이러한 일들을 증거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음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참으로 보라, 선지자 지노스가 담대히 증거하였고,[ㄴ]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하였노라. 20 또 보라, 지노크도,[ㄷ] 또 이자이어스도, 또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리하였나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증거한 바로 그 선지자라)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대로[ㄹ]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느니라.[ㅁ] 오 그러하거늘 어찌하여 그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아니하리요?

21 "또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을 논박하겠느냐? 너희가 시드기야의 아들들이[ㅂ] 뮬레크를 제외하고 모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려느냐? 참으로 너희는 시드기야의 자손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들이 예루살렘 땅에서[ㅅ] 쫓겨났음을 보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22 우리 조상 리하이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증거하였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쫓겨났느니라.[ㅇ] 니파이도 또한 이러한 일에 대하여 증거하였으며,[ㅈ] 이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우리의 조상들이 그리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증거하고, 앞을 바라보며, 장차 이를 그의 날을 기뻐하였느니라. 23 또 보라, 그는 하나님이시요, 그들과 함께 계시나니, 그가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매, 그들은 그에게 구속을 받았으며, 그들은 장차 이를 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돌렸느니라."

[ㄱ] 14 민수기 21:4~9 참조; 비슷한 해석들이요한복음 3:14~15; 니파이전서 17:41; 앨마서 33:18~20에 나옴
[ㄴ] 19 니파이전서 19:10~16; 야곱서 5; 앨마서 33:3~13 참조
[ㄷ] 20 니파이전서 19:10; 앨마서 33:15~17 참조
[ㄹ] 20 예레미야서의 대부분의 장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적 경고가 포함되어 있음. 니파이전서 5:13; 7:14 비교
[ㅁ] 20 기원전 586년; 니파이후서 1:4 참조
[ㅂ] 21 열왕기하 25:7; 예레미야 39:6; 52:10
[ㅅ] 21 옴나이서 1:15~16; 모사이야서 25:2; 힐라맨서 6:10
[ㅇ] 22 니파이전서 1:18~20
[ㅈ] 22 니파이전서 11:13~33; 19:8~9; 니파이후서 25:12~13, 19

니파이$_2$로 인해 판사의 암살이 드러나다

24"또 이제 보건대 너희가 이러한 일을 알고 있고 너희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부인할 수 없은즉, 그러므로 이 일에 너희가 범죄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받은 증거가 그처럼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거부하였음이라. 참으로 너희는 이러한 것이 참되다는 증거로서 모든 것을 받았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았느니라. 25그러나 보라, 너희는 진리를 거부하고 너희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며, 이 시간에도 너희를 위하여, 아무것도 썩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올 수 없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대신, 심판의 날에 대하여 너희를 위하여 진노를 쌓는도다. 26실로 이 시간에도 너희의 살인과 너희의 음행과 간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영원한 멸망이 무르익고 있나니, 참으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멸망이 속히 너희에게 이르리라.

27"참으로 보라 멸망은 지금 실로 너희 문턱에 이르렀나니, 참으로 너희는 들어가 판사석에 이르러 살펴보라. 너희의 판사가ㄱ 살해되어 자기 피 가운데 누워 있나니, 그는 판사직에 앉기를 구하는 자기 형제에게 살해되었느니라. 28또 보라, 그들은 둘 다 너희의 비밀 결사에 속하였고, 그 결사를 창안한 자는 개다이앤톤과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키기를 구하는 저 악한 자니라."

니파이$_2$가 밝힌 일을 확인하도록 보내진 다섯 사람

9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이 말을 하고 나자, 그들 중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판사석으로 달려갔으니, 간 사람이 참으로 다섯이라. 그들이 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2"보라,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명하여 우리에게 그처럼 기이한 일들을 예언하게 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리라. 보라, 우리는 그가 그리하셨다고 믿지 아니하며, 참으로 우리는 그가 선지자라고도 믿지 아니하거니와, 그러할지라도, 만일 그가 대판사에 관하여 말한 이것, 곧 저가 죽었다 한 말이 참일진대, 우리는 그가 한 다른 말들도 참된 줄 믿으리라" 하더라.

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힘을 다하여 달음질하여 들어가 판사석에 이른즉, 보라, 대판사가 엎드러져 자기 피 가운데 누워 있는지라. 4이제 보라, 그들이 이를 보고 심히 놀라 땅바닥에 쓰러졌으니, 이는 니파이가 대판사에 관하여 한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었음이라. 5그러나 이제 그들이 보고 믿은지라, 니파이가 말한 모든 심판이 백성에게 임할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였으므로,ㄴ 그들이 크게 떨고 땅에 쓰러졌더라.

6이제 판사가 살해된 그 즉시—저는 은밀한 복장을 한 그 형제에게 찔렸나니, 그는 도망하였고 종들은 달음질하여 사람들 중에 살인에 대해 소리 높여 고하더라. 7이에 보라 백성들이 판사석 있는 곳으로 함께 모이더니—땅에 쓰러진 그 다섯 사람을 보고 놀라니라. 8또 이제 보라, 이 백성들은 니파이의 정원에 모였던 무리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 사람들이 판사를 살해한 자들이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지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도망할 수 없었도다" 하였더라.

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을 붙잡아 결박한 다음 옥에 던져 넣으니라. 그리고 판사가 죽임을 당하였고, 살해한 자들은 붙들려 옥에 던지웠다는 것을 널리 공포하였더라.

ㄱ27 시에조램; 힐라맨서 9:23 참조 ㄴ5 예를 들면, 힐라맨서 7:19, 22, 28 참조

니파이$_2$가 살인죄로 거짓 고발되다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한 위대한 대판사의 장례에, 슬퍼하며 금식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고, 11 그리하여 니파이의 정원에 있었고 또 그의 말을 들은 그 판사들도 역시 장례에 함께 모였더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백성 중에 물어 이르되, "대판사의 죽음에 관하여 물어보도록 보냄을 받은 그 다섯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보내었다 하는 이 다섯에 관하여는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옥에 던져 넣은 살인자들이 다섯 있느니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들이 그들을 데려오기를 청하매 그들을 데려오니, 보라 그들은 보냄을 받았던 그 다섯이라. 또 보라 판사들이 그 일에 관하여 알고자 그들에게 물으매, 그들이 그 행한 바를 다 고하여 이르되, 14 "우리가 달음질하여 판사석이 있는 곳에 이르러, 모든 것이 니파이가 증거한 그대로인 것을 보고, 우리가 놀라 땅에 쓰러졌더니, 우리의 놀란 데서 우리가 회복된즉, 보라 그들이 우리를 옥에 던졌더라. 15 이제 이 사람의 살해에 대해서는 누가 그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며, 오직 이만큼을 우리가 아노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달음질하여 왔고, 보라 저는 니파이의 말대로 죽어 있었느니라."[ㄱ]

16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들이 이 일을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니파이를 대적하여 크게 소리쳐 이르되, "보라, 우리는 이 니파이가 판사를 죽이기로 누군가와 맹약했던 것이 틀림없으며, 그러고 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우리를 그의 신앙으로 돌이키고, 스스로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위대한 자요 또 선지자로 높이고자 하였음을 아노라. 17 이제 보라, 우리가 이 자를 간파해 내리니, 그가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이 판사를 살해한 진범을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니라.

1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 다섯은 장례 당일에 풀려났더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판사들이 니파이를 대적하여 한 말을 두고 그 판사들을 꾸짖고, 하나씩 하나씩 저들과 쟁론하여 마침내 저들을 부끄럽게 하였더라.

니파이$_2$가 살인자를 밝혀내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니파이를 붙잡아 결박하여 무리 앞에 끌어오게 하고, 그를 책잡아 그를 고소하여 사형을 받게 하고자 여러 가지로 그를 심문하기 시작하여— 20 그에게 이르되, "너는 공범자로다. 이 살인을 행한 이 자가 누구냐? 이제 우리에게 고하고, 네 허물을 자백하라." 이르되, "보라 여기 돈이 있나니, 만일 네가 우리에게 고하고 그 맺은 맹약을 인정하면 네 목숨도 네게 주리라" 하니라.

21 그러나 니파이가 그들에게 말하되, "오 너희 우매한 자들, 너희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 너희 맹인들과 너희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너희를 이 죄의 길에 계속 행하도록 버려두실지 아느냐? 22 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이 시간에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큰 멸망으로 인하여 너희가 슬피 부르짖고 곡하기 시작하여야 마땅하도다.

23 "보라 너희는 내가 어떤 사람과 맹약하여 그로 하여금 우리의 대판사 시에조램을 살해하게 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실로 내가 너희 중에 있는 간악함과 가증함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증거로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여 너희로 이 일에 관하여 알게 한 까닭이니라. 24 또 내가 이렇게 하였음으로 인하여,

[ㄱ] 15 힐라맨서 8:27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어떤 사람과 맹약하여 그로 이 일을 행하게 하였다 하고, 참으로 내가 이 표적을 너희에게 보였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내게 노하여, 내 생명 멸하기를 구하는도다.

25 "또 이제 보라, 내가 또 다른 표적을 너희에게 보이고, 이 일에도 너희가 나를 멸하기를 구하는지 보리라. 26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에조램의 형제인 시앤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27 '이 백성에 관하여 그처럼 많은 재앙을 예언하는 자칭 선지자 니파이가 너와 맹약하고 그에 따라 네가 네 형제인 시에조램을 살해하였느냐' 하라. 28 이에 보라, 그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니라' 하리라.

29 "이에 너희는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네 형제를 살해하였느냐' 하라. 30 이에 그는 두려움을 품고 서서 뭐라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할 것이라. 또한 보라, 그가 너희에게 부인하고, 마치 놀란 체 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결백함을 너희에게 주장할 것이라.

31 "그러나 보라, 너희는 그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그의 외투 자락에서 피를 발견할 것이라. 32 이에 너희가 이를 보거든 말하기를, '이 피가 어디서 묻었느냐? 이것이 네 형제의 피인 줄 우리가 모를 줄 아느냐' 하라. 33 그리하면 그가 떨며 창백하게 보이리니, 참으로 마치 죽음이 그에게 임한 것 같으리라.

34 "그때에 너희가 말하기를, '이 두려움과 네 얼굴에 임한 이 창백함으로 인하여, 보라, 우리는 네가 죄 있음을 아노라' 하라. 35 그리하면 더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니, 그때 그가 너희에게 자백하고, 그가 이 살인을 행하였음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아니하리라. 36 그러고 나면 그가 나 니파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게 주신 바 된 것 이외에 이 일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라. 그러고 나면 너희도 내가 정직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심을 받은 줄을 알리라."

니파이$_2$가 결백을 입증하다

3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가서 니파이가 그들에게 이른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보라, 그가 한 말이 사실이었더라. 이는 그 말대로 그가 부인하였고, 또한 그 말대로 그가 자백도 하였음이라. 38 또 그는 끌려와서 그가 바로 그 살인자임이 입증된지라, 그 다섯은 석방되고, 니파이도 풀려났더라.

39 이에 니파이인 중에 니파이의 말을 믿는 자가 더러 있었고, 또 그 다섯의 증거로 인하여 믿는 자도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옥에 있는 동안 돌이켰음이더라. 40 또 이제 백성들 중에는 니파이를 선지자라 말하는 자가 더러 있었더라. 41 또 다른 이들은 말하되, "보라, 그는 신이라, 이는 그가 신이 아니고서는 모든 일을 알 수 없었을 것임이라. 이는 보라, 그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우리에게 고하였고, 또한 사실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며, 심지어 우리의 대판사를 살해한 진범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더라.

1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매, 그들이 그들 한 가운데 서 있는 니파이를 홀로 남겨 둔 채, 이리저리 나뉘어 자기 길을 가니라.

주께서 니파이$_2$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권능을 주시다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는 주께서 자기에게 보여 주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집을 향하여 자기 길을 가니라. 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이같이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니파이인 백성들의 간악함, 곧 그들의 은밀한 어둠의 일과 그들의 살인함과 그들의 약탈함과 온갖 불의로 인하여 많이 의기소침하여—그가 이같이 그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이렇게 되었나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 "니파이야, 네가 행한 그 일들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 있나니, 이는 내가 네게 준 말을 네가 어떻게 지치지 아니하고 이 백성에게 선포하였는지 내가 보았음이라. 네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네 스스로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뜻을 구하며, 내 계명을 지킬 것을 구하였도다. 5 이제 네가 그처럼 지치지 아니하고 이를 행하였은즉, 보라, 내가 너를 영원히 복주어, 너로 말과 행실에, 신앙과 행위에 능하게 하리라. 참으로 네 말을 좇아 모든 일이 네게 이루어지리니, 이는 네가 내 뜻에 반하는 것을 간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6 "보라, 너는 니파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볼 지어다, 내가 이를 나의 천사들의 면전에서 네게 선포하노니, 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권능을 지니고, 이 백성의 간악함을 좇아 기근과 역병과 멸망으로 땅을 칠지니라. 7 보라, 내가 네게 권능을 주노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인봉하면 하늘에서도 인봉될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하여 너는 이 백성 가운데 권능을 지닐지니라. 8 그러므로 만일 네가 이 성전더러 이르기를 '그것이 둘로 갈라지리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9 또 만일 네가 이 산더러 이르기를 '너는 낮아져서 편편하게 되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10 또 보라, 만일 네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치시리라' 하면 그 일이 이룰 것이라.

11 "그런즉 이제 보라,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선포하기를, '전능하신 자 곧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너희가 치심을 입어 멸망당하기에 이르리라 하신다' 하라."

니파이$_2$가 백성에게 다시 전파하다

12 이에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이러한 말씀을 니파이에게 하신즉, 그가 멈추어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면에 여기저기 흩어진 무리에게로 돌아가,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곧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경우 임하게 될 그들의 멸망에 관한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였더라. 13 이제 보라, 니파이가 대판사의 죽음에 관하여 그들에게 고함으로써 행한 저 큰 기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14 그러므로 니파이가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너희가 치심을 입어 멸망당하기에 이르리라 하신다" 하였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여도, 보라, 그들이 여전히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자 아니하더니, 그들이 그를 대하여 욕하며, 그들 손을 그에게 대어 그를 옥에 던져 넣고자 하였더라. 16 그러나 보라, 하나님의 권능이 그와 함께 하시매, 그들이 그를 붙잡아 옥에 던져 넣을 수 없었나니, 이는 그가 영에 붙잡혀 그들 가운데에서 데려가졌음이더라.

17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가 무리에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마침내 이를 그들 모두에게 선포하기까지, 또는 이를 모든 백성 가운데 보낼 때까지 하였더라. 18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더니, 분쟁이 생기매 스스로 나뉘어져서 칼로 서로 죽이기 시작하니라. 19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칠십일년이 끝났느니라.ㄱ

니파이$_2$가 주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도록 기도하다

1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 치세 제칠십이년에 다툼이 증가하더니,ㄴ 마침내 그 온 땅 모든 니파이 백성 가운데 전쟁이 있으니라. 2또 이 멸망과 간악함의 일을 이끈 자들은 이 비밀 도적단이었더라. 그리고 이 전쟁은 그 해 내내 지속되었고 제칠십삼년에도 계속되었더라.ㄷ

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니파이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4"주여, 이 백성이 칼로 멸망당하도록 버려 두지 마시옵고, 주여, 차라리 이 땅에 기근이 있게 하사, 그들을 일깨워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혹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리이다" 하더라. 5이에 니파이의 말대로 그리된지라,

이에 그 땅 온 니파이 백성 가운데 큰 기근이 있더라. 이리하여 제칠십사년에ㄹ 기근이 계속되매, 멸망의 일이 칼에 의하여서는 그쳤으나 기근에 의하여서는 심하게 되었더라. 6또 이 멸망의 일은 제칠십오년에도 계속되었더라. 이는 땅이 치심을 당하여 메말랐으므로,ㅁ 곡물의 시기에 곡물을 내지 못하였음이라. 또 온 땅이 치심을 당함이 니파이인들 가운데 심지어는 레이맨인들 가운데도 있었던지라, 그들이 치심을 입어 그 땅의 더욱 간악하던 지역에서 수천이 죽었더라.

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이 바야흐로 자기들이 기근으로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고는,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또 니파이의 말을 기억하기 시작하였더라. 8이에 백성들이 그들의 대판사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탄원하기 시작하여, 그들이 니파이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보소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노니, 그러므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로 이 기근을 우리에게서 돌이키시게 하소서. 우리의 멸망에 관하여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까 하나이다" 하는 것이었더라.ㅂ 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판사들이 그들의 요청한 말대로 니파이에게 말하였더라.

ㄱ19 –21년 ㄴ1 –20년 ㄷ2 –19년 ㄹ5 –18년 ㅁ6 –17년 ㅂ8 힐라맨서 7:19~28; 8:5, 26; 9:22; 10:14

니피이$_2$가 기근이 끝나도록 기도하다ㄱ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백성들이 회개한 것과 굵은 베를 입고 스스로 겸손하여진 것을 보고, 다시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10 "주여, 보시옵소서 이 백성이 회개하나이다. 또 그들이 개다이앤톤의 무리를, 저들이 멸절될 정도로 그들 가운데서 쓸어버린지라, 이에 저들이 저들의 은밀한 계획들을 땅에 묻어 버렸나이다.

11 이제 주여, 그들의 이 겸손함으로 인하여 주의 노여움을 돌이키시고, 주께서 이미 멸하신 그 간악한 자들의 멸망으로 주의 노여움을 가라앉게 하시옵소서.

12 주여, 주의 노여움, 곧 주의 맹렬한 노여움을 돌이키시고, 이 기근을 이 땅에서 그치게 하시옵소서.

13 주여,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지면에 비를 보내사, 땅으로 그 소산을 내게 하시며, 곡물의 시기에 그 곡물을 내게 하시옵소서.

14 주여, 내가 아뢰기를, '기근이 있게 하사 칼의 해악을 멎게 하시옵소서 하였을 때', 주께서 내 말을 들으셨사온즉,ㄴ 이때에도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리라'ㄷ 하셨음이니이다.

15 참으로 주여, 그들이 그들에게 임한 기근과 역병과 멸망으로 인하여 회개한 것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16 또한 이제 주여, 주의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이 주를 섬기는지 다시 시험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또 만일 그들이 그리하면, 주여,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수 있나이다" 하였느니라.ㄹ

1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제칠십육년에ㅁ 주께서 그 진노를 백성에게서 돌이키시고, 땅에 비를 내리신지라, 이로써 땅이 그 산물의 시기에 그 산물을 내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땅이 그 곡물의 시기에 그 곡물을 내었더라. 18 이에 보라, 백성들은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온 지면에는 기쁨이 충만하였으니, 그들이 더 이상 니파이를 멸하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큰 선지자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능력과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더라. 19 또 보라, 그의 아우 리하이도, 의에 관한 것으로는 조금도 그에게 뒤지지 아니하였더라.

ㄱ9 니파이$_2$의 기도는 시는 아니지만 시편 86장, 앨마서 31:26~35, 이더서 3:2~5의 기도에서 수없이 나오는 "주여"를 연상시킴 ㄴ14 위 4절 참조 ㄷ14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ㄹ16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ㅁ17 –16년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이 누리는 평화와 약간의 다툼

2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이 다시 그 땅에서 번영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황폐한 곳들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였으며, 번성하고 퍼지기 시작하여, 이윽고 북방과 남방, 서해에서 동해에 이르기까지 온 지면을 덮기에 이르렀더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칠십육년이 화평한 가운데 끝나더라.[ㄱ] 또한 제칠십칠년이 화평한 가운데 시작되더라.[ㄴ] 이에 교회가 온 땅에 두루 퍼지고,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백성의 대부분이 교회에 속하였으며, 그들이 그 땅에서 심히 큰 평화를 누리더니, 이같이 제칠십칠년이 끝났느니라.

22 또 그들이 제칠십팔년에도 평화를 누렸으되,[ㄷ] 다만 선지자들이 확립해 놓은 교리의 요점에 관하여 약간의 다툼이 있더라. 23 또 제칠십구년에는 많은 분쟁이 생겼더라.[ㄹ]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와 리하이와, 또 교리의 참된 요점을 아는 그들의 많은 형제들이, 매일 많은 계시를 받아, 이로써 백성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결국 같은 해에 그들의 분쟁을 종식시켰더라.

개다이앤톤 도적들의 재기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팔십년에,[ㅁ] 니파이 백성에게서 이반한 자로서 수년 전에 레이맨인들에게로 넘어가서 스스로 레이맨인이라 하는 이름을 취한 자들이 소수 있었고, 또 레이맨인의 실제 후손인 자들이 소수 있어, 이들이 그들 곧 그 이반자들에게 충동되어 노하게 되었더니, 그로 인해 그들이 그들 형제들과 더불어 전쟁을 시작하였더라. 25 이리하여 그들이 살인과 약탈을 자행하고, 그러고 나서는 산으로, 또 광야와 은밀한 장소들로 퇴각하여 몸을 숨기는지라, 그들을 찾아낼 수 없었으며,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이반자들이 있는 만큼 그들의 수효가 매일 더하여지더라.

26 그리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으로 여러 해가 지나지 못하여, 그들이 심히 큰 도적단이 되었더라. 또 그들이 개다이앤톤의[ㅂ] 모든 은밀한 계획을 다 찾아낸지라, 그로 인해 그들이 개다이앤톤의 도적들이 되었느니라. 27 이제 보라, 이 도적들이 큰 재해를 일으켜, 참으로 니파이 백성 가운데서와 또한 레이맨인 백성 가운데의 큰 멸망을 초래하는지라.

2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멸망의 일을 그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그들이 강한 군사로 이루어진 군대를 광야와 산으로 보내어 이 도적단을 찾아내어 멸하게 하였더라. 29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그 같은 해에 그들이 쫓겨 자기 땅으로 돌아왔더라. 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팔십년이 끝났느니라.[ㅅ]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팔십일년 초에 그들이 다시 이 도적단을 치러 나아가,[ㅇ] 많은 자들을 멸하였으나, 그들에게도 많은 멸망이 임하였더라. 31 이에 그들이 다시 광야와 산에서 나와 자기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할 수 없었으니, 이는 산과 광야에 들끓는 도적들의 수효가 심히 많음으로 인함이더라. 3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이 해가 끝나더라.[ㅈ]

이에 도적들은 여전히 늘어나고 점점 강해지더니, 이윽고 니파이인과 또한 레이맨인의 온 군대도 겁내지 않게 된지라, 저들이 온 지면의 백성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하였더라. 33 참으로 이는 저들이 그 땅 여러 지역을 침범하여 그들에게 큰 멸망을 행

[ㄱ] 21 –16년; 위 17절 참조 [ㄴ] 21 –15년 [ㄷ] 22 –14년 [ㄹ] 23 –13년 [ㅁ] 24 –12년 [ㅂ] 26 위 10절 참조 [ㅅ] 29 –12년; 위 24절 참조 [ㅇ] 30 –11년 [ㅈ] 32 –11년; 위 30절 참조

하여, 실로 많은 자를 죽이고, 다른 이들은 사로잡아 광야로 끌어갔으니, 참으로 또한 특별히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더욱 그리하였음이라. 34 이제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임한 이 큰 악이, 그들을 다시 일깨워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였더라. 35 그리고 이같이 판사 치세 제팔십일년이 끝났느니라. ㄱ

36 그리고 제팔십이년에 ㄴ 그들은 또다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제팔십삼년에는 ㄷ 그들의 죄악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제팔십사년에는 ㄹ 그들이 그들의 길을 고치지 아니하더라. 3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제팔십오년에는 ㅁ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간악함이 점차 더더욱 굳어졌고, 이로써 그들의 멸망은 또다시 무르익고 있었더라. 38 이에 이같이 제팔십오년이 끝났느니라.

인간의 약점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몰몬$_2$의 숙고

12 이리하여 우리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거짓된지와 또한 그 변하기 쉬움을 볼 수 있나니, 참으로 우리는 주께서 그 크고도 한량없는 선하심 가운데 무릇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번영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느니라.

2 참으로, 또한 우리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번영하게 하사,
실로 그들의 밭,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와,
금과 은과 각양각색의 온갖 귀한 것들을 얻게 하시며
그들의 생명을 살려 두시며,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원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선포하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또한 요컨대, 자기 백성의 복리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때에,
참으로 그때가 곧,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으며,
거룩하신 이를 그들의 발 아래 밟는 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나니—실로 이는
그들의 편안함과 그들의 심히 큰 번영 까닭이라.
3 이러므로 주께서 많은 고난으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지 아니하시면,
참으로 그가 사망과 공포와,
기근과 온갖 역병으로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그를 기억하지 아니할 줄 우리가 알게 되리라.

4 오 사람의 자녀들이 어찌 그리 어리석으며,
어찌 그리 허황되며,
어찌 그리 악하고, 악마적이며,
어찌 그리 죄악 행하기는 속히 하며,

ㄱ 35 제81년이 32절와 35절 두 군데에서 끝나므로 이 단락은 편집 요약으로 보임 ㄴ 36 –10년 ㄷ 36 –9년 ㄹ 36 –8년 ㅁ 37 –7년

어찌 그리 선행하기는 더디 하는고!
참으로 저 악한 자의 말에 귀 기울이며,
그 마음을 세상의 헛된 것들에 두기는 어찌 그리 속히 하는고!
5 참으로 어찌 그리 교만 중에 자고하기를 속히 하며,
참으로 어찌 그리 뽐내면서
온갖 불의한 바 행하기는 속히 하며,
주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권고에 귀를 기울이기는 그들이 어찌 그리 더디 하며,
참으로 지혜의 길로 행하기는 어찌 그리 더디 하는고!

6 보라, 그들은 그들을 창조하신 주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바라지 아니하며,
그들을 향한 그의 크신 선하심과
그의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권고를 무시하며
그가 그들의 인도자 되심을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7 오 사람의 자녀들의 보잘 것 없음이 어찌 그리 큰고,
참으로 그들은 땅의 티끌만도 못하도다.
8 이는 보라, 땅의 티끌은
우리의 크고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이리저리 움직여,
갈라지기까지 함이니라.
9 참으로 보라, 그의 음성에 언덕들과
산들이 떨고 진동하도다.
10 또 그의 음성의 권능으로 그것들이 깨어져
참으로 골짜기처럼 편편해지느니라.
11 참으로 그의 음성의 권능으로
온 땅이 진동하며,
12 참으로 그의 음성의 권능으로 기초가
흔들리되 바로 그 중심까지도
흔들리는도다.

13 참으로 또 만일 그가 땅더러 이르시기를—
"움직이라"—
하시면 그것은 움직이는도다.
14 참으로 만일 그가 땅더러 이르시기를—
"너는 되돌아가 낮으로 여러 시간 더 길어지게 하라"—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15(이리하여 그의 말씀대로 땅이 되돌아가매, 사람에게는 태양이 가만히 서 있는 듯 보이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보라, 이것이 그러하니 이는 정녕 움직이는 것이 땅이요 태양이 아님이라.)┐

┐15 여호수아 10:12~14 참조

16 또 보라, 또한 그가 만일 큰 깊음의 물들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마르라”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17 보라, 만일 그가 이 산더러 이르시기를—
“너는 들리워, 이리 와서 저 성읍 위에 떨어져
그것으로 묻히게 하라”—하시면,
보라 그대로 이루어지느니라.

18 또 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보물을 땅에 감추는데,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를 감춘 자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것이 저주를 받을 지니라”—하실 것 같으면,
보라, 그것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
19 만일 주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저주를 받아 이때로부터 영원토록
아무도 너를 발견하지 못하리라”—하실 것 같으면,
보라, 아무도 이후로 영원토록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20 또 보라, 만일 주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네 죄악으로 인하여
네가 영원히 저주받을 지니라—하실 것 같으면,”
그대로 이루어 질 것이니라.
21 또 만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죄악으로 인하여
네가 나의 면전에서 끊어지리라”—하실 것 같으면,
곧 그리되게 하시리라.

22 이에 그가 이 말씀을 하실 자에게 화 있도다. 이는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가 이 말씀을 하실 것인즉, 저가 구원받을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이 까닭에,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회개가 선포되었느니라. 23 그러므로 회개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얻을 자들임이라. 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큰 충만하심 가운데, 사람들로 회개와 선한 행위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회복되어 자기의 행위대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25 또 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읽기로 저 큰 마지막 날에 쫓겨날 자들이 있다 하였으니, 과연 그들이 주의 면전에서 버림을 받을 것이라. 26 참으로 그들은 끝없이 비참한 상태에 처하여,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리라. ㄱ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

ㄱ 26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나 모사이야서 16:11; 제3니파이 26:5; 요한복음 5:29 참조

사무엘$_2$의 예언

힐라맨서 13~15장

레이맨인 사무엘이 니파이인들에게 전한 예언.

레이맨인 사무엘$_2$이 니파이인의 멸망을 예언하다

13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제팔십육년에,[ㄱ] 니파이인들은 여전히 간악함 중에 참으로 큰 간악함 중에 머물러 있었으나, 반면 레이맨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좇아, 하나님의 계명을 엄격히 지켜 준행하였더라. [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레이맨인이 제이라헤믈라 땅에 들어와, 백성에게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여러 날 백성에게 회개를 전파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쫓아내는지라, 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는 참이었더라. [3]그러나 보라,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다시 돌아가 그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무엇이든지 백성에게 예언하라 하시는지라.

[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의 성내에 들어옴을 허락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성벽 위에 올라 그 손을 내뻗고 큰 소리로 외치며 주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 주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백성에게 예언하였더라. [5]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보라, 나 레이맨인 사무엘은 주께서 내 마음에 넣어 주시는 바 주의 말씀을 고하노니, 보라, 그가 내 마음에 넣어 주사 이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기를, 공의의 검이 이 백성 위에 걸려 있으며, 사백 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그 공의의 검이 이 백성 위에 떨어진다 하라 하셨느니라. [6]참으로 중한 멸망이 이 백성을 기다리고 있어, 그것이 정녕 이 백성에게 임하나니, 회개와 반드시 세상에 오사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이 백성을 구할 수 없느니라. [7]또 보라, 주의 한 천사가 이를 내게 선포하였고, 내 영혼에 기쁜 소식을 가져다 주었도다. 보라, 나는 그것을 너희에게도 선포하여 너희로 기쁜 소식을 갖게 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보라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자 아니하는도다.

[8]"'그러므로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니파이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내가 그들에게서 나의 말을 제할 것이며, 그들에게서 나의 영을 물러가게 할 것이며, 더 이상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형제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들을 대적하게 할 것이라. [9]또 사백 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로 침을 당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이라.' [10]'정녕 내가 내 맹렬한 노여움 중에 그들을 징벌할 것인즉, 너희 원수 중 넷째 세대 중에서 살아서 너희의 온전한 멸망을 볼 자들이 있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 한 이것이 반드시 이르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또 그 넷째 세대의 백성은 너희의 멸망을 가져오리라.' [11]'그러나 만일 너희가 회개하고 주 너희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것 같으면 내가 내 분노를 돌이키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참으로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시되, 회개하여 내게로 돌이킬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ㄴ]

[12]"'참으로 이 큰 제이라헤믈라 성에 화 있나니, 이는 보라, 그것이 보전되고 있음이 의로운 자들로 말미암음이라. 참으로 이 큰 성에 화 있나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곳에 나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자들이 많이 있는 줄을, 참으로

[ㄱ] 1 –6년 [ㄴ] 11 불행하게도 니파이인들은 회개하지 않음; 제4니파이서와 몰몬서에서 사무엘$_2$이 예언한 파괴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며 최종 전멸은 이 예언 이후 약 4백년이 지나서 이루어짐; 앨마서 45:10~12 비교

이 큰 성의 대부분이 그러한 줄을 내가 앎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3'그러나 회개할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을 내가 아낄 것임이라. 그러나 보라, 이 큰 성에 있는 의인들이 아니었더라면, 보라, 내가 불을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여 그것을 멸하게 할 것이라. 14그러나 보라, 이 성이 모면하고 있음은 의인들의 연고니라. 그러나 보라, 너희가 너희 중에서 의인들을 쫓아낼 때가 이르나니,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때 너희의 멸망이 무르익으리라. 참으로 그 가운데 있는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이 큰 성에 화 있을지어다.ㄱ 15참으로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기드온 성에 화 있을지어다. 16참으로 또한 그 가운데 있는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니파이인들이 소유한 주변의 땅에 있는 모든 성읍에 화 있을지어다.' "

사무엘2이 감춰진 보물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다ㄴ

17" '또 보라, 이 땅 위에 있는 백성들의 연고로,' '참으로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가증함으로 인하여 저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8'그리하여 이같이 되리니,' 만군의 주, 참으로 우리의 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누구든지 보물을 땅 속에 감추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요 그것을 주께 감춤이 아닐진대, 이 땅의 큰 저주로 인하여 다시는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19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내가 그들로 그 보물을 내게 감추게 하려 함이니,' '그 보물을 내게 감추지 아니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는 의인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 보물을 내게 감추지 아니함이라. 또 그 보물을 내게 감추지 아니하는 자는 그와 또한 그 보물이 저주를 받았나니 이 땅의 저주로 인하여 아무도 그것을 도로 찾지 못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또 그들이 그들의 보물을 감출 날이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그 마음을 재물에 둔 까닭이요, 그들이 그 마음을 그들의 재물에 두고, 또 그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도망할 때 그들의 보물을 감출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감추지 아니할 것으로 인하여, 그들과 또한 그들의 보물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그 날에 그들이 침을 입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1"보라, 너희 이 큰 성의 백성들아,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참으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재물로 인하여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며, 너희가 너희 마음을 너희의 재물에 두고, 그것을 너희에게 주신 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까닭에, 너희의 재물도 저주를 받았다 하심이니라. 22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리신 복에 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의 재물을 항상 기억하되, 그에 대해 주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참으로 너희 마음은 주께 이끌리지 아니하고, 도리어 큰 교만으로 부풀어, 자랑하기에 이르며, 크게 부풀림과 시기함 다툼 악독 핍박과 살인과 온갖 죄악을 행하기에 이르는도다. 23이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는 저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고, 너희의 재물에도 임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함이니라."

ㄱ14 제이라헤믈라가 제3니파이 8:8에서 멸망함; 제3니파이 9:3 비교 ㄴ17 이 부분에 나오는 저주들은 힐라맨서 12:18~19의 저주들을 반영함; 아래 31절과 몰몬서 1:18 비교

사무엘$_2$이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니파이인을 비난하다

24"참으로 이 백성에게 화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선지자들을 쫓아 내며, 그들을 조롱하며, 그들에게 돌을 던지며, 그들을 죽이며, 그들에게 온갖 불의를 행하기를 옛적 사람들이 한 것같이 하는 이때가 이르렀음으로 인함이라. 25또 이제 너희가 이야기할 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옛적 우리 조상들 때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선지자들을 죽이지도 아니하였겠고, 그들을 돌로 치며, 쫓아 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하는도다. 26보라 너희는 저들보다 더욱 악하니라. 이는 주께서 사심같이, 만일 한 선지자가 너희 가운데 와서 너희의 죄와 불의를 증거하는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너희가 그에게 노하여 그를 쫓아 내며, 그를 멸하기 위하여 온갖 방도를 강구함이니, 참으로 그가 너희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으로 인하여 너희는 말하기를, 그는 거짓 선지자라, 또 그는 죄인이요, 악마에게 속한 자라 하리라.

27"그러나 보라, 만일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와서 말하기를, '이를 행하라, 거기 불의가 없느니라.' '저것을 행하라 너희가 벌 받지 아니하리라 하면,' 참으로 그가 말하기를, '너희 마음의 자긍을 따라 행하라, 참으로 너희 눈의 자긍을 따라 행하며, 무엇이든지 너희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라 하리니'—만일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와서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고 말하기를, 그는 선지자로다 하리라. 28참으로 너희는 그를 높이고, 너희의 소유에서 취하여 그에게 줄 것인즉, 너희가 너희의 금과 너희의 은에서 취하여 그에게 주며 값진 의복을 그에게 입히리라. 또 그가 너희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며 또 말하기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함으로 인하여, 그때 너희가 그에게서 허물을 찾지 아니하리로다.

29 오 너희 간악하며 너희 패역한 세대여,
너희 완악하며 너희 목이 뻣뻣한 백성이여,
어느 때까지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용납하실 것이라 생각하려느냐?

참으로 어느 때까지 너희가 어리석고
맹인 된 인도자들에게 이끌리고자 하느냐?
참으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빛보다
어둠을 택하려 하느냐?"

후회가 뒤늦게 오리라

30"참으로 보라, 주의 분노가 이미 너희를 대하여 불붙었나니, 보라, 그는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땅을 저주하셨느니라. 31또 보라, 그가 너희의 재물을 저주하시므로, 그것들이 잃기 쉬운 것이 되어, 너희가 그것들을 보유할 수 없는 때가 오나니, 너희의[ㄱ] 궁핍의 날에 너희가 그것들을 간직할[ㄴ] 수 없도다. 32또 너희의 궁핍의 날에 너희가 주께 부르짖을 것이나, 너희의 부르짖음이 헛되리니, 이는 너희의 황폐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고, 너희의 멸망이 확실하게 되었음이라. '그때 그 날에 너희가 울며 슬피 부르짖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때에 너희가 애통하며 말하기를, 33'오 내가 회개하여, 선지자들을 죽이며, 돌로 치며, 쫓아 내지 아니했었더라면 하리라.'[ㄷ]

[ㄱ] 31 이 예언은 몰몬서 1:18에서 실현됨; 힐라맨서 12:18~19 비교; 이더서 14:1~2 [ㄴ] 31 영어 원문에서 "간직하다"로 번역된 retain은 "되찾다"라는 의미인 regain이었을 것으로 추정 [ㄷ] 33 제3니파이 8:25에서 실현됨

"참으로 그 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오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재물을 주시던 날에 그를 기억했었더라면, 그러면 그것들이 잃기 쉬운 것이 되어 우리가 그것들을 잃게 되지는 아니하였으리니, 이는 보라, 우리의 재물이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음이로다. 34보라, 우리가 연장을 여기 놓아두면 내일은 그것이 사라져 버리니, 보라, 우리가 전투를 위해 칼을 찾은 그 날 우리의 칼이 우리에게서 가져간 바 되도다. 35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감추었거늘 그것들이 이 땅의 저주로 인하여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도다. 36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던 날에 우리가 회개했었더라면, 이는 보라, 땅이 저주를 받으매 모든 것이 잃기 쉬운 것이 되어, 우리가 그것들을 보유할 수 없음이로다. 37보라, 우리는 악귀들에게 둘러싸였나니,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멸하기를 구하는 자의 사자들에게 우리는 에워싸였도다. 보라, 우리의 죄악이 크도다. 주여, 우리에게서 주의 노여움을 돌이키실 수 없으시니이까' 하리니, 그 날에 너희가 이같이 말하게 되리로다.

38"그러나 보라, 너희의 시험의 날은 지났도다. 너희는 영원히 너무 늦기까지 너희의 구원의 날을 미루었고, 너희의 멸망은 확실하게 되었도다. 참으로 이는 너희가 너희 평생을 두고 너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였고, 또 죄악을 행하는 가운데 행복을 구하였음이니, 그러한 것은 우리의 크시고도 영원하신 머리되시는 이 안에 있는 저 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니라. 39오 너희 이 땅의 백성들아, 너희가 나의 말을 듣기를 바라노라! 또 나는 주의 노여움이 너희에게서 돌아서 떠날 것과 너희가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사무엘$_2$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표적을 예언하다[1]

14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 사무엘이 심히 많은 것을 더 예언하였으나 이를 기록할 수 없도다. 2또 보라, 저가 그들에게 이르되,

"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주노니, 곧 오 년이 지나고 나서, 보라,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자를 구속하시려 오시느니라. 3그런즉 보라, 그가 오시는 때의 표적으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이는 보라, 하늘에 큰 빛이 있어, 그가 오시기 전날 밤은 어둠이 없으므로 사람에게는 마치 낮인 것 같을 것임이라. 4그러므로 한 낮과 한 밤과 또 한 낮이 있으되, 마치 한 낮인 것 같고 밤이 없는 것 같을 것인즉,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이는 너희가 해의 뜨는 것과 그 지는 것을 알 터이므로, 그들이 두 낮과 한 밤이 있는 줄 정녕 알 것임이라. 그럼에도 밤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리니, 그것이 그가 나시기 전날 밤이 되리로다.

5"또 보라, 새 별이 하나 돋으리니, 너희가 결코 본 적이 없는 그러한 것일지라, 이것이 또한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로다. 6또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하늘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을 것이라. 7이에 이렇게 되리니 너희가 다 놀라고, 기이히 여겨, 필경은 너희가 땅에 엎드러지리로다. 8또 이렇게 되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그 같은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9"또 보라, 이같이 주께서 그의 천사로 나를 명하사, 나로 와서 이 일을 너희에게 고하게 하셨나니, 참으로 내가 이러한 일들을 너희에게 예언할 것을 그가 명하셨느니라. 참으로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 백성에게 외치기를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셨도다.

[1] 이 예언들은 제$_3$니파이 1:15~21에서 실현됨

10 "이제 내가 레이맨인으로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을 너희에게 말하였음으로 인하여, 또 그것이 너희에게 엄하였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노하여 나를 멸하기를 구하며, 나를 너희 중에서 쫓아 내었도다. 11 그래도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니라. 이는 이 목적으로 내가 이 성의 성벽 위에 올라왔음이니, 곧 너희로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듣고 알게 하며, 또한 너희로 회개의 조건을 알게 하리라. 12 또한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아버지, 태초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알게 하며,ㄱ 또 너희로 그의 오심의 표적에 대하여 알게 하여 너희로 그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13 또 너희가 그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의 공덕을 통하여 너희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무엘$_2$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표적을 예언하다ㄴ

14 "또 보라, 거듭 또 다른 표적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참으로 그의 죽으심의 표적이라. 15 이는 보라, 구원이 이르게 하시려 그가 정녕 죽으셔야만 함이니, 참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어,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주의 면전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가 죽으심이 그에게 필요하고 또 불가결한 것이 됨이라. 16 참으로 보라, 이 죽으심이 부활을 가져오며, 모든 인류를 첫째 사망—저 영적인 사망에서 구속하나니, 이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의 면전에서 끊어짐으로, 현세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 관하여 죽은 것으로 간주됨이라. 17 그러나 보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 참으로 곧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그들을 주의 면전으로 다시 데리고 오리라. 18 참으로 또한 회개의 조건을 이루게 하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는 그 자는 찍혀 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거니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찍혀 불에 던져지매, 그들에게 다시 영적인 사망이 임하나니, 참으로 둘째 사망이라, 이는 그들이 의에 관한 것에 대하여 다시 끊어짐이니라. 19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회개하라, 두렵건대 이러한 일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정죄 아래에 들고, 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까 하노라.

20 "그러나 보라, 내가 또 다른 표적, 곧 그의 죽으심의 표적에 관하여 너희에게 이른 것같이, 보라, 그가 죽음을 당하시는 그 날에 해가 어두워져서 너희에게 그 빛 발하기를 거절할 것이요, 달과 별들도 그러하리니, 곧 그가 죽음을 당하실 때로부터 사흘 동안,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어나실 때까지 이 땅 위에는 빛이 없으리라.

21 "참으로 그가 영혼을 버리실 때에 여러 시간 동안 천둥과 번개가 있을 것이며, 땅이 진동하고 떨 것이며, 이 지면에 있으며 땅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어, 너희가 지금 알기로 단단하며 곧 그 대부분이 하나의 단단한 덩어리인 바위들이 깨어질 것이라. 22 참으로 그것들이 둘로 갈라져서, 이후로는 언제까지나 온 지면에, 참으로 땅 위에나 아래에 그 이음새와 갈라진 틈과 깨진 조각들이 보이리라. 23 또 보라, 큰 태풍이 있을 것이며 많은 산들이 낮아져서 골짜기처럼 될 것이며, 지금 골짜기라 일컫는 많은 곳들이 높이가 큰 산들이 될 것이니라. 24 또 많은 대로가 깨뜨려지고, 많은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니라. 25 또 많은 무덤이 열려, 그 죽은 자들을 많이 내어놓을 것인즉, 이에 많은 성도들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리라.ㄷ

ㄱ 12 영어 원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 . . 그리스도의 오심") 의 21마디가 모사이야서 3:8에서 단어 그대로 똑같이 인용됨 ㄴ 14 제$_3$니파이 8:3~23에서 실현됨 ㄷ 25 사무엘$_2$ 예언의 이 부분은 제3니파이 23:6~13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응답으로 추가된 것으로 보임;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을 추가했으나 오히려 27절의 끝부분에 삽입되었더라면 연대적으로 더 잘 맞았을 것임

[26]"또 보라, 이같이 천사가 내게 말하였나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여러 시간 동안 천둥과 번개가 있을 것이라 하였더라. [27]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우레와 번개와 또 태풍이 계속되는 동안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며, 어둠이 사흘 동안 온 지면을 덮을 것이라 하였더라. [28]또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많은 자들이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보게 되리니, 이는 이러한 표적들과 이러한 기사들이 이 온 땅 위에 이룰 것임을 믿게 하려 함이며,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아니함의 까닭이 없게 하려 함이요— [29]또 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요, 또 누구든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의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만일 그들이 정죄 받으면 그들은 자기의 정죄를 자초함이니라.

[30] 그런즉 이제 기억하라, 기억하라,
나의 형제들아,
누구든지 멸망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멸망을 이루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죄악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에게
그것을 행하는 것이니라.
이는 보라, 너희는 자유롭고
스스로 행하는 것이 허락되었음이니,
이는 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식을 주시고
너희를 자유롭게 하셨음이니라.
[31] 그가 너희에게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셨고,
또 너희에게 생명이나 사망을 택하게 하여 주셨은즉,
너희는 선을 행하여 선한 바로 회복될 수 있으며,
또는 선한 바가 너희에게로 회복되게 할 수 있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악을 행하여
악한 바가 너희에게로 회복되게 할 수도 있느니라."

사무엘$_2$이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을 비교하다

15 "그런즉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보라,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집이 너희에게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2]참으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여자들이 젖을 먹일 날에 크게 애통할 까닭이 있으리니, 이는 너희가 도망하려 하여도 피난처가 없을 것임이요, 또 아이를 가진 이들에게 화 있을지니, 이는 저희가 무거워 도망할 수 없으므로 짓밟히고 버리운 바 되어 멸망할 것임이니라. [3]참으로 니파이 백성이라 일컫는 이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에게 보여질 이 모든 표적과 기사를 그들이 보게 될 때 그들에게 화 있도다. 이는 보라, 그들이 주께 택함을 입은 백성이었음이라. 참으로 니파이 백성을 그가 사랑하셨고 또한 그들을 그가 징계하셨으니, 참으로 그들의 죄악의 날에 그가 그들을 징계하셨음은 그가 그들을 사랑하시는 연고라.

[4]"그러나 보라, 나의 형제들아, 레이맨인들은 그가 미워하셨으니,[ㄱ] 이는 그들의 행위가 끊임없이 악하였던 연고요, 또 이는 그들 조상의 전통의 불의함으로 인함이라. 그러나 보라, 니파이인들의 전도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러한

[ㄱ] 4 "니파이 백성을 그가 사랑하셨고. . . 레이맨인들은 그가 미워하셨으니"라는 말로 가혹하게 느껴지는 그 판결은 말라기 1:2~3 (로마서 9:13)을 연상시키며 양쪽의 표현 모두 추가적인 설명으로 강한 어감을 누그러뜨림

의도로 주께서 그들의 날을 연장해 주셨느니라. [5]또 나는 그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의무의 길에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행하며, 모세의 율법을 좇아 그의 계명과 그의 율례와 그의 법도를 지켜 준행하고 있음을 너희가 보기 원하노라. [6]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의 대부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며, 또 나머지 그들의 형제들을 인도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고자 지치지 아니하는 부지런함으로 애쓰고 있는지라, 많은 자가 날마다 그들의 수에 더하여지고 있느니라.

[7]"또 보라, 너희가 목격하였으므로 너희 스스로 알고 있거니와, 그들 중 진리의 지식에 이르며, 그 조상들의 간악하고 가증한 전통에 대해 알게 되고, 거룩한 경전, 참으로 기록되어지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를 믿는 신앙과 회개에 이르게 하며, 그 신앙과 회개가 그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도록 하는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도록 인도된 자마다— [8]그런즉 이에 이른 자마다, 너희가 스스로 알고 있거니와, 신앙과 그들을 자유롭게 한 것 안에서 굳건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9]또한 너희가 알고 있거니와 그들은 그들의 전쟁 무기를 묻어 버렸으며, 어떻게든지 죄를 범하게 될까 염려하여, 전쟁 무기 들기를 두려워하나니, 참으로 너희는 그들이 범죄 하기를 두려워함을 볼 수 있느니라—이는 보라 그들은 그들의 원수들에게 밟히고 죽임 당함을 스스로 감수하고자 하며, 그들을 대적하여 자기의 칼을 들고자 아니하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신앙으로 인함이니라.ㄱ

[10]"또 이제 그들이 그 믿는 바 그 일을 믿을 때 그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대저 그들이 한 번 비췸을 받았을 때 그 굳건함으로 인하여, 보라,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날을 연장해 주시리니— [11]참으로 그들이 설혹 믿지 않음에 빠져들지라도 우리 조상들과 또한 선지자 지노스와ㄴ 그 밖의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이 다시금 진리의 지식으로 회복될 것에 관하여 말한 때가 이르기까지 주께서는 그들의 날을 연장해 주시리라ㄷ —

[12]"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지막 때에 주의 약속이 우리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이르렀은즉, 그들이 받을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지면에서 이리저리 쫓기고, 수색되며, 치심을 입고 널리 흩어지며, 피난처가 없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라.ㄹ [13]이것은 그들이 또다시 참된 지식, 곧 그들의 구속주시요ㅁ 그들의 크고 참되신 목자에 대한 지식에 이르러, 그의 양 가운데 헤아림을 받으리라 하신 예언에 따른 것이니라.

[14]"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보다 그들이 더 나으리라. [15]이는 보라, 너희에게 보이신 능한 일들을 그들에게, 참으로 그 조상들의 전통으로 인하여 믿지 않음에 빠져든 그들에게 보였더라면, 너희 스스로 알 수 있거니와 그들이 결코 다시 믿지 않음에 빠져들지 아니하였을 것임이라. [16]'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을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고, 나의 지혜의 날에 그들로 다시 내게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시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17]" '또 이제 보라,' 니파이인 백성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회개하여 나의 뜻을 준행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그들을 온전히 멸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많은 능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ㄱ9 무기를 묻고 저항없이 살해당한 행위는 약 75년 전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들이 개종한 이야기에서 나온 일부였음; 앨마서 24:5~27 참조; 여기서 사무엘$_2$은 더 최근에 그와 비슷한 행위들을 한 레이맨인 개종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추정); 힐라맨서 5:51 참조 ㄴ11 니파이전서 19:16; 야곱서 5 ㄷ11 이 주제는 몰몬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으나 여기서 사무엘$_2$이 정확히 어떤 예언들을 언급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ㄹ12 니파이후서 6:11 ㅁ13 니파이후서 6:11; 10:2

인함이라 하시느니라.' '또한 주께서 사심같이 정녕 이 일들이 있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사무엘$_2$이 무사히 도망치고 몇몇 니파이인들이 개종되다

16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 사무엘이 성벽 위에서 한 말을 들은 자가 많더라. 이에 그의 말을 믿은 자들이 다 나아가서 니파이를 찾았고, 저들이 나아와 그를 발견하매 그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주 앞에 침례 받기를 원하였더라. [2]그러나 사무엘의 말을 믿지 아니한 자들은 다 그에게 노하였더라. 이에 성벽 위에 있는 그에게 돌을 던졌고, 또한 많은 자들이 성벽 위에 서 있는 그에게 화살을 쏘았더라. 그러나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는지라, 그들이 그들의 돌이나 그들의 화살로 그를 맞히지 못하더라.

[3]이제 그들이 그를 맞히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말을 믿는 자가 더욱 많더니, 이에 그들이 침례를 받기 위하여 니파이에게로 떠나갔더라. [4]이는 보라, 니파이가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며, 예언하며, 가르침을 베풀고, 회개를 외치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백성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있었음이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반드시 속히 오실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5]또 그가 반드시 속히 이를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고하였으니, 이는 그 일들이 이를 때에, 그 일들이 그들에게 미리 알린 바 되었었음을, 그들로 알고 기억하게 하여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무엘의 말을 믿은 자들은 모두 침례 받기 위하여 그에게로 나아갔으니, 그들은 와서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고백하였더라.

[6]그러나 그들의 대부분은 사무엘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돌이나 그들의 화살로는 그를 맞힐 수 없음을 보고, 그들의 대장들에게 외쳐 이르되, 이 놈을 잡아 결박하라. 이는 보라, 그가 귀신 들렸음이니, 그의 안에 있는 귀신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의 돌이나 우리의 화살로 그를 맞힐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그를 잡아 결박하여 그를 없이하라 하였더라.

[7]이에 그들이 나아가 그 손을 그에게 대려 하매, 보라, 그가 성벽에서 몸을 아래로 던져 그들 땅을 벗어나 도망하여, 바로 자기 나라로 가서 자기 동족 가운데서 전파하며 예언하기 시작하였더라. [8]이에 보라, 니파이인들이 다시는 그에 대하여 더 듣지 못하였으니, 백성들의 제반사가 이러하였더라. [9]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팔십육년이 끝났느니라.[ㄱ]

백성이 표적과 기사를 부정하다

[10]또 이같이 판사 치세 제팔십칠년도 끝났으니,[ㄴ] 백성들의 대부분은 여전히 교만과 간악함 중에 있었으되, 소수는 하나님 앞에 더욱 신중히 행하였더라. [11]또 판사 치세 제팔십팔년에도 형편이 이러하였더라.[ㄷ] [12]그리고 판사 치세 제팔십구년에도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더욱 완악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는 일을 점점 더 많이 행하기 시작한 것 외에는 백성들의 제반사가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더라.[ㄹ]

[13]그러나 판사 치세 제구십년에 이렇게 되었나니,[ㅁ] 큰 표적과 기사가 백성에게 주어지고 선지자들의 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더라.[ㅂ] [14]또 천사들이 사람들, 지혜로운

[ㄱ]9 –6년; 힐라맨서 13:1 참조. 힐라맨서 14:2에서 사무엘$_2$은 예수님의 탄생이 5년후에 이루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소 어긋나보이는 사무엘$_2$의 예측으로 어려움이 생겼다. 제3니파이 1:4~9 참조 [ㄴ]10 –5년 [ㄷ]11 –4년 [ㄹ]12 –3년 [ㅁ]13 –2년 [ㅂ]13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자들에게 나타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선포하매, 이 해에 경전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니라.ㄱ 15그럼에도 니파이인이나 레이맨인을 가리지 않고 신앙이 지극한 자들 외에는 모든 백성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시작하며, 그들 스스로의 힘과 그들 스스로의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16"그처럼 많은 것 가운데 몇 가지를 그들이 옳게 알아맞혔을지 모르나, 보라, 우리가 알거니와 그들이 말한 이 크고 기이한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느니라" 하였더라.

17또 그들이 그들끼리 의논하며 쟁론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18"그리스도라 하는 존재가 오리라 함은 이치에 닿지 아니하나니, 만일 그러하고, 그 말한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아버지일진대,ㄴ 어찌하여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자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겠느냐? 19참으로 어찌하여 그가 예루살렘 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도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겠느냐?ㄷ 20그러나 보라, 우리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먼 원방 땅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루어질 어떤 크고 기이한 일을 우리로 믿게 하려고 조상들에게서 전해져 내려온 간악한 전통임을 아노니,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를 무지한 가운데 가두어 둘 수 있음은, 그 일의 참됨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없음이니라. 21또 그들은 저 악한 자의 간교함과 불가사의한 술수로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큰 불가사의를 이룸으로, 계속하여 우리로 그들의 말을 좇는 종이 되게 하며 또한 그들을 좇는 종이 되게 하리니, 이는 우리가 그들에게 의지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고 있음이라. 또 우리가 스스로를 그들에게 내맡길진대, 그들이 우리의 평생에 이같이 우리를 무지함 속에 가두어 두리라" 하였더라.

22또 이외에도 백성들이 어리석고 헛된 것을 그 마음에 많이 상상해 내었으며, 또 그들이 많이 평온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사탄이 끊임없이 죄악을 행하도록 그들을 충동하였음이라. 참으로 그가 두루 다니며 온 지면에 소문과 분쟁을 퍼뜨렸으니, 이는 그가 선한 일과 장차 이를 일에 대하여 백성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23또 주의 백성 가운데 이루어진 표적과 기사들과 또 그들이 행한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온 지면에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크게 사로잡았더라. 24이에 이같이 니파이 백성에 대한 판사 치세 제구십년이 끝났느니라.ㄹ 25이에 이같이 힐라맨과 그의 아들들의 기록에 의한 힐라맨서가 끝났느니라.

ㄱ14 앨마서 13:26 ㄴ18 힐라맨서 14:12 (모사이야서 3:8 비교) ㄷ19 비록 니파이$_1$와 앨마$_2$는 예수께서 부활한 후에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니파이전서 12:1~12; 니파이후서 26:1~9; 앨마서 16:20 참조) 사무엘$_2$은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그 기록조차 없었기에 사람들이 이러한 의문을 가짐; 제3니파이 11:8에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놀란 것으로 보이는 점도 비슷한 맥락임 ㄹ24 –2년; 위 13절 참조

제3니파이
니파이서

니파이는 힐라맨의 아들인 니파이의 아들이라.

또 힐라맨은 앨마의 아들인 힐라맨의 아들이요, 앨마는 유다 왕 시드기야의 치세 첫해에 예루살렘에서 나온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의 후예인 앨마의 아들이었더라.

니파이$_2$가 그의 아들 니파이$_3$에게 기록을 전달하다

1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제구십일년이 지나갔고,[ㄱ] 때는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육백 년이 되는 때이었으며, 레이코니우스가 그 땅의 대판사요 통치자로 있던 해였더라. [2]그리고 힐라맨의 아들 니파이가 제이라헤믈라 땅을 떠나면서, 그의 장자인 그의 아들 니파이에게 놋쇠판과 기록되어 온 모든 기록과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나던 때로부터 거룩하게 보존되어 온 모든 것을 맡겼었더라. [3]그러고 나서 그가 그 땅을 떠났으되,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자 없으며, 그의 아들 니파이가 그 대신에 기록 곧 이 백성에 대한 기록을 계속하였느니라.

사무엘$_2$의 예언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듯이 보이다

[4]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구십이년 초에, 보라, 선지자들의 예언이 더욱 온전히 성취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백성 가운데 더 큰 표적과 더 큰 기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이라. [5]그러나 레이맨인 사무엘이 했던 말이 이루어질 때가 지났다고 말하기 시작한 이들이 더러 있더라.[ㄴ] [6]이에 그들이 그 형제들을 향하여 기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보라, 그때는 지났고 사무엘의 말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이 일에 관한 너희의 기쁨과 너희의 신앙은 헛되었느니라" 하더라.

[7]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온 땅에 큰 소동을 일으키는지라, 믿는 백성들은 혹시라도 그 말하여졌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까 하여 매우 근심하기 시작하더라. [8]그러나 보라, 그들은 그 낮과 그 밤과 마치 밤이 없어 하루 같아야 할 그 낮을 굳건하게 살폈으니,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신앙이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자 하였더라.

[9]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한 날을 구별하여, 선지자 사무엘이 준 표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진대 그 전통을 믿는 모든 자를 다 죽이기로 하였더라.

ㄱ 1 –1년 ㄴ 5 힐라맨서 14:2 참조; 힐라맨서 16:9의 각주를 참조

예수께서 태어나심의 표적이 이루어지다[ㄱ]

10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의 아들 니파이가 자기 백성의 이 간악함을 보고 그 마음이 심히 슬펐던지라.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나가서 땅에 엎드려, 자기 백성, 곧 그 조상들의 전통을 믿음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멸망당하게 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라.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날 종일토록 주께 간절히 부르짖으매,

보라,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3 "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밤에 표적이 주어질 것이요, 내일은 내가 세상에 와서 내가 나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으로 말하게 한 모든 것을 이룰 것임을 세상에 보일 것임이니라. 14 보라, 내가 나의 백성에게 옴은,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알게 한 모든 것을 이루며,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을 아울러 행하기 위함이니—아버지의 뜻이라 함은 나로 인함이요, 아들의 뜻이라 함은 나의 육신으로 인함이라. 이에 보라 때가 가까웠은즉, 이 밤에 표적이 주어지리라" 하시니라.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에게 임한 말씀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으니, 이는 보라 해가 져도 어둡지 아니함이라, 이에 백성들은 밤이 되어도 어둡지 아니하므로 놀라기 시작하더라. 16 또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던 자들이 많이 땅에 쓰러져 마치 죽은 자같이 되었으니, 이는 주어졌던 표적이 이미 이르렀으므로 선지자들의 말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세운 큰 멸망의 계획이 좌절되었음을 그들이 알았음이더라. 17 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속히 나타나시리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였나니, 참으로 요컨대 북쪽 땅에나 남쪽 땅에나 서에서부터 동에 이르기까지의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심히 크게 놀라 땅에 엎드러졌더라. 18 이는 선지자들이 이러한 일에 대하여 여러 해 동안 증거한 것과 주어졌던 표적이 이미 이른 것을 그들이 알았음이라. 이에 그들은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더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날 밤이 새도록 어둠이 없었고, 오히려 마치 한낮인 것 같이 밝았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순리대로 다시 아침에 해가 돋으매, 주어졌던 표적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날이 주가 나시는 날인 줄 알았더라. 20 또 참으로 만사가 선지자들의 말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더라. 21 또한 이렇게 되었나니 말씀대로 새 별이 나타났더라.

표적에 대한 반응

2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때로부터 사탄은 백성 가운데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로 그 본 표적과 기사를 믿지 않게 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거짓말과 속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대부분이 믿고 주께로 돌이켰더라.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와 또한 다른 여러 사람이 백성 가운데 나아가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베풀매, 이에 큰 죄 사함이 있었느니라. 이리하여 백성들은 다시 그 땅에서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였더라.

24 그리고 다툼이 있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몇몇이 가르침을 베풀기 시작하여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을[ㄴ]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경전으로 증명하려 한 일 뿐이었더라. 이제 이 일에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경전을 깨닫지 못하였음이라. 25 그러나 이렇게 되

[ㄱ] 10 힐라맨서 14:1~8에 나오는 사무엘$_2$의 예언을 참조 [ㄴ] 24 니파이후서 25:24, 27, 30; 앨마서 25:15; 30:3

었나니 그들이 곧 돌이키게 되어 그들이 범한 잘못을 깨달았으니, 이는 율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과 또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알려졌음이라. 참으로 율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며, 참으로 율법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일점일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나니,ㄱ 그리하여 이 같은 해에 그들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 그들의 과오를 고백하였더라. 26이에 이같이 모든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표적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중에 제구십이년이ㄴ 지나 가니라.

개다이앤톤 전쟁

제3니파이 1:27~5:6

점점 사악해지다

27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구십삼년도ㄷ 평화로운 가운데 지나갔으되, 다만 산에 거하며 그 땅에 출몰하던 개다이앤톤 도적들로 인한 문제가 있었나니, 이는 그들의 요새와 그들의 은거지가 심히 견고하여 백성들이 그들을 토벌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많은 살인을 범하며 백성 가운데 많은 살육을 행하였더라. 28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구십사년에ㄹ 그들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로 도망하는 니파이인 이반자들이 많이 있었음이라. 이 일은 그 땅에 남은 니파이인들에게 많은 슬픔을 초래하였더라.

29또 레이맨인들 중에서도 많은 슬픔을 초래하는 일이 있었으니, 이는 보라, 그들에게 있는 많은 자녀들이 성장하며 점차 나이 들어 강하여져서 스스로 행할 줄 알게 되어서는, 몇몇 조램인들에 의해,ㅁ 그들의 거짓말과 그들의 아첨하는 말로 인해, 이끌려 가서 저 개다이앤톤 도적들에게 가담하였음이라. 30또 이같이 레이맨인들도 고난을 받으매, 자라나는 세대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과 의로움이 감소하기 시작하더라.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제구십오년도 지나갔고, 백성들은 들은 바 표적과 기사를 잊기 시작하며,ㅂ 하늘로서 오는 표적과 기사에 점점 더 놀라지 않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그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 생각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을 믿지 않기 시작하여— 2그 마음에 어떤 헛된 것을 상상하기를, 그것은 사람들에 의하여 또 악마의 권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며 미혹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같이 사탄이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여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이끌어 내어 그리스도의 교리가 어리석고 헛된 것이라고 믿게 하였더라.

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은 간악함과 가증함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하여, 표적이나 기사가 더 이상 주어질 것을 믿지 아니하였고, 사탄은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며,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큰 간악함을 행하게 하였더라. 4이같이 제구십육년이 지나갔고,ㅅ 제구십칠년도ㅇ 그러하였으며, 제구십팔년도ㅈ 그러하였으며, 제구십구년도ㅉ 그러하였더라.

ㄱ25 이 표현들은 앨마서 34:13 반영함; 제3니파이 12:18; 마태복음 5:18 비교 ㄴ26 +1 년; 위4절 참조 ㄷ27 +2년 ㄹ28 +3년 ㅁ29 앨마서 31~35, 43 참조 ㅂ1 +4년 ㅅ4 +5년 ㅇ4 +6년 ㅈ4 +7년 ㅉ4 +8년

5이에 니파이 백성의 왕이었던 모사이야의 시대 이래로 백 년이 지나갔더라. 6또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래로는 육백구 년이 지나갔더라. 7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한 바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표적이 주어진 때로부터는 구 년이 지나갔느니라. 8이제 니파이인들은 표적이 주어진 이 시기, 곧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그들의 때를 세기 시작하였나니 그러므로 구 년이 지나갔느니라.ㄱ 9그리고 기록을 맡은 니파이의 부친인 니파이는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온 땅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더라.ㄴ 10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은 많은 가르침과 예언함이 그들 중에 보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악함 중에 머물러 있었고, 제십년도 이같이 지나갔으며,ㄷ 제십일년도 죄악 가운데 지나가니라.ㄹ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이 개다이앤톤 도적들과 연합하다

11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삼년에ㅁ 온 땅에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더라. 이는 개다이앤톤 도적들이 심히 많아져서, 백성을 심히 많이 죽이고, 심히 많은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온 땅에 심히 많은 죽음과 큰 살육을 만연시키므로, 니파이인이나 레이맨인이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그들을 대적하여 무기를 들어야 할 필요가 생겼음이라. 12이리하여 주께로 돌이킨 모든 레이맨인들이 다 그 형제인 니파이인들과 연합하고, 또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또한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교회의 특권과 그들의 예배의 특권과 그들의 자유와 해방을 지키기 위하여, 어찌할 수 없이 저 개다이앤톤 도적들을 대적하여 무기를 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더라.

13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제십삼년이 지나기 전에 니파이인들은 심히 치열하였던 이 전쟁으로 인하여 온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였더라. 14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과 연합한 그 레이맨인들은 니파이인들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으며, 15또 그들의 저주가 그들에게서 거두어져ㅂ 그들의 피부가 니파이인들처럼 희게 되었더라. 16그리고 그들의 청년들과 그들의 딸들은 심히 아름다워졌으며, 그들은 니파이인 가운데 헤아림을 받고, 니파이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같이 제십삼년이 끝났느니라.ㅅ

17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사년 초에,ㅇ 도적들과 니파이 백성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고 심히 치열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파이 백성들이 도적들보다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였던지라, 그들을 자신들의 땅에서 산과 그들의 은신처로 몰아 내었더라. 18또 이같이 제십사년이 끝났느니라. 그리고 제십오년에ㅈ 그들이 니파이 백성을 치러 나아왔는데, 니파이 백성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많은 분쟁과 불화로 인하여, 개다이앤톤 도적들이 그들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점하니라. 19이같이 제십오년이 끝나고, 이같이 백성들은 많은 고난의 상태에 처하였으며, 멸망의 칼이 그들 위에 걸린지라, 바야흐로 그들이 이로써 치심을 입어 멸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일은 곧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더라.

ㄱ8 +9년 ㄴ9 니파이$_2$의 떠남은 제3니파이 1:2~3에 나옴 ㄷ10 +10년 ㄹ10 +11년 ㅁ11 +13년 ㅂ15 니파이후서 5:21~23; 앨마서 3:6~10 ㅅ16 +13년; 위 11절 참조 ㅇ17 +14년 ㅈ18 +15년

개다이앤톤 지도자 긷디안하이가 레이코니우스[1]에게 편지를 보내다

3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제십육년에⌝ 그 땅의 통치자 레이코니우스가, 도적단의 지도자요 수령인 자로부터 서한을 받았는데 그 쓴 말이 이러하였으니, 곧 이르기를,

[2]지극히 고귀하며 이 땅의 으뜸 되는 통치자 레이코니우스여, 보라, 내가 이 서한을 그대에게 쓰면서, 그대들이 그대들의 권리와 자유라 생각하는 바를 지킴에 있어 그대의 굳건함과 그대의 백성의 굳건함으로 인하여 심히 큰 찬양을 그대에게 돌리노니, 참으로 그대들은, 마치 어떤 신의 손으로 지지를 받고 있기나 한 것처럼, 그대들의 자유와 그대들의 재산과 그대들의 나라 곧 그대들이 그렇게 일컫는 바를 잘 지키는도다. [3]그러나 지극히 고귀한 레이코니우스여, 그대가 내 명령을 받드는 그 많은 용감한 병사들을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그처럼 어리석고 허황되다니 나의 보기에 가련한 일이로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간 그들의 무장을 갖추고—"내려가 니파이인들을 엄습하여 저들을 멸하라" 하는 말을 큰 열망을 지니고 기다리고 있도다.

[4]또 나는 그들의 불굴의 투지를 알고 있고, 전쟁터에서 그들을 시험하였으며, 그대들이 그들에게 행한 많은 부당함으로 인하여 그대들을 향하여 품고 있는 바 그들의 영원한 증오를 알고 있는지라,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그대들을 치러 내려간다면 그대들을 온전히 멸하리로다. [5]그러므로 내가 이 서한을 쓰고, 내 손으로 봉하며, 그대들의 복리를 염려함은, 그대들이 스스로 옳다고 믿는 바를 지키는 굳건함과 싸움터에서 보인 그대들의 고귀한 정신으로 인함이라.

[6]그러므로 내가 그대에게 쓰노니, 나의 백성이 칼로 그대들을 엄습하여 멸망이 그대들에게 임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대들이 나의 이 백성들에게 그대들의 성읍과 그대들의 땅과 그대들의 소유를 바치기를 원하노라. [7]곧 달리 말하자면 그대들 스스로 우리에게 항복하고,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의 은밀한 일을 익히고, 우리의 형제가 되어 우리처럼 되라—결코 우리의 노예가 아니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모든 재산의 동업자가 되라. [8]또 보라, 내가 그대에게 맹세코 단언하거니와, 만일 그대들이 이렇게 하면 그대들이 멸망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그대들이 이렇게 아니하면, 내가 그대에게 맹세코 단언하거니와, 내달에는 내가 명하여 나의 군대로 하여금 그대들을 치러 내려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손을 억제하지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대들을 도륙할 것이요, 또한 그대들이 멸절하기까지 그 칼로 그대들 위에 떨어지게 하리로다.

[9]또한 보라, 나는 긷디안하이요, 이 개다이앤톤 비밀 단체의 통치자라. 이 단체와 그 행하는 바는 내가 알기로 선한 것이요, 이는 오래된 것으로써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온 것이니라. [10]그리고 레이코니우스여, 내가 이 서한을 그대에게 쓰면서 또 바라노니 그대들은 피 흘림이 없이 그대들의 땅과 그대들의 소유를 넘겨주어, 나의 이 백성이 그들의 권리와 정권을 회복하게 하라. 그들은 그대들이 간악하게도 그들의 다스릴 권리를 그들에게 주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대들에게서 이탈해 나온 자니, 그대들이 이렇게 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그들의 부당함을 갚아주리로다. 나는 긷디안하이니라.

⌝1 +16년

레이코니우스[1]가 그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를 시키다

11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코니우스가 이 서한을 받고 심히 놀랐으니, 이는 니파이인들의 땅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긷디안하이의 대담함과 또한 백성들을 위협하며 아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 자들의 부당함을 갚겠다 하는 대담함으로 인함이니, 그들은 오직 저 간악하고 가증한 도적들에게로 이탈해 감으로써 스스로에게 부당한 일을 행한 것이었더라. 12 이제 보라, 이 레이코니우스 통치자는 의인이었고, 일개 도적의 요구와 위협에 놀랄 자가 아니었으므로, 도적들의 수령인 긷디안하이의 서한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들이 그들을 치러 올 때를 대비하여 주께 부르짖게 하였더라.

13 참으로 그는 모든 백성 가운데 포고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 및 그들의 땅을 제외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한 곳으로 함께 모으게 하였더라. 14 또 그들 주위로 방어시설을 구축하며 그 견고함이 심히 커지도록 하였더라. 또 그는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의 군대, 곧 니파이인 가운데 헤아림을 받는 모든 자들의 군대를 수비대로 주위에 배치하여 그들을 살피게 하고, 주야로 그들을 도적들로부터 지키게 하였더라. 15 참으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사심같이,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께 부르짖지 아니하는 한, 너희가 결코 저 개다이앤톤 도적들의 손에서 건져냄을 입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16 이에 레이코니우스의 말과 예언이 심히 크고 놀라워 두려움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된지라, 그들이 레이코니우스의 말대로 행하고자 그 힘을 다하여 노력하였더라.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코니우스는 니파이인들의 모든 군대에 총대장들을 임명하여, 도적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그들을 치러 내려올 때 그들을 지휘하게 하였더라. 18 이제 모든 총대장들 중에서 으뜸이요 니파이인들의 전 군대의 총사령관이 임명되었으니, 그의 이름은 기드긷도나이더라. 19 이제 모든 니파이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간악하였던 때를 제외하고는) 계시와 또한 예언의 영을 지닌 어떠한 자를 그들의 총대장들로 임명하는 것이 관습이었나니, 그러므로 이 기드긷도나이는 대판사가 또한 그러하였던 것같이 그들 중의 한 큰 선지자였더라.

20 이제 백성들이 기드긷도나이에게 말하기를, "주께 기도하고, 우리가 산과 광야로 올라가서 도적들을 급습하여 그들의 땅에서 그들을 멸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21 그러나 기드긷도나이가 저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금하시느니라. 이는 만일 우리가 그들을 치러 올라 갈진대 주께서 우리를 그들의 손에 붙이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땅 한가운데서 스스로 예비하며, 우리의 모든 군대를 함께 모은 다음, 그들을 치러 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사심같이,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주는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니라.

니파이인들이 함께 모이다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칠년 말미에,┐ 레이코니우스의 포고가 그 땅 온 지면에 두루 나아가매, 그들이 그들의 말과 그들의 병거와 그들의 육축과 그들의 모든 양 떼와 그들의 소 떼와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소유를 취하고, 수천 명씩 수만 명씩 행군해 나아가 이윽고 그들의 적에게 대항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기로 정해진 장소로 나아갔더라.

┐22 +17년

23그리고 정해진 땅은 제이라헤믈라 땅 및 제이라헤믈라 땅과 풍요 땅 사이에 있는 땅으로써, 곧 풍요 땅과 황무 땅 사이의 경계선까지더라. 24이에 니파이인이라 일컫는 자로서 그 땅에 함께 모인 백성이 심히 많았더라. 이제 레이코니우스는 북방 땅에 임한 큰 저주로 인하여 이들을 남방 땅에 함께 모이게 하였더라.ㄱ

25이에 그들이 그들의 적을 대항하여 스스로 방비를 강화하고, 한 땅에서 한 무리가 되어 거하였고, 레이코니우스가 한 말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으며,ㄴ 그들의 적이 그들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내려올 때, 그들을 건져 주시도록 주 그들의 하나님께 그들의 기도를 드렸더라. 26또 그들은 그들의 적들로 인하여 심히 슬퍼하였더라. 이에 기드깃도나이는 그들로 하여금 각종 전쟁 무기를 만들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가 지시하는 방식을 좇아 갑주와,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갖추게 하여 그들을 강하게 하였더라.

도적들과 하던 전쟁이 재개되다

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팔년 말미에ㄷ 저 도적들의 군대가 전쟁을 예비하고 작은 산들로부터 또 산들과 광야와 그들의 요새와 그들의 은신처에서 내려오며 진격해 나오기 시작하여 남쪽 땅과 북쪽 땅에 있는 땅들을 점령하기 시작하였고, 니파이인들이 버린 모든 땅과 황폐한 채 버린 바 된 성읍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니라.

2그러나 보라, 니파이인들이 버린 그 땅에는 들짐승이나 사냥할 만한 것이 없었으니, 광야를 제외하고는 도적들이 사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3이에 도적들은 양식이 결핍하여, 광야에서가 아니면 생존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니파이인들이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버려두고, 그들의 양 떼와 그들의 소 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모으고, 한 무리가 되어 있었음이라. 4그러므로 도적들에게는, 나아가 니파이인들을 대적하여 싸움을 벌이지 아니하고는, 약탈하여 양식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니파이인들은 한 무리가 되어 있으면서 수효가 심히 크고, 또 스스로를 위해 식량과 말과 소와 각종 양 떼를 저축한 것이 칠 년 동안 지낼 만하였으매, 이 기간에 그들이 도적들을 지면에서 멸하기를 희망하였으니, 이같이 제십팔년이 지나가니라.

5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십구년에ㄹ 깃디안하이는 니파이인들을 치러 올라갈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나니, 이는 약탈하고 빼앗고 살인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도가 없었음이라. 6또 그들은 니파이인들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도륙할까 두려워하여, 곡식을 재배할 수 있을 만큼 지면에 감히 퍼지지도 못하였나니, 이러므로 깃디안하이는 자기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 이 해에 니파이인들을 치러 올라가게 하였더라.

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싸우러 올라왔고, 때는 유월이었으며, 보라, 그들이 싸우러 올라온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었나니, 그들은 도적들의 방식을 좇아 몸에 두르되, 그 허리에는 양가죽을 둘렀으며, 몸은 피로 물들였으며, 그 머리는 밀었고, 그 위에 투구를 썼는지라, 그들의 갑주로 인하여, 또 그들이 피로 물들여 있음으로 인하여 깃디안하이의 군대의 모양이 크고 두려웠더라. 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의 군대가 깃디안하이의 군대의 모양을 보고, 다 땅에 엎드려, 그들을 살려 주시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실 것을 주 그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깃디안하이의 군대가 이것을 보고 기뻐서 함성을 외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저들이 생각하기를 니파이인들이 저들의 군대의 무서움으로 인하여

ㄱ24 앨마서 22:30~31 아니면 힐라맨서 13:17~23, 30~36 추정 ㄴ25 위 15~16절 참조 ㄷ1 +18년 ㄹ5 +19년

두려움으로 엎드러졌다 하였음이라. 10그러나 이 일에 저들이 실망하였으니, 이는 니파이인들은 저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에게 보호를 간구하였던 것임이라. 그러므로 긷디안하이의 군대가 그들에게 달려들었을 때, 그들은 저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나니, 참으로 그들은 주의 힘을 입고서 저들을 맞이하였더라.

11이에 이 유월에 싸움이 시작되었고, 그 싸움은 실로 크고 두려웠나니, 참으로 그 살육이 실로 크고 두려워,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리하이의 온 백성 가운데 그처럼 큰 살육이 결코 있지 아니하였더라. 12또 긷디안하이가 행한 위협과 맹세에도 불구하고, 보라, 니파이인들이 저들을 쳐서 패하게 하매, 저들이 니파이인들 앞에서 후퇴하였는지라.

1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기드긷도나이가 자기의 군대에게 명하여 멀리 광야의 변경까지 저들을 추격하게 하고, 도중에 저들의 수중에 드는 자를 하나도 살려 두지 말게 하매, 이에 그들이 광야의 변경까지 저들을 추격하며 저들을 도륙하였으니, 곧 기드긷도나이의 명령을 다 이루기까지 그리하였더라. 14또 이렇게 되었나니 담대히 서서 싸우던 긷디안하이는, 추격을 받으며 도망하다가 많이 싸웠음으로 인하여 지쳐 붙잡혀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에 도적 긷디안하이의 마지막이 이러하였더라.

니파이인들이 소모전을 일으켜 도적을 이기다

1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의 군대는 그들의 안전한 장소로 되돌아왔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제십구년이 지나갔고,ㄱ 도적들은 싸우러 다시 오지 아니하였으며, 제이십년에도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ㄴ 16그리고 제이십일년에ㄷ 저들이 싸우러 올라오지는 아니하였으나, 니파이 백성을 사면으로 포위하고자 사방으로 올라왔으니, 이는 저들 생각에 저들이 만일 니파이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부터 차단하고 그들을 사방으로 에워싸면, 또 만일 그들을 그들의 모든 외부의 이점으로부터 차단한다면 저들의 원대로 그들을 항복시킬 수 있으리라 하였음이라. 17이제 저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다른 지도자를 임명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젬나라이하더라. 그러므로 이 포위를 행하게 한 것은 바로 젬나라이하이었더라.

18그러나 보라, 이것은 니파이인들에게 유리한 것이었나니, 이는 니파이인들이 그 비축해 둔 식량이 많았던지라, 도적들로서는 니파이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만큼 오래 포위하는 일이 불가능하였음이라. 19또 도적들 중에는 식량이 부족하였음이니, 보라, 그들은 광야에서 얻은 고기, 곧 그들이 연명할 고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20또 이렇게 되었나니 광야에서 사냥할 들짐승이 희소하여지매 도적들은 바야흐로 주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더라. 21또 니파이인들은 밤낮으로 끊임없이 진군해 나가서, 그들의 적을 엄습하여 수천씩 수만씩 베더라.

22이리하여 젬나라이하의 백성들은 밤낮으로 저들에게 임하는 큰 파멸로 인하여 저들의 계획을 버리고 물러나기를 원하게 된지라. 2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젬나라이하가 자기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포위를 풀고 물러나, 북방 땅의 극한 지역으로 진군하게 하였더라.

24이에 이제 기드긷도나이는 저들의 계획을 간파하였고, 또 양식의 결핍과 저들 가운데 행하여진 큰 살육으로 말미암은 저들의 약함을 알고 있었던지라, 그러므로 밤중에 그의 군대를 내보내어 저들의 퇴각로를 차단하고, 저들의 퇴각로에 그의 군대

ㄱ15 +19년; 위 5절 참조 ㄴ15 +20년 ㄷ16 +21년

를 배치하였더라. 25또 이를 그들이 밤중에 행하여 도적들을 앞질러 행군한지라, 다음 날 도적들이 저들의 행군을 시작하였을 때, 저들은 저들의 앞과 저들의 뒤 양쪽에서 니파이인들의 군대에게 만난 바 되었더라. 26또한 남쪽에 있던 도적들도 저들의 퇴각 장소에서 차단되었더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기드깃도나이의 명령으로 행하여졌더라.

27이에 니파이인들에게 항복하여 포로된 자들이 여러 수천이었고, 그 나머지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28또 그들의 지도자 젬나라이하는 붙잡혀 나무에 달리웠으니, 곧 그가 죽기까지 그 꼭대기에 달리웠더라. 이에 그들이 그를 죽기까지 매달고 나서 나무를 찍어 땅에 쓰러뜨리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29"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의로움과 마음의 거룩함으로 보전하사, 그들로 하여금 권세와 비밀 결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도륙하기를 구하는 모든 자를 땅에 찍어 쓰러뜨리게 하시기를, 이 자가 땅에 찍혀 쓰러뜨림 당한 것 같게 하실 지로다" 하니라. 30또 그들이 기뻐하며 다시 한 목소리로 외쳐 이르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보호를 구하는 동안에는 그들을 의로움 가운데 보호하시옵소서" 하니라.

니파이인들이 감사를 드리며 선지자들의 말을 믿다

31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노래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 곧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의 원수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32참으로 그들이 외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호산나ㄱ " 하고, 또 외치기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 지로다" 하였더라. 33또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신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벅차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또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심을 입은 것은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겸손함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았더라.

5 그리고 이제 보라, 니파이인들의 모든 백성 중에는 말씀을 전한 거룩한 선지자들의 말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산 영혼이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그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저희가 알았음이라. 2또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대로 주어진 많은 표적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필연 틀림없다는 것을 알았고, 또 이미 된 일들로 인하여 모든 일이 말한 바 된 대로 반드시 될 것임을 알았더라. 3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모든 죄와 그들의 가증함과 그들의 음행을 다 버리고 밤낮으로 부지런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더라.

ㄱ32 히브리어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 말은 점차 찬양의 말로 표현되었음

도적들의 활동이 종식되다

4 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도적들을 모두 포로로 잡은지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들이 하나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들의 포로들을 옥에 던져 넣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였나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살인하지 않기로 성약을 맺으려 하는 자들은 다 놓여 자유롭게 되었더라. 5 그러나 성약을 맺지 아니하며 여전히 그 마음에 저 은밀한 살인을 계속하여 품는 자들은 모두, 참으로 그 형제들에게 대하여 위협을 내뿜는 것으로 드러나는 자들은 모두 정죄받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았더라. 6 이에 이같이 그들이 저 간악하고, 은밀하며, 가증한 결사들을 다 종식시켰으니, 그 속에 그처럼 많은 간악함이 있었고, 그토록 많은 살인이 저질러졌더라.

편집자 몰몬$_2$의 언급[ㄱ]

7 그리고 이같이 제이십이년이 지나갔고, 제이십삼년도,[ㄴ] 또 제이십사년도,[ㄷ] 또 제이십오년도[ㄹ] 지나갔으니, 이같이 이십오[ㅁ] 년이 지나갔느니라. 8 또 어떤 이들의 눈에는 크고 기이할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다 기록할 수 없나니, 참으로 이 책에는[ㅂ] 이십오 년 동안 그처럼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을 그 백분의 일도 담을 수 없도다. 9 그러나 보라, 이 백성의 모든 행사를 담고 있는 기록들이 있으며, 더 간략하기는 하되 참된 기사가 니파이에 의해 주어졌느니라.[ㅅ] 10 그러므로 나는 니파이의 판이라 불리우는 판에 새겨져 있는 니파이의 기록을 따라 이러한 것에 대한 나의 기록을 만들었느니라. 11 또 보라, 나는 내가 손수 만든 판에 기록을 만드노라.

12 또 보라, 나는 몰몬이라 하는 자니, 이는 몰몬 땅의 이름을 따른 것이라. 그 땅은 앨마가 백성 가운데 교회,[ㅎ] 곧 그들의 범법 후[ㅇ] 그들 가운데 세워진 첫 번째 교회를 세웠던 땅이니라. 13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나는 그의 백성 가운데 그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에게 부름을 받았느니라. 14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미 떠난 거룩한 자들의 기도가 그들의 신앙대로 성취되게 하고자,[ㅃ] 이제까지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의 기록을 내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나니— 15 참으로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때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동안 일어났던 일의 작은 기록이라. 16 그러므로 나는 내 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내 앞에 있었던 이들이 남긴 기사로부터 나의 기록을 만들며, 17 그러고 나서 내가 내 눈으로 본 일들의 기록을 만드노라. 18 또 나는 내가 만드는 기록이 바르고 참된 기록인 줄 아노라.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언어를 따라 우리가 능히 기록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도다.

[ㄱ]7 이 부분과 다음 부분은 서기 4세기에 몰몬$_2$에 의해 쓰여졌음 [ㄴ]7 +22년 [ㄷ]7 +23년 [ㄹ]7 +24년 [ㅁ]7 +25년 [ㅂ]8 이는 곧, 몰몬$_2$이 요약한 니파이의 큰 판 기록물 [ㅅ]9 이는 곧, 니파이$_3$ [ㅎ]12 모사이야서 18:4~7 [ㅇ]12 이는 곧, 선지자 아빈아다이를 살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후; 모사이야서 7:25~26 참조 [ㅃ]14 예를 들면, 니파이후서 3:19~21과 이노스서 1:11~18

몰몬$_2$이 예언들을 반복하다

19 또 이제 나는 나 자신에 관한 나의 말을 마치고, 내 앞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나의
기사를 계속하여 기술하고자 하노라. 20 나는 몰몬이요 리하이의 순수한 후손이라. 내
게는 나의 하나님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이유가 있나니, 그는 우리의
조상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고, (주와 주께서 그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자들 외에는 아무도 이를 알지 못하였더라) 또 나와 내 백성에게 우리의 영혼의 구원
에 이르게 하는 그처럼 많은 지식을 주셨음이라. 21 정녕 그는 야곱의 집에 복을 주시고,
요셉의 자손에게 자비를 베푸셨느니라. 22 또 리하이의 자손들이 그의 계명을 지킬진대
그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을 번영하게 하셨도다. ㄱ

23 참으로 또한 정녕 그는 다시 요셉 자손의 남은 자를 주 저희의 하나님에 대한 지
식에 이르게 하시리라. 24 또 정녕 주께서 사심같이, 그는 온 지구상에 널리 흩어진 야곱
자손의 모든 남은 자들을 땅 사방에서 모아들이실 것이요, 25 또 그가 야곱의 온 집과
더불어 성약 하셨음과 같이, 그가 야곱의 집과 더불어 맺으신 그 성약이 그가 친히 정
하신 때에 이루어지리니, 이에 야곱의 온 집을 회복하사 그가 그들과 더불어 맺으신
그 성약의 지식에 이르게 하시리라. 26 또 그때 그들이 그들의 구속주를 알게 되리니,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때 그들이 땅 사방에서 모여져, 그들이 흩
어져 떠났었던 그들의 본토에 이르리니, 참으로 주께서 사심같이 이 일이 있으리라.
아멘. ㄴ

니파이인들의 성읍을 신축하고 번영하다

6 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 백성들이 제이십육년에, ㄷ 각기 그 가족 그
양 떼와 그 소 떼 그 말들과 그 소들과 무릇 자기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땅으로 다 돌아갔더라.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들의 식량을 다 먹어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먹지 아니한 모든 것, 곧 각종 모든 곡물과 그들의
금과 그들의 은과 그들의 모든 귀한 것들을 가지고, 북쪽과 남쪽 북방 땅과 남방 땅에
있는 그들의 땅과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갔더라. 3 또 그들이, 그 땅의 평화를 지키기
로 언약을 맺은 도적들 중 그대로 레이맨인으로 지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수효를 따라 땅을 주어 스스로 일함으로써 살아 갈 수단을 갖게 하여 주었나니, 이
리하여 그들이 그 온 땅에 평화를 이룩하였더라. 4 그리고 그들이 다시 번영하며 점차
강대하여지기 시작하였고,

제이십육년과 칠년이 지나가매 ㄹ 그 땅에 훌륭한 질서가 있었으니, ㅁ 그들은 공
평과 정의를 좇아 그들의 법을 만들었더라. 5 이제 백성들이 범법에 빠지지 않는 한,
그들이 계속하여 번영하는 것을 방해할 만한 일이 온 땅에 하나도 없었도다. 6 그리고
이제 땅에 이 큰 평화를 이룩한 이들은 기드긴도나이와, 판사 레이코니우스와, 지도자로
임명된 자들이었더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많은 성읍들이 새로이 건축되었고, 많은 오래된 성읍들이
수축되었더라. 8 또 성읍과 성읍 또 땅과 땅 그리고 각처를 연결하는 많은 대로가 쌓
아 올려지고, 많은 길이 만들어졌더라. 9 이같이 제이십팔년이 지나가고, ㅂ 백성들은
계속하여 평화를 누렸더라.

ㄱ 22 니파이후서 1:20; 앨마서 50:20 비교 ㄴ 26 24~26절의 모아짐과 성약은 니파이전서 19:16 지노스의 예언을 반영함 ㄷ 1 +26년 ㄹ 4 +26년 ㅁ 4 +27년 ㅂ 9 +28년

불평등으로 인해 교회가 무너지다

10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제이십구년에[ㄱ] 백성 중에 얼마간의 논쟁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어떤 이들이 그들의 심히 큰 부로 인하여 자고하여 교만하며 자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큰 핍박을 하기에 이르렀더라. 11 이는 그 땅에 많은 상인과 또한 많은 율법사와 많은 관리들이 있었음이라. 12 그리고 백성들은 그들의 부와 그들의 배움을 위한 기회를 따라 계층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으니, 참으로 어떤 이들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무지하였고, 다른 이들은 그 부로 인하여 큰 학식을 얻었더라. 13 어떤 이들은 교만 중에 자고하였고, 다른 이들은 심히 겸손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욕을 욕으로 갚는 한편, 다른 이들은 욕과 핍박과 온갖 고난을 받되 돌이켜 다시 욕하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뉘우치는 마음으로 행하였더라.

14 이리하여 온 땅에 큰 불평등이 생겨 마침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니, 이윽고 제삼십년에는[ㄴ] 참된 신앙으로 돌이킨 소수의 레이맨인들 가운데를 제외하고는 온 땅의 교회가 무너졌더라. 그들은 참된 신앙에서 떠나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굳건하고, 확고부동하며, 부지런함을 다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기 원하였음이더라.[ㄷ]

15 이제 백성들의 이 죄악의 까닭은 이것이었으니—사탄이 큰 권능을 가지고 백성들을 충동하여 온갖 죄악을 행하게 하고, 교만으로 부풀게 하며, 그들을 유혹하여, 권능과 권세와 부와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게 하였음이라. 16 이에 이같이 사탄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끌어 내어 온갖 죄악을 행하게 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평화를 누린 것은 불과 몇 해에 지나지 아니하였더라.

선지자들이 암살을 당하고 살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이 은밀히 연합하다

17 또 이리하여 제삼십년 초에—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넘겨져 악마의 유혹에 끌려 다니되, 어디든지 그가 끌고 가기 원하는 데로 끌려 다니며, 무슨 죄악이든지 그가 원하는 것을 행하였는지라—이러므로 이 제삼십년 초에 그들은 심히 간악한 상태에 처해 있었더라. 18 이제 그들은 무지한 가운데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으니, 이는 그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알았음이라,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 가르쳐졌었음이니 그러므로 그들이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었더라.[ㄹ]

19 이제 때는 레이코니우스의 아들 레이코니우스의 시대였나니, 이는 레이코니우스가 그 부친의 자리를 채우고 그 해에 백성들을 다스렸음이라. 20 이에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 그 온 땅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 서서 가르침을 베풀며 백성들의 죄와 악을 담대히 증거하였고,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실 속죄곧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그들에게 증거하였나니 저들은 그 죽으심과 고난을 담대히 증거하였더라. 21 이제 이러한 것들을 증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심히 노한 자들이 백성 중에 많았더라. 또 노한 자들은 주로 대판사들 및 대제사와 율법사였던 자들이라, 참으로 율법사 되는 모든 자가 이러한 것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노하였더라.

[ㄱ] 10 +29년 [ㄴ] 14 +30년 [ㄷ] 14 니파이전서 2:10 참조 [ㄹ] 18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운명은 아비다이와 몰몬 둘 다의 걱정이었음; 모사이야서 15:26; 몰몬서 1:16 참조; 히브리서 10:26; 모사이야서 3:11~12 비교

22 이제 아무 율법사나 판사나 대제사라도 그들의 정죄가 그 땅의 통치자에게 서
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자도 사형에 처하도록 정죄할 권능을 가질 수
없었더라. 23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증거하되 담대히 증거한 자들 중에, 잡혀서
판사들에 의해 은밀히 사형에 처해진 자들이 많았으니,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죽음
이후까지 그 땅의 통치자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24 이제 보라, 그 땅의 통치자
에게서 권능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사람이 사형에 처해짐은 그 땅의 법에 어
긋나는 일이었던지라— 25 그러므로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선지자들을 정죄하여
사형에 처하게 한 이 판사들에 대한 원망이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그 땅의 통치자에게
올라왔더라.

26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잡혀 그들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재판 받기 위하
여 판사 앞에 끌려 나왔으니, 백성들이 정해 둔 법에 따른 것이었더라. 27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그 판사들에게 많은 친구와 친족이 있으매, 남은 자, 곧 참으로 거의 모든
율법사들과 대제사들이 함께 모여, 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그 판사들의 친
족들과 연합하더라. 28 이에 그들이 서로 언약을 맺었으니, 곧 옛 사람들에 의해 주어진
저 언약이라. 그 언약은 모든 의를 대적하여 연합하도록 악마가 베풀어 준 것이더라.ㄱ
29 그리하여 그들은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연합하며 또 언약 맺기를 저들을 멸하고, 살
인죄를 범한 자들을 바야흐로 법에 따라 집행되려 하는 정의의 손길에서 건지기로
하였더라.

중앙 정부가 붕괴되다

30 그리고 그들은 또 그들 나라의 법과 권리를 무시하였고, 그들은 또 통치자를 멸하
며, 그 땅 위에 왕을 세워 그 땅으로 더 이상 자유롭게 하지 아니하고 다만 열왕에게
복종하게 하기로 서로 언약하였더라.

7 이제 보라, 나는 그들이 그 땅 위에 왕을 세우지 못하였음을 너희에게 보여 주리
라. 그러나 이 같은 해, 곧 제삼십년에ㄴ 그들이 그 땅의 대판사를 판사석 위에서
멸하였나니, 참으로 그를 살해하였더라.

2 또 백성들은 서로 나뉘어져, 각기 그 가족과 그 친척과 친구를 따라 서로 갈라져
부족을 이루었으니, 이같이 그들이 그 땅의 정부를 무너뜨렸더라. 3 또 부족마다 각기
그들 위에 두령 혹은 지도자를 지명하였으니, 이러므로 그들이 부족이 되었고 또 부
족의 지도자가 되었더라. 4 이제 보라, 많은 가족과 많은 친척과 친구들을 갖지 아니한
자가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으니, 그러므로 그들의 부족들은 심히 커졌더라.

5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어도 그들 중에 아직은 전쟁이 없었더라. 이 모든 죄악
이 백성에게 임한 것은 그들이 사탄의 권능에 스스로를 내준 까닭이었더라. 6 또 정부의
규례가 파괴되었으니, 선지자들을 살해한 자들의 친구와 친척들의 비밀 결사로 인함
이더라. 7 또 그들이 그 땅에서 큰 분쟁을 일으킨지라, 백성 중 보다 의로운 편도 거의
다 간악하여졌으니, 참으로 그들 중에 의로운 자가 몇 명 되지 아니하더라. 8 이리하여
육 년이 지나지 아니하여ㄷ 대부분의 백성이 그들의 의로움에서 돌아섰으니,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감같이, 또는 돼지가 진흙탕에 돌아가 뒹굼같이 되더라.

ㄱ28 힐라맨서 6:21~30; 이더서 8:15~16 ㄴ1 +30년 ㄷ8 이는 곧, 니파이인들이 도적들을 필사적으로 물리친 지 6년도 채 되지 않았음을 말함; 제3니파이 6:1 참조

야곱$_4$이 비밀 결사의 왕이 되고 부족들이 불안정한 평화을 유지하다

9 이제 백성들에게 그처럼 큰 죄악을 초래한 이 비밀 결사가 함께 모여, 자기들이 야곱이라 일컫는 자를 자기들의 머리에 두고, 10 또 그를 자기들의 왕이라 칭하였던지라, 그러므로 그가 이 간악한 무리의 왕이 되었으니, 그는 두목들 중 하나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대적하여 그 목소리를 내었던 자더라. 1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수효로는 백성의 부족들만큼 강하지 아니하였나니, 부족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각기 그 부족대로 그들의 법을 제정한 것 외에는 서로 연합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적이었더라, 그들이 의로운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은 정부를 무너뜨리기로 언약을 맺은 자들에 대한 증오심에 있어서는 일치하였더라.

12 그리하여 야곱은 저들의 적이 저들보다 수효가 더 많은 것을 보고, 저가 그 무리의 왕인지라, 그러므로 저의 백성에게 그 땅의 북방 먼 지역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저들을 위하여 한 왕국을 세우되, 이반자들이 저들에게 합류하여 (이는 저가 저들에게 아첨하기를 이반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하였음이라) 백성의 부족들과 다툴 만큼 족히 강하여지기까지 그리할 것을 명하매 저들이 그리하였더라. 13 저들의 행군이 어찌나 신속하였던지 저들이 나아가 백성들의 손이 미치는 범위를 벗어나기까지 그 행군을 저지할 수 없었더라. 이같이 제삼십년이 끝나니 니파이 백성의 제반사가 이러하였더라.

1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십일년에 ㄱ 그들 곧 모든 사람이 각기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좇아 부족들로 나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싸우러 가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의 법과 그들의 다스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들이 일치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러한 것이 그들의 두목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의 생각에 따라 제정되었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어느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매우 엄격한 법을 세웠으므로 그 결과 어느 정도는 그들이 그 땅에서 평화를 누렸더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주 그들의 하나님에게서 돌이킨 바 되었고, 그들은 선지자들을 돌로 치며 그들 가운데서 내어 쫓았더라.

니파이$_3$가 회개를 전파하며 기적을 행하다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는—천사와 또한 주의 음성의 방문을 받고, 그리하여 천사들을 보고, 목격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성역에 관하여 알도록 능력을 입고, 또한 그들이 속히 의로움에서 떠나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에 돌아가는 것을 목격한 자가 된지라. 16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그 생각의 눈멈으로 인하여 비통하여져서—그 같은 해에 그들 가운데 나아가,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한 죄사함을 담대히 증거하기 시작하였더라. 17 이에 그가 많은 일을 그들에게 베풀었으되 그 모두를 기록할 수 없으며, 그 일부로는 충분치 아니할 터인즉 그러므로 이 책에는 기록하지 아니하노라. 또 니파이가 권능과 큰 권세로 성역을 베푸니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에게 노하였으니, 이는 실로 그가 자기들보다 더 큰 권능을 지닌 연고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신앙이 심히 컸던지라, 천사들이 매일 그에게 성역을 베풀었으므로 그들이 능히 그의 말을 아니 믿을 수 없었음이더라. 19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그가 귀신과 더러운 영들을 내어 쫓고, 심지어 그의 형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매, 저가 백성에게 돌로 침을 입고 죽음을 당한

ㄱ 14 +31년

후였더라.ㄱ [20]백성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 그에게 노하였더라. 그가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백성들의 보는 데서 많은 기적을 더 행하였더라.
[21]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십일년이 지나매,ㄴ 주께로 돌이킨 자들이 소수 밖에 없었으나, 돌이킨 자들은 모두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권능과 영이 그들을 방문하였음을 백성들에게 진실로 나타내었더라. [22]또 귀신 내어 쫓음을 받은 자들과 자기의 병과 자기의 연약한 것을 고침 받은 자들도 모두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받아 고침을 받았음을 백성들에게 진실로 밝히 나타내었으며, 또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표적도 보이고 또 얼마간의 기적을 행하였더라. [23]이같이 제삼십이년도 또한 지나갔더라.ㄷ

또 니파이는 제삼십삼년 초에 백성들에게 부르짖었나니,ㄹ 그는 회개와 죄 사함을 저희에게 전파하였더라. [24]이제 나는 회개하게 된 자로서 물로 침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음을 또한 너희로 기억하게 하고자 하노라. [25]그러므로 니파이에 의해 이 봉사의 직분에 성임된 자들이 있어, 저들에게로 오는 그러한 자들은 다 물로 침례를 받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여 그들의 죄 사함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서와, 백성들에게 보이는 증거와 증언으로서 행하는 것이었더라. [26]이에 이 해 초에 많은 자가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았고 이같이 이 해의 대부분이 지나가니라.

예수님의 사망의 표적ㅁ

8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의 기록에 따를진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록이 참된 줄 아노니, 이는 보라, 이 기록을 한 이가 의인이었음이라ㅂ —이는 그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였음이요, 자기의 죄악으로부터 온전히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이니라— [2]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사람이 우리의 때를 계산함에 있어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였을진대 제삼십삼년이 지나갔더라. [3]그리고 백성들은 레이맨인 선지자 사무엘이 준 표적, 참으로 지면 위에 사흘 동안 어둠이 있으리라 한 그때를 심히 간절히 기다리기 시작하였느니라. [4]그런데 그처럼 많은 표적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사이에는 크게 의심하는 일과 논쟁하는 일이 생겼더라.
[5]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십사년ㅅ 정월 곧 그 달 사 일에 큰 폭풍이 일어났으니, 그 같은 것이 그 온 땅에 결코 알려진 적이 없던 것이었더라. [6]또한 크고 무서운 태풍이 있었고, 극심한 우레가 있어 온 땅이 마치 금방이라도 갈라질 듯 진동하였더라. [7]또 심히 강렬한 번개가 있었으니, 그 온 땅에 그 같은 것이 결코 알려진 적이 없던 것이었더라. [8]또 제이라헤믈라 성에는 불이 붙었더라. [9]또 모로나이 성은 깊은 바다로 가라앉아, 그 주민들이 물에 빠져 죽었더라. [10]또한 땅이 모로나이하 성 위로 솟아오르매, 성이 있던 자리에는 큰 산이 생겼더라. [11]또 남방 땅에는 크고 두려운 멸망이 있었더라.
[12]그러나 보라 북방 땅에는 더 크고 두려운 멸망이 있었나니, 보라, 태풍과 회리바람과 우레와 번개와 온 땅이 심히 크게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이 변하였음이라. [13]또 대로가 깨뜨려지고, 평평한 길들이 파괴되었으며, 여러 평탄한 곳들이 거칠게 되었더라. [14]또 많은 크고 유명한 성읍들이 가라앉았으며, 많은 성읍이 불타고, 많은 성읍이 요동하더니, 이윽고 그 건물들이 땅에 무너지고, 그 주민들은 죽임을 당하였고, 그 장소는 황폐하여 버린 바 되었더라. [15]또 남은 성읍들이 더러 있었으나 그 손상이

ㄱ19 디모데; 제3니파이 19:4 참조 ㄴ21 +31년; 위 14절 참조 ㄷ23 +32년 ㄹ23 +33년 ㅁ1 이 표적들은 니파이전서 19:10~12에서는 지노스가, 니파이전서 12:4~5과 니파이후서 26:3~6에서는 니파이$_1$가, 힐라맨서 14:14~29에서는 사무엘$_2$이 예언한 것들임 ㅂ1 이는 곧, 니파이$_3$ ㅅ5 +34년

심히 컸고, 그 안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많았더라. 16또 회리바람에 휩쓸려 간 자들이 더러 있었으되, 그들이 휩쓸려 갔다는 것만 알 뿐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더라.

17또 이같이 태풍과 우레와 번개와 땅의 진동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이 변형되었더라. 18또 보라 바위들은 둘로 갈라지고, 그것들이 온 지면 위에 깨어졌더라, 그 깨진 조각들과 그 이음새와 갈라진 틈이 온 땅 위에 발견되었더라.

19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레와 번개와 폭풍과 태풍과 땅의 진동이 멎자—보라 이러한 일이 대략 세 시간 동안 계속되었으니, 어떤 이들은 시간이 더 길었다고도 하나, 이 크고 두려운 일들이 대략 세 시간 동안에 행하여졌더라—그러고 나서, 보라, 지면 위에 어둠이 있느니라. 20또 이렇게 되었나니 온 지면에 캄캄한 어둠이 있어, 그 주민들 중 쓰러지지 아니한 자들이 이 어둠의 안개를 느낄 수 있었으며, 21또 어둠으로 인하여 빛이 있을 수 없었으니 촛불이나 횃불도 있을 수 없었고 그들의 좋고 심히 마른 나무로도 불을 붙일 수 없었나니, 그리하여 전혀 아무 빛도 있을 수가 없었으며, 22또 아무 빛이 보이지 아니하여 불빛이나 희미한 빛도, 해나 달이나 별들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지면에 있는 어둠의 안개가 그처럼 심하였음이더라.

23또 이렇게 되었나니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일이 사흘 동안 계속되매, 참으로 모든 백성 가운데 크게 애곡하는 일과 슬피 부르짖는 일과 우는 일이 그치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그들에게 임한 어둠과 큰 멸망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신음함이 컸더라. 24이에 한 곳에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니, 이르되, "오 이 크고 두려운 날 이전에 우리가 회개하였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우리의 형제들이 멸망을 면하였을 것이요 저 큰 성 제이라헤믈라 안에서 불타버리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더라. 25또 다른 곳에서 그들의 부르짖고 애통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되, "오 이 크고 두려운 날 이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돌로 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쫓아 내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우리의 어머니들과 우리의 아름다운 딸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멸망을 면하였을 것이요, 저 큰 성 모로나이하 안에 묻혀버리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나니, 이같이 백성들의 슬피 부르짖음이 크고 참담하였더라.

한 음성이 멸망의 규모를 알리다 ㄱ

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 땅의 온 지면 위에, 땅의 모든 주민들 가운데 한 음성이 들려 외치기를,

2"이 백성에게 화, 화, 화가 있도다.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온 땅의 주민들에게 화 있도다. 이는 내 백성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 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들로 인하여 악마가 웃으며 그의 사자들이 기뻐함이니, 그들이 엎드러진 것은 그들의 죄악과 가증함으로 인함이로다.

3 보라, 저 큰 성 제이라헤믈라와
그 주민을 내가 불로 살라버렸노라.
4 또 보라, 저 큰 성 모로나이를 내가 깊은 바다에 가라앉게 하고,

ㄱ1 열거된 도시들 중에서, 예루살렘$_2$은 니파이 땅에 있었고 옛 수도인 제이라헤믈라는 중부 지역에 있었으며 모로나이하 성과 모로나이 성으로 추정되는 곳은 풍요$_2$땅의 약간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예이코부갯은 북쪽에 있는 신도시였음; 여기 외에 몰몬경에서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대부분의 도시들은 북방 땅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 제이라헤믈라의 불태움은 힐라맨서 13:12~14에서 예언되었음

그 주민들을 물에 빠져 죽게 하였노라.
5 또 보라, 저 큰 성 모로나이하와 그 주민을 내가 흙으로 덮어,
내 면전에서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가증함을 가리워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로 오지 않게 하였노라.[ㄱ]
6 또 보라, 길갈 성을 내가 가라앉게 하고,
그 주민들로 땅 속 깊이 묻히게 하였노라.

7 참으로 또한 오니하 성과 그 주민들과
또 모쿰 성과 그 주민들과
또 예루살렘 성과 그 주민들도 그리하고,
내가 물로 그 대신에 올라오게 하여 나의 면전에서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을 가리워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로 올라오지 않게 하였노라.

8 또 보라, 개디앤다이 성과 개디옴나 성과
야곱 성과 김김노 성
이 모두를 내가 가라앉게 하고,
그 자리에 작은 산들과 골짜기들을 만들었으며,
그 주민들을 내가 땅 속 깊이 묻어 버려,
내 면전에서 그의 간악함과 가증함을 가리워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로 올라오지 않게 하였노라.

9 또 보라, 야곱 왕의[ㄴ] 백성이 거하던 저 큰 성 예이코부갯을,
그들의 죄와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불에 살라지게 하였나니,
그 간악함이 온 땅의 모든 간악함보다 넘어섰음은
그들의 은밀한 살인과 결사로 인함이라,
대저 내 백성의 화평과 이 땅의 정부를
파괴한 것이 그들이었은즉,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불사름을 입게 하여
그들을 나의 면전에서 멸하여서,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다시는 그들을 쳐서
내게로 올라오지 않게 하였노라.

10 또 보라, 레이맨 성과 야슈 성과 갓 성과 키시쿠멘 성과
그 주민들을 내가 불에 살라지게 하였나니,
이는 선지자들을 쫓아내며,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에 관하여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내가 보낸 자들을
돌로 친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함이라.

[ㄱ]5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에 대한 이 후렴구가 7, 8, 9, 10절에 네 번 더 나옴; 제3니파이 6:25; 7:6, 14; 8:25 비교 [ㄴ]9 제3니파이 7:9~13

11 또 그들이 저들을 다 쫓아내어
그들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으므로,
내가 불을 내려 보내어 그들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이 나의 면전에서
가리워지게 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보낸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그들을 쳐서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 또 그들의 간악함과 그들의 가증함으로 인하여
허다한 큰 멸망으로 내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임하게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분의 임무를 선포하다

13"그들 중에 보다 의로웠음으로 인하여 멸망을 면한 너희 모두여,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 14참으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내게로 오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로다. 보라, 나의 자비의 팔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 터인즉 내게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15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였느니라.
나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16 내가 내 백성에게 왔으되 내 백성이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옴에 관한 경전이 이루어졌느니라.

17그러나 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었나니, 또 그와 같이 나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자에게도 내가 그리하여 줄 것은, 보라, 나로 말미암아 구속이 이르며 내 안에서 모세의 율법이 이루어짐이라. 18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니라.

19"그런즉 너희는 더 이상 피 흘리는 것으로 내게 바치지 말지니라. 참으로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번제를 폐할지니, 이는 내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번제를 하나도 받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20이에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릴지니, 누구든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내게로 오면 내가 그에게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줄 것이라. 이는 곧 레이맨인들이 그 돌이킬 때에 나를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것 같으려니와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ㄱ

21"보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세상에 구속을 가져다주려 함이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22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내게로 오는 그는 내가 영접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자의

ㄱ20 힐라맨서 5:42~49

것임이라. 보라, 그러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렸고, 또다시 취하였노라. 그러므로 너희 땅 끝에 거하는 자들아,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구원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음성이 자비가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애통해하시다

10 그리고 이제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그 땅의 온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증거하였으며, 이 말씀 후에 여러 시간 동안 그 땅에 정적이 있으니, [2]이는 백성들의 놀라움이 심히 컸던지라 그들이 죽임을 당한 그들의 친척을 잃음으로 인하여 애통하며 슬피 울기를 그쳤음이라. 그러므로 여러 시간 동안 온 땅에 정적이 있으니라.

[3]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에게 다시 한 음성이 임하매 모든 백성이 듣고 그것을 증거하였으니, 이르시되,

[4]야곱의 후손이요 실로 이스라엘 집에 속한 너희 곧 무너진 이 큰 성읍들의 백성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고 양육한 것이 몇 번이냐. [5]그리고 또 멸망한 너희 이스라엘의 집 백성이여,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참으로 너희 이스라엘의 집 백성 곧 멸망한 너희같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너희여, 실로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6]너희 곧 내가 살려 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면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기를 몇 번이라도 하리라. [7]그러나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가 너희 조상에게 한 성약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너희의 거하는 처소가 황폐하게 되리라.

백성들의 반응

[8]이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라, 그들의 친척과 친구들을 잃었음으로 인하여 다시 울며 슬피 부르짖기 시작하였더라. [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사흘이 지나가고, 아침에 지면에서 어둠이 걷히고, 땅이 진동하기를 그치고, 바위가 갈라지기를 그치고, 두려운 신음 소리가 그치고, 모든 요란한 소리가 지나가더라. [10]또 땅이 다시 서로 봉합되어 서매, 살아남은 백성들의 애통하는 일과 우는 일과 통곡하는 일이 그치고 그들의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들의 애곡이 변하여 그들의 구속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찬송과 감사가 되니라.

몰몬$_2$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논평

11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경전이 여기까지 이루어지니라.[ㄱ] 12 또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백성 중 보다 의로웠던 자들이었으니 이는 선지자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돌로 치지 아니한 자들이었으며 또 살아남은 자들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지 아니한 자들이었으니— 13 또 이들은 살아남아서 땅 속에 가라앉아 묻히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은 깊은 바다에 빠져 죽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들은 불에 살라지지도 아니하였고, 깔려 죽지도 아니하였으며, 이들은 회리바람에 휩쓸려 가지도 아니하였고, 연무와 암흑의 안개에 압도되지도 아니하였더라.

14 이제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며, 경전을 가진 자는 그것을 상고하여 보고, 불과 연기와 태풍과 회리바람과 땅이 열려 그들을 받음으로 인한 이 모든 죽음과 멸망과 이 모든 일이 많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는 것이 아닌지 알지어다.

15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있을 이러한 일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이러한 일에 대하여 증거하였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16 참으로 선지자 지노스가 이러한 일에 대하여 증거하였고, 또한 지노크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나니,[ㄴ] 이는 그들이 그들 자손의 남은 자인 우리에 관하여 특별히 증거하였음이라. 17 보라, 우리 조상 야곱도 요셉 자손의 남은 자에 관하여 증거하였나니,[ㄷ] 보라, 우리가 요셉 자손의 남은 자가 아니냐? 또 우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러한 것은 우리 조상 리하이가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나온 놋쇠판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십사년 말에, 보라, 살아남은 니파이 백성과 또한 레이맨인이라 일컬어지던 자로서 살아남은 자들이 큰 은혜 보이심을 입고, 그들 머리 위에 큰 복 부어 주심을 입어 그리스도의 승천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가 진실로 자기를 그들에게 나타내시되— 19 그들에게 그 몸을 보이시며,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나니, 그의 성역의 기사는 이후에 주어질 것이니라.[ㄹ]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나의 말을 마치노라.

[ㄱ] 11 니파이전서 12:4~5; 19:10~12; 니파이후서 26:3~6; 힐라맨서 14:20~27 [ㄴ] 16 니파이전서 19:10~12; 앨마서 33:15~17 [ㄷ] 17 앨마서 46:24~26 [ㄹ] 19 제3니파이 11~28

니파이인들 가운데 행하신 예수님의 성역

제3니파이 11~28장

무리가 풍요 땅에 함께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니파이 백성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으니, 이같이 그가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셨느니라.[ㄱ]

예수께서 니파인들에게 나타나시다

1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의 큰 무리가 풍요 땅에 있는 성전 주위에 함께 모여, 서로 기이히 여기며 놀라워하며, 일어난 크고 기이한 변화를 서로에게 보이더라. [2]또한 그 죽으심에 관한 표적이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더라.

[3]그리고 그들이 이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치 하늘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듣고, 그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으니, 이는 그들이 그 들은 음성을 깨닫지 못하였음이라. 그것은 거친 음성도 아니요 큰 음성도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은 작은 음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이들의 중심까지 꿰뚫는지라, 그들의 몸에 떨리지 아니한 부분이 없었으니, 참으로 그 음성은 그들의 영혼에까지 파고들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더라.

[4]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시 그 음성을 들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음이라.

[5]다시 세 번째로 그 음성을 듣고 이를 듣고자 그들의 귀를 여니, 그들의 눈은 그 소리를 향하였고, 소리가 나는 하늘을 향하여 그들이 주목하였더라. [6]그리고 보라, 세 번째 그들이 그 듣는 음성을 깨달았으니, 그 음성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7]"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노라—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더라.

[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깨닫고 하늘을 향하여 그들의 눈을 다시 드니, 보라, 그들이 본즉 한 사람이 하늘로부터 하강하는데 흰 옷을 입으셨더라. 그가 내려오사 그들 가운데 서시매, 온 무리의 눈이 그에게로 향하였으나, 그들이 감히 서로에게라도 그 입을 열지 못하였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은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천사라 생각하였음이더라.

[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손을 내미시며 백성들에게 일러 이르시되, [10]"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 [11]보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저 쓴 잔을 마시고 세상의 죄를 짊어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노니, 이로 말미암아 태초로부터 모든 일에 아버지의 뜻을 담당하였느니라."

[12]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무리가 다 땅에 엎드렸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승천 후에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리라고 그들 중에 예언되었음을 그들이 기억하였음이라.[ㄴ]

[1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에게 일러 이르시되, [14]"일어나 내게로 나아와서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고, 또 내 손과 내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ㄱ] 1 전반적으로 첫째 날 예수님의 주제는 율법이었고 둘째 날에는 선지자들이었음; 이 주제들은 유대교 경전의 핵심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범주로 몰몬경에서도 자주 등장함; 제3니파이 27:1~28:12에서는 사흘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찾아가신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로 대체됨 [ㄴ] 12 니파이전서 12:4~8; 니파이후서 26:1, 9; 앨마서 16:20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지어다."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무리가 나아갔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았느니라. 또 그의 손과 그의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았으니, 그들이 이를 행하되 하나씩 나아가 이윽고 그들이 모두 나아가기까지 그리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으로 만져 보았으매, 그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기록한 그이심을 분명히 알고 증거하였느니라.

16 또 그들이 모두 나아가 스스로 목격한 후에 그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17 "호산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도다!" 하고 그들이 예수의 발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을 부르시고 침례에 대해서 가르치시다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니파이에게 말씀하시고ㄱ (이는 니파이가 무리 중에 있었음이라) 저에게 명하사 나아오라 하시더라. 19 이에 니파이가 일어나 나아가서 주 앞에 절하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더라. 20 이에 주께서 저에게 명하사 일어나라 하신대, 저가 일어나 주 앞에 섰더라. 21 이에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권능을 주노니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후에 너는 이 백성에게 침례를 베풀라" 하시더라.ㄴ

22 다시 주께서 다른 자들을 부르사,ㄷ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르시고, 침례를 베풀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침례를 베풀어 너희 가운데 논쟁이 없도록 하라. 23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통하여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기를 원하거든, 이같이 너희는 그들에게 침례를 줄지니—보라, 너희는 물에 내려가 서서,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줄지니라. 24 또 이제 보라, 너희가 할 말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25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권세를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아멘.' 26 그러고 나서 너희는 그들을 물에 잠기게 하였다가, 물 밖으로 다시 나오게 할지니라.

27 "이에 이같이 너희는 내 이름으로 침례를 줄지니라. 이는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하나임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28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그같이 너희는 침례를 베풀어, 지금까지 있어온 것 같은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고, 나의 교리의 요점에 관하여서도 지금까지 있어온 것 같은 논쟁이 너희 가운데 없게 하라.ㄹ 29 이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분쟁의 아비인 악마에게 속한 자임이라, 그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노여움으로 다투게 하는도다. 30 보라, 노여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서로 대적하게 하는 이것은 나의 교리가 아니요, 그러한 일을 없이 하는 이것이 나의 교리이니라."

ㄱ 18 이는 곧, 니파이₃ ㄴ 21 제3니파이 19:10~12 참조 ㄷ 22 이들이 니파이인 열두 제자들임 ("사도"로 불린 적은 없음); 제3니파이 12:1 참조; 이들의 이름은 제3니파이 19:4에 나옴 ㄹ 28 제3니파이 1:24~25 참조; 제3니파이 8:4 비교

그리스도의 교리 ㄱ

31 "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나의 교리를 선포하리로다. 32 또 이것이 나의 교리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교리라, 내가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는 나를 증거하시며, 성신은 아버지와 나를 증거하시나니, 나는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 있든지 회개하고 나를 믿을 것을 명하심을 증거하노라. 33 또 누구든지 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 그들이리라. 34 또 나를 믿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35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교리요, 나는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거하노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또한 아버지를 믿나니, 그에게 아버지께서는 나를 증거하시리로다. 이는 아버지께서 불과 성신으로 그를 방문하실 것임이라. 36 또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는 나를 증거하시고, 성신은 그에게 아버지와 나를 증거하시리니, 아버지와, 나와, 성신은 하나임이니라.

37 "또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하나니,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가 결단코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없느니라. 38 그리고 거듭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반드시 회개하고,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나니, 그렇지 않고서는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39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나의 교리라, 누구든지 이 위에 세우는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니, 지옥의 문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 40 또 누구든지 이보다 더 많거나 적게 선포하여, 이를 나의 교리로 세울진대, 그는 악에서 오는 자요, 나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자라, 그는 모래의 기초 위에 세우는 자니, 홍수가 나고 바람이 그들에게 부딪칠 때에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 그러한 자들을 받으리라. 41 그러므로 이 백성에게 나아가, 내가 이른 말을 땅 끝까지 선포하라."

ㄱ 31 니파이후서 31:1~21; 제3니파이 27:13~21 비교; 이 세 구절은 각각 "이것이 나의 교리/복음"의 변형으로 시작되고 끝남

예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하신 첫 번째 설교

제3니파이 12:1~18:39

예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시다[ㄱ]

새로운 참행복은 굵은체로 표시됨

1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니파이에게와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부르심을 입고 침례를 베풀 권능과 권세를 받은 자들의 수가 열둘이었더라) 보라, 무리에게로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외쳐 이르시되, "너희 중에서 내가 택하여 너희에게 성역을 베풀게 하고 너희의 종이 되게 한 이 열둘의 말에 주의를 기울일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들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게 하였나니, 너희가 물로 침례를 받은 후에, 보라, 내가 불과 성신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보고 내가 있는 줄 안 후에 나를 믿고 침례를 받을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2 "그리고 또, 너희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있는 줄 안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너희의 말을 믿을 자들은 더욱 **복이 있도다**. 참으로 너희의 말을 믿고, 지극히 겸손하여져서 침례를 받을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불과 성신으로 방문을 받으며, 그들의 죄 사함을 받겠음이라."

니파이인 버전의 산상 설교

제3니파이 12:3~14:27

참행복

마태복음 5:3~12

해당 성경구절에 추가되거나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3 "**참으로**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로 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또** 애통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또**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요,
6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성신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임이요,
7 **또**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ㄱ]1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굵은체로 강조된) 네 가지 새로운 참행복을 마태복음 5:2~12의 참행복에 추가하심; 이는 목격자의 증언, 남의 증언을 믿음, 침례에 대한 강조로 모사이야서 26:15~18의 "복이 있는 자"에 대한 묘사를 반영함; 요한복음 20:29 비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또한**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므로 너희가 **크게 기뻐하고** 심히 즐거워**할 것임**이라. 이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그들이 이같이 핍박하였음이니라."

믿는자들의 징표

마태복음 5:13~16

13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그 소금이**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의 발 아래 밟힐 뿐이니라.

14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 백성의** 빛이 **되라**.ㄱ 산 위에 놓인 성읍이 숨기울 수 없느니라. 15 보라, 사람이 촛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에 두느냐? 아니라, 오히려 촛대 위에 두나니, 이에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두에게 비취느니라. 16 **그러므로** 너희 빛을 **이 백성** 앞에 비취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율법이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5:17~48

17 "내가 온 것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함인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온 것은 폐하려 함이 아니요 이루려 함이니라. 18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ㄴ 율법에서 일점일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다 이루어**졌음**이니라. 19 **또한 보라, 너희로 나를 믿게 하며,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게로 오게 하려고, 내가 내 아버지의 율법과 계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보라, 계명이 너희 앞에 있고, 율법이 이루어졌도다.** 20 **그러므로 내게로 와서 너희는 구원을 받으라**, 이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때 너희에게 명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서는ㄷ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임이니라.

21 "옛적 사람들이 말하**였다고** 너희가 들었고, **또한 너희 앞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살인하지 말라,ㄹ 누구든지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하였으나, 2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ㅁ 노하는 자마다 **그의** 심판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ㅂ 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힐 위험에 처하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 불에 들어갈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23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로 오거나, 혹은 내게로 오기를 원할 때**,ㅅ 네 형제가 너를 원망

ㄱ 14 마태복음 5:14에서는 "세상의 빛"로 나옴 ㄴ 18 예수님이 마태복음 5:18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을 누락하심 ㄷ 20 마태복음 5:20에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으로 나옴 ㄹ 21 출애굽기 20:13; 신명기 5:17 ㅁ 22 여기서 예수님은 킹 제임스 버전 (King James Version) 마태복음 5:22의 "이유 없이"라는 표현을 누락하심; 마찬가지로 신약 성서의 가장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어 필사본에서도 이 표현이 원래 나오지 않음 ㅂ 22 아람어 "멍청이"나 "돌머리"라는 뜻의 모욕적인 말로 추정 ㅅ 23 마태복음 5:23에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로 나옴

할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24네 형제에게로 가서, 먼저 네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25"네 대적과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그와 화해하라. 어느 때에라도 **그가 너를 잡으면**ㄱ 네가 옥에 던지**울까** 염려하라. 26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시나인**까지ㄴ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옥에 있으면서 한 시나인이라도 갚을 수 있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27"**보라**, 옛적 사람들이 **기록하기를**, 간음을 범하지 말라 하였도다.ㄷ 28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그의 마음에 간음을 범하였느니라. 29보라,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이러한 것이 하나도 너희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30**이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음이니라**.ㄹ

31"**기록되었으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그에게 줄 것이라 하였도다.ㅁ 32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행한 연고 없이 그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로 간음을 범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을 범함이니라.

33"**그리고** 또 **기록되었으되**,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으나,ㅂ 34**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ㅅ 36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검거나 희게 할 수 없음이라. 37오직 너희 말은 '예, 예,' '아니오, 아니오가' 되게 하라. 이보다 더한 것**에서 나오는** 것은 악**이니라**.ㅎ

38"**또 보라, 기록되었으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도다.ㅆ 39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 대며, 40또한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거든 그에게 너의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십 리를 동행하라. 42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보라, 또한 기록되었으되** 네 이웃을ㅃ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ㅆ 44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45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 해를 악인 위에와 선인 위에 뜨게 하심이라.ㅉ

46"**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던 옛적의 것들이 내 안에서 모두 이루어졌느니라**. 47**옛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느니라**.ㅊ 48그러므로 **나는 원하노니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ㄱ25 마태복음 5:25에서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로 나옴 ㄴ26 앨마서 11:3~8; 마태복음 5:26에서는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로 나옴 ㄷ27 출애굽기 20:14; 신명기 5:18 ㄹ30 마태복음 5:29~30의 "눈을 빼어 내버리고 손을 찍어 내버리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누락됨 ㅁ31 신명기 24:1~4 ㅂ33 레위기 19:12; 민수기 30:2 ㅅ35 예수께서 마태복음 5:35의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을 누락하심 ㅎ37 마태복음 5:37에서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로 나옴 ㅆ38 출애굽기 21:23~24; 레위기 24:19~20; 신명기 19:21 ㅃ43 레위기 19:18 ㅆ43 구약전서에 이 가르침에 대한 언급이 없음 ㅉ45 예수께서 마태복음 5:45의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을 누락하심 ㅊ47 여기 해당하는 마태복음 5:46~47에서는 세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옴; 고린도후서 5:17 비교

하나님을 섬기라

마태복음 6:1~24

13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는 너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구제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2 그러므로 너희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 오직 너는 구제할 때에 네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네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너의 구제함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친히 드러내어 네게 갚으시리라.
5 “또 네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드러내어 네게 갚으시리라. 7 그러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심이니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10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12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13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4 “이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16 “더욱이 너희가 금식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이는 그들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 오직 너는 금식할 때에 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네 얼굴을 씻으라. 18 이는 네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드러내어 네게 갚으시리라.

⌜9 여기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10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누락하심; 비록 그 임하심은 이때부터 4대까지만 유지되었으나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10 예수께서 마태복음 6:11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누락하심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뚫고 들어와 도적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도적질하지도 못하느니
라. 21 이는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을 것임이니라.
22 "눈은 몸의 빛이니, 그러므로 만일 네 눈이 순전하면, 네 온 몸에 빛이 가득하리
라. 23 그러나 만일 네 눈이 악하면, 네 온 몸에 어둠이 가득하리니, 그러므로 만일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그렇지 아니하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길 주께 온전히 의지하라

마태복음 6:25~34

2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택하신 열둘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이는 보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게 하려고 내가 택한 자들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며,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
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들보다 더욱 낫지 아니하
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
노니,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그
러한즉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의 신앙이 **적지 아니할진대 그와 같이**[ㄱ] 너희도 입히시**리라**.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ㄴ] 32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심이니라.[ㄷ] 33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함**이니라**."

제자의 도리에 대한 비유들

마태복음 7:1~27

14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무리에
게로 돌이키사, 다시 그들에게 그 입을 열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
을 받을 것임이니라. 3 또 어찌하여 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네가 보고, 네 눈 속에

[ㄱ] 30 마태복음 6:30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로 나옴 [ㄴ] 31 예수께서 마태복음 6:32의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를 누락하심 [ㄷ] 31 예수께서 마태복음 6:32의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를 누락하심

있는 들보는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4또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나로 네 눈 속에서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내어 던지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내어 던지리라.

6"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7"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이니라. 9또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10또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선물로 너희의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임이니라.

13"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되, 14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15"거짓 선지자들을 살피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18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20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21"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와, 23이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였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가 그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하리니— 25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이니라. 26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에 비유되리니— 27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그 집이 무너졌으니 그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ㄱ

ㄱ27 이말이 니파이인들을 위한 산상 수훈의 결말임; 참고로 제3니파이 14장은 마태복음 7장의 내용과 거의 똑같음

율법의 이루어짐에 대한 추가 말씀

1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눈을 들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기 전에 가르친 바를 너희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들 중에 기이히 여기며, 모세의 율법에 관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음을 아셨으니, 이는 그들이 옛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음이라.[ㄱ] 3 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옛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한 것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4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에게 준 바 되었던 율법은 이제 이루어졌느니라. 5 보라, 내가 곧 율법을 준 그요, 내가 곧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성약한 그로라. 그러므로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는 내가 율법을 이루려 왔음이라. 그러므로 율법은 끝났느니라.

6 “보라, 내가 선지자들을 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것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다 이루어질 것임이니라. 7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옛 것이 지나갔다 하였음으로 인하여, 장차 이를 일에 관하여 말한 것을 폐하지 아니하는도다. 8 이는 보라, 내가 내 백성과 맺은 성약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다만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내 안에서 끝났음이라.

9 “보라, 내가 율법이요 빛이니, 나를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니,[ㄴ] 이는 끝까지 견디는 그에게 내가 영생을 주겠음이라. 10 보라,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었노니, 그러므로 내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이는 이들이 진실로 나를 증거하였음이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요한복음 10:16 해설하시다

1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택하신 열둘에게 이르시되, 12 너희는 내 제자요, 너희는 요셉 집의 남은 자들인 이 백성의 빛이니라. 13 또 보라, 이는 너희의 기업의 땅이요 아버지께서 이를 너희에게 주셨도다. 14 그리고 어느 때에라도 아버지께서 이를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형제에게 말하라고 내게 명하신 일이 없었도다. 15 어느 때에라도 아버지께서 그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 집의 다른 지파에 관하여서도 그들에게 말하라고 내게 명하신 일이 없었도다.

16 “이만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사 그들에게 이르라 하셨나니, 17 ‘곧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저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것이라.’[ㄷ] 18 그러나 이제 목이 뻣뻣함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이 일에 관하여 더 이상 말하지 말도록 아버지로부터 명하심을 받았느니라.

19 “그러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지라, 내가 이를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들 중에서 갈라져 나왔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알지 못함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함이니라. 20 또 진실로 내가 거듭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아버지께서 다른 지파들도 그들에게서 갈라 놓으셨으되, 그들이 저들에 대하여 알지 못함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함이니라. 21 또

[ㄱ] 2 제3니파이 12:47 (고린도후서 5:17 참조) [ㄴ] 9 니파이전서 17:41; 앨마서 33:19; 37:46~47 참조 [ㄷ] 17 요한복음 10:16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그 양이라.'

22"그러나 그들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인 줄 그들이 생각하였음이라. 이는 이방인들이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 돌이키게 될 것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음이니라. 23또 그들은 내 말 곧 그들이 내 음성을 들으리라고 한 말을 깨닫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어느 때라도 이방인들이 내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을—곧 성신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아니할 것임을 깨닫지 못하였느니라. 24그러나 보라, 너희는 내 음성을 들었고, 또 나를 보았나니, 너희는 나의 양이라,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16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이 땅에도 있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땅에도 있지 아니하며 내가 다니며 성역을 베푼 그 주변 땅 어느 곳에도 있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나니, 2이는 내가 말하는 그들은 아직 내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이요, 나도 그들에게 아무 때에라도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3그러나 내가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로 내 음성을 듣게 하고, 나의 양 가운데 헤아림을 받게 하여,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하라는 계명을 아버지에게서 받았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나를 보이러 가노라."

예수께서 이방인들과 흩어진 이스라엘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시다[ㄱ]

4"이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가 떠난 후에 너희는 이러한 말을 기록하여, 만일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백성, 곧 내가 성역을 베풀 때에 나를 보고 나와 함께 있었던 그들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너희에 대한 지식과, 또한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지파에 대한 지식을 받도록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기록할 이 말씀이 보존되었다가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면에 흩어질 그들 자손의 남은 자들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통하여 인도되어 들어오도록, 곧 인도되어 그들의 구속주인 나를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라. 5그때에 내가 그들을 땅의 사방에서 모아들이며, 그때에 내가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집의 모든 백성에게 세우신 성약을 이루리라.

6"또 이방인들에게 나와 아버지를 증거하시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7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그들이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또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후일에 진리가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이러한 일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알려지리로다.'

8"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방인들 중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화 있도다'—그들이 이 땅 위에 나아와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나의 백성을 흩었으며,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나의 백성은 그들 가운데서 쫓겨나고, 그들에게 발 아래 밟힘을 당하였을지라도, 9또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아버지의 자비와, 또한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나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아버지의 심판으로 인하여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 후에, 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내 백성으로 하여금 매를 맞으

[ㄱ]4 니파이후서 31:11 참조

며, 고난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며, 그들 가운데서 쫓겨나며, 그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그들 중에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게 한 후에—

10 "이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을 아버지께서 명하시느니라. 이방인들이 나의 복음을 대적하여 범죄하며, 내 복음의 충만함을 거부하고, 그 마음의 교만 중에 모든 나라 위에와, 온 땅의 모든 백성 위에 자고하며, 온갖 거짓말과 속임과 악행과 온갖 위선과 살인과 사제술과 음행과 은밀한 가증함으로 가득차게 되는 그 날에, 만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내 복음의 충만함을 거부할진대, '보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복음의 충만함을 그들에게서 취하리라. 11 또 그때에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가 내 백성에게 세운 바 나의 성약을 기억하고, 나의 복음을 그들에게로 가져올 것이니라. 12 또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가 이방인들이 너를 다스릴 권력을 갖지 못할 것을 네게 보이나,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네게 세운 나의 성약을 내가 기억하리니, 너희가 나의 충만한 복음의 지식에 이르게 되리로다.'

13 "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여, 만일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올진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그들이 나의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14 '또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나의 백성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며, 그들을 짓밟음을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ㄱ 15 '그러나 그들이 내게로 돌이켜, 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아니할진대,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가 그들에게 허락하여, 참으로 내가 나의 백성에게 허락하여, 그들로 하여금 저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저들을 짓밟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저들이 이후로는 아무 쓸 데가 없어 다만 밖에 던지워 내 백성의 발 아래 밟힐 따름인 그 맛을 잃은 소금 같으리로다.' ㄴ

16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이같이 내게 명하사—나로 이 땅을 이 백성에게 주어 저희 기업을 삼게 하셨느니라. 17 그때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지리로다. 이르되,

18 너의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일 것이요.
    소리를 함께 하여 그들이 노래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온을 다시 데려오실 때에
    그들의 눈과 눈이 마주 봄이라.
19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쁨을 발하며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주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20 주께서 만국의 눈에
    그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ㄷ

ㄱ 14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며, 그들을 짓밟음"이라는 표현은 미가 5:8을 암시함; 미가 5:8은 제3니파이 20:16과 21:12에서 더 분명하게 인용하게 될것임 ㄴ 15 제3니파이 12:13 (마태복음 5:13) ㄷ 20 18~20절은 마지막 줄에 나오는 "우리" 외에 이사야 52:8~10의 내용과 똑같음; 모사이야서 12:22~24; 15:29~31; 제3니파이 20:32~35에서도 언급됨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다

17 보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때가 가까웠도다. [2]너희가 연약하여, 내가 이때 너희에게 말하도록 아버지께 명령을 받은 나의 모든 말을 너희가 깨달을 수 없는 줄을 내가 아노라. [3]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집으로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며, 너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내일을 위하여 너희 마음을 예비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4]그러나 지금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또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에게 나를 보이러 가노라. 이는 저들이 아버지께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함이니, 아버지께서는 친히 어디로 데려가셨는지 아심이라."

[5]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눈을 들어 무리를 다시 둘러보시고, 그들이 눈물을 머금은 채 마치 그에게 조금 더 그들과 함께 머무실 것을 간구하려는 듯이 그를 주목하는 것을 보시더라. [6]이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나의 심정은 너희에 대한 측은함으로 가득하도다. [7]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에게 저는 자나, 맹인이나, 다리 불편한 자나, 장애인이나, 나병환자나, 마른 자나, 못 듣는 자나,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 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김이요, 나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함이라. [8]이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형제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기를 너희가 원하는 줄 내가 앎이니, 이는 너희의 신앙이 내가 너희를 고치기에 족한 줄 내가 앎이니라."

[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고 나자, 무리가 다 일제히 그들의 병든 자와 그들의 고난당하는 자와, 그들의 저는 자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맹인들과 함께, 또 그들의 말 못하는 자들과 함께, 또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아가매,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 주시더라. [10]이에 고침을 받은 자와 성한 자들이 모두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경배하였고, 무리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수 있었던 자마다 그의 발에 입을 맞추매, 그들이 그 눈물로 그의 발을 씻기에 이르렀더라.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다

[11]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 명하시더라. [12]이에 그들이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려와 그를 둘러 땅에 내려놓는지라, 예수께서는 그 한가운데 서셨고, 무리는 그들을 모두 데려올 때까지 길을 비켜 주었더라. [1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을 모두 데려온 후에, 예수께서는 그 한가운데 서셨더니, 무리를 명하사 땅에 무릎을 꿇게 하시니라.

[14]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땅에 무릎을 꿇고 나자, 예수께서 속으로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스라엘 집 백성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번민하나이다." [15]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도 친히 땅 위에 무릎을 꿇으시더니, 보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시니, 이제 그 기도하신 것을 능히 기록할 수 없으되, 그의 기도를 들은 무리가 증거하였도다. [16]이에 그들의 증거함이 이러하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처럼 크고 기이한 일을 이전에 결코 눈으로 본 적이 없으며, 귀로도 들은 일이 없느니라. [17]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처럼 크고 기이한 일을 어떠한 혀로도 말할 수 없고, 어떠한

사람도 기록할 수도 없으며, 사람의 마음으로는 품을 수도 없나니, 주께서 아버지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을 채웠던 그 기쁨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느니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마치시고 나서 일어서셨으나, 무리의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그들이 압도되어 있는지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더러 일어나라 하시더라. 20 이에 그들이 땅에서 일어나매,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신앙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보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도다" 하시더라.

21 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시니, 무리가 이를 증거하니라.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 22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우시더라. 23 그리고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어린 자들을 보라" 하시더라.

24 이에 그들이 주목하여 보려 할 새 그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더니, 하늘들이 열린 것을 보고, 또 천사들이 마치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매, 저희가 내려와 그 어린 자들을 둘러싸니, 그들이 불에 둘러싸였으며, 천사들이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더라. 25 이에 무리가 보고 듣고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자기의 증거가 참인 줄 아는 것은 그들 각 사람이 모두 친히 보고 들었음이라. 또 그들은 수효가 대략 이천오백 명쯤이었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었더라.

예수께서 성찬식을 도입하시다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사 약간의 떡과 포도주를 그에게 가져오게 하시니라. 2 또 그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러 간 사이에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니라. 3 그리고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매, 떡을 취하여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먹으라 명하시니라. 4 이에 그들이 먹고 충만하게 되매, 그들에게 명하사 무리에게 주라 하시니라.

5 그리고 무리가 먹고 충만하게 되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 중에 성임될 자가 하나 있을지라, 그에게 내가 권능을 주어 그로 떡을 떼어 축복하며 그것을 내 교회의 백성, 곧 믿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은 모든 자에게 주게 하리라. 6 이를 너희는 항상 지켜 행하되, 내가 행한 것같이, 곧 내가 떡을 떼어 축복하고 그것을 너희에게 준 것같이 하라. 7 또 이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보인 나의 몸을 기억하여 행할지니, 이것이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이 되리라. 또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는 너희와 함께 할 나의 영을 갖게 되리라."[ㄱ]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명하사 잔의 포도주를 취하여 마시게 하시고, 또 무리에게도 주게 하사 그들도 마시게 하시니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리 행하여, 이를 마시고 충만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들이 마시고 충만하게 되었더라.

10 그리고 제자들이 이를 행하고 나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행한 이 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이것이 나의 계명을 이루는 것임이요, 또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바를 너희가 기꺼이 행하려 함을 아버지께 증거함이니라. 11 또 이를 너희는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는 자들에게 항상 행할지며, 또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 너희가 항상 나를

[ㄱ] 7 모로나이서 4:3 떡 기도문과 비교

기억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하면 너희가 나의 영으로 너희와 함께 하게 하리라.ㄱ

12"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이를 행하라. 너희가 항상 이를 행할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지어졌음이라. 13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보다 많거나 적게 행할 자는 나의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아니하였고, 모래의 기초 위에 지어졌나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들에게 부딪칠 때에, 그들이 넘어질 것이요,ㄴ 지옥의 문이 열려 있어 그들을 맞으리라. 14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하사 너희에게 주라 하신 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킬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15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마의 유혹을 받고 그에게 사로잡혀 이끌려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16또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도한 것같이 너희도 내 교회 안에서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 받는 내 백성 가운데서 기도하라. 보라 나는 빛이니,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기도와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다

17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무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18"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이는 사탄이 너희를 밀같이 체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함이니라. 19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20또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주어지리라. 21항상 나의 이름으로 너희 가족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희의 아내와 너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

22"또 보라, 너희는 자주 함께 모일지며,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아무라도 너희에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들을 용납하여 너희에게로 오게 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23도리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쫓아 내지 말라. 또 만일 그들이 자주 너희에게로 오거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라.

24"그러므로 너희의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에 비취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치켜 들 빛이니—곧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그것이라,ㄷ 보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 것을 너희가 아나니 너희가 다 목격하였느니라. 25또 내가 명하여 너희 중 아무도 가버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명하여 너희로 하여금 내게로 와서, 만지며 보게 한 것을 너희가 아나니,ㄹ 그와 같이 너희도 세상에 대하여 행하라. 누구든지 이 계명을 깨뜨리는 자는 스스로 유혹에 들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시다

26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택하신 제자들을 다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27"보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또 한가지 계명을 주노라. 그러고 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다른 계명들을 이루어야 하리로다. 28또한 이제 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니, 곧 너희가 성찬을 베풀 때에, 나의 살과 피를 아무도 알면서도 합당하지 않게 취하지 못하게 하라. 29이는 누구든지 나의 살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마다 자기 영혼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심이라.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ㄱ11 모로나이서 5:2 포도주 기도문과 비교 ㄴ13 제3니파이 14:24~27 (마태복음 7:24~27) 참조; 11:40 비교 ㄷ24 제3니파이 12:14~16 ㄹ25 제3니파이 11:13~15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줄로 너희가 알거든 너희는 그를 금하라. 30그러나 그를 너희 중에서 쫓아 내지 말고, 그에게 성역을 베풀며 내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할지니, 만일 그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거든, 너희는 그를 받아들여 그에게 나의 살과 피를 베풀지니라.

31"그러나 만일 그가 회개하지 않거든 그로 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않게 하여, 그로 내 백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지니, 보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32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그를 너희의 회당이나, 너희의 예배하는 장소에서 쫓아 내지 말지니, 이는 그러한 자에게 너희가 계속하여 성역을 베풀어야 할 것임이니라. 이는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음의 뜻을 다하여 내게로 오므로, 내가 그들을 낫게 하지 않을지, 그리하여 너희가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방편이 되지 않을 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33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말을 지켜 너희가 정죄 아래 들지 않게 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정죄하시는 자에게 화가 있음이니라.

34"또 내가 이러한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 가운데 있은 논쟁으로 인함이니, 너희 가운데 논쟁이 없을진대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35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 가시다

36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그 손을 그 택하신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대시되, 저들 모두에게 손을 대시기까지 그리하시고, 저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셨느니라. 37그러나 그가 하신 말씀을 무리가 듣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증거하지 못하였으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성신을 줄 수 있는 권능을 저들에게 주셨다고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가 참됨을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ㄱ

38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저들 모두에게 손을 대시고 나자, 구름이 와서 무리를 덮으매 그들이 예수를 볼 수 없더라. 39그리고 그들이 덮여 있는 동안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보고 그가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음을 증거하였느니라.

처음보다 더 큰 무리가 함께 모이고 니파이$_3$가 제자들에게 침례를 주다

19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무리가 흩어져, 각 사람이 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2그리고 무리가 예수를 보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으며, 그가 또한 다음 날에도 무리에게 자기를 보이시리라는 사실이 아직 채 어둡기도 전에 즉시 백성들 가운데 널리 알려졌느니라.ㄴ 3참으로 또 그뿐 아니라 밤새 예수께 관하여 널리 알려졌으니, 그들이 백성들에게 보내기를 많이 한지라 많은 자들이, 참으로 심히 큰 수가 예수께서 무리에게 자기를 보이실 곳에 다음 날 가 있으려고 그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하였더라.

4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무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보라, 니파이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킨 디모데라ㄷ 이름하는 그의 아우와, 또한 요나라 이름하는

ㄱ37 제3니파이 26:17; 모로나이서 2:1~3 참조 ㄴ2 제3니파이 17:3 ㄷ4 제3니파이 7:19

그의 아들과 또한 매도나이와 그 형제 매도나이하와 쿠멘과 쿠메논하이와 예레미야와 셈논과 요나와 시드기야와 이사야—이제 이는 예수께서 택하신 제자들의 이름이더라—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나아가 무리 한가운데 섰느니라. 5또 보라, 무리가 심히 큰지라 저들은 그들을 열두 떼로 나뉘게 하더라. 6또 이 열둘이 무리를 가르쳤으니, 보라, 저들이 무리로 하여금 지면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였느니라. 7또 이 제자들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일어나서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더라. 8또 저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동일한 말씀을—예수께서 하신 말씀에서 조금도 벗어남이 없이—베푼 후에, 보라, 저들이 다시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였느니라. 9또 저들은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저들은 성신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였더라.

10또 저들이 이같이 기도하고 나서 물가로 내려가매 무리가 저들을 따랐더라. 1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물로 내려가 침례를 받았느니라. 12또 그가 물에서 올라와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여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 모두에게 침례를 주었느니라.[ㄱ] 1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다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매 성신이 저들 위에 내려오시니, 저들이 성신과 불로 충만하게 되었더라. 14또 보라 저들은 마치 불 같은 것에 둘러싸였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지라 무리가 이를 보고 증거하였으며, 또 천사들이 하늘로서 내려와 저들에게 성역을 베풀더라.

예수께서 니파이인들에게 두 번째 하신 설교

제3니파이 19:15~26:14

예수께서 돌아 오셔서 성령에 관해 기도하시다

15또 이렇게 되었나니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성역을 베풀고 있을 때에, 보라,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어 저들에게 성역을 베푸시더라. 16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명하사 땅에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또한 그의 제자들도 땅에 무릎을 꿇게 하시더라. 17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모두 땅에 무릎을 꿇고 나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하사 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더라. 18또 보라, 저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되, 저들이 예수께 기도하며, 그를 저들의 주요,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컫더라.

19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서 떠나 저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몸을 땅에 엎드리시고 이르시되,

20 "아버지여, 내가 택한 이 사람들에게 성신을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택하였음은
나를 믿는 저들의
믿음으로 인함이니이다.
21 아버지여, 비옵나니 저들의 말을 믿을
모든 자에게 성신을 주시옵소서.
22 아버지여, 저들이 나를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성신을 주셨사오며,

[ㄱ] 12 제3니파이 11:18~22

아버지께서 저들을 들으시며 저들이 내게 기도하는 고로,
저들이 나를 믿는 줄 아버지께서 아시나이다.
또 저들이 내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저들과 함께 있는 까닭이니이다.
23 또 이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비옵는 것은
저들과 또한 저들의 말을 믿을 모든 자를 위함이오니,
그들로 나를 믿게 하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같이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ㄱ]

열두 제자들이 변화되고 예수께서 정결케 됨에 관한 기도를 하시다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같이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보라, 저들이 아직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그에게 기도하는데, 저들에게 기도할 바를 주셨고, 또 저들은 소망으로 가득하였던지라, 많은 말을 더하지 아니하더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예수께 기도할 때 예수께서 저들을 축복하시더니, 이에 그 얼굴을 저들에게로 향하시고 미소하시니, 그의 얼굴빛이 저들에게 비취매, 보라, 저들이 예수의 얼굴과 또한 그 옷과 같이 희더라. 또 보라, 그 희기가 모든 흰 것보다 희었으니, 참으로 그 흰 것처럼 흰 것이 땅 위에 도무지 있을 수 없더라.[ㄴ] 26 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계속 기도하라" 하셨으나 저들이 기도하기를 그친 것은 아니었더라.
27 이에 다시 저들에게서 돌이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몸을 땅에 엎드리시고, 아버지께 다시 기도하여 이르시되,

28 "아버지여, 저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내가 택한 자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들과 또한 저들의 말을 믿을 자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도 저들이 내 안에서 정결하게 된 것같이
저들의 말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내 안에서 정결하게 되게
하시옵소서.
29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 신앙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오니,
그들로 내 안에서 정결하게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같이,
내가 그들 안에 있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사,
나로 그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시옵소서."[ㄷ]

30 이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시니, 보라, 저들이 그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저들을

[ㄱ] 23 이 구절은 요한복음 17:20~22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반영함 [ㄴ] 25 이 구절은 민수기 6:22~27의 성직자의 축복을 암시하는 것으로 추정 [ㄷ] 29 이 기도는 대략적으로 위 20~23절과 나란히 배열되며, 요한복음 17:6, 9~10 추가적으로 반영함

향하여 미소하시니, 보라, 저들이 참으로 예수와 같이 희더라. 31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다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으나, 32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혀로써 말할 수 없고,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사람이 기록할 수도 없도다. 33또 무리가 듣고 증거하니, 그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을 그들이 그 마음에 깨닫더라. 34그러할지라도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이 심히 크고 기이하였던지라, 사람이 기록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도다.

35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기도하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로 다시 오셔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이처럼 큰 신앙을 내가 모든 유대인 중에서 결코 보지 못하였노니, 그런고로 내가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처럼 큰 기적을 그들에게 보일 수 없었도다. 36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본 바 그처럼 큰 일을 그들 중에서 본 자가 없고, 너희의 들은 바 그처럼 큰 일을 그들이 듣지 못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찬을 다시 베푸시다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기도하기를 그치게 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리하셨더라. 또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의 마음으로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게 하셨느니라. 2또 그들에게 일어나 그들의 발로 설 것을 명하시매, 그들이 일어나서 그들의 발로 섰느니라. 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다시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먹게 하시더라. 4또 그들이 먹은 후에 그들에게 명하사 떡을 떼어, 무리에게 주라 하셨느니라. 5또 그들이 무리에게 주기를 다하매, 예수께서 또한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사 무리에게 주라 하셨느니라.

6이제 제자들이나 무리가 가져온 떡이나 포도주가 없었더라. 7그러나 예수께서 진실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시고, 또한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셨느니라. 8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떡을 먹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나의 몸을 먹는 것이요,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의 영혼이 결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충만하리라" 하시더라. 9이제 무리가 다 먹고 마신 후에, 보라, 그들이 영으로 충만하게 된지라, 한 목소리로 크게 외치며, 그들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한 예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께서 마지막날의 이방인과 리하이[1]의 자손에 대해 예언하시다

미가서 5:8~9; 4:12~13의 인용

해당 성경구절에 추가되거나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10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모두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으되, "보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인 이 백성에 관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그 계명을 마저 다 이루노라. 11너희는 내가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질 때라고 너희에게 말하며 이른 것을 기억하나니 ㄱ —보라, 그의 말이 기록되어 너희 앞에 있은즉, 그러므로 그것을 상고하라— 12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에게 세우신 성약이 이루어지리로다. 13또 지면에 널리 흩어질 남은 자들이 그때, 동에서와 서에서, 또 남에서와 북에서 모여들어, 그들을 구속하신 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지

ㄱ11 제3니파이 16:17~20

식에 이르게 되리라. 14또 아버지께서는 너희 기업으로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을 내게 명하셨느니라.ㄱ

15"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이 받게 될 축복 이후에, 그들이 내 백성을 흩은 후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16 **그때 야곱 집의** 한 남은 자인 **너희가**
그들ㄴ **중에 나아갈** 것인즉,
너희는 **수많은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너희가 그들 중에 있음은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건질 자가 없으리라.
17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리리니,
네 모든 원수가 끊어지리라.ㄷ

18 **또 내가 내 백성을 함께** 모으기를,
사람이 자기의 곡식 단을 타작 마당에 **모음같이** 하리라.
19 **이는 내가 아버지께서 더불어**
성약을 세우신 내 백성을,ㄹ
참으로 내가 네 뿔을 철이 되게 하며,
네 굽을 놋이 되게 할 것임이라.
또 네가 많은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인즉,
내가 그들의 소득을 성별하여 주께 드리고,
그들의 재물을 성별하여 온 땅의 주께 드리리라.
보라, 이를 행하는 자는 나이니라.ㅁ

20" '또 이렇게 되리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날에 나의 공의의 칼이 그들 위에 걸려 있으리니,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들 위에,' '참으로 이방의 모든 나라 위에 떨어지리라.' "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아버지의 성약을 설명하시면서 사도행전 3:22~26 인용하시다

해당 성경구절에 추가되거나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21"그리고 이렇게 되리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가 내 백성을 굳게 세우리로다. 22또 보라, 이 백성을 내가 이 땅에 세워 내가 너희 조상 야곱과ㅂ 세운 성약을 이루리니, 이 땅은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요, 하늘의 권능이 이 백성 가운데 있으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23**보라, 나는 모세가 일러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무엇이든지 그가 너희에게

ㄱ 14 제3니파이 16:16 ㄴ 16 미가 5:8 에서는 "이방인"로 나옴 ㄷ 17 16~17절은 미가 5:8~9를 인용함 ㄹ 19 미가 4:13에서는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로 나옴 ㅁ 19 18~19절은 미가 4:12~13 인용함 ㅂ 22 이는 곧, 성경에 나오는 야곱1

이르는 모든 일에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무릇 그 선지자를 듣지 아니하는 자마다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ㄱ 한 그이니라.'ㄴ

24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무엘로부터ㄷ 그 뒤를 따라 말한 모든 선지자들도 **내게**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ㄹ

25 **보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요**, 또 **아버지께서 너희**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성약에 속한 자라.ㅁ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ㅂ

26 **아버지께서 먼저 너희를 위하여 나를**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려고 **나를** 보내사 너희 모든 자로 하여금 각각 그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성약의 자손임으로 말미암음이라**—

27 "또 너희가 복을 받은 후에 그때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성약을 이루시리니, 이르시되,' 네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이라'—이에 나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성신을 부어 주시기에 이르리니, 이스라엘의 집이여,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복이 그들로 만인 위에 용사가 되게 하여 내 백성을 흩기에 이르리로다. 28 또 그들이 이 땅의 백성에게 채찍이 되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복음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때 만일 그들이 나를 대하여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진대, '내가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머리 위에 돌아가게 하리로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9 '그리고 내가 내 백성과 더불어 세운 성약을 기억하리니, 내가 그들과 성약하기를 나의 정한 때에 내가 그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의 조상들의 땅을 다시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도다. 이는 예루살렘 땅이니 영원히 그들에게 약속된 땅이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이사야서 52:8~10, 1~3, 6~7, 11~15 인용하시다

시온의 회복—고난 후에 높임받은 주의 종

해당 성경구절에 추가되거나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30 "또 이렇게 되리니 곧 내 복음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전파될 때가 이르면, 31 또 그들이 나를,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라.

32 **그때** 그들의 파수꾼들이 **그** 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합하여 그들이 노래하**리니**,
이는 그들의 눈과 눈이 마주 봄이로다.
33 **그때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시 함께 모으시고**,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ㅅ

ㄱ 23 사도행전 3:23에서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로 나옴; 제3니파이 21:11 참조 ㄴ 23 신명기 18:15, 18~19 참조; 니파이전서 22:20 ("끊어지리라"가 똑같이 쓰임); 앨마서 33:19 비교 ㄷ 24 이는 곧, 사무엘1, 구약에서 나온 선지자 ㄹ 24 사도행전 3:24에서는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로 나옴 ㅁ 25 이 성약은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성약을 의미함 ㅂ 25 창세기 22:18 참조; 니파이전서 15:18; 니파이전서 22:9 비교 ㅅ 33 이사야 52:8에서는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로 나옴

34 **그때 그들이** 기쁨을 발하리니—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께 노래하라.
이는 **아버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가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35 **아버지께서** 열방의 눈에
그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아버지의 구원을 보리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ㄱ

36**또 그때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리니**,

시온이여, 깰지어다. **다시** 깨어 네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37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시온의 딸아,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 버릴지어다.
38 이는 이같이 주께서 말씀하심이라,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스스로를 팔았으니,
너희가 돈 없이 속량되리라.'ㄴ

39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참으로 그 날에 그들은 내가 곧 말하는 그인 줄 알리로다.'ㄷ
40 **또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그들에게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 것이요,'ㄹ

41 **또 그때 한 외침이 나아가기를**,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가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갈지어다.

ㄱ35 제3니파이 11:27 참조; 32~35절은 이사야 52:8~10을 인용함; 예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임; 제3니파이 16:18~20 참조; 그 이전에 인용한 문구는 성경 문구와 일치했지만, 여기서는 해석상 변화가 있음; 예를 들어, 원래의 "주께서"는 전체적으로 "아버지께서"로 대체됨 ㄴ38 36~38절은 이사야 52:1~3을 인용함; 이사야 52:1~2은 니파이후서 8:24~25에서도 인용되었음 ㄷ39 이사야 52:6에서는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로 나옴 ㄹ40 39~40 절은 이사야 52:6~7을 인용함; 이사야 52:7는 모사이야서 12:21;15:14~15에서도 인용되었음

주의 기구를 메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
42 이는 주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후위가 되실 것이므로,
너희가 황급히 나가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43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그가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으며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44 많은 자들이 너를 보고 놀랐음 같이—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양이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45 그와 같이 그가 많은 나라에 뿌릴 것이며,ㄱ
열왕은 그로 인하여 자기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ㄴ

46"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정녕 이르리라. 그때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이 성약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때 예루살렘에 다시 내 백성이 거하게 되리니, 그 곳이 그들의 기업의 땅이 되리로다."

몰몬경은 이스라엘이 모이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사야 52:13~15의 한 가지 해석

21 "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표적을 주어,
이러한 일들이 바야흐로 일어나려 할 때를
너희로 알게 하노니—
곧 내가 그들의 오랜 분산에서 내 백성을 모아들여,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그들 가운데 내 시온을 다시 세울 때라.

2 또 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표적으로 주는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지금 너희에게 선포하고 있고,
또 이후로 나 스스로, 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성신의 권능으로
내가 너희에게 선포할 이러한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야곱 집의 한 남은 자인
이 백성에 관하여,

ㄱ45 "뿌리다"는 히브리어로 "놀라게 하다"나 "기이하게 하다"로 번역된 것으로 추정 ㄴ45 41~45절은 이사야 52:11~15 인용함

또 그들에 의하여 흩어지게 될
나의 이 백성에 관하여 알게 될 때에,
3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일들이 ㄱ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알려지고,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너희에게로 나아올 때에,
4 이는 그들이 이 땅에 세워져
아버지의 권능으로 자유로운 백성이 되어,
이러한 일들이 그들에게서
너희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로 나아와,
이스라엘의 집이여,
아버지께서 그의 백성과 맺으신 바 곧
그의 성약이 이루어지게 함은
아버지 안에 있는 지혜임이라.

5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과 이후에
너희 중에 이루어질 일들이 이방인들에게서,
죄악으로 인하여 믿지 않음에
빠져들 너희 자손에게로 나아올 때에,
6 이는 아버지께서 이같이 하사
그 일이 이방인들에게서 나아오는 것이 마땅함이요,
이리하여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에게
그의 권능을 보이고자 하심은 이 까닭이니,
곧 이방인들로 하여금 만일 저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아니할 것 같으면,
저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의 교리의 참된 요점을 알게 하여,
이스라엘의 집이여,
저들로 내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7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네 자손이 이러한 일들을 알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저들에게 표적이 되리니,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백성들에게
세우신 성약을 이루시기 위한 아버지의 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저들이 알리로다.

8 또 그 날이 이르면,

‘열왕이 입을 봉하게 되리니,

ㄱ 3 이는 곧, 몰몬경에 나오는 니파이인들의 기록

이는 그들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듣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임이니라.'ㄱ

9"이는 그 날에, 나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한 일을 행하실 것임이니, 그 일이 그들
중에서 크고 기이한 일일 터이므로, 사람이ㄴ 이를 그들에게 선포할지라도, 그들 중에
이를 믿지 아니할 자들이 있으리라. 10그러나 보라, 내 종의 생명은 나의 손 안에 있
으리니, 그러므로 비록 그들로 인하여 그가 상함을 입을지라도, 그들이 그를 해하지
못할 것이라.ㄷ 또 내가 그를 낫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지혜가 악마의 간계보다 큼을
내가 그들에게 보일 것임이라.
11"그러므로 이렇게 되리니 누구든지 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 곧 아버지께서 그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가져다 주게 하시며 그에게 능력을 주사 이방인들에게 가져다ㄹ
주게 하실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모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들은 성
약의 백성인 내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예수께서 미가서 5:8~15 인용하시다

주께서 야곱1의 남은 자들과 함께 싸워주시리라

해당 성경구절에 추가되거나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12 **또** 야곱의 남은 자인 **나의 백성은**
이방인들 중에 있으리니,
참으로 그들 가운데 있음이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건질 자가 없으리라.
13 **그들의** 손이 **그들의** 대적들 위에 들리리니,
그들의 모든 원수가 끊어지리라.ㅁ
14 **참으로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이방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그 날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 군마를 너희 중에서 끊을 것이며
너희 병거들을 부술 것이요,
15 또 내가 네 땅의 성읍들을 끊어 버리며,
너의 모든 요새를 헐어내릴 것이요,
16 또 내가 마술을 너의 **땅**에서 끊어 버리리니,
네게 점쟁이가 다시는 없게 될 것이요,
17 너의 새긴 우상과 너의 주상을
내가 너의 가운데서 끊어 버리**리니**,
네가 다시는 네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지 아니할 것이요,
18 또 내가 너의 숲을 너의 가운데서 뽑아 버리고,
그와 같이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임이니라.'
19 **또 모든 거짓말과 속임과 시기함과**

ㄱ18 이사야 52:15 참조; 위 제3니파이 20:45 비교 ㄴ9 조셉 스미스 2세 ㄷ10 이사야 52:13~14; 제3니파이 20:43~44 비교 ㄹ11 이는 곧, 몰몬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 ㅁ13 미가 5:8~9 제3니파이 20:16~17 에서도 인용됨

다툼과 사제술과 음행이
없어지게 되리라.
20 **'이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 날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로 오지 아니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집이여, 그들을 내가 내 백성 중에서 끊어 버릴 것임이라.
21 또 내가, 참으로 이방인에게 함같이,
그들에게 보복과 분노로 갚으리니,ㄱ
그 같은 것을 그들이 듣지 못하던 것일 것이라.' "

마지막날의 의로운 이방인들

22"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할 진대, 내가 그들 중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그들은 성약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이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준 이 야곱의 남은 자들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으리라. 23또 그들은 내 백성, 곧 야곱의 남은 자들과 또한 이스라엘 집에 속한 자로서 오게 될 모든 자를 도와, 그들로 새 예루살렘이라 일컬어질 한 성을 세우게 할 것이라. 24또 그때 그들은 나의 백성을 도와 온 지면에 흩어진 그들을 모여들게 하리니, 곧 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할 것이라. 25또 그때 하늘의 권능이 그들 중에 내려올 것이요, 나도 또한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

26"또 그때 아버지의 일이 그 날에 시작되리니, 곧 이 백성의 남은 자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파될 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날에 아버지의 일이, 흩어진 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참으로 아버지께서 예루살렘에서 인도해 내셨던 잃어버린 지파들 가운데서 시작되리라. 27참으로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이 흩어진 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시작되어, 그들이 내게로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사, 그들로 하여금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리라. 28참으로 또한 그때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이 시작되어,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의 백성이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 모일 길을 예비하시리라. 29이에 그들이 모든 나라에서 '나아가려니와,'ㄴ

'**그들이** 황급히 나가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앞에 행하며'
'**내가** 그들의 후위가 될 것임이니라.' "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느니라.ㄷ

예수께서 이사야서 54:1~17 인용하시다

이스라엘게 약속된 안녕과 회복

해당 성경구절에 추가되거나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22 "또 그때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리라.

ㄱ21 미가 5:15에서는 "진노와 분노로 ... 갚으리라"로 나옴 ㄴ29 이사야 52:11; 제3니파이 20:41 비교; 예수께서 위 1~11절에서 시작하신 이사야 52장에 대한 해석이 여기에서 다시 계속됨 ㄷ29 이사야 52:12에 추가되거나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제3니파이 20:42 비교

잉태하지 못하여 생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를 발하며,
크게 외칠지어다.
황무한 자의 자식이 결혼한 여인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 네 장막의 터를 넓히며,
그들로 네 처소의 휘장을 널리 펴게 하되,
아끼지 말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3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질 것이며,
네 자손은 열방을 기업으로 얻고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사는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4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너는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에 놓이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는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네 청년 때의 치욕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며,[ㄱ]
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5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며,
네 구속주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임이니라.
6 이는 네가 버려졌을 때 주께서 너를 부르시기를,
마치 버림받아 마음이 비통하게 된 여인,
곧 청년 때의 아내를 부르심같이 하셨음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7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너를 모을 것이라.
8 내가 작은 진노로 잠깐 내 얼굴을 네게서 가리웠으나,
영원한 친절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주 네 구속주의 말이니라.

9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으니,
이는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에
범람하지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다시는 네게 노하지 않기로 맹세하였음이니라.[ㄴ]
10 산들은 떠나고 작은 산들은 옮기울지라도,
나의 친절함은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성약은 옮기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ㄱ] 4 이 줄은 몰몬경 영어 원문에서도, 1830년 출판물에서도 나오지 않으나 1837년 출판물 서식에서 실수로 중복 삽입된 것으로 추정 [ㄴ] 9 예수께서 이사야 54:9의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를 누락하심

11 너 고난을 받고 광풍에 요동하고도
위로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을 놓으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놓으리라.
12 또 홍보석으로 네 창문을 지으며,
석류석[ㄱ] 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모든 변경을 보석으로 꾸밀 것이니라.
13 그리고 네 모든 자녀는 주의 가르침을 받을 것인즉,
네 자녀의 평안이 심히 클 것이니라.
14 너는 의로 설 것이라. 너는 학대로부터 멀어지리니,
이는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임이며,
공포로부터도 네가 멀어지리니
이는 그것이 네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임이라.

15 보라, 그들이 정녕 함께 모여 **너를 대적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서 너를 대적하는 자는
너로 인하여 패망하리로다.
16 보라, 불 가운데 숯불을 불어
자기가 쓸 만한 기구를 만들어 내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는 진멸자도 내가 지었느니라.
17 무릇 너를 치려고 만들어진 무기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요,
무릇 재판 때에 너를 대하여
욕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주의 종들의 기업이요,
그들의 의는 내게서 말미암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23 "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마땅히 이 일을 상고하여야 하느니라. 참으로 한 가지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이 일을 부지런히 상고하라. 이는 이사야의 말이 위대함이라. 2이는 정녕 그가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내 백성에 관한 모든 일에 대하여 말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불가불 이방인에게도 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3또 그가 말한 모든 것이 그가 한 말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리로다.

4"그러므로 내 말에 주의를 기울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들을 기록하라. 아버지의 때와 뜻을 좇아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리라. 5또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지자들을 상고하라. 이러한 것을 증거하는 이가 많음이니라."

[ㄱ]12 보석의 한 종류

예수께서 니파이인들의 기록을 보충하시다

6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들이 받은 모든 경전을 그들에게 설명하신 후, 그들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너희가 갖고 있지 아니한 다른 경전을 너희가 기록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시더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니파이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기록하여 온 그 기록을 가져오라" 하시더라.

8 이에 니파이가 기록을 가져와 그의 앞에 놓으매, 예수께서 눈길을 던져 그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9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의 종 레이맨인 사무엘에게 명하여, 아버지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날에 많은 성도들이 있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보이며 그들에게 성역을 베풀 것을 이 백성에게 증거하게 하였느니라" ㄱ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더라.

10 이에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의 말씀대로 사무엘은 예언하였고, 그가 예언한 것은 다 이루어졌나이다."

11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 그들에게 성역을 베푼 이 일을 기록하지 아니하였음은 어찜이냐" 하시더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가 이 일이 기록되지 아니한 것을 기억하더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명하사 이를 기록하게 하시매, 그러므로 그가 명하신 대로 이 일이 기록되었느니라. ㄴ

예수께서 말라기 3장 인용하시다

성약의 사자—십일조와 헌금—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는 사람은 살려 주실 것이다

해당 성경구절에 추가되거나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14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들이 기록한 모든 경전을 하나로 설명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분부하사 그가 그들에게 설명하신 것을 가르치게 하시더라.

2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바, 곧 아버지께서 말라기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말씀이 기록된 후에 예수께서 그를 그들에게 설명하셨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라기에게 말씀하셨느니라—

>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의 기뻐하는 바 성약의 사자라, 보라, 저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
> 2 그러나 그의 오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는 그가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음이라. 3 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연단하여, 그들로 의로운 가운데 헌물을 주께 바치게

ㄱ 9 힐라맨서 14:25 참조; 마태복음 27:52~53 비교 ㄴ 13 사무엘$_2$의 예언 이행 기록은 몰몬경의 다른 곳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그 예언 자체는 힐라맨서 14:25에 삽입되었던 것으로 보임

하리라. [4]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이전 시대와 같이 주께 기쁨이 되리라.

[5]'또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이르러 심판할 것인즉, 내가 마술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군을 그 삯으로 압제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6]'대저 나는 주라, 나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자손들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7]실로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율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리요' 하도다.

[8]'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9]너희 곧 이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한 저주로 저주를 받았느니라. [10]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너희는 모든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이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을 너희에게 열고, '너희에게 복을 받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11]'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삼키는 자를 꾸짖으리니, 그가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밭에** 있는 너희의 포도나무도 기한 전에 그 실과를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12]'또 너희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13]주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주 앞에서 우리가 그의 **율례를** 지킨 것과 우리가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한고**? [15]또한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참으로 간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건짐을 입는다 하노라' 함이니라.

[16]그때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자주 서로 말하매,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셨고, 주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주 앞에서 기억의 책이 기록되었느니라.

[17]이에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보석을 모으는 그 날에,' '그들은 나의 것이 되리니,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18]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수께서 말라기 4장 인용하시다

심판과 성약이 재개

해당 성경구절에 추가되거나 다른 표현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25 '이는 보라, 가마솥같이 타는 날이 이를 것임이니, 모든 교만한 자와, 또한 모든 간악히 행하는 자들이 다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2]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아들이** 그 날개에 치료함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의** 송아지같이 자라날 것이라.' [3]'또 너희가 악인을 밟으리니, 이는 내가 이를 행하는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이르노라.

[4]'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바, 곧 모세의 율법을 율례와 법도와 함께 기억하라.'

[5]'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6]이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

예수께서 모든 것을 설명하시다

26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를 무리에게 설명하시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셨느니라. [2]또 이르시되, "너희가 갖지 아니하였던 이 경전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라고 내게 명하셨나니,ㄱ 이는 장래 세대에게 이를 주는 것이 아버지 안에 있는 지혜였음이니라" 하시니라.

[3]또 태초로부터 예수께서 자기의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일—곧 실로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고, 땅이 두루마리처럼 말리우며,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참으로 땅 위에 임할 모든 일을 설명하셨으니, [4]곧 모든 백성과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와 방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또는 악하든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받게 될 큰 마지막 날까지라— [5]만일 그 행위가 의로우면 영생의 부활로, 만일 그 행위가 악하면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니,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비와, 공의와, 거룩함을 좇아, 하나는 이 편에 다른 하나는 저 편에 있어 서로 대응하느니라.

ㄱ2 작은 판에 나오는 말라기 4:1~2의 이 구절들은 니파이전서 19:11~17에서 그들을 "선지자"로 부르는 탓에 (니파이전서 19:11~17에서 역시 "선지자"로 불리던) 지노스의 기록에도 있었을지도 모름; 니파이전서 22:15, 23~24; 니파이후서 25:13; 26:4, 6, 9 참조 ㄴ5 4~5절의 표현들이 모사이야서 16:10~11과 잘 들어맞음

몰몬$_2$이 주님의 말씀을 전부 전하려고 하였으나 주께서 금하시다

6 이제 예수께서 진실로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을 백분의 일도 이 책에 기록할 수 없으나, 7 보라 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의 대부분이 니파이의 판에 실려 있도다. 8 이에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의 적은 부분인 이것을 내가 기록하였노니, 내가 이를 기록하였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러한 것이 이방인들에게서 이 백성에게로 다시 전해지게 하려 함이라. ㄱ

9 또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들이 먼저 받을 필요가 있는 이것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러한 것을 믿을진대 더 큰 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실 것이로다. 10 그들이 이러한 것을 믿지 아니할진대, 더 큰 것들을 그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정죄 받게 되리라.

11 보라, 내가 니파이의 판에 새겨진 것을 모두 기록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금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의 신앙을 시험하리로다" 하신지라. 12 그러므로 나 몰몬은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들을 기록하노니, 이제 나 몰몬은 나의 말을 마치고 내게 명하신 것을 계속하여 기록하노라.

13 그러므로 나는 주께서 진실로 삼 일 동안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그 후에 자주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자주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주셨음을 너희가 알기 바라노라. ㄴ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앞서 말한 무리의 자녀들에게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성역을 베푸시고, 그들의 혀를 풀어 주시매, 그들이 그 아버지들에게 크고 기이한 일들을 말하니, 참으로 예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것보다 더욱 큰 일들이라. 예수께서 그들의 혀를 풀어 그들로 말할 수 있게 하셨더라.

예수께서 떠나시고 다음 날에 유아들이 말하며 제자들이 침례를 주다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두 번째로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그들의 병든 자와, 그들의 저는 자를 다 고치시며, 그들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못 듣는 자의 귀를 듣게 하시며, 온갖 치료를 그들 중에 행하시며, 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며, ㄷ 그들에게 자기의 권능을 보이시고 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에— 16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무리가 함께 모여, 이 어린아이들을 보고 들었으며, 참으로 유아들까지 그 입을 열어 기이한 일을 말하였으되, 아무도 그 말한 것을 기록하지 못하도록 금하셨더라. ㄹ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무릇 그들에게로 나아오는 자들에게 다 침례를 베풀며 가르치니,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니라. 18 또 그들 중 많은 자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으나, 그러한 것들을 기록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도다. 19 또 그들은 서로 가르치며, 성역을 베풀었고, 또 그들 중에 모든 것을 공유하며, 각 사람이 서로 의롭게 대하였더라.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범사를 행하였더라. 21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라 일컬어졌더라.

ㄱ 8 제3니파이 21:2~7 ㄴ 13 여기에 나오는 연대기는 복잡하게 구성됨: 13절은 3일 동안과 그 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요약하고, 14절은 3일째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보여주고, 15절은 2일째의 사건들로 되돌아가고, 16절은 3일째를 묘사함 ㄷ 15 이와 비슷한 목록들은 모사이야서 3:5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도 나오고 제4니파이 1:5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기록에도 나옴; 이사야 35:4~5 비교 ㄹ 16 여기서 우리는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셨을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몰몬$_2$은 그것에 대한 정보를 보류함. 그 대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열두 제자에게 방문하신 이야기를 삽입함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

제3니파이 27:1~28:12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그의 교회 이름을 지으시다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의 제자들이 여행하며 그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이렇게 되었나니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였더라. [2]이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시니, 이는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었음이라. 이에 예수께서 오사 그들 가운데 서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3]이에 그들이 예수께 아뢰기를, "주여, 우리가 이 교회를 일컬을 이름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는 이 문제에 관하여서 백성 중에 논쟁이 있음이니이다."

[4]이에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불평하며 논쟁함은 어찜이냐? [5]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 ㄱ 곧 나의 이름을 받들어야 한다 말하는 경전을 그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6]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받들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는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7]"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행하든지 내 이름으로 행할지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를 내 이름으로 칭할지며, 또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나로 인하여 교회에 복을 주시리라. [8]내 이름으로 일컫지 아니할진대 어찌 나의 교회이겠느냐? 만일 어떠한 교회가 모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모세의 교회일 것이요, 만일 교회가 어떠한 자의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어떠한 자의 교회일 것이라. 그러나 만일 교회가 내 이름으로 일컬어질진대 그것은 내 교회니, 만일 그들이 내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그러하리로다. ㄴ

[9]"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 복음 위에 세워졌은즉,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일컫는 것을 내 이름으로 일컬을지니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를 부르면 내 이름으로 그리할진대 아버지께서 너희를 들으시리라. [10]또 만일 교회가 나의 복음 위에 세워졌으면 아버지께서 거기에 자기의 일을 보이실 것이리라. [11]그러나 만일 나의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아니하고, 사람의 역사나, 악마의 역사 위에 세워졌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잠시 자기의 일에 기쁨을 누리나, 차차 마지막이 이르매, 찍혀 불에 던져지나니, 그 곳에서는 다시 돌아옴이 없느니라. [12]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름이니, 이는 그들이 찍히는 것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를 기억하라."

ㄱ 5 예를 들면, 니파이후서 31:13; 모사이야서 5:8~9; 25:23 ㄴ 8 여기와 9~11절의 "내 복음 위에 세워짐"이라는 문구는 반석 위에 지어짐의 비유를 반영함; 3니파이 11:39~40, 14:24~27 (마태복음 7:24~27), 18:12~13 참조. 니파이후서 28:28; 마태복음 16:18 비교

예수그리스도의 복음[ㄱ]

13"보라 내가 내 복음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음이니라—곧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므로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 14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또 내가 십자가 위에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내가 사람들에게 들렸던 것같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들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그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5이로 인하여 내가 들리웠으니, 그러므로 아버지의 권능을 좇아 내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하리라.

16"또 이렇게 되리니 곧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충만하게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끝까지 견디면,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설 그 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죄 없다 할 것이라.[ㄴ] 17그리고 끝까지 견디지 아니하는 자, 그는 또한 찍혀 불에 던져지는 자니, 아버지의 공의로 인하여 그들이 그 곳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느니라.

18"또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로 인하여 그는 주신 말씀을 이루시나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말씀을 이루시느니라. 19또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나니,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함과 끝까지 충실함으로 인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빤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20이제 그 계명은 이것이라,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 없이 서도록 하라.

21"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나의 복음이니라. 또 너희는 나의 교회 안에서 너희가 행하여야 할 일을 알고 있나니, 이는 너희가 본 바, 나의 하는 일 그것을 너희도 하여야 할 것임이니라. 이는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것, 곧 그것을 너희가 행하여야 할 것임이니라. 22그러므로 너희가 이를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너희가 들리울 것임이라."

기록과 심판

23"금한 것 외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ㄷ] 24지금까지 있어온 일에 대해 기록되어 온 것같이, 장차 있을 이 백성의 일을 기록하라. 25이는 보라, 이제까지 기록되어 왔고 또 앞으로 기록될 책들로부터 이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임이니, 그 책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겠음이라. 26또 보라, 만사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기록되나니, 그러므로 기록될 책으로부터 세상이 심판을 받으리라. 27또 내가 너희에게 줄 공의로운 심판을 좇아 너희가 이 백성을 심판하는 자가 될 줄을 너희는 알라.[ㄹ] 그런즉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

[ㄱ]13 이 부분은 "내/나의 복음"으로 시작되고 끝나면서 내용을 구분짓는 문학장치(inclusio)로 볼 수 있음; "그리스도의 교리"에 대한 비슷한 정의들이 니파이후서 31:1~21과 제3니파이 11:31~41에서 나옴 [ㄴ]16 출애굽기 20:7에서 언급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도 끝까지 견디지 않는 것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하나의 방식임을 암시함 [ㄷ]23 제3니파이 26:11, 16, 18 [ㄹ]27 니파이전서 12:8~10; 몰몬서 3:19 참조

약속과 격려

28 "또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거니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너희에게 주시리라. 29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가
받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임이니라. ㄱ
30 "또 이제, 보라, 너희와 또한 이 세대로 인하여 나의 기쁨이 크니, 곧 충만하기까
지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이 세대로 인하여 참으로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시며, 또한
모든 거룩한 천사들도 그리하나니, 이는 그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음이니
라. 31 보라, 나는 너희가 깨닫기 바라노니, 이는 내가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살아 있는
그들을 뜻함이라. 그들 가운데 아무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그들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충만하도다. 32 그러나 보라, 이 세대로부터 넷째 세대로 인하여 내가 슬퍼하노니, 이는
그들이 멸망의 아들같이 그에게 사로잡혀 이끌려 감이라. ㄴ 이는 그들이 은과 금 및
좀이 해하며 도적이 뚫고 들어와 도적질해 갈 것을 받고 나를 팔 것임이니, ㄷ 그 날에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여 그들의 행위를 그들의 머리 위에 돌리리라."
3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좁
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이를 발견하는
이가 적되,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행하는 자가 많아, ㄹ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까지 그리로 행함이니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떠나시다

2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한
명씩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너희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2 이에 그들이 셋을 제외하고는 모두 말씀드려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수명에 이
르도록 산 후에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바, 우리의 봉사의 직무가 끝나고, 우리가
속히 주께로 주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던지라.
3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이 일을 원하였으매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칠십이 세가 된 후에는 내게로 내 나라에 와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리로다" 하시더라.
4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세 사람에게로 몸을 돌이키시고 저들에게 이르시
되,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시더라.
5 이에 저들이 그 마음에 근심하거늘, 이는 저들이 그 원하는 바를 감히 그에게 이야기
하지 못함이라.
6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아노니, 너희는 내
가 유대인들에게 들리기 전 나의 성역 때에 나와 함께 하던 내 사랑하는 요한이 내게
원하던 것을 원하였도다. ㅁ 7 그러므로 너희에게 더욱 복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내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나의 영광 중에 올 때, 곧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사람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일을 보게 될 것임이니라. 8 또 너희는 결코 사망의 고통을 감내하게 되지 아니

ㄱ 29 제3니파이 14:7~8 (마태복음 7:7~8) ㄴ 32 이스가리옷 유다로 추정; 요한복음 17:12 참조 ㄷ 32 제3니파이 13:19 (마태복음 6:19) ㄹ 33 제3니파이 14:13~14; 마태복음 7:13~14 비교; 13절의 내용은 14절의 삽입으로 분리되어 있고 14절 뒤에 요한복음 9:4 내용이 이어짐 ㅁ 6 요한복음 21:20~24 참조

할 것이요, 내가 내 영광 중에 올 때에 너희는 눈 깜박할 사이에 죽어야 하는 것에서 죽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그 후에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복되리로다. [9]그리고 또 너희가 육체로 거하는 동안 세상의 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고통이나 슬픔을 겪지 아니하리니,

"이 모두를 내가 행할 것은 너희가 내게 원한 일로 인함이라. 이는 너희가 세상이 있는 동안 사람의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기 원하였음이라. [10]이로 인하여 너희가 충만한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너희가 내 아버지 나라에 앉으리니, 참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충만한 기쁨을 주신 것같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또 너희는 나와 같이 되겠고, 나는 아버지와 같으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11]또 성신은 아버지와 나를 증거하시나니, 아버지께서는 나로 인하여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신을 주시느니라" 하시니라.

[12]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머물게 될 셋을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를 그의 손가락으로 건드리시고 떠나시더라.

세 제자에 대한 몰몬$_2$의 설명 ㄱ

[13]이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들이 하늘로 붙들려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들었느니라.ㄴ [14]이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셨고, 그들이 그 보고 들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도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더라. [15]또 그들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들이 말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마치 그들의 변형처럼, 곧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이 육의 몸에서 죽지 아니하는 상태로 변화된 것으로 보였음이라. [16]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다시 땅 위에서 성역을 베풀되, 하늘에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으로 인하여 그 보고 들은 것은 베풀지 아니하였더라.

[17]또 이제 그들이 그들의 변형의 날로부터, 죽을 몸으로 있는 것인지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있는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18]주어진 기록에 의하여 이만큼 내가 아노니—그들이 지면에 나아가서 모든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어, 그들의 가르침을 믿으려 하는 자들을 모두 교회에 연합하게 하며,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으니 침례를 받은 자들은 모두 성신을 받았더라.

[19]또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들을 옥에 던져 넣었으나, 옥이 둘로 갈라지매 옥이 그들을 붙들 수 없었더라. [20]또 그들이 땅 속에 던지웠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을 친즉, 그의 권능으로 깊은 땅에서 건져 내심을 입은지라, 그러므로 그들을 붙들어 두기에 족할 만큼 구덩이를 팔 수도 없었느니라. [21]그리고 세 번 그들이 풀무에 던지웠으나 해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22]또 두 번 그들이 들짐승의 굴에 던지웠으나, 보라, 그들이 짐승들과 장난하기를 어린아이가 젖먹는 어린 양과 장난함같이 하고, 아무 해를 받지 아니하였느니라.ㄷ

[23]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들이 모든 니파이 백성 가운데 나아가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매, 그들이 주께로 돌이켜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하였고, 그리하여 예수의 말씀대로 그 세대의 백성들이 복을 받으니라.ㄹ

ㄱ13 이 사람들은 보통 "세 니파이인들"로 언급되는데 몰몬경에는 그 용어가 한번도 나온 적이 없고 "세 제자"(제$_4$니파이 1:37; 이더서 12:17)로 통칭되어서 그들 중에는 민족적으로 레이맨인 제자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ㄴ13 고린도후서 12:2-4 비교 ㄷ22 이 사건들은 +210년과 +230년 사이에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 제4니파이 1:29~33에서 이것과 나란히 배열된 구절 참조 ㄹ23 제3니파이 27:30~31 참조

24 이제 나 몰몬은 잠시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기를 마치노라. 25 보라, 내가 죽음을
결코 맛보지 아니할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려 하였으나, 주께서 금하셨느니라. 그러
므로 내가 이를 기록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들이 세상에서 감취었음이라. 26 그러나
보라, 나는 그들을 보았고 그들은 내게 성역을 베풀었도다. ㄱ
27 또한 보라 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려니와, 이방인들이 그들을 알지 못할
것이라. 28 그들이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있으려니와, 유대인들이 그들을 알지 못하리
로다. 29 또 이렇게 되리니 주께서 그 지혜로 합당하게 여기시는 때에, 그들이 흩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성역을 베풀
어 그들 중에서 많은 영혼을 예수께 데려오리니, 이는 그들의 소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며, 또한 그들 안에 있는 바, 확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
라. 30 또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아서, 만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누구에게든지 그들이 좋게 여기는 사람에게 자기를 보일 수 있으리라. 31 그러므로 만
백성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 하는 저 큰 날이 이르기 전에, 그들로
말미암아 크고 기이한 일들이 행하여지리라. 32 참으로 저 심판의 날 이전에, 그들로
말미암아 크고 기이한 일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여지리니,
33 만일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모든 기이한 일을 진술하는 모든 경전이 있다면, 너
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러한 일들이 기필코 반드시 이룰 것임을 알리로다. 34 또
예수의 말씀과 또한 그가 택하사 그들 가운데 보내신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과 그가 보내신 자들의 말을 받아들이
지 아니하는 자는 곧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가 마지막 날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35 또 그들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
에게 더 좋았으리니, 너희는 구원을 이르게 하려고 사람의 발 아래 밟히셨던 진노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너희가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36 또 이제 보라, 주께서 택하신 자들, 곧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던 세 사람에 관하여
내가 말하기를, 그들이 죽어야 할 몸에서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정결하게 되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하였으나— 37 보라, 내가 기록한 이후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내게 밝히 알려주시기를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
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은즉, 38 그러므로 그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그들의 몸에
변화가 이루어져, 세상의 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들이 고통이나 슬픔을 겪지 않게
되었도다.
39 이제 이 변화가 마지막 날에 있을 변화와 같은 것은 아니나, 그들에게 한 가지 변
화가 이루어져, 그 결과 사탄이 그들에게 권능을 미칠 수 없게 되어, 그들을 유혹할 수
없으며, 또 그들은 육체로 있으면서 성결하게 된지라, 거룩하며, 땅의 권세가 그들을
붙잡지 못하리라. 40 그리고 이 상태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날까지 머물러 있다가,
그 날에 더 큰 변화를 받고, 아버지의 나라에 영접되어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고, 하늘
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이라 하셨느니라.

ㄱ 26 몰몬서 8:10~11 참조

몰몬경은 성약 성취의 신호 ㄱ

29 그리고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께서 그 지혜로 합당하게 여기사 이 말씀들이 그의 말씀대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게 될 때에, 그때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세우신 바, 그들을 그들 기업의 땅으로 회복하실 것에 관한 성약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줄 알지니라.ㄴ [2]또 너희는 거룩한 선지자들로 하신 주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줄 알지니, 너희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오심을 늦추신다고 말할 필요가 없음이라.ㄷ [3]또 하신 말씀이 헛되다고 너희 마음에 생각할 필요가 없으리니, 이는 보라, 주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속한 그의 백성에게 세우신 그의 성약을 기억하실 것임이라.

[4]또 이 말씀들이 너희 가운데에 나아옴을 볼 때에, 그때 너희는 더 이상 주의 행하심을 경멸히 여기지 말지니, 이는 그의 공의의 칼이 그의 오른손에 있어, 보라, 그 날에 너희가 그의 행하심을 경멸할진대 그것으로 속히 너희에게 닥치게 하실 것임이니라. [5]주의 행하심을 경멸하는 자에게 화 있도다. 참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일을 부인할 자에게 화 있도다! [6]참으로 주의 계시를 부인하며, 주께서 더 이상 계시로나 예언으로나 은사로나 방언으로나 병 고침으로나 성신의 권능으로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할 자에게 화 있도다! [7]또한 그 날에 이득을 얻고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기적이 있을 수 없다 할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이같이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자비를 얻지 못하는 멸망의 자식처럼 될 것임이라!ㄹ

[8]참으로 또한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 중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는 비웃거나 경멸하거나 조롱하지 말지니, 이는 보라, 주께서는 그들에게 세우신 바 자기의 성약을 기억하심이요, 그 맹세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주실 것임이니라. [9]그러므로 너희는 주의 오른손을 왼쪽으로 돌려, 그로 이스라엘의 집에 세우신 성약을 이루시기 위한 심판을 행하시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지니라.

몰몬$_2$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

30 너희 이방인들아, 귀를 기울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그가 내게 명하사 나로 너희에 관하여 말하게 하신 것이니, 이는 보라 그가 내게 명하사 나로 기록하게 하심이라 이르시되,

> [2]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너희의 악행과 너희의 거짓말과 속임과 또 너희의 음행과 또 너희의 은밀한 가증함과 또 너희의 우상 숭배와 또 너희의 살인과 또 너희의 사제술과 또 너희의 시기함과 또 너희의 다툼과 또 너희의 모든 악함과 가증함을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너희의 죄 사함을 얻고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어, 이스라엘 집에 속한 내 백성과 함께 헤아림을 받도록 하라 하셨느니라.

ㄱ1 이 부분은 히브리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교차 배열로 되어있음: 이스라엘과의 성약이 이루어짐 (1절, 9절), 주님이 그의 성약을 기억하심 (3절, 8절), "더 이상 ... 경멸히 여기지 말라" (4절, 8절), 그 배열의 축에 "화 있다 하심"이 4번 나옴 (5절~7절); 이와 비슷한 양식은 몰몬경에서 자주 볼 수 있음 ㄴ1 제3니파이 21:2~4, 7, 26~28 참조; 제3니파이 23:4; 26:8 비교 ㄷ2 제3니파이의 내용은 주제에 의해 구분되는 문학장치(inclusio)로써 제3니파이 1:4~9에서 그리스도가 처음 오시는 시기에 대한 의심과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 및 여부에 대한 의심으로 그 틀이 갖추어짐; 두 경우 모두 이러한 예언이나 사람들의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줌; 제3니파이 1:6, 8; 29:3 참조 ㄹ7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나 제3니파이 27:32 참조

제4니파이
니파이서

니파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인 니파이의 아들이라

그의 기록에 따른 니파이 백성의 기사.[ㄱ]

새로운 사회

1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십사년이[ㄴ] 지나가고, 또 제삼십오년도[ㄷ] 지나가매,보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변의 온 땅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고, 그들에게로 와서, 자기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는 자는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한 성신을 받았느니라. 2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십육년에는[ㄹ] 니파이인이나 레이맨인이나를 막론하고 온 땅의 백성이 모두 주께로 돌이켰고, 저들 중에 다툼이나 논쟁이 없었으며, 사람마다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3또 저들은 저들 가운데 모든 것을 공유하였나니, 그러므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이 저들이 모두 자유롭고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더라.

4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십칠년이[ㅁ] 지나갔으되 땅에는 여전히 평화가 계속되었더라. 5또 예수의 제자들은 크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일으키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며, 맹인으로 그 시력을 얻게 하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며,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온갖 기적을 행하되,[ㅂ] 다름 아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들이 기적을 행하였느니라.

6이에 이같이 제삼십팔년이[ㅅ] 지나가고 또한 제삼십구년과[ㅇ] 제사십일년과 제사십이년이[ㅉ] 지나가며, 참으로 사십구 년이[ㅃ] 지나가기에 이르고 또한 제오십일년과[ㅆ] 제오십이년이[ㅉ] 지나가서, 참으로 오십구 년이[ㅊ] 지나가기에 이르렀더라. 7또 주께서는 저들을 땅에서 심히 번영하게 하신지라, 참으로 저들이 불탄 성읍들이 있던 곳에 다시 성읍들을 세웠더라. 8참으로 저 큰 성 제이라헤믈라를 저들이 다시 건축되게 하였더라.[ㅋ] 9그러나 많은 성읍이 가라앉아, 물이 그 대신에 올라왔으므로, 이러한 성읍들은 새롭게 할 수 없었더라.

10또 이제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 백성은 점점 강하여지고, 심히 빠르게 번성하며, 심히 아름답고 기뻐하심을 입는 백성이 되었더라. 11또 저들은 시집가고, 장가들며, 주께서 저들에게 맺으신 수많은 약속대로 복을 받았더라. 12그리고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의 의례와 의식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주 곧 저들의 하나님으로부터

[ㄱ]1 이는 곧, 니파이$_4$ [ㄴ]1 +34년 [ㄷ]1 +35년 [ㄹ]2 +36년 [ㅁ]4 +37년 [ㅂ]5 이 일련의 기적들은 모사이야서 3:5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음; 제3니파이 26:15 비교 [ㅅ]6 +38년 [ㅇ]6 +39년 [ㅉ]6 +42년 [ㅃ]6 +49년 [ㅆ]6 +51년 [ㅉ]6 +52년 [ㅊ]6 +59년 [ㅋ]8 제3니파이 8:8; 9:3

받은 계명을 좇아 행하며, 금식과 기도를 계속하며, 자주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기를 계속하였더라. 13또 이렇게 되었나니 온 땅의 모든 백성 가운데 다툼이 없었으며,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능한 기적들이 행하여졌더라.

14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칠십일년이[ㄱ] 지나가고, 또한 제칠십이년도[ㄴ] 지나가고, 마침내 제칠십구년이[ㄷ] 지나가고 참으로 백 년이[ㄹ] 지나매, 예수께서 택하셨던 제자들이, 머물게 될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낙원으로 갔고,[ㅁ] 그들 대신에 다른 제자들이 성임되었으며, 많은 그 세대 사람들이 또한 세상을 떠났느니라.

15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의 마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툼이 없었더라. 16그리고 시기함이나, 싸움이나, 소동이나, 음행이나, 거짓말하는 일이나, 살인이나, 여하한 종류의 음란함도 없었으니,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 17도적이나 살인자도 없었고 레이맨인이라든가 무슨무슨인이라고 불리움도 없이, 그들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었더라. 18또 그들은 얼마나 복되었던고! 이는 주께서 그들의 범사에 복을 주셨음이라, 참으로 그들은 복을 받아 번영하며 백십 년이[ㅂ] 지나기에 이르렀으니, 이에 그리스도로부터 첫째 세대가 지나갔고 온 땅에는 다툼이 없었더라.

제 4 니파이서의 출처: 니파이$_4$와 아모스$_2$ 그리고 아모스$_3$

19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마지막 기록을 기록하던 니파이가 (그는 이를 니파이의 판에 기록하였더라) 죽으매, 그의 아들 아모스가 그를 대신하여 이를 기록하되, 저도 이를 니파이의 판에 기록하였더라. 20이에 저가 팔십사 년 동안 이를 기록하였으며 땅에는 여전히 평화가 있었으나, 다만 백성 중 소수의 부류가 모반하여 교회를 떠나 스스로 레이맨인이라 하는 이름을 취한 일이 있었나니 이리하여 땅에 다시 레이맨인이 생기니라.

21또 이렇게 되었나니 아모스도 죽고, (때는 주께서 오신 때로부터 백구십사 년이었더라)[ㅅ] 그의 아들 아모스가 그를 대신하여 기록을 계속하되, 그도 이를 니파이의 판에 기록하였으며 이는 또한 니파이의 책 곧 이 책에도 기록되었느니라.

계급으로 점점 나뉜 백성

22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백 년이 지나매,[ㅎ] 소수를 제외하고는 둘째 세대가 모두 세상을 떠나니라. 23그리고 이제 나 몰몬은 백성들이 번성하여, 이윽고 온 지면에 퍼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번영하였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심히 부하게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24그리고 이제 이 제이백일년에[ㅇㅇ] 그들 가운데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된 자들이 생겨, 값비싼 의복을 입으며, 온갖 좋은 진주와, 세상의 좋은 것으로 꾸밈과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였더라. 25또 그때로부터 그들이 그들의 물건과 그들의 소유를 더 이상 공유하지 아니하였더라.[ㅃ] 26또 그들이 여러 계급으로 나뉘기 시작하며,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인하기 시작하였더라.

[ㄱ] 14 +71년 [ㄴ] 14 +72년 [ㄷ] 14 +79년 [ㄹ] 14 +100년 [ㅁ] 14 제3니파이 28:4~8 [ㅂ] 18 +110년 [ㅅ] 21 +194년 [ㅎ] 22 +200년 [ㅇㅇ] 24 +201년 [ㅃ] 25 위 3절 참조

2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백십 년이ㄱ 지나갔을 때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나니, 참으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공언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그의 복음의 대부분을 부인하였나니, 그 결과 그들이 온갖 간악함을 받아들이고, 합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금지된 자에게 성스러운 것을 베풀었더라.ㄴ 28 그리고 이 교회가 죄악으로 인하여, 또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탄의 권능으로 인하여 심히 번성하였더라.

29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또 다른 교회가 있었으니,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들의 겸손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하고, 또 이들 중에 이루어지는 많은 기적으로 인하여 이들을 멸시하였더라. 30 그리하여 그들은 이들과 함께 머물고 있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권력과 권세를 행사하여 저들을 옥에 던져 넣었으나, 저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옥들이 둘로 갈라지매, 저들이 나아가 그들 가운데 큰 기적들을 행하였더라.

31 그러나 이 모든 기적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예수의 말씀대로ㄷ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를 구한 것같이 저들을 죽이기를 구하였더라. 32 이에 그들이 저들을 불 풀무에 던져 넣었으나, 저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나아왔더라. 33 또한 저들을 들짐승의 굴에 던져 넣었으나, 저들이 어린아이가 어린 양과 더불어 장난함같이 들짐승들과 더불어 장난하고, 아무 해도 받지 않고 그들 중에서 나아왔더라.ㄹ

34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많은 제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끌려 많은 교회를 짓고, 온갖 죄악을 행하게 되었음이라. 또 그들이 예수의 백성을 쳤으나, 예수의 백성은 도로 치지 아니하였으니, 이같이 그들이 매년 믿지 않음과 간악함 중에 빠져 들어가, 이윽고 이백삼십 년이 지나기에 이르렀더라.ㅁ

백성 가운데 있은 큰 나뉨

35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 곧 제이백삼십일년에ㅂ 백성 가운데 큰 나뉨이 있었더라. 3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니파이인이라 일컫는 한 백성이 일어났으니, 이들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레이맨인들이 야곱인이라, 또 요셉인이라, 또 조램인이라 일컫는 자들이 있었더라. 37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들 중에는 머물기로 된 예수의 세 제자가 있었더라) 니파이인, 그리고 야곱인, 그리고 요셉인, 그리고 조램인이라 일컬어졌더라.

38 또 이렇게 되었나니 복음을 저버린 자들은 레이맨인이라, 또 레뮤엘인이라, 또 이스마엘인이라 일컬어졌으니, 이들은 믿지 않음에 빠져든 것이 아니요, 고의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역한 것이라, 또 그들의 조상들이 처음부터 믿지 않음에 빠져든 것같이 그들은 그 자녀들을 가르쳐 믿지 않게 하였도다. 39 또 이는 처음에 그러하였던 것같이 그들의 조상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함이라.ㅅ 이에 그들은 레이맨인들이 처음부터 니파이의 자손을 미워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ㄱ 27 +210년 ㄴ 27 제3니파이 18:28~29 ㄷ 31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ㄹ 33 30~33절은 제3니파이 28:19~22과 나란히 배열됨 ㅁ 34 +230년 ㅂ 35 +231년 ㅅ 39 모사이야서 10:17

개다이앤톤 도적들이 돌아오다

4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백사십사 년이 지났고, 백성들의 제반사가 이러하였으며,ㄱ 또 백성 중 보다 간악한 부류가 점점 강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보다도 그 수효가 심히 더 많아졌더라. 41 또 그들은 여전히 계속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며, 온갖 귀한 것으로 교회를 장식하였으니, 이같이 이백오십 년이 지나고,ㄴ 또 이백육십 년도 지나갔더라.ㄷ

4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 중 간악한 부류들이 또다시 개다이앤톤의 은밀한 맹세와 결사를 세우기 시작하였더라.ㄹ 43 또 니파이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백성들도 그 심히 큰 부로 인하여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들의 형제 레이맨인들처럼 허황되어졌더라. 44 그리고 이때로부터 제자들은 세상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기 시작하였더라.ㅁ

4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삼백 년이 지나매,ㅂ 니파이 백성과 레이맨인들이 모두 하나같이 심히 간악하여졌더라. 46 또 이렇게 되었나니 개다이앤톤 도적들이 온 지면에 퍼져, 예수의 제자들 외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었으며, 그들은 금과 은을 풍성하게 저축해 두고, 온갖 물품으로 서로 무역하였더라.

앰마론이 기록들을 물려받고서 숨기다

4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삼백오 년이 지나간 후에,ㅅ (백성들은 여전히 간악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느니라) 아모스가 죽고, 그의 아우 앰마론이 그의 대신에 기록을 계속하였더라. 48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삼백이십 년이 지났을 때,ㅇ 앰마론이 성신의 강권하심을 받고, 성스러운 기록을 감추었으니—곧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로부터 제삼백이십년이 되는 해에 이르기까지—참으로 거룩한 바 대대로 전달되어 내려온 모든 성스러운 기록이라. 49 이에 그가 기록을 주께 감추었나니,ㅈ 이는 주의 약속과 예언대로 그 기록이 야곱 집의 남은 자들에게로 다시 나아오게 하려 함이라.ㅃ 앰마론의 기록의 끝이 이와 같으니라.

ㄱ 40 +244년 ㄴ 41 +250년 ㄷ 41 +260년 ㄹ 42 개다이앤톤 도적들은 +21년에 제3니파이 5:4~6에서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힐라맨서 2:13~14 참조 ㅁ 44 제3니파이 28:9 ㅂ 45 +300년 ㅅ 47 +305년 ㅇ 48 +320년 ㅈ 49 힐라맨서 13:18~20; 몰몬서 1:2; 5:12; 이더서 15:11 참조 ㅃ 49 니파이후서 28:2; 29:2; 이노스서 1:13; 제3니파이 21:2~4

몰몬서

제 1 장~제 7 장

몰몬$_2$이 받을 기록

1 그리고 이제 나 몰몬은 내가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이를 몰몬서라 하노라.[ㄱ]
[2]앰마론이 기록을 주께 감출 즈음에 내게로 와서, (때에 내가 십 세 가량 되어 내 백성의 배우는 방식을 좇아 어느 정도 학문이 있는 자가 되었더라) 앰마론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보니 너는 진지한 아이요, 보고 깨닫는 것이 빠른즉, [3]그러므로 네가 이십사 세쯤 되거든 바라노니 너는 이 백성에 관하여 네가 본 바를 기억해 두었다가, 네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앤툼 땅으로 가서 시므라 칭할 산으로 가라. 거기에 내가 이 백성에 관한 모든 성스러운 새긴 것들을 주께 감추어 두었노라. [4]또 보라, 네가 니파이의 판은 스스로 취하되, 나머지는 그 있던 곳에 그대로 두고, 니파이의 판에 네가 이 백성들에 관하여 보아 온 모든 일을 새길지니라" 하였느니라.[ㄴ]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의 전쟁

[5]이에 나 몰몬은 니파이의 후예로서, (나의 부친의 이름도 몰몬이었느니라) 앰마론이 내게 명한 바를 기억하였느니라. [6]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열한 살이 되었을 때,[ㄷ]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 곧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데려가시더라. [7]건물이 온 지면을 덮었고, 백성들은 거의 마치 바다의 모래같이 수가 많았느니라.

[8]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니파이인과 야곱인과 요셉인과 조램인으로 이루어진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과 레뮤엘인과 이스마엘인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나니 이 전쟁은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과 레뮤엘인과 이스마엘인 사이의 전쟁이었더라. [9]이제 레이맨인과 레뮤엘인과 이스마엘인은 레이맨인이라 일컬어졌던지라, 두 무리는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이었더라.

[10]또 이렇게 되었나니 전쟁은 시돈 물가, 제이라헤믈라의 경계에서 그들 중에 시작되었더라. [1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이 심히 많은 수효의 군사를 함께 모으매, 그 수가 삼만이 넘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 해에 여러 번 싸웠고, 이 싸움에서 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을 쳐서 이기고 그들을 많이 살육하였더라. [1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계획을 철회하매, 땅에는 평화가 정착되었고 대략 사 년 동안[ㄹ] 평화가 지속되어 유혈이 없었더라.

[ㄱ] 1 몰몬서는 원래 세 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각 장에서는 훗날 독자가 되는 이들 중에 이방인들, 이스라엘인들, 레이맨인들을 장마다 각각 직접 언급함으로써 글이 마무리됨; 몰몬서 3:17~22; 5:8~24; 7:1~10 참조 [ㄴ] 4 몰몬$_2$은 3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니파이의 판을 회수함; 몰몬서 2:16~17 참조; 그는 65세가 되었을 때 나머지 기록을 찾게 됨; 몰몬서 4:16, 23 참조 [ㄷ] 6 +321년 [ㄹ] 12 이는 곧, +325년까지

간악함이 만연하다

13 그러나 간악함이 온 지면에 만연한지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데려가셨고,[ㄱ]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기적의 일과 병고침의 역사가 그쳤더라. 14 또 그들의 간악함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께로부터 오는 은사가 없었고, 아무에게도 성신이 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5 그리고 나는 나이가 열다섯 살이 되었을 때 성품이 진지하였던지라, 주의 방문을 받았고, 예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느니라. 16 이에 이 백성에게 가르침을 베풀고자 애썼으나, 나의 입이 닫혀져,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금지되었으니, 이는 보라 그들이 고의로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이라, 또 사랑하시는 제자들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땅에서 데려가신 것이더라. 17 그러나 나는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었으되, 그들에게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금지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함이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땅은 그들로 인해 저주를 받았도다.

18 또 레이맨인들 가운데 있던 이 개다이앤톤 도적들이 땅에 들끓으매, 땅의 주민들이 그들의 보물을 땅에 감추기 시작하였으나, 주께서 땅을 저주하신 고로 그것들이 잃기 쉬운 것이 되어, 그들이 보유할 수 없었으며 다시 간직할 수도 없었느니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요술과 마술과 마법이 있고, 저 악한 자의 권능이 온 땅에 역사되어, 참으로 아빈아다이와 또한 레이맨인 사무엘의 모든 말이 성취되기에 이르렀느니라.[ㄴ]

니파이인 군대의 퇴각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같은 해에[ㄷ]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 사이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매, 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체격이 컸던지라, 그러므로 니파이 백성들이 나를 임명하여 그들의 지도자, 곧 그들 군대의 지휘관이 되게 하였더라. 2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십육 세 때에 니파이인들의 군대 우두머리가 되어 레이맨인들을 치러 나아갔으니, 그러므로 삼백이십육 년이 지났느니라.[ㄹ]

3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이십칠년에[ㅁ] 레이맨인들이 심히 큰 기세로 우리에게 임하여 나의 군대를 두렵게 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싸우려 아니하고 북쪽 지방을 향하여 퇴각하기 시작하였느니라.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앤골라 성에 이르러 그 성을 점령하고, 레이맨인들을 대항하여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하였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여 성의 방비를 강화하였으나, 우리의 모든 방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레이맨인들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그 성에서 몰아내었느니라. 5 그리고 저들이 또한 다윗 땅에서도 우리를 몰아 내었느니라. 6 이에 우리가 행군해 나아가 바닷가에 가까운 서편 경계에 있는 여호수아 땅에 이르렀느니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우리의 백성을 모았으니, 이는 그들을 모아 한 무리가 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8 그러나 보라, 땅에는 도적들과 레이맨인들이 가득하였고, 나의 백성 위에 걸려 있는 큰 멸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던지라, 그러므로 니파이인들 측이거나 또한 레이맨인들 측이거나를 막론하고 온 지면에 피와 대살육이 퍼졌으니, 이는 온 지면에 걸친 하나의 완전한 혁명이었더라.

[ㄱ] 13 제3니파이 28:4~32; 제4니파이 1:30~33 [ㄴ] 19 힐라맨서 13:17~18, 31, 35~37 참조; 모사이야서 16:5 추정 [ㄷ] 1 +325년 [ㄹ] 2 +326년 [ㅁ] 3 +327년

9 그리고 이제 레이맨인들에게 한 왕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아론이라, 저가 사만 사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를 치러 왔더라. 이에 보라, 내가 사만 이천을 가지고 저를 대적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군대로 저를 물리치매 저가 내 앞에서 도망하였으니, 보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삼백삼십 년이 지나갔느니라.ㄱ

회개 없는 슬픔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하며, 선지자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부르짖기 시작하였으니,ㄴ 이는 보라 그 땅에 있는 도적들과 강도들과 살인자들과 마법과 마술로 인하여 아무도 자기의 것을 간직할 수 없었음이라. 11 이리하여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온 땅에 애곡하는 일과 애통하는 일이 생겼으니, 니파이 백성 가운데 특히 더 그러하더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몰몬이 주 앞에서 그들의 애통함과 그들의 애곡함과 그들의 슬픔을 보았을 때, 나의 마음은 주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알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들이 다시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속으로 기뻐하기 시작하였느니라. 13 그러나 보라 나의 이 기쁨은 헛되었나니, 이는 그들의 슬퍼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요, 그보다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죄 중에서 행복을 취함을 항상 용납하지 아니하려 하심으로 인한 정죄받은 자들의 슬퍼함이었음이라. 14 또 그들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예수께 나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기를 바랐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위하여 칼로 싸우려 하였느니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슬픔은 다시 내게로 돌아왔고, 나는 은혜의 날이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그들과 함께 지나가 버림을 보았으니, 이는 내가 그들 수천이 그들의 하나님을 공공연히 거역하는 가운데 베어져, 지면 위에 분토처럼 되어 쌓인 것을 보았음이라. 이같이 삼백사십사 년이 지나갔더라.ㄷ 16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사십오년에ㄹ 니파이인들이 레이맨인들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하여 예이숀 땅에 이르도록 추격을 받았고, 그 곳에 이르러서야 후퇴를 멈출 수 있었느니라.

몰몬$_2$이 새롭게 추가한 기록들

17 이제 예이숀 성은 기록이 파괴되지 않도록 앰마론이 기록을 주께 감춘 땅에서 가까웠더라.ㅁ 이에 보라, 내가 앰마론의 말대로 가서 니파이의 판을 취하여 앰마론의 말대로 기록을 만들었느니라.ㅂ

18 그리고 니파이의 판에는ㅅ 모든 간악함과 가증함을 전부 기술하였으나, 이 판에는ㅎ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을 전부 기술하기를 삼갔노니, 이는 보라, 내가 족히 사람의 길을 볼 수 있게 된 이래로 끊임없는 간악함과 가증함의 광경이 내 목전에 있어 왔음이라. 19 또 그들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내게 화 있나니, 이는 나의 평생에 그들의 간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였음이로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마지막 날에 내가 들리울 것을 아노라.

ㄱ 9 +330년 ㄴ 10 힐라맨서 13:31~37 ㄷ 15 +344년 ㄹ 16 +345년 ㅁ 17 제4니파이 1:48~49 ㅂ 17 몰몬서 1:2~4 ㅅ 18 이는 곧, 니파이의 큰 판 ㅎ 18 이는 곧, 니파이의 큰 판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한 몰몬$_2$의 금판 요약 기록

기업의 땅이 분할되다

2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해에 니파이 백성들이 다시 수색을 당하며 쫓겼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쫓겨서 이윽고 북방 땅으로 와서 셈이라 하는 땅에 이르렀느니라. 2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셈 성의 방비를 강화하고, 가능한 한 많이 우리 백성들을 모아들였나니, 이는 혹시라도 그들을 멸망에서 구하고자 함이었느니라.

22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사십육년에[ㄱ] 그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니라. 2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레이맨인들 앞에 담대히 서서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집과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 싸우도록 크게 힘써 그들을 격려하였더라. 24 이에 내 말이 그들을 일깨워 어느 정도 기운이 나게 한지라, 그들이 레이맨인들 앞에서 도망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서서 저들을 대적하였느니라.

2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삼만의 군사로 오만의 군사를 대적하여 싸웠느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그처럼 굳세게 그들 앞에 섰던지라 그들이 우리 앞에서 도망하였느니라. 2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도망하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군대로 그들을 추격하였고, 그들을 다시 만나매, 그들을 파하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주의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나니, 참으로 우리는 버려진 바 되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처럼 연약하여졌었느니라.

27 이에 나의 마음은 그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말미암은 내 백성의 이 큰 재앙으로 인하여 슬퍼하였으나, 그러나 보라, 우리는 레이맨인들과 개다이앤톤 도적들을 대적하여 나아가 이윽고 다시 우리의 기업의 땅을 점령하였느니라. 28 그리고 제삼백사십구년이[ㄴ] 지나가고,

제삼백오십년에[ㄷ] 우리는 레이맨인들과 개다이앤톤 도적들과 조약을 맺고 우리의 기업의 땅을 분할하였느니라. 29 이로써 레이맨인들은 참으로 남방 땅으로 통하는 좁은 통로에 이르기까지의 북방 땅을 우리에게 주었고, 우리는 남방 땅을 모두 레이맨인들에게 주었느니라.

회개할 기회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십 년이 더 지나도록 레이맨인들이 다시 싸우러 오지 아니하였으나, 보라, 나는 나의 백성 니파이인들을 시켜 전쟁 때를 대비하여 그들의 땅과 그들의 무기를 예비하게 하였느니라.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외치기를—'너희는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침례를 받고, 나의 교회를 다시 세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게 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3 이에 내가 이 백성에게 외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으니, 그들은 그들을 살려 주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이가 주이심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또 보라 그들은 주 그들의 하나님에게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느니라.

[ㄱ] 22 +346년 [ㄴ] 28 +349년 [ㄷ] 28 +350년

니파이인들의 승리로 인한 전쟁에 대한 열망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 제십년이 지나가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로부터 모두 삼백육십 년이 지난 후에,ㄱ 레이맨인의 왕이 내게 한 서한을 보내어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다시 올 준비를 하고 있음을 내게 알려 주었느니라.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나의 백성들로 하여금 황무 땅에, 남방 땅으로 통하는 협로 가까이에 있는 변경의 한 성으로 함께 모이게 하였느니라. 6 또 그 곳에 우리가 우리의 군사를 배치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레이맨인들의 군대를 막아 그들이 우리의 땅을 조금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전 병력으로 그들에 대하여 방비를 강화하였느니라.

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육십일년에ㄴ 레이맨인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황무 성으로 내려왔으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 해에 우리가 그들을 무찌른지라, 그들이 다시 저희의 본토로 돌아갔느니라. 8 또 제삼백육십이년에ㄷ 그들이 싸우러 다시 내려왔으나, 우리가 다시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수많이 도륙하였으며, 그들의 죽은 자들은 바다에 던져졌느니라.

9 이에 이제 나의 백성 니파이인들이 행한 이 큰 일로 인하여 그들이 그들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들 형제들의 피를 갚겠다고 하늘 앞에 맹세하기 시작하였더라. 10 또 그들은 하늘과 또한 하나님의 보좌로 맹세하기를, 그들의 원수를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가 그들을 지면에서 끊어 버리겠다고 하였더라.

몰몬$_2$이 니파이인들의 전쟁사령관 되기를 단호히 거절하다

1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 몰몬은 이때로부터, 이 백성의 간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사령관과 지도자가 되기를 완전히 거절하였느니라.ㄹ 12 보라, 내가 그들을 이끌되, 그들의 간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이끌고 전쟁도 여러 번 치렀었으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내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사랑했었고, 내 영혼은 온종일 그들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쏟아 낸 바 되었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그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었느니라. 13 또 세 번이나 내가 그들을 그들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었으나,ㅁ 그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4 이에 그들이 우리의 주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금하신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ㅂ 그들의 원수들에게로 올라가 싸워 그들 형제들의 피를 갚겠다 하였을 때, 보라 주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5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갚을 것이어늘,ㅅ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을 구원한 후에도 회개하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그들이 지면에서 끊어지리라" 하시니라.

1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는 내 원수들을 치러 올라가기를 온전히 거절하였고,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지켜만 보는 증인처럼 서서 장차 이를 일을 증거한 영의 나타내심을 좇아,ㅇ 내가 보고 들은 바를 세상에 명백히 드러내었느니라.

ㄱ 4 +360년 ㄴ 7 +361년 ㄷ 8 +362년 ㄹ 11 몰몬$_2$의 이 거절은 이때부터 13년동안 지속될 것임; 몰몬서 5:1 참조 ㅁ 13 첫 번째 건짐은 몰몬서 2:9; 두 번째는 2:25~26; 세 번째는 3:7~8에 나옴 ㅂ 14 제3니파이 12:34~36; 몰몬서 3:10 ㅅ 15 신명기 32:35; 로마서 12:19 ㅇ 16 앞으로 일어날 일을 증거한 '영의 나타내심'이 아래 20절에 나옴

마지막날의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몰몬$_2$의 메시지

17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록하며, 또한 너희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 기록하노니, 곧 역사하심이 시작되어 너희가 바야흐로 너희 기업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려 할 때, 18 참으로 보라, 내가 땅의 모든 끝을 위하여 기록하노니, 참으로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께서 택하사 그의 제자로 삼으신 열둘에게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너희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위하여 기록하노라.ㄱ 19 그리고 또한 나는 이 땅에서 예수께서 택하신 열둘에게 역시 심판받을 이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록하노니,ㄴ 이들 열둘은 예루살렘 땅에서 예수께서 택하신 다른 열둘에게 심판을 받으리로다.

20 또 이 일들을 영이 내게 나타내시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두를 위하여 기록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함은 이 까닭으로 인함이니, 곧 너희, 참으로 아담의 온 인간 가족에 속하는 각 사람이 반드시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며, 너희의 행위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너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위하여 너희가 반드시 서야 한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요, 21 또한 너희 중에 너희가 갖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주의 성약의 백성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는 물론, 그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또 다른 증거를 갖게 하려 함이니라. 22 그리고 나는 너희 땅의 모든 끝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도록 설득할 수 있기를 바라노라.

니파인들이 레이맨인들을 공격하자마자 대패하다

4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육십삼년에ㄷ 니파이인들이 그들의 군대와 더불어 황무 땅에서 나와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여 싸우러 올라갔더라. 2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의 군대가 황무 땅으로 다시 쫓겨 돌아왔는데, 그들이 아직 지쳐 있을 때 힘이 새로운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그들에게 임하여 맹렬한 싸움이 벌어졌더니, 레이맨인들이 황무 성을 점령하였고, 많은 니파이인들을 죽이고, 많은 포로를 잡았더라. 3 또 나머지는 도망하여 티앤쿰 성의 주민들에게 합류하니라. 이제 티앤쿰 성은 바닷가에 가까운 변경에 있었고 또한 황무 성에서도 가깝더라.

4 또 그들이 침을 당하기 시작한 것은 니파이인들의 군대가 레이맨인들에게로 올라간 연고니, 이는 그리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레이맨인들이 그들을 이길 힘을 갖지 못했을 것임이라. 5 그러나 보라, 하나님의 심판은 간악한 자들에게 닥칠 것이요, 간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 것은 간악한 자들로 말미암나니, 이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충동하여 피를 흘리게 하는 것도 간악한 자들임이라.

ㄱ 18 마태복음 19:28; 누가복음 22:30 참조 ㄴ 19 니파이전서 12:8~10; 제3니파이 27:27 ㄷ 1 +363년

심히 간악해진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의 땅 점령과 탈환ㄱ

6 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은 티앤쿰 성을 치러 올 준비를 하였더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육십사년에ㄴ 레이맨인들이 티앤쿰 성도 점령하려고 티앤쿰 성을 치러 왔었느니라. 8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격퇴당하여 니파이인들에게 쫓겨 물러가매, 니파이인들은 자기들이 레이맨인들을 몰아 내었음을 보고 다시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더니,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나아가 황무 성을 다시 점령하였더라. 9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고 양측에 곧 니파이인들이나 레이맨인들이나 다 죽임을 당한 자가 수천이었느니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육십육년이 지나가고 레이맨인들이 또다시 싸우려고 니파이인들을 공격하였으나,ㄷ 이때까지도 니파이인들은 그들이 행한 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그들의 간악함을 고집하였느니라. 11 이에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들을 가리지 않고 백성 가운데 있었던 피와 대살육의 참혹한 광경을 능히 혀로 묘사하거나, 혹은 사람이 글로써 완전히 묘사할 수 없으며, 각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여 진지라 그들이 끊임없이 유혈을 기뻐하였더라. 12 또 주의 말씀에ㄹ 의하건대 이 백성 가운데 있은 것 같은 그처럼 큰 간악함은, 리하이의 모든 자손 중에서나, 심지어 이스라엘의 온 집 가운데서도 결코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1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황무 성을 점령하였으니, 이는 저들의 수효가 니파이인들의 수효보다 더 많았음이었더라. 14 또한 저들이 티앤쿰 성을 치러 진군해 나아가서 그 주민들을 그 곳에서 몰아 내고, 여자와 아이들을 많이 포로로 잡고는 그들을 저들의 우상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더라.

1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육십칠년에ㅁ 니파이인들은 레이맨인들이 그들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음으로 인하여 노하여, 심히 큰 분노로 레이맨인들을 치러 가서, 다시 레이맨인들을 파하고, 저들을 자기들의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종말의 시작

16 이에 제삼백칠십오년에 이르기까지 레이맨인들이 다시 니파이인들을 치러 오지 아니하였더라.ㅂ 17 또 이 해에 저들이 저들의 전 병력을 거느리고 니파이인들을 치러 내려왔으니, 저들의 수효가 많음으로 인하여 저들을 세지 아니하였느니라. 18 그리고 이때로부터 니파이인들은 전혀 레이맨인들을 이기지 못하였고, 해 앞의 이슬같이 저들에게 쓸어버림을 당하기 시작하였느니라.

1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들이 황무 성을 치러 내려오매 황무 땅에 심히 맹렬한 싸움이 벌어졌더니, 저들이 니파이인들을 격파하였느니라. 20 이에 그들이 저들 앞에서 다시 도망하여 보아스 성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이 심히 담대하게 레이맨인들을 대적하였던지라, 레이맨인들이 두 번째로 다시 오기까지는 그들을 이기지 못하였느니라. 21 그러나 저들이 두 번째로 왔을 때 니파이인들은 쫓기며 심히 큰 살육으로 살육 당하였으며, 그들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또다시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느니라. 2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파이인들은 또다시 고을과 마을의 모든 주민을 데리고 저들 앞에서 도망하였느니라.

23 이에 이제 나 몰몬은 레이맨인들이 바야흐로 그 땅을 전복하려 함을 보고, 시므 산으로 가서 앰마론이 주께 감추어 둔 기록을 모두 취하였느니라.ㅅ

ㄱ 6 모로나이서 9의 몰몬$_2$의 편지는 대략 이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 ㄴ 7 +364년 ㄷ 10 +366년 ㄹ 12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ㅁ 15 +367년 ㅂ 16 +375년 ㅅ 23 제4니파이 1:48~49; 몰몬서 1:3

니파이인들이 후퇴하다

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니파이인들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가 다시는 그들을 돕지 아니하겠다한 맹세를 뉘우치매, 그들이 다시 그들 군대의 지휘권을 내게 주었으니,[ㄱ] 이는 마치 내가 그들을 그들의 고난에서 건질 수 있을 것같이 그들이 나를 바라보았음이라. [2]그러나 보라, 나는 희망을 갖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에게 임할 주의 심판을 알고 있었던지라, 이는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창조하신 이를 부름도 없이 자신들의 목숨을 위하여 싸웠음이라.

[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요단 성으로 피하고 나서 레이맨인들이 우리를 치러 왔으나, 보라, 저들이 도로 쫓겨가고 그때에는 그 성을 취하지 못하였느니라. [4]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다시 우리를 치러 왔으나 우리가 성을 지켰고, 니파이인들이 지킨 다른 성읍들이 또한 있었으니 이 요새들이 저들을 차단하여, 저들이 우리 앞에 있는 지방으로 들어와 우리 땅의 주민들을 멸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5]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무릇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 주민들을 모아들이지 못한 땅들은 모두 레이맨인들에게 멸망되어, 그들의 고을과 마을과 성읍은 불에 살라졌으니 이같이 삼백칠십구년이 지나니라.[ㄴ]

[6]또 이렇게 되었나니 제삼백팔십년에[ㄷ] 이르러 레이맨인들이 다시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온지라, 우리가 담대히 서서 저들을 대적하였으나 모두 허사라, 이는 저들의 수효가 심히 많아서 저들이 니파이 백성을 저들의 발 아래 짓밟았음이라. [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다시 도망하였으되, 그 도망함이 레이맨인들보다 빨랐던 자들은 피하였고, 그 도망함이 레이맨인들보다 빠르지 못하였던 자들은 쓸어버림을 당하여 멸망당하였느니라.

마지막날의 레이맨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몰몬$_2$의 메시지

[8]또 이제 보라, 나 몰몬은 내 눈 앞에 놓였던 것과 같은 피와 대살육의 그처럼 끔찍한 광경을 사람들 앞에 내보여 사람들의 영혼을 괴롭히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나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알려져야만 하며, 감추인 모든 것이 지붕 위에서 드러나야만 하고—[ㄹ] [9]또한 이러한 일에 대한 지식이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와, 또한 이 백성들을 흩어 자기들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헤아려지게 하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방인들에게 나아와야 함을[ㅁ] 알고 있는지라—[ㅂ] 그러므로 나는 내가 받은 계명으로 인하여,[ㅅ] 또한 이 백성의 간악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너무 큰 슬픔을 갖지 않게 하고자, 감히 내가 본 것을 전부 기술하려 아니하고 작은 요약을 하노라.

[10]또 이제 보라, 이를 나는 그들의 자손들에게와, 또한 이스라엘 집을 위하여 염려하며, 자신들의 복이 어디서 오는가를 깨달으며 알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고하노라. [11]이는 그러한 자라야 이스라엘 집의 재앙을 슬퍼하리라는 것을 내가 앎이니, 참으로 그들은 이 백성의 멸망을 슬퍼할 것이요, 이 백성이 예수의 팔에 안기도록 회개하지 아니하였음을 슬퍼하리로다.

[12]이제 이러한 것은[ㅇ] 야곱 집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며, 이같이 기록됨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알려진 바, 간악함이 이를 그들에게 드러내지 못할 것임이요, 또 이는 주께서 친히 정하신 때에 나아오기 위하여 주께 감추어지게 되어 있느니라.

[ㄱ]1 몰몬서 3:11~16 [ㄴ]5 +379년 [ㄷ]6 +380년 [ㄹ]8 니파이후서 27:11 참조; 누가복음 12:2~3 비교 [ㅁ]9 제3니파이 16:8; 20:15, 27; 21:2 참조; 또는 (주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니파이전서 13:14, 22:7과 니파이후서 1:11도 참조 [ㅂ]9 제3니파이 16:9 추정 [ㅅ]9 몰몬서 1:4 참조; 2:18 비교 [ㅇ]12 이는 곧, 몰몬경

13 또 이것이 내가 받은 계명이라, 보라, 주께서 그의 지혜로 적절하게 여기시는 때에 이 기록이 주의 계명을 좇아 나아올 것이라.

14 또 보라, 이 기록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갈 것이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나아가리니—곧 그들에게 예수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설득하려 함이요, 아버지께서 그 가장 사랑하시는 자를 통하여 그의 크고도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사, 유대인들 또는 온 이스라엘의 집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들 기업의 땅으로 회복하여 그의 성약을 이루시게 하려 함이라. 15 또한 이 백성의 자손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에게 나아갈 그의 복음을 더욱 온전히 믿게 하려 함이니,

이는 이 백성이 흩음을 당하여 우리 가운데 일찍이 있었던 것, 참으로 심지어 레이맨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 이상으로 필설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어둡고 더러우며 혐오스런 백성이 될 것임이라, 또 이는 그들의 믿지 않음과 우상을 섬김으로 인함이니라. 16 이는 보라, 주의 영은 이미 그들의 조상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셨고, 그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없는 자요, 그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이 이리저리 쫓김이니라.

17 한때 그들은 기뻐하심을 입던 백성이었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들의 목자가 되셨었나니,
참으로 그들은 실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았었도다.
18 그러나 이제는 보라, 그들이 사탄에게 이끌려
다님이 마치 겨가 바람 앞에 날림 같고,
또는 배가 돛이나 닻도 없이,
또는 배를 조정할 만한 아무것도 없이,
물결 위에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 같으니
실로 그들이 그와 같도다.

19 또 보라 주께서는 그들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었던 그들의 복을, 이 땅을 차지하게 될 이방인들을 위하여 보류해 두셨느니라.

20 그러나 보라, 이렇게 되리니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쫓기며 흩음을 당할 것이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쫓기며 흩음을 당하고 난 후에, 보라, 그때 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와 이스라엘의 온 집에 세우신 성약을 기억하실 것이니라. 21 또한 주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그에게 올린 바 의인들의 기도도 기억하시리라.ㄱ

22 또 그때에 오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가 회개하여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찌 하나님의 권능 앞에 능히 설 수 있겠느냐? 23 너희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모든 권능을 가지셨으며 그의 크신 명령에 땅이 두루마리 같이 함께 말리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24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그의 앞에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그가 그의 공의 중에 나오사 너희를 치실까 하며—두렵건대 야곱 자손의 한 남은 자들이 사자처럼 너희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를 갈기갈기 찢되 건질 자 없을까 하노라.ㄴ

ㄱ 21 니파이후서 3:19~21; 6:11; 26:15; 이노스서 1:15~18 참조 ㄴ 24 미가 5:8 내용의 간략한 설명; 제3니파이 20:16; 21:12에서 언급됨

마지막 전투의 준비

6 그리고 이제 나는 내 백성 니파이인들의 멸망에 관한 나의 기록을 마무리하노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는 레이맨인들보다 앞서 진군하여 나아갔느니라. [2]또 나 몰몬은 레이맨인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가 우리의 백성을 쿠모라라 칭하는 한 작은 산 옆 쿠모라 땅에 함께 모으고 거기서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있게 하여 줄 것을 그에게 요청하였느니라. [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레이맨인의 왕이 내가 요청한 일을 내게 수락하니라.

[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쿠모라 땅으로 진군하여 가서 쿠모라 산 근처 사방에 우리의 장막을 쳤으니, 이는 많은 물과 강들과 샘들이 있는 땅에 있었으며, 이 곳에서 우리는 레이맨인들에게 대하여 우위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랐느니라. [5]이에 삼백팔십사 년이 ㄱ 지나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남은 백성을 모두 쿠모라 땅으로 모아들였느니라.

[6]또 이렇게 되었나니 우리가 우리의 백성들을 모두 쿠모라 땅으로 모아들여 한무리가 되게 하고 나서, 보라, 나 몰몬은 늙었고 이것이 내 백성의 마지막 싸움이 될 줄 알았으며, 또 우리 조상들에 의해 전달되어 내려온 거룩한 기록들을 레이맨인들의 손에 떨어지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께 받았던지라, (이는 레이맨인들이 이를 파괴할 것임이라) 그리하여 나는 니파이의 판으로부터 이 기록을 만들고, 나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내가 준 이 몇 장의 판을 제외하고는 주의 손으로 내게 맡겨졌던 모든 기록을 쿠모라 산에 감추었느니라.

마지막 전투

[7]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더불어 레이맨인들의 군대가 그들을 향하여 진군하여 오는 것을 보고, 모든 간악한 자의 가슴을 채우는 저 끔찍한 사망의 두려움을 안고 그들을 맞기를 기다렸느니라. [8]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러 오매, 저들의 수효가 많음으로 인하여 모든 영혼에 공포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9]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희는 칼과 활과 화살과 도끼와 온갖 전쟁 무기를 가지고 나의 백성들을 엄습하였느니라. [1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나의 병사들, 곧 참으로 나와 함께 하였던 나의 만 명이 베임을 당하여 엎드러졌고, 나는 부상을 입고 그 가운데 엎드러졌으나, 저들이 나를 지나치고 내 생명에 끝을 내지 아니하였느니라.

[11]이에 저들이 우리 중 스물넷을 제외한 (이 가운데 나의 아들 모로나이가 있었느니라) 나의 모든 백성을 베어 엎드러뜨리고 지나간 후, 우리 백성의 죽은 자 뒤에 살아남은 우리는, 다음 날 레이맨인들이 저들의 진으로 돌아가고 난 뒤 쿠모라 산꼭대기에서, 내가 그 앞에서 이끌었던 나의 백성 만 명이 베임을 당하여 엎드러진 것을 보았더라.

[12]그리고 또한 우리는 나의 아들 모로나이가 이끌었던 나의 백성 만 명도 보았더라. [13]또 보라 기드깁도나의 만 명도 엎드러졌고, 그도 그 가운데 있었느니라.

[14]또 레이마도 그의 만 명과 함께 엎드러졌고,
길갈도 그의 만 명과 함께 엎드러졌고,
림하도 그의 만 명과 함께 엎드러졌고,
예니움도 그의 만 명과 함께 엎드러졌고,
쿠메나이하와
모로나이하와

ㄱ5 +384년

앤티오눔과
시블롬과
셈과
야슈도 각기 그들의 만 명과 함께 엎드러졌더라.
15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 밖에도 각기 그 만 명과 함께 칼에 엎드러진 자가 십 명 더 있었나니, 참으로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스물넷과 또한 남쪽 지방으로 도피한 자 몇몇과 레이맨인들에게로 도망하여 넘어간 자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의 백성이 엎드러져 그들의 살과 뼈와 피가 그들을 살육한 자들의 손으로 버린 바 되어, 땅 위에서 썩고 부스러져서, 그 어미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더라.

몰몬$_2$의 애가 ㄱ

16이에 내 백성의 살육 당한 자들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고통으로 찢기운지라ㄴ 내가 부르짖기를,

17 "오 너희 아름다운 자들아,
어떻게 너희가 주의 길에서 떠날 수가 있었더냐!
오 너희 아름다운 자들아,
어떻게 너희가 너희를 영접하시려고
팔을 벌리고 서 계시던 그 예수를 저버릴 수가 있었더냐!
18 보라,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던들,
너희가 엎드러지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보라, 너희는 엎드러졌고,
나는 너희를 잃음을 애통해 하노라.
19 오 너희 아름다운 아들과 딸,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
너희 남편과 아내,
너희 아름다운 자들아,
너희가 엎드러질 수 있음은 어찜이냐!
20 그러나 보라, 너희는 갔고 나의 슬픔이
너희를 돌아오게 할 수 없도다.

21"그러나 너희의 죽어야 하는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며, 지금 썩어 부스러지고 있는 이 몸들이 반드시 속히 썩지 아니하는 몸이 될 날이 속히 이르나니, 그때에 너희는 너희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요, 너희가 만일 의로우면 너희는 너희보다 앞서 간 너희 조상들과 함께 복이 있도다.
22"오 이 큰 멸망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너희가 회개하였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보라, 너희는 갔고, 아버지, 곧 영원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상태를 아시나니, 그는 그의 공의와 자비를 좇아 너희에게 행하시느니라."

ㄱ16 제$_3$니파이 10:4~5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한 사람들에 대해 탄식하신 예수님의 애가와 이것을 비교 ㄴ16 니파이인들의 멸망에대한 몰몬$_2$의 반응은 시현에서 같은 사건을 본 니파이$_1$의 반응과 일치함; 니파이후서 26:7 참조

마지막날의 레이맨인들에게 전하는 몰몬$_2$의 가르침

7 그리고 이제 보라, 나는 살아남은 이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니,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그들에게 주실진대, 그들로 그들 조상들의 일에 대하여 알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희, 곧 너희 이스라엘 집의 남은 자들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니라.

2 너희는 너희가 이스라엘의 집에 속하였음을 알라.

3 너희는 반드시 회개에 이르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라.

4 너희는 반드시 너희의 전쟁 무기를 내려놓고, 다시는 피 흘리는 일을 기뻐하지 말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시기 전에는 그것을 다시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라.

5 너희는 반드시 너희 조상들에 대한 지식에 이르러 너희의 모든 죄와 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으나, 아버지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사 이로써 무덤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셨고 또한 그의 안에서 사망의 쏘는 것이 삼키운 바 되었음을 믿어야 함을 알라. 6 이에 그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이루시매, 이로써 사람은 반드시 일으킴을 받아 그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 7 또 그가 세상의 구속을 이루셨으매, 이로써 심판 날에 그의 앞에서 죄 없는 것으로 발견되는 자는 그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거하게 하여 주심을 얻고, 위에 있는 합창대와 함께 끝없는 행복의 상태에서 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에게 그치지 않는 찬송을 부르게 되리라.

8 그러므로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 기록뿐[ㄱ] 아니라 또한 유대인들로부터[ㄴ] 이방인들에게로 나아와서 이방인들로부터 너희에게로 나아올 기록 안에 들어 있어 너희 앞에 놓이게 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으라. 9 이는 보라, 이것은 너희로 그것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기록된 것인 바, 만일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너희는 이것도 믿을 것이요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너희는 너희 조상과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된 기이한 일들에 관하여 알게 될 것이라.

10 그리고 너희는 또한 너희가 야곱 자손의 한 남은 자요, 그러므로 너희가 첫번 성약의 백성 가운데서 헤아림을 받는 줄을 알리니,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구주의[ㄷ] 본을 따라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ㄹ] 먼저 물로, 그러고 나서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을진대, 심판의 날에 너희가 잘되리로다. 아멘.

[ㄱ] 8 몰몬경 [ㄴ] 8 성경전서 [ㄷ] 10 니파이후서 31:6~12 참조; 마태복음 3:13~17; 마가복음 1:9~11; 누가복음 3:21~22; 요한복음 1:29~34 비교 [ㄹ] 10 제3니파이 12:1

모로나이가 몰몬의 기록에 추가한 부록

몰몬서 제 8 장~모로나이서

몰몬서

제 8 장~제 9 장

모로나이$_2$가 그의 아버지의 기록을 탈고하다[ㄱ]

몰몬서 8~9장

니파이인들의 최후

8 보라, 나 모로나이는 나의 부친 몰몬의 기록을 마무리하노라. 보라, 나는 기록할 것이 얼마 되지 아니하거니와 이것은 내가 나의 부친에게서 명을 받은 것이니라.

[2]또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쿠모라에서의 대격전 이후에, 보라, 남방 땅으로[ㄴ] 도피하였던 니파이인들은 레이맨인들에게 수색당하여 결국은 모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3]또 나의 부친 역시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며, 내가 다만 홀로 남아 나의 백성의 슬픈 멸망의 이야기를 기록하노라. 그러나 보라, 그들은 갔고, 나는 나의 부친의 명령을 이루노니,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4]그러므로 내가 기록하고 이 기록을 땅에 감출 것이라, 그리고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도다. [5]보라, 나의 부친이 이 기록을 만드셨고 또 그 의도를 기록하셨나니,[ㄷ] 보라, 내가 판에 여백이 있으면 나도 그 의도를 기록할 것이나, 판에 여백이 없고, 또 광석도 내게 없으니, 이는 내가 홀로 있음이라. 나의 부친과 나의 모든 친족은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며, 나는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나니, 어느 때까지 주께서 나를 살려 두실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6]보라, 우리의 구주께서 오신 때로부터 사백 년이 지나갔노라.[ㄹ] [7]또 보라, 레이맨인들은 나의 백성 니파이인들을 성읍에서 성읍으로 이 곳에서 저 곳으로 참으로 그들이 더 이상 없기까지 수색하여 죽였나니, 그들의 무너짐이 컸도다. 참으로 나의 백성 니파이인들의 멸망됨이 크고 기이하도다. [8]또 보라, 이를 행한 것은 주의 손이라. 또한 보라, 레이맨인들도 서로 싸우고 있어, 이 땅의 온 지면이 일련의 끊임없는 살인과 피흘림의 장이 되어, 아무도 이 전쟁의 끝을 알지 못하는도다.

[9]또 이제 보라, 내가 그들에 관하여 더 이상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땅 위에는 생존한 자가 레이맨인들과 도적들 밖에 없음이라. [10]그리고 예수의 제자들, 곧 백성들의 간악함이 심히 커서 주께서 백성들과 함께 남아 있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려 하실 때까지 이 땅에 머물렀던 예수의 제자들 외에는 참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으며,[ㅁ] 그

[ㄱ]1 이 두 장은 모로나이$_2$가 몰몬경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자 한 첫 번째 시도임; 다른 두 가지 시도의 작별인사는 이더서 12:38~41과 모로나이서 10:1~34에 나옴; 니파이후서 33:10~15; 야곱서 6:5~13; 7:26~27; 이노스서 1:25~27 비교 [ㄴ]2 몰몬서 6:15 [ㄷ]5 제3니파이 26:8~10; 몰몬서 3:20~22; 5:14~15; 7:9~10 [ㄹ]6 +400년 [ㅁ]10 몰몬서 1:13, 16

들이 땅 위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도다. 11 그러나 보라, 나의 부친과 나는 그들을 보았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성역을 베풀었느니라.

12 또 누구든지 이 기록을 받고, 그 가운데 있는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이를 비난하지 아니할 자, 그는 이보다 더욱 큰 일을 알게 될 것이라. 보라, 나는 모로나이라, 가능하다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줄 수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약속대로 드러내어질 이 기록들

13 보라, 나는 이 백성에 관하여 말하기를 마치노라. 나는 몰몬의 아들이요, 나의 부친은 니파이의 후손이니라. 14 또 나는 이 기록을 주께 감추는 바로 그 사람이니라. 주의 계명으로 인하여 그 판은 아무 가치가 없나니, 이는 그가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이익을 얻기 위하여는 그것들을 갖지 못할 것이라 하심이니라. 그러나 그 기록은 큰 가치가 있나니 누구든지 이를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자를 주께서 축복하시리라. 15 이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이를 빛 가운데로 드러낼 능력을 가질 수 없음이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의 영광을, 또는 오래 흩어져 있었던 주의 옛 성약의 백성의 복리를 전념하여 구하는 중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심이라. 16 또한 이것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그에게 복이 있으리니, ㄱ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드러나겠음이라. ㄴ 참으로 이것은 땅에서 나올 것이요, 어두운 데서 비취어 백성들에게 알려지리니,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17 또 만일 거기에 잘못이 있다 하면 그것은 사람의 잘못일지라, 그러나 보라, 우리는 아무 잘못도 알지 못하노라.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그러므로 비난하는 자는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18 또 내게 보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맞으리라고 말하는 자—그는 주께서 금하신 것을 명하지 않도록 주의할지어다. 19 이는 보라, 성급하게 판단하는 자는 도로 성급하게 판단을 받을 것임이니, 이는 저의 행위를 따라 저의 삯이 있을 것임이라. 그러므로 치는 자는 주께로 말미암아 도로 침을 입으리로다. 20 경전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라—"사람은 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지니, '이는 심판이 내 것이요', '보복도 나의 것인 즉, 내가 갚을 것임이니라.' "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ㄷ

21 또 주의 일을 대적하며, 주의 성약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집을 대적하여 분노와 다툼을 내뿜으며 이르기를, "우리가 주의 일을 무너뜨리리라. 그리하면 주는 이스라엘의 집에 세우신 그의 성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할 자"—그는 찍혀 불에 던지울 위험에 처하여 있나니, 22 이는 주의 영원한 목적들은 그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여 진행되어 갈 것임이니라.

23 이사야의 예언을 상고하라. 보라, 내가 그것을 기록할 수 없노라. 참으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땅을 소유하였다가 나보다 앞서 간 그 성도들이 부르짖을 것이라. 참으로 티끌에서부터 그들이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살아 계심같이 그는 그들과 맺으신 성약을 기억하시리라. ㄹ 24 또 그는 그들의 기도를 아시나니, 곧 그들의 기도가 그 형제들을 위한 것이었던 줄을 아시며, 또 그는 그들의 신앙도 아시나니, 이는 그의 이름으로 그들이 산을 움직일 수 있었으며, ㅁ 또 그의 이름으로 그들이 땅을

ㄱ 16 조셉 스미스 2세 ㄴ 16 니파이후서 3:5 참조; 앨마서 37:23~25 비교 ㄷ 20 몰몬서 3:15 참조; 신명기 32:35; 로마서 12:19; 히브리서 10:30 비교 ㄹ 23 니파이후서 29:1~2; 이노스서 1:11~18; 몰몬의 말씀 1:11 참조; 니파이후서 3:19~20 비교 ㅁ 24 야곱서 4:6; 힐라맨서 10:9; 이더서 12:30

진동하게 할 수 있었으며,[ㄱ] 또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써 그들이 옥들로 땅에 무너지게 하였음이라.[ㄴ] 참으로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인하여 극렬한 풀무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였으며,[ㄷ] 들짐승이나[ㄹ] 독사들도[ㅁ] 그들을 해하지 못하였느니라. [25]또 보라, 그들의[ㅂ] 기도는 또한 주께서 이러한 것들을[ㅅ] 드러내게 하실 자도 위한 것이었더라. [26]아무도 이것이 나아오지 아니할 것이라 말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이것들이 반드시 나아올 것임이라. 이는 주께서 그리 말씀하셨음이니라.[ㆆ] 이는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이것들이 나아올 터인 즉 아무도 이것을 막지 못할 것임이라.

이 기록이 드러내어질 그 날

또 이는 기적이 폐하여졌다 하는 날에 나아올 것이요, 참으로 마치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하는 것같이 나아올 것이라.

[27]또 비밀 결사와 어둠의 일로 인하여, 성도들의 피가 주께 부르짖는 날에 나아올 것이라.

[28]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부인되며, 교회들이 더럽혀지고 그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된 날에, 참으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사들이 그 마음의 교만 중에 일어나 실로 그들의 교회에 속한 자들을 시기하기에 이르는 날에 나아올 것이라.

[29]참으로 이것은 타국 땅에 불과 태풍과 연무가 있음을 듣게 되는 날에 나타나리니, [30]또 그때에 또한 처처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과 지진이 있음을 듣게 되리라.

[31]참으로 이것은 지구상에 큰 오염이 있는 날에 나아오리니, 살인과 강탈과 거짓말과 속임과 음행과 온갖 가증함이 있을 것이라. 그때 많은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이렇게 하라, 아니면 저렇게 하라, 어찌하든지 상관이 없나니, 이는 마지막 날에 주께서 그러한 자를 붙들어 주실 것임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자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쓰디쓴 담즙에 빠져 있고 불의에 매여 있음이라.

[32]참으로 이것은, "내게로 오라, 너희의 돈으로 인하여 너희가 너희의 죄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교회들이 세워지는 날에 나아오리라." [33]오 너희 악하고 패역하며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익을 얻고자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세웠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변형시켜 너희 영혼에 정죄를 자초하고자 하였느냐? 보라, 너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라. 이는 보라, 그 날에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이름이니라.

[34]보라, 이러한 것이 너희 중에 나아올 그 날에 반드시 속히 이를 일에 관하여 크고 기이한 일들을 주께서 내게 보이셨느니라. [35]보라, 마치 너희가 지금 있는 것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아직은 너희가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내게 보이신지라, 내가 너희의 행함을 아노라. [36]또 나는 너희가 너희 마음의 교만 중에 행하며, 다만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마음의 교만 중에 자고하여, 아주 좋은 옷을 입으며, 시기함과 다툼과 악독과 핍박과 온갖 죄악을 행하기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없으며, 너희의 교회는 참으로 모두가 너희 마음의 교만으로 인하여 오염된 줄을 아노라. [37]이는 보라, 너희가 돈과 너희의 재물과 너희의 좋은 옷과 너희의 교회 장식함을 사랑하기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난 받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함이라.

[ㄱ]24 힐라맨서 5:27 [ㄴ]24 앨마서 14:27; 제3니파이 28:19; 제4니파이 1:30; 이더서 12:13 [ㄷ]24 제3니파이 28:21; 제4니파이 1:32 [ㄹ]24 제3니파이 28:22; 제4니파이 1:33 [ㅁ]24 몰몬서 9:24 참조 [ㅂ]25 조셉 스미스 2세 [ㅅ]25 이는 곧, 몰몬경; 여기에서 복수 대명사로 표현한 "이러한 것들"은 26절에서 시작하여 다음 단락에서도 계속 단수 대명사 "이"로 전환됨 [ㆆ]26 예를 들면, 니파이전서 13:35; 14:26; 제3니파이 21:3~7

38 오 썩을 것을 위하여 너희 스스로를 파는 너희 오염물들, 너희 위선자들, 너희
교사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더럽혔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그
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기를 부끄러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결코 그치지 아니하는
저 비참보다 끝없는 행복의 가치가 더 큼을 생각하지 아니하느냐—세상의 칭찬으로
인함이냐? 39 어찌하여 너희는 생명이 없는 것으로 너희 스스로를 꾸미면서도, 주린
자와, 궁핍한 자와, 벗은 자와, 병든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이 너희 곁을 지나가되 그들
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느냐? 40 참으로 어찌하여 너희는 이익을 얻고자 너희의
비밀 결사를 만들어 과부들로 주 앞에 애통하게 하며, 또한 고아들로 주 앞에 애통하
게 하며, 또한 그들의 부모와 그들의 남편의 피가 너희의 머리 위에 복수가 임할 것을
땅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게 하느냐? 41 볼지어다, 복수의 검이 너희 위에 걸려 있어, 그
가 성도들의 피를 너희에게 갚으실 때가 곧 이르나니, 이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가
더 오래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모로나이의 메시지

9 그리고 이제 내가 또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관하여 말하노라. 2 보라,
너희는 너희를 징벌하시는 날에 믿으려느냐—보라, 주께서 오실 때, 곧 참으로
땅이 두루마리처럼 함께 말리우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을 저 큰 날에, 참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저 큰 날에—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겠느냐? 3 그때에도 너희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너희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너희는 너희의 죄를 깨달으며 그와
함께 거하게 될 줄로 생각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그의 율법을 항상 그릇되게만 취급
한 죄에 대한 자각으로 너희의 영혼이 찢기는 듯 할 때, 저 거룩하신 이와 함께 거하는
것이 행복할 줄로 생각하느냐?

4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더
러움을 자각하며 그와 함께 거하는 것은, 지옥에서 정죄 받은 영혼들과 함께 거하는
것보다 더욱 비참할지니라. 5 이는 보라, 너희가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앞에서 너희의 벌거벗음을 보게 될 때, 너희에게 꺼지지 아니할
화염이 불붙게 될 것임이라. 6 그러할진대 오 너희 믿지 아니하는 자들아, 너희는 주
께로 돌이키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부르짖으라. 그리하여 혹시라도 저
큰 마지막 날에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흠 없고 정결하며 아름답고 흰
자로 발견되게 하라.

기적이나 계시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모로나이의 메시지

7 그리고 또 내가 너희, 곧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며, 그것이 폐하여졌고, 계시도 없
고, 예언도 없으며, 은사도 없고, 병 고침도 없고, 방언으로 말함도 없고, 방언을 통
변함도 없다 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라. 8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것을
부인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라, 참으로 저는 경전을 읽지 아니한
자요, 읽었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라. 9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ㄱ
동일하시며, 그에게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화하는 흔적도 없으심을 우리가 읽지 아니
하느냐? ㄴ

ㄱ 9 니파이전서 10:18; 니파이후서 27:23; 29:9 참조; 히브리서 13:8 비교 ㄴ 9 앨마서 7:20 참조; 야고보서 1:17 비교

10 또 이제 만일 너희가 너희 스스로 변화하며 변하는 흔적을 가진 신을 생각하였다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기적의 하나님이 아닌 신을 생각한 것이라. 11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기적의 하나님을 보이리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니라.

12 보라, 그가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타락이 왔으며,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 아버지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람의 구속이 왔느니라. 1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사람의 구속으로 인하여, 그들이 주의 면전으로 도로 데려옴을 입나니, 참으로 이리하여 모든 사람이 구속함을 입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활을 이루며, 부활은 끝없는 잠에서의 구속을 이룸이니,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잠에서 깨어날 것이라. 이에 그들이 무론 대소하고 나아와, 이 영원한 사망의 줄에서 (이 사망은 현세적 사망이라) 구속함을 입고 풀려나서 모두 그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14 그러고 나서 거룩하신 자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며,

그러고 나서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행복한 자는 그대로 행복하고,
불행한 자는 그대로 불행하게 될 때가 오느니라.

15 이제 너희, 곧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는 신을 스스로 생각한 너희 모든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고자 하노니 내가 말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느냐? 이미 끝이 왔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느니라. 16 보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우리 눈에 기이하지 아니하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뉘 능히 깨닫겠느냐? 17 그의 말씀으로 하늘과 땅이 있게 되며,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사람이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으며, 그의 말씀의 권능으로 기적이 이루어진 것을 누가 기적이 아니었다 말하겠느냐? 18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한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누가 말하겠느냐? 또 사도들의 손으로도 많은 능한 기적들이 이루어졌느니라. ⌝

19 그리고 그때 만일 기적이 이루어졌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시고도 오히려 불변하시는 존재이시겠느냐? 그러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변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만일 그리하신다면 그는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실 것이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시니라. 20 또 그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기를 그치시는 까닭은 그들이 믿지 않음에 빠지며, 바른 길에서 떠나 그들이 의뢰해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것이라.

⌝18 니파이인 열두명은 항상 "제자"로 불렸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사도"는 예상치 못한 말이 될 수 있으나 모로나이$_2$는 계시를 통해 유대 초기 교회에 대해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 이더서 12:41; 모로나이서 12:2 비교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의심하지 말라

모로나이₂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다 (마가복음 16:15~18)

21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저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저에게 주시리니, 이 약속은 참으로 땅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니라. 22 이는 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물게 될 그의 제자들에게와, 또한 그의 모든 제자들에게 무리가 듣는 데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3 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24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들이 나으리라. 2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 그에게는 내가 참으로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말을 확증하여 주리라 하셨음이니라.┐

26 이제 보라, 누가 주의 일을 대적할 수 있느냐? 누가 그의 하시는 말씀을 부인할 수 있느냐? 누가 일어나 주의 전능한 권능을 대적하겠느냐? 누가 주의 하시는 일을 멸시하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자녀를 업신여기겠느냐? 볼지어다, 주의 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너희 모든 자들아, 이는 너희가 기이히 여기고 멸망할 것임이니라.

27 오 그러할진대 경멸하지 말며, 기이히 여기지 말고, 도리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리고 옛적과 같이 시작하여 너희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나아와, 그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28 너희의 시험의 날에 지혜로우라. 모든 부정함을 벗어 버리라. 욕망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며, 도리어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함으로 구하여, 너희가 아무 유혹에도 지지 않게 하며, 참되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29 합당하지 않게 침례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합당하지 않게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직 범사를 합당하게 행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고 끝까지 견디면 결단코 쫓겨나지 아니하리라.

이 기록을 전하는 언어

30 보라, 내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말함 같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갖게 될 줄 내가 앎이라. 31 나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나를 정죄하지 말며, 나의 부친이나 그의 전에 기록한 이들을 그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정죄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불완전함을 너희에게 나타내사 너희로 우리보다 더욱 현명하게 되도록 배우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32 또 이제 보라, 우리는 우리에 의하여 전해져 내려오며 우리의 말하는 방식을 좇아 변경된 바, 우리 중에 개정된 애굽어라 일컬어지는 글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25 이 말씀은 제3니파이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 문구는 (23절의 앞부분에 추가된 또만 빼면) 마가복음 16:15~18과 정확히 일치함; 이더서 4:18 비교

따라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33]또 만일 우리의 판이 충분히 컸더라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히브리어 또한 우리에 의하여 변경되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히브리어로 기록할 수 있었더라면, 보라, 너희가 우리의 기록에서 불완전함을 찾아볼 수 없었으리라. [34]그러나 주는 우리의 기록한 것과 또한 다른 아무 백성도 우리의 언어를 알지 못함을 아시나니, 그러므로 다른 아무 백성도 우리의 언어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는 이의 해석을 위한 방편을 마련하셨느니라.

[35]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믿지 않음에 빠져든 우리 형제들의 피가 우리 옷에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더라. [36]또 보라, 우리의 형제들에 관하여 우리가 원한 이러한 일, 곧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로 회복되는 일은 이 땅에 거하였던 모든 성도의 기도에 따른 것이라.┐ [37]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신앙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의 집과 더불어 세우신 성약을 기억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영원토록 그들을 복주시옵소서. 아멘.

┐36 니파이후서 29:1~2; 이노스서 1:11~18; 몰몬의 말씀 1:11

이더서

야렛인들의 기록이니, 모사이야 왕 시대에 림하이의 백성들이 발견한 스물넉 장의 판에서 취한 것이라.[ㄱ]

모로나이$_2$의 첫 번째 부연

이더서 1:1~5

스물넉 장의 판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한 소개[ㄴ]

1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이어서 이 북쪽 지방에서 주의 손에 멸망당한 저 옛 주민들의 기사를 진술하리로다. 2또 나는 림하이의 백성들이 발견한 바 이더서라 칭하는 스물넉 장의 판에서 나의 기사를 취하니라.[ㄷ]

3그리고 생각하건대 이 기록의 첫 부분, 곧 세상의 창조와 또한 아담의 창조에 관하여 말해 주며, 그때로부터 큰 탑에[ㄹ] 이르기까지의 기사와, 무엇이든지 그때까지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은즉— 4그러므로 나는 아담의 시대로부터 그때까지 일어났던 일은 기록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 일들이 판에 있은즉, 누구든지 이를 발견하는 자는 온전한 기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것이니라. 5그러나 보라, 나는 온전한 기사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다만 탑으로부터 그들이 멸망당하기까지 그 기사의 일부분을 내가 진술하노라.

이더의 계보[ㅁ]

6 이와 같이 그 기사를 내가 진술하노니,
이 기록을 기록한 자는 이더였고,
그는 코리앤토어의 후손이더라.[ㅂ]
7 코리앤토어는 모론의 아들이요,
8 모론은 이뎀의 아들이요,
9 이뎀은 에이하의 아들이요,
10 에이하는 셋의 아들이요,
11 셋은 시블론[ㅅ] 의 아들이요,

[ㄱ]1 1920년에 추가된 이 서문은 몰몬경의 원본에는 없었음; 몰몬$_2$은 모사이야서 28:17~19에서 야렛인들의 이야기를 요약한 기록을 약속했음 [ㄴ]1 이 부분은 모로나이$_2$가 선도를 목적으로 야렛인에 대해 이야기한 여섯 가지 별개 부연 설명 중 첫 번째 부분임 [ㄷ]2 모사이야서 8:7~9; 28:10~19 [ㄹ]3 바벨탑 추정 [ㅁ]6 이 계보는 6장~11장에서 야렛인 왕들 연대기의 기초가 됨 [ㅂ]6 이더서 11:23에 따르면 이더는 코리앤토어의 아들임 [ㅅ]11 이 이후로는 시블롬으로 나옴; 이더서 11:4 참조

12 시블론은 콤의 아들이요,
13 콤은 코리앤툼의 아들이요,
14 코리앤툼은 앰니개다의 아들이요,
15 앰니개다는 아론의 아들이요,
16 아론은 헷의 후손이니 ㄱ
헷은 히아아돔의 아들이요,
17 히아아돔은 리브의 아들이요,
18 리브는 키시의 아들이요,
19 키시는 코롬의 아들이요,
20 코롬은 레위의 아들이요,
21 레위는 킴의 아들이요,
22 킴은 모리앤톤의 아들이요,
23 모리앤톤은 리플레이키시의 후손이요,
24 리플레이키시는 세즈의 아들이요,
25 세즈는 헷의 아들이요,
26 헷은 콤의 아들이요,
27 콤은 코리앤툼의 아들이요,
28 코리앤툼은 이머의 아들이요,
29 이머는 오머의 아들이요,
30 오머는 슐의 아들이요,
31 슐은 키브의 아들이요,
32 키브는 오라이하의 아들이요,
오라이하는 야렛의 아들이더라.

33 이 야렛은, 주께서 백성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며, 그의 진노 중에 맹세하시기를 그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리라 하시던 때에, 그의 형제와 각자의 가족과 함께, 몇몇 다른 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함께 큰 탑으로부터 나아온 자요, 주의 말씀대로 백성들은 흩어졌느니라. ㄴ

야렛1과 그의 형제가 주님께 호소하다

34 그리고 야렛의 형제는 크고 용사인 자요, 주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였던지라, 그의 형제 야렛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 부르짖어 우리가 우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도록 그가 우리를 혼란하게 하시지 않게 하라." 3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야렛을 긍휼히 여기신지라, 그러므로 야렛의 언어를 혼잡하게 아니하시니, 야렛과 그의 형제가 혼란하게 되지 아니하였더라.

36 이에 야렛이 그 형제에게 일렀으되, "주께 다시 부르짖으라. 혹 주께서 우리의 친구되는 자들에게서 그의 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아니하시리라." 3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그들의 친구와 그들의 가족들도 긍휼히 여기신지라, 그들이 혼란하게 되지 아니하였더라.

3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이 그의 형제에게 다시 말하여 이르되, "가서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실지 주께 물어보라. 만일 우리를 이 땅에서 쫓아내실진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주께 부르짖으라. 주께서 온 땅 위에 뛰어난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실지

ㄱ 16 이더서 10:31에 따르면 아론1은 헷2의 아들임 ㄴ 33 창세기 11:1~9

누가 아느냐? 또 만일 그러할진대 우리가 주께 충실하여 그 곳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도록 하자" 하였더라. 3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야렛의 입으로 말한 바 된 대로 주께 부르짖었더라.

4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야렛의 형제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에게 이르시되, 41"가서 각종 네 양 떼의 암수와 또한 각종 땅의 씨앗과 네 가족들과 또한 네 형제 야렛과 그의 가족과 또한 네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과 야렛의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을 함께 모으라. 42네가 이같이 하고 나서 너는 그들을 이끌고 북편의 골짜기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네 앞에 행하여 세상의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으로 들어가겠노라. 43또 거기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어, 네 자손과 네 형제의 자손과 너와 함께 갈 자들의 자손으로부터 나를 위하여 한 큰 나라를 일으키리니, 온 지구상에 내가 네 자손으로부터 나를 위하여 일으킬 그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없으리라. 이같이 내가 네게 행할 것은 이 오랜 시간을 네가 내게 부르짖었음으로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야렛인들이 여행을 시작하다

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과 그의 형제와 그들의 가족들과 또한 야렛과 그의 형제의 친구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그 함께 모은 바, 그들의 각종 양 떼의 암수와 함께 북편의 골짜기로 (그 골짜기의 이름은 니므롯이니 저 영걸한 사냥꾼을 따라 일컫는 것이더라)[1] 내려갔느니라. 2또 그들이 올무를 놓아 공중의 새도 잡았으며, 또 그들이 용기를 하나 준비하여, 거기에 물고기도 담아서 가져갔더라. 3그리고 그들이 또한 데세레트도 가져갔으니, 이는 "해석한즉 꿀벌이라." 이같이 그들이 벌 떼와, 땅 위에 있는 온갖 것, 각종 씨앗을 가져갔더라.

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니므롯 골짜기로 내려오매 주께서 내려오사 야렛의 형제와 말씀하셨으나, 그가 구름 가운데 계셨던지라, 야렛의 형제가 주를 보지 못하였더라. 5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되, 참으로 사람이 결코 있지 아니하였던 지역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며, 구름 가운데 서셔서 그들과 말씀하시며, 그들이 어디로 여행해야 할지 지시해 주셨더라.

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끊임없이 주의 손으로 지시하심을 받으며, 광야를 여행하고, 거룻배들을 지어 타고, 많은 물을 건넜더라. 7또 주는 그들이 바다 건너 광야에서 멈추기를 용납하고자 아니하시고, 그들로 나아가 참으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고자 하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의로운 백성을 위하여 보존하신 바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이더라. 8또 그는 그의 진노 중에 야렛의 형제에게 맹세하사, 그때로부터 이후 영원토록 누구든지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자는 그 곧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가득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1] 창세기 10:8~9

모로나이$_2$의 두 번째 부연

이더서 3:9-12

이 땅에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

9 이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 있으니, 곧 이 땅은 약속의 땅이요, 무릇 어느 나라든지 이를 차지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길지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의 가득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할 것이라 함이니라. 또 그의 가득한 진노는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었을 때 그들에게 임하느니라. 10 이는 보라, 이 땅은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을 차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지며, 그렇지 아니하면 쓸어버림을 당하리니 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명령임이니라. 그러나 이 땅의 자녀들 가운데 죄악이 가득해지기까지는 그들이 쓸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1 또 너희 이방인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나아옴은 너희로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하려 함이요—그리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그 가득함이 임하기까지 너희의 죄악 중에 계속 행하지 않게 하여, 너희가 이제까지 이 땅의 주민들이 행하여 온 것같이 하나님의 가득한 진노를 너희 위에 초래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12 보라 이는 빼어난 땅이니, 무릇 어느 나라든지 이를 소유하게 되는 나라는, 만일 그들이 이 땅의 하나님, 곧 우리가 기록한 것으로 말미암아 명백히 나타낸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만 하면, 속박에서와, 사로잡힘에서와,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

광야에서의 훈계

13 이제 나는 나의 기록을 계속하노라.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야렛과 그의 동료들을 인도하사 땅들을 갈라놓는 저 큰 바다로 데려가시매, 그들이 바다에 이르러 그들의 장막을 치고 그 곳 이름을 모리안쿠머라[ㄱ] 칭하였으며, 그들이 장막에 거하되 사 년 동안을 바닷가에서 장막에 거하였더라.

1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사 년 말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로 다시 오사, 구름 가운데 서셔서 그와 말씀하시되, 세 시간 동안 주께서 야렛의 형제와 말씀하시고 그를 질책하시니, 이는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이라. 15 이에 야렛의 형제가 자기의 행한 악을 회개하고,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른지라,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동료들의 죄를 사하리라. 그러나 너는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나의 영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지는 아니할 것임을 너희가 기억할 것임이니라. 그런 즉 만일 너희가 죄로 온전히 무르익기까지 죄를 범할진대, 너희가 주의 면전에서 끊어 버림을 당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기업을 삼게 할 그 땅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 이는 그것이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이 될 것임이니라" 하시더라.

[ㄱ] 13 후기성도의 전통에 의하면, 야렛$_1$의 형제의 이름은 *모리안쿠머라* 였음

거룻배에 들어오지 않는 공기와 빛

16 또 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일하여 너희가 이제까지 지어 온 거룻배의 방식을 따라 지으라” 하시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와 또한 그의 동료들이 가서 일하여, 주의 지시를 좇아, 그들이 지었던 방식을 따라 거룻배들을 지으매, 그 배들은 작으며, 물 위에서 가볍기가 참으로 마치 물 위에 뜬 새의 가벼움 같았더라. 17 또 그 배들은 아주 물샐틈없이 지어져 마치 접시처럼 물을 가둘만 하였으며, 그 바닥도 물샐틈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으며, 그 옆면도 물샐틈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으며, 그 양끝은 뾰족하였으며, 그 위도 물샐틈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으며, 그 길이는 나무 하나의 길이였으며, 그 문도 닫으면 물샐틈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더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 부르짖어 아뢰되, “주여, 주께서 내게 명하신 일을 내가 실행하여 주께서 나를 지도하신 대로 거룻배들을 만들었나이다. 19 그러나 주여, 보소서, 그 안에 빛이 없나이다. 어디로 우리가 방향을 돌려야 하오리이까? 또한 우리가 죽게 되오리니, 이는 그 안에 있는 공기 외에는 그 안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으므로 우리가 죽게 될 것임이니이다.”

20 이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위와 또한 아래에 구멍을 하나씩 낼지니, 네가 공기가 부족할 때 너는 구멍을 열고 공기를 받을지니라. 또 만일 물이 네게로 들어오거든, 보라, 너희는 구멍을 막아서 넘치는 물에 잠겨 죽지 않게 할지니라.” 21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주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 행하였더라.

22 그리고 다시 주께 부르짖어 아뢰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행하여 나의 백성을 위하여 배를 예비하였사오나, 보소서, 그 안에 빛이 없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이 큰 물을 암흑 중에 건너도록 버려두시려 하나이까?”

23 이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배 안에 빛을 갖도록 내가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보라, 너희가 창을 가질 수 없나니, 이는 그것이 부서져 산산조각이 될 것임이요, 너희가 불을 가져가지도 말지니, 이는 너희가 불빛에 의지하여 행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24 이는 보라, 산 같은 파도가 너희 위에 부딪치므로 너희가 바다 한 가운데 있는 고래 같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바다 깊은 곳에서 너희를 다시 인도해 올리리니, 이는 바람이 내 입에서 나아갔으며, 비와 넘치는 물도 내가 보내었음이라. 25 이에 보라, 이러한 것에 대비하여 내가 너희를 예비시키노니, 이는 바다의 파도와 나아간 바람과 밀려올 넘치는 물에 대비하여 내가 너희를 예비시키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이 큰 깊음을 건널 수 없음이니라. 그러한즉 너희가 바다 깊은 곳에 삼키울 때에 너희가 빛을 갖도록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예비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16 위 6절 참조

16개의 작은 돌

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이제 예비된 배의 수가 여덟이었더라) 심히 높으므로 사람들이 셀렘이라 일컫는 산으로 나아가, 한 바위로부터 작은 돌 열여섯 개를 녹여내었으니, 그것들은 투명한 유리같이 희고 맑았더라. 이에 그가 그것들을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 주께 다시 부르짖어 이르되, [2]"주여, 주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넘치는 물에 둘러싸일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제 주여 보시옵고, 주 앞에서 주의 종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는 거룩하사 하늘에 거하시오며, 우리는 주 앞에 합당하지 아니한 줄 앎이니이다.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의 천성이 끊임없이 악하게 되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사 우리로 주를 부르게 하셨사오니, ㄱ 이는 주께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주여 보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몰아 내시매, 우리가 이 여러 해 동안 광야에서 있었나이다. 그러하올지라도 주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나이다.

"주여,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의 백성에게서 주의 노여움을 돌이키시고, 그들로 암흑 중에 이 격노하는 깊음을 건너 나아가게 하지 마시옵고, 내가 바위에서 녹여 낸 이것들을 보시옵소서. [4]그리고 주여, 주께서는 모든 권능을 가지셨사옵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일이면 다 하실 수 있는 줄 내가 아오니, 그러므로 주여, 주의 손가락으로 이 돌들을 만지사, 그것들이 암흑 중에 빛을 발하도록 예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오면 그것들이 우리가 예비한 배 안에서 우리에게 빛을 발하리니, 우리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우리에게 빛이 있으리이다. [5]주여 보시옵소서, 주는 이를 행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는 사람들의 이해력에는 작아 보이는 큰 권능을 능히 보이실 수 있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야렛$_1$의 형제가 육신으로 오시기 전의 그리스도를 보다

[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형제가 이 말을 하고 나자, 보라, 주께서 그의 손을 내어미사 그의 손가락으로 돌을 하나씩 만지시니, 야렛 형제의 눈에서 휘장이 걷히고, 저가 주의 손가락을 보매, 살과 피를 가진 사람 손가락 같더라. 이에 야렛의 형제가 주 앞에 엎드러졌으니, 이는 저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이라.

[7]이에 주께서 야렛의 형제가 땅에 엎드러진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네가 엎드러졌느냐?"

[8]이에 저가 주께 여짜오되, "내가 주의 손가락을 보고 주께서 나를 치실까 두려워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살과 피를 가지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음이니이다."

[9]이에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네 신앙으로 인하여 장차 내가 살과 피를 입게 될 것을 네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일찍이 너와 같이 그처럼 큰 신앙으로 내 앞에 나아온 일이 결코 없었느니라. 이는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네가 나의 손가락을 볼 수 없었을 것임이니라. 네가 이것 외에 본 것이 더 있느냐?"

[10]이에 저가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여, 주를 내게 보이시옵소서."

[11]이에 주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할 말을 믿느냐?"

[12]또 저가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줄을 내가 아오니, 이는 주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라, 거짓말하실 수 없으심이니이다."

ㄱ2 이더서 2:14 참조; 이더서 2:18에서 3:5까지 12번 반복된 "주여"는 이더서 2:14에서 "주의 이름 부르기"를 기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질책하신 주님께 응답하는 것으로 추정

13또 저가 이 말을 하고 나자, 보라, 주께서 자신을 저에게 보이시고 이르시되, "네가 이러한 일들을 아는 고로 타락에서 구속되었나니, 그러므로 네가 나의 면전으로 다시 데려옴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나를 보이노라. 14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을 구속하도록 예비된 자니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아버지요 아들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되 영원히 얻으리니, 곧 나의 이름을 믿을 자들이라. 그들이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되리라.

15"그러나 내가 창조한 사람에게 내가 결코 나를 보이지 아니하였었나니, 이는 사람이 결코 너와 같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네가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네가 보느냐? 참으로 만인이 태초에 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느니라.ㄱ 16보라, 네가 지금 보는 바 이 몸은 나의 영의 몸이니, 사람을 내가 나의 영의 몸을 따라 창조하였고, 또 내가 지금 네게 영으로 있는 것처럼 장차 나의 백성에게 육신으로 나타나리라" 하시니라.

모로나이$_2$의 세 번째 부연

이더서 3:17~20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지식

17또 이제 나 모로나이가 말한 대로, 나는 기록된 이 일들을 모두 기술할 수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예수께서 참으로 니파이인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같이 그 동일한 몸의 모양과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 자기를 영으로 보이셨음을 말하는 것으로 족하도다.ㄴ 18또 그는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던 것같이 저에게 성역을 베푸셨으니, 이 모두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주께서 저에게 보이신 많은 큰 일들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19또 이 사람의 지식으로 인하여 저에게는 휘장 안을 바라볼 수 없도록 금할 수 없었나니, 이에 저가 예수의 손가락을 보았으며, 이를 저가 보았을 때 저가 두려움으로 엎드러졌으니, 이는 그것이 주의 손가락인 줄을 저가 알았음이라. 이에 저가 더 이상 신앙에서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알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아니함이었더라. 20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이 완전한 지식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에게는 휘장 안이 금한 바 될 수 없었던지라, 그러므로 저가 예수를 보았고 예수께서는 저에게 성역을 베푸셨더라.

모든 것에 대한 계시가 봉인되다

21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는 내가 육신으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때가 이르기까지, 네가 보고 들은 이 일들을 세상에 나아가게 하지 말지니라. 그러한즉 너는 네가 보고 들은 일들을 보배롭게 간직하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지니라. 22또 보라, 네가 내게 나아올 때, 너는 그것을 기록하고 봉하여,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게 할지니, 너는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그것을 기록할지니라. 23또 보라, 이 두 돌을 내가 네게 주리니, 너는 이것도 네가 기록할 것과 함께 인봉할지니라. 24이는 보라, 네가 기록할 언어를 내가 이미 혼잡하게

ㄱ15 창세기 1:27 ㄴ17 제3니파이 11~26

하였음이니, 그러므로 나의 정한 때에 내가 이 돌들로 네가 기록할 이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 크게 보이게 하리로다."

[25]또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야렛의 형제에게 그때까지 있었던 땅의 모든 주민들과 또한 앞으로 있을 모든 자를 보이시며,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저의 보는 데서 그들을 감추지 아니하셨더라. [26]이는 전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저가 주께서 모든 것을 저에게 보이실 수 있다고 주를 믿을 것 같으면—그것을 저에게 보이시리라고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아무것도 저에게 감추실 수 없으셨나니, 이는 주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보이실 수 있으신 줄을 저가 알았음이더라.

[27]또 주께서는 저에게 이르시되, "이 일들을 기록하고 인봉하라. 내가 나의 정한 때에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를 보이리라" 하셨더라. [28]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저에게 명하사 저로 저가 받은 두 돌도 인봉하고,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를 보이시기까지 그것을 보이지 말게 하셨더라.

모로나이$_2$의 네 번째 부연

이더서 4~5장

금판의 인봉된 부분

4 또한 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명하사 주의 면전에서 물러가 산을 내려가서 그가 본 것을 기록하게 하시되, 주가 십자가 위에 들리시기까지 그것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아감을 금하셨으니, 이 까닭에 모사이야 왕은 이를 간직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보이시기까지 이것이 세상에 나아가지 않게 하였더라.ㄱ [2]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보이신 후에 그는 이 일을 드러낼 것을 명하셨더라.ㄴ [3]또 이제 그 후에 그들이 모두 믿지 않음에 빠져들었고, 레이맨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으되,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한지라, 그러므로 나는 이를 다시 땅에 감추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4]보라, 내가 이 판에 야렛의 형제가 본 바로 그 일을 기록하였노니, 야렛의 형제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일보다 더 큰 일이 결코 나타내신 바 되지 아니하였도다. [5]그리하여 주께서 내게 명하사 이를 기록하게 하시므로, 내가 이를 기록하였으며, 또 주께서 내게 명하사 이를 인봉하게 하시고, 또한 명하시기를 그 해석도 인봉하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좇아 해석기들을 인봉하였도다.

ㄱ1 모사이야$_2$는 모사이야서 28:11~18에서 야렛$_1$의 시현에 대한 세부사항을 누락하고 야렛인들의 역사를 구두로만 요약했던 것으로 추정 ㄴ2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추가적인 계시를 약속하시다

6 이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여 주 앞에
정결하게 되는 날까지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
음이라. 7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내 안에서 성결하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이 참으로 야렛의 형제가 행한 것같이 나를 믿는 신앙을 행사
하는 그 날에, 그때 내가 야렛의 형제가 본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어 나의 모든
계시를 그들에게 밝혀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아버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8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대적하여 다툴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이러한
것을 부인할 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는 그들에게 내가 더 큰 일들을 보
이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는 내가 곧
말하는 그임이니라. 9 이에 나의 명령에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며,
나의 말에 땅이 진동하며, 나의 명령에 땅의 주민들이 불에 없어지듯 멸망하리
라. 10 또 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나니, 만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 너희가 판단하라. 이는 마지막 날에 말하는 이가
나인 줄을 너희가 알 것임이니라.

11 “그러나 내가 말한 이 일들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내 영의 나타냄으로 방
문하리니, 그가 알고 증거할 것이라. 이는 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가 이러한
것들이 참된 줄을 알 것임이니, 이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설득함이니라. 12 또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
게로부터이니, 나에게서가 아니고는 선이 아무에게서도 나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곧 사람들을 모든 선으로 인도하는 자니,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곧 내가 존재함을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나는 아버지라,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니라.

13 “너희 이방인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더 큰 일, 곧 믿지 않음으
로 인하여 감추어진 지식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14 너희 이스라엘의 집이여,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일들을 너희를 위하여 간직해 두셨는지 너희에게 나타내리니, 그것이 이제까
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믿지 않음으로 인함이니라. 15 보라, 너희로
너희의 참담한 간악함의 상태와 마음의 완악함과 생각의 눈먼 데에 머물게
하였던 믿지 않음의 휘장을 너희가 찢어 버리는 그때,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너희에게 감추어져 온 크고도 기이한 일들이—참으로 너희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그때, 이스라엘의 집
이여, 아버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세우신 성약을 기억하셨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

16 “그때 내가 나의 종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나의 계시가 만민의
눈에 밝혀지리라. 기억하라, 너희가 이러한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것이 과연
나타날 때가 가까운 줄을 알지니라. 17 그러므로 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
너희는 이 온 땅 위에 아버지의 일이 시작된 줄을 알라.

18 “그러므로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라. 그리고 내게로 와서, 나의
복음을 믿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16 요한계시록 추정; 니파이전서 14:18~27 참조

얻으려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임이라. 또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라. 19또 마지막 날에 나의 이름에 충실한 자로 밝혀진 그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들리워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임이니라. 볼지어다 이를 말한 자는 나이니라. 아멘."

미래의 번역자에게 전하는 메시지 ㄱ

5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내 기억을 좇아 내게 명하신 말씀을 기록하였고, 또 내가 인봉한 것을 너희에게 일렀은즉,ㄴ 그러므로 이에 손을 대어 번역하려 하지 말라. 이는 그 일이 너희에게는 금지되었음이니, 다만 차차 그 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일 때 허락되리라. 2또 보라, 너희는 이 기록을 드러내도록 돕게 될 자들에게 이 판들을 보여 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리라. 3또 세 사람에게 이 판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여질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참됨을 분명히 알게 되리라.ㄷ

4또 세 증인의 입으로 이 일이 확립되리니, 세 증인의 증거와, 하나님의 권능과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증거하시는 그의 말씀을 보일 이 기록이—이 모두가 마지막 날에 세상을 대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 5그러한즉 만일 그들이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될 것이니라.

6그리고 이제 내게 이 같은 일을 전할 권세가 없다면, 너희가 판단하라. 이는 너희가 나를 볼 때에ㄹ 내가 권세를 가졌음을 너희가 알 것임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임이니라. 아멘.

야렛인들이 약속된 땅으로 항해하다

6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계속하여 야렛과 그 형제의 기록을 진술하리로다. 2이는 이렇게 되었음이니 야렛의 형제가 산으로 가지고 올라온 돌들을 주께서 예비하여 주신 후에 야렛의 형제가 산에서 내려와, 그 돌들을 예비된 배 안에 두되 양 끝에 하나씩 두었더니, 보라, 그것들이 배를 밝히더라. 3이에 이같이 주께서 돌들로 암흑 중에 빛을 발하게 하사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에게 빛을 주어, 그들로 암흑 중에 큰 물을 건너지 않게 하셨느니라.

4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물 위에서 먹고 지낼 만한 온갖 양식과 또한 그들의 양 떼와 소 떼와 그들이 데리고 갈 모든 짐승이나 동물이나 새를 막론하고 그 양식을 준비한 후에—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그들의 배 곧 거룻배에 올라, 스스로를 주 그들의 하나님께 맡기고, 바다로 출항하여 나아갔더라.

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부는 맹렬한 바람을 일으키시매, 그로 인해 그들이 바람 앞에서 바다 물결 위에 요동하였더라. 6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그들 위에 부서지는 산 같은 파도와, 또한 맹렬한 바람이 일으키는 크고 무서운 폭풍으로 인하여 여러 번 바다 깊이 묻혀졌더라. 7또 이렇게

ㄱ1 조셉 스미스 2세 ㄴ1 이더서 4:4~5 참조; 조셉 스미스와 다른 증인들이 목격한 금속판의 일부가 인봉된 것을 전했음 ㄷ3 "세 증인의 증언" 참조; 니파이후서 27:12 비교 ㄹ6 1823년 9월 21일에 모로나이$_2$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났음

되었나니 그들이 깊은 바다에 묻혔을 때에도 그들을 해할 수 있는 물이 없었으니, 그들의 배는 물샐틈없기가 마치 접시 같았음이요, 또한 그 배들은 물샐틈없기가 마치 노아의 방주 같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많은 물에 둘러싸였을 때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그들을 다시 물 위로 이끌어 내셨더라. [8]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물 위에 있는 동안 바람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 불기를 결코 그치지 아니하였나니, 이리하여 그들은 바람 앞에 밀려 나아갔더라.

[9]이에 그들이 주께 찬송을 부르되, 참으로 야렛의 형제는 주께 찬송을 부르며, 온종일 주께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였고, 밤이 되어도 그들은 주 찬양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10]또 이같이 그들이 밀려 나아가매, 바다의 아무 괴물도 그들을 깨뜨릴 수 없었고, 그들을 상하게 할 고래도 없었으며, 물 위에서나 물 속에서나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빛이 있었더라. [11]이에 이같이 그들이 물 위에서 삼백사십사 일을 밀려 나아가더라.

[12]그리고 약속된 땅의 해안에 상륙하였나니, 그들이 약속된 땅의 해안에 그들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은 땅 위에 엎드려 주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많은 친절하신 자비로 인하여 주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더라. [13]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땅 위에 나아가 땅을 갈기 시작하였더라.

백성들이 번성하다

[14]또 야렛에게는 네 아들이 있어 그들을 예이콤과 길가와 메이하와 오라이하라 하였더라. [15]또 야렛의 형제도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16]그리고 야렛과 그 형제의 친구는 수효가 대략 스물두 명이라. 그들도 약속된 땅으로 오기 전에 아들과 딸들을 낳았던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많아졌더라. [17]또 그들은 주 앞에서 겸손히 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높은 곳으로부터도 가르침을 받았더라. [18]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지면에 퍼지며, 번성하며 땅을 갈기 시작하여, 그 땅에서 점차 강해졌더라.

백성들이 왕을 원하다

[19]또 야렛의 형제가 늙어 자기가 반드시 곧 무덤으로 내려갈 것임을 알았던지라, 그가 야렛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백성을 함께 모아 그들을 계수하고 우리가 우리의 무덤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에게 알아보도록 하자” 하였더라. [20]이에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모이니, 이제 야렛의 형제의 아들과 딸의 수효는 스물두 명이요, 야렛의 아들과 딸의 수효는 열둘인데, 그에게 아들은 넷이었더라. [21]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을 계수하고, 저들을 계수하고 난 후에, 그들이 그들의 무덤으로 내려가기 전에 그들이 행하기를 저들이 원하는 것을 저들에게 물어 보았더라.

[22]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저들 위에 왕을 삼아 줄 것을 원하였더라. [23]그러나 이제 보라, 이는 그들을 슬프게 하는 일이었더라. 이에 야렛의 형제가 저들에게 이르되 “정녕 이 일은 사로잡힘으로 인도하는도다” 하였더라. [24]그러나 야렛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저들을 용납하여 저들로 왕을 갖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저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아들들 중에서 너희가 원하는 왕을 택하라” 하니라.

[2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들이 야렛의 형제의 장자를 택하매, 그의 이름은 페이개그더라.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거절하고 그들의 왕이 되고자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은 그의 부친이 그를 강제하기를 원하였으나, 그의 부친이 그리하고자 아니하고, 오히려 아무도 강제하여 그들의 왕을 삼지 말 것을 그들에게 명하였더라. [2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페이개그의 형제를 모두 택하였으나, 그들도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27]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의 아들들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리하고자 아니한지라, 이에 오라이하가 기름 부음을 받고 백성들 위에 왕이 되었더라.

야렛인 왕들의 연대기 ㄱ

이더서 6:28~11:23

오라이하의 통치

[28]이에 그가 다스리기 시작하고, 백성들은 번영하기 시작하여, 그들이 심히 부하게 되었더라. [29]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이 죽고 그의 형제도 죽으니라. [30]또 이렇게 되었나니 오라이하가 주 앞에 겸손히 행하며, 주께서 그의 부친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신 것을 기억하였고, 또한 자기의 백성에게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가르쳤더라.

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오라이하가 그의 모든 날 동안 그 땅에서 공의로 판결하였고, 그의 날은 심히 많았더라. [2]또 그가 아들과 딸을 낳았으니, 참으로 그가 서른한 명을 낳았고 그 중에 아들 스물셋이 있었더라. [3]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또한 그의 노년에 키브를 낳았더라.

키브의 통치

코리호어$_2$가 모반한 뒤 슐이 왕권을 되찾다

또 이렇게 되었나니 키브가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고 키브는 코리호어를 낳았더라. [4]그리고 코리호어가 서른두 살 때 그 부친을 모반하여, 니허 땅으로 건너가서 거하였고, 저가 아들과 딸을 낳으매 그들이 심히 아름다워진지라, 그러므로 코리호어가 많은 백성을 이끌어내어 자기를 좇게 하였더라. [5]이에 저가 군대를 함께 모은 후에 왕이 거하는 모론 땅으로 올라가서 그를 사로잡으니, 이에 그들이 사로잡힘에 들게 되리라 한 야렛의 형제의 말이 이루어졌느니라.ㄴ [6]이제 왕이 거하던 모론 땅은 니파이인들이 황무라 칭하는 땅에서 가깝더라.

[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키브가 심히 나이 많게 되기까지 키브와 그의 백성이 그의 아들 코리호어 아래에서 사로잡힌 중에 거하였더라. 그러나 키브가 아직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 그의 노년에 슐을 낳았더라. [8]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슐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였고, 슐이 점점 강하여져서, 사람의 힘으로 볼 때 용사가 되었으며, 그가 또한 판단함이 비상하였던지라. [9]그러므로 그가 에브라임 산으로 가서, 그 산에서 녹여내어, 그가 이끌어 낸 자들을 위하여 강철로 칼을 만들고, 칼로 그들을 무장시킨 후에 니허 성으로 돌아와, 그 형제 코리호어와 싸워 이로써 왕국을 얻고 왕국을 그 부친 키브에게로 회복시켰더라.

ㄱ28 이 연대기의 계보는 이더서 1:6~33에 나오는 이더의 계보와 역순으로 일치됨 ㄴ5 이더서 6:23

슐의 통치

노아와 코호어가 모반한 뒤 니므롯이 왕권을 되찾다

10 이에 이제 슐이 행한 그 일로 인하여 그 부친이 그에게 왕국을 넘겨준지라, 그러므로 그가 그 부친의 대신에 다스리기 시작하였더라. 11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공의로 판결하였으며, 백성들의 수가 심히 많아진고로 그가 그 왕국을 그 온 지면에 뻗어나가게 하였더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슐도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더라. 13 또 코리호어가 자기의 행한 많은 악을 회개한지라, 슐이 자기의 왕국에서 그에게 권능을 주었더라.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호어에게는 아들과 딸이 많이 있었고, 코리호어의 아들 중에는 이름이 노아라 하는 아들이 있었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노아가 슐 왕과 자기 부친 코리호어를 거스려 모반하여, 자기의 형제 코호어와 또한 자기의 모든 형제와 많은 백성을 이끌어 내었더라. 16 또 그는 슐 왕과 싸워 그들의 첫번 기업의 땅을 얻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더라.

1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다시 슐 왕과 싸워, 슐 왕을 잡고, 그를 모론으로 사로잡아 갔더라. 18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바야흐로 그를 사형에 처하려 하였을 때, 슐의 아들들이 밤에 노아의 집에 숨어 들어가 저를 죽이고, 옥문을 부수고 그 아버지를 이끌어내어, 그를 그 왕국의 자기 보좌에 앉혔더라. 19 그리하여 노아의 아들이 저의 대신에 저의 왕국을 건설하였으나, 그들이 다시는 슐 왕을 이길 세력을 얻지 못하였고, 슐 왕의 통치하에 있는 백성들은 심히 번영하여 점점 강대해졌더라.

20 이에 나라가 나뉘어, 두 왕국이 있게 되었으니, 슐의 왕국과 노아의 아들 코호어의 왕국이라. 21 또 노아의 아들 코호어가 자기의 백성들로 하여금 슐을 공격하여 싸우게 하였으나, 이 싸움에서 슐이 그들을 이기고 코호어를 죽였더라. 22 이제 코호어에게는 니므롯이라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니므롯이 코호어의 왕국을 슐에게 바치고 슐의 눈에 은혜를 입게 된지라, 그리하여 슐이 그에게 큰 은혜를 내렸고, 그는 슐의 왕국에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23 또한 슐의 통치 때에 백성들 가운데 주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와서 백성들의 간악함과 우상 숭배가 그 땅에 저주를 초래하고 있어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니라. 24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욕하고 그들을 조롱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슐 왕은 선지자들을 욕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였더라. 25 또 한 법을 그 온 땅에 두루 시행하여, 선지자들에게 어디든지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권능을 주었으니, 이 까닭에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었더라. 26 또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를 회개한지라 주께서 그들을 살려 주시매, 그들이 그 땅에서 다시 번영하기 시작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슐이 그의 노년에 아들과 딸을 낳았더라. 27 이에 슐의 시대에 더 이상 전쟁이 없었고, 그는 주께서 그의 조상들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들, 곧 큰 깊음을 건너 약속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일을 기억하였던지라, 그리하여 그는 그의 모든 날 동안 공의로 판결하였더라.

오머의 통치

야렛₂이 모반한 뒤 에스롬과 코리앤투머₁는 왕권을 되찾다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오머를 낳으매, 오머가 그의 대신에 다스렸고, 오머는 야렛을 낳았으며, 야렛은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2]또 야렛이 그 부친을 모반하여, 헷 땅에 가서 거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그 간교한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언으로 꾀어 이윽고 왕국의 절반을 얻기에 이르렀더라. [3]그리고 저가 왕국의 절반을 얻은 후에는 그 부친을 대적하여 싸워, 그 부친을 사로잡아 가서, 그로 사로잡힌 중에 지내게 하였더라.

[4]이에 이제 오머의 통치 시대에 그가 그의 날의 절반을 사로잡힌 중에 있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아들과 딸을 낳으매 그 중에 에스롬과 코리앤투머가 있더라. [5]이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 야렛의 소위로 인하여 심히 노한지라, 마침내 한 군대를 일으켜 야렛을 대적하여 싸우니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밤에 저를 쳤더라. [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야렛의 군대를 도륙하고 나서 바야흐로 저를 또한 죽이려 하였으나, 저가 그들에게 자기를 죽이지 말 것을 간청하고 그리하면 나라를 자기 부친에게 바치겠다 한지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저의 목숨을 살려 주었더라.

비밀 결사의 재출현

[7]그러나 이제 야렛은 나라를 잃었음으로 인하여 심히 슬퍼하게 되었으니, 이는 저가 그 마음을 나라와 세상의 영광에 두었음이더라. [8]이제 야렛의 딸은 심히 능란하더니, 그 아버지의 슬픔을 보고 나라를 그 아버지에게 되찾아 줄 계획을 꾸미려고 생각하였더라.

[9]이제 야렛의 딸이 심히 아름다웠던지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그 아버지와 더불어 말하고,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아버지께 그처럼 많은 슬픔이 있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큰 깊음을 건너 가져온 기록을 읽지 아니하셨나이까?[ㄱ] 보소서, 옛 사람들에 관한 바, 곧 그들이 그들의 은밀한 계획으로 나라와 큰 영광을 얻었다 한 기사가 있지 아니하니이까? [10]그러므로 이제 내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보내어 킴노오의 아들 에이키시를 부르시옵소서. 보소서, 내가 아름다우니, 내가 그의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기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나를 아내로 원하오리니, 그런즉 만일 그가 나를 자기에게 아내로 줄 것을 아버지께 원하오면, 그때 아버지께서는 이르시기를, '네가 왕 곧 내 부친의 머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를 주리라 하소서' 하였더라."

[11]이제 오머는 에이키시의 친구였던지라, 그러므로 야렛이 사람을 보내어 에이키시를 부르매 야렛의 딸이 그의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기쁘게 하는지라, 이에 그가 저를 아내로 원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야렛에게 이르되, "저를 내게 아내로 달라" 하더라.

[12]이에 야렛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왕, 곧 내 부친의 머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저를 네게 주리라" 하였더라.

[13]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에이키시가 자기의 모든 친족을 야렛의 집으로 모아들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청할 일에 대하여 내게 충실하겠다고 나에게 맹세하겠느냐" 하였더라. [1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모두, 하늘의 하나님과 또한 하늘들과 또한 땅과 저희의 머리로 맹세하여, 누구든지 에이키시가 청한 도움에서 일탈하는 자는 그 머리를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에이키시가 그들에게 알게 한 것을

[ㄱ]9 이 기록에 대해서는 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이더서 1:2~4 비교

무엇이라도 누설하는 자, 그는 그 생명을 잃을 것이라 하였더라. 15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같이 그들이 에이키시와 맹약하매,

에이키시가 역시 권력을 추구하던 옛적 사람들이 준 맹세, 곧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가인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던 맹세를 그들에게 하였더라.ㄱ 16또 그러한 것은 이러한 맹세를 백성들에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머물게 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을 도와 권력을 얻게 하며, 살인하게 하며, 약탈하게 하며, 거짓말하게 하며, 온갖 간악함과 음행을 범하게 하려 하여 악마의 능력에 의해 보존되었던 것이더라. 17또 이러한 옛 일들을 찾아볼 것을 야렛의 마음에 넣은 것은 야렛의 딸이요, 야렛은 이를 에이키시의 마음에 넣은지라, 그러므로 에이키시가 이를 그의 친족과 친구들에게 주어, 그럴듯한 약속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어,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였더라.

18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옛적 사람들같이 비밀 결사를 만들었으니, 이러한 결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보다도 가장 가증하고 간악한 것이라. 19이는 주께서는 비밀 결사로 일하시지 아니하시며, 사람이 피를 흘림도 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람이 있기 시작한 때로부터 모든 일에 있어 이를 금하셨음이라.

모로나이$_2$의 다섯 번째 부연

이더서 8:20~26

비밀 결사

20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그들의 맹세와 결사의 방식을 기록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모든 백성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으며, 레이맨인들 중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는 줄 내가 알게 되었음이라. 21또 이러한 일들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ㄴ 이 백성의 멸망과 또한 니파이 백성의 멸망을 초래하였음이라.ㄷ 22또 무릇 어떠한 나라일지라도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비밀 결사를 옹호하여 이로 나라에 만연하게 하기에 이를진대, 보라, 그들은 멸망당하리라. 이는 주께서 그들이 흘릴 그의 성도들의 피가 그들 위에 복수가 임할 것을 땅에서부터 항상 그에게 부르짖도록 버려두시지는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지 아니하고 버려두시지는 아니하실 것임이라.

23그러한즉, 너희 이방인들아,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보임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니, 이는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세워진 이러한 살인 결사들이 너희를 이김을 용납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요—또 그 일, 참으로 곧 그 멸망의 일이 너희에게 임함을 용납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 만일 너희가 이러한 일이 있도록 용납할진대, 참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검이 너희 위에 내려서 너희를 엎으며 멸할 것이라. 24그러한즉, 주께서 너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가 이러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생김을 보거든, 너희 가운데 있을 이 비밀 결사로 인하여 너희는 깨어나 너희의 참담한 처지를 깨달을지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로 인하여 그

ㄱ15 창세기 4; 힐라맨서 6:26~27 참조; 모세서 5:29~31, 47~55 비교 ㄴ21 이는 곧, 야렛인들; 이더서 14:8~10 참조 ㄷ21 제4니파이 1:42~46 참조; 힐라맨서 2:13~14 비교; 몰몬서 8:1이나 이더서와 같이 이것은 모로나이$_2$가 아버지 몰몬$_2$이 이루지 못한 편집 약속을 이행한 또 다른 사례임

비밀 결사에 화 있을진저, 이는 그들이 그 비밀 결사 위에, 또한 그것을 세운 자들 위에 복수가 임할 것을 티끌에서부터 부르짖음이니라.

25 이는 이렇게 됨이니 누구든지 그러한 것을 세우는 자는 모든 땅과 국민과 나라의 자유를 뒤엎기를 꾀하는 자요, 그러한 것은 만백성의 멸망을 가져옴이라, 이는 그것이 악마에 의하여 세워짐이니 그는 모든 거짓의 아비라, 참으로 우리의 시조를 꾄 바로 그 거짓말쟁이니, 참으로 처음부터 사람으로 살인을 범하게 한 바로 그 거짓말쟁이라, 그가 처음부터 ㄱ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들이 선지자들을 살해하며 그들을 돌로 치며 그들을 쫓아내었느니라.

26 그리하여 나 모로나이는 악이 사라지게 하며, 사탄이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아무 권능도 갖지 못할 때가 이르게 하도록, 또 그들이 설득을 받아 끊임없이 선을 행하게 되어 모든 의의 근원으로 나아와 구원을 받게 되도록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라는 명을 받았느니라.

오머의 망명 뒤 왕권의 재탈환

야렛2과 에이키시의 그간의 통치

9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나의 기록을 계속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에이키시와 그의 친구들의 비밀 결사로 말미암아, 보라, 그들이 오머의 왕국을 전복하였더라.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오머에게와, 또한 그의 멸망을 꾀하지 아니한 그의 아들과 딸에게 자비를 베푸셨더라. 3 이에 주께서 꿈에 오머에게 경고하사 그 땅을 떠나라 하신지라, 오머가 그의 가족과 더불어 그 땅을 떠나 여러 날을 여행하여 시므산 근처에 이르러, 그 곁을 지나 니파이인들이 멸망당한 곳 근처로 와서, 그 곳에서부터 동쪽으로 나아가 바닷가에 가까운 애블롬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 그와 또한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야렛과 그 가족을 제외한 그의 모든 권속이 그 장막을 쳤더라.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야렛이 간악한 손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백성들 위에 왕이 되매, 저가 그 딸을 에이키시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5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에이키시가 그 장인의 생명을 찾으며, 그가 고대인들의 맹세로 맹세하게 한 자들에게 청하매, 저희가 그의 장인의 목을, 저가 자기 보좌에 앉아 저의 백성을 접견하고 있을 때 취하였더라. 6 이는 이 간악한 비밀 단체의 퍼짐이 심히 커서 온 백성의 마음을 부패하게 하였음이라, 그리하여 야렛이 자기의 보좌 위에서 살해당하였고, 에이키시가 저의 대신에 다스리더라.

7 또 이렇게 되었나니 에이키시가 자기 아들을 시기하기 시작하였던지라, 그를 옥에 가두고 먹을 것을 거의, 혹은 전혀 주지 아니하여 마침내 죽게 하였더라. 8 이에 이제 죽음을 당한 자의 형제가, (그의 이름은 니므라더라) ㄴ 그 아버지가 그의 형제에게 행한 바로 인하여 그 아버지에게 노하였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니므라가 소수의 사람들을 함께 모아 그 땅에서 도망하여 와서 오머와 함께 거하였더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에이키시의 원하는 바를 좇아 온갖 불의를 행하기로 그에게 맹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이키시가 다른 아들들을 낳으매 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더라. 11 이제 에이키시의 백성들은 참으로 에이키시가 권력을 얻기 원하듯 이익을

ㄱ 25 창세기 3:1~7 참조; 그 악마는 창세기 4:1~12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나오지 않으나 모세 5:18~37 참조 ㄴ 8 니므라는 죽음을 당한 자가 아니고 그의 형제임

얻기 원하였던지라, 그러므로 에이키시의 아들들이 저희에게 돈을 주어 그로써 백성의 태반을 이끌어 내어 자기들을 좇게 하였더라.

12 이에 에이키시의 아들들과 에이키시와의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어 여러 해 동안 계속되더니, 참으로 그 나라의 거의 모든 백성이 멸망하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오머의 집과 함께 도망한 자들과 삼십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멸망한지라. 13 그리하여 오머가 다시 그의 기업의 땅으로 회복되었더라.

이머의 통치

의로움이 번영을 가져오다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오머가 늙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그가 그 노년에 이머를 낳고, 이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여 자기의 대신에 다스리게 하였더라. 15 또 이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한 후에 그가 이 년 동안 그 땅에 평화를 보고 죽었으니, 그가 심히 많은 날을 보았어도, 그 날들은 슬픔에 찬 날들이었더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이머가 그의 대신에 다스리며 그 부친의 발자취를 따르더라.

16 이에 주께서 다시 그 땅에서 저주를 거두기 시작하시니,ㄱ 이머의 다스림하에 이머의 집이 심히 번영하여, 육십이 년 동안에 저들이 심히 강하여지더니, 이윽고 그들이 심히 부하게 되어— 17 온갖 과일과 곡식과 비단과 세마포와 금과 은과 귀한 것들을 갖게 되었고, 18 또한 온갖 축우, 곧 황소와 암소와 양과 돼지와 염소와 또한 사람의 식용으로 쓸 여러 다른 종류의 짐승을 갖게 되었더라. 19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한 말과 나귀도 있었으며, 거기 코끼리와 쿠렐롬과 쿠몸도 있었으니,ㄴ 이 모두는 사람에게 유용한 것이요, 특히 코끼리와 쿠렐롬과 쿠몸이 더욱 그러하였더라.

20 이에 이와 같이 주께서는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이 땅에 그의 복을 부으셨고, 그는 또 명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땅을 소유하는 자는 주를 위하여 이를 소유할 지니라 하셨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의 죄악이 무르익을 때 그들이 멸망되리라. "이는 그러한" "자들 위에 내가 나의 가득한 진노를 쏟을 것임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ㄷ

21 이에 이머가 그의 평생에 공의로 판단하고,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그가 코리앤툼을 낳아 코리앤툼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의 대신에 다스리게 하였더라. 22 그리고 그가 코리앤툼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의 대신에 다스리게 한 뒤 사 년을 살며, 그 땅에 평화를 보았고, 또한 그가 참으로 의의 아들을 보고, 그의 날을 기뻐하며 영광스러워하기까지 하였으며, 이에 그가 평안히 죽었더라.

코리앤툼1과 콤1의 통치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툼이 그 부친의 발자취를 따르며, 많은 큰 성읍들을 건축하였고, 그의 평생에 백성에게 선한 바를 베풀었으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심히 나이 많기까지 자녀가 없었더라. 24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아내가 백이 세가 되어 죽은지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툼이 그의 노년에 한 젊은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아들과 딸을 낳은지라, 이리하여 그가 백사십이 세가 되기까지 살았더라. 2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콤을 낳으매, 콤이 그의 대신에 다스렸고, 저가 사십구 년을 다스렸으며, 저가 헷을 낳았고 또한 다른 아들과 딸들도 낳았더라.

ㄱ16 이더서 7:23 ㄴ19 미확인 동물 ㄷ20 이더서 2:8~9

헷의 통치

간악함이 기근과 독사를 가져오다

26 이에 백성들은 다시 온 지면에 퍼졌고, 땅 위에는 또다시 심히 큰 간악함이 생겼으며, 헷은 그의 부친을 멸하기 위하여 다시 옛적의 은밀한 계획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더라. 27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자기 부친의 왕위를 폐하였으니, 이는 저가 자기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대신에 다스렸음이라.

28 이에 그 땅에 다시 선지자들이 나타나[ㄱ] 그들에게 회개를 부르짖되—그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저주가 그 땅 위에 임할 것이라. 참으로 한 큰 기근이 있으리니,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중에 멸망당할 것이라 하였더라. 29 그러나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저들을 쫓아내며, 저들 가운데 더러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죽게 버려 두었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은 헷 왕의 명을 좇아 이 모든 일을 행하였더라.

30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땅에 큰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고, 흉년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심히 빠르게 멸망당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지면에 비가 있지 아니함이러라. 31 또 땅 위에 독사들도 나아와 많은 사람들을 물었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희의 양 떼가 독사들 앞에서, 니파이인들이 제이라헤믈라라 칭하는 남방 땅을 향하여 도망하기 시작하였더라. 32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것들 가운데 도중에 죽은 것이 많았으나, 그럼에도 남방 땅까지 도망한 것들이 더러 있었더라.

33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뱀들로 그것들을 더 이상 뒤쫓지 않게 하시고, 다만 길을 막아 백성들이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지나가기를 꾀하는 자들은 독사에게 물려 엎드러지게 하셨더라. 34 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이 짐승들이 지나간 길을 따라가며, 도중에 쓰러진 것들의 시체를 먹되, 이윽고 그것들을 다 먹기까지 그리하였더라.

이제 백성들은 자기들이 반드시 멸망하게 되었음을 보고 자기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주께 부르짖기 시작하였더라. 3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주 앞에 충분히 스스로 겸손하였을 때 주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시니, 백성들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하였고, 북쪽 지방과 그 주변의 모든 지방에 소산이 열리기 시작하였으며, 주께서는 그들을 기근으로부터 보전하심으로 그의 권능을 그들에게 보이셨더라.

세즈$_2$의 통치

세즈가 모반하다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헷의 후손인 세즈는—이는 헷과[ㄴ] 그의 모든 권속이 세즈를 제외하고는 기근으로 다 멸절되었음이라—그리하여 세즈는 와해된 백성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였더라. 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세즈가 그 조상들의 패망을 기억하고 의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이는 저가 주께서 야렛과 그의 형제를 인도하여 깊은 바다를 건너게 하실 때 행하신 일을 기억하였음이라, 이에 저가 주의 길로 행하였고 아들과 딸을 낳았더라.

3 그러나 이름이 세즈인 저의 장자가 저를 모반하였더라. 그러나 세즈가 그 심히 큰 부로 인하여 도적의 손에 매맞은 지라, 이에 그의 부친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더라. 4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부친이 그 땅에 많은 성읍을 세웠고, 백성들은 다시 온

[ㄱ] 28 야렛인 선지자들은 이전에 이더서 7:23~25에서 언급되었음 [ㄴ] 1 세즈$_1$은 헷$_1$의 아들로 추정; 이더서 1:25 참조

지면에 퍼지기 시작하였으며, 세즈가 나이 심히 많기까지 살며 리플레이키시를 낳고 죽으매, 리플레이키시가 그의 대신에 다스렸더라.

리플레이키시의 통치

백성들이 모반하다

5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리플레이키시가 주의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많은 처와 첩을 두고, 또 지기 힘든 그것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웠음이라. 참으로 저는 중한 세금을 그들에게서 거두어, 그 세금으로 많은 광대한 건물들을 건축하였더라. 6 또 자기를 위하여 심히 아름다운 보좌를 세웠으며, 또 많은 옥을 지어 징세에 응하려 아니하는 자를 옥에 던져 넣고, 세를 바칠 능력이 없는 자도 옥에 던져 넣었으며, 그들로 끊임없이 스스로의 생계를 위하여 일하게 하고, 일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하였더라. 7 이리하여 저가 저의 모든 좋은 물품을 얻었으니, 참으로 자기의 정금을 저가 옥에서 정제하게 하였고, 또 온갖 정교한 수공일을 옥에서 하게 하였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자기의 음행과 가증한 일로 백성들을 괴롭히더라.

8 또 저가 사십이 년 동안 다스린 후에 백성들이 일어나 저를 모반하매, 그 땅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어 이윽고 리플레이키시는 죽임을 당하고, 그 후예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더라.

모리앤톤[1]의 통치 ㄱ

9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여러 해 후에 모리앤톤이 (그는 리플레이키시의 후예라) 쫓겨난 자들의 군대를 모아 백성들에게로 나아가 싸워서 많은 성읍을 다스리는 권력을 얻었느니라. 또 싸움이 심히 맹렬하여져서 여러 해 동안 지속되더니, 그가 그 온 땅을 다스리는 권력을 얻어, 스스로 그 온 땅의 왕이 되었더라. 10 또 그가 스스로 왕이 된 후에는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이로써 백성들의 눈에 은혜를 입으매, 그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을 삼았더라. 11 이에 저가 백성들에게는 공의를 행하였으나, 자신에게는 아니하였나니 그의 많은 음행 까닭이라. 그리하여 그는 주의 면전에서 끊어졌느니라.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리앤톤이 많은 성읍을 건축하였고, 그의 다스림하에 백성들이 심히 부하게 되어, 건물과 금과 은과 곡물 재배와 양 떼와 소 떼 및 저희에게로 회복된 것들이 다 풍부하였더라. 13 또 모리앤톤은 심히 많은 수를 누리다가, 그때 킴을 낳았고 킴이 그 부친의 대신에 다스렸으며, 저가 팔 년을 다스리고 저의 부친이 죽었더라.

ㄱ 9 또 다른 모리앤톤은 앞서 알마서 50:28에서 본문에 등장했지만, 이 모리앤톤은 연대상으로 첫 번째임

킴, 레위$_2$, 코롬, 키시 각인의 통치

또 이렇게 되었나니 킴이 의로운 가운데 다스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저가 주께 은혜를 입지 못하였더라. [14]이에 저의 형제가 일어나 저를 모반하여 저를 사로잡으매, 저가 저의 평생을 사로잡힌 중에 있었고, 사로잡힌 중에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저의 노년에 레위를 낳고 죽었더라.

[15]또 이렇게 되었나니 레위가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사십이 년 동안 사로잡힌 중에 지내다가, 그 땅의 왕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 그로 말미암아 스스로 나라를 취하였더라. [16]그리고 저가 스스로 나라를 취하고 나서는 주가 보시기에 바른 일을 행한지라, 백성들이 그 땅에서 번영하였으며, 저가 장수하며, 아들과 딸을 낳았고, 저가 또한 코롬을 낳으매,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 대신에 왕이 되게 하였더라.

[17]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롬이 그의 평생에 주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고,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그가 많은 날을 본 후에 나머지 세상 사람과 같이 죽으매, 키시가 그의 대신에 다스렸더라. [18]또 이렇게 되었나니 키시도 죽고, 리브가 그의 대신에 다스리니라.

리브$_1$의 통치

야렛인들이 축복받고 근면해지다

[19]또 이렇게 되었나니 리브가 또한 주가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였고, 리브의 시대에 독사가 진멸되었더라.ㄱ 그리하여 그들이 그 땅의 백성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냥하러 남방 땅으로 갔으니, 이는 그 땅이 수풀의 짐승들로 뒤덮였음이라. 또한 리브 자신도 큰 사냥꾼이 되었더라. [20]또 그들은 바다가 육지를 나누는 곳 근방, 좁은 지협 근방에 한 큰 성읍을 건축하였더라. [21]또 남방 땅은 사냥감을 얻기 위하여 광야로 보존하였고,

북방 땅은 온 지면이 주민들로 뒤덮였더라. [22]또 그들은 심히 근면하였고, 서로 사고팔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었더라. [23]또 그들은 온갖 광석을 다루어, 금과 은과 철과 놋과 온갖 금속을 만들었으며 그것을 땅에서 캐내었던지라, 그리하여 그들이 금과 은과 철과 동의 광석을 얻기 위해 쌓아 올린 흙이 거대한 더미를 이루었으며, 그들은 또 온갖 세공 일을 하였더라.

[24]또 그들에게는 비단과 세마포가 있었으며, 그들은 옷을 입어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우고자 온갖 옷감을 만들었더라. [25]또 땅을 경작하기 위한 온갖 도구, 곧 땅을 갈고 씨를 뿌리며 거두며 김을 매며, 또한 타작을 하기 위한 온갖 도구를 만들었더라. [26]또 온갖 도구를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짐승을 부렸더라. [27]또 그들은 온갖 전쟁 무기를 제조하고, 심히 정교한 솜씨의 온갖 물품을 만들었더라.

[28]그들보다 더 복을 받고 또 주의 손으로 더 번영하게 하심을 입은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 또 그들은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리 말씀하셨음이니라.ㄴ [2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브가 많은 해를 살며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그가 또한 히아아돔을 낳았더라.

ㄱ19 이더서 9:31~33 ㄴ28 이더서 1:42; 2:15; 9:20 비교

히아아돔의 통치부터 콤$_2$의 통치까지 ㄱ

선지자들이 다가올 멸망을 경고하다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히아아돔이 그 부친의 대신에 다스렸으나, 히아아돔이 이십사 년을 다스린 후에, 보라, 저가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 해를 사로잡힌 가운데 지냈으니, 참으로 저의 여생을 모두 그리하였더라. 31 또 저가 헷을 낳으매 헷이 그 평생을 사로잡힌 중에 살았으며, 헷이 아론을 낳으매, 아론도 그 평생을 사로잡힌 가운데 거하였으며, 저가 앰니개다를 낳으매, 앰니개다도 또한 그 평생을 사로잡힌 가운데 거하였으며, 저가 코리앤툼을 낳으매 코리앤툼도 그 평생을 사로잡힌 가운데 거하였으며, 저가 콤을 낳았더라.

3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콤이 나라의 절반을 이끌어 내어, 사십이 년 동안 나라의 절반을 다스렸고, 저가 앰기드 왕을 대적하여 싸우러 가매, 그들이 여러 해 동안 싸우더니, 이 기간 동안 콤이 앰기드를 이기고, 나라의 나머지에 대한 권력을 얻었더라. 33 또 콤의 시대에 그 땅에 도적들이 생겼으니, 그들이 옛 계획을 받아들여, 고대인들의 방식을 좇아 맹세를 하고,ㄴ 나라를 멸하기를 다시 꾀하더라. 34 이제 콤이 그들을 대적하여 많이 싸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쳐서 이기지 못하였더라.

11 또한 콤의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ㄷ 그 큰 백성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 그들의 살인과 간악함을 버리지 아니할진대,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였더라. 2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콤에게로 피하여 보호를 구하였으니, 이는 백성들이 그들을 멸하기를 꾀하였음이라. 3 이에 저들이 콤에게 많은 것을 예언하였고, 그는 그 여생 동안 내내 복을 받았더라.

시블롬의 통치 ㄹ

그를 모반한 형제가 선지자들을 죽이다

4 이에 그가 장수하며 시블롬을ㅁ 낳으매, 시블롬이 그의 대신에 다스렸으나, 시블롬의 형제가 저를 대적하여 모반한지라, 그 온 땅에 심히 큰 전쟁이 시작되었더라. 5 또 이렇게 되었나니 시블롬의 형제가 백성들의 멸망을 예언한 모든 선지자를 사형에 처하게 하였더라. 6 또 온 땅에는 큰 재난이 있었으니, 이는 저들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땅과 또한 그 백성 위에 큰 저주가 임할 것과 또 지상에 결코 있지 아니하였던 큰 멸망이 그들 가운데 있어, 그들의 뼈가 지면 위에 흙무더기같이 될 것임을 증거했었음이라.ㅂ

7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간악한 결사로 인하여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니, 그리하여 그 온 땅에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또한 많은 기근과 역병이 임하기 시작하여, 이윽고 큰 멸망이 있으매, 그 같은 것이 지상에 결코 알려진 적이 없던 것이었으니, 이 모든 일이 시블롬의 시대에 일어났더라. 8 이에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하매, 그들이 회개하는 만큼 주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더라.

ㄱ 30 히아아돔부터 콤$_2$까지 4대에 걸친 왕실은 군림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금되어 있음 ㄴ 33 이더서 8:14~19; 9:5 ㄷ 1 이전에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한 예언자들이 언급되었음; 이더서 7:23; 9:28 참조; 아래 11:6 비교 ㄹ 4 시블론 / 시블롬 ㅁ 4 이더서 1:11에서 시블롬은 *시블론*으로 나옴; 마지막 철자 ㅁ/m은 표기 오류로 추정 ㅂ 6 이 예언은 이더서 14:21, 옴나이서 1:22, and 모사이야서 8:8에서 실현됨

에이하와 이뎀 각인의 통치

새 선지자들이 나오다

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시블롬이 죽임을 당하였고, 셋이 ㄱ 사로잡힌 바 되어 그 평생을 사로잡힌 중에 거하였더라. 10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의 아들 에이하가 나라를 얻고 저의 평생에 백성을 다스렸으되, 저가 자기 시대에 온갖 죄악을 행하여 그로써 많은 피를 흘렸으며, 저의 날 수는 얼마 되지 아니하였더라.

11 또 이뎀이 에이하의 후예로 ㄴ 나라를 얻었으나, 저도 자기 시대에 간악한 일을 행하였더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이뎀의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또다시 예언하였으니, 참으로 그들이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들을 지면에서 온전히 멸하실 것을 예언하였더라. ㄷ 13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이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저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자 아니하는지라, 선지자들이 애통해하며 백성 중에서 물러나니라.

모론의 통치

2명의 용맹한 자들이 모반하다

14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뎀이 그 평생에 간악함으로 판결하였고, 또 저가 모론을 낳았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모론이 그의 대신에 다스리되, 모론이 주 앞에 간악한 일을 행하였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권력과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세워진 저 비밀 결사로 인하여, 백성 가운데 반란이 일어났고, 죄악 중에 그들 가운데 한 용맹한 자가 일어나 모론을 대적하여 싸우더니, 이 싸움에서 저가 나라의 절반을 전복하였고 이에 저가 여러 해 동안 나라의 절반을 지켰더라. 16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모론이 저를 타도하고 다시 나라를 얻었더라.

17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다른 용맹한 자가 일어났으니, 저는 야렛의 형제의 후예더라. 18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저가 모론을 폐하고 나라를 얻은지라, 이러므로 모론이 그 남은 평생을 사로잡힌 가운데 거하였고, 저가 코리앤토어를 낳았더라.

코리앤토어의 감금 생활—또 다른 완전한 멸망의 예언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토어가 그 평생을 사로잡힌 가운데 거하였더라. 20 또 코리앤토어의 시대에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크고 기이한 일들을 예언하며, 백성들에게 회개를 부르짖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사 그들을 온전히 멸하실 것이요, 21 또 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하셨던 대로, 그의 권능으로 다른 백성을 보내사, 또는 인도하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하였더라. 22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비밀 단체와 간악한 가증함으로 인하여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을 배척하였더라.

2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토어가 이더를 낳고, 그 평생을 사로잡힌 가운데 거하다가 죽었더라.

ㄱ 9 셋은 시블룸 ㅣ[시블론ㅣ]의 아들이었음; 이더서 1:11 참조 ㄴ 11 이뎀은 에이하의 아들로 추정; 이더서 1:9 참조 ㄷ 12 이더서 15장에서 실현

코리앤투머$_2$의 통치

이더서 12~15장

선지자 이더

12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더의 시대는 코리앤투머의 시대에 있었고, 코리앤투머는 그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더라.[ㄱ] [2]또 이더는 주의 선지자였나니, 그리하여 이더가 코리앤투머의 시대에 나아와 백성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하였으니, 이는 그의 안에 있는 바 주의 영으로 인하여 그가 스스로 억제할 수 없었음이라.

[3]이에 그가 아침부터 참으로 해가 지기까지 외치며, 백성들을 권면하기를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어 회개에 이르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신앙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나니— [4]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더 나은 세상, 곧 참으로 하나님 우편의 처소를 바랄 것이요, 이 소망은 신앙에서 비롯하여, 사람의 영혼에 닻이 되어, 그들로 확실하고 굳건하며, 늘 선행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 하였더라. [5]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더가 백성들에게 크고 기이한 일들을 예언하였으나, 그것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것을 보지 못함이었더라.

모로나이$_2$의 여섯 번째 부연

이더서 12:6~41

신앙에 대하여[ㄴ]

[6]또 이제 나 모로나이는 이 일에 관하여 얼마간 말하고자 하노라. 내가 세상에 보이고자 하거니와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논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기까지는 너희가 증거를 받지 못함이니라. [7]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우리 조상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음이니,[ㄷ] 그들이 그를 믿기까지는 그들에게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군가가 그를 믿었음이 분명하니, 이는 그가 세상에게는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음이라. [8]그러나 사람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그는 세상에 자기를 보이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길을 예비하사 그로써 다른 자들이 하늘의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사 그들로 그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바라게 하셨느니라. [9]그런즉 너희가 신앙을 갖기만 하면, 너희는 또한 소망을 가지고, 은사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10]보라 옛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좇아 부르심을 받은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느니라. [11]그런즉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도다. 그러나 그의 아들의 은사로써 하나님은 더욱 좋은 길을 예비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2]이는 사람의 자녀들

[ㄱ]1 코리앤투머$_2$가 이더서 11:17–18의 이름 없는 왕과 관계가 있다면, 그는 (코리앤토어와 이더가 포함된) 야렛$_1$의 왕족이 아닌 야렛$_1$의 형제의 혈통에 속함 [ㄴ]6 이 부연의 구성과 주제 그리고 표현일부는 히브리서 11장과 나란히 배열됨 [ㄷ]7 제3니파이 11

가운데 신앙이 없을진대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으심이라. 그리하여 그는 그들이 신앙을 갖기까지 자기를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13 보라, 옥을 땅에 무너지게 한 것도 앨마와 앰율레크의 신앙이었느니라.[ㄱ] 14 보라, 레이맨인들에게 변화를 일으켜 불과 성신으로 침례 받게 한 것도 니파이와 리하이의 신앙이었느니라.[ㄴ] 15 보라, 레이맨인들 가운데 그처럼 큰 기적을 이룬 것도 암몬과 그 형제들의 신앙이었느니라.[ㄷ] 16 참으로 또한 그리스도 이전에 있던 자들과 또한 후에 있은 자들, 곧 무릇 기적을 행한 모든 자들이 신앙으로기적을 행하였느니라.

17 그리고 세 제자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얻은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며, 그들이 신앙을 갖기까지는 약속을 얻지 못하였느니라.[ㄹ] 18 또 어느 때라도 신앙을 갖기까지는 아무도 기적을 행하지 못하였나니, 이러므로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더라.

19 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일지라도 그 신앙이 그처럼 심히 강하였던 자가 많이 있었으매, 그들에게는 휘장 안을 금할 수 없었던지라, 그들은 그들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것들을 진실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였더라. 20 또 보라, 우리는 이 기록에서 이들 중 하나가 야렛의 형제이었음을 보았느니라. 대저 하나님께 대한 저의 신앙이 심히 컸던지라, 하나님이 그 손가락을 내미셨을 때 그것을 야렛의 형제가 보는 데서 감추실 수 없으셨나니, 이는 저에게 하신 자기의 말씀으로 인함이요, 그 말씀은 저가 신앙으로 얻은 것이더라. 21 또 야렛의 형제가 주의 손가락을 본 후에, 야렛의 형제가 신앙으로 얻은 약속으로 인하여, 주께서는 야렛의 형제가 보는 데서 아무것도 감추실 수 없으셨나니, 그리하여 그가 저에게 모든 것을 보이셨음은 저를 더 이상 휘장 바깥에 머물게 할 수 없으셨음이라.[ㅁ]

모로나이$_2$가 이방인, 몰몬경, 연약함에 대해 주님과 말씀하다

22 그리고 나의 조상들이, 이러한 것들이 이방인들을 통하여 그들의 형제들에게 나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얻은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인즉, 그러므로 주께서 나에게 명하셨나니,[ㅂ] 곧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명하셨느니라.

23 이에 내가 주께 고하되, "주여, 우리의 기록함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이를 비웃으리이다. 이는 주여, 주께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에 능하게 하셨사오나, 우리로 기록함에는 능하게 하지 아니하셨음이오니,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성신으로 인하여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셨음이니이다. 24 또 주께서는 우리 손의 둔함으로 인하여 우리로 조금밖에는 기록할 수 없게 하셨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우리로 야렛의 형제처럼 기록함에 능한 자가 되게 아니하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저로 하여금 저가 기록하는 것이 실로 주와 같이 힘있게 하사, 사람을 압도하여 그것을 읽게 함이니이다. 25 주께서는 또한 우리의 말을 크고 힘있게 하사 우리가 그것을 기록할 수 없게 하셨사온즉, 이러므로 우리가 기록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오며, 우리 글의 나열로 인하여 실족하오니, 이에 이방인들이 우리의 말을 비웃을까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ㄱ] 13 앨마서 14:26~29 [ㄴ] 14 힐라맨서 5 [ㄷ] 15 앨마서 17~26 [ㄹ] 17 제3니파이 28:4~16 [ㅁ] 21 이더서 3:6~28 [ㅂ] 22 니파이후서 29:1~2; 이노스서 1:11~18; 몰몬의 말씀 1:11

[26]그리고 내가 이같이 고하자, 주께서 내게 일러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들이 비웃으나 그들이 애통할 것이요, 나의 은혜가 온유한 자에게는 족하니, 그들은 너희의 연약함을 이용하지 아니하리로다. [27]또 만일 사람들이 내게로 오면 내가 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 [28]보라,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연약함을 보일 것이요, 또 그들에게 신앙, 소망 그리고 사랑이 나, 곧 모든 의의 근원인 내게로 인도함을 보이리라" 하시니라.

[29]이에 나 모로나이는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어 이르되, "주여, 주의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는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좇아 역사하심을 내가 앎이니이다. [30]이는 야렛의 형제가 지린 산더러 이르기를 '옮기우라' 하매—그것이 옮겨졌음이요,ㄱ 저가 만일 신앙을 갖지 아니하였더라면 그것이 움직이지 아니하였을 것임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주께서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후에 역사하시나이다. [31]이는 그와 같이 주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음이오니, 이는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주께서 큰 권능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음이니이다.ㄴ

[32]"또 주께서 참으로 아버지의 거처 가운데ㄷ 사람을 위하여 집을 예비하사, 이로써 사람이 보다 좋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말씀하신 것을 내가 또한 기억하나이다. 그러하온즉 사람은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기업을 받을 수 없나이다. [33]그리고 또 주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위하여 주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하셨사오며, 이는 주께서 생명을 다시 취하사,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처소를 예비하려 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억하나이다.ㄹ [34]또 이제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을 사랑하신 이 사랑이 참 사랑인 줄 내가 아오니, 이러므로 사람들이 이 사랑을 갖지 아니할진대, 주께서 주의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하신 그 처소를 기업으로 얻을 수 없삽나이다. [35]그러하온즉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이 만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사랑을 갖지 아니하면, 주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고, 참으로 그들이 받은 달란트를 빼앗아 더욱 풍성하게 가질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이다" 하였느니라.ㅁ

[3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주께 기도하여,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로 사랑을 갖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느니라.

[3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사랑을 갖지 아니할지라도 네게는 상관이 없나니, 너는 충실하였도다. 그런즉 네 옷이 정결하게 될 것이요, 또 네가 네 연약함을 알았은즉 네가 강하게 되어, 내가 내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한 처소에 앉기에 이르리라" 하셨느니라.

ㄱ30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알려진 바 없음 ㄴ31 제3니파이 26:17~18 추정 ㄷ32 이노스서 1:27 참조; 요한복음 14:2 비교 ㄹ33 요한복음 10:17~18; 니파이후서 2:8 ㅁ35 마태복음 25:28~29

모로나이$_2$의 작별 인사

[38]또 이제 나 모로나이는 이방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그뿐 아니라 또한 내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에게도 작별을 고하나니,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만날 때까지라, 거기서 나의 옷이 너희의 피로 더렵혀지지 아니하였음을 만인이 알게 되리로다. [39]또 그때에 너희는 내가 예수를 뵈었고, 그는 나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으며, 이러한 것에 관하여 내 자신의 언어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같이 명백하게 스스로 낮추시어 내게 말씀하신 줄을 알게 되리로다. [40]또 나의 기록하기에 연약함으로 인하여 내가 조금만 기록하였도다.

[41]이제 내가 너희에게 권하고자 하노니,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이 예수를 구하여,ㄱ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들을 증거하시는 성신이 영원토록 너희 안에 계시며 또 거하시게 하라. 아멘.ㄴ

이더가 새로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하다

13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계속하여 내가 기록하고 있는 백성의 멸망에 관한 나의 기록을 마무리하고자 하노라. [2]보라 그들은 이더의 모든 말을 배척하였나니, 이는 저가 진실로 사람이 있기 시작한 때로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그들에게 고하였음이요, 또 물이 이 땅에서ㄷ 물러간 후에 이 땅이 다른 모든 땅 위에 뛰어난 땅 주의 택하신 땅이 된지라, 그러므로 주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으로 그를 섬기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과, [3]또 이 땅은 하늘에서 내려올새 예루살렘의 터요, 주의 거룩한 성소의 터임을 그들에게 고하였음이라.

[4]보라 이더는 그리스도의 날을 보았고, 이 땅에 세워질 새 예루살렘에 관하여 말하였도다. [5]그리고 저는 또한 이스라엘의 집에 관하여서와, 리하이가 떠나올 예루살렘에 관하여서도 말하되—그것이 훼파된 후에 중건되어 주께 거룩한 성이 될 것인즉, 그러므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옛적에 이미 있었음이라. 그러나 그것이 중건되어 주의 거룩한 성이 되며, 이스라엘의 집을 위하여 세워질 것이요— [6]또 새 예루살렘은 요셉 자손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 하였나니, 이 일에 대하여서는 이미 예표가 있었느니라. [7]이는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인도하여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같이 그가 거기서 죽었음이니,ㄹ 이러므로 주께서 요셉 자손의 한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은, 참으로 그가 요셉의 아버지에게 자비를 베푸사 그로 멸망하지 않게 하셨던 것같이, 요셉의 자손에게도 자비를 베푸사 그들로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이러므로 요셉 집의 남은 자들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이요, 이 땅은 저들의 기업의 땅이 될 것인즉 저들이 주를 위하여 옛 예루살렘과 같은 한 거룩한 성을 세우리니, 끝이 이르러 땅이 없어지기까지 저희가 다시는 혼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9]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리니, 이는 옛 것과 같을 것이로되 오직 옛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리라. [10]또 그때 새 예루살렘이 임하나니, 거기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ㄱ41 이는 곧 구약과 신약의 내용임; 사도라는 말은 (나파이인 열두 제자들을 지칭하던 것과 달리) 이스라엘에서 예수의 사도들을 가리키는 데 일관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약에 대한 언급 중의 하나임. 이는 몰몬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신약성서에 대한 두 개의 구체적인 언급 중 하나로 나머지 하나는 니파이전서 13:39에 나옴 ㄴ41 모로나이$_2$는 몰몬$_2$이 모로나이서 9:26에서 그의 편지를 끝낼 때 사용한 것과 비슷한 표현으로 부연을 마침; 모로나이$_2$는 그 편지를 갖고 있었으나 그 내용은 이때 아직 기록되지 않았음 ㄷ2 창세기 8:13~14 ㄹ7 창세기 46:1~7; 49:33

는 저희가 그 옷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희게 된 자들임이요, 또 저희는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요셉 자손의 남은 자 가운데 헤아림을 받는 자들임이라.

11 그리고 그때에 또한 옛 예루살렘이 임하나니, 그 주민들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이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씻겼음이요, 또 그들은 흩음을 당하였다가 땅의 사방에 서와, 북쪽 지방에서 모음을 입고,ㄱ 하나님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세우신 성약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자들임이라. 12 또 이러한 일들이 이를 때 말하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들이 있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있다 하는 경전이 이루어지리로다."ㄴ

숨어 지내는 이더

13 또 내가 더 기록하려 하였으나 금하시는도다.ㄷ 그러나 이더의 예언은 크고 놀라웠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 쫓아낸지라, 그가 낮으로는 바위굴에 몸을 숨기고, 밤으로는 나아가 백성들에게 임할 일들을 살폈더라. 14 또 그가 바위굴에 거할 때 이 기록의 나머지를 만들었고, 밤으로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멸망을 살폈더라.

15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백성 중에서 쫓겨난 바로 그 해에 백성 가운데 큰 전쟁이 시작되니, 이는 앞서 말한 은밀하고 간악한 그들의 계획으로 코리앤투머를 멸하기를 구하는 용맹한 자들이 많이 일어났음이라.ㄹ 16 그러나 이제 코리앤투머는 그 자신, 모든 전술과 세상의 모든 간교함을 연구하였던지라, 그러므로 자기를 멸하기를 구하는 자들과 싸웠더라. 17 그러나 저는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저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코호어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도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코리호어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도ㅁ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요컨대 온 지면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 중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18 그리하여 이렇게 되었나니 이더가 바위굴에 거한 첫해에, 나라를 얻고자 코리앤투머를 대적하여 싸우는 저 비밀 결사들의 칼에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더라. 19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의 아들들도 많이 싸우고 많은 피를 흘렸더라.

20 이에 둘째 해에 주의 말씀이 이더에게 임하여 저로 코리앤투머에게 가서 예언하게 하시되, 만일 그와 그의 모든 권속이 회개하면, 주께서 그의 나라를 그에게 주시며 백성들을 살려 주실 것이어니와— 21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 곧 그 자신을 제외한 그 모든 권속이 멸망당할 것이요, 또 그는 전에 말한 바 다른 백성이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을 것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까지만 살게 될 것이며,ㅂ 코리앤투머는 그들에 의해 매장될 것이며, 코리앤투머를 제외하고 모든 영혼이 멸망당할 것임을 예언하게 하셨더라.ㅅ

22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도, 그의 권속도, 백성들도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전쟁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또 그들이 이더를 죽이려 하였으나, 저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여 바위굴에 다시 숨었더라.

ㄱ 11 이는 곧, 이스라엘의 사라진 10지파; 예레미야 15:16; 31:8 참조 ㄴ 12 니파이전서 13:42; 마태복음 19:30; 20:16; 마가복음 10:31; 누가복음 13:30 ㄷ 13 몰몬경 내용에 대해 주님이 편집권을 행하셨던 경우가 이 외에 더 있음; 니파이전서 14:28; 제3니파이 26:11~12; 28:25 참조 ㄹ 15 이더서 8:20~26 ㅁ 17 이들은 그 당시의 인물들일 수도 있고 경쟁 왕족상의 고대 왕들일 수도 있음; 이더서 7 참조 ㅂ 21 이더서 11:21 ㅅ 21 이 예언은 옴나이서 1:20~22에서 실현됨; 이더서 15:29~30 비교

세이레드가 코리앤투머$_2$와 싸우다

23또 이렇게 되었나니 세이레드가 일어나, 또한 코리앤투머와 싸워 그를 이긴지라, 이에 제삼년에 그를 사로잡힘에 들게 하였더라. 24또 코리앤투머의 아들들이 제사년에 세이레드를 이기고, 다시 나라를 얻어 그들의 아버지에게 주었더라.

25이제 온 땅에 전쟁이 일어나 각 사람이 자기의 무리와 함께 자기의 원하는 바를 위하여 싸웠더라. 26또 온 땅에 도적과 요컨대 온갖 간악함이 있었더라.

27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가 세이레드에게 심히 노하여, 자기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를 대적하여 싸우러 가더니, 그들이 큰 노여움 중에 만나되 그들이 길갈 골짜기에서 만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해졌더라. 2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세이레드가 삼일 동안 저를 대적하여 싸웠더라.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가 그를 이기고, 그를 추격하여 이윽고 헤실론 평지에 이르렀더라.

29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 평지에서 세이레드가 다시 코리앤투머와 싸우더니, 보라, 그가 코리앤투머를 이겨 저를 다시 길갈 골짜기로 몰아 내었더라. 30또 길갈 골짜기에서 코리앤투머가 다시 세이레드와 싸워, 이 싸움에서 세이레드를 이기고 그를 죽였더라. 31그리고 세이레드가 코리앤투머의 다리에 부상을 입힌지라, 저가 이 년 동안을 다시 싸우러 가지 못하였으며, 이 기간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그들을 만류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세이레드의 형제가 코리앤투머$_2$와 싸우고 보좌를 얻다

14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큰 저주가 그 온 땅에 임하기 시작하였나니, 이에 만일 사람이 그의 연장이나 그의 검을 그의 선반에든지, 혹은 그가 보관하고자 하는 장소에 두면, 보라, 다음 날에는 그가 그것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처럼 땅에 임한 저주가 컸더라. 2그리하여 사람마다 그 손으로 자기 것을 움켜쥐고, 빌려오려고도 아니하고, 빌리려고도 아니하였으며, 각 사람은 자기 소유와 자기의 목숨과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오른손에 자기의 칼자루를 잡고 있었더라.

3그리고 이제 이 년 후에, 그리고 세이레드의 죽음 이후에, 보라, 세이레드의 형제가 일어나 코리앤투머를 대적하여 싸움을 일으켰으나, 이 싸움에서 코리앤투머가 그를 이기고 에이키시 광야까지 그를 추격하였더라. 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세이레드의 형제가 에이키시 광야에서 저와 싸우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여져서 여러 수천이 칼에 엎드러지니라. 5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가 광야를 에워싸게 한지라, 이에 세이레드의 형제가 밤에 진군하여 광야를 벗어나 코리앤투머의 군대 일부를 그들이 술에 취하여 있을 때 도륙하더라. 6그리고 모론 땅으로 나아가 스스로 코리앤투머의 보좌에 앉았더라.

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가 이 년 동안 자기의 군대와 더불어 광야에 거하였고, 그 동안 자기의 군대에 큰 병력을 받았더라. 8이제 길르앗이라 이름하는 세이레드의 형제도 비밀 결사로 인하여 자기의 군대에 큰 병력을 받았더라. 9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 보좌 위에 앉았을 때 그의 대제사가 그를 살해하였더라. 10또 이렇게 되었나니 비밀 결사에 속한 자 하나가 비밀 통로에서 그를[ㄱ] 살해하고 나라를 얻으매, 그의 이름은 리브요, 리브는 신장이 장대한 사람이라, 모든 백성 가운데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크더라.

[ㄱ]10 이는 곧, 살인했던 대제사

코리앤투머$_2$가 리브에게서 그의 왕국을 되찾으려 하다

[1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브의 원년에, 코리앤투머가 모론 땅으로 올라와 리브를 대적하여 싸우니라. [12]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리브와 더불어 싸우매, 리브가 그의 팔을 쳐 그가 부상을 입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앤투머의 군대가 리브를 압박하매 리브가 바닷가의 변경으로 도망하였더라. [13]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가 저를 추격하매, 리브가 바닷가에서 그에게 공격을 가하였더라. [1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브가 코리앤투머의 군대를 치매, 그들이 에이키시 광야로 다시 도망하였느니라.

[15]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리브가 에이고시 평지에 이르기까지 그를 추격하였고, 코리앤투머는 자기가 도망하여 간 그 지역에서 리브 앞에서 도망할 때 모든 백성을 자기와 함께 데리고 갔었더라. [16]또 에이고시 평지에 이르러서는 그가 리브에게 공격을 가하여 저를 치되, 곧 저가 죽기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러나 그 대신에 리브의 동생이 와서 코리앤투머를 대적한지라, 싸움이 심히 맹렬해졌더니, 이에 코리앤투머가 리브의 형제의 군대 앞에서 다시 도망하였더라.

시즈가 코리앤투머$_2$를 추격하다

[17]이제 리브의 형제의 이름은 시즈라 하였더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시즈가 코리앤투머의 뒤를 추격하며, 많은 성읍들을 뒤엎으며, 여자들과 아이들을 가리지 않고 도륙하며 성읍들을 불태운지라. [18]이에 시즈에 대한 두려움이 온 땅에 두루 나아갔으니, 참으로 한 외침이 그 땅에 두루 나아가기를—"누가 시즈의 군대 앞에 설 수 있으리요, 보라, 그는 자기 앞의 땅을 쓸어 버리는도다" 하더라.

[19]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 온 땅에 걸쳐 백성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 군대를 이루기 시작하였더라. [20]또 그들이 나뉘어져서 그들 중 일부는 시즈의 군대로 도망하고, 그들 중 일부는 코리앤투머의 군대로 도망하였더라. [21]또 전쟁이 그처럼 크고 오래 지속되었었고, 유혈과 대살육의 광경이 그처럼 오랬던지라, 온 지면이 죽은 자의 시체로 뒤덮였더라.ㄱ [22]그리고 전쟁이 심히 신속하고 빨랐던지라, 남아서 죽은 자를 묻을 자가 하나도 없었고, 그들은 피흘림에서 피흘림으로 진군하여 나아가며, 남녀와 아이들의 주검으로 지면에 널리게 버려두어, 살을 먹는 벌레들의 밥이 되게 한지라. [23]이에 그 악취가 지면에, 참으로 그 온 땅에 나아갔고, 그리하여 그 악취로 인하여 백성들이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였더라. [24]그러할지라도 시즈가 코리앤투머 추격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죽임을 당한 자기 형제의 피와, 또 이더에게 임한 바 코리앤투머는 칼에 엎드러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코리앤투머에게 갚기로 맹세하였었음이라.ㄴ

[25]이에 이리하여 우리는 주께서 그의 가득한 진노 중에 그들을 징벌하셨고,ㄷ 그들의 간악함과 가증함이 그들의 영원한 멸망을 위한 길을 예비하였었음을 알게 되느니라.

[2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시즈가 동쪽으로 코리앤투머를 추격하여 바닷가에 가까운 변경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그가 삼 일 동안 시즈에게 공격을 가하였더라. [27]이에 시즈의 군대 중에서 패망함이 심히 처참하였던지라 백성들이 놀라기 시작하고, 코리앤투머의 군대 앞에서 도망하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코리호어 땅으로 도망하며, 그들 앞의 주민들을, 곧 그들에게 합류하려 아니하는 모든 자들을 쓸어버리었더라.

ㄱ 21 이더서 11:6의 실현 ㄴ 24 이더서 13:20~21 ㄷ 25 이더서 2:8

28 그리고 코리호어의 골짜기에 그들의 장막을 치매, 코리앤투머는 셔르 골짜기에 자기의 장막을 쳤더라. 이제 셔르 골짜기는 콤노어 산에서 가깝더니, 그러므로 코리앤투머가 자기 군대를 콤노어 산 위에 함께 모으고, 시즈의 군대에게 나팔을 불어 나아와 싸울 것을 청하였더라. 2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나아왔으나 다시 쫓겨갔고, 그들이 두 번째 왔으나 두 번째도 다시 쫓겨갔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세 번째 다시 오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여졌더라.

30 또 이렇게 되었나니 시즈가 코리앤투머를 내리쳐 그에게 깊은 상처를 많이 입힌지라, 코리앤투머가 그 피를 잃고 혼절하여 마치 죽은 것같이 떠메어져 갔더라. 31 이제 양측에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손실이 심히 커서 시즈가 자기 백성에게 명하여 코리앤투머의 군대를 추격하지 않게 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갔더라.

마지막 전투를 위한 준비들

15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가 그 부상이 회복되었을 때, 이더가 자기에게 한 말을 기억하기 시작하였더라.[ㄱ] 2 그는 이미 이백만에 가까운 자기 백성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슬퍼하기 시작하였나니, 참으로 이백만의 용사와, 또한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가 죽임을 당하였더라. 3 그는 자기가 행한 악을 회개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선지자들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하여, 그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거기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았으며,[ㄴ] 이에 그의 영혼은 애통하며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더라.

4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시즈에게 서한을 써서 백성들을 살려 줄 것을 그에게 요청하고, 그리하면 백성들의 목숨을 위하여 나라를 넘겨주겠다 하였더라.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시즈가 그의 서한을 받고 코리앤투머에게 서한을 써서, 만일 그가 스스로를 넘겨주어서 자기가 그를 그 자신의 칼로 죽이게 한다면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 주리라 하였더라. 6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백성들은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코리앤투머의 백성은 충동함을 받아 시즈의 백성에 대하여 노하게 되었고, 시즈의 백성은 충동함을 받아 코리앤투머의 백성에 대하여 노하게 된지라, 그러므로 시즈의 백성이 코리앤투머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웠더라.

7 이에 코리앤투머가 자신이 바야흐로 엎드러지려 함을 보고 시즈의 백성 앞에서 다시 도망하였더라. 8 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리플리앤쿰 물에 이르렀으니, 이는 해석한즉, "크다," 즉 "모든 것보다 뛰어나다" 함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이 물에 이르러서 그들의 장막을 쳤고, 시즈도 자기의 장막을 그 가까이에 친지라, 그러므로 다음 날 그들이 싸우게 되었더라. 9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심히 맹렬한 싸움을 싸웠더니, 이 싸움에서 코리앤투머가 다시 부상을 입어, 피를 잃고 실신하였더라.

10 그러나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의 군대가 시즈의 군대를 압박하여 저들을 이기고, 저들로 자기들 앞에서 도망하게 한지라, 저들이 남쪽으로 도망하여 오개드라 하는 곳에 저들의 장막을 쳤더라. 11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의 군대는 레이마 산 곁에 그들의 장막을 쳤으니, 이는 나의 부친 몰몬이 성스러운 기록들을 주께[ㄷ] 감춘 바로 그 산이더라.

12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이더를 제외하고 그 온 땅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모든 백성을 함께 모으니라. 13 또 이렇게 되었나니 이더는 백성들의 모든 행사를 지켜보았고, 또 그가 본즉 코리앤투머를 위하는 백성은 코리앤투머의 군대로 함께 모이고,

[ㄱ] 1 이더서 13:20~21 [ㄴ] 3 이더서 7:23~26; 9:28~30; 11:1~7, 12~13, 20~21 [ㄷ] 11 몰몬서 6:6

시즈를 위하는 백성은 시즈의 군대로 함께 모이더라. 14그리하여 그들이 사 년 동안 백성을 함께 모으고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를 얻으며 받을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받고자 함이었더라.

야렛인의 멸망

15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와 더불어 각자 자기의 원하는 군대로 다 함께 모인 후에—남녀와 아이를 가리지 않고 전쟁 무기로 무장하고, 방패와 가슴판과 투구를 갖추고, 전쟁의 복장을 한 채—그들이 싸우고자 서로를 대하여 진군해 나아가 그 날 종일토록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1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밤이 되매 그들이 지쳐 각자의 진영으로 물러갔고, 그들이 그 진영으로 물러간 후에는 그들 백성의 죽임 당한 자를 잃음으로 인하여 울부짖으며 애곡하기 시작하였으니,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울부짖음과 애곡함이 심히 컸던지라, 그 소리가 심히 공기를 찢었더라.

17또 이렇게 되었나니 다음 날 그들이 다시 싸우러 가매, 그 날이 크고 두려웠으나 그럼에도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다시 밤이 오매 그들 백성의 죽임 당한 자들을 잃음으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애곡이 공기를 찢었더라.

18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가 다시 시즈에게 서한을 써서, 저에게 다시 싸우러 오지 말고, 나라를 취하고 백성들의 목숨을 살려 줄 것을 요청하였더라. 19그러나 보라, 주의 영은 그들과 함께 애쓰시기를 이미 그치셨고, 사탄이 백성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는 권능을 가졌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 마음의 완악함과 그들 생각의 눈먼 데로 내어준 바 되어 멸망당하게 되었음이라. 그리하여 그들이 다시 싸우러 갔더라.

20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날 온종일 싸웠고, 밤이 오매 그들은 그들의 칼을 베고 잤더라.

21또 다음 날에도 그들은 참으로 밤이 오기까지 싸웠더라. 22그리고 밤이 오매 그들은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같이 노여움에 취하여, 다시 그들의 칼을 베고 잤더라.

23또 다음 날에 그들이 다시 싸웠고, 밤이 오매 그들이 모두 칼에 엎드러졌고, 다만 코리앤투머의 백성 오십이 명과 시즈의 백성 육십구 명만이 있었더라. 24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그 밤에 그들의 칼을 베고 자고,

다음 날 그들이 다시 싸우되, 그 날 종일 그들의 칼과 그들의 방패를 가지고 그들의 힘을 다하여 싸웠더라. 25또 밤이 오매 시즈의 백성 삼십이 명과 코리앤투머의 백성 이십칠 명이 남았더라. 26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먹고 자고, 다음 날 죽을 준비를 하였으니,

그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크고 용맹한 사람들이더라. 27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들이 세 시간 동안 싸우고 피를 잃어 기진하였더라. 28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의 병사들이 걸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얻었을 때, 자기들의 생명을 위하여 바야흐로 도망하고자 하였으나, 보라, 시즈가 일어났고, 그의 병사들도 일어나더니, 저가 그 분노 중에 맹세하되 코리앤투머를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칼에 죽을 것을 맹세하였더라. 29그리하여 저가 그들을 추격하더니, 다음 날 그들을 따라잡으매, 그들이 다시 칼로 싸웠더라. 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와 시즈를 제외하고 그들 모두가 칼에 엎드러졌을 때, 보라, 시즈가 피를 잃어 기진하였더라.

30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가 자기 칼을 의지하고, 잠시 쉰 후에, 시즈의 머리를 쳐서 베었느니라. 31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시즈의 머리를 쳐서 벤 후에, 시즈가 그 손을 짚고 일어나다가 엎드러져서는 숨을 쉬려고 애쓰다가 죽었더라. 32또

이렇게 되었나니 코리앤투머도 땅에 엎드러져서, 마치 생명이 없는 자같이 되었던지라.[ㄱ]

이더의 종말

33 이에 주께서 이더에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아가라" 하시었으매, 그가 나아가 주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가 자기의 기록을 마무리하고, (그 백분의 일도 나는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림하이의 백성들이 발견하였을 때의 모양으로 그것을 감추었더라.[ㄴ]

34 이제 이더가 기록한 마지막 말이 이러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았을진대, 주께서 나로 변화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육체로 주의 뜻을 겪게 하시든지 상관없도다. 아멘."

[ㄱ] 32 코리앤투머$_2$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는 옴나이서 1:20~22에 나옴 [ㄴ] 33 모사이야서 8:7~11

모로나이서

모로나이$_2$가 몇가지 기록을 추가하다

1 이제 나 모로나이는 야렛 백성의 기사를 요약하기를 마친 후에 내가 더 기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아직은 죽지 아니하였고, 또 나는 레이맨인들이 나를 멸할까 하여 그들에게 나를 알리지 아니하노라. [2]이는 보라, 그들의 전쟁은 그들끼리 심히 격렬하며, 그들의 증오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려 아니하는 모든 니파이인을 죽임이라. [3]그러나 나 모로나이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므로 나는 내 생명의 안전을 위하여 어디든지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헤매노라. [4]그러한즉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몇 가지를 더 기록하노니, 이는 내가 더 기록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아니하였었음이라. 그러나 내가 몇 가지를 더 기록하노니, 혹 이것이 주의 뜻을 좇아 장차 언젠가 나의 형제 레이맨인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려 함이라.

교회 지침과 의식에 대한 모로나이$_2$의 가르침

모로나이서 2~6장

성신의 은사

2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제자들 곧 그 택하신 열둘에게 그 손을 얹으셨을 때 하신 말씀이라[1] —

[2]또 저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간절한 기도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를지니, 너희가 이렇게 한 후에는 너희가 안수하는 자에게 성신을 줄 권능을 갖게 되리라. 또 내 이름으로 너희는 이를 줄지니, 이는 그와 같이 나의 사도들이 행함이니라."

[3]이제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나니, 무리는 이를 듣지 못하였으되, 제자들은 이를 들었으며, 그들이 안수하는 자에게는 모두 성신이 내리셨느니라.

[1] 이 말들은 제3니파이 18:36~37에서 기약됨 [3] 제3니파이 26:17; 제4니파이 1:1

성임 방법

3 교회의 장로라 일컫는 제자들이 제사와 교사를 성임한 방법이라—
2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한 후에 그 손을 저들에게 얹고 이르되, 3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그대를 제사로 성임하노라. (또는 만일 교사이면 "나는 그대를 교사로 성임하노라") 이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끝까지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얻는 죄 사함을 전파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4 이러한 방법으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좇아 제사와 교사를 성임하되,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성신의 권능으로써 저들을 성임하였더라.

성찬: 떡의 축복

4 그들의 장로와 제사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교회에 베푼 방식이니, 그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을 좇아 이를 베푼지라, ㄱ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식이 참된 줄 아노라. 이에 장로 또는 제사가 이를 베풀되—
2 그들이 교회로 더불어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 이르되,

3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성찬: 포도주의 축복

5 포도주를 베푸는 방식이라—
보라 그들이 잔을 들고 이르되,

2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ㄱ1 이 성찬식 기도문들은 제3니파이 18:1~14에 나오는 시기에 알려진 것으로 추정

이 포도주를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항상 그를 기억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
아멘.”

침례

6 그리고 이제 내가 침례에 관하여 말하노라. 보라, 장로, 제사, 그리고 교사들이 침례를 받았으되, 그에 ㄱ 합당한 열매를 맺음이 없이 침례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2]누구라도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와, 진실로 그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였음을 교회에 증거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받아들여 침례를 받게 아니하였느니라. [3]또 아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끝까지 그를 섬길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여져 침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4]또 그들이 받아들여져 침례를 받고 성신의 권능으로 역사함을 받아 정결하게 된 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았고, 그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하여 그들을 바른 길에 있도록 지키며 그들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며 그들의 신앙의 창시자이시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의 공덕만을 의지하도록 하려 하여 그들의 이름을 취하였느니라.

교회 질서

[5]또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의 복리에 관하여 서로 말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였느니라. [6]또 그들은 주 예수를 기억하여, 떡과 포도주를 취하기 위하여 자주 함께 모였느니라.

[7]또 그들 중에 죄악이 있지 못하도록 엄격히 주시하였고, 누구든지 죄악을 범함이 드러나면, 교회의 증인 셋이 장로들 앞에서 그들을 정죄하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백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이름이 지워져, 그들은 그리스도의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8]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들은 용서를 얻었느니라.

[9]또 그들의 모임은 교회에 의하여 영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신의 권능으로 인도되었나니, 이는 성신의 권능이 그들을 인도하여, 혹 가르치거나, 또는 권면하거나, 또는 기도하거나, 또는 간구하거나, 또는 노래하게 하는 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졌느니라.

ㄱ1 이는 곧, 침례 받을 자격에; 마태복음 3:8참조; 앨마서 5:36; 9:30 비교

모로나이$_2$가 신앙, 소망, 그리고 사랑에 대한 몰몬$_2$의 설교를 인용하다

모로나이서 7장

선악을 구별하기

7 그리고 이제 나 모로나이는 신앙, 소망, 그리고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신 나의 부친 몰몬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기록하노니, 이는 그가 백성들이 예배의 장소로 지은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음이라.

2 "그리고 이제 나 몰몬은 너희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때에 너희에게 말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내게 주신 그의 부르심의 은사로 인한 그의 거룩하신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3 그런즉 나는 교회에 속하여 있으며,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이때로부터 하늘에서 그와 함께 안식하게 될 때까지 주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소망을 얻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노라. 4 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의 자녀들과 더불어 화평한 중에 행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 대하여 이 일을 판단하노라. 5 이는 '그들의 행위로 그들을 알 것이라'ㄱ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함이라. 이는 만일 그들의 행위가 선할진대 그들도 선함이니라.

6 "이는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악하면서 선을 행할 수 없다 하셨음이니, 만일 그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거나,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를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함이니라.'ㄴ 7 이는 보라,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김이 되지 아니함이니라. 8 보라, 사람이 악하면서 예물을 드리면, 마지못하여 그렇게 함이라. 그리하여 마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 것처럼 그에게 여겨지나니, 그런즉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으로 여김을 받느니라. 9 또 마찬가지로 만일 사람이 기도하되 마음의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하지 아니할진대, 그것 또한 그에게 간악한 것으로 여김이 되며, 그뿐 아니라 그것이 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는 하나도 받으시지 아니하심이라. 10 그러므로 사람이 악하면서 선을 행할 수 없고, 그는 선한 예물을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11 이는 보라, 쓴 샘이 좋은 물을 낼 수 없고, 좋은 샘이 쓴 물을 낼 수 없음이라. 그런즉 사람이 악마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고, 그가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는 악마의 종이 될 수 없도다.

12 "그런즉 무릇 선한 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악한 것은 악마에게서 오나니, 이는 악마가 하나님의 원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며, 또 죄를 범하도록 또 끊임없이 악을 행하도록 꾀며 유혹함이라. 13 그러나 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도록 이끌며 권유하나니, 그러므로 무릇 선을 행하도록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도록 이끌며 권유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악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또는 선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15 "이는 보라, 나의 형제들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주어져 너희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음이요, 또 판단하는 길은 어두운 밤과 낮의 빛을 구별함같이 명

ㄱ5 제3니파이 14:20; 마태복음 7:20 ㄴ6 고린도전서 13:3 참조

백하여 너희가 완전한 지식으로 알 수 있음이니라. 16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길을 보여 주노니, 무릇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17그러나 무엇이라도 사람들을 설득하여 악을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고, 그를 부인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는 것이면, 너희는 그것이 악마에게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 이는 실로 이러한 방식으로 악마가 일함이니, 이는 그가 아무도, 실로 단 한 사람도 설득하여 선을 행하게 아니하며, 그의 사자들도 그러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자들도 그러함이라.

18"이에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판단할 수 있는 빛, 곧 그리스도의 빛을 알고 있은즉, 너희가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판단하는 바로 그 판단으로 너희가 또한 판단을 받을 것임이니라. 19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부지런히 탐구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할지니, 만일 너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이니라."

신앙에 대한 몰몬$_2$의 말

20"그러면 이제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을 수 있음이 어떻게 가능하냐? 21이에 이제 나는 내가 말하겠다 한 저 신앙에 이르러, 너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을 너희에게 말해 주리라.

22"대저 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계시나니, 보라, 그가 천사들을 보내사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풀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서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이 임할 것을 드러내게 하셨느니라. 23또한 하나님은 친히 그 입으로, 그리스도가 올 것을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셨느니라. 24또 보라, 그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선한 일을 나타내시는 길이 여러 가지 있었어도 선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타락한 고로 저희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임할 수 없으리로다. 25그리하여 천사들의 성역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기 시작하였고, 그리하여 신앙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모든 선한 것을 붙잡았으니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러하였느니라.

26"또 그가 오신 후에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앙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나니,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같이 분명히 그는 우리 조상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신앙으로 무엇이든지 선한 것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하셨느니라.┐

27"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사람의 자녀들에 대하여 지니신 그의 자비의 권한을 아버지께 주장함으로 인하여 기적이 그쳤느냐? 28대저 그는 율법의 목적에 부응하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시며, 그를 믿는 자들은 모든 선한 것을 굳게 붙들 것인즉, 그러므로 그는 사람의 자녀들을 위하여 변호하시며, 영원토록 하늘에 거하시느니라.

┐26 제3니파이 18:20 참조; 이노스서 1:15 비교

29"이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가 이를 행하셨음으로 인하여 기적이 그쳤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리고 천사들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성역을 베푸는 일도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30이는 보라, 그들은 그에게 복종하여, 그의 명하시는 말씀을 좇아 성역을 베풀며, 경건의 모든 모양 중에 강한 신앙과 굳건한 마음을 지닌 자들에게 스스로를 보임이니라. 31또 그들의 성역의 직무는 사람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며, 아버지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으신 바, 그의 성약을 이루고 그 성약의 일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의 택하신 그릇에게 선포하여, 그들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자녀들 가운데 길을 예비하는 것이니라. 32또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도록 길을 예비하사, 성신이 그 권능을 좇아 그들의 마음에 있을 곳을 가지게 하시나니, 이 같은 방법으로 아버지께서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맺으신 성약을 이루시느니라.

33"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되,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리라.'[ㄱ] 34또 이르시되,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ㄴ]

35"이에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러한 것들이 참될진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이 참됨을[ㄷ] 마지막 날에 권능과 큰 영광으로 너희에게 보이시려니와, 만일 이러한 것이 참되다면 기적의 날이 그쳤느냐? 36또는 천사들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그쳤느냐? 또는 그가 그들에게서 성신의 권능을 거두셨느냐? 또는 시간이 지속되거나, 땅이 존속하거나, 그 위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한 그가 그리하시겠느냐?

37"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으로 말미암음이요,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 성역을 베푸는 것도 신앙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런즉 만일 이러한 일들이 그쳤다면 사람의 자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그것이 믿지 않음으로 인함이요, 모든 것이 헛됨이라. 38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를진대,[ㄹ] 그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임이니, 그러므로 만일 이러한 일들이 그쳤다면, 그러면 신앙이 또한 그친 것이요, 이에 사람의 상태가 참담하리니, 이는 그들이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것과 같음이라.

39"그러나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더 나은 줄로 판단하노니, 이는 너희의 온유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내가 판단함이라. 이는 만일 너희가 그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그의 교회의 백성 가운데 헤아림을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함이니라."

[ㄱ] 33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ㄴ] 34 제3니파이 9:22; 27:20; 이더서 4:18 [ㄷ] 35 니파이후서 33:11
[ㄹ] 38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소망과 사랑에 대한 몰몬$_2$의 말

고린도전서 13:4~7 인용 포함

40 "그리고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소망에 관하여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노라. 너희가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어찌 신앙에 이를 수 있느냐? 41 또 너희가 바라야 할 바는 무엇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영생으로 일으키심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가져야 할지니, 이는 약속대로 그를 믿는 너희의 신앙으로 인한 것이니라.ㄱ 42 그런즉 사람이 신앙을 가지려면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신앙 없이는 아무 소망도 있을 수 없음이라.

43 "그리고 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그가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하게 되지 아니하고는 신앙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느니라. 44 만일 그러하면 그의 신앙과 소망은 헛것이라. 이는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이라. 또 만일 사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신의 권능으로 시인하려면,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나니, 이는 만일 그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가 아무것도 아님이라. 그런즉 그는 반드시 사랑을 가져야만 하느니라.

45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ㄴ

46 "그런즉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니, 이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 이는 모든 것이 반드시 시들되—ㄷ 47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 영원히 견딤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이를 지닌 것으로 드러나는 자는 잘 될 것임이니라.

48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음의 힘을 다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 모두에게 내려주신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며,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그를 볼 것인즉, 우리가 그와 같이 되게 하며, 우리로 이 소망을 갖게 하며, 그가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게 할지어다.ㄹ 아멘."

ㄱ41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나 니파이후서 31:20; 앨마서 7:15~16; 몰몬서 9:21 참조 ㄴ45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13:4~7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의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를 되풀이함 ㄷ46 고린도전서 13:2, 8, 13 비교 ㄹ48 1 요한복음 3:2~3

모로나이$_2$가 몰몬$_2$이 보내준 편지의 내용을 인용하다

모로나이서 8장

어린아이들의 침례에 대한 몰몬$_2$의 말

8 나 모로나이에게 쓰신 나의 부친 몰몬의 서한이니, 내가 성역을 베풀도록 부름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내게 쓰신 것이요, 내게 쓰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2]내 사랑하는 아들 모로나이야, 너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생각하시고, 그의 성역과 그의 거룩한 일을 행하도록 너를 부르셨으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3]내가 나의 기도 중에 항상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거룩한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가 그의 무한한 선하심과 은혜로써 끝까지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너를 지키실 것을 구하노라.[ㄱ]

[4]그리고 이제 내 아들아, 나를 심히 비통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논쟁이 일어남은 나를 비통하게 함이라. [5]이는 내가 알게 된 바가 사실일진대, 너희 중에 너희 어린아이들의 침례에 관하여 논쟁이 있었음이니라. [6]이에 이제 내 아들아, 나는 너희가 부지런히 일하여 이 큰 잘못이 너희에게서 제하여지게 하기를 바라노라. 이는 이 목적으로 내가 이 서한을 썼음이니라.

[7]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음을 알고 나서 즉시 그 문제에 관하여 여쭈었더니, 주의 말씀이 성신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8]"너희의 구속주, 너희의 주 너희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보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려 함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함이니라.[ㄴ] 온전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 있나니,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온전하도다. 이는 그들에게 죄를 범할 능력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담의 저주가 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제하여져서, 그들에게 아무 힘을 미치지 못하며, 할례의 법이 나로 말미암아 폐하여졌도다" 하셨느니라. [9]이에 이와 같이 성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나타내셨으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어린아이에게 침례를 줌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조롱 행위인 줄을 내가 아노라.

[10]"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을 너희는 가르치라—곧 책임을 질 수 있고 죄를 범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회개와 침례를 가르칠지니, 참으로 부모들을 가르치되 그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같이 스스로 겸손하여야 하며, 그리하면 그들이 모두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함께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을 가르치라. [11]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회개나 침례가 필요 없나니, 보라 침례는 회개를 위한 것이요 계명을 이루어 죄 사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12]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나니, 만일 그렇지 않다 할진대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일지라, 대

[ㄱ]3 몰몬$_2$이 모로나이$_2$의 성임 받음에 대해 말하면서 모로나이서 3:3 성임 기도문의 "끝까지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이라는 표현을 인용함 [ㄴ]8 마태복음 9:12~13; 마가복음 2:17; 누가복음 5:31~32

저 침례 없이 죽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겠느냐! 13그런즉 만일 어린아이들이 침례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 할진대, 이들이 반드시 끝없는 지옥으로 갔을 것이라. 14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어린아이들에게 침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쓰디쓴 담즙에 빠져 있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나니, 이는 그에게 신앙이나 소망이나 사랑이 없음이라. 그런즉 그가 그러한 생각으로 있다가 끊어 버림을 당하면, 그는 지옥으로 내려가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15이는 어떤 아이는 하나님께서 침례로 인하여 구원하시고, 어떤 아이는 침례 없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멸망한다 생각하는 그 간악함이 끔찍함이라.

16이와 같이 주의 길을 굽게 할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멸망할 것임이라. 보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말하며,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음이라. 17이에 내가 영원한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졌노니, 그러므로 모든 아이가 내게는 다 같도다. 그리하여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노니, 그들은 다 같고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라.

18이는 하나님은 공평치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요, 변하시는 존재도 아니시며, 모든 영원에서 모든 영원까지 변하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라. 19어린아이들은 회개할 수 없은즉, 그러므로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순결한 자비를 부인하는 것은 끔찍한 간악함이니, 이는 그들이 그의 자비로 인하여 그의 안에 모두 살아 있음이라. 20또 어린아이들에게 침례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부인하며, 그의 속죄와 그의 구속의 능력을 무시하는 자라. 21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죽음과 지옥과 끝없는 고통의 위험에 처해 있음이라. 내가 담대히 이를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유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너희를 정죄하리로다.

22이는 보라, 어린아이들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살아 있으며, 율법 밖에 있는 자도 모두 그러함이니, 구속의 능력이 율법을 갖지 아니한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런즉 정죄 받지 아니한 자, 곧 정죄 아래 있지 아니한 자는 회개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에게 침례란 무익한 것이요— 23도리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조롱하는 행위로써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의 성령의 권능을 부인하며, 죽은 행실을 신뢰하는 일이니라.

24보라, 내 아들아, 이러한 일은 마땅히 있어서 아니되나니, 회개란 정죄 아래와 깨어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임이라.

25 그리고 회개의 첫열매는 침례요,
침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와서 계명을 이룸에 이르며,
계명을 이룸은 죄 사함을 가져오니라.
26 또 죄 사함은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을 가져오며,
온유함과 마음의 겸손으로 인하여 성신의 방문이 임하는 것이라.

이 보혜사는 소망과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주시나니,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21 이는 곧, 이 말

곧 끝이 이르기까지 견디느니라.

니파이인의 멸망에 대한 몰몬$_2$의 언급

27 보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레이맨인들을 치러 곧 나가지 아니하면 다시 네게 쓰리로다. 볼지어다, 이 나라 곧 니파이 백성의 교만이,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의 멸망이 되었도다. 28 내 아들아, 회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보라, 나는 영이 그들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는지 두려워하노라. 이 지역에서 그들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권능과 권세를 폐하기를 꾀하고 있으며, 그들은 성신을 부인하고 있도다. 29 또 내 아들아, 그처럼 큰 지식을 저버린 후에, 그들이 반드시 곧 멸망하여 우리의 구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과 또한 선지자들로ㄱ 말씀하신 예언들을 이루리라.ㄴ

30 내 아들아, 내가 다시 네게 쓰든지, 아니면 다시 너를 만날 때까지 잘 있으라. 아멘.

모로나이$_2$가 몰몬$_2$이 보내준 두번째 편지를 인용하다

모로나이서 9장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보내는 몰몬의 두 번째 서한.ㄷ

니파이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

9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직 살아 있음을 너로 알게 하려고 내가 다시 네게 쓰거니와, 내가 비통한 일에 대하여 얼마간 쓰노라. 2 이는 보라, 내가 레이맨인들과 더불어 격심한 싸움을 치렀으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였고, 아아켄투스는 칼에 엎드러졌고, 루램과 에므론도 그리되었으며, 이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뛰어난 병사들을 허다히 잃었음이라.

3 또 이제 보라, 내 아들아, 나는 레이맨인들이 이 백성을 멸망시킬까 두려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며, 사탄이 그들을 끊임없이 충동하여 피차에 노하게 함이라. 4 보라, 내가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으되, 내가 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면 그들이 떨며 나에게 노를 품고, 내가 엄히 말하지 아니하면 그것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러므로 나는 주의 영이 그들과 함께 애쓰시기를 그치셨을까 두려워하노라. 5 이는 그처럼 심히 그들이 분노하여 내가 보기에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으며, 그들은 서로를 향한 그들의 사랑도 잃어 버렸고, 끊임없이 피와 복수에 목말라 하고 있음이라.

6 그러나 이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자. 이는 만일 우리가 수고하기를 그치면 우리가 정죄 아래 들게 될 것임이요, 우리에게는 이 흙의 성막에 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있음이니, 이는 우리가 모든 의의 원수를 이기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ㄱ 29 니파이후서 1:10; 앨마서 9:18~19; 45:12; 힐라맨서 7:24 ㄴ 29 이 언급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음 ㄷ 1 몰몬서 4:10~15과 공통된 몇 가지 표현들을 통해 원래 이 편지는 그 단락에서 묘사된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365년)에 작성되었음을 암시함

니파이인들의 간악함과 고난

7 그리고 이제 나는 이 백성의 고난에 관하여 얼마간 기록하노라. 내가 애모론으로부터 받은 지식에 의하면, 보라, 레이맨인들에게는 그들이 셰라이자 망대에서 잡은 포로가 많이 있고, 거기에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는데, 8 그 여자들과 아이들의 남편과 아버지들을 그들이 죽이고, 여자들에게는 그 남편의 살을 먹이며, 아이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살을 먹이고, 물도 조금씩밖에는 주지 아니하는도다.

9 그러나 레이맨인들의 이 큰 가증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모리앤툼에 있는 우리 백성의 가증함보다 더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보라, 많은 레이맨인의 딸들을 저들이 포로로 잡아,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 순결과 정조를 그들에게서 빼앗은 후에— 10 그리고 저들이 이런 일을 행한 후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그들의 육신을 괴롭게 하여 그들을 죽게 하고, 저들이 이렇게 한 후에는,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들짐승처럼 그들의 살을 먹되, 용감함의 표시로 저들이 그리 행함이라.

11 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문명이 없는 백성인들 어찌 이 같을 수 있으리요— 12 (불과 수년이 지나갔을 뿐이니 그들은 개화되고 기뻐하심을 입던 백성이었거늘) 13 그러나 내 아들아, 그처럼 많은 가증함을 기뻐한다 하여 백성이 어찌 이 같을 수 있으리요— 14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손을 멈추시기를 우리가 어찌 기대할 수 있으리요? 15 보라, 내 마음이 부르짖기를

"이 백성에게 화 있도다.
하나님이시여, 심판하러 나오사
그들의 죄와 간악함과 가증함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가리우시옵소서" 하는도다.ㄱ

16 그리고 또 내 아들아, 셰라이자에 남아 있는 과부와 그 딸들이 많이 있으되, 레이맨인들이 가져 가버리지 아니한 그 식량을 보라, 지네파이의 군대가 가져가고, 그들로 하여금 음식을 찾아 어디로든지 방황하게 버려둔지라, 많은 늙은 여자들이 길가에서 기진하여 죽는도다. 17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군대는 약하고, 레이맨인들의 군대는 셰라이자와 나 사이에 있으니, 아론의ㄴ 군대에게로 도망했던 자들은 모두 그들의 끔찍한 포악함에 희생되었느니라.

18 오 내 백성의 사악함이여! 그들에게는 질서도 없고 자비도 없도다. 보라, 나는 사람일 뿐이요, 사람의 능력을 가졌을 뿐인지라, 나의 명령을 더 이상 강제할 수 없도다. 19 또 그들은 그들의 패역함 중에 완강하여져서, 하나같이 포악하여, 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도 살려 두지 아니하며, 선한 것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기뻐하는지라, 우리의 여자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온 땅에서 겪는 고난이 극심하여 필설로 다할 수 없도다.

ㄱ 15 몰몬$_2$의 이 말들은 이전의 있었던 니파이인들의 멸망을 상기시킴; 제3니파이 9:5, 7, 8, 11 참조 ㄴ 17 이는 곧, 레이맨인들의 왕인 아론$_3$; 몰몬서 2:9; 3:4 참조

몰몬$_2$이 모로나이$_2$에게 한 작별 인사

[20]이제 내 아들아, 나는 이 처참한 광경에 대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아니하노라. 보라, 이 백성의 간악함을 네가 알며, 그들은 원리도 없고, 감각도 없으며, 그들의 간악함은 레이맨인들의 간악함보다 더한 줄을 네가 아느니라. [21]보라 내 아들아, 나를 치실까 하여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 천거할 수 없도다.

[22]그러나 보라,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께 너를 천거하노니, 나는 네가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하노라. 또 나는 하나님께서 네 목숨을 살려 두셔서 그의 백성이 그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나, 아니면 그들의 온전한 멸망을 목격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노니, 이는 그들이 회개하고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을 내가 앎이라. [23]또 만일 그들이 멸망하면, 그것은 야렛인들과 같으리니, 이는 피와 복수를 구하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함이라.

[24]또 만일 그들이 멸망할진대, 우리의 많은 형제들이 레이맨인들에게로 넘어갔고 또한 많은 자가 더 그들에게로 넘어갈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은즉, 그러므로 만일 네가 살아남고, 내가 죽어 너를 보지 못하거든, 대략 몇 가지를 기록하라. 그러나 내가 곧 너를 볼 줄로 확신하노니, 이는 네게 넘겨줄 거룩한 기록을 내가 갖고 있음이니라.

[25]내 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라. 그리고 내가 쓴 것이 너를 비통하게 하여 너를 억눌러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 올리시기를 바라며, 또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우리 조상들에게 그의 몸을 보이신 일과 그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의 영광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노라. [26]또 그 보좌가 하늘 높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되기까지 그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계시고 또 거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로나이$_2$가 레이맨인들에게 권면하다

모로나이서 10:1~23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도록 기도하라

10 이제 나 모로나이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얼마간 기록하되, 나의 형제 레이맨인들을 위하여 기록하노니, 나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표적이 주어진 이래로 사백이십 년 이상이 지나갔음을 그들이 알기 원하노라.[ㄱ] [2]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권면으로 몇 마디 말을 하고 나서, 이 기록들을 인봉하노라.

[3]보라,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가 이를 읽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일진대, 너희가 이 기록을 읽게 되거든, 너희는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너희가 이 기록을 받게 될 때까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너희 마음에 깊이 생각하라.

[4]또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

[ㄱ] 1 +420년

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5또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

6또 무엇이든지 선한 것은 바르고 참된지라, 그러므로 무엇이라도 선한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가 계심을 인정하느니라. 7이에 너희가 성신의 권능으로 그가 계심을 알리로다. 그런즉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하지 말라. 이는 그가 사람의 자녀들의 신앙을 따라 권능으로써 역사하심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의 표현을 참고하다

8그리고 또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사를 부인하지 말라. 이는 은사가 많음이요, 그것들이 같은 하나님에게서 옴이니라. 또 이러한 **은사들이「베풀어지는 데도 여러 가지 길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이는 같은 하나님이시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영의 나타나심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들을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9 **이는** 보라,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니라.
10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지식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니라.
11 또 **다른 이에게는** 심히 큰 **신앙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영으로 병 고침의 은사를**,
12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능한 **기적 행함**을,
13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모든 것에 관하여 **예언함을**,
14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천사들과 성역을 베푸는 **영들을** 봄을,」
15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온갖 방언을**,
16 그리고 또 **다른 이에게는** 언어들과 **각종 방언 통역함**을 주심이니,

17**이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각각** 임하느니라. 18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모든 선한 은사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라. 19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과, 내가 말한 이 모든 영적인 은사가 사람의 자녀들의 믿지 않음을 따라서가 아니고는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결코 폐하여지지 아니할 것임을 기억하라.

20그런즉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할진대 또한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할진대 또한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하느니라.」 21또 너희에게 사랑이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너희에게 신앙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으며, 너희에게 소망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22또 만일 너희에게 소망이 없으면 너희가 반드시 절망하리니, 절망은 죄악으로 인하여 오는도다. 23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진실로

┐8 8~17절은 고린도전서 12:4~11을 명확히 하며 부연 설명함; 공통된 단어나 어구들은 굵은체로 표시됨 └14 고린도전서 12:10에서는 "영들 분별함"을 나옴 ┌20 사도 파울과 마찬가지로, 모로나이$_2$는 영의 은사 목록을 열거한 뒤에 신앙, 소망, 그리고 사랑에대해서 설교함; 고린도전서 13:13 비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라도 다 행할 수 있으리라” 하셨느니라.ㄱ

모로나이$_2$가 땅 끝까지 작별을 고하다ㄴ

모로나이서 10:24~34

이러한 것을 기억하라

모로나이에 의해 참고된 이전 니파이인 기록자의 문구는 굵은체로 표시됨

24 이에 이제 내가 땅의 모든 끝에게 말하노니—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가 폐하여지는 날이 이르면 그것은 믿지 않음으로 인함일 것이니라. 25 또 만일 그러할진대 사람의 자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너희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되, 하나도 없을 것임이니, 이는 만일 너희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로 역사할 것임이니라. 26 또 이러한 것을 폐하고 죽을 자들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를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27 이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이러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알게 될 때가 속히 이름이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나를 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이 사람이 기록한 나의 말을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외치는 자같이** 참으로 **티끌**에서 말하는 자같이 너희에게 선포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실 것임이니라.”ㄷ

28 내가 이러한 것을 선포하여 예언을 이루노니,ㄹ 보라,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아올 것이요**,ㅁ 그의 말씀은 대대로 울려 퍼질 것이니라. 29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록한 것들이 **참됨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ㅂ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

30 또 **내가** 거듭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ㅅ **모든 선한**ㅇ 은사를 붙들고 악한 은사나 부정한 것은 손대지 말라.

31 그리고 예루살렘이여,
깨어나 티끌에서 일어나라.ㅈ
또한 시온의 딸아,
네 아름다운 옷을 입으며ㅊ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고
네 경계를 영원히 넓혀
다시는 혼란하게 되지 않게 하고,ㅋ

ㄱ 23 모로나이서 7:33 참조 ㄴ 24 놀랍게도 모로나이$_2$는 이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 그의 이전 기록자들인 니파이인들이 마지막 작별 인사에서 쓴 문구를 따옴 ㄷ 27 27절의 굵은체는 니파이$_1$의 말에서 따옴; 니파이후서 33:11, 13 참조 ㄹ 28 이사야 29:4 추정; 니파이후서 3:19~20; 27:13; 29:2~3 비교 ㅁ 28 니파이$_1$의 말에서 따옴; 니파이후서 33:14 참조 ㅂ 29 몰몬$_2$의 말에서 따옴; 모로나이서 7:35 참조 ㅅ 30 아맬레카이$_1$의 말에서 따옴; 옴나이서 1:26 참조 ㅇ 30 몰몬$_2$의 말에서 따옴; 모로나이서 7:19 참조 ㅈ 31 리하이$_1$의 말에서 따옴; 니파이후서 1:14 참조 ㅊ 31 이사야 52:1~2; 제3니파이 20:36~37 참조 ㅋ 31 이사야 54:2, 4; 제3니파이 22:2, 4 참조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집이여,
네게 맺으신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약이
성취되게 하라.

32 참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의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니,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 또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면, 너희가 결단코 하나님의 권능을 부인할 수 없으리로다. 33 그리고 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그의 권능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되나니, 이 피 흘리심은 아버지의 성약 안에서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으로서 너희를 거룩하며 흠 없게 되게 하는 것이니라.

34 그리고 이제 나는 모든 이에게 **작별을 고하노니, 내가** 곧 하나님의 낙원으로 **가서 쉬리로다**.[ㄱ] 그리하여 나의 영과 육신이 다시 재결합하고, 내가 공중에서 승리자로 나아와, 산 자와 죽은 자의 영원한 재판관이신 **위대한 여호와의**[ㄴ] **기쁜 심판대 앞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아멘.

[ㄱ] 34 이노스의 말에서 따옴; 이노스서 1:27 비교 [ㄴ] 34 야곱$_2$의 말에서 따옴; 야곱서 6:13 참조

부록

목록, 도표 및 지도
참고 사항
역사적 배경 지식
일화로 된 역사 이야기

특정 명칭 목록

이 목록은 몰몬경에 나오는 모든 특정 명칭과 그 명칭이 처음으로 언급된 구절을 나타낸다.

가인: 힐라맨서 6:27

갈그미스: 니파이후서 20:9

갈대아인: 니파이전서 20:14

갈로: 니파이후서 20:9

갈릴리: 니파이후서 19:1

갈림: 니파이후서 20:30

갓 성: 제3니파이 9:10

개다이앤톤: 힐라맨서 2:4

개디앤다이 성: 제3니파이 9:8

개디옴나 성: 제3니파이 9:8

게바: 니파이후서 20:29

게빔: 니파이후서 20:31

게이젤렘: 앨마서 37:23

고모라: 니파이후서 23:19

그룹: 앨마서 12:21

그리스도: 니파이후서 10:3

금판: 몰몬서 2:18

기드: 앨마서 57:28

기드 성: 앨마서 51:26

기드긴도나: 몰몬서 6:13

기드긴도나이: 제3니파이 3:18

기드온: 모사이야서 19:4

기드온 골짜기: 앨마서 2:20

기드온 땅: 앨마서 8:1

기드온 성: 앨마서 6:7

기브아: 니파이후서 20:29

긴도나$_1$: 앨마서 10:2

긴도나$_2$: 앨마서 30:23

긴디안하이: 제3니파이 3:9

길가: 이더서 6:14

길갈: 몰몬서 6:14

길갈 골짜기: 이더서 13:27

길갈 성: 제3니파이 9:6

길르앗: 이더서 14:8

김김노 성: 제3니파이 9:8

나사렛: 니파이전서 11:3

납달리: 니파이후서 19:1

네이홈: 니파이전서 16:34

노아$_1$: 앨마서 10:22

노아$_2$: 이더서 7:14

노아$_3$: 모사이야서 7:9

노아$_3$의 제사: 모사이야서 11:5

노아 성과 땅: 앨마서 49:12–14

놉: 니파이후서 20:32

놋쇠판: 니파이전서 3:3

니므라: 이더서 9:8

니므롯$_1$: 이더서 2:1

니므롯$_2$: 이더서 7:22

니므롯 골짜기: 이더서 2:1

니애스: 모사이야서 9:9

니움: 니파이전서 19:10

니파이$_1$: 니파이전서 1:1

니파이$_2$: 힐라맨서 3:21

니파이$_3$: 제3니파이 1:2

니파이$_4$: 제4니파이 1:19

니파이 땅: 옴나이서 1:12

니파이 성: 모사이야서 9:15

니파이의 작은 판: 니파이전서 1:17

니파이의 큰 판: 니파이전서 9:2

니파이인: 니파이후서 29:12

니파이하: 앨마서 4:17

니파이하 땅: 앨마서 50:14

니파이하 성: 앨마서 51:24

니파이하 평지: 앨마서 62:18

니허: 앨마서 1:2,15

니허 성: 이더서 7:9

다메섹: 니파이후서 17:8

다시스: 니파이후서 12:16

다윗: 니파이후서 17:2

다윗 땅: 몰몬서 2:5

대 니파이: 야곱서 1:11, 15

데저렛: 이더서 2:3

디모데: 제3니파이 19:4

라가: 제3니파이 12:22

라맛: 니파이후서 20:29

라모나이: 앨마서 17:21

라모나이의 부친: 앨마서 18:9

라반: 니파이전서 3:3

라이사: 니파이후서 20:30

라합: 니파이후서 8:9

래미움프톰: 앨마서 31:21

랩보나: 앨마서 18:13

레뮤엘: 니파이전서 2:5

레뮤엘 골짜기: 니파이전서 2:10

레뮤엘 성: 앨마서 23:12

레뮤엘인: 야곱서 1:13

레바논: 니파이후서 12:13

레위$_1$: 제3니파이 24:3

레위$_2$: 이더서 1:20, 10:14

레이마: 몰몬서 6:14

레이마 산: 이더서 15:11

레이맨$_1$: 니파이전서 2:5

레이맨$_2$: 모사이야서 7:21

레이맨$_3$: 모사이야서 10:6

레이맨$_4$: 앨마서 55:4

레이맨인: 니파이후서 5:14

레이맨 강: 니파이전서 2:8

레이맨 성: 제3니파이 9:10

레이코니우스$_1$: 제3니파이 1:1

레이코니우스$_2$: 제3니파이 6:19

루램: 모로나이서 9:2

르말리야: 니파이후서 17:1

르신: 니파이후서 17:1

리브$_1$: 이더서 1:17, 10:18

리브$_2$: 이더서 14:10

리아호나: 니파이전서 16:10; 앨마서 37:38

리플라 언덕: 앨마서 43:31

리플레이키시: 이더서 1:23, 10:4

리플리앤쿰 물: 이더서 15:8

리하이$_1$: 니파이전서 1:5

리하이$_2$: 앨마서 16:5

리하이$_3$: 앨마서 43:35

리하이$_4$: 힐라맨서 3:21

리하이 땅$_1$: 앨마서 50:25; 힐라맨서 6:10

리하이 땅$_2$: 힐라맨서 6:10

리하이 성: 앨마서 51:24

리하이-니파이 성과 땅: 모사이야서 7:1

리하인들:

리혼타이: 앨마서 4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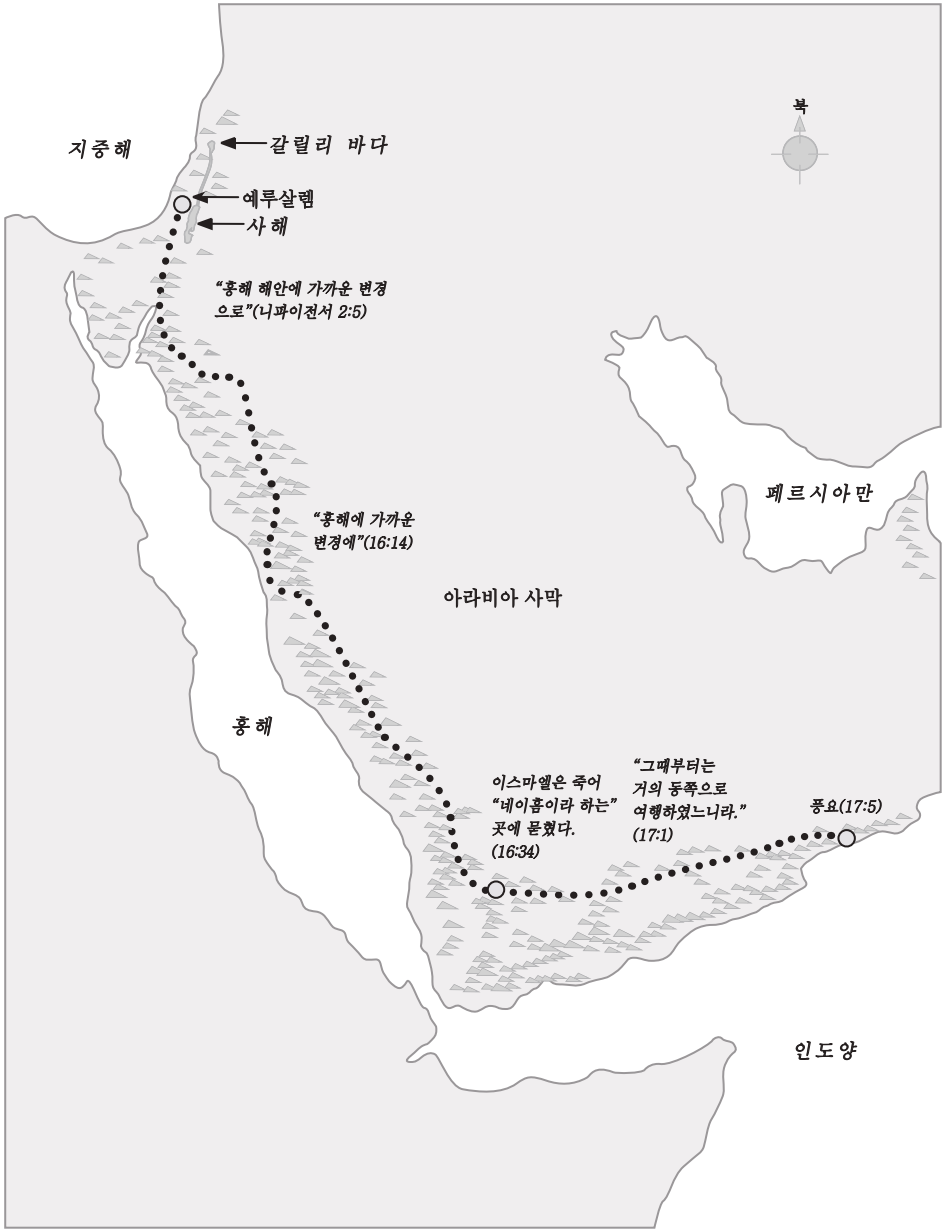
림나: 앨마서 11:5

림하: 몰몬서 6:14
림하이: 모사이야서 7:9
림허: 앨마서 2:22
마리아: 모사이야서 3:8
마몬: 제3니파이 13:24
마헬살랄하스바스: 니파이후서 18:1
말라기: 제3니파이 24:1
맛메나: 니파이후서 20:31
매도나이: 제3니파이 19:4
매도나이하: 제3니파이 19:4
맨타이: 앨마서 2:22
맨타이 땅: 앨마서 16:7
맨타이 성: 앨마서 56:14
맨타이 언덕: 앨마서 1:15
메대: 니파이후서 23:17
메시야: 니파이전서 1:19
메이하: 이더서 6:14
멜기세덱: 앨마서 13:14
모로나이$_1$: 앨마서 43:16
모로나이$_2$: 몰몬의 말씀 1:1
모로나이 땅: 앨마서 51:22
모로나이 성: 앨마서 50:13
모로나이 진영: 앨마서 50:27
모로나이하$_1$: 앨마서 62:43
모로나이하$_2$: 몰몬서 6:14
모로나이하 성: 제3니파이 8:10
모론: 이더서 1:7, 11:14
모론 땅: 이더서 7:5
모리안쿠머 땅: 이더서 2:13
모리앤톤$_1$: 이더서 1:22, 10:9
모리앤톤$_2$: 앨마서 50:28
모리앤톤 땅: 앨마서 50:25
모리앤톤 성: 앨마서 51:26
모리앤툼: 모로나이서 9:9
모사이야$_1$: 옴나이서 1:12
모사이야$_2$: 모사이야서 1:2
모사이야$_2$의 아들들: 모사이야서 27:8
모세: 니파이전서 4:2
모압: 니파이후서 21:14
모쿰 성: 제3니파이 9:7
몰몬$_1$: 몰몬서 1:5
몰몬$_2$: 몰몬의 말씀 1:1
몰몬의 곳: 모사이야서 18:4
몰몬의 물: 모사이야서 18:30
몰몬의 숲: 모사이야서 18:30
몰몬의 판: 몰몬의 말씀 1:3
뮬레크: 모사이야서 25:2
뮬레크 땅: 힐라맨서 6:10
뮬레크 성: 앨마서 51:26
뮬레크인: No Input
뮬로카이: 앨마서 20:2
므낫세: 니파이후서 19:21
미그론: 니파이후서 20:28
미논: 앨마서 2:24
미디안: 니파이후서 20:26
미디안 땅: 앨마서 24:5
믹마스: 니파이후서 20:28
믿도나이: 앨마서 20:2
밀렉 땅: 앨마서 8:3
바드로스: 니파이후서 21:11
바벨론: 니파이전서 1:13
바산: 니파이후서 12:13
밧: 니파이후서 15:10
베가: 니파이후서 17:1
베냐민: 옴나이서 1:23
베다바라: 니파이전서 10:9
보아스 성: 몰몬서 4:20
블레셋: 니파이후서 12:6
블레셋이: 니파이후서 24:29
사라: 니파이후서 8:2
사마리아: 니파이후서 17:9
사무엘$_1$: 제3니파이 20:24
사무엘$_2$: 힐라맨서 13:2
사울: 니파이후서 20:29
사이돔 땅: 앨마서 15:1
살렘: 앨마서 13:17
새라이아: 니파이전서 2:5
샘: 니파이전서 2:5
샤일롬 땅: 모사이야서 7:5
샤일롬 성: 모사이야서 7:21
세 니파이인 제자: 제3니파이 28:4~7
세이레드: 이더서 13:23
세이저: 니파이전서 16:13
세즈$_1$: 이더서 1:24, 10:1
세즈$_2$: 이더서 10:3
셀렘 산: 이더서 3:1
셈: 몰몬서 6:14
셈 성과 땅: 몰몬서 2:20~21
셈논: 제3니파이 19:4
셈론 땅: 모사이야서 10:7
셋: 이더서 1:10, 11:9
셔르 골짜기: 이더서 14:28
셰라이자: 모로나이서 9:7
솔로몬: 니파이후서 5:16
슐: 이더서 1:30, 7:7
슘: 앨마서 11:5
스가랴: 니파이후서 18:2
스랍: 니파이후서 16:2
스알야슙: 니파이후서 17:3
시나인: 앨마서 11:3
시날: 니파이후서 21:11
시내 산: 모사이야서 12:33
시눔: 앨마서 11:3
시님 땅: 니파이전서 21:12
시돈 강: 앨마서 2:15
시드기야$_1$: 니파이전서 1:4
시드기야$_2$: 제3니파이 19:4
시렘: 야곱서 7:1
시론 땅: 앨마서 39:3
시므 산: 몰몬서 1:3
시부스 물: 앨마서 17:26
시블럼: 앨마서 11:16
시블론(화폐 단위): 앨마서 11:15
시블론$_1$: 이더서 1:12, 11:4
시블론$_2$: 앨마서 31:7
시블롬: 몰몬서 6:14
시안: 앨마서 11:5
시앤툼: 힐라맨서 9:26
시에조램: 힐라맨서 9:23
시온 산: 니파이후서 14:5
시움: 모사이야서 9:9
시조램: 힐라맨서 5:1
시조램의 아들: 힐라맨서 6:15
시즈: 이더서 14:17
실로아 물: 니파이후서 18:6
심나일롬 성: 앨마서 23:12
아나돗: 니파이후서 20:30
아담: 니파이전서 5:11
아론$_1$: 이더서 1:15, 10:31
아론$_2$: 모사이야서 27:34
아론$_3$: 몰몬서 2:9
아론 성: 앨마서 8:13
아르밧: 니파이후서 20:9
아멜레카이$_1$: 옴나이서 1:12

아멜레카이$_2$: 모사이야서 7:6
아멜레카이인들: 앨마서 21:2
아멜레카이인들: 모사이야서 21:3
아멜리카이아: 앨마서 46:3
아멜리카이아인: 앨마서 46:28
아모스$_1$: 니파이후서 12:1
아모스$_2$: 제4니파이 1:19
아모스$_3$: 제4니파이 1:21
아미나답: 힐라맨서 5:39
아민아다이: 앨마서 10:2
아벨: 힐라맨서 6:27
아브라함: 니파이전서 6:4
아빈아다이: 모사이야서 11:20
아빈아돔: 옴나이서 1:10
아아켄투스: 모로나이서 9:2
아얏: 니파이후서 20:28
아하스: 니파이후서 17:1
암몬$_1$: 모사이야서 7:3
암몬$_2$: 모사이야서 27:34
암몬$_2$ 백성: 앨마서 27:26
암몬인들: 앨마서 65:57
암몬 땅: 니파이후서 21:14
앗수르: 니파이후서 17:17
애굽: 니파이전서 5:14
애니-앤타이: 앨마서 21:11
애메이론: 옴나이서 1:3
애모론: 모로나이서 9:7
애블리싸이: 앨마서 2:1
애블리싸이의 백성들: 앨마서 2:11
애블롬: 이더서 9:3
앤골라: 몰몬서 2:4
앤타이-니파이-리하이: 앨마서 24:3
앤타이-니파이-리하이인: 앨마서 23:17
앤툼 땅: 몰몬서 1:3
앤티오나: 앨마서 12:20
앤티오눔: 몰몬서 6:14
앤티오눔 땅: 앨마서 31:3
앤티온: 앨마서 11:19
앤티옴노: 앨마서 20:4
앤티파라 성: 앨마서 56:14
앤티파스 산: 앨마서 47:7
앤티푸스: 앨마서 56:9
앨마$_1$: 모사이야서 17:2
앨마$_2$: 모사이야서 27:8
앨마의 골짜기: 모사이야서 24:20
앰기드: 이더서 10:32
앰나이후: 앨마서 2:15
앰노어: 앨마서 2:2
앰노어(화폐 단위): 앨마서 11:6
앰니개다: 이더서 1:14, 10:31
앰마: 앨마서 20:2
앰마론: 제4니파이 1:47
앰모론: 앨마서 52:3
앰몬아이하 땅: 앨마서 8:7
앰몬아이하 백성: 앨마서 16:9
앰몬아이하 성: 앨마서 8:6
앰율레크: 앨마서 8:21
앰율론: 모사이야서 23:32
앰율론 땅: 모사이야서 23:31
앰율론의 자녀: 모사이야서 25:12
야곱$_1$: 니파이전서 5:14
야곱$_2$: 니파이전서 18:7
야곱$_2$의 판: 야곱서 3:14
야곱$_3$: 앨마서 52:20
야곱$_4$: 제3니파이 7:9
야곱 성: 제3니파이 9:8
야곱인: 야곱서 1:13
야렛$_1$: 이더서 1:32
야렛$_1$의 형제: 이더서 1:34.
야렛$_2$: 이더서 8:1
야렛인: 모로나이서 9:23
야슈: 몰몬서 6:14
야슈 성: 제3니파이 9:10
약속의 땅: 니파이전서 2:20
에덴 동산: 니파이후서 2:19
에돔: 니파이후서 21:14
에므론: 모로나이서 9:2
에바: 니파이후서 15:10
에브라임: 니파이후서 17:2
에브라임 산: 이더서 7:9
에스롬: 이더서 8:4
에이고시: 이더서 14:15
에이비시: 앨마서 19:16
에이키시: 이더서 8:10
에이키시 광야: 이더서 14:3
에이하: 이더서 1:9, 11:10
에이허: 앨마서 16:5
에즈롬: 앨마서 11:6
엘람: 니파이후서 21:11
엘리야: 제3니파이 25:5
여베레기야: 니파이후서 2:18
여어숀 땅: 앨마서 27:22
여어숀 성: 앨마서 43:25
여호수아 땅: 몰몬서 2:6
여호와: 니파이후서 22:2
예니움: 몰몬서 6:14
예레미야$_1$: 니파이전서 5:13
예레미야$_2$: 제3니파이 19:4
예루살렘$_1$: 니파이전서 1:4
예루살렘$_2$: 앨마서 21:1~2
예수: 니파이후서 25:19
예이롬: 예이롬서 1:1
예이숀 성과 땅: 몰몬서 2:16~17
예이코부갯: 제3니파이 9:9
예이콤: 이더서 6:14
오개드: 이더서 15:10
오나이다: 앨마서 47:5
오나이다 산: 앨마서 32:4
오니하 성: 제3니파이 9:7
오라이하: 이더서 1:32, 6:27
오렙: 니파이후서 20:26
오렙의 반석: 니파이후서 20:26
오머: 이더서 1:29, 8:1
오빌: 니파이후서 23:12
온타이: 앨마서 11:6
옴나이: 예이롬서 1:15
옴너: 모사이야서 27:34
옴너 성: 앨마서 51:26
왕후$_1$: 앨마서 22:19
왕후$_2$: 앨마서 19:2
왕후$_3$: 앨마서 47:32
요나$_2$: 제3니파이 19:4
요나라$_1$: 제3니파이 19:4
요단: 니파이전서 10:9
요단 성: 몰몬서 5:3
요담: 니파이후서 17:1
요셉$_1$: 니파이전서 5:14
요셉$_2$: 니파이전서 18:7
요셉의$_1$ 씨: 니파이후서 3:16
요셉인: 야곱서 1:13
요한: 니파이전서 14:27
우리야: 니파이후서 18:2
웃시야: 니파이후서 16:1

유다: 니파이전서 1:4
유대인: 니파이전서 1:2
유디아 성: 앨마서 56:9
이노스: 야곱서 7:27
이더: 이더서 1:2, 12:1
이더서의 판: 모사이야서 8:9, 이더서 1:2
이뎀: 이더서 1:8, 11:11
이르레앤툼: 니파이전서 17:5
이머: 이더서 1:28, 9:14
이브: 니파이전서 5:11
이사벨: 앨마서 39:3
이사야$_1$: 니파이전서 15:20
이사야$_2$: 제3니파이 19:4
이삭: 니파이전서 6:4
이새: 니파이후서 21:1
이스라엘: 니파이전서 10:12
이스마엘 땅: 앨마서 17:19
이스마엘$_1$: 니파이전서 7:2
이스마엘$_1$의 아들들: 니파이전서 7:6
이스마엘$_2$: 앨마서 10:2
이스마엘인: 야곱서 1:13
이자이어스: 힐라맨서 8:20
임마누엘: 니파이후서 17:14
자유의 기치: 앨마서 46:13
제래헴나: 앨마서 43:5
제이라헤믈라: 옴나이서 1:14
제이라헤믈라 땅: 옴나이서 1:12
제이라헤믈라 백성: 옴나이서 1:14
제이라헤믈라 성: 앨마서 2:26
젬나라이하: 제3니파이 4:17
조램$_1$: 니파이전서 4:20, 35
조램$_2$: 앨마서 16:5
조램$_3$: 앨마서 30:59
조램인$_1$: 야곱서 1:13
조램인$_2$: 앨마서 30:59
좁은 지협: 앨마서 63:5
좁은 통로: 앨마서 50:34
지네파이: 모로나이서 9:16
지노스: 니파이전서 19:10~17; 야곱서 5; 앨마서 33:4~11
지노크: 니파이전서 19:10
지니프: 모사이야서 7:9
지니프 백성의 기록: 모사이야서 8:5
지램: 앨마서 2:22
지린 산: 이더서 12:30
지에즈롬: 앨마서 10:31
지프: 모사이야서 11:3
케미시: 옴나이서 1:8
코롬: 이더서 1:19, 10:16
코리앤토어: 이더서 1:6, 11:18
코리앤톤: 앨마서 31:7
코리앤투머$_1$: 이더서 8:4
코리앤투머$_2$: 옴나이서 1:21, 이더서 12:1
코리앤투머$_3$: 힐라맨서 1:15
코리앤툼$_1$: 이더서 1:27, 9:21
코리앤툼$_2$: 이더서 1:13, 10:31
코리호어$_1$: 앨마서 30:12
코리호어$_2$: 이더서 7:3
코리호어$_3$: 이더서 13:17
코리호어 땅: 이더서 14:27
코리호어의 골짜기: 이더서 14:28
코호어$_1$: 이더서 7:15
코호어$_2$: 이더서 7:20
코호어$_3$: 이더서 13:17
콤$_1$: 이더서 1:26, 9:25
콤$_2$: 이더서 1:12, 10:31
콤노어: 이더서 14:28
쿠렐롬: 이더서 9:19
쿠메나이 성: 앨마서 56:14
지에즈롬 성: 앨마서 56:14
쿠메나이하: 몰몬서 6:14
쿠메논하이: 제3니파이 19:4
쿠멘: 제3니파이 19:4
쿠모라 땅: 몰몬서 6:2
쿠몸: 이더서 9:19
키브: 이더서 1:31, 7:3
키시: 이더서 1:18, 10:17
키시쿠멘: 힐라맨서 1:9
키시쿠멘 성: 제3니파이 9:10
킴: 이더서 1:21, 10:13
킴노오: 이더서 8:10
투발로드: 힐라맨서 1:16
티앤쿰: 앨마서 50:35
티앤쿰 성: 몰몬서 4:3
티옴너: 앨마서 58:16
페이개그: 이더서 6:25
페이앤카이: 힐라맨서 1:3
페이쿠메나이: 힐라맨서 1:3
페이쿠스: 앨마서 62:6
페이호랜$_1$: 앨마서 50:40
페이호랜$_2$: 힐라맨서 1:3
풍요$_1$: 니파이전서 17:5
풍요$_2$: 앨마서 22:29
풍요 성: 앨마서 52:17
하맛: 니파이후서 20:19
허어모운츠: 앨마서 2:37
헤실론 평지: 이더서 13:28
헤이고드: 앨마서 63:5
헴: 모사이야서 7:6
헷$_1$: 이더서 1:25, 9:25
헷$_2$: 이더서 1:16, 10:31
호렙: 제3니파이 25:4
호멜: 니파이후서 15:10
홍해: 니파이전서 2:5
황무 땅: 앨마서 22:30
황무 성: 몰몬서 3:7
히아아돔: 이더서 1:16, 10:29
힐라맨$_1$: 모사이야서 1:2
힐라맨$_2$: 앨마서 31:7
힐라맨$_2$ 아들들: 앨마서 53:16
힐라맨$_3$: 앨마서 63:11
힐렘: 모사이야서 18:12
힐렘 성과 땅: 모사이야서 23:20
힐렘: 모사이야서 7:6
힐로룸: 모사이야서 1:2
힘나이: 모사이야서 27:34

리하이 가족의 여행 추정 경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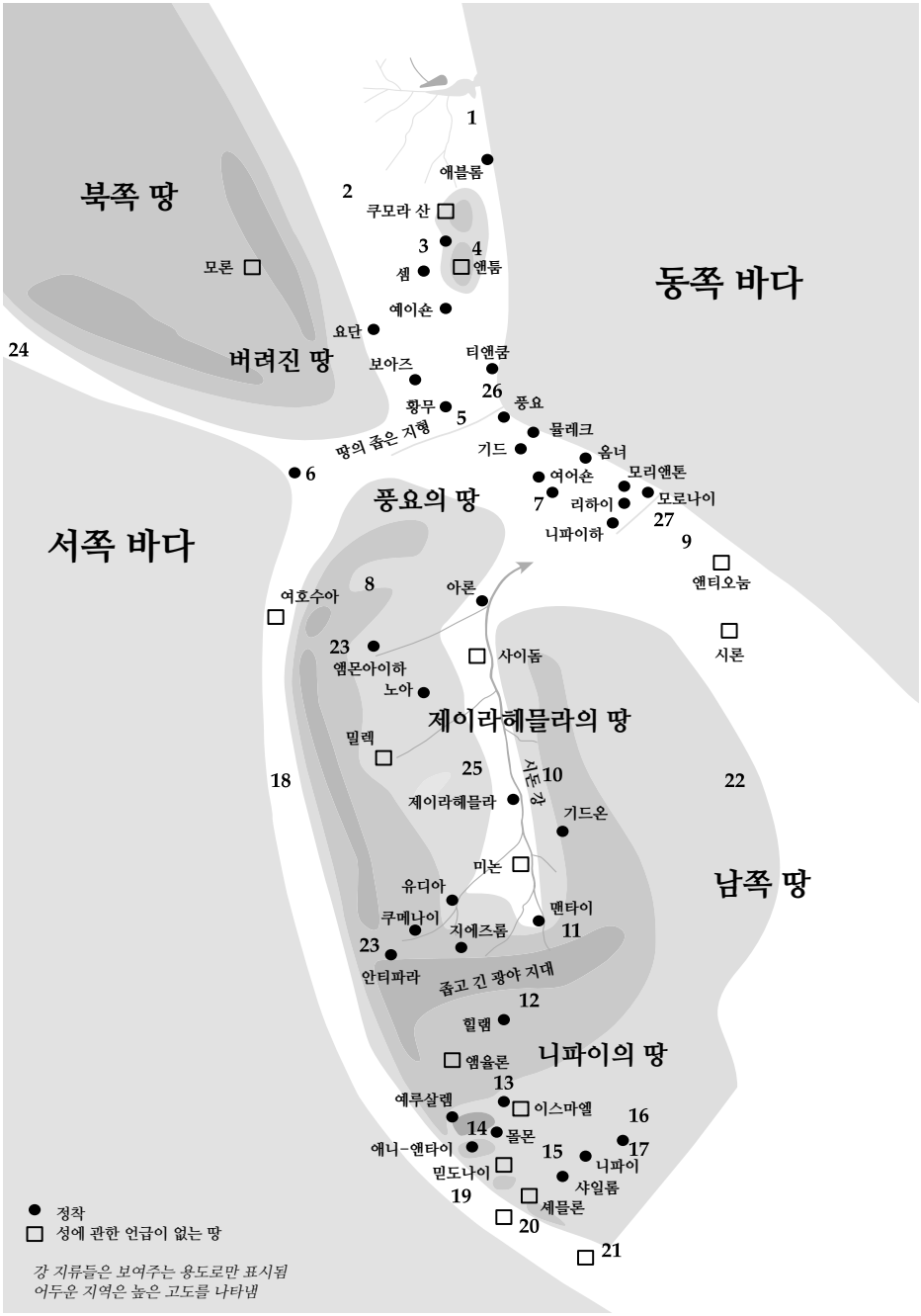
1. 출처: 2009년 종교 교육원 몰몬경 학생 교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409쪽 (출처: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가 편집한 Encyclopedia of Mormonism, 5권. (1992), 1:144에 나오는 지도를 개작했음.)

몰몬경에 나오는 장소들 (범례)

본 지도는 몰몬경에 나오는 지형을 재현한 것으로 존 L. 쏘렌슨의 「몰몬의 지도」에서 나온다. 이 지도의 배열은 원문 자체의 내부 내용에 근거하여 니파인들과 레이맨인들의 살던 시기의 지리학적인 요소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가장 타당성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배열들 중에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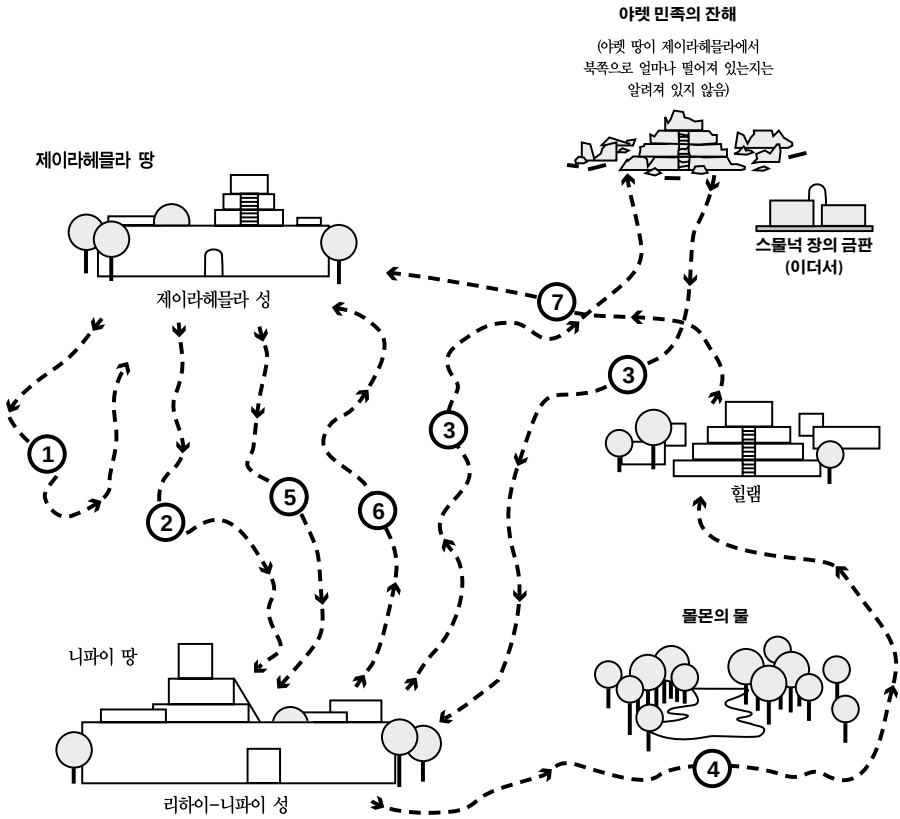
1. 리플리앤쿰 물
2. 니파이인들의 후퇴의 한계 (몰몬서 4:19–5:7 참조)
3. 시즈의 사망지; 남겨진 금속판
4. 시므산
5. 좁은 통로/협로 (앨마서 50:34, 52:9; 몰몬서 2:29 참조)
6. 헤이고드의 조선소
7. 모로나이의 진영
8. 풍요 땅와 제이라헤믈라 땅 사이에 니파인들의 피신처 (제 3 니파이 3:23, 25 참조)
9. 오나이다 산
10. 앰나이후 언덕
11. 리플라 언덕
12. 앨마의 골짜기
13. 모사이야의 아들들의 해산지
14. 몰몬의 물
15. 샤일롬 북방의 언덕
16. 앤티파스 산
17. 오나이다라 하는 곳
18. 제이라헤믈라 땅 서방의 광야
19. 니파이 땅 서방의 광야
20. 레이맨인 왕의 땅
21. 첫 번째 기업의 땅
22. 광야 (앨마서 43:22 참조)
23. 산길
24. 헤이고드의 추정 도착지
25. 허어모운츠 광야
26. 풍요 땅과 황무 땅 사이의 경계선 (제 3 니파이 3:23 참조)
27. 니파인들의 방어선 (앨마서 50:11, 13 참조)

몰몬경에 나오는 장소들



북쪽 땅
동쪽 바다
서쪽 바다
남쪽 땅
버려진 땅
풍요의 땅
제이라헤믈라의 땅
니파이의 땅
1
애블롬
2
쿠모라 산
3
4
앤툼
셈
모론
예이숀
요단
24
보아즈
티앤쿰
26
황무
5
풍요
뮬레크
땅의 좁은 지형
기드
옴너
6
여어숀
모리앤톤
7
리하이
모로나이
27
니파이하
9
앤티오눔
8
아론
여호수아
23
앰몬아이하
사이돔
시론
노아
밀렉
25
10
시돈 강
18
22
제이라헤믈라
기드온
미논
유디아
맨타이
쿠메나이
지에즈롬
11
23
안티파라
좁고 긴 광야 지대
12
힐램
앰율론
13
예루살렘
이스마엘
16
14
몰몬
17
애니-앤타이
15
니파이
믿도나이
샤일롬
19
셰믈론
20
21
정착
성에 관한 언급이 없는 땅
강 지류들은 보여주는 용도로만 표시됨
어두운 지역은 높은 고도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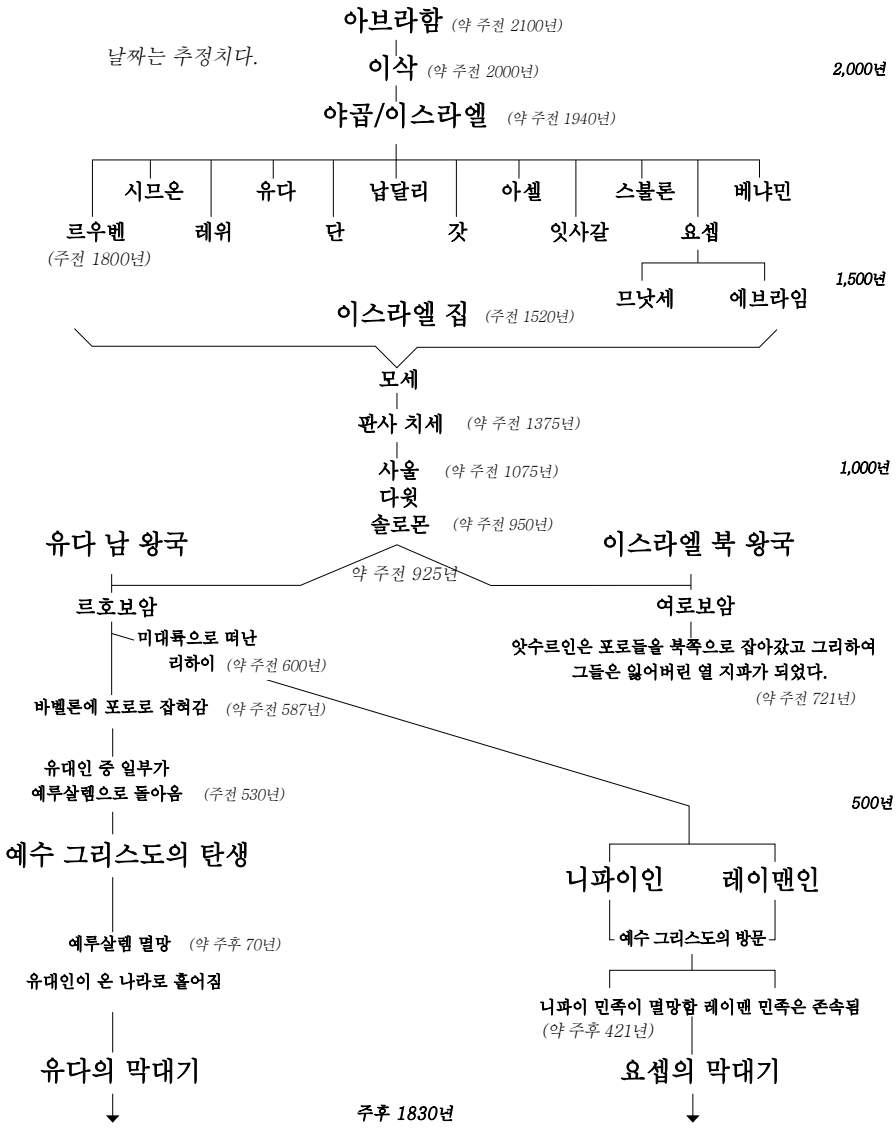
모사이야서의 일곱 가지 여행[2]



1. 불운한 여행 (옴나이서 1:27~28; 모사이야서 9:1~2 참조)
2. 지니프의 여행 (옴나이서 1:29~30; 모사이야서 9:3~9 참조)
3. 제이라헤믈라를 찾기 위한 여행 (모사이야서 8:7~9; 21:25~27 참조)
4. 몰몬의 물로 또 나중에 힐램 땅으로 도망친 앨마의 도피 (모사이야서 18:4~5, 32~35; 23:1~5, 19~20 참조)
5. 니파이 땅을 찾기 위한 암몬의 여행 (모사이야서 7:2~7 참조)
6.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도망친 림하이의 도피 (모사이야서 22:3~13 참조)
7. 제이라헤믈라 땅으로 도망친 앨마의 도피 (모사이야서 24:16~25 참조)

2. 출처: 2000년 세미나리 몰몬경 교사 교재. 교회 교육 기구 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297쪽.

이스라엘 민족[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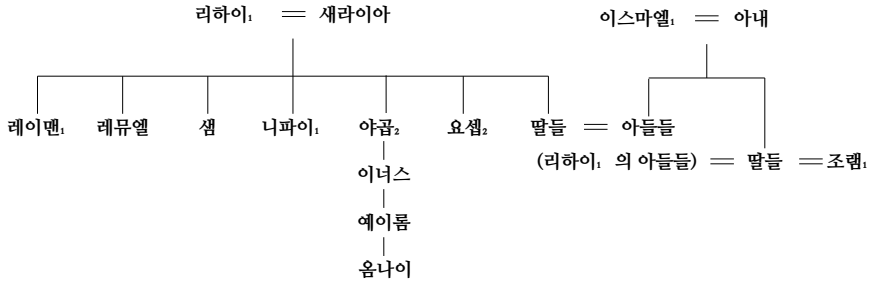


"또 이렇게 되리니 장차 유대인들은 니파이인들의 말씀을 갖게 될 것이며, 니파이인들은 유대인들의 말씀을 갖게 될 것이요, 니파이인들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의 말씀을 갖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들은 니파이인들과 유대인들의 말씀을 갖게 되리라."(니파이후서 2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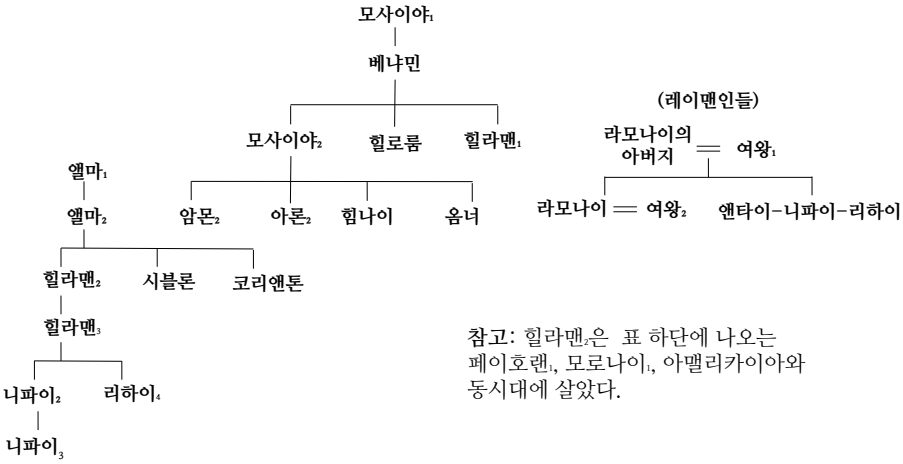
3. 출처: 2009년 종교 교육원 몰몬경 학생 교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411쪽.

몰몬경에 나오는 주요 가족들

1 기원전 600년 ~ 기원전 1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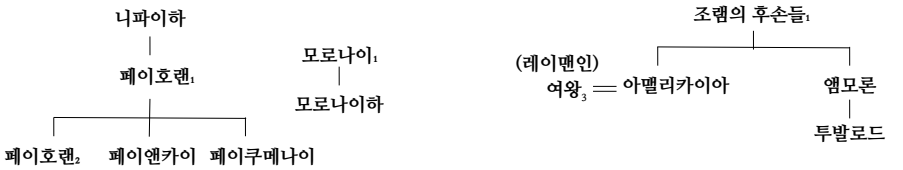


2 기원전 180년 ~ 기원후 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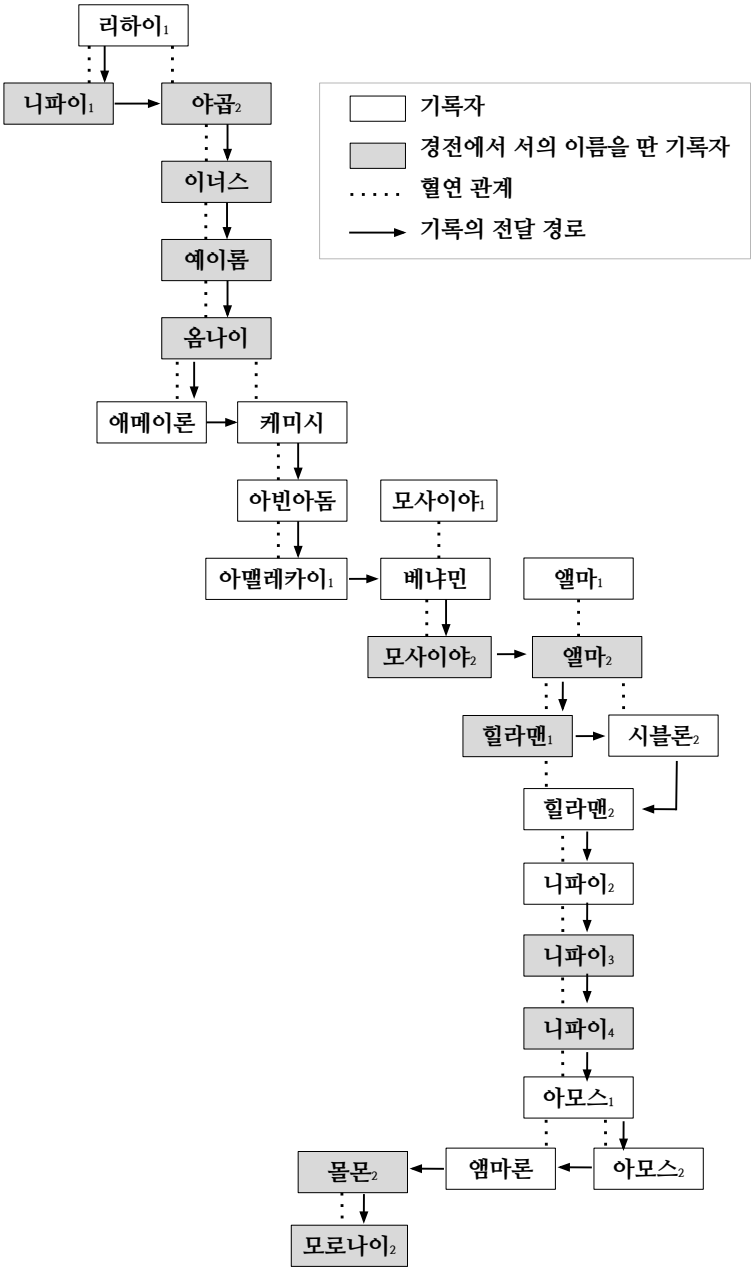


참고: 힐라맨2은 표 하단에 나오는 페이호랜1, 모로나이1, 아맬리카이아와 동시대에 살았다.

3 기원후 80년 ~ 기원후 5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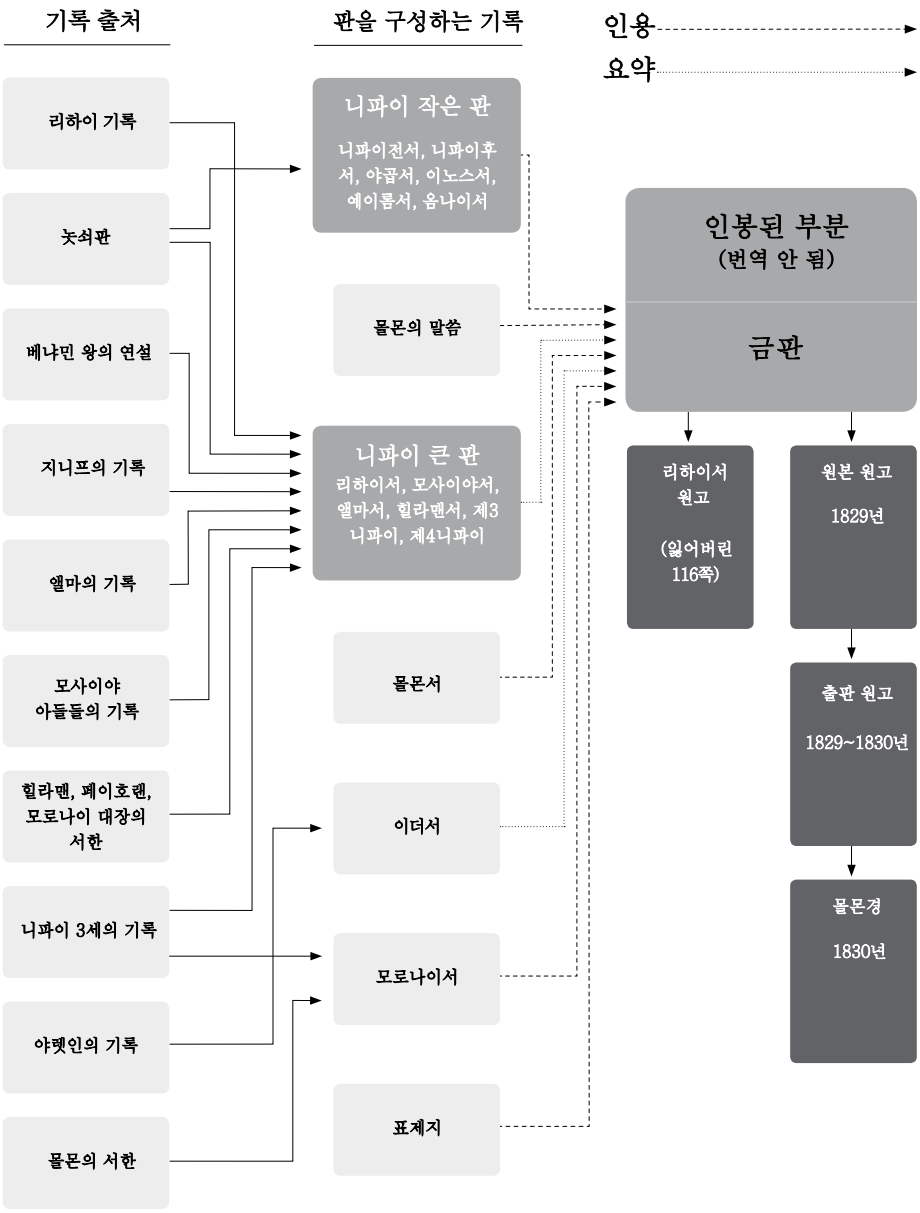


니파이인 기록 작성자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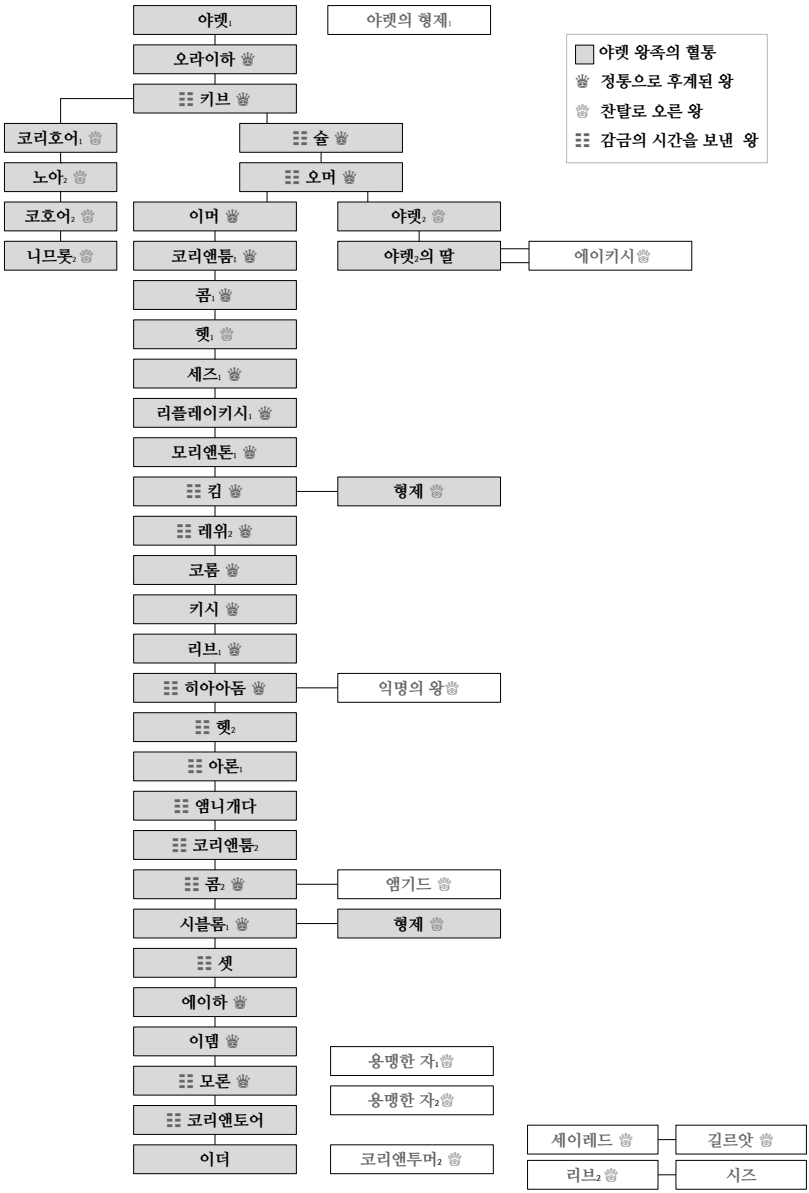
4. 출처: FARMS, 허락을 얻어 사용함. 존 더블류 웰치 및 제이 그레고리 웰치, Charting the Book of Mormon (1999)을 개작함.

몰몬경의 판과 기록들의 주요 출처[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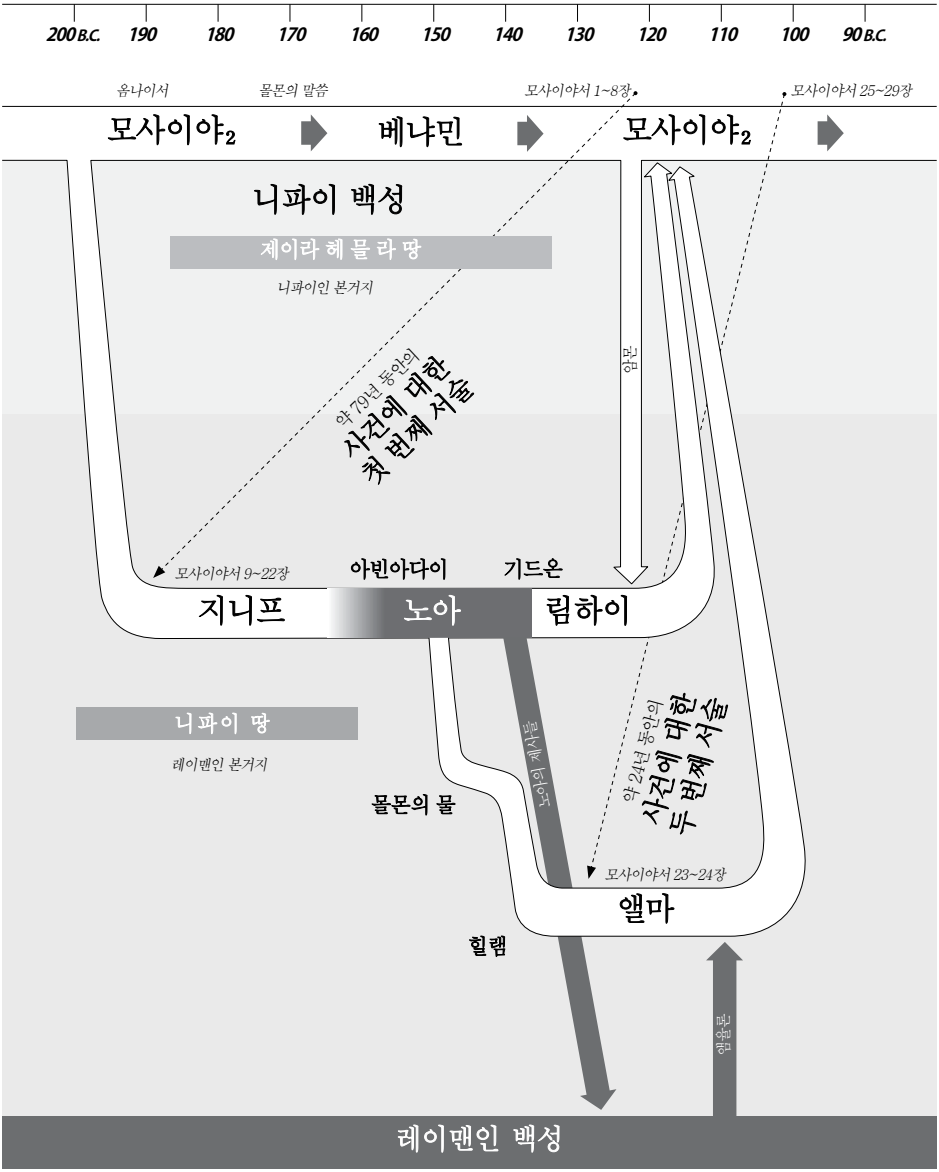
5. 출처: 2009년 종교 교육원 몰몬경 학생 교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406쪽. (출처: FARMS, 허락을 얻어 사용함. 존 더블류 웰치 및 제이 그레고리 웰치, Charting the Book of Mormon (1999)의 도표 13을 개작함.)

야렛인 왕들


야렛1
야렛의 형제1
야렛 왕족의 혈통
정통으로 후계된 왕
찬탈로 오른 왕
감금의 시간을 보낸 왕
오라이하
키브
코리호어1
술
노아2
오머
코호어2
이머
야렛2
니므롯2
코리앤틈1
야렛2의 딸
에이키시
콤1
헷1
세즈1
리플레이키시1
모리앤톤1
킴
형제
레위2
코룸
키시
리브1
히아아돔
익명의 왕
헷2
아론1
엠니개다
코리앤틈2
콤2
앰기드
시블룸1
형제
셋
에이하
이뎀
용맹한 자1
모론
용맹한 자2
코리앤토어
이더
코리앤투머2
세이레드
길르앗
리브2
시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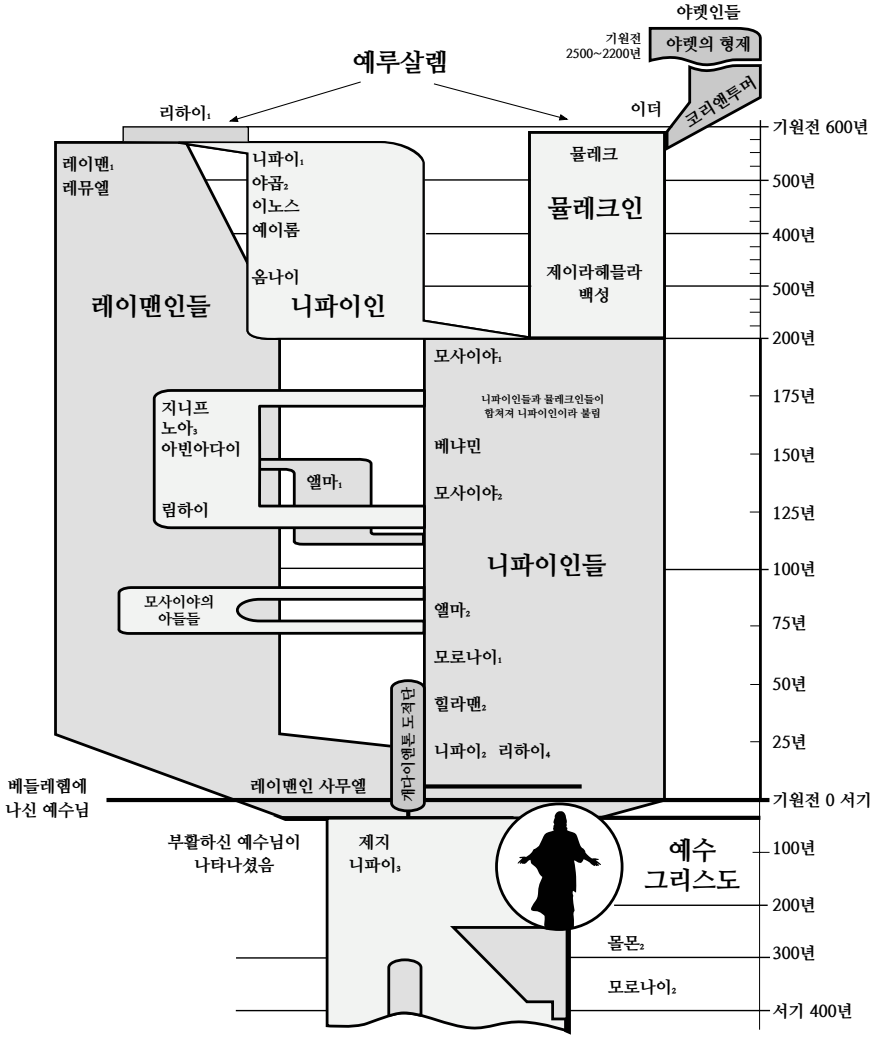
옴나이서~모사이야서 연대표[6]

옴나이서부터 모사이야서에까지 나오는 사건들의 순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음 도표를 살펴본다.
이 도표에는 책들이 나뉘어 있어서 겹치는 기간 동안에 기록된 서로 다른 역사 기사들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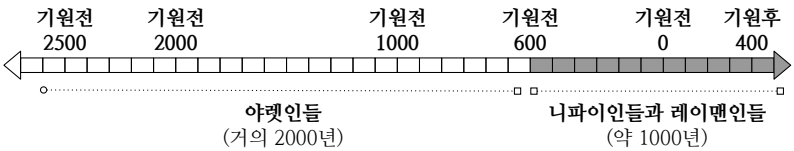


6. 출처: 2009년 종교 교육원 몰몬경 학생 교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412쪽.

몰몬경 연대표[7]



참고: *야렛인들의 역사는 니파이인들의 역사의 거의 두배가 넘는 기간을 다루었음*



7. 출처: 2000년 세미나리 몰몬경 학생 학습 지도서. 교회 교육 기구 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204쪽.

몰몬경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어록

1830년—몰몬경 초판 서문

독자에게—

이 출판물에 관한 많은 거짓 소문과 또한 나와 이 과업을 파멸시키기 위해 악한 의도를 지닌 사람들이 취한 불법적인 의도가 널리 유포되어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리하이서에서 취한 116쪽을 번역하여, 받아적게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리하이서는 몰몬이 리하이의 판에서 요약한 기록이며 분실된 기록은 누군가 내게서 훔쳐 보관하고 있으므로 내가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다시 번역하지 말라는 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내용을 변경하여 내가 번역한 것과 다르게 기록하게 함으로써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주 하몰몬경과나님을 시험할 마음을 갖게 하고, 내가 다시 번역할 경우 즉, 같은 내용을 다시 번역할 경우 그들이 훔친 원고를 출판하여 사탄으로 하여금 이 세대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케 함으로써 이 과업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나는 사탄이 이 일에 자신의 사악한 계획을 이루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니파이 판에 새겨진 글을 번역하되, 네가 간직해 둔 바와 네가 번역한 데에 이르기까지 번역할지니라. 그리고 보라, 너는 그것을 니파이의 기록으로 출판하라. 그리하여 이같이 나는 나의 말을 변경시킨 자들을 좌절시키리라. 나는 그들이 나의 일을 멸할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리니, 그러하도다, 나는 나의 지혜가 악마의 간교함보다 더 위대함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 이 일에 대해 그분이 내게 명하신 것을 성취했습니다. 나는 또한 언급된 그 판이 뉴욕주 온타리오의 맨체스터 지역에서 발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1831년—교회 대회 회의록

그의 형 하이럼은 몰몬경 출현에 대해 모두가 직접 듣고 알게끔 이 자리에 함께 한 장로들에게 조셉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조셉은 몰몬경의 출현에 관해 자세한 모든 부분까지 세상에 알려지도록 의도된 바가 없기에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2]

1831년—노아 색스턴(Noah Saxton)에게 보내는 서한

몰몬경은 서부 인디언 부족의 조상들에 대한 기록으로 그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1400년 동안 땅 속에 감추어져 있다가 거룩한 천사의 인도하심으로 발견되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된 영어 기록물입니다.

---

1. *The Book of Mormon* (뉴욕주 Palmyra시 E. B. Grandin출판, 1830년판), iii~iv쪽 2. 1831년 10월 25일, 오하이오 주 Orange시에서 열린 교회 대회 회의록,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도서관 Church History Library(이하 CHL)에 소장된 *Minute Book 2* 13쪽

몰몬경을 통해 서부 인디언 부족들이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의 자손이라는 것과 미국의 땅이 그들에게 약속된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이 땅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올 것이고 새로운 성약의 요구를 따라야 할 이곳의 이방인들은 이곳에 그들과 함께 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는 옛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시편 102장에서 다윗이 말한 시온의 성은 미국 땅에 세워질 것이며 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먼저 돌아와 노래하며 그들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시온에 이를 것이며, 온 땅을 휩쓸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구속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루살렘에서 구속받을 것입니다. (요엘서 2:32; 이사야서 26:20~21; 예레미야서 31:12; 시편 50:5; 에스겔서 34:11~13 참조.) 이 구절들은 선한 목자가 흐리고 어두운 날에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의 양들을 앞세워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이끄실 것을 증언하는 예언들입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증언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3]

1834년—교회 대회 회의록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 금판의 소지 경위와 번역, 아론 신권에 대한 계시, 1830년 당시 교회의 조직, 대신권(大神權)에 대한 계시, 그리고 교회에 부어진 성령의 은사에 대해 언급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 "몰몬경과 계시를 없애버린다면, 우리의 종교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시온 없이는, 즉 구속받을 곳이 없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피로 변하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땅은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진정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거룩히 성결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으로 모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이전 주장과 성경에 대한 위대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있지도 못하고 구속받지도 못하고 기어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로부터 성도를 이끌어내시고 그 뒤에 황량과 멸망을 내리실 것이니 마음이 청결한 자들로 모인 성도 외에는 그 누구도 거기에서 도망쳐 시온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4]

1835년—교회의 장로들에게 보내는 편지

주님이 또다시 추수가 시작되기 직전 혹은 추수 때에 세워져야 할 왕국을 암시하는 다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31~32) 이제 우리는 이 비유가 후기에 세워질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천국이 그것(교회)에 비유되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것에 무엇이 또 있겠습니까?

이제는 몰몬경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신앙으로 이것을 취하여 자기 밭에 감추고 마지막 날, 곧 때가 이르는 날에 싹이 나게 했습니다. 정말 모든 씨앗 중에 가장 작은 것이 땅에서 나와서, 가지가 높게 뻗어 하나님과 같은 위엄을 지니고 거대하게 되어,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이 모든 식물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지켜봅시다. (시편 85:11 참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능과 은사와 천사를 내려 보내시어 그 나뭇가지에 깃들이게 하십니다. [5]

---

3. 1833년 1월 4일 오하이오 주 Kirtland시의 조셉 스미스가 American Revivalist and Rochester Observer지의 편집자인 노아 C. 색스턴(Noah C. Saxton,뉴욕주 Rochester시)에게 보낸 편지. CHL 소장 *Letter Book A(1832년~1835년)* 17쪽
4. 1834년 4월 21일 오하이오 주 Norton 시에서 열린 교회 대회 회의록, CHL 소장 *Minute Book 1* 44쪽. 올리버 카우드리가 기록을 정리하고 회의 불참자에게 공지함.
5. 1835년 오하이오 주 Kirtland시의 월간지 *Messenger and Advocate* 12월호 227쪽

1838년—장로 소식지에 실린 사설

질문: 몰몬경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답변: 모로나이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었는데 뉴욕 주 온타리오 맨체스터의 언덕에 몰몬경의 원본인 금판을 보관해 놓았다가 나에게 나타나서 그 판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었고, 그것을 가져올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판을 얻게 되었고 판과 같이 있었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해석도구들을 가지고 그 판들을 번역했습니다. 그리하여 몰몬경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6]

1838년—개인 역사

조셉 스미스의 개인 역사에 관한 것은 서문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증언" 내용으로 참조할 수 있고 그 내용은 J.《값진 진주》에서 성인으로 추대된 "조셉 스미스 역사"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이므로 자세한 것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7]

1841년—십이사도들과의 모임 회의록

나는 브리검 영 회장의 집에서 십이사도들과 함께 평의회를 갖고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해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영국에서 선교사업을 하느라 4년 동안 참석하지 못했던 조셉 필딩 (Joseph Fielding) 형제가 참석했습니다. 나는 형제들에게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이 책의 교훈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8]

1842년—존 웬트워스(John Wentworth)에게 보내는 서한

1823년 9월 21일 저녁,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응답받을 약속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방이 한낮의 햇빛으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광채로 환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집이 불길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그 광경은 나의 온 몸을 떨게 했습니다. 곧 한 분이 내 앞에 서 있었는데, 그분은 이미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싸여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하나님의 천사(사자)라고 밝히면서, 기쁜 소식, 곧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성약이 곧 이루어질 것이며, 메시야의 재림을 위한 준비 사업이 곧 시작될 것이고, 충만한 복음이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 온 백성이 복천년의 다스리심을 준비해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보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한 이 영광된 경륜(經綸)의 시대(말씀이 능히 이루어지는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쓰일 도구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제게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그들의 기원과 발전, 문명, 율법, 정부, 그들이 지녔던 의와 불의, 그리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 버린 것 등에 대한 것이 알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 대륙에 존재했던 고대 선지자들의 기록을 요약해 놓은 판이 묻혀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날 밤 세 차례나 나타났으며 똑같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4년에

6. 1838년 7월 미주리 주 Far West 시의 *Elders' Journal*지 42~43쪽 7. 1838~1856년에 걸쳐 쓰인 저서 *Joseph Smith, History*의 A-1권(1805년 12월 23일~1834년 8월 30일의 기록), 5~8쪽 josephsmithpapers.org 참고 8. *Joseph Smith, History*의 C-1권(1838년 11월 2일~1842년 7월 31일의 기록) 중에서 1841년 11월 28일 일요일의 기록, 1255쪽 josephsmithpapers.org. 참고

걸쳐 저를 여러 차례 찾아왔고 그동안 그들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여러 가지 크고 영광스러운 사건에 대해 모두 전하여 들려준 후, 1827년 9월 22일 아침에 그 기록을 제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기록은 금으로 보이는 판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판은 폭이 15센티미터, 길이가 21센티미터 가량 되는 것으로 보통 양철 두께 정도였습니다. 판에는 고대 이집트 문자가 가득 새겨져 있었으며, 각 판은 세 개의 고리에 묶여 있었습니다. 판의 두께는 15센티미터 가량 되었는데 그 중 일부는 인봉되어 있었습니다. 인봉되지 않은 부분에는 작고 아름다운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판 전체에는 구조상으로 보아 고대 기록임을 말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었으며, 문자를 새기는 기술 면에서도 상당한 솜씨가 엿보였습니다. 이 기록과 함께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기이한 도구를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두 개의 투명한 돌들로 흉갑처럼 생긴 판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이 기록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미대륙의 역사는 이 중요하고 흥미로운 기록에서 펼쳐집니다. 언어의 혼란기를 초래한 바벨탑에서 나온 최초의 식민 정착민들에게서 시작되어 기원후 5세기 초까지 이어져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들을 통해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개 인종의 민족들이 그당시 미대륙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바벨탑에서 바로 미대륙에 정착한 최초의 인종은 야렛인이라고 불렸고 두번째로 곧장 정착한 인종은 기원전 약 600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주로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야렛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왔을 때에 멸망하였고,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이어 나라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인종이 세운 주요 국가들은 4세기 말 전투에 휘말렸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현재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입니다. 이 책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대륙에 나타나셨으며, 그분은 복음의 충만함, 풍부함, 권능, 축복 등을 이곳에 세우셨으며, 이 대륙에도 사도, 선지자, 감독(목회자), 교사, 그리고 축복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차(사제단), 신권, 의식, 은사, 권능,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멸망하였고, 그들 가운데 있던 마지막 선지자가 모든 예언과 역사를 요약하여 땅에 묻었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날에 그 판이 나아와 성경과 합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몰몬경을 참고할 것을 권하며 경전은 일리노이 주 나부 시나 우리 순회 장로회를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9]

1843년—제임스 알링턴 베네트(James A. Bennet)에게 보내는 서한

모든 계획과 체계, 프로젝트, 모험과 마찬가지로 나의 필생의 사명이 무모한지 위대한지는 진실함(진리)으로 쉽게 분별될 수 있습니다. 진리는 실상의 문제이고, 실상은 제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그 의미를 더 이상 알아낼 방도가 없는 상형문자들의 지식을 몰몬경으로 번역했다는 것이며 학식이 없는 젊은이였던 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면서 새로운 계시를 가지고 세상적인 지혜와 18세기 동안 누적된 무지에 맞서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계시, 즉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8억 명 이상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명하심에 따라 흠없이 걸으면 영생을 얻게 할 그 "옛적 길"로 수월하게 인도될 것입니다. [10]

9. 존 웬트워스(John Wentworth)은 시카고 데모크랫(Chicago Democrat)지의 편집자이자 경영자였음. 조셉 스미스가 쓴 이 편지는 *Church History*라는 제목으로 *Times and Seasons*지에 1842년 3월 1일에 게재됨. 10. 1843년 11월 13일에 일리노이주 Navoo시에서 조셉 스미스가 James Arlington Bennett(뉴욕주 Flatbush시)에게 쓴 서한. josephsmithpapers.org 참고

몰몬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

에머 스미스(Emma Smith) (조셉의 아내)

1856년—에드먼드 C. 브리그스(Edmund C. Briggs)와의 인터뷰

> 남편이 몰몬경을 번역할 때. 일부는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남편은 문장을 하나씩 정확히 글자 그대로 불러 주었으며 혹 발음을 모르는 고유명사나 긴 단어가 나오면 철자까지 일러 주었습니다. 당시에 남편은 제가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혀 볼 수가 없었는데도 철자가 틀리면 멈추라고 말하고는 바로 고쳐 주었습니다. 새라이아(Sariah)같은 이름도 처음에 남편이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철자를 불러 주었고, 그런 뒤에 제가 다시 남편에게 발음해 주기도 했습니다.
>
> 남편은 어떤 이유에서건,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는 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멈췄던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이어갔습니다. 한번은 갑자기 번역을 멈추더니 창백해진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머,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나요?" 제가 "네." 하고 대답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몰랐네.) 내가 착각한 게 아닌가 걱정했다오." 당시에 남편은 예루살렘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역사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11]

마틴 해리스(Martin Harris)

1870년—에드워드 스티븐슨(Edward Stevenson)과의 인터뷰

> 마틴 해리스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선견자의 돌을 가지고 몰몬경의 일부를 번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돌은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된 모자 안에 놓여 있었는데, 조셉은 이 선견자 돌의 도움으로 문장을 하나씩 읽어나갔고, 그 즉시 마틴이 그것을 받아적었는데 간혹 마틴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는, 그것이 고쳐질 때까지 조셉의 눈 앞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그 문장이 고쳐진 다음에야 다른 문장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
> 하루종일 금판을 번역하는 것은 갑갑한 일이었기에 그들이 지쳤을 때는 근처에 있던 사스케하나(Susquehanna) 강둑으로 내려가서 운동삼아 돌로 강물에 물수제비를 뜨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마틴은 선견자의 돌과 비슷하게 생긴 돌을 주워서 그들이 번역 일을 다시 시작할 때 모자 안에 가짜 돌을 몰래 넣었습니다. 조셉은 오랫동안 조용히 모자 속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둠의 재앙처럼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
> 마틴이 웃음을 참는 것을 보고 조셉은 직감적으로 잘못된 돌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조셉이 마틴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묻자, 마틴은 "자신에게 받아적게 한 모든 문장들이 선견자의 돌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조셉이 이미 아는 것을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해명했습니다. 맞는 돌이 모자 속에 다시 놓이자 몰몬경 번역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12]

---

11. '1856년에 방문한 도시 나부(Nauvoo)' *Journal of History* 9권 4호 (1916년 10월) 446~462쪽

12. Edward Stevenson, *The Three Witnesses to the Book of Mormon* *Millennial Star*지 48호 (1886년 6월 21일) 389~390쪽

루시 맥 스미스(Lucy Mack Smith) (조셉의 어머니)

1853년—루시 맥 스미스(Lucy Mack Smith)의 회고록

아침 여섯 시쯤부터 우리는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평소처럼 해리스 씨가 준비되는 대로 집으로 와서 함께 식사할 것으로 생각했다. 보통 식사 때가 되면 우리는 사람을 보내서 해리스 씨한테 알리고 이내 그는 식사하러 오곤 했기 때문이다. 여덟 시가 되자 그가 곧 오겠거니 싶어 식탁을 차렸다. 우리는 아홉 시까지 해리스 씨를 기다렸다. 그러나 열 시, 열한 시가 되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열두 시 반이 되었을 때, 그가 머뭇거리며 집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고개를 푹 숙인 채였다. 대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 그는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담장에 걸터앉더니, 깊숙이 모자를 눌러쓴 채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 그는 한참이 지나서야 집으로 들어왔다. 해리스 씨는 곧바로 우리 식구들과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리고 식사를 하려는 듯 칼과 포크를 집어들다가 이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를 본 조셉의 형 하이럼이 "해리스 씨, 왜 안 드십니까, 어디 편찮으세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해리스 씨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매우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영혼을 잃었어요! 내 영혼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때까지도 우려하는 마음을 내색하지 않던 조셉이 식탁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해리스 씨, 원고를 잃어버리셨습니까? 맹세를 어기신 겁니까? 당신뿐만 아니라 제 머리에도 정죄가 내리게 하신 겁니까?"

"네, 없어졌어요.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틴이 대답했다.

조셉은 "오, 주여!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을 노엽게 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은 기록이 제 손을 벗어나면 위험해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는 처음에 주님이 제게 주신 응답에 만족했어야 했는데…" 조셉은 흐느껴 울며 안절부절 못하고 집 안을 오갔다.

이윽고 입을 연 조셉은 마틴에게 돌아가서 다시 원고를 찾아보라고 했다.

마틴은 "아닙니다. 다 소용 없습니다. 원고를 찾으려고 침대 속, 베개 속까지 다 뒤져 봤지만 어디에도 없어요."라고 대답했다.

조셉은 "그러면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아내에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아내가 죽을까봐 도저히 그럴 엄두가 안 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아들에게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간곡히 말했다. 굴욕과 회개의 시간이 많이 흐르기 전에 주님께서는 조셉을 용서해 주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조셉이 가족 모두가 그와 똑같은 심정으로 흐느껴 우는 모습과 쓰라린 비통함으로 가득 찬 집을 보며 슬퍼했을 때, 나는 아들 조셉을 위로할 그 어떤 말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들은 불순종의 결과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가족 중 그 어느 누구보다 괴로워했다. 그리고는 슬피 눈물을 흘리며 계속 서성거렸다. 해가 질 무렵까지 그러는 동안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다가 우리가 설득하고 나서야 간신히 약간의 양분을 섭취했다.

이튿날 아침 조셉은 자신의 집을 향해 나섰다.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작별했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것, 크고도 내밀한 기쁨의 원천이던 그 모든 것들이 한 순간에 영원히 사라진 것과 다름없었다. [13]

13. 조셉 스미스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Lucy Mack Smith)의 저서 *Biographical Sketches of Joseph Smith the Prophet, and His Progenitors for Many Generations* (영국 Liverpool시, S. W. Richards출판, 1853년) 120~22쪽

올리버 카우드리(Oliver Cowdery)

1834년—W. W. 펠프스(W. W. Phelps)에게 쓴 편지

> 결코 잊혀지지 않을 날들이었습니다—하늘의 영감으로 말하여지는 음성을 들으며 앉아 있는 동안 이 가슴은 한량없는 감사를 느꼈습니다! 하루하루 나는 계속하여 방해받지 않고 "몰몬경"이라 불리는 역사 기록을, 니파이인이 '해석기'라 부르던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그가 번역하는 대로 조셉의 입으로부터 받아 적었습니다. [14]

데이비드 휘트머(David Whitmer)

1882년—윌리엄 H. 켈리(William H. Kelley)와 조지 A. 블레이클리(George A. Blakeslee)와의 인터뷰

> 어느 날 아침, 조셉은 번역 작업을 다시 준비하다가 에머가 했던 어떤 일로 인해 집에 문제가 생긴 걸 알고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번역을 계속하기 위해 올리버와 저는 계단을 올라갔고 조셉도 곧 뒤따라 올라왔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한 단어도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
> 그는 계단을 내려가서 과수원으로 나가 주께 간청했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서 집으로 돌아왔고 에머한테 용서를 구하고 나서 우리가 있는 계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제서야 번역은 잘 되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충실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

메리 머셀만 휘트머(Mary Musselman Whitmer)

1888년—메리의 손자 존 휘트머(John C. Whitmer)가 앤드류 젠슨(Andrew Jenson)과 에드워드 스티븐슨(Edward Stevenson)과의 인터뷰에서 회고하는 내용

> 저는 할머니가 니파이 형제라고 불렀던 거룩한 천사가 할머니에게 몰몬경의 판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는 걸 여러 번 들었습니다(제 생각에는 할머니가 말한 천사는 그 판을 관리하는 모로나이임이 틀림없습니다). 할머니 말씀에 따르면 그 일은 제 할아버지 피터 휘트머의 집에서 몰몬경이 번역되고 있을 무렵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 휘트머는 펜실베니아의 하모니 지역에서 번역 작업을 하던 조셉 스미스와 그의 아내, 그리고 올리버 카우드리를 데리고 그의 가족이 있는 곳으로 와서 숙식을 함께 했는데, 이로 인해 할머니는 이미 많은 집안일 외에도 이들까지 보살펴야 하는 상황으로 할 일이 쌓여서 종종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집에서 평소 하던 일을 마치고 소들의 젖을 짜기 위해 헛간으로 갔는데 헛간 앞에서 배낭처럼 생긴 것을 등에 지고 서성이는 낯선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그를 약간 두려워했지만 그가 친절하고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걸어 집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번역 작업의 본질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설명을 끝내고 나서 그는 배낭을 풀어 할머니에게 금판 묶음을 보여주었는데 그 크기와 모습이 나중에 몰몬경의 금판을 본 증인들의 묘사와 일치했습니다.

14. *Latter Day Saints' Messenger and Advocate*지 1호, 1권 (1834년 10월) 14쪽 15. *Saints' Herald*지 29호 5권 (1882년 3월 1일) 68쪽

이 낯선 사람은 금속판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할머니에게 그 위에 새겨진 글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에게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갖고 그 부담을 충실히 감내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축복을 받을 것이며 끝까지 충직하게 해낸 것이 드러나면 반드시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뒤로 그 사람은 홀연히 금판들을 가지고 사라졌는데 할머니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할머니는 집안일을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었고 일이 힘에 부쳐도 더는 투덜거리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훌륭하고 덕망있고 진실된 성품을 가진 걸 알고 있었기에 그 판들을 엄연한 진실로 보는 할머니의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몰몬경을 굳게 믿었습니다. [16]

엘리자베스 앤 휘트머 카우드리(Elizabeth Ann Whitmer Cowdery)

1870년—윌리엄 E. 맥렐린(William E. McLellin)에 의해 기록된 진술서

1870년 2월 15일 미주리 주, 레이 지역, 리치몬드 본인은 조셉 스미스의 몰몬경 번역 방식을 익히 알고 있음을 기꺼이 공증하는 바입니다. 조셉은 대부분 제 아버지 집에서 번역 작업을 했는데 저는 종종 그 옆에 앉아서 그와 아버지가 여러 시간 동안 함께하며 번역하고 받아적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번역하는 동안 그와 수기자 사이에 커튼이 내려진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는 모자에 해석기을 넣고 나서 빛이 들어가지 않게 그 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읽곤 했습니다. [17]

16. CHL 소장 자료. Andrew Jenson의 *The Eight Witnesses* Historical Record 7호, 8~10번 (1888년 10월) 621쪽 17. William E. McLellin이 1879년 2월에 공증한 *My Dear Friends*, 기타 편지 및 서류, 미주리주 Independence시 Community of Christ Library-Archives 도서관 소장.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부모님 집에서 번역이 이루어졌을 때 14살이었음; 1832년에 올리버 카우드리와 결혼함.

몰몬경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의 참고 사항

아나크로니즘(시대착오)

몰몬경을 비판하는 내용에는 종종 시대착오적인 항목들이 길게 나열되는데 말하자면, 콜럼버스 이전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나오지 않을 법한 것들이 보인다. 전형적으로는 말, 코끼리, 소떼, 양, 염소, 돼지, 보리, 밀, 강철, 비단, 칼(검), 병거(마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항목들 중 몇 가지는 그저 스쳐지나가는 말로만 언급되는데 번역자가 다른 더 중요한 사안들에 관심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영어 성경(킹 제임스)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실크, 강철, 놋쇠, 양초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언급들이 나오는데 몰몬경은 이러한 면에서 그 번역을 따른다. 그렇지 않았다면 스페인 사람들이 신대륙의 동,식물들과 공예품들을 처음 접했을 때 그러했듯이, 초기 니파이인 정착민들이나 조셉 스미스 시대의 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 친숙한 용어들이 대신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몰몬경에 자주 나오는 "칼(검)"은 흑요석 칼날이 박힌 목재 곤봉인 마쿠아휘틀(macuahuitl)일 것으로 추정된다 (앨마서 24:12~15에서처럼 그러한 무기들은 쇠로 만들어진 검과는 달리 피가 묻으면 얼룩이 생길 수 있다). 시대착오적인 품목들 중 일부는 당시 생산량이 매우 제한적이었겠지만 최소한 몇 개 정도는 향후 발견될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힐라맨서 3:7~11에서 언급된 시멘트는 오랫동안 시대착오적이라고 여겨졌지만 그 후 기원전 1세기의 중아메리카에서 발견되어 상세하게 기록되었고, (중아메리카에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미대륙 종의 보리는 1980년대에 확인된 바 있었다. 아마도 자주 언급되는 시대착오들 중에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말(馬)일 것이다. 말(馬)들에 대해서는 조셉 스미스가 틀림없이 겪어본 것이었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 알려진 이야기가 전부는 아닐 것이다.

니파이인들의 기록에서는 (성경 인용구를 제외하고) 열 구절에서 말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몰몬경에서는 말(馬)을 탔다고 말하는 이들이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19세기 미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일이다. 어찌 되었든 명백하게 시대착오적인 사항들은 고대 아메리카 대륙에 상응하는 사항들과 병행해서 고려되어야 한다. 예들 들면, 도로, 큰 도시, 계절에 따른 전쟁 양상, 토공(지형)과 목재를 이용한 요새들, 그리고 정교한 문자(표기) 체계 등이 여기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몰몬경이 간행된 후에야 인정되었던 고대 근동(近東) 지역에 대한 문화적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선지자로서의 임무 수령과 그로 인한 성약 형태(니파이전서 1장, 모사이야 2~6장), 문학적 장치들(니파이후서 4장, 앨마서 36장), 히브리어나 이집트어로 된 몇 가지 명칭들 (예: 니파이, 새라이아, 모사이야, 앨마, 여어숀, 페이앤카이), 그리고 고대 올리브 재배에 관한 세부 사항들(야곱서 5장)이 이에 해당된다.

연대기

몰몬경의 내부적인 연대기는 상당히 일관되어 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600여 년 전 리하이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을 시작으로 509년 후 판사 치세로의 전환(모사이야서 29:43~47), 그리고 판사 치세 92년에 예수님의 탄생 징조가 그 기반이 된다 (제 3 니파이 1:1,4, 26). 그러나 이 달력은 현대사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니파이인 연대기는 구세계에서 기원전 597년 시드기야가 왕의 첫 해 통치(니파이전서 1:4)와 기원전 약 6~4년(제 3 니파이 1:10~21)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두 가지 사건에 고정되어 있다. 리하이, 니파이, 몰몬 등 이들 모두 두 사건 사이의 기간을 600년이라고 말한다 (니파이전서 10:4; 19:8; 니파이후서 25:19; 제 3 니파이 1:1). 일부에서는 354일로 된 고대 히브리 달력이나 360일로 된 마야인들의 달력이 그 데이터에 더 적합하다고 추정하고 있으나 그들은 어림수를 사용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 특별판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단 판사의 치세가 시작되면 시대별 각주가 있는 카운트다운 형식을 사용한 뒤 그 이후로는 예수의 탄생 징표에서부터 수를 세어 연도를 표시한다.

일관성

몰몬경의 고대 기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복잡한 서술 구조에서 볼 수 있다. 즉, 회상 장면 (모사이야서 9~27장, 23~24장; 앨마서 17~27장), 내장형 문서(예: 설교, 편지, 개인 기록), 그리고 한 세기 동안 판사 치세를 나타내는 연도별 표식(어떤 해는 단 몇 문장만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해는 많은 장에 걸쳐져 있음), 두 전선에서의 동시다발적 전투를 포함한 다수의 전쟁 (앨마서 52~62장), 성서적인 인용과 해설, 내부적으로 빈번히 통용되는 암시나 인용, 편집 의견란, 출처가 되는 여러 판들과 기록들, 가족 계보, 이더서 1:6~33의 야렛인들의 왕 명단이 이더서 7~11장에서 역으로 시작된 것을 포함한 연속된 왕 치세, 병렬 구조식 서술, 시, 우화, 교차 배열 형식과 같은 문학적 장치 등이다. 이름을 가진 개인은 거의 200명에 이르고 90여 개에 달하는 각기 다른 지명과 약 700개의 지리적 참고 자료들을 포함한 이 모든 것들에서 사실상 모순이나 오류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경전 전체 중에서 앨마서 51:26과 53:6에 각각 한 개씩 나오는 단 두 가지 지리적 오류만 존재한다.

독자들은 이 특별판에 나오는 소제목, 차트, 지도들을 통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략 600쪽에 달하는 몰몬경의 완성을 눈으로 직접 본 증인들과 몰몬경 원본을 통해 스물 세 살 청년이 어떠한 필기나 참고서적 없이 겨우 3개월에 걸쳐 선견자의 돌을 보고 구술한 내용을 받아적게한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술의 일관성과 총체적인 연관성의 수준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몰몬경은 단 한 번의 구술로 기록이 완성되어 1830년 최초 출판 전에 어떠한 수정도 없었으나, 그때 이후 서술 구조에서 단 두 개의 교정이 이루어졌다. 1837년 판 모사이야서 21:28의 "베냐민"이 "모사이야"로 바뀌고 1849년 판 이더서 4:1의 "베냐민"도 "모사이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들 중 어느 것도 명칭 변경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몰몬경의 일관성과 복합성은 정신이 그려낼 수 있는 일반적인 개요에서 도출된 재능있는 이야기꾼의 즉흥적인 구술 연기가 아니라 그것의 궁극적인 기원이 세심하게 구성된 기록에서 비롯되었음을 시사한다.

인구 구성에 대하여

몰몬경에서는 리하이의 약속의 땅이 이주한 야렛인, 니파이인, 레이맨인, 뮬레크인들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나온다 (야곱서 1:13~14; 제 3 니파이 1:36~37 참조) 따라서, 최초의 후기 성도들은 미대륙의 모든 인디언 원주민들이 레이맨인의 순수 혈통을 가진 후손들로 추정했다. 역사학, 고고학, 체질인류학의 학문적 기법의 발달은 미대륙을 채운 사람들이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했음을 보여주었다. 현재 입장에서 볼 때 니파이인와 레이맨인들은 약 1만5천년 전부터 1만2천년 전에 아시아에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유전적 개체군의 문명권 안에 있었던 소수 민족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들이 가진 독특한 DNA 흔적을 발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상당한 문화간 교류의 영향과 토착민들과의 혼인이 있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이것이 레이맨인들의 급속한 인구 증가의 이유를 설명해 준다.

몰몬경은 니파이인와 레이맨인들 사이에 수시로 드러나는 적대감을 나타내는 특징을 보여주며 이들이 서로를 향해 가지는 인종적인 고정관념이 그들 집단의 정체성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음을 명백히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움에 있어 피부가 검은 레이맨인들이 니파이인들을 능가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 수 세기 동안 이 두 민족은 서로 섞여 살게 되었다. 몰몬경이 주는 하나의 교훈은 복음이 인종과 민족에 관한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후기 성도 독자들이 "어둡다" 또는 "희다"라고 칭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실제로 그렇다기보다는 비유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지리(地理)

몰몬경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전개되는데 두 지역은 모두 낯익은 지역이다. 리하이 가족의 경로는 아라비아 반도를 거치면서 시작된다. 조셉 스미스 시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있는데 오만 연안에 풍요의 땅으로 묘사된 지역과 일치되는 위치들이 있고 그곳에서 리하이의 가족이 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에 리하이의 가족이 도착했다고 전해진 장소인 "네이홈" (니파이전서 16:34)에서 NHM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제단들의 발견은 몰몬경 이야기를 고고학적으로 확인시켜주는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다.

리하이의 가족이 미대륙 어딘가에 있는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된 후로 그 지리적인 위치들은 명확하지 않다. 최초의 많은 후기 성도들은 몰몬경의 사건들이 북미와 남미 전역에서 일어났다고 믿었고 "작고 좁은 지협"을 (앨마서 22:32; 63:5; 이더서 10:20) 파나마 지협으로 여겼다. 그러나 니파이인들의 기록을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보면 전체 이야기는 길이 약 800km, 폭 약 300km의 훨씬 더 제한된 지역에서 일어난 것임이 명확히 드러난다.

일부 성도들은 19세기 지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몰몬경의 배경이 북미임을 고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후기 성도 학자들은 중앙아메리카가 가장 유력한 장소라는데 이견이 없다. 교회 자체는 현재까지 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 특별판에 포함된 지도는 내부의 지리적 참조에 기초한다.

어법과 문학적 기법

몰몬경 최초 원본의 문법은 성경과 19세기 미국 양쪽 모두에서 표준이 아니었지만 대략적으로 킹 제임스 성경의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문법적인 불규칙은 1830년 이후로 본문에서 삭제되거나 편집되어 왔다). 일부 학자들은 히브리 어법의 흔적 뿐만 아니라 조셉 스미스 시대에서는 한물 가서 더 이상 쓰이지 않았던, 1500년대와 1600년대 사이에 성경에서도 쓰이지 않은 고어적인 영어 구문과 용법들도 발견하였다. 몰몬경 전체는 구약과 신약 양쪽 모두에서 나온 성경 구절들이 쓰이고 있으며 1611년 킹 제임스 성경 버전은 수백 년에 걸쳐 상당한 수정과 변형이 이루어졌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에도 몇몇 장들은 이 버전을 약간만 변형해서 인용되어 있다. 그리고 몰몬경은 18세기와 19세기에 나온 수많은 종교적 표현과 개념에 대한 예시를 포함하고 있다. 몰몬경은 번역에 있어 다소 자유로운 여지가 있다 (조셉에게 계시된 내용이 상당히 정확한 형태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이러한 번역 양상과는 별개의 문제다). 즉, 고대 니파이인 선지자들의 말이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바뀌었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성경 지식을 가진 19세기 미국인들에게 울림을 주는 서술 형식으로 변형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번역과 서술 형식의 변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그리스도 교리에 대한 자세한 가르침은 몰몬경의 메시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의로운 일부로서의 니파이인들은 이스라엘에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접할 기회가 없던 그들의 동시대인들보다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계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이었다. 개정된 애굽어(몰몬서 9:32) 원문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1830년 영어 몰몬경의 내용이 금판에 쓰여진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 알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근대 영어 (앞에서 언급했던 1500년대와 1600년대 사이에만 쓰이고 잊혀진 고어적인 영어) 사용의 출현은 몰몬경이 어떤 면에서는 조셉과 그의 밀접한 환경 밖에서 들어온 외부적인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이 고대 경전의 기원과 현대 세상으로 전달된 방식은 많은 후기 성도들이 상상해 온 것보다 명백하게 더욱 복합적이고 절충적이며 다차원적인 과정이었다. 몰몬경은 실로 "기이하고도 가장 기이한 일"이다. (이사야서 29:14; 니파이후서 25:17~18 참조)

번역 과정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표제지) 번역했다는 조셉 스미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후기 성도 사이에서는 그가 정확히 어떻게 몰몬경을 출현시켰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일치된 의견이 없다. 어떤 학자들은 선견자의 돌이 조셉에게 생각이나 느낌, 개념이 될 수 있는 정신적인 인상을 제공했고 조셉이 이것들을 자신의 말로 옮겼다고 믿고 있다 (어쩌면 교리와 성약에서 조셉이 받은 대부분의 계시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번역 방식은 일부 불규칙한 문법, 시대착오, 킹 제임스 성경에서 빌려온 구절과 표현, 이후 개정판에서 표현과 문법을 수정한 조셉의 의지 등을 설명해 줄 수도 있다. 반면, 다른 학자들은 조셉이 선견자의 돌에 나타난 글자를 보고 그의 수기자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언어의 일관성, 서술의 복잡성, 내적 암시, 번역 과정에 대한 목격자들의 증언, 단어나 이름의 첫 등장에서 수기자들이 잘못된 철자로 이를 받아적었을 때 원문에서 규칙적으로 나타난 즉각적인 수정 등은 이를 더욱 잘 설명해준다.

이러한 경우라면 조셉은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어쩌면 하나님께서 직접하신, 아니면 임명된 천사가 한 번역에 접근하기 위해 선견돌을 사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 번역되었든, 그 번역의 결과는 주님의 목적에 충분히 부합된 것으로 보이며 19세기와 오늘날 모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몬경을 읽음으로써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 성스러운 기록은 주님께로 나아갈 것과 역사 내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성약을 지키시며 백성들에게 그분의 오심을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할 것을 권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증인

몰몬경과 관련이 있는 가장 중요한 유물은 1827년 천사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맡긴 금판들이다. 이 금판들은 환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구체적인 물체였고, 조셉과 동시대에 살았던 몰몬인과 비몰몬인 양쪽 모두 그 금판을 봤거나 들어올린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세 증인들과 여덟 증인들은 공공연히 금판을 보았고 평생 동안 그 경험에 대해 여러 차례 심문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모든 증인들은 대부분 조셉 스미스와 한 번쯤 사이가 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증언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했다. 얇은 천으로 덮여 있거나 상자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금판을 들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도 여럿 있었다. 그 중에는 에머 스미스(조셉의 아내), 루시 맥 스미스(조셉의 어머니), 캐서린 스미스 솔즈베리(조셉의 여동생), 그리고 (믿음이 없던) 루시 해리스(마틴 해리스의 아내)와 그녀의 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게다가, 조셉, 에머, 올리버 카우드리가 번역 작업의 마지막 기간 동안 데이비드 휘트머의 어머니인 메리 휘트머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을 때 천사가 메리에게 금판을 보여주었다고 전해진 가족 서사도 있다. 이 여성들 중 몇몇의 증언이 이 특별판에 포함되어 있다. 조셉은 금판에 대해서 1838년에 이렇게 말했다: "내게 요구된 일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금판]들은 내 손에 안전히 보관되었다. 약속된 대로 사자[천사 모로나이]가 이를 가지러 왔을 때 나는 그것들을 그에게 넘겨주었고 . . .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를 간직하고 있다." (조셉 스미스—역사 1:60) 비록 이제는 더 이상 금판을 검토할 수 없지만, 몰몬경은 우리에게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모로나이서 10:4)는 약속과 함께 몰몬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 자신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직접 요청하라는 권면으로 결론을 맺는다. 몰몬경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지만 우리 세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니, 니파이의 동생 야곱이 시편 95편을 인용했듯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야곱서 6:6).

병렬 구조식 문학 기법

18세기 후반에 성서 학문의 위대한 발견 중 하나는 히브리 성서의 상당 부분이 시적 형태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다.[18] 시가서에 들어가는 욥기와 시편과 아가서뿐만 아니라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도 이에 해당된다. 즉, 이사야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미가서는 거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형태로 쓰여져 있고 예레미야서는 반 정도가 시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시는 월등히 강력하고 기억에 남는 의사소통 방식이며, 이러한 특징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절한 방식으로 잘 전달되게 만들었다. 그러나 히브리 시의 형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리듬과 운율을 엄격하게 맞춘 시 형태와는 다소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히브리 시는 문법적으로나 의미론적으로 관련이 있는 2행구나 드물게는 3행구 안에서 형성된 병렬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문법적인 병렬 구조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통해 연속적인 행에 대해서 인식될 수 있는 반면, 의미론적 병렬구조는 어떤 사상이 행에서 행으로 달리 표현되거나 재배열되거나 발전될 때 나타난다. 둘 중에서, 의미론적 병렬구조는 번역에서 더욱 견고한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아모스서 5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 오직 **정의를 물**같이,
> **공의를**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첫 번째 행의 "정의"는 두 번째 행의 "공의"와 평행하며, "물 같이"라는 구절은 "강 같이 흐르게"와 일치한다. 이사야서 49장 22절에서는 바로 연속적으로 병렬된 2행구가 두 번 더 나온다:

>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한국어 번역체가 시적 구절로 배열되어 밑바탕에 깔린 시적 구조를 반영하게 되면 선지자들의 글은 훨씬 이해하기 쉽다. 실제로 대부분의 현대 성서 번역을 이렇게 한다. 어디에서 반복이 예상되고 어디에서 새로운 사상을 찾아보게 될지 안다면 이를 따라서 선지자들의 생각과 논지를 이해하는 게 더 수월해진다. 이 특별판에서는 니파이전서와 후서에 나오는 이사야의 장황한 인용글이 시적 형태로 나타나는데 몰몬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히브리식 병렬구조를 보여주며, 이것들 역시 유사하게 행과 스탠자로 배열되어 있다.

니파이인들의 언어, 즉 개혁된 애굽어(몰몬서 9:32)와 몰몬경의 번역 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들이 존재하지만, 몰몬경 선지자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특별히 강조하고자 할 때 히브리 시의 기법을 자주 활용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 성경 내용의 특징적인 병행체를 살펴본다고 하면 몰몬경의 예시들이 이것을 잘 보여줄 수 있다. 히브리어의 병행체는 수시로 단순히 단어나 사상의 반복이 아닌 그 이상에 연관되어 빈번하게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의 내용에 추가되거나 의미가 강화된다. 따라서, 성경 학자인 아델 베를린(Adele Berlin)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그 행들의 의미는 어떻게든 관련이 있다: 아마도 동의어일 수도 있고, 반대나 반전을 반영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의미를 확장시킬 수도 있다. 병행된 등가성이 정체성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병행체의 두 번째 행은 첫 번째 행과 정확하게 같은 단어 또는 정확히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첫 행의 사상을 반향하거나 확장하거나 강화시킬 가능성이 더 높다.[19]

이전의 학자들은 히브리 시에서 네 가지 기본적인 형태의 병행체을 발견했다: (1) 동의병행체, (2) 대조병행체, (3) 합성병행체, (4) 절정 병행체이다. 이들 각각은 몰몬경에도 나타난다.

18. 주요 연구는 1753년 라틴어로 초판되고 1787년 영어로 번역된 로버트 로스(Robert Lowth)의 (Lectures on the Sacred Poetry)히브리 성시 강의에서 이루어짐.
19. 편집자 Adele Berlin과 Marc Zvi Brettler, The Jewish Study Bible 제2판 (뉴욕주 Oxford University Press출판, 2014년) 2186쪽

※ 동의병행체

위의 두 가지 성경적 예시는 동의병행체을 활용하는데, 여기서 두 번째 행은 첫 번째 행의 의미를 부연한다. 이와 유사하게, 벤자민 왕은 다음과 같은 권면으로 설교을 시작한다:

> 너희 **귀**를 **열고** 듣게 하며,
> 너희 **마음**을 **열고** 깨닫게 하며... (모사이야서 2:9)

때때로 재작성은 최초 주장보다 더 구체적이다:

> 참으로 **나의 마음은** 나의 육신으로 인하여 **슬퍼하며**,
> **나의 영혼은** 나의 죄악으로 인하여 **비통해하는도다**. (니파이후서 4:17)

※ 대조병행체

대조병행체는 두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에 대한 생각을 반복할 때 나타나는데 아비나다이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묘사할 때는 다음과 같이 정반대의 말로 표현된다.

> 어찌 그리 **죄악** 행하기는 **속히** 하며,
> 어찌 그리 **선행**하기는 **더디** 하는고! (힐라맨서 12:4)

야곱은 이와 동일한 장치를 사용한다:

> 또 **그의 포도원**에서 부지런히 일한 자들의 **복됨이** 그 어떠하며,
> 또한 **제 자리**로 내어쫓길 자들의 **저주받음이** 그 어떠하냐? (야곱서 6:3)

※ 합성 병행체

합성 병행체에서 두 번째 행은 같은 생각을 다른 말로 표현하거나 대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행의 생각을 완성한다.

> 보소서, 주는 모든 육체를 하나로 여기시나니,
>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입는 것이라. (니파이전서 17:35)

몰몬서 6:17에서도 나온다:

> 오 너희 아름다운 자들아,
> 어떻게 너희가 너희를 영접하시려고 팔을 벌리고 서 계시던
> 그 예수를 저버릴 수가 있었더냐!

※ 절정 병행체

절정 병행체에서는 의미를 전달하는 추가 정보와 함께 단어나 구절이 연속적으로 반복된다. 섬김에 대한 벤자민왕의 격언은 부분적으로 그것이절정 병행체의 한 예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

>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 (모사이야서 2:17)

또 다른 예는 앨마서 37:35에서 나온다:

> 오 기억하라, 내 아들아, 그리하여 네가 **젊었을 때**에 지혜를 배우라.
> 참으로 네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배우라.

그리고, 니파이후서 33:6에서는 훨씬 더 반복적으로:

> 나는 명백함을 **자랑하며**,
> 나는 진리를 **자랑하며**,
> 나는 나의 예수를 **자랑하노니**,
> 이는 그가 나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속하셨음이라.

마지막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병행체는 두 행 이상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병행체가 결합될 수 있다. 마지막 예로 돌아가면 1행부터 3행까지는 절정적이고 4행은 합성적인 병행체를 추가한다. 이것은 암몬이 다음과 같이 외칠 때도 볼 수 있다.

> 그러나 보라, 나의 **기쁨이 충만하고**,
> 참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으니**,
> 내가 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앨마서 26:11)

1행과 2행 사이에는 동의어 병렬이 있고, 2행과 3행 사이에는 합성 병렬이 있다. 지금까지 개별적인 행 사이의 관계만을 살펴봤지만, 2행 연구(連句) 자체도 병렬이 될 수 있다. 몰몬경의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 이중 대조병행체라는 특징을 갖는다:

>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킬진대**
>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나**,
>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 너희는 나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되리라. (니파이후서 1:20)

이 두 개의 2행 연구에 들어있는 합성 병행체는1, 3행과 2, 4행 사이가 대조 병행체를 이루면서 보강된다.

다양한 행들이나 2행 연구의 관계는 때때로 매우 복잡해질 수 있는데, 위의 마지막 예시에서처럼 대조로 이루어지거나 다음의 3행과 같은 반복된 순서로 나타날 수 있다.

> ㉠ 이스라엘 나무의 한 가지요, **낯선 땅에서**
> ㉡ 그 몸으로부터 잃은 바 된 이 백성을 **생각해 오신**
> ㉢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도다.
> ㉠′ 참으로 내가 말하노니, **낯선 땅에서** 나그네 된
> ㉡′ 우리를 **생각해 오신** 내
> ㉢′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앨마서 26:36)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역순으로 된 (교차 배열법) 동의병행체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 ㉠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 ㉡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 ㉡′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 ㉠′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앨마서 7:12)

몰몬경에서 시로 식별된 가장 초기 구절 중 하나는 소위 "니파이의 시편"(니파이후서 4:16~35)으로 불렸으며 그런 제목은 1947년 시드니 스페리(Sidney Sperry)에 의해 부여된 명칭이었다.[20] 1980년대에는 교회 잡지에 몰몬경 시에 관한 기사가 여러 개 실렸고, 1990년대에는 리처드 러스트(Richard Rust)가 추가 기고를 했으며, 특히 그의 시에 관한 지부는《말씀을 흡족히 취하기》(Feasting on the Word)였다.[21]

---

20. Sidney B. Sperry, *Our Book of Mormon* (솔트레이크시티, Stevens Wallis 출판, 1947년) 110~111쪽. 다음 장에서 스페리(Sperry)는 몰몬서 6장 17~22절을 *몰몬의 애가*로 지정하여 두 구절 모두 시행으로 재배열함. 이 토론이 나오는 장은 *Types of Literature in the Book of Mormon: Epistles, Psalms, Lamentations*라는 제목으로 Journal of Book of Mormon Studies 제4호 1권(1995년) 69~80쪽에서 게재됨. 21. Richard Dilworth Rust, *Book of Mormon Poetry* New Era지, 1983년 3월호 46~50쪽; Paul Cracroft, *A Clear Poetic Voice* Ensign지, 1984년 1월호 28~31쪽; Richard Dilworth Rust가 쓴 *Poetry in the Book of Mormon*은 편집자 John L. Sorenson과 Melvin J. Thorne 의 *Rediscovering the Book of Mormon*에 수록됨(유타주 Salt Lake City시, Deseret Book and FARMS출판, 1991년) 100~113쪽; Richard Dilworth Rust, *Feasting on the Word: The Literary Testimony of the Book of Mormon* (유타주 Salt Lake City시, Deseret Book and FARMS출판, 1997년)

같은 기간 수십 년 동안 몰몬경에서 히브리식 병행체(교차배열체 포함)에 관한 훨씬 더 크고 자세한 학술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히브리 시가 병행체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식 병행체와 히브리 시 자체는 그 주제가 같지 않다.[22] 시가 아닌 산문도 앨마서 36장의 교차배열된 구조와 같이 병행 관계를 가진 양식에 따라 구성될 수 있다. BYU의 도날드 패리(Donald Parry) 교수는 시적인 형태로 재배열된 몰몬경 버전(현재 한국어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을 출판했는데 구약의 예언서에서 인용된 장들은 제하고, 이 버전의 대부분의 페이지에서 병행체를 발견할 수 있으나 정식으로 시로서 간주될 수 있는 구절은 비교적 적다.[23] 이 특별판에서는 몇몇 구절들을 시의 형식으로 설정해 놓고 있다. 물론, 이러한 편집상의 결정은 영어나 한국어로 된 몰몬경이 번역 문학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잠정적인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조된 감정이 드러나고 반복적이며 문법적으로 복잡하지도 않고 비교적 짧은 병행 구절들을 접했을 때 그것들을 시행으로 설정했다.[24] 맥락, 두드러진 형상화, 그리고 2행 연구에 걸쳐 확장되는 반복과 병행의 더 큰 패턴에 대한 고려도 감안되었다. 구절들은 들여쓰기를 사용하여 2행 연구, 3행 연구, 때때로 스탠자로 정렬되었다. 기본적이고 반복적인 요소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고 요점이 예측 가능한 간격으로 나오면 복잡한 수사적 글의 의미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이 특별판의 편집 구성이 성공적이었다면 시적인 구절은 부드럽게 읽혔을 것이고 그 자체로 주의가 환기되었을 것이다.

많은 후기성도들이 몰몬경에 나오는 교차대구법의 존재를 고대 기원에 대한 가장 미묘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들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교차대구법 (도치병행체)은 연속으로 병행된 단어나 사상이 제시된 후 역순으로 반복되는 고대의 문학 기법이다. 교차대구법은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고 시와 산문 둘 다 존재하고 그 특징은 번역으로 인해 종종 알아보기 어렵다. 간단한 교차대구법의 예는 마가서 2:27에서 ㉠ ㉡ ㉡′㉠′ 순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안식일**이 ㉡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 **사람**이 ㉠′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더 긴 교차대구법의 예는 이사야서 6:10에 나타난다:

㉠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 그들의 **귀**가 막히고
    ㉢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 **귀**로 듣고
㉠′ **마음**으로 깨닫고

다른 경우에는 교차대구법식 구절이 여러 절에 걸쳐 있을 수 있다. 몰몬경에는 비교적 짧은 형태로 된 교차대구법의 수많은 예가 들어있는데, 그 중 하나가 니파이전서 17:31의 형태이다. (이것은 다양한 요소들이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병행 관계는 동의어적이거나 대조적이 될 수도 있다)

㉠ 또 **말씀**을 좇아 그들을 위하여
  ㉡ **모든 것**을 행하셨나니,
㉠′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서
  ㉡′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나이다.[25]

또한 교차대구의 패턴은 우리가 잘 알고있는 모로나이 10장 4~5절(영어 버전)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

㉠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
㉠′ 또 **성신의 권능으로**
  ㉡′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26]

더 짧고, 더 단순한 교차대구법은 즉흥적인 설교와 다른 형태의 구두 담론에서 발견되는 수사적 설득 기법의 일부일 수 있다. 더 길고, 더 정교한 교차대구법은 의도적으로 손수 공들여 쓰여진 작문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네 가지 주목할 만한 예들이 여기에 나온다.

---

22. 편집자 John W. Welch, *Chiasmus in Antiquity: Structures, Analyses, Exegesis* (독일 Hildesheim시, Gerstenberg출판, 1981년) 23. Donald W. Parry, *Poetic Parallelisms in the Book of Mormon: The Complete Text Reformatted* 제2판 (유타주 Provo시, Neal A. Maxwell Institute for Religious Scholarship출판, 2007년). 패리(Parry)의 저서에 나온 머리말은 현재까지 쓰여진 몰몬경 병렬 구조식 문학 기법에 대한 가장 정교한 분석을 제공함. 24. 몇몇 구절들은 수사적인 반복(앨마서 5장 6절)과 목록의 나열(이더서 1장 7~32절)을 통해서 시와 같은 형식인 행으로 나뉘어져 있음. 25. 이 배열은 영어 버전(㉠ ㉡ ㉡′㉠′)과 달리 한국어 버전에서는 번역으로 인해 교차 대구의 배열 형식이 상이함(㉠ ㉡ ㉠′㉡′). 26. 이 배열도 상이함이 같음.

1) 모사이야서 3장 18~19절:

㉠ 사람들이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어 ㉡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 구원이 전에나, 지금에나, 장차에나,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 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 **육에 속한 사람**은
㉣′ 하나님의 **적이라**,
㉦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그러하였고
㉦′ **영원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27]

2) 모사이야서 5장 10~12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리니,
㉠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야만** 하리라.
㉢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왼편**에 있게 되느니라.
㉤ … **범법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 결코 지워지지 아니할
㉦ …**그 이름임**을 너희가 또한 기억하기 바라노니,
㉤′ 그러므로 너희가 **범법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 **그 이름이** 너희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
㉦′ …**그 이름을** 항상 너희 마음에 기록하여 간직할 것을 기억하여,
㉢′ 너희가 **하나님의 왼편**에 있지 않게 하고,
㉡′ 너희를 **부를** 음성과
㉠′ 또한 그가 너희를 부르실 그 **이름을**
너희가 듣고 알기를 바라노라.

3) 앨마서 41장 13~15에서와 같이 곡절을 추가하는 형식의 교차대구법이 나타난다:

㉠ 오 내 아들아, … '**회복이란**' 말의 의미는
㉡ **악에 대해서는 악**을, 육신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육신**에 속한 것을,
악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악마적인 것을—
㉢ **선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의를,
㉤ **공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공의를,
㉦ **자비로운** 것에 대해서는 자비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아들아,
㉦′ 너는 주의하여 네 형제들에게 **자비**로우라.
㉤′ **공정히** 행하며,
㉣′ **의롭게** 판단하며,
㉢′ 계속하여 **선을** 행하라. 만일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하면
㉡′ 그러면 네 **보상을** 받게 되리라.
㉦′ 참으로 자비가 다시 네게로 회복될 것이요,
㉤′ **공의가** 다시 네게로 회복될 것이며,
㉣′ **의로운** 판단이 다시 네게로 회복될 것이요,
㉢′ 또 **선이** 다시 네게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 이는 네가 내보내는 것이 다시 네게로 **돌아와** 회복될 것임이니,
㉠′ 그러므로 '**회복이란**' 말은 죄인을 더욱 온전히 정죄하고,
전혀 그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

27. 영어 버전(㉠㉡㉢㉣㉤㉥㉦′㉤′㉢′㉡′㉠′)과 달리 어순이 다른 한국어 버전에서는 번역으로 인해 교차 대구의 배열 형식이 상이함(예를 들면, ㉠㉡㉢㉣′㉤′㉢′㉡′㉠′㉣㉤㉥).

4) 또한 앨마서 36장의 경우처럼 (시적 형태는 아니지만) 장 전체를 교차대구법의 형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 내 아들아, 내「말에 귀를 기울이라 (1절)
ⓑ **계명을 지킬진대** 네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임 (1절)
ⓒ **내가 행한 대로** 행하여 (2절)
ⓓ 조상들이**사로잡혔던 것을** 기억하기 (2절)
ⓔ **그들이 속박 가운데** 있었고 (2절)
ⓕ 그들을 그들의 고난 중에 **건지셨느니라** (2절)
ⓖ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3절)
ⓗ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 (3절)
ⓘ **마지막 날에** 들리움을 받을 것임 (3절)
ⓙ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아는 것** (4절)
ⓚ 내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5절)
Ⓛ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꾀하였음** (6~9절)
Ⓜ 내 **사지를** 쓰지 못한 것 (10절)
Ⓝ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괴로움 (14~15절)
Ⓞ 저주받은 영혼의 **고통** (16절)
Ⓟ 내 많은 죄의 **기억으로 고통** (17절)
Ⓠ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였느니라 (17절)
Ⓠ′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18절)
Ⓟ′ 나는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 (19절)
Ⓞ′ 내 고통만큼이나 심히 큰 **기쁨** (20절)
Ⓝ′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내 영혼은 거기 있기를 사모하였더라. (22절)
Ⓜ′ 내 **사지가** 도로 그 힘을 얻으매 (23절)
Ⓛ′ **수고해 온 것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며 (24절)
ⓚ′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26절)
ⓙ′ 내가 **가진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26절)
ⓗ′ 시험과 **곤경하에서와,** 또한 온갖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입었나니 (27절)
ⓖ′ 이제도 그를 **신뢰하노니** (27절)
ⓕ′ 그가 여전히 나를 **건지시리라.** (27절)
ⓘ′ **마지막 날에** 나를 일으키사 (28절)
ⓔ′ 그가「애굽에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들이셨으며 (28~29절)
ⓓ′ **사로잡혔던 것을** 항상 기억 속에 간직해 왔느니라 (29절)
ⓒ′ **내가 아는 것같이** (30절)
ⓑ′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진대** 그의 면전에서
끊어질 것임을 네가 또한 알아야 할 것임 (30절)
ⓐ′ **말씀**에 따른 것이니라 (30절)[28]

병행체에 크게 의존하는 몰몬경 수사학의 연구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반복, 비유언어, 인용, 암시, 내용 구분용 장치와 같은 문학적 패턴을 (특히 이러한 패턴이 단독 구절이나 인용구말고 여러 장이나 전서에까지 걸쳐 나타날 경우) 식별, 분류 및 분석하려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과제가 주어질 것이고 함께 수행해야할 것이다. 이 특별판의 각주와 부록에는 문학적인 병행체의 몇 가지 특징적인 예가 강조되어 있다. 독자 여러분들 스스로 더 많은 것을 발견해 나가길 당부드린다.

28. 이 배열의 형식은 편집자 Sorenson and Thorne의 저서 *Rediscovering the Book of Mormon*, 114~131 쪽에 나오는 웰치(Welch)의 *A Masterpiece: Alma 36*에서 최초로 배열됨; 몰몬경에서 나오는 교차대구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웰치(Welch)의 추가 기사 두 개를 참고; *Criteria for Identifying and Evaluating the Presence of Chiasmus*, Journal of Book of Mormon Studies 4권 2호 (1995년) 1~14쪽 그리고 *How Much Was Known about Chiasmus in 1829 When the Book of Mormon Was Translated?* FARMS Review 15권 1호 (2003년) 47~80쪽

세 증인의 경험에 대한 역사적 출처

조셉 스미스(Joseph Smith)

금판과 천사를 목격한 날에 대한 조셉 스미스 어머니의 이야기:

> 그때는 오후 세 시에서 네 시 사이였다. 휘트머 부인과 남편(조셉 스미스 1세)과 나는 당시 침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집으로 들어온 조셉은 내 옆에 털썩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저 말고도 세 사람에게 판을 더 보여 주셨어요. 그들은 천사도 보았어요. 이제 그들도 제가 말해 온 진리들을 증언할 거예요. 그들도 제가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거웠던 어마어마한 짐을 이제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들도 함께할 거예요. 더는 세상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니 제 영혼이 기뻐요."
>
> 특히 마틴 해리스는 자신의 감정을 형언하기 어려워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
> "저는 하늘에서 온 천사를 보았으며 천사는 그 기록과 관련하여 제가 들은 모든 것이 참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저는 이 두 눈으로 그 천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금판도 보았고 제 손으로 그것을 만져 보았습니다. 저는 온 세상에 그것의 참됨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글로도 설명할 수 없는 증거를 직접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하시어 그분의 사업과 계획의 위대함을 증거할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온 영혼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
> 올리버와 데이비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엄숙히 찬양했다. 뒤이어 마틴 해리스가 들어왔다. 그는 벅찬 기쁨에 사로잡힌 듯했다. 그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간증했다. 올리버와 데이비드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간증은 몰몬경에 담긴 간증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었다… [29]

올리버 카우드리(Oliver Cowdery)

교인들의 재산이 파괴되고 있었을 당시 (후기 교회에서 최초로 결성된 십이사도 중의 하나였던) 윌리엄 매크레런의 이야기:

> 그곳 외로운 숲속에서 데이비드 휘트머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만났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 어떤 시현을 내 생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님들은 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언제든 폭도들한테 잡혀 위험에 빠질 일이 촌각을 다투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제게 말씀해 주십시요. 몰몬경의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30]

올리버가 죽고난 몇 년후 올리버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이 가진 확신을 회상하는 이야기:

>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적당한 때에 나오게 될 숨겨진 예언들을, 필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에 성스러운 전령의 영광스러운

29. 조셉 스미스의 어머니 루시 맥 스미스(Lucy Mack Smith)의 저서 *Biographical Sketches of Joseph Smith the Prophet, and His Progenitors for Many Generations* (영국 Liverpool시, S. W. Richards출판, 1853년) 139쪽 30. Mitchell K. Schaefer, *The Testimony of Men: William E. McLellin and the Book of Mormon Witnesses*, BYU Studies 50권 1호 (2011년) 109쪽

시현으로 드러내신 바로 그 시각부터 올리버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한결같이 단 한 점의 의심이나 의구의 그림자조차 없이, 몰몬경의 신성과 진리를 확증하였습니다. [31]

미주리(Missouri) 주 리치먼드(Richmond) 시에서 임종을 앞둔 올리버에 대해 데이비드가 한 이야기:

나는 올리버 카우드리의 임종에 참석했는데, 그의 마지막 말은 "데이비드 형제여, 몰몬경에 대한 형제님의 증언에 충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많은 목격자들이 여전히 리치몬드에 살고 있고, 그들은 올리버 카우드리의 선한 성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들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증언할 것입니다. [32]

후기 교회 최초로 결성된 십이사도의 회장이었던 토마스 마쉬(Thomas Marsh)가 교회를 떠난 데이비드와 올리버하고 함께 나눈 이야기:

나는 데이비드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이 몰몬경의 증인들 중 하나로서 증언한 바에 따라 진짜 천사를 본 것이 사실인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몰몬경에서 제가 한 증언에 따라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듯이 저는 분명히 천사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님은 왜 조셉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조셉이 몰몬경을 처음 발견하여 세상에 내놓았을 당시 그는 성령으로 가득찬 선한 사람이었으나, 이제 타락한 것 같습니다."

나는 올리버 카우더리에게도 똑같이 물었는데, 그도 비슷하게 대답했습니다. [33]

마틴 해리스(Martin Harris)

"영을 입은 상태였는지" 아니면 "육신 안에 거한 상태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마틴 해리스:

물론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육신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웠습니다. [34]

금판이 실상인지 상상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마틴 해리스:

음...저쪽에 있는 그루터기를 볼 수 있듯이 명백하게 저는 그 금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저 그루터기 위에 내 머리를 얹고 사람들이 머리를 잘라내도록 할 것입니다. [35]

금판을 보았는지 묻는 데저렛 뉴스(Deseret News)지 기자 로버트 에이브슨(Robert Aveson)의 인터뷰에 답변하는 마틴 해리스: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지식의 문제입니다. 나는 금판들과 거기에 새겨진 글자들을 보았습니다. 나는 천사를 보았고 그 천사는 나에게 그것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36]

---

31. 1887년 3월 8일 미주리주 Southwest City시에서 Elizabeth Cowdery가 David Whitmer에게 쓴 편지글로 편집자 George W. L. Sweich가 *The Return*지 3호 (1892년) 9쪽에 게재함 32. David Whitmer, *An Address to All Believers in Christ* 소책자 (미주리주 Richmond시 1887년) 13쪽 33. 1857년에 쓰여진 *History of Thomas Baldwin Marsh*, Deseret News일보 1858년 3월 2일자 기사와 Millennial Star지 26호 (1864년) 406쪽 34. 뉴욕주 Palmyra시 Wayne Sentinel일보, 1831년 5월 27일 35. 1943년 9월 2일 유타주 Ogden시에서 Elizabeth Godfrey Flinders가 N. B. Lundwall에게 보낸 지급확약서 36. Robert Aveson, *Three Witnesses to the Book of Mormon*, Deseret News일보, 1927년 4월 2일

금판 본 것을 확신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답하는 마틴 해리스:

> 여러분, 내 손이 보입니까? 정말 확실히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 여러분에게 내 손이 보이듯이 저도 천사와 금판들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37]

한나 B. 에머슨(Hanna B. Emerson)에게 쓴 편지에 들어있는 마틴 해리스의 간증:

> 그 누구도 내가 몰몬경의 진실이나, 금판을 나에게 보여준 임무를 가진 천사나, 이 마지막 날들에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주께서 일으키신 선지자 조셉 스미스 2세가 인도하여 조직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를, 그 어떤 식으로도 제가 부인하는 것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38]

마틴 해리스의 임종 전에 마틴의 친구 조지 고드프리(George Godfrey)가 그와 나눈 이야기:

> 마틴이 죽기 몇 시간 전, 그가 너무도 기력이 없고 쇠약해져 나를 비롯해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때 나는 그에게 물었다. 몰몬경의 출현에 관해 글이나 말로 된 것 중 아주 조금이라도 속임이나 기만이라고 느끼는 것이 있는지 말이다. 그러자 마틴은 예전에 왕성하게 건강을 유지했을 당시 나에게 수없이 말해서 내가 익히 들었던 것처럼 온전한 상태로 이렇게 말했다: "몰몬경은 거짓이 아니야. 내가 아는 것을 나는 안다네. 내가 본 그대로 보았고 내가 들은 그대로 들었다네. 나는 몰몬경이 기록된 금판을 실제로 보았단 말이네. 천사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 기록이 참되다고 증거해 주었지. 만일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지금 간증하는 것에 대해 거짓 맹세를 하려고 나섰더라면 나는 부자가 되었을 걸세. 하지만 그것들은 참된 것이기에 내가 이제까지 증언한 것과 지금도 증언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다른 것도 증언할 수 없었다네." [39]

몰몬경에 대한 마틴 해리스의 간증:

> 저는 몰몬경이 정말로 참됨을 압니다. 세상 모두가 몰몬경이 참됨을 부인한다 해도 저는 감히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마음은 굳건합니다. 오 하나님, 제 마음은 굳건합니다. 저는 더없이 참되고 확실하게 압니다. [40]

데이비드 휘트머(David Whitmer)

리치몬드 시에 사는 한 시민이 데이비드가 환각으로 그것을 경험했을 거라고 내비쳤을 때 그의 반응에 대한 조셉 스미스 3세의 이야기:

> 휘트머 장로님이 180센티미터쯤 되는 그의 몸을 힘껏 일으킨 모습과 말씀을 너무도 또렷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엄숙하고 인상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어떤 환각도 일으키지 않았고 또한 속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이 눈으로 보았고, 이 귀로 들었습니다!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41]

37. 1943년 5월 30일 캐나다 앨버타주 Cardston시에서 William M. Glenn이 O. E. Fischbacher에게 제공한 성명서로 1943년 10월 2일 Deseret News일보에 게재됨 38. *Correspondence*, Saints' Herald지 22호 (1875년 10월 15일) 628~632쪽 39. Godfrey가 쓴 *Testimony of Martin Harris*,는 출판되지 않은 채 유타주 Field시에 사는 그의 딸 Florence Munson이 소장하고 있고 작가 Ricks에 의해 *The Case of the Book of Mormon Witnesses*에서 인용됨(Olympus 출판, 1961년) 117쪽 40. Mitchell K. Schaefer, *The Testimony of Men: William E. McLellin and the Book of Mormon Witnesses*, BYU Studies 50권 1호 (2011년) 108쪽 41. 조셉스미스 3세의 회고록 Mary Audentia Smith Anderson, *Joseph Smith III and the Restoration* (미주리주 Independence시 1952년) 311~312쪽

그가 맨눈으로 그 실현을 봤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데이비드 휘트머의 답변:

> 나는 우리가 그것들을 맨눈으로 보았냐는 질문을 계속 받았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눈은 본래부터 갖고 있는 맨눈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 광경을 위해 대비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은 자연상태 그대로였습니다. [42]

존 머피(John Murphy) 기자의 오보 기사에 대한 데이비드의 대응:

1881년 데이비드 휘트머를 인터뷰한 후 존 머피가 보도한 신문 기사:

> **존 머피**: 무엇보다, 데이비드 씨가 천사를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제게 천사의 형상, 목소리, 억양, 언어 구사 등에 대해 상세히 묘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말은 천사가 말하는 방식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쓰는 말을 들어보면 종종 그 사람의 출신과 배경을 어느정도 알아낼 수 있잖습니까?
>
> **휘트머**: 천사에게는 생김새나 모양이 없었습니다.
>
> **존 머피**: 그러면, 본 것도 들은 것도,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 **휘트머**: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는요.
>
> **존 머피**: 그렇다면 어떻게 천사를 보고 들었다는 증언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
> **휘트머**: 기자님은 살면서 무언가 느껴지는 인상이나 심상이 단 한번도 없었습니까?
>
> **존 머피**: 그럼, 데이비드 씨가 경험한 인상은 영이 임할 때 퀘이커(Quaker) 교도들이 느끼는 영감이나 선한 감리교인이 행복한 경험을 나눌 때 느껴지는 그런 것입니까?
>
> **휘트머**: 그렇습니다. [43]

몇 달 후 데이비드의 대응:

> 저는 그동안 명예로운 신문기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요한 인터뷰 요청과 수없는 오보로 인해 또다시 신문 매체에서 대중 앞에 제 이름이 회자되는 것에 예민해졌습니다. 미주리 주 콜드웰 카운티 지역 폴로 시(Missouri, Caldwell County, Polo)의 존 머피는 제가 지난 여름에 그와 대화하는 동안 몰몬경의 세 증인 중 한 명으로서 했던 증언을 제가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가 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제 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도록, 이제 저는 인생의 황혼기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다음 사실을 공표합니다. 저는 세 증인 중 한 명으로서 그 책에 기록된 제 증언을 일부라도 부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언제나 그 증언을 지키고 고수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또한 그 점에 관한 제 현재 태도를 오해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제가 그 당시에 증거하고 기록한 제 말이 모두 진실임을 다시 확언하는 바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건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44]

42. 편집자 Lyndon W. Cook, 저서 *David Whitmer Interviews: A Restoration Witness* (Grandin Book Company출판 1991년) 192~193쪽 43. David Whitmer 취재글, Kansas City Journal일보, 1881년 6월 1일 44. Lyndon W. Cook, *David Whitmer Interviews: A Restoration Witness* (1991년) 59쪽

백과사전들이 기재한 편향된 내용에 따른 데이비드의 대응:

아메리칸 사이클로피디아 (제12권, 1879년):

> 그것(몰몬경)에 덧붙여진 것은 조셉 스미스의 불가사의한 허세를 신봉하게 된 올리버 카우더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가 낸 성명서였는데 몰몬교인들은 이들을 "세 증인"이라고 부른다. 이 세 증인들은 "또 우리가 진지한 말로써 선포하거니와, 하나님의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것(금판)을 가져다가 우리 눈 앞에 놓으매, 우리가 그 판과 그 위에 새긴 것을 보았나니…"이렇게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이 있고 난 몇 년 후, 이 세 증인들은 모두 스미스와 다퉜고, 몰몬교를 탈교했으며,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공언했다. [45]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제9판, 제16권, 1883년):

> 그것(스미스의 금판 번역)은 1830년 몰몬경이라는 제목으로 인쇄되어 출판되었다. 이 책에는 올리버 카우더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의 선서 진술도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몰몬경 번역의 시초가 된 판을 보여주었다고 증언한다. 이 세 명 모두가 몇 년 후 몰몬교를 탈교하자 이들은 그 증언이 거짓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그 증언은, 특히 금판이 이상하리만큼 흔적도 없이 홀연히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스미스가 귀가 얇아서 속이기 쉬운 사람들을 쉽게 믿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46]

1887년 데이비드 휘트머의 대응:

> 아메리카 사이클로피디아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는 데이비드 휘트머인 내가 세 증인 중 한 사람으로서 몰몬경의 신성에 대한 내 증언을 부인해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증인인 올리버 카우더리와 마틴 해리스도 몰몬경에 대한 증언을 부인했다고 되어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내 증언이나 그것의 어떤 부분을 부인했던 적이 결단코 없었다는 것을 모든 인류에게 한번 더 고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올리버 카우더리나 마틴 해리스 역시 그 어떤 때에도 그들의 증언을 부인한 적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몰몬경이 하늘이 증거한 진실임을 장담하며 생을 마쳤습니다. [47]

대중의 방문을 받은 데이비드 휘트머의 일관된 태도에 대한 이야기:

> 지금까지 수천 명의 사람들, 신자들이든 불신자들이든, 때로는 하루에 15명이나 되는 다른 계층의 남녀들이 나를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증언에 대한 나의 입장을 일관되고 틀림없이 고수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언젠가 내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48]

1888년 리치몬드 콘서베이터(Richmond Conservator)지가 그가 임종 때 한 증언에 대해 취재한 이야기:

> 데이비드가 죽기 전 일요일 저녁, 그는 가족과 그의 주치의 조지 W. 부캐논(George W. Buchanan) 박사를 불렀다. 그는 그의 곁에 있던 의사에게 "박사님, 박사님은 저의 정신이 온전하다고 판단하십니까?"라고 물었고, 부캐논 박사는 "네, 데이비드 씨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저는 방금 데이비드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데이비드는 모든 참석자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 최후 증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나는

45. 편집자 G. Ripley.와 C. A. Dana, 백과사전 *The American Cyclopædia* 제11권 (뉴욕주 D. Appleton and Company출판, 1879년) 832쪽 46. 백과사전 *Encyclopædia Britannica* 제11판 제9권 (1886년) 826쪽 47. David Whitmer, *An Address to All Believers in Christ* 소책자 (미주리주 Richmond시 1887년) 13쪽 48. Lyndon W. Cook, *David Whitmer Interviews: A Restoration Witness* (1991년) 95~96쪽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과 니파이인의 기록인 몰몬경이 사실임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죽음을 앞둔 내가 증언한 것을 직접 들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9]

여러 해에 걸쳐 데이비드를 인터뷰한 기자들의 다양한 취재 기록에서 발췌된 답변:

질문: 출판된 본인의 증언이 정확합니까?

답변: 여러분께서 수년 전에 제가 한 증언을 읽어보셨듯이, 그것은 제가 그것을 증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 자신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만큼 확실하며 영원 속에 존재할 것입니다. [50]

질문: 이 사건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답변: 1829년 바로 6월말에 일어났습니다. [51]

질문: 그때가 하루 중 대략 몇 시경이었습니까?

답변: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52]

질문: 그때 시현의 정황은 어땠습니까?

답변: (우리는) 근처 숲으로 들어가서 통나무 위에 앉았습니다...거기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조셉이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일어났고, 다시 통나무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위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꽤 먼 거리 주변까지 빛추며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는 천사가 우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53]

질문: 천사를 묘사해 주십시오.

답변: 그는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을 했고, 저를 이름으로 부르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들은 천사의 말씀 전부입니다. [54]

질문: 천사가 몰몬경의 금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답변: 그는 우리에게 금판과 라반의 검, 지시기(指示機), 우림과 둠밈(선견자의 돌), 그리고 다른 기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천상의 것과 우리가 본 것을 묘사할 수 없었습니다. [55]

질문: 자연적인 현실 상황에서 그 시현이 일어났습니까?

답변: 사실 조셉, 올리버, 저는 바로 여기로 치면 이 정도쯤 떨어진 곳에 있는 통나무에 앉아있었습니다. 우리가 빛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을 때는요. 그 빛은 태양의 것과 같지도 않았고 불에서 나온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영광스러웠고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 한 가운데에서, 바로 우리 앞에서, (자신으로부터 1미터도 안 되는 곳에 앉아있던 그의 조카 존 C. 휘트머를 가리키며) 이를테면, 존이 앉아있던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탁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탁자 위에는 많은 기록들이 놓여있었는데, 몰몬경 금판 외에도 라반의 검, 지시기, 해석기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 있는 침대 위를 손으로 치면서) 내가 지금 이 침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그것들을 보았고, 어떤 것을 또렷하게 들었을 때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었음을 선언하신 주님의 음성을 내 삶에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56]

---

49. Lyndon W. Cook, *David Whitmer Interviews: A Restoration Witness* (1991년) 226쪽 50. 1875년 12월 8일에 미주리주 Richmond시에서 David Whitmer가 Dr. James N. Seymour에게 쓴 편지글, Saints' Herald지 26호 (1879년) 223쪽 51. Joseph F. Smith의 일기록, Joseph Fielding Smith, *Life of Joseph F. Smith* (유타주 Salt Lake City시 1938년) 242쪽 52. Edward Stevenson의 일기록, 1877년 12월 22일 53. 1882년 1월 16일에 미시간주 Coldwater시에서 William H. Kelley가 가쓴 편지글, Saints' Herald지 29호 (1882년) 68쪽 54. 위와 같음. 55. George Q. Cannon의 일기록, 1884년 2월 27일, Juvenile Instructor지 80권 (1945년) 520쪽 56. Joseph F. Smith의 일기록, Joseph Fielding Smith, *Life of Joseph F. Smith* (유타주 Salt Lake City시 1938년) 242쪽

질문: 본인을 둘러싼 초자연적인 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답변: 돌연 그 밝기가 한낮의 태양조차 능가할 정도로 눈부시게 찬란한 빛을 보게 되었는데, 그 빛은 상당히 먼 거리까지 아우르며 숲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빛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황홀한 감응이 내게 아주 강렬하게 스며들어 그 자리에 묶여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57]

질문: 우림과 둠밈을 봤습니까?

답변: 그 해석기를 성스러운 시현 속에서 봤습니다. 그것들은 활의 테두리에 박혀 있는 희끗희끗한 돌처럼 보였는데 크기만 훨씬 더 큰 안경처럼 생겼습니다. [58]

질문: 실제로 탁자를 봤습니까?

답변: 저기 벽 옆에 있는 작은 탁자 보입니까? 음…저 정도 크기의 탁자가 있었는데 천사가 몇 개의 금판을 가지고 와서 우리 눈 앞에 있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59]

질문: 본인이 금판을 취급했습니까?

답변: 나는 금판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봤을 뿐입니다. [60] 조셉이, 그리고 제 기억에는 올리버와 에머가 그 금판들에 대해 내게 말해줬고 그들이 내게 묘사한 것들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증언했던 것 외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61]

질문: 금판들을 얼마나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까?

답변: 천사는 우리 앞에 서서 손으로 금판을 든 채로 한 장 한 장 넘겨서 [62] 그것들이 우리 눈에 잘 띄도록 했습니다. [63]

질문: 본인이 보고 있는 눈 앞에서 천사가 금판의 낱장을 전부 다 넘겼습니까?

답변: 아니요, 전부 다는 아닙니다. 금판에서 인봉되지 않은 부분들만 넘겼습니다. 제 눈에 그 인봉된 부분은 나무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64]

질문: 금판을 묘사할 수 있습니까? 답: 각각의 장은 금으로 만들어진 걸로 보였는데 크기는 대략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22센티미터 정도였고 양피지만큼의 두께로 그 수량은 상당히 많았는데, 거대한 고리로 뒷부분의 가장자리를 관통하여 책의 낱장들을 묶은 것처럼 되어있었습니다. 그 위에 새겨진 것들은 아주 깔끔했고 매우 기이한 모습이었습니다. [65]

질문: 이런 경험을 상상했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답변: 우리의 증언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진리가 없는 것이고,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66]

질문: 그때 경험한 독특한 느낌을 기억합니까?

답변: 네,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그때의 느낌이 그대로 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67]

---

57. Omaha Herald일보, 1886년 10월 17일 58. 1885년 1월 14일 Zenas H. Gurley의 취재 필기들. Autumn Leaves지 5호 (1892년) 452쪽 59. 1883년 8월 23일 미주리주 Seneca시에서 James H. Hart가 쓴 편지글. Deseret Evening News일보, 1883년 9월 4일 60. James H. Moyle의 일기록, 1885년 6월 28일 61. Nathan Tanner, Jr.의 일기록, 1886년 4월 13일 62. 1878년 8월 13일 유타주 Ogden시에서 P. Wilhelm Poulson이 쓴 편지. Deseret Evening News일보, 1878년 8월 16일 63. Chicago Times일보, 1831년 5월 27일 64. 위에 Deseret Evening News일보 1878년 8월 16일 편지글과 동일함 65. Kansas City일보, 1881년 6월 5일 66. 1883년 8월 23일 미주리주 Seneca시에서 James H. Hart가 쓴 편지. Deseret Evening News일보, 1883년 9월 4일 67. 1882년 1월 16일 미시간주 Coldwater시에서 William H. Kelley가 쓴 편지글, Saints' Herald지 29호 (1882년) 68쪽

역사적 배경 지식

조셉 스미스 2세[1]

조셉 스미스 2세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초대 선지자이자 첫 번째 회장이다. 조셉은 1805년 버몬트의 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1844년 일리노이주 폭도의 손에 죽음을 맞을 때까지 여러 권의 성스러운 경전과 책을 출판했고, 여러 도시를 세우고 조직했으며, 하나님과 인류에 관한 귀중한 진리를 회복한 계시를 받았으며, 주님의 지시 아래 천사로부터 받은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를 세웠다.

유년 시절

스미스 가족은 단란하고 화목한 소작농 가정이었으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자주 이사를 다녔다. 조셉은 1816년까지 뉴잉글랜드 내에서 다섯 지역을 옮겨 다니며 살았는데, 1816년은 이상 기후로 여름까지도 서리가 내려 "여름 없는 해"로 기록되었다.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스미스 가족은 뉴잉글랜드를 떠나 뉴욕주 북부로 이주했다. 종교적 부흥 운동의 중심지였던 그곳은 "뜨겁게 달아오른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다.

스미스 가족은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들이었으나, 이웃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새로운 지역 사회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는 못했던 것 같다. 뉴욕 생활 초기에 십 대였던 조셉 스미스는 자연의 조화로움에서 위안을 얻었으나 사람들 간의 불화를 보며 마음이 어지러웠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외하였으나 자신의 약점에 좌절했다.

어린 조셉은 신약전서 시대의 기독교에 마음이 끌렸으나, 그 시기에 서로 상충하는 여러 교회 사이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용서를 구하고 어느 교회로 가야 할지 알고 싶었던 조셉은 1820년 어느 봄날 아침, 기도를 드리러 숲으로 들어갔다. 가족 농장 근처에 있는 한 숲에서 그는 빛기둥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이 기적적인 경험은 후에 그의 첫번째 시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교회를 설립함

후기 성도는 이 첫번째 시현을 조셉에게 주어진 선지자로서의 부름의 시작으로 본다. 그러나 당시 그는 전도를 하거나 개종자를 모으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삼 년 후,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어느 날 밤 그에게 나타나 고대 미대륙 문명의 성스러운 역사가 담긴 숨겨진 기록에 관해 이야기한 후에, 그는 교회를 세울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1827년 조셉이 에머 헤일과 결혼한 직후에 천사가 그에게 기록을 맡겼으며, 그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1. 출처: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history/topics/joseph-smith-jr?lang=kor.

그것을 번역했다. 번역을 마친 조셉은 고대 경전을 편찬한 책이며, 성경에 견줄 만한 경전인 몰몬경을 출판했다.

몰몬경은 그 기록이 발견된 직후부터 개종자도 낳았지만 격심한 반대도 불러일으켰다. 조셉은 또 다른 경전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믿는 종교 비평가들과 그 책을 번역한 기적적인 이야기를 위험한 미신이라고 보는 이성주의 비평가들을 상대해야 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몰몬경을 접한 많은 이들은 마음이 크게 움직였으며 그 가르침에 충실하기로 결심했다.

몰몬경 번역이 끝나갈 무렵,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공식적으로 교회를 조직하라고 명하셨다. 1830년 4월 6일에 설립된 이 교회는 성경과 몰몬경, 계속되는 계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와 고대 신권 권세의 회복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교회 회원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교회의 설립,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을 모으시겠다는 오래전의 성약을 성취하시는 일이었다. 미국 원주민에 관한 몰몬경의 예언에서 영감을 받은 조셉은 곧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사 네 명을 2,400킬로미터 거리의 미시시피강 서쪽 인디언 마을로 보냈다. 이들이 여행 중에 침례를 준 개종자들은 후에 뉴욕, 오하이오, 미주리주에서 교회 지부를 설립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계시

교회가 조직되었을 때 불과 스물네 살이었던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한계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새로 세워진 교회와 그 회원들에 대하여 하늘의 인도를 자주 구했다. 그가 받은 인도와 지시는 모두 기록되어, 후에 교리와 성약이라는 계시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 계시를 통해 교회 회원들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집합하라는 지시와 미주리주 서쪽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피난처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시온이라는 도시를 세울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시온은 가난이 없고 선이 승리하는 의로운 장소, 그리고 예술, 교육, 종교가 함께 번성하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이었다. 조셉은 오하이오주로 이주했고, 그가 받은 계시를 토대로 경제 체제를 도입했으며, 그런 다음, 교회에서 첫 번째로 건립이 예정된 성전의 정초식을 위해 미주리주로 갔다.

1830년 초에 주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조셉에게 기독교의 전통적인 천국과 지옥의 이분법을 반박하는 사후 세계 하나님 왕국에 대한 더 포괄적인 개념을 가르치셨고, 종교 교육 및 현세적 교육을 위한 선지자 학교를 설립하게 하셨으며, "지혜의 말씀"이라는 건강 지침을 도입하게 하셨는데, 이를 지키는 이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따르리라고 하셨다. 조셉과 그의 보좌들은 시온을 위한 도시 계획도 수립했는데 이것은 이후 미국 서부 도시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시온 사업의 기쁨 뿐만 아니라 개인적, 지역적 비극도 따랐다. 조셉과 에머에게는 다섯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네 명이 아기였을 때 사망했다. 오하이오주와 미주리주에서는 교회에 대한 극심한 반대가 폭력 사태로 번졌다. 오하이주에서는 반대자들이 조셉의 몸에 타르를 붓고 깃털을 꽂았다. 미주리주에서는 교회의 성장에 분개하고 노예와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향한 성도들의 동조를 두려워한 폭도들이 교회 회원들을 잭슨 카운티에서 몰아냈다. 시온 예정 부지를 잃은 일은 조셉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미주리주에 있는 성도들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여러 번 독려했다. 조셉이 정치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미국 헌법에 소수 종교 세력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미국 정부 때문이었다.

미주리주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1830년대 중반에 임시 토지에 정착하는 동안, 조셉은 커틀랜드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몰두했다. 그는 십이사도를 성임했고,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를 모아 출판했으며, 첫 번째 성전, 즉 주님의 집을 완공하고 헌납했다. 성전 헌납식에서는 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선지자 엘리야가 돌아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등 영이 크게 임했다.

위기와 갈등

성전 건축 비용과 미주리주에서 발생한 손실, 커틀랜드 이주 비용 등으로 교회는 재정적 압박에 시달렸다. 1837년, 조셉과 여러 사람들은 대부분의 은행이 의존하는 소수의 부유한 투자자 대신 대규모의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금융 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했다. 회원들은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미국에 금융 공황이 닥치면서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고, 조셉과 그 지역의 많은 이들이 재정적 파탄에 빠지게 되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조셉은 첫 번째 후기 성도 선교사들을 유럽으로 보냈으며 교회 본부를 미주리주로 옮겼다. 그러나 성도들이 대거 미주리주로 이주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은 몰몬의 영향력을 점차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1838년 선거일에 미주리주의 한 자치군 주민들은 무력으로 교회 회원들의 투표를 막았고, 다른 지역 주민들은 몰몬 정착민들을 추방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로 성도들에 대한 폭력 사태가 잇따랐고, 미주리 주지사는 성도들의 정당방위 시도를 "근절령"을 정당화하는 명목으로 악용했다.

조셉은 미주리주 민병대와 평화를 협상하려고 시도하던 중에 체포되었고 즉결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한 민병대 장교가 근절령에 맞서 거리낌 없이 항의를 표한 후에야 조셉은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조셉은 처형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1838년부터 1839년에 걸친 겨울 동안 수감되어 있었으며, 그동안 조셉의 아내와 네 명의 어린 자녀들과 교회 회원들은 미주리주에서 얼어붙은 미시시피강 너머로 추방되었다. 조셉이 1839년 리버티 감옥에서 적은 비통에 젖은 편지는 고난, 불의, 참된 권세의 본성에 대한 영감 어린 가르침으로서, 지금까지도 후기 성도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나부에서 새로운 복음을 가르침

1839년, 다수의 미주리주 의원들은 몰몬 공동체를 겨냥한 군사 행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집단 검거가 과연 타당한 처사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여론은 조셉 스미스를 계속 투옥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7월까지 몰몬 수감자들은 대부분 석방되거나 도주가 묵인되었다. 조셉은 일리노이주에서 교회 회원들과 합류하였고, 말라리아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환자들을 돌보았으며, 그 후에 나부 시를 세웠다. 나부는 대서양을 건너온 개종자들과 미국과 캐나다에서 온 성도들이 모여들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조셉은 나부에서 레슬링, 춤, 연극과 같은 취미 활동들을 즐겼다. 동시대 다른 종파들은 성직자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여겼으나, 후기 성도 사회에서는 풍요롭고 영적인 삶의 일부분으로서 적극적으로 장려되었다.

조셉이 초기 계시에서 받은 진리에 바탕을 둔 가르침과 관행들은 그와 동시대 사람들의 사상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았다. 1833년 계시에서는 "사람도 또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니라."는 가르침이 있었다. 조셉은 나부에서 인간도 결국에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조셉은 1836년 계시를 통해 침례를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난 자신의 형 앨빈도 침례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나부에서 조셉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라는 고대 의식을 회복했다. 1830년대 초에는 조셉의 창세기 번역 작업으로 복수 결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조셉은 나부에서 복수 결혼 관행을 회복하라는 계시를 받았다. 이것은 1800년대 교회 회원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십이사도를 포함한 80명의 남녀가 이 관행을 따랐다.

나부에서는 교회 조직상 중요한 단계들도 행해졌다. 조셉은 상호부조회라는 여성 조직을 만들라는 영감을 받았다. 그는 이 조직이 주님의 사업에 필수적이라고 가르쳤다. 그의 아내 에머가 초대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했다. 십이사도가 대영제국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오자, 조셉은 그들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을 맡겼다. 나부에서 조셉은 지상에서 맺어진 가족은 성전에서 맺는 성약을 통해 하늘에서도 영원히 맺어질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가족과 성전을 회복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았다.

교회 내에서는 조셉의 새로운 가르침에 불만을 품거나 그가 나부에서 너무나 막강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음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일부 저명한 회원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반대와 교회 회원들에 대한 미주리주 당국의 억류 및 송환 시도가 계속되었다. 조셉은 인생의 마지막 남은 시기를 주기적으로 피신하면서 살았고 때로 서쪽으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 변방의 외딴 지역(또는 그 당시 미국 서부의 멕시코 영토)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심하기도 했다. 사망하기 삼 개월 전에 조셉은 오십인 평의회라는 조직을 설립하여 후기 성도의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고 이 지상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기초를 놓고자 했다. 조셉과 평의회 회원들은 정착 가능한 부지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사망

1844년 여름, 나부 시의회는 그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던 Nauvoo Expositor(나부 익스포지터)라는 반몰몬 신문의 폐간을 명령했다. 이 결정의 승인은 의회에서 했으나, 그에 대한 책임은 나부시 시장이었던 조셉 스미스가 지게 되었다. 신문의 폐간으로 조셉 스미스의 적대 세력은 격노했고 급기야는 폭력사태를 일으켰다. 조셉이 나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었고, 한 지역 신문은 조셉이 주민 다수가 몰몬인 나부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교회 회원과 "몰살전"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조셉은 안전이 염려되기는 했지만 인근인 일리노이주 카테지에서 재판을 받기로 했다.

6월 25일, 조셉은 가족에게 작별을 고했다. 조셉의 장녀는 열세 살이었고, 그의 아내 에머는 막내 아들을 임신한 지 5개월이 되었을 무렵이었다. 이틀 후, 폭도가 카테지 감옥을 습격했다. 조셉 스미스는 눈앞에서 형 하이럼이 죽는 것을 목격했고, 곧 자신도 가슴과 등에 세 발의 총을 맞고 숨을 거두었다. 그의 나이 향년 38세였다.

조셉을 가장 공공연하게 비판했던 자들은 그를 죽인 것이 낯선 종교의 영향으로부터 지역의 삶의 방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그의 사망으로 그가 조직했던 교회도 몰락할 것이라 내다보았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후기 성도는 조셉을 그의 간증을 피로 인봉한 순교자로 생각하며, 조셉이 회복을 도왔던 가르침, 의식, 권세를 지키고 충실히 따랐다.

보물 찾기[2]

조셉 스미스를 비난하는 자들은 그를 돈 발굴가 또는 보물 수색꾼으로 지칭하며 폄훼하려 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셉은 그 혐의를 부인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공식 역사서에서 1825년에 조사이아 스토웰이 펜실베이니아 북부에서 보물 수색 사업을 돕도록 자신을 고용했다고 인정했다.[3] 스토웰은 그 일대에서 "선견자", 즉 특별한 돌을 들여다보면서 사라졌거나 숨겨진 물건을 찾아내는 사람이라고 평판이 자자했던 조셉에게서 도움을 얻고자 했다.[4]

"보는 것"과 "선견자"는 조셉 스미스가 성장한 문화에서 한 부분을 차지했다. 19세기 초반에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돌과 같은 물체를 통해 사라진 물건을 볼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었다. 조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은 주위의 많은 사람처럼 이러한 풍속을 받아들였다.

1820년대에는 땅속에 묻혀 있다고 알려진 스페인 보물에 대한 환상으로 말미암아 조사이아 스토웰 같은 탐광자는 보물을 찾는 일에 조셉과 같은 선견자들에게서 도움을 요청했다.[5] 스토웰은 조셉을 신뢰했다. 그래서 그에게 보물 찾는 일을 도와 달라고 청했고, 나중에 가서는 보물 수색을 단념하라는충고까지도 받아들였다. 아들의 능력을 성스럽게 여겼던 조셉 스미스

2. 출처: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history/topics/treasure-seeking?lang=kor. 3. Joseph Smith, "History, 1838~1856, volume A-1 [23 December 1805~30 August 1834]," 7~8, josephsmithpapers.org; 또한 *Elders' Journal*, vol. 1, no. 3 참조. (July 1838), 43, josephsmithpapers.org. 4. 관련된 교회 역사 주제로 "조셉 스미스의 1826년 재판", "선견자의 돌" 참조. 5. Alan Taylor, "The Early Republic's Supernatural Economy: Treasure Seeking in the American Northeast, 1780~1830," *American Quarterly*, vol. 38, no. 1 (Spring 1986), 6-34.

일세는 조셉이 그 능력을 사용하여 세속적 보물을 찾는 일을 중단하기를 바랐다.[6] 몰몬경 번역을 준비하던 조셉은 더 이상 보물 수색꾼들과 관계하지 말고, 번역하고 계시를 구하는 데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명을 받았다.

조셉 스미스가 살던 시대와 그 지역에서 돌을 사용해 사라진 혹은 숨겨진 물건을 찾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있었지만, 선견자의 돌을 사용해 고대 기록을 번역한다는 이야기는 전례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에게 몰몬경을 번역할 권능을 주셨으며, 조셉이 영적인 일을 위해 선견자의 돌을 사용하도록 인도하셨다.

선견자의 돌[7]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은 사물이 성스러운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관념을 받아들였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 놋뱀, 언약궤 등과 같은 물체를 통해 역사하셨다고 나와 있다. 또한, 예수께서는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시어 그를 낫게 하셨다.[8]

몰몬경에는 특별히 지정된 돌의 성스러운 용도가 나와 있다. 야렛의 형제는 주님께 "투명한 유리같이 희고 맑"은 작은 돌 열여섯 개를 만져 주시기를 청했다.(이더서 3:1) 주님의 손가락이 닿자 그 돌들은 야렛인들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 빛을 발했다. 또 다른 구절에는 "[야렛의 형제]가 기록할 이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 크게 보이게" 할 성스러운 돌이 언급되어 있다.(이더서 3:24)

조셉 스미스 시대에는 자신이 선견자의 돌을 통해 "보거나" 신성한 혹은 초자연적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은사를 지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성경과 초기 미국 이민자들이 전파한 유럽의 문화적 전통에서 기인했다. 조셉 스미스와 그의 가족은 이러한 믿음을 받아들였고, 조셉은 땅 속에서 찾아낸 돌들을 사용해 때로 이웃들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거나 숨겨진 보물을 찾도록 도와주었다.[9]

1827년에 조셉 스미스는 금판과 함께 번역 도구도 받았는데, 이는 "은테에 물린 돌 두 개"로, "고대 곧 예전에는 '선견자'"가 사용했다.(조셉 스미스—역사 1:35) 몰몬경에는 이 도구가 "해석기"라고 지칭되어 있다.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을 번역하는 동안 해석기와 선견자의 돌 두 개를 번갈아 사용했다. 그것들은 대체로 같은 방식으로 작동했는데, 초기 성도들은 해석기와 선견자의 돌 둘 다를 지칭하기 위해 "우림과 둠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선지자 조셉은 또한 이 계시의 도구를 통해 오늘날 교리와 성약에 실린 몇몇 계시를 받기도 했다.[10] 조셉은 영적인 일에 경험이 쌓여감에 따라 결국에는 이러한 도구 없이도 계시를 받기 시작했다.[11]

금판[12]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 판권을 획득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 지역 언론이 술렁였다. 팔마이라의 *Wayne Sentinel* 신문에 따르면, "얼마 전부터" 떠돌던 소문을 토대로 여러 신문사에서 곧 출간될 책과 그 번역에 관한 정보를 게재하기 시작했다. 조셉이 찾은 고대 유물은 *Sentinel* 신문의 표현을 빌자면 일반적으로 "황금 성경"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 기사에는 이 명칭이 그 일대에서는 이미 통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나오긴 하지만, 이는 판의 황금빛 외양을 언급한 최초의 기록이었다.[13]

---

6. William D. Purple, "Joseph Smith, the Originator of Mormonism," *Chenango Union*, vol. 30, no. 33 (May 2, 1877), 3. 7. 출처: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history/topics/seer-stones?lang=kor. 8. 출애굽기 8:5~6, 16~17; 민수기 21:9; 사무엘상 4:3~6; 요한복음 9:6. 9. 리처드 이 털리 2세, 로빈 에스 젠슨 및 마크 애셔스트 맥기, "선견자 조셉", *리아호나*, 2015년 10월호, 12쪽. 10. James R. B. Vancleave, letter to Joseph Smith III in Lyndon W. Cook, ed., David Whitmer Interviews: A Restoration Witness (Orem, Utah: Grandin Book, 1991), 239~40. 11. 1830년 이른 봄, 조셉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몰몬경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선견자의 돌을 주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1840년대 후반에 교회에 돌아오도록 도움을 주었던 피네아스 영은 카우드리의 미망인에게서 이 돌을 받아 자신의 형제인 브리검 영에게 주었다. 브리검 영이 사망한 이후 그의 아내 중 한 명인 지나 디 에이치 영은 그의 유품에서 초콜릿 색을 띤 선견자의 돌을 찾았는데, 조셉이 몰몬경을 번역할 때 사용했던 돌에 대한 묘사와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돌을 교회에 기증했다.(리처드 이 털리 2세, 로빈 에스 젠슨 및 마크 애셔스트 맥기, "선견자 조셉", *리아호나*, 2015년 10월호, 15쪽 참조) 12. 출처: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history/topics/gold-plates?lang=kor. 13. *The Wayne Sentinel*, June 26, 1829, 3.

판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해지자, 조셉은 몰몬경 초판에 공식 성명을 게재해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으려 했다. 조셉이 작성한 서문과 여덟 증인이 작성한 간증문에서는 그 판을 "금 같아 보이는 판"이라고 묘사했다.[14] 몰몬경 속 저자들은 단순히 "판"에 기록을 새겼다고만 전하고 있다.[15] 조셉 스미스와 증인들은 그들의 서술에서 판의 오랜 역사와 정교한 솜씨로 새겨진 기록을 강조했다.[16]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상상을 자극한 것은 판의 황금빛 광채였던 것이다.[17] 조셉은 모로나이라는 이름의 천사의 지시에 따라 1827년 9월에 그 판을 파냈으며,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그 고대 기록을 번역하라고 명했다.6 조셉은 1828년 초반부터 1829년 6월에 걸쳐 번역 작업을 했으며, 이후 그 천사에게 판을 돌려주었다.[18]

증인들은 후에 그 판의 소재, 무게, 크기, 두께, 제본 상태 등에 대해 기록을 남겼다. 판의 무게는 약 18~27kg이었고,[19] 두께는 약 10~15cm였다.[20] 낱장의 크기는 가로 "15"~"18cm에 세로 20cm" 정도였으며,[21] 각각의 두께는 "양철판" 두께 정도였다.[22] 에머 스미스에 따르면, "엄지손가락으로 귀퉁이를 넘길 때면 책을 넘길 때 바스락거리는 것처럼 금속음이 났다"고 한다.[23] 이는 D자 모양의 고리 세 개로 각 장의 "뒤쪽 가장자리를 관통해서"[24] 엮어 한 권으로 제본되었다. 한 증인에 따르면, 기록이 변경되지 않도록 "책 절반 정도가" 봉해져 있었다. 이렇게 봉해진 부분은 낱장을 분리할 수 없었으며, 이는 "마치 나무처럼 단단해 보였다."[25] 조셉 스미스는 판의 봉해지지 않은 부분에서 번역했다.[26]

이런 점들에 근거하여 현대 연구자들은 순금으로 된 판은 무게가 최소 45kg에 달할 것이며, 너무 물러 글자를 새길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27] 몰몬경을 기록하고 보존했던 이들은 소재가 순금이 아니더라도 외양은 금빛을 띠도록 합금을 사용하여 금속판을 만들었을 것이다. 조셉 스미스의 동생인 윌리엄 스미스는 판이 "금과 구리가 섞인" 합금이었다고 믿었다.[28]

모로나이 천사[29]

1823년, 모로나이라는 이름의 한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그의 집 인근 산에 고대 기록이 새겨진 판이 묻혀 있다고 말해 주었다. 그 고대 기록을 보관하며 자신의 가르침을 판에 새긴 마지막 사람인 모로나이는 1823년과 1829년 사이에 조셉이 판을 찾아서 번역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셉에게 나타나 인도와 조언을 주었다. 천사의 방문에 관한 다른 사람들의 기록은 미화되었거나 과장된 면이 있는 반면, 조셉 스미스의 기록은 단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서술하며, 일관성이 있다. 조셉이 선지자가 되는 준비 단계는 첫번째 시현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초기부터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모로나이가 방문하면서부터 조셉의 부름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30]

조셉 스미스가 경험한 시현 중 역사 자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천사의 출현이었다. 1830년 계시에 따르면, "얼굴이 번갯불[처럼] 빛"나는 천사가 조셉에게 나타나 "그에게 권능을 주며 . . . 책을 번역하도록 했다."[31] 조셉의 1832년 역사에는 주님께서 "내게 하늘의 시현을 보여 주사, 보라 주님의 천사가 와서 내 앞에 섰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32] 이와 더불어 다

14. Joseph Smith Jr., *The Book of Mormon: An Account Written by the Hand of Mormon, upon Plates Taken from the Plates of Nephi* (Palmyra, New York: E. B. Grandin, 1830), iii~iv, 590, josephsmithpapers.org; emphasis added. 15. 니파이전서 9:2~4; 몰몬의 말씀 1:1~3, 6, 10. 16. Joseph Smith Jr., *The Book of Mormon*, 590; emphasis added. 17. "19th-Century Publications about the Book of Mormon (1829~1844)," Harold B. Lee Library, Brigham Young University, lib.byu.edu 참조. 조셉 스미스가 작성한 다음 기록들과 비교해 본다. "Revelation, July 1828 [DC 3]," in Revelation Book 1, 1~2, josephsmithpapers.org; "Revelation, March 1829 [DC 5]," josephsmithpapers.org; "Revelation, Spring 1829 [DC 10]," in Book of Commandments, 22~27, josephsmithpapers.org; "Revelation, April 1828–B [DC 8]," in Revelation Book 1, 12~13, josephsmithpapers.org. 18. Joseph Smith, "History, 1838~1856, volume A-1 [23 December 1805~30 August 1834]," 8, josephsmithpapers.org. 19. "A Witness to the Book of Mormon," *Iowa State Register*, Aug. 28, 1870. 20.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65; Joseph Smith letter to John Wentworth, in Joseph Smith, "History, 1838~1856, volume C-1 [2 November 1838~31 July 1842]," 1282, josephsmithpapers.org. 21. Joseph Smith, "Church History," *Times and Seasons*, Mar. 1, 1842, 707, josephsmithpapers.org; "Mormonism—No. II," 165; "An Old Mormon's Closing Hours," *Chicago Tribune*, Jan. 24, 1888, 5. 22.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64. 23.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 24. David Whitmer, Interview, in Edward Stevenson diary, Dec. 22~23, 1877, in Edward Stevenson Collection 1849~1922,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25. David Whitmer, Interview by P. Wilhelm Poulson, *Deseret Evening News*, Aug. 16, 1878, in Lyndon W. Cook, *David Whitmer Interviews: A Restoration Witness* (Orem, Utah: Grandin Book Company, 1991), 20~21. 26. "An Old Mormon's Closing Hours," 5. 27. Robert F. Smith, "The 'Golden' Plates," in *Reexploring the Book of Mormon*, ed. John W. Welch (Provo, Utah: Foundation for Ancient Research and Mormon Studies, 1992), 277 참조. 28. William B. Smith, "The Old Soldier's Testimony," *Saints' Herald*, Oct. 4, 1884, 644. 29. 출처: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history/topics/angel-moroni?lang=kor. 30. James B. Allen, "Emergence of a Fundamental: The Expanding Role of Joseph Smith's First Vision in Mormon Religious Thought," *Journal of Mormon History*, vol. 7 (1980), 43~61. 31. "Articles and Covenants, circa April 1830 [DC 20]," in *Painesville [Ohio] Telegraph*, Apr. 19, 1831, 4, josephsmithpapers.org. 이 기록은 1823년 시현에 관해 언급한 최초의 역사 기록이다. (Alexander L. Baugh, "Parting the Veil: Joseph Smith's Seventy-six Documented Visionary Experiences," in John W. Welch, ed., *Opening the Heavens: Accounts of Divine Manifestations*, 1820~1844 [Provo: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318, footnote 2). 32.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in Letterbook 1, 4, josephsmithpapers.org.

른 초기 기록들에는 이 사자가 단순히 "천사"라고만 지칭되어 있다.[33] 1835년, 조셉은 교리와 성약에 공표된 계시에서 이 천사가 몰몬경에 나오는 모로나이라고 밝혔다.[34] 조셉은 1842년에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 천사가 누구인지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혔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는 쿠모라에서 나오는 좋은 소식이라! 하늘에서 온 천사 모로나이가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소리니—곧 나타날 책이라."[35]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이 천사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혹은 종식되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자료로 인해 상황이 복잡해졌다. 모로나이의 방문에 관한 공인된 기록(조셉 스미스—역사 1:30~53)의 초기 원고에서는 이 천사가 "니파이"로 지칭되어 있다.[36] 이는 조셉 스미스의 서기 제임스 멀홀랜드로부터 비롯된 것 같은데, 그는 1839년에 조셉 스미스의 역사에 관한 여러 원고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기 시작했다. 증거로 미루어 보아 멀홀랜드는 조셉 스미스의 말을 받아쓴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남아 있지 않지만 당시 자신이 구할 수 있었던 자료들을 활용했던 것 같다. 멀홀랜드가 기록을 만들기 전에 작성된 조셉의 초기 기록 다수에는 천사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에, 어쩌면 멀홀랜드는 그 천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헷갈렸을 수도 있다.

초기에 출판된 조셉 스미스 역사와 그 밖에 천사를 "니파이"로 언급한 다른 기록들은 모두 멀홀랜드의 기록에 의존한 것이었다. 따라서 1840년대와 1860년대에 출판된 기록들에는 "니파이"와 "모로나이"가 둘 다 등장한다. 그 역사 기록에 서기의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한 브리검 영은 교회 역사학자들에게 이 문제를 연구하게 했다. 그 천사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다른 기록들을 검토한 그들은 "니파이"라는 이름이 "모로나이"로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멀홀랜드 원고를 수정했다.[37] 조셉 스미스가 그 천사를 "니파이"라고 지칭했다는 증거는 없다.

모로나이의 출현은 회복을 상징하며, 모로나이 천사상은 이제 대부분의 후기 성도 성전의 첨탑을 장식하고 있다. 이 시초는 1892년이었는데, 당시에 솔트레이크 성전에 갓돌을 놓는 것을 보기 위해 5만여 명의 성도들이 운집했다. 이 행사에서 윌포드 우드럽 회장이 기계의 전기 스위치를 작동해 화강암 갓돌을 제자리에 놓았다. 그날 오후, 작업자들이 첨탑 위에 금박을 입힌 천사 동상을 세웠다. 이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행사 이후로 거의 모든 후기 성도들은 이 동상을 모로나이 천사라고 알고 있다.[38]

선견자 조셉[39]

조셉 스미스가 어떻게 선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몰몬경을 번역했는지 역사 기록에 명확히 나옵니다.[40]

1830년 4월 6일, 조셉 스미스가 그리스도 교회(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불림)를 조직하던 날에,[41] 그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계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보라, 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 그 가운데서 너 [조셉 스미스]는 선견자…라 일컬[어 지리라]"(교리와 성약 21:1).

조셉 스미스가 새로 조직된 교회에서 선견자로서 수행한 역할 중 가장 눈에 띄는 표징은 몰몬경입니다. 그는 거듭 이 책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었다고 설명 했습니다.[42] 교회가 조직되기 전에 조셉과 가장 가까웠던 많은 사람들이 몰몬경이 세상에 나오는 과정을 목격했으며, *선견자*라는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33. 1830년대에는 조셉 스미스의 시현을 증언하는 자료가 거의 매해 공개되었다. 초기 기록들에서는 대부분 판을 발견하고 몰몬경을 번역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천사"가 언급되어 있다.(Baugh, "Parting the Veil" 참조) 34. 1835년판 교리와 성약에서 교리와 성약 27편 참조. 이 계시는 계명의 책에 실려 있었다. 하지만, 조셉이 교리와 성약 초판을 준비하면서 원문을 확장해 새로 포함된 것들이 있는데, 모로나이도 그중 하나이다.("Revelation, circa August 1835 [DC 27]," Historical Introduction, josephsmithpapers.org) 35. Joseph Smith, "Letter to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 Day Saints,' 6 September 1842 [DC 128]," 7, josephsmithpapers.org. 36. Joseph Smith, "History, 1838~1856, volume A-1 [23 December 1805~30 August 1834]," 5, josephsmithpapers.org. 37. Joseph Smith, "History, 1838~1856, volume A-1 [23 December 1805~30 August 1834]," 5, note 14. 38. *Temple Souvenir Album, April, 1892, Illustrated with Portraits of the Architects, Views of the Building, Plan of Electric Lights, Engine-House and Grounds, Including Views of Logan, Manti, Nauvoo, and Kirtland Temples, and Places of Interest in Salt Lake City* (Salt Lake City: Magazine Printing, 1892), 8; Wilford Woodruff journal, Mar. 29, 1892; John Nicholson, "The Statue of Moroni," *Deseret Weekly*, Apr. 9, 1892, 1 참조. 39. 출처: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liahona/2015/10/joseph-the-seer?lang=kor. 40. 리차드 이 털리 2세, 교회 역사가 겸 기록자 보조, 로빈 에스 젠슨과 마크 아스헤스트 맥키, 교회 역사부 41. 교리와 성약 115편.참조. 42. Preface to Book of Mormon, ca. Aug. 1829, in Documents, Volume 1: July 1828–June 1831, vol. 1 of the *Document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2013), 93. 또한 "세 증인의 증언", 몰몬경 참조.

*선견자*의 의미

젊은 선지자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견자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조셉은 성경을 읽는 가족 사이에서 자라났는데, 성경에는 선견자란 말이 거듭 나옵니다. 일례로 사무엘상에서 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사무엘상 9:9).

성경에는 또한 사람들이 지팡이,[43] 장대에 매단 놋뱀 (의료업의 상징으로 널리 사용됨),[44] 에봇 (두 보석을 붙인 제사의 의복 일부),[45] 우림과 둠밈[46]과 같은 물체를 통해 영적인 나타내심을 받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과 "선견자"는 조셉 스미스의 가족의 문화인 동시에 미국 문화의 일부였습니다. 19세기 초기에 살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북미 이민자들이 가져온 영국과 유럽의 혼합된 문화에 깊은 영향을 받아,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선견자의 돌과 같은 물체를 통해 영적 현시를 "보거나"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47]

젊은 조셉 스미스는 선견자의 돌을 사용해 잃어버렸거나 감춰진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관념을 포함한, 당대의 잘 알려진 풍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성경 이야기에 하나님께서 고대에 물체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신앙을 집중시키거나 영적으로 교통하셨다고 나오기 때문에, 조셉과 주변 사람들은 그들 시대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조셉의 부모인 조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는 가족이 이 문화에 몰두해 있었고 물체를 이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단언했으며, 스미스 가족이 살았던 뉴욕 주 팔마이라와 맨체스터 마을 사람들은 스미스 가족이 1827년에 펜실베이니아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자 할 때에는 조셉을 찾아왔습니다.[48]

19세기에 조셉이 살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어떤 종교 생활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선견자의 돌은 이상할 수 있으며, 학자들은 이 시기의 조셉의 삶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영적 문제보다는 과학 및 관찰할 수 있는 세계를 강조하던 시대인, 계몽주의 혹은 이성 시대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아 조셉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돌이나 지팡이 같은 물체를 사용하는 것이 미신적이거나 종교적인 목적에 부적절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조셉은 자신의 놀라운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신이 본 시현과 기타 영적 경험을 강조했습니다.[49] 예전 동료들 중 일부는 그런 관행을 점차 인정하지 않는 세계에서 그의 명성을 훼손하기 위해 그가 초기에 선견자의 돌을 사용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조셉과 그 밖의 초기 회원들은 이성 시대를 맞아, 많은 예비 개종자들이 이성 시대를 맞아 종교를 이해하는 방식에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전도할 때, 민속 문화의 영향에 대해 초점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조셉은 경전화된 계시에서 여전히 선견자의 돌과 그 밖의 선견자 관련 도구는 물론 그것들을 사용하여 일하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중요하고 성스러운 은사임을 가르쳤습니다.[50]

몰몬경을 번역하는 데 사용된 도구

선견자의 돌은 또한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 번역을 설명하는 역사 기록들에도 나옵니다. 1838년에 시작된 조셉 스미스의 공식 역사 기록에는 모로나이로 밝혀진 천사의 방문이 나오는데, 그 천사는 조셉에게 근처 언덕에 묻혀 있는 금판에 대해 말했습니다. 조셉은 천사와 함께 이

43. 출애굽기 4:1~5, 17, 20~21; 7:8~21; 8:16~19; 9:22~26; 10:12~15; 14:15~18; 17:1~13; 민수기 17:1~10; 20:7~11; 히브리서 9:4 참조. 44. 민수기 21:7~9; 요한복음 3:14~15 참조. 45. 출애굽기 28:12; 35:9, 27; 사무엘상 23:9~12; 30:7~8 참조. 46. 출애굽기 28:30; 레위기 8:8; 민수기 27:21; 신명기 33:8; 사무엘상 28:6; 에스라 2:63; 느헤미야 7:65 참조. 47. 19세기 종교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Journals, Volume 1: 1832–1839*, vol. 1 of the Journal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2008), xix; and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Volume 3: Printer's Manuscript of the Book of Mormon*, vol. 3 of the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2015), xv~xvi; Dallin H. Oaks, "Recent Events Involving Church History and Forged Documents," *Ensign*, Oct. 1987, 68~69. 48. Francis W. Kirkham, *A New Witness for Christ in America: The Book of Mormon, vol. 2 (1959), 366쪽에서 인용한 조셉 스미스 일세에 관한 진술 참조; 또한 Lucy Mack Smith, "Lucy Mack Smith, History, 1844~1845," book 3, page 10, 참조, josephsmithpapers.org/paperSummarylucy-mack-smith-history-1844-1845. 마틴 해 리스는 조셉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건초 더미 속에서 핀을 찾게 했다고 회상했다.("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July 1859, 164, 참조)* 49. 예를 들어 값진 진주에 나오는 조셉 스미스—역사를 참조한다. 50. 교리와 성약 130:10~11 참조. 또한 올리버 카우드리가 조셉 스미스의 몰몬경 번역을 돕고자 갈망했을 때 그에게 지시된, 지금은 교리와 성약 8편이 된 , 최초의 표현을 참조한다.(Revelation, Apr. 1829~B, in *Documents, Volume 1: July 1828–June 1831*, 44~47).

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시현이 열려" 나증에 그곳으로 찾아갔을 때 "바로 그곳임을 알았[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42).

조셉이 1838년에 작성하기 시작한 역사에 따르면, 모로나이는 "(내 친가의 궁핍한 형편 때문에) 재물을 얻을 목적으로 그 판을 취하도록 사탄이 나를 유혹하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천사가 이를 금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동기"[라도 있다면] 그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셉은 이야기합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46) 앞선 1832년 역사에서 조셉은 이같이 서술했습니다. "나는 … 부를 얻고자 판을 구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51] 그 결과, 그는 판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4년 동안 해마다 산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53~54 참조)

조셉은 1827년에 마침내 모로나이로부터 판을 받을 때, 그것을 번역하는 데 사용할 돌도 두 개 받았습니다. 조셉 및 가까운 지인들은 이 돌들에 대해 설명하기를,외견상 희거나 투명하며, 현대의 안경처럼 은으로 된 테에 고정되어 있고, 큰 가슴판에 연결되어 있다고 묘사했습니다.[52] 설명된 바와 같이, 선견자를 위한 이 도구는 커서 다루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모친은 그가 편의를 위해 돌들을 가슴판에서 떼어 내어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53]

몰몬경에서는 이 돌들을 "해석기"라고 부르며 "언어를 해석할 목적으로, 태초로부터 예비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으며 "주의 손으로 지켜지고 보존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모사이야서 28:14~15, 20)

몰몬경에는 또한 주님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미래 세대가 이 돌들의 도움으로 그의 말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약속과 함께 "두 돌"을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 일들을 기록하고 인봉하라"고 지시하시며 "내가 나의 정한 때에 사람의 자녀들에게 이를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돌들이 "네가 기록할 이 일들이 사람들의 눈에 크게 보이게 하리로다"(이더서 3:24, 27)고 설명하셨습니다.

1829년 중반에 조셉 스미스가 서기들에게 몰몬경 번역을 받아쓰게 하는 일을 마쳤을 때, 선견자의 의미가 몰몬경의 본문에서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몰몬경에는 애굽의 조셉이 그의 후손 중 하나—조셉 스미스임이 분명함—가 "뛰어난 선견자"가 되어 다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과 맺은 "성약에 대하여 알게" 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니파이후서 3:6, 7)

몰몬경의 또 다른 부분에는 앨마 2세가 그의 아들 힐라맨에게 해석기를 주는 것이 나옵니다. 앨마는 은 테에 고정된 두 돌을 가리켜 그에게 "이 해석기들을 보전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앨마는 또한 하나의 돌을 지칭하는 듯이 보이는 계시를 인용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종 게이젤렘에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비출 돌 하나를 예비해 주[리라]"(앨마서 37:21, 23).

이 예언이 "해석기들"(복수)이라는 맥락에서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 예언은 미래의 종에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비출 돌 하나"(단수)[54]를 주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초기의 후기 성도들은 이 예언된 종이 조셉 스미스였다고 믿었습니다.[55]

실제로,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을 번역하는 데 "해석기"로 알려진 두 선견자의 돌 외에도 적어도 또 하나의 다른 선견자의 돌을 사용했으며, 그 돌을 흔히 모자 안에 두어 빛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았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조셉의 동료들에 따르면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돌에 나타나는 글자를 더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56]

1833년 경에 조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들은 성경에 나오는 "우림과 둠밈"을 니파이인 해석기들과 하나 밖에 없는 선견자의 돌 모두를 포함하여 신성한 계시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51. Joseph Smith, "History, ca. Summer 1832," in *Histories, Volume 1: 1832–1844*, vol. 1 of the Historie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2012), 14. 52. 조셉 스미스—역사 1:35; Joseph Smith, "Church History," in *Histories, Volume 1: 1832–1844*, 495; Martin Harris, in "Mormonism—No. II," 165~6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1845," book 5, pages 7~8, josephsmithpapers.org 참조. 53. 일례로, "Lucy Mack Smith, History, 1844~1845," book 5, josephsmithpapers.org 참조. 54. 당연하게도, 이 구분은 해석자들이 갈피를 못잡게 했다. 일례로, Bruce R. McConkie, *Mormon Doctrine*, 2nd ed. (1966), 307~8; Joseph Fielding McConkie and Robert L. Millet, *Doctrinal Commentary on the Book of Mormon*, 4 vols. (1987~92), 3:278; and Matthew B. Brown, *All Things Restored: Confirming the Authenticity of LDS Beliefs* (2000), 62 참조. 55. William W. Phelps, Funeral Sermon of Joseph Smith and Hyrum Smith,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Orson Pratt, "Explanation of Substituted Names in the Covenants," *The Seer*, Mar. 1854, 229; William W. Phelps, letter to Brigham Young, Apr. 10, 1854, in Brigham Young, Office Files, 1832~1878,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및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Volume 2: Published Revelations*, vol. 2 of the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2011), 708~9 참조. 56. 번역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lds.org/topics/book-of-mormon-translation에서 찾아볼 있는 "몰몬경 번역"을 참조한다. 또한 Russell M. Nelson, "A Treasured Testament," *Ensign*, July 1993, 61~65; Neal A. Maxwell, "By the Gift and Power of God," *Ensign*, Jan. 1997, 36~41 참조.

모든 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57] 이 부정확한 용어 때문에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한 정확한 방법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마틴 해리스에 따르면, 조셉은 몰몬경 번역 중에 해석기를 사용 하는 것 외에도 편의를 위해 선견자의 돌 가운데 하나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출처들도 조셉이 번역 도구를 바꿔가며 사용했음을 입증합니다.[58]

몰몬경이 출판된 후

1830년 3월에 몰몬경을 출판한 후 조셉 스미스와 그의 서기들은 현재 조셉 스미스 역 성경으로 알려진, 흠정역 개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59] 조셉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이 번역에 니파이인 해석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더 이상 그것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셉 스미스 역사에는 이에 대해 이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이를 사용하여 내게 요구된 일을 끝낼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들은 내 손에 안전히 보관되었다. 약속된 대로 사자가 이를 가지러 왔을 때 나는 그것들을 그에게 넘겨주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가 이를 간직하고 있다."(조셉 스미스—역사 1:60).

브리검 영 회장(1801~1877)이 설명했듯이, "조셉은 번역을 마친 후에 우림과 둠밈을 판과 함께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60]

조셉은 그 밖의 다른 계시자의 돌들을 갖고 있었는데,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자 후에 교회 역사가가 된 올슨 프랫 장로(1811~81)의 말을 빌자면, 조셉은 또한 이 당시에 영적 이해력이 원숙해졌습니다. 1874년 6월 28일, 브리검 영 회장과 다른 많은 총관리 역원들이 참석한 어느 한 모임에서 프랫 장로는 청중에게 조셉 스미스가 "신약을 번역할" 때 "여러 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번역 과정에 어떠한 해석 도구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는 조셉이 왜 "몰몬경을 번역할 때처럼 우림과 둠밈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프랫 장로가 선지자가 번역하는 모습을 지켜 볼 때에 "조셉은 마치 그의 생각을 읽은 듯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며 주님께서 그가 영감의 영에 미숙했을 때 그에게 우림과 둠밈을 주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영의 작용을 이해하기에 이를 정도로 진보했기 때문에 그 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61]

브리검 영은 한 청중에게 선견자의 돌을 받는 것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제가 이제껏 선견자의 돌을 갖고자 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62] 브리검의 이 말은 그가 이해하기로 선견자가 되는 데 선견자의 돌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1831년 10월 25일, 조셉 스미스는 오하이오 주 오렌지에서 열린 어느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회 중에 그의 형 하이럼은 "몰몬경 출현에 대해 모두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한 장로들에게 조셉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임의 의사록에 따르면 조셉은 "몰몬경의 출현에 관해 자세한 모든 부분까지 세상에 말하도록 의도되지 않았으며" 그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63] 선견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원숙해지고, 선견자의 돌이 계시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믿게 되면서, 어쩌면 조셉은 사람들이 책이 어떻게 출현했는지에 초점을 둘 뿐, 책 그 자체에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을까 염려했을지도 모릅니다.

몰몬경 번역에 대해 조셉 스미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점은 그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몰몬경을 번역했다는 것입니다.[64] 그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책 그 자체가 "지상에 있는 어떤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며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65]

57. 일례로 윌포드 우드럽은 자신이 나부에서 본 선견자의 돌을 우림과 둠밈이라 불렀다.(윌포드 우드럽 일지, 1841년 12월 27일, 교회 역사 도서관) 또한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Volume 3: Printer's Manuscript of the Book of Mormon*, xix, 참조. 58.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Volume 3: Printer's Manuscript of the Book of Mormon*, xviii~xix, 참조. 59. 이 번역의 시작에 대한 간략한 요약을 원한다면, *Documents, Volume 1: July 1828~June 1831*, 150~52를 참조한다. 60. 회의록, 1853년 4월 17일, 교회 역사 도서관. 61. "Two Days' Meeting at Brigham City, June 27 and 28, 1874," *Millennial Star*, Aug. 11, 1874, 498~99. 62. 회의록, 1855년 9월 30일, 교회 역사 도서관. 63. Minutes, Oct. 25~26, 1831, in *Documents, Volume 2: July 1831~January 1833*, vol. 2 of the Document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2013), 84. 64. Preface to Book of Mormon, ca. Aug. 1829, in *Documents, Volume 1: July 1828~June 1831*, 93. 또한 "세 증인의 증언", 몰몬경, 참조. 65. 조셉 스미스, 윌포드 우드럽의 일지, 1841년 11월 28일, 교회 역사 도서관; 또는 몰몬경 소개.

몰몬경 번역 과정[66]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 이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몰몬경은 기적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쳐 세상에 나왔다.[67] 조셉 스미스와 그의 서기들을 비롯하여 몰몬경 번역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의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영문으로 된 몰몬경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 있었던 많은 이야기를 알게 된다.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조셉 스미스는 1823년 9월 21일 저녁, 뉴욕 주 팔마이라에 있는 부모님 소유의 작은 통나무집 이 층에서 기도드리던 중, 자신을 모로나이라고 밝힌 한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께서 네게 시키실 일이 있다"[68] 고 전했다고 기록했다. 천사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이 대륙의 옛 주민에 관한 기사와 그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는 책이 금판에 씌어져 묻혀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 책은 스미스 가족의 농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언덕에서 발견되었다. 이 책이 그저 평범한 역사 기록이 아닌 이유는, 거기에 "구주께서 전하신 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69]이 실려 있기 때문이었다.

천사는 조셉 스미스에게 고대 언어로 기록된 그 책을 번역하라는 임무를 맡겼다. 하지만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이 어린 소년은 몰몬경에서 "개정된 애굽어"[70]라고 알려진 생소한 언어로 기록된 고대의 책을 번역하는 일은 고사하고 스스로 책을 집필할 만한 능력도 없었다. 조셉의 부인 에머는 번역을 할 당시 조셉이 "몰몬경과 같은 책을 구술하기는커녕 편지 한 장 조리 있게 쓰거나 받아쓸 수 없었다."[71]고 주장했다.

조셉은 1827년 9월에 그 판을 받았고, 이듬해 봄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에머와 조셉의 친구 마틴 해리스가 서기로 봉사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번역을 시작했다. 그 결과 리하이서라고 알려진 영문 필사본이 나왔으나 116쪽 분량의 조셉 스미스가 언급한 이 원고는 이후에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 그 때문에 조셉 스미스는 주님께 꾸지람을 들었으며 잠시 동안 번역할 능력을 잃었다.[72]

조셉은 1829년에 다시 번역을 시작했으며,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오늘날 몰몬경의 거의 모든 내용이 번역되었다. 그 석 달 동안은 버몬트 출신 학교 교사로서 팔마이라에서 조셉의 부모 집에서 하숙하다 몰몬경을 알게 된 올리버 카우드리가 그의 서기였다. 시현으로 하나님의 명을 받은 카우드리는 조셉 스미스를 만나 더 많은 것을 알아보기 위해 하모니로 왔다. 카우드리는 서기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결코 잊혀지지 않을 날들이었다—하늘의 영감 으로 말하여지는 음성을 들으며 앉아 있[었다.]"[73]

조셉 스미스가 올리버 카우드리 및 다른 서기들에게 받아 적게 한 원고는 오늘날 원고의 원본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약 28% 정도가 남아있다.[74] 이 원고는, 그가 매우 짧은 기간에 그것을 작성했으며 다른 언어로 쓰인 것을 부르고 받아 적은 것이라는 조셉 스미스의 주장을

66. 출처: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manual/gospel-topics-essays/book-of-mormon-translation?lang=kor. 67. Wilford Woodruff journal, 1841년 11월 28일, 교회 역사도서관, 솔트레이크시티. 68. 천사의 정체성에 관해서는, Karen Lynn Davidson, David J. Whittaker, Mark Ashurst-McGee, and Richard L. Jenson, eds., *Histories, Volume 1: Joseph Smith Histories, 1832–1844*, vol. 1 of the Historie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Dean C. Jessee, Ronald K. Esplin, and Richard Lyman Bushman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2), 223 n 56 참조. 69. Davidson et al., *Joseph Smith Histories*, 223; punctuation regularized; Joseph Smith, "Church History," *Times and Seasons* 3 (March 1, 1842): 706-7. 또한 조셉 스미스-역사 1:33~34참조. 70. 몰몬서 9:32. 또한 니파이전서 1:2참조. 71.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26 (Oct. 1, 1879), 290. 원본에는 강조 표시가 있음. 72. Joseph Smith History, 1838–ca. 1841, 8–11 (draft 2), in Karen Lynn Davidson, David J. Whittaker, Mark Ashurst-McGee, and Richard L. Jenson, eds., *Histories, Volume 1: Joseph Smith Histories, 1832–1844*, vol. 1 of the Historie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Dean C. Jessee, Ronald K. Esplin, and Richard Lyman Bushman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2), 252–3; available at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3:5~15. 73. Joseph Smith History, ca. summer 1832, in *Joseph Smith Histories*, 16;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in *Messenger and Advocate* 1 (Oct. 1834): 14; 원문은 이탤릭체로 되어 있음. 74. 원고의 대부분은 일리노이 주 나부의 나부 하우스 초석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1841년부터 1882년 사이 발생한 수해로 인해 훼손되거나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손실되지 않은 원고의 대부분은 이후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역사가 사무실에 보관되었다. 현존하는 원고의 원본은 *The Original Manuscript of the Book of Mormon: Typographical Facsimile of the Extant Text*, ed. Royal Skousen (Provo, UT: Foundation for Ancient Research and Mormon Studies, 2001)으로 출판되었다. 인쇄용 원고로 알려진 원본의 전체 복사본은 1829년 8월과 1830년 초반에, 올리버 카우드리와 확인되지 않은 다른 두 명의 서기들이 만들었다. 이 복사본은 팔마이라에서 인쇄된 대부분의 조판 작업에 사용되었다. 현존하는 원고의 원본은 *The Printer's Manuscript of the Book of Mormon: Typological Facsimile of the Entire Text in Two Parts*, ed. Royal Skousen (Provo, UT: Foundation for Ancient Research and Mormon Studies, 2001))으로 출판되었다. 인쇄용 원고와 원본 원고 모두 *The Joseph Smith Papers*의 장래 출판 본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Dean C. Jessee, "The Original Book of Mormon Manuscript," *BYU Studies* 10, no. 3 [Spring 1970]: 261–72; Royal Skousen, "Piecing Together the Original Manuscript," *BYU Today* 46, no. 3 [May 1992]: 18–24)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원고에는, 서기들이 다른 원고에서 옮겨 적으며 단어를 잘못 읽었다기보다는 단어들을 부정확하게 들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오류들이 포함되어 있다.[75] 게다가 원본 원고에 나타나는 몇 가지 문법적 구조에서 영어가 아니라 근동 지역 언어의 특징이 드러난다는 점은 출처가 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76]

구술을 받아 적은 대부분의 원고 초안과 달리 조셉 스미스는 원본 원고를 실질적인 완성품으로 간주했다. 올리버 카우드리가 그 책의 출판을 돕기 위해 원본 원고의 필사본을 만들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필사본이 인쇄용 원고로 알려졌다. 구술에서는 조셉 스미스가 마침표, 쉼표, 물음표 같은 구두점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본 원고에는 그 같은 표시들이 없다. 이후 인쇄용 문서를 만들 때 식자공이 구두점을 삽입했다.[77] 옮겨 적거나 받아적을 때 생긴 오류를 수정하려고 구두점을 넣고, 판형 및 다른 조판 요소들을 조절하고, 소소한 사항을 정정해서 나온 수정본을 제외하면 그 구술 필사본이 몰몬경 초판의 본문이라 할 수 있다.[78]

번역 도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전하셨던 일화들이 등장한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바람이나 불, 지진을 통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79] 을 통해 말씀하심을 알았다. 바울을 비롯한 초기 사도들은 때때로 천사들과 대화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야기할 때도 있었다. [80]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베드로에게 계시가 주어진 것처럼 꿈이나 시현의 형태로 오는 계시도 있었고, 우림과 둠밈같은 성스러운 물체를 통해 오는 계시도 있었다.[81]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서도 두드러지는 사람이었던 이유는, 수백만 사람들의 신학적 이해를 심화하고 확장하는 교리를 담은 500쪽 이상의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언어로 번역하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이 기념비적인 임무를 돕는데, 하나님께서는 부수적으로 어떤 형태가 있는 도구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셨다.

조셉 스미스와 서기들은 몰몬경을 번역할 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했다고 기록했다. 조셉이 이 도구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경전 말씀이 영어로 보였다고 번역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은 전했다. 몰몬경에 "해석기"라고 언급된 한 도구는 오늘날 후기 성도들에게는 "우림과 둠밈"으로 더 유명하다. 조셉은 판과 함께 언덕에 묻혀 있던 해석기를 찾았다.[82] 해석기를 본 사람들은 그것을 금속 틀에 박힌 투명한 돌 한쌍으로 묘사했다. 몰몬경에는, 이 도구가 놋쇠판과 함께 "주의 손으로 지켜지고 보존되어 온" 방편으로서 "언어를 해석할 목적으로,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다.]"고 언급돼 있다.[83]

---

75. 예를 들어, 조셉이 현재 니파이전서 13장 29절의 원문을 번역할 당시 서기가 "an"이라고 적었어야 할 부분 중 한 곳을 ""으로 적었다. 니파이전서 17장 48절에서 서기는 "reed(갈대)"라고 적었어야 할 부분을 "weed(잡초)"라고 적었다. (Royal Skousen, "Translating the Book of Mormon: Evidence from the Original Manuscript," in Noel B. Reynolds, ed., *Book of Mormon Authorship Revisited: The Evidence for Ancient Origins* [Provo, UT: Foundation for Ancient Research and Mormon Studies, 1997], 67; 또한 Grant Hardy, "Introduction," in *The Book of Mormon: The Earliest Text*, ed. Royal Skouse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xv~xix 참조)
76. John A. Tvedtnes, "Hebraisms in the Book of Mormon" 그리고 "Names of People: Book of Mormon," in Geoffrey Kahn, ed.,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Brill Online, 2013); M. Deloy Pack, "Hebraisms," in *Book of Mormon Reference Companion*, ed. Dennis L. Largey (Salt Lake City: Deseret Book, 2003), 321~25; John A. Tvedtnes, "The Hebrew Background of the Book of Mormon," in John L. Sorenson and Melvin J. Thorne, eds., (Salt Lake City and Provo, UT: Deseret Book and Foundation for Ancient Research and Mormon Studies, 1991), 77~91; Donald W. Parry, "Hebraisms and Other Ancient Peculiarities in the Book of Mormon," in Donald W. Parry and others, eds., *Rediscovering the Book of Mormon* (Provo, UT: Foundation for Ancient Research and Mormon Studies, 2002), 155~89.*Echoes and Evidences of the Book of Mormon* 77. 식자공 존 길버트에 역할에 관한 내용은, Royal Skousen, "John Gilbert's 1892 Account of the 1830 Printing of the Book of Mormon," in Stephen D. Ricks and others, eds., *The Disciple as Witness: Essays on Latter-day Saint History and Doctrine in Honor of Richard Lloyd Anderson* (Provo, UT: Foundation for Ancient Research and Mormon Studies, 2000), 383~405 참조. 78.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에게 어색하게 들리는 일부 문법 구조는 현재 통용되는 표준 영어에 맞추어 번역하기 위해 조셉 스미스 혹은 다른 사람들이 펴낸 몰몬경의 이후 판에서는 수정되었다. Richard E. Turley Jr. and William W. Slaughter, *How We Got the Book of Mormon* (Salt Lake City: Deseret Book, 2011), 44~45 참조. 1830년 몰몬경 초판 중 6분의 5 가량은 인쇄용 원고로 조판했다. 나머지 6분의 1은 원고 원본으로 조판했다. (Royal Skousen, "Editor's Preface," in *The Book of Mormon: The Earliest Text*, xxx.) 79. 열왕기상 19:11~12.
80. 사도행전 9:1~8; 12:7~9. 81. 사도행전 11:4~17; 16:9~10; 출애굽기 28:30; 레위기 8:8; 민수기 21:9. 82. Michael Hubbard MacKay, Gerrit J. Dirkmaat, Grand Underwood, Robert J. Woodford, and William G. Hartley, eds., *Documents, Volume 1: July 1828~June 1831*, vol. 1 of the Document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Dean C. Jessee, Ronald K. Esplin, Richard Lyman Bushman, and Matthew J. Grow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3), xxix.
83. 모사이야서 28:14~15, 20; 또한 모사이야서 8:13, 19; 이더서 4:5참조 조셉 스미스는 교회 초창기에 "해석기"와 "안경"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했던 것 같다. 감리교 순회 설교자인 낸시 토울의 회고에 따르면 조셉 스미스가 그녀에게 안경과 비슷한 "해석기' 한 쌍(그가 언급한 대로라면)을 언급했는데, 그것을 쓰면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새겨진 판을 읽을 수 있다"고 했다. (Nancy Towle, *Vicissitudes Illustrated in the Experience of Nancy Towle, in Europe and America* [Charleston: James L. Burges, 1832], 138-39) 조셉의 1832년 역사에서 "안경"을 언급하고 있다. (Joseph Smith History, ca. summer 1832, in *Joseph Smith Histories*, 16) 1833년 1월, 윌리엄 더블유 펠프스가 편집한 후기 성도 신문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에는 "안경"과 "해석기"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용어와 동일시되었다. 몰몬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학식이 없는 자에 의해, 해석기, 즉 안경(고대에 알려진 바로는 테라핌이나 우림과 둠밈)의 도움으로 번역되었다." ("The Book of Mormon," *The Evening and the Morning Star*, January 1833, [2]) 1835년까지 조셉 스미스는 번역에 대해 말씀할 때 "우림과 둠밈"이라는 용어를 가장 자주 사용했으며, 드물게 "해석기" 또는 "안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in *Journals: Volume 1: 1832-1839*, 89; Joseph Smith, History, 1834-1836, in Davidson et al., *Histories, Volume 1*, 116; John W. Welch, "The Miraculous Translation of the Book of Mormon," in John W. Welch, ed., with Erick B. Carlson, [Provo, UT, and Salt Lake City: Brigham Young University Press and Deseret Book, 2005], 123-28.) *Opening the Heavens: Accounts of Divine Manifestations, 1820~1844*

다른 하나는 조셉 스미스가 금판을 받기 수년 전 땅에서 발견한 것으로, 작은 타원형 모양인 "선견자의 돌"[84] 이었다. 1820년대 젊은이였던 조셉 스미스는 당시의 여느 젊은이처럼 잃어버린 물건이나 묻혀 있는 보물을 찾는데 선견자의 돌을 사용했다.[85] 조셉은 성장하여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부름을 이해하자 경전을 번역하는 더 숭고한 목적을 위해 이 돌을 사용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86]

편의상 조셉 스미스는 두 개의 돌이 서로 엮인 해석기보다는 선견자의 돌만 가지고 번역할 때가 많았던 것 같다. 일견, 이 두 가지 도구, 즉 해석기와 선견자의 돌은 서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었고 기능도 차이가 없어서 조셉 스미스와 서기들은 해석기뿐 아니라 선견자의 돌을 지칭하는 데에도 "우림과 둠밈"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87]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들은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때 우림과 둠밈의 도움을 받았다. 논평자들은 이 도구의 본질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여러 고대 자료에 의하면 해석기는 빛이 나거나 신의 힘으로 빛을 발하는 돌을 포함한다고 기록되어 있다.[88] 후기 성도들은 이후 "우림과 둠밈"만이 해석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하게 됐다. 하지만 조셉 스미스와 서기들은 구체적인 도구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신성한 계시를 얻기 위한 도구를 나타내는 범주로서 이 용어를 이해했던 것 같다.

신성한 번역 과정에 사용된 실제 도구들에 대한 이 같은 주장을 무시하는 사람도 일부 있으나 하나님의 권능과 영감을 얻기 위한 소통을 수월하게 하는 데 쓰이는 이런 보조 도구들은 경전에 언급된 내용과 일관성이 있다. 성경에는 우림과 둠밈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 사용한 다른 외형적 도구들로 아론의 지팡이, 놋뱀, 거룩한 관유, 언약궤, 심지어 맹인의 눈을 고치는 데 쓰인 침과 섞인 땅의 흙까지 언급되어 있다.[89]

번역 기법

1830년 판 몰몬경 서문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적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이 책]을 번역했 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번역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받은 조셉은 거듭 그 과정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90] 으로 이루어졌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한번은 이렇게 덧붙였다. "몰몬경의 출현에 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세상에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91]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기들을 비롯해 번역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그 과정을 통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많은 기록을 남겼다. 일부 기록에서는 조셉이 그 판의 문자들을 연구했음이 드러난다. 대부분 기록에서 조셉이 우림과 둠밈(해석기나 선견자의 돌 중 한 가지)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그가 선견자의 돌을 사용했다고 언급하는 기록도 많다. 이런 기록들에 따르면, 조셉은 해석기 또는 선견자의 돌을 모자 안에 넣고 외부의 빛을 차단하기 위해 모자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고서 그 도구에 나타나는 영어로 된 말을 소리내어 읽었다고 한다.[92] 이렇게 묘사된 과정을 살펴보면 몰몬경에서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비출 돌 하나"[93]를 예비했다고 하신 구절이 연상된다.

번역을 도왔던 서기들은 조셉이 하늘로부터 온 권능으로 번역했음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 조셉의 부인 에머는 자신이 펜실베이니아 하모니에 있는 자택의 작은 탁자에서 "며칠 동안

84. 조셉 스미스는 1822년경 우물을 파면서 선견자의 돌 하나를 찾았기 때문에 선견자의 돌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Richard L. Bushman, *Joseph Smith and the Beginnings of Mormonism* [Urban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69~70) 85. 마틴 해리스가 말한 바로는 한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1826년까지 하던 활동들을 중단하라고 명했다고 한다. (Bushman, *Joseph Smith and the Beginnings of Mormonism*, 64~76; and Richard Lloyd Anderson, "The Mature Joseph Smith and Treasure Searching," *BYU Studies* 24, no. 4 [Fall 1984]: 489~560 참조.) 조셉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초기에 보물을 찾아 나서는 일에 개입했던 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1838년에 그는 그에 대해 자주 회자되었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모아 출판했다. 한 질문은 이러했다. "조셉 스미스는 돈을 좇는 사람인가?" 조셉 스미스는 그 말이 맞지만, 그 일로 매우 큰 이윤을 보지는 않았으며, 고작 한 달에 14달러 정도를 벌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Elders' Journal*, July 1838, 43, available at josephsmithpapers.org 중에서.) 더 다양한 문화적 맥락을 보려면, Alan Taylor, "The Early Republic's Supernatural Economy: Treasure Seeking in the American Northeast, 1780~1830," *American Quarterly* 38, no. 1 (Spring 1986): 6~33 참조. 86. Mark Ashurst-McGee, "A Pathway to Prophethood: Joseph Smith Junior as Rodsman, Village Seer, and Judeo-Christian Prophet," (Master's Thesis, Utah State University, 2000). 87. 예를 들어, 1841년 말에 조셉 스미스가 윌포드 우드럽에게 선견자의 돌을 보여주었을 때, 우드럽은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우림과 둠밈을 목격하는 특권을 가졌다." (Wilford Woodruff journal, Dec. 27, 1841,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또한 교리와 성약 130:10참조. 88. Cornelius Van Dam, *The Urim and Thummim: A Means of Revelation in Ancient Israel*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7), 9~26. 89. 출애굽기 7:9~12; 30:25; 40:9; 레위기 8:10~12; 민수기 21:9; 여호수아 3:6~8; 요한복음 9:6. 90. 몰몬경 서문, 1830년 판. 91. Minutes, Church conference, Orange, OH, Oct. 25~26, 1831, in Minute Book 2,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josephsmithpapers.org에서 볼 수 있음; Welch, "Miraculous Translation," 121~9. 92. 번역 과정에 관한 거의 모든 일화를 "Miraculous Translation"로 재편한 것은 웰치에서였다.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은 선견자의 돌을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번역 과정에 관한 두 가지 일화를 기록하여 교회 잡지로 출판했다. 또한, 역사가들은 선견자의 돌에 대해 교회 출판물, 즉 *Ensign* 과 *The Joseph Smith Papers* 양쪽에 모두 기록했다. (Neal A. Maxwell, "'By the Gift and Power of God,'" *Ensign*, Jan. 1997, 36~41; Russell M. Nelson, "A Treasured Testament," *Ensign*, July 1993, 61~63; Richard Lloyd Anderson, "'By the Gift and Power of God,'" Sept. 1977, 78~85; and *Ensign*, xxix~xxxii 참조.) *Documents, Volume 1: July 1828~June 1831.* 93. 앨마서 37:23~24

받아 적은 적이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에머는 조셉이 "앉은 채로 돌이 든 자신의 모자에 얼굴을 묻고 몇 시간 동안 구술했으며, 아무것도 그들을 방해하지 않았다."[94] 고 당시를 묘사했다. 에머는 판을 "숨기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조그만 면 식탁보에 싸서 탁자 위에 둔 적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또한, 조셉이 성경이나 그전에 준비해 둔 다른 원고를 읽은 것이 아닌지 질문받자, "그는 보고 읽을 원고나 책이 전혀 없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에머는 아들 조셉 스미스 삼세에게 이렇게 말했다. "몰몬경은 하늘이 증거한 진실이 담긴 책이다. 나는 그걸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누구도 영감 받지 않고서는 그 원고에 적힌 것을 읽을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서기였을 때 네 아버지는 내게 몇 시간 동안 구술을 했다. 식사를 하거나 잠시 중단했다가 돌아온 후에도 아버지는 원고를 살펴보거나 원고의 일부를 읽어달라고 하지 않고도 중단했던 부분부터 바로 시작하곤 하셨단다."[95]

다른 서기인 마틴 해리스는 조셉 스미스와 마주 보고 앉아서 조셉이 불러 주는 말을 받아 적곤 했다. 이후에 해리스는 조셉이 번역을 할 때 선견자의 돌을 사용하면 문장들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셉은 나타나는 문장들을 소리 내어 읽었고, 그 말을 받아 적은 해리스는 "적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해리스와 대담을 나눈 한 동료는 조셉이 "선견자의 돌을 가지고 있었으며, 우림과 둠밈뿐 아니라 그 돌로도 번역을 할 수 있었고, 편의상 당시에는 선견자의 돌을 사용했다."[96]고 기록했다.

가장 많이 서기로 일했던 올리버 카우드리는 1831년 법정 선서에서 조셉 스미스가 "책으로 번역한 판들과 함께 은테에 나비 모양으로 물린 유리와 비슷한 투명한 돌 두 개를 찾았으며, 이 돌들을 들여다보면 판 위에 새겨진 개정된 애굽어 철자들을 영어로 읽을 수 있었다."[97] 고 증언했다. 1830년 가을에 카우드리는 오하이오의 유니언 빌리지를 방문해 몰몬경 번역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얼마 뒤 유니언 빌리지의 한 주민은 "번역자가 판에 새겨진 글을 들여다보도록 안경처럼 생긴 두 개의 투명한 돌"[98]을 사용하여 번역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결론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몰몬경을 번역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그의 서기들도 같은 간증을 했다. 고대의 기록이 새겨진 금속판이 언덕에 묻혀있다고 전한 천사, 그리고 조셉 스미스가 번역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늘로부터 마련된 도구 등도 모두 조셉과 서기들이 번역의 기적으로 여긴 것들의 일부였다. 1832년에 처음으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게 된 조셉은 서두에서 "그의 놀라운 경험의 일화"[99] 를 포함하겠다고 약속한다. 몰몬경 번역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오늘날에도 몰몬경의 참됨과 그 신성한 근원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 책을 읽고, 주의 자비로우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혹 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라고 권면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100]고 약속하셨다.

94.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26 (Oct. 1, 1879), 289~290. 일부 외부 보고 자료들도 번역 작업 동안 모자 안에 넣어 두었던 그 안경에 대해 설명한다. 팔마이라 신문은 1829년 8월에 번역에 관한 잘 알려진 초기 일화를 게재했다. 팔마이라의 인쇄업자로 조셉 스미스와 번역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조너선 해들리는 판들은 "커다란 안경"과 함께 발견되었으며 "그 안경을 모자 속에 넣고 판을 보면, 스미스 씨는 이 문자들을 번역할 수 있었다.(적어도 스미스 씨는 그렇게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Golden Bible," *Palmyra Freeman*, Aug. 11, 1829, [2]) 1831년 겨울에 오하이오 주의 쉐이커 공동체 마을 주민 한 명이 "안경의 형태를 띤 두 개의 투명한 돌"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번역자는 그것을 통해 "새겨진 문자들을 본 후 모자에 얼굴을 파묻으면 번역이 마음속에 떠오른다."라고 말했다. (Christian Goodwillie, "Shaker Richard McNemar: The Earliest Book of Mormon Reviewer," *Journal of Mormon History* 37, no. 2 [Spring 2011]: 143) 95.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289~90. 96. "One of the Three Witnesses," *Deseret Evening News*, Dec. 13, 1881, 4. 여기에서 마틴 해리스는 판과 함께 발견된 해석기를 지칭하는 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97. A. W. B., "Mormonites," *Evangelical Magazine and Gospel Advocate* 2 (Apr. 19, 1831): 120. 98. Goodwillie, "Shaker Richard McNemar," 143. 세 목격자 중 한 사람이 번역에 관해 추가로 설명한 내용을 보려면 *David Whitmer Interviews: A Restoration Witness*, ed. Lyndon W. Cook (Orem, UT: Grandin Book, 1991) 참조. 99. Joseph Smith History, ca. Summer 1832, 1, in *Histories, Volume 1, 1832~1844*, 10; josephsmithpapers.org에서 볼 수 있음. 맞춤법을 현대화했음. 100. 모로나이서 10:3~5

몰몬경 번역의 역사적 배경[101]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고대 기록을 번역해 몰몬경을 출판했다. 주로 에머 스미스와 마틴 해리스가 서기를 맡아 작업했던 초기 번역의 원고는 1828년에 분실되었다. 현재의 몰몬경 본문 대부분은 1829년 4월부터 그해 6월까지 3개월 동안 번역되었으며, 이때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서기로 일했다. 조셉 스미스와 그의 서기들을 비롯하여 몰몬경 번역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면 영문판 몰몬경 출현에 관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올리버 카우드리와 다른 사람들이 조셉 스미스가 구술한 것을 받아 적은 원고는 오늘날 원본 원고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28% 정도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이 원고는 조셉이 짧은 기간 내에 다른 언어로 된 기록을 번역하여 구술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예를 들어, 이 원고에서는 서기가 다른 원고를 옮겨 적다가 단어들을 잘못 읽었다기보다는 단어들을 잘못 들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오류들이 발견된다. 게다가 원본 원고에 나타나는 몇 가지 문법적 구조에서 영어가 아니라 근동 지역 언어의 특징이 드러난다는 점은 출처가 되는 언어가 영어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102]

조셉 스미스와 서기들은 조셉 스미스가 몰몬경을 번역할 때 두 가지 도구를 사용했다고 기록했다. 그중 하나는 몰몬경에 "해석기"라고 언급된 도구로, 오늘날 후기 성도들에게는 "우림과 둠밈"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해석기는 조셉이 판을 찾아낸 그 산에 함께 묻혀 있었다. 다른 도구 하나는 조셉이 판을 꺼내 오기 수년 전에 땅속에서 발견한 것으로, "선견자의 돌"이라고 하는 타원형의 작은 돌이었다. 1820년대에 청년이었던 조셉은 당시 사람들이 그랬듯이 잃어버린 물건이나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선견자의 돌을 사용했다. 조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부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돌을 더욱 고귀한 목적, 즉 경전을 번역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03]

서기들을 비롯해 그 번역 작업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 과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일부 기록에서는 조셉이 그 판의 문자들을 연구했음이 드러난다. 대부분 기록에는 조셉이 해석기나 선견자의 돌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다. 그런 기록들에 따르면, 조셉은 해석기 또는 선견자의 돌을 모자 안에 넣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기 위해 모자 속에 자신의 얼굴을 파묻고서 그 도구에 나타나는 영어로 된 말을 소리 내어 읽었다고 한다. 이런 과정은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비출 돌 하나"를 예비하셨다고 나오는 몰몬경 구절을 상기시킨다.[104]

번역을 도왔던 서기들은 조셉이 하늘로부터 온 권능으로 번역했음을 의심 없이 믿었다. 조셉의 아내 에머는 몰몬경의 글이 남편의 문장력을 넘어선다고 여겼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1831년 법정 선서에서 조셉이 "책으로 번역한 판들과 함께 은테에 나비 모양으로 물린 유리 같은 투명한 돌 두 개를 찾았으며, 이 돌들을 들여다보고 판 위에 새겨진 개정된 애굽어 문자를 영어로 바꾸어 읽었다."라고 증언했다.[105]

번역 과정에서 생겨난 질문들은 수많은 초기 계시들을 낳아 현재 교리와 성약에 기록되어 있으며, 신권의 회복과 같은 중요한 사건으로 이어졌다. 몰몬경은 1830년 봄, 교회가 조직되기 바로 직전에 번역되고 출판되었다.

---

101. 출처: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history/topics/book-of-mormon-translation?lang=kor. 102. 예를 들어, 조셉이 니파이전서 13장 29절을 번역할 때, 서기는 영어 단어 "an"을 적어야 하는 곳에 ""을 적었다. 또한, 니파이전서 17장 48절에서 갈대를 뜻하는 "reed"라고 기록해야 하는 곳에 "weed"(잡초)라고 기록했다.(Royal Skousen, "Translating the Book of Mormon: Evidence from the Original Manuscript," in Noel B. Reynolds, ed., *Book of Mormon Authorship Revisited: The Evidence for Ancient Origins* [Provo, Utah: Foundation for Ancient Research and Mormon Studies, 1997], 67; see also Grant Hardy, "Introduction," in *The Book of Mormon: The Earliest Text*, ed. Royal Skousen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2009], xv–xix) 103. 마틴 해리스에 따르면, 한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1826년까지 했던 이러한 일들을 중단하도록 명했다고 한다. 조셉은 알려진 바와 같이 초기에 보물을 찾는 일에 참여했으며,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1838년에 그는 자신에 관해 자주 거론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모아 출판했다. 한 질문은 이러했다. "조셉 스미스는 보물 사냥꾼이었는가?" 조셉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수익성 있는 사업은 아니었다. 그 일로 번 돈은 고작 한 달에 14달러에 불과했다."("Elders' Journal, vol. 1, no. 3, July 1838," 43, josephsmithpapers.org; see also Richard L. Bushman, *Joseph Smith and the Beginnings of Mormonism*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4], 64–76; Alan Taylor, "The Early Republic's Supernatural Economy: Treasure Seeking in the American Northeast, 1780–1830," *American Quarterly*, vol. 38, no. 1 [Spring 1986], 6–34; Mark Ashurst-McGee, "A Pathway to Prophethood: Joseph Smith Junior as Rodsman, Village Seer, and Judeo-Christian Prophet" [master's thesis, Utah State University, 2000]). 104. 앨마서 37:23. 조셉 스미스는 아마도 선견자의 돌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으며, 그중 하나는 1822년경 우물을 파다가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Bushman, *Joseph Smith and the Beginnings of Mormonism*, 69–70) 105. A. W. B., "Mormonites," *Evangelical Magazine and Gospel Advocate*, vol. 2 (Apr. 19, 1831), 120;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vol. 26, no. 19 (Oct. 1, 1879), 1–2.

몰몬경의 증인들[106]

몰몬경 초판에는 두 가지 증언이 나와 있다. 하나는 세 증인의 기록이고, 또 하나는 여덟 증인의 기록이다. 세 증인(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 마틴 해리스)은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들에게 나타나 몰몬경 판을 보여 주었으며, 자신들은 조셉 스미스의 번역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성취되었음을 표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 일은 1829년 6월, 뉴욕 페이에트에 있는 피터 휘트머 일세의 집 근처에서 일어났다. 또 다른 여덟 증인은(스미스 가족 및 휘트머 가족들)[107] 조셉 스미스가 자신들에게 판을 보여 주며 한 사람씩 이 고대 유물을 "들어 보고" 그 새겨진 것을 살펴보게 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 판과 관련해 직접 경험을 했거나 조셉 스미스가 번역한 몰몬경을 다른 식으로 목격한 이들이 몇몇 더 있었다.[108]

판의 다른 증인들

스미스 가족들은 조셉이 적들을 피해 판을 숨기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도왔던 일을 회고했다. 조셉의 여동생 캐더린은 판을 천으로 싸서 탁자 위로 옮기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웠다고 남편에게 훗날 말했다. 조셉의 동생 윌리엄은 조셉이 자루에 담긴 판을 나르는 것을 가족 모두가 보았고, 그 형태가 자루의 천을 통해 드러났다고 말했다. 조셉의 아내 에머는 판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판의 가장자리를 만져 보았으며, 낱장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아들에게 말했다. 오하이오에서 루시 맥 스미스의 이웃에 살던 세라 브래드퍼드 파커는 루시에게 판을 보았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루시는 "판을 보지는 못했지만 손으로 만지고 들어 보았다"라고 대답했다고 파커는 전했다.[109] 또한, 데이비드 휘트머와 존 시 휘트머는 1877년부터 1888년 사이에 몇 차례 인터뷰를 통해 천사가 자신의 어머니 메리 휘트머에게 나타나 판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110]

세 증인의 신뢰성

여덟 증인의 증언이 판의 실재를 강조한 것이라면, 세 증인은 자신들이 증인으로서 했던 경험과 번역 그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임 또한 지고 있었다. 1829년 6월, 세 증인들은 판을 증거하는 것에 관하여 계시를 통해 구체적인 가르침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다. "또 너희는 실로 나의 종 조셉 스미스 2세가 그것들을 보았던 것같이 너희가 그것들을 보았음을 증언할지니, 이는 그가 그것들을 보았음이 나의 권능에 의한 것임이요 또 이는 그가 신앙을 가졌던 연고임이라."[111] 따라서 데이비드 휘트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그 판을 보았다고 간증했다.

1838년, 교회에 반감을 품은 스티븐 버넷이라는 한 회원은 마틴 해리스가 "육신의 눈으로" 그 판을 보았음을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버넷은 계시에 나온 말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본다는 것은 증인들이 "시현이나 상상 속에서"만 판을 본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이 왜곡되었다고 느낀 해리스는 즉시 자신이 예전에 했던 말을 명확하게 해명하려 했다. 초월적인 경험을 말로 설명하려 고심하며 애쓰는 가운데 그는 버넷의 표현을 빌자면 "산 너머에 있는 도시를 투시해서 보는" 것처럼 판을 보았다고 말했다.[112]

해리스가 살던 시대에는 육신의 감각으로 신성한 것을 지각하는 것은 위험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믿는 기독교인이 많았는데, 이는 성경 속 이야기에서 기인했다. 예를 들어, 구약에서

106. 출처: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history/topics/witnesses-of-the-book-of-mormon?lang=kor. 107. "Appendix 4: Testimony of Three Witnesses, Late June 1829," josephsmithpapers.org; "Appendix 5: Testimony of Eight Witnesses, Late June 1829," josephsmithpapers.org. 또한 Joseph Smith, "History, 1838–1856, volume A-1 [23 December 1805–30 August 1834]," 24–26, josephsmithpapers.org 참조. 여덟 증인은 크리스찬 휘트머, 제이콥 휘트머, 피터 휘트머 2세, 존 휘트머, 하이럼 페이지, 조셉 스미스 일세, 하이럼 스미스, 사무엘 에이치 스미스이다. 108. 번역 과정에 관한 증인들의 기록을 보려면 다음을 참조한다. "Book of Mormon Translation," Gospel Topics Essays, topics.lds.org. 109. Janiece L. Johnson, "'The Scriptures Is a Fulfilling': Sally Parker's Weave," *BYU Studies*, vol. 44, no. 2 (2005), 116; spelling modernized. 110. See Edward Stevenson, "The Thirteenth Witness to the Plates of the Book of Mormon," *Juvenile Instructor*, vol. 24 (Jan. 1, 1889), 22–23; Andrew Jenson, *Historical Record*, vol. 7, nos. 8–10 (Oct. 1888), 621. 111. "Revelation, June 1829–E [DC 17]," in Revelation Book 2, 119–20, josephsmithpapers.org. 112. Stephen Burnett letter to Lyman Johnson, Apr. 15, 1838, in Letterbook 2, 64, josephsmithpapers.org.

합당한 권세 없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파멸되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 보통 휘장이나 연기구름 뒤에 숨어 계셨다.[113] 마찬가지로, 조셉 스미스가 초기에 받은 계시 중 하나에도 인간이 "육에 속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면 소멸할 수밖에 없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변형되거나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114]

마틴 해리스는 천사와 고대 기록에 관하여 증인들이 했던 경험이 조셉 스미스의 시현과 비슷한 신성한 경험이라고 여겼다. 경전 속의 준엄한 경고를 알고 있었던 그는 판을 목격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부적합하다고 느꼈는지를 자주 이야기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그 특별한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을 동원했다. 정말로 판을 보았는지 분명히 밝혀 달라는 여러 사람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그 경험의 특별하고 신성한 특성을 강조하며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도 보았다고 이야기했다.[115]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그곳에 서서 나를 보는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나는 금판을 손에 든 천사를 보았습니다."[116] 데이비드 휘트머 역시 증인들이 영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 둘 다를 통해 그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아무도 천사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며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육신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웠습니다."[117]

세 증인 모두 자신들의 경험에 관해 진술문, 인터뷰 및 개인적인 대화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간증했다. 증인들의 모든 기록이 신뢰할 만한 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기록들은 증인들의 증언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인터뷰를 통해 만든 결과물이었다. 증언한 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이 흐른 뒤에 기록된 것들도 있었다. 그들의 진술이 담긴 기록들은 몇 가지 세부 사항에서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관되며, 계시에 나온 가르침을 거의 충실히 따르고 있다.[118]

조셉 스미스와의 의견 차이로 결국 세 명의 증인 모두 각자 교회를 떠나게 되었지만(카우드리와 해리스는 나중에 돌아왔음), 그들은 일생 동안 증인으로서 자신들이 했던 증언을 고수했다.[119] 여덟 증인 중에도 나중에는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도 있지만, 판을 살펴보았다는 증언을 재차 확언했다. 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발표한 수많은 진술은 조셉 스미스와 교회에 대한 그들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몰몬경에 게재된 그들의 진술의 신뢰성에 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

세 증인의 경험[120]

그 일이 있고 나서 50년도 더 지난 후에 데이비드 휘트머는 자신이 어떻게 몰몬경에 대해 처음 듣게 되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나는 [1828년에] 뉴욕 주 팔마이라로 사업차 여행을 갔으며, 그곳에 있는 동안 올리버 카우드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그 인근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셉 스미스 2세라고 하는 그 지역의 청년이 어떤 금판을 발견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카우드리와 나 역시 그 일에 관해 이야기했다." 23세의 휘트머와 22세의 카우드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들은 금세 친구가 되었다.

113. 사무엘상 6:19~20; 출애굽기 19:7~24 참조. 114. 모세서 1:11; 교리와 성약 67:11. 또한 이더서 12:19 참조. 115. John Gilbert statement in "Mormon Leaders at Their Mecca," *New York Herald*, June 25, 1893, 12. Elizabeth Mott, "The Forbidden Gaze: The Veiling of the Gold Plates and Joseph Smith's Redefinition of Sacred Space," Neal A. Maxwell Institute, Summer Seminar on Mormon Culture, Working Papers, 2011 참조. 116. Ole A. Jensen, quoted in J. M. Sjodahl, "The Credibility of the Witnesses," *Improvement Era*, vol. 26, no. 11 (Sept. 1923), 975. 올레 에이 젠슨은 1875년에 해리스를 인터뷰했다. 117. "Letter of David Whitmer to Anthony Metcalf, March 1887," in *David Whitmer Interviews: A Restoration Witness*, Lyndon W. Cook, ed. (Orem, Utah: Grandin Books, 1991): 246~7. 118. 데이비드 휘트머의 인터뷰 기록을 보려면 다음을 참조한다. Lyndon W. Cook, ed., *David Whitmer Interviews: A Restoration Witness* (Orem, Utah: Grandin Book, 1991). 마틴 해리스 인터뷰의 몇 가지 예를 보려면 다음을 참조한다.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vol. 5 (Aug. 1859), 163~70; "Martin Harris and the Book of Mormon," *Improvement Era*, vol. 26, no. 10 (Sept. 1923), 980~81; "A Witness to the Book of Mormon," *Iowa State Register*, Aug. 28, 1870; John A. Clark, "Gleanings by the Way: No. VII," *Episcopal Recorder*, vol. 18, no. 25 (Sept. 12, 1840), 98~99; John H. Gilbert, "Memorandum, made by John H. Gilbert Esq, Sept. 8th, 1892 Palmyra, N.Y.,"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119. 올리버 카우드리는 1838년에 파문되었고, 마틴 해리스는 1837년에 파문되었으며, 데이비드 휘트머는 1838년에 교회를 떠났다. 카우드리는 1848년에 재침례받았으며, 해리스는 1870년에 재침례받았다. 120. 출처: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manual/revelations-in-context/the-experience-of-the-three-witnesses?lang=kor.

휘트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카우드리는 자신이 스미스 가족을 안다고 말하며 그 판의 기사에는 어떤 진리가 담겨 있음이 분명하므로 그것에 대해 조사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휘트머가 팔마이라까지 한 번 이상 왔음을 암시하는 대목인데, 휘트머는 자신이 직접 조사를 하며 "조셉 스미스가 확실히 금판을 가졌다고 말한 몇몇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매우 확신 있게 그 말을 했으므로 당시에 그 이야기가 유포되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음이 틀림없다고 믿게 되었다."[121]

뉴욕 주 페이에트 군구(팔마이라 남동쪽으로 약 48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의 농부인 휘트머와 최근에 하이럼 스미스를 비롯한 학교 이사들이 맨체스터 지역에서 가르치도록 고용한 버몬트 출신의 카우드리는 각자 자신이 알아낸 정보를 계속 서로 주고받기로 했다. 이 시기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당시에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에서 아내 에머와 함께 살고 있던 조셉 스미스를 만난 적이 없었다.

카우드리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는 조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의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카우드리는 그 가족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다. 루시는 카우드리가 "이내 우리 집 주인 양반에게 그 주제[금판]에 관해 이야기해 달라고 집요하게 조르기 시작했으나, 상당한 시간 동안 어떠한 정보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남편의 신뢰를 얻어 판에 관한 개략적인 사실을 알아내기에 이르렀다."

조셉 일세와의 대화는 카우드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스미스 가족에게 "그 주제는 저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합니다"라고 말했다. "저는 그 주제로 기도했으며, 제가 [하모니로 가서 번역을 하는 조셉을 돕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굳게 믿습니다."[122]

카우드리는 또한 이 소식을 휘트머에게 (편지로 분명하게) 알렸다. 휘트머는 "카우드리가 자신이 펜실베이니아의 하모니로 가서 그 점에 관해 그[조셉 스미스]를 만나보겠다고 내게 말했다"고 기록했다. "그는 정말로 갔으며, 도중에 내 부친의 집에 들러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아내는 대로 나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1829년 4월 7일에 번역 작업을 시작했으며, 그다음 8주 동안 집중적으로 일했다. 그 시기에 카우드리는 휘트머에게 보내는 세 차례의 편지에서 번역 과정을 이야기하고 몰몬경의 내용에 관한 특정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휘트머는 "카우드리가 나에게 그런 내용을 써서 보내고 자신이 그것의 참됨에 관한 지식을 밝혀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 편지들을 나의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회상했다.[123]

카우드리는 마지막 편지에서 휘트머에게 하모니로 와서 그 두 사람이 휘트머 집으로 이사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나는 약 8헥타르의 농토를 쟁기로 갈아야 했다"고 휘트머는 기록했다. "그래서 땅을 먼저 갈아놓고 나서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다음 날 아침에 일어난 그는 자신의 땅 중 2내지 3헥타르가 밤 사이에 갈려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누가 그 농지를 갈았는지 묻자, 휘트머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갈려 있었다는 것 밖에는 모릅니다. 조셉에게 가는 일정을 연기할 만한 용무가 없어졌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었죠. 저는 말과 마차를 준비해서 펜실베이니아로 출발했습니다."[124]

6월 초순에 뉴욕으로 이사한 조셉과 그의 서기들은 한 달 내로 몰몬경 번역을 마쳤다. 그즈음에 번역이 거의 끝나간다는 전갈을 받은 조셉의 부모와 마틴 해리스가 팔마이라에서 왔다.[125]

루시 맥 스미스는 해리스가 번역의 진척 상황에 대해 들었을 때 "몹시 기뻐했다"고 기록했다.[126] 해리스가 카우드리와 휘트머를 아마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였겠지만 이제 그 세 사람은

121. David Whitmer, interview with the *Kansas City Journal*, June 1, 1881, cited in Lyndon Cook, ed., *David Whitmer Interviews: A Restoration Witness* (Orem, UT: Grandin Book, 1991), 60. 122. Lucy Mack Smith, *Biographical Sketches of Joseph Smith the Prophet and His Progenitors for Many Generations* (Liverpool, England: S. W. Richards, 1853), 129. 123. David Whitmer, interview with the *Kansas City Journal*, June 1, 1881, in Lyndon Cook, ed., *David Whitmer Interviews: A Restoration Witness* (Orem, UT: Grandin Book, 1991), 61. 124. David Whitmer, interviews with Orson Pratt and Joseph F. Smith, September 1878, in Lyndon Cook, ed., *David Whitmer Interviews: A Restoration Witness* (Orem, UT: Grandin Book, 1991), 41, 51. 125. "마틴 해리스의 기고"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마틴은 오랫동안 몰몬경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웃 주민들의 박해로 조셉 일세와 루시의 집에서 살던 조셉과 에머가 하모니로 옮겨가야 했을 때(1827년 후반), 마틴은 이사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조셉에게 50달러를 주었다. 그다음 봄에 마틴은 자신의 농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두 달 동안 조셉의 서기로 일했다. 하지만 번역이 매우 훌륭하게 진행되어가고 있을 때, 마틴은 자신과 5tx 노력으로 완성된 116쪽의 원고 전체를 빌려갔다가 잃어버림으로써 조셉과 그의 가족을 절망에 빠뜨렸고 조셉은 자신이 번역할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러나 그해 그 원고를 잃어버린 이후로 마틴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조셉을 돕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보여주었다. 126. Lucy Mack Smith, *Biographical Sketches of Joseph Smith the Prophet and His Progenitors for Many Generations* (Liverpool, England: S. W. Richards, 1853), 138.

몰몬경을 출현시키도록 돕는 일에 함께 헌신함으로써 서로 결속되었다. 그들은 몰몬경의 몇몇 페이지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조셉 스미스의 역사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번역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이 세 명의 특별한 증인을 준비하시어 그들에게 이 번역물(몰몬경)의 출처인 판을 보도록 허락하실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거의 곧바로 "올리버 카우드리와 데이비드 휘트머, 그리고 마틴 해리스는 내게 자신들이 그 세 명의 특별한 증인이 될 수 있는지를 주님께 여쭈어보라고 했다"고 조셉은 기록했다. "마침내 그들은 그 소망이 아주 간절해져서 나에게 몹시 졸라댔으며, 결국 나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우림과 둠밈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는 [계시]를 받았다."[127]

증언하도록 부름 받다

현재 교리와 성약 17편으로 알려진 그 계시에서는 카우드리와 휘트머 그리고 해리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이 주어졌다. "너희는 내 말에 의지해야만 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온 마음의 뜻을 다하여 이를 행하면, 너희는 판과 또한 가슴판, 라반의 검, 우림과 둠밈[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신앙을 얻고 너희 눈으로 그것들을 보고난 후에, 너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써 그것들에 대하여 증거할지니라."[128]

며칠이 지난 후, 그 예언은 극적으로 실현되었다. "1829년 6월 하순이었다"고 휘트머는 기록했다.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와 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천사는 그것들[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통나무 위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해보다 더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임했으며, 우리로부터 1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빛 속에서 여러 장의 금판과 라반의 검, 그리고 지시기가 놓인 탁자가 나타났다. 나는 지금 너희를 보듯이 그것들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 판들의 기록인 몰몬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었음을 선언하는 주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었다."[129]

조셉 스미스와 마틴 해리스도 비슷한 경험을 했으며, 그 원고의 인쇄 준비가 끝났을 때 카우드리와 휘트머와 해리스는 공동의 진술문에 서명했고, 그것은 그때 이후로 발행된 12억 부 이상의 모든 몰몬경에 포함되었다. 그 진술문의 일부분은 다음과 같다.

"또 우리가 진지한 말로써 선포하거니와, 하나님의 한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 눈 앞에 놓으매, 우리가 그 판과 그 위에 새긴 것을 보았나니, 우리가 보고 이러한 것이 참됨을 증거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것인 줄을 우리는 아노라."[130]

올리버 카우드리의 은사[131]

올리버 카우드리는 궁금하게 여기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자신이 듣고 있는 이야기들이 사실일까? 이 22세의 학교 교사는 1828년 가을에 뉴욕 주 팔마이라에 있는 조셉 스미스 일세의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 지역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미스 부부의 아들인 조셉 2세와 그가 천사들을 만난 이야기, 금판을 발견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듣게 되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더 많이 알고 싶은 열망에서 하숙집 주인에게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처음에 조셉 일세는 이야기해 주기를 주저했으나, 결국 그 하숙인의 간청에 못 이겨 조셉 2세의 경험을들려 주었다. 만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사실이라면 올리버는 알아야 했다. 그는 기도를 했다. 그리고 자신이 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확증하신 것임을 알려주는 평안을 느꼈다.[132]

127. Joseph Smith, History, 1838~1856, volume A-1, 23, josephsmithpapers.org. 세 증인을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ook of Mormon, 1830 ed., 110~111, 548 [2 Nephi 27:12~14 및 Ether 5:2~4]을 참조한다. 128. Revelation, June 1829-E, josephsmithpapers.org. 129. David Whitmer, interview with the *Kansas City Journal*, June 1, 1881, in Lyndon Cook, ed., *David Whitmer Interviews: A Restoration Witness* (Orem, UT: Grandin Book, 1991), 63. 130. "세 증인의 증언," 몰몬경.
131. 출처: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manual/revelations-in-context/oliver-cowderys-gift?lang=kor. 132. Joseph Smith, History, 1838~1856, volume A-1, 15, josephsmithpapers.org.

그는 이 경험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금판에 대해서는 종종 이야기했으며, 조셉 스미스가 번역할 때 그의 서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것이라는 점을 점점 믿게 되었다.[133] 1829년 봄에 학기가 끝나자, 올리버는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로 갔다. 그곳에서 조셉은 아내 에머와 함께 장인어른인 아이잭 헤일의 땅을 경작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금판의 번역은 조셉의 서기인 마틴 해리스가 전해 여름에 원고를 분실한 이후로 한동안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좌절에도 불구하고 조셉은 모친에게 "주님이 나에게 서기를 보내 주실 것"이라고 천사가 알려 주었으며, "그 약속이 입증될 것임을 믿는다"고 말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134] 정말로 주님은 서기를 보내실 것이었는데, 조셉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는 놀랍게도 카우드리가 바로 그 서기였으며, 그들은 그가 준비되도록 도운 셈이었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1829년 4월 5일에 조셉과 에머 스미스가 사는 집에 도착했다.

조셉과 올리버는 시간을 거의 허비하지 않았다. 4월 6일에 몇 가지 볼일을 마치고 그다음 날부터 그들은 함께 번역 작업을 시작했다.

올리버를 위한 계시

번역은 며칠간 계속되었으며, 그런 후 조셉은 자신의 서기를 위한 계시를 받았다. 그 계시에서는 올리버가 누구에게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경험이 언급되었고 이에 따라 올리버가 조셉 스미스의 선지자적 은사에 대해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심이 해결되었다. 주님은 그에게 "이 일들의 진실에 관해 알기 위하여 네 마음속으로 내게 부르짖던 그 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의심하지 말며, 두려워 말라."[135](교리와 성약 6:22~23 참조)

올리버는 자신이 조셉을 위해 기록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믿으며 하모니로 왔다. 이제 그는 그곳에서 주님이 자신을 위해 그 밖의 무엇을 예비해 두셨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 계시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보라, 너는 한 가지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네 은사로 말미암아 너는 복이 있도다. 그것은 성스러우며, 위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할지니" 그의 은사는 계시의 은사였으며, 그는 그 은사로 "여러 비밀을 찾아낼 수 있게 되며, 많은 사람을 인도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고, 참으로 그들의 길이 잘못되었음을 그들이 깨닫게" 할 수 있었다.[136](교리와 성약 6:10~11 참조) 주님은 또한 올리버에게 "네가 내게 원하면, 나의 종 조셉처럼 번역하는" 은사를 주시겠다고 하셨다.(교리와 성약 6:25 참조)

그러는 사이에 올리버는 조셉 스미스가 번역하는 은사를 사용하는 모습을 계속 목격했다. 그 4월에 두 사람은 당시의 관심 주제였던 사도 요한의 운명에 대해 이따금 이야기했다. 조셉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달랐기에 "우림과 둠밈으로 [그것을] 해결하는데 서로 동의했다."[137] 그 응답은 양피지의 시현으로 왔으며, 조셉이 번역한 그 내용은 현재의 교리와 성약 7편이다.

올리버의 번역하려는 소망 조셉과 올리버가 번역 작업을 계속함에 따라 그 번역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하고 싶은 올리버의 열망이 커졌다. 주님은 올리버에게 번역할 기회를 약속하셨으므로 그는 그 기회를 요구하고 싶었다. 조셉은 또 다른 계시를 구술했다. 주님의 말씀은 올리버에게 그가 원했던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그 요건은 신앙과 정직한 마음이었다.(교리와 성약 8:1 참조)

그 계시에서는 번역가가 될 그에게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 주었다. 주님은 "네게 임하여 네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실]" 것이었다. 계시는 언제나 이런 방식으로 왔었다. 그 계시에서는 이것, 즉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마른 땅 위로 홍해를 통과하게 한 그 영"이 그 방법이라고 선언했다.[138](교리와 성약 8:2~3 참조)

133. Lucy Mack Smith history, fair copy, ca. 1845, 140, 교회 역사 도서관. 134. Lucy Mack Smith, *Biographical Sketches of Joseph Smith the Prophet and His Progenitors for Many Generations* (Liverpool, England: S. W. Richards, 1853), 126. 135. Revelation, April 1829-A, josephsmithpapers.org. 136. Revelation, April 1829-A, josephsmithpapers.org. 137. Joseph Smith, History, 1838~1856, volume A-1, 15~16, josephsmithpapers.org. 138. Revelation, April 1829-B, josephsmithpapers.org.

올리버 카우드리는 성경의 개념과 언어 및 관습이 깊이 배어 있는 문화 속에서 생활했다. 그 계시에서 모세에 대한 언급이 그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졌을 것이다. 구약전서에 나오는 모세와 그의 형 아론에 관한 기록에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지팡이를 사용한 몇몇 사례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다.(출애굽기 7:9~12; 민수기 17:8 참조)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의 시대에도 많은 기독교도들은 이와 비슷하게 예언의 지팡이를 계시의 도구로 믿었다. 카우드리는 예언의 지팡이를 믿고 사용하는 사람들 중의 한 명이었다.[139]

주님은 지팡이를 사용하는 올리버의 능력을 아셨다. "네게는 다른 은사가 있으니, 그것은 지팡이를 작동시키는 은사니라."[140] 그 계시에서는 이 은사의 신성함을 확인시켜 주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보라, 하나님의 권능 외에는 이 자연의 것이 네 손에서 운용되게 할 수 있는 다른 권능이 없느니라." 그 계시에서는 올리버가 소망한다면 주님은 올리버가 이미 지니고 있는 그 계시의 은사에 더하여 번역의 은사도 주실 것이라고 언급했다.(교리와 성약 8:8~11 참조)

올리버 카우드리가 번역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일이 잘 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의 노력은 곧바로 수포로 돌아갔다. 올리버의 실패로 조셉 스미스는 또 다른 계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는 올리버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인내하라, 내 아들아. 이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지혜요 네가 지금 이때에 번역함은 필요하지 아니함이니라." 뿐만 아니라 올리버는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먼저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나니, 만일 그것이 옳으면, 내가 네 가슴을 네 속에서 뜨겁게 할 것이라."[141](교리와 성약 9:7~8 참조)

권세가 회복되다

자신의 번역 시도가 실패로 끝나 낙담하긴 했지만 올리버는 조셉이 판의 번역문을 구술할 때 서기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재개했다. 카우드리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날들이었다"라고 이후에 기록했다. "하늘의 영감으로 말하여지는 음성을 들으며 앉아 있는 동안 이 가슴은 한량없는 감사를 느꼈다!" 예수님이 친히 니파이인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다는 기사에 이르자 그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관리할 권세를 지닌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특히 침례에 대해 염려했다. 1829년 5월 15일에 그들은 자신들이 일하던 스미스 가족 집을 나와 근처 숲에서 기도를 드릴 한적한 장소를 물색했다.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어떤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부활한 침례 요한이 "빛 구름 속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안수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확실히 그런 의심은 사라졌다.[142]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느니라.]"(교리와 성약 13편 참조) 그 경험으로 올리버의 신앙은 굳건해졌다. "의심의 여지가 있겠는가?" 올리버는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 기록했다. "전혀 없다. 불확실함은 달아나고, 의심은 가라앉았다."[143]

학자들을 찾아간 마틴 해리스[144]

1828년 2월에 마틴 해리스는 몰몬경 판에 쓰인 문자 몇 개를 종이에 옮겨 적고는 그것을 들고 뉴욕시로 갔다. 미국에서 가장 명성 높은 고등 교육 기관의 학자들에게 그것을 보여 줄 생각이

139. Robert Fuller, *Spiritual But Not Religious: Understanding Unchurched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15, 17; Mark Ashurst-McGee, "Pathway to Prophethood" (PhD. Diss., Utah State University, Dept. of History, 2000), 126~148. 140. 이 계시가 기록된 최초의 필사본에는 올리버 카우드리의 "싹으로 작동하는 은사"로 언급되어 있다. 시드니 리그돈은 그 계시를 1833년에 계명의 책으로 출판할 준비를 하면서 "싹"을 "지팡이"로 바꾸었다. 1835년판 교리와 성약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아론의 은사"라고 칭했다. Revelation Book 1, p. 13; Book of Commandments 7:3; Doctrine and Covenants (1835), 34:3 참조. '싹'이라는 단어는 "가지의 끝부분 또는 새싹"(Noah Webster,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S. Converse, 1828])을 의미했다. 141. Revelation, April 1829-D, josephsmithpapers.org. 142. Joseph Smith, History, 1838~1856, volume A-1, 17, josephsmithpapers.org. 143. Oliver Cowdery, letter, to William W. Phelps, 7 September 1834, in Karen Lynn Davidson, David J. Whittaker, Mark R. Ashurst-McGee, Richard L. Jensen, eds., *Histories: Joseph Smith Histories, 1832~1834*, Vol. 1 of the *Historie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ited by Dean C. Jessee, Ronald K. Esplin, and Richard Lyman Bushman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2), 46. 144. 출처: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history/topics/martin-harriss-consultations-with-scholars?lang=kor.

었다.[145] 해리스는 이에 관한 이야기를 일생 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많은 경우 교회에서 자신이 초기에 했던 경험에 관해 알고자 하는 기자들에게 들려주었다. 해리스가 만났던 교수들 중 한 명이었던 찰스 안톤 역시 해리스와 만났던 일에 관한 기록을 남겼고, 이는 그 만남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이 불일치를 보이고 있어서 그 일에 관한 몇 가지 의문점이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해리스의 동기

예를 들어, 이 자료들에는 해리스가 학자들을 찾아가는 데 동기가 되었을 만한 몇 가지 사항들이 나와 있다. 어떤 기록에는 주님께서 해리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다고 나와 있고, 또 다른 기록에는 조셉 스미스 또는 해리스 본인의 뜻에 따라 해리스가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다.[146] 해리스는 학자들이 보증한다면 이 번역 작업에 점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던 자신의 아내 루시를 안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혹은 번역 작업의 자금 지원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 스스로 더욱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해리스가 학자들에게서 번역 자체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 했음을 시사하는 자료들도 있다.

찾아간 학자들

마틴 해리스가 학자들을 찾아갈 당시만 해도, 조셉 스미스도 해리스도 판에 쓰인 언어에 관해 그다지 많이 알지는 못했던 것 같다. 조셉 스미스는 훗날 남긴 기록에서 자신에게 판을 전해 준 천사가 그것이 고대 미대륙의 기록임을 알려 주었다고 했다. 해리스는 애굽어를 아는 학자를 찾으려 했다기 보다는 미 대륙의 고대 유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학자들의 조언을 구하려고 했을 수 있다.(조셉은 나중에서야 판에 쓰인 언어가 "개정된 애굽어"라 일컬어진다는 것을 알았다.)[147]

뉴욕시로 가는 도중에 해리스는 뉴욕 올버니에 들러 루서 브래디시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었으며 팔마이라에 가족 및 개인적인 인맥도 있었다. 분명히 해리스는 번역에 관해 누구를 만나 보아야 할지에 관해 브래디시의 의견을 구했던 듯하다. 그런 다음 해리스는 뉴욕시로 가서 언어학자이자 저명한 고대 미대륙 문화 학자인 새뮤얼 엘 미칠을 만났다.[148] 또한, 뉴욕시에 있는 컬럼비아 컬리지에서 문법과 언어학을 가르치는 젊은 교수 찰스 안톤을 만났다. 안톤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능숙했을 뿐 아니라 출판을 목적으로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었던 터라 해리스가 가지고 온 자료를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149]

찰스 안톤을 만남

해리스에 따르면, 찰스 안톤은 문자들을 살펴보고 그 문자들이 진짜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자필 서명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조셉 스미스가 판을 얻게 된 경위를 듣고는 그 서류를 찢어 버렸다고 한다. 안톤은 해리스에게 그 판을 직접 가져와 보라고 했지만, 해리스는 판의 그 부분이 봉해져 있다며 안 된다고 했다. 이에 안톤은 "나는 봉해진 책은 읽을 수 없소."라고 대답했다. 나중에 안톤은 그 문자들이 진짜임을 확인한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은 그저 해리스에게

145. 조셉 스미스 생전에 몰몬경에 나오는 문자를 필사한 것들이 현재까지도 몇 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자료들이 마틴 해리스가 애초에 뉴욕에 가지고 갔던 "안톤 전사본"은 아니라는 데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동의한다.("Appendix 2: Copies of Book of Mormon Characters, Introduction," josephsmithpapers.org 참조) 146. 이 방문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조셉 스미스의 1832년 역사서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해리스가 조셉 스미스에게 "주님께서 자신에게 문자 몇 개를 가지고 뉴욕시에 가야 한다고 알려 주셨다."는 말을 했다고 나와 있다.(History, circa Summer 1832, 5, josephsmithpapers.org) See alsoOliver Cowdery, "Letter IV," *Messenger and Advocate*, vol. 1, no. 5 (February 1835), 80; History, 1838–1856, Volume A-1 [23 December 1805–30 August 1834], 9, josephsmithpapers.org. 147. Michael Hubbard MacKay and Gerrit J. Dirkmaat, *From Darkness unto Light: Joseph Smith's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Book of Mormon* (Provo, Utah: Brigham Young University, Religious Studies Center, 2015), 42–43. 148. Stanley B. Kimball, "The Anthon Transcript: People, Primary Sources, and Problems," *BYU Studies*, vol. 10, no. 3 (Spring 1970), 332–34. 149. MacKay and Dirkmaat, *From Darkness unto Light*, 49–51.

그 판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데 투자하지 말라는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해리스가 옮겨 적은 문자만 자신에게 보여 주었다고 했지만, 해리스의 몇몇 기록에는 해리스가 조셉 스미스가 고대 기록을 번역한 것도 일부분 가져갔다고 나와 있다.

방문의 결과

안톤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해리스는 판과 문자가 진짜임을 그전보다 더욱 확신하게 되었고, 조셉 스미스를 지원하는 데 힘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 훗날 마틴과 조셉은 안톤을 만난 일로 이사야의 다음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했다.(이 내용은 몰몬경에도 언급되어 있다.)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이사야 29:11)

분실된 몰몬경 원고[150]

1828년 6월, 조셉 스미스는 자신의 서기였던 마틴 해리스에게 몰몬경 원고 원본 중 116페이지를 마지못해 빌려주었다. 해리스는 빌린 원고를 잘 간수하며, 가족 몇 명에게만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내 원고가 사라졌고 다시 찾지 못했다. 조셉은 나머지 번역을 어떻게 마쳐야 할지 하늘의 인도를 구했고, 계시를 통해 분실된 원고에 있던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몰몬경 번역을 완성할 방법을 알게 되었다.[151]

분실된 원고에 대해 알려진 얼마 안 되는 내용은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의 선지자인 니파이를 통해서 알려졌다. 조셉은 분실된 원고에 리하이서가 담겨 있다고 기록했다. 몰몬경에서 많은 경우 그러하듯, 리하이의 기록은 조셉이 리하이의 판이라고 지칭했던 부분을 선지자 몰몬이 요약한 내용이었다.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는 이 기록에는 리하이의 꿈과 시현, 예언을 비롯해 자녀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니파이는 자신의 역사를 기록하기 전에 리하이의 기록을 요약했다.[152] 어떤 학자들은 몰몬경의 초반이 니파이의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분실된 원고에 리하이서 외에도 몰몬이나, 리하이와 베냐민 왕 시대 사이에 살았던 누군가가 기록한 자료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153]

원고가 사라졌을 당시, 조셉 스미스와 마틴 해리스는 니파이의 요약 부분에 대해 알지 못했다. 따라서, 해리스가 원고를 분실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조셉은 자신에게 위임된 신성한 임무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조셉은 아홉 달 동안 번역을 재개하지 않았다. 훗날 조셉과 그의 새로운 서기인 올리버 카우드리가 번역을 거의 마칠 무렵 조셉은 분실된 원고의 재번역 여부에 대한 계시를 구했다. 그 계시(교리와 성약 10편 참조)에 따르면 니파이의 판에는 리하이서와 비슷하면서도 리하이 가족의 영적 역사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기사가 실려 있다고 나와 있다. 조셉은 분실된 원고에 담긴 내용이 끝나는 부분까지 니파이의 판을 번역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54] 이 계시에서는 또한 조셉에게 리하이서 재번역을 금하며, 분실된 원고를 가지고 이를 변경해 출판된 몰몬경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악인들에 대해 경고했다. 원고가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있던 조셉은 몰몬경 서문에서 공모자들에게 하

150. 출처: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history/topics/lost-manuscript-of-the- book-of-mormon?lang=kor. 151. Joseph Smith, "History, circa 1841, fair copy," 13~14, josephsmithpapers.org; Lucy Mack Smith, "Lucy Mack Smith, History, 1844~1845," book 6, page 10~book 7, page 7, josephsmithpapers.org. 조셉은 1828년 4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리하이서를 번역했다. 마틴 해리스가 조셉의 서기로 주로 봉사했으며, 에머 스미스나 에머의 형제인 루번 헤일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152. 니파이전서 1:16~17. 153. Joseph Smith, "Preface to Book of Mormon, circa August 1829," in Book of Mormon, 1830, iii, josephsmithpapers.org; S. Kent Brown, "Lehi's Personal Record: Quest for a Missing Source," *BYU Studies*, vol. 24, no. 1 (Winter 1984), 20~21; William J. Critchlow III, "Manuscript, Lost 116 Pages," in *Encyclopedia of Mormonism*, ed. Daniel H. Ludlow, 5 vols. (New York: Macmillan, 1992), 2:854~55; Jack M. Lyon and Kent R. Minson, "When Pages Collide: Dissecting the Words of Mormon," *BYU Studies*, vol. 51, no. 4 (2012), 120~36. 조셉이 이야기한 116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분량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원고의 대략적 추산이었을 수도 있다.("Revelation, Spring 1829 [DC 10]," Historical Introduction, josephsmithpapers.org 참조) 조셉이 세상을 떠난 후 50여 년이 흐른 뒤 프랭클린 디 리차즈는 자신과 조셉이 나부에 살고 있었을 때 조셉이 분실된 원고의 내용에 대해 말했다고 언급했다. 리차즈는 앨마서 10장 3절에서 리하이가 므낫세의 후손임을 설명하는 내용을 읽고 혼란에 빠졌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성도들은 몰몬경을 "에브라임의 막대기"라고 지칭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리차즈가 이 괴리에 대해 묻자 조셉은 이스마엘과 그 가족이 에브라임의 후손이라고 설명하며, 분실된 원고에 이스마엘의 혈통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Franklin D. Richards, "Origin of American Aborigines," *Contributor*, vol. 17, no. 7 [May 1896], 425). 154. 조셉은 1829년 봄까지 니파이 판에 대해 알지 못했다.("Revelation, Spring 1829 [DC 10]," Historical Introduction,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10:38~46 참조)

나님의 사업에 맞서지 않도록 경고했다. 분실된 원고를 가지고 나선 사람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155]

마틴 해리스의 공헌[156]

1827년까지만 해도 마틴 해리스는 뉴욕 주 팔마이라에서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157] 지난 14년간 130헥타르에 달하는 농지를 장만하고, 진취적으로 근면하게 일한 덕에 농장에서 소득도 있었던 데다, 좋은 목재가 들어간 멋진 집도 한 채 지었다.[158] 그는 1808년에 루시 해리스와 결혼했고, 비록 두 아이는 어릴 때 세상을 떠났지만 슬하에 다섯 자녀도 두었다. 마틴의 재능과 부는 이웃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정도였다. 이웃들은 마틴이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는 농부요, 사업적인 수완이 빈틈없고, 검소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며, …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159]이라고 여겼다.

45세에 자신의 두 손으로 일궈 낸 부를 향유하며 친구들의 존경을 받던 마틴은 사람을 고용해 농장 일을 맡겨 두고 몇 달간 여행을 다녀오려는 계획이 있었다. 여행을 구상하기 시작하던 무렵, 마틴은 자신을 찾아온 루시 맥 스미스에게서 흥미로운 소식을 듣게 된다.

루시의 이야기는 마틴 해리스도 대략은 아는 내용이었다. 천사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집 근처 산에 고대 금속판에 적힌 기록이 묻혀 있음을 알려 주었다는 그 이야기 말이다. 3년간 조셉은 그 판을 받게 될 때만을 주시하며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루시 스미스는 자신의 아들이 마침내 천사로부터 그 판을 받았으며, 이를 번역에 착수하려 한다는 소식을 마틴에게 전하고자 찾아온 것이었다. 조셉과 그의 가족은 번역물의 출판비용을 감당할 처지가 못 되었지만, 마틴 해리스는 아니었다. 루시 맥 스미스는 마틴에게 조셉 스미스를 만나 보겠는지 의사를 물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마틴의 말에, 마틴의 아내 루시 해리스는 자신도 그 자리에 동행하겠다며 고집했다.

아마도 조셉 스미스는 마틴 해리스를 자신의 친구로 여겼을 것이다. 조셉은 전에 마틴에게 천사의 방문과 금판의 존재를 털어놓기도 했었다. 마틴 역시 조셉을 살갑게 대했다. 마틴은 조셉 스미스를 농장 관리인으로 고용하며 그가 듬직한 일꾼임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마틴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금판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사실, 보물을 찾아다니는 조셉과 그의 친구들이 그저 오래된 놋주전자나 발견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다. 마틴은 종교적인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마틴을 미신에 홀린 사람으로 취급하고 비아냥거리듯 "환영에 사로잡힌 광신도"[160]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하지만, 어쩌면 마틴은 초자연적인 일이 일상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열린 사고의 소유자이었기에 적어도 조셉의 주장에 대해 생각은 해 보았을 것이다. 한편, 루시 해리스는 조셉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신속히 이행했으며, 금판 번역에 드는 비용을 자신이 내겠다고 자청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마틴은 주저했다. 아마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가을이 지나고 초겨울이 오기까지, 적대적인 이웃들은 여러 번 조셉에게서 금판을 훔쳐 가려 시도했다. 상황이 위험해지자 조셉은 아내 에머와 함께 처가가 있는 펜실베이니아 주 하모니로 이주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처음에 망설였던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마틴은 자신이 조셉을 도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팔마이라의 한 선술집에서 조셉을 만나 은화 50불을 주며 "이 돈으로 주님의 사업을 하게."[161]라고 말했다. 조셉은 그 돈을 차입금으로 받겠다고 주장했으나 마틴은 대의를 위해 무상으로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155. "Revelation, Spring 1829 [DC 10]," in Book of Commandments, 22~24,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몰몬경 서문", 몰몬경, 1830, iii쪽. 156. 출처: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manual/revelations-in-context/the-contributions-of-martin-harris?lang=kor. 157. 마틴 해리스에 관한 이 이야기를 조사했던 조셉 스미스 기록 팀의 마이클 허버드 맥케이에게 감사를 전한다. 158. Ronald W. Walker, "Martin Harris: Mormonism's Early Convert," *Dialogue: A Journal of Mormon Thought*, vol. 19, no. 4 (Winter 1986), 30~33 참조. 159. Susan Easton Black and Larry C. Porter, "For the Sum of Three Thousand Dollars," *Journal of Book of Mormon Studies*, vol. 14, no. 2 (2005), 7. 160. Walker, "Martin Harris: Mormonism's Early Convert," 34. 161. Lucy Mack Smith, "Lucy Mack Smith, History, 1844~1845," book 6, page 6, josephsmithpapers.org.

반면, 루시 해리스는 조셉의 이야기를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조셉이 금판을 공개하지 않고 숨겨야 한다고 주장했기에 그랬을 것이다. 이런 의심 때문에 루시는 남편이 조셉에게 점점 더 관심을 보이며 깊이 빠져드는 것에 분개했다. 이미 소원해져 있었던 마틴 부부의 관계는 마틴이 조셉 스미스를 지원하자 골이 더욱 깊어졌다.

"나는 봉해진 책은 읽을 수 없다"

스미스 부부가 하모니에 도착한 직후, 마틴은 조셉을 방문해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금판에 새겨진 일부 글자를 필사해 뉴욕 시로 가져가서 학자들에게 보여 주자는 제안을 했다. 아마도 마틴은 금판이 진짜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싶었거나 학자들의 증명서를 받으면 출판 비용을 빌리기가 더 쉬워지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어쨌든, 마틴은 주님께서 그 여행을 떠나라는 영감을 주셨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조셉도 마틴도 금판에 새겨진 언어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그들이 아는 것은 천사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말해 준 내용, 즉 "그것이 고대 미국의 기록"이라는 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마틴은 애굽어를 아는 학자가 아닌 (조셉은 나중에야 금판에 새겨진 언어가 "개정된 애굽어"임을 알게 되었다.) 유물, 특히 미국 유물에 관심이 있는 몇몇 학자들을 찾아갔다.[162]

마틴은 1828년 2월에 집을 떠나 뉴욕 시로 가던 길에 올버니에 들러 루서 브래디시를 만났다. 전에 팔마이라에 살았던 루서는 마틴과는 가족과도 같은 친구 사이였고, 근동과 이집트를 두루 여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다. 마틴은 번역과 관련해서 누구를 만나면 좋을지를 루서에게 문의했고, 그는 뉴욕으로 가서 사뮤엘 엘 미칠을 만나게 된다. 미칠은 언어학자이자 고대 미국 문화를 연구하는 저명한 학자 중의 하나였다. 문자를 살펴본 미칠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문법과 언어학을 가르치는 젊은 교수인 찰스 안톤에게로 마틴을 보냈다. 안톤은 출판을 목적으로 미국 원주민의 이야기와 말을 수집해 왔기에 마틴이 가져온 문서를 무척 보고 싶어 했다.

마틴의 주장에 따르면, 안톤은 조셉 스미스가 그 판을 얻게 된 경위를 알기 전까지는 그 글자가 진짜라고 말했다. 안톤은 마틴에게 그 판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했는데, 마틴이 거절하자 안톤은 이사야의 한 구절을 바꾸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봉해진 책은 읽을 수 없소." 나중에 안톤은 그 만남의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 마틴의 이야기를 부정했으나 그렇더라도 여기에서 이 점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마틴은 동부의 학자들을 만난 후,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으며 그 판과 글자가 진정으로 고대의 것이라는 확신이 더욱 굳어졌다. 마틴과 조셉은 안톤 교수를 만난 일로 이사야의 다음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여겼다. (이 내용은 몰몬경에도 언급되어 있다.)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163]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1828년 봄에서 초여름까지, 마틴은 젊은 선견자가 구술해 주는 번역을 받아적는 일을 했다. 그에겐 그 과정이 기적으로 보였을 것이 분명하나, 그럼에도 마틴은 여전히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주의했다. 한번은 선지자의 돌을 다른 돌로 바꿔 놓고는 조셉이 그 둘을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하기까지 했다. 결국 조셉이 번역을 계속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야 마틴은 돌을 바꿔치기했음을 털어놓고 선지자의 돌을 돌려줬다. 조셉이 그렇게 한 이유를 묻자 마틴은 "선지자가 그런 문장들을 배워서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자신에게 말한 어리석은 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164]라고 해명했다.

마틴이 진심으로 믿게 된 반면, 그의 아내는 극도로 적대적으로 변했다. 루시 해리스는 남편이 몰몬경 출판으로 엄청난 재정적 위험을 떠안고, 한낱 사기극 같은 이 일로 친구들의

162. Lucy Mack Smith, "Lucy Mack Smith, History, 1844–1845," books 6 and 7, josephsmithpapers.org 참조. 163. 이사야 29:11: 또한 Michael Hubbard MacKay and Gerrit J. Dirkmaat, *From Darkness unto Light: Joseph Smith's Translation and Publication of the Book of Mormon* (Provo: BYU Religious Studies Center, 2015), 52 참조. 164. Edward Stevenson, "One of the Three Witnesses: Incidents in the Life of Martin Harris," in *Latter-day Saints' Millennial Star*, vol. 44, no. 6 (Feb. 6, 1882), 87.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아내인 자신의 기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못마땅해했는데,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녀는 또한 금판을 보려고 시도할 때마다 거절했던 조셉의 태도에도 마음이 상했다. 루시는 남편에게 조셉의 번역 능력을 증거로 보여 달라고 끊임없이 졸라댔다.

아내의 법석을 진정시키고 싶었던 마틴은 조셉에게 "우림과 둠림을 통해 주님께 간구하여" 자기가 "집으로 번역본을 가져와 아내와 다른 이들에게 보여 줄 수 있는지"[165] 여쭤 봐 달라고 부탁했다. 조셉은 마틴을 기쁘게 해 주고 싶었는데, "세상에서 자신을 돕거나 공감해 줄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았던 시기에 우정으로 자신을 대해 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마틴이었기 때문이었다."[166]

그래서 조셉은 친구를 위해 주님께 이 일을 여쭈었다. 그리고 조셉은 이렇게 말했다. "대답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마틴은] 이 답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다시 여쭈기를 원했다. 응답은 전과 같았다.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고 내게 한 번만 더 간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차례 재촉하자 나는 다시 한 번 주님께 여쭈었고 주님은 조건부 승인을 하셨다."[167] 그 조건은 번역된 원고를 아내와 부모, 남동생, 그리고 처제에게만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틴 해리스는 들뜬 마음으로 집으로 원고를 가져가 아내에게 보여 주었다. 하지만 그는 그 귀중한 원고를 주님께 받은 명과는 다르게 주의해서 다루지 않았고, 금세 원고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정확히 어떻게 된 일인지는 추측에 맡길 수밖에 없다. 대개는 루시가 마틴의 옷장에서 원고를 꺼내 태워 버렸다는 소문이 되풀이되어 돌아다녔지만, 정작 루시는 자신은 원고 분실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셉 스미스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이 일이 루시 해리스나 다른 사람들이 꾸민 계략이라고 추측했다.

조셉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마틴에게 몹시도 두려운 일이었다. 마틴은 원고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침대보와 베갯잇까지 벗겨내" 찾아보았지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 몇 주 후, 부모님 댁에 가 있던 조셉은 마틴의 소식이 궁금했다. 마틴은 내키지 않는 발걸음으로 스미스 가족이 사는 맨체스터의 집까지 5km가량을 걸어갔다. 그는 상념에 잠겨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걸음으로 그 집을 향했다. 대문 앞에 이르자 그는 차마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담장에 걸터앉더니, 깊숙이 모자를 눌러 쓴 채 한동안 그대로 있었다.[168]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온 마틴은 눈앞에 저녁 식사를 두고서도 식욕이 없었다. 그는 곧 "관자놀이를 누르더니 깊은 고뇌에 찬 음성으로 소리쳤다. '아! 내 영혼을 잃었단 말입니다!'"[169] 조셉은 곧바로 사태를 파악했다. 그는 돌아가서 다시 원고를 찾아보라고 마틴에게 권했지만, 돌아오는 건 이제 더는 헛수고라는 대답뿐이었다.

조셉은 지치고 낙담한 상태로 하모니에 돌아왔다. 그는 집에서 나와 잠시 걸으면서 주님께 자비를 간구했다. 조셉은 "마틴 해리스에게 기록을 내줄 수 있게 해 달라며 주님을 피곤하게"[170] 한 탓에 번역기인 우림과 둠림을 잃게 되었으나, 천사가 와서 다시 조셉에게 전에 금판과 함께 받았던 우림과 둠림을 돌려주었다. 조셉은 우림과 둠림을 통해 계시를 받았는데, 이것은 원문 기록이 남아 있는 것 중 가장 초기의 계시이다.

교리와 성약 3편으로 현재 알려진 이 계시에는 조셉을 향한 질책이 포함되어 있다. "네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며, 사람의 설득에 넘어간 것이 그 몇 번이냐. 이는 보라, 네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하였음이니라." 하지만 동시에 다음과 같은 희망의 메시지도 있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준 그 명령에 반하여 행한 바를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는 아직도 택함을 받고 있나니, 다시 그 일에 부름을 받느니라."[171]

---

165. Joseph Smith, "History, circa 1841, fair copy," 14, josephsmithpapers.org; spelling standardized. 166. Lucy Mack Smith, "Lucy Mack Smith, History, 1844–1845," book 6, page 10–11. 167. Joseph Smith, "History, circa 1841, fair copy," 14. 168. Lucy Mack Smith, "Lucy Mack Smith, History, 1844–1845," book 7, page 5–6; punctuation standardized. 169. Lucy Mack Smith, "Lucy Mack Smith, History, 1844–1845," book 7, page 5–6; punctuation standardized. 170. Joseph Smith, "History, circa 1841, fair copy," 14. 171. Joseph Smith, "History, circa 1841, fair copy," 15–16.

“그가 판을 보도록 허락할 것이다”

여러 달 동안 마틴 해리스는 원고를 분실한 일로 비통해하며 팔마이라의 자택에 머물렀다. 마틴은 아내와 다른 이들이 조셉 스미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저 마틴의 돈이나 뜯어내려는 사기꾼으로 몰아가려는 것을 알고는 괴로워했다. 그는 화해를 하기 위해, 하지만 골치 아픈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안고 1829년 3월에 하모니로 가서 조셉 스미스를 만났다.

마틴은 조셉이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며, 번역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도했다. 마틴은 조셉에게 금판을 볼 특권을 달라고 다시금 요청했다. 그는 “조셉이 자기가 받았다고 간증한 것을 정말 갖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아, 사라지지 않는 의구심을 없애고 아내 루시를 설득할 힘을 얻고자 했을 것이다. 조셉은 마틴과 관련하여, 현재 교리와 성약 5편으로 알려진 계시를 받았다. 이 계시에서 주님은 세 증인이 부름을 받아 금판을 보고 간증을 전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뒤이어 주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으로 마틴 해리스에게 기쁨을 안겨 주셨다. “그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와 신앙으로 자기를 낮추면, 그리하면 나는 그가 보기 원하는 것을 보도록 그에게 허락하리라.” 이 계시에는 또한 몰몬경의 진위는 금판의 존재가 아니라 몰몬경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확증될 것이며 조셉 스미스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그것을 믿지 않으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72]

번역 작업은 올리버 카우드리가 도착하여 서기 역할을 맡게 된 1829년 4월 5일에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조셉과 올리버는 조셉과 마틴이 예전에 그만둔 부분인 모사이야서 초반 부근부터 작업을 재개했다. 5월에 이르러서, 현재 우리에게 있는 몰몬경 끝 부분까지 번역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때쯤 되자 조셉과 올리버는 잃어버린 부분을 재번역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또 한번 계시를 주셨는데, 이는 현재 교리와 성약 10편에 실려 있다. 이 계시는 조셉이 우려했던 계략이 확실함을 증명해 주었다. “보라, 사탄이 그들의 마음에 넣은 것은 네가 필기하게 하였던 말씀[을] … 변경하게 하려는 것이었느니라.” 하지만 주님은 오랫동안 준비한 해결책이 있다고 하시며 조셉을 안심시켜 주셨다. 조셉은 잃어버린 부분을 재번역하지 말고 그 대신 비슷한 시기를 다룬 “니파이 판”을 번역하여 이를 보충하라는 명을 받았다. 주님은 그렇게 음모자들의 계획을 좌절시키고, 이 기록이 “이 백성에게 나아오기를”[173] 열망했던 고대 니파이인 기록자들의 기도를 실현해 주셨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번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마틴은 올리버 카우드리, 데이비드 휘트머와 함께 금판에 대한 약속된 증인이 되게 해 달라며 조셉에게 간청했다. 조셉은 다시 간구하여 현재 교리와 성약 17편에 담긴 계시를 받았는데, 이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마음의 뜻을 다하고” “내 말에 의지”[174]하면 금판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다.

마틴 해리스는 금판을 보도록 허락받은 일로 뛸 듯이 기뻤을 것이다. 하지만 1829년 6월, 세 사람이 기도를 드린 후 천사가 준 금판을 보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자기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우려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고, 잠시 후 천사가 나타나 휘트머와 카우드리에게 금판을 보여 주었다. 조셉은 마틴을 찾다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를 발견했다. 마틴은 혼자서 기도하고 있었고, 조셉도 옆에서 함께 무릎을 꿇었다. 곧 마틴은 자신이 오랫동안 바라던 것을 보게 되었다. 금판을 본 후, 그는 이렇게 외쳤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175]

172. “Revelation, March 1829 [교리와 성약 5편],” 1~2, josephsmithpapers.org. 173. “Revelation, Spring 1829 [교리와 성약 10편],” in Book of Commandments, 22, 25, josephsmithpapers.org. 174. “Revelation, Spring 1829 [교리와 성약 17편],” in Book of Commandments, 2, 119, josephsmithpapers.org. 175. Joseph Smith, “History, 1838~1856, volume A-1 [23 December 1805~30 August 1834],” 24~25, josephsmithpapers.org.

"너는 네 자신의 재물을 탐하지 말며"

이 기적 같은 일로 신앙이 더욱 굳건해진 마틴은 몰몬경 출판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감수하기로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조셉 스미스는 뉴욕 주 팔마이라와 로체스터에 있는 인쇄소 몇 곳과 연락을 취했다. 그는 팔마이라의 에그버트 비 그랜딘 인쇄소를 설득해 몰몬경을 인쇄하고자 했고, 마틴은 가격 협상을 맡았다. 그랜딘은 5,000부라는, 이 이례적인 큰 규모의 인쇄를 하는 데 3.000달러를 요구했고, 조셉과 마틴이 "인쇄비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약속"하기 전까지는 활자를 구입하지도,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다.[176] 마틴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법적으로 소유한 모든 재산을 담보로 잡혀야 했다.

이런 결정은 조셉 스미스와 몰몬경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려 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마틴은 어찌해야 할지를 알고자 조셉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조셉은 이미 또 다른 계시를 받은 상태였다. 현재 교리와 성약 19편으로 알려진 그 계시에는 마틴에게 전하는 다음과 같은 권고가 나온다. "너는 네 자신의 재물을 탐하지 말며, 오히려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있는 몰몬경의 인쇄에 아낌없이 내어 놓을지니"[177] 1829년 8월 25일, 마틴은 몰몬경 출판비용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그랜딘에게 재산을 저당 잡혔다. 이웃 사람들은 이 분별력 있는 친구가 "근방에서 최고라고 손꼽히는 농장의 경작을 포기하고"22 몰몬경 출판 비용을 부담하려 하자 경악스러워했다.

처음에는 마틴도 인쇄된 몰몬경을 판매하여 저당 잡힌 농장을 되찾으려 했다. 1월에 조셉 스미스는 마틴과 함께 마틴이 인쇄비를 전부 상환받을 때까지 몰몬경을 팔 "동등한 권리"를 부여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다.[178] 조셉은 1830년 3월에 인쇄가 완료되자마자 몰몬경 판매를 시작했지만, 유감스럽게도 판매량은 원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했다.

조셉 스미스는 1830년 3월 말, 팔마이라 부근에서 곤혹스러워하는 마틴 해리스를 보았다고 전했다. 조셉 나이트에 따르면, 마틴은 몰몬경 몇 부를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마틴은 "몰몬경을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 팔리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조셉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명을 받고 싶습니다." 조셉은 마틴이 전에 받은 계시를 언급하며 대답했다. "전에 받은 명을 이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마틴은 "그렇더라도 저는 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라는 요구를 되풀이했다.[179]

그는 또 다른 명을 더 받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마틴은 예전에 받은 계시에 따라, 결국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필요한 만큼 매각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몰몬경과 초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재정적 지원자로서 입지를 다졌다. 그는 그렇게 조셉 스미스보다 나이가 어리고, 더 가난한 친구들이었다면 누구도 하지 못했을 중대한 공헌을 해 주었다.

몰몬경의 인쇄와 출판[180]

몰몬경 번역 과정에서 소수의 신자들이 조셉 스미스를 도왔으나 그들 중에는 출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조셉과 동료들은 인쇄업자를 확보하고, 인쇄 자금을 충당하고, 성스러운 기록의 출간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 대응하면서, 경험으로 이 모든 것을 배워 나갔다. 몰몬경 초판 5천 부를 찍어내겠다는 계획은 이들의 당찬 포부를 짐작하게 한다. 이는 당시 책 한 권의 평균 인쇄 부수의 두 배를 넘는 양이었다. [181]

176. John Gilbert, as cited in "Interview with the Printer of the Bible," *New York Herald*, June 25, 1893. 177. "Revelation, circa Summer 1829 [교리와 성약 19편]," in Book of Commandments, 41, josephsmithpapers.org. 178. "Agreement with Martin Harris, 16 January 1830," 1, josephsmithpapers.org. 179. Joseph Knight reminiscences, undated,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180. 출처: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history/topics/printing-and-publishing-the-book-of-mormon?lang=kor. 181. Royal Skousen and Robin Scott Jensen, eds.,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Volume 3, Part 1: Printer's Manuscript of the Book of Mormon, 1 Nephi 1~Alma 35*, facsimile ed., vol. 3 of the Revelations and Translations series of *The Joseph Smith Papers*, ed. Ronald K. Esplin and Matthew J. Grow (Salt Lake City: Church Historian's Press, 2015), xxvi~xxviii.

판권 확보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에 대한 연방 판권을 취득하여 미국 내 몰몬경의 인쇄와 배부에 대한 전권을 보유했다. 그는 책의 표제지 사본을 연방 지방 법원 서기에게 기탁하고 판권 등록증을 구입함으로써 판권 취득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인쇄업자를 찾는 과정

현지 인쇄업자들은 몰몬경 인쇄를 거절했는데, 그것은 단지 종교적 불신에서만 기인한 문제는 아니었다. 몰몬경 인쇄처럼 방대하며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은 새로운 인쇄 활자와 자재, 그리고 전문 기술과 투자가 수반되어야 했다. 조셉 스미스와 마틴 해리스는 이 작업과 관련하여 여러 인쇄업자를 만났다. 팔마이라와 로체스터 지역에 있는 세 명의 인쇄업자, 즉 에그버트 그랜딘, 조너선 해들리, 설로 위드가 제안을 거절했으며, 그중 그랜딘은 몰몬경 인쇄 자금을 대려는 해리스를 만류하기 위해 해리스의 친구들을 동원하기까지 했다. 다행히, 로체스터에 있는 엘리후 마셜이라는 인쇄업자가 몰몬경 출판을 승낙했지만, 이때 마틴은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서 인쇄 작업을 진행하고픈 마음에 팔마이라에 있는 그랜딘을 다시 한 번 찾아갔다. 해리스는 자신의 농장 일부를 담보로 잡고 그랜딘과 계약 조건을 협상했다. 1829년 8월, 해리스가 저당권 설정에 서명하면서 몰몬경 출판 작업이 시작되었다.

원고를 지키려는 노력

조셉과 동료들은 초반에 몰몬경 원고 116쪽을 분실한 적이 있는 데다가 당시 팔마이라 지역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반감이 날로 커져 가고 있었기에, 이들은 인쇄 과정에서 원고의 안전을 각별히 신경 썼다. 올리버 카우드리는 인쇄 작업을 위해 따로 원본의 사본을 만들어 인쇄용 원고를 마련했다. 하이럼 스미스는 그랜딘의 직원 중 한 명인 존 길버트라는 식자공에게 인쇄용 원고를 여러 번에 나눠서 전달했는데, 하이럼은 종종 안전을 위해 조끼 단추를 다 채우고 그 안에 원고를 숨겨 가기도 했다. 마틴 해리스와 올리버 카우드리, 하이럼 스미스, 피터 휘트머 2세는 각각 그랜딘 인쇄소에 들러 원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감독했다.

인쇄용 원고에는 사실상 구두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구두점을 넣는 일은 길버트가 직접 했다. 처음에 하이럼은 길버트 손에 원고를 밤새 맡기는 것을 반대했지만, 길버트는 구두점을 넣는 작업을 하는 동안 원고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조판 작업에 걸리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거라며 하이럼을 설득했다.

반대와 불매 운동에 맞서서

원고는 안전하게 보존되었지만, 애브너 콜이라는 그 지역의 한 풍자 작가가 그랜딘 인쇄소에 방치되어 있던 교정지에서 몰몬경 구절을 베껴 자신의 신문에 싣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콜의 발췌문 무단 게재를 중지시키기 위해 조셉은 몰몬경이 출판되기도 전에 판권을 행사해야 했다. 몰몬경이 곧 판매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지역에서는 불매 운동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농장을 잃을까 하는 걱정에 마틴 해리스는 조셉에게 요청하여, 저당 잡힌 재산을 되찾을 때까지 몰몬경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자신에게 부여한다는 계약서를 쓰게 했다.

교회의 조직을 눈앞에 두고 기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던 조셉과 동료들은 몰몬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다. 이때 하이럼 스미스는 몰몬경의 복제권과 배부권을 캐나다에 파는 것(그들 말을 빌리자면 “판권 판매”)을 고려해 보자고 조셉에게 제안했다. 이 계획을 도왔던 하이럼 페이지는 형제들이 원했던 판매가가 8천 달러였다고 훗날 말했다. 조셉은 주님으로부터 최근에 있었던 어려움 때문에 몰몬경의 출판이 좌절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그곳]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인도하는 바에 대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는다면" 캐나다에 판권을 팔아도 된다는 계시를 받았다. 그리하여 조셉 스미스의 대리인들은 어퍼 캐나다 킹스턴까지 갔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다시 뉴욕주로 돌아왔다.[182]

몰몬경 판매

그랜딘 인쇄소는 인쇄와 제본 작업을 마친 몰몬경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올리버 카우드리, 마틴 해리스, 사무엘 스미스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책 홍보를 위해 짧은 순회 설교를 했다. 그러나 초반에 팔마이라 근방에서는 몰몬경이 잘 팔리지 않았다. 그렇게 일 년이 지나자 해리스의 재산은 결국 그랜딘에게서 담보물을 매입한 한 투자가에게 팔리게 되었다.[183] 그러나 선교사들이 몰몬경을 들고 전국을 누비면서, 몇 년 사이 이 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고, 그 덕분에 해리스는 결국 모든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었다. 또한 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조셉은 1837년에 2쇄를 주문했다.

원고 보존

책이 출판되고 나면 저자들은 보통 원고를 파기하는데,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한동안 원본과 인쇄용 원고 둘 다를 보관했다. 1841년에 조셉은 나부 하우스의 모퉁잇돌의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원본을 넣어 두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돌 안으로 스며든 물 때문에 원고는 대부분이 훼손되었다. 이중 제대로 보존된 분량은 전체의 약 28퍼센트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 원고들은 현재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역사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인쇄용 원고는 카우드리와 휘트머 가족의 도움으로 온전하게 보존되었다. 몰몬경의 번역 및 출판 과정을 특별한 관점에서 보게 해 주는 자료인 이 인쇄용 원고는 현재 Community of Christ(커뮤니티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보관 중이다.

몰몬경 비난 세력[184]

1830년 몰몬경이 출판되기도 전에 몰몬경과 이를 번역한 조셉 스미스를 혹평하는 기사들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조셉은 천사가 자신을 고대 기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었으며,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자신이 이를 번역했음을 단호하게 밝히며 그러한 비난에 대응했다. 당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라고 믿었기에, 새로운 경전의 출현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의 신성한 기원에 대한 조셉의 기록을 불신하며 몰몬경에 대해 공공연히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다.

세 명의 초기 비평가가 최초로 몰몬경에 대한 지속적 악평의 풍조를 조성했다. 애브너 콜, 알렉산더 캠벨, 에버 디 하우는 각각 조셉 스미스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환으로 몰몬경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콜(오바댜 도그베리라는 필명으로 집필)은 몰몬경이 다 인쇄되기도 전에 자신의 신문에 몰몬경을 발췌해 게재했다. 콜은 발췌문 게재를 중단해 달라는 조셉의 요청은 받아들였지만, 몰몬경을 조롱하며 종교에 대한 광신이라고 느낀 것을 맹렬히 비난하는 기사를 계속해서 썼다. 2년 뒤, 회복주의자 목사인 알렉산더 캠벨은 한층 더 나아가 몰몬경에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을 조사한 "몰몬경 분석"을 발행했다. 캠벨은 몰몬경의 독특한 요소들이 조셉이 당시의 문화를 표절한 것이라며, 이는 그 시대에 성행하던 종교적 개념들을 단순히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85] 오하이오에서 신문 기자로

182. "Revelation, circa Early 1830," in *Revelation* Book 1, 31, josephsmithpapers.org; see also "Revelation, circa Early 1830," Historical Introduction. 183. "Revelation, circa Summer 1829 [DC 19]," Historical Introduction, footnote 4, josephsmithpapers.org. 184. 출처: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history/topics/critics-of-the-book-of-mormon?lang=kor. 185. Alexander Campbell, *Delusions: An Analysis of the Book of Mormon; with an Examination of Its Internal and External Evidences, and a Refutation of Its Pretences to Divine Authority* (Boston: Benjamin H. Greene, 1832).

재직하고 있던 에버 하우는 몰몬경이 조셉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단해 조셉이 솔로몬 스폴딩이라는 사람이 쓴 미간 원고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186] 그는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감을 품은 후기 성도들의 이야기와 조셉에 대해 적대적인 진술을 서슴지 않은 팔마이라 주민들의 증언을 게재했다.[187]

스폴딩 표절설은 큰 호응을 불러일으켜 팔리 피 프랫과 같은 선교사들은 끊임없이 이에 대한 반박을 펼치며 반박 자료들을 발표했다. 1880년대에 스폴딩 원고가 실제로 발견되었을 때, 몰몬경과의 유사점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188]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평가들은 조셉 스미스가 그 책의 주요 개념들을 표절한 것이 틀림없다는 주장을 계속했다. 1902년에 아이 우드브리지 라일리는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아메리칸 인디언 혈통의 기원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에서 찾으려는 에단 스미스의 저서 *View of the Hebrews(히브리인들의 관점)*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189] 하지만 수십 년간의 논쟁 끝에 비평가들은 *View of the Hebrews*와 몰몬경 간의 실질적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 카우드리가 잠시 에단 스미스와 가까운 곳에 살긴 했으며, 또 에단 스미스의 저서가 몰몬경보다 7년 일찍 출판되기는 했지만, 카우드리나 조셉 스미스가 그 책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190]

1920년대에 후기 성도 총관리 역원이자 작가인 비 에이치 로버츠는 라일리의 주장에 자극을 받아 몰몬경을 비난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로버츠는 후기 성도들에게 비난하는 자들의 질문에 주의 깊고 진지하게 대답할 것을 권고했다.[191] 로버츠의 이러한 노력은 몰몬경을 옹호하고 비난에 대응할 구체적 답변을 찾기 위한 믿는 자들의 한층 더 부단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고대 미대륙의 환경과 몰몬경의 복잡한 문학적 구조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이루어졌다. 몰몬경을 비난하는 세력과 옹호하는 세력간의 논쟁은 오늘날에도 계속된다.[192]

20세기 후반 무렵에는 몰몬경의 문학적 가치와 종교적 영향력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3년부터는 대학 출판부와 일반 출판사에서 자체적으로 몰몬경을 출판하기 시작했다.[193] 어떤 문학 평론가들은 종교적 믿음에 대한 주제는 차치하고서라도 몰몬경에 담긴 복잡한 서술 문체와 주목할 만한 수사적 표현 양식을 인정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장차 몰몬경의 학문적 분석에 적대적 태도가 덜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194]

몰몬경과 DNA 연구[195]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몰몬경이 거룩한 경전으로 성경에 견줄 수 있다고 선언한다. 몰몬경에는 유럽인들이 도착하기 수백 년 전 근동 또는 서아시아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한 세 무리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196]

몰몬경의 주된 목적은 역사적이기보다는 영적인 데 있지만, 경전이 기술하는 인구 이동이 고대 아메리카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일치하는지 궁금해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DNA 과학의 발달 및 집단유전학 분야에 집중되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현대 아메리카

186. E. D. Howe, *Mormonism Unvailed: Or, a Faithful Account of That Singular Imposition and Delusion, from Its Rise to the Present Time* (Painesville, Ohio: E. D. Howe, 1834). 187. 파문된 후기 성도인 필라스티스 헐버트 박사는 조셉 스미스에 대한 진술서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자, 그 진술서들을 모아 하우에게 전달해 출판되게 했다.(David W. Grua, "Joseph Smith and the 1834 D. P. Hurlbut Case," *BYU Studies*, vol. 44, no. 1 [2005], 33–54 참조) 188. David J. Whittaker, "Early Mormon Pamphleteering," *Journal of Mormon History*, vol. 4 (1977), 39–41; Solomon Spaulding, *Manuscript Found: The Complete Original "Spaulding Manuscript,"* ed. Kent P. Jackson (Provo, Utah: Religious Studies Center, Brigham Young University, 1996). 189. 에단 스미스는 조셉 스미스의 친척이 아니다. 190. Larry E. Morris, "Oliver Cowdery's Vermont Years and the Origins of Mormonism," *BYU Studies*, vol. 39, no. 1 (2000), 122–23, footnote 3. 191. B. H. Roberts, *Studies of the Book of Mormon*, ed. Brigham D. Madse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5). 192. 몰몬경 연구의 역사를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한다. Terryl L. Givens, *By the Hand of Mormon: The American Scripture that Launched a New World Relig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93. Grant Hardy, ed., *The Book of Mormon: A Reader's Edition*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3); Joseph Smith Jr., trans., *The Book of Mormon: Another Testament of Jesus Christ* (New York: Doubleday, 2004); Joseph Smith Jr., trans., *The Book of Mormon*, introduction by Laurie Maffly-Kipp (New York: Penguin Books, 2008); Royal Skousen, ed., *The Book of Mormon: The Earliest Tex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194. Grant Shreve, "The Book of Mormon Gets the Literary Treatment," *Religion and Politics*, May 23, 2017, religionandpolitics.org 참조. 195. 출처: https://www.churchofjesuschrist.org/study/manual/gospel-topics-essays/book-of-mormon-and-dna-studies?lang=kor. 196. 몰몬경 소개 참조.

원주민에게서 확인된 DNA의 대다수가 동아시아 민족의 DNA와 가장 유사하므로 몰몬경에 언급된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197]

집단유전학의 기본 원칙들은 자료 분석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여느 과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유전학의 결론은 잠정적이며, 아메리카 원주민의 기원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 몰몬경에 나오는 백성의 DNA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의 유전자 프로필이 알려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타당한 과학적 이유가 있다. 같은 이유로, DNA 연구에 근거하여 몰몬경을 옹호하는 이들의 주장 역시 추론적이다. 간단히 말해, DNA 연구는 몰몬경의 역사적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결정적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

아메리카 인디언의 조상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는 대다수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시아계 DNA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해준다.[198] 과학자들은 몰몬경 기사 이전 시대에 비교적 소규모 무리의 사람들이 시베리아와 알래스카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했던 땅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이주했다는 학설을 세웠다.[199] 과학자들은 이들이 남미와 북미 전역으로 빠르게 퍼졌으며, 근대 아메리카 인디언의 주된 조상일 것이라고 말한다.[200]

몰몬경에는 몰몬경에서 다루는 백성과 인근에 살았을지도 모를 다른 백성 간의 문화적 접촉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따라서 초기 후기 성도들 대부분은 야렛, 리하이, 뮬레크 및 그 일행과 비슷한 근동 혹은 서아시아 민족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최초 또는 최대의 무리, 심지어는 유일한 무리였다고 추정하기도 했다. 이 가정을 토대로 비판론자들은 몰몬경에는 미 대륙에 살았던 다른 대규모의 무리가 등장하지 않으며, 따라서 현대 원주민에게서 근동계 DNA가 쉽게 확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몰몬경 자체에는 몰몬경에서 묘사된 백성이 그들이 거주했던 땅의 지배 민족 혹은 유일한 거주민이었다는 언급이 없다. 실제로, 몰몬경 본문에 담긴 문화적 및 인구통계학적 단서는 다른 무리의 존재를 암시한다.[201] 1929년 4월 연치 대회에서 제일회장단의 앤토니 더블유 이빈스 회장은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켰다. "우리는 결론을 내릴 때 신중해야 합니다. 몰몬경에는 이곳에 그들[몰몬경에서 다루는 백성] 이전에 아무도 없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202]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에 등장하는 백성 이외에 다른 백성들이 이주했을지 모른다는 발상도 수용했던 것으로 보인다.[203] 그리고 지난 한 세기에 걸쳐 많은 후기 성도 지도자와 학자들은 몰몬경 기록이 다른 정착민의 존재에 대해 완전히 일관된다는 것을 발견했다.[204] 2006년 개정된 몰몬경 소개에는 이러한 해석을 반영해 몰몬경 백성이 "아메리카 인디언 조상들 중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다.[205]

몰몬경 백성 또는 그들의 후손과 아메리카 대륙 다른 주민들 간의 결혼이나 유전적 혼합의 정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렇지만 경전 본문이 다룬 시기에도 이러한 혼혈은 어느 정도 실재한 듯 하다.[206] 분명해 보이는 것은 몰몬경 백성들의 DNA가 고대 아메리카에서

197. 본 기사에서는 북미와 남미의 모든 원주민들을 지칭하는 데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메리카 인디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DNA 연구와 몰몬경의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우고 에이 페레고의 "The Book of Mormon and the Origin of Native Americans from a Maternally Inherited DNA Standpoint," in Robert L. Millet, ed., *No Weapon Shall Prosper: New Light on Sensitive Issues*(2011), 171~216쪽, Michael F. Whiting의 "DNA and the Book of Mormon: A Phylogenetic Perspective," *Journal of Book of Mormon Studies* 12, no. 1(2003), 24-35쪽; Daniel C. Peterson, ed., *The Book of Mormon and DNA Research*(2008) 참조. 198. Antonio Torroni and others, "Asian Affinities and Continental Radiation of the Four Founding Native American mtDNAs,"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53 (1993), 563~590쪽; Alessandro Achilli and others, "The Phylogeny of the Four Pan-American MtDNA Haplogroups: Implications for Evolutionary and Disease Studies," PloS ONE 3, no. 3 (Mar. 2008), e1764. 199. Ugo A. Perego and others, "Distinctive Paleo-Indian Migration Routes from Beringia Marked by Two Rare mtDNA Haplogroups," *Current Biology* 19 (2009), 1-8쪽. 200. Martin Bodner and others, "Rapid Coastal Spread of First Americans: Novel Insights from South America's Southern Cone Mitochondrial Genomes," *Genome Research* 22 (2012), 811~820쪽. 201. John L. Sorenson, "When Lehi's Party Arrived in the Land, Did They Find Others There?" *Journal of Book of Mormon Studies* 1, no. 1 (Fall 1992), 1~34쪽. 이 논쟁은 최근 존 엘 소렌슨의 *Mormon's Codex: An Ancient American Book*(2013)에 더 잘 요약되어 있다. 소렌슨은 몰몬경 본문에 "니파이인들이 기록한 시기 내내, 그리고 아마도 야렛인의 시대에도 '약속의 땅'에 상당한 인구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When Lehi's Party Arrived," 34쪽) 만드는 암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202. Anthony W. Ivins, in Conference Report, Apr. 1929, 15쪽. 203. "Facts Are Stubborn Things," *Times and Seasons* 3 (Sept. 15, 1842): 922쪽. 이 글의 저자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조셉 스미스의 감수로 발행되었다. 또한 Hugh Nibley, *Lehi in the Desert, The World of the Jaredites, There Were Jaredites* (1988), 250쪽 참조. 204. 이 주제에 관한 주장들을 살펴보려면, Roper, "Nephi's Neighbors: Book of Mormon Peoples and Pre-Columbian Populations," *FARMS Review* 15, no. 2 (2003), 91~128쪽을 참조한다. 205. 몰몬경 소개. 소개는 몰몬경 본문의 일부는 아니다. 이전에는 레이맨인들이 "아메리카 인디언의 주된 조상"이라고 나와 있었다. 1981년 처음 출판된 이 문장에서도 다른 이들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다.(몰몬경 소개, 1981년판 참조) 206. Sorenson, "When Lehi's Party Arrived," 5~12쪽.

발견되는 모든 DNA의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그들의 DNA를 찾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집단유전학의 한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유전적 증거를 이해함

유전학의 기본 원칙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과학자들이 고대 주민에 대한 연구에 DNA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유전학 연구를 통해 몰몬경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잘 보여줄 것이다.

생명을 이루고 지탱하는 정보 체계인 DNA는 거의 모든 인간 세포핵에서 발견된다. 이는 염색체라는 46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 양쪽에서 각각 23개씩 물려받는다. 이 염색체에는 약 32억 개의 유전정보가 존재한다. 두 개인은 유전자 배열의 약 99.9

유전적 변이는 유전학자들이 무작위 돌연변이라 부르는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돌연변이는 생식 세포가 형성되는 동안 DNA가 복제될 때 발생하는 착오이다. 이러한 돌연변이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독특한 유전적 프로필을 낳고, 오랜 시간을 거쳐 축적된다. 첫 22개의 염색체쌍(상염색체라 부름)의 유전 양식은 계속되는 교차로 독특한 형질이 발현된다. 아버지와 어머니 양쪽에서 받은 DNA의 절반이 재조합되어 자녀의 DNA를 형성한다. 염색체 중 23번째 쌍은 자녀의 성별(남성의 경우 XY, 여성의 경우 XX)을 결정한다. Y염색체는 남성에게만 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이 유전자를 대부분 그대로 물려받는다.

인간 세포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의 구성 요소에도 DNA가 들어있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상대적으로 적은 약 17,000개의 유전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어머니를 통해 거의 그대로 물려받는다.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모든 자녀에게 전해지지만, 딸만이 자신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다음 세대로 전달한다.

미토콘드리아 DNA는 염기서열이 밝혀진 최초의 DNA이다. 이로써 유전학자들은 이를 인구학 연구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상염색체 DNA의 분석을 통해 유전학자들은 다양한 유전자 마커의 조합을 포함하는 복잡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집단유전학자들은 현대 및 고대 DNA 표본을 활용해 집단들의 기원, 이동 및 상관관계를 재현하려고 한다. 과학자들은 이용 가능한 자료를 조사하여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집단마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돌연변이의 조합을 파악했다. 고유한 미토콘드리아 DNA와 Y-염색체 프로필[Y-DNA]을 하플로그룹이라고 부른다.[207] 과학자들은 이 하플로그룹을 알파벳 문자로 나타낸다. [208]

오늘날 과학자들은 대다수 아메리카 원주민이 Y염색체 하플로그룹 C와 Q [209],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DNA 하플로그룹 A, B, C, D, X 등모두 동아시아인의 염색체에 속한다는 데 동의한다.[210]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다. 계속되는 연구는 새로운 식견을 더하기도 하고, 어떤 연구는 이전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한 예로, 2013년에 이뤄진 한 연구에 따르면 아메리카 원주민 DNA의 1/3이 고대 유럽이나 서아시아에서 기원했으며, 미 대륙으로의 최초의 이동이 있기 전에 그 유전자풀(gene pool)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211] 이 연구는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 DNA가 필연 동아시아인의 것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보다 더욱 복잡한 상황을 제시한다.

근동계 DNA 마커(marker)가 근대 아메리카 원주민 집단의 DNA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몰몬경에 기술된 백성처럼 콜럼버스 이전에 있었던 이동의 결과인지, 아니면 유럽인들의 점령 이후에 일어난 유전자 조합의 결과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과학자들이 유전자 마커의 출현 시기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분자 시계(molecular clock)"가 수백 년 전 더욱이

207. Peter A. Underhill and Toomas Kivisild, "Use of Y Chromosome and Mitochondrial DNA Population Structure in Tracing Human Migrations," *Annual Review of Genetics* 41 (2007), 539~564쪽. 208. 하플로그룹 이름은 알파벳과 숫자가 번갈아 나오는 표준화된 명명법을 따른다. 국제 유전 계보학회 참조. "Y-DNA Haplogroup Tree 2014", Mannis van Oven and Manfred Kayser M., "Updated Comprehensive Phylogenetic Tree of Global Human Mitochondrial DNA Variation," *Human Mutation* 30 (2009), E386-E394 참조. 209. Vincenza Battaglia and others, "The First Peopling of South America: New Evidence from Y-Chromosome Haplogroup Q," *PLoS ONE* 8, no. 8 (Aug. 2013), e71390. 210. Ugo A. Perego and others, "The Initial Peopling of the Americas: A Growing Number of Founding Mitochondrial Genomes from Beringia," *Genome Research* 20 (2010), 1174~1179쪽. 211. Maanasa Raghavan and others, "Upper Palaeolithic Siberian Genome Reveals Dual Ancestry of Native Americans," *Nature*, Nov. 20, 2013.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동 시기까지도 정확히 파악할 만큼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어느 정도 기인한다.[212]

과학자들은 아메리카로의 또 다른 소규모 이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213] 예를 들어, 2010년, 그린란드에서 잘 보존된 채로 발견된 4,000년 된 팔레오에스키모에 대한 유전분석을 통해 과학자들은 동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외에도 일단의 사람들이 아메리카로 이동했다는 가설을 제기했다. [214] 이 연구에 대해 스탠포드 대학교의 집단유전학자 마커스 펠드먼은 이렇게 말했다. "단 한 번의 대이동이 있었다는 모델은 일반적으로 이상적인(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 대한 가설로 간주된다. 천 년 동안 소규모의 이동이 계속 있었을 수도 있다."[215]

창시자 효과(Founder Effect)

DNA 증거를 이용해 몰몬경 백성에 관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한 가지 이유는 아메리카 대륙에 온 리하이, 새라이아, 이스마엘 및 다른 이들의 DNA에 관해 알려진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데 있다. 유전학자들이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아메리카 인디언 부족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찾아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몰몬경에 기술된 이주 집단의 구성원 각자가 전형적 근동인의 DNA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들 중 일부가 다른 지역에서 좀 더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DNA를 보유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의 후손은 그 본향, 즉 근동 지역의 민족에게서 예상되는 것과는 다른 유전적 프로필을 물려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을 창시자 효과라고 한다.

후기 성도 집단유전학자인 우고 에이 페레고 박사의 경우를 보자. 페레고 박사의 계보에 따르면 그는 몇 세대에 걸친 이탈리아인임이 확실하지만, 부친 쪽 유전적 계통의 DNA는 아시아계/아메리카 원주민 할로그룹 C에 속한다. 이는 과거 언젠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의 이주를 통해, 페레고 가문의 본향에 이례적인 DNA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216] 페레고 박사와 가족이 외딴 대륙에 정착하게 된다면, 훗날 그 후손의 Y염색체를 연구하는 유전학자들은 그 땅의 최초 정착자들이 이탈리아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왔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다. 이러한 가설적인 이야기는 집단유전학에 관한 결론이 그 집단의 시조가 보유한 DNA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몰몬경의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

개체군 병목현상 및 유전적 부동

어려움은 창시자 효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몰몬경 속 이주민이 전형적 근동인의 DNA로 간주되는 DNA를 가졌다는 것이 매우 확실해 보인다고 해도, 그들의 DNA 마커가 몇 세기가 흐르면서 후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꽤 있다. 개체군 병목현상 및 유전적 부동과 같이 과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원칙들로 인해 흔히 유전자 마커의 손실이 야기되거나 그러한 마커를 거의 발견하기 힘들게 되기도 한다.

212. 이 "시계"는 오랜 시간에 걸쳐 DNA에 나타나는 무작위적 돌연변이의 관찰 비율에 기초한 것이다. 제안된 미토콘드리아 DNA 분자 시계의 한 예를 보려면, Pedro Soares and others, "Correcting for Purifying Selection: An Improved Human Mitochondrial Molecular Clock,"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84 (2009), 740~759쪽 참조. 213. Alessandro Achilli and others, "Reconciling Migration Models to the Americas with the Variation of North American Native Mitogenome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10, no. 35 (2013), 14308~14313쪽. 214. Morten Rasmussen and others, "Ancient Human Genome Sequence of an Extinct Palaeo-Eskimo," *Nature*, Feb. 11, 2010, 757~762쪽. 이 가상의 이동은 미 대륙에 있었던 초기 이동에서부터 약 200세대 정도 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 215. Cassandra Brooks, "First Ancient Human Sequenced," *Scientist*, Feb. 10, 2010, www.thescientist.com/blog/display/57140에서 인용. 캔자스 대학교의 분자인류학자인 마이클 에이치 크로포드는 이와 유사하게 "증거로는 특정 아메리카 원주민 집단과 아시아 또는 오세아니아 항해자들 간에 작은 문화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Michael H. Crawford, *The Origins of Native Americans: Evidence from Anthropological Genetics* [1998], 4쪽)
216. Perego, "Origin of Native Americans," 186~187쪽.

개체군 병목현상(Popuation Bottleneck)

개체군 병목현상이란 자연재해, 전염병, 큰 전쟁, 또는 기타 재난으로 집단의 상당수가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때 발생하는 유전적 변이의 상실을 말한다. 이러한 사건은 특정 유전자 프로필을 심각하게 축소하거나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오랜 시간에 걸쳐 돌연변이를 통해 유전적 다양성이 회복될 수도 있지만, 이전에 존재했던 다양성의 많은 부분은 영원히 상실된다.

몰몬경 말미에 등장하는 파국적 전쟁 외에도, 15세기와 16세기 유럽의 아메리카 점령은 그러한 일련의 끔찍한 사건들을 촉발했다. 전쟁과 질병 확산의 결과로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은 엄청난 인구의 상실을 겪었다.[217] 한 분자인류학자는 유럽인들의 아메리카 점령으로 "유전적 병목현상을 통해 전체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가 감소하게 되었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러한 인구의 감소가 살아남은 무리의 유전자를 영구히 변화시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이전에 미 대륙에 살던 주민의 유전자 구조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어렵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218]

유전적 부동(Genetic Drift)

유전적 부동이란 소규모 집단에서 일어나는 무작위적인 요인으로 유전자 마커가 점진적으로 상실되는 것이다. 다음은 이 개념을 설명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간단한 예시이다.

병에 빨간 구슬 10개, 파란 구슬 10개 등 20개의 구슬을 채운다. 이 병은 한 집단을 나타내며, 구슬은 다른 유전자 프로필을 가진 사람들을 나타낸다. 이 병에서 무작위로 구슬 하나를 꺼내 그 색깔을 기록하고 그 병 안에 다시 넣는다. 구슬 하나를 꺼내는 것은 자녀의 출생을 나타낸다. 구슬을 20번 꺼내 그 집단 내에서 새로운 세대를 모의로 만든다. 이 두 번째 세대에는 각 색깔이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두 색깔의 숫자가 균등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세 번째 세대를 형성하기 전에, 유전자 풀 안에 있는 새로 섞인 유전자 프로필이 반영되도록 병 안에 든 각 색깔의 비율을 조정한다. 구슬을 계속해서 꺼냄에 따라, 이제는 균등하지 않은 조합 탓으로 색깔이 더 많은 구슬을 뽑을 빈도수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몇 세대에 걸쳐, 한 가지 색깔에 대한 이러한 "부동" 현상으로 다른 색깔이 사라지게 될 것임은 거의 확실하다.

이 활동은 몇 세대에 걸친 유전 물질의 유전 양식을 예시하여, 부동이 어떻게 유전자 프로필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부동의 효과는 특히 소규모의 고립된 집단이나 독특한 유전자 프로필을 지닌 소규모 집단이 다른 혈통의 훨씬 커다란 집단과 섞이는 경우에 확연하게 나타난다.

유전자 데이터와 계보 자료를 조합해 아이슬란드에서 수행한 한 연구는 오늘날 이 나라에 사는 국민의 대다수가 불과 300년 전에 그곳에 살았던 사람 중 소수에게서만 미토콘드리아 DNA를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219] 당시 아이슬란드에 살던 대다수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DNA는 단순히 부동의 무작위적 효과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같은 이유로 몰몬경 백성의 DNA의 상당수가 존속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유전적 부동은 특히 미토콘드리아 DNA와 Y 염색체 DNA에 영향을 미치지만, 상염색체 DNA 변형의 상실로도 이어진다. 소규모 집단이 대규모 집단과 섞일 때, 소규모 집단의 전형적인 상염색체 마커의 조합은 대규모 집단에 의해 급격히 억눌리거나 소멸된다. 소규모 집단의 마커는 조합된 집단 속에서 곧 희석되며,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유전적 부동 및 병목현상의 효과 탓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게다가, 세대에 걸친 상염색체 DNA의 교차와 재조합으로 원래의 대규모 집단에서 우세한 유전 신호가 전해지며 마커의 새로운 조합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소규모 집단의 특징이 되는 마커 조합을 희박하게 만들어 확실히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

2008년 *미국 자연인류학 저널(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에 실린 한 논문에는 이러한 유전적 과정의 영향이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다. "유전적 부동은

217. David S. Jones, "Virgin Soils Revisited," *William and Mary Quarterly*, Third Series, vol. 60, no. 4 (Oct. 2003), 703~742쪽 참조. 218. Crawford, *Origins of Native Americans*, 49~51쪽, 239~241쪽, 260~261쪽. 219. Agnar Helgason and others, "A Populationwide Coalescent Analysis of Icelandic Matrilineal and Patrilineal Genealogies: Evidence for a Faster Evolutionary Rate of mtDNA Lineages than Y Chromosomes,"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72 (2003), 1370~1388쪽.

[아메리카 원주민 유전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럽인들의 침략 이후에 이뤄진 인구의 심각한 감소와 더불어 하플로그룹 빈도수를 변화시켜 많은 단상형(haplotype)의 손실을 야기했다."[220] 유전자 프로필이 전부 손실되었을 수도 있고, 한때 존재했던 조합이 너무 희박해져 발견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인구의 일부가 실제로 한 개인 또는 집단과 계보상으로 연관이 있더라도 그 조상에게 속하는 것으로 확인 가능한 DNA를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달리 말하자면, 조상 중에 몰몬경 백성이 포함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DNA를 이용해 그 관계를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다.[221]

결론

비판론자들과 몰몬경 옹호자들은 각기 DNA 연구를 이용해 자신들의 견해를 뒷받침하고 싶어 하지만, 명확한 답을 제시할 결정적 증거는 없다. 몰몬경 백성의 DNA에 관해 알려진 바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설령 알려진 바가 있다 하더라도 개체군 병목현상과 유전적 부동과 같은 과정으로 오늘날 그들의 DNA를 검출할 가능성은 없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댈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세속적 증거로는 몰몬경의 진위를 판명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222]

몰몬경 기록자들은 종교적 진리를 전달하고 그 백성들의 영적 유산을 보전하는 데 주된 관심을 두었다. 그들은 백성 대부분의 멸망이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록이 보존되어 언젠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신의 권능으로 [그들]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223]고 약속했다. 이 책의 참됨에 대해 이것을 시험해 본 무수한 사람에게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 주는 권능을 지닌 거룩한 경전이다.

220. Beth Alison Schultz Shook and David Glenn Smith, "Using Ancient MtDNA to Reconstruct the Population History of Northeastern North America,"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137 (2008), 14쪽. 221. "How Many Genetic Ancestors Do I Have?" Co-op Lab, Population and Evolutionary Genetics, UC Davis 참조. 222. 댈린 에이치 옥스, "The Historicity of the Book of Mormon," in Paul Y. Hoskisson, ed., *Historicity and the Latter-day Saint Scriptures* (2001), 239쪽. 223. 댈린 에이치 옥스, "The Historicity of the Book of Mormon," in Paul Y. Hoskisson, ed., Historicity and the Latter-day Saint Scriptures (2001), 239쪽.

일화로 된 역사 이야기

1815년 4월~1830년 4월[1]

믿음으로 구하고

1815년, 인도네시아 숨바와 섬은 얼마 전에 내린 비로 초목이 무성했다. 농가들은 여느 해와 다름없이 탐보라 화산 아래 일군 논에서 벼농사를 지으며 이제 곧 다가올 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4월 5일,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탐보라 화산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어나 화산재와 불길을 토해 내기 시작했다. 대포가 터지는 듯한 굉음을 수백 킬로미터 너머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화산 분화는 며칠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4월 10일 저녁, 산 전체가 폭발했다. 하늘로 솟구쳐 오른 세 개의 불기둥이 한데 섞이며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다. 산비탈을 따라 흐른 용암이 산자락 마을을 뒤덮었고, 마을에 불어닥친 회오리바람에 나무들이 뿌리째 뽑히고 가옥들이 휩쓸려 갔다.[1]

혼돈은 그날 밤새도록 계속되었고, 이튿날까지도 이어졌다. 화산재가 수 마일 반경의 대지와 바다를 뒤덮었으며 일부 지역에는 50센티미터 이상까지 쌓였다. 한낮에도 한밤과 같은 어둠이 있었다. 해안선을 넘어와 드세게 몰아친 바닷물은 추수를 앞둔 마을을 삼켜 버렸다. 탐보라 화산은 몇 주에 걸쳐 끊임없이 재와 돌덩이, 불길을 뿜어 댔다.[2]

그 후 몇 달간, 화산 폭발의 여파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하늘에는 사람의 넋을 잃게 하는 눈부신 석양이 드리웠다. 하지만 석양의 화려한 빛깔은 지구를 둘러싼 화산재의 치명적인 영향을 잠시 감추고 있을 뿐이었다. 이듬해에 날씨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돌변했고 있을 수 없는 파괴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3]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인도에는 이상 저온 현상이 일어났다. 게다가 콜레라가 창궐하여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많은 가정이 파괴되었다. 온화한 기후의 축복을 받던 중국의 비옥한 강 유역에서는 한여름의 눈보라가 몰아쳤고, 폭우가 쏟아져 농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유럽에서는 식량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기아로 사회적 공황이 일어났다.[4]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이상 기후로 야기된 고통과 죽음의 원인을 찾고자 했다. 인도의 힌두교 사원에서는 성자들의 기도 소리와 노랫소리가 메아리쳤다. 중국의 시인들은 고통과 상실의 화두를 놓고 씨름했다. 프랑스와 영국의 국민들은 성경에 예언된 참혹한 재앙이 닥쳐올 것을 두려워하며 무릎을 꿇었다. 북미에서는 목사들이 불순종하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고 계시다고 설교하며, 경고의 목소리로 종교적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

미국 전역에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을 안고 교회와 부흥회로 모여들었다.[5]

---

1. 출처: 성도들: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1권: 진리의 표준 1~8장. 공식승인 하에 게재함. 1. Raffles, "Narrative of the Effects of the Eruption," 4~5, 19, 23~24. 2. Raffles, "Narrative of the Effects of the Eruption," 5, 7~8, 11. 3. Wood, *Tambora*, 97. 4. Wood, *Tambora*, 78~120; Statham, *Indian Recollections*, 214; Klingaman and Klingaman, *Year without Summer*, 116~18. 5. Wood, *Tambora*, 81~109; Klingaman and Klingaman, *Year without Summer*, 76~86, 115~20.

북미의 기후는 그다음 해까지도 탐보라 화산 폭발의 영향을 받았다. 강설과 된서리가 이어져 봄이 없어졌고,여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1816년은 여름이 없던 해로 기억되었다.[6] 미국 북동부 끝자락인 버몬트에서 구릉지의 돌밭을 일구던 농부, 조셉 스미스 일세 역시 몇 년째 좌절감을 맛보고 있었다. 그해 여름, 조셉 일세의 밭은 끊임 없는 서리로 시들어 가고 있었다. 마침내 조셉 스미스 일세와 그의 아내 루시 맥 스미스는 계속 그 지역에 살다가는 재산만이 아니라 미래마저 불확실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직시했다.

마흔다섯 살인 조셉 일세는 더 이상 젊지 않았다. 그에게 새로운 땅에서 다시 삶을 일궈야 한다는 것은 막막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곡식을 심고 거두는 일을 거들 수 있는 열여덟 살 난 맏아들 앨빈과 열여섯 살 난 둘째 아들 하이럼이 있었다. 열세 살인 딸 소프로니아도 이제 어머니 루시를 도와 집안일과 농장 일을 거들기에 충분한 나이였다. 또, 아직 어리긴 하지만 여덟 살인 새뮤얼과 다섯 살인 윌리엄도 전보다 가족에게 더 힘이 되고 있었으며 세 살배기 캐더린과 갓 태어난 돈 칼로스도 금세 자라서 제 몫을 할 것이었다.

하지만 중간에 있는 열 살 난 아들인 조셉 이세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4년 전에 그 아이는 다리에서 감염 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목발을 짚고 다녔다. 점점 회복이 되고 있긴 했지만, 아직도 통증이 심해서 다리를 절었다. 조셉 일세는 이 아들이 형들처럼 건강하게 자라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7]

스미스 가족은 서로를 의지하면 다 잘 되리라 확신하며 더 좋은 땅을 찾아 버몬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8] 조셉 일세는 외상으로 살 수 있는 좋은 농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주변 사람들을 따라 뉴욕주로 가기로 했다. 잘만 된다면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와 새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었다.

조셉 일세는 거리까지 나와 배웅하는 앨빈과 하이럼을 뒤로 한 채 뉴욕으로 떠났다. 조셉 일세는 아내와 자녀들을 끔찍이 사랑했지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불운과 투자 실패로 가족은 늘 가난에 허덕였고 아직 어느 곳에도 뿌리내리지 못한 터였다. 하지만 뉴욕주는 다를지도 몰랐다.[9]

그해 겨울, 조셉 이세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절뚝이는 걸음으로 눈길을 헤쳐 나갔다. 그들은 팔마이라라는 뉴욕주의 마을을 향해 서쪽으로 가는 길이었다. 팔마이라 근처에서 아버지 조셉 일세가 좋은 땅을 봐 두고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루시는 남편 없이 이사를 해야 했기에 마부로 하워드라는 사람을 고용했다. 하지만 하워드는 여행하는 동안 스미스 가족의 짐을 함부로 다루고, 루시가 준 품삯을 도박과 술로 탕진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가족이 마차를 함께 타고 가게 되었을 때, 하워드는 그 가족의 딸들을 자기 옆에 앉혀서 가려는 속셈으로 조셉을 마차에서 쫓아내기까지 했다.

조셉이 걸을 때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를 아는 앨빈과 하이럼은 하워드에게 몇 번이나 항의를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채찍 손잡이로 그들을 때려눕혔다.[10]

좀 더 나이가 있었더라면, 분명 조셉도 하워드에게 직접 맞섰을 것이었다. 아픈 다리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거나 노는 것조차 여의치 않았지만, 조셉은 육신의 약함이 무색할 만큼 의지가 강한 아이였다. 수술 당시 조셉의 다리에 칼을 대어 뼈에서 감염 부위를 도려내야 했기에 의사들은 조셉이 움직이지 못하게 묶거나 그에게 술을 먹여 고통을 줄이려 했다. 그러나 조셉은 아버지에게 자신을 잡아 달라고만 부탁했다.

그는 수술을 받으며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또렷한 정신으로 끝까지 깨어 있었다. 조셉의 어머니 루시는 원래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었지만, 조셉이 지르는 비명을 듣고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 일을 겪은 뒤 그녀는 세상에 못 견딜 일은 없을 것만 같았다.[11]

---

6. Klingaman and Klingaman, *Year without Summer*, 48~50, 194~203. 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2, [11]~book 3, [2]. 주제: 조셉 스미스의 다리 수술 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3]; Stilwell, *Migration from Vermont*, 124~50. 9.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4]; Bushman, *Rough Stone Rolling*, 18~19, 25~28. 주제: 조셉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 가족 10.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1~32. 11.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1.

마차를 따라 절뚝절뚝 걸으며 조셉은 어머니가 하워드의 행태를 겨우 참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삼백여 킬로미터를 여행해 온 지금, 루시는 하워드의 나쁜 행실에 굉장한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었다.

팔마이라까지 160여 킬로미터 정도를 남겨 두고 루시가 길에서 보낼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고 있는데, 앨빈이 그녀에게로 달려왔다. 하워드가 루시 가족의 모든 살림살이를 길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그들의 말과 마차를 몰아 떠나 버린 것이었다.

루시는 그 남자를 술집에서 찾아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쳤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저 마차와 말은 물론 거기 실린 모든 짐은 내 소유입니다."

그녀는 술집을 둘러보았다.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 대부분은 루시와 같은 여행객들이었다. 루시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람은 저와 제 어린 여덟 자녀를 무일푼으로 남겨 놓고서 제가 여행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모조리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워드는 마차를 몰아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을 다 써 버렸으니 더 이상은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루시가 말했다.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 마차는 내가 직접 몰겠어요."

그녀는 하워드를 남겨 둔 채 술집을 나서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아버지에게 데려가겠노라고 다짐했다.[12]

남은 길은 차디찬 진창길이었지만, 루시는 가족을 무사히 팔마이라까지 데려갔다. 그녀는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매달려 얼굴에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며 지금까지 고생한 시간을 모두 보상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 가족은 곧 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 세를 내어 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농사지을 땅을 마련할 수 있을지를 상의했다.[13] 그들은 식구들이 품을 팔아 근처 숲에 있는 땅을 살 돈을 모으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조셉 일세와 제일 큰 두 아들은 돈을 벌기 위해 우물을 파고 울타리를 치고 건초를 베었다. 루시와 딸들은 가족이 먹을 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파이, 루트비어, 장식용 직물 등을 만들어 팔았다.[14]

어린 조셉은 자라면서 다리가 더 튼튼해졌고, 이제는 가뿐히 팔마이라 일대를 활보할 수 있게 되었다. 마을에 나가면, 방방곡곡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영적인 갈망을 채우고 삶에서 겪는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 종교에 기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조셉과 그의 가족이 정해 두고 가는 교회는 없었지만 이웃의 많은 사람들은 장로교의 높다란 예배당이나 침례교 집회소, 퀘이커교 회당 또는 순회 감리교 목사들이 때때로 부흥회를 여는 캠프장에서 예배를 보았다.[15]

조셉이 열두 살이었을 때, 종교적 논쟁이 팔마이라를 휩쓸었다. 비록 많이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러 가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조셉은 자신의 불멸의 영혼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바람으로 전도자들의 설교에 귀 기울였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종종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들은 조셉에게 그가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사는 죄인이며 인간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조셉은 그들의 말을 믿었고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실히 알지 못했다.[16]

조셉은 교회에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예배를 드릴 곳을 한 군데로 정할 수 없었다. 여러 다른 교회가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방법을 두고 끝없이 논쟁을 벌였다. 한동안 이런 논쟁을 지켜본 조셉은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읽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것에 마음이 괴로웠다. 하나님의 진리가 어딘가에 있다고 믿었지만, 어떻게 찾아야 할지는 조셉도 알 수 없었다.[17]

조셉의 부모에게도 그것은 어려운 문제였다. 루시와 조셉 일세는 모두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으며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루시는 교회 모임에 참석했으며, 종종 아이들을 데

12.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5]–[6];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6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2. 주제: 루시 맥 스미스
13.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6]–[7]. 14.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7]; Tucker, *Origin, Rise, and Progress of Mormonism*, 12. 주제: 조셉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 가족 15.Cook, *Palmyra and Vicinity*, 247–61. 주제: 팔마이라와 맨체스터; 조셉 스미스 시대의 기독교회 16.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2, in *JSP*, H1:11–12. 17.조셉 스미스—역사 1:5–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2, in *JSP*, H1:208–10 (draft 2). 주제: 조셉 스미스 시대의 종교적 믿음

려가기도 했다. 수년 전 그녀의 자매가 죽은 이후로 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찾고 있었다.

한번은 조셉이 태어나기 전에 심하게 아팠을 때, 진리를 찾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가진 적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구주 사이에 어둡고 쓸쓸한 간극이 있음을 느꼈으며 다음 생을 맞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루시는 밤새 깨어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자신을 살려 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찾을 것이라 약속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녀가 찾고자 구하면 찾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 후로 그녀는 더 많은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아직까지 올바른 교회를 찾지 못했다. 구주의 교회가 더 이상 지상에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조차 그녀는 교회에 가는 것이 안 가는 것보다 낫다고 믿으며 계속해서 교회를 찾아다녔다.[18]

조셉 일세도 그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진리에 목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잘못된 교회를 가느니 가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조셉 일세는 부친의 조언에 따라 경전을 연구했으며 간절히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셨음을 믿었다.[19] 그러나 그는 자신이 참되다고 느끼는 것과 주변의 교회에서 보는 혼란과 불화 사이의 간극에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느 날 꿈에서 다투는 전도사들이 마치 뿔을 땅에 쑤셔 박으며 울부짖는 소와 같음을 보았고, 그 후로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는 염려가 더 깊어졌다. [20]

그리고 조셉은 부모님이 주변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더욱 혼란에 빠졌다.[21] 영혼의 안녕이 걸린 문제였지만 아무도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했다.

일 년 넘게 저축을 한 끝에 스미스 일가는 팔마이라 남쪽에 맞닿은 맨체스터의 숲에 백이십 평 남짓한 땅을 계약할 만큼의 돈을 모았다. 거기서 그들은 삯일을 하는 틈틈이 단풍나무의 달콤한 수액을 모으고 과수원을 만들고 농작물을 심기 위해 들판을 일궜다.[22]

어린 조셉은 농사일을 돕는 와중에도 자신의 죄와 영혼의 안녕에 대한 걱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 팔마이라에서의 종교 부흥 열기는 가라앉았지만, 전도사들은 여전히 개종자를 찾기 위해 팔마이라와 주변 지역에서 경쟁했다.[23] 조셉은 밤낮으로 해와 달과 별이 장엄하고 질서있게 하늘을 지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명이 가득한 지구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그들의 강인함과 지성에 놀라워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실재하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류를 창조하셨음을 증명하는 듯했다. 하지만, 조셉은 어떻게 그분께 닿을 수 있을까?[24]

조셉이 열세 살이던 1819년 여름, 스미스 가족의 농장과 멀지 않은 곳에서 감리교 전도사들의 총회가 열렸다. 총회가 끝나자 그들은 스미스 가족과 같은 이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지역 곳곳으로 흩어졌다. 이 전도사들이 성공을 거두자 지역 목회자들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됐고, 금세 개종자를 찾기 위한 경쟁이 뜨거워졌다.

조셉은 여러 모임에 참석하면서 심금을 울리는 설교를 듣기도 하고 개종자들이 기뻐 소리치는 모습을 보기도 했다. 조셉 역시 그들과 함께 기쁨에 겨워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는 종종 자신이 말과 의견의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모든 교파 중에 누가 옳은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것인가?"라고 그는 자문했다.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수많은 사람과 교회가 종교를 두고 격돌하는 모습을 보며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지 알지 못했다.[25]

해답과 함께 영혼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은 그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듯했다. 그는 이런 극심한 소란 속에서 도대체 누가 진리를 찾을 수나 있을지 궁금했다.[26]

18.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2, [1]~[6]; "Records of the Se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Palmyra," Mar. 10, 1830. 19.Asael Smith to "My Dear Selfs," Apr. 10, 1799, Asael Smith, Letter and Genealogy Record, 1799, circa 1817~46, Church History Library. 20.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miscellany, [5]; Anderson, *Joseph Smith's New England Heritage*, 161~62. 21.조셉 스미스—역사 1:8~1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 in *JSP*, H1:208~10 (draft 2). 주제: 조셉 스미스 시대의 종교적 믿음 22.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8]~[10];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 in *JSP*, H1:11. 주제: 성스러운 숲과 스미스 가족 농장 23.주제: 각성 운동과 부흥회 24.사도행전 10:34~35;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2, in *JSP*, H1:12. 25.Neibaur, Journal, May 24, 1844, available at josephsmithpapers.org; 조셉 스미스—역사 1:10; Joseph Smith, "Church History," *Times and Seasons*, Mar. 1, 1842, 3:706, in *3*, H1:494. 26.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in *JSP*, J1:87; 조셉 스미스—역사 1:8~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 in *JSP*, H1:210 (draft 2).

그러던 어느 날, 조셉은 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신약전서의 야고보서 1장을 인용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27]

조셉은 집으로 돌아가 성경의 그 구절을 읽어 보았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 구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내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거듭거듭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이전에도 그는 성경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을 듯이 성경을 찾아보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질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조셉은 기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지금껏 한 번도 소리를 내어 기도해 본 적이 없었지만, 성경의 약속을 믿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가르쳤다.[28] 아무리 어설프게 여쭙는 질문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문을 들으실 것이었다.

그의 말을 들으라

1820년의 봄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난 조셉은 집을 나와 가까운 숲으로 향했다. 맑고 아름다운 날이었다. 머리 위에 드리운 나뭇가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조셉은 혼자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마침 숲에 조용한 곳이 있었다. 그는 얼마 전에 그곳에서 벌목을 한 뒤 나무 그루터기에 도끼를 꽂아 두고 왔었다.[1]

그는 주변에 혹시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피면서 그 자리를 찾아 걸음을 옮겼다. 소리 내어 기도할 시간을 간절히 바랐기에, 그는 어떠한 방해도 받고 싶지 않았다.

아무도 없음을 확신한 조셉은 서늘한 맨땅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마음속의 소망을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가슴에 품은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자비와 용서, 지혜를 구하며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저는 어느 교회에 가야 할까요?" [2]

바로 그때, 혀가 부어오르는 듯하여 굳어지더니 이내 조셉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 고개를 돌려 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조셉은 기도를 계속하려 했지만, 누가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발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조셉은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전히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3]

순간, 무언가 그를 엄습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여전히 혀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무거운 어둠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주변은 칠흑같이 컴컴해졌다. 의심과 함께 끔찍한 장면들이 빠르게 머릿속을 훑고 지나갔다. 조셉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가공할 존재에게 자신이 파멸되어 버릴 것만 같다는 기분을 느꼈다.[4]

조셉은 있는 힘을 다해 한 번 더 하나님을 불렀다. 혀가 풀리자 조셉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 달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깊은 절망감뿐이었다. 무겁게 짓누르는 어둠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고, 이제는 스스로 무너질 일만 남은 것 같았다.[5]

그 순간, 조셉의 머리 위로 빛기둥이 나타났다. 아주 천천히, 온 숲을 태울 듯한 찬란한 빛이 내려왔다. 빛이 조셉 위에 머무르자, 그를 짓누르던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조셉은 평안과 기쁨이 샘솟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27."Wm. B. Smith's Last Statement," *Zion's Ensign*, Jan. 13, 1894, 6; 야고보서 1:5. 28.조셉 스미스—역사 1:11~1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3, in *JSP*, H1:210~12 (draft 2); 야고보서 1:6. 1. 조셉 스미스—역사 1:1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2 (draft 2); Interview, Joseph Smith by David Nye White, Aug. 21, 1843, [David Nye White], "The Prairies, Nauvoo, Joe Smith, the Temple, the Mormons, etc.," *Pittsburgh Weekly Gazette*, Sept. 15, 1843, [3], available at josephsmithpapers.org. 2. Interview, Joseph Smith by David Nye White, Aug. 21, 1843, [David Nye White], "The Prairies, Nauvoo, Joe Smith, the Temple, the Mormons, etc.," *Pittsburgh Weekly Gazette*, Sept. 15, 1843, [3], available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JSP*, H1:12. 3.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in *JSP*, J1:88. 4. 조셉 스미스—역사 1:15; Hyde, *Ein Ruf aus der Wüste*, 15~1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2 (draft 2). 5. 조셉 스미스—역사 1:16;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8;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2 (draft 2).

가만히 올려다보니, 그 빛 속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 그렇게 눈부시고 장엄한 얼굴은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조셉의 이름을 부르시더니, 바로 옆에 선 다른 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6]

조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분의 얼굴도 눈부시게 장엄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구주께서 조셉을 향해 말씀하셨다. "조셉, 네 죄는 사해졌느니라."[7]

마음의 짐을 벗은 그는 다시 주님께 여쭈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야 할까요?"[8]

구주께서 조셉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곳에도 가서는 안 되느니라. 그들은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도다."

주님은 세상이 죄에 물들어 있다고 하셨다. "어느 교회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복음으로부터 떠나 있으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신성한 진리는 이미 변질되거나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장차 조셉에게 당신의 충만한 복음을 드러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다.[9]

구주께서 말씀하실 때, 조셉은 한낮의 해보다도 밝은 빛에 둘러싸인 천사의 무리를 보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또 보라, 아버지가 내리신 영광의 옷을 입고 내가 속히 오리라."[10]

조셉은 그 광채를 보며 숲이 남김없이 다 타 버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만, 숲의 나무들은 모세의 떨기나무가 그랬듯이 불이 붙어도 타지 않았다.[11]

빛은 서서히 사라져 갔고, 조셉은 기진맥진하여 땅에 누워 있었다. 빛기둥은 이제 보이지 않았으며, 조셉을 괴롭히던 죄책감과 혼란스러움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조셉은 가슴 가득 신성한 사랑을 느꼈다.[12]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말씀을 들었고, 진리와 용서를 구할 방법을 알게 되었다.

시현을 본 후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일 만큼 지쳐버린 조셉은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숲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러고는 겨우 집으로 돌아와 벽난로에 몸을 기대고 휴식을 취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묻는 어머니에게 그는 이렇게 답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아무 일도 없어요. 전 정말 괜찮아요."[13]

며칠 뒤, 조셉은 한 목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숲에서 자신이 본 일을 이야기했다. 그 목사는 팔마이라와 맨체스터 일대에서 활발하게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기에, 조셉은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리라 기대했다.

처음에 목사는 시현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늘의시현을봤다고하는사람은종종 있었기 때문이었다.[14] 그러나 곧 그는 화가 나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런 이야기는 악마에게서 온 것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는 시현과 계시는 이미 오래전에 그쳤으며,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15]

조셉은 당황스러웠다. 그는 곧 누구도 자신이 본 시현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6] 왜 아무도 믿지 않으려는 것일까? 조셉은 겨우 열네 살짜리 아이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아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는 평생 땅을 경작하고 온갖 궂은일을 하며 근근이 살아갈 것이 분명한 가난한 집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눈엣가시처럼 여긴 몇몇 사람들은 그런 조셉을 상대로 조롱을 퍼부었다. 조셉은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아이일 뿐인 자신에게 그토록 큰 냉소와 경멸이 쏟아지는 것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조셉은 묻고 싶었다. "사실을 말하는데 왜 괴롭히는 거죠? 나는 정말로 보았는데, 왜 다들 내게 그것을 부인하게 하려는 거죠?"

---

6. 조셉 스미스—역사 1:16~17;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JSP*, H1:12~1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4 (draft 2);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8. 7.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in *JSP*, H1:13. 8. Interview, Joseph Smith by David Nye White, Aug. 21, 1843, [David Nye White], "The Prairies, Nauvoo, Joe Smith, the Temple, the Mormons, etc.," *Pittsburgh Weekly Gazette*, Sept. 15, 1843, [3], josephsmithpapers.org. 9. 조셉 스미스—역사 1:5~26;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JSP*, H1:13; Levi Richards, Journal, June 11, 1843; Joseph Smith, "Church History," *Times and Seasons*, Mar. 1, 1842, 3:706, *JSP*, H1:494. 10.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in *JSP*, H1:13. 11.Pratt, *Interesting Account*, 5, *JSP*, H1:523. 12.조셉 스미스—역사 1:20; Interview, Joseph Smith by David Nye White, Aug. 21, 1843, [David Nye White], "The Prairies, Nauvoo, Joe Smith, the Temple, the Mormons, etc.," *Pittsburgh Weekly Gazette*, Sept. 15, 1843, [3],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4 (draft 2);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JSP*, H1:13. 13.조셉 스미스—역사 1:2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4 (draft 2). 14.Bushman, "Visionary World of Joseph Smith," 183~204 참조. 15.조셉 스미스—역사 1:21;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 *JSP*, H1:216 (draft 2); Neibaur, Journal, May 24, 1844,josephsmithpapers.org. **Topic**: Christian Churches in Joseph Smith's Day 16.Joseph Smith—History 1:22, 2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 *JSP*, H1:216~18 (draft 2); Interview, Joseph Smith by David Nye White, Aug. 21, 1843, [David Nye White], "The Prairies, Nauvoo, Joe Smith, the Temple, the Mormons, etc.," *Pittsburgh Weekly Gazette*, Sept. 15, 1843, [3], josephsmithpapers.org.

조셉은 그 의문을 풀기 위해 평생 이 문제를 거듭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일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고 그 빛 가운데서 두 분을 보았으며,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함으로써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이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었기에, 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17]

시현을 이야기하면 이웃들이 등을 돌린다는 것을 알게 된 조셉은 하나님이 알려 주신 것들에 만족하면서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최대한 삼가려 노력했다.[18] 그리고 시간이 지나 뉴욕을 떠난 뒤에야 숲속에서 겪었던 성스러운 일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는 용서받고 싶었던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세상이 회개해야 한다는 구주의 경고를 기록했다. 유려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조셉은 자신의 말로 그 장엄한 순간을 그대로 담아내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는 조금 더 공개적으로 시현을 언급했다. 이번에는 서기의 도움을 받아, 혼자 힘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었던 내용들까지 더 잘 전달할 수 있었다. 그 기록에서 조셉은 참된 교회를 찾고자 했던 열망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아들을 소개하셨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자신이 용서를 구했던 일보다는 구주께서 온 세상을 향해 전하신 진리의 메시지와 복음이 회복되어야 할 필요성을 더 자세히 적었다.[19]

그렇게 그때의 경험을 기록할 때마다 조셉은 주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음을 간증했다. 조셉은 어린 시절에, 구주의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배웠다. 그러나 주님은 때가 되면 당신의 복음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밝혀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렇기에 조셉은 하나님을 믿고 숲에서 받은 주님의 명에 충실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그는 인내하며 더 많은 가르침이 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다.[20]

금판

3년이 가고, 세 번의 가을걷이가 지나갔다. 조셉은 거의 매일 땅을 일구고 밭을 갈며 지냈고, 매년 가족 농장 비용을 갚기 위한 돈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삯일을 했다. 그리고 일만 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했기에 학교를 거르는 것은 다반사였다. 시간이 날 때마다 조셉은 대체로 가족들이나 다른 인부들과 어울렸다.

조셉과 친구들은 어리고, 마음에 근심이 없었다. 그들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다. 조셉은 한 번 용서받았다고 해서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그 영광스러운 시현으로 모든 질문이 응답된 것도 아니었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완전히 정리된 것도 아니었다.[1] 그래서 조셉은 하나님께 늘 가까이 다가가고자 노력했다. 성경을 읽고, 자신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으며, 다른 교회에 속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에 순종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비롯해 근방의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그도 하나님께서 지팡이나 돌멩이 같은 사물을 통해 지식을 밝혀 주실 수 있다고 믿었다. 전에 모세와 아론 등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그리 하셨듯이 말이다.[2] 이웃을 도와 우물을 파던 어느 날, 조셉은 우연히 땅속 깊은 곳에서 작은 돌멩이 하나를 발견했다. 종종 사람들은 잃어버린 물건이나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특별한 돌 같은 것을 쓰기도 했다. 그래서 조셉은 혹시 이 돌멩이도 그런 물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돌멩이를 들여다보니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조셉의 눈에 보였다.[3]

17.조셉 스미스—역사 1:21~2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 *JSP*, H1:216~18 (draft 2). 18.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3, *JSP*, H1:13; 또한 Historical Introduction to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JSP*, H1:6 참조. 19.조셉은 이 경험에 대해 평생 네 차례에 걸쳐 직접 쓰거나 다른 사람이 서술하도록 지도했다. 첫 번째 기록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3, in *JSP*, H1:11~13. 조셉이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글로 옮겼던 사람은 그 외에도 다섯 명이 더 있었다. 그렇게 작성된 아홉 개의 기사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Primary Accounts of Joseph Smith's First Vision of Deity," Joseph Smith Papers website, josephsmithpapers.org. 각 기사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고한다. "첫 번째 시현 기록", 복음 주제, topics.lds.org. **Topic**: Joseph Smith's First Vision Accounts 20.조셉 스미스—역사 1:2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 *JSP*, H1:218 (draft 2) 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4~5, *JSP*, H1:220 (draft 2);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 *JSP*, H1:11. 2. "Joseph Smith as Revelator and Translator," *JSP*, MRB:xxi; Turley, Jensen, and Ashurst~McGee, "Joseph the Seer," 49~50; 또한 Mosiah 8:17; Alma 37:6~7, 41; and Doctrine and Covenants 10:1, 4 (Revelation, Spring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참조. 3. Bushman, *Rough Stone Rolling*, 48~49; Bushman, "Joseph Smith as Translator," 242. 주제: 선견자의 돌

조셉이 이 돌을 사용하는 은사를 보이자 가족들은 놀라워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리신 증거라고 입을 모았다.[4] 그러나 그런 선견자의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여기실지에 대해 염려했다. 이제 더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시현을 본 후에 느꼈던 용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이 나약하고 불완전하여 책망을 받는 듯한 기분을 자주 느꼈다.[5]

1823년 9월 21일, 열일곱 살이 된 조셉은 그날, 형들과 같이 쓰는 다락방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에 식구들은 여러 교회와 거기서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조셉도 그 이야기를 듣느라 밤늦도록 깨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잠자리에 들어 집 안이 고요했다.[6]

조셉은 깜깜한 방에서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마음을 다해 간청했다. 그는 하늘의 천사와 대화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천사에게서 자신이 주님 앞에서도 좋다는 확인을 받고, 숲에서 약속받았던 복음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싶었다. 조셉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알았으므로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다시 응답을 받게 될 것을 믿었다.

그때, 희미한 빛이 침대 곁으로 비쳐 들어왔다. 빛은 점점 경계를 넓혀 다락을 구석구석 환하게 비췄다. 고개를 드니, 공중에 한 천사가 서 있었다. 천사는 손목과 발목까지 늘어진 희고 매끄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는 온몸에서 빛이 퍼져 나오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번갯불처럼 빛이 났다.

조셉은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이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천사는 조셉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을 모로나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하나님이 조셉을 용서하셨으며, 이제 그분께서는 조셉에게 시키실 일이 있으시다고 전했다. 천사는 조셉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리라고 말했다.[7]

천사는 근방의 산에 묻혀 있는 금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판에는 한때 미대륙에 살았던 고대 백성의 기록이 새겨져 있다고 했다. 금판은 고대 백성의 기원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방문하시어 복음의 충만함을 가르치신 기사가 담긴 기록이었다.[8] 모로나이는 금판과 함께 묻혀 있는 선견자의 돌 두 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조셉은 이 돌들을 우림과 둠밈, 또는 해석기라고 불렀다. 그 돌들은 조셉이 금판의 기록을 번역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이었다. 선견자의 돌은 투명한 돌멩이 두 개가 하나로 묶여 가슴판에 연결된 형태라고 모로나이는 말했다.[9]

그런 다음, 모로나이는 성경의 이사야, 요엘, 말라기, 사도행전 등에 등장하는 예언을 그대로 들려주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고대에 주신 성약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인류는 창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10]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조셉을 선택하셨고, 충실하게 하나님의 명을 따른다면 조셉은 금판의 기록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11]

천사는 방을 떠나기 전에 조셉에게 판을 잘 돌보아야 한다고 명하며, 지시 없이는 누구에게도 보여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그는 이 명을 따르지 않으면 파멸을 면치 못하리라고 경고했다. 말을 마친 모로나이는 빛에 싸여 하늘로 올라갔다.[12]

조셉은 자리에 누운 채 시현을 되짚어 보았다. 그때, 방 안에 빛이 들어차면서 다시 모로나이가 나타났다. 천사는 앞서 전했던 말들을 그대로 되풀이하고는 다시 사라졌다. 그리고 한 번 더 나타나서, 세 번째로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조셉아, 판을 얻으려 할 때 네 마음이 어둠으로 채워지고, 모든 형태의 악이 마음에 밀려 들어와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가로막을지니

4.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95; 또한 앨마서 37:23 참조. 5.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4, *JSP*, H1:13~14; Joseph Smith—History 1:28~2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 *JSP*, H1:218~20 (draft 2). 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0]. 7.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4, *JSP*, H1:13~14; 조셉 스미스—역사 1:29~3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 *JSP*, H1:218~22 (draft 2); Pratt, *Interesting Account*, 6, *JSP*, H1:524; Hyde, *Ein Ruf aus der Wüste*, 17~20. 주제: 모로나이 천사 8.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8. 9. 조셉 스미스—역사 1:3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 *JSP*, H1:222 (draft 2);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4, *JSP*, H1:14; Oliver Cowdery, "Letter IV," *LDS Messenger and Advocate*, Feb. 1835, 1:65~67; Turley, Jensen, and Ashurst~McGee, "Joseph the Seer," 49~54;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July 1859, 164. 주제: 선견자의 돌 10.조셉 스미스—역사 1:36~41;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6, *JSP*, H1:222~26 (draft 2);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8~89. 11.Oliver Cowdery, "Letter IV," *LDS Messenger and Advocate*, Feb. 1835, 1:78~79;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1]. 12.조셉 스미스—역사 1:42~4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6, *JSP*, H1:226 (draft 2).

조심할지어다." 모로나이는 조셉을 지지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 아버지에게 가서 시현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그에게 당부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다. "네 부친은 네가 하는 말을 모두 믿을 것이니라."[13]

아침이 밝았을 때, 조셉은 아버지가 시현과 천사 이야기를 믿어 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로나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대신 아버지와 형 앨빈과 함께 집 근처 들판으로 나가 오전 내내 추수를 도왔다.

조셉은 일이 힘에 부쳤다. 높다랗게 자란 곡식을 낫으로 베면서 앨빈 형과 속도를 맞추려고 했다. 그러나 모로나이가 찾아와 밤새 한숨도 못 잔 데다 고대의 기록과 그것이 묻혀 있다는 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오래가지 못해 조셉은 손을 놓아 버렸다. 그 모습을 본 앨빈이 이렇게 말했다. "조셉, 그렇게 머뭇거려서는 안 돼. 어서 일을 마쳐야지."[14]

조셉은 더 열심히, 더 빨리 낫질을 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형을 따라갈 수 없었다. 한참 뒤, 파리한 얼굴로 손을 멈추고 서 있는 아들을 본 아버지 조셉 일세는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다. 그는 아들이 몸이 좋지 않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조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기운이 빠진 몸으로 울타리를 넘으려다가 그만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누운 채 숨을 가다듬던 조셉의 눈앞에 다시 모로나이가 나타났다. 공중에 서서 빛에 둘러싸인 모로나이가 조셉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네 부친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조셉은 아버지가 믿지 않으실까 봐 두려웠다고 대답했다.

"네 부친은 믿을 것이다." 모로나이는 조셉을 안심시키고 지난밤 들려주었던 메시지를 다시 전했다.[15]

아들이 천사와 천사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하자 조셉 일세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현이니 그 말씀대로 따르거라."라고 말했다.[16]

조셉은 곧바로 산으로 달려갔다. 지난밤 모로나이가 판이 묻힌 장소를 시현으로 보여 주었기에,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근방에서 제일 큰 그 산은 조셉의 집에서 5킬로미터 정도 거리에 있었다. 판은 산꼭대기에서 멀지 않은 서쪽 기슭의 크고 둥근 바위 아래에 묻혀 있었다.

조셉은 걸어가면서 그 판을 생각했다. 그것이 성스러운 물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떨치기가 쉽지 않았다. 조셉은 수호신이 지킨다는 숨겨진 보물 이야기를 들어보았지만, 모로나이와 그가 말한 판은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것들과는 달랐다. 모로나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선견자에게 안전하게 기록을 전달하도록 임명하신 하늘의 사자였다. 그리고 그 판은 금으로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가난에서 건져 줄 보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조셉의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다.[17]

산에 이르러 시현에서 본 장소를 찾아낸 조셉은 바위 밑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후 바위의 가장자리가 드러났다. 조셉은 큰 나뭇가지를 주워서 지렛대로 삼아 바위를 들어 옆으로 밀어냈다.[18]

덮개 구실을 하던 바위 밑에는 벽면과 바닥이 돌로 된 상자가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금판과 선견자의 돌, 가슴판이 있었다.[19] 고대 문자가 빽빽이 기록된 금판은 세 개의 고리로 철해져 있었다. 각 낱장은 가로가 15센티미터, 세로는 20센티미터였고, 각각 얇은 판으로 되어 있었다. 또, 일부 기록은 읽지 못하게 봉해져 있었다.[20]

13.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0]~[11]; Oliver Cowdery, "Letter IV," *LDS Messenger and Advocate*, Feb. 1835, 1:79~80; Oliver Cowdery, "Letter V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July 1835, 1:156~57; 조셉 스미스—역사 1:44~4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6~7, *JSP*, H1:230~32 (draft 2);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8~89. 14.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1]; 또한 Smith, *William Smith on Mormonism*, 9 참조. 15.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1]; Smith, *Biographical Sketches*, 82; 조셉 스미스—역사 1:48~4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 *JSP*, H1:230~32 (draft 2);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9. 16.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9. 17.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195~97. 주제: 보물 찾기 18.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195~97; 조셉 스미스—역사 1:51~5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6~7, *JSP*, H1:230~32 (draft 2); 또한 Packer, "A Study of the Hill Cumorah," 7~10 참조. 19.조셉 스미스—역사 1:5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 *JSP*, H1:232 (draft 2). 주제: 금판 20.Joseph Smith, "Church History," *Times and Seasons*, Mar. 1, 1842, 3:707, *JSP*, H1:495.

조셉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금판의 값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판에 손을 댄 찰나, 큰 충격이 조셉을 휩쓸고 지나갔다. 조셉은 얼른 손을 뗐다가 다시 판을 잡으려고 두 번 더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몸에 충격이 가해졌다.

조셉은 소리쳤다. "왜 잡을 수 없는 거지?"

그러자 바로 옆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네가 주님의 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21]

돌아보니, 모로나이가 있었다. 조셉은 퍼뜩 지난 밤 메시지가 떠올랐고, 이 기록의 진짜 목적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셉은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자 생각과 영혼에 성령이 느껴졌다.

모로나이가 명했다. "보라." 조셉의 눈앞에 또 다른 시현이 펼쳐졌고, 무수한 추종자들에게 둘러싸인 사탄의 모습이 보였다. 천사는 말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선과 악, 거룩한 것과 불순한 것, 하나님의 영광과 어둠의 권능이니라. 이제부터 너는 그 두 가지 힘을 깨닫고 절대 사악한 것에 물들거나 무릎 꿇지 말지어다."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생각을 굳건히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다. "이 성스러운 물건들은 오직 기도하고, 주님께 충실히 순종하는 사람만이 가져갈 수 있느니라. 이것들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 이득과 부를 쌓을 목적으로 이곳에 보관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들은 신앙의 기도로써 봉인되었노라."[22]

조셉은 언제 판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물었다.

"적임자를 데려온다면, 내년 구월 스물두째 날에 그리할 수 있을 것이다."

"누가 적임자인가요?" 조셉이 물었다.

"네 큰형이니라."[23]

어릴 적부터 조셉은 맏형인 앨빈을 의지했다. 그때 앨빈은 스물다섯 살이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따로 자기 농장을 마련할 수도 있었을 테지만, 늙어가는 부모님이 터전을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족 농장에 남아 함께 지내고 있었다. 조셉은 진중하고 부지런한 앨빈 형을 깊이 사랑하며 가까이 따랐다.[24]

모로나이는 조셉이 주님께서 판을 맡기실 만한 사람이 되려면, 형인 앨빈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저녁 무렵, 조셉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다. 조셉이 문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모두들 그가 산에서 무엇을 찾아왔는지 궁금해했다. 조셉은 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지만, 녹초가 된 동생의 모습을 본 앨빈이 만류했다.

"이제 모두 잘 시간이야, 내일 일찍 일어나서 일을 나가야지." 내일도 시간은 많을 테니 사실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들어도 되었다. "어머니가 저녁을 일찍 차려 주시면 밤에 시간이 있을 거야. 그러면 다 같이 앉아서 네 얘기를 듣자."[25]

이튿날 저녁, 조셉은 산에서 본 것을 이야기했고 앨빈은 동생의 말을 믿었다. 집안의 장남인 앨빈은 부모님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는 남동생들과 함께 가족이 편하게 생활할 좀 더 넓은 집을 짓고 있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스미스 가족은 조셉을 통해 영적인 평안도 얻게 된 듯했다. 매일 밤 조셉은 금판과 거기에 기록을 새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가족들은 조셉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그들의 집에는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다. 가족들 모두 무언가 멋진 일이 일어나리라는 기대감을 안고 있었다.[26]

모로나이가 다녀간 지 두 달여가 되어 가던 어느 가을날 아침, 앨빈이 복통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앨빈은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아파했고, 아버지에게 사람을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마침내 왕진을 온 의사가 엄청난 양의 하얀 가루약을 처방했지만, 그 약은 앨빈의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었다.

21.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197~98; 또한 Pratt, *Interesting Account*, 10, *JSP*, H1:527~29 참조. 22.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198~99. 23.Knight, Reminiscences, 1; Joseph Smith, Journal, Nov. 9~11, 1835, *JSP*, J1:89; 조셉 스미스—역사 1:53~5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 *JSP*, H1:232~34 (draft 2); 또한 Jessee, "Joseph Knight's Recollection of Early Mormon History," 31 참조. 24.Joseph Smith, Journal, Aug. 23, 1842, *JSP*, J1:116~17. 25.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3, [12]; book 4, [3]; Smith, *Biographical Sketches*, 83. 26.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1]~[3]; Smith, *Biographical Sketches*, 86~87; 또한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89; and Bushman, *Refinement of America*, 425~27 참조. 주제: 조셉 일세와 루시 맥 스미스 가족

앨빈은 고통 속에서 여러 날을 침상에서 보냈다. 죽음을 예감한 그는 조셉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그 기록을 얻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야 해. 충실하게 가르침을 받고 모든 명에 따르렴."[27]

앨빈은 곧 숨을 거뒀다. 무거운 슬픔이 집 안에 내려앉았다. 장례를 치르던 날, 목사는 앨빈이 지옥에 갔다는 식의 말만 늘어놓았다. 그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구원하지 않으실 때 사람들이 겪게 될 일들을 경고할 목적으로 앨빈의 죽음을 이용했다. 조셉 일세는 몹시 화가 났다. 그는 아들이 훌륭한 청년이었고, 하나님이 그런 아이를 벌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28]

앨빈의 죽음과 함께 금판에 대한 대화도 끝이 났다. 앨빈은 생전에 조셉의 신성한 부름을 든든하게 지지해 주었기에, 금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앨빈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조셉도 앨빈을 그리워하며 그의 죽음을 누구보다도 힘겹게 받아들였다. 맏형의 힘과 지혜에 기대어 기록을 얻고자 했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버림받은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29]

마침내, 다시 산에 갈 날이 되었다. 조셉은 홀로 걸음을 옮겼다. 조셉은 형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판을 맡기실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형이 말한 대로, 그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 모로나이는 판을 얻는 데 필요한 것들을 명확히 말해 주었다. 천사는 말했다. "판을 손에 들면 곧장 집으로 가서 안전한 곳에 넣고 자물쇠로 잠가야 하느니라."[30]

산에 오른 조셉은 다시 한 번 바위를 치워 내고 상자에 손을 뻗어 금판을 꺼냈다. 그때 문득, 자리를 뜨기 전에 상자 안에 있는 다른 물건들을 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셉은 판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상자를 덮었다. 그러나 다시 돌아보니, 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덜컥 겁이 난 조셉은 무릎을 꿇고 금판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 달라고 애원했다.

곧 모로나이가 나타나서 또 지시를 어겼다며 조셉을 꾸짖었다. 조셉은 손에서만이 아니라 눈에서도 판을 놓쳐 버린 것이었다. 이 어린 선견자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은 컸으나 아직 고대의 기록을 지킬 만한 힘은 없었다.

조셉은 자기 자신이 실망스러웠다. 모로나이는 그에게 이듬해에 다시 그곳으로 오라고 명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주님의 계획과 이제 시작될 위대한 일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다.

천사가 떠나자, 조셉은 말없이 터덜터덜 산에서 내려왔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 앞섰다.[31] 조셉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 안에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조셉을 보기 무섭게 판을 가져왔느냐고 물었다.

조셉이 대답했다. "아니요,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보긴 한 거지?"

"네, 하지만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조셉 일세가 말했다. "내가 너였더라면 가져왔을 거다."

"아니에요, 아버지. 주님의 천사가 허락을 안 해 주셔서 못 가지고 온 거예요."[32]

깨어 있으라

1825년 가을, 스물두 살의 에머 헤일은 이웃에 사는 조사이아 스토웰의 인부로 고용된 조셉 스미스라는 한 청년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 청년과 그의 아버지는 조사이아 소유의 땅에서 보물을 찾는 일에 고용된 사람들이었다.[1] 그 지역에는 수백 년 전에 탐험가들이 은광을 발굴해 얻은 보물을 어딘가에 감추어 두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조셉이 선견자의

27.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3]~[5]. 28.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6]~[8]; "Wm. B. Smith's Last Statement," *Zion's Ensign*, Jan. 13, 1894, 6. 29.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7]; Joseph Smith, Journal, Aug. 23, 1842, *JSP*, J2:116~17. 30.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2]~[3]. 31.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2]~[3]; Smith, *Biographical Sketches*, 85~86; Knight, Reminiscences, 1; 조셉 스미스—역사 1:54;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88; 또한 Jessee, "Joseph Knight's Recollection of Early Mormon History," 31 참조. 32.Smith, *Biographical Sketches*, 86. 1. Agreement of Josiah Stowell and Others, Nov. 1, 1825, *JSP*, D1:345~52.

돌을 쓰는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조사이아는 조셉에게 두둑한 임금을 약속했고, 보물을 찾으면 거기서 한몫 떼어 주겠다고 다짐했다.[2]

에머의 부친인 아이잭도 이 사업을 지원했다. 조셉 부자가 팔마이라에서 남쪽으로 240여 킬로미터 떨어진 펜실베이니아 하모니의 스토웰 농장에 와서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아이잭은 증인이 되어 주었다. 또한, 그는 보물 발굴을 돕는 인부들을 자기 집에서 기거하게 했다.[3]

얼마 후, 에머는 실제로 조셉을 만나게 된다. 조셉은 에머보다 어렸고, 키는 180센티미터가 넘었으며, 힘든 일에 익숙한 듯 보였다. 또, 얼굴이 희고 눈동자는 푸른 빛을 냈으며, 걸을 때 보일 듯 말 듯 다리를 절었다. 그는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쓰고, 자기 생각을 말할 때 중언부언하기도 했지만, 그의 말에는 타고난 지성이 묻어났다. 선량한 조셉 부자는 에머의 가족이 예배드리러 가는 교회에 가는 대신 둘이서 그들 나름의 예배를 드리곤 했다.[4]

조셉과 에머는 둘 다 야외 활동을 좋아했다. 에머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즐겨 탔고, 집 근처 강에서 카누를 타는 것도 좋아했다. 조셉은 말은 잘 타지 못했지만, 몸으로 부딪히며 힘을 겨루거나 공으로 하는 운동을 하면 지는 법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어울렸으며, 잘 웃고, 농담과 익살맞은 이야기도 자주 했다. 에머는 조금 더 내성적이었지만, 재미있는 농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책과 노래를 좋아했다.[5]

시간이 흐르면서 에머와 조셉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에머의 부모는 그런 두 사람의 관계를 탐탁지 않아 했다. 조셉은 다른 주에서 온 가난한 삯꾼이었기에, 그들은 딸이 조셉과 멀어져 마을의 유복한 집 자제와 결혼하기를 바랐다. 게다가 아이잭은 이제 보물 찾는 일을 미심쩍어 하고 있었기에, 거기서 조셉이 하는 역할도 그의 눈에는 수상해 보이기만 했다. 조셉은 보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자 조사이아 스토웰을 설득해서 보물 수색 일을 접게 했는데, 아이잭 헤일은 그런 것도 다 관심이 없었던 듯하다.[6]

그러나 에머는 자신이 아는 그 어떤 남자보다도 조셉이 좋았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해서 조셉을 만났다. 조셉은 은광 찾는 일을 그만두도록 조사이아를 설득해 낸 후에도 하모니에 머물며 조사이아의 농장에서 일을 했다. 때로는 인근에 있는 조셉과 폴리 나이트의 농장에서도 일했다. 그러면서 일이 없을 때는 에머를 만나러 갔다.[7]

얼마 안 가서 하모니에서는 조셉과 선견자의 돌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돌기 시작했다. 나이든 사람 중에는 선견자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심심찮게 있었지만,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조사이아의 조카는 조셉이 자기 삼촌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셉을 사기죄로 몰아 법정까지 문제를 끌고 갔다.

조셉은 판사 앞에서 자신이 선견자의 돌을 얻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조셉 일세는 자신은 아들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고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 선 조사이아는 조셉에게 사기를 당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판사가 말했다. "증인은 피고가 그 돌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보는 능력이 있음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조사이아는 이렇게 답했다. "저는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압니다."

조사이아는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인사였다. 사람들은 조사이아의 증언을 받아들였다. 결국 공판에서는 조셉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사건은 기각되었다.[8]

1826년 9월, 조셉은 판을 얻기 위해 다시 산을 올랐다. 그러나 모로나이는 조셉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경고했다. "돈을 찾는 자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 그러한 무리

---

2. Smith, *Biographical Sketches*, 91~92; 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200~202;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8, in *JSP*, H1:234 (draft 2); Smith, *On Mormonism*, 10. 주제: 보물 찾기 3. Agreement of Josiah Stowell and Others, Nov. 1, 1825, *JSP*, D1:345~52. 4. Pratt, *Autobiography*, 47; Burnett, *Recollections and Opinions of an Old Pioneer*, 66~67; Woodruff, Journal, July 4, 1843, and Oct. 20, 1855; Emmeline B. Wells, "L.D.S. Women of the Past," *Woman's Exponent*, Feb. 1908, 36:49;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 또한 Staker and Ashton, "Growing Up in the Isaac and Elizabeth Hale Home"; and Ashurst-McGee, "Josiah Stowell Jr.~John S. Fullmer Correspondence," 108~17. 참조 5. Baugh, "Joseph Smith's Athletic Nature," 137~50; Pratt, *Autobiography*, 47; Burnett, *Recollections and Opinions of an Old Pioneer*, 66~67; *Recollections of the Pioneers of Lee County*, 96; Youngreen, *Reflections of Emma*, 61, 67, 65, 69; Emmeline B. Wells, "L.D.S. Women of the Past," *Woman's Exponent*, Feb. 1908, 36:49. 6.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 *JSP*, H1:234 (draft 2); Smith, *Biographical Sketches*, 92; Bushman, *Rough Stone Rolling*, 51~53; Staker, "Isaac and Elizabeth Hale in Their Endless Mountain Home," 104. 7.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7-8, *JSP*, H1:234~36 (draft 2); Knight, Reminiscences, 2;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8. William D. Purple, "Joseph Smith, the Originator of Mormonism," *Chenango Union*, May 2, 1877, [3]; 또한 An Act for Apprehending and Punishing Disorderly Persons (Feb. 9, 1788), *Laws of the State of New-York* (1813), 1:114 참조. 주제: 조셉 스미스의 1826년 재판

가운데에는 사악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9]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앞으로 일 년 동안 더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판을 맡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사는 조셉에게 다음에 올 때는 한 사람을 더 데려오라고 당부했다. 조셉이 처음으로 산에 왔던 날에도 모로나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조셉에게 똑같은 말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 앨빈은 이 세상에 없었다. 조셉은 당황스러웠다.

"누구를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까?"

"곧 알게 될 것이다." 모로나이가 말했다.

조셉은 선견자의 돌을 들여다보며 주님의 가르침을 구했다. 그렇게 하여 조셉은 에머가 적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10]

에머는 조셉이 첫눈에 반한 사람이었다. 앨빈처럼, 에머는 조셉이 주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어 그분의 사업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조셉에게 에머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다. 조셉은 에머를 사랑했고, 에머와 결혼하고 싶었다.[11]

12월이 되어, 조셉은 이제 스물한 살이 되었다. 과거에 그는 자신의 은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기대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녔다.[12] 하지만 지난번에 산에 다녀온 뒤로, 이제 그는 판을 얻으려면 더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

조셉은 하모니로 돌아가기 전에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다.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반대하지 않으신다면 에머 헤일과 결혼하려고 해요." 조셉의 부모는 아들의 결정을 기뻐했다. 루시는 조셉에게 결혼을 하면 한 집에서 함께 살자고 했다.[13]

그해 겨울, 조셉은 되도록 많은 시간을 에머와 함께 보냈으며, 눈이 많이 와서 에머에게 가기가 어려울 때는 나이트 가족의 썰매를 빌려 타고 갔다. 그러나 에머의 부모는 여전히 조셉이 마음에 차지 않았다. 조셉이 아무리 애를 써도 요지부동이었다.[14]

1827년 1월, 에머는 조사이아 스토웰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가족들의 따가운 눈초리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조셉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날, 그곳에서 조셉은 에머에게 청혼했다. 처음에 에머는 무척 놀란 것 같았다. 에머는 가족들이 반대하리라는 것을 알았다.[15] 조셉은 에머에게 잘 생각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들은 곧바로 함께 멀리 달아날 수도 있었다.

에머는 조셉과 결혼하는 문제를 두고 숙고했다. 조셉과 결혼하면 가족들이 실망하겠지만, 이것은 자신이 선택할 문제였고, 무엇보다 에머는 조셉을 사랑했다.[16]

그로부터 며칠 후인 1827년 1월 18일, 두 사람은 에머의 가족들을 피해 치안 판사의 집에서 혼인 서약을 맺었다. 그리고 맨체스터로 가서 조셉의 부모가 사는 새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집은 안락했지만, 조셉의 부모가 집을 장만하는 데 든 큰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집의 명의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였다. 당시 스미스 가족은 그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다.[17]

조셉의 부모는 아들 내외를 반갑게 맞았다. 그러나 아들의 신성한 부름 때문에 그들은 애가 타고 있었다. 그 지역에는 금판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듣고 금판을 찾으러 다니는 자들까지 있었다.[18]

어느 날, 조셉이 읍내로 일을 보러 나갔을 때의 일이다. 저녁 시간에는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조셉의 부모는 그가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집에 돌아온 조셉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몹시 지쳐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니?"

이런 아버지의 물음에 조셉은 "이렇게 혼나 보기는 처음이에요." 하고 대답했다.

"대체 누가 널 혼냈다는 게냐?"

---

9.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July 1859, 169. 10.Knight, Reminiscences, 2. 11.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96; 또한 Knight, Reminiscences, 2 참조. 12."The Original Prophet," *Fraser's Magazine*, Feb. 1873, 229~30 참조. 13.Lucy Mack Smith, History, 1845, 97. 14.Knight, Reminiscences, 2;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 15.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 *JSP*, H1:236 (draft 2). 16.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Joseph Lewis and Hiel Lewis, "Mormon History. A New Chapter, about to Be Published," *Amboy Journal*, Apr. 30, 1879, 1; 또한 Oliver Cowdery, "Letter VIII,"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5, 2:201 참조. 17.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 *JSP*, H1:236 (draft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4, [11]~[12]; book 5, [1]~[3]. 주제: 성스러운 숲과 스미스 가족 농장 18."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July 1859, 167~68.

"주님의 천사요. 그동안 제가 태만했다고 했어요." 모로나이를 다시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조셉이 말했다. "서둘러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시작해야겠어요."[19]

추수철이 끝나자, 조사이아 스토웰과 조셉 나이트가 일을 보러 맨체스터 지역에 들렀다. 두 사람 다 조셉이 네 번째로 산에 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기에, 이번에는 과연 조셉이 모로나이의 신뢰를 받아 판을 맡을 수 있을지 몹시 궁금해하고 있었다.

그 지역에서 보물을 찾아다니던 사람들 역시 조셉이 판을 얻으러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인 새뮤얼 로렌스라는 자는 아예 산에서 어슬렁거리며 금판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9월 21일 저녁, 새뮤얼이 문제를 일으킬 것을 걱정한 조셉은 아버지에게 새뮤얼의 집으로 가 달라고 부탁했다. 거기서 지켜보다가 그가 산으로 가려는 낌새가 보이면 막아 달라는 것이었다.[20]

그런 다음, 조셉은 판을 찾으러 갈 채비를 했다. 이전 같았더라면 내일이 되어서야 산에 올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조셉은 9월 22일이 시작되는 자정 직후에 산에 도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그 시각에 집을 나서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테고, 그렇게 하면 보물 수색꾼들을 따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판을 가져온 뒤에 그것을 지킬 방도를 찾는 문제가 아직 남아 있었다. 식구들이 대부분 잠들자 조셉은 얼른 어머니에게 가서 집에 금고가 있는지를 여쭈었다. 루시가 금고가 없다며 걱정스러워하자

조셉은 "괜찮아요. 지금은 없어도 돼요." 하고 어머니를 안심시켰다.[21]

잠시 후, 말을 탈 복장을 차려입은 에머가 나왔고, 조셉과 에머는 조셉 나이트의 마차를 타고 집을 나섰다.[22] 산 앞에 당도하자 조셉은 에머를 마차에 남겨 두고서 판이 감춰진 곳을 향해 산을 올랐다.

모로나이가 나타났고, 조셉은 돌상자에서 금판과 선견자의 돌을 꺼냈다. 조셉이 산에서 내려가기 전, 모로나이는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는 주님께서 정하신 사람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판을 보여 주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판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들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었다.

"너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너의 신의를 지킬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사악한 자들을 당해내지 못하리니, 그들은 너에게서 판을 빼앗으려고 온갖 계획과 책략을 동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네가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다면,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23]

조셉은 판을 들고 산을 내려갔다. 그러나 금고를 구할 때까지 안전하게 판을 지켜야 하기에, 조셉은 속이 빈 통나무에 판을 감춘 뒤 마차로 갔다. 그는 마차에 있던 에머와 함께 동틀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다.[24]

집에서는 루시가 초조하게 조셉과 에머를 기다리며 조셉 일세와 조셉 나이트, 조사이아 스토웰의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혹여 아들이 판을 못 가져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루시는 부엌일을 하면서도 쉴 새 없이 가슴이 쿵쾅거렸다.[25]

잠시 후, 조셉과 에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루시는 조셉이 빈손인 것을 보고는 몸을 떨면서 자리를 피했다.

조셉은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 마음 놓으세요." 하고 말씀드렸다. 조셉은 손수건에 싼 물건을 어머니의 손에 쥐여 주었다. 손수건 속에서 커다란 안경처럼 생긴 물건이 만져졌다. 주님께서 판이 번역되도록 마련해 두신 선견자의 돌, 즉 우림과 둠밈이었다.[26]

루시는 마냥 기뻤다. 조셉도 무거운 짐에서 벗어난 듯 편안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 뒤에는 짐짓 안색을 바꾸고 말없이 아침을 들었다. 식사를 마친 뒤, 조셉은 어두운 얼굴로 턱을 괴고서 조셉 나이트를 향해 말했다. "아, 정말 기대했는데."

조셉 나이트는 조셉을 위로했다. "그것 참 안 됐네."

19.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4]~[6]. 20.Knight, Reminiscences, 2. 21.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6]. 22.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05. 23.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 24."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June 1859, 165~6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6]. 25.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6]~[7]; Knight, Reminiscences, 2. 26.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7]~[8].

조셉은 다시 한 번 "정말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요."라고 하더니 이내 환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 배는 더 훌륭해요!" 조셉은 판의 크기와 무게를 자세히 설명하고, 잔뜩 들뜬 목소리로 우림과 둠밈에 대해 이야기했다.

"뭐든 볼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27]

판을 얻은 다음 날, 조셉은 금고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근처 마을로 우물을 고치러 갔다. 그런데 그날 아침, 고개 너머로 일을 보러 가던 조셉 일세는 우연히 보물 수색꾼들의 말을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금판을 훔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조 스미스가 갖고 있든 지옥의 악마들이 갖고 있든 상관 없어! 우리가 가져오자고!"

조셉 일세는 놀란 가슴으로 집에 돌아와 에머에게 이 일을 알렸다. 에머는 판의 행방은 알지 못했지만, 남편이 어딘가에 잘 숨겨 뒀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에 조셉 일세가 말했다. "그럼, 그렇고말고. 에서가 사소한 것 때문에 축복과 생득권을 잃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조셉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단다."[28]

결국 에머는 판이 안전한지 알아보기 위해 말을 타고 한 시간 남짓 달려서 조셉이 우물을 고치고 있는 농장을 찾아갔다. 에머는 일을 하느라 땀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조셉을 우물가에서 찾아냈다. 판이 위험할지 모른다는 에머의 말에 조셉은 얼른 선견자의 돌을 들여다보았다. 판은 안전했다.

조셉 일세는 길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초조하게 집 밖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길 저쪽에서 아들 내외가 나타났다.

조셉이 말을 타고 다가오며 말했다. "아버지, 판은 무사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29]

하지만 가만있을 때가 아니었다.

조셉은 서둘러 산으로 달려갔다. 그는 통나무를 찾아 판을 꺼낸 뒤 셔츠를 벗어서 조심스럽게 감쌌다.[30] 조셉은 주변을 경계하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숲은 큰길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가 좋은 만큼 도둑이 숨어들 곳도 많은 곳이었다.

판이 무거워서 빨리 달릴 수는 없었지만, 조셉은 최대한 걸음을 재촉했다. 숲을 지나던 중에 길을 막고 쓰러져 있는 통나무가 나왔다. 조셉이 그 나무를 뛰어넘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조셉을 세차게 내리쳤다.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총을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달려들고 있었다.

조셉은 한쪽 팔로 판을 꽉 감싸 안은 채 남자를 바닥에 내치고 숲속 깊은 곳으로 허둥지둥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1킬로미터도 채 못 가서 괴한은 또 나타났다. 나무 뒤에서 나타난 그 사내는 개머리판으로 조셉을 가격했다. 조셉은 그 남자를 때려눕히고 앞으로 내달렸다. 얼른 숲을 벗어나야 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세 번째 괴한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어찌나 세게 얻어맞았던지 조셉의 걸음이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조셉은 있는 힘을 다해 세 번째 괴한에게 주먹을 휘두르고는 집 방향으로 힘껏 내달렸다.[31]

조셉은 한쪽 팔로 무거운 판을 안고서, 쓰러질 듯 문을 열어젖히며 집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판을 가져왔어요." 조셉이 소리쳤다.

열네 살 된 여동생 캐더린의 부축을 받으며 그는 판 꾸러미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식구들은 모두 조셉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아버지와 동생 윌리엄이 꾸러미를 풀어 보고 싶어 했지만, 조셉이 제지했다.

"우린 볼 수 없는 거니?" 조셉 일세가 물었다.

조셉이 대답했다. "네, 아버지. 처음엔 못 그랬지만, 이번에는 충실히 따를 거예요."

조셉이 셔츠로 덮여 있는 채로는 판을 만져 봐도 된다고 하자, 윌리엄이 꾸러미를 들어 올려 보았다. 꾸러미는 돌보다도 무거웠다. 판은 종이같이 얇은 낱장으로 되어 있고, 책처럼 넘길 수

27.Knight, Reminiscences, 2~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5, *JSP*, H1:222 (draft 2); 또한 앨마서 37:23 참조. 28.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8]~[10];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66; Smith, *Biographical Sketches*, 103; 또한 창세기 25:29~34 참조. 29.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10] and adjacent paper fragment. 30.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11]. 주제: 금판 31.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11].

도 있는 것 같았다.[32] 조셉은 남동생인 돈 칼로스를 하이럼 형에게 보내 금고를 가져오게 했다. 하이럼은 아내 제루샤와 갓 태어난 딸과 함께 근처에 살고 있었다.

곧 하이럼이 달려왔고, 조셉은 판을 금고에 넣은 후 옆에 있던 침대 위로 풀썩 쓰러졌다. 그리고 침대에 누운 채로 가족들에게 숲에서 괴한들을 만난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제야 조셉은 손에 통증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숲에서 싸우다 엄지손가락을 삔 모양이었다.

조셉은 이야기를 멈추고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제 손가락뼈를 좀 맞춰 주셔야겠어요."[33]

모든 것을 잃다

조셉이 금판을 집으로 가져오고 몇 주가 지날 때까지도 보물 수색꾼들은 여전히 판을 훔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었다. 조셉은 판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벽난로 밑으로, 아버지의 상점 바닥 아래로, 또 곡식더미로 이곳저곳으로 옮겨 가며 판을 숨겨야만 했다.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호기심 많은 이웃들은 집으로 찾아와서 기록을 보여 달라고 애원했다. 심지어 돈을 내겠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조셉은 예외 없이 거절했다. 그는 최선을 다한다면 판을 지킬 수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판을 지켜 냈다.[1]

그런 소란 때문에, 조셉은 판을 들여다보거나 새로 가져온 우림과 둠밈을 살펴볼 만한 여력이 없을 때가 많았다. 물론 해석기는 판을 번역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선견자의 돌로 고대 문자를 읽는다는 것은 조셉에게는 상상도 못 해 본 일이었다. 번역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조셉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2]

그렇게 조셉이 판에 대해 연구하고 있던 시기에, 마틴 해리스라는 팔마이라의 명망 있는 지주가 조셉의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틴은 조셉의 아버지뻘 나이로, 간혹 조셉이 일을 가기도 하는 농장의 주인이었다. 마틴도 금판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조셉의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 봐 달라고 부탁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3]

마틴이 찾아갔을 때, 조셉은 일을 나가고 집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먼저 다른 식구들에게 판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조셉이 돌아오자 그를 붙잡고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다. 조셉은 마틴에게 금판에 대해 알려 주고, 금판의 기록을 번역해서 출판하라는 모로나이의 지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마틴이 말했다. "이것이 악마의 일이라면 나는 조금도 관여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주님의 일이라면, 마틴은 조셉이 그 책을 세상에 널리 알리도록 돕고 싶었다.

조셉은 마틴에게 판이 든 금고를 들어 보게 했다. 안에 묵직한 것이 든 것 같긴 했으나 그것이 금판이라고 마틴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조셉에게 말했다. "당신 말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탓하지는 마십시오."

자정이 지나서야 집에 도착한 마틴은 침실로 들어가 기도를 드렸다. 그는 조셉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다.

그때, 마틴은 자신의 영혼에 속삭이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금판을 주셨으며, 조셉이 그 기록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이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4]

32."The Old Soldier's Testimony," *Saints' Herald*, Oct. 4, 1884, 643~44; Salisbury, "Things the Prophet's Sister Told Me," 1945, Church History Library; Ball, "The Prophet's Sister Testifies She Lifted the B. of M. Plates," 1954, Church History Library; Smith, *William Smith on Mormonism*, 1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11];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33.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5, [11]~[12]. 주제: 루시 맥 스미스 1. 조셉 스미스—역사 1:5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 in *JSP*, H1:236~38 (draft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2]; Knight, Reminiscences, 3. 2. Knight, Reminiscences, 3~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3];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 *JSP*, H1:11. 3.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67~6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3]~[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 *JSP*, H1:238 (draft 2). 주제: 몰몬경의 증인들 4.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68~70.

1827년이 저물어 갈 무렵, 아기가 생긴 것을 알게 된 에머는 친정 부모에게 편지를 썼다. 결혼한 지 벌써 일 년이 다 되었지만, 에머의 부모는 여전히 마음을 풀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딸이 친정 가까운 곳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딸 내외를 하모니로 부르기로 했다.

자신의 부모 형제와 떨어져 지내야 할 것이 분명함에도, 조셉은 하루빨리 하모니로 가고 싶어 했다. 그는 판을 노리는 뉴욕의 사람들을 피해 새로운 곳으로 거처를 옮겨 바라던 대로 편안하고 은밀하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셉은 빚이 있었고, 이사할 돈도 없었다.[5]

조셉은 재정을 정리해 볼 요량으로, 또 빚진 돈을 일부 갚을 겸해서 마을로 나갔다. 상점에서 물건 값을 치르는 조셉에게 마틴 해리스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스미스 씨, 여기 오십 달러입니다. 주님의 일에 쓰십시오."

조셉은 그 돈을 받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여 나중에 꼭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마틴은 사양했다. 그러고는 거기 있던 사람들 전부를 증인으로 세워 이 돈은 분명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로 주는 것임을 공언했다.[6]

그 덕분에 조셉은 곧 빚을 정리하고 짐을 꾸릴 수 있었다. 그는 콩이 든 통 속에 금판을 넣어 마차에 실은 뒤 에머와 함께 하모니로 향했다.[7]

약 일주일 후, 이 부부는 에머의 부모가 사는 널찍한 집에 도착했다.[8] 얼마 안 가서 에머의 아버지가 금판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조셉은 금판이 든 금고밖에 보여 줄 수 없다고 단언하며 거절했다. 아이잭은 못마땅한 얼굴로 금고를 들고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의심이 풀릴 리가 없었다. 그는 금고 속을 보여 주지 않으면 그것을 집 안에 둘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9]

그런 장인을 가까이 둔 채 번역 일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조셉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판에 새겨진 여러 낯선 문자를 종이에 옮길 때는 에머가 도움을 주었다.[10] 조셉은 그렇게 옮겨 적은 문자를 우림과 둠밈으로 번역해 보려고 몇 주에 걸쳐 애를 써 보았다. 하지만 선견자의 돌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무언가가 부족했다. 조셉은 마음을 겸손히 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고대 문자들을 연구했다.[11]

몇 달 후, 마틴 해리스가 하모니로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멀리 뉴욕으로 가서 고대 언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도록 주님께 부름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마틴은 그들이 판에 있는 문자들을 번역할 수 있기를 바랐다.[12]

조셉은 종이에 더 많은 분량의 문자를 옮겨 적고, 거기에 자신의 번역을 함께 적어 넣은 후 마틴에게 건넸다. 마틴은 뛰어난 학자들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조셉 부부의 배웅을 받으며 동쪽으로 떠났다.[13]

뉴욕시에 도착한 마틴은 컬럼비아 대학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찰스 안톤 교수를 찾아갔다. 마틴보다 열다섯 살 정도 아래인 안톤 교수는 그리스 로마 문화를 다룬 유명한 백과사전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었다. 또한, 그는 얼마 전부터 미국 인디언에 관한 일화를 수집하고 있기도 했다.[14]

안톤 교수는 방해받는 것을 싫어하는 융통성 없는 학자였지만, 마틴을 반기며 조셉이 보낸 문자들과 번역을 살펴봐 주었다.[15] 그는 이집트어를 몰랐지만, 이집트어에 관한 논문은 몇 편 읽은 적이 있었고 이집트어의 형태도 알았다. 문자를 살펴본 그는 그것이 이집트어와 어느 정도 유사한 것을 알아보았고, 또한 번역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마틴은 안톤 교수에게 필사한 문자를 더 보여 주었다. 안톤 교수는 그것들도 함께 살펴보았다. 그는 거기에 여러 고대 언어에서 나온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들은 진짜

5.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8~9, *JSP*, H1:238 (draft 2); Knight, Reminiscences, 3;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70. 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6];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21. 7.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70. 8. "Mormonism—No. II," *Tiffany's Monthly*, Aug. 1859, 17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JSP*, H1:240 (draft 2). 9. Isaac Hale, Affidavit, Mar. 20, 1834, "Mormonism," *Susquehanna Register, and Northern Pennsylvanian*, May 1, 1834, [1]. 10.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JSP*, H1:240 (draft 2); Knight, Reminiscences, 3. 11.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JSP*, H1:240 (draft 2); Knight, Reminiscences, 3. 12.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JSP*, H1:15; Knight, Reminiscences, 3. 주제: 몰몬경 번역 13.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JSP*, H1:238~40 (draft 2);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JSP*, H1:15. 14.MacKay, "Git Them Translated," 98~100. 15.Bennett, "Read This I Pray Thee," 192.

라는 증서를 써 주었다. 또한, 컬럼비아 대학에 재직했던 새뮤얼 미칠이라는 학자를 언급하며 자신이 그에게 이 문자들을 가져가서 보여 주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16]

"새뮤얼 미칠은 이런 고대 언어에 조예가 깊은 학자입니다. 장담하건대, 미칠이라면 선생께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17]

마틴이 주머니에 증서를 집어넣고 방을 나서려 할 때, 안톤 교수가 그를 불러 세웠다. 그는 마틴에게 금판을 얻게 된 경위에 대해 물었다.

마틴이 말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 주었지요." 마틴은 이 판을 번역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은 물론, 세상을 멸망에서 구할 수 있으리라고 간증했다. 그리고 이제 그 판이 진짜라는 것까지 증명되었으니, 자신은 이 기록이 번역되고 출판되도록 농장을 팔아 이 일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톤 교수가 말했다. "증서를 좀 주시죠."

마틴은 주머니에서 증서를 꺼내 안톤 교수에게 건넸다. 그러자 안톤 교수는 그것을 갈가리 찢으며 천사들의 성역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그는 조셉이 원하는 것이 판이 번역되는 것이라면 자신이 그것을 컬럼비아 대학으로 가져가 학자들에게 번역을 맡겨 줄 수 있다고도 말했다.

마틴은 판이 일부가 봉해져 있는 데다가 조셉은 다른 사람에게 판을 보여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안톤 교수가 말했다. "저는 봉해진 책은 읽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마틴이 조셉에게 속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사기꾼을 조심하십시오."라고 말했다.[18]

마틴은 안톤 교수와 헤어진 후 새뮤얼 미칠을 찾아갔다. 마틴을 정중하게 맞이한 미칠 박사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마틴이 가져온 문자와 번역을 살펴보았다. 그는 해독을 하지는 못했으나 그 문자들을 보니 이집트 상형 문자가 떠오른다면서, 이 필사된 문자들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말했다.[19]

얼마 후, 마틴은 조셉에게 금판이 있으며, 그에게는 그것을 번역할 권능 또한 있음을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하면서 뉴욕을 떠나 하모니로 돌아왔다. 그는 조셉에게 뉴욕의 교수들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전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 책을 번역할 수 없다면, 이제 그 일은 조셉이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조셉은 어깨가 무거웠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석기를 마련해 주셨음을 알았다.[20]

마틴의 생각도 같았다. 마틴은 팔마이라로 돌아가 사업을 정리한 뒤, 서둘러 돌아와서 서기 역할을 하며 조셉을 돕기로 했다.[21]

1828년 4월, 에머와 조셉은 에머의 친정과 멀지 않은 사스케하나 강변에서 생활하고 있었다.[22] 이제 에머의 출산이 두어 달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조셉이 기록을 번역하기 시작한 후로 에머는 종종 서기로서 조셉을 도왔다. 어느 날, 번역을 하던 조셉이 갑자기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다. "에머,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이 있었나요?"

"네, 있었어요." 에머가 성경 속 내용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조셉은 안도하며 말했다. "아, 내가 착각한 줄 알고 걱정했어요."[23]

조셉이 역사와 경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이 번역 일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며 에머는 놀라워했다. 조셉은 편지 한 통도 조리 있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조셉이 다른 책이나 원고의 도움 없이 기록을 구술하는 것을 늘 가까이서 지켜본 에머는 조셉이 번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임을 알았다.[24]

16.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JSP*, H1:240 (draft 2); Bennett, Journal, Aug. 8, 1831, in Arrington, "James Gordon Bennett's 1831 Report on 'The Mormonites,'" 355. 17.[James Gordon Bennett], "Mormon Religion—Clerical Ambition—Western New York—the Mormonites Gone to Ohio," *Morning Courier and New~York Enquirer*, Sept. 1, 1831, [2]. 18.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1:240~42 (draft 2); Jennings, "Charles Anthon," 171~87; Bennett, "Read This I Pray Thee," 178~216. 19.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1:244 (draft 2); Bennett, Journal, Aug. 8, 1831, in Arrington, "James Gordon Bennett's 1831 Report on 'The Mormonites,'" 355; Knight, Reminiscences, 4. **Topic:** Martin Harris's Consultations with Scholars 20.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in *JSP*, H1:15; 이사야 29:11~12; 니파이후서 27:15~19. 21.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8];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1:244;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90. 22.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1:244 (draft 2); Isaac Hale, Affidavit, Mar. 20, 1834, in "Mormonism," *Susquehanna Register, and Northern Pennsylvanian*, May 1, 1834, [1]; Agreement with Isaac Hale, Apr. 6, 1829, in *JSP*, D1:28~34. 23.Briggs, "A Visit to Nauvoo in 1856," 454; 또한 Edmund C. Briggs to Joseph Smith, June 4, 1884, *Saints' Herald*, June 21, 1884, 396 참조. 24.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90; Briggs, "A Visit to Nauvoo in 1856," 454.

마침내 마틴이 팔마이라에서 돌아와 서기 일을 맡아 주자 에머는 출산 전에 숨을 돌릴 틈이 생겼다.[25] 그러나 일은 생각처럼 되지 않았다. 마틴의 아내인 루시가 마틴을 따라 하모니로 오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마틴 부부는 둘 다 호락호락한 성격이 아니었다.[26] 루시는 남편이 조셉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려는 이유가 미심쩍었고, 남편이 혼자서 뉴욕시로 가버렸던 일로 화가 나 있었다. 거기다 이제 남편이 번역 일을 도우러 하모니로 간다고까지 하니, 마침내 루시는 자기도 직접 판을 봐야겠다며 남편을 따라나서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귀가 어둡던 루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울 때면 사람들이 자신을 흉보고 있는 것이라고 넘겨짚었다. 루시는 타인의 사생활은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 조셉이 판을 보여 줄 수 없다고 하자 그녀는 옷장과 찬장, 가방 등을 뒤지며 그 집을 온통 헤집어 놓기 시작했다. 결국 조셉은 판을 다시 숲속에 숨겨야만 했다.[27]

얼마 후에 루시는 조셉의 집을 떠나 이웃에 묵을 곳을 마련했다. 옷장과 찬장은 이제 무사했지만, 루시는 조셉이 마틴의 돈을 노린다는 헛소문을 이웃에 퍼뜨리고 다녔다. 그녀는 몇 주 동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후에 팔마이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주변이 조용해지자 조셉과 마틴의 번역 작업은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조셉은 선견자와 계시자로서 신성한 역할을 해낼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있었다. 판이 바로 앞에 있든, 에머의 아마천에 싸여 식탁 위에 있든, 조셉은 해석기, 곧 선견자의 돌을 들여다보며 판을 번역해 냈다.[28]

4월부터 6월 초까지, 에머는 기록을 구술하는 조셉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활했다.[29] 조셉은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기록을 읽어 나가며, 마틴이 내용을 받아적은 뒤에 "썼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틈을 두곤 했다.[30] 에머도 번갈아 가며 서기 일을 도왔다. 번역이 중단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일을 시작할 때마다 조셉은 마지막 지점을 알려 주지 않아도 어김없이 그 부분부터 번역을 이어나갔다. 에머는 그런 조셉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31]

에머의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 장 한 장 쌓인 원고도 이제는 두께가 제법 되었고, 마틴은 번역한 원고를 보여 주면 아내도 그 가치를 깨닫고 훼방을 멈추리라고 확신했다.[32] 또한, 그는 자신의 시간과 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을 아내도 기뻐하기를 바랐다.

어느 날, 마틴은 조셉에게 몇 주 동안만 원고를 가지고 팔마이라에 다녀올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33] 조셉은 루시 해리스가 자신의 집에 와서 한 행동을 알기에 마틴의 제의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그는 그토록 많은 사람에게 의심의 화살을 맞고 있을 때에도 자신을 믿어 준 마틴을 기쁘게 해 주고 싶었다.[34]

조셉은 고민 끝에 인도를 구하며 주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마틴에게 원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을 받았다.[35] 마틴은 원고를 아내에게 보여 주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장담하며, 다시 한 번 주님께 여쭤봐 달라고 간청했다. 조셉이 다시 여쭤보았지만, 응답은 똑같았다. 그래도 마틴은 또다시 애원했고, 이번에는 원하는 대로 하라는 응답이 왔다.

조셉은 원고를 자물쇠가 있는 안전한 곳에 넣어 두고 오직 가족 몇 명에게만 보여 주겠다고 약속한다면 2주 동안 원고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마틴은 그렇게 하기로 굳게 약속하고 원고를 들고서 팔마이라로 돌아갔다.[36]

그리고 마틴이 떠난 뒤에 모로나이는 조셉에게 나타나 해석기를 가져갔다.[37]

마틴이 떠나고 이틀 후, 에머는 힘겨운 산고 끝에 사내아기를 낳았다. 하지만 아기는 허약한 몸에 질병까지 걸려서 며칠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 시련은 에머의 몸과 마음에

25.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1:244 (draft 2); Isaac Hale, Affidavit, Mar. 20, 1834, in "Mormonism," *Susquehanna Register, and Northern Pennsylvanian*, May 1, 1834, [1]. 26.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8]. 27.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3]~[5], [8]~[9]. 28.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9]~[10];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90. 29.에머는 후에 회고록에서 1829년에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가 번역을 마무리하던 시기에 자신도 같은 방에 머물며 일을 도왔으며, 번역이 진행되던 1828년에도 함께 일했다고 언급했다.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30.William Pilkington, Affidavit, Cache County, UT, Apr. 3, 1934, in William Pilkington, Autobiography and Statements, Church History Library; "One of the Three Witnesses," *Deseret News*, Dec. 28, 1881, 10. 31.Briggs, "A Visit to Nauvoo in 1856," 454;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90. 32.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0];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1:244;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in *JSP*, H1:15; Knight, Reminiscences, 5; and Historical Introduction to Preface to the Book of Mormon, circa Aug. 1829, in *JSP*, D1:92~93 참조. 33.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 in *JSP*, H1:244 (draft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0]. 34.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10]~[11]; book 7, [1]. 35.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in *JSP*, H1:15. 36.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10, in *JSP*, H1:244~46 (draft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 Knight, Reminiscences, 5. 37.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9~10, in *JSP*, H1:244~46 (draft 2).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한동안 그 고통은 그녀를 죽음의 문턱까지 끌고 가는 듯 보였다. 조셉은 계속해서 에머를 간호하며, 아내 곁을 거의 떠나지 않았다.[38]

2주가 지나 기운을 차리기 시작한 에머는 마틴과 원고 일이 걱정되었다.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해리스 씨가 원고를 갖고 무얼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에머는 마틴을 찾아보라고 재촉했지만, 조셉은 아내를 홀로 두고 싶지 않았다. 에머가 말했다. "어머니를 불러 주세요. 당신이 가 있는 동안 어머니가 같이 있어 주실 거예요."[39]

조셉은 북쪽으로 가는 역마차에 올랐다. 그는 가는 길 내내 음식을 먹을 수도, 잠을 청할 수도 없었다. 조셉은 주께서 마틴이 원고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자신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아 그분께 죄를 지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40]

조셉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며 맨체스터에 있는 본가에 도착했다. 마침 가족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조셉은 마틴에게 사람을 보내 함께 아침 식사를 하자고 청했다. 여덟 시가 되었고, 식사가 다 차려졌다. 그러나 마틴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조셉과 식구들은 마틴을 기다리면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마틴은 네 시간을 훌쩍 넘기고서야 겨우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발끝만 바라보며 느릿느릿 스미스 가족의 집으로 걸어왔다.[41] 그는 대문 앞에 멈춰 서더니, 담장에 걸터앉아 눈이 덮이도록 모자를 푹 눌러썼다. 그러고는 집 안으로 들어와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스미스 가족들은 그런 마틴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식사를 하려는 듯 칼과 포크를 집어 들다가 그대로 떨어트리고 말았다. 마틴은 머리를 감싸 쥐고 울부짖었다. "나는 내 영혼을 잃어버렸어! 영혼을 잃었다고!"

조셉이 벌떡 일어났다. "마틴, 원고를 잃어버렸습니까?"

마틴이 대답했다. "네. 원고가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오, 하나님, 하나님." 조셉이 주먹을 움켜쥐고 신음했다. "다 잃었구나!"

조셉은 안절부절못하며 집 안을 맴돌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조셉은 마틴에게 소리쳤다. "돌아가서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마틴이 울먹였다. "소용없어요. 구석구석 다 찾아보고 침대랑 베개 속까지 열어 봤지만 집에는 없단 말입니다."

"저더러 에머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는 말입니까?" 충격을 받을 에머를 생각하니 조셉은 눈앞이 캄캄했다. "이제 전 어떻게 주님 앞에 선단 말입니까?"

루시는 아들을 진정시켜 보려고 했다. 그녀는 겸손히 회개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며 아들을 다독였다. 조셉은 흐느껴 울었고, 애초에 주님께 순종하지 않은 자신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날 조셉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하모니로 돌아갔다.[42]

루시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을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온 가족이 바라던 모든 것이, 지난 몇 년간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이 이대로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것만 같았다.[43]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1828년 여름, 조셉이 하모니로 돌아오자 모로나이는 다시 와서 판을 거두어 갔다. 모로나이는 "네가 충분히 겸손하고 인내한다면 구월 스물두째 날 다시 판을 받으리라."라고 말했다.[1]

조셉은 참담했다.[2]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마틴에게 원고를 맡긴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 이제 하나님은 판과 해석기를 맡기실 만큼 조셉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하늘에서 어떤 벌을 주셔도 조셉은 할 말이 없을 것만 같았다.[3]

38.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2]. 주제: 조셉과 에머 헤일 스미스 가족 39.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2]. 40.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2]~[4]. 41.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5]. 42.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5]~[7]. 주제: 분실된 몰몬경 원고 43.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7]. 주제: 루시 맥 스미스 1.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9]. 2. 교리와 성약 10:2(Revelation, Spring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참조. 3.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5]~[7] 참조.

그는 무거운 죄책감과 회한을 느끼며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만일 주님께서 다시 번역을 맡기신다면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했다.[4] 23 7월의 어느 날, 집 근처에서 길을 걷고 있던 조셉에게 모로나이가 다시 나타났다. 모로나이는 해석기를 건넸고, 해석기 안에서 신성한 전언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여러 일과 계획과 목적은 좌절될 수 없으며, 허사가 될 수도 없느니라."[5]

조셉은 안도했다. 그러나 곧 그를 꾸짖는 말씀이 이어서 나타났다. "네게 주어진 명령이 얼마나 엄격하더냐. 너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하였느니라." 주님은 조셉에게 성스러운 것들을 더 신중히 다루라고 명하셨다. 금판의 기록은 마틴의 명성보다도, 인간을 기쁘게 하려는 조셉의 소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다. 주님께서 금판을 마련하신 것은 고대에 주셨던 성약을 새롭게 하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구원받아야 함을 모든 이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

주님은 조셉에게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라는 권고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행한 바를 회개하라. 너는 아직도 택함을 받은 자로다." 그분은 다시 한 번 조셉을 당신의 선지자요 선견자로 부르시며,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경고하셨다.

"이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는 넘겨져 다른 사람과 같이 되어 더는 은사를 소유하지 못하리라."[6]

그해 가을, 조셉의 부모가 하모니를 찾았다. 조셉이 맨체스터에 있는 집을 떠난 지 두 달이 다 되어 갔지만, 그들은 아들에게서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조셉 일세와 루시는 지난 여름의 비극으로 아들이 받았을 크나큰 충격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조셉은 겨우 몇 주 사이에 첫 아이를 잃었고, 아내도 잃을 뻔했으며, 원고마저 잃었다. 조셉의 부모는 아들과 며느리가 무사한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

조셉 스미스 일세와 루시는 목적지를 2킬로미터 정도 앞두고서, 길에서 조셉과 마주쳤다.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그들은 더없이 기뻤다. 조셉은 하나님의 신뢰를 잃었던 일이며, 죄를 회개한 일, 그리고 계시를 받은 일 등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다.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조셉은 고대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 계시를 기록해 두었다. 조셉 스미스가 주님께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조셉은 모로나이가 그 뒤로 판과 해석기를 돌려주었다고 하며, 천사가 기뻐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천사는 제가 충실하고 겸손해서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조셉은 판을 여행 가방 속에 넣어 집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지금은 에머가 번역을 받아적는 일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서기로 보내 주실 거라고 했어요. 천사가 그렇게 말했으니 분명히 그렇게 되겠지요."[7]

이듬해 봄, 마틴 해리스는 하모니로 와서 그다지 좋지 못한 소식을 전했다. 마틴의 아내인 루시 해리스가 조셉이 금판을 번역하는 척하는 사기꾼이라고 주장하며 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제 마틴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마틴이 조셉에게 속았다고 증언하지 않으면, 루시는 남편에게도 사기죄를 뒤집어씌울 참이었다.[8]

마틴은 조셉에게 판의 존재를 증명할 증거를 더 달라고 매달렸다. 그는 법정에서 번역 일에 대해 낱낱이 다 밝히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다. 루시는 판을 찾겠다고 조셉의 집을 뒤지기까지 했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게다가 마틴도 조셉의 서기로 일한 두 달 내내 직접 판을 본 적은 없었으니, 자신이 판을 보았다고 증언할 수도 없었다.[9]

조셉은 이 일을 주님께 여쭈고 응답을 받았다. 주님께서는 마틴이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할 말을 알려 주지도, 다른 증거를 더 주지도 않으시겠다고

4.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8]–[9]. 5. 교리와 성약 3:1(Revelation, July 1828, at josephsmithpapers.org);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8]–[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0, in *JSP*, H1:246 (draft 2). 6. 교리와 성약 3편(Revelation, July 1828,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6], in *JSP*, H1:1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8]–[9]. 7.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38;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8]–[11]. 8. Preface to Book of Mormon, circa Aug. 1829, in *JSP*, D1:92–94; "Testamoney of Martin Harris," Sept. 4, 1870, [4], Edward Stevenson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5];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Mar. 1829 [DC 5], in *JSP*, D1:14–16. 9. "Testamoney of Martin Harris," Sept. 4, 1870, [4], Edward Stevenson Collection, Church History Library;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6, [9]; book 8, [5].

말씀하셨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만일 그들이 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설혹 내가 네게 맡긴 것을 그들에게 모두 보여 주는 일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너, 나의 종 조셉을 믿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마틴에게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지난여름 조셉이 했듯이 마틴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실수에서 교훈을 배워야만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정해진 때가 되면 세 명의 충실한 증인이 판을 직접 보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시도를 그만둔다면 마틴도 그중 한 사람이 되리라고 그분은 약속하셨다.[10]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렇게 밝히셨다. "만일 이 세대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11]

마틴이 이 계시를 옮겨 적는 동안 조셉은 이 계시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마틴은 자신이 정확하게 적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셉과 에머에게 자신이 적은 것을 다시 읽어 주었다. 그때 에머의 아버지가 방에 들어왔고, 그도 계시를 읽는 마틴의 말소리를 함께 들었다. 마틴이 계시를 다 읽자, 아이잭은 그 말을 누가 한 것이냐고 물었다.

조셉과 에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라고 대답했다.

아이잭이 말했다. "망상에 빠졌군. 그만들 두게."[12]

마틴은 아이잭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시를 적은 종이를 들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역마차에 올랐다. 금판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찾으러 하모니에 왔던 마틴은 그렇게 금판의 존재를 증언하는 계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비록 법정에서 이 계시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팔마이라로 돌아가는 마틴의 가슴속에는 이제 주님께서 자신을 아신다는 지식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마틴은 후에 판사 앞에 서서 간결하지만 힘 있게 증언했다. 그는 한 손을 높이 들고 금판의 진실을 증언했으며, 자신은 조셉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무런 대가 없이 오십 달러를 주었다고 말했다. 루시가 제기한 혐의는 아무것도 입증되지 않았고, 사건은 기각되었다.[13]

조셉은 주님께서 빨리 다른 서기를 보내 주시기를 기도하며 계속해서 판을 번역해 나갔다.[14]

맨체스터에서는 올리버 카우드리라는 젊은이가 조셉의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조셉보다 한 살 어린 올리버는 1828년 가을부터 스미스 가족의 농장에서 남쪽으로 2킬로미터가량 떨어진 학교에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대개 교사들은 학생들의 집에서 하숙을 했지만, 조셉과 금판에 대한 소문을 접한 올리버는 스미스 가족에게 그 집에서 지내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처음에 가족들은 올리버 앞에서 말을 아꼈다. 그들은 원고가 사라지고 마을에 이런저런 소문이 나돌면서 경계심이 높아져 그 문제에 관해서는 입을 닫고 지냈다.[15]

그러나 올리버는 1828년과 1829년까지 이어진 겨울 동안 스미스 가족의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그 가족의 신뢰를 얻게 되었다. 그 무렵에 조셉 일세는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려 하신다는 계시를 듣고서 하모니에서 맨체스터로 돌아와 있었다.[16] 올리버가 진지하게 탐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판단이 선 조셉의 부모는 그에게 아들의 신성한 부름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주었다.[17]

올리버는 그 이야기에 완전히 매료되었고, 번역 일을 돕고 싶다는 열망을 느꼈다. 올리버 역시 조셉처럼 현대의 교회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으며, 또한 기적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 주신다고 믿었다.[18] 그러나 조셉과 금판은 먼 곳에 있었다. 맨체스터에 머무는 한 그는 조셉의 일을 도울 수가 없었다.

10.교리와 성약 5편(Revelation, Mar.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11.Revelation, Mar. 1829 [DC 5], in *JSP*, D1:17. 12.Isaac Hale, Affidavit, Mar. 20, 1834, in "Mormonism," *Susquehanna Register, and Northern Pennsylvanian*, May 1, 1834, [1]; "considered" in original changed to "consider." 13.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6]–[7]. 14.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1]. 15.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2]; "Mormonism," *Kansas City Daily Journal*, June 5, 1881, 1; Morris, "Conversion of Oliver Cowdery," 5–8. 16.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2]; Knight, Reminiscences, 5; 교리와 성약 4편(Revelation, Feb.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또한 Darowski, "Joseph Smith's Support at Home," 10–14 참조. 17.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2]. 18.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5.

지붕 위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던 어느 봄날, 올리버는 학기가 끝나는 대로 하모니로 가서 조셉을 돕고 싶다는 뜻을 스미스 가족에게 전했다. 루시와 조셉 일세는 올리버에게 그 소망이 옳은지에 대해 주님께 여쭤 보라고 권했다.[19]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올리버는 자신이 금판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진실인지 알아보고자 은밀히 기도했다. 주님께서는 금판과 더불어 조셉이 그것을 번역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시현으로 보여 주셨다. 올리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서기로서 조셉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20]

그는 누구에게도 이 기도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올리버는 학기가 끝나자마자 조셉의 동생인 새뮤얼을 동행하여 하모니로 향했다. 그들은 장장 160킬로가 넘는 그 길을 걸어서 갔다. 길은 봄비에 젖어 춥고 질척였다. 마침내 올리버가 새뮤얼과 함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발가락은 동상으로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의 가슴은 어서 조셉 부부를 만나 주님께서 젊은 선지자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21]

하모니에 도착했을 때, 올리버는 마치 그곳이 항상 지내던 곳인 양 편안함을 느꼈다. 조셉은 밤늦도록 올리버와 대화를 나누며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의 물음에 대답해 주었다. 올리버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었고, 조셉은 서기로 일하겠다는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올리버가 온 뒤 조셉이 맨 처음 한 일은 작업할 장소를 찾는 것이었다. 조셉은 올리버에게 장인 앞으로 보낼 계약서의 초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계약서는 당시 에머와 함께 살던 작은 집과 헛간, 농지, 근처의 우물에 대해 조셉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22] 에머의 부모는 딸의 생활이 안정되기를 바라며 계약 조건에 동의했고, 조셉이 예사치 않은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이웃들의 두려움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3]

그러는 사이, 조셉과 올리버는 번역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몇 주에 걸쳐 만족스럽게 작업을 이어갔다. 에머도 자주 그 방에서 자기 일을 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24] 조셉은 판에 새겨진 문자에 해석기를 대고 들여다보면서 영어로 읽어 나가는 식으로 번역을 했다.

때로는 선견자의 돌 하나만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도 했다. 조셉은 선견자의 돌을 모자에 넣은 후 빛이 들어오지 않게 모자에 얼굴을 집어넣고 선견자의 돌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선견자의 돌이 빛을 발하며 글을 보여 주었고, 조셉이 그 내용을 읽으면 올리버가 빠르게 종이에 받아적었다.[25]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조셉은 잃어버린 원고의 기록을 다시 번역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올리버와 함께 계속해서 다음 부분을 번역해 나갔다. 주님은 원고를 가져다가 내용을 조작해 번역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사탄이 사악한 자들을 사주했다는 것을 알려 주셨다. 그러나 그분은 조셉에게 당신이 고대의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어 금판에 들어갈 또 다른 판을 준비하게 하셨고, 그 판에는 잃어버린 부분의 내용을 채워 줄 기사가 담겨 있다고 확언해 주셨다.[26]

주님은 조셉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말을 바꾸어 놓은 자들을 당혹스럽게 하리니, 나의 지혜가 악마의 간계보다 큼을 내가 그들에게 보일 것이니라."[27]

조셉의 서기로 일하면서 올리버는 전율을 느꼈다. 조셉은 매일같이 니파이인과 레이맨인으로 불리던 두 큰 민족의 복잡한 역사를 구술했고, 올리버는 그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의로운 왕과 사악한 왕, 속박당한 백성과 속박에서 벗어난 백성들, 그리고 사람과 짐승의 뼈로

19.교리와 성약 6편(Revelation, Apr. 1829~A, at josephsmithpapers.org);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7, [12]; book 8, [1]. 20.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5, in *JSP*, H1:284 (draft 2);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6], in *JSP*, H1:16;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1]; 또한 교리와 성약 6:22~23(Revelation, Apr. 1829~A, at josephsmithpapers.org) 참조. 21.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3]~[4]; 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6], in *JSP*, H1:16. 22.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4];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 in *JSP*, H1:276 (draft 2); Agreement with Isaac Hale, Apr. 6, 1829, in *JSP*, D1:28~34;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4. 23.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8, in *JSP*, H1:296 (draft 2). 24.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5, in *JSP*, H1:284 (draft 2);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4];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주제** 1세대 후기 성도의 일상 25."몰몬경 번역," 복음 주제, topics.lds.org;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5, in *JSP*, H1:284 (draft 2);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4; Joseph Smith III,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90; "Golden Bible," *Palmyra Freeman*, Aug. 11, 1829, [2]. 주제: 몰몬경 번역 26.교리와 성약 10:45(Revelation, Spring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니파이전서 9:5; 몰몬의 말씀 1장; 교리와 성약 3편(Revelation, July 1828, at josephsmithpapers.org). 27.교리와 성약 10:42~43(Revelation, Spring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주제: 분실된 몰몬경 원고

뒤덮인 벌판에서 기록을 발견하여 선견자의 돌로 번역했던 고대 선지자의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 고대 선지자는 조셉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을 지닌 계시자이자 선지자였다.[28]

판의 기록은 쉴 새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들려주었다. 또한 올리버는 선지자들이 고대에 교회를 이끌고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습들을 배워 나갔다.

그러나 올리버에게는 아직도 주님의 사업에 관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많았다. 그는 간절히 그 답을 찾고 싶어 했다. 조셉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올리버를 위한 계시를 구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다. "만일 네가 나에게 물으면, 받게 되리라. 만일 네가 탐구하면, 크고 기이한 여러 비밀을 알게 되리라."

또한, 주님은 올리버에게 하모니로 오기 전에 받았던 증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때까지도 올리버는 그 일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다. 주님은 올리버에게 물으셨다.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 만일 내가 다른 이는 알지 못하는 것을 너에게 말해 준다면 네가 증거를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29]

올리버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은밀히 기도하여 성스러운 증거를 얻었던 일을 조셉에게 곧바로 이야기했다. 올리버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그 일을 알 수 없으며, 이제 자신은 이 일이 참됨을 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다시 작업을 이어나갔다. 한편, 올리버는 자신도 번역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30] 그는 하나님께서 선견자의 돌 같은 도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다고 믿었으며, 자신도 종종 수맥이나 광물을 찾기 위해 막대기를 써 본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막대기로 하나님의 권능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다. 계시가 오는 과정은 올리버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었다.[31]

조셉은 다시 올리버를 대신해 주님께 여쭤보았고, 주님은 올리버도 신앙으로 질문한다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알려 주셨다.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처럼 올리버의 막대기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쓸 수 있는 도구라고 확인해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올리버에게 계시에 관하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나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네 생각과 네 마음에 말하리라. 보라, 이것은 계시의 영이니라."

또한, 주님께서는 올리버가 신앙에 의지한다면 조셉처럼 기록을 번역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신앙 없이는 네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32]

올리버는 계시를 받은 후 들뜬 마음으로 번역을 시도했다. 그런데 조셉이 하던 대로 해 보아도 글을 읽어 내기가 쉽지 않자, 그는 좌절감을 느끼고 혼란스러워했다.

조셉은 올리버가 힘겨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자신이 오랫동안 마음과 생각을 다잡고 서야 할 수 있었던 일을 올리버는 한순간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영적인 은사가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은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시간을 들여 그것을 연마하고 발전시켜야만 했다.

올리버는 금세 번역을 단념했고, 자신이 해내지 못한 이유를 조셉에게 물었다.

조셉은 그 질문을 주님께 여쭈었다. 그리고 응답이 왔다.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게 간구하기만 하면, 내가 네게 그것을 줄 줄로 여겼도다. 너는 네 생각으로 그것을 연구해야만 하느니라. 그러고 나서 그것이 옳은지를 내게 물어야 하느니라."

주님은 올리버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네가 번역함은 필요하지 아니하니라. 네가 부름을 받아 해야 할 일은 내 종 조셉을 위하여 필기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올리버에게 나중에 다시 번역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지금은 올리버는 서기였고, 조셉이 선견자였다.[33]

28.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4; 모사이야서 8:16~18; 또한 옴나이서 1:20; 모사이야서 8:8~13; 28:11~15, 20; 앨마서 37:21, 23; 이더서 3:24~28. 29.교리와 성약 6:5, 11, 22~24(Revelation, Apr. 1829~A, at josephsmithpapers.org). 30.교리와 성약 6:10~13(Revelation, Apr. 1829~A, at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8:4~8(Revelation, Apr. 1829~B, at josephsmithpapers.org);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Apr. 1829~B [DC 8], in *JSP*, D1:44~45; Revelation Book 1, 13, in *JSP*, MRB:15. 31.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1]; Paul and Parks, *History of Wells, Vermont*, 81;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1829~B [DC 8], in *JSP*, D1:44~45; see also Baugh, *Days Never to Be Forgotten*; Bushman, *Rough Stone Rolling*, 73; and Morris, "Oliver Cowdery's Vermont Years and the Origins of Mormonism," 106~29. 주제: 점치는 막대기 32.교리와 성약 6편(Revelation, Apr. 1829~A, at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8편(Revelation, Apr. 1829~B,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3~14, in *JSP*, H1:276~78 (draft 2); 또한 Book of Commandments 7:3; 교리와 성약 8:6~7 참조. 33.교리와 성약 9편(Revelation, Apr. 1829~D, at josephsmithpapers.org);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4.

동역자 된 종들

1829년의 봄은 5월까지도 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었다. 하모니 인근의 농부들은 날씨가 포근해질 때까지 파종을 미룬 채 집 안에서만 생활했다. 그리고 그 쌀쌀한 봄 동안 조셉과 올리버는 번역 일에 온 힘을 쏟아부었다.[1]

이제 조셉과 올리버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을 당시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사를 번역하고 있었다. 기록은 그때 그곳에서 큰 지진과 폭풍이 일어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지형이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전했다. 일부 성읍은 땅 밑으로 가라앉았고, 또 불에 타 버린 성읍도 있었다. 몇 시간이나 천지를 가르는 듯한 번개가 치고, 태양이 자취를 감추어 세상은 짙은 어둠에 휩싸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죽은 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는 날이 사흘간 지속되었다.[2]

그리고 마침내, 어둠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희는 이제 내게로 돌아와 너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내가 너희를 고치게 하지 아니하려느냐?"[3] 구주께서 어둠을 몰아내셨고, 백성들은 죄를 회개했다. 얼마 후, 사람들은 풍요라 불리는 땅의 성전으로 모여들어 눈앞에서 일어난 이 믿기 힘든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다.[4]

그리고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보라, 나는 선지자들이 세상에 오리라고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라."[5] 그리스도는 한동안 이 백성과 함께 지내시며 당신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 침례를 받으라고 명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믿고 침례를 받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자들이 그들이리라."[6] 구주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의로운 남성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시고, 당신을 믿는 이들에게 침례를 주게 하셨다.[7]

조셉과 올리버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조셉은 자신의 형 앨빈과 마찬가지로 침례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는 침례를 행하는 데 필요한 의식과 권세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8]

1829년 5월 15일, 비가 그친 후 조셉과 올리버는 사스케하나강 근처에 있는 숲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며 침례와 죄 사함에 관해 하나님께 여쭈었다. 조셉과 올리버는 곧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구속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뒤이어 빛 구름에 둘러싸인 한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자신을 침례 요한이라 소개하고, 두 손을 조셉과 올리버의 머리 위에 얹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벅찬 기쁨에 휩싸였다.

요한이 말했다.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인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나는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 있[느니라.]"[9]

요한의 음성은 온화하면서도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힘이 있었다.[10] 그는 조셉과 올리버가 이제 아론 신권의 권세로써 침례를 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자신이 떠난 뒤에 서로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했다. 또한 그는 두 사람이 나중에 다른 신권을 하나 더 받게 될 것이며, 그 신권이 있으면 서로에게, 또 침례를 받은 다른 사람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침례 요한이 떠난 후, 조셉과 올리버는 강물 속으로 들어갔다. 먼저 조셉이 올리버에게 침례를 주었다. 올리버는 물에서 일어나자마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올리버가 조셉에게 침례를 주었다. 물에서 나온 조셉은 주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 교회의 번영에 대해 예언했다.[11]

---

1.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4; Staker, "Where Was the Aaronic Priesthood Restored?," 158, note 49. 2. 제3니파이 8장;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5~16; see also Kowallis, "In the Thirty and Fourth Year," 136~90. 3. 제3니파이 9:13. 4. 제3니파이 10:9; 11:1. 5. 제3니파이 11:10; 15:21~24; 또한 요한복음 10:16 참조. 6. 제3니파이 11:33. 7. 제3니파이 11:23~33. 8.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3~16. 9. 교리와 성약 13:1(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7~18, in *JSP*, H1:292~94 [draft 2]); 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5; Staker, "Where Was the Aaronic Priesthood Restored?," 142~59. 주제: Restoration of the Aaronic Priesthood(아론 신권의 회복) 10.Oliver Cowdery to William W. Phelps, Sept. 7, 1834, *LDS Messenger and Advocate*, Oct. 1834, 1:15. 11.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7~18, in *JSP*, H1:292~94 (draft 2); "Articles of the Church of Christ," June 1829, in *JSP*, D1:371.

조셉과 올리버는 침례 요한이 지시한 대로 숲으로 돌아와 서로를 아론 신권에 성임했다. 그들은 그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고대 기록 번역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신권과 그 권세에 대한 내용을 자주 접해 왔었다. 이제 그들은 그 권세를 직접 소유하게 된 것이었다.

침례를 받은 후 조셉과 올리버는 복잡하고 난해하게 여겨졌던 성구들을 곧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진리와 이해로 생각이 밝아졌다.[12]

한편, 뉴욕에 사는 올리버의 친구 데이비드 휘트머는 조셉이 하는 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다. 데이비드는 맨체스터에서 48킬로미터 떨어진 페이에트에 살았지만, 올리버가 스미스 가족과 함께 살면서 교사 일을 할 때부터 그와 친구로 지내 왔다. 둘은 자주 금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올리버는 하모니로 떠나면서 번역에 관한 일을 편지로 알려 주겠다고 데이비드에게 약속했었다.

그로부터 얼마 안 가서 데이비드는 올리버의 편지들을 받아보게 되었다. 올리버는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세세한 부분을 조셉이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조셉이 계시를 받고 판을 번역하는 이야기도 상세히 들려주었다. 번역된 내용 몇 줄과 함께 그것이 참되다는 간증을 편지에 적어 보낸 적도 있었다.

후에 올리버는 편지를 통해 하모니로 마차를 가져와 자신과 조셉, 에머를 페이에트에 있는 데이비드의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편지에서 그는 데이비드의 도움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번역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다.[13] 당시 조셉과 에머는 하모니 사람들의 인심을 잃어 가고 있었다. 심지어 집으로 쳐들어오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였다. 아직 에머의 친정 식구들이 구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없었지만 그들도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을 만한 상황이었다.[14]

데이비드는 올리버의 편지를 가족들에게 보여 주었다. 휘트머 가족은 조셉과 에머, 올리버를 집에 들이기로 결정했다. 휘트머 일가는 독일어를 쓰는 그 지역 정착민의 후손이었다. 이 가족은 근면하고 독실한 것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휘트머 가족의 농장은 맨체스터에 있는 조셉의 본가와 왕래가 가능하면서도 보물 수색꾼들이 쫓아오지는 못할 만큼 먼 거리에 있었다.[15]

데이비드는 당장 하모니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당장 마무리해야 할 농사일을 마친 후에 하모니로 출발하도록 권했다. 그 일을 다 하려면 꼬박 이틀은 걸릴 것이었다. 당시는 파종 철이었다. 데이비드는 2만 4천여 평의 땅을 쟁기로 간 뒤, 밀이 잘 자라도록 석회를 뿌려야 했다.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꼭 당장 가야만 하는지를 기도로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데이비드는 기도를 드렸고, 하모니로 떠나기 전에 집에서 할 일을 끝내라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다.

이튿날 아침, 밭으로 나간 데이비드는 밭에 깊은 고랑이 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 밭은 쟁기가 닿은 적도 없는 땅이었다. 밭을 자세히 둘러보니 약 7천여 평가량의 면적이 다 갈려 있었다. 나머지 일은 데이비드에게 하라는 듯 쟁기가 마지막 고랑에 세워져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데이비드의 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일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구나. 석회를 다 뿌리는 대로 어서 펜실베이니아로 가거라."

데이비드는 힘을 내어 남은 밭을 마저 다 갈고, 파종 준비를 마쳤다. 일을 마친 그는 힘 좋은 말을 마차에 묶고 예정보다 이른 시각에 하모니로 출발했다.[16]

조셉 부부와 올리버가 집에 온 후로 데이비드의 어머니인 메리의 생활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데이비드의 부모인 메리와 피터는 근방에 사는 분가한 자식들까지 포함해 모두 팔 남매를 두었는데, 자녀들의 나이는 대략 열다섯 살부터 서른 살 사이였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 뒤치다꺼리에 하루하루가 빠듯했는데, 이제 세 명의 객식구까지 생긴 것이었다. 메리도

12.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8, in *JSP*, H1:294~96 (draft 2). 13."Mormonism," *Kansas City Daily Journal*, June 5, 1881, 1; James H. Hart, "About the Book of Mormon," *Deseret Evening News*, Mar. 25, 1884, [2]; Joseph F. Smith to John Taylor and Council of the Twelve, Sept. 17, 1878, draft, Joseph F.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1, in *JSP*, H1:306 (draft 2). 14.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18, in *JSP*, H1:296 (draft 2). 15."Mormonism," *Kansas City Daily Journal*, June 5, 1881, 1; Dickinson, *New Light on Mormonism*, 250; "The Book of Mormon," *Chicago Tribune*, Dec. 17, 1885, 3;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1, in *JSP*, H1:306 (draft 2). 16.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8]; Orson Pratt and Joseph F. Smith, Interview with David Whitmer, Sept. 7~8, 1878, [10], in Joseph F. Smith to John Taylor and Council of the Twelve, Sept. 17, 1878, draft, Joseph F.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Cook, *David Whitmer Interviews*, 26~27.

조셉의 부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불만을 표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로가 쌓여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17]

그해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메리가 빨래와 식사 준비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조셉은 위층 방에서 번역에 몰두했다. 보통은 올리버가 서기 일을 했지만, 에머나 휘트머 식구 한 명이 펜을 들고 순서를 넘겨받을 때도 있었다.[18] 조셉과 올리버는 때로 번역 일로 머리가 무겁고 피로할 때면 가까운 연못으로 나가 물수제비를 뜨곤 했다.

메리는 허리를 펼 새도 없이 매일 일했다. 늘어난 집안일은 이제 메리가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가 되었다.

어느 날, 메리가 외양간 옆에 나와 있을 때 백발을 하고 어깨에 큰 주머니를 멘 한 남자가 메리 앞에 나타났다. 낯선 사람의 등장에 메리는 더럭 겁이 났지만, 그가 다가오며 친절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자 곧 마음이 놓였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내 이름은 모로나이라. 그대는 마땅히 해야 할 일 외의 일까지 하느라 몹시도 지쳐 있도다." 모로나이는 메리가 보는 앞에서 주머니를 내려 열어 보였다.[19]

모로나이가 말했다. "그대는 정말로 충실하고 부지런히 일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대는 신앙이 강건해지도록 증거를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20]

모로나이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금판이었다. 그는 금판을 들고서 메리가 거기 적힌 것들을 볼 수 있게 한 장 한 장을 넘겨 주었다. 금판을 마지막 장까지 다 보여 준 뒤, 그는 인내와 신앙으로 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조금만 더 견디라고 메리를 격려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할 때 메리가 받게 될 축복을 약속했다.[21]

잠시 후 모로나이가 떠난 자리에 메리는 홀로 남아 있었다. 할 일은 여전히 많았지만, 이제는 그 일들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다.[22]

휘트머 가족의 농장에 머무는 동안 번역 작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종종 고비가 찾아올 때도 있었다. 번역이 아닌 다른 일들로 머릿속이 어지러울 때가 있었고, 그럴 때면 조셉은 영적인 것들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다.[23] 휘트머 가족의 아담한 집은 항상 분주하고 소란스러웠다. 이곳에서는 하모니에서만큼 사생활을 보호받기가 어려웠다.

하루는 아침에 번역 준비를 하던 중에 조셉이 에머에게 화를 낸 적이 있었다. 그는 곧 위층으로 올라가 올리버와 데이비드와 같이 작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단 한 마디도 번역할 수 없었다.

결국 조셉은 밖으로 나와서 과수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그곳에서 한 시간가량 머물며 하나님께 기도드린 뒤 집으로 돌아와 에머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평소처럼 판을 번역해 나갈 수 있었다.[24]

조셉은 이제 기록의 마지막 부분을 번역하고 있었다. 니파이의 작은 판으로 알려진 이 부분은 번역한 책의 첫 부분에 수록될 것이었다. 전에 번역했다 잃어버린 부분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된 이 작은 판에는 니파이라는 젊은이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니파이의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을 떠나 새로운 약속의 땅을 찾아간 사람들이었다. 이 판은 금판 기록의 시초를 밝히고, 니파이인과 레이맨인 사이에 벌어진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이 판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강력한 간증이 기록되어 있었다.

조셉은 판의 마지막 장을 번역하면서 이 기록의 목적과 제목이 설명된 부분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 책이 그 기록을 엮은 고대의 선지자이자 역사가의 이름을 따서 몰몬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25]

17.Orson Pratt and Joseph F. Smith, Interview with David Whitmer, Sept. 7–8, 1878, [10], in Joseph F. Smith to John Taylor and Council of the Twelve, Sept. 17, 1878, draft, Joseph F.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18.James H. Hart, "About the Book of Mormon," *Deseret Evening News*, Mar. 25, 1884, [2]. 19.Skousen, "Another Account of Mary Whitmer's Viewing of the Golden Plates," 40; [Andrew Jenson], "Eight Witnesses," *Historical Record*, Oct. 1888, 621. 20.Orson Pratt and Joseph F. Smith, Interview with David Whitmer, Sept. 7–8, 1878, [10], in Joseph F. Smith to John Taylor and Council of the Twelve, Sept. 17, 1878, draft, Joseph F.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21.Skousen, "Another Account of Mary Whitmer's Viewing of the Golden Plates," 40; [Andrew Jenson], "Eight Witnesses," *Historical Record*, Oct. 1888, 621. 22.[Andrew Jenson], "Eight Witnesses," *Historical Record*, Oct. 1888, 621; Orson Pratt and Joseph F. Smith, Interview with David Whitmer, Sept. 7–8, 1878, [10], in Joseph F. Smith to John Taylor and Council of the Twelve, Sept. 17, 1878, draft, Joseph F. Smith, Papers, Church History Library; Stevenson, Journal, Dec. 23, 1877. 23.Whitmer, *Address to All Believers in Christ*, 30. 24."Letter from Elder W. H. Kelley," *Saints' Herald*, Mar. 1, 1882, 68; see also Bushman, *Rough Stone Rolling*, 77. 25.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4, in *JSP*, H1:352–54 (draft 2).
주제: Book of Mormon Translation(몰몬경 번역); Gold Plates(금판)

조셉은 몰몬경을 번역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장차 해야 할 일들을 깊이 알게 되었다. 몰몬경에는 조셉이 성경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가르침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새로운 진리와 통찰이 담겨 있었다. 후기에 대해 언급된 구절도 있었다. 거기에는 조셉이라는 이름의 택함받은 선견자가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잃어버린 지식과 성약을 회복하리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었다.[26]

또한, 니파이는 학식 있는 사람들은 읽을 수 없는 봉인된 책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상세히 기술했다. 조셉은 그 예언을 읽으며 마틴 해리스와 안톤 교수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이 땅속에 있던 이 책을 세상에 내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실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27]

번역이 마무리되어 가자 조셉과 동료들은 몰몬경과 여러 계시에서 언급된, 세 명의 증인에게 금판을 보이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에 주의를 돌리기 시작했다. 그 무렵에 조셉의 부모와 마틴 해리스는 휘트머 농장에 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마틴과 올리버, 데이비드는 자신들이 그 증인이 되게 해 달라고 조셉에게 간청했다. 조셉이 이 문제로 기도드리자, 주님은 그들이 전심전력으로 그분께 의지하고 진리를 간증한다면 그 판을 보게 되리라고 응답하셨다.[28]

조셉은 특별히 마틴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형제님이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받으셔야 합니다."[29]

몇 시간 뒤, 조셉은 세 사람을 데리고 휘트머 집 근처에 있는 숲으로 갔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서로 돌아가면서 주님께 판을 보여 주시기를 기도드렸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네 사람은 다시 한 번 기도했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마틴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하늘이 열리지 않는 것은 자신 때문이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셉과 올리버, 데이비드는 다시 기도에 집중했고, 곧 천사가 밝은 빛을 발하며 그들 위로 나타났다.[30] 천사는 판을 들고서, 세 사람이 판에 새겨진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판을 한 장 한 장 넘겨 주었다. 그런 다음, 천사 옆으로 탁자 하나가 나타났다. 탁자 위에는 몰몬경에 나오는 고대의 유물들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해석기와 가슴판, 칼, 그리고 니파이의 가족을 예루살렘에서 약속의 땅으로 안내했던 그 놀라운 방향구를 자신들의 두 눈으로 생생히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이 판들은 나의 권능으로써 드러났으며, 나의 권능으로써 번역되었느니라. 너희들이 본 번역은 정확한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할지어다."[31]

천사가 떠난 뒤에 조셉은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조셉은 무릎을 꿇고 있는 마틴을 발견했다. 마틴은 아직 주님께 증거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판을 보고자 열망했다. 마틴은 조셉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앞서 나타났던 천사가 다시 나타나 마틴에게도 금판과 고대의 유물을 보여 주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마틴이 외쳤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똑똑히 보았어요!"[32]

오후 늦게 조셉은 세 명의 증인과 함께 휘트머의 집으로 돌아왔다. 조셉은 메리 휘트머가 조셉의 부모와 담소를 나누고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조셉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주님께서 저 말고도 세 사람에게 판을 더 보여 주셨어요. 이제 그분들도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는 어깨에서 큰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지금부터는 그분들도 함께해야만 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26.니파이후서 3:7~19. 27.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5], in *JSP*, H1:15; 니파이후서 26:16; 27:15~21. 28.교리와 성약 17편(Revelation, June 1829~E, at josephsmithpapers.org); 교리와 성약 5:11~18(Revelation, Mar.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3, in *JSP*, H1:314~17 (draft 2). 29.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11]. 30.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4~25, in *JSP*, H1:316~18 (draft 2). 31."Letter from Elder W. H. Kelley," *Saints' Herald*, Mar. 1, 1882, 68;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4~25, in *JSP*, H1:316~20 (draft 2); "Testimony of Three Witnesses," in Book of Mormon, 1830 edition, [589]. 주제: Witness of the Book of Mormon(몰몬경의 증인들) 32.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5, in *JSP*, H1:320 (draft 2).

뒤이어 기쁨에 흠뻑 젖은 마틴이 들어왔다. "저도 하늘에서 온 천사를 보았어요! 제 영혼의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분은 몸을 낮추어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 위대한 사업을 증거해 주셨어요!"[33]

며칠 뒤, 휘트머 가족이 맨체스터의 농장에 있는 조셉의 본가를 찾아왔다. 주님은 일찍이 "그가 보시기에 좋으신 만큼 많은 증인들의 입으로" 말씀을 확증하겠다고 약속하신 바가 있었다. 조셉은 아버지인 조셉 일세를 비롯해 하이럼, 새뮤얼, 데이비드 휘트머의 형제들인 크리스찬, 제이콥, 피터 이세, 존, 그리고 그들의 처남인 하이럼 페이지와 함께 숲으로 갔다.[34]

그들은 스미스 가족이 종종 은밀히 기도드리던 장소에 모였다. 조셉은 주님의 허락을 받아 판을 꺼내어 그들에게 보여 주었다. 그들은 세 명의 증인과 달리 천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판을 들고 낱장을 넘기며 고대의 기록을 살펴보았다. 이제 천사와 고대 기록에 대한 조셉의 간증을 믿는 그들의 신앙은 더없이 확고해졌다.[35]

마침내 번역이 완성되었고, 조셉은 기적과 같은 자신의 간증을 뒷받침해 줄 증인들을 얻었다. 조셉은 이제 더는 판이 필요하지 않았다. 여덟 명의 증인이 숲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간 후 천사가 나타났고, 조셉은 성스러운 기록을 다시 천사에게 돌려주었다.[36]

그리스도의 교회, 일어나다

1829년 7월 초, 번역 원고를 손에 든 조셉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이제 그는 몰몬경을 책으로 만들어 그 메시지를 세상에 널리 알려야 했다. 그러나 스미스 가족 중에는 출판 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조셉은 원고도 안전하게 지켜야 했고, 인쇄업자도 찾아야 했으며, 새로운 경전의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전하는 일도 해야 했다.

게다가 몰몬경처럼 긴 분량의 책을 출판하는 데에는 그 비용도 적잖이 들어갈 것이었다. 번역을 시작한 뒤로 조셉은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그가 버는 돈은 전부 식구들의 생계비로 들어가고 있었다. 조셉의 부모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땅 한 뙈기가 없는 가난한 농부에 불과했다. 조셉 주변에서 이 일을 금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은 마틴 해리스뿐이었다.

조셉은 서둘러 일을 시작했다. 번역이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는 원고가 도난당하거나 표절당하지 않도록 몰몬경의 저작권도 신청했다.[1] 조셉은 마틴의 도움을 받아 몰몬경을 출판할 의향이 있는 업자를 찾아 나섰다.

그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에그버트 그랜딘이었다. 조셉과 동갑인 그는 팔마이라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랜딘은 몰몬경이 허위라 생각하여 그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하지만 조셉과 마틴은 낙담하지 않고 계속 출판업자를 물색했고, 드디어 인근 도시에서 뜻이 있는 사람을 한 명 찾아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사람과 계약을 하기 전에 팔마이라로 돌아와서 그랜딘에게 몰몬경을 출판할 의사가 있는지를 한 번 더 물어보았다.[2]

그랜딘은 이번에는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그는 5,000권을 인쇄해 제본하는 비용을 3,000달러로 책정했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돈을 받기를 원했다. 인쇄 비용은 이미 마틴이 지원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그만한 금액을 마련하려면 그의 농장을 저당 잡혀야 했다. 마틴에게 그것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조셉의 주변에서 그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해진 마틴은 몰몬경 출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마틴의 농장은 그 지역에서도 손꼽히는 땅이었다. 땅을 담보로 넣었다가 자칫

33.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8, [11]; book 9, [1]. 34.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1]; 2 Nephi 27:14. 35."Testimony of Eight Witnesses," in Book of Mormon, 1830 edition, [590]. 주제: Witness of the Book of Mormon(몰몬경의 증인들) 36.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2]. 1. Copyright for Book of Mormon, June 11, 1829, in *JSP*, D1:76~81. 2. "Prospect of Peace with Utah," *Albany Evening Journal*, May 19, 1858, [2]; "From the Troy Times," *Albany Evening Journal*, May 21, 1858, [2]; John H. Gilbert, Memorandum, Sept. 8, 189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하면 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몰몬경이 잘 팔리지 않으면 평생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이 분명했다.

마틴은 조셉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자신을 위해 계시를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구주께서는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응답하셨다. 그러면서, 그분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그들을 대신해 죗값을 치르며 겪으셨던 극한의 고통을 설명하셨다.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마틴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라고 명하셨다.

"너는 네 자신의 재물을 탐하지 말며, 오히려 몰몬경의 인쇄에 아낌없이 내어 놓을 것이니라." 주님은 몰몬경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담겨 있으며, 그 책을 통해 인류가 복음을 믿게 되리라는 사실을 마틴에게 확인해 주셨다.[3]

비록 이웃 사람들은 마틴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틴은 주님의 말씀대로 농장을 담보로 출판 비용을 마련했다.[4]

그랜딘은 계약서에 서명한 뒤 이 방대한 작업의 일정을 짜기 시작했다.[5] 조셉이 한 번에 서기 한 명의 도움만을 받으며 몰몬경 번역 작업을 하는 데 걸린 기간은 석 달이었다. 그랜딘과 여남은 명의 직원들이 590쪽 분량의 몰몬경 초판을 인쇄하고 제본하는 데는 총 7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다.[6]

1829년 10월, 출판업자를 고용한 조셉은 에머와 함께 지내면서 농장을 일구기 위해 하모니로 돌아갔다. 그동안은 올리버와 마틴, 하이럼이 인쇄 과정을 감독하면서 진척 상황을 조셉에게 주기적으로 알려 주기로 했다.[7]

조셉은 자신이 번역한 첫 부분의 원고를 잃어버렸을 때 느꼈던 절망감을 떠올리며, 올리버에게 한 장도 빠트리지 말고 몰몬경 원고의 사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인쇄소에서 구두점을 찍고 조판 작업을 할 때 그 사본을 사용할 생각이었다.[8]

올리버는 즐거운 마음으로 사본을 만들었다. 당시 그가 쓴 편지에는 몰몬경에 나오는 문구가 가득 실렸다. 올리버는 몰몬경에 나오는 니파이와 야곱, 앰율레크의 말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에 감사하는 내용을 담아 조셉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적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시간과 지면이 부족할 따름입니다."[9]

몰몬경이 인쇄되는 동안, 그 같은 영에 이끌려 몰몬경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은 올리버만이 아니었다. 과거에 인쇄소 도제 일을 한 경력이 있는 토머스 마쉬는 교회를 찾고 있었다. 그가 보기에 성경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는 어디에도 없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회복된 진리를 가르칠 새로운 교회가 곧 나타나리라 믿고 있었다.

그해 여름, 토머스는 영에 이끌려 보스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여행하여 뉴욕 서부로 갔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멀리까지 오게 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 지역에서 석 달을 머물렀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룻밤을 묵은 집에서 그는 집 주인에게서 조셉 스미스의 "황금 책"에 대해 들어 보았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 토머스는 들어 보지 못했다고 대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책을 꼭 알아봐야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주인은 토머스에게 팔마이라로 가서 마틴 해리스를 만나 보라고 이야기했다. 토머스는 곧장 그 길로 팔마이라로 달려가서 그랜딘의 인쇄소를 찾아가 마틴을 만났다. 그리고 그랜딘에게 16쪽 분량의 몰몬경 낱장을 건네받고는 이 새로운 종교를 처음으로 접하는 순간을 아내 엘리자베스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그것을 그대로 들고 보스턴으로 돌아갔다.

엘리자베스는 그 사본을 읽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음을 믿게 되었다.[10]

---

3. 교리와 성약 19편 (Revelation, circa Summer 1829, at josephsmithpapers.org); 또한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circa Summer 1829 [DC 19], in *JSP*, D1:85~89; and Knight, Reminiscences, 6~7 참조. 4. McBride, "Contributions of Martin Harris," 1~9; 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4, in *JSP*, H1:352 (draft 2). 5. John H. Gilbert, Statement, Oct. 23, 1887, Church History Library; Indenture, Martin Harris to Egbert B. Grandin, Wayne County, NY, Aug. 25, 1829, Wayne County, NY, Mortgage Records, volume 3, 325~26, microfilm 479,556, U.S. and Canada Record Collection, Family History Library; Historical Introduction to Revelation, circa Summer 1829 [DC 19], in *JSP*, D1:85~89. 6. Copyright for Book of Mormon, June 11, 1829, in *JSP*, D1:76~81; John H. Gilbert, Memorandum, Sept. 8, 189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Porter, "The Book of Mormon," 53~54. 7. John H. Gilbert, Memorandum, Sept. 8, 189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8]; Joseph Smith to Oliver Cowdery, Oct. 22, 1829, in *JSP*, D1:94~97. 8. John H. Gilbert, Memorandum, Sept. 8, 189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2]; "Printer's Manuscript of the Book of Mormon," in *JSP*, R3, Part 1:xxvi. 주제: 몰몬경의 인쇄와 출판 9. Oliver Cowdery to Joseph Smith, Nov. 6, 1829, in *JSP*, D1:100~101; Mosiah 3:18~19; 5:5~7; 4 Nephi 1:17; 또한 Oliver Cowdery to Joseph Smith, Dec. 28, 1829, in *JSP*, D1:101~4 참조. 10.Thomas B. Marsh, "History of Thomas Baldwin Marsh," *LDS Millennial Star*, June 4, 1864, 26:359~60; June 11, 1864, 26:375~76.

그해 가을, 몰몬경 인쇄가 점차 진행되어 가던 중에 전직 판사였던 에브너 코울이란 사람이 팔마이라 그랜딘의 인쇄소에서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에브너는 인쇄소 직원들이 퇴근한 밤 시간에 인쇄소를 사용하면서 아직 제본이 끝나지 않은, 판매 전의 몰몬경 인쇄본을 보게 되었다.

얼마 안 가서 에브너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을 통해 이른바 "황금 성서"를 조롱하기 시작했고, 겨울에는 몰몬경 발췌문에 풍자 논평을 곁들여 싣기도 했다.[11]

그 사실을 알게 된 하이럼과 올리버가 에브너를 찾아갔다. 하이럼이 그에게 따져 물었다. "무슨 권리로 몰몬경을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내는 겁니까? 우리가 저작권이 있다는 걸 모릅니까?"

그러자 에브너는 이렇게 대꾸했다. "당신들이 상관할 바 아니오. 나는 인쇄소에 돈을 냈으니 나 좋을 대로 할 거요."

하이럼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은 이제부터 그 신문에 더는 몰몬경 내용을 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브너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오."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하이럼과 올리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구하기 위해 하모니에 있는 조셉에게 전갈을 보냈고, 조셉은 즉시 팔마이라로 돌아왔다. 조셉이 도착했을 때, 에브너는 인쇄소 사무실에서 태평하게 자신이 발행한 신문을 읽고 있었다.

"바빠 보이시는군요." 조셉이 말했다.

"안녕하시오, 스미스 씨." 에브너는 냉랭하게 대답했다.

"코울 선생님, 몰몬경과 몰몬경의 출판권은 제게 있습니다. 쓸데없는 참견은 그만두시지요."

그러자 에브너가 외투를 벗어 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는 주먹을 맞부딪치며 고함을 질렀다. "나와 싸워 보겠다는 말이오? 그럼 당장 덤벼 보시오!"

조셉은 웃음을 띠며 말했다. "외투는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도 춥고, 저는 선생님과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조셉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제 책의 내용을 싣는 일은 그만두십시오."

에브너는 여전히 씩씩거렸다. "그렇게 잘났으면 옷 벗고 덤벼 보라니까!"

조셉이 대답했다. "세상에는 법이 있습니다. 여태 모르셨다면,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저는 선생님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좋을 게 없으니까요."

에브너는 자신이 법에 저촉되는 일을 했음을 알고 있었다. 에브너는 조셉의 말에 입을 다물었고, 그 뒤로는 신문에 몰몬경을 발췌해 싣는 행위를 더는 하지 않았다.[12]

솔로몬 체임벌린이라는 목사는 캐나다로 가는 길에 팔마이라 근처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그곳에서 "황금 성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토머스 마쉬처럼, 그는 평생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고 있었고, 자신이 보았던 것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었다.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영적인 은사를 믿는 교회도 몇 곳 있었지만,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나 신권은 없었다. 솔로몬은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상에 알리실 시기가 오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머물던 집의 식구들이 조셉 스미스와 금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다.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솔로몬은 스미스 가족을 찾아가서 그 책에 대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스미스 가족의 집으로 찾아간 솔로몬은 문 앞에서 하이럼을 만났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이 댁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이럼은 "그러기를 바랍니다." 하고 화답했다.

솔로몬이 물었다. "이 댁에 시현이나 계시를 믿는 분이 계십니까?"

하이럼은 "네, 저희 가족은 모두 시현을 믿습니다."라고 답했다.

11.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9]. 에브너 코울이 몰몬경에서 발췌한 부분의 예를 보려면, "The Book of Mormon," *Reflector*, Sept. 16, 1829, 10; "Selected Items," *Reflector*, Sept. 23, 1829, 14; "The First Book of Nephi," *Reflector*, Jan. 2, 1830, 1; and "The First Book of Nephi," *Reflector*, Jan. 13, 1830, 1 참조.

12.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9]~[12]; Lucy Mack Smith, History, 1845, 166~68.

솔로몬은 몇 년 전 자신이 보았던 시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시현에서 천사를 보았는데, 그 천사는 아직 세상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없지만, 옛날 사도들의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권능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곧 일으키실 것이라고 전했다. 하이럼을 비롯한 스미스 가족은 솔로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들도 그렇게 믿는다고 말했다.

솔로몬이 말했다. "여러분이 알게 되신 것들을 제게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럼은 솔로몬에게 스미스 농장에서 묵어가도록 권했다. 또한 그는 솔로몬에게 몰몬경 원고를 보여 주었다. 솔로몬은 이틀간 원고를 읽어 본 뒤, 하이럼과 함께 그랜딘의 인쇄소 사무실로 가서 인쇄된 몰몬경 중 64쪽 분량을 얻었다. 솔로몬은 제본도 되지 않은 몰몬경 낱장을 들고 캐나다로 가면서,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종교에 대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13]

1830년 3월 26일, 제본을 마친 몰몬경 초판본이 그랜딘의 인쇄소 1층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갈색 송아지 가죽으로 단단히 장정된 이 책은 가죽과 풀, 종이와 잉크 냄새를 풍겼다. 그리고 책등에는 금색 활자로 몰몬경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14]

루시 스미스는 새로 나온 경전을 더없이 소중하게 여겼다. 그녀에게 이 책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시고, 고대에 주셨던 성약을 회복하실 증표였다. 표제지에는 이 책이 나온 목적이 나와 있었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축복을 선사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온 세상에 명백히 전하는 것이었다.[15]

그 책 뒷부분에는 세 사람의 증인과 여덟 사람의 증인이 남긴 간증이 수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직접 금판을 보았고, 그 번역이 참됨을 안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내용이었다.[16]

이러한 간증에도 불구하고 몰몬경을 허구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루시는 알고 있었다. 많은 이웃들은 경전은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고 믿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민족을 당신의 말씀으로 축복하셨음을 깨닫지 못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오래전에는 세상을 향해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믿음으로 몰몬경을 거부했다.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팔마이라에서는 몰몬경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17] 그러나 몰몬경을 읽고 그 가르침에 담긴 힘을 느끼고서, 주님께 무릎 꿇고 그것이 참된지를 알기 위해 기도로 간구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루시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다. 그녀는 세상 사람들에게 몰몬경을 알려 주고 싶었다.[18]

몰몬경이 출판되자, 조셉과 올리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조직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몇 달 전에는 침례 요한이 약속한 대로 고대에 주님의 사도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 조셉과 올리버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했다. 그 권세를 통해 이제 조셉과 올리버는 자신들이 침례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성신의 은사도 줄 수 있었다. 또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두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성임했다.[19]

그 무렵 휘트머 가족의 집에 머물고 있던 조셉과 올리버는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에 대해 더 배우기 위해 주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서로를 교회의 장로로 성임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먼저 신자들이 그들을 구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로서 따르겠다는 동의를 해야만 했다. 주님께서는 그 외에도 교회의 다른 역원들을 성임하고 침례받은 이들에게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라고 명하셨다.[20]

13.Chamberlin, Autobiography, 4~11. 14.Copyright for Book of Mormon, June 11, 1829, in *JSP*, D1:76~81; John H. Gilbert, Memorandum, Sept. 8, 1892, photocopy, Church History Library; "Book of Mormon," *Wayne Sentinel*, Mar. 26, 1830, [3]. 일부 부수는 양가죽으로도 제본되었다. 15.Title Page of Book of Mormon, circa early June 1829, in *JSP*, D1:63~65; 또한 Lucy Mack Smith to Solomon Mack, Jan. 6, 1831, Church History Library 참조 16.Testimony of Three Witnesses, Late June 1829, in *JSP*, D1:378~82; Testimony of Eight Witnesses, Late June 1829, in *JSP*, D1:385~87. 17.Tucker, *Origin, Rise, and Progress of Mormonism*, 60~61. 18.Lucy Mack Smith to Solomon Mack, Jan. 6, 1831, Church History Library 참조. 19.Joseph Smith History, circa Summer 1832, 1, in *JSP*, H1:10; 교리와 성약 27:12~13 (Revelation, circa Aug. 1830, in Doctrine and Covenants 50:3, 1835 edition, at josephsmithpapers.org); Oliver Cowdery to Phineas Young, Mar. 23, 1846, Church History Library; "Joseph Smith Documents Dating through June 1831," in *JSP*, D1:xxxvii~xxxix; 또한 Cannon and others, "Priesthood Restoration Documents," 163~207 참조. 주제: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20.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27, in *JSP*, H1:326~28 (draft 2).

1830년 4월 6일, 조셉과 올리버는 주님의 계명에 따라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고자 휘트머의 집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법률에 따라 신생 교회의 첫 번째 회원이 될 여섯 사람을 선택했다. 집 안팎에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사십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21]

주님께서 이전에 지시하신 대로, 조셉과 올리버는 회중에게 자신들을 하나님 왕국의 지도자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교회를 조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의사를 표시해 달라고 했다.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동의했고, 조셉은 올리버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그를 교회의 장로로 성임했다. 그런 다음에는 자리를 바꿔서 올리버가 조셉을 성임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빵과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는 성찬을 집행했다. 또한, 그들은 침례받은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하며 성신의 은사를 주었다.[22] 주님의 영이 그곳에 쏟아부어졌다. 어떤 이들은 예언을 말하고, 또 어떤 이들은 주님을 찬양했다. 사람들은 모두 함께 기쁨을 느꼈다.

조셉은 새로운 교회 전체에 주는 첫 번째 계시를 받았다. 주님은 백성들이 성스러운 역사를 기록하여 그들이 하는 일을 기록으로 보존하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조셉의 역할을 증언해야 한다고 일깨우시며 이렇게 명하셨다. "보라, 너희 가운데 계속해 나가는 기록이 있을지니,

그에게 내가 영감을 주어 선을 위하여 큰 권능으로 시온의 대업을 밀고 나아가게 하였고,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23]

모임이 끝난 후, 조셉은 물가에 서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 침례받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진리를 찾고자 여러 해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마침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조셉 일세가 물에서 나오자, 조셉은 그의 팔을 부축하여 둑 위로 올리고는 아버지를 껴안았다.

조셉은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먹였다. "오, 하나님. 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에서 침례받는 것을 보게 되다니 이제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24]

그날 저녁, 조셉은 조용히 집에서 빠져나와 가까운 숲으로 향했다. 그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조셉은 친구와 가족의 눈을 피해 혼자 있고 싶었다. 첫번째 시현을 본 후로 십 년 동안, 그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을 느꼈으며, 천사의 가르침을 받았다.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고, 은사를 잃은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얻었으며, 그분의 권능과 은사로 몰몬경을 번역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회복하셨고, 고대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신권을 조셉에게 주셨다.[25] 조셉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그날 밤 조셉 나이트와 올리버가 숲으로 왔을 때, 조셉은 그곳에서 흐느껴 울고 있었다.

그는 충만한 기쁨을 느꼈다. 바야흐로 하나님의 사업이 시작되었다.[26]

21.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7, in *JSP*, H1:364 (draft 2); Stevenson, Journal, Dec. 22, 1877; Jan. 2, 1887; An Act to Provide for the Incorporation of Religious Societies (Apr. 5, 1813), *Laws of the State of New~York* (1813), 2:212~19. 주제: 그리스도 교회의 창립 모임 22.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7~38, in *JSP*, H1:364~71 (draft 2). 23.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7, in *JSP*, H1:366; 교리와 성약 21편 (Revelation, Apr. 6, 1830, at josephsmithpapers.org); "History of Joseph Smith," *Times and Seasons*, Oct. 1, 1842, 3:928~29. 24.Lucy Mack Smith, History, 1844~45, book 9, [12]; Knight, Reminiscences, 8; 또한 Bushman, *Rough Stone Rolling*, 110 참조. 25.Joseph Smith History, 1838~56, volume A~1, 38, in *JSP*, H1:372 (draft 2); Joseph Smith, "Latter Day Saints," in Rupp, *He Pasa Ekklesia*, 404~5, in *JSP*, H1:506. 26.Knight, Reminiscences, 7.